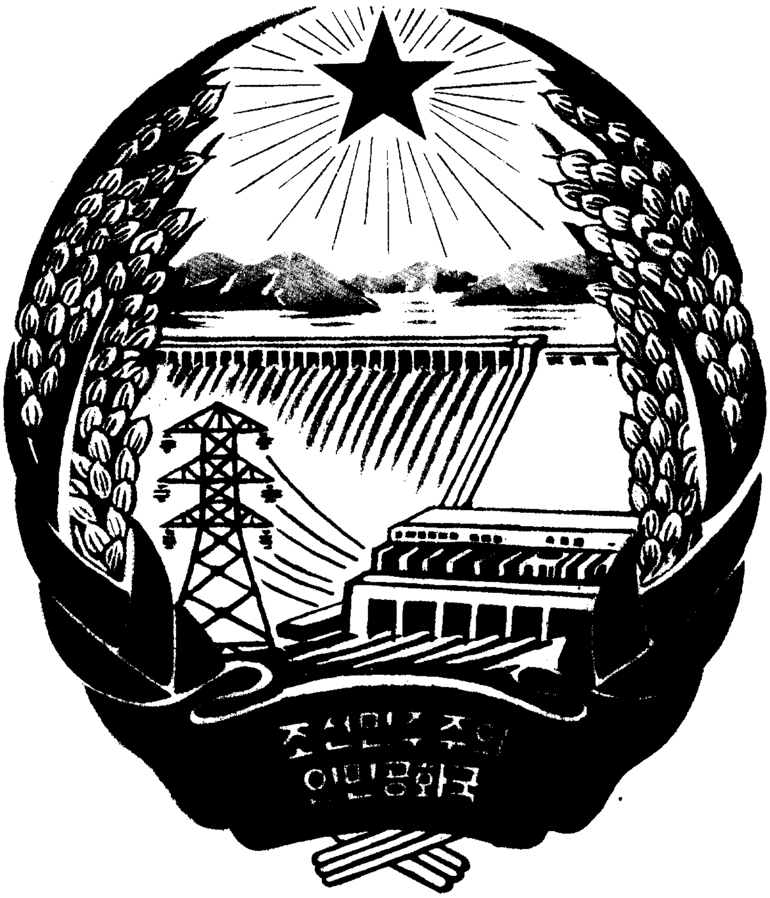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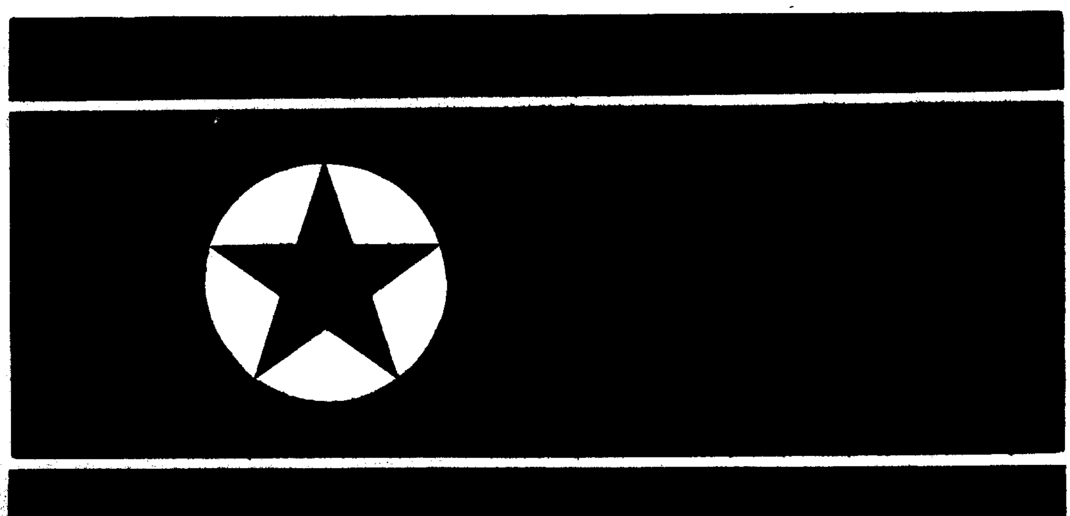
조선 중앙 년감

1965

조선 중앙 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전체 협동 농민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이여! 알곡 생산을 계속 증대하며 그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공예, 유지 작물, 채소, 축산, 과수, 잠업 등 금년도 계획에 예견된 생산 과제를 지표·월별로 어김 없이 초과 수행하라!

로동신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제 57 호【루계 제 6035 호】 1964년 2월 26일 (수요일)

오늘 호의 주요 내용

△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제 1~4 면)
△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개막 (제 1 면)
△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제 5 면)
△ 미제를 몰아 내고 불행의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제 6 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김 일 성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 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 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 동맹의 강화가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와 농촌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 문제는 과거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하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

농민은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선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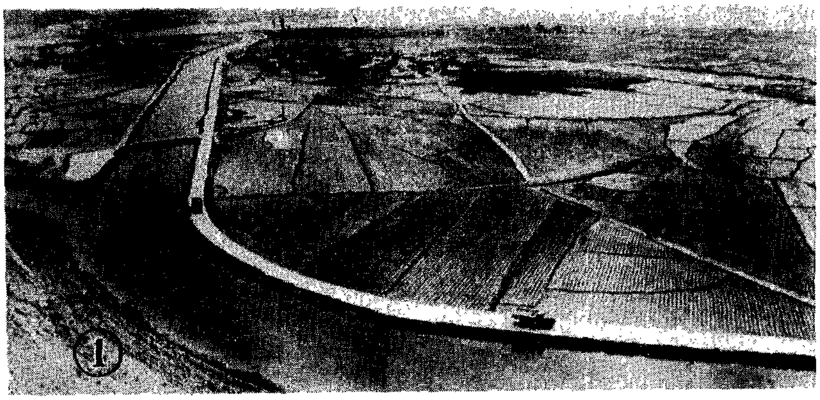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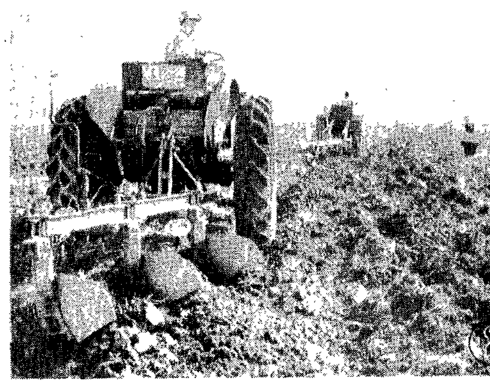
보다 사상 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 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과도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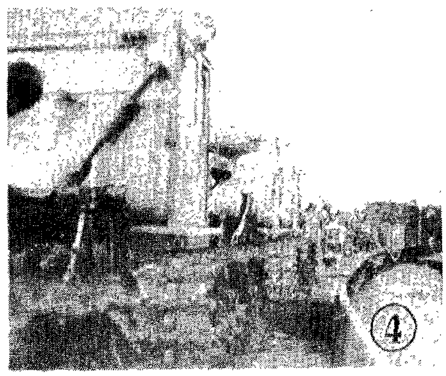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강화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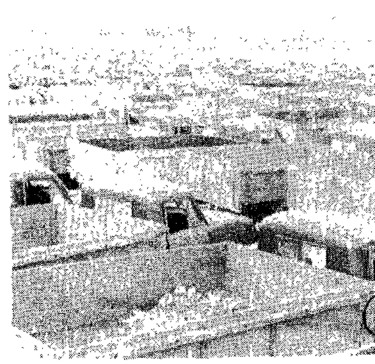
2.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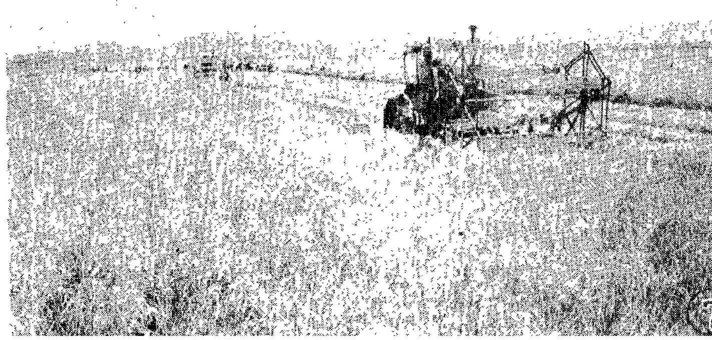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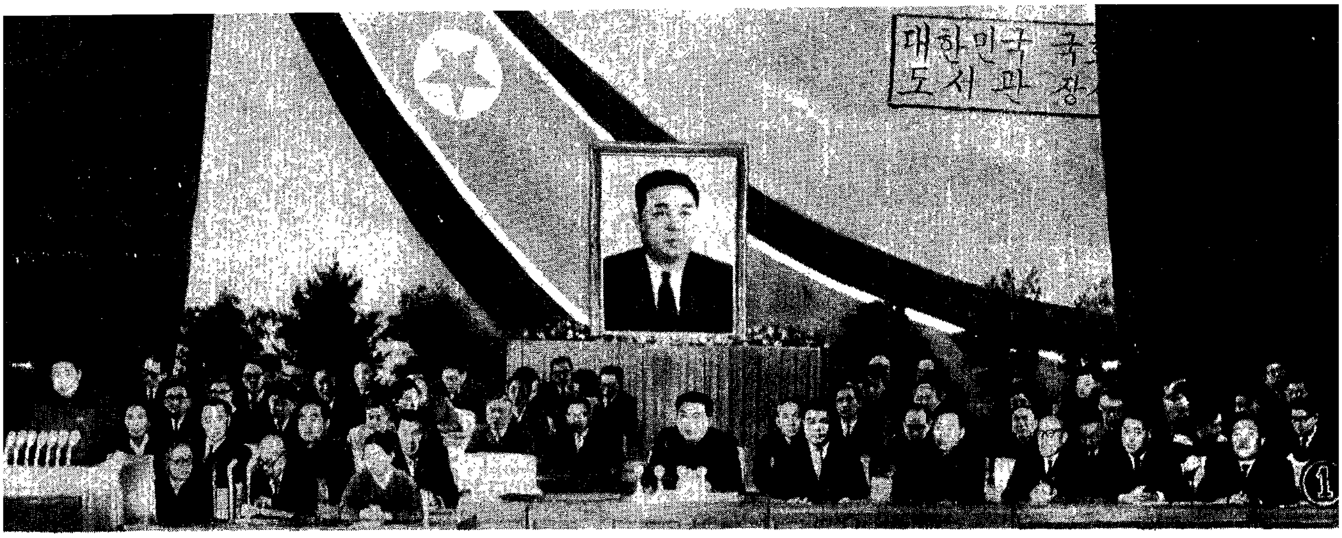




① 수리화가 완성된 농촌 전야 ② 뜨락또르로 논밭을 갈아 엎는다 ③ 더 많은 전동기를 사회주의 농촌에로 ④ 련'이어 농촌으로 떠나는 뜨락또르 ⑤ 농촌으로 보내질 화물 자동차의 대렬 ⑥⑦ 기계화된 전야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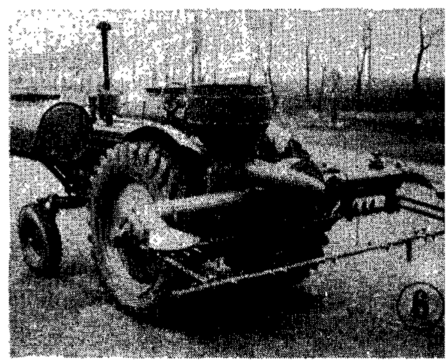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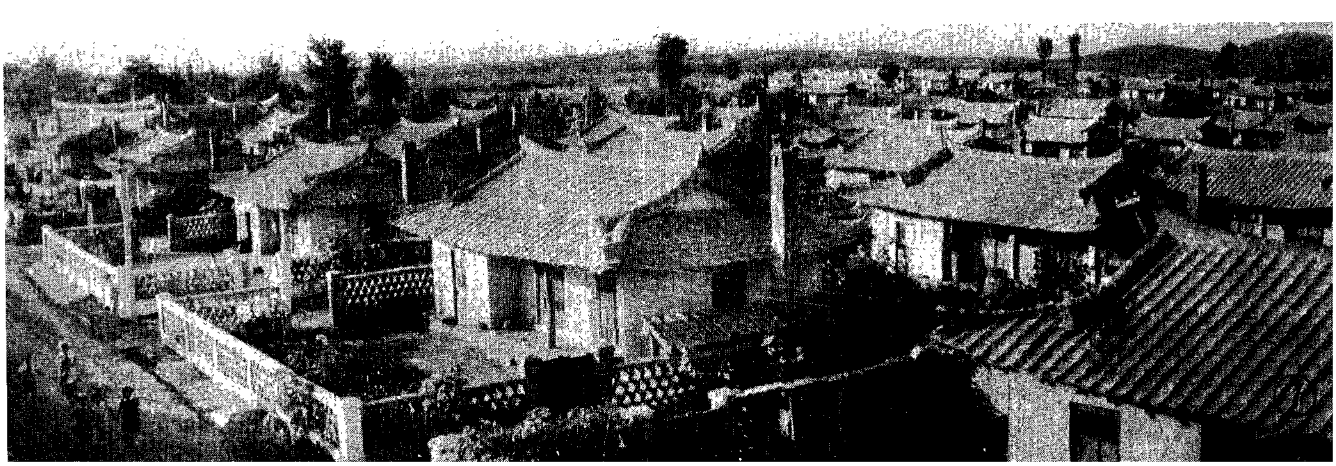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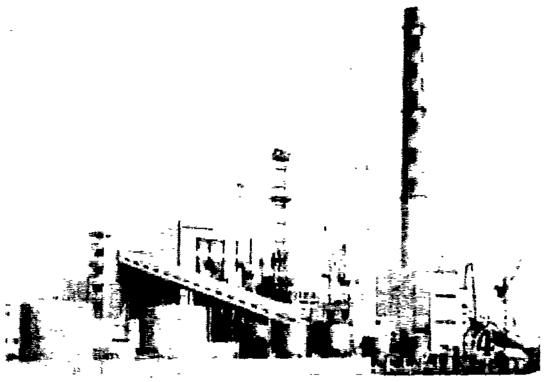
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관철을 위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3. 26~28) ②③ 농촌의 화학화를 위해 다량 생산되는 화학 비료와 농약 ④ 계속 출하되는 100 마력 열구 기관 ⑤ 사료 분쇄기의 조립 ⑥ 만능 약제 살포기 ⑦ 협동 마을의 아담한 문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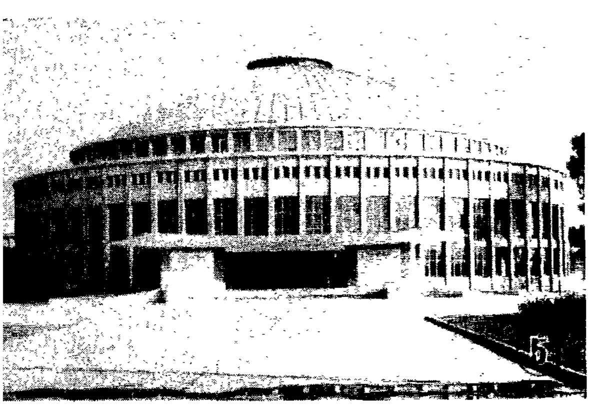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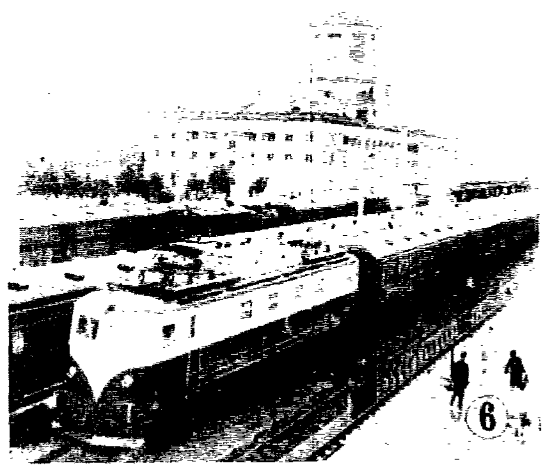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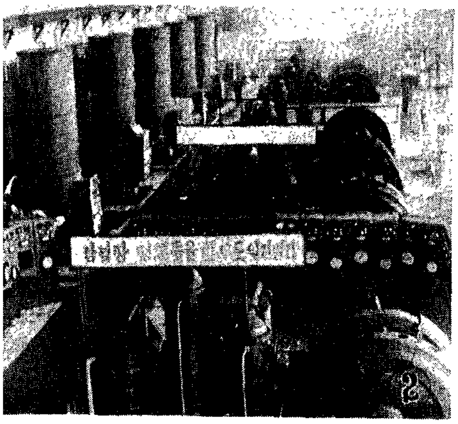


① 강계 청년 발전소 조업식에서 테프를 끊는 김 일성 수상 (4. 29) ②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 (5. 12~16) ③ 청수 화학 공장의 새로운 위미선 화학 제품의 생산 및 정유 계통 (2. 4 조업 개시) ④ 천리마의 속도로 건설된 평양 화력 발전소 ⑤ 현대적 시설을 갖춘 극장 ⑥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 개통 (8. 26) ⑦ 거대한 위미선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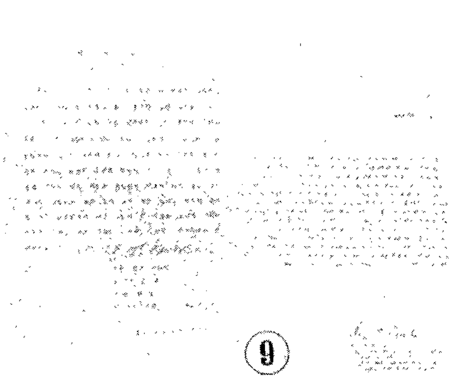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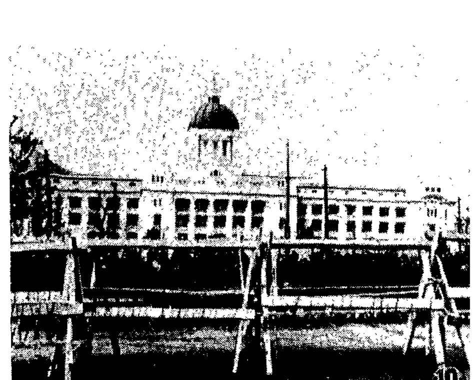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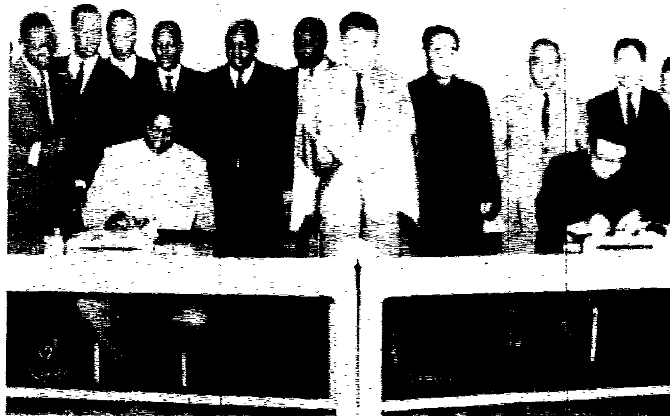
①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 방직 공장 종업원 집회 (1. 22) ② 남녘 땅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일념에 불타는 공화국 북반부 근로자들의 증산 열의 ③ 도꾜 올림픽 대회를 구경하러 갔다가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 입북한 최 찬일은 어머니를 만났다(11. 14) ④⑤⑥⑦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여 또다시 4월의 광장으로 떨쳐 나온 서울의 청년 학생들 ⑧⑨ 공화국 북반부 령공에 침입했다가 나포된 비행사를 인수하기 위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문건에 서명하는 군사 정전 위원회 미국 측 대표와 인수증 (5. 16) ⑩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 앞에서 떨고 있는 괴뢰 도당의 아성—《중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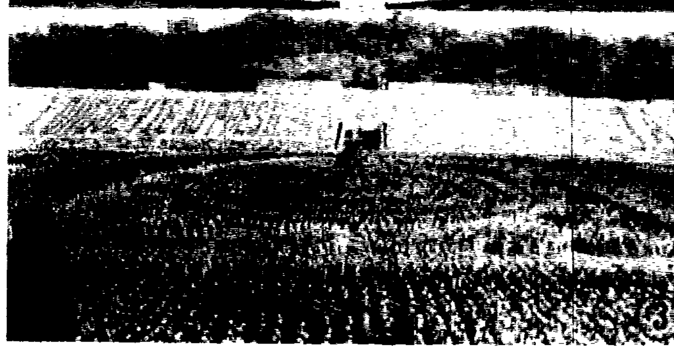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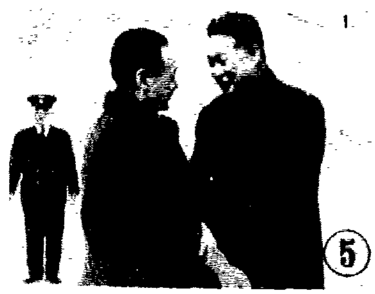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래방 (10. 23—28)—① 비행장 도착 ② 공동 콤뮤니케 조인 ③ 평양시 환영 군중 대회에 뒤'이어 진행된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의 한 장면

④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 래방 (3. 12) ⑤ 일본 공산당 대표단 래방 (3. 27) ⑥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궐기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3. 25) ⑦ 인도네시아 공산당 친선 대표단 래방(4. 27)

⑧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와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간의 공동 성명 조인 (7. 25 평양) ⑨ 로므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당 및 정부 대표단 출발 (8. 13) ⑩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7. 20) ⑪ 베네수엘라 공산당 대표단 래방 (9. 7) ⑫ 가나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 래방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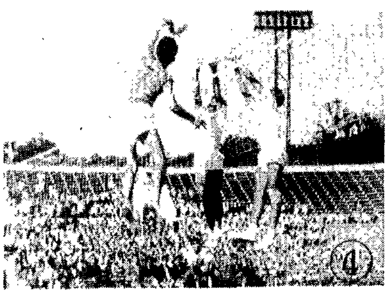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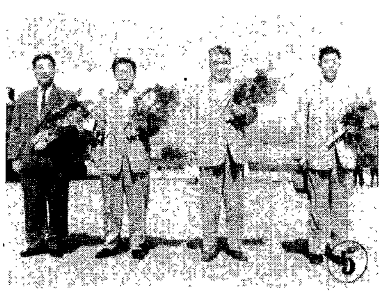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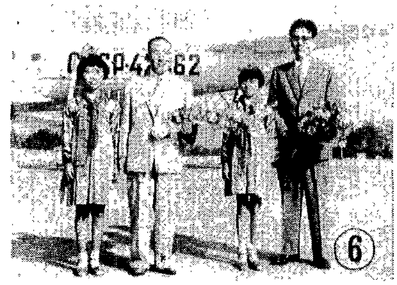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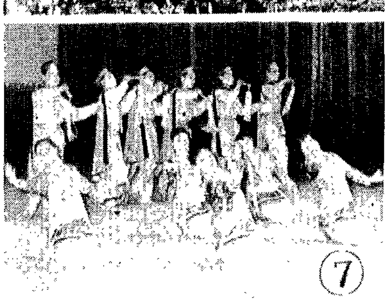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의 래방 (11. 1—4) —① 비행장에서 김 일성 수상 환영 연설 ② 숙소에서 친선적 담화를 교환하는 김 일성 수상과 수카르노 대통령 ③ 평양시 환영 군중 대회에 뒤'이어 진행된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의 한 장면

) 캄보쟈 남자 배구 선수단 래방 (9. 4) ⑤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당 및 정부 대표단 출발 . 29) ⑥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출발 (9. 30) ⑦ 라오스 애국 전선당 예 단 래방 (10. 9) ⑧ 꽁고(브) 국회 대표단 도착 (10. 27) ⑨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당 및 부 대표단 귀국 (11. 13) ⑩ 알바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당 및 정부 대표단 출발 (11. 22) ⑪ 꾸바 사 주의 혁명 통일당 친선 대표단 래방 (11. 17) ⑫ 꾸바 해방 6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당 대표단 귀국 (1965.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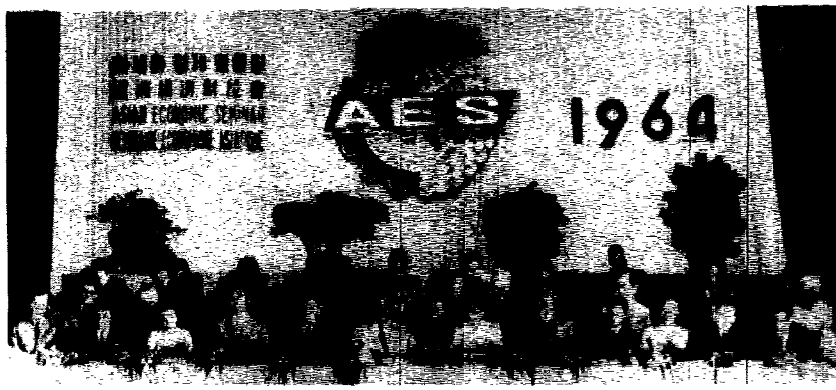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의 아세아 아프리카 친선 방문—① 까히라(아련)에 노착, 나쎄르 대통령의 출영 (11. 21) ② 아스남(알제리) 혁명 렬사 유자녀 학원 방문 (11. 28) ③ 바마코(말리) 도착,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출영 (12. 2) ④ 공동 콤뮤니께 조인 후 **세쿠 투레 대통령** (기네)과의 악수 (12. 10) ⑤ 캄보쟈 국회 량원 특별 합동 회의에서 연설 (12. 16),

아세아 경제 토론회(6. 16—23)—⑥⑦ 주석단과 회의장.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아세아 나라 방문—⑧ 수카르노 대통령을 의례 방문 (4. 6) ⑨ 캄보쟈 [illegible] 의례 방문 (4. 20) ⑩ 쎄일론 사회계 인사들과의 모임 (4. 29) ⑪ 중화 인민 공화국 류 소기 주석을 방문 (5. 13)









차 례

문 헌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1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5
5. 1절을 기념하며 강계 청년 발전소의 조입을 경축하여 강계에서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22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23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을 위하여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34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기념하여 공화국 내각이 신의주에서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35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을 환영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37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부인을 위하여 배설한 환영연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37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을 환송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39
김 일성 수상께서 주 은래 총리에게 회답 서한(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여)……………39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환영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40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위하여 배설한 환영연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40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이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42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환송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43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44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성명 ……………………………………………44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성명(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죄행에 대하여)………4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법령(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5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남조선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59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미제가 라오스 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조작하고 라오스에 엄중한 사태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6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결정(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 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6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6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광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

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64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고함(남조선에서의 미국 군대의 만행에 대하여)………………65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7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일층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7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웰남 문제 해결을 위한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79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미제와 그 주구들의 소위 《랍북 인사 송환 운동》을 규탄하여)………………………………………8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8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83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8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86
콩고(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87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89
조선 알제리 공동 콤뮤니케…………………90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남조선 괴뢰 도당이 조국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향을 억누르고 소위 《유엔 감시》라는 구실하에 조국 통일의 길을 계속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92
최 용건 위원장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94
조선—기네 공동 콤뮤니케…………………96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9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의 공동 성명……………………………98
아세아 경제 토론회—평양 선언……………99

서 술

국 내

지 리……………………………………………101
정 치…………………………………………105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를 위하여……105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심화 발전…………………………………………106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길을 따라……………………………107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심화 발전…………………………………………………108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109
국가 기관……………………………………113
정당, 사회 단체……………………………116
대외 관계……………………………………122
청진 관계……………………………………130
경 제…………………………………………136
공 업…………………………………………137
전력 공업 …………………………………137
석탄 공업 …………………………………138
광 업…………………………………………139
금속 공업……………………………………140
기계 제작 공업……………………………141
화학 공업 …………………………………142
건재 공업 …………………………………143
경공업………………………………………144
림 업…………………………………………146
수산업………………………………………147
농 업…………………………………………148
농 산…………………………………………151
축산업………………………………………152
과수업………………………………………153
잠 업…………………………………………153
교통 운수 …………………………………154
체 신…………………………………………156
기본 건설 …………………………………157
상 업…………………………………………159
무 역…………………………………………160
재 정…………………………………………161
금 융…………………………………………162
로 동…………………………………………164
물질 문화 생활………………………………166
교 육…………………………………………167
과 학…………………………………………170
문학 예술……………………………………171
문 학…………………………………………171

영 화 …… 174
연 극 …… 176
음 악 …… 177
무 용 …… 178
미 술 …… 178
군중 문화 …… 179
보 건 …… 188
체 육 …… 189
출판 보도 …… 192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 196

정 치 …… 196
미제 식민지 통치의 위기의 심화 …… 196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 …… 199
경 제 …… 204
산 업 …… 207
농 업 …… 210
수산업 …… 213
재정, 금융 …… 213
외 화 …… 219
증 권 …… 220
통 화 …… 221
물 가 …… 222
《원 조》 …… 223
외국 자본 …… 225
무 역 …… 227
군 사 …… 229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병력 및 장비 증강 …… 229
긴장 상태의 격화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의 강화 …… 230
괴뢰군 장병들의 동향 …… 231
사 회 …… 232
문 화 …… 247
교 육 …… 247
언론 출판 …… 249
문화 유물 …… 251
문학 예술 …… 251

재일 조선 공민 …… 255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 …… 255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 256
1964년 총련의 애국 사업 …… 257

국 제

1964 년도 국제 정세 개관 …… 262

아세아주 …… 272

중 국 …… 272
몽 골 …… 277
웰 남 …… 279
남부 웰남 …… 281
라 오 스 …… 284
캄보쟈 …… 286
일 본 …… 288
오끼나와 …… 293
필 리 핀 …… 293
북부 칼리만탄 …… 294
사라와크 …… 295
북부 보르네오 …… 295
브루네이 …… 295
인도네시아 …… 295
타 이 …… 299
말라이 련방 …… 300
싱가포르 …… 301
버 마 …… 302
네 팔 …… 303
부 탄 …… 304
시 킴 …… 305
인 도 …… 305
파키스탄 …… 308
쎄 일 론 …… 309
말디브 …… 311
아프가니스탄 …… 311
이 란 …… 312
이 라 크 …… 313
수 리 아 …… 315
레 바 논 …… 316
요 르 단 …… 317
이스라엘 …… 318
쿠웨이트 …… 318
사우디 아라비아 …… 319
바레인 제도 …… 320
카타르 …… 320
오 만 …… 320
예 멘 …… 321
아 덴 …… 322
토 이 기 …… 323
끼쁘로스 …… 324

아프리카주 …… 326

아랍 련합 공화국 …… 326
수 단 …… 329
리 비 아 …… 331
뜌 니 지 …… 331
알 제 리 …… 332

마 로 고……335
이 프 니……337
에스빠냐령 사하라……337
모리따니……337
말 리……338
세 네 갈……339
감 비 아……340
뽀르뚜갈령 기네……341
베르데갑 제도……342
기 네……342
시에라 레온……344
리베리아……344
상아 해안……345
상부 볼따……346
가 나……346
또 고……348
다 오 메……349
나이제리아……349
니 제 르……351
챠 드……351
까 메 룬……352
중앙 아프리카……353
에스빠냐령 기네……353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353
가 봉……354
꽁고(브)……354
카빈다……356
꽁고(레)……356
우 간 다……358
부 룬 디……359
르 완 다……360
에티오피아……361
소말리아……361
프랑스령 소말리아……363
케 니 아……363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364
모잠비크……367
잠 비 아……367
말 라 위……369
짐바브웨……369
앙 골 라……370
서남 아프리카……372
쎈트 헬레나도……372
베추아날랜드……372
남 아프리카 공화국……373
스워질랜드……374
바수톨랜드……374
모리샤스도……375
세이셸 제도……375
레유니옹……375
말 가 슈……375

구라파주……376

쏘 련……376
뽈스까……380
체스꼬슬로벤스꼬……382
웽그리아……385
로므니아……386
벌가리아……388
알바니아……390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392
서부 독일……395
유고슬라비아……397
오지리……399
희 랍……399
핀 란 드……400
스웨리예……400
노르웨이……401
이슬란드……401
영 국……402
아일랜드……404
단마르크……404
화 란……405
벨 지 끄……405
룩셈부르그……406
프 랑 스……406
스 위 스……409
이딸리아……409
바 티 칸……410
싼 마리노……410
리히텐스타인……410
모 나 코……411
안 도 라……411
에스빠냐……411
뽀르뚜갈……411
말 타……412

미 주……413

카 나 다……413
미 국……413
메 히 꼬……420
과떼말라……421
살바도르……423
온두라스……423
영령 온두라스……423
니까라과……423
꼬스따리까……424
빠 나 마……424
꾸 바……426

하 이 티……………………………………430
도미니카……………………………………431
자마이카……………………………………432
뿌에르또 리꼬……………………………432
트리니다드—또바고……………………433
베네수엘라…………………………………433
영령 기아나………………………………436
화란령 기아나……………………………437
프랑스령 기아나…………………………437
브 라 질……………………………………438
꼴롬비아……………………………………439
에쿠아도르…………………………………440
뻬 루………………………………………441
볼리비아……………………………………443
빠라과이……………………………………444
우루과이……………………………………444
아르헨띠나…………………………………446
칠 레………………………………………447

대양주 및 량극……………………………449

오스트랄리아………………………………449
뉴질랜드……………………………………449
서부 사모아………………………………450
남 극………………………………………450
북 극………………………………………452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453

국제 련합 기구 (유엔)…………………453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와르샤와 조약)………………………………454
아랍 련맹…………………………………454
아프리카 통일 기구……………………455
북대서양 조약 기구……………………456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세아토)………457
중앙 조약 기구…………………………458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안쥬스) 리사회……………………………………459
미주 국가 기구…………………………459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460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461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461
아세아 경제 토론회……………………461
구라파 《공동 시장》……………………462
구라파 자유 무역 련합…………………463
세계 평화 리사회………………………463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464
국제 기자 동맹…………………………465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465
국제 건축가 동맹………………………465
국제 방송 및 텔레비죤 기구……………465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466
세계 직업 련맹…………………………466
세계 민주 청년 련맹……………………467
국제 학생 동맹…………………………467
국제 민주 녀성 련맹……………………468
국제 올림픽 위원회……………………469
가네포 련맹………………………………470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470
제 10 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471
1964년 베이징 과학 토론회……………471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472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472

자 료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 주요 년표………473
인민 경제 통계……………………………477
사회 총생산액의 장성……………………477
사회 총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477
국민 소득의 장성…………………………477
국가 예산 수입의 장성…………………477
국가 예산 지출의 장성…………………478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478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478
공업 총생산액의 년 평균 장성 속도…479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의 장성…479
농가 호당 분배 몫의 장성………………479
농업 기업소 수…………………………479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479
관수한 면적의 장성……………………479
뜨락또르, 자동차 대수 및 그 작업량…479
농촌 전기화………………………………480
농촌 부문의 전화 및 방송 시설………480
축산물 생산량의 장성…………………480
운수 수단의 장성………………………480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480
체신 업무량………………………………481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481
주택 건설…………………………………481
종업원 수…………………………………481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의 장성…481
기술자, 전문가 수의 장성………………482

천리마 작업반 수의 장성……………………482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482
주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482
무역 총액의 장성………………………………483
수출품의 류별 구성……………………………483
수입품의 류별 구성……………………………483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원 수…………………483
일하면서 배우는 종업원 수…………………484
문화 시설…………………………………………484
보건 시설 및 의사 수…………………………484
1964년에 체결한 협정 및 조인한 문건……………………………………………………486
1964년도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대표단 래왕 일람표………………………………………487
우리 나라 무역 촉진 단체 및 무역 기관……………………………………………………499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 기구……………501
남조선 인민 투쟁 주요 일지………………504
남조선 통계 자료………………………………507
《환률》의 인상……………………………………507
화폐 발행고 증대 및 통화 팽창 동태…507
괴뢰 정부 식량 수급 계획에서 본 기근…507
주택 부족 수의 증가……………………………508
1963년 말 도별 주택 부족 수………………508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 저하…………………508
실업자 및 반 실업자의 증대………………509
계층별 농가 호당 부채액……………………509
절량 농가 증대……………………………………509
변사자 증가 정형…………………………………510
원인별 변사자 수…………………………………510
교통 사고……………………………………………510
풍수로 인한 피해…………………………………510
화재로 인한 피해…………………………………511
폭발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511
국민 학교 부족 교실 수…………………………511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사망자 수……………512
각종 범죄 발생의 장성…………………………512
내용별 범죄 건수…………………………………512
소년 풍기 동태……………………………………512
미신업자의 증가…………………………………513
기아 발생의 증가…………………………………513
《한일 회담》 주요 일지…………………………513
기상 개관……………………………………………517
국내 주요 일지……………………………………520
남조선 주요 일지…………………………………532
재일 조선 공민 주요 일지………………………539
국제 주요 일지……………………………………542
각국 면적, 인구 및 수도………………………558
태양, 지구, 달의 행성표…………………………561
체육 세계 기록……………………………………561
시 차 표……………………………………………565
조선 지도 (앞 면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장 및 국기
사 진
동남 아세아 지도…………………………………262
아세아주 지도……………………………………273
끼쁘로스 지도……………………………………325
아프리카주 지도…………………………………327
콩고(레) 지도……………………………………357
구라파주 지도……………………………………377
북미주 지도…………………………………………414
빠나마 지도…………………………………………425
남미주 지도…………………………………………434
대양주 지도…………………………………………448
북극 지도……………………………………………451
남극 지도……………………………………………451
세계 력량 관계도 (뒤 면지)

문 헌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 인민이 더 큰 승리를 달성하며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희망찬 새해—1964년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은 지난 1963년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면서 더욱 광명한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공업 생산은 계속 급속히 장성하고 공업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습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며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여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중공업 부문들에서 공장 설비들이 정비 보강되였으며 생산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상한 열성과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명의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 경리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하였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중앙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제품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습니다.

나는 공업, 운수, 건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 또다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따라 수 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에 진출하고 농업에 대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공고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논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토지와 농작물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62년 영농기에 우리 나라의 전체 논 면적이 54만 정보였는데 지난 봄에는 그것이 58만 정보로 늘어 나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64만 정보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3년 한 해 동안에만도 4,000 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농기계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공급되였습니다. 지난해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이미 전기가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3년 내에 전기가 들어 가지 않은 농촌이나 농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이 제고됨으로써 농촌에서 선진 영농 기술이 더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모든 영농 작업이 제때에 훌륭히 수행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도 기후 조건은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 생산에서 류례 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곡 총 수확고가 장성하고 특히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대된 결과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풍작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

확한 농업 정책과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입니다.

나는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근면한 협동 농민들과 농기계 작업소, 국영 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문화 혁명의 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은 대담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경락 계통의 발견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 피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 올린 과학자, 교육자, 보건 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문화 전선의 모든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류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만발하고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자랑하며 보람찬 사회주의 새 생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전투적 기개와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훌륭한 앞날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정열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있는 전체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 안전원, 로농 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는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남조선 형제들과 함께 나누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이 갈 수록 더욱 심하여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만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선거극을 연출하고 마치도 《새 정권》이 남조선의 파국 상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북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입니다.

박 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은 입으로는 《자주, 자립》을 떠들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굴종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있으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정희 도당은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조선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이려고 온갖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에 불과한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괴뢰 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 자립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농업 지대와 북조선의 공업 지대를 결합시키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힘을 합하여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강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기업가, 상인들과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남녘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쫓겨 날 것이며 전 민족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북반부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공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총련의 지도 밑에 재일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혁명 동지들과 벗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 전선에 련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꾸리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은 우리의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이미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활짝 꽃피게 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직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색갈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각종 직물들을 더 많이 짜 내며 직물 생산에서 고급 직물과 겨울용 직물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금속 제품, 전기 용품, 목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편리하게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장, 기름, 두부를 풍족하게 생산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실과, 채소, 수산물, 산채와 산열매 등을 더 잘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대규모 경공업 공장, 지방 산업 공장, 생활 필수품 직장들에서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다 동

원하여 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 연구 사업과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다종 다양한 상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온갖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논밭에 관수 체계를 수립하며 그 중 논 면적을 1~2년 내에 70만 정보에 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농경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부단히 개량하고 정리하며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을 광범히 도입하여 밭농사에서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고원 지대의 농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로선입니다. 금년에 국가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농기계와 화학 비료, 농약을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농촌 전기화에 계속 힘 쓸 것입니다. 협동 농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화학 비료를 더 효과적으로 시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고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 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밭갈이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농 작업을 제때에 잘 하여야 합니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은 영농 기술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발농사에 더 적합한 종자를 얻기 위하여 종자 개량 사업과 채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논밭에서 정보 당 알곡을 500 키로그람 이상 증수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벼의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곡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민이 다 이밥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발전시켜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며 공예 작물 생산도 계속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 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으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주어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에서 자체로 진행하던 기본 건설 사업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협동 농장들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며 농업 현물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의 중심 과업은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에 계속 살을 붙이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여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위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과 석탄 채굴량을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발전소 건설 공사들을 촉진시키고 중소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며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 혁명의 수행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철도의 전기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확고하게 견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며 부화와 안일, 권태증을 배격하고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명랑하게 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질 것입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또다시 빛나는 공훈을 세우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녀 로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더욱 큰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김 일 성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 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 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 동맹의 강화가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 문제는 과거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 하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 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중요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농촌 문제는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 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는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농촌 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에 있어서는 농촌 문제가 그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장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였다. 우리의 농촌 사업은 응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사업에서 반드시 세 개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세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만일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 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도시 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 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

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 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 잔여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에서 표현된다.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 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 준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 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되며 사상 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 날 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장기간에 걸치는 인내성 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사상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 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리 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강화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발생과 공고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방조 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 갈 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은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 농민 경리 때에는 주로 매개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후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 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 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여야만 농촌 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 지출은 전 사회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 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농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 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 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심중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장악하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 주며 락후하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하여 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힘을 증대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축소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 수 있으며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이다.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동시에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여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 수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경제 관리 수준과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의 지도 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정확한 호상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반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

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 협동 경리를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 장비가 약할 뿐 아니라 기술 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 있다. 개인 농민 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였으나 이 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기술 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 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바로 이것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 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 방향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 협동 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문화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협동 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 인민적 소유(공업)와 협동적 소유(농촌 경리)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 경제적 처지,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호상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 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 경리 제도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에 적합한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 경리 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협동 경리 제도가 고정 불변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 소유도 발전하며 변화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 농민들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에 따라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 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채종 농장과 종자 처리장, 농사 시험장, 종축장과 수의 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의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만일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잘 보급할 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저하시키고 로농 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도 안 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에 큰

차이가 남아 있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 과업

우리 당은 농촌 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 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우리는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고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농촌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 준다.

오늘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당의 농촌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촉진하여야 한다.

1. 농촌 기술 혁명

농촌 기술 혁명은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기술 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거대한 힘을 돌렸다.

수리화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 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 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 토대를 축성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수재와 한재를 극복하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논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한재와 수재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공고한 농업 생산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홍수가 져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알곡 총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년 내에 논 면적을 70만 정보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관개 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 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관개 시설들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 년 동안 락후한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력사적 임무이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켜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급속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휴식할 뿐 아니라 학습과 문화 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수확과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 작업을 기계화하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밭갈이와 김매기, 수송 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년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뜨락또르 대수를 7만~8만 대(15 마력 환산으로), 자동차는 3만~3만 5,000대에 이르게 하며 기타 각종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서나 작물 구성과 경종 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광범히 창안 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 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는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 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2~3년 내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전기 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류동하지 않고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서 라지오 또는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며 각종 전기 용품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 경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 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300 키로그람에 달하였으며 그 품종 구성은 더욱 개선되였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다종 다양한 화학 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각종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700 키로그람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 톤 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 시비 체계를 확립하여 화학 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 과학의 성과와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며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이것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 영농 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 생산이다. 알곡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알곡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알곡 생산에서의 당면 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 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

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공고한 식량,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 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로 8시간 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 문화 혁명

농촌 문화 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 하여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 7 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농촌에 기술 학교가 광범히 설치되여 수 많은 농촌 청소년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 교육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 교육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초급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과 영농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 기술 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수년 내에 매개 협동 농장에 5 명 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 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 기술 학교들을 통하여 농촌 청년들 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내야 한다. 농촌 기술 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 보건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각종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이미 퇴치되였다. 모든 농촌 리에서 공동 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 많은 문화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각종 출판물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 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에 침체하고 불결하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 진료소들을 확장하고 완비하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 녀성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 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 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성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양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주택 건설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 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 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공급하며 모든 농촌 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생활 관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점차 기사, 기수의 수준에 끌어 올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 조건, 문화 후생 시설 기타 모든 문화 생활 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키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

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 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수호하며 더욱 공고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농민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 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다.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농촌에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 혁명이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촌 사업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 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고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리기주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사상이다. 농민들 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 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씨족 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 및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 교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긍정적 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 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 활동, 집단 로동을 통하여,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 생산 혁신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4. 농촌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 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토지 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

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당과 로동 계급의 령도,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의 막대한 물질 기술적 방조와 전체 인민의 지원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무한히 고무된 협동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 주도록 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년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 15.8%가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 돌려졌다. 국가는 또한 협동 농장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은 상환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건설 투자와 재정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 공사들과 치산 치수 사업이 진행되고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농촌 문화 건설이 광범히 실시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농약, 건설 재료와 각종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 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 현물세를 감면하며 공예 작물 수매 가격을 높이며 농기계 작업료, 관개 사용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 어린이들에게 의복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협동 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오늘 농촌 경리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과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리익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이미 축성된 조건 하에서 농촌에 능히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게 되였으며 또 응당 주어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 투자를 증가시키며 물질 기술적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공업 부문들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화학 비료, 건설 재료 등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여 있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장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 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 로력을 더욱 보충하여 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민들에게 각종 공업 상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며 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에 로동자, 제대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고 혁명가 유가족, 피살자 가족들을 고착시키며 핵심 대렬을 계속 확대하여 농촌 진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 조직,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과 그 일'군들이 농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에 더 큰 방조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 힘 있게 도와 줌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을 다 같이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 나아감으로써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며 장차로는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모든 생산 조건과 생활 조건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5.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은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는 첫 날부터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 방법,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보급은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지도 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 방법을 침투시키면서 당시 협동 농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기능을 수행하던 군 인민 위원회의 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 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 현실의 급속한 변화는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게 되였다. 협동 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급격히 증대되였다.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농촌 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농촌 경리 앞에는 더욱더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행정 기관으로서의 군 인민 위원회는 이미 농촌 경리를 원만히 지도할 수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 초에 새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 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이 개선되였을 뿐 아니라 군내 협동 농장들의 련계도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한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강화하고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의 과업은 경영 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를 능숙하게 지도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효과적인 방조를 주는 데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낡은 행정식 사업 방법을 완전히 퇴치하고 경영 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게 협동 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기술 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들의 모든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이다. 농업 생산도 공업 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 공정이다. 농촌 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 가며 생산 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 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기술자들을 옳게 동원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생산이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농업에서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 농민들과 사업하지 않고는 농촌 현실을 충분히 료해할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항상 현지에 나가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현실을 깊이 료해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자재들은 경영 위원

회의 직접적 관할 하에 있거나 또는 경영 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들어 간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가 효과 있게 실현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영 위원회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

경영 위원회는 군내 농촌 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관개 시설, 농기계, 화학 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국가 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 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관리하여 그것들이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경영 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회주의 경리로 만들어야 한다.

군 경영 위원회와 함께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및 중앙 농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과 국영 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방조하면서 도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작물 배치, 종자 선정, 시비 체계의 수립 등 기술적 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촌 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 경리의 전망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과 간부 양성 사업, 대규모의 자연 개조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지도 체계는 농업의 경영 관리를 선진적 공업 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 경리 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 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 지도 기관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 될 것이다.

3.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 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농촌 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여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는 농촌 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일하며 살고 있는 농민들이다. 농촌 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현저히 퇴치되였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하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 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되고 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 지도 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 간다. 군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 가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 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 소재지와 농촌 건설도 군 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 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련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운다.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거대한 역할은 곧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위치와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군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는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 앞에 나선 과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군 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데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군내 지방 공업의 역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매개 시, 군에 직물 또는 편직물 공장, 장유 공장, 가구 공장 등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 산업 공장들은 주로 지방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여러 가지 소비 상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각종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모든 군들에서는 이미 축성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의 원료 원천을 광범히 동원하여 가공하며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가공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 산업 공장들은 군내의 농촌 경리와 기타 부문들에 대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기지로 되여야 하며 높은 생산 문화와 선진적 기업 관리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과 기타 지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지방 공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또한 공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지방에 있는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협동 농장들은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채소, 축산물 등 식료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군은 군내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간에 밀접한 련계를 지어 주며 호상 방조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군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

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 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공급되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공급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하여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장성함에 따라 농민들은 질 좋고 다양한 공업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하고 농촌 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품 배정을 잘 하여 농민들에게 공업 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상업 기관들은 공업 기업소들이 농촌의 수요에 적합하게 제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업 생산이 장성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상품 생산물이 급속히 증가된다. 군은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하고 수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 생산물을 제때에 사 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산 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본질 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농촌 상업은 농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군 상업 기관과 수매 기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립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생활 봉사를 개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매개 농촌 리에 상점은 물론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 수리소, 합숙 등 각종 편의 봉사 시설들을 완비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모든 생활 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의 농촌 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 세포로 만들 뿐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 세포로, 훌륭한 봉사 세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군은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농촌의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도 주로는 군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 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 학교들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여 농촌 청소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군내의 농촌 청소년들에게 다 기술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군은 자체의 고등 기술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하여 농촌 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군은 군 병원과 농촌 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농촌 보건망을 확장하여 농촌에서의 보건 위생 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 문화 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 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 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며 농촌이 이를 따라 오도록 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으로 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표본으로 되여야 한다.

군은 농촌 건설대의 력량을 동원하여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 건설대는 군내 농촌의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을 책임적으로 담당 수행하여야 한다.

군이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때 군내 농촌 문화 혁명은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4.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

군당 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이며

군 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 위원회의 주되는 사업 대상은 농촌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의 농촌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군당 위원회가 지도하는 다른 부문들의 사업도 다 농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 위원회의 농촌 사업 지도를 계속 개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첫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건설, 농촌 문화 사업 등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군 인민 위원회 기타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 위원회는 경제 문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농촌에서의 경제 문화 사업을 옳게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당 위원회는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 집행 정형을 수시로 검열하고 통제하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농촌 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군당 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과 정치 사상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 당 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 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 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 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 농촌 당 세포들과 리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방조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자기의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간부 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도와 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농촌 간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전체 농촌 당원들이 농민 군중 속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전체 농민들이 당의 농촌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당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다 자각적으로 일하며 다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 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은 농촌 당 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농촌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 열성 농민들을 발동시켜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군당 위원회들이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군내의 전반적 농촌 사업에서 참모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4.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

전쟁의 페허 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로력과 축력도 부족한 비상히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된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산을 계속 확대하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자라 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과 가재 도구를 거의 다 잃어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 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였으

나 원래 우리 농장들이 너무나 빈약한 토대에서 조직되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유한 농장으로 되지는 못 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였으나 원래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유족하게 잘 살지는 못 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현저히 축소되였으나 과거에 우리 농촌이 너무나 락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못 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 축소시키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을 훨씬 더 장성시키는 동시에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어야 한다.

오늘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둘째로, 농촌 기본 건설에서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하던 것도 앞으로는 국가 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로,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는 것 등이다.

1.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토지 개혁의 실시에 뒤'이어 도입되였다.

해방 전에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 강제 공출 기타 가렴잡세로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였다.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도입됨으로써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략탈에서 해방되였으며 다만 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혁이였다.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이 발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여 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 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 주었다.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률은 전후에 와서는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며 일부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3,700 여 개의 협동 농장들 중 1963년 말까지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 받은 협동 농장 수는 1,331 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는 이 결정을 집행할 때가 되였다.

우리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 간에 걸쳐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물세를 이미 면제 받은 협동 농장들을 제외하고 2,400 여 개의 농장들이 현물세를 바치고 있다. 우리는 금년에 이 가운데서 800여 개의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고 1965년에 또 약 800 개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며 마지막 해인 1966년에 가서는 나머지 농장들까지 다 면제하여 주어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세의 면제는 매개 협동 농장들의 경제 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뒤떨어진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첫해에는 경제 토대가 비교적 약한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다음 해에는 중간 수준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비교적 부유한 농장들은 마지막 해에 면제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대책으로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을 온갖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2.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기본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기본 건설에서 대규모의 대상들은 모두 국가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소 규모의 대상들은 주로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다. 지난 5년 간에 농촌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 국가 투자가 60% 이상,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기본 건설도 금년부터는 국가 자금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구, 중소 농기계, 역축 등은 앞으로도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중 소 관개 공사, 하천 정리, 양수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의 건설과 전기 가설 등 기본 건설은 다 국가 자금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국가가 방대한 추가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협동 농장들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덜어 줌으로써 농장들로 하여금 영농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몫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 건설 투자액을 장성시키고 농촌 기본 건설을 더 계획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급속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수천 년 동안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다. 해방후 농촌 주택 문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혹심한 전쟁 피해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수 많은 새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농촌 건설대가 조직된 후 농촌 주택 건설은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은 이미 결정적으로 개선되였다.

농촌 주택 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부담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어야 한다.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 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이미 농촌 건설대가 지어 준 문화 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이와 같은 인민적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대책 외에도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방대한 국가적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로동 계급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으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로동자들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 운수,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민을 도와 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농민들을 백방으로 방조하여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도시 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 기지가 축성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은 농촌 경리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하여 증산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자들과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 축산물, 채소, 과실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이 장성하면 할수록 공업 발전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 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며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훌륭히,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 ※ ※

농촌 문제를 계속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과거에 락후하고 빈곤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 있게 성원하며 조국 통일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 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에게 세련된 맑스-레닌주의 당과 로동 계급의 강력한 주권이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

와 위력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나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같이 농촌 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5.1절을 기념하며 강계 청년 발전소의 조업을 경축하여 강계에서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자강도 근로자들과 함께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전투적 명절인 5.1절을 경축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5월의 명절에 제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과 도내 전체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자들의 영웅적 로동에 의하여 이 훌륭한 발전소가 조업하게 된 데 대하여 당신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금년은 자강도가 창설된 지 15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간에 자강도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강도 지방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산'골이였으며 이 곳 인민들은 우리 인민들 가운데서도 제일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강도의 면모와 도내 근로자들의 생활은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다.

자강도는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공업 지대로 되였습니다.

희천 공작 기계 공장과 강계 뜨락또르 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현대적 기계 제작 공장들이 건설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 창설된 기계 공업 기지는 우리 나라의 기술 혁명을 촉진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로강 발전소의 건설에 뒤'이어 오늘은 또 강계 청년 발전소가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운봉 발전소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계 청년 발전소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로동 계급과 청년 건설자들의 헌신적 로동으로 이루어진 또하나의 웅대한 창조물입니다.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발전소들이 계속 건설됨으로써 자강도는 우리 나라 전력 수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위력한 동력 기지로 되였습니다.

그리고 탄광과 광산들이 건설되여 풍부한 지하 자원을 광범히 개발하고 있으며 림업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시, 군들에 지방 산업 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습니다. 이 공장들은 도내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소비 상품을 생산 공급할 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까지 자강도의 특산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촌 경리에서는 원시적인 화전 농법이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선진적 영농 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였으며 농업 생산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빈농민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전체 농민들의 생활이 중농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강계시를 비롯하여 희천, 전천 등 도시들이 현대적인 문화 도시로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군 소재지, 로동자구들과 농촌들이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가장 궁벽한 곳이였던 랑림군 같은 데도 지방 공장들이 건설되고 교육 문화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농사도 잘 되는 문명한 지대로 변하였으며 인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였습니다.

자강도 내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였습니다.

오래 동안 가난에 쪼들리고 무지와 몽매 속에서 살아 온 이 지방 근로자들이 오늘은 현대적 기계와 기술을 다루며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당당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였습니다.

도내 전체 인민들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더 훌륭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일어 난 이 모든 변혁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뚜렷한 실례로 되며 우리 제도 하에서는 산간 지대나 벽방 지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지방이 다 번영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자강도에서의 위대한 변혁은 도내 근로자들이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자강도 인민들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전체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됩니다.

나는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강도의 경제 문화 발전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운 도내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도당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고는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전진하며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 기풍입니다.

자강도 내 근로자들은 전국의 근로자들과 함께 더욱 힘찬 로력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로동자들은 도내에 창설된 공업 기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그것이 우리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데 더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독로강, 강계 발전소 건설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운봉 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예정된 기간에 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운봉 발전소 건설을 완공한 다음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서두수 발전소의 건설 공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 제작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더욱 높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계 공장들의 건설을 촉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현대적 기술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이 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 시기의 비상히 어려운 환경에서 악전 고투하여 창설한 자강도의 기계 공업 기지가 기술 혁명의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취 공업을 계속 확대하여 풍부한 지하 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처녀지로 남아 있는 위원, 초산 지구와 중강, 후창 지구에 대한 지질 탐사 사업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매장되여 있는 풍부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더 많은 동, 연, 중석 등 유색 금속과 희유 금속을 채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목재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고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며 림산 자원을 더욱 애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도내의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촌 문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산과 축산, 각종 부업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킴으로써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자강도를 더 살기 좋은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자강도 내 근로자들이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자강도의 번영과 도내 근로자들의 더욱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그들의 새로운 승리와 성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64년 5월 15일)

김 일 성

친애하는 청년 대표 동무들!

오늘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우리의 남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무들의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회 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의 훌륭한 남녀 청년들

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의 전투적 조직인 민주 청년 동맹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위대한 공훈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억압에 항거하여 나섰으며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수 많은 애국 청년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인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젊은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 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청년 운동의 가장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당의 부름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청년들은 당의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의 기'발 아래 굳게 뭉쳐 북조선에서 인민 정권을 세우고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가함으로써 북조선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피로써 사수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운 위대한 공훈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싸웠을 뿐 아니라 자기 조국 땅 우에 인민들의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면서 공장을 일으켜 세우고 철도를 복구하였으며 페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새로운 면모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맡아 나섰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불타는 혁명적 열정,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은 위대한 천리마 운동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여 로동과 학습과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자기의 선배들과 힘을 합하여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창설하였으며 민족 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꽃피게 하였으며 자신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건설되고 날로 더욱 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는 그리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는 영웅 조선의 남녀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로서, 외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 전사로서, 락후하고 빈곤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지난 18 년 간에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자립성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는 날로 더욱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과 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며 일하며 배우고 있는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들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리상을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체 청년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박하게 살며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였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발전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며 어려운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서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공산주의적 도덕의 아름다운 기풍이 더욱더 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 위업을 이어 나아갈 훌륭하고 믿음직한 새 세대를 육성하여 놓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 번에 동무들의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더욱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동맹의 각급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동맹 조직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동맹과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우선 조선 로동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로동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더욱 튼튼한 근거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째로,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주구들을 타도하며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네째로, 조선 청년들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신들의 더욱 행복한 앞날을 개척할 것이며 조국과 인민 앞에 새로운 위대한 공훈을 세울 것이며 세계의 진보적 청년들과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1

동무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입니다. 생기 발랄하고 원기 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직 옳은 령도와 교양을 받을 때에만 청년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운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대표하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 운동을 령도하며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의 앞길을 가리켜 주는 것은 바로 조선 로동당입니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 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 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항상 정확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을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

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으며 청년 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더 훌륭한 앞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항상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 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 정책의 집행에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청춘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 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붉은 전사로 자라 날 때 우리의 혁명 위업은 계속 힘 있게 전진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더 번영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처한 력사적 시기와 그들이 담당할 중대한 사명에 비추어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피어린 투쟁으로써 개척하였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꽃 피워 놓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나라의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시대, 우리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위대한 시대에 태여나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젊은 혁명 전사들이며 젊은 건설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라 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는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이며 우리 당의 지도적 사상입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여야만 부단히 변화하는 국내 국제 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혁명 승리의 명확한 방도를 찾을 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요 없이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체득하며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주의는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여 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그에 적대되는 각종 사상 조류와의 투쟁은 현대 사회의 계급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며 계급 투쟁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리론 탐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사상 투쟁입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광적으로 공격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과거의 모든 수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우경 기회주의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자신이 혁명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특히 맑스-레닌주의적 수양과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그들 속에 기회주의의 독소를 퍼뜨리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대렬에 수정주의적 조류가 침습하지 못 하도록 사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반수정주의 투쟁과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이고 어떤 것이 수정주의인가를 스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학설의 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의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사상과 방법을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 학설을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의 우리의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교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력사적 조건을 연구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조주의에 빠져 독자성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며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체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에서나 실지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민족적 자주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들의 기본 임무는 조선 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함께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여야만 조선 혁명의 정확한 전략 전술을 체득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여 당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청년들 자신의 사상으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 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로동 계급과 제국주의 반동 세력 간에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량단되여 있으며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하고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생활이 향상되였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 특히 새로 자라 나는 젊은 세대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이 자기의 부모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는가를 알아야 하며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과 략탈 행위 그리고 아직도 해방되지 못 한 인민들의 처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투쟁 업적을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이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고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전체 청년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며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자기의 로동과 국내 자원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싸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

다. 청년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이 청춘의 정열로 들끓고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전체 청년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가 되며 당이 제기하는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기 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 전선에서 위대한 힘으로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 표징으로 됩니다.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력적으로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녀 청년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싫어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며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근로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장엄한 로력 투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이 현대적 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설하여 놓은 자체의 중공업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동원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며 현대 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대대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과거에 기술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오래 동안 식민지 통치 밑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우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력사적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전체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며 보급하는 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처에서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퇴치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낡은 기술 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며 과학과 경험을 옳게 배합하는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 주며 청년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안들이 로련한 선배들의 경험과 결합될 때에만 기술 발전에서 더 훌륭하고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이와 같은 협조 정신을 고도로 발양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술 혁명의 투사가 되려면 반드시 과학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유능한 과학 기술 간부들을 계속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은 자기의 창조적 로동으로 나라의 재부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 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 재산보다 공동 재산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해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장, 광산, 농장, 어장, 관개 시설, 철도, 항만, 도로 등 모든 생산 시설들과 생산 설비 그리고 학교, 병원, 도서관, 극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 보건 시설들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산과 하천들을 애호하며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이라도 다 인민의 소유로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매 사람이 국가 경리와 공동 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 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조국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도시와 농촌들을 규모 있게 건설하고 살기 좋게 꾸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한 새 사회의 새 인간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선진 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 자기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다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며 나가야 합니다.

이리 하여 낡은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곳을 꽃피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 특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의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 간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업 협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로동 계급 특히 청년 로동자들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로동 청년들은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도시와 로동자구를 더 잘 건설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 청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청년 로동자들이 농촌에 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직접적 담당자들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대하여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로동 계급의 지원 밑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 때 공업과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이 더욱더 번영할 것이며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다같이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국 보위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보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하는 것이며 조선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담보로 되는 우리의 혁명 기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 군대 내 청년들은 전체 군인들과 함께 조국의 방선을 철벽 같이 다짐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을 계속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군대와 함께 전체 로농 적위대원들과 청년들이 각각 자기의 초소에서 조국 보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리 하여 우리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조국 땅우에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학생들과 소년들은 새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학생들 속에서 학습 규률을 강화하고 학습 열의를 더욱 높이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반 과학 지식과 일정한

기술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하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로는 모두가 다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문학과 예술도 알아야 하며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문학 서적을 애독하게 하며 그들 속에서 군중적인 문예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 동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배양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집단과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공동의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며 학교에서는 선생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동지들과 전체 근로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로련한 경험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겸손하고 례절이 밝아야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하며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이 모두가 다 로동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되고 지, 덕, 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천리마 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입니다. 그것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훌륭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

청년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전체 청년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다시 한 번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3

동무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근 19 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근로 청년들은 2중 3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수 많은 청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 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 나가 미국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야수적인 탄압 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 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참을 수 없는 천대와 모욕을 받고 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하루 속히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테로는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근로 인민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여야 하며 학원을 민주화하고 청년 학생들이 과학 탐구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근로 청년들에게는 모두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변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정치 사회 활동에 광범히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반드시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운명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우리 민족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게 될 때에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자기들의 광명한 앞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

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남조선 청년들의 해방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며 미국 군대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국 군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 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로 하여금 도처에서 청년들의 항거에 부딪쳐 우리 강토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남조선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자들에 대한 온갖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국방군》에 끌려 나간 청년들은 거의 전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맹종하여 자기의 부모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 아니라 응당 인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국군》내 청년 장병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는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래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근로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 침략 도구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의 이중적인 예속에 밀어 넣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괴뢰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매국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청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들은 민족적 각성이 높고 반제국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극도로 증오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반일 투쟁을 통하여 조선 청년의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과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총검으로 비호하던 리 승만 괴뢰 정권도 주로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남조선 청년들은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미국 식민지 통치를 증오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휘황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 수 없으며 오늘의 비참한 남조선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청년들은 전 민족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히 나서야 하며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해방 투쟁에서 지닌 영광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투쟁 대오를 튼튼히 결속하고 청년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학생 청년들은 아직도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같이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에 결속되지 못 하였으며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 대중의 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인민 봉기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감하게 싸웠으며 많은 고귀한 피를 흘렸으나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지 못 하고 투쟁의 열매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자기들의 혁명 력량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투쟁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선진 분자들로 조직되는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혁명적인 청년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도처에 결성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공장과 농촌의 근로 청년들과 혁명적 학생들 속에서 핵심을 길러야 합니다.

혁명적 청년 조직은 공장과 농촌, 학원들에서 진보적 청년들을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 대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핵심 대렬을 꾸리는 동시에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체 청년들은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할 수 있는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자, 농민 대중입니다.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청년 학생들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청년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운동은 오직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진정한 혁명 운동으로 될 수 있으며 해방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들이 혁명적 당의 령도 밑에 하나의 전투 대오로 결속될 때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대한 혁명 력량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과 조국 통일 위업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항상 남조선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결의 밑에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북반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는 모든 성과들과 그들의 강력한 지원은 싸우는 남조선 청년들에게 커다란 힘으로 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며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도, 경제 · 문화 교류도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위하여,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리 하여 온갖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통일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인 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

4

동무들!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일환이며 조선 청년 운동은 국제 청년 운동의 구성 부분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동시에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열핵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 행위를 감행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특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전쟁 공포증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파탄시키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추동 하에 또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하여 버려야 합니다. 조선 청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해방 투쟁으로써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세계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을 받아 왔으며 오늘도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며 언제나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의 인민들과 청년들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구 상에서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청년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광명한 미래입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공산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 도상에서 국제 로동 계급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그 위력의 장성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들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이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며 이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회주의 국가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 청년들의 공동의 리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민주주의적 국제 청년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청년들의 국제적 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격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난 진보적 운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 민주 청년들의 자유와 해방, 그들의 광명한 앞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제국주의 기치 하에서만 진실로 광범한 진보적 청년들을 결속시킬 수 있으며 청년 운동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국제 청년 운동을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며 세계 각지에서 일어 나는 인민들의 모든 반미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반미 투쟁의 불'길이 온 세계 도처에서 더욱 세차게 타 오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결속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장성하는 혁명 력량은 결국에 가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사회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싸워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로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조국 통일의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전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뚜렷이 내다 보면서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가장 씩씩하고 생기 발랄한 부대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영웅 조선 인민의 아들딸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을 위하여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나는 이 기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의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들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이번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모든 대표들의 진지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당신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금번 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기여한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 회합이였습니다.

회의에서는 34 개국 대표들의 참가 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과 경험들이 교환되였으며 전체 대표들의 일치한 찬동에 의하여 훌륭한 선언과 결의가 채택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호상 간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서로 고무 격려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는 해방된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싸우면서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은 정확한 것이며 온갖 억압과 예속을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 해방과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로선은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실 생활에 훌륭히 구현되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회의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분쇄하며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 받는 인민들 간의 단결과 협조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의 단결과 협조입니다. 우리들은 호상 간의 처지를 잘 리해하며 서로 동정하고 있으며 진실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단결과 협조는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단결과 그들의 공동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반제 반식민주의의 기치 밑에 모든 피압박 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서로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해방된 나라들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와 호상 협조를 부단히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단결과 협조는 날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더욱더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 번 회의에서 천명된 리념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지지와 공명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외국의 벗들!

당신들은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귀중한 손님들입니다.

이 번 경제 토론회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준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며 또한 고무로 됩니다. 특히 당신들은 새 생활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 성원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기간 당신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선과 련대성의 표현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그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 문화적 협조는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결과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결국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게 될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인민들의 이 위대한 투쟁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당신들의 숭고한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의 완전한 정치, 경제적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손님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의 여러 나라 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기념하여 공화국 내각이 신의주에서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평북도 근로자들과 함께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경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에 제하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과 도내 전체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후 16 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서와 같이 평북도에서도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도내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위력한 공업 지대로 되였으며 중요한 식량 기지로 되였습니다.

락원 기계 공장과 북중 기계 공장, 구성 공작 기계 공장을 비롯하여 수 많은 대규모의 기계 제작 공장들이 건설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북도에 창설된 기계 공업 기지는 전체 우리 인민의 귀중한 밑천이며 나라의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풍 발전소가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개건 확장되고 수십 개의 중소 발전소들이 건설되였습니다. 많은 탄광, 광산들이 개발되여 인민 경제의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과 여러 가지 광물들을 캐 내고 있습니다.

이 번에 대규모의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평북도는 화학 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은 우리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서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 옷감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명평 자연의 개척자들은 온갖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산을 허물어 바다를 막아 수천 정보의 갈밭을 조성함으로써 화학 섬유 공장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도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 방직 공장, 녕변 견직 공장, 신의주 고무 공장 등 대규모 경공업 공장들과 함께 32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이 번에 또 신의주 방직 공장이 완전 조업을 하게 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은 평북도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다른 지방 근로자들에게도 다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촌 경리에서는 대규모의 압록강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수리화를 위한 자연 개조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고 영농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농업 생산은 계속 장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북도 농민들은 풍작을 이룩하여 자기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국가와 인민에게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신의주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은 더욱 아름답게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가장 궁벽한 곳으로 알려졌던 창성, 삭주, 벽동 같은 군들이 오늘은 지방 공업과 산지대의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군 소재지와 농촌들을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서 전국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벌방 지대만 못지 않게 인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평북도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는 데서,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참말로 많은 일을 하였으며 찬란한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도내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평북도 인민들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과 함께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더 훌륭한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높은 혁명적 열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평북도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크게 기여한 도내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도당 위원회를 비롯한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 단계에 들어 섰습니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7 개년 계획에서 부과된 모든 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내에 건설된 기계 제작 공장들을 더욱 완비하고 그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더 많은 기계 설비를 생산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 석탄 공업과 광업을 더욱 발전시켜 연료 동력 기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하 자원을 더 대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정비 공사를 빨리 끝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청수 지구에 석회 질소 비료 공장과 합성 고무 공장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경공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 반자동화를 촉진하며 생활 필수품 직장을 더 잘 꾸림으로써 인민 생활에 필요한 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고 영농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농업 생산을 더욱 급속히 장성시켜야 합니다.

평북도 내의 모든 군 소재지와 로동자구들, 모든 농촌들을 더욱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꾸리며 도내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과 인민은 자신이 결심하고 달라붙은 일을 해 내지 못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열렬히 호응하여 7 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에 떨쳐 나섰습니다.

나는 평북도 근로자들이 전국 근로자들과 함께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계속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

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의 민족적 명절을 경축하면서 평북도의 번영과 도내 근로자들의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의 융성 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친애하는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을 환영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말리 귀빈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전체 조선 인민은 무한히 기쁜 심정으로 말리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존경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기타 말리의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선과 말리는 바다와 대륙들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뜨거운 친선의 정으로 련결되여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말리 인민이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령도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반 제국주의, 반 식민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전진하고 있는 씩씩한 투쟁 모습을 기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새 나라 건설에서 말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성과를 충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리 인민과 같이 훌륭한 인민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말리 인민과의 친선과 단결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금번 우리 나라 방문은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자기의 성과를 말리 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에게 직접 보여 드리며 당신들을 통하여 말리 인민에게 자기의 뜨거운 우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리 인민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선과 련대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대통령 각하의 금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량국 인민들 간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반 제국주의 기치 밑에 어깨 겯고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대통령 각하와 그의 부인과 기타 말리의 귀중한 손님들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친형제의 집에 찾아 온 것과 같은 즐겁고 유쾌한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뜻깊게 보낼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말리 공화국 만세!

조선 인민과 말리 인민 간의 영원한 친선 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 우의 만세!

전 세계 인민들의 단결 만세!

세계 평화 만세!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부인을 위하여 배설한
환영연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말리 공화국의 귀빈 여러 분!

친 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기타 귀빈들을 다시 한 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번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이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수마디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당신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말리 인민의 뜨거운 우정과 우리 혁명의 위업에 대한 말리 형제들의 열렬한 지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량국 인민은 다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았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자기들의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제국주의 승냥이들의 침략의 마수를 영원히 끊어 버리고 남부럽지 않는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서로 어깨 겯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과거가 있으며 공통된 리상이 있으며 공동의 원쑤가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참말로 서로 깊이 리해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으며 성의껏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는 말리 공화국 정부와 말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하고 유력한 것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말리 인민은 공화국을 선포한지 4 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사회적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많은 고귀한 업적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리 공화국은 륭성 발전하고 있으며 말리의 면모는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말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무한히 기뻐하고 있으며 열렬히 축하하고 있습니다.

말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령도 밑에 말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예속화 정책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오늘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영웅적 말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제국주의 기반에서 벗어 난 아프리카의 모든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말리 공화국이 시종 일관 실시하고 있는 반 제국주의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 가는 식민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악랄하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멸망과 신구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을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들의 수뇌자 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규탄하고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할 것을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한 것으로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반 제국주의 기치 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 인민과 말리 인민 간의 친선과 단결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의 불가분리의 일환입니다. 우리 량국 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평화 위업과 혁명 위업에 고귀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멸망과 신구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을 위하여 말리 인민과 어깨를 겯고 투쟁하여 나아갈 것이며 언제나 그의 친근한 벗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말리 공화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환대하는 즐겁고 유쾌한 이 자리에서 말리 공화국의 륭성 발전과 말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과 말리 량국 인민의 영원한 친선 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을 위하여, 전 세계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말리 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 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을 환송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각하와 대통령 부인!

존경하는 말리 공화국 귀빈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는 형제적 말리 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을 여기에서 맞이하였는데 오늘은 벌써 당신들과 작별하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의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으며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번 당신들과의 상봉과 성과적인 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더 잘 리해하게 되고 더 친근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멀리 헤여지지마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며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었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준 데 대하여 조선 인민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 말리 인민과 말리 공화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들이 귀국하면 말리 인민에게 조선 인민이 보내는 열렬한 형제적 인사를 전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말리 공화국의 륭성과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말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먼 귀로에서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각하와 그의 부인과 말리 귀빈들이 부디 몸 건강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 인민과 말리 인민의 영원한 친선 단결 만세!

말리 공화국 만세!

김 일성 수상께서 주 은래 총리에게 회답 서한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여

북경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 동지

존경하는 총리 동지

나는 당신의 1964년 10월 17일 부 서한을 받았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하여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핵 무기를 소유하고 그의 첫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 위협 공갈 정책에 대처한 자위적인 조치로서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 위업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이러한 조치와 금번 제의는 그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를 시종 일관 주장하여 왔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 정책과 핵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충심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1964년 10월 29일 평양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환영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귀빈 여러 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무한히 기쁜 심정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족적 영웅이며 탁월한 국제 활동가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와 인도네시아 귀빈들을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이 인도네시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쌓아 올린 고귀한 업적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당신의 정력적인 투쟁은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우리 인민에게 표시하고 있는 두터운 친선의 정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의 금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경사입니다. 당신은 1억의 인도네시아 인민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무한히 기쁘게 하고 있으며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손님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인민과 그의 지도자에 대한 조선 인민의 사랑과 존경의 정을 뚜렷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구한 력사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은 오늘 수카르노 대통령의 령도 밑에 반제 반 식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조국의 륭성과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 같이 궐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투쟁에서 인도네시아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번 수카르노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인도네시아 량국 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력사적 기여로 될 것이며 나아가서 반 제국주의 기치 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와 인도네시아 귀빈들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부디 몸 건강하게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낼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만세!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 간의 영원한 친선 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 만세!

전 세계 인민들의 단결 만세!

세계 평화 만세!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위하여 배설한

환영연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인도네시아의 귀빈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벗들과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게 된 것을 더 없이 반갑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귀빈들을 다시 한 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우리 인민의 뜨거운 형제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인민에게 매우 친근한 나라입니다.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은 오래 전부터 다 같이 억압 받고 천대 받는 인민들로서 호상간의 처지를 리해하고 서로 깊이 동정하여 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여 영웅하게 싸우는 인민들로서 언제나 서로 지지 성원하여 왔습니다.

최근 년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간의 친선 단결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나아가는 전우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가는 형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 번에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께서는 장시일에 걸치는 외국 려행과 중요한 사업에서의 피곤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친히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지지 성원에 대하여 대통령 각하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친선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단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인도네시아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두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인도네시아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며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온 영웅적 인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은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창건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온갖 침략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근대 력사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도네시아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영웅한 투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서부 이리안의 귀속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해방투쟁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인민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령도 밑에 반제 반 식민주의 기치,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나사콤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적 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 민족적 반 말레이시아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도 용서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불굴의 혁명적 의지와 확고한 결의를 뚜렷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모든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동남 아세아의 위력한 반제 혁명 력량으로 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견결한 혁명 투쟁은 세계의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인민 그리고 친히 수카르노 대통령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신흥 세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반둥 정신의 발생지이며 가네포를 발기하고 조직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의 소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 번에 또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이 회의가 인민들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과 평화의 위업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서 특출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 인도네시아 인민과 정부가 쌓은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여기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의 정력적인 활동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인민이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나는 화기와 친선의 정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인민의 행복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불멸의 친선 단결을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 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이 배설한

연회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귀빈 여러 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친근한 벗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귀빈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끝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여 준 데 대하여 대통령 각하와 인도네시아 귀빈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이 번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 두 나라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인민이 보내는 친선의 정을 가득 안겨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고무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무한히 기쁘고 반가운 심정으로 수카르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귀빈들을 맞이하였으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함으로써 영웅적 인도네시아 인민에 대한 자기들의 존경심과 전투적 련대성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의 명백한 표현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우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견결한 투지를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 번에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의 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의 량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립장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지향과 근본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에 부합됩니다.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 간의 친선 단결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위한 공동 투쟁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단결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반제 반 식민주의의 기치 밑에 더욱더 결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분할하여 통치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단결을 방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함께 싸우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래 동안 억압 당하고 천대 받아 온 인민들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불평등과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인민들은 그들이 겪어 온 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그들의 념원과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밀접히 결합되여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더욱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언제나 인도네시아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 있을 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금번 우리 나라 방문

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을 뿐이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륭성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친선 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전 세계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귀빈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 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을 환송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존경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귀빈 여러 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던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의 일행은 지금 평양을 떠나 귀로에 오르게 됩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귀중한 손님들을 맞이하여 매우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헤여지지마는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은 영원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 일행의 이 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였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언제나 함께 싸우며는 두 나라 인민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민에게 가져다 준 친선의 정과 그들의 정의의 투쟁에 표시한 지지와 련대성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신들과의 상봉에서 받은 감격과 깊은 인상을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금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인도네시아의 친선의 력사에 빛나는 한 페지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인도네시아 귀빈 여러 분!

오늘 인도네시아 인민은 륭성 발전하는 신흥국가 인민으로서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반제 반 식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우고 있는 재능 있고 용감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새 생활 창조에서 그들에게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귀국하면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형제적 인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번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와 인도네시아 귀빈들이 귀로에서 부디 몸 건강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 간의 영원한 친선 단결 만세!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인민 만세!

세계 평화 만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개막

2월 2?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가 개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열리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는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과 중앙 및 지방 당 일'군들, 성, 중앙 기관 일'군들, 도, 시, 군 농촌 경리 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 일'군들, 교육 문화 부문 일'군들과 근로 단체 일'군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한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2.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3.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의정 첫째 문제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김 일성 동지가 회의에 제출하였다.

최 용건 동지, 김 창만 동지, 김 광협 동지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김 일성 동지가 제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지지하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이 테제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테제에서 제기한 과업과 대책들의 실천 방도에 관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만장 일치로 지지 찬동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문헌으로 채택하였다.

전원 회의는 이 테제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주며 그들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폐막

2월 25일에 시작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는 27일 폐막되였다.

첫날 회의에 이어 26일, 27일 회의에서는 의정 둘째 문제와 세째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주요 발언이 있었다.

의정 둘째 문제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효순 동지가 보고하였으며, 의정 세째 문제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박 금철 동지가 보고하였다.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는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절박한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이 극도에 달하고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가 심각화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 력량은 날로 장성하고 있는 것이 현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되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회의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의정 세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전원 회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적, 도덕적 통일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는 군중 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시기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에 비추어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성 명

최근 재일 조선 공민들 속에서는 조국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는 지체할 수 없는 그들의 절실한 생활 상 요구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기본 인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독립 국가의 재외 공민의 민족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 래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국제법의 제 원칙과 인도주의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일본 정부가 해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들은 그들의 절실한 념원이 하루 속히 실현될 것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다.

조국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은 전체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과 전 세계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일본 공산당, 사회당, 로동 조합 총 평의회를 비롯한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광범한 사회계와 언론계 및 각계 각층 일본 인민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절박한 요구의 즉시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도꾜도 의회를 비롯한 일본 총 인구의 약 70%를 망라하는 897 개의 지방 의회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 실현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자기 정부에 해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직련, 세계 민청,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리사회 등 수 많은 국제 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사회 단체, 언론 기관들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즉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서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신성한 민족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국 래왕의 자유를 계속 억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재일 조선 공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땅에서 감금된 것이나 다름 없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오매에도 그리는 사회주의 조국을 와 보지 못 하고 있다.

더우기 귀국 사업의 실현으로 이미 8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조국에 돌아 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그들과 서로 상봉할 길조차 막히고 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할 데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는 지체 없이 실현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조속히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당한 재외 공민이다.

한 독립 국가의 재외 공민이 생활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원칙이다.

일본 정부도 이 원칙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외국 공민들에 대하여서는 조국 래왕의 자유를 허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재일 조선 공민들에 한하여 조국 래왕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일본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일본 간에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현재 일본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의하여 국교 관계와는 관계 없이 자국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조국 왕래는 물론 외국 려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 관계》의 유무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거부할 하등의 구실로도 될 수 없다.

심지어 일본 당국자들은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온 것이며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운동은 《거짓말 운동》이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을 전도한 파렴치한 주장이며 재일 조선 공민들을 모독 중상하는 폭언이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일본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살'길을 잃고 일본에 노예와 같이 강제로 끌려 갔거나 류랑하여 간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 갔거나 류랑하여 간 사람은 실로 약 500 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대륙 침략과 관련한 자국의 로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의 청장년들을 대량적으로 일본에 강제로 징집하여 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공포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그들이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등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어 간 수'자는 연 115만여 명에 달하였다. 일본에 끌려 간 조선인 로무자들은 탄광, 광산, 군사 시설들에서 우마와 같이 혹사 당하였으며 일본 군경과 감독들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잔인하게 학살 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죄행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도 해방 후 재일 조선 공민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 외국인으로서의 응당한 대우와 절박한 생활상 요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방 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계속 민족적 멸시와 탄압과 차별 대우를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47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법》을 실시하였으며 1961년 말까지의 15년 간에 약 18만 2천여 건의 인권 유린 사건을 도발하였다.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취업을 억제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 재일 조선 공민의 70~80%가 항시적으로 생활 상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당국의 사촉 하에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습격 사건들이 더욱 빈발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떠한 궤변으로써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억제하는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력사적으로 지닌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제하고 있는 사실부터가 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일본 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할 데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요구가 《딴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유해》, 《무익》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실로 황당 무계한 소리다. 《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일 조선 공민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다. 사실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을 희생으로 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미제의 사촉 하에 재일 조선 공민들을 《한일 회담》 흥정의 미끼로 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국 래왕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의 표현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유로운 조국 래왕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전체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체 조선 인민과 공정한 사회 여론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계속 유린하고 그들을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엄연한 국제법과 신성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기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하루 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해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경히 요구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1964년 3월 3일 평양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성명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죄행에 대하여

최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 하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 야욕을 실현해 보려고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면서 범죄적인 《한일 회담》의 결속을 서두르고 있다.

통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관계되는 조·일 량국 간의 중대한 력사적 미해결 문제들을 박 정희 도당과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하여 처리해 버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의 괴뢰인 박 정희 도당은 전고 미문의 폭압과 략탈로 인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는 오늘 분점을 구걸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사실상 남조선을 송두리채 내맡기는 매국 배족 행위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남조선이 미제와 일제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이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지 20년이 가까와 오는 오늘 일본 제국주의가 과거 조선 인민에게 끼친 악독한 죄과에 대한 속죄는 고사하고 또다시 되살아나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사실은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일본 제국주의는 근 반세기 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자원을 략탈하며 조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탄압 학살하였으며 조선 민족에게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강요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민족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과 모든 물적, 인적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오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조선 인민을 대표할 수 없는 남조선 괴뢰 도당과의 쑥덕공론을 통하여 모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 조국 절반 땅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침략 책동을 결코 수수

방관할 수 없다.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는 일본 정부가 미제의 사촉 하에 《한 일 회담》을 결속하며 남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를 본격화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감행한 죄행을 개략적으로나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본 성명을 발표한다.

1

19 세기 후반기에 구미 자본주의 렬강보다 뒤늦게 자본주의 렬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 선 일본은 처음부터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로골적으로 나타내면서 린접한 조선을 자기의 첫째 가는 침략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를 무력으로 정복할 것을 기본 국책으로 선포하였다.

1875년 일본은 본격적인 조선 침략을 개시하였다. 조선 침략의 구실을 날조하기 위하여 이 해에 일제는 군함 《운양호》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남 해안 일대에서 도발 행위를 감행한 후 계속 일련의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1876년 일본 정부는 무력적 위협과 공갈로써 조선 정부에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고 조선 항구를 개방케 하였으며 령사 재판권을 강탈하고 일본 상품 수출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관세권을 침해하는 등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적 리익을 유린하였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는 조선을 자기의 반식민지적 원료 략탈지로,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조선에서 외래 침략 세력과 부패한 봉건 통치를 반대하는 농민 전쟁이 발발하자 1894년 일본 침략자들은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하에 대부대의 륙해군을 파견하여 농민 전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조선 내정에 더욱 로골적으로 간섭하여 나섰다.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 친일 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1894년 6월 대병력으로 조선 왕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전복하는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895년 10월에는 또다시 군대와 테로단을 동원하여 조선 왕궁을 습격하고 왕비와 그의 측근자들을 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청 일 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각방으로 강화하면서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 전쟁 준비에 광분하였다.

1904년 로 일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원조 하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자기의 식민지로 만드는 길에 들어 섰다.

1905년 일제는 자기의 무력으로써 조선 왕궁 내외를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조선 정부의 내각회의를 소집시킨 후 외무부 인장을 탈취하여다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소위 《을사 보호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을사 보호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의 내정을 통제하는 《통감》을 둠으로써 조선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일제의 이러한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는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 하에 진행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차관과 무기로써 일제를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대하여도 사전에 공모하고 승인하였다.

이 때에 미 륙군 장관 타프트는 일본 수상 가쯔라와 밀담하고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 수단》을 취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을사 보호 조약》의 체결에 관한 소식은 조선 인민의 반일 구국 투쟁을 폭발시켰다.

당황망조한 일제는 대병력을 투입하여 조선 인민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1907년 8월에 이르러 일제는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조선의 사법 경찰권과 지방 행정권까지 장악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형식상 남아 있는 조선의 독립마저 말살하고 식민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 합병》을 추진시켰다.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드디여 총칼의 강압밑에 《한 일 합병 조약》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이에 대한 조선 인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일체 조선 국내 신문을 정간시키고 애국 단체를 해산시키고 수천 수만의 애국자를 검거 투옥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지에 더욱 삼엄한 경계진을 편 후인 8월 29일에야 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병탄하였다.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후 일제는 36 년간에 걸쳐 조선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 살륙하며 무제한의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은 우리 인민의 원한 많은 피로써 물들었으며 황폐화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간은 조선 인민의 전 력사에서 가장 암담하고 참혹한 시기로 되였다.

2

1910년 8월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병탄한 일제는 통감 정치를 총독 정치로 개편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강화하며 류례 없는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화를 반대하여 일어 서는 조선 인민을 탄압 살륙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일제는 2 개 사단의 륙군과 2 개의 해군 분견대를 주둔시키고

각 군청 소재지와 주요 지점에 수비대를 배치하였으며 헌병 경찰에게는 살상에 이르기까지의 87 개 조항에 달하는 《즉결권》과 《강제 집행권》을 부여하여 조선 인민을 마음대로 탄압 학살하였다.

일제는 통감 정치 시기의 악법들인 《보안법》, 《신문지법》들을 그대로 연장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 《지문령》, 《형사령》 등을 조작하며 《감옥령》을 실시하여 전국에 24개소의 감옥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통치의 폭압 기구를 확립하는 데 광분하였다. 심지어 일반 행정 관리들과 교원에게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채워 식민지 통치의 위세를 세우려고 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은 이와 같은 방대한 폭압 기구로써 조선 인민의 일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조선 인민은 결사,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무조건 복무할 것만 강요 당하였다.

초대 일본 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인은 일본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이 폭언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는바 일제는 《합병》을 전후하여 광범히 전개된 조선 인민의 반일 의병 투쟁과 기타 애국적 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 자신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06년부터 1911년까지의 기간에 1만 7천 779 명의 조선 인민을 학살하였다.(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편찬《폭도 토벌지》 1913년)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 폭압은 그 후 더욱더 우심하여졌다. 일제 헌병과 경찰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는 1912년에 5만 2천 여 건이던 것이 1918년에는 14만 2천여 건으로 격증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만행으로 인하여 강점 초기부터 조선의 도처에 무인촌, 무가촌이 속출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은 생활 상 요구를 위한 로동자들의 로동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였으며 토지 략탈과 과중한 조세를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강점 후 일제가 실시한 헌병 경찰적 무단 통치에 의한 일체의 자유와 권리의 말살, 대중적 학살, 재물 략탈과 민족적 멸시 등 식민지 폭압 정책은 조선 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1919년의 3.1 반일 봉기는 바로 일제의 폭압과 략탈 정책에 대한 조선 인민의 전 민족적 반발로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였다.

전 조선을 휩쓴은 거족적인 반일 독립 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조선에 있는 폭압 수단과 기구를 총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군대까지 끌어 들여 닥치는 대로 조선 인민을 탄압 학살하였다.

일제는 조선 내에서 일체 보도 기관을 폐쇄하고 도처에서 일본도와 작도로 애국자들의 목을 잘라 거리에 전시하며 가두에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놓고 인민들을 매여 달고 사지에 못을 박아 학살하며 부녀자를 체포하여 라체로 끌고 다니며 찢어 죽이는 등 온갖 귀축 같은 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실례만 들어도 다음과 같다.

1919년 4월 15일 정오 일본 륙군 중위 아리다는 부하 졸병들을 이끌고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달려 들어 훈계를 준다고 동리 주민 남녀 로소할 것 없이 전부를 교회당에 집결시킨 후 주위를 포위하고 건물에 방화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중 사격을 가하여 전원을 총살하였다.

불타는 교회당 내에 갇힌 한 부인이 자기 품에 안은 어린애만이라도 살리려고 창문 밖으로 내밀자 일제 병사는 총창으로 어린애의 머리를 찔러 죽이고 불 속에 던지였다.

피에 주린 일제 침략군은 미친 듯이 국내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무고한 조선 인민들을 참살하였다.

수원군 한 개 군에서만도 애국적 인민 996 명을 학살하고 889 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천 365 명을 검거 투옥하고 317호의 가옥을 소각하였다.(조선군 사령관 우쯔노미야 다로가 륙군 대신 다나까 기이찌에게 한 비밀 보고 제 102호 기 458,1919년)

평남도 맹산군에서는 이 곳 주민들을 헌병 분견소 구내에 억류하고 60 여 명을 총살하였다.

경상도 함안군 북면 덕대리에서는 1919년 3월 19일 3천 500 명의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발포하여 21 명을 즉사시키고 18 명을 부상시켰으며 언동에서는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독립 운동을 하였다 하여 그 곳 조씨 가문 20 여 명을 전부 학살하였다.

3월 31일 평북도 정주에서는 일본도로써 무고한 주민 43 명을 참살하고 99 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조선군 사령관 우쯔노미야 다로가 륙군 대신 다나까 기이찌에게 제출한 비밀 보고 제 102 호 458,1919년)

일제 침략자들은 이러한 야수적 방법으로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이르는 3 개월 간에 만도 7천 509 명을 학살하고 1만 5천 961 명을 부상시켰으며 4만 6천 948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박 은식 저 《조선 독립 운동 혈사》1920년)

뿐만 아니라 일제 살인귀들은 1919년 4월에 전국 각지에 있는 음료수와 물'고기, 소금, 설탕 등에 독약을 혼합하여 조선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하였었다.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3.1 인민 봉기는 류혈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비록 진압은 되였으나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3.1 봉기 후 1919년 8월 일제

강점자들은 종래의 무단 통치를 소위 《문화 정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문화 정치》는 조선에서 이미 폭로된 극악한 민족적 억압과 학살 정책을 은폐하고 종래의 조폭한 통치 방식을 보다 음흉하고 간교한 통치 방식으로 바꾸어 놓은 데 불과하다.

일제는 헌병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더 한층 악랄한 고등 경찰 제도였고 경찰망을 더욱 확장 강화하였다.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9년 경찰 제도 개편 전에 헌병 경찰 기관 수가 1천 813 개소, 경관 수 1만 4천 517명이였던 것이 그 제도 개정 후인 1919년 말에는 경찰 기관 수 2천 855 개소, 경관 수 2만 648 명으로 증가되였으며 그 이후 계속 확장 증설되였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 발행 《조선 경찰 개요》 1926년)

또한 일제는 형식상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단 통치 시기보다 더욱 악독하고 조직화된 탄압을 가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은 1919년 소위 《정치범 처벌에 관한 법규》를 조작하였으며 1925년에는 《치안 유지법》, 1929년에는 《신 치안 유지법》 등을 조작하여 조선 인민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고 학살하였다.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조선인 애국자들의 검거 건수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기간에 무려 87만 5천 522건에 달하며 피검된 인원수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조선 총독부 경무국 발행 《조선 경찰 개요》 1928년 판 및 1930년 판)

검거된 조선 사람들은 당시 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전한 바와 같이 참으로 귀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써는 차마 기록하지 못 할 정도의 고문 끝에 대부분이 학살되였거나 불구자로 되였다.

일제 고형리들이 조선 인민에 가한 이러한 악형은 중세기의 야만적 고문 방법을 능가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특히 1920 년대에 일어 난 조선의 로동자, 농민, 학생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920년부터 1929 년 간에 그들이 발표한 로동자들의 투쟁 704 건에 대하여 례외 없이 헌병과 경찰 심지어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만 명의 로동자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1929년 원산 로동자들의 총 파업이 일어 나자 일제는 무장 경관 300 여 명을 비롯하여 재향 군인, 소방대, 청년단을 총 동원하여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황해도 재령군 나무리' 벌 농민들의 《동척》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1920—1929년 간에 그들이 발표한 농민들의 투쟁 3천 91 건을 모조리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1926년 6.10 만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평화적 시위 행렬에 발포하여 160 여 명의 살상자를 내였으며 200 여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1929년 광주 학생들의 봉기를 탄압하기 위하여 경찰과 함께 2 개 련대의 군대를 동원하여 적수 공권의 조선 학생 50 여 명을 참살하고 수백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조선 총독부 경무국 편 《조선 치안 상황》 1934년)

193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일제 침략자들은 조선을 자기들의 대륙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견고한 후방으로,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 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족의 반일 투쟁을 말살하며 해방에 대한 우리 인민의 어떠한 희망도 없애 버리려고 더욱 발악하였다.

일제는 조선 주둔군과 경찰 기구를 증강하였으며 고등 경찰과 밀정망을 보다 확장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일제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을 막아 보려고 조선 동북 국경 지대와 만주 지방에서 애국적 조선 인민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들은 라남에 주둔하고 있던 19 사단을 전문적으로 빨찌산 《토벌》에 투입하였으며 1932년 소위 《만주국》을 조작한 이후에는 관동군 무력까지 동원하였다.

일제는 대병력을 끌고 다니면서 이르는 곳 마다에서 주민 부락을 포위하고 기관총 사격을 들이댔으며 무고한 주민들을 집안에 잡아 쓸어 넣고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1932년 1 년간에만 하여도 일제는 연길현에서 1만 여 명의 조선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 사람 100 명을 죽이면 그 가운데 1 명의 공산당원이 있다. 사정 없이 조선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1937년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국경 지구 전투에서 일대 타격을 받은 일제는 국내 혁명 조직을 색출하여 그를 탄압하는 데 더욱 혈안이 되여 광분하였다.

1937—1938년에 《혜산 사건》이라는 이름 밑에 무려 3천 여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그 중 고문으로 죽인 수만 60 여 명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그 후 대부분 살해하였다.

일제는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국내에서 광범히 전개된 로동자, 농민, 학생들의 운동에 대하여서도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일제 침략자들은 평양 세창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1930년 단천 농민 폭동, 그 후의 함북, 함남, 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의 반일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1931—1935년에 걸쳐

좌익 로조 사건으로 1천 759 명, 좌익 농조 사건으로 4천 121 명을 검거 투옥하고 야만적 고문을 가하여 학살하였거나 불구자로 만들었다.(조선 총독부 발행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 치안 상황》 1936년 판)

이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어떤 사소한 반일적 요소도 철저히 말살하려고 광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였다.

일제는 1930년 1 년간에 소위 《정치범》 또는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만 3만 8천 793 명을 검거 투옥하였다.

이는 1927년에 검거한 《사상범》 수의 4 배에 해당하는 것이였다.

1934년에는 《사상범》으로 6만 6천 55 명을 검거 투옥하였고 1938년에는 16만 5천 300여 명의 조선 인민들을 각종 명목으로 검거 투옥하였다.(조선 총독부 발행 《통계 년보》 1941년)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군사 파쑈적 테로 폭압 정책과 략탈 정책은 대륙 침략과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 최고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는 1940년 소위 《사상범 예방 구금령》, 《국가 보안법》, 《조선 림시 보안법》 등의 극악한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하고 《치안 유지법》과 《군기 보호법》 등을 일층 개악하여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사상범》, 《정치범》이라는 죄명으로 조선 인민을 검거 투옥 학살함으로써 조선 전국을 일대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조리 략탈하여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1938년부터 《국가 총 동원령》을 선포하고 조선 청장년과 모든 재부를 샅샅이 강제 징용 징발하였다.

일제는 조선 청년들을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1938년에는 《륙군 특별 지원 병령》을 공포하였고 1943년에는 《학도병제》와 《해군 특별 지원 병제》를, 1944년에는 《의무 병제》를 강요하였으며 1945년에는 《국민 의용군》 제도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명목 밑에 일제가 조선 청년들을 북해공군으로 전선에 끌어 간 수는 일본 당국이 발표한 수만 해도 36만 4천 여 명에 달하였다.

초보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는 중일 전쟁 도발 이후 실로 600만 이상의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강제 로동과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동원하였다.

일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 시간의 규정조차도 폐지하고 특별한 전시 규률이라 하여 헌병, 군대 또는 감독의 엄격한 감시 하에 노예 로동을 강요하였다.

군수 공장 건설에 동원한 조선인 로동자들에 대하여는 《군사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 밑에 공사 완료와 함께 집단적으로 학살한 실례도 허다하다.

농촌에서는 강제 징용, 보국대 징발, 징병 등으로 인한 로력 부족과 강제 공출, 각종 세금, 공과금의 배가 등으로 더욱 처참한 생활고를 겪었다.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32—1942년간 아사자, 동사자가 무려 7만 1천 334 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조선 인민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가히 알 수 있게 한다. (경성 일보사 발행 《조선 년감》 1945년 판)

또한 일제는 조선 인민을 완전히 《황국 신민화》한다고 하면서 《일본 국기 게양》, 《궁성 요배》, 《신사 참배》, 《정오 묵도》, 《황국 신민 서사 제창》, 《일본어 상용》 등의 각종 파쑈적 규률을 총검으로 강요하였으며 1939년에는 소위 《창시 개명》을 강요하여 조선 사람의 성명마저 빼앗으면서 조선 민족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조선 인민에게 가한 정치적 탄압과 학살 만행들 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난 날 조선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정치적 폭압과 죄행은 근세 력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전대 미문의 극악한 만행이였다.

3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조선 인민을 총칼로써 억누르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무제한 략탈하여 갔으며 조선 인민에게 갖은 고통과 불행을 다 주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야만적 헌병 경찰적 무단 통치를 배경으로 하여 토지를 비롯한 산업, 운수, 류통 등의 경제 명맥을 독점하고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며 조선을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자본 투하지, 나아가서는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략탈적 경제 제도를 수립하는 데 광분하였다.

일제는 우선 당시 조선 인민의 기본 생산 수단이였던 토지에 대한 강도적인 략탈을 자행하였다.

1910—1918년에 이르는 8년 여의 기간에 일제 침략자들은 소위 《토지 조사령》에 기초하여 《토지 소유권의 조사 확인》을 한다는 미명 하에 조선의 광대한 농토를 강압적으로 수탈 점유하였다.

일제는 군대 및 경찰, 관헌의 엄호하에 진행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과거 조선의 공전이였던 역둔토, 궁장토, 미간지, 간석지들의 전부와 기타 농민들이 경작하던 토지 일부를 《국유지》라는 명목으로 직접 략탈하였다.

일제는 소위 《수속 위반》, 《증거 불명》 등의 구실하에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측량과 행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군용지, 철도용지, 도로용지, 실습용지 등 각

종 명목을 붙여 농민들의 광대한 토지를 략탈하였는바 그의 총면적은 100 여 만 정보(100 여 만 헥터)에 달하였다.(호소가와 가로꾸 저 《조선 식민사》 1941년)

일본인 토지 회사인 《동척》의 소유지만 하여도 1910년에 1만 1천 여 정보 (1만 1천 여 헥터)였던 것이 1920년에는 벌써 약 10만 정보 (약 10만 헥터)로 격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기타 일본인 토지 회사들의 소유 토지는 8만 7천 여 정보 (8만 7천 여 헥터)로부터 20 여 만 정보(20 여 만 헥터)로 격증하였다.

일제는 토지와 함께 산림 — 림야 략탈도 강도적으로 진행하였다. 1911년에 공포한 《조선 산림령》과 1918년에 공포한 《림야 조사령》에 의하여 역시 《림야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종래로 조선 인민들의 공동 리용으로 인정되여 온 전국의 방대한 림야를 강탈하여 소위 《일본 국가 소유림》으로 만들었다.

결과 《림야 조사 사업》이 끝난 1924년에는 이미 조선의 림야 총면적 1천 600만 여 정보(1천 600만 여 헥터) 중 1천 120 여 만 정보(1천 120 여 만 헥터)가 《일본 국가 소유림》으로 전화되였다. (조선 총독부 발행 《시정 25년사》 1935년)

일제 침략자들에게 토지를 박탈당한 조선 농민들은 조상 전래의 토지로부터 리탈되여 령세한 소작농으로 전락되였으며 식민지 반봉건적인 2중 3중의 착취에 얽매이게 되였다.

조선 농촌을 식민지 반봉건 착취 관계로 재편성한 일제는 1920년대에 이르러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 농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본인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이 소위 《산미 증식 계획》이니 《농어촌 진흥 운동》이니 하는 것은 《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농산물을 일본에 실어 가기 위한 것에 불과》(《산업 로동 시보》) 1929년 9호) 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식량 확충과 군수 생산의 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면화 증식 5 개년 계획》, 《남면 북양》 등을 강요하면서 더욱 각방으로 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 농민들의 고혈을 최대한으로 짜 내였다.

이것은 미곡 반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일본에로의 미곡 반출량은 1912—1916년 기간에 년 평균 130만 9천 석 (19만 6천 350 톤)이였는데 1932—1936년 기간의 년 평균 미곡 반출량은 그의 7 배에 달하는 873만 5천 석(131만 250 톤)으로 증가하였다. (조선 총독부 발행 《농업 통계》 1939년)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제 강점 기간에 그들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실어 간 쌀은 1억 6천만 석 (약 2천 400만 톤)에 달하며 여기에 잡곡을 합하면 2억 6천만 석 (약 3천 900만 톤)에 달하였다. (조선 총독부 발행 《농업 통계》 1944년 및 《식량 영단 통계 자료》)

일제는 조선에서 생산된 면화, 아마, 잠견 등 섬유 원료도 소위 《공판제》의 명목 하에 몽땅 빼앗아 갔다.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1년부터 1942년까지 실면으로 10억 근 (60만 톤) 이상에 달하는 면화를 일본으로 략탈하여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 《농업 통계》 1942년)

또한 일제는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약 170 여 만 두에 달하는 조선 소를 생체로 일본에 가져 갔는바 그 중 40만 두는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 《공출》로 략탈해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통계 년보》 1944년 및 노조끼 노노브 미찌저《경제학 론집》 1947년)

이외에 감자, 담배, 인삼 등을 비롯한 공예 작물과 말,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 략탈도 부지기수이다.

일제는 방대한 량에 달하는 알곡과 농산물들을 모두 고률 소작료와 가렴 잡세의 징수, 강제적인 《공출》 등을 통하여 략탈하였다.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다수 농민들은 《농산물의 50% 지어 90%에 달하는 고률 소작료》(조선 총독부 발행 《조선에서·소작에 관한 참고 사항 적용》 1934년)를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에게 빼앗겼다.

일제의 지주 — 고리대 회사인 《동척》과 《흥업 주식 회사》를 비롯하여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에서 소작료로 받아 먹은 알곡만 하여도 대략 1억 4천만 석(약 2천 100만 톤)에 달한다. (《조선 흥업 주식 회사 30주년지》 1926년 및 《동척 주식 회사 20년지》 1926년, 조선 총독부 농림국 발행《전조선의 전답 매매 가격 및 수익조》 1943년)

더우기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제는 조선 농민들로부터 《전시 체제》의 구실 하에서 총 생산량의 50—60%에 달하는 미곡을 강제 공출로 빼앗아 갔다.

일제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941—1945년 패망 당시까지 경제 외적인 총칼의 위혁밑에 소위 《전시 공출》로 5천만 석 (750 여 만 톤)의 미곡과 700만 석 (105만 톤)의 맥류를 빼앗아 갔다. (일본 대장성 관리국 발행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력사적 조사》 1947년)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농촌 수탈로 말미암아 당시 조선 인구의 80%를 차지한 농민 대중은 항시 혹심한 기아 선상에서 신음하였다.

일제는 농촌 수탈과 함께 조선의 풍부한 자연 부원을 략탈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은 강점 초기에 이미 관권과 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강점 전 기간 자본 축적의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금 략탈에 광분하였다. 일제 자신이 발표한 축소된 통계에 의

하더라도 조선에서 략탈해 간 금은 363 톤 이상에 달하였다. (조선 총독부 발행 《통계 년보》 1944년 및 일본 대장성 관리국 발행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력사적 조사》 1947년)

일제는 1930 년대에 들어 와 대륙 침략 전쟁의 준비와 관련하여 군수용 광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조선에서 각종 지하 자원을 더욱 대대적으로 채굴하여 갔다.

일본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것만 해도 1934년부터 1944년까지의 10 년간에 1천 798만 톤 이상의 철, 21만 1천 톤 이상의 아연, 68만 톤 이상의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다량의 각종 군수용 광물을 채굴 략탈하여 갔다. (일본 대장성 관리국 발행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력사적 조사》 1947년)

1943년에 조선의 중요 광물이 일본의 총 생산고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흑연, 운모, 중정석, 마그네사이트 등은 100%, 중석은 88%, 모리브덴은 85%, 형석은 95%, 연은 60%라는 놀랄만 한》 것이였다. (미야께 이찌로 저 《대전 하의 반도 경제》 1944년)

우리 나라 산림 자원을 독점한 일제는 1931—1942년 기간에만도 무려 3천만 립방 메터의 원목을 채벌하여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 《통계 년보》 1944년 판)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되였으며 농업 생산에도 심대한 악 영향을 주었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독점한 일제는 1935—1945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총 1천 432만 톤의 수산물을 략탈하여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 《조선 수산 통계》 1942년, 일본 수산 협회 발행 《수산 월보》 1945년 및 일본 대장성 관리국 발행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력사적 조사》 1947년)

일제 략탈자들이 조선에서 략탈하여 간 모든 재부에는 조선 인민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 있다.

일제 강점 시기 조선 로동자들은 가장 혹독한 계급적 및 민족적 2중의 착취와 정치적 억압을 받았다.

일제는 무장한 《감독》과 《십장》들의 감시하에 조선 로동자들에게 하루 보통 12~15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면서도 그들에게 로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 로동자의 몇 분의 1도 못되는 《기아 임금》을 지불하였다.

일제는 조선 로동자들에게 이러한 기아 임금마저 《벌금》, 《세금》, 《저금》 등의 각종 명목을 붙여 강탈하고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일제 략탈자들은 자기의 수탈 정책에 의하여 파산 리농한 농민들을 도시와 광산에 내 몰아 산업 예비군을 형성케 하고 취업 로동자들의 로임을 계속 인하하였으며 심지어 《만보》, 《전표제》 등을 도입하여 중세기적인 착취를 감행하였다.

더우기 일제는 중 일 전쟁을 도발한 이후 시기에는 《전시 증산》이라 하여 조선 로동자들에게 무제한한 로동 시간의 연장과 살인적인 노예 로동을 강요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만 급급하고 그들에 대한 로동 보호 시설은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 많은 조선 로동자들이 로동 재해로 희생되였다.

장진강 발전소와 수풍 발전소 건설 공사 시에 일제가 수만 매의 사망 신고서를 미리 인쇄하여 놓고 조선 로동자들을 죽음의 공사장에 내몰고 고혈을 짜냈다는 것은 상술한 사실들 중의 일례에 불과하다.

실로 일제가 조선 인민을 략탈 착취한 방법은 중세기적인 방법에 근대 제국주의적인 모든 것을 다 병합한 극악한 것이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큰 밑천도 안 들이고 우리 나라의 농산물과 공업 원료들을 헐값으로 지어는 무상으로 략탈하여 간 반면에 일본 공업 제품은 비싼 독점 가격으로 강매함으로써 또한 막대한 리익들을 보았다.

1941년 경에 우리 나라에서 《상품 가격은 대체로 일본보다 15~20% 높고 매매 차익률도 23~24%라는 높은 것이였다》. (잡지 《년간 조선》 1942년)

일본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조선인 중소 상공업자들은 파산 몰락하였다.

1911년 공업 자본 중 조선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6%였는데 1929년에는 6.9%로 격감되였으며 1940 년대에 들어 와서는 《중소 기업 정비령》에 의하여 몽땅 소멸되고 말았다.

일제 강점 시기 재정 신용 체계는 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써 리용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조선 인민은 추가적인 착취를 당하였다.

일제는 《조선 은행》을 비롯하여 각종 신용 기관들을 설치하여 국내의 재정 활동을 독점하고 공채 강매, 강제 저금, 고리대에 의한 차압 등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 인민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금융 기관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략탈한 것만 하여도 1944년 말까지 125억 원 이상에 달하였다. (일본 대장성 관리국 발행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력사적 조사》 조선편 5분책 1947년) 일제는 경제적 착취 이외에 경제 외적인 각종 략탈을 또한 가혹하게 감행하였다.

일제 통치 시기 조선 인민이 부담한 조세 및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만도 53 종이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이 밖에 조선 인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 정책을 실시하면서 파괴 방화한 가옥과 략탈한 재물들, 군사적 시설과 공사, 도시, 철도, 도로 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가옥과 토지를 몰수한 것 등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실례로 1935년 노구찌 재벌에 의한 장진강 발전소 건설 당시

《장진호 밑에 침식 당한 가옥은 7천 호이고 6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과 토지를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그들에 대한 아무러한 사후 대책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 곳에서 추방하였다. (전 조선 총독부 농림 국장 유노무라의 회상기 《조선 쌀과 함께 30년》 1958년)

일본 강탈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착취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와서 《전시 총 동원령》을 선포하고 조선 인민에게 큰 숨도 못 쉬게 하면서 조선의 물적 및 인적 자원들을 강제 징발하여 갔으며 《징용》 및 《보국대》로 수 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 로동에 동원하였다.

또한 일제 침략자들이 《전시 국채》와 《국방 헌금》 등의 명목하에 빼앗아 간 돈도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

간악한 일제는 반세기에 걸친 이러한 강도적 략탈도 부족하여 패망 당시에는 조선 인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얼마 안 되는 공장, 기업소, 광산, 교통 시설들마저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조선 령내에 있던 선박들을 가지고 달아났다.

일제가 지난날 조선 인민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저주로운 강탈 행위들과 그의 수탈 정형들을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경제는 극도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띠게 되였다.

이리 하여 해방후 조선 인민의 경제 건설은 말할 수 없는 난관과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조선 인민이 받은 참혹한 재난과 물질적 피해들 중 계산 가능한 것 만을 개괄적으로 집산한 데 의하더라도 그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현화폐 가격으로 하여 수천 억 원에 달한다.

4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점 전기간을 통하여 조선 인민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악질적인 《우민 동화》 정책을 실시하며 조선 인민의 찬란한 민족 문화를 유린 말살하는 데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유구한 력사를 부인 외곡하고 조선 인민의 애국적인 전통과 고유한 민족 문화를 말살함으로써 독립과 해방에 대한 조선 인민의 민족적 각성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귀한 문화 유산들을 수 없이 파괴 략탈하여 갔다.

일제 략탈자들은 벌써 강점 초기에 조선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 및 《보존령》과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회》라는 허울 좋은 법령과 략탈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총독을 비롯한 수탈 괴수들이 망라되여 마음 나는 대로 조선의 귀중한 모든 문화 유물들을 략탈하여 갔다.

실례로 일제는 공주, 부여 부근에 있는 백제 시기의 고분들과 대동강, 재령강 류역의 고대 분묘들을 야만적으로 도굴하고 그 속에 있던 귀금속을 비롯한 일체 고귀한 문화재들을 략탈하여 갔다.

세계에서 유명한 고려 자기와 보물들을 략탈하기 위하여 일제는 개성 지구의 고려 왕릉을 비롯한 수다한 왕릉들을 도굴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평양 대성산 일대에 있는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고분을 포위하고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조차 못 하게 하면서 이 지역의 고구려 고분들을 모조리 도굴하여 문화 유물들을 모두 실어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 《고적 조사 보고서》 1930년)

소위 《고적 보존 위원회 위원》들은 강점 첫 10 년간에 대동강 변과 룡연면 일대에서 무려 1천 400 여 개에 달하는 고분들을 거의 다 파헤쳐 유물들을 략탈하여 갔다. (조선 총독부 발행 《고적 조사 특별 보고서"락랑"》 1930년)

일제는 리조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근 500년 (1392—1862년) 간의 모든 내외의 력사적 사실들을 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놓은 1천 800여 권에 달하는 《리조 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등 수만 권의 장서들을 략탈하여 갔다. 일제는 고려 말 이래의 유명한 미술 작품 수천 점을 략탈하여 갔다.

일본 침략자들은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금관을 비롯한 금, 은, 주옥들을 략탈하여 갔으며 덕수궁 미술관 등에서는 3 국 시대의 제 1 위의 금, 동불상 중 그 대부분을 략탈하여 갔으며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불상, 불구, 석불, 석탑, 석동 등 문화 유물과 미술 공예품들을 략탈하여 갔다.

일제는 구왕궁(리왕직) 아악부에 보전되였던 고려 시기 이후에 성행한 조선 인민의 자랑스러운 고전 악기와 장악원에 두었던 악보들과 무용복들도 모두 략탈해 갔다.

일제는 철도와 도로 부설 또는 군사 시설, 도시 건설 등의 구실하에 평양성, 개성의 라성, 서울성 등의 도성들을 비롯하여 지방 읍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의 전통이 스며 있는 수다한 성지들을 파괴하였으며 평양의 애련당, 정해문들과 서울의 창덕궁내 준원전, 창경원 내 문정전 등을 비롯하여 각지에 있던 고대 건물들과 고적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 버렸다.

임진 조국 전쟁 때 왜적을 물리치는 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애국적인 의병들과 인민들의 전공을 기념하여 세워 놓은 유적을 거의 다 파괴하였다.

평양 모란봉에 세워 놓았던 민충단도 일제의 손에 의하여 흔적도 알 수 없게 파괴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조선에서 략탈하여 간 금관과 각종 장식 패류를 비롯하여 고려 상감 청자와

청동 거울, 불상 등 수다한 미술 공예품들과 조형 예술품들을 도꾜 황실 박물관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곳에 진렬하여 놓고 파렴치하게도 그것을 일본의 국보로 지정하였다.(조선 총독부 발행 《고적 도보》 1928년 판)

이 밖에 심사정의 《맹호도》는 일본인 모리 다즈오가, 《고려 양각 련화문 접시》는 노자끼 도오요시가, 《청자 기린 개향로》는 하마다 요네다로가, 《신라 동조 석가불》은 가와하라 겡노스께가 점탈한 것과 같이 일본인 개인들이 점유한 것도 부지 기수이다.(조선 총독부 발행 《고적 도보》 1928년 판)

심지어 초대 조선 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의 문화 유물들을 략탈하여다가 자기 집에 미술관까지 만들어 놓는 철면피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치부의 수단으로 서울과 도꾜에 소위 《미술 구락부》라는 경매장을 벌려 놓고 조선에서 강탈한 수 많은 보물과 공예 미술품들을 방매하기도 하였다.

《전 리왕직 차관이였던 고미야 미호마쯔는…1936년에 미술품 만도 300여 점을 들어 내다 미술 구락부에서 경매》하였다. (사사기 기자하루 저 《경성 미술 구락부 창업 20년 기념지》 1942년)

일제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략탈하여 간 고귀한 문화재를 악용하여 조선 력사를 일제의 침략 행위에 적합하도록 외곡 날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제가 조선 민족의 유구한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략탈 파괴 행위들 중의 극히 몇 개의 실례에 불과한 것이다.

일제의 조선 인민에 대한 《우민 동화》 정책과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은 교육 부문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제는 1911년에 공포한 소위 《조선 교육령》과 《신사립 학교 규칙》등에 의하여 조선인 사립 학교들을 대량적으로 강제 해체하였다.

1910년 강점 당시 2천 100 여 개였던 사립 학교는 1919년에 749 개로 격감되였다.(조선 총독부 발행 《시정 25년사》 1935년)

일제는 그의 식민지 략탈에 소요되는 로동 인원의 육성에 필요한 약간의 보통 학교와 중등 실업 학교를 설치하였을 뿐 대다수 조선 인민을 교육망에서 제외하였다.

극히 일부분 조선 사람들에게 실시하였다고 하는 교육은 조선어의 사용마저 금지한 철저히 《일본 정신》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였으며 저급한 일반 교육과 실업 교육을 주는 데 그치였다.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노예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일본인들까지도 《…력사를 말하지 말라, 과거를 말하지 말라, 나무를 심으라, 밭을 일구라, 양잠을 배우라》는 교육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시 모리히사미 저 《조선 통치 비판》 1926년)

이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조선 인민은 문화 분야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 재난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선진 제국에 비하여 혹심한 락후성을 물려 받게 되였다.

5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조선 인민에게 감행한 또 하나의 큰 죄악은 그들이 조선 사람들을 대량적으로 일본에 강제 련행하여다가 잔악하게 억압, 착취하고 학살한 사실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고률의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며 강도적 략탈과 착취로 조선 인민들의 생존 수단을 박탈하였다.

생활 방도를 잃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상시적인 값싼 로동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더욱 팽창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렴가한 로동력을 찾는 데 광분하면서 기만과 회유, 위협과 공갈 등 온갖 비렬한 방법을 다하여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끌고 갔다.

특히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르러 일제는 전시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강제 징용하여 갔다.

일제는 이 시기에 조선 사람들을 끌어 감에 있어서 야밤에 농가를 습격하며 백주에 트럭을 들이대고 밭에서 일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닥치는 대로 랍치하여 가는 등 말 그 대로의 《조선인 사냥》을 감행하였다.(가마다사와 이찌로 저 《조선 신화》 1950년)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 갔거나 류랑하여 간 조선 사람은 실로 약 500만 명에 달하였는바 그 중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만도 일제는 115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등으로 강제로 끌어 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 끌어 간 조선 로무자들을 례외없이 탄광, 광산, 토목 공사, 군사 시설, 건설장 등 가장 고된 로동 부문에 투입하고 하루 12~15 시간씩 우마와 같이 혹사하면서 그들의 고혈을 최대한으로 짜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혹사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최저 생활비 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다 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무수한 바 그 중 몇 가지 사실만 들어도 다음과 같다.

1922년 니이가다현 싱에쯔 전력회사 수력 전기 공사장에서 일본 당국자들은 조선 로무자들이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벌거 벗기고 거꾸로 매여단 다음 쇠갈구리로 살을 찔러 류혈이 랑자하게 한 후 소금물을 치며 철판에 앉히고 그 우에 조약돌과 양회를 쌓아 놓고 물을

부어 얼어 붙이여 신체가 오그라들고 저리게 만드는》 등 잔인한 악행을 감행하였다.(《동아 일보》 1923년 8월 20일)

이러한 만행은 조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일본의 각 공사장과 작업장들에서 어데서나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들이 있는 작업장들에는 의례히 조선에서 이미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습성이된 그런 헌병과 경찰들을 배치하였다.

당시의 재일 조선인들의 무권리와 생활상 참혹성에 대하여《동아 일보》 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 로동자는 고대 로마의 노예 계급을 겪세 재현하는 것과 같다》. (《동아 일보》 1926년 1월 15일)고 지적하였다.

이리 하여 일본에서 수십년 간 헤아릴 수 없이 수 많은 조선 사람들이 빈궁과 고역에 지치고 기한에 떨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르러 재일 조선 공민들은 《주로…헌병과 경찰관에 의한 몽둥이의 위협과 관리 가운데서》 강요된 가혹한 로동 조건 하에 있었던 바 이것은 《완전히 로동의 군사적 징역제》였다.(일본 력사 연구회 발행 《태평양 전쟁사 3》 1953년)

일제는 일본에서 지방 경찰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소위 《협화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들의 민족적 례식마저 엄금하며 조선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법령을 가지고 항상 특별한 대상으로 감시하였으며 사소한 언행에 대해서도 트집을 걸어 검거, 투옥하였다.

1933년에만 하여도 일제는 《치안 유지법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등등의 죄명을 씌워 일본에서 조선인들을 4만 9천 468 명이나 검거 투옥하였다.(일본 내무성 발행 《1932—1937년의 사회 운동 상황》)

이것은 1933년에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10%를 검거 투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전 기간에 걸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조선인 집단 학살 사건을 루차에 걸쳐 조직하였다.

1923년 9월 관동 대 지진시에 일본 내무성과 군부는 저들의 직접 지휘 하에 조선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찌기 조선 총독부의 정무 총감을 하면서 조선 내에서 조선인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는 일에 종사한 바 있었던 일본 내무상 미즈노 렌다로는 1923년 9월 1일 관동 대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일본 인민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지바현 후나하시의 해군 무전국을 통해서 조선인 학살에 대하여 전국에 지시하였다》 (이노우에 기요시 저 《일본 근세사 하》 1956년)

일본 정부 당국의 이러한 지시와 민족 리간 선동에 따라 군대, 경찰, 테로단들을 1923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도꾜에서 실로 6천 600 여 명의 죄없는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지어 일제 흡혈귀들은 조선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한데 묶어 놓고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는 재일 조선인들을 탄광, 광산들에서 참살하는 것을 예상사로 삼았으며 군사 시설 건설장에 동원되였던 조선 로무자들을 공사가 끝난 다음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수 없이 학살하였다.

1938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에 북해도 탄광들에서 830 여 명이 학살된 것을 위시하여 1940~1944년간에 일본 전국 탄광에서 6만여 명의 조선 로무자들이 학살되였다.(일본 미쯔비시 미우다 탄광 로동 조합 발행 《탄광에서 산다》)

미야기 현의 센잔셍 철도 부설 공사에서도 조선인 로무자가 대량 학살되였는바 현재도 이 지대에서는 《침목 한 대에 조선인 1 명》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태평양 전쟁중 조선인 순난자 위령 준비 위원회 《조선 순난자 자료》 1979년)

일제는 다카시로 해군 비기장 관통 공사장에 수천 명의 조선인 로무자를 동원하여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함이 없이 노예 로동을 강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계속 영양 부족과 병으로 사망케 하였으며 병으로 로동이 불가능하게 된 로무자는 《태공하고 있다》고 폭행을 가하여 살해하거나 생매장까지 하였다.(상동)

일제는 구릴렬도의 가시마 구미에 동원되였던 5천 여 명의 조선인 로무자들을 참살하였으며 애무지 섬에서도 2천 500 명의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재일 조선인들에게 가한 학대와 살인 만행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패망하였다.

그리 하여 재일 조선인들은 독립 국가의 당당한 공민으로 되였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으로서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니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에 비추어 또한 그들에 가한 저들의 죄행에 비추어 재일 조선 공민들을 응당 보호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 점령 미군 당국과 야합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학살을 비롯하여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계속 감행하고 있다.

1945년 8월 17일 일본 제국주의 잔당들은 미에현 구와나시 동방 특별 작업대 방공호에서 조선 징용 로동자들을 학살한 것을 비

못하여 8.15 직후에 지바현, 교도부, 아오모리현, 북해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후꾸시마현, 도야마현 등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1945년 8월 22일 일본 해군 당국은 아오모리현의 오미나도에서 북해도 탄광들에 강제로 끌어 갔던 조선 로동자들에게 《금번 귀국하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 갈 길이 없다》고 위협하여 3천 745명을 수송선 우끼시마 마루에 태운 다음 마이즈루항에서 8월 24일 선박을 폭파시켜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일본 신문 《곡사이 신붕》 1954년 10월 9일)

그 후 일본 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미 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민족적 차별과 압박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일본 당국은 무장한 경관대들을 대량 동원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부락과 기관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며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감행하여 왔으며 수 많은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에 강제 추방함으로써 살해케 하는 등 그들의 민주주의 민족적 권리를 유린하는 비법 행위를 감행하였다.

현재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및 폭행 사건을 빈발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지금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소위 《재일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괴뢰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함으로써 더욱 박해를 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의 공정한 사회 여론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계속 유린하고 그들을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　　*

이상에서 지적한 사실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하여 감행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의 극히 일단에 불과하다.

일제의 패망후 일본 정부는 응당 지난 날의 죄행에 대하여 조선 인민에게 속죄하며 배상을 지불하는 등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따라 조 일 량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았다.

흉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점령한 후 엄연한 국제적 협약을 유린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세력을 자기의 침략 정책 수행에 적합하게 재생시키며 재편성하는 데로 나아갔다.

벌써 1950~1953 년 간의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 시기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미제 침략자들을 각 방면으로 협조하는 공범자로서 또다시 조선 인민에 대한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는 조선 인민에 대한 속죄는 고사하고 더욱 조선에 대한 재침 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정하에 진행하고 있는 《한일 회담》을 바로 자기들의 조선 재침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삼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일 회담의 목적이 3.8 경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라고 하며 일본, 남조선, 대만을 합한 《일본 합중국》을 만들 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리였으며 《조선에 대한 통치의 경험이 있는》자기들에게 《남조선을 내여 맡길 것》을 미제에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지금 일본 침략 세력은 박 정희 매국 세력들을 길잡이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침투의 촉수를 각 방면으로 뻗치고 있으며 남조선에 일본 군대를 파견할 데 대해서까지 서슴 없이 떠벌리고 있다.

사태는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체결 전야의 정세를 방불케 한다.

원래 《한일 회담》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끌어 들여 리용하며 나아가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세력을 아세아 대륙의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을 목적한 《동북 아세아 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 전쟁의 앞잡이로 나서는 대가로 조선과 아세아에서 옛 지위를 회복하여 보려고 망상하면서 미제의 《한 일 회담》 음모에 적극 가담하였다.

오늘 교활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박 정희 괴뢰 도당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소위 《재산 청구권》 문제의 해결이니, 《경제 협력》이니 하는 명목으로 단 몇 억 딸라를 던져 주는 것으로써 조선 인민에 대한 지난날의 헤아릴 수 없는 죄행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박 정희 매국 도당은 사리 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일본 상전들의 흉모에 적극 아부 굴종하면서 소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전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째 팔아 넘기고 있다.

박 정희 반역 도당은 을사 5적과 같은 자기들의 추악한 매국 배족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제 협력》으로 남조선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듯이 떠벌리고 있다.

근 40년간이나 조선에서 전대미문의 류혈적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여 조선 전국을 조선 인민의 피로써 물들였으며 조선의 모든 재부를 깡그리 긁어 가고 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낼 대로 짜냈을

뿐만 아니라 패망 도주할 때에는 얼마 안 되던 공장, 기업소, 탄광, 발전소, 운수 수단들마저 모조리 파괴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제의 그 어떤 《선심》에 기대해서 남조선의 경제를 재전하려 한다는 것은 오직 매국노의 타기할 넋두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1962년 12월 13일 부 성명에서 이미 명백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조선 인민에 대한 배상 지불 문제를 비롯하여 조 일 량국 간의 력사적인 미해결 문제들은 조선 인민을 대표한 적도 없으며 또 대표할 수도 없는 남조선 괴뢰 도당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법적인 《한일 회담》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배상 문제를 비롯한 조 일 량국 간의 미해결 문제들은 조 일 량국 인민의 리익에 다 같이 관계되며 극동의 평화 유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인 만큼 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 문제들을 진정으로 공명 정대하게 조 일 량국 인민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응당 조선이 통일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일본 정부가 현 시기에라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원한다면 마땅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래도 정당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성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후에도 남조선 박 정희 괴뢰 도당과 비밀 흥정을 계속하며 그의 본래 흉계를 버리지 않고 그를 기어이 감행해 보려고 집요하게 날뛰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일본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은 일본을 미제의 침략 책동의 희생물로 전락시키며 일본 인민에게 파멸적인 위험을 가져 올 뿐이다.

지금 일본 인민들 속에서 박 정희 괴뢰 도당과 손을 잡으려는 이께다 반동 지배층의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치렬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극히 정당하다.

우리는 일본 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대한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현 위정자들은 력사는 결코 역전될 수 없다는 것과 무분별한 행동에 매달리였던 선행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조선 인민은 일본 정부가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계속하고 남조선 박 정희 괴뢰 도당과 그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음모를 분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1964년 3월 20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법령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 농촌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원칙과 수행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 문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농촌에서 력사적인 토지 개혁이 실시되였으며 전후 짧은 기간내에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다.

우리 농촌에는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가 튼튼히 수립되였으며 생산력은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이것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의 하나이다.

당은 승리한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 개조를 실시하여 전국을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게 하였으며 홍수와 가물을 극복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1963년에 농기계 작업소망은 1958년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경지 면적 100정보 당 0.9대(15마력 환산)에 해당하는 뜨락또르와 수만 대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고 있으며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다.

지난해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농경지 정보 당 300키로 그람에 달하였으며 각종 농약과 살초제의 공급량도 더욱 증가되였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가 강화되고 집약 농법에 기초한 과학적 영농 체계가 수립되여 가고 있으며 농업 생산은 계속 장성하였다.

당은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와 함께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7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였다.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 많은 농촌 청장년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여 학습하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건과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만 명의 기술 간부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다.

오늘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기사, 기수, 전문가 수는 1959년에 비하여 근 6배로 장성하였다.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농촌에 수 많은 문화 주택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건설되였으며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였다.

각종 출판물이 대량적으로 농촌에 배포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군중 문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 침체하고 락후하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문화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이 강력히 진행되여 농민들의 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 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당과 국가에 무한히 충실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확대 발전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에 의거하여 농촌에 대한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건과 주택 및 문화 후생 시설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였으며 공예 작물과 축산물 수매 가격을 높이고 협동 농장의 대부금 상환과 농업 현물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감면하고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를 인하하였다.

도시의 수 많은 청장년들을 농촌에 파견하였으며 사회적 로력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지원은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고 농업 생산의 앙양을 촉진시켰으며 협동 농장들을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군을 개편하고 군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에서 군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군중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는 사업 작풍이 확립되였다.

영농 기술이 발전하고 협동 농장들의 기술적 장비가 강화되고 있는 새 환경에 적응하게 협동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전문적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 창설된 농업 지도 기관들은 기술 력량과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물질적 방조를 강화하였으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였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과 농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농업 생산은 해마다 증대되였다.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1963년에 알곡 생산은 풍작을 이루었으며 벼의 수확량이 높아짐으로써 알곡의 질적 구성이 개선되였다.

공예 작물 생산이 현저히 높아지고 축산업 발전의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으며 과실 생산은 가까운 장래에 급속히 장성될 것이 예견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식량 기지, 원료 기지가 튼튼히 닦아졌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부유하고 문명하게 살 데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은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 협동 경리의 공고화, 농업 생산력의 발전, 농민 생활의 향상, 농민들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이것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무궁무진한 우월성의 위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축소되였으나 아직도 그 차이는 현저하다.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 농촌의 세기적 락후성으로 인하여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졌으며 농민의 생활은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 문제 해결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로동 계급이 농민을 지도하며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 한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수준을 높이며 농촌 경리 부문에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협동 농장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계속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계통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모든 농촌 마을에 상점과 편의 시설들을 다 갖춘 봉사 단위를 조직하고 생활 필수품을 농촌에 더 많이 공급하며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농업의 발전 전망은 휘황 찬란하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과 충분한 조건이 있다.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 주권이 있으며 더 빨리 전진하려는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가 있으며 농촌 경리에 계속 강력한 지원을 줄 수 있는 튼튼한 공업과 국가적 축적이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만족스럽게 인정하면서 협동 농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동 농장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농업 현물세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한다.

2.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던 관개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 전기 시설을 비롯한 모든 생산적 건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은 국가 투자로 진행한다.

탈곡기, 사료 분쇄기, 전동기, 양수기, 분무기, 가마니 직조기 등 모든 농기계는 국가가 협동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그 수리도 국가 부담으로 한다.

3. 농촌 문화 주택은 년차 별 계획에 의하여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다. 이미 지어 준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4.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본 법령 실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전체 인민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 빨리, 더 훌륭히 건설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호 소 문

남조선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남조선 국회 의원 제씨들!

지금 남조선에는 《한일 합병》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엄중한 위험이 닥쳐 오고 있다.

미제의 조종 하에 진행되는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일 회담》은 이미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일본과 남조선 지배층을 결탁시켜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을 결성하고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 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경제 협력》과 《공동 방위》라는 간판 하에 남조선에 대한 경제 문화적 침투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하고 있다.

벌써 남조선에는 일본 상품과 《왜색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식민지 통치자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을 망상하면서 물밀듯이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또다시 침략하기 위한 야망을 품고 오래 전부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면밀한 준비를 추진해 온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마침내 자기들의 범죄적인 재침 계획을 실천하는 본격적인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한다.

사태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거늘 이제 만일 《한일 회담》이 결속된다면 남조선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지배와 예속 아래 놓이게 되리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박 정희 도당은 이러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 길잡이로 나서고 있으며 제 2의 리 완용으로 자처하면서 로골적인 매국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극력 아부 굴종하면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꺼리낌 없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처분 하에 내맡기고 있다.

그들은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압박 하에서 착취 받고 략탈 당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모든 것과 동포 형제들이 흘린 피의 대'가인 조선 인민의 대일 배상권 문제를 단 몇 억 딸라에 팔아 넘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어민들의 어업권도 팔아 먹고 있으며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 민족 권리도 팔아 먹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까지도 팔아 먹고 있다.

과연 이러한 천인 공노할 매국 행위가 그들의 기만적인 구호대로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일제의 오랜 충복인 박 정희 도당이 나라를 파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흉악한 목적 밑에 감행하는 반역 행위이다.

《한일 회담》이야말로 지난 날의 《을사 조약》의 재판이며 남조선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밀어 넣는 저주 받을 매국 흉책이다.

과거에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들과의 공모 하에 조선을 강점하였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조종과 그들과의 공모 하에 남조선을 지배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남조선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공동의 식민지로 전락될 절박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참을 수 없는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이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그 주구들의 매국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폭로 규탄하면서 《한일 회담》을 분쇄 파탄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남조선 전역에 걸쳐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폭압을 박차고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를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애국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투쟁에 궐기한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최대의 성원을 보낸다.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남조선 국회 의원 제씨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나라의 절반 땅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이 긴박한 시각에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분쇄하고 민족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거족적인 구국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당신들, 각계 각층 남조선 인민들과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 불타는 우국의 일념으로 엄숙히 호소한다.

사태는 지금 어떠한 관망도 유예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전 민족의 력량을 단합하여야 한다.

정치적 견해와 제도의 차이는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데 결코 장애로 될 수 없다.

나라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찌 정치적 견해와 제도의 차이만을 따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천추에 한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젖혀 놓고 우선 전 민족이 단합하여 나라를 구원할 결정적인 구국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만일 당신들이 미국 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조국 남녘 땅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밀어 넣어 그들의 지배 하에서 2중적 식민지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남북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길에 주저 없이 나서라!

정견과 사상의 차이, 신앙과 재산의 유무, 과거와 직업의 여하,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전 민족적 애국 력량을 굳게 결속하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목과 불신임을 제거하고 한데 뭉쳐 침략자들을 끌어 들이는 매국 역적들과 미 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거족적 반미, 반일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자!

전 민족의 단합은 남조선에서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남조선에서 박 정희 매국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를 철폐하고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여야 한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모든 정치범들은 즉시 석방되여야 한다.

우리는 전 민족적 반미, 반일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구국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시급한 시일 내에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련석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남북 조선 각계 대표들

간의 호상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민족적 단결을 도모할 것을 제의한다.

삼천만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미일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단일한 공동 투쟁 전선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조선을 뒤덮은 검은 구름을 쓸어 버릴 수 있을 것이며 국난을 타개할 방도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래 침략을 물리 치고 자주 자립하는 데 있으며 남북의 합작을 실현하고 민족의 력량을 합치는 데 있다.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합작과 인사 래왕 및 서신 거래를 실현하고 호상 협조와 교류를 도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성취하는 길만이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파국에서 벗어 날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는 단절된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고 남북간의 경제적 합작을 실현하며 전 민족적 력량으로 남조선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할 것을 다시금 제의한다.

우리는 현재 남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이를 고상한 민족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금 형편에서 우선 매년 200만 석(30만 톤)의 쌀, 10만 톤의 강재, 10억 키로 와트시의 전기, 1만 톤의 화학 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하려고 한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받아 들여 그들에게 기능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이 더욱 장성하고 우리의 축적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제적 방조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남북의 합작이 실현되면 남조선의 현 난국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민족 내부에 이러한 훌륭한 밑천을 두고 무엇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며 침략자들에게 예속되여야 하겠는가.

지금 박 정희 도당은 빈궁과 재난을 구제한다는 구실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야합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혹심한 빈궁과 예속과 굴욕의 새로운 재난을 들씌우게 될 것이다.

외세에 예속되여 어떻게 민족 경제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 없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자주 자립함이 없이 어떻게 빈궁과 재난에서 벗어 날 수 있겠는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주 자립은 갱생의 길이다.

오직 남북의 합작만이 남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에서 벗어 나 민족 자립 경제를 건설하고 정치적 자주를 실현할 확고한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전 민족적 반미, 반일 구국 대책을 토의하며 남북 간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합작을 실현할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흉금을 털어 놓고 협상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 한다.

우리는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나 언제든지 남조선 대표들과 만날 준비가 되여 있다.

남조선 국회가 만일 후손 만대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면 응당 우리의 이 모든 제의들을 신중히 접수하고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남북 합작을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국 대책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조종 하에 진행되는 《한일 회담》에서 그 무엇이 어떻게 모의 결정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로 선포할 것이다.

매국 역적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라!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를 꺾어 버리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한일 회담》을 조종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이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라!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고통에서 종국적으로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미제 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여야 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더욱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라!

모두다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민족적 합작을 실현하고 남북의 장벽을 헐어 버리기 위한 거족적 투쟁의 기치 하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각계 각층 남조선 인민들과 사회, 정치, 활동가들이 우리의 이 호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1964년 3월 27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미제가 라오스 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조작하고 라오스에 엄중한 사태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의 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라오스에서는 엄중한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를 자기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며 라오스 애국 력량을 탄압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라오스에 대한 각종 간섭과 침략 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그들은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 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라오스 인민의 반역 도당들을 추동하여 해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자기의 침략 도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음모와 흉책을 다하고 있다.

금번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군사 정변은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와 그의 평화, 중립 정책에 대한 엄중한 파괴 책동이며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세 관계 측이 합의한 모든 협정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횡포한 도전으로 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야말로 자유와 독립의 교살자이며 라오스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음모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인민이 자기간에 견친 투쟁을 통하여 수립한 민주 통일 정부를 라오스 인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정상적인 활동이 시급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부수상 수파누봉의 4월 19일 및 4월 26일 부 성명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의 4월 20일 부 성명에서 제기된 모든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라오스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행위가 즉시 종식되여야 하며 1962년 제네바 협정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고 라오스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킨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라오스 인민의 애국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64년 4월 30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결정

1964년 6월 15일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 군대 복무자들을 대우 함에 관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은 오늘 민생고가 절정에 달하였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미국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이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고무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 괴뢰 도당들은 어떠한 방법과 폭압으로써도 자유와 해방,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 가고 있으며 자주 자립과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국군》 장병들 속에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괴뢰 도당들을 반대 배격하는 기세가 계속 높아 가고 있다.

《국군》 장교들과 사병들은 동포들에게 총을 겨누며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선 부모 형제들을 탄압할 것을 강요하는 미군 호전광들과 그 주구 상층 반역 도당들의 명령을 거부하여 나서고 있으며 미군과 《국군》 악질 장교들에 대한 반항과 보복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애국적인 《국군》 장병들은 미제국주의 대포'밥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고 있는 치욕스러운 《국군》 살이를 용감히 박차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도주하고 있으며 광명의 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계속 의거 입북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는 민족의 영예와 장래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

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하는 《국군》 장병들의 행동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의거하여 오는 《국군》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구원과 행복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군》에 복무하다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으로 의거하여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며 공화국 공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며 관대히 대우한다.

2. 의거 입북하는 사람들이 적에게 손실을 준 개별적인 공로와 집체적 위훈에 대하여서는 그의 공훈에 따라 국가 표창을 수여하며 무기와 기타 군수 기재를 가지고 온 데 대하여서는 각각 그에 해당한 상금을 수여한다.

3.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한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선 인민군에 편입되여 싸울 것을 희망할 때에는 전 《국군》 직급 대로 조선 인민군 군사 칭호를 수여하거나 공로에 따라 승급시키며 집체적으로 의거한 부대, 구분대는 해산시키지 않고 조선 인민군의 해당 병종 부대에 편입시킨다.

4. 의거자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술 연구를 희망할 때에는 그가 요구하는 해당 학교와 연구원에 입학시켜 무료로 공부시키며 국가로부터 소정된 장학금을 지불한다.

직장을 요구할 때에는 희망하는 직장에 보내 준다.

5. 의거자들이 가족을 인솔하고 왔을 때, 또는 남조선 주민이 의거하여 왔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주택을 비롯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에게도 이상의 제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남조선의 경찰 및 기타 기관에서 복무하던 인원들이 의거하여 왔을 때에도 그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며 이상의 제 조항들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외래 침략군 성원들이 의거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

8. 별지 《의거자들을 표창함에 관한 기준》을 승인한다.

의거자들을 표창함에 관한 기준표

№	무기 및 전투 기재 품명	규 격	상금액
1	군 함	대소 함선	200,000~5,000,000원
2	유도 무기	각종	30,000~100,000원
3	분사식 비행기	각종 분사식 폭격기 및 전투기들	30,000~500,000원
4	추진식 비행기	각종 추진식비행기와헬리콥터들	5,000~30,000원
5	전 차	전차 및 자행포들	5,000~10,000원
6	포	각종 포	400~2,000원
7	중기관총	각종	900~1,000원
8	경기관총	각종	350~500원
9	M-14보총	각종	500원
10	기관단총	각종 보총(자동및 반자동)	200~250원
11	보총		150~300원
12	권총	각종	200원
13	무전기	각종	400~800원
14	전화기	각종	100~200원

상기 기준에 지적되지 않은 무기 및 전투 기술 기재와 중요한 군사 기밀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에 대한 상금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민족 보위상의 명령에 의하여 수여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벌써 수 년째 남부 웰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침략 전쟁을 벌려 놓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남부 웰남에 대한 저들의 침략 계획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파탄으로 더욱 심각한 궁지에 빠져 들어 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고 갖은 흉계와 음모 획책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북부 웰남 침공》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면서 맥나마라를 또다시 남부 웰남에 급파하여 살인 전쟁을 확대하고 북부 웰남을 침공할 계획을 모의하였으며 군사 장비의 증강을 목적으로 소위《존슨—맥나마라안》을 꾸며 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아토 및 나토의 성원국들과 기타 추종 국가들을 이 전쟁에 끌어 들이며 남부 웰남 괴뢰들에 대한 군사적 및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과 2일에는 미국 방성 및 외교 계층의 살인 장군들과 전쟁 상인들의 하와이 호노룰루 회의가 있었는바 이것은 남부 웰남과 라오스에서의 침략 전쟁의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음모를 더욱 똑똑히 드러내 놓았으며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미 제국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시해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 책동은 웰남과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중앙 위원회는 5월 23일 부 성명에서,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장은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보낸 5월 26일 부 서한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 행위와 전쟁 정책을 규탄하며 1954년 제네바 협정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남부 웰남에서의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를 견결히 요구하였다.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와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요구와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영웅적 웰남 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 있는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동을 견결히 항의 규탄한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저들의 군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경히 요구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웰남 인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영용한 남부 웰남 인민들이 지난날에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을 여지 없이 파탄시킨 것처럼 오늘의 《맥나마라》 계획도 반드시 파탄시킬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조선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것처럼 웰남에서도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거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해방 투쟁의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야 말 것이다.

1964년 6월 11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광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광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호노룰루에서 동남 아세아 문제에 관한 이른바 《전략 회의》를 벌려 놓은 이후 미 제 7 함대 소속 군함들을 인도지나 근해에 이동시키고 있으며 라오스에 각종 무기들과 군수 물자들을 투입하며 타이를 비롯한 추종 국가 병력을 이에 동원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협정과 세 관계 측 협정 실행의 파탄을 획책하고 있는 미제는 라오스 애국 력량을 반대하여 지난 6월 11일에 캉 카이 상공에 침입하여 야수적인 폭격과 사격을 감행함으로써 수 많은 건물들과 주택들을 파괴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범죄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제 살인귀들의 이러한 만행은 라오스 주권을 유린하고 라오스에서 대규모적인 전쟁을 도발하려는 무력 침략 행동이며 라오스와 동남 아세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독립, 중립과 민주적 화목을 쟁취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라오스 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 행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강경히 항의 규탄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침략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라오스에 끌어 들인 모든 군사 인원들과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경히 주장한다.

라오스에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은 라오스의 독립과 평화를 보장하며 동남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1962년 제네바 회의 14 개국 회의가 시급히 소집되여야 하며 라오스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모든 조치들이 하루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인정한다.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2년 제네바 회의 두 의장국들이 라오스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침략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즉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 인민의 견결한 요구와 세계의 공정한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라오스에 대한 침략 행동을 계속 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

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라오스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라오스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 행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1964년 6월 21일 평양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고함

남조선에서의 미국 군대의 만행에 대하여

평화를 념원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참된 자유를 옹호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

우리는 인류의 량심과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과도 도저히 량립될 수 없는 남조선 강점 미군의 저주할 만행을 단죄하여 이미 1961년 4월에 당신들, 전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 앞에 고한 바 있다. 우리의 이 제소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응당한 지지를 불러 일으켰으며 민족의 존엄과 신성한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이 정의의 목소리는 오늘도 지구 상 도처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아직도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겨레들에 대한 그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심해 가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온갖 정치적 무권리와 빈궁을 계속 강요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인, 폭행, 강간, 재물 략탈 등 야수적인 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겨레들의 피로 물든 남조선 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억울하게 살상 당하는 인민들의 선혈이 계속 흐르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권위가 초개같이 짓밟히고 인민 대중의 고통과 불행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미군 야수들의 이러한 극악 무도한 범죄 행위는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인류의 도덕과 리성을 귀중히 여기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는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농민 동맹,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조선 기자 동맹,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와 더불어 그간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1년 1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출판물들과 통신 보도 및 미국 신문들이 극히 제한하여 발표한 미군의 만행 사건들 중 일부만을 추려서 보더라도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의 야수적인 죄악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죄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금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인민 앞에 폭로하며 제소한다.

1.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살상 만행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인간의 피를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도처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야수적인 방법을 다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살상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제 비위에 거슬리기만 해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되는 대로 차를 몰아 고의적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깔아 죽이는 등 온갖 만행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원자포탄의 실험물로,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삼아 살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저들의 렵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61년 3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교 우에서 경기도 의정부 주둔 미 38 부대 소속 중사 후랭코 엘. 심프손은 스리코터를 몰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 가고 있던 영등포구 도림동 618 번지에 사는 우상을 (27세)에게 심심풀이로 권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1년 3월 11일, 《산업 경제 신문》 1961년 3월 12일)

1961년 3월 24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걸산리에서 미 제 7 사단 102 병기 대대 소속 2 등병 페이워드 지리지는 산에서 나무를 줏고 있던 김 진명 (16세)을 《엠원》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3월 26일)

1961년 3월 25일 경기도 평택군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2 등병 콘스탄 리너는 이 지대에 있는 《케이—6》 비행장 부근을 지나 가던 최 용소 (37세)외 2 명에게 총을 란사하여 그 중 1 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3월 27일)

1961년 4월 7일 오후 미 제 1 기갑 사단 9 련대 《씨》중대 소속 헌병 중사 후레드릭 씨. 웨베는

부대 부근을 지나 가던 김 정옥(22세)과 리 병섭 (29세)에게 까닭 없이 45 구경 권총을 쏘아 김 정옥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4월 8일)

1961년 5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미 제 1 기갑 사단 제 12 기갑 련대 《비》 중대 소속 1 등병 조셉 에프. 부랜드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서 남 홍우(27세)와 깡통 맥주 2 상자를 팔아 먹으려고 흥정하다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1년 5월 4일, 《한국 일보》 1961년 5월 5일)

1961년 7월 5일 오전 미 제 1 기갑 사단 제 8 기갑 련대 소속 미군은 이 부대 주둔 지역 부근을 지나 가던 리 길연 (30세), 김 소연 (23세), 김 광진 (22세)에게 총을 란사하여 모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7월 7일)

1961년 7월 8일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의 미 공군 헌병들은 이 지역의 오물 적재장 부근을 지나 가던 조 완길 외 10 명의 주민들에게 마구 총질하여 그 중 4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7월 11일)

1962년 1월 2일 오후 9시 경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서 미군 순찰병은 산에 나무하러 간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룡곡리에 사는 김 부성 (28세)과 강 정수(30세)에게 렵총을 란사하여 각각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1962년 2월 11일)

1962년 1월 3일 오후 2시 10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에서 대전시 내 주둔 미 제 7군수 사령부 장거리 통신 대대 《씨》 중대 소속 중사 바비 에취. 원담과 중사 어열 제이. 환합은 사냥을 갔다가 아무 것도 잡지 못 한 분풀이로 정류소에서 빠스를 기다리고 있던 《국군》 병사 김 영유(25세)에게 덮어 놓고 렵총을 발사하여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1월 5일, 《한국 일보》 1962년 1월 6일)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단군 진도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8 련대 《디》 중대 소속 하사 토니 외 수십 명의 미군은 40여 명의 나무'군들에게 렵총과 《엠 원》총을 쏘아 그 중 황 광길 (25세,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고 류 기용 (28세)에게 중상을 입혀 10일 후 사망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11일)

1962년 3월 17일 오후 7시 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본정리 산기슭에서 오리 사냥을 하던 미 8 군 평택 비행장 《앤소. 클럽》 책임자 중사 존 부러치는 사냥을 구경하던 김 완수 (16세) 소년에게 고의로 렵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9일)

1962년 4월 1일 오후 3시 경 미군 1 명은 수욕을 채우려고 전라북도 옥구군 성산면 고봉리 봉산동 뒤'산으로 조선 녀성 3 명을 강제로 끌고 올라 가다가 그를 발견한 린근 주민들인 조 서원 (21 세)과 문 신애(30 세)에게 총을 쏘아 조 서원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4일, 《전북 일보》 1962년 4월 10일)

1962년 5월 6일 서울 동작동에서 미 유도탄 사령부 226 통신대 소속 2 등병 하워드 골든 (22세)은 《국군》 하사 리 창식을 려관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여 단도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비명을 듣고 달려간 서울시 흥은동 36의 17번지에 사는 김 봉현 (27 세)을 역시 단도로 찔러 사경에 처하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8월 1일)

1962년 5월 17일 새벽 0시 45분 경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미 제 833 경비 중대 소속 1 등병 리차드 디. 젠센은 조선 녀성 유 춘자 (22 세)를 희롱 끝에 미국 제 45 구경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서울 발 1962년 5월 17일 《합동》 통신)

1962년 5월 30일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포천리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본부 소속 13 통신대 《에이》 중대 1 등병 제루히 웬링 (21 세)은 미군 기관에 고용된 로무자 엄 세준 (29 세)외 1 명에게 미군 숙소에 들어 왔다는 리유로 덮어 놓고 카빙총을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5월 30일, 서울 발 1962년 5월 30일 《동화》 통신)

1962년 6월 21일 미 제 1 군단 소속 미군은 사격장에 접근하였다고 하여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고문리에 사는 임 재민 (27 세)에게 포탄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서울 발 1962년 6월 21일 《동화》 통신)

1962년 7월 20일 서울 외국인 주택 118 호에 사는 미 군속 스티월은 희롱 끝에 조선 녀자 김 옥자 (28 세)를 권총으로 사살하였다. (서울 발 1962년 7월 20일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9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경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 주둔 미군 부대 《에프》 중대 소속 1등병 제임스 더블류. 외스트우드는 부대 옆을 지나 가는 조선인 1 명에게 총을 쏘아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2년 10월 10일)

1962년 11월 29일 오후 11시 경 경기도 림진강 군사 분계선 비무장 지대 근방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제 8련대 소속 미군 경비원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사는 리 길영을 도적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12월 2일, 《한국 일보》 1962년 12월 5일)

1963년 3월 16일 새벽 3시 경

미 제 17 련대 소속 미군 1 명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4 통 8 반에 사는 조 영식 (22 세)을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 년 3월 18일)

1963년 7월 18일 오후 11시 45 분 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1 기갑 사단 련대 본부 보초 1 등병 하지스 제임스는 전등이 밝게 비치는 이 부대 앞길을 노래 부르며 지나 가는 김 덕순 (39 세,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교'골에 거주)과 그의 조카 리 명덕(17 세)에게 보초 옆을 지나 간다고 정지 명령도 없이 《엠—14》 보총 5발을 쏘아 각각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3 년 7월 23일)

1963년 8월 5일 오후 4시 경 미군 제 36 공병단 소속 상등병 리슨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이 곳 채석장 부근을 지나 가는 조 선형 (39 세)을 자기들의 채석장에 들어 왔다고 하여 《엠원》총 7발을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년 8월 6일)

1963년 9월 15일 새벽 3시 35 분 경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에 주둔한 미 제 2 공병단 소속 대위 마파이스는 부대 옆을 지나간다고 하여 길가던 조선 청년 두 명에게 권총을 쏘아 그 중 한 사람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3년 9월 16일)

1963년 9월 16일 새벽 0시 40 분 경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 등병 찰스 맥머 카레드는 길가던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김 태이 (33 세)외 4 명의 녀성에게 달려 들어 《엠원》총을 쏘아 그 중 김 태이 녀성을 즉사케 하고 김 금순(38 세) 녀성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3년 9월 19일)

1963년 10월 1일 미 8 군 병기창 제 519 병기 중대 소속 쥬웰 필 (36 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 4리 부근을 싸다니다가 내'가에서 나물을 씻고 있던 김 순기 (27 세) 녀성을 발견하자 그를 과녁 삼아 렵총으로 쏘아 심한 총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년 10월 1일)

1963년 11월 10일 오후 10시 경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에서 경상북도 대구 주둔 미 제 7 군수 기지 사령부 의무관 노리스 (50 세) 중령과 스미스 (35 세) 소령은 제주시 도련동에 사는 변 선길 (19 세)을 꿩 사냥의 길 안내자로 데리고 가서 꿩을 날리게 하고는 꿩과 함께 그를 렵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제주 신보》 1963년 11월 12일)

1963년 11월 21일 오후 4시 경 경기도 련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련천군내 미군 사격장에서 이 곳 주민 유 길섭 (25 세) 외 14 명이 나무하러 마을 뒤'산으로 올라 간 것을 보고 과녁 삼아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그 중 유 길섭 (25 세), 박 더규 (40 세), 리 영철 (20 세), 전 주복 (27 세), 장 복재 (20 세)등 5 명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으며 10 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11월 22일, 《조선 일보》 1963년 11월 22일)

1963년 11월 30일 새벽 5시 20 분 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길산리 미 제 7 사단 31 포대 2 중대 소속 2 등병 암스 제이. 발미트 (24 세)는 길 가는 김 정자 (31 세) 녀성 외 2 명에게 무러대고 총을 발사하여 김 정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12월 6일)

1963년 12월 13일 새벽 1시 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길산리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 소속 1 등병은 이 부대 앞을 지나 가던 조선 사람 4 명에게 까닭 없이 총을 발사하여 그 중 박 더신 (15 세,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현 3 리에 거주)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3년 12월 14일)

1964년 2월 6일 낮 12시 경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 주둔 미 제 1 려단 유도탄 부대 미군 보초병은 토끼 사냥을 하려고 산으로 가던 안 재섭 (17 세,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 거주), 김 태영 (17 세) 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총을 쏘아 안 재섭 소년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고 김 태영에게는 가슴에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6일)

1964년 2월 9일 밤 11시 30분 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리 주둔 미 제 51 통신 대대의 경비병 2 등병 알렌 더불류. 허브는 이 부대 부근을 지나던 조선 소년 허 창국 (13 세)을 보자 렵총을 쏘아 배에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10일)

1964년 2월 17일 새벽 1시 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1 기갑 사단 제 8 공병 대대 소속 1 등병 트로웨이 프랭크 린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당동리에 사는 조선 청년 3 명이 이 부대 철조망 부근을 지나 간다고 하여 45 구경 권총을 마구 쏘아 그 중 황 오성 (29 세)을 즉사케 하였다. (서울 발 1964년 2월 17일 《합동》 통신,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17일)

1964년 2월 18일 밤 12시 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미 제 7 사단 13 공병대 소속 1 등병 브렉스는 지나 가던 리 덕형 (40 세)에게 아무 리유 없이 《엠—14》 자동 소총을 쏘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19일)

1964년 2월 18일 오후 4시 경 경기도 오산에서 미군 헌병이 비행장 주변을 지나 가는 6 명의 남조선 주민을 겨누고 권총을 쏘아 그 중 김 기섭 (21세)의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19일)

1964년 2월 23일 오후 1시 경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7 사단 소속 미군은 이 사단 사격장 부근을 지나 가던 조선 소년 김 창규 (16 세)와 김 동봉 (17 세)을 총으로 쏘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서울발 1964년 2월 24일 《합동》 통신)

1964년 5월 26일 오후 3시 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대사리에 있는 미군 씨.티.엑스 군사 훈련장에서 전쟁 연습을 벌리고 있던 미군은 이 마을에 사는 장 인석 (18 세)에게 연막탄을 던져 폭발시킴으로써 그의 눈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5월 27일)

미국 군대는 또한 초보적인 교통 질서마저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차를 몰아 무고한 주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깔아 죽이고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수 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마음 놓고 거리를 나 다닐 수도 없는 항시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1961년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경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삭선리 노상에서 태안면 주재 미군 부대 소속 1 등병 켄랜 도날도 (26 세)는 화물 자동차를 고속으로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배 수현 (24 세)을 깔아 두개골을 파렬시켜 즉사케 하였다. (남 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2월 16일)

1961년 3월 16일 《주한 미 륙군 고문단》 소속 하사 허바트 엘. 파손즈는 미 제 1 군단 주둔 지역인 창학리 마을 길'가에서 천진란만하게 놀고 있던 리 학용 (4 세)을 고의적으로 차를 몰아 깔아 죽였다.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1년 3월 17일)

1961년 3월 19일 오후 8시 20분 경 서울에서 인천 방면으로 고속으로 달리던 미 군용 스리코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15 번지 앞 노상에서 길을 건느던 리 영자 (22 세) 녀성을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3월 20일)

1961년 3월 28일 낮 12시 경 경상남도 울산군 하상면 남외리 앞길에서 미 6314 공군 부대 제 2 파견대 화물 자동차 운전수 우프 (18 세)는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김 금화 소녀 (13 세)를 들이 받아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1년 3월 29일)

1961년 5월 27일 평택 비행장 주둔 미 제 581 통신 중대 소속 1 등병 죠지. 이. 웬젤은 길 옆에서 놀고 있던 오 순이 (5 세)를 고의적으로 스리코터로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5월 30일)

1961년 7월 17일 오전 6시 40분 경 경상북도 대구시 덕산동 88 번지 반월당 앞에서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차를 몰고 가던 《케이—2》 비행단 소속 미군 통근차 《에이—24 호》 운전수 로이 에프. 군원은 대구시 대봉동 4 구 407 번지에 사는 김 성도 (45 세)를 깔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7월 18일)

1961년 10월 9일 새벽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 중동 1394 번지 앞길에서 미군 스리코터 614 호를 고속으로 몰던 미군 하사 쟈므스는 길 옆에 비껴 서 있는 조 금석 (33 세)을 고의적으로 깔아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1년 10월 9일)

1961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 제 1 군단 51 통신 대대 소속 1 등병 안토니 제이. 모라노는 교통 규칙을 위반하고 고속으로 차를 몰아 길 옆에서 놀던 안 무희 (6 세) 소녀를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12월 8일)

1962년 3월 16일 오후 8시 경 미군 승용차는 서울시 내 룡산구 한강로 1 가 16 번지 앞길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가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산 15 번지에 사는 임신 4 개월의 조선 녀성 조 정수 (28 세)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3월 17일)

1962년 3월 18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시 을지로 6가에서 미군 운전수는 교통 신호에 따라 길을 건느던 서울시 을지로 6가 18 번지에 사는 현 태룡 (73 세) 로인을 세단차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3월 19일)

1962년 3월 27일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에서 과속으로 미군 뻐스를 몰던 스미스 (27 세)는 길'가에서 놀고 있던 유 재한 소녀(9 세)를 고의적으로 깔아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3월 28일)

1962년 4월 12일 낮 12시 경 서울시 중구 동자동 24 번지 앞길에서 미 제 7 군수 기지 사령부 소속 자동차를 고속으로 몰고 가던 미군 운전수 죠셉 나샨은 길 가던 국민 학교 2 년생인 최 윤희를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21일)

1962년 5월 1일 밤 11시 30분 경 미 제 1 기갑 사단 4 련대 소속 26 호 운전수인 미군은 찌프 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파주에서 고장 난 뻐스를 수리하고 있던 운전수 안 성호 (39 세)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9일)

1962년 5월 25일 오후 1시 15분 경 미 5191 병기창 192 대대 소속 미군 트럭 운전수는 서울시 영등포구 본동 211 뻐스 정류장 앞에서 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뻐스를 기다리던 서울시 마포구 동화동산 9의 113 번지에 사는 정 연태 (20 세)를 깔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5월 26일)

1962년 6월 7일 오후 미 제 1

기갑 사단 제 3 수송대 소속 트럭이 경기도 파주군 포리면 봉일천리 앞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길옆에 비켜 서 있던 파주군 포리면 조문동에 사는 김 옥순 (9 세)을 깔아 죽이고 같은 동내의 리 해교 (11 세), 리 애순 (14 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서울 발 1963년 6월 7일 《동화》 통신)

1962년 6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미 제 7 사단 의무대 소속 스리코터 21 호 운전수는 경기도 련천군 진곡면 은대 3리 앞에서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길'가에서 놀던 전 석근 (경기도 련천군 진곡면 은대 3리에 거주)의 2 남 진 철 (7 세)을 깔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28일)

1962년 7월 3일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서 미 제 71 포병 대대 소속 미군 1 명은 자동차로 조선 청년 한 칠용 (33 세)을 고의적으로 들이 받아 즉사시켰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7월 7일)

1962년 7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군 금촌리 앞길을 찌프차로 질주하던 미군 운전수 1 명은 그곳을 걸어 가던 파주군 월룡면 부둔리에 사는 김 천애 (녀자 55 세)를 고의로 깔아 즉사케 하였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2년 7월 8일)

1962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 경 전라북도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 공덕 국민 학교 앞길에서 미 제 43 유도탄 중대 소속 트럭 운전수 투레스 (26 세)는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전라북도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에 사는 권 성수의 장녀 권 근신 (11 세)을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8월 19일)

1962년 8월 29일 오후 2시 40분 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3가 《교통부》 청사 입구 네거리로 트럭을 몰고 고속으로 달려 오던 미군 소속 수송 파견대 운전수 2 등병 카불은 신호 대기 중인 4 대의 차량을 들이 받아 서울 영 86 호 택시를 파괴하고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리 해영 (33 세,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131 번지에 거주) 외 3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8월 30일)

1962년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경 미 공군 부대 소속 미군 1 명은 대구시 대명동 대백 제재소 앞길에서 고속으로 몰고 가던 트럭으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김 창호의 어머니 김 씨를 깔아 즉사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63년 1월 11일)

1962년 9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앞길로 트럭을 고속으로 몰고 가던 미 제 8 군 제 763 공병대 소속 미군 고드메는 이 부락에 사는 김 용만 소년 (6 세)을 고의적으로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중도 일보》 1962년 9월 17일)

1962년 10월 22일 서울시 룡산구 서빙 고동 192 번지 앞길에서 미 제 30 병기 중대 소속 후랭크는 분별 없이 땅크를 몰아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정 길원 (7 세)을 깔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10월 23일)

1963년 1월 2일 오후 11시 55분 경 서울 제 1 은행 청량리 지점 앞길에서 미 제 8 군 소속 미군 운전수는 미친듯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조선 소녀 우 명희 (6 세)를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한 일보》 1963년 1월 3일)

1963년 6월 5일 오전 8시 50분 경 미 제 8 군 21 수송 중대 소속 운전수 상등병 메클은 서울역으로부터 영등포로 가는 길'가에서 과속으로 몰고 가던 세단차로 시내 《양지 리발관》 종업원 윤 남훈(17 세)을 정면으로 들이 받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6월 5일)

1963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경 충청남도 천안시 성황동 대정 부락 앞길에서 이 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71 병기단 장거리 통신대 소속 병장 로베르앨이는 스리코터 제 2369719 호로 그 곳을 지나 가던 김 성주의 4 녀 김 학임 (19 세) 녀성을 고의로 들이 받아 머리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대전 일보》 1963년 6월 19일)

1963년 6월 18일 오후 3시 경 미 제 8 군 소속 65 병참 중대 트럭 운전수 2 등병 크린 삼 웰리는 고속으로 트럭을 몰다가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3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신 승호 (49 세,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용서리 420 번지에 거주)를 깔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6월 20일)

1963년 8월 10일 오후 8시 30분 경 미 군사 고문단 소속 찌프차 201 호 운전수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586 번지 앞길에서 몰고 가던 차로 이 마을에 사는 로파 리 순희 (61 세)를 고의로 들이 받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8월 13일)

1963년 9월 3일 오후 9시 경 미 제 7 사단 2 대대 32 보병대 소속 트럭 운전수 2 등병 그레인스는 교통 신호에 따라 서울시내 신당동 292 번지 앞길을 건너 가던 김 치광 (36 세)을 자동차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3년 9월 4일)

1963년 9월 5일 새벽 1시 55분 경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에 있는 구름다리에서 미 제 8 군 방송국 소속 찌프차 운전수 1 등병 라와스키 미치엘 괴는 고의로 야경원 고 광환 (36 세)과 김 영식 (37 세), 학생 김 룡남 (16 세)을 찌프차로 들이 받아 김 영식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고 고 광환과 김 룡남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년 9월 5일)

1963년 9월 27일 오전 11시 경 경기도 오산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제 6314 부대 소속 트럭을 고속으로 몰고 가던 미군은 서울시 내 제 2 한강 다리 앞에서 그 곳을 지나 가던 김 영길 (24 세)을 깔아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한국 문화 방송》 1964년 2월 20일)

1964년 3월 7일 저녁 7시 경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4 번지 앞을 찌프차로 달리던 미 군사 고문단 소속 운전수 상사 더그라스 (33 세)는 길 가는 장 정우 (49 세,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8 번지에 거주)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3월 8일)

1964년 4월 18일 미 8 군 장거리 통신대 소속의 캅민스 로버트는 찌프차를 마구 몰고 달리다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삼산동 팔조령산 중턱에서 놀고 있던 배 경애 소녀 (10 세)와 그와 동갑인 박 재도 소년을 깔아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남조선 신문 대구 《매일 신문》 1964년 4월 19일)

2. 남조선 부녀자들에 대한 만행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예로부터 그 절개를 송죽에 비겨 왔다.

그러나 패륜 패덕에 습성이 된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서 우리 나라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을 계속 유린 말살하면서 녀성들에 대하여 금수도 낯을 붉힐 만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단독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백주 대로 상에서 부녀자들을 겁탈 희롱하는가 하면 조선인 민가에 침입하여 로파나 미성년 소녀를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강간, 륜간하고 있으며 저들의 추악한 만행에 항거한다 하여 조선 녀성들을 수 없이 살해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지품까지 략탈하고 있다.

1961년 1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 미군 하사 빈 (33 세)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홍 모의 집에 뛰여 들어 이제 겨우 12 세 난 어린 소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실신 상태에 빠뜨린 다음 옷을 벗기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1월 4일)

1961년 2월 6일 밤 1시 30분 경 미 제 7 사단 24 련대 소속 병장 레쓰고 이라우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 있는 김 순덕의 집에 침입하여 최 종석 녀성을 롱락하려다가 그가 항거하자 침구에 불을 질러 가옥 1 동을 전소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2월 12일)

1961월 3월 31일 오후 8시 20 분 경 미군 6 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장 봉옥의 집에 침입하여 유부녀를 롱락하려다가 실패하자 가옥과 가장집물을 마구 들부신 후 이웃집까지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1년 4월 1일)

1961년 4월 2일 오후 2시 30분 경 미 공군 802 공병대 《씨》중대 소속 하바드 웰링은 전라북도 군산시 금호동 공회당 앞 토상에서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에 거주하는 박 광희 (26 세)를 롱욕하려고 강제로 끌고 가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 가던 리 병희에게 저지 당하게 되자 리 병희의 얼굴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삼남 일보》 1961년 4월 4일)

1961년 4월 2일 밤 1시 경 미군 1 명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 있는 조 종일 (45 세)의 집에 침입하여 하 진옥 (25 세) 녀성을 롱욕하려다가 그 녀자가 피신하자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시'가 100만 환에 해당한 벽돌집 여섯 간을 전소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4월 3일)

1961년 5월 4일 오후 8시 경 강원도 양양군 속초 주둔 미군 통신 수색대 《비》 파견대 소속 하사 졸스이 뻘렌은 속초읍 4 구에 있는 황 기호의 집에 침입하여 도 경자 (25 세)를 롱락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그 녀자를 발가 벗긴 다음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목을 졸라 매고 하복부를 강타하여 살해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5월 14일)

1962년 2월 18일 오후 7시 경 미 제 1 기갑 사단 공병대 소속 상등병 윌리암 그리 (30 세)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리에 있는 윤 장석의 집에 뛰여 들어 임신 5 개월의 신 영숙 (25 세)을 릉욕한 후 방문을 잠그고 구두'발로 마구 차서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22일)

1962년 3월 17일 새벽 3시 경 서울시 룡산구 룡산동 5가 2 번지에 사는 미국인 구레에는 자기 집에서 3 년 간 식모살이를 하던 송 필남 (35 세) 녀성의 방에 뛰여 들어 강간하려 하다가 이 녀성의 반항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무수히 구타하여 전신에 타박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9일)

1962년 6월 6일 밤 11시 30분 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에서 미 제 32 포병대 소속 중사 그랜드 (34 세)는 마산리에 사는 박 정희 (33 세) 녀성을 릉욕하려다가 거절 당하자 땅에 엎어뜨리고 복부를 마구 차고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6월 7일)

1962년 6월 14일 새벽 3시 50분 경 경기도 시흥에 주둔하고 있는 미 탄약 중대 소속 미군 1 명은 시흥군 동면 시흥리 123 번지 황 인환 (50 세)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 있는 전 애란 (23 세) 녀성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이 녀성에게 달려 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 당하게 되자 수건으로 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목에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6월 14일)

1962년 6월 23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제 5 기갑 련대 소속 1 등병 맥래모는 김 영자(23 세) 녀성에게 달려 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 당하자 주먹과 구두 발로 때리고 차서 전신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2년 6월 23 일)

1962년 7월 15일 오후 7시 경 미군 병사 1 명은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 129 번지에 사는 리 모(24 세) 녀성의 방에 뛰여 들어 릉욕하려다가 반항을 받게 되자 이 녀성을 2 층 밖으로 내던져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2년 7월 16일, 《한국 일보》 1962년 7월 16일)

1962년 8월 8일 밤 11시 경 미 제 1 기갑 사단 제 20 포부대 소속 미군 1 명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 2리 420 번지에 사는 김 창봉(64 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며느리와 다른 1 명의 유부녀에게 달려 들어 수욕을 채우려 하다가 이것을 목격한 장 명선(63 세, 김 창봉의 처) 로인의 저지를 받게 되자 그 로인을 부엌으로 끌고 나가 마구 차서 머리에 중상을 입힌 다음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8월 12일)

1962년 8월 29일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선박 선원 프란시스 스르비아라는 미국인은 강 옥자(26 세)에게 달려 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 당하자 그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강 옥자 녀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 간 당년 21 세의 염 춘희 녀성에게도 란도질을 하여 심한 중상을 입혀 실신케 하였다. (부산 발 1962년 8월 30일 《동화》 통신)

1963년 1월 3일 밤 11시 20분 경 경기도 파주군 주둔 미 제 1 기갑 사단 제 8 기갑 련대 본부 중대 소속 미군 1 명은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정 순자 (21 세)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릉욕하려다가 그의 반항에 부닥치자 이것을 트집 잡아 아궁이에 피워 둔 구공탄불을 옷장에 던져 의류 20 여 점과 장롱을 불태웠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년 1월 8일, 《경향 신문》 1963년 1월 8일)

1963년 1월 7일 오후 8시 20분 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275 번지에 사는 김 옥희 녀성(21 세)의 집에 뛰여 든 미군 사병 1 명은 김 옥희를 릉욕하려다가 거절 당하자 허리띠로 목을 졸라 매고 면도칼로 팔과 앞가슴 등 수개처에 상처를 입혀 실신케 한 다음 목걸이를 탈취해 가지고 도주했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3년 1월 8일)

1963년 2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인천시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75 수송대 소속 미군 1 명은 시내 중앙동 4가 2 번지에 사는 장 영희(25 세) 녀성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의 방까지 따라 들어 가 릉욕하려다가 거절 당하자 이 녀성을 타고 앉아 목을 조르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후 높이 3 메터 가량 되는 계단에서 발'길로 차서 굴러 떨어뜨려 임신 3 개월의 그를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3월 15일, 《경기도 매일 신문》 1963년 3월 15일)

1963년 3월 23일 밤 9시 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 번지에서 미국 병사 2 명은 리 애숙(23 세) 녀성을 릉욕하려다가 이 녀성의 항거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가슴에 연막탄을 던져 심한 타박상과 화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3월 25 일)

1963년 6월 2일 밤 미 제 1 기갑 사단 4 련대 하사 죠지 제임스 더불류는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77 번지에 사는 배 정순(23 세)에게 달려 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이 녀성의 항거에 부딪치자 주먹과 구두'발로 마구 때리고 차서 앞'이 4 개를 부러뜨리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3년 6월 12일)

1963년 6월 30일 오후 5시 경 미군 1등병 데크 등 3 명은 자기 언니(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에 거주)를 찾아 가는 처녀 윤모(19 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에 거주)를 랍치하여 미군 부대까지 끌고 가서 륜간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3 년 7월 12일)

1964년 1월 15일 오후 5시 경 미 제 44 공병대 《씨》 중대 소속 병사 커평(20 세)외 1 명의 미군은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건축 자재를 싣고 포항으로 가던 도중 경산군 하양에서 처녀 김 영자(21 세)를 륜간하였다. (대구 발 1964년 1월 17일 《합동》 통신)

1964년 2월 2일 아침 7시 경 미 제 7 사단 32 련대 본부 중대 병사 안에서 2 등병 윌리암스 헤랄드, 1 등병 헌트토니시, 상등병 모리스 알톤 등 미군 3 명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목골 부락에 사는 리 화복(27 세)을 랍치하여 구타하고 륜간한 후 현금 3천 750 원까지 강탈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4년 2월 3일)

3.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민족적 멸시와 폭행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민족적 멸시와 모욕과 폭행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무뢰한의 집단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생사 여탈의 권한이 강점자들인 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듯이 공공연히 자처하면서 무제한한 치외 법권을 행사

하고 있다.

그들은 취재하는 신문 기자에게 아무런 리유 없이 린치를 가하며, 렬차 교환 작업 중인 기관사를 충격이 심하다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후려 갈기며, 심지어 평화적 주민들을 아무 까닭없이 붙잡아 전주에 매달고 때리며, 임신부를 발'길로 마구차서 빈사 상태에 빠뜨리는가 하면 군견을 추겨 사람들을 물어 뜯게 하는 등 인면 수심의 만행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1961년 3월 9일 오후 3시 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서 미 제 5815 헌병대 《케이》 6 기지 파견대 소속 1 등병 부라운과 2 등병 베비스는 이 부락에 거주하는 리 기영(53 세), 김 운배(59 세), 배 동수(29 세) 등을 리유 없이 무수히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3월 14일, 《비판 신문》 1961년 3월 23일).

1961년 3월 27일 오후 1시 45분 경 미 공군 장교 3 명은 김포 비행장에 취재하려 간 《코리언 리퍼블릭》 신문사 기자 김 근태을 사무실로 끌고 들어 가 사진기를 빼앗고 카빙총으로 위협하여 량 손을 들고 벽을 향해 돌아 서게 한 다음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실신 상태에 빠뜨렸으며 그의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3월 28일)

1961년 4월 27일 새벽 4시 15분 경 서울발 부산행 제 61 렬차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역에 도착하였을 때 이 렬차에 탔던 미군 헌병 제 728 부대 소속 중사 스코트는 환차 작업에서 충격이 심하다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기관사 리 진춘(31 세)에게 달려 들어 곤봉으로 무조건 머리를 구타하여 파렬상을 입혔고 이 렬차의 출발 시간을 3 시간 이상 지연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1년 4월 28일)

1961년 5월 1일 밤 10시 경 미군 제 16 병기 중대 소속 1 등병 리차드 엘.벨과 미군 대구 지구 헌병대 소속 1 등병 비터는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향촌동에 있는 《대륙 당구장》 앞 로상에서 길 가던 김 순일(25 세)에게 까닭없이 달려 들어 단도로 허리를 마구 찌르고 깨여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후려 갈겨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61년 5월 3일)

1961년 8월 28일 미군 제 51 통신대대 소속 1 등병 해리 이우두는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 가서 상품을 탈취하려다가 상점 점원 박 홍연에게 저지 당하자 도리여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8월 30일)

1961년 10월 1일 오후 1시 40분 경 부산시 대상동 3가 7 번지에 있는 《허머디》 빠에서 미군 《하야리아》 부대 야전 병원 소속 2 등병 존래이리(31 세)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풀이로 김 순옥 녀성의 가슴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10월 2일)

1962년 2월 23일 오후 9시 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에 주둔한 미 공군 기지 소속 미군 4 명은 서 기규(40 세)에게 《절도》라는 구실을 붙여 군견을 추겨 물어 뜯게 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2년 3월 4일)

1962년 3월 3일 오후 10시 경 미 제 38 려단 제 7 유도탄 대대 본부 중대 소속 하사 오비티스 에피로스톤(24 세)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덕산리에서 최 옥진(37 세) 녀성을 무조건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3월 8일, 서울발 1962년 3월 7일 《합동》 통신)

1962년 3월 4일 오후 11시 40분 경 미군 2 명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덕산리 입구에서 퇴근하던 김 재권(35 세)에게 미친듯이 달려 들어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힌 다음 정신을 잃은 그를 캄캄한 하수도 구멍에 처넣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3월 6일)

1962년 3월 5일 오후 10시 30분 경 미 제 7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서 미군 1 명은 이 곳에 살고 있는 리 기용(35 세)의 얼굴과 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3월 8일)

1962년 4월 2일 오후 8시 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로상에서 미군 한 명이 길 가는 정 윤옥 녀성(29 세,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67 번지에 거주)을 희롱하다가 옆구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삼남 일보》 1962년 4월 5일)

1962년 4월 4일 오후 7시 경 미 제 13 병참 대대 소속 미군 3 명은 공연한 시비를 걸어 전 찬수, 강 심권, 설 기용 등 3 명을 17 시간이나 감금하고 몽둥이와 쇠고랑으로 마구 때린 끝에 물까지 먹이는 등 악랄한 폭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한 일보》 1962년 4월 18일)

1962년 4월 5일 오후 9시 30분 경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2 등병 콜로모 등 미군 3 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사는 김 남협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무조건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9일)

1962년 4월 18일 오후 5시 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응담리 뒤'산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5 련대 2 대대 《에이》 중대 소속 상등병 케르는 이 마을에 사는 강 모 녀성(22 세)을 산에 끌고 가서 구두끈과 새끼줄로 손발을 묶고 새끼로 입을 틀어 막은 후 발'길로 차고 마구 때려 실신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22일)

1962년 4월 26일 오후 11시 10분 경 미군 3 명은 서울시 성북구 숭천동 산 75 번지에 사는 김 상후(49 세)와 엄 정식이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개천 다리를 건너 가는 것을 무조건 구타하여 김 상후의 얼굴에 중상을 입혔으며 엄 정식의 앞'이를 부러뜨렸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9일)

1962년 5월 19일 오전 7시 30 분 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오산 비행 기지 소속 헌병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에 사는 황 남성(32 세)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몽둥이로 때려 전신 타박상을 입힌 후 군견을 추겨 물어 뜯게 하여 피투성이가 되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6월 7일, 《경향 신문》 1962년 6월 8일)

1962년 5월 23일 오후 7시 30 분 경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 3리에서 미 제 7 유도탄 부대 제 2 포 대대 《씨》 중대 소속 병장 3 명(하지스, 바—트, 스테이링)과 상등병 윌리암스 등 4 명은 이 마을에 사는 박 호재(28 세), 온 정순(23 세) 부부를 자기들에게 불손하게 대한다 하여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5월 24일)

1962년 5월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에서 미 《에이. 에쓰. 피. 63 디파트먼트 오피스》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스텐져는 이 부대에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조선 소년 리 희원(14 세,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에 거주)을 군견으로 물어 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5월 27일)

1962년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제 4 전투단 《씨》 중대 소속 중위 토마스 엘. 월드(35 세), 중위 데이비드 더블유 스웬슨(29 세)과 기타 수명의 미군은 이 중대 주변에서 일하다가 항용 감행되는 미군의 행패가 두려워 변소에 피신한 리 일룡을 끌어 내여 아무 리유 없이 발가 벗기고 2 인치 가량의 로프로 목을 맨 후 몽둥이로 때렸으며 그 후 다시 그를 전주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와 구두'발로 마구 차고 때려 8 차에 걸쳐 기절한 그에게 찬물까지 끼얹고 정신이 들면 또다시 매질하여 리 일룡으로 하여금 피를 한 사발 가량 토하고 빈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6월 2일, 서울 발 1962년 6월 1일 《동양》 통신)

1962년 5월 30일 경기도 평택 지구에서 미 공군 헌병 패러슨은 모'자리 피를 뽑으러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 오던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 남산동에 사는 심 덕선(52 세) 농민에게 도락 삼아 사나운 군견을 풀어 놓았다. 그러자 개를 피해 부엌으로 뛰여 들어 간 그에게 미군은 《물어라! 물어라!》 하면서 군견을 추겨 30 개소나 물어 뜯게 하였으며 피투성이가 된 심 덕선 농민을 마당으로 개에게 물린 채 끌고 나와 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서 실신케 하고는 다시 개에게 물어 뜯기게 하였으며 전신 라체가 된 그를 30여 명의 마을 부인들이 보는 앞을 질질 끌고 다니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8일)

1962년 6월 1일 오전 10시 30 분 경 미 제 7 사단 본부 중대 유류 저장고 부근에서 이 사단 소속 미군 4 명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사는 리 관해(34 세) 외 1 명을 무턱 대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힌 후 옷을 발가 벗진 채 길'거리로 내쫓았다. (서울 발 1962년 6월 4일 《동양》 통신)

1962년 6월 2일 밤 12시 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로상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1 등병 부리지스 호스톤리을 외 1 명의 미군 병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김 주비 외 2 명을 아무 까닭 없이 마구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6월 4일)

1962년 6월 4일 밤 서울시 여의도 항공 기지 입구에서 수명의 미군은 조선 녀성 고 종희(46 세)를 근거도 없이 행동이 수상하다는 구실로 마구 차고 때려 얼굴과 전신에 중상을 입혔다. (서울 발 1962년 6월 7일 《동양》 통신)

1962년 6월 5일 오후 10시 30 분 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 382번지 김 정권(30 세)의 집에 침입한 미 제 31 포대 소속 미군 3 명은 자기들을 공손히 맞아 주지 않는다 하여 저녁을 먹고 있던 김 정권 외 2 명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6월 8일, 서울 발 1962년 6월 8일 《동양》 통신)

1962년 6월 7일 밤 10시 10분 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 로상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1 등병 후로브 케리(18 세)는 이 마을에 사는 손 수현(22 세)을 무조건 때려 앞'이를 부러뜨리고 중상을 입힌 후 도주했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6월 8일, 서울 발 1962년 6월 8일 《동양》 통신)

1962년 8월 3일 밤 11시 경 경기도 인천시 부평에 있는 미 제 8057 부대 소속 미군 5 명은 지나 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자 택시 료금 지불을 요구하는 운전수 리 인석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8월 3일, 《경기 매일 신문》 1962년 8월 4일)

1962년 9월 15일 부산 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스티븐슨이란 자는 저들의 부대에 고용되여 있는 로무자 윤 병갑이 압수된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를 무조건 감금해 놓고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2년 9월 19일)

1963년 1월 22일 밤 11시 10분 경 부산시 내 대창동 골목에서 미군 제 142 보급창 소속 2 등병 오.엔스는 생트집을 잡아 도 재옥 녀성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박 숙자 녀성의 얼굴에 돌을 던져 중상을 입히고 김 성락(53 세)의 상점 유리를 파괴하였다.(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3년 1월 23일)

1963년 3월 21일 오후 9시 경 미군 하사 1 명은 공연히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 486 번지에 사는 신 영해(22 세)의 팔을 비틀어 뼈를 부러뜨리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3년 4월 17일)

1963년 3월 30일 오후 1시 15분 경 경기도 인천시 중앙동 2가 골목길에서 미 제 89 공병단 소속 하사 베기러(41 세)는 시내 관동 2가 2 번지에 사는 김 모(28 세) 녀성을 아무 까닭 없이 무수히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4월 17일)

1963년 4월 20일 밤 9시 경 미 제 7 사단 소속 미군 3 명은 지나 가던 길에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 번지에 사는 진 현익(27 세)의 집에 고의적으로 돌을 던져 가구들을 깨뜨렸으며 진 현익 부부에게 매질까지 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4월 22일)

1963년 4월 28일 밤 9시 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미 제 7 사단 32 련대 《에이》 중대 소속 2 등병 친스리 외 3 명의 미군은 조선인 로동자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리유로 이 마을에 사는 유 수동의 부인 김 금옥(36 세, 산후 2 개월 되는 몸)의 얼굴을 삽으로 찍어 중상을 입히고 도망하였다.(남조선 신문 《대한 일보》 1963년 4월 30일)

1963년 12월 15일 밤 10시 경 경상북도 포항시 주둔 미 제 44 공병대 《씨》 중대 소속 병장 반후리크 및 상등병 왈크리크는 포항시 두호동 앞길을 걸어 가던 오. 원식(39 세)을 무조건 구타하여 머리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그를 말리던 조선인 남녀 2 명에게 또다시 폭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3년 12월 20일)

1964년 2월 10일 오후 4시 경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다방에서 미군 1 명은 조선 녀성을 껴안고 희롱하다가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리 석구의 얼굴을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서울 발 1964년 2월 11일 《합동》 통신)

1964년 4월 26일 미 제 8 군 후방 사령부 소속 제이.엔.오닐 외 2 명의 미군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에 있는 화원 유원지에서 아무 까닭 없이 김 수야라는 주민을 마구 때려 심한 타박상을 입히고 사진기를 빼앗았으며 이를 말리는 주민들까지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하 순임이라는 녀성의 구멍가게를 비롯하여 음식점과 상점 및 주민 가옥들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가장 집물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구타하였다.(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64년 4월 28일)

1964년 5월 21일 쟌 레이드라는 미군은 서울시 내 중구 광희동에 사는 박 전일이라는 청년을 리태원동 《외인 주택》 지구의 자기 집에 끌고 가서 감금해 놓고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아 협박, 공갈하던 끝에 권총을 빼 들고 그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5월 22일)

4. 남조선 인민들의 재물에 대한 락탈 및 파괴 행위

미제 침략군은 강도의 집단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며, 너의 모든 것도 나의 것이다.— 이것이 미제 강점자들의 강도적 론리이다.

해적과 깽의 후예들인 미국 침략 군대는 개별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남조선 인민들의 주택과 상점을 습격하고 가장 집물과 상품 등을 략탈하고 있다.

그들은 백주에 통행인의 금품을 략탈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주택들에 불을 질러 소각할 뿐만 아니라 금고까지 훔쳐 가는 등 각종 강도 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있다.

1961년 1월 3일 낮 12시 경 미 제 82 야포대 소속 미군 4 명은 택시(서울자—2250 호)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 앞 로상에 이르러 이 택시 운전수 손 석만을 집단 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많은 현금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까지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1월 7일)

1961년 2월 17일 오후 6시 40분 경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56 번지 앞길에서 택시(서울 영 6956 호)에 탄 미군 1 명은 운전수 리 근수(30 세)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6천 5백 환과 팔목시계를 강탈한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1년 2월 18일)

1961년 3월 13일 오전 10시 5분 경 미 제 8 군 728 헌병 대대 《씨》 중대 2 등병 에드 야푸노피이스와 단 헤덴은 서울 시내 동자동 뻐스 정류소에서 택시(서울 영 4143 호)를 불러 탄 후 룡산 중학교 앞 로상에 이르러 운전수 최 창우의 목을 졸라 실신케 한 다음 그를 차 밖으로 내던지고 강탈한 택시로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3월 14일)

1961년 3월 15일 오후 9시 30분 경 미 제 532 부대 소속 미군 2 명은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 최 조이의 집 대문을 까부시고 불법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심 한섭(29 세) 외 4 명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란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가장 집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여 약 2만 환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3월 30일)

1962년 1월 19일 오후 11시 30분 경 미군 4 명은 서울시 영등포 역전 로타리에서 서울 영 6704 호 택시를 길 옆에 처박아 넣고 운전수 리 조우에게서 현금 6천 5백 환을 탈취한 후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1월 21일)

1962년 3월 20일 밤 11시 경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에 주둔한 미군 부대 《씨》 중대 소속 1 등병 루라벌 제이. 대그이 외 5 명은 태안면 삭선리 리 동익의 집에 침입하여 라이타로 초가 지붕에 불을 지른 후 리 의용이 경영하는 땐스홀을 파괴하였으며 이웃에 있는 김 정원의 상점에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상품을 파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주민들의 재물을 파괴하다가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3월 24일)

1962년 11월 10일 오후 4시 경 서울시 남대문 시장 앞길에서 미 제 304 통신 대대 57 중대 소속 상사 존은 서울시 을지로 7가 25 번지에 사는 시계 상인 박 태혁(32 세)에게서 시계를 사 준다고 속여 많은 현금을 빼앗아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11월 11일)

1963년 1월 11일 오후 10시 20 분 경 미군 수명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룡리 88 번지에 있는 로 현동 (30 세)의 잡화 상점에 침입하여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돈 궤짝을 찌프차에 싣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1월 12일)

1963년 3월 23일 오후 11시 경 미군 사병 1 명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 번지에 사는 미곡상 김 상택 (49 세)의 상점 지붕 우에 고의적으로 연막탄을 던져 불을 질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3년 3월 25일)

1963년 7월 6일 오후 9시 경 미군 번이 외 2 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당동리에 살고 있는 정 정순 (26 세)의 집에 뛰여 들어 돈을 내라고 위협하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 량쪽 팔을 붙잡고 그가 차고 있던 팔목 시계 (시'가 2천 4백원)를 강탈한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3년 7월 11일)

1963년 12월 20일 경기도 인천시 문학동 191 번지 우 인숙의 집에서 미 제 44 유도탄 대대 소속 힐손과 펜파라는 두 미군은 술을 먹다가 식당에 있는 일본제 라지오 한 대를 훔쳐 갔다. (남조선 《인천 방송》 1964년 3월 20일)

1964년 2월 23일 오전 1시 반 경 미 제 8 군 본부 중대 소속 1 등병 이디어 브라운 (20 세)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산 13번지에 사는 리 석균 (31 세)의 상점에 침입하여 임신부를 위협하고 술을 내라고 행패를 부린 끝에 상점을 까부셨으며 임신부를 졸도케 하였다. (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2월 23일)

※ ※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그 모두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며 인간 증오 사상으로 충만된 미국 군대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다.

미국 군대가 오늘 남조선에서 계속 감행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만행은 그들이야말로 인간의 량심이라고는 한쪼각도 없는 야만들이며 정의와 인도의 극악한 원쑤들이며 악독한 침략자라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 정부와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부 당국은 미제 침략군의 이러한 야수적 범행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워 보려고 어리석게 《우발적인 사건》이니 《우연한 실수》니 하고 철면피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후 지난 19년 간 하루도 빠짐 없이 형형색색의 지능적인 수법까지 배합하여 조선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만행과 략탈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하고도 그 어떤 《우연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오만무례한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면서 불법, 무법의 행패와 전횡을 감행하고도 그것을 응당한 권리로 간주하고 있으며 하등의 가책과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모욕하고 천대하고 마음 대로 살해하고도 례사로운 일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무고한 주민을 학살하고는 희생자에게 도적의 루명을 들씌우는 것조차 꺼리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인민은 미제 침략군이 겨우 걸음마를 익히는 세 살 난 조선의 어린이를 살해하고도 그 유아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땅에 기여 들어 철조망을 늘여 놓고 지나 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란사하는 것은 《정당 방위》이며 조선 사람은 미군의 철조망 곁으로 지나만 가도 《도적》으로 되며 입에서 피를 토하도록 린치를 당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론리》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발'길이 닿는 세계 도처에서 이와 같은 전도된 《론리》가 적응되고 있으며 침략과 략탈이 감행되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독립이 유린되지 않는 데가 없으며 인륜 도덕이 짓밟히지 않는 곳이 없다.

미국 군대의 총칼이 번득이는 곳에 선량한 인민들의 출혈은 무제한으로 강요되고 있다.

실로 미제가 주둔한 곳에서는 인민의 생명 재산의 안정은 한시도 유지될 수 없다.

미 제국주의 자들이야말로 전 세계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인류의 문명과 도덕의 파괴자이며, 지구 상에 야수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류 공동의 원쑤

이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멸망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대미문의 파쑈 독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일거일동에 대한 삼엄한 감시를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자주 자립을 주장하기만 하여도 엄중한 《범죄》로 인정되며 절박한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도 총칼의 탄압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과연 그 어떤 진정한 법 질서와 인간의 기본권의 편린인들 찾아 볼 수 있겠는가.

미제의 식민지 략탈 통치로 하여 남조선의 민족 경제는 송두리채 파괴되였으며 남조선은 상시적인 기아 지대로 화하였고 민생고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수십만의 류랑 고아들이 로두를 방황하고 있으며 리농민들과 절량민들이 해마다 불어 나고 있다. 더는 살아 갈 수 없어 인민들 속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들이 련일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함으로써 우리의 찬란한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을 파괴하고 있으며 인륜 도덕을 유린하고 각종 사회악을 더욱더 만연시키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이 모든 참담한 현실을 빚어 낸 저들의 죄악을 엄폐하기 위하여 이미 전 세계 인민들 앞에 폭로된 지 오래인 소위 《원조자》의 탈로 아직도 자기를 위장하려 헛되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기에 최근 전 세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고 절규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여 영용한 애국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지탱하기 위하여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신형 무기들을 대량 반입하였으며 군사 기지와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호전 분자들은 련속 군사 분계선 일대에 나타나 있지도 않는 《공산 침략의 위협》을 부르짖으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으며 각종 군사 소동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도발 행위를 련일 감행하고 있다.

실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과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의 자주적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이며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을 조선에서 몰아 내지 않는 한 조선의 통일 독립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총칼의 과녁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참경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극동에서의 공고한 평화도 유지될 수 없다.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외적과의 투쟁에서 항상 승리한 슬기로운 전통을 가진 조선 인민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강토에서 침략과 략탈, 살인 만행을 감행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 사람이다.

침략자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

조선은 어떠한 외부적 간섭도 없이 조선 사람 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여 통일되여야 한다.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존중히 여기는 전 세계 인민들과 사회 단체들과 각국 국회 및 정부들과 국제 기구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을 단호히 단죄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강경히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농민 동맹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조선 기자 동맹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

1964년 6월 25일 평양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6월 25—26일 량일 간에 걸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9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 및 지방 당 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일'군들, 도, 시, 군 및 공장, 기업소 직맹 위원장들, 성, 중앙 기관 일'군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1.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데 대하여

2. 직업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의정 첫째 문제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박 금철 동지가 보고하였으며 의정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직총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왈룡 동지가 보고하였다.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는 의정 첫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는 현명한 조치이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농촌 문제 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왔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오늘 농촌에서 우리 당 조직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농촌 근로자들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의 창발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하는 주요한 담보로 된다.

전원 회의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농민 동맹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을 건설하며 우리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현실은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조직체의 창설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은 근본적으로 전변되였으며 농민의 처지와 그 사회적 역할도 달라졌다.

우리 나라 농민은 혁명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으며 그 정치적 각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당은 농촌에 로동자, 제대 군인,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농촌 핵심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였다.

농촌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와 농촌 관리 운영 체계가 확립되였다.

전원 회의는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농민 동맹을 해체하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새로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당과 우리 나라 농업 부문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다.

전원 회의 결정은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농업 근로자 동맹의 가장 주요한 과업은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농업 근로자 동맹이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상 교양 사업을 제 1 차적 사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농촌 부문 근로자들 중에서도 청년 동맹원이 아닌 비당원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특별히 강화하여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촌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교양과 문화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당면한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새로 조직되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 력량을 일층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지난 기간 직업 동맹 단체들은 자기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직업 동맹은 우리 나라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고 그들을 국가 사회 제도의 공고화와 나라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 동원하였으며 그들을 공산주의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앙양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 임무는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와 그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직업 동맹은 근로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사회 단체이며 당과 로동 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직업 동맹의 기본 과업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촉진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직업 동맹은 로동 계급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선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직맹원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당원들과 청년 동맹원들을 제외한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 동맹 단체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문화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로동 계급이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 정권 하에서 생산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직업 동맹의 혁명적 임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직업 동맹은 당과 국가가 제기한 생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또한 직업 동맹이 로동 보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직접 조직 집행하며 이 사업이 로동자 자신들의 사업이 되도록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전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직업 동맹 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며 그의 수준을 한 계단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위원회들이 직업 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그 사업 수준을 높이도록 백방으로 도와주며 직맹 단체들의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 참가자들은 토의된 문제들이 당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의 통일을 강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굳게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불패의 진지로 꾸리는 데 거대한 작용을 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이 직업 동맹 사업과 새로 조직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 농민들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을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력사적인 과업 실천에로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전원 회의는 끝으로 조직 문제를 토의하고 리 주연 동지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으며,

김 창봉, 박 성철 동지들을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일층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 각지에서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일층 격화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하며 그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의 자유 활동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루차에 걸쳐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대우를 보장할 데 대한 국제법 상 의무를 리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특히 1963년 7월 20일 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더욱 우심해지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온갖 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그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동시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범죄 행위를 적극 비호 조장하고 있다.

이 결과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들이 종식될 대신에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극히 최근의 실례만 들어 보더라도 지난 3월 2일에 도야마시에서 박 춘삼 (26 세)이, 3월 21일에는 나고야시에서 리 더조 (38 세)가 일본 반동 분자들에 의하여 백주에 살해되였으며 4월 23일에는 역시 류슈 미야기현 노메오까시에서 문 태성 (24 세)이 일본 폭력단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또한 6월 23인에는 오사까시에서 김 삼랑 (22 세)이, 그리고 7월 4일에는 요꼬하마시에서 최 조남 (34 세)이 일본 폭력단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였다.

이 외에도 3월 19일 15~16 명의 일본인 폭력배들은 도꾜 조선 중고등 학교 학생 김 준덕 (16

세)에게 아무 리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빈사 상태에 빠뜨렸으며 6월 26일에는 지바현에서 30여 명의 일본 폭력단과 일본 불량 학생들이 도꾜 조선 중고등 학교 학생 9 명에게 집단적 폭행을 가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일본 당국은 이처럼 재일 조선 공민들을 법적 보호의 밖에 두고 사실 상 그들에 대한 만행을 조장하는 한편 직접 재일 조선 공민들을 비법적으로 체포, 심문하고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을 습격, 수색하는 등 파괴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2월 11일 일본 당국은 경찰을 발동하여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쓰시마 본부를 불법 습격하고 수색하였으며 같은 날 450여 명의 무장 경찰들을 동원하여 나가사끼현 사세호 시라다께의 조선인 부락을 습격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500여 명의 경찰을 풀어 도꾜도 나까노구 사까에마찌에 거주하는 13 세대의 조선 공민들의 주택을 파괴하고 강제 철거시키는 횡포한 비법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사실은 최근 일본에서 빈발하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민족적 박해와 탄압 사건들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모든 재일 외국인들 중에서 유독 조선 공민들에게 한하여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재일 조선 공민들은 해방 후 19년 간이나 일본의 령역 내에서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 행위가 결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획적인 책동이며 그것이 일본 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동기와 민족 차별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

일본 법무상 가야 오끼노리는 지난 6월 10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와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에 대하여 마치도 그 어떤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듯이 외곡 중상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라고 폭언하였다.

이것은 고의로 흑백을 전도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과 그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박해와 탄압의 구실을 날조하며 미제의 조종 밑에 최종 결속을 서두르고 있는 범죄적 《한일 회담》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정치적 흥정의 밑천으로 리용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재일 조선 공민들을 반대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범죄적 책동은 재일 조선 공민들과 전체 조선 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 행동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용허할 수 없는 적대적 행위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당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일본 당국의 모든 부당한 처사를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고 고상한 인도주의 제 규범을 유린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그 무엇으로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명,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인정하며 그의 모든 민주주의적 단체들의 완전한 자유 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국제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등 모든 박해와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습격, 모략 등 일체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한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앞으로 더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성명한다.

만일 일본 정부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964년 7월 10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윁남 문제 해결을 위한 윁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7월15일 윁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제네바 협정 체결 10 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조인된지 10 년이 되는 오늘 날까지도 윁남이 여전히 통일되지 못 하고 있으며 남부 윁남이 류혈적이며 장기적인 전쟁 마당으로 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윁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도를 다시금 제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윁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이 립장과 주장을 전폭으로 지지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은 윁남, 캄보쟈 및 라오스의 주권, 독립, 통일 및 령토의 완정을 인정한 기초 우에서 군사 행동을 정지하고 평화를 회복할 데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윁남에 대하여는 협정 체결 후 2 년 내에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윁남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네바 협정이 성립된 첫날부터 지난 10 년 간 일관하게 이 협정을 공공연히 파괴 유린하여 왔다.

미제는 웰남을 비롯한 인도지나 반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벌써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직후 침략적인 《세아토》 군사 블럭을 조작하고 남부 웰남, 캄보쟈, 라오스 등을 제멋대로 세아토의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 저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제네바 협정에 예견된 웰남의 통일을 위한 총 선거를 파탄시켰으며 웰남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와 함께 수 많은 군사 인원과 군수 기자재를 남부 웰남에 비법적으로 반입하여 침략 전쟁 준비를 적극 추진시키며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강화하였다.

남부 웰남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류혈적인 군사 테로 통치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여 다시금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재통일을 위한 항전에 용감히 궐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 인민들의 이 정의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이공에 미군 작전 사령부까지 설치하고 이미 양성한 수십만의 괴뢰군 외에 수만의 미군과 현대적인 전투 기재들을 직접 투입하여 《선전 포고 없는》 대규모적인 침략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 소위 《전략촌》을 설치하고 거기에 무고한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몰아 넣어 닥치는 대로 학살하며 심지어 유독성 화학 물질을 살포하는 데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적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떠한 잔인무도한 학살과 탄압도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의의 항전에 궐기한 영웅적인 남부 웰남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

남부 웰남 인민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 침략자들에게 걸음마다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정치, 군사, 도덕적 참패를 만회하며 무너져 가는 침략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

그들은 《세아토》 및 《나토》 성원국들과 기타 추종 국가들을 남부 웰남 전쟁에 끌어 들이며 조선에서 하였던 것과 같이 유엔의 기'발을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은페하는 데 리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웰남 괴뢰들에 대한 군사 원조를 증가시키며 작전 지휘부를 개편하고 수 많은 증원 부대와 작전 물자들을 인도지나 지역에 급파하는 한편 웰남 민주 공화국에까지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북부 웰남에 대한 도발과 파괴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미제는 라오스와 캄보쟈에서도 계속 부절히 간섭과 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1962년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라오스의 3 파 련립 정부를 전복하였으며 내전을 재도발하려고 날뛰고 있다. 미제는 캄보쟈의 자주권과 그의 중립을 파괴하려고 계속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 인도지나 반도에서 새 전쟁의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남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범죄의 장본인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하여 준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오늘 남부 웰남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도발 행위를 전 인류 앞에서의 가장 흉악한 범죄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전쟁 확대 행위로써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단련되였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있는 남부 웰남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부 웰남 인민들은 북부 웰남 인민들의 확고한 지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 및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 웰남 민주 공화국 인민은 호 지명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웰남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합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이 성과들은 웰남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로 되며 남부 웰남 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웰남 민주 공화국 인민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투쟁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지난 10 년 간 제네바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그의 정확한 리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립장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이 무모

하게도 침략 전쟁을 웰남 민주 공화국에까지 확대하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현 정세 하에서 남부 웰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도는 7월 15일 부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재천명된 3 개 항목 조건을 지체없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자기 군대와 무기들을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남부 웰남 문제는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강령에 부합되게 남부 웰남 인민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웰남의 평화적 통일은 웰남 조국 전선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해당 강령들의 정신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과 웰남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내몰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형제적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중립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남부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 성원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조 웰 량국 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원히 어깨 겯고 함께 나갈 것이다.

조선 인민과 웰남 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1964년 7월 18일 평양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

미제와 그 주구들의 소위 《람북 인사 송환 운동》을 규탄하여

최근 남조선에서는 소위 《람북 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 수집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조국 통일과 남북 접촉 및 교류의 실현을 열렬히 지향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격화 일로를 걷고 있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또 하나의 어리석은 기만극이다. 박 정희 도당이 떠드는 소위 《람북 인사》란 북반부에는 있지도 않으며 있어 본 적도 없다.

해방후 고향을 남반부에 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넘어 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그들은 례외 없이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 온갖 무권리와 빈궁,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광명한 새 생활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넘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 열성과 재능을 다 발휘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북반부의 제도를 지지하여 넘어 온 전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도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위업에 헌신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벌리고 있는 《람북 인사 송환 운동》이라는 것이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허무니 없는 소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랍치 행위를 감행한 자는 다름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다.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고 온갖 만행을 다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으로 패주할 때에 원자 공갈과 총칼의 위협으로 북반부의 수 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남으로 끌려 간 북반부 주민들은 오늘 혹심한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황당 무계한 《람북 인사 송환》을 운운하면서 인민들을 우롱 기만할 것이 아니라 응당 강제로 끌려 가 고통 받고 있는 북반부 주민들을 즉시 돌려 보내야 한다.

오늘 민족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의 겨레들은 남북으로 갈라져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이 서로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억울한 생리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조국 통일이 이룩되기 전이라도 우선 단절된 남북의 뉴대를 회복하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은 실로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조미의 민족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여 왔다.

국토가 분단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거듭 조국의 자주 통일과 남북 간의 래왕 및 교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의하였으며 그의 해결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의 이 제의들을 그 때마다 무조건 거부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였고 남북으로 갈라진 혈육들끼리 서로 오

가며 편지 거래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을 바라는 인민 대중의 간절한 소원마저 무참히 유린하였다.

민족 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3천만 인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를 하루 속히 내몰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현 시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은 우선 남북 간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고 헤여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일가를 이루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끊어졌던 민족적 뉴대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갈라졌던 부모, 처자, 친척들이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게 하며 일가 리산의 비극을 청산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이른바 《랍북 인사 송환》의 간판 하에 진행하고 있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허위적인 기만극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및 교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서신 거래를 실현하고 경제 문화적 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있지도 않는 《랍북 인사 송환》 소동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릇된 처신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옳은 길에 들어 서야 한다.

전체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풍전 등화의 운명에 처한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에 추종하는 결과가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는 불 보듯이 명백하지 않는가!

만일 누구든지 앞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장래를 그릇치려 하지 않는다면 인민의 편에 서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 책동을 반대하며 남북 인사 래왕과 교류의 실현을 위하여 용감히 나서야 한다.

민족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주장에 한결같이 호응하라!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며 《계엄령》을 철폐시키고 체포 구금된 애국적 청년 학생 및 《정치범》들의 즉시 석방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파업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모두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조국의 인공적 분렬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자!

1964년 7월 20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꾸며 온 흉계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최근 시기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에서 당하고 있는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남부 웰남에서의 침략 전쟁을 더욱 강화하며 북부 웰남에까지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공연히 떠벌려 왔다.

지난 7월 30일 미제와 그 주구들은 군함을 동원하여 웰남 민주 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고 혼 메섬과 혼 느구섬을 포격하였으며 7월 31일에 또다시 광 빈주 근방의 웰남 민주 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였다.

8월 1일과 2일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타이와 라오스의 항공 기지로부터 북부 웰남의 농촌과 국경 초소들을 공습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해안 지대에서는 군함들을 파견하여 령해를 침범하였다.

8월 4일 미국 대통령 존슨은 파렴치하게도 통킹만에서 웰남 측이 미국 측 함선을 《공격》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날조된 구실 밑에 웰남 민주 공화국의 함선들과 그의 지원 시설들을 공격하도록 미군 부대들에 직접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근거하여 8월 5일 미군은 빈, 벤 투이 지역, 홍가이시 부근을 비롯한 웰남 민주 공화국의 여러 지역들을 공습하고 기총 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 무장 공격은 웰남 민주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이것은 동남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히 위험한 불장난이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제의 이 강도적인 침략 행위를 결코 수수 방관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여 발표한 8월 6일 부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형제적 웰남 인민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 인민과 웰남 인민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한 가정의 형제이다.

조선 인민은 언제나 자기의 전우인 웰남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 있을 것이며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구실로써도 웰남에 대한 강도적 침략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가리울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적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인도지나에서 피묻은 손을 당장 떼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면전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64년 8월 6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최근 콩고(레오폴드빌)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무력 간섭으로 말미암아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콩고에 땅크와 비행기를 비롯한 다량의 무기들과 군사 인원들을 직접 투입하여 콩고 인민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학살 만행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콩고에 대한 미제의 횡포한 무장 간섭은 콩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허물어져 가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수습해 보려는 침략 계획의 일환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콩고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한 첫날부터 유엔의 간판 밑에 콩고에 기여들어 콩고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고 콩고 인민의 민족적 영웅인 루뭄바를 학살하였으며 콩고를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 미제는 콩고와 전체 아프리카 인민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쏨베와 같은 자를 다시 괴뢰 정권에 끌어 들여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으며 콩고의 린접 국가들에게까지 도발적 파괴 행동을 부단히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떠한 악랄한 책동도 콩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꺾을 수 없다.

오늘 콩고 인민과 그의 애국적 무장 부대는 나라의 광활한 지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도시와 촌락을 해방하였다.

미제는 이에 당황 망조하여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제의 이러한 강도적인 무장 간섭 행위는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또하나의 침략과 전쟁 발원지를 만들며 제 2의 남부 웰남 사태를 빚어 내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마치 콩고가 그 어떤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는듯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상투적인 기만 책동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콩고에 자기의 군사 인원과 군수 기재를 투입할 하등의 구실도 있을 수 없다.

콩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은 비단 콩고 인민을 반대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이 콩고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 책동은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의 한결같은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콩고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을 견결히 규탄한다.

조선 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콩고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콩고 인민을 지지하는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콩고의 현 사태는 콩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콩고에서 당장 피묻은 손을 떼야하며 고용병과 살인 무기를 걷어 가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무모한 침략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합된 콩고 인민과 그를 지지하는 전체 아프리카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항거에 직면하여 더욱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용감한 콩고 인민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의 정당한 위업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1964년 9월 5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 부인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김 일성 수상

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및 그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이며 내정상인 바레마 보꿈 부부,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이며 공보 및 관광상인 마마두 골로고,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녀성 조직 위원인 아우아 케이타 디알로 녀사,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청년 위원인 가부 디아와라,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인 티디아니 케이타,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원이며 쿨리코르시 시장이며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인 마마두 디아라, 재정 및 무역상인 아따헤르 마이가,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부의장인 이브라히마 상고,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원이며 말리 로조 총비서이며 전 아프리카 로조 부회장인 마마두 파마디 시쏘꼬 및 기타 말리 공화국 고위 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조선 인민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인솔하는 말리 국가 대표단의 금번 방문을 조선과 말리 량국 간의 형제적 친선 단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련대성 강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서 열렬히 맞이하였다.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말리 국가 대표단은 조선 인민의 열정적이며 형제적인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평양과 함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협동 농장,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 마다에서 조선 인민들이 표시한 감격적이며 깊은 우의를 몸소 느끼였으며 조선 인민이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와 새 사회 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

체류 기간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일행과 김 일성 수상을 비롯한 조선 정부 지도자들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내각 부수상 김 창만, 내각 부수상 정 일룡,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외무상 박 성철,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김 옥순, 말리 공화국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서 을현, 외무성 8국장 김 병호가 참가하였다.

말리 측에서는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바레마 보꿈, 마마두 골로고, 아우아 케이타 디알로 녀사, 가부 디아와라, 티디아니 케이타, 마마두 디아라, 아따헤르 마이가, 이브라히마 상고, 마마두 파마디 시쏘꼬, 대통령 관방실 외교 참사 세이두 디아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재 말리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비라마 트라오레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과 말리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과 말리 량국 간에 설정된 친선 협조 관계가 량국 인민의 리익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좋은 관계를 더 확대 발전시킬 일련의 방도들을 취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축하하고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남북 조선 간의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조선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말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시종 일관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고귀한 지지를 주고 있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령도하에 말리 인민이 독립 후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철저히 청산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조선 인민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말리 인민들에게 사심 없고 너그러운 원조를 주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또한 말리 공화국 정부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아직 독립하지 못 한 피압박 민족들의 완전한 해방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이 공동의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여전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이라고 인정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 행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치욕스러운 식민주의 제도가 즉시 청산되여야 하며 모든 외국 군대, 모든 외국의 군사 기지들이 지체 없이 철폐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일성 수상은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 아프리카의 단결을 강화하며 전 아프리카의 해방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반대하며 꽁고 (레오폴드빌)의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 있는 꽁고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 아프리카, 베추아날랜드, 바수톨랜드, 스워질랜드 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인종 차별과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남 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 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전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쌍방은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며 남부 웰남 인민의 해방 투쟁과 웰남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체 웰남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또한 쌍방은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유관 각방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이 웰남의 주권, 독립, 통일 및 령토 완정을 존중하며 웰남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 찬동한다.

쌍방은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과 민족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라오스 애국 력량의 투쟁에 대하여, 캄보쟈의 독립과 중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캄보쟈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한다.

쌍방은 인도네시아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신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며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대만의 해방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한다.

쌍방은 일본의 핵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한다.

쌍방은 팔레스티나를 비롯하여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 한 아랍 제국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관타나모로부터 외국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꾸바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며 모든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낸다.

쌍방은 까히라에서 진행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족 해방 운동의 강화와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의 공동 전선에 서 있는 모든 인민들의 단결 및 평화 위업의 공고화에 기여한 것을 환영한다.

쌍방은 1965년 3월 알제에서 진행될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회의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데 대한 결의를 일치하게 표명하였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계속 혁명적 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쌍방은 최근 중국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첫 핵 시험을 열렬히 축하하며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 정책에 타격을 가하고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위업에 기여로 된다고 인정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굳게 단결된 인민들의 더욱 거세찬 전진 앞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필승 불패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쌍방은 금번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이 인솔하는 말리 국가 대표단의 조선 방문 결과가 조선과 말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말리 정부와 말리 인민과 자기가 인솔하는 말리 국가 대표단의 이름으로 조선 정부 지도자들과 조선 인민이 베풀어 준 열렬한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김 일성 수상이 편리한 기회에 말리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충심으로 초청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이 친절한 초청을 기쁘게 접수하며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과 말리 량국 인민들 간의 굳은 형제적 친선과 협조는 날로 더욱 개화 발전될 것이다.

1964년 10월 28일 평양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말리 공화국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 겸 수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 일성 수상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 2 부수상 레이메나, 경제 발전상 수하르또, 체신 및 관광상 히다야트, 공보상 아호마디, 상이며 민족 전선 서기장인 수디비요, 국무상 우이유 따뜨, 중장 쟈띠꾸수모, 최고 자문 리사회 성원 에이 엠 다사아드, 외무성 1 부상 수위또 구수모위다그도 및 기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의 일행은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조선 정부 지도자들과 각 계층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의 일행에게 표시된 조선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은 조선과 인도네시아 량국 인민들 간의 강력한 친선을 시위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은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였으며 집단 체조를 보았으며 두 나라 간의 친선 관계의 명백한 표시로 되는 예술 공연을 관람하였다.

방문 기간 수카르노 대통령과 김 일성 수상은 솔직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내각 부수상 김 광협,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외무상 박성철, 인도네시아 공화국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박 왕섭, 외무성 4 국장 진 충국이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 2 부수상 레이메나, 경제 발전상 수하르또, 체신 및 관광상 히다야트, 공보상 아호마디, 상이며 민족 전선 서기장인 수디비요, 국무상 우이유 따뜨, 중장 쟈띠꾸수모, 최고 자문 리사회 성원 에이 엠 다사아드, 외무성 1 부상 수위또 구수모위다그도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과 인도네시아 간의 친선 단결과 협조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 지도자들은 조선과 인도네시아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가 량국 인민의 공동의 리익과 아세아와 세계의 자유 및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최근 시기 날로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금번 수카르노 대통령의 조선 방문이 량국 인민들과 정부 간의 친선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정부의 령도 하에 조선 인민이 자력 갱생하여 새 사회 건설과 민족 경제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축하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으로 통일된 조선의 륭성과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기여로 된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남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조선 인민과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투쟁에 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지도자들은 아세아 문제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아세아 인민 자신에 의해서 아세아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하였다.

그들은 아세아 지역에 외국 군사 기지들과 외국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세아 문제의 해결에 도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쌍방 지도자들은 아세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며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세아의 어느 지역에서이건 군사 기지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렬강들이 그의 기지들을 청산하며 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일성 수상과 조선 인민은 수카르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령도 하에 인도네시아 인민이 식민지 통치의 모든 후과를 청산하며 판챠실라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체에 부합되게 완전한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 및 문화적 독자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건설하는 견결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국제 제국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의 혁명을 가로 막으며 자기들의 낡은 식민지리권을 보존하며 동남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 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안전

에 위협으로 되는 소위 《말레이시아 련방》을 해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또한 소위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 큰 기여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쌍방 지도자들은 반둥 회의의 정신과 원칙에 립각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과 인도네시아는 량국 간의 각 분야에 걸친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 정세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자유, 사회적 정의 및 공고한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기타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에게 열렬한 련대성을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소위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정의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쌍방 지도자들은 동남 아세아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 파괴 책동이 전반적인 세계 평화와 특히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진정한 독립이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방해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체의 민족적 정책을 결정하며 민족적 개념을 형성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매개 민족은 자체의 민족적 개념에 따라 자체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처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쌍방 지도자들은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한다.

김 일성 수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수카르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쌍방은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및 정부 수뇌자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규탄하고 민족적 독립과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을 환영한다.

쌍방은 1965년 3월 알제에서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이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전선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한다.

김 일성 수상은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의 공동 전선을 강화하며 민족에 의한 민족의 지배와 착취가 없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 사회적 정의와 진보, 경제적 번영 및 공고한 평화와 인간의 우의에 대한 정신적 행복에 기초하게 될 새롭고 훌륭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독립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및 기타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들이 참가하는 신흥 세력 회의 (코네포)를 소집할 데 대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발기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과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인민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첫 조선 방문이 조선과 인도네시아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체류 기간 조선 정부와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표시하여 준 열렬한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이미 합의된 김 일성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속히 실현될 데 대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을 전달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이 친절한 초청에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며 인도네시아 인민들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친선적인 상봉을 위하여 멀지 않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김 일성 수상과 수카르노 대통령은 조선과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과 협조가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개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64년 11월 4일 평양에서

꽁고(브)공화국 국회 대표단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꽁고(브) 공화국 국민 의회 앙고르 레옹 의장을 단장으로 하

는 꽁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0월 27일부터 1964년 11월 4일까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체류 기간 평양, 함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협동 농장,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김 일성 수상은 앙고르 레옹 단장을 비롯한 꽁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교환하였다.

체류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과 꽁고(브)공화국 국회 대표단 회담을 진행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의장 최 원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서기장 림 춘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부의장 리 기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사무장 김 농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법무부 부부장 김 승천이 참가하였다.

꽁고(브)측에서는 꽁고(브)공화국 국민 의회 의장 앙고르 레옹, 꽁고(브) 공화국 국민 의회 의원들인 말레라 가브리엘, 꼬마 가스똥, 마꼬쏘 프랑수와, 마야스꼬 아나똘, 드주브 장바롱, 이오아스 아브라함, 꽁고(브)공화국 국민 의회 의장 개인 비서 디아부아 로들프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금번 꽁고(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의 조선 방문이 조선과 꽁고(브)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꽁고(브) 측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축하하였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 측은 1963년 8월 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꽁고(브) 인민이 마쌈바 데바 대통령의 지도 하에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 측은 또한 꽁고(브)정부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평화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선과 꽁고(브)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게 맺어진 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고 앞으로 두 나라 인민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층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굳은 단결이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라고 인정하며 이 지역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치하게 규탄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아직 남아 있는 수치스러운 식민주의 제도와 모든 외국 군대와 외국 군사 기지들이 지체 없이 철폐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쌍방은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와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등을 비롯한 모든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웰남, 라오스, 캄보자, 인도네시아 및 기타 모든 아세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꾸바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모든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쌍방은 1965년 3월 알제에서 소집될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꽁고(브) 측은 체류 기간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조선 인민의 열렬한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편리한 기회에 꽁고(브)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조선 측은 이 친절한 초청을 기쁘게 접수하고 꽁고(브) 측에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 인민과 꽁고(브) 인민 간의 영원한 친선 만세!

1964년 11월 4일
평양에서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은 아랍 련합 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아랍 련합 공화국을 국가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공식 대표단을 동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의 일행은 방문 기간 아랍 련합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와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에게 표시된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의 친절한 환영과 환대는 최근 년간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조선 인민과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 관계를 뚜렷이 시위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의 일행은 까히라, 이스마 일리아를 비롯한 각지의 공장, 농촌, 문화 기관, 고적들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고대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쌓아 놓은 애급 인민의 찬란한 업적과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영웅적으로 물리치고 새 사회 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감명 깊게 보았으며,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지향을 더 잘 리해할 수 있었다.

방문 기간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은 극히 친선적이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외무상 박 성철,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아랍 련합 공화국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리 대사 리 친선이 참가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 측에서 부대통령 쟈카리아 모헤딘, 수상 알리 사브리, 로동상 안와르 살라마, 외무상 마흐무드 리야드, 대통령 고문 후세인 줄피카르 사브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아랍 련합 공화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과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조선과 아랍 련합 공화국 량국 간에 이미 맺어진 친선 협조 관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량국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 및 세계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최근 시기 날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이 관계를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량국 간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으로 높이며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호상 교류와 협조를 확대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이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령도 하에 식민주의와 봉건주의를 청산하며, 독점 자본을 근절하고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며,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며, 건전한 민주주의적 생활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쁠럭 불가담 원칙에 립각한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 및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아랍 통일을 위한 아랍 인민들의 념원과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의 령도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새 사회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축하하였다.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은 조선이 여전히 분렬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며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과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시종 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쌍방은 오늘 여전히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 남아 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위업을 위하여 이 지역 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잃어 버린 옛 지위를 회복하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새로운 식민주의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하여 계속 각방으로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쌍방은 중근동에서 이스라엘을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여 아랍 제국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부단히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이에 있어서 최 용건 위원장은 자기 고향에 돌아 가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을 물리치고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남아라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

며, 또한 이들의 투쟁을 각방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인도지나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데 대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회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있건 관계 국가의 의사에 배치되게 설치된 모든 외국의 군사 기지와 외국 군대는 국가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자유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지체 없이 철수 철폐되여야 하며 또한 아세아와 아프리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치욕스러운 식민지 제도가 지체 없이 청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해방을 위한 남로데시아,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 아프리카, 스워질랜드, 바수톨랜드, 베추아날랜드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쌍방은 아직 세계의 여러 곳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 제도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인민들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인종 차별을 단호히 규탄한다.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이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동의 번영을 촉진시키려는 념원으로부터 서로 지지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서 유무 상통하는 경제적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유엔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를 회복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반제 반 식민주의 공동의 투쟁에서 제 2 차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 제 2 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들에 대하여, 또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

쌍방은 1965년 3월 알제에서 있을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력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 정세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편에 계속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자유의 승리와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금번 최 용건 위원장의 아랍 련합 공화국 친선 방문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아랍 련합 공화국 두 나라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금번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베풀어 준 열렬한 환영과 환대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며 김 일성 수상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나쎄르 대통령이 편리한 기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나쎄르 대통령은 이 초청을 감사히 접수하였다.

1964년 11월 26일 까히라에서

조선 알제리 공동 콤뮤니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은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아호메드 벤 벨라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을 인솔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알제리 체류 기간에 알제와 아스남에서 공장들을 방문하였으며 자치 농장들과 사회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조선 대표단은 벤 벨라 대통령을 비롯한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극진한 환대와 알제리 인민들의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환대와 환영은 조선과 알제리 량국 인민들 간의 영원한 형제적 친선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조선 인민에 대한 알제리 인민의 깊은 친선의 정에 매우 감동되였으며 알제리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업적들과 해방 후 재사회 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

조선 대표단의 알제리 체류 기간 최 용건 위원장과 벤 벨라 대통령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인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인 외무상 박 성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인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내각 참사 황 장엽, 외무성 참사 전 인철, 상업성 부상 리 상언, 알제리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허 석신,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 부위원장 장 지재, 외무성 참사 옥 인섭이 참가하였다.

알제리 측에서 민족 해방 전선당 정치국 위원인 민족 회의 의장 하지 벤 알라, 정치국 위원인 내각 제 2 부수상 모함메드 사이드, 정치국 위원인 민족 회의 부의장 알리 멘젤리, 정치국 위원인 외무상 아브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정치국 위원인 농업상 아호메드 마사스, 정치국 위원인 보건상 모함메드 세기르 네카체, 정치국 위원인 민족 인민군 총참모장 타하르 즈비리, 정치국 위원 모한드 아이트 호시네, 정치국 위원 오마르 벤 마쥬브, 정치국 위원 유세프 카티브, 정치국 위원 모한드 울 하지가 참가하였다.

친선적이며 화기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조선과 알제리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쌍방은 토의된 주요 문제들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알제리 인민의 해방 투쟁 시기에 맺어진 조선과 알제리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가 량국 인민의 리익과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알제리 인민이 장기간의 무장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벤 벨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당의 령도 밑에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2 년 간에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와 결탁한 반 혁명 세력들의 책동을 제압하면서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선택한 데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또한 평화 애호적인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가 쁠럭 불가담 원칙에 립각한 대외 정책을 실시하면서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기여하며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사업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벤 벨라 대통령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축하하였다.

벤 벨라 대통령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원인 조선의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킨 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벤 벨라 대통령과 알제리 정부와 인민이 시종 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주고 있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승한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빛나는 승리가 제국주의의 불패성에 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린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은 피압박 인민들의 불굴의 해방 운동을 가로막으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또다시 식민주의의 멍에를 들씌우려고 무장 간섭, 경제적 압력 및 파괴 활동 등 발악적 침략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다. 쌍방은 꽁고(레)에 대한 무장 침략이 꽁고(레) 인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 행동으로 되며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꽁고 인민 력량에 적극적인 련대성과 열렬한 지지를 표명한다.

쌍방은 아프리카 문제의 해결과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한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거대한 노력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 기구의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또다시 완전한 신임을 표시한다. 쌍방은 민족적 주권과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남부 아라비아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수리아 아랍 공화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아랍 요르단강의 수로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세계 유태주의를 반대하여 부단히 투쟁하고 있는 아랍 련맹 내의 아랍 국가들의 긍정적 역할을 환영한다. 평화의 수호에 관심하고 있는 쌍방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당시에 물려 받은 국경들이 그 대로 유지되여야 한다고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아프리카 통일 기구와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의 현명한 결정들을 환영한다.

쌍방은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 아프리카, 베추아날랜드, 바수롤랜드, 스워질랜드 인민들, 인종 차별과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인민들 및 기타 싸우는 모든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쌍방은 침략을 반대하며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과 모든 아세아와 라틴 아

메리카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또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영웅적 꾸바 인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인민들이 자기의 사회 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쌍방은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모든 외국의 간섭을 또다시 규탄하며 침략과 억압의 근원인 외국 기지들의 청산을 위하여 사업할 것이다.

쌍방은 최근 까히라에서 진행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가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1965년에 알제에서 진행될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며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지게 될 력사적 의의에 대하여 특별한 주목을 돌리면서 이 력사적인 회의가 모든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빛나는 성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데 대한 일치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있어서 최 용건 위원장은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가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그의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쌍방은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금번 최 용건 위원장의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친선 방문이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알제리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와 자기 일행에게 표시하여 준 열렬한 환영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조선 인민의 친선의 정을 알제리 인민에게 전하면서 벤 벨라 대통령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가능한한 속히 방문할 것을 희망하였다.

벤 벨라 대통령은 멀지 않아 조선을 방문하여 김 일성 수상과 만나게 될 자기의 커다란 기쁨을 표명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벤 벨라 대통령은 조선과 알제리 량국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계속 개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964년 11월 30일 알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벤 벨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 명

(남조선 괴뢰 도당이 조국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향을 억누르고 소위《유엔 감시》라는 구실 하에 조국 통일의 길을 계속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남조선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을 요구하는 사회계와 인민 대중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높아 가고 있다.

근 20 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분렬의 비극을 체험한 남조선 인민 대중은 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갈망하면서 최근에 와서 특히 통일의 길을 자주적으로 개척할 데 대한 요구를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 《국회》는 지난 11월 29일 《국토 통일 방안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것을 황급히 채택하고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라는 반 인민적인 종래의 립장을 재확인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며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으로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할 데 대한 대중적 요구가 세찬 기세로 터져 나오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국회》가 서둘러 채택한 이와 같은 《결의안》은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이것은 민족 분렬의 비극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려는 인민 대중의 강력한 지향과 통일 문제 해결의 자주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사회계와 언론계의 활발한 론의를 강권으로 억압 봉쇄하고 국토의 량단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책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할 우리 민족 자체의 문제이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민족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겠는가?

조선의 통일 문제를 《유엔》에 맡기자는 것은 말로는 통일을 운운하면서도 실상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유엔의 감시》란 미제의 침략과 예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자신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유엔의 《감시》와 간섭이 어떠한 후과를 가져 오는가를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있다.

미제는 바로 유엔의 이름을 빌어 남조선에 괴뢰 정부를 조작하고 우리 조국을 분렬시켰으며 조선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바로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체 민족

적인 것을 유린 모독하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극도의 위기와 혼란을 조성하여 놓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먹을 자유로부터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송두리 채 박탈 유린하고 있다.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간섭은 비단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사태를 빚어 내고 있다.

유엔의 간섭에 의하여 오늘 콩고(레오폴드빌)에 어떠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가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의 보자기를 쓴 미제의 간섭과 침략으로 인하여 콩고의 합법적 정부는 전복되고 그 지도자는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민족적 자주권은 여지 없이 유린되고 자유를 요구하는 수천 수만의 콩고 인민은 야수적으로 참살 당하고 있지 않는가?

미제의 조선 침략의 위장물로 되고 있으며 더우기 조선 전쟁의 교전 일방으로 된 유엔은 조선 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으며 도덕적 권위도 없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조국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향을 억누르고 소위 《유엔 감시》라는 구실하에 조국 통일의 길을 계속 가로막으려는 남조선 괴뢰 도당의 파렴치한 매국적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써 단호히 규탄하며 엄숙히 단죄한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자주적인 해결의 길 이외에 다른 어떠한 길도 있을 수 없다.

일신의 영화를 위하여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는 반역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결코 외세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추악한 매국 역적 박 정희 도당은 인민 대중이 념원하는 조국 통일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인민 대중이 견결히 반대하는 범죄적인 《한일 회담》은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민족의 원쑤들인 침략자들의 발 밑으로 더욱 깊이 기여 들어 가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전 민족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제멋대로 흥정판에 올려 놓고 과거 근 반 세기에 걸쳐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 푼의 딸라와 바꾸려 하고 있으며 조국의 령토인 독도와 남조선 어민들의 생명선인 어장까지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대하는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범죄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바쳐야 할 동포 형제들을 소위 《이민》의 명목으로 산 설고 물 선 먼 이국 땅의 농장주와 자본가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도 바로 박 정희 매국 역도들만이 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지난 날에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륙무로 변신하였고 오늘 또다시 옛 상전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품에 기여 들고 있는 박 정희와 같은 매국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천추 만대에 저주 받을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매국노들만이 외세를 등에 업고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할 수 있다.

제반 사실은 오직 자주적인 길만이 나라를 통일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며 가장 애국적인 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 일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원칙을 확고 부동하게 견지하여 왔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반드시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자질을 소유한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민족이다.

수천 년 전부터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고 떳떳하게 살아 온 우리 인민이 어찌하여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남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야 하며 더우기 극악 무도한 해적의 후예들인 양키의 전횡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 침략 군대는 철거하여야 하며 조국의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 인민은 자기 민족 내부 문제의 해결에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또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 대중의 갈망을 유린하고 망국적인 외세 의존의 길을 계속 강요하려는 남조선 지배층의 범죄적인 책동을 단호히 폭로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동포 형제 자매들과 모든 애국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우선 남북 간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고 호상 교류와 합작을 도모하며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더욱 광범하게, 더욱 왕성하게 조국 통일 기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삼천만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 민족의 력량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인 원칙에서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며

는 방안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 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자주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상론하고 협상한다면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 할 어떠한 난문제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남북 조선의 애국 력량이 힘을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우리는 능히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 시대에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력사의 교훈은 외세에 매여 달리는 매국노들의 저주로운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변천하는 세계의 추세는 자주 자립과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 대중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남북의 장벽은 무너지고야 말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1964년 12월 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

말리 국가 수반이며 정부 수상인 모디보 케이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이 1964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말리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들을 동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외무상 박 성철,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내각 참사 황 장엽, 외무성 참사 전 인철, 상업성 부상 리 상언,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 부위원장 장 지재, 외무성 참사 옥 인섭 및 기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고위 인사들.

말리 인민과 정부는 최 용건 위원장이 인솔하는 조선의 고위 인사들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번 방문은 사실 상 말리와 조선 간의 위대한 친선 및 형제적 단결의 공고화와 아프리카와 아세아 인민들 간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단은 수도 바마코 외에 세구와 마르칼라, 특히는 니제르 회사의 시설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말리 공화국의 로동자, 농민 그리고 간부들과 성과적이며 열렬한 형제적 우정으로 충만된 접촉들을 하였다. 말리 공화국의 친근한 벗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단은 그 어디서나 열정과 형제적 우정으로 흘러 넘치는 환영을 받았다.

모든 말리 인민들이 충심으로 영웅적 조선 인민의 대표들에게 자기의 뜨거운 친선과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의 위대한 전투적 단결에 대한 영원한 충실성을 표시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표단은 현명하고 불굴의 령도자인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지도 하에 전체 말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훌륭한 노력을 보았다.

조선 대표단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달성한 고무적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의 발전 및 인민 생활의 향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환영한다. 이 성과들은 독립 후 불과 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이다.

말리 체류 기간 최 용건 위원장은 수단 련맹당 총비서 모디보 케이타 동지가 인솔하는 전국 정치국 위원들 및 정부 성원들과 진지한 회담을 가지였다.

조선 측으로부터는 상술한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은 친선과 전투적 우정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말리 공화국 간에 존재하는 친선과 협조의 훌륭한 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평양에서 김 일성 수상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간에 조인된, 목전의 현실을 반영한 방향적 의의를 가지는 공동 콤뮤니케에 비추어 국제 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 정세가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의 쟁취와 유지, 평화의 수호 및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매우 유리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두 대표단은 민족 해방 운동이 최근 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힘차게 앙양되였으며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최근 스탠리빌에서 여지 없이 폭로된 바와 같이 최근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는 세계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범죄적 행위와 지배를 백방으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쌍방은 콩고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집단적 학살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적 콩고 인민들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쌍방은 콩고 애국자들의 위업이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대

하여 만족하게 지적한다.

두 대표단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특히 콩고에 대한 미국과 벨지크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적 독립을 다시 찾으며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을 지지할 데 대한 자기들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쌍방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 아프리카, 베추아나랜드, 바수톨랜드 및 스위질랜드 인민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인종 차별과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 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전체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쌍방은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며 남부 웰남 인민의 해방 투쟁과 웰남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체 웰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웰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유관 각방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이 웰남의 주권, 독립, 통일 및 령토 완정을 존중하며 웰남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말 데 대한 약속을 리행하여야 한다는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 찬동한다.

쌍방은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과 민족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라오스 애국 력량들의 투쟁과 캄보쟈의 독립과 중립을 공고화 하기 위한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쌍방은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한다.

쌍방은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인 티베트에 대한 제국주의의 책동을 규탄한다.

쌍방은 팔레스티나 인민들과 아직도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기타 아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꾸바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쌍방은 1965년 3월 알제에서 열리게 될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 사회적 진보의 촉진, 평화의 유지를 위한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인정하며 이 회의의 성과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데 대한 자기들의 일치한 결의를 표명한다.

쌍방은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의 굳게 단결된 인민들의 더욱 거세찬 전진 앞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필승 불패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반제 전선을 강화할 데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는 말리 인민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견결히 지지한다.

말리 측은 조선을 공식 방문하였던 말리 대표단에 대한 형제적이며 열렬한 환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부합되는 사심 없는 원조와 말리에서 일하는 조선 형제들의 위대한 헌신성과 희생성에 대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리 인민의 감사를 표시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수단 련맹당의 이름으로 조선 인민에게 휘황한 전망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고무적인 전망을 열어 주고 있는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웅대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두 대표단은 량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였다.

쌍방은 최 용건 위원장의 말리 공화국 친선 방문이 성과를 거두었으며 량국 간의 친선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적 해방 운동을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일치하게 인정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장 마하만 아라싸베 하이다라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친절히 초청하였다. 마하만 아라싸베 하이다라 의장은 이 형제적인 초청을 기쁨으로 수락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김 일성 수상이 말리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초청한 데 대하여서와 말리 인민이 얼마나 이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를 조선 대표단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964년 12월 6일 바마코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말리 공화국 국가
수반 겸 수상 **모디보 케이타**

조선—기네 공동 콤뮤니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각하는 기네 공화국 대통령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네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과 정부의 다음과 같은 여러 인사들을 동반하였다.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외무상 박 성철,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내각 참사 황 장엽, 외무성 참사 전 인철, 상업성 부상 리 상언,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 부위원장 장 지재, 외무성 참사 옥 인섭.

기네 방문 기간 최 용건 위원장과 조선 대표단은 피나크리와 킨디야 지역을 참관하였다. 가는 곳 마다에서 그들은 주민들과 정치 간부들 및 행정 당국 책임자들의 열렬하고도 정열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아흐메드 세쿠 투레 대통령의 령도 밑에 기네 민주당과 정부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아프리카 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투쟁에서, 번영하며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찬양하였다.

그들은 기네 정부가 적극적 중립과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은 기네 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가 인솔한 기네 민주당 전국 정치 위원회 및 정부의 중요 대표단과 친선적인 회담을 가지였다.

진지하고도 친선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특히 량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관계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력들의 행동 통일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담에서는 광범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위원장과 대통령은 타국 령토에 외국 기지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행동과 외국 군대의 주둔 및 간섭을 규탄한다.

그들은 반제 투쟁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것이며 현실적이고 정당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식민지 통치와 타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해방 운동들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위원장과 대통령은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그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직도 외국의 지배 하에 있는 나라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며 강화할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은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며 전체 아프리카의 해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 지지를 표시한다.

기네 공화국 대통령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남북 조선 대표의 직접적 협상을 통하여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기네 공화국 정부의 지지를 다시 표명하였다.

그들은 량국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끝으로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절실한 리익에 부합되며 아프리카, 아세아 나라들 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1965년 첫 분기에 알제에서 소집될 아프리카 아세아 국가 수뇌자 회의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김 일성 수상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세쿠 투레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세쿠 투레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1964년 12월 10일 피나크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기네 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 및 도 당 책임 일'군들, 중요 기업소 당 위원장들, 성, 중앙 기관 책임 일'군들, 도급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 책임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는 1964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예비적 총화와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

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경제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공업 및 농업 부문의 1966년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각 제 1 부수상 김 일 동지가 보고하였으며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금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금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그 전진 속도를 견지하면서 중공업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한 결과 이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강계 청년 발전소가 새로 조업하고 강선 제강소의 인발 강관 직장,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들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를 단시일 내에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철도 운수의 기술적 개건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 전반적으로 생활 필수품 직장이 꾸려졌다. 그리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앞으로 그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길을 따라 농촌 경리는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였다.

새로 6만여 정보의 논 면적이 확장되고 치산 치수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농업의 집약화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금년에 장마와 폭풍우 등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은 계속 확고히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더욱 향상되였으며 특히 국가의 막대한 물질 재정적 방조와 혜택에 의하여 농민 생활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1965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속도를 견지하며 7 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진의 해이다.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면서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구현과 대안의 사업 체계 및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창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서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 방법과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전원 회의는 새로 창설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형태라는 것이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새로운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 지도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앞세우며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의는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 회의는 성, 국 지도 일'군들의 경제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사업 체계에 맞게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아래를 더 잘 도와 주고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데 대하여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전면적 기술 혁신의 시기에 들어 선 오늘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며 기술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원 회의는 기술 혁명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시킬 대책들에 대하여 심중히 토의하고 해당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회의는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과 물자,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성, 국들의 경제 관리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리며 인민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명확한 투쟁 방향과 목표,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 단결,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밑천,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의 개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이 모든 것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믿

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는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제고할 것이며 미제와 그의 주구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혁명 투쟁을 더욱 고무하여 줄 것이다.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함으로써 맡겨진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1957년, 1958년에 발휘하였던 혁명적 열정에 못지 않게 대중적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어김 없이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의 공동 성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각하는 캄보쟈 왕국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1964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캄보쟈 왕국을 국가 방문하였다.

최 용건 각하는 방문 기간에 부수상 리 주연 각하,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각하, 외무상 박 성철 각하,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각하들과 조선의 기타 고위급 인사들을 동반하였다.

캄보쟈 체류 기간에 최 용건 각하와 조선의 기타 고위급 인사들은 프놈 펜시를 비롯하여 앙코르의 력사적 유물이 있는 시엠레아프와 콤퐁참시를 방문하였다. 도처에서 캄보쟈 인민은 최 용건 각하와 그의 수원들을 열렬히 친선적으로 환영하였다.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 각하와 왕국 정부 및 캄보쟈 인민들의 환영과 환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을 련결시키고 있는 친선을 완전히 실증해 준다.

캄보쟈 체류 기간에 최 용건 각하와 그의 수원들은 캄보쟈의 빛나는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으며 캄보쟈 인민이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의 현명하고 예견성 있는 지도 하에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과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각하는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 각하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 간의 친선 관계 발전에 대하여, 량국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과 특히 동남 아세아와 전반적 아세아의 정세에 대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측으로부터 내각 부수상 리 주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 량욱, 외무상 박 성철,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내각 참사 황 장엽, 외무성 참사 전 인철, 외무성 참사 옥 인섭, 캄보쟈 왕국 주재 조선 총령사 강 석모가 참가하였다.

캄보쟈 왕국 측으로부터 내각 수상이며 대리 외무상인 노로돔 깐똘 친왕, 왕실 최고 회의 부의장 니에크 띠우롱, 내각 부수상이며 국방상 겸 왕국군 총사령관 론 놀, 계획상 마우사이, 왕실 최고 회의 부총비서 푸옹 마르가인, 왕국 정부 파견 공보국 지도 성원 체아 산이 참가하였다.

호상 리해로써 특징 지어진 이 회담은 매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량국 간의 관계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산 모범으로 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국가 생활의 주요 부문들에서 량국 간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적 공존과 반둥의 정신의 원칙에 기초한 이 협조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한다.

쌍방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을 단합시키는 적극적 단결의 뉴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기로 일치하게 결정한다.

쌍방은 또한 그들의 경제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표단들을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한다.

최 용건 위원장은 캄보쟈 인민과 캄보쟈 정부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적이며 팽창주의적이며 병탄주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며 캄보쟈의 독립, 중립, 주권 및 전체 령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전개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조선 인민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전적인 지지 성원을 재확인한다.

조선 측은 캄보쟈 인민의 정당한 지향에 부합되게 캄보쟈의 중립과 령토 완정이 제네바 확대 회의의 모든 참가국들에 의하여 인정 및 보장되게 하며 그럼으로써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에서의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의 모든 제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측은 캄보쟈 국가 원수의 현명한 제의들이 속히 실현되여

미국, 영국 및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계통적인 적대 행위와 방해 책동을 종식시키게 될 것을 희망한다.

조선 측은 앞으로 인도지나 인민들의 회의를 개최할 데 대한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의 제의에 열렬히 찬동한다.

조선 측은 이 제의가 인도지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며 세계의 이 지역에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발기라고 간주한다.

캄보쟈 측은 캄보쟈에 시종 일관 확고한 지지를 주고 있는 데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에게 왕국 정부와 캄보쟈 인민의 사의를 표시한다.

캄보쟈 측은 조선 문제에 대한 캄보쟈 왕국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한다. 즉 외국 군대는 조선 령토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국토의 통일을 위한,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여야 한다. 조선 전쟁에 개입한 유엔은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 측은 캄보쟈의 이 정당한 립장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한다.

쌍방은 특히 인도지나 국가들에서의 정세의 악화는 동맹자들과 주구들의 지지를 받는 미제의 침략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쌍방은 캄보쟈, 웰남 민주 공화국, 라오스 등 린접 국가들에 남부 웰남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호전주의를 규탄한다. 1954년 제네바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미국이 이 협정을 성실하게 그리고 엄격히 실행하여야만 세계의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은 유지될 수 있다.

쌍방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

쌍방은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유지하기 위한 아프리카, 아세아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한다.

쌍방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과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하여 노력할 결의를 재확인한다.

쌍방은 앞으로 알제에서 열리게 될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다시 표명한다.

쌍방은 국제 관계에서 모든 국가들 간의 평등의 원칙을 지지한다.

쌍방은 이 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 특히 중화 인민 공화국에 경의를 표한다.

쌍방은 평화 위업에 큰 기여로 되며 일부 제국주의 렬강들의 핵 공갈 정책을 제거하게 되는 최근의 중국의 핵 폭발을 환영한다.

다른 한편 두 국가 수반들은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아세아 국가들의 리해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아 국가 지도자들 간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상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두 국가 수반들은 량국 지도자들 간의 호상 방문이 호상 리해와 신뢰를 강화하며 량국 간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을 증진시키며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다.

두 국가 수반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 간의 친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고 지적하며 량국 간에 1963년 11월 23일 부 무역 및 지불 협정과 1964년 4월 27일 부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

최 용건 위원장의 금번 캄보쟈 방문은 량국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강화하며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프놈펜에서 1964년 12월 2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캄 보 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 양 선 언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

1964년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는 알제리, 앙골라, 오스트랄리아, 바수톨랜드, 베추아날랜드, 까메룬, 쎄일론, 중국, 꽁고(브라자빌), 꽁고(레오폴드빌), 감비아,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케니아, 조선, 말리, 모잠비크,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북부 칼리만탄, 팔레스티나, 르완다, 소말리아, 서남 아프리카, 수단, 수리아, 타이, 우간다, 웰남 민주 공화국, 남부 웰남, 잔지바르 등 34 개 나라 대표들과 벗들이 참가하였다.

본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을 쟁취하며 자유롭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과 공동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오늘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휩쓸고 있다.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

향으로서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지역에는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 많은 나라 인민들은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제도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순순히 물러가지 않으며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신 식민주의의 멍에를 들씌우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 침략적 수법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침략과 함께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원조》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원조》를 통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며 나아가서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신 식민주의의 전형적 형태이다. 우리는 유엔과 기타 국제 기구들을 이 목적에 리용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신 식민주의자들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면서 그들의 《선의》에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방해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전진을 가로 막는 행위로 된다.

오늘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 앞에는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업이다.

자립 경제 건설은 이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의 기형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 문화를 소유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편파적인 식민지적 경제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게 하며 독립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로 막는 것으로 된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자립 경제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 나라들에서 토지 문제의 정당한 해결은 절박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 준다.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여야 한다. 그들의 기업체를 국유화하여 전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민족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자립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민족 기술 간부 대렬을 육성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있으며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은 근면하고 재능 있는 인민들이다.

자립 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인민의 무진장한 창조적 힘을 믿어야 하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야 한다.

이 물적 및 인적 재부를 옳게 동원한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력사적 과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형편이 각이한 조건 하에서 매개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방향과 방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개 나라들은 자립 경제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는 《폐쇄적인 경제》나 《고립된 경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력 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더욱 촉진시킨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 나갈 때에만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조 관계도 건전한 토대 우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진정한 원조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진정한 협조》와 《사심 없는 원조》를 말로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거나 자기의 협애한 경제적 리득만을 추구하는 미끼로 삼는 것은 경제 협조의 원칙에 배치된다.

경제적 협조와 호상 원조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경제 기술적으로 효과적이라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은 이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호상 긴밀히 협조하며 원조하여야 한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새 사회 건설에서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일정한 경험과 토대를 쌓았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 지역 나라들은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자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호상 귀중한 경험을 교환하며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고 유무 상통하는 것은 자립 경제 건설에 크게 도움을 주며 제국주의 침략에 성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신생 독립 국가 호상 간의 경제적 련계는 장기 통상 협정의 체결, 호혜적인 무역 조건의 적용, 수출품 가격의 안정화, 특혜 관세 제도의 설정, 과학 기술 상 교류의 강화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 발전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호상 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굳게 단합되여 투쟁할 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파탄되고 말 것이다.

본 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이 반제 민족 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화 정책을 분쇄하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1964년 6월 23일
평 양

서 술

지 리

자연 조건

【위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아세아 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남북으로 뻗은 조선 반도와 그 근해에 산재한 3,3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위 43° 0′ 36″)이고 남쪽 끝은 제주도의 서남 쪽에 있는 마라도 (북위 33° 6′ 40″)이며 서쪽 끝은 평안북도 룡천군의 신도 서쪽에 있는 마안도 (동경 124° 11′ 0″)이고 동쪽 끝은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 (동경 130° 51′ 20″)이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적으로 북온대의 남부에 위치하므로 네 계절이 뚜렷하게 바뀌여 사람들의 활동에 적합하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특성은 우리 나라의 지체가 남북으로 길며 기후가 다양하고 지형, 지질이 복잡한 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를 더욱 다종 다양하게 하며 또 각종 자연 부원을 풍부하게 한다.

【면적】 령토의 총면적은 22만 791 평방 키로메터로서 세계 전 륙지 면적의 약 676 분의 1에 해당한다. 남북의 가장 긴 거리(중강—해남 반도 남단)는 840 키로메터,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장산곶—양양)는 354 키로메터이다.

【경계】 우리 나라는 해양 국가이므로 바다 경계선이 전 국경선의 87%나 되며 (약 8,700 키로메터, 도서를 제외) 륙지와의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약 1,300 키로메터 구간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쏘련과 접하고 있다. (그중 쏘련과의 경계선은 16.5키로메터이다).

【지질】 우리 나라는 지체 구조상으로 동부 아세아의 대구조대들 사이에 놓여 있는바 대부분 지역은 조중 륙대 (하부 원생대)의 동쪽 연변부에 속하며 북동부 지역은 씨호떼알린 지향사대의 일부인 상부 고생대 습곡대, 남동부 지역은 환태평양 습곡대에 속하는 중생대 습곡대의 일부 지역으로 되여 있다.

륙대의 결정 기반이 전 령토 면적의 46%를 차지하며 중생대의 관입암, 기타 암석들이 약 24%, 신기 분출암이 8%, 퇴적암이 약 22%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안정된 륙대로서 화산 활동도 국한되여 진행되였고, 현재 활동 중의 화산은 없고 약간의 약진과 미진이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질 작용과 관련되여 80여 개의 광천들이 있다.

【지형】 우리 나라는 전 령토의 약 80%가 산지로 되여 있으며 평지는 20%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각이한 높이의 비률

높이의 한계 (m)	면적 (%)
0～ 100	24.204
101～ 500	40.703
501～1 000	20.591
1 001～1 500	10.004
1 501～2 000	4.052
2 001 이상	0.446

우리 나라의 평균 고도는 482 메터로서 전 세계 륙지의 평균 고도 875 메터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우리 나라는 산악국이라고 하지만 그의 약 65%가 500 메터 이하로서 구릉성 또는 저산성 산지가 대부분이고 고산이라고 볼 수 있는 2,000 메터 이상의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좁다.

우리 나라의 산지는 북부와 동부에 치우처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가면서 점차 완만하게 경사되여 저평한 지대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하계의 배렬에 반영되여 하천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많으며 이 하천들의 류역에는 넓은 충적 평야들이 전개되여 있다.

평야—평야들은 주로 큰 하천들의 중류 및 하류 류역과 해안 지대에 있으며 특히 서해안에 넓은 평야들이 많고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평야가 적다.

평야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우리 나라 령토의 20 % 밖에 되지 않으나 토양은 기름지고 농경지 특히는 논이 집중되여 있어 우리 나라 농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서해안의 중요 평야들로는 룡천 평야, 운전 평야, 안주 평야들과 평양 준평원, 재령 평야, 연백 평야, 김포 평야, 평택 평야, 내포 평야, 호남 평야, 전남 평야가 있다. 동해안에는 수성 평야, 길주 평야, 함흥 평야, 영흥 평야 등이 있으며 남해안에는 진주 평야와 김해 평야가 있다.

이 평야들 중 가장 큰 평야는 재령 평야, 호남 평야, 평양 준평원 (그 면적이 각각 500 평방 키로메터) 등이며 그 다음은 안주 평야, 연백 평야, 함흥 평야 (그 면적이 각각 300 평방 키로메터)이다.

이 평야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농업 지대로 되여 있다.

산지—우리 나라의 산지는 일정한 몇 개의 방향으로 배렬되여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동 방향으로 마천령 산맥이 동해안까지 달리고 있으며 이 산맥에는 2,000 메터 이상의 고산들이 련달아 솟아 있다. 이 마천령 산맥의 거의 중앙에서 북동 방향으로 함경 산맥이 뻗어 있고 반대 쪽에는 서남 방향의 부전령 산맥이 뻗어 있다. 함경 산맥에는 2,000

메터 이상되는 산봉들이 수 많이 솟아 있으며 그 최고봉인 관모봉은 2,541 메터로서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 다음 가는 높은 산이다. 함경 산맥과 부전령 산맥의 동쪽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배면에는 비교적 완만한 개마 고원과 백무 고원이 전개되여 있다.

개마 고원의 서부에는 마천령 산맥에 병행하여 랑림 산맥이 뻗어 있다. 랑림 산맥 서쪽 지역에는 강남 산맥과 적유령 산맥이 점차 낮아지면서 서해안으로 뻗고 있다.

중부 지역의 동해안을 따라 우리 나라의 척량 산맥인 태백 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뻗고 있다. 동쪽 사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 사면은 점차 낮아지면서 고원상 지형을 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1,638 메터), 1,211 고지, 설악산 (1,708 메터)과 오대산 (1,563 메터), 태백산 (1,561 메터) 등의 명산이 솟아 있어 아름답고도 장엄한 산악 경관을 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의 서쪽에는 광주 산맥, 중부에 차령 산맥, 남쪽에 경상 산맥과 토령 산맥 및 소백 산맥 (대부분이 500~1,000 메터 높이)이 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다.

【기후】 우리 나라 기후는 비교적 온난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의 년 교차가 크며 겨울철의 건조기와 여름철의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년 평균 기온은 일부 내륙 고원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지방들에서 6°C 이상이 되며 남해안 일대에서는 14°C 이상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강수량도 많은 바 동해안 북부 및 내륙 고원 지대 (500~700 미리메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들의 년 강수량은 800 미리메터에서 1,500 미리메터 정도까지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기후에서의 특징의 하나는 지리적 위치 및 자연 지리적 제 조건과 관련하여 대기 순환이 주로 계절풍적 성격을 띰으로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대륙성 계절풍이 지배적이며 여름철에는 반대로 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해양성 계절풍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은 춥고 메마르며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 (6, 7, 8월에 년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봄철과 가을철은 계절풍의 교체기로서 바다나 륙지의 영향이 현저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로 따뜻하고 개인 날씨가 많다.

봄철에 기온은 급격히 높아지며 이에 따라 증발량도 급격히 많아지는 관계로 이 시기가 년중을 통하여 가장 메마른 시기로 된다.

가을철은 일반적으로 개인 날씨가 많고 온난한 편이며 년중을 통하여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륙으로부터 불어 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군 한다.

기온—우리 나라의 년 평균 기온은 10°C이며 북부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부 해안 지대와 남부 해상의 도서들에서는 14°C이다.

남해안 및 남부 해상 도서들에서 1월 평균 기온은 3°C 내외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온을 대비하면 여름을 제외하고 동해안이 2°C 내외로 높다.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기온의 차이는 겨울에 특히 심하고 여름에는 그 차가 매우 적다.

가장 더운 7월 또는 8월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26°C 내외로 되여 있으나 동부 산지대 고원 지방은 20°C 정도이다.

1월 평균 기온은 남부 해안에서 약 2°C이고 북부의 내륙 지방에서는 령하 21°C 이하로 내려 간다.

우리 나라의 최고 기온 극은 1932년 8월 1일의 40.0°C (일부 북부 내륙 지방에서 7월에 40°C까지 되는 날도 있다)이며 최저 기온 극은 1933년 1월 12일 중강에서 령하 43.6°C로 관측되였다.

강수량—눈이 북부 산지에서는 10월 하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기타 지방에서는 11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사이에 내린다.

비는 어느 지방이나 6월부터 8월까지의 3 개월 간에 년 중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년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800~1,000 미리메터 내외이고 가장 많은 남부 해안 지대에서는 1,400 미리메터를 초과하며 가장 적은 두만강 류역에서는 500 미리메터 이하되는 곳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대는 남부 해안 지대와 서부 산지대의 청천강, 대령강 상류 지방과 추가령 지구대의 림진강 류역이며 제주도와 울릉도는 1,400 미리메터 전후이다.

강우량이 적은 지대는 백무 고원, 동해안의 북부, 대동강 하류 류역이며 이 지대의 강수량은 600~700 미리메터이다. 우리 나라에서 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장진의 3,150.3 미리메터이다.

【하천 및 호수】 우리 나라의 하천은 전체적으로 보아 서해 사면, 남해 사면으로 흐르는 하천들로 구분된다.

서해 사면과 남해 사면은 지형이 완만함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의 큰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반면에 동해 사면으로는 하상 경사가 급함으로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긴 강이란 없다.

우리 나라에는 그 길이가 50 키로메터 넘는 강만 하여도 30여 개나 있으며 이 강들을 통하여 1년 동안에 97.45 립방 키로메터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드는바 이것이 곧 우리 나라 물 자원의 대부분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는 천지와 장연호를 비롯한 수 많은 자연 호수들

과 수풍호, 장진호, 부전호, 연풍 저수지, 래성 저수지 등 수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바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해양국이다.

우리 나라의 바다들 중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는 동해인바 동해의 면적은 약 100만 평방 키로메터이고 그 평균 깊이는 약 1,700 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은 3,669 메터이다. 해안선 (두만강 하구—부산 서남쪽)의 총 연장은 약 1,727 키로메터로서 서해와 남해에 비하여 단조로우며 섬들도 적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5~28°C까지 되며 겨울에는 1°C 정도로 된다.

동해의 염분은 34.5%이고 조석 간만의 차는 극히 적고 (0.2 메터) 해류는 난류인 동조선 해류와 대마 해류가 남쪽의 조선 해협을 지나서 흘러 들고 북쪽으로부터 한류인 리만 해류가 흘러 든다.

서해의 면적은 약 52만 평방 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4,719 키로메터이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40 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이라 하여도 106 메터 정도에 불과하다. 수온은 겨울에 0°C 내외로 내려 가며 여름에는 25°C 이상으로 올라간다. 염분은 대체로 33.0% 미만이다.

서해의 중앙부에는 태평양의 구로시오로부터 갈라져 나온 서조선 해류가 흐른다.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인천항 8.1 메터, 아산만 8.2 메터) 수심이 얕음으로 해안에는 50만 정보 (공화국 북반부에 만도 약 30만 정보)의 넓은 간석지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농경지로, 갈밭과 제염업 기지로, 천해 양식장으로도 리용될 전망이 크다.

남해의 면적은 약 10만 평방 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2,246 키로메터이다. 평균 깊이는 약 120 메터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7 메터이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8~30°C, 겨울에는 13°C까지 되며 염분은 약 34.0%이다.

조석 간만의 차는 2 메터 내외이며 해안에는 약 20만 정보의 간석지가 있다. 남해안에는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를 비롯한 2,200여 개의 섬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동, 식물계】 동, 식물계는 우리 나라 자연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식물에는 167과 903 속에 속하는 약 4,000여 개의 종과 아종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북부 고지대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린네풀 등을 비롯한 한대성 식물들과 남부 지대의 북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의 아열대 식물, 우리 나라 고유 식물을 비롯한 온대성 식물 등 실로 다종 다양한 식물들이 분포되여 하나의 대자연 식물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지리학적 발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산 식물이 많은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금강산의 금강초롱꽃, 세계 1속 1종 밖에 없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미선나무, 검산령의 검산초롱, 장수산의 장수만리화, 금강산의 금강국수나무 등은 그 한 실례로 된다.

우리 나라의 동물상도 역시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1963년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척추 동물에 속하는 것만도 대략 1,100여 종이며 그중 포유 동물은 104 종, 조류는 423 종, 파충류는 27 종, 량서류는 15 종, 어류는 520 종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 위치, 면적 등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아주 많은 수'자이다.

또한 동물에 있어서도 특산종이 많다. 우리 나라 특산속 포유 동물인 복작노루를 비롯하여 특산종인 유명한 클락새 (개성, 평산, 강릉 이남 지역에 분포), 특산 아종인 산로끼 등 100여 종의 특산 동물이 있다. 이 외에 우리 당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노루까, 은흑색 여우 등 외국산 동물들을 풍토 순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동물상은 풍부해지고 있다.

【토양】 우리 나라에는 다종 다양한 토양이 분포되여 있다.

우리 나라 북부의 비교적 높은 산악 지대에는 분비, 가문비를 비롯한 침엽 수림의 영향 하에서 산악 표백토가 발달되고 산림 한계선 이상의 산정 부근에서는 산악 습초원토가 분포되여 있다.

비교적 한랭한 중부의 산악 지대에서는 침엽 수림과 침활 혼성림의 영향 하에 산악 산림 갈색토가 분포되고 그 하부인 침활 혼성림과 활엽 수림이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산림 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는바 이 토양은 밭 작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중부 온대 남부 활엽 수림이 생육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저산 및 평지대에서는 산악 산림 적갈색토와 산림 적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이 토양은 남부의 적색토와 북부 및 부분적으로 중부에 분포된 산림 갈색토의 중간적 위치인 점이 지대에서 형성된다.

남부 해안 지대에는 아열대성 기후와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 활엽 수림을 포함한 아열대림의 영향 하에서 적색토 또는 황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분포된 비대적인 토양은 논 토양, 충적토, 간석지 토양, 소택토들이다.

우리 나라 평야 지대 각 곳에 분포되여 있는 논 토양은 농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결된 토양이며 우리 나라 알곡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간석지 토양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여 있는바 자연 개조의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충적토는 하천의 범람과 과거의 충적지였던 하안 단구들에 발달하고 있다. 충적토의 면적은 그리 넓지 못 하나 이 토양의 대

부분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이 논토양으로 변화되였다.

자연 부원

【지하 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현재까지 300여 종의 광물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은 약 200 종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 월프람,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운모, 중정석, 형석 등은 매장량에서나 채취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10 위 이내에 든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무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철, 석탄, 연, 아연, 동, 알루미늄, 린회석, 내화 재료, 각종 희유 원소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이 밖에 망간, 니켈, 활석, 규사, 고령토, 석면, 화강암, 대리석 등 여러 가지 유용 광물이 많다.

【수력 자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1,000만 키로와트 이상의 출력에 해당하는 수력 자원 (서구라파에서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프랑스의 580만 키로와트보다 훨씬 많다)을 가지고 있다.

수력 자원이 많은 하천들을 보면 압록강 수계, 두만강 수계, 대동강 수계, 그리고 림진강 수계, 한강 수계, 금강 수계, 락동강 수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력 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 류역 (280만 키로와트)과 두만강 류역 (100만 키로와트)인바 이 두 강 류역은 세계적으로도 수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실로 수백만 키로와트에 달한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면 서해안에서 만도 최소 400억 키로와트시 이상의 발전 가능량을 가지고 있다.

【산림 자원】 우리 나라는 산림 면적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그 면적은 1,600만 정보로서 이는 전 국토의 73%에 해당한다.

산림 면적의 58.6%는 북반부에 있고 나머지 41.4%는 남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식물은 1,100여 종이나 되며 그중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 종, 활엽수가 136 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 산림에는 700여 종의 약용 식물, 200여 종의 산채류, 450여 종의 공업용 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산림 내에 있는 유용 식물들 중 중요한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섬유 및 제지 식물로서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닥나무, 노박덩굴, 유지 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실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배지나무, 염료 식물로서 시닥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용재의 수종으로서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및 기타 등이 있다.

【수산 자원】 우리 나라는 3 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해양국으로서 수산 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체되는 지역임으로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들이 모여 오는 세계 3 대 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 자원은 650여 종에 달하며 그중 530여 종은 바다에, 120여 종은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 분포되여 있다. 이 중에서 자원의 량과 리용 가치로 보아 수산업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어류 75 종을 비롯하여 120여 종에 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서해에서는 조기, 새우, 민어, 도미, 삼치, 갈치, 바스레기, 대합조개, 김, 굴, 미역 등이고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갈치, 새우 등이다.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북반부이고 그 중에서도 합경남도 해안에서는 전 조선 어획고의 40% 이상이 생산된다.

정 치

1964년에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의 위업 성취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쌓아 올리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대로를 밝혀 준 위대한 강령인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천리마의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확대 공고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였으며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새로운 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물질 기술적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닦아 놓았다.

1964년에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와 함께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힘찬 전진이 계속되였다.

특히 이 해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거듭 취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 전체 근로자들은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남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일으켰다.

북반부 인민들의 이와 같은 혁명적이며 동포애적인 열의,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이 모든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의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대외 관계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4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 식민주의 투쟁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였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는 확대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신은 더욱 제고되였다.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를 위하여

1964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행의 네번째 해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그 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후반기 과업 수행에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해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1964년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당면 목표와 전망 전투 목표를 명확히 제기하고 이 전투 과업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과업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4년에 해결하여야 할 중심 목표인 중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일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대로를 밝혀 준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는 계속하여 이 테제가 제시한 과업 실현을 위한 일련의 중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후반기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1966년까지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투쟁해야 할 중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개 도에서 수행해야 할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들을 그 목표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련이여 취하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을 계속 높이며 그 전

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열'쇠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각급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 특히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그리 하여 새로운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키며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함으로써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 한층 발양시켰다.

동시에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변천된 현실과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선 혁명 발전의 제 요구로부터 당적 령도 체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였으며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협동 농민과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한 조직에 망라하는 새 형태의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직업 동맹의 임무와 기능을 새로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당이 취한 이 일련의 조치들로 하여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의 혁명 대오가 더욱 튼튼히 결속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 체계와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와 함께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특히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경쟁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로하여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대중들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이 해에 당이 제시한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소비품 생산이 급격이 증가되였다.

협동 경리 부문에서도 로동 계급의 지원과 협동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으로 사회주의 농촌 진지가 일층 공고화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농업 생산이 계속 확고히 발전되였다.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이 해에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조선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의 시위로 된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이미 쟁취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5년에 7개년 계획 실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적 열정과 대중적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965년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며 7개년 계획을 어김 없이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인 증산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녘 땅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은 모든 생산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문에로 번져 나아가면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키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심화 발전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모든 부문에서—당 사업에서,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창조적 열의가 들끓고 계속 혁신이 일어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은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지도 일'군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며 대안의 사업 체계는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의 연장이며 그것의 철저한 구현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특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개인의 지도 대신에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보장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며 기업 관리 운영에 생산자 대중을 광범히 참가시켜 그들을 기업 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체계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 체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관리 운영에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구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안의 사업 체계의 확립과 그것의 심화 발전은 생산자 대중의 자각성과 창

조직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1964년에도 당과 정부에서는 이미 확립된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모든 단위, 모든 고리에서 철저히 발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성, 금속 화학 공업성, 기계 공업 위원회, 도시 경영성을 폐지하고 교통 운수 위원회, 철도성, 금속 공업성, 화학 공업성, 기계 공업성을 설치하였으며 경공업 위원회를 국가 경공업 위원회로, 내무성을 국토 관리성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상업 체계와 은행 체계를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개편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이 해에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 전반에 구현한 것으로서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계획화 사업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은 계속 심화 발전되였으며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하에 지도가 하부에 깊이 침투되고 지도와 대중이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생산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게 되였다. 대중이 발동되고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없던 예비들이 광범히 탐구되고 계획화 사업, 기술 혁신, 로동 행정 사업 등 모든 문제들이 풀려 나갔으며 생산에서는 거대한 혁신이 일어났다. 결과에 1964년의 공업 생산은 1963년에 비하여 117%로 장성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에서는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당의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필연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일체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강력한 조직 사상적 투쟁으로 되며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촉진하는 기본 요인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길을 따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작성하신 테제에는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이 리론적으로 개괄되였으며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천명되였다. (문헌편 5—21 페지 참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제시된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해에 일련의 주요 조치를 취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1964년 3월 26일)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하였다.

공화국 내각에서는 이 법령 집행을 위해서 결정 제 60 호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법령 집행 대책에 대하여》와 내각 결정 제 61 호 《일부 협동 농장들의 농업 현물세를 면제할 데 대하여》, 내각 결정 제 63 호 《협동 농장들에 이미 지어 준 농촌 문화 주택 건설비와 대부금을 면제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테제가 펼쳐 준 찬란한 전망과 테제 관철을 위한 국가의 획기적 조치들은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전국을 더욱 더 높은 혁명적 정열로 들끓게 하였다.

농민들은 도처에서 증산 투쟁의 불'길을 높였으며 로동자들은 높은 열성으로 농촌 지원에 떨쳐 나섰다.

이리 하여 1964년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협동 농장들의 경제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였다.

많은 협동 농장들의 현물세가 새로 폐지되여 자강도와 량강도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비롯한 전국 협동 농장 총수의 약 절반이 이미 세납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국가에서 지어준 문화 주택 건설비와 각종 국가 대부금이 면제되였다.

탈곡기, 전동기, 양수기 등 전기 및 기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일체 농기계들이 무상으로 공급되였으며 국가 부담으로 각종 생산적 건설과 문화 주택 및 문화 위생 시설의 건설, 그리고 광범한 토지 개량 사업이 진행되였다.

13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 새로 농촌에 진출하였으며 1,500만 공수에 달하는 방대한 로력적 지원으로 영농 작업이 제때에 보장되였

다.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 하에 농촌 기술 혁명의 위업도 성과적으로 촉진되였다.

뜨락또르와 화학 비료의 생산 기지가 더욱 강화되여 기계화와 화학화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으며 우리 농촌 경리의 뜨락또르 대수는 1964년 말 현재 2만대 (15마력 환산)에 달하였다.

대규모의 관개 공사와 중소 규모의 관개 하천 공사가 추진되여 새로 6만여 정보의 관개 면적이 확장되였으며 전체 농촌 리의 95.5%, 총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 갔다.

수천년간 가난하고 락후하던 과거 농촌의 온갖 흔적을 씻어 버리고 아담하고 알뜰한 문화 농촌을 건설하며 농민들을 유식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고상한 품성과 강의한 혁명 정신을 소유한 공산주의 투사로 육성하는 문화, 사상 혁명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였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 근로자 동맹을 창설하는 사업이 추진되여 이 해 말까지 시, 군, 구역 조직들의 결성이 끝났다.

그리고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수준이 더욱 제고되였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농촌 진지와 로농 동맹은 더욱 튼튼해졌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강화되고 농업 생산은 공고한 토대 우에서 계속 확고히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64년에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 실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확한 조치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은 로동 계급의 강력한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그리 하여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가지는 위대한 생활력과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었다.

이처럼 테제 사상은 실지 생활 속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날과 더불어 더욱 더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심화 발전

1964년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당이 취한 일련의 방침과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함께 계속 확대 심화 발전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며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높일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 당에 충실한 천리마 기수들은 1964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은 물론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과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대 과업 관철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대렬을 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당이 제시한 기술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해 자기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전면적이며 대중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청년 가공 직장 리 종근, 리 윤현 작업반원들은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을 발기하여 작업반 단위로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작업반의 집체적 힘과 나아가서는 작업반 호상 간의 방조에 의해서 수행하는 대중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새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높이였다.

이 경험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급속히 번져져 락원 기계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리고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 건설자들은 《철도 전기화 속도》를 창조하여 500 리 구간의 철도 전기화를 단 반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였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천리마 기수들은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라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술 학습과 개별 기술 담당제를 강화하며 자기가 맡은 기계 설비에 정통하여 다기능공과 고급 기능공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또한 천리마 기수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창조되고 발전된 직일 작업반장제, 내부 채산제, 자체 정량제 등 새로운 대중적 기업 관리 방법을 도입 일반화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재능 있는 관리 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부단히 육성되고 있다.

또한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사상 교양 사업을 자기 사업의 중심 고리로 틀어 잡고 당의 인민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 계급 교양,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작업반을 혁명적인 동지로 결합된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면서 모든 작업반들의 수준을 천리마 작업반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천리마 작업반 대렬이 확대 강화되였다.

1964년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더욱 심화 발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열어 놓은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이다. 전원 회의 결정에 무한히 고무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이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애국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성 기계 종합 공장 ˋ김 재열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남조선에서 반미 구국 투쟁의 선두에 서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리 윤식을 자기 작업반원으로 등록하고 그의 몫까지 해 내는 애국적 운동을 발기하였다. 이들이 지핀 한 점의 불꽃은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 학교, 보건 기관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 타 번졌다. 각지의 근로자들은 남조선에서 원쑤와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 투사들과 조국의 자유 독립을 고수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전우들을 자기 작업반원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몫까지 맡아서 생산하며 조국이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기계와 설비들을 보내 주며 공장과 주택들을 지어줄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앞으로 두 해 동안에 남조선에 년산 50 대의 굴착기와 150 대의 대형 양수기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큰 기계 공장을 건설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증산과 절약으로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일떠선 락원 기계 공장 천리마 작업반원들, 남조선에 20만 톤의 강철 생산 능력을 가진 야금 공장을 지어 줄 자금과 자재를 증산과 절약으로 보장할 것을 다짐하고 나선 성진 제강소 천리마 작업반원들, 절량에 허덕이는 파주군 인민들을 위해 20만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일떠선 안악군 내 협동 농장원들의 투쟁에서 그 일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대중적이며 애국적 운동은 천리마 작업반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천리마의 대고조를 힘 있게 추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적 의식과 높은 계급적 각오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교양 과정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이러한 계속적인 높은 단계로의 심화 발전은 우리 당의 로선의 정당성과 그 령도의 현명성의 결과이며 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립장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반드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서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가장 공명 정대하고도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일관해서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조국 통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1964년에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계속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조직 동원하였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4년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는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방침에 기초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 3 차 회의에서는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 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

	단 위	1960	1961	1962	1963	1964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받은 작업 반수	반	928	8 550	12 743	17 057	22 260
〃 인원수	명	21 167	206 490	365 271	586 403	852 552
그중 로동자, 사무원 수	〃	21 102	149 524	183 755	213 376	285 808
〃 협동 농장원 수	〃	—	27 785	104 665	232 636	340 297
〃 학 생 수	〃	65	29 181	76 851	140 391	226 447
2중 천리마 작업반 수	반	15	81	114	179	266
천리마 직장(학부포함) 수	개	—	12	14	26	48
천리마 공장 수	〃	—	—	—	1	1
천리마 학교 수	〃	—	—	—	3	6

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는 미제의 조종 밑에 일본 반동 지배층과 남조선 괴뢰들이 《한일 회담》을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사태하에서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범죄적 흉계를 단호히 분쇄할 것을 호소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는 남조선이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이 엄숙한 시기에 남북의 합작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조국 통일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정견과 사상의 차이, 재산의 유무, 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단합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시급히 구국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나 기타 형태의 남북 조선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제의하였다.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들에서도 일련의 방책들을 제기하였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1964년 7월 20일 성명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은 우선 남북간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고 헤여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일가를 이루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과 남북 간의 서신 거래, 경제 문화적 련계도 아울러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해 12월 4일 성명에서는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인 원칙에서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또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서 채택한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남북 조선 청년들 간에 자유 래왕과 서신 거래를 시급히 실현할 것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학, 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실현하며 과학 탐구에서 달성한 성과를 가지고 과학 토론회를, 문화 예술 활동에서 달성한 성과를 가지고 호상 발표회를 가질 것과 체육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 교류와 공동 행사를 진행하며 유서 깊은 명승 고적들을 단체적으로나 혹은 개별적으로 답사하며 판광단을 교환할 것을 토의하기 위해 시급한 시일 내에 한 자리에 앉아 회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외도 광주 학생 운동 35 주년 평양시 청년 학생 기념회와 조선 건축가 동맹 제 2 차 대회를 비롯하여 각 사회 단체들에서와 각종 집회들에서 채택된 남조선 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편지, 그리고 성명들에서는 남북 간의 접촉과 서신 거래, 래왕, 문화 교류를 하루 속히 실현할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그 호소에 고무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 통일의 기본 담보인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녘 형제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남반부 인민들도 역시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 속에 반미, 반일, 반정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면서 반제 애국 력량을 강화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성원】 1964년 1월 1일 김 일성 수상은 신년사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괴뢰 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견[illegible]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북반부 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녘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김 일성 수상은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과업들을 명시하시면서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위하여,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 일성 수상께서 주신 교시와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에 고무되여 1964년에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정부 투쟁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성원은 사회 단체의 조직들은 물론 전체 인민들의 대중적 운동으로 광범하게 조직 전개되였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전개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반미, 반일, 반정부 투쟁, 7월부터 9월까지 전개된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반대하는 남조선 언론인들의 투쟁 등을 비롯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온갖 폭압과 악법을 반대하여 일떠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공화국 북반부 각지에서 조직 전개된 탄광, 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종업원 집회, 청년 학생들의 집회, 각지 협동 농장원들의 집회, 기타 온갖 모임들에서와 각 사회 단체들과 이 단체들이 조직한 집회들에서

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편지 또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학생 위원회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을 전 세계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해에 특히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남반부 인민 투쟁에 대한 지지 성원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이며 애국적인 운동으로 더욱 거세차게 전개되였으며 계속 전개되고 있다.

개성 기계 종합 공장 김 재열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남조선에서 학살된 애국 청년 리 윤식을 자기 작업반원으로 등록하고 그의 몫까지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애국적 발기는 삽시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확대되여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거창한 대중적 운동은 남녘땅 겨레들을 생각하는 북반부 인민의 심장 속 깊이 쌓이고 쌓였던 절절한 동포애의 발현이며 자신들의 실제적인 투쟁을 통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겨레들을 구원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뜨거운 념원의 표시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침략적 및 반 인민적 흉책을 폭로 규탄】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냄과 함께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적 및 반 인민적 흉책을 계통적으로 폭로하며 남녘 형제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국 대책을 제시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를 비롯하여 《한일 회담》을 반대 분쇄하기 위한 군중 집회들, 그리고 성명들을 통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흉책을 폭로 규탄하였다.

1964년 3월 20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는 미제의 사촉 하에 일제 반동과 박 정희 도당이 《한일 회담》을 결속하려고 서두르며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 행위를 본격화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기간에 감행한 죄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문헌편 47—57 폐지 참조)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국 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였다. 1964년 2월에 경기도 양주와 포천에서 우리의 무고한 동포들을 사살한 미군 야수들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항의 규탄하는 집회들이 도처에서 광범히 진행 되였다. 특히 1964년 6월 25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와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농민 동맹,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조선 기자 동맹,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의 공동 명의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만행을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제소하는 고소장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고함—남조선에서의 미국 군대의 만행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문헌편 65—76 페지 참조)

6월 25일에는 공화국 북반부 96 개 대학 학생 대표들이 민족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을 반대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는 6월 7일, 8월 8일, 11월 26일의 3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야만적 탄압 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에서는 8월 5일에, 조선 학생 위원회에서는 8월 11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살인 재판을 일삼으며 학원과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새로운 악법 조작 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특히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이해 7월 20일 성명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날로 앙양되는 남북 간의 접촉 및 교류와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을 억누르며 그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소위 《랍북 인사 송환》의 추악한 내막을 폭로 규탄하고 이러한 《운동》으로 인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 고통 받고 있는 북반부 주민들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12월 4일 성명에서는 소위 《유엔 감시》라는 구실 하에 조국 통일의 길을 계속 가로 막으려는 남조선 괴뢰 집단의 파렴치한 매국적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동포애적 배려】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1964년 3월 27일)에서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그 정상적 발전을 도와 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매년 쌀, 강재, 화학 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대량적으로 보내 줄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일'자리 없이 기한에 떨고 있는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 들여 그들에게 직업을 보장해 주며 생활을 안착시킬 것을 또다시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육친적 원조의 손'길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 닿지 못 하였다.

한편 1964년에 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은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을 수다히 구원하여 주었으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모든 동포애적 방조와 조치를 을 다 취하여 주었다.

1964년 3월 서해 해상에서 조난 당한 남조선 어선 《제 1 보승호》와 《제 2 보승호》 어민 26 명이 조선 인민군 해병들에게 구원되였으며 이해 8월에도 태풍 속에서 어민 219 명이 조선 인민군 해병들과 공화국 북반부 수산 부문 로동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구원되였다.

공화국 정부는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에게 새 외복과 내의, 신발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였으며 환자들은 전문과 병원에서 치료하여 주었으며 파손된 선박들도 수리 정비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 갈 때도 필요한 자재와 식량과 필수품까지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

그리하여 3월에 구원된 남조선 어민 26명은 4월 14일에, 8월에 구원된 219명의 남조선 어민들은 9월 15일에 자기들의 배를 타고 해주항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 갔다.

【의거 입북】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민족의 영예와 장래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공화국 북반부로 외거하는 사람들과 《국군》 장병들의 행동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64년 6월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는 외거하여 오는 《국군》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구원과 행복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외거하여 오는 적 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 결정을 채택하였다. (문헌편 62—63 페지 참조)

1964년에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남녘 땅 동포들이 살'길을 찾아 공화국 품안으로 계속 외거하여 왔다. 1964년 1월 25일 전 《한국 공론사》 정경부 차장 최 진영과 기자 김 종호가 판문점을 통하여 의거 입북하였다. 특히 이 해에 남조선에서 올림픽 도꾜 대회에 관광객으로 갔던 최 찬일(본명 최 찬보)를 비롯하여 7 명이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하였다. 그리고 남조선 화물선 《인천호》 (120 톤) 선원이였던 오 창훈 동포도 일본에 갔다가 의거 입북하여 왔다.

또한 미제 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고용병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 오던 《국군》 병사들이 계속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 입북하였다. 이들 의거자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통치 하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짓고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하였다고 이구 동성으로 말하였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1964년에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더욱더 많은 국제적 지지를 받았다.

1964년 3월 알제리에서 진행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제 6 차 회의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조선 인민의 투쟁 지지 월간》으로 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64년 6월 2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뷰로 회의에서는 이 련맹 제 6 차 대회 결정에 따라 《조선 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에 제하여 각국 청년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에서도 이 동맹 제 7 차 대회 결정에 따라 《남조선으로부터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 및 학생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 (6월 25일—7월 1일)에 제하여 1964년 5월 5일에 각국 학생 단체들에 서한을 보내였다.

이 밖에도 남조선 주민들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 만행을 폭로 규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 세계 과학자 련맹,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 상설 서기국과 캄보쟈 작가 협회, 세계 민청 서기국,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라틴 아메리카 근로자 통일 리사회 회의 등에서와 중화인민 공화국 및 웰남 민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각 사회 단체들에서, 일조 협회 제 9 차 전국 대회에서, 쎄일론 사회 단체들에서, 잔지바르 혁명 학생 동맹에서 그리고 특히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일본 인민들의 군중 집회들에서 서한, 전문, 호소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각국의 수 많은 출판물들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64년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의의 투쟁은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 주구들의 매국적인 행위와 민족 분렬 흉책을 폭로 분쇄하면서 승리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의 책동으로 인해서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이 성스러운 임무는 계속 남아 있다.

조선 인민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리고 국제적 혁명 력량의 결속을 촉진시키기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은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 군대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자주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국 가 기 관

최고 주권 기관

【최고 인민 회의】 최고 인민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립법권은 오직 최고 인민 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 년이다.

최고 인민 회의는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정기 회의 및 림시 회의를 가진다. 정기 회의는 1년에 2 차 소집하며 림시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현 최고 인민 회의는 제 3 기로서 1962년 10월 8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383 명으로 구성되였다.

제 3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구성

◇대의원들의 계층별 구성

대의원 총수	383	명
(그중 녀자)	35	명
로동자 대표	215	명
농민 대표	62	명
사무원, 지식인 대표	101	명
기타	5	명

◇대의원들의 년령별 구성

18－29 세	12	명
30－39 세	99	명
40－49 세	181	명
50－59 세	71	명
60 세 이상	20	명

◇대의원들의 지식 정도별 구성

대학 졸업 정도	101	명
전문, 고등 졸업 정도	26	명
중학 졸업 정도	256	명

의 장	최 원택
부의장	리 기영, 김 득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 주권 기관이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 원 장	최 용건	
부위원장	박 정애, 홍 명희	
	강 량욱	백 남운
	박 금철	
서기장	림 춘추	
위 원	리 효순	하 앙천
	현 무광	박 신덕
	최 현	리 영호
	김 왈룡	김 옥순
	로 익명	김 창덕
	송 영	리 만규
	리 면상	계 응상
	리 재복	도 유호

【1964년도 주요 사업】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는 196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에 걸쳐 진행되였다.

최고 인민 회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결정들과 이 회의에서 채택된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고지에서 새로운 대고조가 일어 나고 있는 환경에서 소집되였다.

채택된 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②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③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3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4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대하여

첫째 의안인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의 토의에서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해결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 문헌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 혁명의 매 단계에서 농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 온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을 지적하고 테제가 밝혀 준 보다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회의는 김 일성 동지가 펼쳐 준 위대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오늘날 협동농장들에 대한 방대한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북반부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축성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에 근거하여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문헌편 57페지 참조)

둘째 의안인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의 토의에서 회의는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조국의 남반부를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적 식민지로 팔아 먹으려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흉책을 폭로 규탄하고 전 민족이 힘을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남북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국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나 다른 형태의 남북 조선 련석 회의를 시급히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남조선 경제의 파국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발전을 도와 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매년 쌀 200만 석 (30만 톤), 강재 10만 톤, 전력 10억 키로와트시, 화학 섬유 1만 톤을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다량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일'자리 없이 기한에 떨고 있는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 들이여 그들에게 직업을 보장하여 주고 생활을 안착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세째 의안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3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4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의 토의에서 회의는 1963년 국가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지적하고 1964년 국가 예산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들과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였음을 인정하면서 1963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1964년 국가 예산에 대한 법령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끝으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2 차 회의와 제 3 차 회의 기간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채택한 정령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그것을 승인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뭉쳐 테제가 밝혀 준 길을 따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며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함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64년 6월 11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캄보쟈 왕국, 쎄일론을 방문하였던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사업 보고를 대표단 단장인 최 원택 의장으로부터 청취하고 토의하였다. 회의는 대표단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인민들과 조선 인민 간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1964년에 공포한 주요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사양공 칭호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에 대하여 (1964년 1월 11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경공업 위원회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경공업 위원회로 개칭함에 대하여 (1964년 1월 25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교통 운수 위원회와 철도성을 설치하고 교통성을 폐지함에 대하여 (1964년 2월 4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제염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4년 2월 28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지질 탐사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1964년 2월 28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시 경영성을 폐지함에 대하여 (1964년 4월 3일 정령)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읍을 분리하여 후석리를 신설함에 대하여 (1964년 5월 19일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일부 성 (위원회)들을 신설, 폐지하며 명칭을 개칭함에 대하여 (1964년 12월 4일 정령)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금속 화학 공업성을 폐지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금속 공업성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화학 공업성을 설치한다.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계 공업 위원회를 폐지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계 공업성을 설치한다. 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무성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토 관리성으로 개칭한다.

국가 중앙 집행 기관

【내각】 내각은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 기관이며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내각은 각 성 및 직속 기관의 사업 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하며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 (1962년 10월 22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에 의하여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외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 성원 (1965년 1월 말 현재)

수 상	김 일성	
제 1부수상	김 일	
부수상	김 광협	김 창만
	남 일	리 종옥
	리 주연	정 준택
	최 용진	
민족 보위상		김 창봉
사회 안전상		석 산
외무상		박 성철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정 준택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 두삼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장		오 동욱
국가 경공업 위원회 위원장		림 계철

교통 운수 위원회 위원장	최 용진
농업 위원회 위원장	김 만금
전기 석탄 공업상	김 태근
금속 공업상	리 재영
기계 공업상	현 무광
화학 공업상	송 복기
수산상	강 점구
림업상	정 동철
건재 공업상	김 응상
철도상	김 회일
체신상	박 영순
재정상	한 상두
상업상	김 세봉
수매 량정상	한 대영
무역상	리 주연
로동상	백 선일
국토 관리상	박 문규
고등 교육상	김 종항
보통 교육상	윤 기복
문화상	박 웅걸
보건상	최 창석

지방 주권 기관

【각급 인민 회의】 지방 주권 기관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1954년 10월 30일)에 의하여 구성된다.

도, 시 (구역), 군, 리 (읍, 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 주권 기관은 해당 인민 회의이다.

각급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임기에 있어서 도 인민 회의는 4년이며 시(구역), 군 및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는 2 년이다.

도, 시 (구역), 군 인민 회의 정기 회의는 6 개월에 1 차씩,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정기 회의는 3 개월에 1 차씩 소집하며 림시 회의는 해당 인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인민 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각급 인민 회의는 자기 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 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정확히 보장한다.

현 각급 지방 인민 회의는 1963년 12월 3일에 실시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였다.

지방 정권 기관 대의원들의 구성

도 (직할시) 인민 회의 대의원

대의원 총수	2 517 명
(그중 녀자)	571 명
로동자	673 명
농 민	464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1 002 명
과학자, 기술자 및 문화 예술인	378 명

시 (구역), 군 인민 회의 대의원

대의원 총수	14 303 명
(그중 녀자)	3 820 명
로동자	4 062 명
농 민	3 708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5 419 명
과학자, 기술자 및 문화 예술인	1 114 명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대의원 총수	70 250 명
(그중 녀자)	21 062 명
로동자	6 644 명
농 민	45 429 명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	13 980 명
과학자,기술자 및 문화인	4 197 명

【각급 인민 위원회】 도, 시 (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 기관이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와 상급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 행정 사업을 수행한다. 모든 인민 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 회의 및 상급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재판은 최고 재판소, 도, 시, 군 재판소에서 수행한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며 도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시, 군 재판소는 2년 임기로 해당 인민 회의에서 각각 선거한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재판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1) 재판은 공민의 사회적 지위, 재산, 직위 및 민족별 여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민에 대하여 유일하며 평등하다. 2) 모든 재판에 있어서 형법, 민법 및 소송법은 유일하며 의무적이다.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 한다.

최고 재판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 재판 기관이며 모든 재판 기관의 재판 사업을 감독한다.

최고 재판소 소장 **김 익선**

【검찰소】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며 각 성의 성령, 규칙 및 지방 주권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 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 인민 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 검찰소의 검사 총장이다.

도, 시, 군 검사는 검사 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 주권 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최고 검찰소 검사 총장 리 국진

정당, 사회 단체

조선 로동당

조선 로동당의 전신은 조선 공산당이다. 조선 공산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에서 육성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1945년 10월 10일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창건되였다.

조선 공산당은 그후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와 당 자체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기초하여 로동당 (1946년 8월)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로써 조직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그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 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 혁명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쟁 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 로동당은 남북 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로동당은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킨다.

조선 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 인민과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 모든 나라 근로 대중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지지 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당원 수 131만 1,563 명, 그중 정당원 116만 6,359 명, 후보 당원 14만 5,204 명 (1961년 8월 1일 현재)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김 일성
부위원장 최 용건 김 일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김 광협

【1964년도 주요 사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1964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②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③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김 일성 동지가 작성하여 제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토의하였다.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이 리론적으로 개괄되였으며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방도들이 천명되였다. (문헌편 5—22페지 참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행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이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앞으로 공산주의에로 점차적 이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확고한 전망을 밝혀 준 웅대한 설계도이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의 문헌이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만장 일치로 지지 찬동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문헌으로 채택하였다.

전원 회의는 이 테제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주며 그들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앙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절박한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이 극도에 달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가 심각화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 력량이 날로 장성하고 있는 것이 현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되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회의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의정 세째 문제 토의에서 전원 회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적, 도덕적 통일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는 군중 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시기 당 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 과업에 비추어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일련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계 각층 군중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 특히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조국 통일의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하에 1964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량일 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② 직업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첫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는 현명한 조치이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농민 동맹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을 건설하며 우리 나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현실은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조직체의 창설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체 농촌 근로자들—협동 농민들과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앞으로 조직될 농업 근로자 동맹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과업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며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완수하는 데 있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도록 농민 대중을 교양하며 조직 사업을 전개한다.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근로자 동맹이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협동 농민들과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제 1 차적 사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전개함과 함께 기술 교양과 문화 교양을 강화하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들을 조직 동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원 회의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당면한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새로 조직되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이 광범한 농촌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 력량을 일층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를 토의하면서 지난 기간 직업 동맹

은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자기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앙양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 임무는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직업 동맹의 조직 체계와 그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촉진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직업 동맹은 로동 계급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선차적으로 노력을 기울릴 것을 강조함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문화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원 회의는 로동 계급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 정권 하에서 생산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직업 동맹의 혁명적 임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또한 직업 동맹이 로동 보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직접 조직 집행하며 이 사업이 로동자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전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직업 동맹 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며 그 수준을 한 계단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조직들이 직업 동맹 사업과 새로 조직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사업을 강화하며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 농민들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을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 실천에로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1964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의 지난 4년 간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제 남은 7 개년 계획 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로력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전원 회의는 1964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예비적 총화와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경제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공업 및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금년 (1964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면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가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형태라는 것이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새로운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 지도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앞세우며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의는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 회의는 성, 국 지도 일'군들이 경제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사업 체계에 맞게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아래를 더 잘 도와 주고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데 대하여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전원 회의는 전면적 기술 혁신의 시기에 들어 선 오늘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며 기술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술 혁명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시킬 해당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회의는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로력과 물자,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성, 국들의 경제 관리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리며 인민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함으로써 맡겨진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1957년, 1958년에 발휘하였던 혁명적 열정에 못지 않게 대중적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어김 없이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북조선 민주당

창립 1945년 11월 3일
위원장 강 량욱

천도교 청우당

창립 1946년 2월 8일
위원장 박 신덕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1949년 6월 25—28일에 걸쳐 남북 조선 71 개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의 대표 704 명이 참가하여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에서 조직 (27일) 되였다.

◇상무 위원 (1963년 12월 31일 현재)

김 일성	최 용건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홍 명희
백 남운	강 량욱
박 신덕	한 덕수
김 천해	강 영창
홍 순권	리 면상
리 기영	천 세봉
김 왈룡	리 극로
고 준택	리 만규
안 숙용	

의장단

박 금철	강 량욱
박 신덕	한 덕수
리 극로	김 천해
고 준택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1945년 11월 30일에 북조선 직업 동맹이 창립되였다. (당시 맹원 39만 900여 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51년 1월 20일—22일에 소집된 남북 조선 직업 총동맹 련합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 직업 총동맹과 조선 로동 조합 전국 평의회를 단일한 조선 직업 총동맹으로 통합하였다. (당시 맹원 59만 3,978 명)

조선 직업 총동맹은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대중적 조직이다.

조선 직업 총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옹호자이며 당과 로동 계급의 련계를 보장하는 인전대로서 당의 령도 하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하며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임무 수행에로 조직 동원한다.

조선 직업 총동맹은 1947년 5월 21일에 세계 직업 련맹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직업 련맹 총리사회와 집행 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맹원 수 172만 1천여 명 (1962년 말 현재)

위원장 김 왈룡

산업별 동맹 중앙 기구

조선 금속 화학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전기 석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기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경공업 상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건설 림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수산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통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체신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1964년도 주요 사업】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직총 중앙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 결정 《직업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실행 대책을 토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직업 동맹 조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직맹원들 속에서의 정치 사상 교양과 문화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생산 보장을 위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쟁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 보호 사업과 후방 생활 지도에 대한 직맹 단체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등 과업별로 되는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실행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와 협동 농민들의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들은 농업

근로자 동맹 창립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높은 정치적 열의로서 동맹 조직 사업에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에 230 여만의 농업 부문 근로자들이 농업 근로자 동맹 대열에 결속되였으며 각급 동맹 단체들의 조직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쳤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농업 근로자 동맹 창립 대회가 1965년 3월에 진행되였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 방조자이며 당과 우리 나라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기관, 직장의 로동자, 기술사,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동맹원들과 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조직 동원한다.

위원장 황 원보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1946년 1월 17일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이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7일에 있은 남북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련합 회의에서 남북 조선 민청을 조선 민주 청년 동맹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1964년 5월 12일)하였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한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1946년 6월 24일에 세계 민주 청년 련맹에 가입하였으며 1949년 9월에 진행된 국제 학생 동맹 제 4 차 리사회 결정에 따라 이 동맹에 가입하였다.

동맹원 수 271만 3,861명(1964년 3월 말 현재)

위원장 홍 순권

【1964년도 주요 사업】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 력사적인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온 나라가 혁명적 열의로 들끓고 있는 장엄한 환경 속에서 196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에 걸쳐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109 명의 대표들과 495 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김 철만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과 김 해덕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①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②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③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규약을 채택할 데 대하여 ④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지도 기관 선거

대회에서는 해당 의안에 따라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으며 남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김 철만 단장의 축하 연설과 재일본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김 해덕 단장의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축하문 랑독이 있었다.

특히 대회에서는 김 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문헌편 23—34페지 참조) 연설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연설에서 당의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나라 청년들에 대한 당의 두터운 사랑과 신임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사회 혁명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지닌 청년들의 력사적 사명과 현 시기 청년 운동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할 것인가를 명백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 과업과 방도도 명확히 밝혀 주시였으며 또한 현하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세계 청년 운동의 한 구성 부분인 조선 청년 운동 앞에 부과된 임무와 조선 청년들의 투쟁 과업을 천명해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전투적 강령으로 되며 우리 청년들의 활동과 생활의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대회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연설《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 기초하여 청년 동맹 앞에 나선 새 임무와 그것의 수행 방도를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는 우리 혁명 발전과 관련하여 청년 운동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새로운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한 새로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규약을 채택하였다.

다음 대회에서는 대회의 이름으로 270만여 맹원들의 다함 없는 존경과 지성을 담아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훌륭히 집행함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조국애에 불타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의로운 구국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형제적 성원을 담은,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다음 대회는 동맹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이로서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끝났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전투적 위력을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1964년 10월 13—14일)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과 청년들이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할 대책과 1960년 2월에 조선 로동당 강서군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을 토의하였다.

조선 소년단

창립 1946년 6월 6일
소년단원 수 160만여 명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가 1964년 4월 10—12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더욱 훌륭히 준비시킬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신 김 일성 원수님께 만수 무강을 축원하여 편지를 드리였으며 이 행복을 미제의 강점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땅 동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화국 북반부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반부 소년들에게 보내였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 녀성 동맹이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9—20일에 걸쳐 소집된 남북 조선 녀성 동맹 합동 중앙 위원회 회의는 남북 조선 녀맹을 조선 민주 녀성 동맹으로 통합하였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1946년 10월 16일 국제 민주 녀성 련맹에 가입하였다.

위원장 박 정애

【1964년도 주요 사업】 중앙 위원회 제 12 차 전원 회의 (1964년 12월 7—8일)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을 위한 녀맹 단체들의 금년도 사업 정형을 총화하고 1965년도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창립 1961년 5월 13일
위원장 홍 명희

조선 기자 동맹

창립 1946년 3월 10일
위원장 정 준기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창립 1961년 3월 2일
위원장 박 웅걸

◇ 문예총 산하 부문 동맹

조선 작가 동맹

창립 1953년 9월 28일
위원장 천 세봉

조선 음악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0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미술가 동맹

창립 1953년 10월 1일
위원장 정 관철

조선 연극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9일
위원장 리 재덕

조선 영화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7일
위원장 리 종순

조선 무용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18일
위원장 최 승희

조선 사진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2일
위원장 고 룡진

조선 적십자회

창립 1946년 10월 18일
위원장 박 신덕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창립 1949년 3월 24일
위원장 강 량욱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
창립 1956년 4월 3일
위원장 서 철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창립 1956년 5월 31일
위원장 김 왈룡

조선 학생 위원회
창립 1961년 5월 27일
위원장 고 상준

조쏘 친선 협회
창립 1945년 11월 11일
위원장 리 기영

조중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10월 3일
위원장 김 종항

조몽 친선 협회
창립 1961년 7월 7일
위원장 박 웅걸

조선 꾸바 단결 위원회
창립 1962년 12월 26일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창립 1963년 12월 13일
위원장 김 왈룡

조선 인도 문화 협회
창립 1957년 5월 8일

조선 프랑스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6월 20일

조선 인도네시아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11월 10일
위원장 송 영

조선 네팔 친선 협회
창립 1959년 11월 9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쎄일론 친선 협회
창립 1963년 8월 30일
위원장 박 웅걸

조선 공업 기술 총련맹
창립 1946년 4월 14일
위원장 김 두삼

조선 농림 기술 총련맹
창립 1946년 12월 1일

조선 자연 보호 협회
창립 1959년 6월 25일

조선 건축가 동맹
창립 1954년 3월 26일
위원장 김 정희

조선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위원장 김 종항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창립 1956년 4월 10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창립 1954년 11월 30일

조선불교도 련맹
창립 1945년 12월 26일
위원장 안 숙용

대 외 관 계

1964년에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대외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였다.

이 해에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였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대외 관계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간의 전투적 뉴대가 강화 발전되였다.

이 해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특히 이에 있어서 1964년 8월에 있은 김 일 제 1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로므니아 방문과 이에 앞서 3월에 있은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9—10월에 최 용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중화 인민 공화국 방문, 11월에 김 일 제 1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쏘련 방문, 김 익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독일 방문, 리 종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알바니아 방문 등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들은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선 웰남 인민들의 투쟁, 자기 나라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음모 책동을 반대하는 꾸바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으며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해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경제, 과학 및 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많은 협조가 진행되였다. (자료편 참조)

1964년에 조선 인민은 또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말레이시아》 투쟁,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적대적 행동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의 투쟁, 미제의 무력 간섭을 저지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투쟁, 콩고 (레)에 대한 미제와 벨지크 식민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 그리고 파레스티나와 빠나마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이 지역 나라들과 반제 전선을 강화하고 국가적 및 우호적 관계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는 이 해에 모리따니, 콩고 (브), 가나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새로 설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아련, 캄보쟈와는 이미 존재하던 관계로부터 한급 더 높은 대사급 외교 관계로, 쎄일론과는 령사 관계로 발전시켰다. 또한 우리 나라는 1965년 1월 딴자니아와도 대사급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965년 1월 현재 우리 나라는 24 개 나라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3 개 나라와 령사 관계를, 4 개 나라와 무역 (무역 대표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해에 평양에서 열렸던 아세아 경제 토론회와 그리고 수많은 정부 대표단들과 경제 문화 대표단들의 호상 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였다.

이 해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세아주에서 13 개 나라, 아프리카주에서 19 개 나라, 대양주에서 2 개 나라 도합 34 개 나라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에서 21 개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143 개의 각종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가나 공화국을 비롯하여 잔지바르, 니제르, 세네갈, 콩고 (브)에 각각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정부급 대표단만 하여도 16 개). 특히 최 용건 위원장의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및 캄보쟈 방문, 수카르노 대통령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 콩고 (브) 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국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최 원택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쎄일론 및 캄보쟈 방문 등은 이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되였다. 또한 이 해에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 관계도 확대 발전되였다. 인도네시아, 버마와는 무역 실적을 높였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정부적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말리, 인도네시아, 알제리, 콩고 (브) 등 나라들에 경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 캄보쟈, 아련, 이라크, 말리, 기네, 알제리, 예멘, 니제르 등 나라들과 문화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문화 교류 계획을 교환하였다.

1964년에도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한일 회담》을 통하여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폭로 규탄하는 동시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

우리의 이 정당한 투쟁은 광범한 일본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조선 인민은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일본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였으며 일본 인민들과의 반제 통일 전선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 해에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과 일조 협회 대표단을 비롯하여 도합 19 개의 대표단과 기타 일본 사회계의 진보적 인사들 그리고 무역 실무 일군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 해에 우리 나라 상사들은 일본의 개별적 무역 상사들과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는 114 개의 각종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그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는 5 개의 체육 기구, 2 개의 과학 기구를 비롯하여 10 개의 국제 기구에 새로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말 현재 우리 나라는 총 77 개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한 나라

나라 이름	설정 날자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1948. 10. 12
몽골 인민 공화국	1948. 10. 15
뽈스까 인민 공화국	1948. 10. 16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	1948. 10. 21
로므니아 인민 공화국	1948. 11. 3
웽그리아 인민 공화국	1948. 11. 11

벌가리아 인민 공화국	1948. 11. 29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1949. 5. 17
중화 인민 공화국	1949. 10. 6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49. 11. 7
웰남 민주 공화국	1950. 1. 31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1958. 9. 25
기네 공화국	1958. 10. 8
꾸바 공화국	1960. 8. 29
말리 공화국	1960. 10. 31
우간다	1963. 3. 2
예멘 아랍 공화국	1963. 3. 9
아랍 련합 공화국	1963. 3. 24
인도네시아 공화국	1964. 4. 16
모리따니	1964. 11. 11
캄보쟈 왕국	1964. 12. 20
꽁고 (브라자빌) 공화국	1964. 12. 24
가나 공화국	1964. 12. 28
탄자니아 공화국	1965. 1. 13

우리 나라와 총령사 관계를 설정한 나라

나라 이름	설정 날'자
버마 련방	1961. 5. 15
인도 공화국	1962. 3. 1
쎄일론	1964. 1. 25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 관계를 설정한 나라

나라 이름	설정 날'자
이라크 공화국	1959. 7. 23
오지리 공화국	1960. 12. 7
소말리아	1962. 12. 17
우루과이	1963. 5. 17

최 용건 위원장의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캄보쟈 방문

최 용건 위원장은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에 걸쳐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및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함께 리 주연 부수상,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강 량욱 부위원장, 박 성철 외무상, 평양시 인민 위원회 강 희원 위원장과 기타 수원들이 동행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및 캄보쟈 방문은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과의 형제적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방문 기간 이 나라들이 자기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굳은 결의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예속화 정책을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길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아가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및 캄보쟈의 반제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제국주의,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최 용건 위원장이 방문한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김 일성 수상의 령도 밑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였으며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아랍 련합 공화국 친선 방문 (11월 21—26일) 아랍 련합 공화국 방문 기간에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나쎄르 대통령과 이 나라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으며 까히라, 이스마일리아를 비롯한 각지의 공장, 농촌, 문화 기관, 고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 기간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회담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회담에서는 이미 맺어진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량국 간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으로 높이며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호상 교류와 협조를 확대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김 일성 수상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이 편리한 기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나쎄르 대통령은 이 초청을 접수하였다.

11월 26일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1월 21일 나쎄르 대통령은 최 용건 위원장에게 아련 인민과 조선 인민 간의 굳은 친선의 표시로서 이 나라의 최고 훈장인 《나일의 목걸이》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수원들에게도 《나일의 명기》 훈장과 《굼후리아 훈장》을 비롯한 각종 훈장을 수여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친선 방문 (11월 26—30일)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알제리 방문 기간에 알제와 아스남에서 공장들을 방문하였으며 자치 농장과 사회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대통령을 비롯한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극진한 환대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최 용건 위원장은 체류 기간 알제리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쌍방은 토의된 주요 문제들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11월 30일 조선—알제리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1월 27일 알제시 의회는 최 용건 위원장에게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알제리 대통령이 조선을 가능한한 속히 방문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알제리 대통령은 머지 않아 조선을 방문하여 김 일성 수상과 만나게 될 자기의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말리 공화국 친선 방문 (12월 2—6일) 최 용건 위원장은 방문 기간에 수도 바마코를 비롯하여 세구와 마르칼라, 니제르 회사의 시설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가는 곳 마다에서 열정과 형제적 우정으로 흘러 넘치는 환영을 받았으며 현명하고 불굴의 령도자인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지도 하에 전체 말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훌륭한 모습을 보았다.

체류 기간 최 용건 위원장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12월 6일 최 용건 위원장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회담에서는 량국 간에 존재하는 친선과 협조의 훌륭한 관계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평양에서 김 일성 수상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간에 조인된 목전의 현실을 반영한 방향적 의의를 가지는 콤뮤니케에 비추어 국제 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량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최 용건 위원장은 편리한 시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장 마하만 아라싸네 하이다라를 초청하였으며 그는 이를 수락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기네 공화국 친선 방문 (12월 6—10일) 기네 공화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최 용건 위원장은 포나고리와 킨디야 지역을 참관하였으며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인민들로부터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다.

체류 기간 최 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은 아흐메드 세쿠 투레 대통령의 령도 밑에 기네 민주당과 정부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아프리카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번영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네 인민이 거둔 빛나는 성과들을 보았으며 그를 높이 찬양하였다.

체류 기간 최 용건 위원장은 아흐메드 세쿠 투레 대통령이 인솔한 기네 민주당 전국 정치 위원회 및 정부 대표단과 친선적인 회담을 가지였다. 회담에서는 특히 량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관계 그리고 제국주의,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력들의 행동 통일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광범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12월 10일 조선—기네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김 일성 수상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세쿠 투레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세쿠 투레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의 캄보쟈 왕국 방문 (12월 15—20일) 방문 기간에 최 용건 위원장은 수도 프놈 펜시를 비롯하여 앙코르의 력사적 유물이 있는 시엠레아프와 꽁봉참을 방문하였으며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캄보쟈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12월 16일 최 용건 위원장을 환영하는 캄보쟈 국회 량원 특별 합동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최 용건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량국 간의 친선 관계 발전에 대하여 그리고 량국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과 특히 동남 아세아 정세에 대하여 회담을 가지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다. 회담에서는 량국 간의 적극적인 뉴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캄보쟈 왕국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12월 20일 최 용건 위원장에게 캄보쟈 왕국의 최고 훈장인 《왕후 대십자》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그리고 수원들에게는 《경제 대십자》 훈장을 비롯하여 《친선 대십자》 훈장, 《대장교 친선》 훈장들을 각각 수여하였다. 또한 최 용건 위원장은 12월 16일에 캄보쟈 왕국 기술 대학 명예 박사 칭호를 받았다.

12월 20일 프놈 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였다.

최 용건 위원장은 1965년 1월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공화국 내각,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련석 회의에서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전진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필승 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아세아 국가 친선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조선 인민 간에 맺어진 확고 부동한 친선 단결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이 지역의 신생 독립 국가들과 우리 나라와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최용건 위원장의 방문 결과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방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협조 국회, 캄보쟈 왕국 국민 의회, 쎄일론 국회의 초청을 받아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에 이 나라들을 각각 친선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최고 인민 회의 최원택 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강 량욱 부위원장 (부단장),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인 김 종항 고등 교육상,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의원 김 옥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김 희준, 외무 부상 허 담을 단원으로 하여 전원 6명으로 구성되였다.

대표단은 이 나라들을 방문하는 기간에 수카르노 대통령, 시하누크 국가 원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수상을 비롯한 이 나라들의 정부 및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 호상 리해를 두터이 하며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반제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었다.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서 쟈까르따, 메단, 반둥, 족쟈까르따, 발리 등 주요 도시들과 지방들, 그리고 이 곳의 공장과 농촌들, 대학 및 과학 문화 기관들을 보았으며, 캄보쟈에서는 프놈뻰의 문화 시설들과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시하누크 항구, 고도인 시엠레아프의 고적들, 콘퐁참주의 공장과 문화 기관 등 많은 곳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쎄일론에서는 콜롬보와 캔디 지방을 방문하고 이름난 박물관, 식물원, 종합 대학과 고적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에서 이 나라 국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광범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으며 감격적인 상봉을 통하여 그들과 호상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쟈까르따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과 협조 국회 공동 주최로 수천 명이 참가한 군중 집회가 진행되였으며 메단을 비롯한 많은 지방들과 공장, 기업소, 문화 기관들에서도 환영 모임이 있었다. 또한 족쟈까르따 지방 의회는 전원 회의를 열고 우리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캄보쟈 국회는 특별 회의를 열고 우리 대표단을 환영하였으며 가는 곳 마다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조직하였다. 쎄일론에서도 많은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대표단은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주 덕 위원장의 초청으로 귀로에 7일간 베이징에 머물렀다.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동남아세아 방문 기간에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캄보쟈 왕국과는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방문 기간에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특히 반《말레이시아》투쟁,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위한 캄보쟈 인민의 투쟁, 그리고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쎄일론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의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활동가 및 인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64년 6월 11일 최 원택 의장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캄보쟈 왕국, 쎄일론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방문을 통하여 이 나라 인민들과 이미 맺어진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단결을 더욱 강화한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사업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친선 방문

김 일성 수상의 초청으로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및 그의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이며 내정상인 바레마 보꿈 부부,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이며 공보 및 관광상인 마마두 골로고,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녀성 조직 위원인 아우아 케이타 디알로 녀사,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청년 위원인 가부 디아와라, 아프리카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인 티디아니 케이타,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원이며 쿨리코르시 시장이며 수단 련맹당 정치국 위원인 마마두 디아라, 재정 및 무역상인 아따헤르 마이가,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부의장인 이브라히마 상고, 말리 공화국 민족 회의 의원이며 말리 로조 총비서이며 전 아프리카 로조 부회장인 마마두 파마디 시쏘꼬 및 기타 말리 공화국 고위 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조선 인민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인솔하는 말리 국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조선과 말리 량국 간의 형제적 친선 단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서 열렬히 맞이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 체류 기간에 평양과 함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협동 농장,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조선 인민이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주 경제와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제반 성과들을 보았다.

체류 기간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일행과 김 일성 수상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정부 지도자들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과 말리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의 통일 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남북 조선 간의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조선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령도 하에 말리 인민이 독립 후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철저히 청산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김 일성 수상에게 편리한 시기에 자기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이 초청을 접수하였다.

10월 28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이 인솔하는 말리 국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말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식 방문

김 일성 수상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 2 부수상 레이메나, 경제 발전상 수하르또, 체신 및 관광상 히다야트, 공보상 아호마디, 상이며 민족 전선 서기장인 수디비요, 국무상 우이 쥬 따뜨, 중장 쟈떠꾸수모, 최고 자문 리사회 성원 에이 엠 다사아드, 외무성 1 부상 수위또 그수모위다그도 및 기타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 일행은 평양시 환영 군중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3천 명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 무용 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4만 7천 명의 청년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 소년 꼰첼트, 음악 무용 종합 공연 등을 관람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은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명예 원사 칭호를 수여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그의 일행은 김 일성 수상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솔직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가지였으며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량국 간의 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량국 정부와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체류 기간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기의 공식 연설들에서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정부의 령도 하에 조선 인민이 자력갱생하여 새 사회와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몰아 내고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조선 인민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11월 2일 평양시 환영 군중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인민은 모든 힘을 다하여 자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위업, 분렬된 조선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조선을 위한 당신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물러가라고 하는 당신들의 요구를 전체 인도네시아 인민이 견결히 지지 성원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령도 하에 인도네시아 인민이 식민지 통치의 모든 후과를 청산하며 판챠쉴라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체에 부합되게 완전한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 및 문화적 독자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건설하는 견결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소위 《말레이시아 련방》을 해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김 일성 수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진보적 력량들이 참가하는 신흥 세력 대회 (코네포)를 소집할 데 대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발기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꽁고 (브) 공화국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꽁고 (브) 공화국 토목, 운수 및 광업상 겸 적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신 관계 담당상인 마찌까 애매를 단장으로 하는 꽁고 (브) 공화국 정부 대표단 (전원 6 명)이 1964년 12월 25일부터 1965년 1월 6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꽁고 (브) 정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량국 간에 맺어진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는 데 있었다.

대표단은 체류 기간 평양과 함흥 지구의 공장, 협동 농장, 사회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 마다에서 조선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또한 대표단은 우리 나라의 신년 행사들 (내각 연회,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대표단을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였다.

체류 기간 대표단 단장인 마찌까 애매와 그의 일행은 정 준택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가지였으며 (1965년 1월 5일) 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회담에서는 량국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꽁고 측은 조선 인민이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원인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 측은 꽁고 인민이 1963년 8월 혁명에서 승리하고 마쌈바 데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꽁고 민족 혁명 운동당과 꽁고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1년 남짓한 기간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조선 측은 또한 꽁고 (브) 정부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평화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 체류 기간에 량국 간의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꽁고 (브) 공화국 정부에 경제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최고 인민 회의 최원택 의장의 초청으로 꽁고 (브) 국회 앙고르 레옹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체류 기간 평양, 함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협동 농장,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앙고르 레옹 단장을 비롯한 꽁고(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또한 체류 기간 꽁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은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꽁고 (브) 측은 체류 기간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조선 인민의 열렬한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편리한 기회에 꽁고 (브)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11월 14일 꽁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꽁고 (브) 공화국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량국 인민들 간의 형제적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웰남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1964년 6월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중앙 위원회의 5월 23일부 성명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 부장이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에게 보낸 5월 26일부 서한에서 천명한 주장과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제가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저들의 군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 18일 우리 공화국 정부는 웰남 문제 해결을 위한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제네바 협정을 계통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범죄적 죄행을 폭로 규탄하고 현 정세 하에서 남부 웰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도는 7월 15일 부,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제천명된 8개 요구 조건을 지체 없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8월 6일 우리 공화국 정부는 미제가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방들에서는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무력 침공을 항의 규탄하는 군중 대회들이 진

행되였다. 집회들에서는 또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남부 웰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지지 성원하였다.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웰남에 대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 인민은 또한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창건 4주년을 기념하여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남부 웰남 인민의 투쟁 지지 주간》을 설정하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공화국 각지에서 군중 대회를 열고 남부 웰남 인민들과 인민 무장 대원들에게 조선 인민의 전투적 지지 성원을 보내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1964년 3월 28일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여 신흥 세력 국회들에 보낸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의 호소문에 대한 회답 서한을 보내였다.

회답 서한은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의 호소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공동의 원쑤 미제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에 대한 조선 인민의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4년 4월 4일 평양에서 제국주의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 학생들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3월 26일에는 평양 시내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조선 방문 인도네시아 청년 동맹 대표단을 환영하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들에서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신 식민주의 침략 도구인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내면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1964년 초에 미제는 남부 웰남 괴뢰들을 사촉하여 캄보쟈의 령공을 부단히 침범하였으며 국경 촌락들에 유독성 화학 물질을 뿌려 수많은 캄보쟈 인민들을 살해하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8일 평양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 인민과 청년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청년 학생들의 집회를 가지였다.

이에 앞서 3월 23일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은 전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캄보쟈 왕국 국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캄보쟈 왕국 국민 의회 의장 앞으로 회답 서한을 보내였다.

회답 서한에서 최 원택 의장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적대적 활동에 단호히 항거하며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한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1964년 4월 30일과 6월 21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라오스 인민들의 애국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4월 30일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라오스 반동들을 사촉하여 4월 19일에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라오스에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미제의 범죄적 책동을 규탄하고 라오스 인민들의 애국적인 정의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6월 21일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라오스에 대한 침략 책동과 무력 침공 특히 6월 11일 캉 카이 상공에 침입하여 야수적인 폭격과 사격을 감행한 미제의 강도적 침략 행위를 강경히 항의 규탄하였다. 성명은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침략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라오스에 끌어 들인 모든 군사 인원들과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갈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콩고 (레)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1964년 9월 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콩고에 땅크와 비행기를 비롯한 다량의 무기들과 군사 인원들을 직접 투입하여 콩고 인민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콩고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콩고 인민을 지지하는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1월 27일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와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는 11월 24일 미제가 벨지크 락하산병들을 투하하여 스탠리빌을 강점하고 애국적 콩고 인민들을 수많이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이와 같은 무력 간섭은 콩고 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도전 행위라고 단호히 규탄하고 조선 인민은 모든 힘을 다하여 콩고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전 관 계

1953년 7월 27일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되였다.

조선 정전 협정은 조선에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조선 정전 협정 서문)할 목적으로 체결되였으며 체약 쌍방은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정전 협정 제 60 항의 정신 대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할 목적으로 조선 정전 협정에서 지닌 의무와 자신이 한 맹약을 배신적으로 저버리고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을 계속 증강하며 남조선에 새로운 무기를 끌어 들이며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빈번히 벌려 놓는 한편 우리 측에 대한 침범 행위를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국 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

미제는 1964년에 1963년 5월 17일 우리 측에 나포된 2 명의 미군 비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조선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바 있다.

1964년 2월 17일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은 1963년 5월 17일 미제 8 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비무장 지대를 넘어 판문군 림하리 상공에 불법 침입하여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 인민군의 자위적 포화에 의하여 나포된 2 명의 미군 비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보내 온 1963년 11월 6일부 련합국군 총사령관 하우즈의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을 보내였다.

서한에서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은 이 두 비행사들이 응당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지적하고 그러나 만일 련합국군 측이 이 엄중한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다시는 감행하지 않으며 조선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하여 담보한다면 관대히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 서한을 받은 련합국군 총사령관은 1964년 3월 5일 두 미군 비행사에 의하여 감행된 련합국군 측의 범죄 행위를 사과하고 앞으로 정전 협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회답 서한을 보내여 왔다.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은 3월 23일 군사 정전 위원회 공동 직일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회답 서한을 련합국군 총사령관에게 보내였다.

1964년 5월 15일 미국측 수석 위원은 2 명의 미국 비행사들이 감행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인수증에 서명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 5월 16일 우리 측은 나포하였던 2 명의 비행사들을 미국 측에 넘겨 주었다.

련합국군 측 수석 위원이 서명한 인수증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군사 정전 위원회 련합국군 측은 미 제 8 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1963년 5월 17일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상공에 불법 침입하여 군사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 인민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군 비행사 벤 위클리 스터즈 대위와 칼레톤 윌리암 볼즈 대위의 정탐 및 불법 침입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 것과 군사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담보하면서 미국 비행사 벤 위클리 스터즈 대위와 칼레톤 윌리암 볼즈 대위를 조선 인민군 측으로부터 인수한다.

군사 정전 위원회 련합 국군측 수석 위원 미 공군 소장 싸슬이 코움스 1964년 5월 15일》

그러나 미제는 1964년에도 1억 6,470만 딸라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괴뢰 정부로 하여금 1953년도에 비하여 근 7배나 되는 238억 원을 《국방비》로 지출케 하여 괴뢰군을 증강하기에 날뛰였다.

1964년에 미제 침략자들은 정전 협정 제 13 항 ㄹ 목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유도 무기를 비롯한 신형 무기들을 수 많이 끌어 들였다.

1964년 12월 30일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하우즈가 공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1964년에 175 미리 포를 비롯하여《호크 유도탄》, 2,400 대의 신형 차량, 신형 총류탄 발사기, 1 척의 순시함과 4 척의 쾌속정을 새로 끌어 들이였다.

또한 미제는 1964년에 《제 1 전투 비행단》을 신설하였으며 군사 분계선 일대의 진지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북으로부터의 침략 위협》이니 《림전 태세 확립》이니 하면서 도발적인 군사 연습 소동을 끊임 없이 벌려 놓았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에 벌린 군사 연습에는 지어 핵 무기까지 동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앙양되는 반미

반정부 투쟁 기세를 딴데로 돌리며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야망을 실현하여 보려고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 행동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1964년에 미제 침략자들은 자신에게 《유익》할 때, 《조속한 시일에 회합할 필요성》을 자신이 납득하였을 때만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에 응할 수 있다느니 정전 협정에 있지도 않는 《특별 회의》니 《정규 회의》니 하면서 군사 정전 위원회와 그 종속 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인위적으로 저애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1964년에 미제의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 위반 행위는 우리 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만 하여도 해상에서 164 건, 공중에서 17 건, 지상에서 1만 8,064 건, 총 1만 8,245 건에 달하는바 이것은 전년도의 6,484 건에 비하여 무려 2.8 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우기 이것은 미제가 정전 이후 1963년 말까지의 10년 간에 감행한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 위반 총 건수 1만 1,731 건의 근 1.6 배나 된다.

그리하여 조선 정전 이후 1964년 말까지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 위반 건수는 우리 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만 하여도 무려 2만 9,976 건이나 된다.

이와 같이 1964년에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엄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에 있어서도 파렴치하고 로골적이였으며 악랄하고 교활하였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자료에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공중 위반 행위】 1964년 1월 14일 미국 측의 에프 86 디형 전투기 2 대는 군사 분계선에서 28 키로메터 떨어진 우리측 지역인 금천 상공에까지 침입하여 군사 정탐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중 에프 86 디형 210031 호는 조선 인민군 부대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응당한 타격을 받고 판문군 판문읍에 떨어졌다. 같은 날 미국 측은 동부 계선과 중부 계선 우리 측 령공에 에프 86형 전투기 3 대를 침입시켜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미국 측은 1월 15일에도 에프 86형 전투기 한 대를 우리 측 상공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2 차 회의)

1964년 2월 10일 미 군용 비행기 한 대가 비무장 지대 우리 측 부분 상공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4월 2일과 8일에도 각각 한 대의 미 군용 비행기가 우리 측 군사 통제 지역과 비무장 지대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 (제 265 차, 제 266 차 비서장 회의)

1964년 4월 22일, 23일 각각 한 대의 미 군용 비행기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였으며 5월 7일에는 미국 측 피—2브이 군용 비행기 한 대가 월도 및 장산리 앞 해상 우리측 상공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제 267 차, 제 268 차 비서장 회의) 6월 18일에는 미국 측 에프 86 전투기 2 대가 동해의 우리 측 지역 작도 부근 상공과 우리 측 군사 통제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4 차 회의)

1964년 8월 14일과 27일에 각각 한 대의 엘—19형 미 군용 비행기가 비무장 지대 상공을 지나 우리 측 군사 통제 지역 상공에까지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6 차, 제 187 차 회의)

1964년 10월 20일 미국 측 에프 86형 전투기 2 대가 우리 측 명정리, 태봉 부근 일대의 상공에 침입하여 정찰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에이취 21형 미 군용 비행기 한 대가 우리 측 월봉산 일대의 상공에, 12월 4일에는 아르비 50형 미 군용 비행기 한 대가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2 차, 제 195 차 회의)

【해상 위반 행위】 1964년 1월 2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2일에 호위 구축함 73호, 경호함 51호, 경호함 55호, 경비정, 전차 상륙함 등 미국 측의 각종 해군 함선들이 련속 대규모적으로 동해의 우리측 지역에 침입하여 적대 행동을 감행하였다. (1월 13일 우리측 수석 위원이 미국측 수석 위원에게 보낸 서한)

미국 측은 1964년 2월 18일, 20일, 30일에 중형 상륙함 612호를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련속 침입시켰으며 3월 12일과 4월 11일에는 호위 구축함과 해군 함선을 각각 한 척씩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제 265 차, 제 266 차, 제 267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5월 22일, 23일, 27일에 7 차에 걸쳐 경호함 57 호와 58 호, 호위 구축함 73 호를 서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제 270 차 비서장 회의) 5월 28일, 6월 9일과 10일에는 12 차에 걸쳐 경호함 56 호, 57, 호, 58 호, 수송선 81 호, 중형 상륙함 68 호, 호위 구축함 73호 강제 구잡함 709 호, 해양 예선 에이. 디. 에이 3 호, 호송 경비함 66 호 등 중무장한 각종 해군 함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인 옹진 반도, 등산곶 동쪽 해상에 불법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3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6월 17일 새벽 서해의 우리 측 연해인 각회도 북방 2 키로메터 해상에 무장 집단을 침입시켜 어로 작업을 하다가 쉬고 있는 우리측 어선에 야만적인 무장 공격을 가하여 우리 측 어민 한 명을 죽이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다음 다

튼 한 명을 랍치하여 갔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4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9월 7일 해군 함선과 무장 간첩선을 서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10월 3일에는 서해의 우리측 연해인 각회도 앞 해상에 무장 간첩 집단을 침입시켰다. 침입한 살인 악당중 2 명 (미국측 에이취. 아이. 디 소속 무장 간첩 리 창규, 박 용운)은 우리 측에 체포되였다. 10월 7일과 8일에도 무장 함선을 서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켰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8 차 회의, 제 190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0월 11일 또다시 서해의 우리 측 연해인 각회도 서남방 부근 해상에 무장 간첩 집단을 침입시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 측 어선에 수류탄을 던지며 수백 발의 카빈총을 란사하는 등 야만적인 무장 공격을 감행케 하였으며 10월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에도 련속적으로 구잠함 709 호를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192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0월 28일 구축함 91 호를, 11월 1일에는 구축함 91 호와 호송 경비함 66 호를, 11월 3일에는 구잠함 609 호를 우리 측 연해에 각각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으며 11월 9일, 10일, 11일에도 목제 구잠함 202 호와 로케트 포함 311 호, 중형 상륙함 611 호, 강제 구잠함 706 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3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1월 16일 로케트 포함 311 호, 중형 상륙함 611 호, 호송 경비함 61 호, 강제 구잠함 706 호 등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장시간 정찰 행동을 감행케 하였으며 11월 17일, 19일, 20일, 23일에도 이 함선들의 침입 행위는 반복되였다. 미국 함선들의 이와 같은 침범 행위는 11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사이에만도 18 건이나 되며 11월 25일—12월 13일간에는 16 척의 각종 해군 함선들을 65 차에 걸쳐 우리측 연해에 불법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194 차, 제 195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2월 14—29 일 간에 구잠함 91 호, 중형 상륙함 601 호와 609 호를 비롯한 각종 해군 함선 21 척을 35 차에 걸쳐 대규모적으로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6 차, 제 197 차 회의)

【지상 위반 행위】 미국 측은 1964년 1월 5일 우리 측 민경 초소를 향하여, 1월 10일에는 우리 측 지역을 향하여 엠완 총탄을 발사하였다. (제 264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에 8 정의 경기관총, 1 정의 로케트 반전차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과 자동 무기들을 비무장 지대내 미국 측 초소에 설치하거나 자기 인원들에게 휴대시키는 한편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비무장 지대 내에서 엠완 보총으로 연 8 차에 걸쳐 우리 측을 향하여 사격하였다. (제 265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3월 9일부터 30일까지 8 차에 걸쳐 10 문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을 비무장 지대에 비법 반입하여 설치하였으며 3월 6일과 9일에는 30 명의 무허가 인원들을 끌어 들여 우리 측에 대한 정찰을 감행하였다.

미국측은 3월 24일 , 비무장 지대 내에 30 발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4월 5일에는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 훈련을 벌려 놓았다. 이 밖에 미국 측은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비무장 지대에다 5 차에 걸쳐 불을 질러 놓았다. (제 266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4월 2일과 10일 2 정의 중무기를 비무장 지대 내에 비법 반입 설치, 4월 2—12일에 연 7 차에 걸쳐 도합 38 명의 무허가 사민들을 비무장 지대에 들여 보내 우리 측 지역을 감시 정찰, 4월 11일에는 미국 측 군사 인원이 비무장 지대 우리 측 부분에 침입하였다. (제 267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4월 22일, 25 일, 29일, 5월 1일과 2일에 비무장 지대 및 판문점 본부 구역 내에 1 문의 중기관총, 7 정의 경기관총, 3 정의 카빈총을 불법 반입하여 설치하거나 자기 인원들에게 휴대시켰으며 4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5 차에 걸쳐 각종 포탄을 비무장 지대의 우리 측 지역을 향하여 발사, 4월 27일과 5월 4일, 6일에는 또다시 비무장 지대 내에 6 명의 무허가 사민들을 들여 보내 우리측 지역을 감시 정찰, 4월 28일과 29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 불을 질러 놓았다. (제 268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비무장 지대 내에 고사 기관총을 비롯한 중기관총 2 문, 경기관총 10 정, 카빈총 1 정을 불법 반입하여 설치, 6월 16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 수다한 위험물 매설, 5월 28일에는 5 명의 미국 군사 인원들이 비무장 지대의 우리 측 부분에 침입, 5월 16일과 22일, 6월 12일과 16 일에는 비무장 지대에 무허가 사민 도합 24 명을 끌어 들여 우리 측 지역을 감시 정찰케 하였다. (제 270 차, 제 271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6월 19일, 21일, 27 일에 연 5 차에 걸쳐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을 비무장 지대 내에 불법 반입하여 설치, 6월 18일, 22 일, 25일에는 도합 21 명의 사민들을 비무장 지대 내에 끌어 들여 우리측 지역을 감시 정찰, 6월 27일, 28일, 29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서 자동 무기와 중무기로 우리 측을 향하여 사격하였다. (제 272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7월 6일부터 14일까지 6 차에 걸쳐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을 비무장 지대에 불법 반입하여 설치, 7월 7일에는 비무장 지대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카빈총 사격을 감행, 7월 10일에는 11 명의 미국측 군사 인원들이 우리 측을 향하여 사격 태세를 취하였다. (제 273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7월 20일 우리측 지역에 4 명의 무장 습격단을 침입시켜 작업 중에 있던 우리측 인원들에게 달려 들어 총탁으로 까고 단도로 찌르면서 그들을 생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도리여 미국측 무장 비적 3 명은 우리측에 생포되였다. 생포된 무장 습격단 조장 어 공손의 진술에 의하면 미국 측은 무장 비적들을 우리측 지역에 파견하기 위하여 그들을 비무장 지대에 끌어 들여 장기간 반복 훈련과 교육을 주었으며 이 습격 사건을 위해서 미 8 군 사령부가 200만원의 자금을 배당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5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7 차에 걸쳐 비무장 지대 내에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자동 무기들을 불법 반입하여 설치, 7월 19일과 30일에는 무허가 사민들을 비무장 지대에 끌어 들여 우리측 지역을 감시 정찰, 7월 20일에는 미국측 군사 인원 7 명이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근에 침입하는 한편 18 명의 미국측 군사 인원이 우리측을 향하여 전투 태세를 취하였다. (제 274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5차에 걸쳐 중무기와 중기관총을 비롯한 자동 무기들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에는 6문의 자동 무기들을 비무장 지대와 본부구역 내에 불법 반입하여 설치, 8월 16일에는 완전 무장한 10 명의 미국 측 군사 인원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우리 측을 향하여 전투 태세를 취하였으며 (제 275 차, 276 차 비서장 회의) 8월 9일, 13일, 14일, 16일, 17일에는 비무장 지대 남쪽 부분에 6 정의 경기 및 중기관총을 설치하고 우리 측을 향하여 조준 태세를 취하는 한편 엠완 총탄을 퍼붓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86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0 차에 걸쳐 각종 자동 무기들을 비무장 지대 내에 반입하여 설치, 8월 29일에는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총탄 발사, 8월 30일에는 미 군사 인원 1 명이 비무장 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 9월 3일에는 무허가 사민을 비무장 지대에 끌어들여 우리측 지역을 감시 정찰, 9월 5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제 277 차 비서장 회의)

미국측은 1964년 9월 10일과 11일 3 차에 걸쳐 비무장 지대 내에 경기관총을 반입하여 설치, 9월 13일에는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50여 발의 총탄을 발사, 9월 25일에는 미국측 장교의 지휘하에 26 명의 군사 인원들이 비무장 지대 내에 경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우리 측을 향하여 전투 태세를 취하는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제 278 차, 제 279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9월 24일부터 10월 6일 까지의 기간에 비무장 지대 내에 자동 무기를 반입하고 자기 인원들에게 휴대시키는 등 26 건의 위반 사건과 1 건의 총기 발사 사건, 1,042 건의 식별 표식 위반 사건을 발생시켰다. (제 280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0월 8일, 10월 11일 비무장 지대 내에 중기관총을 비롯한 자동 무기들을 불법 반입하여 설치, 10월 10일 미국측 인원 8 명이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을 향하여 엠 14 소총과 카빈총을 발사, 18일에도 우리 측을 향하여 엠완 보총을 발사, 12일과 21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 무허가 인원들을 끌어들여 우리측 지역을 감시케 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1 차 회의, 제 281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0월 30일 우리측 인원을 살해 랍치할 목적으로 무장 비적들을 우리측 지역에 파견하였다. 파견된 2 명의 무장 비적은 우리 측에 체포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3 차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1월 3일, 4일과 8일 4 차에 걸쳐 비무장 지대 내에 자동 무기들을 비법 반입하여 설치, 11월 10일에는 미국측 군사 인원들이 비무장 지대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불의에 예광탄을 발사한 후 엠완 총으로 2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다. (제 283 차 비서장 회의) 미국 측은 1964년 12월 8일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우리측에 대한 공격 태세를 취하는 한편 적대적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제 285 차 비서장 회의) 미국측은 1964년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18 차에 걸쳐 각종 자동 무기들을 비무장 지대에 반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을 173 건이나 위반하였다. (제 286 차 비서장 회의) 12월 29일에는 비무장 지대 내에서 2 차에 걸쳐 우리 측을 향하여 총탄을 발사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97 차 회의)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 및 비서장 회의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 1964년에 16 차의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제 182 차 회의 1964년 1월 16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1월 10일과 15일 우리측 령공에 전투기들을 대규모적으로 침입시킨 엄중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183 차 회의 1964년 6월 12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6월 9일과 10일 우리측 연해에 해군 함선들을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과 남조선에 신형 전투기들과 해군 함선들을 반입하는 등 범죄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을 강경히 규탄.

제 184 차 회의 1964년 6월 30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6월 17일 우리측의 평화적 어선에 대하여 야만적인 해적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랍치하여 간 우리측 어민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요구.

제 185 차 회의 1964년 7월 28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7월 20일 또다시 살인 무장 집단을 우리측 지역에 파견하여 무장 습격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책임을 추궁.

제 186 차 회의 1964년 8월 19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이 우리측 령공에 군용 비행기를 침입시킨 것과 비무장 지대 내에서 총사격을 감행한 데 대하여 그리고 남조선에 최신식 초음속 쌍발 전투 폭격기를 끌어 들이려고 흉책하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187 차 회의 1964년 9월 2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측이 8월 27일 엘 19형 군용 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강력히 항의.

제 188 차 회의 1964년 9월 11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의 귀향 문제와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남조선 어민 구제 위원회의 제의를 남조선 해당 기관들에 전달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

제 189 차 회의 1964년 9월 14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의 귀향과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남조선 어민 구제 위원회 제의를 실현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 미국측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

제 190 차 회의 1964년 10월 8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10월 3일 미국 측이 또다시 우리측 해상에 무장 간첩선을 침입시킨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191 차 회의 1964년 10월 1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10월 11일 미국 측이 우리 측 어민을 살해 랍치할 목적 밑에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무장 집단을 침입시켜 우리측 어선을 무장 공격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이와 류사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

제 192 차 회의 1964년 10월 28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의 사이에 공중과 해상에서 계속 도발적인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과 남조선에 또다시 신형 제트 전투기를 반입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193 차 회의 1964년 11월 13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적측이 정전 협정에 있지도 않는 《특별 회의》를 운운하면서 군사 정전 위원회와 그 종속 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미국 측의 부당한 책동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

제 194 차 회의 1964년 11월 24일 우리 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계속 군사 정전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과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

제 195 차 회의 1964년 12월 14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계속 군사 정전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우리측 령공과 연해에 군용 비행기와 각종 해군 함선들을 빈번히 침입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항의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

제 196 차 회의 1964년 12월 19일 우리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11 차의 각종 해군 함선들을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킨 것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197 차 회의 1964년 12월 30일 우리 측 제의에 따라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4 차에 걸쳐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것과 비무장 지대 내에서 적대 행위를 련속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군사 정전 위원회 비서장 회의】 1964년에 군사 정전 위원회 비서장 회의를 23 차 가졌다.

제 264 차 회의 1964년 1월 1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의 중요 종속 기관인 공동 감시 소조의 활동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비무장 지대와 공동 경비 구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또한 1964년 1월 14일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미국측 에프 86 디형 전투기 210031 호의 조종사의 시체를 적측에 다음과 같은 인수증을 받고 인도, 《인수증, 련합국군 측은 1964년 1월 14일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조선 인민군 군사 통제 하의 지역 상공에 불법 침입하였다가 조선 인민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격추된 에프 86 디형 210031 호 전투기 조종사 대위 박 노서의 시체를 군사 정전 위원회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측으로부터 인수하였음. 군사 정전 위원회 련합국군측 비서장 미국 륙군 대령 폴퍼 힌클리, 1964년 1월 17일》

제 265 차 회의 1964년 3월 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측의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266 차 회의 1964년 4월 11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1, 018 건의 각종 위반 행위들을 규탄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인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미국 측에 강경히 요구.

제 267 차 회의 1964년 4월 2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또다시 비무장 지대 내에서와 해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268 차 회의 1964년 5월 1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의 공중 및 지상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269 차 회의 1964년 5월 1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1963년 5월 17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령공에 침입하여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 인민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 비행사 벤 위클리 스터쯔와 칼레톤 윌리암 볼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의 죄행을 규탄.

제 270 차 회의 1964년 5월 2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7 차에 걸쳐 각종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과 지상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271 차 회의 1964년 6월 1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던 자신의 언약을 집어 던지고 계속 정전 협정과 쌍방 간의 합의 규정을 위반하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책임을 추궁.

제 272 차 회의 1964년 7월 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면서 자신의 언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

제 273 차 회의 1964년 7월 1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 자동 무기와 중무기들을 계속 반입하여 설치하며 우리 측에 대하여 사격을 감행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

제 274 차 회의 1964년 8월 4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우리측이 소집한 비서장 회의에 미국 측이 부당한 구실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군사 정전 위원회 임무 수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면서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항의.

제 275 차 회의 1964년 8월 13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또다시 비무장 지대 내에서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한데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1964년 6월 17일 미국 측이 강제 랍치하여 간 우리측 어민 박 기수를 즉시 돌려 보낼 것을 미국 측에 요구.

제 276 차 회의 1964년 8월 27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이미 우리측이 해명한 문제들을 적측이 들고 나오는 것을 일축하고 미국 측이 해상과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미국 측에 항의.

제 277 차 회의 1964년 9월 8일 적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 자동 무기 반입, 위험물 매설, 우리 측에 대한 총탄 발사 등 각종 도발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278 차 회의 1964년 9월 17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811 건의 정전 협정 및 쌍방 간의 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미국 측에 책임을 추궁.

제 279 차 회의 1964년 9월 29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280 차 회의 1964년 10월 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비무장 지대와 공동 경비 구역에서 감행한 1,071 건의 각종 위반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 측에 항의.

제 281 차 회의 1964년 10월 22일 우리 측 제의로 진행. 우리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미국 측에 강경히 항의.

제 282 차 회의 1964년 11월 2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 임무 수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데 대하여 미국측을 규탄.

제 283 차 회의 1964년 11월 6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 측에 항의.

제 284 차 회의 1964년 12월 8일 쌍방의 요구에 따라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와 그 종속 기관의 정상적 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비무장 지대 내에서 감행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국에 강경히 항의.

제 285 차 회의 1964년 12월 10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미국 측이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한 적대적 시설물을 즉시 철수하며 정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

제 286 차 회의 1964년 12월 28일 우리측 제의로 진행. 우리 측은 비무장 지대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미국 측이 불성실한 데 대하여 그에게 책임을 추궁.

군사 정전 위원회 위원 명단
(1964년 12월 31일 현재)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측
수석 위원 박 중국 (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시 성문(중국 인민 지원군 소장)
위원 염 상기(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김 풍섭(조선 인민군 소장)
위원 김 원석(조선 인민군 대좌)

◇적 측
수석 위원 폴피. 블랙번 (미 합중국 해군 소장)
위원 장 지량 (남조선 괴뢰군 공군 소장)
위원 리 경원 (남조선 괴뢰군 해군 준장)
위원 제이. 에이. 런달 (영국 륙군 준장)
위원 주안 와나랏트 (타이 왕국 륙군 대좌)

중립국 감독 위원회 위원 명단
(1964년 12월 31일 현재)

체스꼬슬로벤스꼬 위원 바클라브 따우스 (소장)
뽈스까 위원 스테판 오르린스끼 (소장)
스웨리예 위원 인게말 브트(소장)
스위스 위원 마리 왈텔추루텔 (대좌)

경 제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웅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1964년에도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조선 로동당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1964년에 중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잘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그 방도를 명철하게 밝힌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문헌 5—21페지 참조)

우리 당이 제시한 정확한 정책과 방침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지도를 따라 세우며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하는 한편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선 국가 관리 전반에 걸쳐 대안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심 고리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게 하며 우가 아래를 더욱 실속 있게 도와 걸린 고리를 풀어 주고 특히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상응하게 경제 관리 운영 수준을 개선 강화하도록 하였다.

1964년에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계획화 체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중추 기관인 은행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며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요구에 상응하게 상업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연한 국토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이 해에 우리 당은 1965년부터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 수행에 들어 서는 새 전투를 앞두고 그 전망 중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업과 농업 부문 앞에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조치와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생산력 발전의 예비가 더 많이 동원되였으며 나라의 인민 경제는 계속 급속히 발전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우월성이 더욱 과시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년간 계획에 예견하지 않았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혹심한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소비품 생산이 급속히 증가되였다.

1964년에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01%로, 그중 중앙 공업은 100%로, 지방 공업은 106%로 각각 빛나게 수행되였다. 그리 하여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17%로, 1956년에 비하여 597%로, 1946년에 비하여는 실로 37 배로 장성하였다.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956년에 비하여 585%로, 소비재 생산은 619%로 각각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그 장성 속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 강화에 큰 힘이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954—1964년간 공업 총생산액의 년 평균 증가률은 27.5%,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28.7%, 소비재 생산은 26%라는 높은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공업 생산이 급속히 장성된 결과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46년에 28%이던 것이 1964년에는 75%로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공업은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대 중 소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공업 부문 호상 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워지고 공업 내부 구조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당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되여 공업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공업의 기술적 장비도가 부단히 높아졌다.

이리 하여 우리 공업은 우리 나라 자체의 자원에 튼튼히 립각한 자립적이고 다각적인 공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1964년에 당이 제시한 기술 혁신 운동이 대중적 지반 우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였고 기술 혁명 수행에서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의 창조적 협조가 일층 강화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공

업, 건설 및 운수 부문에서는 7만 1천여 건의 발명 및 창의 고안, 합리화안이 도입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공업 부문 종업원 1인 당 평균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12%로 장성되였으며 공업 생산물의 원가는 전년에 비하여 3%가 저하되였다.

중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강화되였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이 급속히 장성한 것과 함께 품종이 확대되고 제품의 질이 더욱 제고되였다.

철도 운수 분야에서는 평양—신의주 간의 철도 전기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 철도의 통과 능력은 현저히 장성하였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1964년에 7억 6천만 원(설계 사업비 및 지질 탐사비 포함, 1957년 4월 1일 전적 가격)의 국가 자금이 투자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기술적 개건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 실천을 위한 투쟁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진지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일층 강화 발전되였다.

1964년에 당과 정부는 농촌에 대한 방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보다 4천 300만 원의 국가 전설 자금을 더 지출하였다.

이 해에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농촌 기술 혁명 과업이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는데 수리화에서는 대 중 소 관개, 하천 공사들이 보다 광범히 진행되여 관개 면적은 새로 6만 정보가 더 확장되였다.

2천 400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수 많은 농기계들이 농촌에 공급되여 1964년 말 현재 2만 대(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와 3천여 대의 화물 자동차들이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하고 있다.

전체 농촌 리의 95.5%, 총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가 농촌 전기화에서도 현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국가 자금에 의하여 고정 탈곡장, 각종 창고, 화건장 등이 새로 광범히 건설됨으로써 농촌의 생산적 시설들이 일층 확장되였다.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향상되였다.

1964년에 국민 소득은 1963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102%로, 세대당 수입은 104%로 각각 장성되였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였다. 이 해에 당과 정부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신에 따라 자강도, 량강도 내의 모든 시, 군과 평안북도 벽동군을 비롯한 20 개 시, 군의 전체 협동 농장들과 그 밖에 643 개 협동 농장들의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1964년 말 현재 현물세 납부를 완전히 면제 받은 협동 농장 수는 전체 협동 농장 수의 약 절반에 달하였다. 또한 이 해에 당과 정부는 1961년 이후 국가 건설 자금에 의하여 농장원들에게 건설하여 준 농촌 문화 주택 건설비 1억 72만 원과 2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각종 국가 대부금을 면제하였다.

이 획기적인 조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나라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농업 협동 경리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을 실증하여 준다.

조선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위력과 군사력을 일층 강화하였다.

1964년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의 시위로 된다. 또한 이 성과는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남반부 인민들의 애국 투쟁에 대한 강력한 고무적 힘으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 인민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965년부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시기로 되는 하반기 과업의 수행에로 힘차게 들어서게 되였다.

공 업

전력 공업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개건이 촉진되고 화학 공업과 금속 공업을 비롯한 현대적 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력 공업 발전을 앞세우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1964년에도 당과 정부는 전력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력 부문 앞에 현존 동력 기지를 일층 정비 강화하며 건설 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완공 단계에 있는 중 소 용량 발전소의 조업 개시를 촉진할 과업

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해 전력 공업 부문에 1960년도에 비하여 1.7 배에 해당하는 많은 국가 자금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전력 공업을 발전시킴 데 대한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1964년에 24만 6천 키로볼트 암페아 능력의 강계 청년 발전소가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40만 키로와트 능력의 평양 화력 발전소, 40만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운봉 발전소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이 밖에도 금강산 2 호 발전소와 청단 1 호 발전소, 부방 발전소를 비롯한 18 개의 중 소형 발전소가 새로 조업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 발전소들에서는 자기의 발전량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는바 수풍 발전소는 106.5%로, 허천강 발전소는 107%로, 독로강 발전소는 126%로, 강계 청년 발전소는 114%로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 하여 이 해에 전력은 전년에 비하여 6억 2천 7백만 키로 와트시 더 많은 125억 키로 와트시를 생산하였다.

전력 생산량의 장성 (%)

	1960	1963	1964	1964 / 1956
발전량	100	129	137	244

전력 생산량이 계통적으로 장성함에 따라 발전 공업 부문의 생산액도 역시 계통적으로 높아졌다. 1964년 발전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06%로, 1960년에 비하면 130%로, 1956년에 비하면 233%로 높아졌다.

이 해 전력 부문에서는 또한 현존 발전소들을 더욱 잘 정비하는 한편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데 주요 력량을 기울임으로써 발전소들의 수차의 효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리용률도 높였다. 발전기 리용률만 보더라도 1960년에 비하여 4.7%, 1962년에 비하여는 1% 더 높아졌다.

전력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그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1964년에 발전하는 인민 경제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농촌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년에 비하여 46%나 더 많은 6억 5천만 키로 와트시의 전력을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1964년 말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농촌 리의 95.5 %, 총 농가 호수의 81 %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탈곡, 양수, 사료 분쇄 등 농산 작업에 전기 동력이 광범히 리용되였다. 또한 이 해 전력 공급을 원활히 보장하며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력 계통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융통 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송전 체계를 더욱 정비 확장하며 송전선의 전압 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력률은 1960년에 비하여 6 %, 1963년에 비하여는 0.5 %가 높아졌으며 도중 손실률은 이 해 계획에 비하여 0.1 % 저하되였다.

1964년에 전력 생산을 증대시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전력 소비 기준을 낮추며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부문에서 산소 열법에 의한 카바이트 생산,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산소 전로 제강법 등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축감할 수 있게 되였다. 이 해에 전년에 비하여 가성 소다 톤 당 전력 소비는 5.8%, 염화 비닐 톤 당 전력 소비는 20.5 %나 낮아졌다.

석탄 공업

대규모 탄광과 중소 탄광을 병진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1964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탄광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적극 개발하여 석탄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당과 정부는 석탄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1964년에 공업 건설 투자의 14.7 %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 부문에 투자하였다.

거액의 국가 기본 건설 자금과 이 부문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수직갱들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였으며 상화 탄광, 창평 탄광, 동포 탄광, 봉창 탄광을 비롯한 13 개의 탄광들이 새로 개발되였다.

갱도의 기술 개건의 기본을 이루는 영구화에 커다란 힘을 집중하여 1963년보다 4, 300 메터를 더 포장함으로써 갱도 영구화 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의 지원 밑에 1964년에 85 대의 압축기, 64 대의 권양기, 24 대의 전차를 비롯한 공작 기계 설비들을 많이 받았다.

결과 주 설비 보유 대수는 1963년에 비하여 116.4%, 공작 기계는 109.8%로 장성되여 탄광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어렵고 힘든 작업의 기계화부터 촉진하면서 채굴 작업의 전반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버력 적재 작업의 기계화 비중은 전해에 비하여 5.4% 제고되였다. 110건의 갱목 운반 작업의 기계화안과 26건의 갱목 하차 작업의 기계화안이 이 해에 도입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1963년에 비하여 36만 1천 톤 더 많은 1,440만 톤, 그 중에서 중소 탄광들에서는 25만 톤 더 많은 278만 6천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이 해에 굴진과 채굴의 로력 비례를 5대 5로 보장하면서 고속도 굴진 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켰다.

새 것에 민감한 청장년들로 굴진 대렬을 보강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가 있기 전에 비하여 굴진공의 비중을 2.7% 더 제고함으로써 굴진과 채굴의 비례를 49.7대 50.3으로 보장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전망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구역들을 섬 등록 마구리로 정하고 년간 굴진 량을 복선 전차갱에서 1천 메터, 사갱에서 800 메터, 수직갱에서 250 메터 이상 밀기 위한 고속도 굴진 운동을 강화하였다.

1964년에 고속도 굴진량이 전년에 비하여 111%로 장성한 결과 기본굴진은 128%, 준비 굴진은 107%로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확보 탄량과 예비 채탄장이 증가되였으며 그 중 전체 채탄장의 6%에 해당하는 채탄 구역들이 선진적인 구역 단위 생산 체계에 들어 갔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또한 지질 조건에 알맞는 합리적인 채탄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석탄 채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유연 탄전에서는 장벽식 채탄법의 도입 비중을 높이여 채취률을 계획보다 3.3% 더 제고하였다.

아오지, 고건원 탄광들에서 완성한 공기 및 수사 충전 채탄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새 채탄법에 의한 생산량을 1963년에 비하여 124.3%로 장성시켰다.

이 해에 경영 활동이 깨임으로써 석탄 천 톤 당 갱목 소비량이 6%, 폭약 소비량이 7.1% 그 전해에 비하여 낮아졌다.

광 업

1964년에 광업 부문 앞에는 기존 광산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고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각종 유용 광물의 생산을 증대시킬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나라의 지하 자원의 개발자 된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년초부터 헌신적 로력 투쟁을 전개한 광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1964년에 당이 준 임무를 훌륭히 관철하였다.

1964년에 당과 정부는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힘을 돌리면서 광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당의 조치에 따라 1964년에 광업 부문에는 전년에 비하여 2 배가 넘는 막대한 기본 건설 자금이 돌려졌다.

굴착기, 대형 자동차, 착암기는 물론 각각 근 100 대의 압축기와 권양기, 50여 대의 마광기 등 수 많은 설비들이 또한 공급되였다.

광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본 건설 자금과 설비 기자재를 효과 있게 리용하면서 1964년에 관문 광산, 정주 광산을 비롯하여 18개의 광산을 새로 개발하였다.

또한 성흥 광산의 년산 2만 톤 능력의 류화철 분리 직장, 년 28만 톤의 니켈 광석 처리 능력을 가진 부윤 광산의 선광장, 년 56만 톤의 동광 처리 능력을 가진 만덕 광산 선광장, 홀동 광산의 중앙 수직갱 등 많은 선광장과 갱들을 완공하여 조업 개시를 보장하였다. 수 많은 탐광 작업과 갱 건설 사업을 또한 진행하였다.

이것은 이해의 광물 증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물 생산량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광업 부문에서는 1964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하였다. 그 중 흑색 광업 부문에서는 105.3%, 유색 광업 부문에서는 100.3%로 계획을 넘쳐 실행하였다.

무산 광산, 성흥 광산, 더현 광산을 비롯하여 많은 광산들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그 결과 광업 부문의 공업 총 생산액은 현저히 장성하였다.

광업 부문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

	1964 / 1963	1964 / 1960
흑색 광업	101.6	147.8
유색 광업	120.6	137.3

철광석을 비롯하여 주요 현물 생산 계획이 또한 빛나게 실행되였으며 주요 광종별 생산량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광업 부문에서는 광산들의 현행 채굴과 전망적 개발을 옳게 결합시키면서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앞세우는 데 1 차적 주목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굴진과 채광 부문에 대한 설비, 로력, 자재의 투하 비중을 5대 5로 보장하면서 굴진 부문을 청장년 로력으로 더욱 보강하였다.

모든 광산들에서는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고속도 굴진 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였다.

그 결과 1964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71%에 달하는 갱 건설 굴진이 진행되였다. 그 중 사갱 굴진량은 157%로, 수직 갱 굴하량은 104.4%로, 운반갱 건설량은 186.5%로 각각 장성하였다.

또한 전년에 비하여 113%에 달하는 탐광 굴진을 진행하고 준비 굴진량을 105%로 장성시켜 채굴장을 여유 있게 마련하였다.

무산, 재령, 은률, 하성, 룡양 광산을 비롯하여 토천 광산들에서는 굴착기, 자동차 등 중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계획보다 17만 6천여 립방 메터나 더 많은 박토 작업을 진행하여 박토량을 전년의 125.3%로 장성시켰다.

광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지 광산들에서는 다량 락광, 다량 처리를 보장하며 선광 실수률과 정광 품위를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는 많은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홀동 광산 로동자들이 다계단 미분쇄 체계에 의한 선광법을 도

입하여 정광 품위 제고에서 혁신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1964년에 광업 부문에 도입된 창의 고안 합리화안은 도합 3,600여 건에 달하였다.

광산들에서 활발히 전개된 기술 혁신 운동의 결과 1964년에 개소당 굴진 속도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전년에 비하여 선광 실수률은 동에서 0.6%, 연에서 1.6%, 아연에서 3.7%, 린상 흑연에서 6.6%가 더 올라갔다.

광업 부문의 주요 설비 리용률이 또한 제고되였다.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천, 사리원, 중암 등 중요 광산 지구에 있는 광산 기계 수리 및 부속품 생산 기지를 튼튼히 꾸렸으며 전문 이동 수리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그리고 내마모 용착법, 부분품 교체에 의한 수리 방법 등 선진 작업 방법을 널리 도입하여 수리 속도와 질을 높이였다. 그 결과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압축기의 력일 시간 리용률이 8.8% 더 높아진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 설비들의 리용률이 개선되였다.

1964년에 광업 부문에서는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갱내 로력 비중을 높이고 직접공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전반적 광산들에서 조직하였다. 그리 하여 광업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결과 유색 광업 부문에서는 공업 부문 1인당 생산액이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1.2 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광산들에서는 광물 증산 투쟁과 함께 절약 투쟁을 활발히 조직 전개하여 1964년에 대비 상품 생산물의 원가를 전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3.1% 더 낮추었다.

1964년에는 채취 공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광산들의 심부 및 주변들에서와 유망한 새 지구들에서 지질 탐사 사업이 광범히 조직되였다.

그 결과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시추 굴진량은 112%, 탐사 굴진량은 117%로 장성되였으며 많은 개발 후보지들이 새로 확보되였다.

금속 공업

1964년에 흑색 금속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존 제철, 제강소들을 정비 보강하여 그것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재 가공품 생산을 더욱 증대시킬 데 대한 과업을 성과 있게 실행하였다. 유색 금속 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또한 현존 제련소들을 정비 보충하여 동, 연, 아연 등 각종 유색 금속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유색 금속 압연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제련 실수률을 높이고 게르마늄, 인듐을 비롯한 희유 금속의 생산 토대를 갖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나라의 기간적 공업 부문인 금속 공업을 정비 보강하며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는 막대한 기본 건설 자금을 돌렸다. 특히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공사주)은 1963년에 비하여 138%로 장성하였다.

그 결과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강선 제강소의 년산 5만 톤 능력의 인발 강관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가 완공되여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황해 제철소의 년산 40만 톤 능력의 분괴 압연 직장이 완공되여 조업하게 됨으로써 1차 압연 능력의 부족을 타개하고 강재 생산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각종 유색 금속 및 희유 금속 생산을 위한 기본 건설 공사들도 성과 있게 진행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964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빛나게 넘쳐 실행하였다. 그 중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02.5%,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02.9%로 각각 계획을 초과 실행하였다.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부[illegible] 야금 공장, 흥남 제련소, 남[illegible] 제련소 등 이 부문의 많은 공[illegible] 기업소들이 계획 수행에서 모[illegible]을 보이였다.

그 결과 1964년에 금속 공[illegible] 부문의 공업 총생산액은 현저[illegible] 장성하였다.

금속 공업 부문
총생산액의 장성(%)

	1964/1963	1964/1960
흑색 금속	108.1	164.5
유색 금속	111.7	151.8

선철, 강철을 비롯한 주요 [illegible]물 생산 계획이 또한 성과 있[illegible] 실행되여 그 생산량이 전년에 [illegible]하여 현저히 장성하였다.

특히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illegible]는 현존 제철, 제강 설비들의 [illegible]용률을 높인 결과 생산 능력[illegible] 커다란 증가 없이 1963년에 비[illegible]여 18만 톤이 더 많은 134만 [illegible]의 선철과 립철, 11만 톤이 [illegible] 많은 113만톤의 강철을 생산하[illegible]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인민 경제 발전에 절[illegible]히 필요한 50여 종의 강종[illegible] 220여 종의 규격 강재를 새로 [illegible]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에 [illegible]하여 와이야로프 생산량은 118[illegible]로, 인발 강관 생산량은 134%[illegible] 장성시키고 일용품 생산에 소[illegible]되는 각종 세소 규격의 판재[illegible] 선재 생산량을 급속히 증대시[illegible]으로써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illegible]대하고 재 가공품 생산량을 증[illegible]시켜 금속 공업이 나라의 경[illegible]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더 [illegible] 복무하도록 할 데 대한 당의 [illegible]도를 성과 있게 실현하였다. [illegible]색 및 유색 금속 공업 부문 [illegible]장, 기업소들에서는 전년에 비[illegible]여 3배가 넘는 각종 생활 필수[illegible]을 직접 생산한 성과를 통하여[illegible]도 인민 생활 향상에 크게 기[illegible]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설비 [illegible]용률을 높이는 것을 생산 장성[illegible] 기본 고리로 인정하고 생산성[illegible] 높은 기술 공정과 선진적 생[illegible]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야금로를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강화하며 원료의 예비 처리를 잘하여 원료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선진 작업 방법과 도합 9천 여 건의 창의 고안, 합리화 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갱신하였다.

1964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용광로의 유효 내용적 립방 메터당 선철 생산량과 평로의 로저 면적 평방 메터당 1 주야 평균 강철 생산량은 107%로 각각 장성되였으며 전로에서의 강철 실수률은 1%가 더 제고되였다. 같은 기간에 압연기의 대당 시간당 생산량은 중형 압연기에서 104%, 박판 압연기에서 133%로 장성되였다.

니켈 종합 실수률이 1.8%, 아연 전해조당 생산량이 5% 더 높아진 것을 비롯하여 유색 금속 공장들에서도 기술 지표들이 개선되였다.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 그것의 시간 리용률도 제고되였다.

1964년에 주요 설비의 력일 시간 리용률은 전년에 비하여 흑색 용광로에서 0.4%, 유색 용광로에서 3.9%, 립철 회전로에서 6.4%, 분괴 압연기에서 4.1%, 후판 압연기에서 0.7%, 중판 압연기에서 13.5%가 더 올라갔다.

설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한 결과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계획을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106.6%로, 유색 금속 부문에서는 110.6%로 넘쳐 실행하였다.

금속 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증산에서 뿐만 아니라 절약 투쟁에서도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성진 제강소 로동자들은 전기로에 산소를 취입하는 등 전력 소비량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년에 비하여 톤당 전력 소비량을 페로 탕그스텐에서는 87%로, 전기로강에서는 96.9%로 저하하였고 문평 제련소에서는 전기연 톤 당 전력 소비량을 97.7%, 흥남 제련소에서는 니켈 전해에서 톤 당 전력 소비량을 58%로 낮춘 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절약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특히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콕스의 소비량을 낮추며 콕스 생산에서 자철 정광 및 국내 갈탄 등 국내 원료의 혼합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한 결과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절약 투쟁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 원가가 현저히 저하되였는데 그 중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는 전년에 비하여 강철에서 97.7%로, 중강판에서 91.5%로, 와이야로프에서 99.1%로, 인발강관에서 89%로 낮아졌다.

기계 제작 공업

1964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기존 기계 공장들을 정비 확장하여 그 생산 능력을 높이고 새 기계 공장들을 더 건설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1964년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의 총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26%로 장성하였다. 우리나라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공업 및 금속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9년의 20.6%로부터 1964년에는 25.8%로 높아졌다.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생산액의 장성 (%)

1956	1960	1962	1963	1964
100	466	681	761	958
	100	146	163	206
		100	112	141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4	1953	1960	1963	1964
1.6	15.3	21.3	24	25.8

1964년에 당과 국가에서는 기계 제작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의 122%에 달하는 기본 건설 자금을 투하하였다.

결과 이 해에 기양 뜨락또르 공장 가공 직장, 룡성 기계 공장 주강 직장, 락원 기계 공장 조립 직장, 희천 정밀 기계 공장 유압 기구 직장들과 일련의 새 기계 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다른 한편 많은 기계 공장들을 정비 보충하여 그 생산 능력을 최대한도로 리용하는 동시에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자동선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이 해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1만 700여 건의 창의 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하고 6천여 명의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제품의 원가를 1963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5.1%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생산에서 더욱 완성된 전문화 체계를 확립하고 협동 생산 조직을 일층 개선하며 기계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새로 개편된 관리 지도 체계에 상응하게 기계 공장들을 점차적으로 정리하면서 부속품의 전문화를 적극 확대하였으며 설비품 제작을 전문 공장들에 집중하였다. 동시에 기계 제작 공장 호상간에 생산 및 기술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 생산 조직을 일층 개선함으로써 협동 생산품의 생산 기일을 단축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또한 힘 있게 진행되였다.

1964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탄광, 광산 설비들과 농기계 및 화학 비료 생산 설비의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였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

장하기 위한 기계 설비 생산을 증대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생산을 년 1만 2천 대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뜨락또르 부속품 생산을 일층 강화하였다.

뜨락또르 부속품 생산의 장성 (%)

1957	1959	1960	1963	1964
100	381	11 배	21 배	52 배
	100	277	549	14 배
		100	198	489
			100	247

이 해에 2,400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9만 3천 대의 파종기와 제초기, 7천여 대의 탈곡기를 비롯한 수 많은 중소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1964년에 농업용 기계 기구류 생산은 총체로 전년에 비하여 102%로 장성하였다. 그 중 뜨르그는 258%, 원판 써레는 299%, 지그자그 써레는 288%, 만능 분쇄기는 254%, 벼 종합 탈곡기는 12 배, 옥수수 탈곡기는 120%, 배낭식 분무기는 145%로 그 생산이 장성되였다.

이 해 또한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흥남 및 아오지 암모니아 합성 공장 및 직장을 비롯한 중요 건설 대상 공장들의 종합 설비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였다.

공업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에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60여 대의 엑스까와또르, 300여 대의 공기 압축기, 390 대의 권양기, 5천여 대의 착암기 등을 비롯하여 많은 탄광, 광산용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였다.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크랏샤는 105%로, 부선기는 452%로, 전기 발파기는 171%로, 광차는 108%로, 탄광 및 광산용 전차는 149%로 생산이 장성하였다.

광산 및 탄광 설비 부속품 생산의 장성 (%)

1957	1961	1963	1964
100	199	285	12 배
	100	143	582
		100	407

이 밖에도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정밀 기계들과 대형 기계들을 수 많이 생산 공급하였다.

이 해 각종 기계 설비 부속품 생산만 보더라도 전년에 비하여 215%의 장성을 가져왔다.

기계 설비 부속품 생산 장성 (%)

1957	1959	1960	1963	1964
100	107	233	435	936
	100	217	405	872
		100	187	402
			100	215

우리 나라에서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1956년의 46.5%로부터 1964년에 94.3%에 달하였다.

화학 공업

화학 공업의 발전과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현대적 공업으로의 발전에서와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학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만 화학적 방법으로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조성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종 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1964년에도 주요 력량을 이에 집중하였다.

이 해에 우리 당은 화학 비료 생산 기지를 확장하며 각종 화학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일층 제고하며 생활 필수품 생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화학 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에 비하여 1.4 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하하였다.

그리 하여 이 해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최근 년간에 화학 비료 생산을 년산 150만 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75만 톤 이상의 화학 비료를 생산하였다.

이 해에 황해 제철소 화학 직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흥남 비료 공장의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년산 5만 톤 능력의 암모니아 합성 공장 제 1 계단 공사가 완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년산 5만 톤 능력의 아오지 화학 공장 암모니아 합성 직장 건설과 청수 화학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화학 공장들의 확장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이 해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위한 화학 비료 및 농약 생산과 함께 화학 섬유, 합성 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의 원료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1964년 시비 년도에 64만 톤의 화학 비료와 9천 톤의 각종 농약을 농촌에 공급하였으며 전년에 비하여 화학 섬유는 16%, 합성 수지는 27%를 더 생산하여 경공업의 원료를 보장하였다. 이 밖의 각종 화학 제품 생산도 급격히 장성하였다.

각종 화학 제품 생산량의 장성 (1960=100)

	1962	1963	1964
염 산	106	125	135
가성 소다	132	174	209
아연화	228	…	228
도 료	208	214	317
안 료	139	…	231
콕 스	143	150	153
벤 졸	156	161	231
시 약	156	192	274

이와 같이 화학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와 함께 화학 제품 생산의 계통적인 장성은 이 해에 화학 공업의 생산액을 전년에 비하여 104%로 장성시킬 수 있게 하였다.

화학 공업 생산액의 장성 (%)

1960	1962	1963	1964	1964/1956
100	183	204	211	945
	100	111	150	
		100	104	

또한 1964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배소로 장치의 기계화, 중제사 회전체, 송풍관 담바 조절반의 자동화 등을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생산에 직접 도입한 건수만도 2,800여 건이나 된다.

선진 기술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설비 대당 시간 당 생산에 대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이 더욱 개선되였다. 례하면 암모니아 합성탑 대당 일 평균 생산량은 1960년을 100으로 할 때 1963년에는 119로, 1964년에는 134로 장성하였다.

동시에 이 해에 화학 공업의 중요 설비들의 리용률은 1960년에 비하여 석회 질소 질화로에서 26.8%, 카바이트 전기로에서 28%, 암모니아 합성탑에서 6.9%, 암모니아 압축기에서 3.1%나 높아졌다.

이와 같이 선진 기술의 광범한 도입과 설비 리용률의 제고로 생산품의 평균 원가를 전년에 비하여 0.4% 낮추고 막대한 로력을 절약하여 570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건재 공업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건재에 대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건재 공업의 전면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1964년 1월 8일 김 일성 동지는 이 해를 건재 공업 발전의 준비의 해로 하고 1965년에 건재 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건재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기본 건설에 건재 생산을 앞세우며 건재품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존 건재 공장들을 정비 보강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재 공업 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4년에 국가에서는 현존 건재 공장들을 정비 보강하고 공정 간 불균형을 퇴치하며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재 공업 부문에 전년 보다 11.9% 더 많은 국가 기본 건설 자금을 투하하였다.

이리 하여 승호리 세멘트 공장의 백색 세멘트 직장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고 천내리 세멘트 공장에서의 새 소성법 도입을 위한 기본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해주 세멘트 공장에 원료 밀이 더 신설되였다. 또한 6천여 평방 메터의 건평을 가진 평양 목재 종합 공장의 합판 직장, 10만 개 생산 능력의 평양 금속 건재 공장 조명 기구 직장, 평양 주철관 공장의 수도 가랑 직장 건설이 완공되여 생산을 개시하였다.

건재 공업 부문에 대한 막대한 기본 건설 자금의 투하와 이 부문 근로자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건재 공업 부문의 기술 장비가 더욱 강화되였다. 결과 8만 톤의 세멘트와 74만 평방 메터의 합판이 더 생산되였으며 중요 건재품 생산량이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장성되였다.

1964년에 세멘트 생산량은 260만 톤에 달하였는바 이는 1960년에 비하여 4.4배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주요 건재품 생산량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인조 스레트	155	140	224	216
도로	143	208	214	317
건축타일	609	1 241	1 616	2 890
*위생자기	222	280	365	274
*목삭판	7.6배	6.5배	22배	31배

*표식 자료는 건재 공업성적인 통계임.

1964년에 건재 공업성은 년간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101.2%로 수행하였다. 건재 공업성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중 2.8 마동 세멘트 공장은 103.8%로, 해주 세멘트 공장은 110.1%로, 천내리 세멘트 공장은 102%로, 흥상 요업 공장은 105.3%로, 대성 요업 공장은 100.8%로, 안변 요업 공장은 113.9%로, 함흥 흄관 공장은 105.8%로, 평양 합성 수지 건재 공장은 143.8%로, 평양 목재 종합 공장은 102.2%로, 길주 합판 공장은 107.5%로, 평양 석재 공장은 169%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 건재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2.5%로 장성되였다.

건재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

1960	1961	1962	1963	1964
100	92	107	130	160
	100	117	142	174
		100	122	149
			100	123

1964년에 건재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시제품들의 소규모 생산을 조직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기술 준비를 앞세워 새 건재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고강도 세멘트, 도로 포장용 세멘트를 비롯하여 4 종의 세멘트 품종이 늘어났으며 백색 세멘트의 대량 생산을 실현하여 계획보다 300여 톤의 세멘트가 더 생산되였다. 또한 1.8 방수판, 경질판, 리노뉴 등 새로운 합성 수지 건재가 생산되였으며 수도 가랑, 이동 및 고정 샤와, 목섬유 흡음판, 고급 천정 재료, 멜라멘 도장 합판, 각종 건축 타일 등 수십여 종의 새 건재품의 공업적 생산이 실현되였다.

1964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건재의 기본 품종은 127%로, 확대 품종은 141%로 늘었다.

1964년에 건재 공업 부문에서는 1, 700여 건의 선진 기술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18만여 공수의 로력이 절약되였으며 건재 공업성적인 로동 생산성은 전년의 114.8%로 높아졌다.

특히 각지 세멘트 공장들에서는 마그네샤 크롬 벽돌을 세멘트 소성로에 도입하여 소성로의 력일 가동률을 전년보다 5.4% 더 높이였다. 이해 해주 세멘트 공장에서는 2.9%, 2. 8 마동 세멘트 공장에서는 3.8% 더 높였다.

1964년에 현존 건재 공장들이 정비 보강되고 공정간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생산 능력을 높였다. 그리하여 건재 공업은 날로 장성하는 건재의 수요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지로 발전하였다.

경 공 업

1964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하에 철제 일용품, 수지 제품, 목제품을 비롯한 다종 다양한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4년에 경공업 총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22.1%로, 그 중 지방 공업 총생산액은 121.4%로 장성하였다. 특히 경공업의 소비품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에 이르렀다.

이 해 경공업 부문에는 공업 건설 총투자액의 26.2%를 차지하는 기본 건설 자금이 공급되였다. 공업 건설 투자액 중 5.5%는 방직 공업에, 4.2%는 식료 공업에, 1.6%는 일용품 공업에 투하되였다.

그리하여 중앙 경공업 공장들이 더욱 개건 확장되고 지방 공업의 기술 장비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수 많은 중공업 공장들에 생활 필수품 직장이 꾸려짐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년 2만 톤의 스프 생산 능력을 가진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와 길주 팔프 공장의 능력 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함흥 모방직 공장과 혜산 방직 공장 직포 직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비단섬의 갈밭 조성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화학 섬유의 원료 기지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한편 경공업에 복무할 82 개의 중소 화학 공장이 신설 혹은 확장되였는바 이 공장들에서는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원료와 부산물 또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 원료를 리용하여 경공업 제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200여 종의 새 제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다량 생산에 들어 설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갖추었다.

1964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성과 있게 관철하여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2천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을 망라한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원료 기지가 일층 확대되였다.

창성 련석 회의가 있은 이후 1964년 말까지의 기간에 지방 산업 공장들에는 도합 5만 6천여 추의 방적 설비, 1,900여 대의 력직기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기계 설비들이 공급되였으며 9천여 정보의 자체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다.

중공업 공장을 비롯한 중앙 공업 공장들의 지원 하에 제지 공장, 식료 공장들의 정비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의 제품 생산에서 중앙적 및 지방적 전문화와 함께 협동화가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은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품종이 확대되고 제품의 질이 더욱 높아졌다.

1964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면서 기술 혁신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1만 4천 800여 건의 발명,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이리하여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각종 기술 경제적 지표들이 갱신되였다.

결과 1964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이 전년에 비하여 131.1%로 장성하였다. 그 중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133.2%로 장성하였다.

방직 및 피복 공업 1964년에 방직 및 피복 공업 부문에서는 질 좋고 다양한 각종 옷감과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64년의 직물 총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8.8%로 장성하였다. 그 중 고급 직물은 140%로, 연사 직물은 121%로, 편직물은 130%로, 가공 직물 총량은 122%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4년에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의 직물 총생산량은 114%로 장성하였다. 이 공장들에서는 1963년보다 38 대의 견직기, 110여 대의 광폭 직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를 증설하고 자체의 공무 동력 직장들의 역할을 높여 부속품 생산을 앞세우고 원료 및 반제품의 협동 생산을 강화하여 보장 조건을 정확히 맞물림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부단히 높이였다. 방직 설비의 종합적 리용률은 전해에 비하여 면직기에서 9.1%, 견직기에서 19.5%, 광폭 직기에서 5%, 조사기에서 14.4% 더 높이였다.

이 해에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춘추 양복천과 겨울용 천을 비롯한 고급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그리 하여 새로운 품종의 직물이 많이 생산되고 고급 직물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전해에 비하여 캬바징은 1.7배, 연사 직물은 116%로 장성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 공업 부문의 각 방직 공장들에서는 방수 가공, 수지 가공, 수축 가공, 마셀 가공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날염 및 선염 직물 생산을 강화하여 직물 가공량을 전년의 1.2배로 높였다.

이 해에는 년 1천만 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선교 편직 공장이 창설되여 경메리야스 생산을 개시하였다.

직물 생산의 장성과 고급 직물 생산 비중의 장성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전해보다 1만 8천 200여 추의 방적 설비를 증설하고 그 리용률을 16% 더 높임으로써 방적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화학 섬유 공장들에서는 인견 및 스프 방사기의 리용률을 전해보다 현저히 높여 섬유 원료의 생산을 증대하였다. 특히 아마 섬유 생산을 적극 기계화하여 1963년의 4.4배 이상에 달하는 원료를 생산하였다.

지방 공업 부문의 방직 공장들에서는 력직기, 광폭 직기를 비롯한 선진 설비들로 생산 공정의 기술 장비를 보충 개선하였다. 특히 도비기와 문직기 등 최신 장비들과 자동 장치들을 광범히 도입하고 직물 생산의 전처리 및 후처리 부문을 튼튼히 꾸렸다. 결과 이 해에 지방 공업의 직물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129.6%로 장성하였다. 그 중 스프 직물 생산량은 145.1%, 가공 직물 총량은 142.3%로 각각 장성하였다.

방직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직물의 품종은 더욱 늘고 그 질적 구성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1964년에 편직물 생산 부문에서는 방직 공장들에 병설되여 있던 편직물 공장을 분리하고 토대가 약한 공장들은 통합하였으며 조편기, 량면기, 양말기 등 도합 600여 대의 편직 설비들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편직사와 부속품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확고히 세워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켰다.

1964년에 직물 생산량은 해방전에 비하여 195배로 장성하여 인구 1인당 25 메터의 각종 직물이 차례졌다.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내외류는 1.3배, 쉐타 및 자케트류는 1.3배, 타올 포단류는 49배, 양말은 1.3배, 그 중 나일론 양말은 3.3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피복 공업 부문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 미감에 맞게 인민들의 옷 차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특히 겨울 외복 생산과 농민용 작업복 생산에 힘을 돌려 전년보다 외투류는 1.5배, 농민용 작업복은 214%로 생산을 증대하였다.

일용품 공업 1964년에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제품, 수지 제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목제품 등 일용품과 문화 용품 생산이 훨씬 증대되였다.

중공업이 경공업을 지원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이 해에 190여 개의 생활 필수품 공장, 직장, 작업반이 새로 조직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도합 580여 개에 달하는 생활 필수품 공장(직장, 작업반포함)들이 소비품 생산에 참가하여 경공업 상품 총 생산액의 10%에 해당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 조직된 생활 필수품 공장들은 우리 나라 철제 일용품 생산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되였다.

이 공장들에서는 1964년에 각종 단능 설비들과 프레스를 비롯한 4천여 대의 기계 설비들을 보충하고 중요 철제품 생산에 흐름선, 자동선을 형성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지방 공업 철제 일용품 공장들에서는 중앙 공업의 지원 하에 랭간 압연 설비, 프레스 등을 도입하여 필요한 소재의 대부분을 자체로 가공 보장하고 철제품 생산의 프레스화 비중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도금 공장, 형타 공장, 부속품 공장 등 전문 공장들을 창설하고 협동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켰다.

이리 하여 1964년에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시계는 2배, 늄제품은 5배, 만년필은 119%, 운동구류는 2배로 생산을 장성시켰다.

목제품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 거의 전체 군에 목제 가구 전문 공장을 내오고 그 기계화 수준을 높이여 1963년에 비하여 이불장과 찬장은 198%, 의복장은 124.5%로 생산량을 증대하였다.

유리 및 도자기 공업 부문에서는 경질 자기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도자기의 질을 높이고 유리제 필수품의 가지수를 늘이였다.

수지 가공 공업 부문에서는 염화 비닐에 의한 신발 생산을 증대하는 사업에 력량이 집중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 중앙 및 지방의 신발 공장들에서는 사출 장치에 의한 신발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프레스화 비중을 더욱 높였다.

이리 하여 1964년의 신발 생산량은 전해에 비하여 123% 더 많은 3, 612만 8천여 켤레에 도달

하였다. 그 중 피혁 구두류는 160%, 비닐 구두류는 236%, 방한화는 250.4%로 장성하였다.

비옷, 가방, 완구를 비롯한 염화 비닐 및 수지제 일용품 생산도 활발히 전개되여 우리 나라 일용품의 구색이 더욱 다양해졌다.

팔프 및 제지 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앞처리 부문과 뒤'처리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초지기별로 계렬식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지방 공업 산하 종이 공장들에서는 중앙 공업 공장들의 지원 밑에 1천 여 대의 종이 생산 설비들을 보충하고 낡은 생산 공정을 개조하였다.

그리 하여 특수 용지, 고급 용지를 비롯한 종이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이였다.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신문지는 136%, 가공지류는 100.7%, 팔프 생산량은 121%로 장성하였다.

식료 공업 1964년에 식료 공업 부문에서는 중앙 공업의 지원 밑에 생산 공정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장, 기름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과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그 저장 능력을 제고하였다. 이리 하여 전년에 비하여 간장은 112.5%, 된장은 100.1%, 두부는 129%로 장성하였다.

식료 공장들에서는 자체의 당면한 생산과 발전 전망에 맞물려 식료 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지방의 원료 원천을 찾아내여 각종 가공을 보장함으로써 1963년 보다 수산물 가공품은 328.6%, 육류 가공품은 105.5%, 고추장은 190%, 과실 가공품은 1.3배, 당과류는 1.5배, 청량 음료는 225%로 생산량을 높이였다.

림 업

1964년에 림업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특히는 1963년 8월 김 일성 동지께서 량강도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인 교시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해 림업 부문에서는 수상 동지의 교시에 따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관철할 수 있도록 지도 체계를 개편하였다.

림업성 산하에 지역적 단위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도 림업 총국(도 목재 생산 관리국)들을 조직하였고 작업반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전투 단위로, 림산 공업을 운영하는 단위로서 각 림산 사업소내 림산 작업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였다.

이와 같이 림산 공업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의 림업 정책을 하부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소가 정치, 문화 생활의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또한 이 해 림업 부문에서는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집중적 생산 방법으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림업 부문내 기술 집단들은 관내 산림 축적과 생산 등 우리 나라 산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채벌률과 순환 주기, 작업소별 생산 규모와 조림 규모 등을 규정한 순환식 채벌 총 계획도를 전반적으로 작성하는 한편 이 순환에 따라 기술 준비를 선행시킬 수 있도록 작업소에 기술 준비실을 꾸렸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나라 림산 공업을 높은 과학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웠을 뿐만 아니라 로력과 설비 및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고착시키면서도 림산업의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전망성 있게 조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해 림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가일층 강화되였다.

97 키로 메터의 림산 철도, 139 키로 메터의 림산용 자동차 도로가 새로 부설되였고 120 키로 메터의 수로가 개척되였다. 그리고 1만 2천여 메터의 수통, 16 개소의 콩크리트 또는 목조 물동, 2 개소의 양륙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한 궤도식 뜨락또르 《풍년호》와 림철 기관차 《밀림호》를 비롯하여 많은 기계 및 수리 설비들을 림산 기업소들에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중요 림산 작업소들에 소수리 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고 림산 기업소들에 있는 중수리 및 대수리 기지들이 더욱 장비 보강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림업 부문 시설물 및 기계 설비의 대수는 현저히 장성되였는바 1960년에 비하여 기계 벌목 톱의 대수는 150%로, 뜨락또르 대수는 371%로, 자동차 대수는 190%로, 공작 기계 대수는 163.3%로 늘었다. 그리고 콩크리트 물동은 1961년에 비하여 212%로 늘었다.

이 해 림산 공업 부문에서는 전년 보다 31만 립방 메터의 원목을 더 생산하였으며 원목 실수률 계획을 0.8% 초과 수행하였다. 이 해 림산 공업의 생산액은 전년 보다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많은 기업소들에서 자기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리명수 림산 사업소는 109.7%로, 고인 림산 사업소는 108.3%로, 희천 림산 사업소는 106.7%로, 대관 갱목 생산 사업소는 101.4%로, 압록강 류벌 사업소는 101.8%로 자기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또한 제재 부문에서는 별오 제재 공장이 112.1%로, 위연 제재 공장이 102.6%로 자기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이 해 림업 부문에서는 뜨락또르 집재기와 상차기, 뜨락또르에 의한 궤도 운재 방법, 반 가공식 삭도, 타리개 제작기, 장대목 운재 방법 등이 창안되여 생산에 도입되였다.

동시에 《뜨락또르 대당 년간

1만 2천 립방 메터 운재 운동》, 《기계 벌목 톱 대당 년간 1만 5천 립방 메터 채벌 운동》 등 새 기준량 창조를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매 기대당 생산량도 높아졌다. 1961년에 비하여 1964년에 기대당 1일 생산량 또는 운재량에 있어서 기계 벌목톱은 130%로, 기관차는 128%로, 자동차는 174%로 장성하였으며 무한 궤도 뜨락또르는 1962년에 비하여 129%로 장성하였다.

특히 이 해 수력을 운재 작업에 광범히 리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수로 운재 능력을 현저히 높이였다. 결과 전년 실적보다 중간 수로 운재량은 12.1%, 최종 수로 운재량은 12.3% 높아졌다.

1964년에 목재의 종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림업 기업소들에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6 개의 생활 필수품 직장과 목삭판 직장 및 목섬유판 직장을 새로 조직하는 한편 기존 직장들의 기술 장비를 보충 정비한 결과 1963년 실적에 비해 문화 일용품은 143.1%로, 옷장은 1.6배 이상으로, 이불장은 근 2 배로, 찬장은 2.8 배로, 합판 생산량은 132.9%로, 목삭판은 158%로, 목섬유판은 216.5%로 각각 생산량이 높아졌다.

수 산 업

1964년에 수산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강화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대형 어업과 함께 중소 어업이 계속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해 당과 정부는 1964년도 공업 건설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돌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소와 선박 수리 공장 및 어구 공장들이 더욱 정비 보강되였으며 특히 해양 어업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어항들이 또한 정비 확장되였다.

결과 현대적 설비를 갖춘 뜨랄선, 만능선 등 중 소형 철선 건조가 힘 있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 122 척의 기관선을 비롯하여 많은 비기관선이 공급되여 각 수산 산업소의 선박 보유 척수는 전년에 비하여 107%로, 그 중 기관선은 109%로 각각 장성되였다.

수산 부문 선박 수의 장성
(1960=100)

	1962	1963	1964
기관선	162	180	188
비기관선	101	119	118

어구 생산도 현저히 증대되였는바 1964년에 기계 제망 생산량은 1963년의 102%로, 섬유 로프는 107%로, 그 중 대마 로프는 146%로 늘었다. 기타 솜동복, 장갑, 어로용 방수의, 신발류 등이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되였다.

이와 함께 수산성 산하 선박 수리 공장들에서는 예비 부속품 생산을 앞세우면서 그 생산량을 1963년의 142%로, 그 품종 수는 131%로 증대시키고 예방 보수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선박 수리 기일을 단축하였다.

특히 이 해에 각 수산 사업소의 공무 동력 직장이 정비 보강되여 선박의 중소 수리를 자체로 할 수 있게 그 능력이 높아졌다.

이리 하여 선박의 척 당 수리 기일은 전년에 비하여 대수리는 0.2일, 그 중 안강망선은 7일, 기범선은 1.8일 줄어 들었으며 기범선의 중수리는 1.5일, 소수리에서 저예망선은 0.5일, 기범선은 0.4일 각각 줄어 들었으며 1964년보다 1천 200여 척의 선박을 더 수리하였다.

또한 이 한해 동안에 수산 부문의 과학 기술적 토대도 일층 강화되였다. 과학적인 어로전에 필요한 어군 탐지기 및 통신 지휘 수단들이 더 보강되였으며 대형 선박 운영을 위한 기술 인재 양성 사업과 수산 과학의 연구 사업이 일층 강화되였다.

기술자 수의 장성

	1963년	1964년 10월말 현재
기 사 (명)	774	1 144
기 수 〃	2 341	3 775
전 문 가 〃	221	517

※ 수산성적인 자료임

로동자들과 기술자, 과학자들의 창조적 협조가 일층 강화되여 1964년에 수산 부문에서는 전해보다 171 건이 더 많은 창의 고안이 생산에 도입되여 작업의 기계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수산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부단히 강화되고 어로 활동이 보다 적극화됨으로써 이 해에 물'고기 생산에서는 높은 성과가 달성되였다. 1964년에 물'고기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3만 톤이 더 증가하였다.

수산성의 공업 총생산액은 1963년의 124.1%로 장성하였다.

수산 부문 전체 일'군들은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계속 견지하면서 물'고기의 비중을 급속히 높이기 위하여 계속 보강되는 선진적인 어로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과학적 어로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형 어업과 중 소 어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적극적인 어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에 뜨랄선을 비롯한 원양 어업용 선박의 가동 척수는 전해에 비하여 138.7%로 늘었다.

공해에서 우리의 원양 어로 선단들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해상 지휘를 보장하며 생산 조직을 어기별로 계획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보다 넓은 원해 어장을 개척하였다.

이 해 원양 어업에 의한 물'고기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80.7%로 장성되였다.

대형 어업에서는 선박 가동 척수를 1963년 실적의 102.3%로 늘이고 선진적인 어구와 어로 방법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면서 포획 면적을 넓힌 결과 물'고기 생산

량을 전년의 144.4%로 높였다.

특히 동 서해의 어로공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내기 위하여 대부분의 저예망선들로 2척기선 저예망 어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형 기선 저예망선들을 개조하고 여기에 선진 뜨랄 어구를 도입함으로써 외척 기선 저예망에 비하여 기망당 생산량을 2~3배로 높였다.

최근 년간에 중요한 수산 기지들에 포경선들이 배치되여 고래잡이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동 서해의 포경선원들은 고래의 서식 조건과 습성을 충분히 연구한 기초 우에서 과학적 포경법을 창조하고 원해와 심해에 적극 진출하여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기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여 년간 고래잡이 계획을 125%로 넘쳐 실행하였다.

중소 어업 부문에서도 그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고 풍부한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수산물 생산량을 계속 높이고 있다.

동 서해의 수산 사업소들과 수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중소 어업 직장들과 작업반들을 더욱 정비 강화하였으며 중소 어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잘 배합하여 이에 고착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결과 연안 어업에서 1964년에 자망 어업 건수는 전년에 비하여 109.1%, 낚시 어업 건수는 120.3%, 숭어 자망은 230%, 이면수 자망은 128.3%로 각각 장성되였다.

같은 기간에 중소 어업 부문 로동자들은 멸치 자망에 의한 생산량을 175%, 기선 숭어 자망에 의한 생산량을 195.6%, 낚시 어업에 의한 생산량을 105.2%로 높였으며 기타 여러가지 어구들로 2~3 중의 어로 작업을 진행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아 냈다.

동 서해의 어로공들이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한 결과 1964년도 수산물 총 생산량에서 물'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의 65.8%로부터 77.5%로 높아졌다.

1964년에 담수 양어 사업이 또한 활발히 진행되였다. 물웅덩이, 못, 개울 등 물 있는 모든 곳에 고기를 기르기 위하여 각지 양어 사업소와 협동 농장들에서 1964년도 계획보다 60여 정보의 엄지 고기 못을 더 건설하였다. 동시에 계획보다 1억 6천여 만마리 더 많은 새끼 고기들을 2~3 개월씩 길러 호소, 저수지와 강하천에 놓아 주었다.

천해 양식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64년에는 양식장을 계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양식 자원들의 자연 증식을 촉진하면서 생산적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 증식에 힘을 넣어 양식 자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그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1964년에 다시마의 1 종 떼 양식 계획은 131.4%, 2 종 떼 양식 계획은 127%, 굴 1 종 양식은 149%, 미역 막돌 투석 계획은 125%로 각각 초과 수행하였다.

이 해에 천해 양식 부문에서는 계획의 4 배에 달하는 바스레기와 1.8 배의 동조개, 12 배의 김, 1.8 배의 대합을 각각 생산하였다.

1964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국영 부문에서 130.6%, 협동 부문에서 106.2%의 장성을 가져 왔다.

국가에서는 수산물 가공 사업을 시급히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값 싼 수산물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청진, 김책, 단천, 신창, 전진, 서호, 원산, 고저 수산 사업소들에서 가공 부문을 분리하여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현대적 가공 설비를 갖추어 놓았다.

1964년의 생선 공급량은 전년에 비하여 178%, 수산물 가공 제품은 101%, 그 중 소전품은 155%, 자전품은 102%, 염전품은 109%, 젓갈품은 118%, 고기기름은 113%, 사료는 199%로 각각 장성하였다.

농 업

1964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제시한 과업과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우리 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문제 등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실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정연한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처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앞길을 밝혀 주는 력사적 리정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사상 리론적 무기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는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공화국 내각에서는 이 법령 집행의 주요 조치로서 내각 결정 제

60 호, 제 61 호, 제 63 호를 채택하였다.

태제가 펼쳐 준 웅대한 전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획기적 조치들은 우리 나라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높은 혁명적 정열로 들끓게 하였다.

그리 하여 농민들은 도처에서 증산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로동자들은 높은 열성으로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이 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촉진

기술,문화,사상 혁명은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기술 혁명】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규정하고 여기에 거대한 힘을 돌려 왔다.

1964년에도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더 많은 논밭에 관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관개 시설을 잘 정비하고 이미 착공한 대규모 관개 공사와 새로운 대상의 중소규모 관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리 하여 압록강, 신계 지구 관개 공사 등 대규모 관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105 개의 저수지와 1천 72 개의 양수장을 비롯한 2,000여 개 대상의 관개 공사가 진행되여 이 해 논 면적은 전년도 실적보다 6만여 정보가 새로 더 확장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의 수원 시설은 1만 5천 920 개에 달하였다. 동시에 관개 시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1960년에 비하여 저수지 능력은 138%로, 양수장 능력은 136%로 높아졌다.

관개 공사와 함께 청천강 및 순화강의 제방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대상의 치산 치수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여 470여 개 대상의 강하천이 정리되고 920 키로 메터의 하천 제방과 해안 방조제가 구축됨으로써 7만여 정보의 농경지를 홍수와 조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해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우선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는 데 힘을 집중함으로써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었다.

국가에서는 이 해에 새로 6 개소의 농기계 작업소를 증설하였으며 2,400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9만 3천 대의 파종기와 제초기, 7천여 대의 탈곡기를 비롯한 수 많은 농기계들을 농촌에 공급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 말 현재 농촌 경리 부문의 뜨락또르 대수는 2만 대(15 마력 환산), 화물 자동차 대수는 3천 대에 달하였다. 결과 경지 면적 100 정보 당 뜨락또르 대수는 1960년의 0.65 대로부터 1 대로 늘었다. 고산 지대에서도 현대적 농기계 대수가 급격히 증가되였다.

혜산과 평강에 새로 뜨락또르 수리 공장을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 뜨락또르 수리 공장과 농기계 작업소 수리 직장들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전문 뜨락또르 수리 공장들에서는 종전의 기관 본체 수리로부터 일식 수리 체계로 넘어 갔으며 농기계 작업소 수리 직장들에서는 15일, 45일 수리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상 수리 체계로 넘어갔다.

이 해 운전수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더욱 높아졌으며 뜨락또르와 련결 농기계의 리용률은 훨씬 제고되였다.

물논 작업의 기계화를 비롯하여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의 범위와 종류도 현저히 확대되였다.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의 종류는 41 종으로 증가되였으며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량은 1961년에 비하여 179%로 높아졌다.

1964년에 농촌 경리의 전기화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였다. 이 해 말까지 우리 나라 전체 농촌 리의 95.5%, 총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 갔다. 그리고 1963년에 비하여 46% 더 많은 6억 5천만 키로 와트시의 전력이 농촌에 공급됨으로써 탈곡, 양수, 사료 분쇄 등 농산 작업에 전기 동력이 광범히 리용되였다.

또한 이 해 농촌 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다종 다양한 화학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한 화학 공업 부문 근로자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64만 톤의 각종 화학 비료와 9천 톤의 농약이 생산 공급되였다. 국가 부담에 의한 토지 개량 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문화 혁명】 당은 농촌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력량을 돌렸다.

당은 농민들의 일반적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으로 높이며 모든 농민들이 토양, 비료, 농약, 기계, 전기, 가축 사양, 과수 재배 등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해 성인 교육 사업과 기술 학습을 강화하였다.결과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수 많은 협동 농장원들이 뜨락또르 운전수, 양수기 운전공, 농산 기수, 축산 기수 등의 자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본 교육 체계에 의한 농촌 기술 간부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1964년에 18 개의 농업 대학 및 농업 부문 기술 학교가 증설되였으며 그 학생 수는 전년의 103%로 장성되였다.

1964년 말 현재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수는 2만 5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 해 농촌 보건 위생 사업도 더욱 강화 발전되였는바 협동 농장 진료소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3%로 장성되고 모든 진료소들은 보다 우수한 보건 일'군들로 꾸려졌으며 군 병원들에는 새로운 전문과들이 나왔다. 이 해 농촌에는 전년에 비하여 2 배에 달하는 의약품이 공급되였다.

이 해에 또한 농촌에서는 녀성들에게 로력 보수를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애기 어머니들이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내각 결정 제 46 호에 의하여 탁아소, 유치원을 확대하고 그것을 일층 문화적으로 꾸렸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보육원들을 배치하였다. 농촌 탁아소들은 전해 보다 3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더 맡아 양육하였다.

농촌 리들에 대한 방송 및 전화 시설과 출판물 배포 사업도 개선되였으며 협동 농장의 영사 시설은 전년에 비하여 165%로 장성되였다.

【사상 혁명】 조선 로동당은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당 정책 및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특히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인 계급 교양을 강력히 조직 진행하였다.

당은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 계급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한편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또한 일'군들이 농촌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 지도나 경제 지도나 할 것 없이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기풍을 수립하였으며 농촌에 파견되는 로동자들이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해 특히 농민들의 정치 사상 생활에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 놓은 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결정이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은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우리 당의 인전대로서 농민들의 사상 교양 사업을 제 1 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해 농업 근로자 동맹 조직 위원회는 동맹 초급 조직들과 시, 군, 구역 조직들을 성과 있게 결성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사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농촌에서 더욱 확대 발전하였다. 특히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남녘 땅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로동 계급의 대중적 애국 운동에 호응하여 나선 천리마 기수들을 선두로 한 협동 농장원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운 투사들과 애국자들을 자기 작업반의 반원으로 등록하고 매일 그들의 몫까지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이 남반부를 해방하는 혁명 대오에 서 있다는 자각과 긍지를 더욱 높이면서 증산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각성은 대단히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 의식에는 변화가 일어 났다. 농민들은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을 사랑하고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는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더욱 발양하고 있다.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의 강화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근본 립장이며 우리 당 농촌 정책의 기저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농업 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 간에 걸쳐 완전히 페지할 것을 제기하였다.

농업 현물세제의 페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농민을 온갖 세납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인 사변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최고 인민 회의는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공화국 내각에서는 내각 결정 제 61 호 《일부 협동 농장들의 농업 현물세를 면제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에 의하여 자강도,량강도의 모든 시, 군들, 평양시 선교 구역, 평남도 회창군, 신양군, 평북도 삭주군, 동창군, 벽동군, 황남도 신원군, 황북도 린산군, 연산군, 강원도 법동군, 세포군, 평강군, 함남도 장진군, 대흥군, 수동군, 허천군, 함북도 연사군, 무산군, 라진군, 청진시 부령 구역 내 전체 협동 농장들과 이외 일부 시, 군내 643 개 협동 농장들의 1964년 늦곡식 농업 현물세부터 완전히 면제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후에 와서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를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격감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협동 농장들에 대해서는 현물세를 감면 또는 완전 면제해 주었다. 목화, 담배, 아마 등 공예 작물의 현물세제는 벌써 전

국적으로 폐지된지 오래다.

1964년 말까지 농업 현물세 납부를 면제 받은 협동 농장 수는 전체 협동 농장의 약 절반에 달한다.

또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종전에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던 농촌의 모든 생산적 건설을 국가 투자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년 보다 4,300만원의 국가 건설 자금을 더 지출하여 관개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 전기 시설, 종합 건조장, 종자 처리장, 사료 가공실 등 생산적 건설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문화 후생 시설 등 농촌 건설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그 중 고정 탈곡장만 하더라도 3천 개, 각종 창고와 화건장만도 3,600 개가 건설되였다.

또한 국가는 내각 결정 제 63호《협동 농장들에 이미 지어 준 농촌 문화 주택 건설비와 대부금을 면제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내각 결정 제 76 호 《농촌 문화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대하여》(1961년 4월 24일)에 의하여 협동 농장들에 지어준 문화 주택 건설비(1억 72만 원)와 국가 대부금(2,200만 원)을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해도 국가 자금으로 농촌에 많은 문화 주택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국가는 협동 농장들에 탈곡기, 사료 분쇄기, 전동기, 양수기, 가마니 직조기 등 전기 및 기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일체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그 수리도 국가 부담으로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농촌을 지원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1964년에 13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에 진출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 및 학생들이 1,500만 공수의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결과 영농 작업이 제때에 수행되였다.

이리 하여 1964년에 우리 나라 농촌 진지는 더욱 공고화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은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이미 1962년 초에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새로 조직하는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 창설은 우리 나라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의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새로 확립된 농업 지도 체계는 협동 농장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자체가 가지는 우월성을 1964년에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었다.

1964년에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자기의 기본 사명으로부터 협동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기술 발전, 자재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들의 모든 경영 활동을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 수준을 일층 높였다.

또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옳게 실현하기 위해서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한편 기술자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농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농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경영 위원회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우로부터 아래에 직접 내려다 주는 정연한 자재 공급 체계에 의하여 국가의 모든 물질 기술적 수단과 자재를 협동 농장에 제때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 있게 실현하였으며 영농 사업을 제때에 보장케 하였다.

동시에 경영 위원회들은 군내 농촌 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적응하게 관개 시설, 농기계, 화학 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자기 관할하에 있는 국가 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 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관리함으로써 그것이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게 하였다.

이리 하여 이 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영 관리를 선진적 공업 관리 수준에로 점차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유기적 련계를 강화하였다.

농 산

1964년 농산 부문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 가일층 강화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농업 생산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구축됨으로써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여러 차례의 강한 태풍의 피해가 있었으나 알곡 생산에서 1963년도 수준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이 해 농산 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 500만 톤 고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논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알곡 구성에서 벼의 비중을 높일 데 대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당의 방침에 따라 기존 관개 시설을 잘 정비하는 한편 이미 착공했던 대규모 관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중소 관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벌방 지대 뿐만 아니라 산간 지대와 북부 내륙 지대에서도 논 면적이 확장되였다.

그리하여 이 해 논'벼 이앙 면적은 6만여 정보가 확장되였고 이에 따라 알곡 파종 면적에서 벼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3.2%의 장성을 가져 왔다.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

	1960	1962	1963	1964
경지면적 총 계	100	100	100	100
논	26.7	27.0	29.0	32.3
밭	73.3	73.0	71.0	67.7

논 면적의 확장과 함께 토지 보호 및 토지 정리, 토지 개간 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압록강 지구와 순화강, 대령강, 청천강, 성천강 등 대하천과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토지 보호 면적은 7만여 정보가 더 늘어 났으며 산간 지대를 위주로 새 땅 쟁취를 위한 토지 개간 사업이 광범히 전개됨으로써 2만여 정보의 토지 면적이 더 늘어 났다.

또한 이 해 2모작과 간혼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데 대한 당의 과업도 관철되였다. 2모작 재배에서 앞그루와 뒤'그루를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앞그루 재배에서 기본인 맥류 특히 보리의 경종 방법을 개선하여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간혼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2모작 파종 면적은 20만 정보에 달하였으며 토지 리용률은 8%가 제고되였다.

특히 황해남도, 개성 지구 등 우리 나라 남부 지대의 많은 협동 농장들은 논밭 앞그루로 보리를 심고 뒤'그루에 밭벼와 구루조 등을 재배하여 정보 당 4~5톤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 해 고산 지대에서 알곡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산간 지대의 영농 사업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국가 농업 과학 기관들이 량강도와 자강도 등 북부 내륙 지대의 특성에 맞는 품종의 육성과 개량, 적지 적작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작물 배치 등의 연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고산 지대의 농업 생산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와 함께 전반적 농촌들에 새로운 영농 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염화 비닐막에 의한 각종 모의 육성, 포전 인수로의 전면적 설치, 토지 개량 사업 등과 함께 지대별 경종 체계 확립과 육종 및 채종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된 결과 지대별 기후 풍토에 맞게 작물 배치가 개선되였으며 우량 종자가 더 많이 생산 도입되였다.

이 해 채소 및 공예 작물 재배에 있어서도 적지에 집중 배치하는 원칙 하에 작물에 따르는 지대적 조건을 고려하여 군 또는 협동 농장, 작업반적으로 전문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수확고를 전년에 비하여 아마는 118%로, 목화는 117%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물 재배와 관련한 일정한 과학 기술적인 토대도 축성하였다.

축 산

1964년에 축산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 회의(1963년 9월 3—5일) 결정 《축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해 축산 부문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자연 경제적 조건에 알맞게 축산업을 가축별, 생산물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영 농목장을 농장과 목장으로 분리하는 한편 목장들을 고기, 알, 젖, 양털, 종자 가축 및 종자 가금 생산 등 가축별, 축산물별로 전문화하는 체계로 생산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도시와 공업 중심지에는 고기, 닭알 생산 기지로서 전문 목장들을 창설하고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협동 농장들에는 종축 생산을 위주로 하는 축산 작업반 이외에 매개 작업반들에 축산 분조를 새로 조직하여 고기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해에도 당의 방침에 따라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의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였다.

축산물 생산에서 국영 부문의 비중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협동 농장들의 매개 작업반에서 1톤 이상, 개인 농가 호당 100~150 키로그람의 고기 생산을 위한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개천군 축산 부문 열성자 회의(1963년 11월) 참가자들의 호소는 전국의 전체 축산 부문 일'군들을 사회주의 경쟁에 궐기시켰으며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킴에 있어서와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해에 종축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있었다. 국가적 조치에 따라 가축별 중앙 종축장들을 지역별로 조직하고 도영 종축장들을 증설 확장하는 한편 종축을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으로 개량하면서 가축별 종축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과 함께 가축에 대한 인공 수정을 광범히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가축 두수가 현저히 장성되였다.

가축 두수의 장성 (%)

	1964/1950	1964/1956	1964/1963
소	139	145	103
양	7.6배	262	109
염 소	42배	6.9배	121
돼 지	265	203	127
가 금	328	271	120
꿀 벌	340	336	102

또한 이 해 축산업 발전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력량을 기울렸다. 국영 목장들과 협동 농장들에서는 자체로 사료 기지를 조성, 확장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국가에서는 농후 사료(알곡 사료 포함)를 그 전해에 비하여 136%로 증가하였으며 화학 사료 모체 공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당과 정부는 축산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축산 기계 전문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사료 분쇄기, 사료 조리기, 운반기, 급수기 등을 많이 생산 공급하였다.

또한 이해 속성 비육 방법을 비롯한 선진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수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가축의 폐사률은 전년에 비하여 소는 0.5%, 돼지는 12.2%, 양은 0.2%, 염소는 3.7%, 토끼는 5.5%가 각각 낮아졌다.

축산물 생산량 장성(%)

	1964/1953	1964/1956	1964/1963
고기	488	438	132
양털	9.6배	3.4배	121
젖	44 배	—	111
알	5.7배	3.1배	131

과 수 업

1964년 과수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내각 결정 제 81 호 《과수원 관리 사업과 조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3년 12월 5일)를 집행하는 사업이였다.

당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해 과수업 부문에서는 이미 조성하여 놓은 과수원을 알뜰하게 꾸리며 이에 대한 관리를 일층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 시, 군과 과수 농장 단위로 년간에 3 회에 걸쳐(봄, 여름, 가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비배 관리 전투를 진행하여 유목원에 대한 전면 개간, 계단 만들기, 수분수 구성 바로잡기, 보식 작업, 거름 주기, 김매기 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과수원들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과학적 시비 체계와 관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과수 관리에서 중요한 선진적인 전정 방법을 광범히 도입 일반화하기 위해서 과수 재배의 경험이 부족한 협동 농장들과 기관, 기업소 과수원들에 대한 기술적 방조를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과실 나무의 수관 형성을 옳게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실이 더 잘 되게 하였다.

과수원의 결과 면적 장성 (%)

	1964/1953	1964/1956	1964/1963
총 계	156	183	112
그중 사과	100	116	107
복숭아	425	542	135

그리하여 이 해 과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7%가 장성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과수업이 날로 확대 발전함과 관련하여 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에 따라 이 부문 기능자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이해에 중앙에서는 함남 북청군에 과수 기술원 양성소를, 각 도에서는 각 과수 농장들에 단기 양성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과수 부문 기능자 대렬을 확대하였다. 또한 과수업에 필요한 소형 뜨락또르와 분무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과 농기구들도 다량 생산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과수원의 관리 사업을 개선하여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과 함께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해에 기관, 기업소,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 군중적 운동으로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의 모든 주택 주위와 학교 및 공공 건물 주변에 조생종과 고급 품종의 각종 과실 나무를 심었다. 결과 1964년에 과수 림목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5천 정보가 더 확장되였다.

과수 림목 면적의 장성

	1964/1953	1964/1956	1964/1963
총림목 면 적	8.1배	9.4배	104
그중 사과	6.5배	7.8배	100
복숭아	13배	14.7배	124
배	11.6배	11.8배	102

잠 업

1964년 잠업 부문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집누에 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둑누에 치기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고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데 력량을 기울였다.

잠업에서 기본인 누에의 사료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이해에도 계속 강력히 전개한 결과 새로 2천 정보의 뽕밭이 조성되였다.

새로운 뽕밭 조성 사업과 함께 뽕나무에 대한 비배 관리의 개선, 선진적인 전정 방법과 뽕잎 따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보당 뽕잎 수확도 높아졌다.

동시에 가둑 누에 치기에도 커

다란 관심이 돌려진 결과, 이 해 작잠림은 13만여 정보로 확장되였다.

이 해에 또한 누에 치기에서도 각종 선진적 방법들이 창안되였는바 야외 가지뽕 누에 치기 방법, 가둑누에 보호 사육 방법, 집누에 치기에서 《합》 사육, 가둑누에 치기에서 《포기의 부채형 결속》 등 새로운 방법들이 광범히 도입되였으며 누에 그릇을 비롯한 각종 개량 잠구들의 생산량도 증가되였다.

이 해에 함경남도 영홍군, 량강도 풍산군, 강원도 통천군 내 농촌 녀성들은 누에 고치 생산 계획을 155~213%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누에 치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였다.

이와 같이 1964년도 누에의 사료 기지 조성 사업과 함께 누에 치기에서 선진적인 방법이 광범히 도입됨으로써 우리 나라 잠업 발전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 한층 공고화되였다.

교통 운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교통 운수는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생산적 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시켜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를 보장케 함으로써 나라의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동맥이다.

교통 운수가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 마다 증대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에 적응하게 교통 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심중한 배려를 돌려 왔다.

1964년에 당과 정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방대한 과업과 함께 이에 따르는 교통 운수 부문 앞에 제기된 수송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당과 정부는 교통 운수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그 사업 수준을 가일층 높이기 위하여 교통 운수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교통 운수 위원회 산하에는 철도성, 륙운 총국, 해운 총국을 각각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 교통 운수 부문에서는 당과 정부가 지여 준 유리한 조건 하에 교통 운수 수단의 기술 장비를 개선함과 함께 그 리용률을 제고하여 장성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결과 1964년도 화물 순환은 장성되였다. 전년에 비하여 철도 화물 순환은 102%로, 자동차 화물 순환은 111.2%로, 선박 화물 순환은 119%로 각각 장성하였다.

운수 형태별 수송의 장성(1960=100)

	1961	1962	1963	1964
화물 순환	108	109	114	116
철 도	108	109	114	116
자 동 차	102	115	119	132
하천 및 해상	121	151	160	190
화물 수송량	97	111	111	126
철 도	107	113	120	123
자 동 차	95	114	117	141
하천 및 해상	112	115	114	132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의 비중

	1960	1961	1962	1964
화물 순환	100	100	100	100
철 도	92.7	93.0	92.0	91.3
자동차	5.6	5.3	5.9	6.3
하천및해상	1.4	1.5	2.C	2.3
기 타	0.3	0.2	0.1	0.1

【철도 운수】 교통 운수에서 중요한 부문인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1964년에 급속히 증가되는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의 방침에 따라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해에 특히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중심이며 통과 능력 제고의 기본으로 되는 철도 전기화를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평양—신의주 간 224 키로 메터에 달하는 철도 전기화 공사를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여 이해 8월 26일에 개통하였으며 신북청—홍원 간의 54.8키로 메터의 구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82 키로 메터의 서포—신성천 간의 전기화 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철도 운수에서의 전기화 비중은 19%로 제고되였다.

이 밖에 청진—라진 간 철도 신설 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풍선 철도를 비롯하여 탄광, 광산들과 련결되는 일련의 철도 선로들을 기술적으로 보강함으로써 공업의 원료, 연료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 차량 제작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해에 전기 기관차, 객차, 화차 수가 증대됨으로써 수송 능력도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철도 운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면서 1964년 5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렬차 운행표를 도입 실시하여 인민 경제에 필요한 수송 과업의 실행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었다.

철도 운수에서 륜전 설비의 리용도 개선되였다. 화물 상하차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8.6%가 더 높아졌으며 기술역들에서의 전철기들의 자동화와 종합 작업반 사업의 강화는 렬차 개편 사업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리하여 철도 운수의 중요한 질적 지표인 화차 회귀 일수는 전년에 비하여 0.1 주야 단축되였다.

동시에 기관차의 일상적인 점검 보수 사업과 정기 수리의 질을 높여 기관차의 실동률과 견인력을 증가함으로써 화물 렬차 평균 견인 중량은 전년에 비하여 1% 제고시켰다.

이와 같이 철도 운수의 기술적 조건을 개선함과 함께 륜전 설비의 리용률을 높인 결과 화물 수

송량을 현저히 장성시켰다.

철도 려객 수송에 있어서도 산간 지대의 려행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4년 10월 1일부터 십리평—상신원 간 려객 수송을 개시하는 한편 려행자들에 대한 문화적 봉사성을 더욱 개선하였다. 새로운 렬차 운행표의 도입은 운전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간 호상 간의 렬차 접촉 시간을 적절하게 접근시켰다.

또한 렬차 방송 사업의 개선과 함께 렬차 식당을 비롯한 일련의 봉사 시설들을 보충 완비하여 려행자들에게 온갖 편의를 도모하였다.

철도 려객 수송량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1964/1963	1964/1962
철도 려객 순환	117	114	126	127	101	112
철도 려객 수송 인원	120	123	136	144	106	117

【자동차 운수】 1964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는 발전된 자동차 제작 공업으로부터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려객 뻐스 및 무궤도 전차가 공급되여 그 대수들이 증가하였으며 일련의 지역들에 자동차 사업소들을 신설하였다.

이 해에 특히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화물 수송의 로정에 근거한 운행표를 작성 도입하고 유일한 지휘 체계에 의해서 주요 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송을 보장하는 한편 화물 류동 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왕복 수송을 조직화함으로써 공차 운행을 현저하게 축소하였다.

자동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 직장의 확장과 수리 시간의 단축, 예비 부속품 보장의 선행과 정기적인 검수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수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애차 운동 및 무사고 주행 운동을 광범히 전개한 결과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운전 휴지 시간을 현저히 단축하였다. 또한 자동차 운전수들의 2 교대제를 광범히 도입하여 자동차의 리용률도 높였다.

다른 한편 자동차 도로들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들과 교량들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교통이 빈번한 일련의 구간들을 재포장함으로써 자동차의 통과 능력을 높였다.

자동차 리용률과 통과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화물 수송량도 계속 장성하였다.

1964년에 려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 왔다.

자동차 도로의 보강, 새로운 운행도의 개척, 기차 시간과의 접촉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운행 시간의 제정 등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대형 무궤도 전차와 대형 뻐스를 증가하여 교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 산업 지구를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 려객 및 통근용 뻐스 대수를 늘였다.

자동차 화물 수송량 장성(1960=100)

	1961	1962	1963	1964
화물 자동차 순환	102	115	119	132
화물 자동차 수송량	95	114	117	141

자동차 려객 수송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자동차 려객 순환	114	134	150	178
자동차 려객 수송 인원	116	135	144	154

【수상 운수】 수상 운수 부문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수상 운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두의 상하선 기중기 시설들을 능률적인 것으로 더욱 증가시키는 한편 항구 구내 운반 시설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등 항구들과 부두들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선 확장함으로써 체선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켰다.

또한 우리 나라 조선 공업의 발전과 선박 수리 기지가 확장 강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 운반선들도 거의 전부가 동력화되였다.

수상 운수 능력이 장성됨에 따라 새로운 항로들을 개척하였으며 일부 구간에는 철도 운수가 담당하던 것을 수상 운수가 담당 수행하게 됨으로써 수송되는 화물의 품종이 확대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송량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또한 시설이 보다 완비된 려객선들의 도입과 새로 개척된 운항도에 의하여 수상 운수에 의한 려객 수송 인원도 증가되였다.

수상 운수 수송량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1964/1963
선박 화물 순환	121	151	160	190	119
선박 화물 수송량	112	115	114	132	116
선박 려객 순환		111	107	114	107
선박 려객 수송 인원	123	124			111

【항공 운수】 조선 민용 항공국은 국제 및 국내 수송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민 경제 사업—항공 기상 관측, 항공 어군 탐색, 항공 지질 탐사, 항공 산'불 감시, 국내 화물 수송 등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조선-쏘련 간, 조선-중국 간의 항공 쌍무 협정들에 의하여 평양—베이징 간, 평양—모스크바 간의 국제 정기 항공이 운행되고 있다.

평양—베이징 간의 항공기 운행은 매 월요일과 목요일에 평양에서 출발하며 베이징에서 오는 항공기는 매 월요일과 금요일에 평

양에 도착한다.

평양—모스크바 간의 항공기 운행은 매 수요일에 평양에서 출발하며 모스크바에서 오는 항공기는 매 화요일에 평양에 도착한다.

체 신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민 경제에서 신경적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 혁명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체신 사업 발전에 중요한 배려를 돌려왔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시외 통신 시설을 더욱 완비하며 산업 전화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유선 방송 시설을 더욱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더우기 방송 선전 사업과 체신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1963년 11월 12일)와 이 교시에 립각한 당 및 내각 공동 결정 《방송 선전 사업과 체신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채택(1963년 12월 26일)은 1964 년에 체신 부문이 해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 체신 부문에서는 당과 수상 동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기 계획 수행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해 체신 총생산액은 112.5 %로 수행하였다. 이것은 1963년에 비하여 120%로, 1960년에 비하여는 167%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체신 공업 생산 계획은 122.7%로 수행하여 체신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신 기자재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 해에 체신 기술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3,959 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생산 공정에 도입함으로써 체신 시설을 현대적으로 부단히 개선하고 신설 확장하였으며 특히는 방송 출력을 급속히 높였다.

체신 시설의 장성(1960=100)

	1960	1962	1963	1964
우편국 수	102	106	105	105
시외 전신 전화 회선 총연장	112	117	136	144
시내 전화국 능력	110	107	112	193
시내 전화 가입 구수	104	115	126	178
무선 방송 출력	124	192	203	408
유선 방송 출력	112	116	122	192

【우편 통신】 1964년에 우편 통신 부문에서는 제도와 질서를 더욱 확립하고 우편물과 출판물의 송달 시간을 현저히 단축하였으며 우편 시설을 문화적으로 꾸리였다.

특히 이 해에 기동 수단에 의한 집배 및 체송망을 더욱 강화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산간 벽지를 제외하고는 전체 체송 구간의 90% 이상이 기동 수단에 의하여 체송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해에 우편 통신 부문의 년간 계획을 일반 우편물은 107.6%로, 소포 우편물은 102.3 %로, 정기 간행물 취급 계획은 113%로 각각 초과 수행하였다.

우편 통신의 장성(1960=100)

	1961	1962	1963	1964
일반 우편 접수	115	125	127	131
소포 우편 접수	136	145	139	131
우편 송금 접수	107	117	106	107
전보 접수	133	177	173	175
시외 전화 접수	117	146	172	185

1964년에 66 종의 우표를 발행하였다.

【유선 통신】 1964년에 유선 통신 부문에서는 유선 통신 시설을 철저히 정비하며 선로의 다중화를 실시하여 통신망을 완비하며 회선 리용률과 그 질을 높여 날로 증대되는 통신 수요를 보장하였다.

특히 산업 전화의 수요를 보장하며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채취 공업 부문을 비롯한 437 개 대상의 산업 전화 시설 중 78 개소의 1 급 기업소는 일반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기타 1, 2 급 기업소는 중요 가입자들의 련락 선로를 완전히 정비하였으며 적지 않은 광산, 탄광들에는 갱내 지령 체계까지 확립하였다.

이 해에 또한 다중화의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전화 회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 통화로 반송 전화기 40 대와 3 통화로 반송 전화기 40 대를 각각 생산하여 설치함으로써 중앙과 도 간의 회선은 평균 7.1 회선으로부터 12.4 회선으로, 도와 군 간의 회선은 2 회선으로부터 2.2 회선으로 각각 늘었다.

이와 함께 군 체신소들에 70여 대의 공전식 교환기와 300여 대의 무코드식 지령 교환대를 설치하였으며 군 및 리 교환국 소들의 통신 설비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해에 특히 수상 동지의 교시에 따라 통신 선로를 하나의 계렬로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1 개 구간의 2,900여 키로메터의 통신 선로가 통합 직선화되였으며 2만 1,000여 본의 전주 구간들이 농경지와 도로 주변으로부터 안전 지대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선로의 모범 및 규격 선로 구간은 전년에 비하여 132 %로 장성하게 되였다.

【무선 통신】 1964년에 무선 통신 부문에서는 특히 방송 시설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고 방송 출력을 2 배 이상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설비

를 갖춘 대출력 방송기와 새로운 방송국들의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리 하여 1964년에 무선 방송 출력은 전년에 비하여 206%로, 1960년에 비하여서는 408%로 장성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 방송은 더 강한 출력을 필요로 하는 지점까지 보내게 되였으며 훨씬 폭 넓은 봉사 구역을 포괄하게 되였다.

【유선 방송】 1964년에 유선 방송 부문에서는 유선 방송망을 리 단위로 구성하여 매 가정들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하라는 수상 동지의 교시에 따라 리 단위로 방송망을 구성하고 새로운 국 소들을 계속 신설하였다.

결과 1964년 말 현재 리 단위로 된 유선 방송 국소는 1,558개소에 달하였다.

또한 이 해에 기존 유선 방송 선로들을 정비하여 유선 방송의 질을 높임과 함께 새로 4,370 키로메터의 유선 방송 선로 가설과 20여 만대의 고성기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1964년 말 현재 고성기 수는 101만 대에 달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전체 리의 98%에 해당한 지역에서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였으며 유선 방송 청취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30%로 증가되였다.

【국제 교류】 1964년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체신 과학 연구 소장 회의(베이징, 1964년 5월),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부상 회의(베이징, 1964년 10월),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경제 전문가 회의(베이징, 1964년 11월)에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국제 통신 교류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와 기네 공화국 간에 우편물 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 통신 련락에 관한 협정이 체결(6월 18일)되였으며 인도네시아 공화국과는 전화 업무 취급이, 캄보쟈 왕국과는 항공 우편물 직송 사업이 시작되였다.

기본 건설

1964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 투하된 국가 기본 건설 총 투자액은 7억 6천만 원(1957년 4월 1일 현재 견적 가격, 설계 사업비 및 지질 탐사비 포함), 그 중 건설 조립 작업액은 전해에 비하여 117%로 장성된 3억 6천 만원이였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률(%)

	1949	1956	1960	1963	1964
투자액	100	396	640	775	854
		100	162	196	215
			100	121	133
				100	110
그중 생산적 건설	100	417	624	863	10배
		100	150	207	245
			100	138	164
				100	119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과 그 구성(단위 백만 원, 1957년 4월 1일 견적 가격)

	1956	1960	1963	1964	비중			
					1956	1960	1963	1964
기본 건설 투자액	351	567	686	756	100	100	100	100
그중 생산적 건설	258	386	534	633	73	68	78	84
비생산적 건설	93	181	152	123	27	32	22	16

1964년의 기본 건설 투자는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 경제의 토대에 립각하여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데 돌려졌으며 특히 채취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였다.

이 해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 중 65%가 공업 건설에 차례졌고 중공업 부문에는 공업 건설 투자액의 74%가 돌려졌다. 특히 채취 공업 부문에는 중공업 부문 투자액의 46%가 차례졌다.

공업 부문의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1960	1963	1964
공업 건설 투자액	100	100	100
1) 중공업 건설	80.6	68.2	73.8
그중 발전 공업	11.1	14.6	11.5
연료 공업	11.4	12.6	14.7
광석 채굴업	23.9	17.5	19.4
야금 공업	5.7	5.8	6.1
기계 제작 및 선박 공업	11.7	10.1	11.1
화학 공업	8.6	3.4	4.4
건재 공업	1.9	1.2	1.7
림업	2.1	2.0	2.3
2) 경공업 건설	19.4	31.8	26.2
그중 방직 공업	4.6	8.7	5.5
식료 공업	4.0	5.2	4.2
일용품 공업	2.5	2.9	1.6
수산업	6.3	13.4	8.0

이상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 건설 투자는 당의 기본 건설 방침에 립각하여 정확히 실시되였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본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다른 부문에 앞세워야 할 동력 기지 건설이 계속 강력히 진행된 결과 24만 6천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강계 청년 발전소가 조업을 개시하였고 40만 키로 와트 능력의 평양 화력 발전소, 40만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운봉 발전소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계속되였다. 이 밖에 금강산 2 호, 청단 1 호, 부방 발전소를 비롯한 18 개의 중 소형 발전소가 새로 조업하였다.

1964년에 특히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는 데 계속 력량을 집중하였다.

전년에 비하여 2천 6백만 원이 더 많은 1억 4천 1백 만원의 기본 건설 자금을 채취 공업 부문에 투자하였다.

공업 부문 투자액 중에서 채취 공업 부문 투자액이 차지하는 몫은 1963년의 30.1%로부터 34.1%로 높아졌다.

채취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1956	1960	1963	1964
채취 공업 투자액	100	100	100	100
그중 연료 공업	44	32	42	43
광석 채굴업	56	68	58	57

1964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상화 탄광, 동포 탄광, 창평 탄광을 비롯한 13 개의 탄광이 새로 개발되였으며 60여 대의 엑스까와또르, 300여 대의 공기 압축기, 390 대의 권양기, 5천여 대의 착암기 등 기계 설비들을 받았다.

광업 부문에서도 기존 광산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고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리 하여 판문 광산, 정주 광산을 비롯한 18 개의 광산이 새로 개발되였으며 서홍 광산의 년산 2만 톤 능력의 류화철 분리 직장, 년 28만 톤의 니켈 광석 처리 능력을 가진 부윤 광산의 선광장, 홀동 광산의 중앙 수직갱, 년산 56만 톤의 동광 처리 능력을 가진 만덕 광산 선광장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기 위한 지질 탐사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시추 굴진은 전년에 비하여 112%로, 탄광 및 광산의 탐사 굴진은 117%로 각각 장성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제철 및 제강소들의 생산 능력을 더욱 정비 보강하였다. 1964년에 년 5만 톤 능력의 강선 제강소 인발 강관 직장의 제 1 계단 공사와 년 40만 톤 능력의 황해 제철소 분괴 압연 직장 건설 공사가 각각 완공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기양 뜨락또르 공장 가공 직장, 룡성 기계 공장 주강 직장, 락원 기계 공장 조립 직장, 희천 정밀 기계 공장 유압 기구 직장들과 일련의 새 기계 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황해 제철소 화학 직장이 조업을 개시하였고 흥남 비료 공장의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년산 5만 톤 능력의 암모니아 합성 공장 제 1 계단 공사가 완공 단계에 들어 섰으며 년산 5만 톤 능력의 아오지 화학 공장 암모니아 합성 직장 건설과 청수 화학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화학 공장들의 확장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밑에 년 2만 톤 스프 생산 능력의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제 1 계단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함흥 모방직 공장과 혜산 방직 공장의 직포 직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1964년에 비단섬의 갈밭 조성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화학 섬유의 원료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경공업 발전에 복무할 82 개의 중 소 규모의 화학 공장을 신설 확장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무한히 고무되여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실현을 위하여 동원된 결과 농촌 진지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다.

1964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농촌을 물질 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전해에 비하여 148%로 장성된, 금액적으로 4천 3백만 원이 더 많은 국가 기본 건설 자금을 투하하였다. 농촌 경리 부문의 투자액 중에서 관개 하천 공사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136%로 장성되였다.

방대한 국가 자금으로 이 해에 3천 개의 고정 탈곡장, 3천 6백 개의 각종 창고와 화전장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농촌의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였다.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와 신계 지구 관개 공사 등 대규모 관개 공사와 저수지, 양수장을 비롯한 2천여 개 대상의 관개 공사가 진행되여 새로 6만여 정보의 관개 면적이 확장되였다. 그리고 6 개소의 농기계 작업소가 증설되였다.

농촌 경리의 전기화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였는바 년말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농촌 리의 95.5%, 전체 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전년에 비하여 46%가 더 많은 6억 5천만 키로 와트시의 전력이 공급되였으며 농산 작업에 전기 동력이 광범히 리용되였다.

또한 농촌 경리의 화학화가 촉진되였고 국가 부담으로 토지 개량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964년에 도시 및 농촌 문화 주택과 교육 문화 후생 시설이 많이 건설되였다. 비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47%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돌려졌다.

도시 및 농촌 주택의 구성 (%)

	1960	1963	1964
주택 총계	100	100	100
그중 도시	62.3	44.8	57.8
농촌	37.7	55.2	42.2

1964년에도 건설은 공업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조립식 건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전년에 비하여 조립식 건설의 비중은 산업 건설에서 13%, 주택 건설에서 9%가 각각 제고되였다.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더 많이 건설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체 건설자들은 집단적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4,351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을 건설에 도입하였다.

1964년에 건설 부문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계획은 106%로 초과 수행되였다.

1964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건설 기계 리용률의 제고, 내부 채산제의 광범한 도입으로 건설 조립 작업의 가치는 2.8% 저하되였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64년에 주택 및 공공 건물 대보수를 위한 투자는 7천 6백 만원이였다. 이 해에 11만 정보의 식수 조림 사업이 진행되였고 8만 2천 정보의 경제림이 새로 조성되였으며 청천강, 성천강, 순화강을 비롯한 900여 개 대상의 강하천 정리와 해안 방조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공원,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382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평양 건설 평양은 조선 인민의 심장이며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민주 수도이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조선 혁명의 발원지이다. 평양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영웅적 조선 인민의 수도답게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 도시로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

1964년에 평양시 건설 로동자들은 2천여 명을 수용하는 현대 적 설비를 갖춘 교예 극장과 34만 2천 평방 메터의 다층 문화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연 건평 4만 5천 평방 메터의 김 일성 종합 대학 제 1 호 교사와 1만여 평방 메터의 기록 영화 촬영소를 비롯한 교육 문화 기관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성산과 릉라도를 비롯한 유원지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렸으며 대동강 하상 준설과 무진천, 합장강을 비롯한 강하천 공사와 3만 9천여 메터의 상하 수도 시설망 건설과 평양시 주택 구획을 비롯한 40만 평방 메터의 도로 포장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상 업

1964년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상업 부문 앞에 조성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식료품의 수매 및 공급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1963년 11월 23일) 와 상업 체계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개편 정비하고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1964년 2월 17일) 는 우리 나라 상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로 되였다.

공화국 내각은 당의 방침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을 위해서 1964년 3월 3일 《평양시 상업과 편의 봉사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와 1964년 4월 21일 《상업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 하여 상업 체계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원칙에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는 한편 상업 기관들의 행정적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였으며 도매 기관 일'군들이 소매망에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의 수요를 책임적으로 연구하고 상품을 매대에까지 내려다 주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업 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1964년에 소매 상품 류통 총액 계획은 108%로 초과 수행되였다. 그 중 중앙 상업은 110%로, 지방 상업은 108%로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이 해의 소매 상품 류통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14%로, 그중 식료 상품은 105%로, 비식료 상품은 118%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4년에 각종 상품 공급량은 전년에 비하여 훨씬 증대되였다. 주요 공업 상품 중에서 비날론 혼방직은 268%로, 인견직은 131%로, 모직물은 126%로, 기성복은 116%(그중 학생복은 106%로)로, 비옷은 170%로, 내외류는 117%(그중 편직 내의는 114%로, 직물 내의는 121%로)로, 모자류는 104%로, 양말류는 121%로, 솜은 390%로, 타올은 101%로, 신발류는 122%(그중 가죽 구두는 134%로, 비닐 신발은 134%로, 포화류는 147%로)로, 비누는 122%로(그중 빨래 비누는 117%로, 세수 비누는 131%로)로, 화장품류는 118%로, 문방구류는 118%(그중 학습장은 145%로)로, 담배는 124%로, 성냥은 105%로, 문화 용품은 189%(그중 라지오는 259%로, 시계는 299%로, 재봉기는 125%로)로, 가방류는 135%로, 운동구류는 129%로, 가구류는 186%(그중 옷장 및 이불장은 194%로, 찬장은 196%로)로, 전기 다리미는 123%로, 도자기는 127%로, 석탄은 123%로 각각 장성하였다.

또한 식료품 공급에서 간장은 108%로, 된장은 106%로, 식용유는 106%로, 두부는 108%로, 육류는 113%로, 란류는 121%로, 수산물은 104%로, 당과류는

166%로 각각 장성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중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1949=100)

	1956	1960	1964
식료 상품	164	413	574
그중 수산물	74	138	208
식용유	113	374	12.9배
채 소	519	28배	39.2배
과 실	517	17배	14배
비식료 상품	192	8.6배	12.3배
그중 기성복	491	42배	61.6배
내의류	349	17배	29.7배
양말류	161	467	8.6배
신발류	164	368	5.6배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좋고 다양한 일용 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이 급격히 장성되고 있는 데 비추어 그것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1964년에 상업망 수와 그 능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이 해에 상업망 수는 105%(그중 상점 수는 104%, 식당 수는 111%)로, 그 능력은 110%(그중 상점 능력은 108%, 식당 능력은 123%)로 늘었다.

이와 함께 협동 농장이 관리 운영하던 상점 및 편의 봉사망을 국가 상업으로 전환하며 단일한 국가 상업 체계로 개편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상점의 소유 형태별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상업망의 소유 형태별 구성 (%)

	1963년말 현 재	1964년말 현 재
총 계	100	100
그중 국영 상업망	65.6	97.8
협동 상업망	34.4	2.2
상 점	100	100
그중 국영 상점	61	97.5
협동 상점	39	2.5
식 당	100	100
그중 국영 식당	99.4	100
협동 식당	0.6	—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농촌 상업망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9%로 증가되였으며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량은 전년에 비하여 비날론 직물은 468%로, 인견 직물은 153%로, 모직물은 133%로, 외투는 107%로, 기성복은 130%(그중 학생복은 116%)로, 내의류는 132%(그중 편직 내의는 126%, 직물 내의는 156%)로, 양말류는 122%로, 신발류는 111%로, 빨래 비누는 105%로, 세수 비누는 128%로, 학습장은 143%로, 담배는 125%로, 라지오는 868%로, 시계는 336%로, 재봉기는 199%로, 가방류는 156%로, 옷장 및 이불장은 215%로, 찬장은 281%로, 전구는 120%로, 도자기류는 140%로 각각 장성되였다.

또한 식료품 공급에서 간장은 126%로, 된장은 109%로, 식용유는 129%로, 수산물은 115%(그중 생선은 137%)로, 과자류는 116%로, 당과류는 250%로 각각 장성되였다.

또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량도 전년에 비하여 훨씬 늘었다.

1963년에 비한 1964년 중요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량의 장성

	식용유	육류	란류	수산물
탄광 지구	118	186	317	113
광산 지구	133	129	229	132
기계 공업 지구	104	192	315	108
림업 지구	145	190	121	117
제강 지구	121	237	120	106

이 해에 사회 급양망의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13.3%로 장성되였으며 청량 음료의 공급량은 117%로 늘었다.

이 해 사회 급양 부문에서 자체 가공품의 비중은 73.1%를 차지하였으며 이 부문 일꾼들의 봉사성이 더욱 높아졌다.

1964년 수매 부문에서는 수매 사업에서 국가와 농민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위탁 수매, 이동 수매, 교환 수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각종 교자재류와 농업 부산물 등 온갖 수매 원천을 남김 없이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해에 수매액은 1963년에 비하여 110%로, 그중 계획 수매 총액은 104%로, 자유 수매 총액은 123%로 각각 장성되였다.

무 역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1964년에 대외 무역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대외 무역은 조선 로동당의 대외 정책의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계속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면서 동남 아세아 나라들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그리 하여 이 해에 우리 나라의 무역액은 1963년에 비하여 106.8%로 장성되여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크게 복무하였다.

무역의 장성 발전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강화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과의 련대성이 가일층 강화되였다.

1964년도 우리 나라 무역은 그 수출입품 구성에서 일련의 변화를 가져 왔다.

수출에서 가공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되고 원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였다. 1961년에 비하여 1964년에 수출

에서 기계 및 설비는 1.6%로부터 3.9%로, 흑색 및 유색금속은 47.2%로부터 49.9%로 장성된 반면에 광물류는 12.4%로부터 11.5%로 저하되였다.

수출품에서는 공작 기계, 전기 기자재, 공구류, 세멘트를 비롯한 화학 제품, 각종 흑색 금속 제품, 유색 금속, 마그네샤 크링카, 도자기, 일용 생활 필수품, 고려 홍삼 및 그 가공 제품, 약재, 잎담배, 과실, 농산물 및 농산 제품, 수산물 등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품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부 특수 기계 및 설비, 원유 제품, 고무, 콕스탄, 망간철, 탕그스텐, 린회석, 양모, 사탕들과 기타 공업 원료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수입에서 기계 및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부터 21.2%로, 각종 광물류는 6%로부터 4.6%로, 화학 및 고무 제품은 11.5%로부터 11.8%로 그리고 농부산물은 9.1%로부터 2.1%로 변화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 기계화의 촉진 그리고 운수 공업의 발전에 따라 1964년에 1963년에 비하여 공업 연료인 원유 제품의 수입은 117%로 장성되였으며 콕스탄 수입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1964년도 수출과 수입에서 중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 총계	100	수입 총계	100
그중 기계 및 설비	3.9	그중 기계 및 설비	21.2
광물류	11.5	연료 및 연유	22.1
흑색 및 유색 금속	49.9	광물류	4.6
화학 제품	6.0	화학 및 고무 제품	11.8
농부산물	5.9	농부산물	2.1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들과는 물론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1964년에는 새로 화란, 우루과이, 오지리에 정부급 및 촉진 단체급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역을 진행하였다.

1964년에 대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우리 나라에서는 무역항 시설들의 장비를 부단히 개선 확장하였으며 그 능력을 현저히 높이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박은 물론 일본, 영국, 희랍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나라 선박들이 우리 나라 항구에 입출항하였는바 선박 입출항 척수는 1963년에 비하여 133.5%로 장성되였으며 무역 화물 순환 톤수는 130%로 증가되였다.

재 정

국가 예산

1964년도 국가 예산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제시한 력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성과 있게 집행되였다.

1964년도 국가 예산 수입은 34억 9,878만 원으로서 계획을 101.9%로, 지출은 34억 1,824만 원으로서 계획을 99.5%로 각각 집행하였다.

국가 예산 수입은 1964년에 전해에 비하여 111%로, 1960년에 비하여 173%로, 1956년에 비하여는 353%로 장성하였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964년도 국가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98%, 주민 세금 수입은 2%를 각각 차지하였다.

국가 예산 수입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수입 총액	118.8	143.4	156	173
그 중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	118.7	143.5	156	173

국가 예산 수입에서 기본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 수입금은 전년에 비하여 142.2%로, 국가 기업 리익금은 113.9%로 장성되였다.

국가 예산 수입 구성

	1959	1960	1962	1964
국가 예산 수입	100	100	100	100
그 중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	97.8	97.9	97.9	98
주민 세금	2.2	2.1	2.1	2

1964년에 협동 농장들에 대한 현물세의 면제를 비롯하여 인민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일련의 시책들이 실시된 결과 수입 원천이 적지 않게 축감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수입은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 소득의 증대로 하여 계속 장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 해 혁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적 수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도 8,054만 원의 화폐 축적을 가져 왔다.

1964년도 국가 예산 지출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13%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해 인민 경제 부문에 23억 7, 721만 원의 자금이 지출되였다.

당의 방침에 따라 국가 예산은

중공업의 발전에 1963년의 1.2배로 장성된 기본 건설 자금을 공급하였다.

공업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 부문에는 공업 건설 투자 총액의 23%, 기계 제작 공업에는 중공업 건설 투자 총액의 14.7%에 해당하는 기본 건설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전력 공업, 화학 공업에도 많은 자금이 돌려졌다.

특히 1964년도 국가 예산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1억 7,650만 원의 기본 건설 투자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위대한 전진을 개시하였으며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의 발전과 장성하는 국민 소득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과 사회적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1964년에도 거액의 자금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이 해의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도 례년과 같이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국가에서 거액의 추가적 혜택을 받았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강령적 과업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에 따라 이 한해 동안에 대규모적인 농촌 건설 투자액을 제외하고도 협동 농장원들에게 1963년의 2배에 달하는 국가적 혜택이 돌려졌다. (《물질 문화 생활》편 참조)

【지방 예산】 지방 경제 건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지방 예산은 해마다 장성되고 있는바 1964년도 지방 예산의 규모는 15억 9천 314만원으로서 전년의 1.2배로 장성되였다.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964년도 지방 예산 수입은 계획을 106%로, 고정 수입은 105.6%로 초과 집행되였다.

지방 예산 지출은 군의 역할의 제고, 지방 공업의 발전,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촉진에 집중적으로 돌려졌다.

1964년도 지방 예산에서 인민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09%로 장성하였다.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공고화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한 지출은 전년의 110%로, 교육, 문화, 보건을 비롯한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의 108%로 각각 장성되였다.

부단히 발전하는 지방 경제에서 들어 오는 수입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는 지방 예산은 1964년에 자체 수입으로 장성하는 자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도 거액의 수입 초과금을 중앙에 납부하였다.

금 융

1964년에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은행 체계를 개편하며 은행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게 가일층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국립 건설 자금 은행이 페지되고 새로 산업 은행이 창설되였으며 은행 기관들의 임무와 기능이 새로 규정되였다.

【중앙 은행】 새 은행 체계 하에서 중앙 은행은 화폐의 발행 및 화폐 류통의 조절, 기본 건설 자금과 대보수 자금 및 모든 국가 기업소, 기관에 류동 자금을 비롯한 예산 자금의 공급, 무현금 결제의 조직 집행, 로임 자금의 지불, 나라의 모든 고정 재산에 대한 화폐적 등록 및 감독, 귀금속의 유일적 취급, 국가 수입금의 수납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리 하여 중앙 은행은 나라의 재정 거래를 포괄적으로 장악하고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자금 공급: 1964년에 중앙 은행은 전년에 비하여 15.8%가 더 많은 7억 만원의 국가 기본 건설 자금을 비롯한 거액의 대보수 자금을 보장하였으며 자금 공급을 통한 통제와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전년에 비하여 13.0% 더 많은 예비를 탐구하였다.

국가 기업소, 기관들에 대한 류동 자금을 유일적으로 공급하게 된 중앙 은행은 1964년에 기업소, 기관들에 깊이 들어가 그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절약 제도를 강화하여 내부 예비를 전면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국가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데 대한 당의 요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중앙 은행은 무현금 결제 조직의 개선과 결제 및 지불 규률의 강화, 2 차에 걸친 전국적인 상쇄 결제를 통하여 결제 자금의 회전 일수를 단축시켰다. 1964년에 결제 자금의 회전 일수는 전년에 비하여 1.3일이나 단축되였다.

화폐 류통: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장성, 이에 따르는 상품 류통의 장성으로 현금 류통의 수요는 현저히 장성하였다.

증대되는 현금 류통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 은행은 화폐 류통의 계획화 및 조직화 사업을 적극 개선 강화하였다. 특히 1963년 하반년부터 상품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상품 판매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함으로써 1964년에 소매 상품 류통의 장성보다 상품 판매 수입의 장성이 1961년에 비하여 8.9%나 앞서게 되였다.

국제 결제: 중앙 은행은 무역 은행을 통하여 국제 결제도 조직 진행한다. 우리 나라의 대외 관계와 대외 무역의 확대 발전에 따라 국제 결제 업무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1964년 말 현재 우리 나라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과 동남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은행들과 지불 거래를 진행하였다.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새은행 체계 하에서 중앙 은행은 나라의 모든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였다. 결과 국가의 모든 고정 재산을 장악하고 그것을 더 잘 애호 관리하며 그 리용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게 되였다.

1964년에 전체 근로자들이 고정 재산을 애호하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동원됨으로써 필요 이상 가지고 있거나 리용률이 낮은 고정 재산을 얻어 내여 국가에 379만 7천 원의 리익을 주었다.

특히 이 해 고정 재산 애호 월간에 만도 못 쓰게 된 설비를 재생 리용함으로써 국가에 593만2천여 원에 달하는 리익을 주었다.

【산업 은행】 새로 창설된 산업 은행은 1964년 5월 1일부터 자기 업무를 개시하였다.

산업 은행은 인민 경제 모든 기업소와 기관들에 대한 단기 대부 업무를 유일적으로 담당 수행하며 저금과 국가 보험 업무도 취급한다.

산업 은행은 또한 모든 협동 농장들에 자기 출장소를 두고 그를 통하여 협동 농장들의 재정 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농촌 신용부 업무와 개인 송금 업무도 담당한다.

그리하여 산업 은행은 저금 및 국가 보험과 협동 농장의 결제 업무를 통하여 유휴 화폐 자금을 동원하여 그것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대부하고 재정적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협동 농장들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공고히 하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게 이바지한다.

대부: 우리 나라에서 대부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편되였다. 1964년 6월 4일에 공화국 내각은 결정 제 39호로 새 대부 제도의 내용과 방법들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해 8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한 대부 업무가 개시되였다. 새 대부 제도는 종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내용을 가진 단기 대부이며 장기 대부는 폐지되였다.

종전의 대부는 기업소의 경리 운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자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하나였다면 새 대부는 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국영 기업소인 경우) 또는 자체 자금(협동 기업소 경우)으로 경리를 운영하는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결함으로하여 부과된 경제 계획 수행에서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이 일시 부족되여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장하며 통제하는 수단으로 리용된다.

협동 기업소와 수매 상점들에 대하여는 경영 활동의 계절성과 관련하여 자체 자금을 초과하는 추가적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에도 대부한다.

이와 같이 새 대부는 기업소에서 례외적으로 제기되는 일시적인 추가적 소요 자금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계획 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기업소의 경영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새 대부 제도는 벌써 그 우월성이 발현되여 대부 받은 기업소들의 재정 활동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협동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 산업 은행의 창설은 협동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에서 큰 전변을 가져올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된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제시한 강령적인 과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업 은행은 자기 출장소를 통하여 협동 농장의 결제와 현금 출납 업무를 수행하며 부기 계산 사업을 비롯하여 재정 계획의 정확한 작성과 그 집행을 지도 통제하며 전반적인 재산 관리 사업을 감독한다. 이리하여 협동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저금: 산업 은행은 각 시, 군 지점과 주민 밀집 지대에 설치되고 있는 저금소와 협동 농장 출장소들을 통하여 저금 업무를 수행한다.

저금망을 주민들 속에 더욱 접근시켜 그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가두와 농촌에는 저금 대리인을 두고 큰 기관 기업소들에는 저금 대리소를 조치하고 있다.

저금 체계로서는 산업 은행 체계와는 따로 체신성 체계가 있는 바 체신소와 체신 분소들에서 저금 업무를 취급한다.

각 저금망들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금 종류에는 보통 저금, 정기 저금, 준비 저금, 생활 향상 저금, 추첨 저금들이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민 생활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인민들의 저금 열의는 계속 높아졌다. 1964년 말 현재 저금 잔고는 1963년 말 잔고에 비하여 143%로, 1960년 말 잔고에 비하여는 273.5%로 장성하였다.

저금 잔고의 장성 (1960=100)

1961	1962	1963	1964
156	113	191	274

국가 보험: 국가 보험도 내각 결정 제 23 호에 의하여 재정성 소속으로부터 산업 은행에 넘어 왔다.

국가 보험 업무는 산업 은행 시, 군 지점과 협동 농장 출장소, 그리고 매개 기관 기업소에 배치되여 있는 국가 보험 대리인들을 통하여 수행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 보험에는 재산 보험(의무적 재산 보험, 자원적 재산 보험), 인체 보험(혼합 인체 보험, 의무적 려객 보험), 대외 보험(화물

운수 보험, 선박 보험, 재보험) 등이 있다.

1964년 국가 보험 수입 계획은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주민들의 체계적인 생활 향상으로 초과 수행되었으며 국가 보험료 수입은 총체적으로 1963년에 비하여 112.2%로 장성하였다.

국가 보험료 수입의 장성 (%)

	1960	1961	1962	1963	1964
재산 보험	100	103.8	119.3	141	158.4
혼합 인체 보험	100	133.7	144.3	163.6	185.6
의무 려객 보험	100	123.8	168.4	176.5	185
대외 보험		100	110.5	232.3	240.6
계	100	121.3	136	156	175.2

로 동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촉진됨에 따라 인민 경제의 규모와 범위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로력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로동 행정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의 방침과 수상 동지의 교시에 따라 1964년에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는 한편 비생산 부문에 비한 생산 부문 로력의 비중을 계속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력 조직】 1964년 말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재적 종업원 수는 209만 2천 499 명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16만 8천 788 명이 증가되였다.

1964년에 비예산제 부문 평균 재적 종업원 수는 1960년에 비하여 138%로 증가하였다. 그중 공업 부문에서는 127%,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121%, 농업 부문에서는 132%로 각각 증가하였다.

인민 경제 부문별 평균 재적 종업원 수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총 계	100	217	221	311	561	720	776
공업 부문	100	158	106	189	450	550	570
농업 부문		100	333	314	569	808	753
기본 건설 부문		100	111	161	205	242	249
운수 부문			100	112	146	162	179
체신 부문			100	105	124	145	170

종업원 수의 장성과 함께 종업원 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 났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관리 및 비생산 부문 로력을 극력 축소하여 그를 생산 부문에 돌리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녀성들을 광범히 인입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본 생산 부문 로력이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녀성 로력의 비중은 38.5%로서 전년 말보다 2.3%나 더 높아졌다.

특히 1963년 1월에 채택한 농촌 로력을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 결정을 계속 관철한 결과 1964년에는 13만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에 진출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은 모내기와 김매기를 위한 15일 전투와 추수를 위한 10일 전투에 동원되여 1천 500만 공수에 달하는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로동의 기준화】 1964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안이 광범히 도입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불합리한 로동 정량을 재 사정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로동 정량이 제정되였다.

이와 함께 유일 로동 정량 제정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는바 1964년에 유일 로동 정량 총 건수는 25만 7천여 건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로동 정량 총 건수중 유일 로동 정량이 차지하는 몫은 14.3%로 높아졌다.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의 개선, 로동 정량 사업의 개선은 로동에서의 도급제 참가률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1964 년의 도급제 참가률을 보면 공업 부문에서만도 머리 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은 74.6%로, 인시 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은 60.6%로 각각 장성하였다.

또한 로동 정량 수행률은 공업 부문에서 125%로,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113%로 각각 초과 수행하였다.

【로동 임금】 당과 국가에서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 임금을 계통적으로 높여 왔다.

1964년에도 당과 국가는 국민 소득의 체계적인 증대에 기초하여서와 그리고 새 환경에 적응하게 로동 보수 형태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을 전년에 비하여 102%로,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당 수입을 104%로 높였다.

당과 국가의 부단한 배려에 의해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통적으로 장성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 장성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100	183	191	301	706	736	752
	100	105	165	386	403	412
		100	158	370	386	392
			100	234	244	248
				100	104	106
					100	102

【기술 기능 향상】 기술 혁명을 촉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자, 기능자 양성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결과 각종 기술 기능 학습반 체계가 더욱 정비 강화되였으며 이에 많은 근로자들이 망라되여 양성되였으며 또 양성되고 있다.

각종 기술 기능 학습반과 이에 망라된 인원수(1964년 말 현재)

	학습반수(개)	인원수(명)
단기 기능 전습반	1 920	134 664
기능 전습반	33 307	632 746
기술 학습반	5 879	112 333
합 계	41 106	879 743

1964년에 기술 학습반에서 양성한 기사, 기수 수는 2천 875명(그 중 기사 수는 929 명)이며 기능 수준이 한 등급 이상 높아진 기능공 수는 13만 9천 967 명에 달한다.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강화된 결과 1964년에 7만여 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새로 양성되여 1964년 10월 31일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총 수는 29만 3천 506 명에 달하였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 로동자들과의 창조적 협조가 강화된 결과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러한 결과 1964년에 공업, 기본 건설, 운수 부문에서만도 7만 1천여 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이 생산 공정에 도입되였다.

이 해 로동 행정 사업이 더욱 개선 강화되고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공업 부문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12%로 장성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의 급격한 장성을 가져왔다.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1956	1960	1962	1963	1964
100	140	157	164	184
	100	112	117	132
		100	104	117
			100	112

【로동 보호】 1964년에 공화국 내각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백방으로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당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로동 보호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 내각은 1963년 11월 26일 채택한 내각 결정 제 78 호 《로동 보호 물자의 무상 대여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 조직과 함께 내각 결정 제 43 호 《석탄 공업 부문의 로동 보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4. 6. 24)를 새로이 채택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로동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함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그리 하여 1964 년에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로동의 성격과 작업 조건에 맞는 그리고 안전성과 위생 조건이 구비된 로동 보호 물자와 종전에 없던 새로운 품종의 로동 보호 물자들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 보호 사업이 개선되였으며 로동 보호 사업 체계가 현실에 맞게 정비 강화되였다.

또한 목욕탕, 녀성 위생 시설, 휴계실 등 수많은 문화 위생 시설들이 운영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녀성들의 편의를 위한 유치원, 탁아소망이 (전년에 비하여 유치원 수는 103%, 탁아소 수는 105%로) 확장되였다.

특히 녀성들에게는 77일 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가 보장되여 1964년에도 수 많은 녀성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직업 별 특성에 따라 년간에 14일 내지 28일 간의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와 국가 부담에 의한 정양 또는 휴양을 보장하였다.

1964년에 수십만여 명의 로동자, 사무원 및 농민들이 정양 및 휴양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같이 1964 년도 로동 행정에서 달성한 성과는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1964년 12월 14—19일)는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공업, 농업, 건설 등 직접적인 생산 부문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이 부문에서 특히 직접공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일체 유휴 로력을 남김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할 데 대하여서와 배치된 로력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로력 절약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발휘시키고 있다.

물질 문화 생활

조선 로동당의 인민적 시책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가일층 향상되였으며 특히 국가의 막대한 물질 재정적 방조와 혜택에 의하여 농민 생활이 더욱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1964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108%로, 1960년에 비하여 146%로, 1956년에 비하여는 313%로 장성하였다

생산이 부단히 장성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계통적으로 높아진 결과 1964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년에 비하여 102%로 장성되였다.

화페 임금의 장성 (%)

1964/1949	1964/1953	1964/1957	1964/1960
410	392	173	106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페 임금이 장성되고 상품 가격 및 료금 지수가 내려가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계통적으로 높아졌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의 장성(%)

1949년	1956년	1960년	1964년
100	98	203	218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인민적 시책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가정 부인들과 녀성 로력이 광범히 진출함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당 수입은 해마다 장성되였다.

로동자, 사무원의 세대당 현금 수입의 장성(%)

1964/1957	1964/1960	1964/1962	1964/1963
176	114	105	104

협동 농장원의 세대당 현금 수입의 장성(%)

1964/1957	1964/1960	1964/1963
185	149	109

1964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협동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그들을 온갖 세납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강도, 량강도의 모든 시, 군과 평양시 선교 구역, 평안남도 회창군, 신양군, 평안북도 삭주군, 동창군, 벽동군, 황해남도 신원군, 황해북도 린산군, 연산군, 강원도 법동군, 세포군, 평강군, 함경남도 장진군, 대흥군, 수동군, 허천군, 함경북도 연사군, 무산군, 라진군, 청진시 부령 구역내 전체 협동 농장들과 이 밖에 일부 시, 군내 644 개 협동 농장들의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였다.

또한 이 해에 1961년 이후 국가 자금으로 협동 농장원들에게 지어준 농촌 문화 주택 건설비 1억 72만 원과 2천 200만 원에 달하는 각종 국가 대부금을 면제하였다.

증대되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더 잘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인민 소비품 공급량을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기성복은 116%, 내의류는 117%, 양말은 121%, 신발류는 122%, 재봉기는 125%, 라지오는 259%, 시계는 299%, 가구류는 186%, 간장은 108%, 된장은 106%, 물'고기는 104%, 당과류는 166%, 육류는 113%, 란류는 121%로 각각 장성시켰다.

또한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이 해 평양시 건설자들이 건설한 다층 문화 주택만 하여도 34만 2천 평방 메터나 된다.

장성하는 국민 소득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사회적 복리 증진과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1964년에도 거액의 자금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례년과 같이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은 로동 보호 물자와 우대 물자의 무료 공급, 거의 무상이나 다름 없는 식량 공급, 주택 사용료, 연료비, 전등료, 교통비 등 여러가지 추가적 혜택을 받았다.

1964년에 사회 문화 시책비는 전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으며 거액의 자금이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 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 기술, 전문 및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례년과 같이 1964년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대학으로부터 유치원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철을 따라 옷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뿐만 아니나 당과 정부에서는 재일 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위하여 3 차에 걸쳐 8억 670만원(일화)에 달하는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였다.

이 해 당과 정부는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 위생 시설의 완비 및 증설과 함께 예방 치료 사업의 가일층의 개선과 제약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거액의 국가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더 발전된 의학 기술에 의한 무상 치료의 혜택을 받았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어머니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치원, 탁아소들이 확장되였는바 전년에 비하

여 유치원 수는 103%로, 탁아소 수는 105%로 각각 장성되였으며 149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유급 휴가를 보장 받고 있으며 녀성들은 77일 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를 받고 있다.

1964년에 정휴양소망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 및 협동 농장원들 수십만 명이 정양 또는 휴양의 혜택을 받았다.

휴양소 및 정양소 수

	1956년	1960년	1964년
휴양소 및 정양소 수(개소)	66	284	287
그 침대수 (대)	5 395	22 313	23 883
휴양 및 정양자 수 (천명)	127	359	…

교 육

우리 나라 인민 교육은 학교와 실 생활, 교육과 생산 로동을 긴밀히 결합하는 우리 당 교육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 행정에서 계속 강화 발전되고 있다.

1964년에 교육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와 교육 부문에 주신 교시들 그리고 당 및 정부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빛나는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해 당과 정부는 인민 교육 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조치들을 강구하였으며 거액의 자금을 이 부문에 지출하였다.

1964년 1월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4월 23일 내각에서는 결정 제 34 호 《고등 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고 7월 1일에는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새로운 대책을 취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께서 1월 28일과 2월 8일에 주신 교시와 5월 28일 해주 농업 대학에 주신 교시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데 더욱 훌륭히 복무할 수 있는 유능한 일'군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해 공부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 체계와 함께 특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체계가 확대 강화되였으며 교육 기관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나라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교원 집단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교수의 과학 사상성이 훨씬 높아졌다.

교육 사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분위기가 발양되고 혁명적인 교육 규률과 제도와 질서가 더욱 강화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각급 학교들은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더욱 튼튼하고 아름답게 꾸려지고 있다.

이 해 각급 학교 교원 집단은 청소년 학생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일'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수 교양 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당 정책 교양,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고귀한 열매를 거두었다.

1964년 10월 말 현재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하여 9,020 개의 각급 학교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공부하였으며 대학생만도 18만 5천 명이나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교육은 일체 무료 교육이며 고등 기술 전문 학교, 고등 기술 학교와 대학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초등 의무 교육제는 이미 1956년부터, 중등 의무 교육제는 195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가까운 년간에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1964년에 당과 정부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철을 따라 옷을 공급하여 주었다.

한편 재일 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으로 8억 670만원(일화)을 보내 주었다.

【보통 교육】 보통 교육 부문에서는 1964년 1월 3일 언어 학자들과의 담화 석상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국어 교육을 일층 강화하였다.

인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을 정확히 쓰고 발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에서는 물론 과외 및 교외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였으며 중학교들에서는 국어 수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또한 예능과 교원들을 보충 강화하고 학생들의 년령 심리적 특성과 취미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음악, 무용, 미술, 체육 등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체육 사업을 전 학교적인 사업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각 과목의 연구실과 실험실을 더 잘 꾸리고 실험 실습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자연 기초 과목에 대한 학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또한 실속 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과 실력을 부단히 높이였으며 지, 덕, 체를 겸비한 인간으로 훌륭히 자라나고 있다.

1964—1965 학년도에 인민 학교 수는 3,985교, 학생 수는 111만 3천 여 명이였으며 졸업생 수는 17만 3천 명이였다.

중학교 수는 3,217교, 학생 수

는 70만 4천 명이였고 졸업생은 25만 7천 명이였다.

공화국 내각은 1964년 7월 1일 결정을 채택하고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였다.

국가 부담으로 공장,기업소,농촌, 기관, 가두들에 새로 180여 개의 유치원이 설치되였다.

특히 농촌 유치원의 설비를 더 잘 갖추고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였으며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그 대렬을 강화하였다.

1964년 말 현재 유치원 총수는 5,847 개소이며 이에 망라된 어린이는 전년의 103%로 늘었다.

【기술 교육】 우리 나라에는 매 시, 군에 4~5 개의 기술 학교와 1~2 개의 고등 기술 학교, 그리고 큰 공장, 기업소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 기술 학교와 공장 고등 기술 학교가 설치되여 있다.

1964—1965 학년도에 1,144 개의 기술 학교에서 28만 5천명, 464 개의 고등 기술 학교에서 15만 6천 명의 학생이 각각 공부하였다.

이 해 기술 교육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를 받들고 농업 부문 학교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일부 학교들을 개편하였으며(기술 학교,고등 기술 학교들 중 농업 부문 학교는 67% 이상을 차지) 지방의 경제 발전과 인민 경제 부문별, 직종별로 기술자, 중등 전문가를 충족시키도록 도시와 공업 지대 학교의 학과 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기술 학교들을 확장하고 그 교육 환경을 더 잘 꾸리고 교수 교양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였다.

이 해에 또한 기술 교육 부문에서는 1963년 7월 29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와 11월 15일 내각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12월 27일 내각 결정 제 88 호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였다. 결과에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들의 실습장(실습 농목장, 실습 공장)과 각종 실험실 및 연구실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과정안에 제시된 실험 실습을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다.

특히 농촌 지대 학교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1964년 상반년 기간에 만도 농업 부문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의 실습 포전은 년초의 약 4 배나 되는 1,230여 정보로 확장되였으며 가축과 가금 수는 2.5 배 이상, 각종 농기계와 뜨락또르 대수는 10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등 교육】 1964—1965 학년도에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하여 98 개의 대학에서 18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선진 과학과 기술을 탐구하였다.

1964년에 외국어 대학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포항 공업 대학을 새로 내오고 김 일성 종합 대학과 김 책 공업 대학, 평양 건설 대학, 함흥 의학 대학을 비롯한 일련의 대학들에 박사원을 새로 설치하였다. 고등 교육성 산하 18 개 대학에는 연구원이 설치되여 있다.

또한 대학들에는 27 개의 과학 연구소가 있다.

1964년에 고등 교육 부문에서는 1963년 5월 6일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 집행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1964년 4월 23일부 내각 결정 제 34 호 《고등 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대학생들을 현대의 최신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인재로 교양 육성하기 위하여 기사, 전문가의 전공별 수요와 학문 체계상 요구에 맞게 전공 학과를 재 확정하였으며 일부 대학 학과들의 수업 년한을 1학년 학생부터(공장 대학은 1, 2학년) 1년 더 연장하였다.

특히 1964년 1월 28일과 2월 8일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당적 지도가 강화되고 대학생 대렬이 질적으로 꾸려졌으며 후방 경리 사업이 개선되였다.

그리고 각 대학들에서 교수의 과학 사상성과 학구적 기풍이 더욱 높아지고 대학생들의 자체 학습과 과학 연구 사업이 일층 강화되였다.

특히 각 농업 대학들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와 해주 농업 대학에 주신 교시 (1964년 5월 28일)를 받들고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였다.

농촌 경리 발전에 적응하게 실습 농목장, 실험 연구실을 더 잘 꾸리고 특히 해당 지대 농업 생산의 특성, 영농 방법의 과학적 기초와 기술적 대책을 교수 요강에 포함하여 교육 내용의 과학 사상적 수준을 높이고 실습을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농업 대학들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강화 발전되고 있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는 기초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집중하였으며 과학 간부 양성 사업에서는 현대적 과학 기술을 가진 간부를 더 빨리 더 잘 양성해 내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추진되였다.

1964년에 각 대학들에서는 2만 500여 명의 기사, 전문가들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내보내였다.

공장 대학: 1964년에 각 공장 대학에서는 자기 특성에 맞게 리론 교육에 중심을 두면서 기초 과학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교수의 질을 높임과 함께 공장

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강좌를 단위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교수에 반영하였다.

북중 공업 대학, 신의주 공업 대학, 송림 공업 대학, 승호 공업 대학을 비롯하여 각 공장 대학들에서는 당면하게 제기되는 기술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수많은 기술 혁신안을 발기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으며 인민 경제 발전과 기술 혁명 수행에 이바지하였다.

1964년 공장 대학의 양성 지표에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채굴 공업 부문의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기계, 금속 부문 학생이 전체 학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해 37 개의 공장 대학에서 1만 2천여 명의 로동자 대학생들이 공부하였고 2,294명의 로동자들이 대학 과정안을 마쳤다.

내각 결정 제 34 호에 의하여 공장 대학은 그 수업 년한이 1년 더 연장되였다.

【사범 교육】 1964년에 사범 교육 부문에서는 각급 학교 교원 양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범 교육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대적인 실험, 실습 설비들을 완비하였으며 교수 방법을 개선하였다.

사범 교육 부문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교원 양성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현직 교원들의 재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학교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 힘썼다.

교수 교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 요강, 교과서들을 전반적으로 새로 작성 또는 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교원 양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및 기계 부문의 기술 과목 교원 양성을 전문화하는 방향에서 사범 대학의 학과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발전하는 인민 교육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범 교육의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켰다.

1964년에 사범 교육 부문 각 대학들에는 2년제 특설반과 외국어 교원 양성반이 새로 설치되였는데 2년제 특설반에는 4 개 학과에 180여 명의 학생들이, 외국어 교원들을 양성하는 단기 강습반에는 360여 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여 교육을 받았다.

1964년에 보통 교육성 산하 19 개 대학에서는 4만 여 명(통신, 야간 포함)의 대학생들이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평양 사범 대학, 순천 사범 대학을 비롯한 일련의 대학에 박사원과 연구원이 설치되여 있다.

이 해에 성 산하 대학들에서는 5천 여 명(통신 포함)의 졸업생들을 내였다.

【통신 교육】 통신 및 야간 교육에서는 기초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학과목 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개선하였다.

통신 교육에서 질서와 규률이 확립되고 전공 과목에 대한 실험 실습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 해에 통신 교육 부문에서는 농업 부문 통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조직하여 주었으며 각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 책임 일'군들이 통신 학생들의 등교 기일과 자체 학습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 주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가 및 경제 기관 관리 일'군들과 현직 일'군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주기 위하여 일부 대학과 고등 기술 학교들에 통신 학부 및 학과 재직 간부반이 설치되여 있다.

국가는 대학과 고등 기술 학교 통신 재직 간부반 졸업생들에게 해당 학과 지표의 기사, 기수, 전문가의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야간 및 통신 교육망, 공장 대학, 공산 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광범히 수립되여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하지 않고 중등 및 고등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1964년에 40만 1,977 명이였는바 그중 기술 학교 및 고등 기술 학교 학생은 6만 2천여 명이였고 대학생과 연구원은 8만 440 명이였다.

【성인 교육】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와 1964년 3월에 있은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받들고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및 기술 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였다.

근로 성인들의 생산 활동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성인 교육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인 교육 과정안, 교수 요강, 교과서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재 작성하였다.

그리고 교원들을 위한 강습회를 조직하고 근로자 학교 대상자들이 년말까지 자기 과정안을 성과적으로 끝마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테제와 교시는 성인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수 (단위 명, 1964년)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수	그 중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대학 및 연구원
인민 경제 총계	401 977	20 012	42 006	80 440
공업 부문	194 994	13 286	22 359	21 641
농업 부문	28 056	707	2 248	1 638
건설 부문	49 247	2 415	3 602	2 928

주: 농업 부문은 농목장, 농기계 작업소, 관개 유지 부문에 한함

상으로 무장시키고 최단 기간 내에 그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문화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며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가일층 촉진함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교육 도서 편찬 및 출판 사업: 1964년에 각급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교원용 참고 도서, 학생 과외 도서 등 1,190여 종의 3,128만 2천 여 부가 출판되였다.

그 중 고등 교육성 산하 대학에 망라된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 도서는 240여 종에 20만 4천여 부였다.

과 학

1964년에 과학 연구 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1964년 2월 17일 내각 결정 제 11 호에 의하여 사회 과학 부문 연구 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기관으로서 사회 과학원이 창설되였으며 경제 법학 연구소가 경제 연구소와 법학 연구소로, 언어 문학 연구소가 언어학 연구소와 문학 연구소로 각각 분리되였다.

1964년 2월 17일 공화국 내각에서는 경락 계통의 연구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결정 제 10 호를 채택하고 평양 의학 대학 경락 연구소를 개편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경락 연구원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이 해 4월 25일에는 조선 경락 학회가 결성되였다.

1964년 11월 27일에 농업 과학원 혜산 분원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또한 이 해에 산림 과학 연구원(1964년 5월 12일 내각 비준 제 352 호에 의하여)과 교육 과학 연구원(1963년 12월 27일 내각 결정 제 88 호에 의하여)이 각각 창설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학 연구 기관들이 있다.

【과학원】 1952년 10월 9일 내각 결정 제 183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연구 기관: 물리 수학 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생물학 연구소, 지질 및 지리학 연구소, 중앙 흑색 금속 연구소, 유색 금속 연구소, 중앙 연료 연구소, 규산염 연구소, 중앙 기계 공업 연구소, 천문대, 과학원 함흥 분원 (분원 산하에 무기 화학 연구소, 유기 화학 연구소, 고분자 화학 연구소, 중앙 분석소가 있다), 과학원 종합 공장.

【사회 과학원】 1964년 2월 17일 내각 결정 제 11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원 장 **허 석선**

연구 기관: 경제 연구소, 법학 연구소, 력사 연구소, 철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소, 문학 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전 연구소.

【농업 과학원】 1956년 2월에 농업 과학 연구원으로 창설되였다가 1958년 8월 18일 내각 결정 제 78 호에 의하여 농업 과학 위원회로 개편되였으며 그 후 1963년 8월 7일 내각 비준 제 505 호로 농업 과학원으로 개편되였다.

원 장 **김 계현**

연구 기관: 평양 분원, 원산 분원, 해주 분원, 경성 분원, 혜산 분원, 육종학 연구소, 토양학 연구소, 작물 재배학 연구소, 수의학 연구소, 사료학 연구소, 축산학 연구소, 농업 시설 공학 연구소, 농기계화 연구소, 농업 화학 연구소, 식물 보호학 연구소, 식물 생리학 연구소, 강계 채소학 연구소, 과수학 연구소, 잠학 연구소. 분원이 없는 도에 있는 지구 시험장과 연구소 산하 시험장 그리고 분원 산하에 2~3개 군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시험장이 있다.

【의학 과학원】 1963년 11월 5일 내각 결정 제 73 호로서 의학 과학 연구원(1958년 6월 16일 창설)이 조선 의학 과학원으로 개편되였다.

원 장 **최 응석**

연구 기관: 동의학 연구소(11 개 연구실, 200대의 부속 침대 시설), 위생 연구소(11 개의 연구실), 제 2 림상 의학 연구소(6 개 연구실), 수혈 및 혈액 연구소 (3개 연구실, 보존 혈액과, 급혈과), 약학 연구소(13 개 연구소, 2 개소의 약초 시험장), 광천 물리 치료학 연구소, 산업 의학 연구소, 정신 신경병학 연구소, 함흥 림상 의학 연구소, 함흥 결핵 연구소.

【경락 연구원】 1964년 2월 17일 내각 결정 제 10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원 장 **김 봉한**

연구 기관: 40여 개의 연구실이 있다.

【건설 과학 위원회】 1961년 7월 20일 내각 결정 제 118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위원장 **조 선영**

연구 기관: 건설 경제 및 기준 연구소, 건축 건설 연구소, 시공 기계화 연구소, 건설 재료 연구소, 지진 및 건설 지질 연구소, 건설 기계 연구소, 수리 공학 연구소, 생산 시험소, 중간 시험 공장들이 있다.

【산림 과학 연구원】 1964년 5월 12일 내각 비준 제 352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연구 기관: 경제림 연구소, 산림 경영학 연구소, 산림 보호학 연구소, 혜산 산림 시험장, 함흥 산림 시험장, 해주 산림 시험장, 화평 산림 시험장.

【교육 과학 연구원】 1963년 12월 27일 내각 결정 제 88 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연구 기관: 교육학 및 심리학 연구소, 일반 교육 연구소, 기술 교육 연구소, 교편물 및 실험 기구 설계 연구소들이 있다.

문학 예술

1964년에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1963년 4월)을 계속 관철하며 1963년 11월 5일과 1964년 1월 16일에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는 데 창조적 력량을 기울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작가 예술인들은 1930년대의 혁명 전통을 더욱 폭 넓고 심오하게 밝히고 혁명 투사—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창조하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영웅들, 로동 계급의 전형들, 조국 통일을 위한 북반부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과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화하는 것을 자기들의 작품의 가장 주되는 주제로 삼았다.

이 해의 문학 예술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의 특징은 우선 다양한 주제들이 개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 중편 소설을 비롯한 대 형식의 작품들이 례년에 비하여 더 많이 창조되었으며 수 많은 창작가들이 대 형식의 작품 창작에 착수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1964년에 우리 문학 예술 부문에서는 영화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각 부문의 창작가들이 동원된 결과 영화 예술은 실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수 많은 기념비적인 성과작들을 내놓았다.

1964년에 문학 예술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상성과 형상성이 현저히 제고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장성하는 미학적 수요의 수준에 더욱 접근하였다.

특히 소설과 영화 예술 작품들에서는 그 주제의 적극성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 세계의 추구를 통하여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 보다 높은 지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문학 예술 발전에 있어서 1964년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이 한 해에 작가 예술인들이 영웅 서사시적인 우리 시대의 혁명적 조류에 상응하게 참으로 혁명적인 문학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진지한 투쟁과 탐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표징은 특히 혁명적 주제의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업들을 천명하여 주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1964년 11월 7일 교시를 접수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그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진행한 토론회들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부문별 각 동맹 단체들에서 조직된 토론회들에서는 우리 문학 예술을 혁명 시대의 문학 예술답게 그 풍격을 더욱 높이기 위한 창발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이리 하여 1964년도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작을 창조할 수 있는 사상 미학적 토대를 튼튼히 축적하여 놓은 해였다.

1964년도에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사업도 계속 활발히 진행되였다. 세계 각국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는 세계 문학 선집의 번역 출판 사업이 계속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에 용감히 궐기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적 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번역 발표하였으며 또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영웅적 웰남 인민들을 비롯한 각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수 많은 전투적인 작품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또한 형제적 웰남 인민들은 우리 나라 인민상 계관 작품인 가극 《밀림아 이야기 하라》를 번역 상연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통한 형제적 친선과 교류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켰다.

1964년에 우리 나라 미술 작품들의 순회 전람회가 아랍 련합 공화국과 알제리를 비롯한 각국에서 진행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형 예술이 달성한 성과를 과시하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 평양 가무단의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 웰남과 캄보쟈를 비롯한 동남 아세아 지역 순회 공연은 로동당 시대의 《황금의 예술》을 온 세계에 성과적으로 소개 선전하였다.

이 해에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상설 서기국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비롯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왕래와 교류 사업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문 학

1964년에 문학 분야에서는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비롯하여 과거의 력사적 소재를 취급한 계급 교양 주제와 조국 해방 전쟁의 영웅들, 조국 통일과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 대한 주제, 그리고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한 수 많은 장편 및 중편 소설들과 서정 서사시, 극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1964년에 씨나리오 문학은 영화 예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해에 우리 문학은 작품의

사상 예술적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형상성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광범히 토론하였으며 그것을 창작에 구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 하여 일반적으로 이 해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그 주제의 적극성 뿐만 아니라 사상성과 형상성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4년에 문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또한 많은 작가들이 대형식의 작품 창작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의 문학 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그들의 사상 미학적 준비와 축적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리 하여 1964년은 앞으로 우리 문학에 크게 기여할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대한 혁신을 앞두고 더욱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충분한 근거를 주는 한 해였다.

우리 문학 운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특히 혁명적 주제의 작품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1964년 11월 7일 교시를 접수하고 그 실천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진행된 토론회 과정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 토론회는 우리 문학을 혁명적 내용으로 더욱 풍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의 사상 예술적 수준을 앞으로 한 계단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였다.

【소설 문학】 이 분야에서의 성과는 우선 무엇보다도 장편과 중편 소설들이 다양한 주제에 걸쳐 많이 창작된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서 우선 장편 소설 《청년 전위》(하) (림 춘추 작)를 들 수 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일대 서사시적 화폭을 펼치고 있는 이 소설의 중심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위대성과 풍부성을 구현하고 있는 주인공 삼손이를 비롯한 청년 전위들의 형상이 서 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직접 참가자인 이 소설의 작가는 당해 시대의 력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청년 전위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공산주의 투사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였다.

장편 소설 《고난의 력사》 제 1 부(천 세봉 작)는 1920년대 우리 나라 농민들과 청년들의 간고한 생활과 투쟁을 서사시적 화폭 속에서 보여 주는 력사적 주제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결코 력사적 사변들을 직접 작품의 슈제트 속에 인입시킨 력사 소설은 아니다.

이 작품은 각 계층의 중요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의 력사를 통하여 1920년대 초부터 1927년에 이르는 당시의 우리 나라 현실에서 가장 의의 있는 력사적 흐름들을 펼쳐 보이면서 조선 인민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문제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의 소설 문학에서는 특히 조국 해방 전쟁의 력사적 사변을 취급한 큰 형식의 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였다.

그 중의 하나로서 우선 조국 해방 전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부작으로 될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 제 1 부 (석 윤기 작)를 들 수 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전야로부터 대전 해방 전투까지의 첨예한 력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 미제 침략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와 만행 과정을 미군 장군들과 고관들에서부터 그들의 앞잡이들에 이르기까지의 각가지 군상을 통하여 적라라하게 폭로하는 한편 침략을 반대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모습과 애국주의 정신을 전사 박 세철을 비롯한 인민군 장병들과 각 계층 인민들의 슬기로운 형상을 통하여 구현하면서 폭풍의 시대, 혁명의 시대를 담당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 특질을 보여 주고 있다.

중편 소설 《포화 속에서》(김 재규 작)는 조국 해방 전쟁에 참가한 항일 투사인 사단장 진 훈의 지휘 하에 있는 마 동길 중대원들의 생활과 전투 행정의 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거대한 의의를 확인하였으며 우리 인민 군대의 영웅적이며 기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하고 있다.

중편 소설 《봄 소나기》(김 병훈 작)는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에 바쳐진 작품으로서 사회주의 농촌을 무대로 하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 세대들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이 밖에도 《평양 신문》에 련재된 농촌 계급 투쟁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 《청천강》 제 3 부(리 근영 작)가 끝을 맺았다.

1964년에 소설 부문에서는 또한 단편 소설 창작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였으며 그 문학적 사색의 깊이와 새로운 문제성의 제기, 형상성의 높이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보여 주었다.

담수 양어 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기술 일'군들을 형상화한 단편 소설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 (진 재환 작), 고산 지대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바치는 젊은 세대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 단편 소설 《령북땅》(리 병수 작), 우리 인민의 면면한 애국주의 전통을 형상한 단편 소설 《백두산 전설》(김 근오 작)과 리 윤영의 《발자국》, 최 시형의 《이른 봄》, 리 정숙의 《전진》, 백 철수의 《해당화》, 최 학수의 《어름장 밑에서 솟은 봄》, 리 항구의 《숫눈'길》, 류 근순의 《믿음》, 한 고갑의 《자랑》 그리고 신인인 설 주용의 《평범

한 일에 대한 추억》 등을 비롯한 수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해에 종합 단편집들인 《젊은 시절》과 《불타는 념원》 그리고 류 근순의 단편집 《지향》과 최 명익의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단행본들도 수다히 출판되였다.

【시 문학】 이 해에 시 문학에서는 쟌르와 형태들이 더욱 다양하게 개척되고 시인들의 개성도 더욱 명료하여 지고 다채로워졌으며 시'적 주제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였다. 그 중 서사시에서는 1920년대의 농민 투쟁을 주제로 한 박 명도의 《임진동의 종소리》,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노래한 박 산운의 《어머니의 웨침》, 천리마 시대 보건 일'군들의 높은 정신적 풍모를 형상한 전 동우의 《인간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다.

백 인준, 김 학연 합작으로 된 장시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천리마 시대의 의의와 본질을 폭넓고 심오하게 천명하였으며 시'적 구성의 째임새와 운률의 조화, 시'구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독자들을 감동시켰다.

또한 서정시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행복스러운 전경을 노래한 김 조규의 시초 《마을의 서정》, 조국 강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애국주의 감정을 노래한 상 민의 시초 《금강산 시초》,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일떠선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한 김 순석의 시초 《아프리카의 노래》, 1930년대 항일 빨찌산 투사의 고매한 정신 세계와 불굴의 투지를 노래한 리 호일의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자신을 길러 주고 참된 생활과 행복을 안겨 준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노래한 김 시권의 《어머니》, 당 중앙을 보위하는 초병의 영예와 자랑을 노래한 정 렬의 《호위병》,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의 영웅주의를 노래한 리 범수의 《나의 스승》,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전선 사령관의 슬기로운 모습을 노래한 오 영환의 《옛 전선 사령관》, 로동 청년들의 락천성과 투지를 노래한 김 죽성의 《청춘을 노래한다》, 의거 입북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락원을 직접 보게 된 한 남조선 기자의 조국 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노래한 허 우연의 《내가 디딘 땅》, 반제 투쟁에 대한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을 노래한 일 심의 《30분간》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해의 시 문학 분야에서는 특히 시인들이 혁명적인 가사 창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여 자기들의 창작적 력량을 기울인 결과에 우선 량적으로 수 많은 가사들이 창작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질이 현저히 높아졌다. 성과작으로서는 《비단배》(최 원근), 《노호하라 남해 바다여》(박 산운), 《락동강아 노호하라》(송 찬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해에는 종합 시집들인 《청춘 송가》와 《천리마 나라》를 비롯하여 안 룡만의 시집 《새 날의 찬가》, 리 호일의 시집 《수리개 날은다》, 양 운한의 시집 《황금벌에 서서》, 김 시권의 시집 《또다시 대오에서》, 김 병두의 시집 《첫 걸음》등이 출판되였다.

【극 문학】 극 문학 분야에서는 우리 시대의 인간에 대한 높은 공산주의적 사랑을 주제로 한 류 기홍의 《정성》, 일본에서 귀국한 한 과학자의 귀국 전후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형상화한 한 상운의 《나에게는 조국이 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과 토지 개혁의 력사적 사변을 반영한 신 고송의 《달래'벌에 동이 튼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 조 백령의 《높은 봉우리》, 농촌 기술 혁명을 취급한 지 재룡의 경희극 《별은 웃는다》, 로동 계급을 형상화한 김 명수의 《지하 전선》 등 장막 희곡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이 해에는 씨나리오 문학 창작에서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영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화 예술 부문 참조)

【아동 문학】 아동 문학에서는 낡은 사회 제도의 모순을 밝히고 착취자의 략탈적 본성을 폭로하면서 계급 투쟁의 불가피성과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승리의 필연성을 형상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원 도홍의 중편 동화 《보물의 분수》와 김 일성 원수의 창덕 학교 시절의 생활을 재현하면서 그이의 고상한 사상 성격적 특질과 고매한 도덕적 풍모를 단편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교양에 이바지한 강 효순의 장편 오체르크 《노을 비낀 만경봉》을 비롯하여 농업 협동화 시기의 반 간첩 투쟁을 묘사한 박 응호의 중편 소설 《사라진 그림자》, 남반부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린 엄 홍섭의 중편 소설 《마음의 노래》(중), 1930 년대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형상화한 박 승수의 서사시 《폭풍의 아들》 그리고 종합 시집 《새집들이》 등이 창작 발행되였다.

또한 이 해의 아동 문학 분야에서는 김 원종의 단편 소설 《폭풍의 아들》, 김 경태의 서사시 《조국 강산에 꽃이 핀다》, 함 영기의 서사시 《짚신과 꽃신》, 김 순석의 동시 《베네수엘라의 자크루비》, 윤 복진의 동시 《우물터에서》, 류 벽의 동화 《주먹 같은 벼 열매》 등 성과작들이 창작되여 아동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고전 문학】 이 해에 고전 문학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대 전기 및 설화 작품들을 력사적 시기와 인물들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고대 전기 설화집》(한 룡옥 편주), 리 규보, 박 지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우리 나라 고전 작가들의 문학 예술에 관한 미학적 견

해를 선역하여 수록한 《우리 나라 고전 작가들의 미학 견해, 자료집》(리 철화, 류 수 역) 임진 조국 전쟁 당시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지켜 용감히 싸워 위훈을 세운 영웅들인 리 순신, 김 응서, 곽 재우, 정 문부, 서산 대사 등 애국자들의 투쟁 업적과 공로를 형상화한 고전 소설을 주석한 《임진록》(문 순우 편주), 우리 나라 기행문 문학 발전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박제가의 《묘향산 기행》을 비롯한 6 명의 고전 작가들의 기행문 12 편을 수록한 《기행문 선집》(김 찬순 역), 우리 나라 국문 가사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을 수록한 《가사 선집》(정 렬모 편주), 우리 나라 계몽기 시기의 작품들 중에서 《치악산》을 비롯한 5 편의 우수한 소설과 계몽기 이후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등장하기 전 시기에 속하는 3 편의 작품을 수록한 《계몽기 소설집》(김 일성 종합 대학 문학 연구실 편집),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반일 의병 투쟁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한 류 린석의 애국적 정열을 반영한 100 여 편의 시를 수록한 《애국 시선》(류 철학 역) 등이 출판되였다.

【외국 문학】 외국 문학 부문에서는 이 해에 세계 문학 선집으로서 영국 부르죠아 사회의 도덕적 부패상을 예리하게 비판 폭로한 19세기 영국의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챨스 디켄즈의 장편 소설 《돔비와 아들》 (1) (박 시환 역), 19 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력사적 사변들의 배경 속에서 불행을 겪은 인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반 인민성과 부르죠아지의 반동성을 폭로한 프랑스의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빅또르 유고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 (3) (리 계수 역), 오노레 더 발자크의 창작 총서 《인간 희극》 중의 대표작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19 세기 프랑스 부르죠아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적라라하게 폭로한 장편 소설 《환멸》 (1) (박 우천 역) 등이 출판되였으며 이 밖에도 중국의 고전 장편 소설 《삼국 연의》 (5), (6) (박 태원 역)와 《쉘리 시선》 (김 종욱 역), 발자크의 중편 소설 《절대의 탐구》(송 교천 역), 《두보 시선》 (김 상훈 역), 미국의 진보적 작가 스터우 부인의 장편 소설 《톰 아저씨의 집》 (김 광혁 역), 《중국 소년 단편집》 (김 정식 역) 등이 번역 출판되였다.

이 밖에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형제적 웰남 인민의 전투적인 문학 작품들을 비롯하여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작가들의 단편 소설과 시 작품들이 수 많이 번역 출판되였다.

【평론】 1964년에 문학 평론 분야에서는 김 일성 동지께서 혁명 문학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1963년 11월 5일과 1964년 1월 16일 그리고 1964년 11월 7일의 력사적인 교시들을 문학 예술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데 주되는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의 문학 평론에서는 1930년대 혁명 투사들의 전형적 성격 창조에서 제기되는 문제,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 문제, 조국 해방 전쟁의 영웅들의 성격 창조 문제, 조국 통일과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반영하는 작품들에서 개척하여야 할 미학 실천적 문제들을 계속 론의함으로써 창작 실천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혁명적 작품의 창작에서 예술적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형상성 문제와 관련된 평론들과 예술적 갈등에 대한 진지하고도 예리한 론쟁들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이 방면에서의 미학 리론적 원칙 뿐만 아니라 창작 실천상 문제에 있어서도 큰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우리 문학 예술의 형상성 제고를 위하여 문학 평론에서는 혁명적 랑만성과 내면 세계의 추구, 사실주의적 묘사와 언어 기교 등 일련의 문제들에서 일정한 리론 실천적 전진을 이룩하여 놓았다.

또한 이 해에 우리 문학 평론은 우리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옹호하며 부르죠아 문예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그의 예리한 필봉을 돌렸다.

이 해에 박 종식의 평론집《새 시대의 문학》등이 출판되였다.

영 화

1964년도는 영화 예술에서 실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한 일대 비약의 해였다.

이 해에 영화 예술인들은 당과 시대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폭 넓고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혁명 투사들을 비롯한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적 성격과 그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동시에 영화 극작술 상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영화 예술로 하여금 당 사상 문화 교양 사업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전투적 사명과 기능을 가일층 제고시켰다.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 집단은 창조적 로력으로 이 해에 22 편의 우수한 예술 영화를 창작하였고 다른 3 편의 예술 영화를 거의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이 창조 집단은 김 일성 동지로부터 《혁명적 예술인》, 《천리마 예술 집단》, 사상 예술적으로 준비된 《모범 부대》라는 영예로운 칭호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해에 달성한 성과는 영화 작품의 량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예술에서 혁명적 현실이 요구하는 본질적이며 긴요한 새로

을 주제와 문제성들을 제기하고 이를 시대 정신의 높이에서 폭넓고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영화 작품의 현대성을 더욱 뚜렷이 제고한 것이다. 또한 이해에 달성한 미학적 성과의 하나는 우리 시대에 대한 송가적 주제들을 예술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전형적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한 것이다. 우리 영화 예술은 이해에 천리마 현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극작술의 탐구에서도 거일보 전진하였으며 영화적 언어의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구사로 하여 영화적 표현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 해에 영화 예술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또한 영화의 문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제고되였으며 연출가들을 비롯한 영화 창조자들의 예술적 기량이 보다 풍부해지고 배우들의 연기 형상 수준과 촬영, 미술, 음악 등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1964년에 창작된 예술 영화의 성과작으로 우선 《인민 교원》(씨나리오 허 용삼, 한 상운, 연출 공훈 예술가 천 상인, 촬영 공훈 예술가 정 규완, 지 영도 역 인민 배우 리 단)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 지 영도 교원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 통치하의 암담한 시기에도 오직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야학을 차려 놓고 모국어와 조국의 력사를 가르쳐 주었으며 민족적 독립과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당 정책 관철의 선두에 서서 싸우며 후대들을 공산주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그러한 혁명가—교육자의 전 생애를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 사업이며 후대들의 먼 장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륜리를 제기하고 그 주제를 심오하게 천명함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미제 야수들의 만행에 의하여 불구가 된 한 소년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는 우리 시대의 새 형의 인간에 대한 송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 륜리에 깊이 감화되게 하는 《독로강반에 핀 꽃》(씨나리오 김 종진, 연출 인민 배우 박 학, 촬영 홍 원일),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높이 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기백과 락천적 기상을 예술적으로 확증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서 긍정적 교훈을 시사해 준 《처녀 중대장》 (씨나리오 한 상운, 연출 최 익규, 촬영 전 봉추), 농촌에서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주인공들의 그 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사회주의 협동화를 위한 투쟁과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를 예술적으로 폭 넓게 형상화한 《대지의 아들》 제 3 부(씨나리오 주 동인, 연출 신 태욱, 촬영 공훈 예술가 박 병수),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당의 축산 정책 관철과 농촌 기술 문화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청년 선구자의 형상을 창조한 《끝 없어라 나의 희망》 (씨나리오 백 인준, 연출 공훈 배우 오 병초, 김 선교, 촬영 김 련학),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맡은 바 초소에서 주인답게 일하는 거기에 바로 행복과 장래 발전이 있다는 문제성을 제기한 《애착》(씨나리오 최 창학, 연출 한 성순, 안 문하, 촬영 송 광일),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사상으로 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끝까지 혁명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행복한 오늘에 와서도 나라의 주인으로 일하고 있는 혁명적 주인공의 생활로정을 진실하게 보여 주면서 오늘의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조직의 뿌리가 1930 년대에 공산주의 투사들에 의하여 마련되였음을 인식시키며 항일 빨찌산 투사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데 청춘의 희열을 느껴야 한다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공청원의 노래》(씨나리오 박 승수, 연출 손 무표, 안 문하, 주 동월, 촬영 공훈 예술가 박 병수)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음악 무용극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무대극적 구성 체계를 영화적 표현 형식의 풍부성을 옳게 구사하여 훌륭하게 재 창조한 《밝은 태양 아래》 (원작 조 령출, 영화 연출 민 정식, 촬영 홍 원일), 일본에서 귀국한 소년의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구가한 《영이는 노래한다》 (씨나리오 임 현재, 연출 한 희철, 리 더규, 촬영 리 희성) 등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수다히 창조되였다.

또한 이 해에 2.8 영화 촬영소에서도 수 많은 예술 영화들을 창조하였는 바 그 중에서도 1930 년대의 녀성 혁명 투사의 성격 형상을 통하여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조국 해방의 사명을 자각한 소박하고 평범한 한 어린애의 어머니로부터 조국의 모든 어린애의 어머니로, 강의한 혁명 투사로 장성 발전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녀 대원》 제 1부(씨나리오 신 운호, 송 봉렬, 김 영식, 연출 장 운강, 촬영 최 태국, 리 효률),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전선에 나간 남편을 대신하여 후방을 철

웅성 같이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거듭되는 폭격과 파괴를 물리치고 전선 수송을 보장한 우리의 영웅적 녀성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전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감명 깊게 보여 준 《남강 마을 녀성들》(씨나리오 김 재호, 리 종렬, 연출 박 대식, 함 운봉, 촬영 최 태국),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형상화한 《뻘찌산의 뻐꾹새》(씨나리오 리 명원, 리 태화, 연출 림 신묵, 공훈 배우 량 진, 촬영 조 종식, 최 영국) 등이 성과작이였다.

1964년에 기록 영화 부문에서도 거대한 창작적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한 천리마 현실과 그 속에서 발휘하는 우리 인민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창조적 로력 투쟁 성과들을 반영하며 당 정책을 기동성 있게 형상적으로 반영한 우수한 기록 영화들이 이 해에 수 많이 창조되였다.

우선 인민상 계관 작품인 장편 천연색 기록 영화 《공화국 기치 만세》(1, 2부)(구성 연출 김 하연, 오 준서, 마 만익, 촬영 리 근배, 윤 득성, 엄 정철, 해설문 정 자언)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에서 준엄하고 영웅적이며 간고하면서도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전후 10 여 년간의 자랑찬 건설과 변혁의 로정을 대 서사시적인 구성 체계 속에 폭 넓게 개괄하면서 당과 수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이 쌓아 올린 위대한 혁명적 업적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구가함으로써 영웅 조선의 천리마적 기상을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

또한 산간 벽지에 자리 잡은 오곡 백과 주렁진 가을의 풍요한 결실을 통하여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현실의 진 면모를 진실하게 보여 준 《추치령의 새 노래》(씨나리오 김 문규, 연출 김 영상, 촬영 홍 일성)를 비롯하여 《독로강반의 새 노래》(씨나리오 리 정근, 연출 오 준서, 촬영 신 윤선, 김 예성)가 창조되였으며 《친선의 다리》(구성 연출 및 촬영 신 윤선), 《정일이에게는 조국이 있다》(구성 연출 김 인도, 촬영 김 인도, 진 석범), 《압록강반의 서사시》(씨나리오 김 문규, 연출 오 준서, 촬영 김 인도, 차 동원),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다》(구성 연출 및 촬영 김 석천) 등 기록 영화들도 정론성과 예술적 형상이 높이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 해에 과학 영화 부문에서도 《종자의 비밀》(씨나리오 및 연출 김 종원, 촬영 황 윤조), 《색채와 생활》(씨나리오 한 진성, 염 병택, 연출 및 촬영 염 병택), 《송충 잡이》(씨나리오 김 종복, 연출 최 정원, 촬영 리 명진) 등 성과작들이 제작되여 근로자들 속에서의 과학 기술 보급과 인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해의 영화 예술 분야에서는 또한 만화 영화, 인형 영화, 지형 영화의 창조 수준이 거일보 발전되였는 바 만화 영화들인 《코끼리와 곰》(책임 미술 장 인택, 씨나리오 및 연출 장 영환, 촬영 리 영호), 《친한 동무》(책임 미술 장 인택, 씨나리오 장 병신, 연출 최 창익, 촬영 리 윤선), 인형 영화 《제비 삼 형제》(씨나리오 및 연출 림 홍은, 책임 미술 안 인보, 촬영 강 기권), 지형 영화 《세 동무》(씨나리오 김 영권, 연출 장 영환, 책임 미술 김 운현, 촬영 리 영호) 등 우수한 작품들이 아동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연 극

1964년에 연극 예술 부문에서는 우선 강계 연극 극장이 창조한 《아득령》(희곡 리 웅렬, 연출 작 종우, 김 종협)을 성과작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극은 어렵고 힘든 일에 청년들이 앞장에 나서야 한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에 떨쳐 나선 각이한 계층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영웅적인 로동 계급으로 장성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이 해 연극 무대에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불구가 된 한 소녀에게 정성을 다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그를 완치시켜 씩씩하게 대지를 활보케 한 우리 시대 의료 일'군들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륜리에 대하여 형상화한 연극 《정성》(희곡 류 기홍, 연출 리 철홍, 박 대서, 송 영학, 신의주 연극단 창조), 한 재일 동포인 과학자가 조국의 품안에 안기여 보람찬 삶의 길을 찾고 과학 사업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연극 《나에게는 조국이 있다》(희곡 한 상운, 연출 강 봉원, 박 재옥, 평양 연극 극장 창조),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운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형상화한 동명의 장편 소설을 각색한 연극 《청년 전위》(원작 림 춘추, 각색 최 규형, 연출 김 더인, 정 . 연규, 국립 연극 극장 창조), 분계선 전방 초소에서 적들과 맞대고 있는 우리 인민군 한 개 중대의 생활을 통하여 관병 일치의 혁명적 원칙과 사랑으로 통일 단결된 조선 인민군의

숭고한 정치 도덕적 풍모와 불패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연극 《종대는 한 가정》(희곡 최 건, 리 이영, 연출 최 건, 조선 인민군 연극단 창조),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적들의 침해로부터 조국 강토를 수호하라고 호소하신 수상 동지의 방송 연설을 받들고 당의 지도 하에 유격대를 조직한 곡산 인민들이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사랑하는 고향 땅을 해방하는 투쟁 모습을 통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를 형상화한 연극 《곡산 빨찌산》(희곡 집체작, 연출 김 성보, 김 봉환, 사리원 연극단 창조),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친 조 군실 영웅의 빛나는 애국주의 사상을 형상화한 연극 《영웅 조 군실》 (희곡 지 재룡, 연출 최 달능, 원산 연극단 창조)등 작품들이 창조되여 공연 성과를 올리였다.

이 해의 극 예술 분야에서는 또한 인형극 《오누이》(허 일 작, 허 일, 김 창겸 연출, 인형 극장 창조)가 창조되여 아동들의 계급 교양에 이바지하였다.

음 악

1964년에 음악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 창작에서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구현할 데 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1962년 3월 11일 교시를 계속 관철하면서 현 시대의 요구에 상응한 혁명적 음악 작품 특히 혁명적 가요 창작에 창조적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해에 혁명적 음악 창작에서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창작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노래들도 수다히 창작되였다. 우선 가요 부문에서 반제 투쟁을 주제로 한 《혁명 전사 행진곡》(김 순석 작사, 한 시형 작곡), 《승리의 한길 뿐이다》 (리 봉학 작사, 김 혁 작곡),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주제로 한 《구국 투쟁가》(오 영재 작사, 함 홍근 작곡)을 비롯한 많은 노래들이 창작되였다.

또한 《노호하라 남해 바다여》 (박 산운 작사, 리 건우 작곡), 《조국으로 가는 길》 (박 승수 작사, 김 길학 작곡), 가요 합창들인 《원쑤의 가슴파에 불을 지르라》 (리 문섭 작사, 김 원균 작곡), 《꽃피는 락원을 철벽의 요새로》(서 수렴 시, 김 혁 곡)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 중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주제로 한 합창과 관현악 《노호하라 남해 바다여》는 강력한 서정 서사시적 폭과 깊이를 가지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호소성과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강렬하게 울려 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또한 《빨찌산 녀전사를 잊지 말라》(김 혁 곡)를 비롯한 남녀 중창곡들과 《청봉의 달밤》 (윤 영환 곡), 《강화도가 보인다》 (리 정언 곡), 《빨찌산의 안해》 (리 건우 곡)을 비롯한 독창곡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이 해에 민족 음악 부문에서도 가무 《사과꽃 피였소》 (리 근영 곡),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한 줌의 흙》 (김 경선 곡), 조국 통일을 주제로 한 가야금 병창 《노래여 전해다오》 (김 승환 곡)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가극, 창극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해에 새로 창조된 창극 《춘향전》 (대본 조 명출, 작곡 인민 예술가 리 면상, 공훈 예술가 신 영철, 지휘 공훈 배우 박 승완, 연출 공훈 배우 김 영희, 미술 공훈 예술가 서 옥린)은 지난 시기의 판소리 창극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한시조의 가사(대사)들을 현대인의 감정에 적합하게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민요 또는 신 민요의 인민적인 음조로 일관시킴으로써 판소리 《춘향전》의 시대적 제약성을 극복하였으며 주인공들의 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천명한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가극 《락동강반에 핀 꽃》 (대본 우 길명, 한 선숙, 집체 연출, 작곡 김 명록, 지휘 리 원웅)은 로력 영웅 박 관옥 교원의 공산주의적 미거를 가극 형상을 통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천리마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진실하게 보여 준 작품이다. 이 가극이 거둔 혁신적 성과는 그 주제 사상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음악 형식으로 천리마 시대의 인간 성격을 폭 넓고 심도 있게 형상화함으로써 가극에서 민족적 특성 문제를 발전시킴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데 있다.

이 해의 가극 창작에서는 또한 천리마 시대의 로동 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바다의 처녀들》 (대본 조 명출, 작곡 인민 예술가 김 옥성, 김 복윤, 강 기창, 리 동총, 지휘 장 철수, 연출 김 봉길, 안무 조 도현)의 창조적 성과가 첨가되였다. 이 가극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바다의 활무대에 용감히 진출한 주인공— 녀성 영웅의 생활과 성장 과정을 진실하게 추구하면서 그의 깊은 내면 세계와 다정 다감한 성격적 미를 심도 있게 표현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위업을 자각한 우리 시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락관주의를 진실하게 형상화한 데 있다.

1964년에는 영화 음악의 발전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이루워졌다.

예술 영화 《영이는 노래한다》, 《정방공》 (공훈 예술가 김 길학 작곡) 의 음악을 비롯한 일련의 영화 음악들은 작품이 제시한 주제 사상적 과제를 천명하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해명한 작품이다.

이 해에는 또한 수 많은 아동 가요들이 창작되여 아동들의 정서 교양에 이바지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지, 덕, 체를 겸비한 훌륭한 공산주의 역'군으로 자라나려는 꽃봉오리들의 지향과 랑만을 약동적으로 노래한 《미래의 주인》 (공훈 예술가 김 시영 곡, 리 원우 시)은 가장 성과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무 용

1964년에 무용 예술 분야에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무용 소품과 무용극들을 왕성하게 창작하며 민족 무용의 표현 수단들과 수'법들을 현대인의 감정에 적응하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조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련의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무용극 창작에서는 우선 《옥련못의 이야기》 (대본 인민 배우 최 승희, 안무, 연출 인민 배우 안 성희, 조 안무 리 선자, 김 현옥, 작곡 림 근명, 미술 김 재진, 국립 무용 극장 창조)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전설적인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는 이 무용극은 녀 주인공 옥련의 형상을 통하여 계급 사회에서의 지배자들의 억압과 전횡에 대한 조선 녀성의 반항과 고결한 절개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억압자들과 견결히 투쟁할 때만이 쟁취될 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보여 준 작품이다. 이 무용극의 창조적 성과는 민족 무용의 우아한 률동과 풍부한 표현 수단들을 개발하여 현대적 미감에 적응하게 구사하였으며 극적 행동 무용의 조화로운 구성으로써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조형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화한 데 있다.

무용극 《불멸의 노래》 (대본 집체작, 안무, 연출 공훈 배우 라 숙희, 작곡 김 영규, 미술 전 영식, 국립 예술 극장 무용단 창조)는 조 옥희 영웅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영웅적으로 조국을 지켜낸 조선 인민의 숭고한 정치 도덕적 품성과 애국주의 정신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무용극이 달성한 창조적 성과는 소여의 전형적인 극적 정황속에서 주인공의 성격과 내'적 체험을 심각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행동 무용과 여흥 무용, 그리고 정서적인 음악 선률을 통하여 조 옥희 영웅의 고매한 정신 세계를 폭 넓고 웅심 깊게 묘사한 데 있다.

이 밖에도 당의 정책을 받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녀성 천리마 기수—로동계급을 형상화한 무용극 《당의 딸》 (대본 김 택형, 주 재현, 안무 연출 인민 배우 안 성희, 작곡 림 근명, 최 재선, 국립 무용 극장 창조)이 창조되여 공연되였다.

이 해에 수 많이 창조된 무용 소품들 중에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눈보라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며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동지애를 장엄한 서사시적 화폭 속에서 형상화한 대 군무 《고난의 행군》 (안무, 연출 공훈 배우 정 더원, 공훈 배우 박 남주, 리 종린, 국립 예술 극장 창조)을 비롯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묘사한 쌍무 《붉은 바위》 (안무, 연출 황 경흠, 국립 무용 극장 창조),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불굴의 투지와 신심과 락천적인 생활을 감명 깊게 보여 준 남녀 군무 《빨찌산 춤》 (집체 안무, 연출, 국립 무용 극장 창조) 등 작품들은 그 혁명적 주제의 적극성 뿐만 아니라 무용 언어의 풍부한 개방과 민족 무용 형식에 의한 현대적 주제의 형상화에서 일보 전진하였으며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미 술

1964년에 조형 예술 분야에서는 작품의 사상성을 높이며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조적 력량이 돌려졌다.

특히 이 해에 혁명적 주제의 작품 창작에서 쟌르와 소재 범위가 더욱 확대되였으며 형상성이 제고되였다.

1964년에 혁명 전적지 및 현지 답사 귀환 전람회를 비롯하여 인물 초상 전람회, 아동 미술 전람회, 삽화 및 도서 장정 전람회, 도자기 전람회, 산업 미술 전람회 등 각종 쟌르에 걸치는 소품 전람회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 4,800여 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전시되였었다.

특히 이 해에 미술가들은 1965년에 개최될 제 8 차 국가 미술 전람회에 출품할 우수한 작품 초안들을 각 쟌르들에서 완성함으로써 우리 미술의 풍부한 결실을 준비하였다.

조선화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조선화의 표현 수'법들을 오늘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부합되도록 현대성을 구현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채색화 부문에서 현저한 전진을 보여 주었다.

유화 부문에서는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우리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적응하도록 선명하고 간결한 밝은 화풍을 확립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천리마 시대의 아름다운 현실을 진실하게 묘사한 110 여 점의 우수한 풍경화 소품들이 창작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각 부문에서는 앞으로 혜산에 세워질 대 기념비적 작품인 《인민 영웅탑》의 원형을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이 해에 대리석 조각 작품들인 박 응전 작 《1930 년대의 김 일성 동지》,

류 하률 작 《수상님의 어린 시절》과 김 정수 작《마 동희 동지의 동상》, 리 한윤 작 《박 달 동지의 동상》, 최 항윤 작 《리 제순 동지의 동상》등 예술성이 높고 그 소재 사용에서 훌륭한 기교를 보여준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출판화 부문에서는 현실적 주제를 색 판화로 훌륭하게 처리한 판화들인 박 영주의 《풍어의 달밤》, 홍 완식의《세소 어업》, 김 철강의《공화국 기'발》등과 아동들의 동심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함 창연의 아동화 《무럭무럭 자라라》, 그리고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는 우리 로동 계급의 슬기로운 기상을 성격적으로 표현한 류 환기의 포스터《당은 부른다》등이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해에 공예 부문의 창작에서도 다양한 쟌르의 개발과 형상성의 제고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 공예 부문에서 옥석 종류의 소재들이 보다 풍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인물,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소재의 석 조각들이 창작되였으며 도자기 공예에서도 총진사유, 흑색유, 록유 등이 창작되여 색유 도자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고 또한 유리 공예에서도 색 유리와 카트 기'법, 연마 기'법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예 부문의 수 많은 작품들 중에서 김 보현의 《총진사유 꽃병》, 문 관섭의《불투명 유리 재떨이》등은 도자기와 유리 공예에서 새로운 쟌르를 개척한 성과작이였으며 김 숙자의 자수 《김 일성 원수의 초상》은 자수의 특성을 잘 살리여 수령의 형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우수한 작품이였다.

영화 및 무대 미술 부문에서는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진실하게 구현하는 데서 주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한 영택의 영화 미술 《독로강반에 핀 꽃》과 무대 미술에서 서 옥린의 창극 《춘향전》및 김 태진의 무용극《옥련 못의 이야기》들은 작품의 극적 발전에 따르는 환경 조성을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우리 나라의 향토적 정서에 부합되게 훌륭히 형상화한 우수한 작품이였으며 이 밖에도 김 철현의 영화 미술 《인민 교원》, 김 혜일의 영화 미술《대지의 아들》제 3 부와《밝은 태양 아래》는 영화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술 평론 분야에서는 혁명적 주제의 작품 창작에서 제기된 미학 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한 평론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였을 뿐만 아니라 조 준오의《우리 나라 단청 미술에 관한 연구》와 박 경룡의《미술 인체 해부학》등 저작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여 호평을 받았다.

【문화 교류】 1964년에 우리 나라는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 일련의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였다.

특히 두 개 조의 평양 가무단의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 나라들에서의 공연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성 부상을 단장으로하는 우리 나라 문화 대표단과 평양 가무단은 1964년 9월 30일부터 1965년 1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로므니아, 알바니아,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 말리, 기네, 가나, 이라크, 웽그리아의 순위로 이 나라들을 방문하고 공연하였다.

한편 인민 배우인 지휘자 김 진영을 단장으로 한 평양 가무단은 1964년 12월 13일부터 1965년 1월 21일까지 캄보쟈와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방문, 공연하였다.

방문 기간 캄보쟈 왕국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평양 가무단 전체 성원들에게 《오피씨에 싸하메트레》, 《오피씨에 모니싸라폰》, 《쉬발리에 싸하메트레》등 5 개 종류의 훈장을 수여하였다.

평양 가무단은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로부터 이 나라의 최고 훈장인 로력 훈장 제 1 급을 받았다.

1964년도에 우리 나라의 인민상 계관 작품인 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웰남 민주 공화국에서 번역 상연되였다.

1964년도에 기네 공화국 제 2 국립 무용단(30 명, 6월 30일—7월 6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예술단(49 명, 10월 8일—10월 24일), 일본 마쯔야마 발레단(50 명, 10월 20일—10월 31일), 꽁고(브) 디아브와 가무단(21 명, 11월 3일—11월 14일), 아랍 련합 공화국 레다 민족 무용단(55 명, 12월 22일—12월 30일)과 뽈스까 연주가들(2 명, 9월 21일—10월 7일), 꾸바 연주가(11월 6일—11월 26일)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공연하였다.

군중 문화

【군중 문화 회관】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 교양 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군중 문화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연구 일반화하며 군중 문화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3 개의 도(직할 시)에 신설(1963년 12월)된 문화 회관은 1964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문화 회관들에는 예술 써클 지도부, 창작 지도부, 군중 문화 방법 연구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강연, 해설 사업과 함께 국가적 명절, 기념일, 문화일 등을 계기로 하여 각종 모임과 오락 사업, 근로자들 속에서의 생산 및 생활 문화, 언어 문화, 례의 도덕 교양을 위한 사업, 각종 예술 써클 지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내 예술 써클 핵심들을 위한 강습, 협의회, 경험 교환회가 광범히 조직되고 있다.

회관들에서는 이 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각종 교양 자료를 가지고 선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예술 써클, 기동 선동대,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 운영 경험 등은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 해에 회관들에서는 써클 지도자 단기 강습을 통하여 약 2천 명의 농촌 부문 예술 써클 지도자 (연극, 음악, 무용)를 양성하는 한편 각지 야간 예술 학교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더 많은 예술 써클 지도자 양성 사업을 보장하였다.

1964년에 야간 예술 학교는 270여 개 증설되였으며 이 해 말 현재 우리 나라 군 소재지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야간 예술 학교 수는 443 개에 달하였다.

이 해에 각지 야간 예술 학교에서 수 많은 예술 써클 지도자들이 자라났다.

도(직할 시) 군중 문화 회관에서는 생활 문화관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 1964 년에 307 개의 공장, 기업소 및 협동 농장 구락부와 181 개의 민주 선전실이 증설되였으며 특히 농촌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의 거'점인 작업반 민주 선전실은 1천 261 개가 증설되였다. 이리 하여 이 해에 1천 133 개의 구락부(그중 협동 농장 구락부는 337 개)와 3 만44 개의 민주 선전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들에서는 각종 문화 기재를 갖추고 있으며 써클 공연, 노래 및 무용 보급을 비롯하여 이야기 모임, 독서 감상회, 직관 선전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상, 문화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또한 매 시기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사업을 계급 교양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이 해에 협동 농장들에서는 사상 교양 사업을 농민들의 일터에 접근시켜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인 포전 선전실이 더 많이 설치되였다.

포전 선전실에서는 오락 및 기동 선전대 공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였다.

【도서관】 1964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 도서관으로서 국립 중앙 도서관과 12 개의 각 도(직할 시)립 도서관, 178 개의 시(구역), 군립 도서관이 운영되였으며 그 장서 수는 전년보다 79 만 3천 900 부가 더 많은 716만 4천 900 부에 달하였다. 또한 이 해에 시(구역), 군에 있는 37 개의 아동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이 밖에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 설치되여 있는 도서관 및 도서실이 운영되였다. 특히 이 해에 전 군중적 운동으로 농촌의 도서실을 꾸려 주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 결과 많은 협동 농장 도서실이 새로 생겼다.

각 급 도서관 일'군들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 대출》, 《기관 대출》, 《현장 순회 대출》 등 도서 대여 사업을 창발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이 외에 군중 속에 들어가 도서 해제 강연, 독서 감상회, 발표회 등도 많이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 도서관 외에 과학원 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과학자들을 위한 전문 도서관(도서실)들과 김 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을 비롯한 각 대학 도서관(도서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4년 11월 신포에서 진행된 제 3 차 전국 도서관 일'군 학술 토론회는 도서관 사업을 개선 발전시킴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각 대학 도서관, 도(직할 시), 시, 군 도서관, 성, 중앙급 기관 도서실 일'군들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강습을 통하여 이 부문 일'군들의 실무 수준과 자질이 더욱 높아졌다.

◇ 국립 중앙 도서관 국립 중앙 도서관(연 건평 1만 7천 평방 메터의 7 층 건물에 2천석의 좌석)에는 1964년 말 현재 장서 152만여 부가 소장되여 있다.

여기에는 문헌 열람실, 사회 과학 및 문학 예술 열람실, 기술 과학 열람실, 일반 열람실, 민족 고전 열람실, 학생 열람실, 특수 열람실 등 10여 개의 부문별 열람실이 있으며 무대 및 영사 시설을 갖춘 500 석의 군중 공작실을 비롯한 봉사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국립 중앙 도서관에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 고전만도 10여 만부가 소장되여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출판 력사를 말해 주는 고려 중엽의 목판본으로 된 《동의 지문》, 세계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활자본 《한노개록》 (리조 초기) 등 국제 도서 예술 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책들이 있다.

중앙 도서관은 외국의 도서관들과의 도서 교환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 해에 세계 50 개국의 130 개 도서관(전 해에 비해 7 개국, 50 개 도서관 증가)과 련계를 맺고 6천 800 종의 외국 도서, 신문, 잡지를 받았다.

이리 하여 중앙 참고 열람실에는 전해보다 10만 종 더 많은 약 30 만 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창의 고안 및 특수 문헌 관계 자료들을 갖출 수 있게 되였다.

이 해에 도서관에서는 과학자들의 연구 사업과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혁신 운동을 돕기 위하여 1만 건의 문헌 자료를 제공해 준 외에 기술 도면을 비롯한 많은 문헌의 주요 부분들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또한 135 개의 과학 연구 기관 및 생산 기업소를 대상으로 매 월 정규적으로 과학 기술 서적 내용을 통보해 주었으며 400 여 명의 개별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통신의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또한 이 해에 도서관 일'군들은 약 30 개의 생산 기업소에 나가 독자들과의 협의회를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도서들을 보장

하여 줌으로써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서관 군중 공작실에서는 이 해에 교정 열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회의 련속 강좌(철학)를 운영하였으며 과학 강연회, 독서 감상회, 작가들과의 상봉 등 각종 모임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에는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해에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독자들이 약 7천 부의 도서를 리용하였다.

【박물관 및 기념관】 1964년 말 현재 16 개소의 박물관과 8 개의 분관, 3 개의 기념관이 운영되였다.

조선 혁명 박물관, 조선 력사 박물관, 조선 미술 박물관, 조선 민속 박물관,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들은 민주 수도 평양에 있다. 지방에는 신천 박물관, 보천보 박물관, 묘향산 박물관들과 각 도(직할 시)에 력사 박물관이 있으며 중강진과 고산진에는 기념관이 있다.

이 해에 보천보 박물관의 분관으로서 김 일성 수상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족들의 혁명 투쟁 자료를 전시한 포삼 박물관이 량강도 후창군에 새로 생겼으며 황해남도 벽성군 사현리에는 해주 박물관 분관으로서 16 세기 우리 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교육 학자이며 진보적 정치 사상가였던 리 률곡 박물관이 새로 나왔다. 그리하여 1964년 현재 도 력사 박물관의 분관 수는 7 개에 이르렀다.

이 해에 4천 420여 점의 유물이 더 수집되였다.

조선 혁명 박물관, 조선 력사 박물관, 조선 민속 박물관들과 지방 박물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진렬 내용을 보충하고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 해에 박물관 일'군 학술 토론회와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부문별 강사 강습과 박물관 관리 일'군 강습이 각각 진행되였다. 1964년에 박물관 일'군들은 박물관의 진렬품을 통한 대중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 등지에 이동 전람회를 설치하고 해설 선전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4년 8월 28일 내각 비준 제 687 호에 의하여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은 조선 력사 박물관으로,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은 미술 박물관으로, 국립 중앙 민속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각각 개칭되였다.

◇조선 혁명 박물관 조선 혁명 박물관은 조선 로동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되였다. (건평 9,860 평방 메터)

1964년에 이 박물관은 약 200 점의 새로운 유물과 2천여 점의 자료들을 새로 보충함으로써 이 해 말 현재 1만 4천 500여 점의 귀중한 문헌, 유물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약 1,500점의 전시품을 진렬하였다.

전시품들은 19 세기 후반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근 100년에 걸쳐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특히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불멸의 력사적 업적에 관한 자료들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한 날인 6월 25일 14 주년을 계기로 이 박물관에서는 《반미 투쟁 사진 전람관》을 새로 꾸리고 개관하였다. 이 상설 전람관에는 미제의 침략 책동과 원쑤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보여 주는 1천 100 점의 사진, 그림들을 전시하였다.

1964년에 관람자 수는 외국 손님들을 포함하여 73만 5천 명에 달하였다.

조선 혁명 박물관은 김 일성 동지께서 탄생하고 성장하신 칠골과 만경대에 분관을 두고 있다.

◇ 보천보 박물관(연 건평 2천 800 여 평방 메터) 보천보 박물관은 1963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 승리 26 주년을 계기로 개관되였다.

박물관에는 김 일성 동지의 혁명 활동 초기부터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 과정 특히 1937년 6월 초에 있은 보천보 전투와 무산 지구 전투,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혁명적 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약 750 점이 전시되여 있다.

1964년에 항일 무장 투쟁과 관련한 수십 점의 유물과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였다.

이 해에 21만 5천 500여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이 박물관을 찾았다.

◇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1953년 8월에 개관)은 부지 면적 5만 평, 9 개 관으로 되여 있다.

1 호관에는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 해방 후 민주 건설을 위한 투쟁,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 준비 등 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다. 2,3 호 관에는 전쟁 시기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작전 예술과 그의 령도를 받은 조선 인민과 군인들의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4 호관에는 중국 인민 지원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자료들이, 5—8 호 관에는 원쑤 격멸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군종, 병종별 투쟁 자료들이 진렬되여 있으며 마지막 관은 공화국 전투 영웅들의 위훈을 보여 주는 자료들로 채워졌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강의성을 보여 주는 유물들이 1964년에 많이 수집 보충되였다. 그 중에는 공화국 영웅 리 수복이 1,211 고지에

서 싸울 때 직접 나무에 《차라리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지언정 고지를 사수하고야 말겠다》라고 새긴 유물(나무), 리 수복이 속한 중대원들이 화선에서 만들어 쓰던 장고, 전투를 앞둔 전호에서 전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면서 최고 사령관께 올릴 맹세문에 수표를 할 때에 쓰던 편지 전달통(편지를 넣을 수 있게 나무 속에 구멍을 뚫은 것)이 이채를 띄고 있다.

이와 함께 1,211 고지 용사들이 만들어 쓰던 국수 분틀이며 물통 등 생활 도구들도 수집되였는 데 이것들은 7 호 관에 전시되였다.

또한 동해 바다로 침입해 들어오다가 우리 인민 군대에 의하여 격추, 격침된 미국놈들의 비행기들과 전차 상륙정 1 대도 수집 보충되였다.

기타 일부 관들의 전시품이 보충 수정되였다.

◇ **신천 박물관** 황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는 신천 박물관(1958 년 8월 창립, 건평 1천 220 평방 메터)에는 100여 년 전부터 침략의 발을 들여 놓은 미제 야수들의 침략 과정을 력사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들 특히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황해도에서만도 12만여 명의 무고한 인민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미제 살인귀들의 식인종적 만행을 폭로하여 주는 각종 사진들과 유물들 및 도표들 약 2천 700 점이 소장되여 있으며 그중 680 여 점이 전시되여 있다.

1964년에 박물관 일'군들은 60여 점의 유물, 자료들을 새로 더 수집 보충하였다.

이 해에 15만 4천 350여 명이 이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그 중 이동 전람회를 통해 본 각지 협동 농장원들은 1만 4천여 명이였다.

◇ **조선 력사 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된 조선 력사 박물관에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19 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창조된 력사적 유물 10만 3천여 점이 소장되여 있다. 그중 800여 점이 원시 사회(구석기 및 청동기 시대), 노예 사회, 봉건 사회(3국 시기, 고려 시기, 리조 시기) 별로 사적 체계에 따라 진렬되여 있다.

1964년에 박물관은 140 점의 유물,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 해에 박물관은 전시품들을 보충하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전반적 체계를 개편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64년 8월 6일에 다시 개관한 박물관에는 수십만—수만 년 전 원시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쓰던 다섯 개의 돌, 새로 발굴한 청동기 시대의 끌, 방울, 돌괭이, 고조선 시기의 높은 제강술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 쇠도끼 및 도끼 거푸집(주형) 등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를 보여 주는 진귀한 유물들과 백제 시기 우리 나라 기후 풍토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킨 사실을 알려 주는 그림 《벽골제 관개 시설》, 모란봉 청류벽에서 발굴한 황금색 금동 보관, 금동 소나무 등 3국 시기의 과학, 문화, 기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 주는 유물 및 자료들이 더 진렬되였다. 또한 수나라, 당 나라의 침입을 격퇴할 때 고구려 인민들이 쓰던 철검, 철활촉과 고려 시기 금속 활자의 실물, 훈민 정음 창제와 관련한 책들, 우리 나라 동의학의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충되였다.

◇ **조선 미술 박물관** 1만여 평방 메터의 건평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조선 미술 박물관(1954년 9월 28일 창립, 1957년 처음 개관)에는 원시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창작된 고귀한 미술 작품들과 보조 자료들이 있는 데 그중 약 2 천점이 시기별, 작가별, 종류별로 나뉘여 26 개의 진렬실에 전시되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미술 문화의 전통을 보여 주는 전시품들 속에는 3 세기 중엽의 고구려 무덤 벽화를 모사한 안악 1,2,3 호 무덤 벽화 및 강서 무덤 벽화들과 16 세기 산수 인물화에서 뛰여난 리 상좌, 17—18 세기의 정 선, 19 세기의 장 승업, 20 세기의 안 중식 등 100여 명의 유명한 옛화가들의 작품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 후 사회주의 사실주의 기치 밑에 창조된 조선화, 유화, 조각, 출판화 등 각종 회화 작품들이 부문별로 전시되여 있다.

1964년에 박물관 일'군들은 363 점의 고귀한 미술 유산을 발굴하였는데 그 중에는 18 세기의 작가로 추정되는 관 허자(호)의 《금강산 전경도》(폭 3.76 메터, 높이 93 센치 메터의 측면 부감도, 개성 지구에서 발굴), 19 세기 말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의 《평양 전도》 (폭 3.75 메터, 높이 1.35 메터의 정면 부감도, 북청 지구에서 발굴), 18 세기 말 취 원(호)의 《사냥도》 (폭 347.5 센치 메터, 높이 84 센치 메터의 병풍식 그림, 개성 지방에서 발굴) 등 당시의 사회, 경제, 세태, 풍경 등을 대규모적 형식에 담은 우수한 회화 작품들이 들어 있다.

이 해에 박물관 일'군들은 이동 전람회와 미술 환등, 미술 강연도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미술 화첩, 그림 엽서 등을 발간하였다.

이 해에 15만 7천여 명이 이 박물관을 직접 참관했거나 또는 이동 전람회, 미술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 **조선 민속 박물관** 우리 인민의 발달된 생활 및 생산 문화와 미풍 량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사명을 띠고 1956년 2월에 창립된 조선 민속 박물관에는 약 9천 500 점의 유물과 자료들이 소장되여 있다.

유물 수집 사업과 연구 및 정리 사업을 통하여 진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1964년 8월

에 다시 문을 열었다. 약 2천 점의 민속 유물과 자료들을 복식실, 가구 및 공예실, 력대 음식 기구실 등 4 개 방에 전시하였다.

1964년에 수집된 유물은 370여 점이다. 그 중 개성 지방에서 나온 연두색의 누비 회장 저고리와 황남도 지방에서 발굴한 외수'물(붉은 색) 솜저고리 등은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녀성들이 과거부터 입고 다니던 옷들이다.

1964년 8월부터 이 해 년말까지의 기간에도 5만 5천여 명이 민속 박물관을 참관하였다.

【혁명 전적지 정비】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우이며 조선 인민이 낳은 열렬한 혁명 투사들인 박 달, 리 제순, 마 동희 동지들의 동상 건립이 1964년에 완공되였다.

이 동상들은 혁명 투사들이 살던 집(복구된) 마당들에 세워졌는데 1964년 9월 25일에는 운흥군 신포리에서 마 동희 동지의 동상, 26일에는 보천군 외화리에서 리 제순 동지의 동상과 보천군 운남리에서 박 달 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각각 진행되였다.

1963년에 설치된 량강도 인민위원회 혁명 전적지 관리국과 5 개의 지구 관리소(혜산, 보천보, 리명수, 삼지연, 대홍단) 일'군들에 의하여 전적지 연구 및 정비 사업과 전적지를 통한 교양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량강도에 건립되는 인민 영웅탑 건설 공사와 백두산 천지로 오르는 안전 란간 공사가 활발히 진척되였다. 또한 백두산 기상 관측소 설치 공사가 진행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청봉 숙영지에서 유격대원들이 구호를 새긴 나무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공사도 진행되였다.

【문화 유물 보존】 1964년에 공화국 정부에서는 우수한 민족 문화 유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에 의하여 각 도(직할 시)에 문화 유물 보존 사업소가 나오고 혁명 전적지들과 명승 고적, 천연 기념물들에 대한 정비 사업이 더 활발히 진척되였다.

량강도에서는 삼지연, 청봉, 베개봉 등 혁명 전적지들이 더 훌륭히 꾸려졌다.

이 밖에 각 도(직할 시) 문화 유물 보존 사업소들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예를 지켜 낸 선조들의 애국적 업적과 예술적 재능이 깃든 각종 옛 건축물들과 산성 등을 모두 정비하였다.

그 중에는 력사가 깊고 규모와 구조, 단청, 조각에서 이채를 띤 고려 시기의 건축물들인 평북도 박천군 심원사의 보광전, 황북도 봉산군 성불사의 응진전, 수나라, 당나라 등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평양시의 대성산성,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서산 대사의 애국적 투쟁과 련관 있는 평남도 평원군의 법흥사 등이 들어 있다.

또한 평양시의 련광정, 숭명전, 평북도 녕변군의 륙승정 목공사와 수구문 목공사, 개성시의 원통사, 화장사, 성균관, 함북도 명천군의 개심사 등이 원상대로 보수되고 아름답게 단청되였으며 강원도 송도원에 정각이 새로 섰다.

◇ 발견 및 발굴 1963년에 시작된 문화유물, 유적들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확인 및 고증하는 사업이 1964년에도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평양시 대동강안의 정의산에서 1876년에 미국 해적선 《샤만호》를 사격할 때 리용한 11 개의 포좌지가 새로 발견되였으며 청진시 부령 구역의 옥련성을 비롯하여 평북도 동림군의 검산성, 철산군의 운암산성, 동창군의 당아산성들이 지난 시기 외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한 전적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함남도 신흥군 풍흥리의 《작은 토끼'골》로 불리우는 곳이 1385년 고려 우왕 때에 대문령을 지나 토끼령을 넘어 온 왜군을 리성계가 멸살한 곳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거기에서 당시 사용한 칼과 활촉 등 유물도 나왔다.

명인들의 분묘와 천연 기념물들도 많이 나타났다. 14 세기 고려의 유명한 애국 시인 리 제현의 묘는 개성 지구 장풍군 십탄리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물레를 만들어 목화에서 실을 뽑은 사람으로 알려진 문 익점의 아들 문 래의 묘는 개성 지구 개풍군 묵산리에서, 16 세기의 탁월한 유물론 철학가이며 애국적 사상가인 서 경덕의 묘는 개성시 룡흥리에서, 19세기 후반기의 위대한 의학자 리 제마의 묘는 함남도 흥상군 운동리에서 각각 발견되였다.

김 책시의 업억리, 덕인리와 북청군의 백상리 등 함경남북도 지방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선돌, 고인돌이 발굴되였다.

【전람관】◇ 공업 및 농업 전람관(1956년 9월 27일 설치)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은 4천 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3 개의 기본관(중공업관, 농업관, 경공업관)과 2천 평방 메터의 야외 진렬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 전람관에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우리 당이 제시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과학, 교육, 문화, 보건, 출판, 체육 등도 포함) 근로자들이 달성한 성과와 창조적 재능을 보여 주는 실물, 모형, 사진, 도표들 1만 2천여 점이 전시되여 있다.

1964년에 35만 3천 800여 명이 전람관을 관람하였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에도 상설적인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이 있다.

◇ 어머니 전람관 전국 어머니 대회(1961년 11월 15일)에서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여 자녀들을 더 훌륭히 키울 데 대하여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데 기여할 사명 밑에 1961년 11월 17일 상설 전람관으로 설치되였

다.

전람관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어머니들에 대한 자료들과 해방 후 녀성들에게 광명한 앞길을 열어 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녀성들 속에서 배출된 공화국 영웅 및 로력 영웅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한 첫 부문과 1관(종합 자료 및 탁아소 시기까지의 어린이 양육), 2관(유치원—중학교 시기 어린이 교양), 3관(어머니 교양)으로 되여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어머니들이 쌓은 생동한 경험과 이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보여 주는 1천여 점의 사진, 모형, 실물 등이 진렬되여 있다.

1964년에 290 점의 진렬품이 보충되였다.

이 해에 관람자 수는 24만여 명에 달하였다.

전람관 일'군들은 평양시와 주변 협동 농장들에서 어머니 교양 및 어린이 양육과 관련한 이동 강연을 49 회 진행하였다.

【동물원 및 식물원】 평양 동물원과 평양 식물원은 동식물에 대한 연구 사업과 광범한 인민들의 교육 교양 및 문화 휴식을 보장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설치되였다.

유서 깊은 대성산 유원지의 서쪽에는 동물원이, 동쪽에는 식물원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동물원과 식물원에는 우리 나라 각지에서 수집한 동식물들과 형제 국가들에서 선물로 보내온 동식물들이 있는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평양 동물원 평양 동물원은 1960년 4월 28일 처음 문을 열었다.

270 정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평양 동물원에는 원숭이, 맹수, 코끼리, 곰, 성성관 등 24 개의 동물 집과 부화 육추실, 집결실, 유수실 등 부대 건물들, 3 개의 연못, 각각 2천 800 평방 메터씩 되는 2 개의 동물 산(원숭이 산과 곰산), 5천 170 평방 메터의 코끼리 운동장, 5천 500 평방 메터의 사슴 방목장 등이 훌륭히 꾸려져 있다.

개원 당시 짐승류, 조류, 량서류, 파충류가 165종에 1천 150여 마리였는 데 1962년에는 222종에 2천 680 마리로, 1964년에는 315 종에 7천 400여 마리로 늘었으며 이밖에 78 종, 8만 2천여 마리의 어류가 있다.

그 중 표범, 산양, 사슴, 노루, 꿩 등 우리 나라의 동물은 약 200 종, 1천 800여 마리에 달한다(어류 제외). 1964년에 동물원에는 이전에 잡아 본 적이 없는 군함조(평남도 온천군에서 잡음)와 세가락 갈매기(청진 앞 바다에서 잡음)가 새로 들어 왔다.

개원 이래 265만 5,400여 명이 동물원을 구경하였다. 그 중 1964 년도 관람자 수는 58만 4천 200여 명이였다.

◇ 평양 식물원 1959년 2월에 발족한 평양 식물원은 90 정보의 구릉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화초원, 약초원, 과수 품종원, 일반 수목원과 식물 자원구 및 식물 분류원 그리고 1천 평방 메터의 온실, 440 평방 메터의 랭실, 5, 400 평방 메터의 연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와 각국에 산지를 두고 있는 890여 종의 목본(교목 및 관목)과 420여 종의 초본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 중에는 인삼과 평남도 양덕, 맹산, 함남도 북청 등에서 자라는 느삼나무(콩과), 금강산에 자라는 금강국수나무(조밥나무과)와 금강초롱(도라지과), 우리 나라 서북부 지구에서 자라는 수수꽃다리(물푸레나무과) 등 우리 나라에 고유한 식물들이 많이 있다.

【극장 및 영화관】 1964년에 영화 시설은 그 전해에 비하여 124%로, 그 중 이동 영사조 수는 196%로 늘었다. 특히 협동 농장들에 복무하는 영화 시설은 165%로 장성되였다.

이 해에 중앙과 지방의 각 예술단 배우들과 각지 영화 보급 부문 일'군들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각지 협동 농장 작업반에 나가 공연 및 상영함으로써 농민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일층 높여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특히 이 해에 야외 영화 상영과 포전에서의 낮 상영이 조직 진행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영화를 볼 수 있었다.

◇ 평양 대극장 인민군 거리와 쓰딸린 거리가 잇닿은 대동강변에 위치한 평양 대극장(1960년 8월 18일 준공, 연 건평 2만 9천 899 평방 메터)은 우아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에 현대적 건축 기술을 배합한 대 문화의 전당이다.

길이 137 메터, 너비 73.2 메터, 높이 46 메터에 달하는 현대적 봉사 시설을 갖춘 여기에는 2천 300여 석의 관람석, 772 평방 메터의 기본 무대와 3 개의 보조 무대, 260 개의 배우실을 비롯한 각종 무대 시설과 기술 설비들이 완비되여 있다.

지금 대극장에는 국립 민족 예술 극장과 국립 예술 극장 창조 집단이 들어 있다.

◇ 국립 교예 극장 국립 교예 극장 (1952년 6월 10일 창립)은 보통강 유원지를 옆에 낀 금수산 거리에 새로 건설되여 1964년 12월 22일에 첫 개관 공연을 하였다. 5만 평방 메터의 부지에 자리 잡은 이 극장에는 직경 67 메터, 높이 27메터에 달하는 원형으로 된 현대적인 극장(관람석 1천 800석)과 750 평방 메터의 대 련습장 및 동물사를 비롯한 많은 부대 건물들과 각종 현대적 봉사 시설이 구비되여 있다.

천연 대리석을 바닥에 깔고 옥돌로 벽을 한 여기에는 교예 예술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예 종목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는 원형 무대, 일면 무대, 공중 무대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여 있다. 원형 무대에서는 계절에 구애됨

이 없이 수중 및 빙상 교예도 할 수 있다.

방음 장치가 되여 있는 이 극장에는 2 개의 악사실을 비롯하여 대, 중, 소 련습장들, 공연 준비실, 휴게실 등 온갖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평양 학생 소년 궁전】 부지 면적 11만 평방 메터, 연 건평 4만 7천여 평방 메터에 달하는 이 궁전은 우리 나라 학생 소년들을 위한 과학,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서 1963년 9월 30일에 개관하였다.

평양 대극장의 2 배나 되는 이 궁전은 승강기 시설을 갖춘 5 층 본관과 13 층 탑식 건물(높이 44.8 메터), 7 층으로 된 극장(1천 300 석)을 비롯하여 대중 행사실, 체육관, 체육실 등 7동의 건물이 한 채로 련결되여 있다.

약 500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학생 소년들의 과학 연구와 사상,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과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과학 기술부, 미술부, 생물부, 체육부, 학생 교양부에 속한 60여 개의 연구실과 그 밖에 이야기실, 소년단 열성자실, 소년단 건설실, 사로청 건설실, 1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150석) 그리고 다양한 대중 활동을 조직 진행하는 대중 사업부가 1964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 기술 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매개 연구실들에서는 1기를 각각 6 개월로 하여 일반 과학 지식 보급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 소조와 보다 전문적 과학 지식 습득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 소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관 이래 1964년 8월 말까지의 기간에 2기에 걸쳐 1만 1천 400여 명의 학생이 여기에 망라되여 배웠다.

인민 학교 1학년부터 고등 기술 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활동(과학 강연, 주제 모임, 작문 짓기 대회, 야회, 예술 써클 공연, 웅변 대회 등)은 1964년에 1천여 회나 진행되였는데 여기에는 약 57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964년 9월부터 시작된 제 3 기에는 9천여 명의 학생들이 각 연구 소조에 망라되여 있다.

학생 소년 궁전에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직속 청년 극장 창조 집단이 있다.

1964년에 11만여 명이 궁전을 견학하였다.

【예술 써클】 1964년에 생산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 써클 단체 수는 11만 2천 200여 개이며 여기에는 200여 만의 근로자들이 망라되여 있다.

써클원들은 매 시기 당의 사상 사업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 의식으로 교양하며 당면한 경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고무 추동하는 데 이바지하는 각종 문예 작품을 창작, 공연하고 있다.

이 해에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의 기동 예술 선동대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8 차, 9 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다채로운 예술적 선동 자료들을 가지고 직장과 작업반, 논밭 머리들에서 기동적으로 활동하였다.

써클원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한 참신한 주제의 문예 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으며 작품들의 사상 예술적 수준도 비상히 높아졌다.

1964년 상반년 간에 만도 문학 써클원들이 쓴 소설, 시, 가사, 희곡, 오체르크 등 각종 문예 작품 730여 편이 발표되였다. 1962년부터 2년 반 동안에 17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가 동맹 맹원 및 후보 맹원으로 자라 났다.

근로자들의 씨나리오 창작 열의를 북돋아 주며 씨나리오 문학 후비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이 해에 문천, 원산, 청진 지구들에 씨나리오 창작 소조가 조직되였다. 씨나리오 창작에 대한 대중의 열의가 높아진 결과 문화성 씨나리오 창작사가 조직한 1964년도 씨나리오 현상 모집에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지은 1천여 편(전 해 보다 580여 편 더 많다)이 응모되였으며 그중 38편이 1, 2, 3 등과 가작에 당선되였다.

이 해에 써클원들 속에서는 특히 사상 교양 사업에서 유력한 수단의 하나인 연극, 촌극, 인형극, 재담 등 극적 형식의 작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창작되고 공연되였으며 새로운 무대 예술 형식들이 창조되였다.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자들 400여 명이 출연한 음악 무용 서사극 《비단 나라》는 지금까지 로동자 써클원이 창작한 작품들 중 그 규모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서사시'적 내용에 알맞는 새로운 형식의 훌륭한 작품이였다.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과 신도 간석지 건설자들이 발휘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이 작품의 독창적인 형식은 설화와 시 랑송, 시극과 극적인 대사, 극적인 행동과 구연, 관현악과 합창, 중창, 무용 조곡과 군무 등을 하나의 일관된 주제 사상에 관통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데서 나타나고 있다.

◇ **전국 농촌 부문 예술 써클 축전** 1964년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까지의 기간에 전국 농촌 부문 예술 써클 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13 개 도(직할시)의 159 개 군의 187 개 협동 농장에서 선발된 약 2천 600 명의 농장원—예술 써클원들이 참가하였다. 써클원들은 257 편(그중 89%는 써클원들 자신의 창작품이다)의 연극, 음악, 무용, 촌극, 재담 등 다채로운 형식의 작품을 가지고 출연하였다. 작품들은 전해에 풍작을 이룩한 붉은 농민들의 기쁨과 자랑, 1964년에 알곡 정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

려는 그들의 전투적 기백과 랑만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축전의 중요한 성과는 생산과 결부된 농촌 예술 써클이 례년에 비하여 대중화되였으며 써클원들의 창작 및 연기 수준과 문화 수준이 더 높아진 사실이다. 특히 평북도 염주군 룡북협동농장의 경악극 《노래하는 부라'벌》, 황남도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의 가야금 병창 《수상님 교시 새날'벌에 꽃 피였네》, 량강도 후창군 라죽 협동 농장의 연극 《평평물 사람들》, 함남도 덕성군 덕성 협동 농장의 시와 노래 《우리는 무장했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전은 새로운 현실적 내용에 알맞는 새로운 예술적 형식의 탐구에서와 발굴한 민속물(무용, 민요)의 옳은 계승에서도 발전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전국 농촌 부문 예술 써클 축전도 단체 별 입상 순위

1등—평남도 종합 예술 써클단
2등—평북도 종합 예술 써클단
2등—함남도 종합 예술 써클단
3등—개성시 종합 예술 써클단

쟌르별 성과작들

재담 1등—《꽃분이와 예쁜이가 본 남조선》(개성 지구 개풍군 광수 협동 농장)
이야기 1등—《보내지 못한 편지》(개성 지구 개풍군 광수 협동 농장)
1등—《한 줌의 흙》(평양시 형제산 구역 천남 협동 농장)
가무 병창 1등—《면화반의 살림'군 처녀들》(평남도 순안군 택암리 조중 친선 협동 농장)
1등—《신고산 타령》(강원도 고산군 량사 협동 농장)
1등—《황금산의 노래》(자강도 랑림군 랑림읍 협동 농장)
가무 1등—《회령 명산 백살구》(함북도 회령군 오봉 협동 농장)
녀성 군무 1등—《부녀 회원들의 지성》(웅기 종합 농장)
1등—《양봉공 처녀》(함남도 신흥군 풍흥 협동 농장)
1등—《진봉산 기슭에 과실 풍년 들었네》(개성 지구 판문군 전봉 협동 농장)
남성 군무 특등—《짐을 벗리는 야장공들》(자강도 송원군 상교 협동 농장)
1등—《약초 캐는 로인들》(국영 5 호 농장)
농악무 1등—《새 승리를 위하여》(황남도 배천군 류천 협동 농장)
1등—《풍년가 울려라》(강원도 통천군 벽암 협동 농장)
쌍무 1등—《방목공 처녀》(개성 지구 판문군 봉동 협동 농장)
독무 1등—《닭 치는 처녀》(자강도 랑림군 중흥 협동 농장)
현악 합주 1등—《갈매기》 외 1곡(황북도 봉산군 정방 협동 농장)
녀성 중창 1등—《오호 물동 진달래》외 1곡(평북도 벽동군 남중 협동 농장)
1등— 《종달새 이야기》 외 1곡(평남도 강서군 고창 협동 농장)
1등—《양계장 처녀》(평양시 랑랑 구역 류소 협동 농장)
녀성 민요 제창 1등—《청산'벌의 새날》(평남도 강서군 청산 협동 농장)
남성 민요 제창 1등—《돌쇠 날창 만드세》(량강도 풍서군 속신 협동 농장)
녀성 독창 1등—《우리 농장 축산반》 외 1곡(함북도 어랑군 수남 협동 농장)
1등—《삼지연의 진달래》 외 2곡(황남도 안악군 판륙 협동 농장)
남성 독창 1등—《새 타령》 외 1곡(개성 지구 개풍군 신서 협동 농장)
민족 관현악 병창 1등—《수상님이 오셨던 날》 (평남도 강서군 강선 협동 농장)
민족 기악 합주 1등—《새봄 맞는 농장'벌》(함남도 인흥군 련동 협동 농장)
퉁소 합주 1등—《민요 련곡》(함남도 단천군 달전 협동 농장)
가야금 병창 1등—《수상님 현지 교시 꽃펴 나세》 외 1곡(평남도 문덕군 룡오 협동 농장)
1등—《수상님 교시 새날'벌에 꽃피였네》 (황남도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
1등—《귀틀집 실물레》(평북도 운전군 구련 협동 농장)

◇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1964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정기적인 전국 음악 무용 경연에는 중앙과 지방의 음악 무용 예술 단체 예술인들과 평양 예술 대학, 평양 음악 대학의 교원, 학생들 268 명이 참가하였다.

경연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련마해 온 예술적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을 시위하였다.

경연은 출연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신인들의 발전이 전례없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시된 지정곡에 립각하여 3선까지 진행된 경연에서는 40 명이 1, 2, 3 등에 각각 입선하였다.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1등 입선자들

민족 성악 부문
1조 : 강 응자(평양 음악 대학 교원)
2조 : 주 예순 (국립 민족 예술 극장 배우)
김 경애(국립 민족 예술 극장 배우)
민족 기악 부문
2조 : 민 상기(국립 예술 극장 연주가)
현대 기악 부문
2조 : 김 진오(평양 음악 대학 학생)
무용 부문
2조 : 백 은수(국립 무용 극장 배우)

◇조선 인민군 제 13 차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대회 조선 인민군 제 13 차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대회가 1964년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였다.

써클원들이 내 놓은 음악, 무용 작품들은 모두가 사상, 예술성이 높고 형식이 다채로왔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 항일 유격대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 서 있는 초병들의 긍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념원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경연 대회는 우리 당의 군사 정책을 받들고 전투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군무자들 속에서의 예술 써클이 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도 일격에 소멸할 만단의 전투 준비 밑에 철천의 원쑤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군인들의 성격을 형상한 음악 스케취 《초소는 철벽이다》를 비롯하여 조국 통일의 념원을 반영한 《초병의 념원》, 항일 유격대원을 형상한 군무 《빨찌산의 습격 전투》, 남성 중창 《구름 속으로 사라진 마차》와 《일요일 휴식 좋다》, 합창 《당의 기치 따라 앞으로》, 3인무 《교대 복무 훈련 신난다》, 북과 퉁소 《민요 련곡》, 하모니카 독주 《혁명 가요 련곡》 등 많은 작품들이 높이 평가되였다.

금번 경연에서는 모두 316 종목의 음악, 무용극 작품들이 공연되였다.

【전람회】 ◇ 공화국 창건 16주년 기념 전국 미술 써클 작품 전람회 1964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문화성이 조직한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전국 미술 써클 작품 전람회가 평양에서 열리였다.

전람회에는 조선화, 유화, 수채화, 출판화, 산업 미술, 포스타, 수예, 공예, 만화, 도자기, 장식 미술, 아동 미술 등 500여 점이 출품되였으며 그중 약 절반이 전시되였다.

전람회는 미술 써클원들이 항일 유격 투쟁과 조국 해방 전쟁,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계급 교양을 내용으로 한 작품창작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써클원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다시 한 번 천리마의 대 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로력 투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 실천을 위한 투쟁 등 그들 자신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전람회는 우리 나라 조형 예술이 광범한 근로 대중과 인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미술 창작에 대한 지향과 예술적 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반부 인민들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과 미제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폭 넓게 그린 유화《농악 소리 들려 온다》는 주제와 이야기 전개가 새롭고 독창적이며 사상적 내용과 화가의 사색이 심오한 것으로 하여 금번 전람회에서 이채를 띤 작품이였다.

착취 사회에서 눈물 겹게 살아 온 과거 조선 녀성들의 처지를 형상한 조선화 《물'동이》는 보편적인 사실을 소재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응한 색채와 선을 유기적인 통일 속에 조화시킴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간결한 구도 속에서 훌륭히 표현한 작품이였다.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전국 미술 써클 작품 전람회 1 등 당선 작품

유화 부문: 《메'목장의 이른 봄》 (량강도 풍서림산 사업소 제재 공장 로동자 전 영관)
《농악 소리 들려 온다》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로동자 김 일빈)

조선화 부문: 《물'동이》(남포 유리 공장 로동자 명 리여)

수채화 부문: 《천리마 고향 3 호토에서》 (강선 제강소 로동자 박 문협)
《꽃피는 교원》 (함흥 해방 중학교 교원 엄 길근)

이 밖에 31 점의 미술 작품이 2, 3 등에 입선되였다.

◇ 평양 미술 대학 창립 15 주년 기념 미술 전람회 이 해 11월 하순부터 이듬 해 정월 초순까지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이 대학 교원, 학생들의 높은 창작적 기량을 보여 준 500여 점의 각종 미술 작품이 전시되였다.

◇ 전국 예술 사진 전람회(1964년 12월 중순—1965년 3월 초순까지 진행된 전람회에는 전국의 사진 전문가들과 사진 애호가들이 출품한 220여 점(그 중 천연색 약 60 점)이 전시되였다.

전람회는 혁명적인 우리 시대의 정신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 속에 담으려는 촬영가들의 높은 창조적 열의와 예술적 기량을 시위하였다.

혁명 전통을 연구 체득하기에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형상한 《혁명의 홰'불이여》, 공화국 2중 영웅 리 명석을 형상한 《13년 만에 찾은 공화국 기'발》과 철, 전기, 석탄,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을 담은 《지하 전사》, 《로동의 영예》, 《강철 전사》, 《비료산의 아침》 등이 관람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또한 북반부 인민들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한 《한 시도 잊지 말라, 미제 강점 하의 남녘 땅 형제들을!》, 《황폐화된 남녘 땅을 갈아 엎을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국 화초 전람회 국토 관리성과 과학 지식 보급협회 중앙 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1964년 11월 12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 평양시 원림 전람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 원림화 부문 일'군들과 화초 애호가들이 보낸 국화, 분경, 분재 등 600여 점의 작품들에는 우리 나라 초목의 아름답고 우아함과 그것을 사랑하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감정 세계가 훌륭히 표현되여 있었다.

그 중 물푸레나무 뿌리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백을 형상한 《조선의 기상》을 비롯하여 갖가지 나무와 화초로 혁명 전적지, 사회주의 농촌 마을 등의 정경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자연 풍경 등을 보여 준 분경 작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출품자들의 정교한 예술적 솜씨가 엿 보이는 분재 및 금붕어 등도 이채로왔다.

화초 전람회에서는 분경 《조선의 기상》이 특등을 받았으며 함북도 관모 휴양소 장 운홍의 《척화비》와 함흥시 원림 사업소, 함북도 도시 경영 사업소, 강원도 고산군 도시 경영 사업소에서 나온 분경 작품 등이 1 등에 당선되였다.

보 건

1964년에 인민 보건 분야에서는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며 특히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경험을 축적하였다.

위생 방역 기관들과 치료 예방 기관들의 물질적 장비가 더욱 완비되여 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 의료 방조가 확대 강화되였으며 보건 사업이 인민 대중 속에 더욱 접근되였다.

동의학을 발전시키고 민간 료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우수한 치료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고무된 보건 일'군들은 모범 위생 군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농촌의 위생 문화 상태를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리 하여 생활과 로동 환경이 위생 문화적으로 더욱 꾸려졌으며 각종 급성 및 만성 전염병의 리병률이 현저히 감소되였다.

【보건 시설】 1964년에 보건 시설이 신설 확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보건 위생 시설을 정비하고 더욱 완비하여 전문과적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게 꾸렸다. 이 해에 외래 치료 기관수는 82 개소, 입원 치료 기관수는 8 개소가 각각 신설되고 입원 치료 기관의 침대 수는 2천 935 대 더 설치되였다.

도시 진료소와 적지 않은 농촌 진료소들이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전문과가 조직되였다.

그러나 많은 건설이 진행되여 1964년에 병원 및 진료소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2%로, 그 중 협동 농장 진료소 수는 103%로 각각 장성되였다.

치료 예방 기관의 입원 침대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5 %로, 외래 치료 기관의 의사 수는 134.7%로 각각 장성되였다.

시, 군(구역)병원들에 소아과 병동과 산원이 거의 다 증설되였다.

1964년 7월 15일 내각 결정 49 호에 의하여 각 시, 군(구역) 병원에 결핵 예방과가 증설되였다. 1964년 말 현재 시, 군(구역) 결핵 예방과 수는 393 개소이다.

보건 시설 수

	단위	1956	1960	1964
병원 및 진료소 수	개소	1 659	4 811	5 321
침대 수	대	18 104	33 222	52 037

【보건 일'군 양성】 우리 나라에서는 4 개의 의학 대학과 10여 개의 고등 의학 학교, 각 도 보건 간부 양성소, 그리고 평양 의학 대학 재교육 학부와 기타 재교육 기관들에서 보건 일'군들을 양성하고 있다.

1964년에 4 개의 의학 대학과 고등 의학 학교들에서 9,211 명의 의사 및 준의들이 양성되였으며 평양 의학 대학 재교육 학부와 각종 교육 기관들에서 789 명의 의사, 준의들이 재교육을 받았다.

1964년에 보건성적으로 의사 수는 전년에 비해 129.2 %, 준의 수는 121.6%, 약제사 수는 101.7%, 조제사 수는 119.7%, 간호원 수는 110.6%, 보육원 수는 110.5%로 각각 장성되였다.

의사 및 준의 수

	단위	1956	1960	1964
의사 및 준의	명	5 650	11 919	22 706
인구 만 명당 의사 및 준의 수	명	6.0	11.0	19.0

【위생 방역】 1964년에 중앙 위생 방역소에서 시, 군(구역) 방역소에 이르기까지 전체 방역 기관들이 정비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으며 정연한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특히 수도 평양시에는 소독소가 조직되여 수도 위생 방역 사업의 중요한 고리를 담당하였다.

위생 방역 기관의 의사 수는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147.6 %, 준의 수는 121.8%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4년 산업 위생 특히 채굴 공업과 야금업 분야의 로동 위생과 농촌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급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모범 위생 군 창조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1964 년 말 현재 1 개의 2 중 모범 위생군(삭주군)을 비롯하여 3 개의 시(개성시, 해주시, 신포시), 17 개의 구역, 102 개의 군이 모범 위생 군으로 되였다.

이 해에 전년에 비하여 121.3 %로 장성된 각종 예방약이 생산 공급되여 정기적인 예방 접종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특히 홍역, 백일해를 비롯한 소아 급성 전염병 예방 사업을 강화함과 함께 만성 전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과 집단 검진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결핵 예방약(BCG)으로서 40만의 갓난아이와 80 만의 재접종 대상자들에게 결핵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여 1964년에 남반부에서 만연된 뇌염 침입을 막아내고 각종 급성 전염병의 리병률을 현저히 낮추었다.

【치료 예방 및 모성 유아 보호】 1964년에 선진적 외료 봉사 제도인 외사 담당 구역제의 범위를 넓혀 치료 예방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14 개의 도시들에서 소아과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그 역할과 봉사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치료 예방 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민반 위생 초소의 통보로서 언제든지 소아과 의사의 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주요 도시들에서는 소아과 의사 담당 구역제의 경험에 의거하여 새로 내과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평양 시내 40여 개의 각 종합 진료소들에서는 이미 소아과 의사 담당 구역제와 임신부들에 대한 조산원 담당 구역제를 도입한 풍부한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내과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였다.

이 해에 또한 안과, 이비인후과, 구강과 등 각 전문과의 치료 예방 사업을 주민들에게 더욱 접근시켜 전문과의 의료 방조를 확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였다. 전년에 비하여 외래 진무 수는 134.7%로 장성하였으며 전문과 침대 수도 또한 늘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의 보건 위생 사업을 일층 강화하였다.

농촌 진료소와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군 병원과 방역소들의 전문과별 또는 부문별 의료 일'군 대렬을 확대 강화하고 치료 예방 사업과 위생 방역 사업을 더욱 개선하였다.

또한 농촌의 의료 봉사 시설을 정비 강화하고 의료 기구, 기자재, 의약품, 위생 자료 등을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군 병원과 진료소들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와 함께 담당 구역제를 통한 순회 치료 사업을 강화하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상 방조를 주었다. 이 해에 국가에서는 협동 농민들이 광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온천, 약수터에 있는 료양소 침대 수를 증가하였으며 강서, 석왕사, 주을, 송흥, 석탕 등 일부 온천과 약수터에 농민들을 위한 계절 료양소를 따로 조직하였다. 목욕탕, 리발소 등을 비롯한 농촌의 위생 문화 후생 시설들을 신설, 보충, 정비하였다.

1964년도에 주민 1 인당 외래 치료 회수는 전년에 비하여 훨씬 늘었다.

동의학을 발전시키고 민간 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이 해에 이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4년 말 현재 6천여 건의 민간 료법이 수집되여 병류별로 정리 연구되였으며 그 중 림상학적으로 검토된 수백 건의 민간 료법이 치료 예방에 도입되여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혈압, 위 및 12지장 궤양, 시신경 위축, 특발성 궤저 등을 치료하였다.

우리 나라 도처에 분포되여 있는 온천과 약수터들이 정비 확장되고 광천 물리 치료학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여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더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이 해에 주을 온천, 강서 약수, 석왕사 약수, 삼방 약수, 석탕 온천, 창성 약수 등 광천 치료 시설들이 정비 확장되여 앞으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정양과 료양을 할 수 있게 되였다. 1964 년도에 보건성 산하 정양소 및 료양소의 침대 수는 전년에 비하여 152.2%로 장성되였다.

내각 결정 제 46 호 《탁아소 및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4년 7월 1일)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망이 더욱 정비되고 확대되였으며 보육원, 교양원 대렬이 튼튼히 꾸려졌다. 보육원은 초급 중학교, 교양원은 기술 학교 졸업생 이상의 일반 지식 수준을 가진 우수한 일'군으로 선발 배치되였으며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공급 사업이 개선되였다.

1964년에 탁아소 수는 전년의 105.1%로, 그 좌석 수는 108.1%로 장성하였으며 유치원, 탁아소에 망라된 어린이 수는 149만 5천 명으로서 전년에 비해 17만 5천 명이나 늘었다.

전체 임신부들이 치료 예방 기관의 산과적 감시를 받았으며 무상으로 해산 방조를 받았다.

모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산원과 소아과 병동이 신설 확장되였다.

산과 외래 외사 수는 전년의 159.4%로, 산과 침대 수는 108.3%로, 소아과 외래 외사 수는 155.3%로, 소아과 침대 수는 111.8%로 각각 장성되였다.

【치료 기구 및 의약품 생산 공급】 의료 기구 총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04.5%로 장성하였다. 렌트겐 장치 태양 부판기, 전조기, 수술용 각종 기구 등 질 좋은 수십 종의 의료 기구들이 생산 공급되여 치료 예방 기관들의 물질적 장비가 강화되였다.

생약 생산과 그 공급량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1964년에 생약 파종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10.4%로, 그 수매량은 5, 866.7 톤으로서 116.8%로 각각 장성하였다.

체 육

1964년에 우리 나라 체육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더욱 군중화되였다.

이 해에 체육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체육 사업이 전체 근로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직업적 특성과 육체적 준비 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체육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적극 복무할 수 있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단련된 사실이다.

특히 군중 체육 사업을 전체 인민 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모든 종목을 포치하고 선수 육성 사업을 보다 개선 강화하며 체육 기술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1963년 12월 19일과 12월 21일 교시는 체육의 군중화와 체육 기술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각급 체육 기관과 체육 단체들에서는 체육 분야에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군중 체육 사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체육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한편 공장, 기업소, 농어촌, 학교 등에 체육 교원, 체육 선수, 체육 애호가 및 체육 열성자들을 광범히 인입하였으며 앙양된 전체 대중들의 체육 열의를 조직 동원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성별, 년령별 직업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육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특히 체육을 군중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학교 내 체육 사업이 더욱 강화되였다.

1964년에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 사업을 사회주의 문화 혁명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체육 사업을 전 학교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계절적 특성과 매개 학생들의 소질, 취미에 따라 다채로운 경기들을 조직하였다.

중앙, 도'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뿐만 아니라 학교 단체, 단위별 각종 체육 경기를 높은 수준에서 조직 진행함으로써 체육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유능한 선수 후비들을 수 많이 길러 냈다.

1964년에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체육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데 토대하여 이해에 집단 체조는 더욱 높은 수준에서 대중적으로 발전되였다.

이 해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 기술도 현저히 발전되였다.

체육 교수의 훈련 체계를 더욱 정비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교수 훈련 방법을 창조 보급한 결과 체육 기술 수준은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라 섰다.

1964년에 우리 나라 체육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치는 국제 경기를 에 출전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공화국의 영예를 대외적으로 빛내였으며 국내 국제 경기에서 고귀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였다.

【군중 체육】 1964년에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체조, 륙상, 수영, 빙상 경기, 해양 체육, 각 종목의 구기와 민족 체육, 체육 무용, 체육 유희, 집단 달리기, 생산 경기, 등산, 원족, 치료 체육 등 다채로운 체육 활동에 참가하여 마음과 신체를 단련하면서 한 가지 이상의 체육 기술을 배웠다.

이 해에 아침 체조와 업간 체조, 집단 달리기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생활화되여 있었다.

특히 8월 8일에 개막된 《평양—부산 달리기》에는 평양 시내 청년 학생만 하여도 35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만경대 달리기》, 혁명 전적지에로의 체육 려행과 우리 나라 명승 고적지, 고산 지대에로의 등산, 행군에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7, 8월 수영 보급 월간에 원산과 해주, 함흥, 남포, 청진, 신의주 등 우리 나라 동서 해안의 해양 구락부들에 수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망라되여 바다에 대한 지식과 수영, 체육 기술 등을 배웠다.

1964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중앙 경기를 비롯하여 중, 소 규모의 중앙 경기, 각 도, 시, 군 경기 대회들에는 3만 2천 5 개의 선수단에서 131만 2천 526 명이 참가하였다.

이 해에 각종 경기 대회들에 참가한 수 많은 신인들이 유급 선수 기준을 따라 잡았거나 대회 기록을 돌파하였다.

1964년에 각 도 지방 경기들에서만도 공화국 신 기록 수립자는 2 명, 명수급 돌파자는 4 명, 유급 선수 기준 돌파자는 7천 820 명(1급 54 명, 2급 140 명, 3급 1천 9명, 4급 2천 80 명, 5급 4천 37 명)이였다.

특히 체육절 15 주년 기념 전국 체육 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 1천 784 명 중 40% 이상이 신인들이였고 그중 많은 선수들이 1, 2급을 비롯한 유급 선수 기준을 돌파하였거나 대회 기록을 릉가하였다.

이 해에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된 집단 체조는 중앙과 도들에서 창작 출연한 경험에 기초하여 군들에서까지 광범히 진행되였다.

체육절 15 주년을 경축하여 평양 시내 청소년 학생들 4만 5천 명이 출연한 대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을 비롯하여 《독로강반의 새 노래》(자강도내 청소년 학생 1만 7천 명 출연), 《압록강반의 새 노래》(평북도내 청소년 학생들 2만여 명 출연)는 그 사상 예술성이 높고 구상의 대담성과 높은 기교, 새로운 시도로서의 배경대 형상, 우리 당 정책의 정확한 반영과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실감 있게 정확히 반영한 것 등으로 하여 조선 로동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

특히 1964년에 각 지방의 청소년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 체조, 빙상 집단 체조, 예술 체조 등은 우리 나라 군중 체육 발전의 종합적 성과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대 집단 체조 《황금의 북청벌》(북청군내 1만 2천 명의 학생들

출연), 집단 체조 《풍년 든 과수산》(북청군 내 학생들 9천 명 출연), 빙상 집단 체조 《로동당 시대 아들딸》(평양 서성 중학교 학생 2천 200 명 출연), 빙상 체조 《자력 갱생》(함남도 함주군내 학생들 1천 500 명 출연) 등은 각기 자기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생활을 반영한 성과작들이였다.

특히 북청 고등 경공업 학교 전교생이 출연한 봉화 집단 체조는 그 형식의 독창성과 대담한 창조적 발기로 하여 더욱 경험적이며 성과적이였다.

1964년에 체육의 군중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육체 교양 체계의 기본인 인민 체력 검정 사업이 더욱 강화된 결과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빠짐 없이 참가하였으며 그의 합격자 대렬이 가일층 확대되였다.

특히 1964년에 1,2급 합격자 수는 1960년에 비하여 156%로, 소년급 합격자 수는 160%로 각각 장성되였다.

인민 체력 검정 참가자 및 합격자 장성 (1960=100)

	1961	1962	1964
참가자 수	81	116	128
합격자 수	105	140	170

【체육 기술의 발전】 1964년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 기술이 현저히 발전되였다.

이 해에 체육 부문에서는 기술 발전의 뚜렷한 전투 목표를 세우고 그를 점령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정력적이고 인내력 있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4년도 체육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국내, 국제 경기 대회들마다에서 훌륭히 증시되였다.

1964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간에 진행된 민청 창립 15 주년 기념 전국 빙상 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 행사를 경축하는 중앙 체육 대회, 제 18 차 올림픽 선수 선발 전국 종합 체육 대회(제 1 차, 제 2 차 경기), 1964년도 조선(종목별) 선수권 대회 등에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특히 1964년도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의 종합적 발전을 보여준 체육절 15 주년 전국 체육 대회(10월 11일—11월 2일)에서는 녀자 400 메터 달리기와 56 키로 그람급 용상 그리고 소구경 권총 속도 사격에서 각각 세계 기록을 돌파하였으며 륙상, 사격, 력기, 조정, 바이다르까 등 31 개 종목에서 (남자 26 개, 녀자 10개) 36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연 41 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경기 대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 체육 기술 발전은 어느 한 선수단이나 몇몇 체육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선수단, 체육인 전체가 다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체육절 15 주년 체육 대회 륙상 분야에서만도 10 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신 기록과 명수급 기준을 돌파했으며 대회 참가자들의 63.8%가 명수급 또는 1,2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1964년에 연 10 명의 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돌파하였으며 연 852 명이 공화국 신 기록을, 연 160 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우리 나라 체육인들은 1964년 1—2월에 오지리 인스브룩크에서 진행된 제 9 차 동기 올림픽 대회와 스웨리예 크리스티네함에서 진행된 세계 녀자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 6월에 버마 수도 랑군에서 진행된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축구 결승전 (조선—타이), 9—10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있은 사회주의 국가 군사 3 종 선수권 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들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제 9 차 동기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녀자 3,000 메터에서 2 위를, 1,500메터에서 4 위를 쟁취하여 국가 종합 성적에서 제 3 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웨리예 크리스티네함에서 진행된 세계 녀자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국가 순위 제 2 위를 차지하였다.

8월에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가네포 수영 경기에서는 금메달 1 개와 은메달 1 개를 각각 쟁취하였다.

사회주의 국가 군사 3 종 선수권 대회 (9월 27일—10월 2일,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 인민군 종합 선수단은 종합 성적 2만 2천 83점으로 2 위를 차지하여 은컵 1 개와 은메달 8 개를 쟁취하였다.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축구 결승전(조선—타이)에서 5:0으로 우리 나라가 승리함으로써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할 당당한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기타 조선 방문, 인도네시아 륙상 선수단, 캄보쟈 남자 배구 선수단, 로므니아 권투 선수단, 중국 륙상 선수단, 웰남 수영 선수단들과의 친선 경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체육 기술 발전의 전면모와 전술 체계의 우월성을 녁녁히 보여 주었다.

【체육 시설】 1964년에 체육의 군중화와 체육 기술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체육 시설들을 재정비 확장하였으며 체육 단체들을 더욱 튼튼히 꾸렸다.

1964년에 축구장 555 개, 롱구장 2천 255 개, 배구장 5천 632 개, 정구장 677 개, 씨름장 2천 534 개, 탁구장 4천 4 개, 정규 및 간이 수영장 564 개, 그네장 1천 383 개를 새로 더 신설하였다.

【체육 간부 및 후비 양성】 1964년에 체육 선수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체육 기술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 간부들과 선수 후비 양성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였다.

체육 대학과 각 도 체육 간부 양성소들, 각 사범 대학과 교원 대학에 설치되여 있는 체육과들에서 수천 명의 체육 교원, 훈련

지도원, 선수들을 양성해 냈다.

특히 이 해에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 사업을 강화하며 전도 유망한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해 각 협회와 도(직할시) 체육 지도 위원회들은 도, 시, 군 청소년 체육 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 공장, 기업소들의 체육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4년에 체육 간부는 전해에 비해 20%나 더 양성되였다.

이 밖에 우리 나라 동서 해안의 해양 구락부를 비롯하여 각 도 소재지, 중요 산업 지구에 설치된 사격, 통신, 항공, 자동차, 뜨락또르 등 각종 구락부, 크루쇼크 등에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여 수만 명의 체육 선수, 체육 애호가, 체육 열성자로 양성되였다.

【경기】 1964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경기는 체육절 15 주년 전국 체육 대회를 비롯하여 큰 규모의 중앙적인 경기 대회와 중소 규모의 중앙 경기, 지방 경기 등을 포함하여 2천 576회 진행되였다.

이에 망라된 선수단 수는 3만 2천 5 개이며 참가자 수는 131만 2천 539 명(그중 로동자 33만 2천 340 명, 농민 13만 7천 127 명, 사무원 9만 3천 208명, 학생 74만 7천 635 명, 기타 2천 226 명)에 달한다.

1964년에 진행된 중요 경기들은 다음과 같다.

1964년도에 진행한 중요 경기

대 회 명	시 일	참 가 자(명)	장 소
민청 창립 18 주년 기념 전국 빙상 대회	1.12—1.19	799	평양 보통강 빙상장
전국 스키 대회	2.26—3.6	233	삼지연 스키장
중앙 및 도 체육 강습소 빙상 대회	2. 9—2.16	63	부전호 빙상장
〃 스키 대회	3. 8—3.19	108	삼지연 스키장
2.8절 기념 중앙 및 도 체육 강습소 체육 대회	2. 2—2.11	241	평 양
전국 마라손 대회	3.22	35	개 성
제 18 차 올림픽 선수 선발 전국 종합 체육 대회(제 1 차)	4.26—5.2	2 960	평 양
〃 (제 2 차)	7.12—7.29	1 822	평 양
중앙 및 도 체육 강습소 수영 대회	8. 9—8.15	96	개 성
1964년 도 조선(종목별) 선수권 대회	8.23—9.13	1 329	평 양
체육절 15 주년 기념 전국 체육 대회	10.1—10.31	1 734	평 양
제 2 차 대학생 체육 축전(지역별 예선)	8월 중	6 600	평 양
〃 (중앙 결승)	10.18—10.24	1 600	평 양

【국제 교류】 1964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 국제 루즈 련맹 국제 빙상 혹케이 련맹, 국제 유술 련맹, 국제 까노에 련맹, 국제 조정 련맹에 새로 가입하였다.(1964년 말 현재 25 개 종목의 국제 련맹에 가입)

1964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경기 대회 및 친선 경기는 다음과 같다.

◇ 제 9 차 동기 올림픽 경기 대회(1월 29—2월 9일 오지리 인스브룩크)

◇ 1964년 세계 녀자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2월 15일, 스웨리예 크리스티네함)

◇ 도Ⅲ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예선 축구 경기(조선 : 버마, 2월 22일, 랑군)

◇ 도Ⅲ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축구 예선 경기(조선 : 버마, 3월 1일, 평양)

◇ 도Ⅲ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축구 결승전(조선 : 타이, 6월 20일 랑군)

◇ 가네포 수영 경기 대회 (8월 28일, 자까르따)

◇ 사회주의 국가 군사 3 종 선수권 대회(9월27일—10월2일 중국 베이징)

◇ 조선—캄보쟈 남자 배구 친선 경기(9월 6일—9월 16일, 평양)

◇ 조선—쏘련 탁구 경기(3월 11일—4월 3일, 쏘련)

◇ 조선—중국 탁구 경기(10월 14일—11월 3일, 중국)

◇ 조선—로므니아 권투 친선 경기(4월 15일—5월, 5일, 평양)

◇ 조선—중국 륙상 친선 경기(5월 23일—6월 16일, 평양)

◇ 조선—윁남 수영 친선 경기(6월 11일—7월 28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륙상 친선 경기 (7월 20일—7월 21일, 평양)

◇ 조선—중국(녀자)배구 친선 경기 (7월 31일—8월 9일 평양, 원산, 함흥)

◇ 조선—인도네시아 레스링 친선 경기(9월 22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탁구 친선 경기(10월 8일—10월 10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축구 친선 경기(12월 23일, 자까르따)

출판 보도

【통신】 조선 중앙 통신사는 일간 《조선 중앙 통신》, 일간 《사진 통신》, 일간 《영문 통신》, 순간 《조선 소식》(로문, 영문), 그리고 《조선 중앙 년감》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 중앙 통신사는 쏘련의 《따쓰 통신》,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신화 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통신을 수신 보도하는 동시에 대외 송신(방향별 영문 텔레타이프 방송과 대일 모사 방송, 사진 전송)과 공화국 각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송신을 하고 있다.

영문 대외 방송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 방향으로 송신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 방송 위원회들과 정기적으로 교환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쟈, 알제리, 아랍 련합 공화국, 기네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 방송 단체들과도 방송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1964년 12월 27일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와 중화 인민 공화국 방송 사업국 간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두 나라 호상 간의 문화 교류와 친선 관계를 강화할 데 관한 협정》이 베이징에서 체결되였다.

또한 1964년 12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방송국과 《문화적 련계를 발전시키며 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를 강화할 데 관한 협정》이 쟈까르따에서 체결되였다.

◇ 방송 시간과 주파수

방송별	대상	언어	시간 조선 시간	주파수
조선 중앙 방송	국내	조선말	아침 5시—밤 24시	중파 785kc 725kc 단파 2850kc 6600kc
평양 방송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	아침 5시—심야 2시	중파 625kc 655kc 865kc 735kc 760kc 800kc 820kc 1080kc 단파 3320kc 6250kc
〃	재일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	아침 6시—6시 30분	중파 760kc 820kc 1080kc 단파 2650kc
조선 중앙 방송	〃	〃	20시—20시 30분	중파 785kc 725kc 단파 2850kc

◇ 대외 방송 방향 및 시간, 주파수 (1965년 3월 말 현재)

대상 및 방향별	언어	시간 조선 시간	방향 대상지 및 시간	주파수
재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동남 아세아 방향	조선말	16시—17시 24시—1시	쟈까르따 14시—15시 22시—23시	단파 14520kc 18200kc 7580kc 9750kc
중 근동 및 아프리카 방향	조선말	7시—8시	까히라 24시—1시 알제 23시—24시 말리 22시—23시	단파 7580kc 6540kc 10380kc 7379kc
남미주 방향	조선말	8시—9시 11시—12시	아바나 18시—19시 21시—22시	단파 14520kc 14520kc 9750kc
구라파 방향	로어	1시—3시	모스크바 19시—21시 노보시비리스크 22시—24시	단파 7580kc 6540kc
쏘련 원동 방향	로어	17시—19시	하바롭스크 18시—20시	단파 5044kc 6540kc 중파 635kc
동남 아세아 방향	중어	21시—22시	쟈까르따 19시—20시	중파 635kc 단파 7580kc 9750kc
〃	영어	19시—21시	쟈까르따 17시—19시	단파 7580kc 9750kc

동남 아세아 방향	프랑스어	15시—16시	쟈까르따 13시—14시	단파 14520kc 18200kc
일 본	일 어	6시—7시		단파 5044kc 6540kc 5640kc 중파 635kc
〃	〃	13시—14시		단파 17580kc 7580kc 6540kc 중파 635kc
〃	〃	19시—24시		단파 5044kc 6540kc 중파 635kc
중근동 및 아프리카 방향	영 어	4시—6시	까히라 20시—22시 알제 19시—21시 예멘 21시—23시 말리 18시—20시	단파 7580kc 6540kc 10380kc 7379kc
〃	프랑스어	5시—6시	까히라 22시—23시 알제 21시—22시 예멘 23시—24시 말리 20시—21시	단파 7532kc 5640kc 10380kc 7379kc
남미주 방향	영 어	9시—11시 12시—13시	아바나 19시—20시 22시—23시	단파 14520kc 9750kc

지방 방송국들의 방송 주파수

방송국 명	주파수
평북도 신의주	860kc
평북도 창성	990kc
자강도 강계	1335kc
황남도 해주	1045kc
황북도 사리원	930kc
강원도 원산	850kc
함남도 함흥	1000kc
함북도 청진	1275kc
함북도 회령	1120kc
함북도 경원	935kc
량강도 혜산	1150kc
개성시 개성	605kc

【신문】 우리 나라에는 《로동 신문》, 《민주 조선》을 비롯한 여러 종의 중앙 신문들과 생산 기업소, 국영 농목장들에서 발간되는 직장 신문들이 있다.

1964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요 중앙 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로동 신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신문사 발행.

▶《민주 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 조선사 발행.

▶《평양 신문》, 평양 신문사 발행.

▶《로동 청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청년사 발행.

▶《로동자 신문》,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자 신문사 발행.

▶《교원 신문》, 보통 교육성,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교원 신문사 발행.

▶《문학 신문》,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학 신문사 발행.

▶《조국 통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기관지, 조국 통일사 발행.

▶《소년 신문》,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잡지】 1964년에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과학 잡지, 자연, 기술 과학 부문 잡지, 《조선 문학》을 비롯한 문학 예술 부문 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 선전용 잡지 등 정기 간행물들이 발행되였다.

이 해에 《삼천리》, 《남조선 문제》를 비롯한 여러 종의 잡지들이 새로 발간되였다.

1964년 말 현재 발간되고 있는 주요 잡지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과학 부문 잡지

▶근로자(반 월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사 발행.

▶천리마(월간) ▶삼천리 (월간) ▶대중 문예(월간),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조선 녀성(월간),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녀성사 발행.

▶로동자(월간),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직업동맹 출판사 발행.

▶청년 생활(월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소년단(월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새 세대(월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학생 잡지, 로동 청년 출판사 발행.

▶남조선 문제(월간)

▶국제 생활(반 월간), 국제생활사 발행.

▶조선 우표(격월간), 체신 출판사 발행

▶화살(월간), 선동원사 발행.

▶조선 (화보, 월간), 조선 화보사 발행.

▶인민 교육(월간), 기술 학교(월간), 보통 교육성, 조선 교육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교원 신문사 발행.

▶고등 교육(월간), 고등 교육성,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

▶ 력사 과학(격월간), 사회 과학원 력사 연구소 기관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조선 어학(격월간), 사회 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기관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경제 연구(분기간), 사회 과학원 경제 연구소 기관지, 사회 과학원 출판사 발행.

◇ 문학 예술 부문 잡지

▶조선 문학(월간) ▶청년 문학(월간) ▶아동 문학(월간),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조선 미술(월간), 조선 미술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조선 음악(월간), 조선 음악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조선 예술(월간), 조선 연극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조선 영화(월간), 조선 영화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 대외 선전 부문 잡지

▶오늘의 조선, 화보 《조선》 (월간, 로문, 프랑스어, 영문, 중문), 새 조선(월간, 중문, 로문), 조선 통보(월간, 에스빠냐어), 외국문 출판사 발행.

이 밖에 각 출판사들에서 《철학 연구》, 《문학》, 《극 문학》을 비롯한 수 많은 잡지들이 발행되였다.

【도서】 1964년에 《김 일성 선집》(2권)을 비롯하여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당 문헌들 그리고 《맑스—엥겔스 전집》 (6권),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반수정주의 교양 자료, 맑스-레닌주의 고전들, 계급 교양 자료 등 수 많은 도서들이 출판되였다.

또한 당 정책 교양에 필요한 도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관철에서의 몇가지 문제》,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포함한 수 많은 도서가 출판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과학 및 자연 과학 서적들도 많이 출판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5월 3일 교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 제고에 필요한 도서들도 수 많이 출판되였다.

이 해에 회상 실기 《혁명 선렬들의 생애와 활동》(1)을 비롯하여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이 쓴 27 편의 회상기를 묶은 《미래를 위하여》, 장편 소설《청년 전위》 등 혁명 전통 교양 도서가 수 많이 출판되였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의 《이 원수를 잊지 말자》, 《림진강반의 력사》 등 실화집을 포함하여 수십 종의 계급 교양 도서가 출판되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 고전 도서로서는 《담헌서》, 《조선 신화 연구》, 《구전 문학 자료집》, (설화편)등 수십 종이나 출판되였다.

이 밖에도 형제 당 문헌들이 체계적으로 출판되였다.

중요 출판사들은 아래와 같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과학원 출판사
▶로동 청년 출판사
▶직업 동맹 출판사
▶외국문 출판사
▶조선 녀성사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선동원사
▶중공업 출판사
▶경공업 출판사
▶농업 출판사
▶건설 출판사
▶교통 출판사
▶의학 출판사
▶군중 문화 출판사
▶체육 출판사
▶로동 도서 출판사
▶과학 기술 출판사
▶수산 출판사
▶사회 과학원 출판사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아동 도서 출판사
▶당 학교 교재 출판사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교육 도서 출판사
▶사진 보도사
▶체신 출판사
▶무역 출판사
▶외국문 교육 도서 출판사
▶경제 출판사.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정 치

1964년의 남조선 정치 정세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급격히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 기반을 수습하려고 발악을 했으나 그들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은 더 한층 심해졌고 매국적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진출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1963년 12월에 《민정 이양》 연극을 벌려 이른바 《제 3 공화국》을 날조하였다.

그러나 《제 3 공화국》의 조작은 파쑈 테로 통치의 본질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않았다.

도리여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민정》의 가면 밑에서 군사 파쑈 통치 체제를 《법》에 의하여 더 공고히 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아세아 《반공 집단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매국적인 《한일 회담》을 속히 결말지으려고 책동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기만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결정적인 항거를 불러 일으켰으며 식민지 지배 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지배층 내부의 혼란을 더한층 격화시켰다.

미제 식민지 통치의 위기의 심화

【파쑈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책동】 미제의 조종으로 《제 3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박 정희는 《민정》의 간판 밑에 파쑈 테로 체제를 정비 보강하는 데 자기 정책의 중심을 두었다.

우선 미제의 직접적인 간섭 하에 개악된 《헌법》에 근거하여 파쑈 통치 기구들이 재편성되였다.

《군정》 하에서 《최고 회의》 직속 기관이였던 《중앙 정보부》와 《감사원》, 《국민 운동 본부》 등 파쑈 통치 기구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되였으며 이 밖에 《국가 안전 보장 회의》, 《경제 과학 심의회》 등 기구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채택한 《법령》에 대한 《거부권》과 《대법원장》의 임명, 해임권이 부여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이 된 박 정희가 《군정》 시기 3권을 독점했던 《최고 회의 의장》의 위치와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차지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군정》 시기의 괴뢰군, 첩보 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그 체제와 더불어 인'적 구성까지 그대로 인계 받아 더 정비 강화했다.

최고 첩보 기관인 《중앙 정보부》 내에 《정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대공 사찰》이란 간판 하에 인민들에 대한 수사 정보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중앙 정보부》는 그 기간 성원 수만 해도 1만 5천 여 명이며 비밀 정보원은 무려 30 여 만 명에 달한다.

특히 《중앙 정보부》의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속도 통제도 받음이 없이 인민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이 쥐여져 있다.

《중앙 정보부》는 또한 각 계층 인민들의 력량을 와해 분산하기 위한 파괴 활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학원 정치 사찰》은 그 일례로 된다. 학원 내에 학생으로 가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학생들의 사상 동향은 물론 강의 내용까지 사찰하고 있다.

괴뢰 경찰력도 크게 강화되였다. 남조선에는 2,400 여 개소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가 있으며 이에 배치된 정규 경찰관 수만도 무려 4만 명에 달한다.

박 정희 도당은 특히 《정치 경찰》을 강화했으며 또한 《치안 행정의 능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 전문 학교와 각 시, 도 경찰 학교를 통한 경찰관의 재교육, 과학 수사 연구소의 운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기동 경찰력과 수사 형사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32 개의 2급지 경찰서를 갑지 경찰서로 《승격》시켰다.

파쑈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박 정희 도당의 책동은 6. 3 학생 봉기 이후 더욱 악랄해졌다.

【비상 계엄령 선포】 박 정희 도당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3. 24 시위로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투쟁이 폭동으로 넘어 가자 6월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5만 명의 괴뢰군을 서울에 끌어 들였으며 각 대학의 문을 강제로 닫고 야수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6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사이에만 하여도 1,170 여 명(학생 235 명, 언론인 7 명, 법조인 2 명, 시민 930 명)의 청년 학생들과 애국 인사들이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되였으며 1,218 명(학생 193 명, 교수 2 명, 시민 1,000 여 명)의 애국자들이 불구속 기소되였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은 《계엄령》과 총검의 위협에 의해서도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계엄령》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나섰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은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 시위와 비난》을 일시 《억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새로운 폭발이 일어날 위험》에로 사태를 이끌었다 (일본 《요미우리 신붕》 1964년 6월 5일).

이러한 정세는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부득이 7월 28일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2대 악법의 조작】 《계엄령》 해제 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멈출 수 없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아 보려고 새로운 모략과 탄압 책동에 매여 달렸다. 우선 그것은 소위 《인민 혁명당 사건》의 날조와 《2대 악법》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괴뢰 《중앙 정보부》는 《인민 혁명당 사건》을 조작하고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명목으로 혁신계 인사, 교수, 언론인, 학생들에 대한 검거, 탄압 소동을 일으켰으나 허위 날조라는 것이 백일 하에 드러났으며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을 끝내 종결 짓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봉기가 저들의 매국 배족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원의 지나친 자유》,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에 있다는 듯이 떠벌리면서 류례 없는 탄압법인 《언론 륜리 위원회법》과 《학원 보호법》을 조작하려고 획책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언론 륜리 위원회법》의 조작으로써 소위 파쑈적 《언론 륜리 요강》의 준수를 강요하여 외래 침략자와 매국 배족의 괴뢰 정권에 대한 일체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며 《학원 보호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집단 행동 및 학생 단체들의 호상 련합과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미제와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애국 투쟁을 억제하며 그들의 력량을 분산시키려고 기도하였다.

그 후 《언론 륜리 위원회법》은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되기는 했으나 언론인들과 사회계의 반항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학원 보호법》은 세상에 나타나 보지도 못 하고 류산되고 말았다.

박 정희 도당은 또한 《중앙 정보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기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기구를 개편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 운동 본부》를 《민간》 기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 상의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 정희 도당은 이 기구 개편을 통하여 그 반동적이며 폭압적 기능을 새로운 형태로 더한층 보강하였다.

《중앙 정보부》는 각 도 지부를 없앤 대신 《주요 지역에 대공 분실》을 설치하였으며 《공산주의와 반국가범에 관한 정보 수사 활동에 전력》한다는 구실 하에 그 폭압적 체제를 그냥 보존하면서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재건 국민 운동》도 《민간 단체》라는 가면 밑에 내부 체제를 더 강화하고 사실에 있어 유명 무실했던 산하 단체인 4만 5,052 개의 《재건 청년회》와 4만 4,899 개의 《재건 부녀회》를 재정비하기 위한 대책을 취했다.

이와 함께 《반공 시범 부락》, 《반공 시범 경찰서》, 《반공 시범 파출소》 등을 200 여 개나 만들었으며 각 시, 군에 종래에 없던 《반공 련맹 지부》까지 신설하고 인민 대중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기에 골몰하였다.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책동】 박 정희 도당은 대내적으로 파쑈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조종 하에 일제를 남조선에 또다시 끌어 들이기 위한 《한일 회담》을 하루 빨리 결속지으려고 모든 힘을 다하였다.

《한일 회담》의 속결 책동은 미제국주의의 극동 침략 정책의 전면적인 파탄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이 해에 들어 미제는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그 영향력이 확대된 데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 특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위력의 장성이 남조선의 혁명 발전에 강력히 작용했고, 중화 인민 공화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였으며 또한 남부 웰남, 라오스를 비롯한 기타 아세아 지역 내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급속히 앙양되였다. 이것들은 극동에서 미제의 침략 체계를 밑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이로부터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괴뢰 도당을 결탁시켜 남조선에서 급격히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보강하며 나아가 이것을 축으로 동북 아세아에서 군사 동맹을 결성하고 《반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극동 침략 체계의 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한일 회담》의 속결을 서둘렀다.

미제는 새 해 벽두부터 국무 장관 러스크,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 등을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여 수 차의 《고위급 회담》을 벌려 일본 반동 정부와 남조선 괴뢰에게 《한일 회담》의 속결을 재촉하였다.

우선 1월 17일 로버트 케네디가 도꾜에서 일본의 이께다 수상과 회담을 가지고 18일에는 서울에서 박 정희와 회담하였다.

1월 27일에는 러스크가 일본 외상 오히라와 회담을 가졌고 28일에는 이께다 수상과 회담했다. 이 두 회담에서는 모두 《한일 회담》 조기 타결 문제가 그 중심 의제로 되였다.

러스크는 도꾜 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29일에 서울에 기여 들어 《러스크—박 정희 회담》을 가지고 《한일 회담》 속결이 《한일 량국》 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 전체의 결속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 정희는 1월 10일 《년두 교서》에서 《극동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립각하여… 상호 간 번영와 더접

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요구임을·감안하여…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 회담을 급속히 타결코자 초당적인 외교를 추진토록》하겠다고 매국 책동의 적극화를 명백히 하였다.

그리 하여 박 정희 도당은《제3 공화국의 운명을 걸고라도 한일 회담을 추진시키겠다》고 떠벌리면서《3월 타결》,《4월 조인》,《5월 비준》의 계획에 따라 매국적인 대일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일본 반동들은 전 수상 기시 노브스께를 회장으로 하는《한일 협력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로골적으로 준비했다.

박 정희는 3월 하순에 김 종필을 도꾜에 보내여 5월 초《국교 정상화》의 조인을 위한 막후 흥정을 일제 상전들과 벌리게 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은《한일 회담》의 급속한 결속으로 미제와 일제의 2중의 예속 하에 들어갈 위험에 직면했다.

그러나 미제와《한일》반동들의 추악한 음모는 조일 량국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쳤으며 남조선에서 3월 24일 학생들의 대중적 투쟁을 불러 일으킨 직접적 동기로 되였다.

3. 24—6. 3 학생 봉기에 의하여《한일 회담》조기 결속 책동은 파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한일 회담》재개를 위한 책동을 끈덕지게 계속하였다.

6. 3 봉기 이후 미제는《한일 회담》의 재개를 위하여《종전의 막후 교섭 방식을 지양》하고《적극적인 조종》으로 간섭하는 방침을 취했다.

그리 하여 6. 3 봉기 이후《한일 회담》은 사실상《한 미 일 회담》으로 되였다.

우선 미제는《한일 회담》을 보다 능숙히 조종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남조선 총독인《주한 미 대사》,《주한 유솜 처장》및 군사 고문 단장 등을 교체했다.

신 대사 브라운은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자기의 임무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으며 8월 17일에는 괴뢰 외무부 장관 리 동원과 첫 회담을 하고《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 후 브라운은 9월 한 달 동안에만도 10 여 차에 걸쳐 박 정희를 비롯한 괴뢰 고위층과 여당과 야당의 우두머리들을 찾아 다니면서《한일 회담》의 재개와 그것의 조속한 결속을 독려했다.

또한 미제는 9월에 미 국무성 극동 담당 부차관보 버네트를 일본과 남조선에 파견하여《한일 회담》의 재개를 부추겼으며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서는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를 일본과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번디는《한미 고위 회담》을 벌리고《한일 회담》속결 대책을 모의했으며 10월 3일에는《리 동원—번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표명》하고《한일 문제를 성공적으로 타결시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브라운—리 동원의《공동 성명》을《재확인》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종으로《한일 회담》재개를 위한 박 정희 도당과 일본 반동의 책동이 표면화됐다.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한일 회담》반대 기세를 무마하기 위한《대규모적인 계몽 선전》을 벌리는 한편 1965년 4, 5월까지《완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본 반동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12월 초에 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한편 일본 반동 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조종과 박 정희 도당의 약점을 리용하여 남조선 재침에 유리한 조건을 앗아 내기 위한 흥정 준비에 더욱 전력하였다.

8 개월 간이나 중단되였던《한일 회담》은 12월 3일부터 도꾜에서 제 7 차 회담에 들어 갔다.

박 정희 도당과 일본 반동 정부는 다시 열은《한일 회담》을 1965년 2월에 있을《외상급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결속 짓고 5월 초에 정식 조인할 계획 밑에 다그쳤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의 괴뢰《반공 국가》들을 묶어 세워 우선 남부 웰남에서의 침략 전쟁을《국제화》하는 데 리용하며 나아가 동북 및 동남 아세아에 걸쳐《반공 집단 방위 체계》를 성사시키려는 흉악한 책동에 가장 충실한 앞잡이로 박 정희 도당을 내몰았다.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남부 웰남《파병》을 강행하고《아세아 반공 국가 외상 회의》소집 책동 음모에 적극 나섰다.

괴뢰 국무 총리 정 일권은 10월 7—15일에 걸쳐 미제의 늙은 주구 장 개석을 방문하고 두 괴뢰 간의《반공 뉴대》를 공고히 하며《극동, 아세아 제국의 집단 방위 체제의 형성》등 문제를 모의하였으며《한 중 우호 조약》에 가조인을 했다.

이《조약》체결은 서울—대북 축을 형성하여 이것을 서울—도꾜 축에 련결시킴으로써《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조작의 기틀을 만들려는 미제의 술책에서 나온 것인바 장 개석의 대변지《련합보》가《우호 조약이… 반공 투쟁에서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 준다.

남부 웰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는 아세아에 있는 괴뢰들에게 남부 웰남 파병을 강요하여 왔는바 이 문제는 정 일권이 장 개석을 방문하였을 때에 모의되여 두 괴뢰 간에《외용병을 파견하는 데 의

견 일치를 보았다》.

미제는 가장 파쑈적이며 철저한 주구인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반공 십자군의 선구자적 역할》을 놀게 함으로써 다른 괴뢰들을 쉽사리 끌어 넣으려는 목적 밑에 그를 더욱 사촉하였다.

그리 하여 박 정희 도당은 7월 31일에 괴뢰 국회에서 《웰남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제 1 차로 140 명의 괴뢰군을 남부 웰남에 《파송》하였으며 12월 하순에 또다시 괴뢰군의 《증파》를 결정하고 괴뢰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였다.

한편 박 정희 도당은 저들의 졸개들인 괴뢰군 예비역 장교들을 추겨 남부 웰남에 《의용군》을 보내기 위한 《자유 수호 의용단》을 조작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남부 웰남 《파병》을 서두르는 한편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포위와 침략 계획을 실현하며 무능력한 《세아토》를 대신하여 남부 웰남 사태를 수습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새로운 군사 동맹 조작 책동에 충실한 앞잡이로 날뛰였다. 미제의 조종 밑에 12월 20—30일에 걸쳐 괴뢰 외무부 장관 리 동원은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지를 싸다니면서 새로운 군사 동맹의 기틀을 마련할 《아세아 반공 국가 외상 회의》 (남조선, 대만, 남부 웰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일본) 개최 문제를 밀의하였다.

또한 박 정희는 이 해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서부 독일을 《방문》했다.

박 정희의 서부 독일 《방문》은 나치스 잔당의 독점 자본을 끌어들여 심각한 남조선의 경제 위기를 수습하며 《한일 회담》을 속결하고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장차 《동북아 군사 동맹》과 나토를 련결하려는 미제의 침략 구상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다. 그것은 이 번 《방문》의 전과정이 실증하고 있는 바 박 정희—류브케 간의 《정치 회담》에서 서독 대통령 류브케는 《한일 회담》의 조속한 결속을 요청했으며 수상 에르하르트는 《구라파가 나토에 의해 공산주의 위협을 극복한 것처럼 아세아에서도 그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층 내부 모순의 격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의 격화는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 권력 쟁탈을 위한 모순과 갈등의 심화를 가져 왔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2대 악법》 조작 음모 등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과 파쟁은 더욱 표면화되였다.

야당은 인민들의 반 《정부》 기세에 편승하여 여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박 정희 도당을 대신하여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을 기틀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야당파들은 박 정희 도당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정당법》, 《선거법》의 개정, 《정치 활동 정화법의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으며 또한 정권 획득을 위한 《범야 련합 전선》의 형성을 기도하였다.

반면에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여 야당 내 파벌 두목들을 매수하여 야당 세력을 분렬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리 하여 여당과 야당 간의 감투 싸움은 갈수록 심해졌으며 또한 이 과정에 여당과 야당 간의 싸움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내 각파 간의 모순 갈등도 격화되였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분파 싸움에 의해 내부가 4분 5렬되였다.

《민주 공화당》은 인민들의 배격 규탄과 이에 덮친 당내 《주류, 비주류 파》 간의 싸움에 의하여 김 종필을 당 의장에서 물러서게 하고 미국에 망명시켰으며 이것을 계기로 《주류, 비주류》 간의 대립이 더 심해졌다.

한편 야당인 《민정당》 내에서는 소위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여 한때 《분당 직전》의 사태까지 빚어 냈다.

《자유 민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간의 싸움이 계속되였으며 《온건파》를 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 하여 《국회》에는 제명된 자들로 구성된 《무소속 의원》들이 생기게 되였다.

《국회 의장》 리 효상이 《보수 정당들이 스스로 혁신을 단행하던지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만 나라의 발전이 올 것》이라고 개탄하게 된 사실은 괴뢰 집단 내부의 혼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단적으로 실증해 준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

《민정 이양》 이후 계속 심화되는 경제적 파국과 가혹해지는 파쑈적 탄압으로 더는 헤여나기 어려운 민생고와 무권리 상태에 빠진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기타 각계 각층 인민들은 이 해 벽두부터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여 계속 과감하게 투쟁하였다.

1964년에 전개된 각계 각층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 진출은 월 평균 100 여 건에 달하였는데 1963년과 1962년의 그것에 비해 볼 때 18 건과 38 건이 각각 장성하고 있다.

투쟁 형태별로 볼 때도 롱성, 파업, 시위 등 적극적인 투쟁이 1963년에 월 평균 15 건이였다면 1964년에는 약 45 건으로 장성했고 그 참가 인원도 1963년에 건당 평균 300 명이던 것이 1964년에는 860 명으로 격증했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와 같은 대중적 진출은 소위 《민정 이양》의 그늘 밑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감행하려던 파쑈적이며 매국적인 흉악한 음모 실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위기와 내부 혼란을 가일층

심화시켰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으로 《한일 회담 조기 타결》의 음흉한 책동이 중단되였으며, 《2대 악법》(《언론 륜리 위원회법》, 《학원 보호법》) 조작 음모가 파탄되였다. 또한 각 계층 인민들은 투쟁 행정에서 박 정희 도당의 온갖 방해 책동을 박차고 남북 접촉과 조국 통일 문제를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전면에 내세우게 되였으며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의 고립을 더욱 촉진시켰다.

【3. 24—6. 3 학생 봉기】 3. 24—6. 3 학생 봉기는 그 규모, 성격 및 적극성에 있어서 년간에 전개된 인민 투쟁 중에서 가장 큰 대중적인 투쟁이였다.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3 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이 투쟁에는 남조선의 42 개 지역에서 53 개의 대학과 173 개의 중 고등 학교 학생 31만 여 명이 참가하였고 이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투쟁에서 봉기자들은 1,572 명의 괴뢰 경찰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12 개의 괴뢰 경찰 파출소와 2 개의 괴뢰 행정 기관 건물, 60 대의 경찰차와 12 대의 경찰 사이드카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과 시민들도 1,352명이 부상 당했으며 연 3천 여 명이 검거 당했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에서 있은 가장 큰 대중적 정치 투쟁인 6. 3 봉기는 남조선의 인민 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룩하였다.

6. 3 봉기는 선행한 투쟁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개되였으며 그 조직성과 의식성, 완강성과 지구성, 성격과 전술면에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6. 3 봉기는 정확한 투쟁 단계의 설정, 매 단계에 적응한 투쟁 구호의 제기, 다양한 투쟁 형태의 채택 등 전술 면에서 종전의 투쟁보다 훨씬 발전하였다.

3 개월에 걸친 이 봉기는 대체로 3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적마다 그 투쟁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뚜렷한 발전을 보이였다.

제 1 차 투쟁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에 걸쳐 전개되였다. 이 투쟁은 박 정희 도당이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국회 비준》의 계획 밑에 《한일 회담》을 결속지으려던 절박한 시기에 《굴욕 외교 반대》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이 흉책을 좌절시켰다. 1차 투쟁에서는 반《정부》, 반매판 구호, 나가서는 일부 반미 구호도 제기되였다.

이 투쟁에는 38 개 지역에서 37 개 대학과 163 개 중 고등 학교가 망라되였으며 21만 7천 여 명의 학생과 1만 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리 하여 이 투쟁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투쟁 의식을 높여 주었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주어 보다 높은 투쟁을 준비하게 하였다.

제 2 차 투쟁은 4. 19 4주년을 계기로 전개되였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개된 이 투쟁은 그 예봉을 《한일 회담》 반대와 《4. 19 정신》을 모독한 박 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데 돌림과 함께 반파쑈 민주주의 구호와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높이 추켜 들었고 군중들의 합류를 호소하였다.

그리 하여 9 개 지역의 27 개 학교에서 2만 6천 여 명이 참가한 이 투쟁은 비록 규모에서 제 1 차 투쟁보다 작았으나 조직성과 반제적 성격 및 반파쑈 민주주의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 표현하였다.

제 3 차 투쟁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전개되였다. 제 3 차 투쟁은 학생 운동에 대한 박 정희 도당의 탄압과 《환률》 인상 등으로 인민들의 반《정부》 기세가 높아진 정세를 포착하고 파쑈적인 《군사 정변》 3 주년을 계기로 하여 박 정희의 매장을 상징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단식 투쟁으로 군중을 선동한 다음 6월 3일 괴뢰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폭동에로 진출하였다.

이 날 서울시 내 학생들은 《중앙청》을 일시 점령하고 《국회》 의사당을 포위했으며 《청와대》에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또한 학생들은 서울 시청, 서대문 경찰서, 성동 소방대, 중앙 선거 사무소, 경찰 무기고 등을 습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 또는 일시 점거하였으며 괴뢰 경찰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은 박 정희의 계엄령 선포로 일시 중단되였고 다만 지방들에서 6월 5일까지 투쟁이 계속되였다.

이와 같이 치렬하게 전개된 제 3 차 투쟁에는 33 개 지역의 89 개 학교에서 7만 3,500 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1만 여 명의 시민이 합세했다.

제 3 차 투쟁은 비록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하지는 못 했으나 지난 시기의 투쟁에 비해서는 물론 1 차, 2 차의 투쟁에 비하여도 조직성이나 의식성, 투쟁 형태에서 훨씬 발전하였다.

특히 《박 정희 정권의 타도》를 전면에 내걸고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구호를 결합시켰고 현 사회 제도의 변혁과 반미,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지향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투쟁을 일단 중지하고 대렬을 수습 결속한 다음 다시 계기를 잡아 진출하는 등 진공과 퇴각을 정확하게 결합함으로써 투쟁의 주동을 잡고 적들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번 투쟁이 4월 인민 봉기 때보다 투쟁 전술면에서 일층 더 발전하고 능숙해졌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6. 3 봉기는 선행한 투쟁들에 비하여 그 규모가 방대했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무장 경찰과 맞서 완강하게 투쟁하면서 장기간의 지구전을 전개했다.

이 번 투쟁에 망라된 지역을 보

면 4월 인민 봉기 때보다 13 개 지역이나 더 많다. 특히 종래에 학생 투쟁이 비교적 미약했던 충주, 론산, 온양, 목포, 려수, 강원도, 제주도 등지에까지 투쟁이 파급되였다.

더우기 박 정희 도당은 5만 9 천 여 명의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처음부터 최루탄과 곤봉으로 학생들을 탄압했으나 그들은 투석전을 전개하면서 3 개월에 걸쳐 완강한 지구전을 전개했다.

이는 남조선 학생 투쟁이 적들의 야수적인 폭압 하에서도 그 력량이 날로 장성되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학생들은 《반식민주의》, 《반외압》(외국의 압력 반대),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 봉기》라는 등 반제 구호를 들고 일제 재침을 반대해 투쟁했으며, 직접적인 반미 구호는 제기하지 못 했으나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미국은 한일 회담에 관여 말라!》는 등 구호로 미제를 공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박 정희 《정권》의 타도와 《중앙 정보부의 해체》, 《정치범의 즉각 석방》 등 파쑈 통치 체계의 변혁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매판 자본의 몰수, 민생고의 해결 등 인민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를 결부시켰다. 더우기 그들은 《민족의 단결 없이 남북 통일 할 수 없다!》 《민족 분렬 획책하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 등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였다.

6. 3 봉기는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책동을 좌절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극동에서 침략 체계를 강화하려던 미제의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통치 체계를 밑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6. 3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 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고 정치적 각성을 높이게 하였으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나서게 하였다.

【6. 3 봉기 이후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 《2 대 악법》 분쇄에로: 6. 3 봉기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아 수세에 빠진 박 정희 괴뢰 도당은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파쑈적인 탄압에 매여 달렸다. 그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세칭 《2대 악법》으로 불리우는 《언론 륜리 위원회법》과 《학원 보호법》을 조작하려고 광분했으며 야수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광란적인 놀음은 도리여 인민들과 학생들의 대중적인 반파쑈 민주주의 투쟁을 더욱 격발시켰다.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전개된 이 투쟁은 4월 인민 봉기 이후 처음으로 되는 언론인들의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투쟁이였다.

7월 말 여당인 《민주 공화당》이 박 정희의 지시로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제안하여 《국회》에 상정시키려고 획책하자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규제(規制) 대책 위원회》는 이 《법안》의 《비민주성, 위헌(違憲)성》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후 8월 2일 박 정희 도당이 이 악법을 기어코 강제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8월 5일 언론인들은 《언론 륜리 위원회법 철페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0 일에는 《전국 언론인 대회》를 소집하고 악법이 철페될 때까지 전 남조선적 규모로 투쟁하며 《정부의 일반적 선전을 띤 일체 보도를 거부한다》는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에 이어 각 도 단위로 《투쟁 위원회》가 결성되였으며 《언론인 대회》가 열렸다.

괴뢰 정부 각 행정부 《출입 기자단》들은 8월 8일 《기자단 공동 투쟁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더우기 이 투쟁 과정에서 남조선의 기자들은 언론 활동의 자유와 기자들의 민주주의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8월 17일 《한국 기자 협회》를 창립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언론인들의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언론 륜리 위원회법》 철페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의 투쟁은 이 《법》의 시행을 끝내 접수하지 아니한 신문 발행인들이 경영하는 《조선 일보》, 《동아 일보》, 《경향 신문》, 《매일 신문》, 《대한 일보》에 대해 박 정희 도당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더욱 치렬해졌다.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박 정희 도당의 《언론 륜리 위원회》 소집 책동을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신문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그 신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국 기자 협회》는 성명에서 《악법 시행에 끝까지 항거하려는 전체 언론인들의 투쟁 대렬에는 하등의 차질이나 후퇴도 있을 수 없으며 악법 저지를 위해 실력 행사도 불사할 굳은 각오가 서 있다》고 투쟁 결의를 밝히면서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였다.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는 《정부》 처사를 《일찌기 일제 하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처사》라고 규탄하고 《악법 반대와 민주 언론의 대의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엄숙히 다짐》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호소》하였다.

《악법》을 반대하는 언론인들의 투쟁이 바야흐로 폭발 직전에 이르자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도 이에 련대성을 표시하고 적극 성원하여 나섰다.

각계 각층 인사들은 《자유 언론 수호 국민 대회 발기 준비 협회》를 구성하고 박 정희 도당에게 항거하여 나섰으며 《한국 예술 문화 단체 총련합회》, 《한국 기독교 련합회》, 《서울 제 1 변호사 협회》 등 단체들은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 하여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반대하는 투쟁은 대중적인 반파쑈 민주주의 항쟁을 촉발시킬 추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세 발전에 직면하여 박 정희 도당은 하는 수 없이 9월 9일 5 개 신문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소하였으며 《언론 륜리 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하려던 또 하나의 《악법》인 《학원 보호법》은 세상에 나타나 보지도 못 하고 흐지부지 류산되고 말았다.

《구속 학생를 석방 하라!》: 6. 3 봉기 이후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의 앙양은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서도 표현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수세에 빠진 처지를 만회해 보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자비한 검거 선풍을 일으켜 1,170 여 명의 애국적인 학생, 지식인, 민간인 등을 구속하여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파쑈적인 검거 소동은 결코 망해 가는 박 정희 도당의 운명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으며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항거에 부딪쳤다.

서울시 내 학생들은 구속되였다가 석방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속 학생 석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6. 3 사태는 집권자의 시대 착오와 비애국적인 행동 륜리를 방관할 수 없어 나선 것》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조치를 폭로 규탄하고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100만인의 서명 운동과 사식대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서울시 내 각 대학들에서도 《구속 학생 석방 궐기 대회》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면서 서명 운동과 금품 모집 운동을 전개했다.

9월 8일 서울 대학교와 고려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12일에 이르러 서울시 내 전체 대학에 퍼지였으며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언론인, 교수, 변호사, 지어 가정 부인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은 강력한 사회적 지지 성원 속에서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법정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더욱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하였으며 몇 명(8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원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는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검거 선풍의 파탄을 의미하며 동시에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 민주화 투쟁의 큰 성과로 된다.

【각계 각층 인민 투쟁의 계속되는 앙양】 지난 1년 간 남조선에서는 반제 애국 투쟁, 반파쑈 민주화 투쟁과 함께 로동 계급을 위시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도 새로운 기세로 장성하였다.

이 해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반파쑈 민주화 운동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전개되였으며 그 형태가 적극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써 특징적이였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강제 해고 반대, 임금 인상 요구, 《로조》 활동의 자유 요구 등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1964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는 사이에 남조선 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로동 관계법》의 개악을 반대하며, 임금의 40%~100% 인상을 요구하여 1963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로동 쟁의》에는 철도, 전매, 체신 등 괴뢰 《정부》 기관 산하의 5 개의 《국영 기업체》와 9 개의 민영 탄광, 미군 기관 등을 비롯하여 남조선 전 지역의 거의 모든 공업 부문에서 148 개 기업체가 망라되였으며 14만 여 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투쟁은 어용 《로조》 간부들의 배신 행위로 좌절되고 말았으나 그 규모에서 정전 후 남조선 로동 운동 중 최대의 조직된 력량을 동원한 것이였다.

또한 이 투쟁은 운동의 조직성과 련대성에 있어서 보다 발전 강화되였음을 보여 주었다. 례컨대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들은 《로동 쟁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더우기 이 투쟁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한 《민정 이양》 놀음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민정》의 첫 해에 들어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특히 로동자들은 이 투쟁에서 괴뢰 정부가 《로동법》에 규정한 《쟁의》와 《랭각 기간》을 무시하고 직접 시위와 파업, 롱성 등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는바 이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로동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은 6. 3 학생 봉기 이후에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9월 한 달 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는 10 여 차에 걸치는 로동자들의 파업 및 시위 투쟁이 벌어졌다.

1964년도에는 미군 부대 산하 기관 로동자들의 투쟁이 급격히 강화되였다. 이 해에 있은 전체 로동자 투쟁에서 그들의 투쟁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특히 그 투쟁의 약 81%가 시위, 파업 등 적극적인 것이였다.

6월 20일 미군 부대 산하 파주 지구와 부평 지구의 로동자 2,000 여 명이 부당 해고를 반대하여 시위를 전개했으며 12월 20일 부평 지구 미군 산하 로동자 2천 여 명은 《미군은 즉시 임금 인상하라!》, 《미군은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는 구호 밑에 미군 사령부를 상대로 이 해에 들어 두 번째의 시위를 단행했다.

미군 부대 로동자들의 투쟁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미군에 대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불평 불만이 높아진 데 있는바 그것은 경제적 처지의 가일층의 악화, 미군의 민족적 멸시와 인권 유린의 심화, 우심해진 《로조》 활동의 억제 등에 기인한다.

한편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어용 《로조》와 그 간부들을 배격하며 로동 계급 대렬의 결속을 위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전국 철도 로조》 서울 지부 조합원 7,400 명이 어용 《로조》 간부를 반대 배격한 투쟁, 《기관차 로조》원들의 《관제 로조》 반대 투쟁 등은 그 일례이다.

이 해에 로동자들의 진출과 함께 농민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남조선의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농민 2천 여 명은 5월 5일과 10일의 2 차에 걸쳐 자기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략탈하여 관제 《동호 농장 개척단》에 넘겨 주려는 박 정희 도당의 횡포한 처사를 반대하여 《농토 수호 궐기 대회》를 가진 후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230 여 명의 농민들은 박 정희 도당이 저수지 공사를 한다는 구실 밑에 농토를 강탈하려는 처사에 항의하여 1963년 12월 21일부터 1964년 1월 1일까지 시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7 개 부락 100 여 명의 농민들도 《군사 시설 확장》을 위해 농토를 빼앗은 박 정희 도당의 강도 행위를 반대하여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걸쳐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경상북도 선산군 산동면, 고아면, 해평면에 사는 200 여 명의 농민들도 박 정희 도당이 《공유지》라는 명목으로 토지 경작권을 박탈하려는 데 격분하여 10월 초순 《군청》에 몰려가 항의를 들이댔다.

이렇듯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례년에 비하여 현저히 장성했다.

이 해에 남조선 농민들은 박 정희 도당의 비료 가격 인상, 농지세의 《물납제》 실시, 양곡 강제 매상, 농사 자금의 강제 회수 등 수탈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력히 전개하였다.

10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면 내 200 여 명 농민들이 비료 가격 90% 인상을 반대하여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충청북도 충주 및 청주 잎담배 경작자들이 《불매 동맹》 운동을 전개한 사실 등은 그 일례이다.

1964년에 남조선에서는 생활 안정을 요구하는 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기타 계층들의 투쟁도 례년에 비하여 급속히 장성했다.

5월 9일 1천 여 명의 서울시 주민들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민생고를 해결하라!》, 《배고파 못 살겠다. 매판 자본 몰수하여 실업자 구제하라!》, 《식량 대책을 세우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300 여 명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위를 전개했다. 5월 12일 부산시 중구 충무동 소상인 400 여 명은 경찰과 맞서 30 여 명의 부상자까지 내면서 판자 점포의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투쟁했으며 9월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주민 2,500 여 명은 판자'집을 헐려고 최루탄까지 쏘면서 달려드는 300 여 명의 경찰대를 석전으로 물리쳤다.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의 민주 력량은 더욱더 강대해졌으며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더한층 수세에 빠졌다.

【조국 통일 기운의 앙양】 1964년에 남조선에서는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운이 크게 물'결쳤다. 새 해 벽두부터 반파쑈 민주화 운동 및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된 민족적 념원을 실현하려는 억센 기운은 이 해 드디여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고 침략자 미제에게 총'부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남북 통일!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행복한 생활에로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생활이 있으므로 하여 더 한층 이것을 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남조선 《경향 신문》 1964년 1월 28일)라고 한 고등 학교 학생의 절규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신념이 남녀 로소를 막론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날을 따라 더욱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월 12일 날'자 《경향 신문》은 《먹을 것을 달라 이것이 절박한 요구이다.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 대책 밖에 없다면 북반부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반부에서는 실업자에게 일터도 준다니 한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협상 회담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한 독자의 투고를 실어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 전체 인민들의 삶과 직접 결부된 절박한 요구로서의 조국 통일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제 강점으로 말미암은 조국의 량단이 빚어낸 신 금단 선수 부녀의 도쿄 상봉은 거대한 충격이 되여 통일 실현에 대한 념원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정치적 열의를 띠고 소용돌이 쳤다. 사태 발전에 당황한 박 정희 도당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상투적인 비방 중상과 더불어 《반공》 선전을 더욱 악랄하게 불어댔다.

그러나 괴뢰 도당은 남북 서신 거래, 남북 경제, 문화 교류, 남북 협상을 통한 조국 통일을 실현하자는 광범한 각 계층 인민들의 지향을 꺾지 못했으며 남조선 출판물에서는 이와 같은 굳센 의지를 반영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론조를 공공연하게 전개하였다.

《조선 일보》는 《우선 길을 터 보아야 한다—통일과 남북 교류와 주체성》이라는 10회에 걸치는 특집을 실었는데 첫 날인 10월 27일 호의 독자에게 알리는 말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희귀한 단일 민족이며 수 천년 같은 언어, 같은 풍속, 같은 문화를 누리고

살아 온만큼 현실이야 어떻게 가혹하던 분단의 기형 상태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하나가 되리라는 것, 되여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의 론의를 <타부>(금지)로서 돌려 놓는 안일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론의에 그칠지라도 론의하고 또 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국 통일의 력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론조는 나아가 합법칙적이며 불가피한 자주 통일을 지향하여 《우리 통일은 기어코 자률적 통일이여야 하며 통일에 있어서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자각이 중요하다》, 《자주 독립의 방향으로 민족의 정신과 력량을 집결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의 앞날은 없다》 (남조선 《세대》 1964년 10호)고 주장했다.

11월 3일 서울시 내 25 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회합을 가졌는데 그들은 《일부 정치인이나 국제 정세의 추세에만 기대할 수 없는 국토 통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결의를 다짐하면서 《여하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및 외세의 작용도 배격한다》고 선언하였다.

통일 기운의 앙양은 10월 29일 《조선 일보》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통일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85%,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이 75%였다.

광범위한 계층 속에서 통일에 대한 론의가 적극화되자 이에 압도되여 급기야 괴뢰 국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은 통일 기운의 앙양에 대하여 외국 통신들까지도 《남조선에서는 20년 동안이나 끌어 온 나라의 재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끓어 오르고 있다》 (에이. 에프. 피)고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1964년에 남조선에서 《경향 신문 필화 사건》, 《황 룡주 필화 사건》, 《조선 일보 압수 사건》등 조국 통일을 다룬 론설들에서 《필화 사건》이 빈번히 일어 났다는 사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조국 통일 기운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량으로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964년도 남조선의 인민 운동은 로동자들의 투쟁과 3.24—6.3 봉기에서 표현된바 청년 학생 운동의 거대한 앙양을 비롯하여 농민, 지식인, 기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혁명 력량의 장성을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과 반혁명 력량 간의 호상 관계는 《군사 정변》 직후와는 현저하게 변화되였으며 이제 와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붕괴 행정을 그 무슨 방법으로써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였다.

경 제

1964년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긴축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식민지 략탈 및 예속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파렴치하게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 민족 경제는 마침내 최악의 폭발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민생고는 절정에 달하였다.

해외 팽창 정책의 전면적 파탄, 특히는 남부 웰남, 라오스 등 동남 아세아에서의 군사 정치적 참패로 말미암아 극도의 곤궁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략탈과 식민지 군사비를 보장하고 예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축》을 더욱 강행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식민지 경제 정책은 이 해 남조선에서 경제의 《자유화》와 《안정화》라는 위장된 구호 하에 전면적으로 집요하게 감행되였다.

【경제의 《자유화》】 1964년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주요하게 또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것 중의 하나가 경제의 《자유화》인데 그 내용은 미국 딸라 대 남조선 원화의 《환률의 자유화》와 그것을 기초로 하는 《가격 구조의 합리화》 및 《국영 기업의 자유화》이다.

1964년에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는 잉여 농산물 《원조》까지 합하여 도합 1억 3천여 만 딸라로서 전년에 비해 5천만 딸라가 축소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 원조》 분야에서도 280만 딸라가 괴뢰 정부의 부담으로 넘기여졌다.

《원조》의 축감과 관련하여 미제는 남조선에 투입한 딸라의 략탈적 효률을 높임으로써 《원조》 축감의 폭을 메꿀 뿐만 아니라 남조선 경제의 예속성을 강화하며 미국 및 일본, 서독 등 자기 영향 하에 있는 독점 자본의 진출을 촉진시켜 괴뢰 통치의 격화된 위기를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보려고 기도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1964년에 《단일 류동 외환 제도》의 실시 (《환률의 전면적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환률 개정》을 감행하였다. 5월 3일 강행된 《환률 개정》으로 말미암아 딸라의 략탈적 효률은 일약 2배로 늘어 나고 남조선 인민은 추가적인 군사비의 부담만도 97억 원을 더 걸머지게 되였다.

《환률》 인상 후 미제는 그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에 적응하며 외래 독점 자본의 초과 리윤을 보장할 수 있게 남조선 물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외래 독점 자본의 침략의 발판인 예속 자본가의 지반을 확대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라 붙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위 《가격 구조의 합리화》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라는 표방 하에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제는 박 정희 도당을 추동하여 종전에 형식적이나마 《통제》해 오던 쌀, 보리쌀, 세멘트, 설탕 등 중요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해제하고 시

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형성》에 내여 맡겼다. 한편 괴뢰 정부는 《관영 료금》과 《관허 료금》 등 모든 료금 체계도 《자유화》하는 길에 들어 서 년초에 철도 화물 운임을 15%,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30% 인상했고 9월부터는 전기 료금을 50%, 비료 판매 가격을 90%, 석탄 가격을 17% 각각 인상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자유 민간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구실 밑에 30 여 개의 《국영 기업》 중 25 개까지를 《불하》하여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괴뢰 통치의 경제적 지반인 예속 자본을 비호 육성하는 목적과 밀접히 결부되여 추진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해 금융 부문에서는 전례에 없는 《특혜 융자》가 공공연하게 감행되였다.

【경제의 《안정화》】 미제는 1964년에 남조선에서 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유화》 체계의 토대로서의 경제의 《안정화》 특히는 괴뢰 정부에 대한 《재정 안정》 정책을 일층 강화하였다.

경제의 《안정화》는 《원조》의 축감에서 오는 괴뢰 정부 재정 수입의 감소를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수탈의 강화로써 보상하며 괴뢰 통치의 지주인 방대한 군사, 경찰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의 경제, 정치적 지반을 《안정》시키려는 미제의 일관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 해에 남조선 경제는 더욱 강화된 《긴축》으로 말미암아 질식 상태에 빠져 들었으며 인민들의 재정 부담은 더 커졌는바 《조세》는 전년보다 34억 원이 늘고 《림시 특별세법》 신설에 의해 80억 원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였다. 한편 경제와 민생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극도로 억제되였다. 미제는 《년말 통화 한도선》을 4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목표로 가혹한 재정 및 금융 《긴축》을 감행하도록 박 정희 도당을 내몰았다.

1964년도의 괴뢰 정부 예산 규모는 괴뢰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축감되였으며 특히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와 융자는 163억 원으로서 1963년에 물가가 약 40%나 등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2% (46억 원)나 축감된 것이다.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물자 수급 계획》 규모가 전년도 수입 실적의 74%로 격감됨으로써 공업 원자재 공급도 대폭 축감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소비를 축소시키는 한편 인민들에게 《소비를 억제》하고 더욱 철저한 《내핍 생활 체제》를 확립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긴축 정책》 하에서도 《경제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다. 군사비와 파쑈 통치 유지비의 증대로 말미암아 인플레는 계속되였고 경제 사회적 불안은 날로 심화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년초에 정한 400억 원의 《통화 한도선》은 깨여져 11월 15일 현재 무려 485억 원을 돌파했고 그들의 전반적 《경제 안정화 정책》은 볼품 없이 파탄되였다.

년말에 와서 미제는 박 정희 도당을 내몰아 일체 은행들의 자금 대출 업무를 중단시키고 농촌에서는 각종 자금 회수를 강행하는 등 일대 수탈 소동을 벌려 마지막 발악을 다 했으나 사태를 수습하지 못 했다.

【경제의 《근대화》】 박 정희 도당은 이 해 미제의 침략적 후과를 은폐하며 경제의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정치적 지반을 강화할 목적 밑에 남조선 경제의 《근대화》를 더욱 요란하게 불어 댔다.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모든 파멸적 사태의 원인이 《경제 구조 자체의 후진성》에 있으며 따라서 《후진적인 구조》를 《현대적인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1964년에 박 정희 도당은 《공업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예속 자본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150 여 개의 중소 기업체를 《수출 산업》체로 선정하고 여기에 《중소 기업 자금》과 원자재를 집중 공급하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밖의 중소 기업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안정 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종래 일반 령세 농민 대중에게도 적으나마 일정한 금액이 돌아 갔던 《영농 자금》의 공급을 중단하고 중농 상층부 이상의 농가에 자금과 농기구 등의 공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중농 정책》을 점차로 돌려 세웠다.

이와 함께 소위 《근대화를 위해 일본 자본의 인입이 필요》하다고 떠벌리면서 《수출 산업》과 농지 개간 등에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일 것을 기도하였다.

이 해에 더욱 표면화된 경제의 《근대화》 정책은 광범한 중소 기업의 중 하층 및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령세 농민들의 파산 몰락과 전반적 민족 경제의 한층 무서운 파멸을 촉진시켰다.

【심각한 후과】 경제의 《자유화》와 《안정화》, 《근대화》의 구호 하에 감행된 광란적인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해 남조선의 경제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전반적 경제 형편은 마침내 《8. 15 후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위기는 생산과 재정, 금융, 류통의 모든 면에서 확대 심화되였으며 사회 계급적 모순도 더욱 첨예화되였다.

첫째로 기업 경영 조건이 악화되고 기업 파탄이 혹심하게 진행되였다.

년초부터 강화된 《초긴축 정책》 하에서 생산 기업체들의 자금 사정은 박 정희가 집권한 이후 시기 중에서도 가장 악화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기존 시설 활용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중소

기업 자금》을 전년도의 절반으로 주려서 실제 자금 소요액(200억 원)의 1.8% 밖에 안 되는 3억 6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생산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반영하여 은행들의 연체 대출 비중은 년초의 17%로부터 9월 말에는 25%로 늘었으며 《부도 수표》의 람발 건수는 례년의 3배로 격증하였다. 전체 생산 기업체의 74.7%가 고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업체들도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1월 25일).

이러한 사태는 특히 미제가 《년말 통화 한도선》 유지를 위해 은행들의 융자 회수와 《강력한 대출 억제》를 실시한 4. 4 분기 이후 시기에 더욱 격화되였으며 기업 활동은 질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외화의 고갈, 수입 억제, 《환률》 인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생산 기업체들은 심각한 원료난을 겪었다.

외화 부족으로 괴뢰 정부의 1964년도 《물동 계획》 규모는 지난 해보다 축소된 것이였으나 이것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중요 공업 원자재 수입 감소가 격심했다.

물가 폭등과 주민들의 생활 령락으로 시장 구매력이 떨어진 결과 생산 기업체들의 판매난도 심화되였다. 상품 판매는 외상 판매가 압도적이였으며 그나마 실현되지 못해 체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 운영 조건의 가일층의 악화로 모든 공장들은 전혀 수지가 맞지 아니 하는 《출혈 생산》을 거듭하는가 하면 현상 유지를 위한 단순 재생산 조차 지속하지 못 하고 휴업, 페업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61년 4. 4 분기에 남조선 중소 기업의 가동률은 61%였다. 그러나 1963년 상반기에는 52%로 떨어졌으며 1964년 4월에는 46.5%라는 전례에 없었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둘째로 공업 생산 장성 템포가 급격히 저하되고 부문 간 구성의 편파성이 더욱 심해졌다.

세째로 농촌 경리가 파탄되고 농민 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이 해 남조선 농민들의 영농 조건은 영농 자금의 고갈과 비료, 농약 가격의 인상 등으로 매우 곤난하였다.

괴뢰 정부는 《긴축 정책》을 표방하면서 종래의 명목적인 《영농 자금》마저 축감하여 24억 원 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조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비해 7분의 1 밖에 안 되는 것이였다.

반면에 괴뢰 정부는 농민들에게 강매하는 화학 비료 가격을 90%나 인상하였다.

결과에 농민들은 비료를 제대로 쓰지 못 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비료를 사들일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속출하였다.

여기에 또한 령남과 충남 지방에서는 심한 한재와 풍수해를 입었으며 그 영향으로 곡식들이 여물지 않아 농민들은 《랑곡 흉년》을 겪었다.

특히 추곡의 작황은 평년작도 못 되는 형편이였다.

그리 하여 례년 같으면 곡가가 떨어질 시기인 추수기 이후에도 남조선의 곡가는 오히려 뛰여 올랐고 괴뢰 정부는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잉여 량곡 수입 외에도 350 만 톤의 보리쌀을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서둘러 나섰다.

이 해 남조선에서는 식량 부족량이 900만 석에 달하였으며 례년보다 두 달이나 빨리 《춘궁》을 겪은 남조선 농민들은 5월에 와서 대부분이 절량되였는바 그 수효는 140만 호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도당은 1963년 말과 1964년 초에 《매상》 등의 명목으로 200 여 만 석의 량곡과 《농지세》, 《수세》의 명목으로 57억 원의 현금을 략탈하였다.

이 밖에 이 해 가을부터 종전에 주로 현금으로 걷어 들이던 《농지세》와 《수세》를 현물로 걷어 들이는 《물납제》로 바꾸었으며 여기에서 또한 막대한 량곡을 강탈하였다.

절량과 리농 사태는 추수 이후 시기에 와서도 계속 부절하게 빚어졌는바 1964년 한 해 동안에 단지 서울에 모여 든 리농민(어민 포함)만도 31만 2,910 명에 달했다.

네째로 재정 금융은 파탄되고 악성 인플레는 더욱 첨예화되였다.

가혹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무제한한 군사 경찰비의 지출과 특히는 《환률》 인상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대로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폭등하여 악성 인플레는 가일층 첨예화되였다.

괴뢰 정부는 《년말 통화 한도선》을 400억 원으로 정하고 전반적 《재정 안정 정책》을 실현하려 하였으나 11월 15일 현재 남조선의 통화량은 485억 원으로서 1년 전에 비하여 20%(80억 원)나 전례 없이 팽창하였다.

통화 팽창과 원에 대한 딸라 가치의 인상으로 남조선 화폐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입 상품 가격을 비롯해서 물가 전반이 급속도로 폭등하였다.

공식 발표에 의하더라도 1964년 1년 동안에 남조선의 물가는 34.7%가 올라 《1956년 이래 최고의 등귀률》을 나타내였다. 그 중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은 약 60%나 올랐다.

이에 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으며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의 틈바구니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회적 불안은 일층 심화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 경제적 모순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의 자립과 나

라의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번져졌으며 새 제도, 새 생활을 갈망하는 절박한 념원을 어느 때보다도 고조시키게 하였다.

이 해 6월 3일을 고비로 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 단적인 표시였는바 이러한 인민들의 동향은 년중 계속 끊임 없이 나타났다.

산 업

년초부터 강화된 출혈적인 《긴축 정책》과 5월에 있은 《환률》의 대폭 인상, 년말에 이르러 더한층 강화된 《민간 자금 회수》 소동 등,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거듭되는 략탈과 폭압 하에서 1964년에 남조선의 생산 기업체들은 《전례 없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들었다.

《긴축》과 살인적인 물가고라는 2중의 압력에 짓눌려 인민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감퇴하여 생산 제품의 실현난은 가중되고 기업체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첨예화되였다.

《3난》으로 불리는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은 극도에 달했으며 조업 단축, 휴업, 폐업 등 기업체들의 파산 과정은 급속히 그리고 더욱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서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더우기 괴뢰 정부의 《기간 공업 우선 주의》, 《대기업 우선 주의》 정책에 의하여 공업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일층 심화되고 중소 기업의 파산 몰락 과정이 더욱 촉진되였다.

1964년 남조선 산업 동태에서 나타난 기본 징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조건의 악화: 박 정희 도당은 전반적인 자금 대출 규모를 전년도보다 22%나 축감하고 그나마 군사적 외외가 큰 산업 부문과 《군납》, 수출업 등 주로 대기업가들인 예속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중소 기업 자금으로는 도합 48억 원의 재정 자금 중 겨우 3억 6천만 원을 배정했을 뿐이다. 전년도의 절반으로 줄은 이 금액은 남조선 중소 기업의 년간 소요 자금 200억 원의 55분의 1 밖에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이 해에 괴뢰 정부는 또한 주로 예속 자본가들인 《일부 고소득 특정 업자》에 대해서는 《원천 탈세, 2중 장부에 의한 허위 판매 가격과 수량 탈세》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탈세를 공공연히 묵인해주는 반면에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세》와 《영업세》를 당초의 목표액보다 훨씬 초과하여 징수하였다.

이리 하여 중소 기업을 주로 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고리채에 의존하여 경영을 유지하였는데 1964년 4. 4 분기 중 남조선의 10 개 공업 부문 생산 기업체들의 자금 동태를 괴뢰 정부 《한국 은행》이 조사한 데 의하면 민간 기업의 차입금 중 고리채의 비률은 부문에 따라 60—90%에 달하였다.

고리채의 사용도를 보면 원료 구입용이 80.7%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시설 투자용으로서는 단 16.5% 밖에 안 되였다 (남조선 《동화 통신》 1965년 2월 12일). 이것은 이 해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의 자금난이 얼마나 다급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은 이 해에 어느 해보다도 심한 원료난을 겪었다. 《긴축》의 영향 하에 1964년도 남조선의 원자재 수입 규모는 전년의 4 억 딸라 이상의 수준으로부터 2억 8천만 딸라로 약 30%나 축감되였다.

이 해 상반년까지의 주요 원자재 수입 실적을 보면 화학 제품은 52%가 줄었고 기타 원료 제품은 45%가 줄었다. 따라서 모든 생산 기업체들은 《헤여날 수 없는 원료난》에 빠졌다.

더구나 이 축감된 원자재 마저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대기업 우선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일부 예속 자본가들에게 집중 배정하여 광범한 중소 기업의 원료난을 가중시켰다. 례하면 년초에 배정된 1천만 딸라의 원료 중 압도적 부분을 큰 업자에게 공급하고 일반 중소 기업가 용으로서는 단 91만 딸라 (9.1%) 밖에 공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5월에 있은 《환률》 인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면과 유류, 생고무, 화학 공업 약품 등의 중요 공업 원료 가격은 약 40%나 폭등하였다.

물자 결핍과 《환률》 인상으로 인한 가격의 앙등은 가뜩이나 위축된 주민들의 구매력을 더욱 감퇴시켰으며 생산 기업체들은 심각한 제품 실현난에 부딪쳤다.

1964년 상반기만 해도 공업 제품의 체화량은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었으며 그 중 피혁 제품의 체화량은 2.5 배, 고무 제품은 2 배, 직물류는 1.6 배로 증대되였다.

《3난》 —그것은 마침내 이 해에 《뚫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이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가로 막았다.

기업 파탄과 공업 생산 장성률의 급격한 저하: 경영 조건이 일층 악화된 결과로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휴업과 폐업 사태가 계속되였다.

남조선의 《한국 은행》이 조사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11월 현재 중소 기업의 20%가 완전 휴업하였고 생산 기업체의 가동률은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공업 부문에서는 40%,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36%,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26%가 각각 완전히 휴업하였다.

기업 파탄도 체계성을 띠고 확대되였는바 1962년 상반년 중 휴업하고 있던 생산 기업체의 수는 월 평균 852 개였는데 1964년 7월에 와서는 1,635 개로 격증하였다. 10월 말 현재 서울시 내의 기업체 수는 전년 말에 비하여 819 개가 줄어 들었다.

기업 파탄을 반영하여 생활 필

수품을 비롯한 주요 공업 제품들의 생산이 감퇴하였다. 1964년 상반년 간에 식료품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줄었고 피혁 제품은 11%, 비누는 20%, 금속제 필수품은 46%, 일반 기계는 19%, 목제 가구 제품은 15%가 각각 감소하였다.

남조선의 전반적 민족 공업이 이렇듯 심한 역경에 처해 있었으나 박 정희 도당은 《기간 산업 우선 정책》을 떠벌리면서 군사적 수요와 관련된 일부 공업 부문과 《원조》 축감을 보충하기 위한 《수입 대체 산업》에 대해 자금을 계속 집중 투하하였다.

1964년에 전력은 26억 9,900만 키로와트시, 석탄은 962만 톤, 세멘트는 124만톤, 비료는 14만 톤(류안 환산)을 각각 생산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1964년에 군수 생산을 위한 일부 공업 부문에 《우선 투자》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공업 총생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경공업 제품 생산의 감퇴로 전반적인 공업 생산 템포는 례년에 없는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것은 남조선 공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였으며 경공업을 위주로 하는 민족 자본의 파산 몰락이 격화되고 남조선 공업 구성의 군사적, 식민지적 기형성이 심화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업 부문별 동태

【경공업】이 부문 공업은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섬유, 식료, 화학 공업 등이다. 동시에 이 공업 부문은 원료와 시설 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다.

◇ **섬유 공업** 1964년에 남조선의 섬유 공업계는 《긴축》과 《환률》 인상의 중압 밑에서 《20년 래의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다.

《긴축》의 구호 하에 괴뢰 정부는 이 해에 인견사와 기타 화학 섬유 등의 수입을 소요량의 절반밖에 안 되였던 전년도 수입량보다 다시 30% 이상이나 줄였다.

또한 《환률》 인상을 계기로 그 값이 폭등하여 《환률》이 인상된 5월 3일 이후 8월 12일까지의 3개월 동안에 스프사 가격은 30%, 면사 값은 73%나 뛰여 올랐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8월 14일).

원료난과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공장들의 가동률은 9월 말 현재 지난 해 같은 시기보다 14%가 낮은 46% 수준으로 떨어졌다(남조선 《경제 통신》 1964년 11월 12일).

휴업, 페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였다. 8월 하순 현재 휴업한 직물 및 메리야스 공장들은 남조선의 《직물 련합회》와 《메리야스 련합회》에 망라된 전체 공장 수의 90%에 해당하는 1,400 개에 달하였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8월 25일).

◇ **식료품 공업** 남조선의 식료품 공업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과 원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분과 제탕, 이 밖에 주류 생산 등이 주되는 내용이다.

이 부문 기업은 몇몇 큰 업자들의 독점 제조, 독점 판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중소 규모의 공장들도 있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제분과 제탕업은 이 해 5월에 있은 《환률》 인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모두 파산의 위기에 빠졌었다.

◇ **일용품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 공업** 남조선에서 화학 공업이라야 기초 화학 공업은 거의나 없고 대부분이 제지, 제약, 비누 제조, 피혁, 고무 제품 생산 등으로서 일용품의 생산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공업의 소요 원료인 팔프, 소기름, 향료와 각종 공업 약품류, 생고무 등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여기에 이 부문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있다.

제지 공업 《환률》 인상 후 수입 팔프 값은 30%가 올랐으나 종이의 시세는 판매 부진으로 오히려 20%가 떨어져 몇 개 안 되는 제지 공장들은 심각한 수지 파탄을 겪던 끝에 이 해 10월 중순 현재 절반이 문을 닫았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10월 19일). 대구 시내 제지 공장들은 80%가 휴업하였다.

제약 공업 외국에서 들여 온 원료를 적은 량으로 갈라서 재포장하거나 령세한 자금과 시설로 가공 제품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분야 역시 수입 원료 가격의 폭등과 주민들의 구매력 감퇴, 거기에 괴뢰 정부의 《긴축》의 압박이 첨가되여 이 해 남조선의 제약 공장들은 《전례 없는 불경기》에 휩쓸려 들어 갔다. 그

경공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

	원 료	의존도(%)	
		남조선	수입
제 분	밀	0	100
제 탕	원 탕	0	100
맥 주	호프, 엿기름	0	100
면 방 직	원 면	3	97
모 방 직	원모, 반제 원모	0	100
합성 섬유	주 원 료	0	100
합성 수지	〃	1	99
유 지	〃	10	90
인견 직물	〃	0	100
제 지	팔 프	0	100
고 무	생고무, 합성 고무	0	100
제 약	주 원 료	1	99

자료 출처: 남조선 《대전 일보》 1964년 1월 8일.

리하여 업자들 사이에서는 《거액의 부도 수표 사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수백 개의 공장들이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남조선 《국제 신보 지사》 1964년 12월 2일).

비누 제조 공업 1964년에 남조선 공업에서 가장 심각한 원료난을 겪은 것이 이 부문 공장들이였다. 이 해에 남조선 비누 공장들은 《원료난으로 거의가 문을 닫아야 할 경영 위기》에 빠졌다.

《환률》 인상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사들이는 주요 원료인 소기름 값이 폭등한 데다가 괴뢰 통치배들이 몇몇 큰 업자에게 적은 원료를 집중 공급한 데로부터 그 밖의 비누 공장들은 《원료난으로 거의가 문을 닫아야 할 경영 위기》에 빠졌다.

피혁 공업 이 부문 생산 기업체들도 각종 화학 공업 약품이 《환률》 인상 후 10배나 올음으로써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남조선 《피혁 공업 협회》에 망라되여 있는 공장들 중 50%가 이 해 8월 초에 휴업했고 나머지 공장들의 가동률도 10% 이하로 떨어져 거의 《전면적 휴업 상태》에 빠졌다 (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8월 5일).

고무 공업 이 부문 제품은 고무신이 기본이며 이 밖에 고무 호스, 자전거 다이야 등이 있다.

그런데 고무신은 주요 수요자인 농민들의 생활이 령락하여 그 구매력이 감퇴되고 괴뢰 정부가 생고무의 수입을 억제한 데로부터 이 부문 공장들의 생산 활동은 급격히 악화되였다.

이 해 4월까지도 생고무의 새로운 수입 배정이 없어 지난 해의 재고를 긁어 모아 겨우 가동을 유지 (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4월 17일)하여 오던 공장들은 5월에 들어서 미제의 《환률》 인상으로 시장의 생고무 시세까지 급격히 앙등한 결과로 대부분이 생산 활동을 멈추고 일시 《공백 상태》에 빠졌다.

【중공업】 박 정희 도당은 집권 초시기에 소위 《5 개년 계획》을 표방하고 이 것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금시 회복시킬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과 관련된 부문을 제쳐 놓고 건설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포기되였거나 중단되고 말았다.

반면에 《5 개년 계획》에 착수한 3년 동안에 괴뢰 정부는 소위 《기간 산업 우선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일반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원료 시설 공급을 거의 도외시하였음으로 이 부문 기업의 파탄을 촉진하고 남조선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심화시켰을 뿐이였다.

남조선의 중공업은 원래 그 토대와 구성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광물을 제외하고는 강철, 화학 공업 약품 등 주요 원료와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시설은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라고 하지만 그 중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금속 공업과 화학 공업, 요업 등은 사실상 일용품 공업의 범주에 속하며 실지 중공업 부문다운 기업체는 손꼽아 세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다.

◇ **금속 공업** 이 부문 기업체는 100여 개를 헤아리나 그 대부분은 중소 규모에 속하며 선철 또는 강재를 가공하여 간단한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금속 공업의 기초인 제철과 제강 공업 기업소로는 일제의 유물로서 각각 하나씩 밖에 없는 《삼화 제철소》와 《대한 중공업》이 있을 뿐이다. 이 밖에 제련 시설로서 《장항 제련소》 하나가 있다.

그나마 시설이 아주 낡아서 생산 원가가 비싸고 경영주 측의 자금 부족, 그리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 오는 금속 제품과 그 반제품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년중 휴업 또는 불완전 조업이라는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생산도 전혀 없거나 또는 극히 보잘 것 없는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1964년 1—9월 기간에 《삼화 제철소》에서는 단 한 톤의 선철도 뽑아 내지 못 했고 강괴 생산도 단 10만 3천 여 톤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1호).

중소 금속 가공 공장들에서는 괴뢰 정부의 《직할 기업체》인 《대한 중공업》의 강재 공급 부족과 그 가격의 인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집단적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8월 14일).

◇ **기계 공업** 남조선의 기계 공업은 선박 수리, 양수기, 간단한 방직기, 전기 기구 등 극히 일부 생산 실적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수리 또는 기계 부속품 생산이 주가 되고 있으며 설비 생산은 거의나 없다. 따라서 남조선의 기계 공업은 자체의 가공 공업과 농업에 한 대의 공작 기계도, 한 대의 뜨락또르도 공급하지 못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기계 공장들마저 이 해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주문량의 감퇴 등으로 말미암아 휴업과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그 생산도 위축되였다.

1964년 1—8월 기간에 방직기 생산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32%로 떨어지고 축전지 생산은 7월 이후 거의 중단 상태에 빠졌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1 호).

◇ **기초 화학 공업** 기초 화학 공업의 토대는 아주 미약하다. 가성 소다, 류산, 염산 등 기초적인 화학 약품도 자급하지 못 하고 있다. 일부 생산되던 카바이드도 1963년 1—8월 간의 4천 톤의 수준으로부터 1964년 같은 기간에는 3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1호).

◇ **요업** 세멘트, 유리, 도자기

제조업이 이에 속한다.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도로 포장, 항만, 교량 건설 등 군사적 의의가 큰 시설들에 필요한 세멘트 공업에 투자를 증대하고 시설 능력을 확장하였다.

1964년 세멘트 생산량은 124만 톤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해 공화국 북반부 세멘트 생산량의 47.7% 밖에 안 된다.

세멘트의 절대량 부족으로 년초에 남조선의 건설 및 주택 수리 업자들의 절반이 일을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으며 4. 4분기에 들어 와서는 《극심한 불경기》로 《조업을 전면적으로 단축》하였다.

한편 중소 유리 및 도자기 공장들은 자금난과 연료난 등으로 그 경영은 극히 불안정하였다.

남조선 《유리 공업 조합》에 망라되여 있는 중소 공장들은 6월 경부터 《전면적 조업 중단 상태》에 빠졌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6월 9일).

주로 농촌을 상대로 도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남조선의 중소 공장들도 농민들의 구매력 감퇴와 괴뢰 정부의 연료 공급 중단 등의 요인으로 로의 불을 끄고 《하나 하나씩 문을 닫았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5월 1일).

◇ **전력 공업**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군사적 잠재력을 증강하기 위해 《전력 개발》을 고창하면서 막대한 재정 자금과 외국 《차관》을 투입하여 전력 생산에 광분하였다.

1964년에 전력 생산은 26억 9,900만 키로와트시였다. 이것은 이 해 공화국 북반부 생산 실적의 21.6% 정도에 불과한 것이였다.

남조선의 발전 능력은 30만 8천 키로와트로서 농촌을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자면 최소한 200만 키로와트는 있어야 하는 실정(남조선 《한국 일보》 1963년 12월 13일)에서 이것은 실제 수요의 5분의 1도 충족하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이 《전력 개발》을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지만 남조선의 전체 세대에서 전기'불을 켜는 집이 불과 23%, 주민들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98%가 전기'불 구경을 못하고 《암흑 세계》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 **채굴 공업** 이 부문에서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군수적 의의가 크고 저들이 직접 관할하는 《석탄 공사》, 《대한 중석》과 같은 채굴 기업체에 투자를 집중하고 일반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금과 연료 기타 생산 원자재면에서 혹심한 차별 정책을 씀으로써 이 부문 중소 기업들을 대량적으로 파탄시켰다.

남조선 광물 생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북도 내 중소 민간 광산들의 80%가 이 해 9월 현재까지 1년 이상이나 장기 휴광하고 있었으며(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9월 19일) 충청남도에서도 중소 광산들과 탄광들의 75%가 7월 말 현재 역시 쉬고 있었다. 그 중 금, 은 광산들의 휴업률은 85%에까지 달한다.

결과에 충청남도 내 1—7월 기간의 각종 광물과 석탄 채굴량은 예정량의 평균 33% 밖에 안 되였다(남조선 《중도 일보》 1964년 8월 27일).

이 밖에 196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토상 흑연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나 떨어졌고 은은 20%, 동광은 12% 가 감퇴하였다.

농 업

박 정희는 1964년 농업 정책으로서 이미 바닥이 드러난 《중농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농업 경영의 근대화》로써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며 《농업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 장담을 뒤'받침할 이 해의 농림, 수산 부문 《투융자 예산》액은 전년의 76.8%에 불과한 것이였다.

따라서 이 해 농민들은 더욱 심각한 영농 자금의 부족을 겪었다.

《농업 경영의 근대화》라는 구호 하에 박 정희 도당은 토지의 집중을 더욱 촉진시키고 《중점 융자》, 《우선 융자》를 실시하여 농촌에서 봉건적 지주들의 착취 기반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이 해 남조선 경제의 《자유화》를 강행하는 길에 들어서서 우선 《환률》을 개정하여 딸라의 략탈적 효률을 높이고 관영 료금을 비롯한 전반적 물가 체계를 《자유화》하는 반면에 《긴축》이란 명목 아래 철저한 저미'가 저임금 정책을 강요하여 농촌에서 협상차에 의한 수탈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9월에는 곡물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잉여 비료》 값을 90%나 올려 받게 하여 농가 경영을 더욱 혹심하게 파괴했다.

괴뢰 정부는 종래 금납제에 의해 수탈해 오던 농지세를 《물납제》로 고쳐서 농민들로부터 2억 5천 여 만 원의 추가적인 수탈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1964년도 《토지 개량 조합비》를 현물로 수탈한 외에 《매상》, 《교환》, 《미곡 담보 융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괴뢰 정부는 1964년도 알곡 생산량을 하곡 811만 3천 석, 추곡 2,029만 3천 석으로 조작 발표하면서 《해방 후 최고 풍작》이라고 떠들었으나 그것은 농민들을 략탈하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였고 실지 농촌에서는 이 해에 《립도 풍년에 마당 흉년》을 겪었다.

【농토의 감소】 1964년 말 현재 218만 정보로서 남조선 토지 총면적의 21% 정도이다. 이것을 일제 말엽에 비교하면 14만 정보가 적다. 미제 강점 이후 군용지로 징발된 것과 괴뢰 정부가 치

산 치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데로부터 매년 막대한 농경지가 풍수해로 폐실되였다. 1964년만 하더라도 4 차에 걸치는 풍수해로 말미암아 최소한 4만 2천 여 정보의 경지가 피해를 받았다.

경지 면적의 축감을 농가 평균에서 볼 때 그것은 더욱 심하여 총경지 면적의 감소 비률 6%에 대해 농가 평균의 그것은 약 20% (2.21 반보), 즉 3배 이상의 축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 평균 경지 면적의 감소

(단위 반보)

	논	밭	계	감소(%)
1944	6.21	4.93	11.14	100
1958	5.45	3.70	9.15	82.1
1964	5.19	3.74	8.93	80.1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경제 년보》 1948년, 《농업 년감》 1963년, 《한국 문화 방송》 1965년 3월 14일.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의 지주가 경지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140만 호의 농가를 착취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수확고의 50~60%의 소작료를 납부해야하며 대부분이 지주와 고리 부채에 얽매여 있다.

최근 년간에 도시의 유휴 자본이 농촌에 침투하여 《부재 지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괴뢰 정부가 《농업 구조 개선》을 표방하여 나선 이후 《부재 지주》의 증가와 농토의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경지의 산성화】 괴뢰 당국이 1963년에 진행한 경상남도 토양 검사 결과에 의하면 논 가운데서 이미 산성화하여 폐토로 된 것이 4.4%, 폐토 직전에 있는 것이 33.4%, 밭 중에서는 산성화 경향이 더욱 심하여 폐토로 된 것이 27%, 폐토 직전에 있는 것이 42%로 되여 있다.

경상남도 농경지의 산성화 정도로 남조선 전체 농토를 미루어 본다면 산성화하지 않은 경지는 총 농토 면적의 겨우 46.6%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괴뢰 당국조차도 10~20년 후에는 전체 농토의 52%가 폐토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정도로 남조선 경지의 산성화는 심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제 강점 이후 토질에 맞지 않는 미국 《잉여 비료》의 시비를 강요 당한 결과이다.

【농업 생산 기술의 락후】 괴뢰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1963년말 현재 논 면적 가운데서 수리 안전답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이다.

그러나 이 수'자는 수리 안전답으로 볼 수 없는 《자연 수리답》을 억지로 포괄시킨 것으로서 실제상 관개가 도입된 논 면적은 27만 3,611 정보 (1961년 현재)로 전체 논 면적의 22.4%에 불과하다 (남조선 《한국 통계 년감》 1962년).

현재 있다는 수리 시설도 《대개는 20년 내지 30년 동안의 묵은 제방이 태반》(남조선 《전북 일보》 1964년 7월 4일)이다.

해마다 수재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는 막대하며 최근 9년 동안의 평균 피해 경지 면적은 12만 3천 여 정보에 달하였다.

남조선 농촌들에서 쓰고 있는 농기구는 호미, 낫, 괭이와 삽 등 전세기적인 것들이며 그것마저도 낡은 고물들이다. 뿐만 아니라 심히 부족한 형편에 있다.

괴뢰 도당의 농촌 수탈이 혹심하여 최근 년간에 농가의 주요 생산 수단인 역축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바 소와 말의 두수는 일제 시기에 비해 각각 73%와 52%로 감소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농토가 26만 정보인데 소는 7만 2천 마리로서 소 한마리에 3,600여 정보의 경지가 차례지는 형편에 있다.

【농가 경영】 괴뢰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가 표본 농가 297 호를 대상으로 하고 실시한 조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업 소득이 《가계비》를 딸치 못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 중 7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소득과 그 이외의 일체 소득을 합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농가 지출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45.5%나 되고 있다.

【반동적 《농업 구조 개선》 정책】 박정희 도당은 1962년에 밑천 없는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착수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조선의 《전근대적 농업 경영》을 《근대적 농업 경영》에로 전환한다는 표방하에 《농업 구조 개선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 《농업 구조 개선》의 구상은 령세하고 락후한 남조선 농업 구조에 《근대적 경영》이라는 외피를 씌워 봉건적 착취 체계를 강화하여 미제의 《원조》 삭감과 군사비의 증대를 보충하며 농촌에서 지주와 부농의 지반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공고히 해 보려는 야망에서 출발한 것이다.

괴뢰 도당의 《농업 경영 조직의 개편》 내용을 보면— 《협동 경영의 조직》: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면서 개량 농기계의 공동 구입, 공동 리용과 농사의 공동 작업을 하게 하며, 《주식 회사제 농장의 조직》: 농토를 출자시켜 최소한 5 정보 이상의 농장을 조직하며 수익을 출자 비중에 따라 배당하며, 《자립 경영 농가의 육성》: 소농, 령세농들을 산지, 간석지로 추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농토를 지주, 부농에게 집중시켜 개인 농장을 육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4년에 들어와서 괴뢰 정부는 《구조 개선》을 법제화하기 위해 《농업 기본법》을 괴뢰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강행하였다.

【알곡 생산】 영농 자금의 결핍: 1964년도 괴뢰 정부 농림, 수산 부문 투융자 예산액은 1963년간에 물가가 약 4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2억 8천만 원(24%)이 삭감된 42억 8

천만 원이였다. 이 금액은 1963년 4. 4 분기 중에 강제 회수한 《농사 자금》 86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괴뢰 도당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4년 3월 말까지 《농사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였으며 1. 4 분기에 지출하기로 한 5억 원의 영농 자금마저 4월 초까지 지출하지 않았다.

영농 준비기가 끝날 무렵에 가서야 실제 소요액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자금을 방출하였으나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 융자》란 명목으로 《지난 해 팔다 남은 재고품》 (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5월 23일)을 아주 높은 《현 시가》로 떠넘겼다 (남조선 《전남 일보》 1964년 5월 27일). 현금 대부는 《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에만 500—1 천 원을 대부하고 압도적 다수의 빈농민층은 제외하였다. 그리 하여 이 해 농촌에서 영농 자금의 곁핍은 그 어느 해보다 심했다.

비료: 괴뢰 정부는 당초에 1964년도 자체 비료 공급량을 37만 6천 톤으로 계획했으나 외화 사정의 악화로 2만 6천 톤을 깎아내며 35만 톤으로 줄이였다. 특히 류안 같은 것은 반당 시비량을 1962년도 보다 20%나 줄여서 17만 톤으로 공급 계획을 고쳐 세웠으나 공급 가능량은 7만 톤 밖에 없었고 결국 10만 톤의 공급 부족을 내게 되였다. 그리 하여 밀, 보리 밭에 줄 덧비료조차 때가 지난 5월에 가서야 소요량의 10%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하였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5월 23일).

파종기에 들어 서면서 비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가격은 전년도의 3~4 배로 뛰여 올랐다.

더구나 괴뢰 도당은 배급 비료를 암시장에 빼돌려 비료의 긴장을 더욱 조장시키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괴뢰 정부는 비료 값만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표한바 있으나 9월부터 평균 90%, 최고 108%를 인상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배로 증가시켰다.

농약 공급도 5월 현재 소요량의 겨우 20.5% 밖에 안 되였다.

알곡 생산의 감소와 계속되는 식량 위기: 1964년에 4 차에 걸친 폭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농지가 묻히고 패여 내린 데다가 각종 병충해가 만연했고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일대에서 오랜 기간 계속된 가물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가물이 심하여 논'고장으로 알려진 호남 지방에서는 《모내기란 엄두에도 못 낸 백답들이 수두룩》하였으며 령남 지방에서는 《20년 래의 큰 가물이 계속》되여 경상북도에서만도 논'벼의 60~70%, 밭곡식의 30~40%를 망쳤다. 이리 하여 추곡 생산량은 전년 실적보다 최소한 108만 석이 감소될 것이 확실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인민들을 속이며고 1964년도 미곡 생산을 2,029만 3,549 석으로 발표하고 《단군 이래의 대풍작》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으나 남조선 출판물들은 실제 수확이 《10%~20% 감소하여 1,600~1,700만 석》 밖에 안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남조선 《대전 일보》 1965년 1월 1일).

하곡 생산도 괴뢰 정부는 811만 3,130 석으로 발표하였으나 알곡 《생산의 80%를 점하는 령남, 호남 지방에서 습해와 적매병 등으로 약 200만 석의 감수》를 가져 왔으며 (남조선 《서울 경제 신문》 1964년 5월 19일) 기타 지방들에서도 《적매병, 황고병, 고온다습(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것) 등 각종 병충해와 도복(벼가 쓰러지는 것)등의 피해》가 막심하여 《수확 예상량의 30% 내외가 감수》되였다 (남조선 《한국 일보》 1964년 5월 2일).

그리 하여 남조선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1964년도 미곡과 맥류 실 생산고는 도합 2,200만 석(괴뢰 정부 발표는 2,840만 석)에 불과하다(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9월 30일).

알곡 생산의 감소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괴뢰 정부는 1964—1965년도의 《식량 수급 계획》에서 수급 부족량을 362만 4천 석으로 잡고 있으나 1964년 하곡과 추곡 생산이 감소되여 실제는 900만 석에 달하고 있다. 그리 하여 괴뢰 정부는 부족 량곡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700만 석의 잡곡을 수입하기로하는 한편 농민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수탈 및 협상 가격 정책] 박 정희 괴뢰 정권이 생긴 이후 시기에 농민들로부터의 직접적인 량곡 수탈은 전쟁 시기 및 전후 시기(년 평균 300만 석)의 약 1.5 배로 증대하였다.

1964년에 박 정희 도당은 추곡에서만도 《일반 매상》 80만 석, 《량곡과 비료 교환곡》 40만 석, 《교환 량곡》 50만 석, 《콩 매상》 12만 7천 석, 《대여곡 회수》 36만 6천 석, 《농지세》 76만 4천 여 석, 1955년부 의 《추곡 예매 자금의 미회수분》 21만 500여 석, 《미곡 담보 융자》 100만 석, 《토지 개량 조합비》 35만 6천 석 등을 합쳐 450여 만 석을 수탈할 것을 계획하고 1964년 말까지에 《일반 매상》 32만 3,926 석, 《농지세》 64만 9,188 석, 비료대 14만 5,343 석, 교환곡 18만 4,996 석, 《미회수분》 6만 4,225 석 등 도합 137만 2,669 석을 강탈하였다 (남조선 《한국 문화 방송》 1965년 1월 3일).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종래 《금납제》였던 《농지세》를 《물납제》로 변경하여 280만 장에 달하는 가마니 대금을 비롯한 각종 부대 비용 2억 5,600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추가적 부담을 농민들에게 들씌웠다.

뿐만 아니라 미제가 강요하는 《재정 안정 계획》의 집행을 위해 혈안이 된 박 정희 도당은 《농사 자금 회수》란 명목으로 1—11월 기간에만도 3만 8,344건

의 강제 차압 소동을 벌려 가면서 농민들로부터 74억 3천만 원을 수탈하였다.

또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미국 잉여 상품 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협상 차에 의하여 농민들을 계통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 해에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저미'가, 저임금 정책을 견지하면서 남조선 경제의 《자유화》를 표방하고 수입 상품 특히는 《원조》 물자와 《관영 료금》 등에는 《자유 시장 가격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협상차에 의한 농민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상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30% 이상, 특히 미곡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비료 값은 90%가 폭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은 27% 밖에 오르지 않았다. 1964년 5월 3일 미제는 미국 딸라에 대한 남조선 원화의 《환률》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50억 원 내외를 더 짜냈다.

수 산 업

어선은 1963년 말 현재 4만 4,708척, 총 톤수 14만 8,546 톤이다. 한 척의 평균 톤수는 3.1 톤이 못 되며 5 톤 미만의 쪽배들이 전체 어선 수의 90%를 차지하고 50 톤급 이상 나가는 배는 도합 46 척에 불과하다. 총 척수에서 87%에 달하는 3만 9,005 척이 동력이 없는 범선이고 나머지 동력선 5,703척 가운데서 10 톤 미만 짜리가 3 천 여 척, 100 톤 이상 선박은 10척 내외이다. 일제가 패망한 직후인 1946년에 비해도 척수에서 91%, 톤수에서 88.8%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어선의 94%가 《페선으로 꼽히는》 것이 실태이다.

어선의 규모

	척 수	톤 수
1946	48 837	167 105
1963	44 708	148 546
그중 동력이 없는 배	39 005	…
동력선	5 703	…
동력선 중 디젤	827	…
열구 엔진	4 560	…
기 타	316	…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7년, 《국제 신보》 1964년 4월 16일.

어업 인구는 1963년 말 현재 126만 4천 여 명으로 1946년의 3 배로 증가하였다. 어업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농촌과 도시로부터 흘러든 리농민과 실업군에 기인한다.

어선의 감소와는 반대로 어업 인구가 급격하게 늘은 것은 남조선 수산업의 령세성을 더욱 혹심하게 하였다. 그리 하여 어민의 약 90%가 사실상의 실업자이거나 반실업자로서 《고기를 잡고 싶어도 어선 어구가 없어 바다에 나가지 못 한채 뭍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남조선 《서울 경제 신문》 1964년 5월 26일).

어민의 동태

	1946	1963
어선 척수(척)	48 837	44 708
톤 수 (톤)	167 105	148 546
어민수 (천명)	408	1 264
어선 한 척 평균 톤수	3.8	3.1
어선 한 척 평균 어민수	8.3	28.3
어선 한 톤 평균 어민수	2.4	9.1

자료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7 년판, 《국제 신보》 1964년 4월 19일.

남조선의 수산업은 연안의 세소업이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가장 원시적인 1 본조 어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서울 신문》 1964년 12월 17일). 미제 강점 이후 주요 어항들과 어장들은 군사 기지로 빼앗기고 빈번한 전쟁 도발 소동으로 말미암아 일부 제한된 어로 수역에서조차 고기잡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박 정희의 매국 책동에 발 맞추어 일본의 대규모 어선단들이 령세한 남조선 어업을 압도하고 서해와 남해 어장 일대에서 판을치고 있다. 최근 년간에는 130 톤급 어선 400 여 척의 대선단을 무어 중무장한 경비선을 앞세우고 제주도와 거제도 연안에까지 넘나들면서 년간 80만 톤의 물'고기(남조선 년간 어획량의 3 배)를 잡아 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수산업은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 자원마저 급속하게 말라들고 있다.

동해안의 고래, 대구, 정어리, 청어, 광어, 도미 등은 거의 《절멸 상태》에 있거나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남해와 서해 연안의 고등어, 정갱이, 가재미, 상어, 조기, 갈치 등은 그 회유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

어획량에서 본 남해의 자원 고갈 정형은 대구가 1961년에 1,546 톤, 1962년에 1,389 톤, 1963년에는 겨우 853 톤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등어와 정갱이는 1958년에 비해 1963년에는 4분의 1로 줄어 들었다. 가재미의 1회 어획량은 1961년에 1958년의 4분의 1, 상어는 3~5분의 1로, 조기는 2분의 1, 갈치는 6분의 1로 감소되였다.

1963년 어획고는 일제 시기보다 47.7%가 감소되였으며 그 중 어류는 65.3%, 패류는 20%, 해조류는 18.9%가 각각 줄었다. 어업 인구 한 사람 평균 어획량의 감소 정형은 더욱 격심하여 1963년에는 1946년의 39.1%에까지 떨어지고 있다.

어업 인구 한 사람 평균 어획량
(단위 키로그람)

	어업 인구 한 사람 평균 어획량	%
1946	890	100
1948	642	72.1
1957	559	62.8
1959	520	58.5
1963	348	39.1

재정, 금융

[1964년도 《재정 안정 계획》] 괴뢰 정부는 1964년 3월 10일 《국무 회의》에서 이 해 《재정 안정

계획》을 심의한 후 당일 날'자로 공포했다.

이른바 《안정된 경제 기초》를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웠다는 《계획》은 《한미 경제 교위 회담》에서 미제가 규정한 몇 개의 지표 즉 통화량, 외화 보유고, 물자 도입 규모 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긴축》을 강요하면서 이 해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강행할 략탈과 예속의 《계획》이다.

괴뢰 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계획》 작성의 《원칙》으로서 첫째, 일체 재정 적자를 없애며 둘째, 금융 자금의 신규 대출 규모를 15 억원으로 억제하고 《비료》 조작과 관련한 통화의 증발 요인을 일체 인정치 않으며 세째, 저축성 예금과 금전 신탁 수입을 참작하여 추가 여신 한도를 별도로 결정하며 네째, 1964년 말 통화량은 400억 원, 외화 보유고는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다섯째, 1964년도 물자 도입 규모는 2억 3천만 딸라 범위 내로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러한 작성 원칙 밑에서 세워진 1964년도 《재정 안정 계획》을 각 항목별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재정 수지**: 1963년도 계획 대 실적을 보면 4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던 것이 집행 과정에서 군사 경찰비와 괴뢰 통치 기구 유지비의 지출 증대로 말미암아 13억 원의 지출 초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1964년에는 이러한 지출 증대의 요인들을 주로 재정 투자 및 융자의 대폭 축감으로써 메꾸며 다른 한편 추가적인 자금 공급은 금융 부문을 통해 수입 범위 내에서 여신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재정 수지에서 일체 적자를 인정치 않았다.

2. **여신 증가**: 1964년간 여신 증가에 의한 통화의 증발을 1963년과 같이 4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964년도 경제 운영에서 자금의 긴장성은 대체로 1963년도와 어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상 1963년도 실적과 비겨 볼 때 89억원 대 40억 원으로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수지에서 대폭 축감된 재정 투자와 융자 즉 정책 자금의 방출이 증가된 40억 원의 여신 면에서 실현되게 될 것임으로 이 해 금융 대부를 통한 일반 자금의 공급은 거의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이 해 남조선 기업 운영에서 전례에 없는 자금 결핍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3. **정착성 예금**: 재정 투자 및 융자가 대폭 줄은 것과 금융 대부가 억제된 데로부터 올 정착성 예금의 감소 폭을 괴뢰 정부는 1963년의 15억 원으로부터 10억 원을 더 늘여 25억 원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1963년 간의 실제의 그것은 32억 원으로서 1964년의 예견액을 7억 원이나 넘어 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부가 25억 원으로 《계획》했다는 것은 이 해에 《내핍》이란 간판 밑에 출혈적인 강제 저축이 각종 명목으로 강행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4. **통화량**: 재정 수지에서의 대폭 긴축과 금융 대부의 전례 없는 억제를 예견하고도 괴뢰 정부는 군사비의 증대로 말미암은 이 해의 통화 팽창을 27억 원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1963년의 계획 대 실적에서 볼 때 재정 수지에서의 9억 원의 초과 지출, 여신 증가에서의 49억 원의 통화 증발, 정착성 예금에서의 17억 원의 예견 외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75억 원이란 거액이 《계획》 보다 넘쳐 지출되였다. 그러나 괴뢰 정부는 《농사 자금》의 강제 회수로써 75억 원의 《계획》상 구멍을 메꾸고도 년말 통화량을 한도선 보다 12억 원이나 낮은 373억 원에서 멈추어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전례는 1964년 역시 례외 없이 보다 방대한 통화 팽창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강압적인 각종 자금 특히는 《농사 자금》 회수 소동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1964년도 《재정 안정 계획》
(단위 억원)

	1963 계획	1963 실적	1964 계획
재정 수지	4	13	0
여신 증가	40	89	40
정착성 예금	—15	--32	--25
해외 부문	—45	—73	—12
기타 요인	5	9	—
비상 예비	29		24
통화량	385	373	400
통화량 증감	18	6	27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8호.

이상 미제가 박 정희 괴뢰 정부를 앞세워 남조선 인민에게 강요한 1964년도 《재정 안정 계획》은 이 해 괴뢰 정부 《재정 예산》, 금융 정책을 비롯한 일체 경제 활동에 반영되였다. 따라서 이 해에 남조선 경제 각 부문에서는 심각한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을 겪었으며 유사 이래의 불경기를 겪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의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예속성을 일층 심화시켰다.

【《환률》 인상】 미제의 강요에 따라 박 정희 도당은 5월 3일을 기하여 종래 1 딸라 대 130 원의《공정 환률》로부터 1 딸라 대 255 원을 최저선으로 하는 《단일 변동 류동 환률》을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다.

13 번째로 되는 이번의 《환률》 변경으로 미국 딸라에 대한 남조선의 화폐 가치는 지난 19년 간에 무려 5천분의 1로 저하되였다.

그런데 255 대 1이라는《환률》도 《국제 통화 기금》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명목상의 기준률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가지는 실질적 의의는 《환률》 시세 결정에서 법적인 최저선에 불과한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금번 《환률》 개정을 통하여 255 대 1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으나 암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저들의 딸라 시세가

얼마든지 뛰여 오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즉 이자들은 종래의 《공정 환률》로 적용해 오던 고정 《환률》 대신 《류동 환률》제를 채택하고 외환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 이것이 시장에서 통용되도록 하고는 그 가격이 변동하는데 따라 그날의 《환률》을 《한국은행》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리용되는 외환 증서란 외국환 은행이 발행한 외국 화폐의 지불 보증서이다. 미제는 이 증서가 외국 지폐를 대신하여 남조선의 일반 시장들에서 류통되고 미국 《원조》 물자 구입 등에 사용되면서 남조선에서의 딸라의 자유 시장 시세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화폐와 딸라의 《환률》이 자유 시장 시세에 따라 결정되게 함으로써 저들의 딸라 가치가 새로운 《환률》 개정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였으며 부단한 《환률》의 인상으로 남조선 화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 보려고 타산하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종래의 고정 《환률》 제를 버리고 《단일 류동 환률》 제를 채택한 미제의 검은 속심이 숨어 있으며 금번 《환률》 제도 개편의 특징의 하나가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의 《환률》과 물가 체계를 그들의 《원조》 정책에 일층 종속시키며 《환률》 인상으로 인하여 불어나는 대충 자금으로 남조선 재정 금융 부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사자본에 더 많은 리익과 더 많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독점 사자본의 침투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금번 《환률》 개편을 통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의 물가 체계와 대외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체제를 철저히 《자유화》하고 략탈과 지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실상 이자들은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1딸라의 《원조》로 종전의 2 배에 달하는 남조선 화폐 자금을 장악할 수 있게 되였다.

1965년도 《예산》을 놓고 보아도 《대충 자금》 수입이 《환률》 인상 전의 3분의 1로부터 약 2분의 1로 늘었다. 《환률》 인상 후 《원조》 물자를 비싼 값으로 팔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추가적으로 걷어 들이게 된 자금만도 무려 15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괴뢰 도당과 체결한 《한미 원조 협정》과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 등에 의하여 딸라 시세의 변동과 그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미제는 이처럼 략탈적인 《환률》 인상을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하였으며 그 실시를 괴뢰들에게 강요하여 왔다.

미제는 1963년 7월에 《국제 통화 기금 조사단》을 남조선에 보내여 《환률 현실화》를 위한 기초 준비를 끝내였다. 1964년 1월 말 미 국무장관 러스크의 남조선 방문 이후에는 《한미 재정 안정 계획 실무자 회의》에서 비밀리에 《환률》 개정의 구체적 절차 문제가 론의되여 강력한 압력이 가해졌으며 이 해 3월에는 괴뢰 국무 총리를 워싱톤에 호출하여 상반년 중으로 《환률》을 인상 실시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미제는 1천만 딸라의 《지원 원조》와 25만 톤의 잉여 농산물 《원조》를 《환률》 인상의 대'가로 지불할 것이라고 하면서 괴뢰 도당을 구슬려 댔다.

남조선에서 강행된 《긴축 정책》의 후과인 원료의 결핍과 자금난, 외화 기근 그리고 식량 기근 사태에 부딪쳐 안절부절 못하던 박 정희 도당은 상전이 주기로 한 《원조》로 파국적인 위기를 다소라도 모면하고 자기들의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상전의 《지시》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동시에 이자들은 《환률》 인상으로 그 수입이 증대될 《대충 자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꾸며 외래 독점 자본 침투의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외자 도입을 촉진해 보려고 흉책하였다. 이리 하여 박 정희 도당은 《한일 회담》을 속히 결속 짓고 일본 독점 자본을 하루 빨리 끌어 들이려던 자기들의 흉계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꺾이게 됨으로써 조성된 자기들의 곤궁을 모면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미제의 철저한 주구 박 정희 도당은 자기들의 이 반역적인 흉계를 은폐하기 위해 이번의 《환률》 인상이 마치 《수출을 증대》시키며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나 되는 것 처럼 떠벌렸으나 그것이 남조선의 예속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는 물가의 계속되는 폭등과 생산 기업들의 전면적인 파산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단행된 10 여 차의 《환률》 인상이 그 때마다 남조선의 화폐 가치를 저락시켜 경제 혼란과 물가의 폭등만을 가져 왔으며 원료 가격의 앙등으로 인한 중소 기업들의 파산을 초래하고 인민 생활을 더욱 더 령락시켜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되고 있다. 딸라에 대한 명목상의 최고 가격 제한선마저 완전히 없애 버린 금번의 《환률 개정》이 과거의 것들과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볼 아무런 조건도 근거도 없는 것이다.

《환률》이 인상된 3일 단 하루 동안에 만도 서울시 내의 쌀 값이 한 가마니에 800 원이나 폭등하였으며 이 뒤를 따라 유류, 원면, 비료, 유지, 밀 등 수입 상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과 료금이 대폭 앙등하였다.

【1964년도 《예산》 집행 실적】 괴뢰 정부의 1964년도 《예산》은 그 집행 과정에 허다한 모순점만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1964년도 당초 《예산》은 《민정 이양》을 수일 앞둔 1963년 12월 10일에 조작되였다. 박 정희 괴뢰 도당은 이 《예산》이 《안정된

기초 우에서의 경제 성장》을 뒤'받침하기 위해 꾸며진 《건전 예산》이라고 하면서 그 주요 징표의 하나로 《예산》 총규모가 전년도 보다 50억 원이 축감된 사실을 내들었었다.

지난 19년 간에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있은 《예산》 총규모의 축감은 물론 《신기한 일》이기는 하였으나 세원이 모자라 하는 수 없이 지출 규모를 축감하게 된 이 《예산》의 허황한 내막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드러나고 말았다.

박 정희 도당은 년초부터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유류세》 등을 대폭 인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조세 수탈을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적자 없는 건전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두 달만에 벌써 《일반 회계》에서 22억 6,200만 원의 재정 적자가 드러났으며 4월에는 그것이 34억 1천만 원으로 불어 갔다.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와 일반 행정 기구 유지비의 지출만이 증대되여 빚어진 이러한 파국적 현상은 날을 따라 심해져 1964년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를 자아냈다.

그런데 5월 3일 미제가 일방적으로 배나 끌어 올린 《환률》 인상에 따른 물가 앙등으로 인하여 《예산》 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땜질해 보려고 박 정희 도당은 6월 중순에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을 조작하였다.

10월 13일 괴뢰 국회에서 통과된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은 총규모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55억 5천만 원이 추가된 753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새로 증가된 55억 5천만 원 중 30억 원은 《대충자금》 수입으로, 15억 원은 《특별 관세》, 《소득세》, 《영업세》 등의 세률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금 증수로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은 조작 동기부터가 철두철미 악랄한 략탈적 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환률》 인상에 의하여 미제는 자국 상품을 더 비싼 값으로 남조선 인민들에게 팔아 먹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재정 자금은 최소한 15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긴축》 정책의 강요로 말미암아 《갱정 예산》에 추가된 액수는 150억 원의 5분의 1인 30억 원 뿐이고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넘기였다.

이리 하여 미제는 인민들의 고혈을 짜낸 이 돈을 저들이 틀어 쥐고 괴뢰 정부에 《계속 긴축》만을 강요하였다.

한편 세출 예산에서는 직접적 군사비인 국방비와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유지비인 일반 경비가 50억 원이나 새로 추가되여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77%가 넘는 583억 원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세출액 중에는 《재정 투융 자금》으로 4억 원이 새로 계상되여 있으나 이것은 그 대부분이 《수출 진흥》과 《비료 공장》에 투자할 것이 예견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기업들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세출 예산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비》로 5억 원, 《비료 가격 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환률》 인상 이후 물가가 30% 이상이나 대폭 폭등한 것을 참작하면 《공무원 처우 개선》이란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고 《비료 가격 보상금》이라는 것도 비료 가격의 폭등으로 농민들이 당한 피해액의 8분의 1도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이 《환률》인상으로 인한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인 듯이 떠들어 온 박 정희 도당의 기만적인 표방과는 반대로 인민 수탈을 강화하며 수탈한 엄청난 자금을 팽창하는 군사 경찰비에 밀어 넣기 위해 계수를 《조정》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은 남조선의 경제 파국과 인민들의 생활 령락 과정만을 가일층 촉진하고 심화시켰다.

1964년도 괴뢰 정부 재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원)

	당초 예산	추가 갱정 예산	증감
◇ 세 입			
조세	35 036	36 449	1 413
전매 익금	4 710	4 710	—
세외 잡수입	5 820	6 187	367
부정 축재	165	596	431
조달 전입	114	114	—
예탁금 리자 수입	1 535	1 811	276
소 계	47 379	49 867	2 488
대충 자금	22 474	25 529	3 055
합 계	69 853	75 396	5 543
◇ 세 출			
일반 경비	30 477	34 466	3 989
국방비	22 766	23 878	1 112
투자 및 융자	16 260	16 702	442
협정 제비용	350	350	—
합 계	69 853	75 396	5 543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0월 호.

【1965년도 《예산》】 1965년도 괴뢰 정부의 《예산안》은 12월 1일 괴뢰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지난 해 보다 150억 원이나 증가된 총액 848억 5천만 원의 이 《예산》이 《국방력의 질적 강화》와 《경제 안정을 지상 목표》로 하고 편성되였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이것은 괴뢰 정부의 《예산》이 《〈재정 안정 계획〉을 촉진시키라》는 미제의 강한 요구를 기본 방침으로 하여 편성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괴뢰들과 벌린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와 8월 17일에 있은 미국 대사 브라운과 괴뢰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 등을 통하여 비군사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세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재정 적자를 없애는 한편 소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물가 체계의 재편성과 자본 축적의 기

초를 조성할 데 대하여 강력하게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환률》인상으로 초래된 남조선 물가의 폭등과 물가 체계의 혼란을 일단 《수습》하고 《원조》를 주리면서도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는 일방 자국의 독점 자본 침투의 유리한 터전을 마련할 것을 목적한 《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기초를 구축해 보려고 타산하였던 것이다.

괴뢰 박 정희 도당은 《안정과 성장》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상전의 략탈적인 요구를 그대로 《예산》 편성에서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들의 장기 집권 흉모를 실현해 보려고 책동하여 나섰다. 이러한 략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편성된 이 《예산》의 반동적 내용은 그 세출 예산에서 더 할나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세출 예산에서 의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는 1964년도 보다 21.5%나 대폭 증대된 2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괴뢰군의 피복비와 급식비, 봉급 등 직접적 군사비로 이루어진 《국방비》 외에도 금번 《예산》에는 엄청난 간접적 군사비가 계상되여 있는바 일례로 《군경 원호비》만도 27억 원, 《내무비》의 해안 경비정 구입비 2억 원 등이 《국방비》와는 별개로 계상되여 있는 것이다. 《재정 투자 및 융자》란 미명 하에 군수품 생산 공장들에 투하될 자금과 괴뢰군의 무기 구입비 등을 여기에 가산한다면 박 정희 도당의 1965년도 《국방비》는 실로 엄청난 수'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정희 도당은 《예산》 총액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115억 원의 자금을 경찰, 중앙정보부, 사법 기관 등의 비용과 공보 선전비 등으로 계상하였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32%나 대폭 증대된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서 6. 3 학생 봉기 이후 일층 격화된 정치적 위기를 사법 경찰 기구를 일층 강화하여 모면하려고 하면서 저들의 장기 집권 야망을 실현하려고 타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정희 도당은 대부분이 파쑈 테로 통치의 유지비로 되고 있는 《일반 경비》로 전년 보다 62억 원이나 증가된 367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1965 년도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와 파쑈 테로 통치의 유지비는 도합 647억 7천만 원으로서 세출 예산 총액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박 정희 도당은 소위 《균형 예산의 편성》이란 구실 밑에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으로 《예산》 총액의 23.2%인 197억 3천만 원이 명목상 계상되여 있으나 남조선에서 《환률》 인상 후 물가가 30% 이상 뛰여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전년도 보다도 감소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철도, 도로, 항만, 해운 및 통신 등 군사적 의의가 큰 부문에 149억 원을 배정하였다. 박 정희 도당이 한때 《식량 증산》이니 《중소 기업 육성》이니 《공무원 처우 개선》이니 하면서 이 부문에 많은 자금을 낼 듯이 떠벌렸으나 이번 《예산》에서 실제 할당된 금액은 눈가림도 못 되는 한낱 명색에 불과하다. 일례로 농촌의 《영농 자금》은 최소한 소요액의 30분의 1인 단 2억 원이 계상되였을 뿐이며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부문 기업가들에게 절대 필요한 류동 자금의 2.5%인 10억 원만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것도 형식상 13억 원의 금액을 계상은 하였으나 남조선의 전반적인 물가의 등귀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명분만 차린 격》에 지나지 않는다. 1965년 예산의 이러한 세출 내역을 가리켜 남조선의 《동양 통신》이 《식량 증산과 중소 기업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당초에 괴뢰 통치배들이 《내세웠던 구호와는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한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다.

더우기 세입 구성은 이 《예산》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1965년도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원)

	1965	1964	증감
◇ 세 입			
조 세	42 128	36 449	5 679
전매 익금	5 700	4 710	990
세외 잡수입	5 875	6 187	—312
부정 축재	596	595	1
예탁금 및 리자 수입	2 059	1 810	249
소 계	56 359	49 867	6 492
대충 자금	28 494	25 529	2 965
합 계	84 853	75 396	9 457
◇ 세 출			
일반 경비	36 754	34 465	2 289
국방비	28 021	23 877	4 144
투자 및 융자	19 727	16 702	3 025
협정 제비용	350	350	—
합 계	84 853	75 396	9 457

자료 출처 : 《비지네스》 1965년 1호.

세입 《예산》 중 49.6%에 해당하는 421억 3천만 원은 조세 수탈로 메꾸어지고 있다. 여기에 간접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57억 원의 《전매 익금》을 포함하면 남조선 인민들의 세금 부담액은 전년 보다 81억 원이나 격증한 478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리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각기 1,900 여 원의 세금을 걸머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는데 이것은 《출혈적》이라 하던 전년 보다도 400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미제 침략자들은 《환률》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또한 남조선 인민들의 어깨 우에 들씌우고 있다. 그것은 금번 《예산》에 계상되여 있는 285억 원의 《대충 자금》 수입중 139억 원이 《원조》 물자의 투입을 증대하지 않고 순수 《환률》 인상으로 인한 남조선 인

민들의 부담 증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환률》 인상으로 초래된 이러한 세입 증가액 139억 원을 공제하면 《원조》 물자 판매 대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충 자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도 79억 원이나 격감된 146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 침략자들은 심각한 딸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축감하는 대신 독점 사자본을 끌어 넣으려고 흉책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군사비의 중하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우려 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의 이러한 략탈적 흉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1965년 중에 걸머지게 된 재정 부담금은 세입 총액의 근 73%에 해당하는 6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엄청나게 팽창한 재정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세》, 《통행세》, 《법인세》, 《관세》, 《주세》 등 8종의 《세법》을 개악하여 세률을 또다시 대폭 인상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외에도 이자들은 철도 려객 운임을 35%, 화물 운임을 15%나 인상하고 학교들의 《공납금》을 14억 원이나 증대하기로 하였다.

이리 하여 괴뢰 통치배들은 미국 상전이 《지시》한 대로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세금 증수》를 실현함으로써 미제의 《재정 안정 계획》의 집행을 괴뢰 정부의 《예산》으로 《담보》하고 저들의 밑창이 난 재정을 굼때여 보려고 타산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예산》에는 《적자 일소》와 《예산 균형》을 위한 괴뢰들의 발광적인 《세입 증대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 적자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세입 《예산》의 《대충 자금》을 정함에 있어서 《방위 지원 원조》 8천만 딸라, 《잉여 농산물 원조》로 8,828만 딸라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조》 감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정액》에 훨씬 떨어질 것이 확정적인 사실로 되여 있다. 그나마 1965년도 《방위 지지 원조》의 일부인 1,500만 딸라를 앞당겨 사용하였으므로 《대충 자금》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적자가 불가피한 형편에 있다. 또한 년초에 들어서면서 즉시 세법들을 개악하고 대폭 인상된 세률을 적용하여 증대된 세금 수입을 확보하려던 괴뢰들의 기도도 한 분기가 다 지날 때까지 2개의 《세법》만이 겨우 개정되게 됨으로써 엄청난 《세입 결함》을 면치 못할 것이 명백하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정희 도당은 더욱 파렴치한 인민 수탈과 《재정 지출》의 강화로 재정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상전 앞에서 《충성》을 보여 한 푼의 딸라라도 더 얻어 보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1965년도 괴뢰 정부의 《예산》 자체가 침략적 전쟁 준비와 식민지 통치의 유지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우며 최소한의 딸라로써 최대한의 략탈을 감행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략탈 정책 수행의 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재계와 경제계에서는 이 《예산》을 가리켜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을 무시》하고 《경제 전반에 위축과 마비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예산이며 오직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에만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 남조선 금융 체계를 통한 미제의 략탈은 1964년에 들어서면서 전무 후무한 포악성을 띠고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제는 박 정희 도당에게 강요한 《재정 안정 계획》에 따라 은행 자금의 신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제한하는 한편 대부된 자금의 강제 회수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통화 가치의 안정》을 달성하고 벌써 오래 전부터 그 실시를 준비하여 온 《환률》 인상을 단행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려고 시도하여 나섰다. 이에 따라 박 정희 도당은 년초부터 《금융 부문 자금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및 운영 자금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례 없이 금융의 길을 막아 왔다.

1964년 괴뢰 재무부의 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 계획을 보면 총규모를 161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중 신규 대출 규모는 총규모의 47.2% 밖에 안 되는 76억 원을 계상하였다. 한편 대출 자금의 강제 회수를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해 금융 기관을 통한 실제상 자금 공급은 신규 대출 계획액 76억 원에서 회수 계획 40억 원을 제외한 36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1963년 간의 물가 상승률 약 40%와 1964년 5월에 있은 《환률》의 2배 인상 등을 참작한 자금 수요의 증대를 고려할 때 보잘 것이 못 되는 것이며 앞으로 자금 결핍이 일층 심각해질 것이 뻔한 것이였다.

한편 신규 대출 76억 원의 내용을 살펴 본다면 그 80.3%에 해당하는 61억 원이 《산업 은행》, 《중소 기업 은행》, 《농업 협동 조합》 및 《수산 협동 조합》 등 《국책 은행》을 통한 정책 자금에 돌려지고 있으며 일반 자금으로는 19.7% 밖에 안 되는 15억 원이 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40억 원 자금 회수 중 그 적지 않은 부분이 일반 은행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며 또한 《계획》 운영 방침이 예속 자본들의 수출 금융 확대에 중점을 두고 그 규모도 전년의 약 1.5배로 팽창된 25억 원 대로 추정하고 있으니만치 일반 자금 15억 원의 공급이란 말뿐이지 자금 결핍에 아우성 치는 중소 기업에는 빛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상 기만적인 《자금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은 더우기나 미제가 추구하는 《재정 안정화》 방침에 순응하여 략탈적인 포악상을 철저하게 드러냈다.

1963년 말 이래 방출 자금의 강제 회수에 발광해 온 괴뢰 정부는 새 해에 들어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각 금융 기관에 대해 일체 신규 대출을 중지시키고 각종 자금 회수를 계속 강행하였다. 따라서 5월 말 현재 일반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 증가 6천만 원에 대해 자금 회수가 7억 8천만 원에 달하여 회수 초과 7억 2천만 원을 내였다. 이러한 금융의 억제는 5월 3일의 《환률》 2 배 인상으로 자금 수요가 팽창된 남조선 경제의 활동을 더욱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6월 이후에도 괴뢰 정부가 집요하게 감행한 수출 자금의 우선 취급과 《계획 산업》을 빙자한 예속 자본에 대한 비법적인 《특혜 융자》로 말미암아 9월 말 현재 대출 증가액은 60억 원을 초과하여 괴뢰 재무부가 《자금 계획》에서 규정한 신규 대출 한도 31억 원의 2 배로 팽창하였으나 일반 은행들에서는 대출보다 5억 9천만 원이 많은 자금을 강제 회수했다.

이 해 더욱 격심해진 《특혜 융자》의 동태를 몇 개 례에서 본다면 8월 말 현재 판본 방직(55.6억 원), 삼호 방직(37억 원), 화신 산업(31억 원), 금성 방직(26억 원)을 비롯한 1억 원 이상 융자(지불 보증을 포함) 기업체의 대출 총액은 170억 원으로서 이 달 말 현재 화폐 발행고 214억원의 80%에 달하였다. 《부정 축재》로 일떠진 삼호 방직의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하나인 《제 1 은행》의 총 대출금 78억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32억 2,600만 원을 《특혜 융자》가 차지하였다. 중소 기업 자금으로 대출되여야 할 《신탁 자금 계정》에서 《편중 융자》된 총액은 6월 30일 현재 60억 8,700만 원인데 그 중 약 10억 원이 박 정희 도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 갔다.

발광적인 수출 자금, 정책 자금의 방출로 11월의 통화량은 년말 한도선을 80억 원이나 돌파하게 되여 괴뢰 도당은 당황한 나머지 11월 27일 이 해 두번째로 일체 대출의 중지를 내려 금융의 완전 정체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박 정희 도당은 《농사 자금》의 강제 회수를 통해 통화를 거두기에 미쳐 날뛰였다.

11월 말 현재 《한국 은행》, 《산업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 기관의 대출 동태를 보면 총액 850억 원으로 1963년 말보다 무려 259억 2천만 원의 증가를 보였으나 대출 증가액 중 99.4% 이상이 되는 257억 7천만 원이 《국책 은행》을 통한 정책 자금으로 방출되였고 0.6% 미만인 1억 5천만 원만이 일반 은행의 대출 증가로 되여 있다.

1964년 대출 동태
(단위 천만 원)

	1964. 11	1963	증가
총 액	8 504	5 912	2 592
《한국 은행》	1 377	768	609
일반 은행	2 298	2 283	15
기타 《국책》 금융 기관	4 829	2 861	1 968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5년 1월 14일.

이러한 대출 동태는 미제가 강요한 《재정 안정 계획》에서 예견했던 것으로서 괴뢰 정부 《재정 예산》에서 적자의 요소로 되고 있는 정책 자금의 방출을 《건전 재정》 작성이란 미명 하에 금융 부문에 완전히 전가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 하여 이 해 남조선의 일반 은행들은 경제 활동을 위한 일반 자금 공급 기관인 것이 아니라 괴뢰 통치 유지를 위한 정책 자금 조달 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해 집요하게 추구된 이와 같은 략탈적 금융 체계는 이 해 남조선 경제계 특히는 중 소 상공업 기업체들에 전례 없는 자금의 궁핍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체계의 혼란과 마비를 가져다 주었다.

《부도 수표》가 격증하여 5월에는 전년 같은 시기의 2.1 배 이상으로, 6월에는 5월의 1.7 배로 불어났다.

부도 어음의 증가는 더욱 격심하여 11월 27일의 신규 대출 전면 중지를 전후하여 건수에 있어서 약 3 배, 금액에 있어서 약 4 배로 증가하였다.

부도 어음의 증가
(단위 만원)

1964년 (월 일)	건 수	금 액
10. 30	66	649
11. 27	71	759
11. 28	67	847
12. 1	182	2 543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21일.

일반 은행들의 자금 사정도 더욱 악화되였는데 12월 17일 현재 예금 잔고는 5일 현재 보다 74억 원이나 줄어 들었고 《한국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11월 말 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고갈을 틈타 남조선 도처에서는 고리 대금 업자들만이 판을 치게 되였다. 서울 한복판에 뻐젓이 본점을 갖고 있는 66 개의 고리 대금업체들은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들의 점포 수보다도 170 개나 더 많은 482 개의 점포를 남조선 각지에 가지고 년리 60% 이상의 빚노리를 하고 있다.

외 화

1964년도 외화 사정은 전년도의 외화 기근 상태로 엄청난 대외 채무가 청산되지 못한채 넘어오게 됨으로써 더욱더 악화되였다.

박 정희 도당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천한다는 구실 하에 1963년 말까지 걸머진 대외 채무는 1억 8,600만 딸라에 달하였으며 그 중 년초에 지불해야 할

확정된 채무만도 7,600만 딸라나 되였다.

그러므로 1963년 말 현재 외화 보유고는 1억 2,960만 딸라라고 하지만 196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상의 외화는 이 해 초에 지불해야 할 확정 채무 7,600만 딸라와 기타를 제외한 4,800만 딸라에 지나지 않았다.

종국적 파멸에 림박한 외화 위기에 직면하여 박 정희 도당은 매년 세워 오던 《외화 수급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괴뢰 정부는 1963년도 《외환 수급 계획》을 12 등분한 《잠정 외환 지불 계획》을 가지고 외화 류출을 최대한 억제하기에 날뛰여 오다가 한 분기가 절반이나 지난 2월 13일에 가서야 1964년도 《외환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괴뢰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경제 파국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물가, 재정, 외환, 수출 진흥, 소비 절약 등 5 개 항목의 《종합 경제 시책》을 발표(1월 13일)하고 《투자 기관의 외화 사용을 최소한 범위로 억제》하며 《불요 불급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 및 군납용 원자재 수입을 일반 수입과 별도 구분 책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외환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외화 수입을 증대시켜 보려고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자들은 《은행 보유 외환에 의한 수입 신용장 개설 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원료 수입 소요액에 대하여서는 융자 않》기로 되여 있던 종래의 《규정》을 버리고 《보세 가공 수출》과 외화 표시 《군납》을 위한 원료를 수입할 때에는 《원화의 적립 없이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1964년 중 《물자 도입 계획》도 그 규모를 전년도 보다 3,700만 딸라, 1962년에 비해서는 6,600만 딸라나 적은 2억 2,480만 딸라로 한정하고 물자의 수입을 대폭적으로 억제하려고 차비하였다.

그러나 수출과 《군납》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고 그 규모가 더욱 더 줄어 상반년 중 외화 보유고는 매월 평균 257만 딸라씩 감소하였다.

4월 말까지의 외환 수불 정형을 보면 경상 거래에서 수입이 9,288만 8천 딸라, 지불이 1억 67만 7천 딸라로서 778만 9천 딸라의 지불 초과를 냈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의 외화 보유고는 5월 중순 현재 4월 보다 200만 딸라나 줄어 들었으며 6월에는 5월 보다도 또 380만 딸라가 줄어 들었다. 7월에도 외화 보유고는 계속 감소하여 6월 보다 500만 딸라나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여 9월 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던 전년 보다도 770만 딸라가 적은 1억 2천 190만 딸라에 불과하였다.

이 위급한 사태를 막아 보려고 박 정희 도당은 당초에 만들었던 《외환 수급 계획》을 네번이나 뜯어 고치는 등의 별의별 작간을 다 피웠으나 외화 기근은 좀체로 타개되지 않았으며 《계획》을 뜯어 고칠 때마다 타개할 수 없는 약점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례로 10월 말에 괴뢰 통치배들은 네번째로 《외환 수급 계획》을 뜯어 고치고 아무런 경제적 안받침도 없이 수출 목표액을 대폭 증대하였으나 《수출액의 과대한 계상》으로 금융계의 자금 지장만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 그의 달성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다섯번째의 《외환 수급 계획》을 또 조작하여야 할 곤궁에 빠져 들었다.

여기에 대처하여 미제는 《한미 교위 경제 회담》을 련이어 소집하고 괴뢰들을 《1964년도 재정 안정 계획 집행에 따르는 외환 수급 계획》 실현에로 내몰았다.

그러나 1964년 말 괴뢰 정부의 외화 보유고는 1억 2,890만 딸라로서 1963년 말 현재보다 70만 딸라가 감소하여 외화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다.

증 권

1964년에도 남조선의 증권 시장은 1962년의 대대적인 《증권 파동》과 그 뒤를 이은 1963년의 《제 2 증권 파동》의 여파로 전면적인 파산 상태에서 허우적거렸다.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내걸고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인민들의 푼전을 긁어 내려던 박 정희 도당은 자기들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1964년 중에 이 투기와 모리장을 다시 자래우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박 정희 도당은 《증권 시장 육성책》의 하나로서 증권 업자들의 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이기로 하고 늘어날 자금 전액을 융자하는 한편 증권 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보호》를 주어 《증권 시장 기초 안정》을 이룩해 보려고 년초부터 서둘렀다.

그러나 1964년의 경제 전망은 미제의 《긴축 정책》의 계속 강화로 말미암은 《원조》 축감의 확실시와 외화 부족의 심화, 물가의 앙등과 원료난, 자금난의 심화로 인한 기업 파탄의 격화 등 암담할 뿐이였다. 따라서 증권 시장에서는 년초부터 《한국 증권》주와 《증권 금융》주가 대 폭락하여 주당 200 원과 148 원까지 떨어지는 혼란과 파국상이 되풀이되였다. 이것은 전년 최고 가격인 주당 597원과 499원에 비해 각각 67%와 71%의 대폭락이였다. 남조선 증권 기업체 자체 주인 《한국 증권》 주와 《증권 금융》 주의 이러한 시세 대폭락은 남조선 증권 시장이 년초부터 《존폐의 갈래'길에 서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파국 속에서도 투기와 모리를 일삼으며 일확 천금을 노리는 증권 업자들의 작간은 년중 계속되였다.

2월 27일에마도 증권 업자들은 한두 장의 주식을 산 《일반 고객》들의 증권을 헐가로 걷어 들이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5만 주의 증권을 일시에 방출하는 투기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일반 고객》들은 《주가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가세했다》고 비난하면서 거래소 리사장실에 몰려가 일대 수라장을 벌리는 등 《대소동》을 일으켰다.

거래의 한산, 투기와 모리를 위한 란투극의 재연 등으로 남조선의 증권 시장은 난항에 난항만을 거듭하였다.

괴뢰 통치배들은 10월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악화 일로에 있는 주가 동향과 시장 위축을 타개》해 보려고 《현행 업무 규정 및 수탁 계약 준칙》을 《개정》하고 청산 거래 본증거금 징수률을 《완화》하였으나 이것도 증권 시세의 회복에는 그 어떤 자극도 되지 못하였다.

이에 등이 단 박 정희 역도는 12월에 《증권 거래소법 개정 법률안》을 조작하고 《예산》 자금을 지출하여 《한국 증권 거래소》의 주권 2억 2,158만 원을 《정부 소유 주식》으로 인수키로 하였다.

그러나 증권 시장의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다짐한 유휴 자금의 산업 자금화 기관으로서의 거래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채 또 한 해가 지나고 말았다.

여기에도 박 정희 도당의 《경제 시책》들이 모조리 파탄되고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여 가고 있는 실태가 나타나 있다.

통 화

미제의 《긴축 안정화》 정책을 받들어 괴뢰 정부는 1964년 《재정 안정 계획》에서 년간 통화량의 증대를 26억 9천만 원으로 정하고 년말 통화량의 《한도선》을 400억 원으로 그었다. 이 밖에 《재정 안정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서 《일체의 재정 적자》를 없애고 《물자 도입 규모》를 최대한으로 축소시켜 《소비》를 극도로 억제할 것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 해의 괴뢰 정부 《재정 예산》은 남조선에 괴뢰 정권이 생긴 이래 처음 있은 《적자 없는 긴축 균형 예산》을 목표로 하고 그 규모 마저도 《5 개년 계획》의 착수 년도였던 1962년보다 185억 4천만 원이나 축감시켰고 전년도 《예산》에서는 2백 여만 원이나 예견했던 각종 《채권》 발행을 일체 없애버리고 말았다.

이 처럼 괴뢰 정부는 무작정한 초과 《재정》 지출로 해서 증대되는 통화량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기도했으나 그것은 결국 물거품을 잡는 헛수작에 불과했다.

미제의 《원조》 삭감으로 해서 《대충 자금 수입》이 줄어서 《재정 예산》이 전면적으로 대폭 축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군사비를 24억 4천만 원이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파쑈 통치 기구비를 확대한 것 등은 이 해 통화 증발의 주요 요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해 미제가 강행한 딸라 대 남조선 원화의 교환률을 2배로 인상한 것은 통화 팽창에서 결정판을 내리였다.

《환률 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보상액 40억 원의 지출을 비롯해서 남조선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재정, 금융 자금의 수요가 그만치 팽창해진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원조》의 축감을 예상하고 괴뢰 정부가 《수출 진흥》이란 명목 밑에 이 해에 발광적으로 강행한 예속 자본들에 대한 《지불 보증》, 또는 《특혜 융자》 등 176억 원, 《한국 은행》의 외환 매매를 통해 방출되였거나 외국 기관들의 예금이 줄어든 것 20억 원 등 도합 최소한 240억 원과 이 밖에 농민들로부터 량곡을 수탈하기 위해 《매상금》, 《담보 융자금》의 명목으로 뿌린 40억 원을 합쳐 10월 말 현재 280억 원의 통화량 증대 요인이 있었으며 10월 이후에 다시 《저축성 예금》이 1?억 원이나 감소하여 통화 팽창을 자극했다.

통화 팽창의 모습을 이 해 각 금융 기관의 대출 면에서 본다면 그 총액이 1964년 11월 말 현재로 850억 4천만 원으로서 지난 년말 현재의 591억 2천만 원보다 259억 2천만 원이 증가(99.?%에 해당하는 257억 원이 《정책 자금》으로 대출된 것)하고 있다.

군사비를 비롯한 괴뢰 파쑈 통치 기구 유지비의 증대, 《환률 인상》, 《특혜 융자》 등 《정책 자금》의 방출 증대로 말미암아 1964년간 통화량은 매월 평균 10억 4천만 원(《환률 인상》 이후 6.5 개월 간 평균은 16억 4천만 원)씩 증가하여 11월 15일 현재 전년 말보다 109억 원이 팽창한 482억 원이란 천문학적 《수》자를 보였다. 그리하여 400억 원의 《통화량 한도선》을 82억 원이나 뛰여 넘은 통화량은 남조선 인구 한 사람 앞에 1,800원 꼴씩 차례지는 형편이였다.

이처럼 팽창하는 통화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괴뢰 정부는 년간에 82억 원(1963년 말 현재 발행고의 38%)의 화폐를 증발하여 통화 발행고는 11월 28일 현재 300억 원 선을 돌파하였다.

당황한 미제는 통화량을 년말까지에 《한도선》인 400억 원으로 축소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하면서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였다 (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11월 26일).

상전의 지시에 따라 박 정희 도당은 경제계의 일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년중을 통해 자금 수요가 제일 많은 11월 말과 12월의 약 달포 동안에 출혈적인 《긴축》을 강행하는 한편 세금과 각종 자금의 강제 회수 소동을 벌렸다.

그들은 은행들의 청구를 모조리 봉쇄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일체 억제하였으며 약 20억 원의 세금과 167억 원에 달하는 《농사 자금》, 《비료 대금》, 《농촌 고리채》 등의 회수를 강행하였다. 그들은 또한 약 70억 원에 달하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강제 징수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만회할 수 없었으며 년말 통화량을 430억 6천만 원으로 《확정》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 《확정》 통화량은 괴뢰 정부가 12월 15일 이후 통화량의 팽창을 엄비에 부치고 몇개 도시에서의 통화 동태를 《표본 조사》하여 날조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 (남조선 《한국 문화 방송》 1965년 1월 19일)이다.

1964년 12월 29일 현재, 년간에 뿌린 각종 자금의 회수 잔고 74억 원, 금융 기관의 대출 잔고 증가 1억 4천만 원(남조선 《동화 통신》 1964년 12월 29일)과 10월 이후 급격히 축감한 《저축성 예금》의 12억 원 감소 등 눈에 띠는 것만 해도 이 해 통화의 순증가는 8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해의 실제 통화량이 430억 6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에 달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64년간 통화량 증가 동태
(단위 억원)

		통화량	전년말 대비 증가액
1960	년말	219.1	9.2
1961	〃	312.2	93.1
1962	〃	367.1	54.9
1963	〃	373.1	6.0
1964.	12. 31	430.6	57.5
	4. 30	375.7	2.6
	5. 15	396.0	22.9
	11. 15	482	108.9
	11. 30	467	83.9
	12. 15	472	98.9

물 가

박 정희는 《년두 교시》에서 《자유 경쟁에 립각한 가격 구조의 합리화》와 생활 필수품의 《최우선적인 확보》를 물가 안정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추어 그의 졸개들은 《철저한 저물가 정책》의 실시를 다짐하는가 하면 《물가는 절대 안 오른다》, 《물가 앙등은 심리적 작용이다》라고 장담도 했다.

그러나 미제의 지시 밑에 조작한 1964년도 괴뢰 정부 《재정 예산》이 이미 《국방력의 계속 강화》, 《림시 특별 리득세》 실시, 《철도 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철도 료금의 15% 인상, 《수익자 (교육을 받는 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수업료》의 인상 등 통화 팽창과 물가 앙등의 요소를 아주 짙게 내포하고 있었더니 만치 박 정희 도당이 떠벌린 《저물가 정책》이란 한낱 기만에 불과한 것이였다.

특히 이 해에 미제는 추구해오던 남조선 《경제의 자유화》를 강행하여 소위 《환률 및 료금의 현실화》라는 구호 밑에 새 해 벽두부터 물가 인상과 수탈의 선풍을 일으켰다. 결과에 1964 년간의 물가의 상승률은 괴뢰 《경제 기획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34.7%라는 기록을 내였다.

정초부터 감행한 《철도 료금》의 15% 인상, 《림시 특별 리득세법》의 실시로 올라만 가는 물가에 부채질을 시작한 괴뢰 정부는 3월에 들어서 《국영》탄 값의 인상, 《물가 조절에 따른 림시 조치법》을 개정하여 밀'가루의 《고시 가격》을 29.2%나 인상하는 등 《고시 가격의 현실화》를 추구하여 1. 4 분기 중에 만도 14.8%(1963년간 물가 상승률은 약 40%)라는 엄청난 물가의 앙등률을 비져냈다.

이러한 물가 추세는 5월 3일 미제가 드디여 《현실화》 방침을 강행하여 2 배로 끌어 올린 《환률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다급한 상승률을 내였다. 《환률》 인상과 관련하여 괴뢰 정부는 미국의 《추가 원조》를 받아 금후 물가 등귀를 《10%선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라고 큰 소리를 쳤으나 1주일이 못 가서 물가는 전반적으로 20~30%나 뛰여 올랐다.

《환률》 인상은 이 해 남조선 물가 앙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놀았는바 밀'가루의 《고시 가격》은 6월에 재조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여 수입 원가의 상승률이 32%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비용이 또한 올음으로 해서 55~60%의 대폭 인상을 가져왔다.

또한 8월에 실시한 괴뢰 정부의 곡가 조절용 잡곡 (미국에서 수입한 보리쌀) 가격 같은 것은 《환률 개정》으로 말미암아 51%나 대폭 인상되였다. 이것은 당시의 남조선 쌀값보다 오히려 120원이나 비싼 것으로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물가 정책의 혼란상을 폭로시켰다. 더구나 9월에는 쌀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입 비료 값을 단번에 90%나 올려 받아 천정 모르는 물가고에 더욱 큰 불을 지폈다.

8월에 선박의 려객 및 화물 운임 30~35%, 항공 수송 료금 32.7%, 9월에 다시 전기 료금 50%, 석탄 판매 가격 30% 등 《관영 료금》과 괴뢰 정부의 독점 판매품 가격이 계속 강행군을 하면서 인상되여 이 해의 물가 앙등에서 《환률》 인상과 더불어 선도적 역할을 놀았다.

《환률》및 료금 체계를 통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략탈적 조치는 남조선에서 지폐와 《국채》 람발 등을 통한 인플레적 수탈 요인과 함께 물가 등귀를 더욱 부채질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생활 전반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1963년 11월부터 1964년 11월까지의 1년 간 남조선의 개별적인 물가 동태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주요 상품 도매 물가 동태 (%)

	1963. 11 현재	1964. 11 현재
쌀	100	116
보리쌀	100	102
설 탕	100	171
강 판	100	194
환 강	100	143
합 석	100	169
철 선	100	140
지 선	100	174
각재 (라왕)	100	186
판유리	100	127
세멘트	100	120
면 사	100	155
광 목	100	145
메리야스	100	171
류안 비료	100	179
염 료	100	146
동물성 유지	100	123
파라핀	100	149
세탁비누	100	174
모조지	100	135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2호.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수입 원료와 그 제품들인 강재류와 금속제품 그리고 미국 잉여 농산물 제품인 동물성 유지와 그것으로 만든 비누, 미국 원면 제품인 면사, 광목, 메리야스류, 그리고 설탕들이며 역시 수입품인 비료, 염료, 공업용 약품, 팔프 제품들이다. 이것들은 주요하게 《환률》 인상에 뒤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밖에 남조선에서 예속 자본가들의 독점 기업이며 독점 판매품으로 되여 있는 세멘트, 판유리 등의 가격이 뛰여 오른 것은 이자들이 괴뢰 정부의 비호 하에 독점 가격을 형성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와는 달리 남조선 농민들의 주요 생산물인 쌀의 도매 가격은 년간에 16%, 보리쌀 같은 것은 단 2%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미제의 략탈적인 식민지 저물가, 저임금 정책에 의한 협상 가격 차와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착취의 정도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통치배들은 남조선 농민들에게 화학 비료와 농약 등을 비싸게 강매하면서도 농민들이 생산한 량곡 가격은 《아무튼 떨어뜨리고 본다》는 식으로 생산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물가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 해에 전반적 물가 수준이 34.7% 상승 정도에 머무르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남조선 농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해 괴뢰 정부의 《철저한 저물가 정책》은 철저하게 파탄되고 다만 《가격 구조 현실화》의 후과만이 생산, 소비, 류통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미쳐 남조선에서는 《해방 후 최고의 불경기》, 유사 이래의 불경기를 초래하였다.

《원 조》

심각한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1961년 8월 《대외 원조 정책》을 변경한 이래 보다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1964년에 가장 로골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실시된 지역이 바로 남조선이였다.

미 국제 개발처장 벨은 이 해 1월 21일 서울에서 《미국의 대한 원조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한국이 지원 원조에서 벗어나 개발 차관과 기술 원조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공언하였다. 뒤'이어 서울에 기여든 미 국무장관 러스크는 1월 29일의 박 정희와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가 점차적으로 축소되여 4~5년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는 조선 정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여 1956년의 3억 2,400만 딸라를 최고로 하고 1954—1959년 간 평균 2억 5천만 딸라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0년 《바이.아메리칸 정책》 실시 이후부터 《미국 상품의 강매》, 《현지 인민에 의한 증대하는 군사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원조》 규모를 대폭 줄이여 1962년에는 9,250만딸라가 지출되였고 1963년에는 다시 19%를 깎아 내린 7,500만딸라 (1956년의 23.1%)를 지출하였다.

1964년에 남조선에 대한 《원조》 규모는 더 한층 축감되였으며 아울러 이 해에 《원조》를 미끼로 한 식민지 략탈의 강화, 《차관》과 잉여 농산물 도입의 증대, 괴뢰 정부에 대한 무작정한 외국 자본 도입의 강요 등 《원조》 정책의 본색을 남김 없이 드러냈다.

《원조》 규모의 축소: 미제는 이 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 규모를 6,500만 딸라로 결정하고 8월 초에 괴뢰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 후 《환률》 인상에 따르는 《통화 안정》조로 1천만 딸라가 추가되여 실제 규모는 7,500만 딸라였다. 이것은 괴뢰 정부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도 1,500만 딸라나 적은 것이다.

이 밖에 《기술 원조》로서 500만 딸라가 있다.

미제는 자금의 70~80%가 괴뢰군의 유지와 군사 시설 확장에 돌려지는 《경제 원조》를 대폭 줄임으로써 현지 군사비 부담을 그만큼 더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미국 《원조》 규모

(단위 천 딸라)

	계	《경제 원조》	《기술 원조》
1960	207 400	200 900	6 500
1961	191 500	185 000	6 500
1962	101 500	92 500	8 000
1963	94 500	90 000	4 500
1964	80 000	75 000	5 000

자료 출처: 남조선 《합동 통신》 1960년 5월 30일, 1964년 3월 6일, 《동양 통신》 1961년 7월 6일, 《국제 시보》 1962년 1월 4일.

미제는 또한 8월 초에 괴뢰 정부에 대하여 군사 원조로써 그들이 부담해 오던 《국군용 콩》

구입비 280만 딸라를 1964년부터는 괴뢰 정부 재정에서 지출할 것과 계속하여 1965—1970년까지의 6개년 동안에 도합 약 4천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축감할 것이며 그 부담을 괴뢰 정부에 《이관》한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결과에 괴뢰 《정부의 재정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되고 경제 사업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였다 (남조선 《합동 통신》 1964년 8월 7일).

1월에 남조선에 기여 들어와 경제의 실태를 조사해 오던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비네트는 《원조》의 축감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은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해 미제는 오히려 남조선 면직물의 수입을 대폭 억제하는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여 현지에서 구입하던 미 군용 세멘트와 같은 물자 구입마저 거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수출과 《군납》 실적을 위축시켰고 《원조》 축감과 함께 괴뢰 정부 재정에 가일층의 압박을 가하였다.

《원조》를 미끼로 한 략탈의 강화: 미제는 《통화 안정 기금》의 명목으로 1천만 딸라의 추가 《원조》를 괴뢰 정부에 《제공》하는 대'가로 오래 전부터 강요해 오던 《환률》 인상을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5월 3일에 강행케 하였다.

새로운 《환률》 인상으로 남조선 원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 반면에 딸라의 가치는 2 배로 높아진 결과에 1964년도 괴뢰 정부 예산에서 《대충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환률》 인상 전의 약 3분의 1로부터 2분의 1로 증대되였으며 따라서 남조선 재정 금융에 대한 딸라의 통제력은 일층 강화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미제는 년간 8~9천만 딸라를 들여서 충당하고 있던 남조선 주둔 침략군의 원화 수요를 최소한 3분의 1이나 적은 딸라 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의 물가 체계를 인상된 《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개편시킴으로써 투하한 딸라의 략탈적 효률을 높였다.

《개발 차관》 및 《잉여 농산물 원조》의 증대와 경제적 예속의 강화: 최근 년간에 미제의 《원조》 정책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증여》 형태의 《원조》가 점차 《차관》 형태로 이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미제가 《증여》 형태의 《원조》를 《차관》 형태로 바꾸어 가고 있는 데는 침략적인 군사비의 부담을 직접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우는 동시에 딸라의 대부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잉여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그들의 보다 략탈적인 기도가 반영되여 있다.

1959년에 미제가 침략적 《개발 차관》을 실시한 이래 괴뢰 정부는 1964년도까지 5 개년 간에 15건에 1억 400만 딸라의 차관을 상전으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그 중 1964년도 분이 6건에 5,180만 딸라로서 건수에서 20%, 금액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1961년을 기점으로 하여 1959—1960년과 1962—1964년을 대비해 보면 전자가 년 평균 867만 5천 딸라, 후자가 3,845만 5천 딸라로서 전자의 약 4.5 배로 증대되여 있다.

이러한 《개발 차관》의 압도적인 부분은 남조선의 군사력 증강과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교통, 체신 시설과 전력 공업 등에 투입되였으며 일부 가공 공업 및 채취 공업에 투하된 자금은 주로 전략 물자 개발과 수입 원료의 가공 그리고 소위 《수입 대체 산업》 등 미국의 딸라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부문에 돌려졌다.

미 공법 480호 제 1 관에 의한 《차관》 투입도 《대외 원조》 정책에 변경이' 있기 전인 1959—1960년 간 평균 실적 3,119만 딸라에 대해 1964년에는 약 2 배로 증대된 6,200만 딸라에 달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제는 이 해에 《잉여 농산물》 판매 대금에서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사용분을 종전의 12.2%에서 15%로 끌어 올려 175만 딸라 (남조선 화폐로 3억 4,625만원)를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더 짜냈다. 10월에 미제는 미 공법 480호의 선박 조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차관》 물자를 받아 들이는 나라들이 50%만 부담해 오던 선박 운임을 전액 부담케 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은 또다시 매년 최소한 700~800만 딸라의 추가적인 략탈을 당하게 되였다.

외자 도입의 촉진과 미제의 로골적인 압력: 년초에 미 국제 개발처 장 벨은 남조선에 대한 《원조》 축감을 공언하면서 《한국은 미국 외에 딴 원천에서 원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인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미국 단독으로 담당해 왔던 대한 원조를 공동으로 부담케 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한일 국교를 시급히 정상화하도록 공공연한 압력을 가》한 것이다 (남조선《동화 통신》 1964년 1월 22일).

이 해 10월에 일본 제국주의는 미제의 압력에 편승하여 박 정희 도당에게 2,000만 딸라의 《긴급 차관》을 제공하고 8. 15 후 숙망하여 온 남조선에 대한 독점 자본들의 본격적인 재침의 길을 열었다.

한편 박 정희 도당은 매국적인 《한일 회담》의 타결을 다그치면서 배후에서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였고 서독을 비롯한 구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재정 및 민간 《차관》을 구걸하는 등 매국 배족 행위를 다하였다.

미제는 이상과 같이 《원조》를 축감하면서 일본, 서독 등 자기와 련관된 독점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넣음으로써 재정적 부하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제국주의 독점들 간의 경제적 모순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 나라들을

앞장 세워 남조선을 2중 3중으로 얽매여 놓고 허물어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지탱해 보려고 발악하였다.

8월에는 새로 《한미 재정 안정 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통제 기구를 만들어 《원조》 자금 배정과 품목 선정 등을 결정하는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후신》)의 통제적 기능을 보강하였다 (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8월 4일).

또한 미제는 1965년도 《원조》의 일부를 앞당겨 쓰게 해 준다는 것을 미끼로 해서 박 정희 도당에게 《긴축》과 세금 수탈을 일층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외 국 자 본

미제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1960년 이래 《지원 원조》를 해마다 줄이면서 《차관》으로 이행할 것을 괴뢰 정부에 일러 왔다. 1964년의 《지원 원조》를 1954—1959년 간 평균액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은 6,500만 딸라에까지 내리 떨구는 동시에 이 해 1월 미 국제 개발 처장 벨은 2년 가량이면 남조선에 대한 《지원 원조》를 끊고 순전한 《개발 차관》만을 제공하게 될 것임으로 《한국은 미국 외의 딴 원천에서 원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제는 《한일 회담》의 속결을 로골적으로 다그치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동시에 서구라파 독점 자본의 진출을 위하여서도 《국제 차관단》 형성을 주선해 나섰다.

따라서 이 해 남조선은 미제의 책동에 고무된 일본과 서구라파 독점 자본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전판으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특히 일제는 이 해 12월에 박 정희 도당에게 2,000만 딸라의 《긴급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한일 합방》의 옛꿈을 재현하는 길에 로골적으로 들어 섰다.

한편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차관 교섭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여 서독, 이딸리아, 프랑스, 영국, 화란, 카나다 등 서방 자본주의 7개 나라 독점 자본을 상대로 1억 3,000만 딸라를 목표로하고 각종 《차관》을 끌어 들이려고 발광하였다. 12월에는 박 정희가 직접 서독의 나치스 잔당들을 찾아가 《차관》을 애걸하였다.

결과에 박 정희 도당은 1964년간에 재정 차관 6건 3,793만 딸라, 상업 차관 14건 2,408만 7천 딸라, 투자 등록 76만 9천 딸라, 도합 25건 6,278만 6천 딸라의 외국 자본의 투입을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 12월 10일 현재 외국 《차관》의 남조선 침투 정형을 보면 확정된 것이 53 건에 2억 8,305만 1천 딸라, 추진 중인 것이 38 건에 1억 5,769만 8천 딸라, 도합 91 건에 4억 4,074만 9천 딸라로서 이 해 말 남조선 《한국 은행》 외화 보유고의 약 4 배에 달했다.

확정된 53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재정 차관이 19건, 상업 차관이 24건, 투자 등록이 10건으로 되여 있다. 재정 차관 19건 중 괴뢰 정부가 완전히 승인한 것으로서는 《철도청》의 에이 아이 디 디젤 기관차 도입 차관 1,100만 딸라와 《한국 전업》의 송배전 시설 도입 차관 775만 딸라, 도합 2건에 1,875만 딸라이고 나머지 19건 1억 1,451만 4천 딸라는 차관 협정이 체결됐거나 차관을 주기로한 나라로부터 승인된 것이다. 상업 차관 24건의 차관액 1억 3,981만 6천 딸라 중에서 4건 1,807만 8천 딸라를 제외한 20건의 차관액 1억 2,173만 8천 딸라에 대해서는 괴뢰 정부가 1억 3,846만 3천 딸라의 지불 보증을 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침투 정형

(1964년 말 현재)

	건 수	금 액 (천 딸라)
총 규모	91	440 749
그중 확정된 것	53	283 051
재정 차관	(19)	(133 264)
상업 차관	(24)	(139 816)
투자 등록	(10)	(9 971)
추진 중의 것	38	157 698
재정 차관	(19)	(117 755)
상업 차관	(19)	(39 943)

자료 출처 :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2월 6일.

나라별 침투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지원 원조》로부터 《개발 차관》으로 넘어 갈 것을 추동해 온 미제는 1964년도에 장성 탄광에 대한 《개발 차관》 950만 딸라를 비롯해서 6건에 총액 5,180만 딸라의 《차관》 (1959년 이래 1964년까지 5년 동안에 승인한 15건의 《개발 차관》 총액 1억 400만 딸라의 2분의 1)을 박 정희 도당에게 승인해 주었다.

한편 자국 정부 《원조》 정책의 그늘 밑에서 무역, 건설 등의 형태를 통하여 이미 남조선 경제에 확고한 지반을 구축해 놓은 미국 상사들과 독점체들은 유리한 투자 대상을 물색하면서 남조선에 계속 침투하였다.

이 해 3월에 칼프 석유 회사는 《차관》에 의한 《울산 정유 공장》의 건설을 끝내고 괴뢰 정부와 체결한 《한미 석유 협정》에 의해 그 《관리권》을 양도하였으나 공장 관리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영은 칼프 석유 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인 리사의 통제하에 두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군은 언제던지 공장 전체를 《징발》할 수 있게 되여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은 《미국 측의 어김 없는 주권 침해》이며 괴뢰 정부는 《배 주고 배'속 빌어 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령남 일보》 1964년 5월 15일).

1964년의 미국 독점들의 차관 및 투자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날'자는 협약 체결 또는 남조선 출판물의 발표 날'자).

차관 : 스위프트 차관단과 괴뢰 도당 간에 울산에 복합 비료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3,350만 딸라를 투입하기로 《협약》 (5월 29

일). 칼프 석유 회사와 괴뢰 당국 간에 장항에 비료 공장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 (6월 19일).

직접 투자: 기틀멘사스 회사, 18만 딸라 (《가공 수출》용 자재 도입) ▷디 에이 길브레스 상사 259만 8천 딸라 (방추와 직기 등 낡은 방직 기계 시설들을 강매, 8월 17일).

◇ **일본**: 박 정희 도당은 1964년에 《선 수교 후 통상》이란 기만적 구호를 내던지고 《한일 회담》이 년내에 《타결되지 않더라도 일본의 경제적 지원은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자본을 끌어 들이려는 데 급급하였다.

일본의 독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조종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인 《외자 도입》 책동에 고무되여 침략 기도를 더욱 적극화하였다 (괄호안의 날'자는 사건 발생 날'자 또는 남조선 출판물의 발표 날'자).

척후병들의 파견: 쇼와 전공사 사장 안사이 마사오를 비롯한 《일한 경제 협력 사절단》 일행 22명이 10월 28일 남조선에 기여 들어 10 여 일 간 부산, 울산 공업 지대를 싸다니면서 투자 대상을 물색 ▷ 11월 2일 일본 《경영자 협회》에 망라된 실업가들과 금융 자본가 일행 14명이 남조선 《방문》 ▷ 11월 17일 《보세 가공 시찰단》이, 23일에는 일본 《화학 섬유회》가 조직한 《섬유 산업 시찰단》 17명이 남조선에 기여 들어 방직 공업을 비롯한 공업 지대를 시찰▷ 12월 11일,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남조선에 기여 들어 산업 지대를 시찰.

차관: 일본 정부는 남조선 《경제난을 돕기》 위한 《긴급 원조》라는 기만적인 명목 밑에 12월 11일 일본 외무성에서 박 정희 도당과 《연지불 조건에 의한 2천만 딸라 차관 도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제 6 차 《한일 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이 유리한 립장을 취하기 위한 사전 포치의 하나이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 《차관》을 미끼로 일본 상사에 대한 납세 의무 면제, 합법적 상 행위의 보장을 위한 《영업 감찰》의 허가, 《남조선 주재 대표부》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더우기 이 자금은 1962년 《김—오히라 회담》에서 합의를 본 1억 딸라의 《민간 차관》 테두리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본 독점 자본이 사실상 남조선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차관》 조건은 상품 (소비재와 낡은 기계류) 출하 후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년 간 연불 상환한다. 리자는 년리 5.75%로, 일제가 다른 《동남 아세아 나라들에 제공하는 차관 조건보다도 더욱 고률》이다 (남조선 《동화 통신》 1964년 8월 22일).

개별적인 일본 상사들의 《차관》 침투도 강화되였다.

미쯔이 물산과 남조선 《삼성 물산》 간에 4,190만 딸라 상당의 비료 공장 시설을 수출할 데 대한 《잠정적 차관 계약》을 체결 (9월 4일), 도요다 회사는 남조선에 랭간 압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419만 8천 딸라의 《차관》을, 니홍 쇼셍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자재 도입조로 221만 7천 딸라의 《차관》을 남조선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11월 20일).

《기술 협조》: 일제는 《기술 협조》라는 명목으로 제 2 류 기술을 강매하여 남조선 경제를 기술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기도를 로골화하였다.

《오사까 헤나스끼 회사》와 남조선 측과의 변압기 제조를 위한 《기술 협조 계약》, 화장품 제조 《기술 협조》 등은 그 일례인데 남조선에 진출한 일본 화장품은 1964년 상반년 기간에 일본이 해외에 수출한 화장품 총량의 10.4%, 금액으로 약 5천만 원이였다 (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년 11월 7일).

《보세 가공》: 1964년에 괴뢰 정부는 총액 1천만 딸라 규모의 《보세 가공 무역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소요되는 원료와 기계 시설들의 대부분은 일본 회사들이 공급하기로 되여 있었다.

이 해 일본 회사들은 남조선의 값싼 로동을 리용하여 직물 염색, 조화, 메리야스, 내의, 인쇄물 등을 가공 제품화하였다. 《보세 가공》품은 반드시 제 3 국에 재수출하게 되여 있으나 일제는 이것을 남조선 시장에 《불법적으로 암류출》시켜 폭리를 취하였다(남조선 《국제 신보》 지사 1964년 9월 18일).

◇ **서부 독일**: 서독 독점 자본은 1961년에 《합의》된 제 1 차 《차관》 협정에 이어 제 2 차로 남조선에 《차관》을 들이밀 목적으로 침략의 척후병들을 계속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6월과 7월에는 서독 정부 경제성 관리들이 남조선에 련속 기여 들었고, 11월에는 서독 기독교 사회당 당수 슈트라우스가 남조선에 와서 저들의 《투자, 차관 및 광범위한 경제 계획을 위한 계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촉구하였다(《에이피 통신》 1964년 11월 22일).

이들이 박 정희 도당과 주요하게 모의한 것은 4 천 여 만 딸라의 새로운 《차관》 투입에 대한 문제, 《차관》에 의한 비료와 세멘트 공장의 건설과 철도 부설, 그리고 중소 기업 《발전》과 기계 부속품 구입 문제, 남조선에 와 있는 《서독 경제 고문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새로운 《기술 고문단》을 남조선에 파견하는 문제, 1965년에 1천 명의 남조선 광부를 서독에 보낼 데 대한 문제, 경상남도에 《직업 보도 학교 설치》 문제 등이였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에 기초하여 박 정희는 서독을 방문하고 본의 군국주의자들과 《경제 회담》을 벌린 끝에 12월 7일 총액

1억 5,900만 마르크 (약 3,900만 딸라) 규모의 《한독 경제 차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차관》액 중 1억 500만 마르크는 《단기 상업 차관》으로서 서부독일 상사들이 남조선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정부 보증금》의 형식으로 서부독일 상사들에 직접 지불되는 것이며 나머지 5,400만 마르크의 《재정 차관》은 남조선의 통신망 확장, 철도 부설 등 주로 군사적 의의가 큰 부문에 투하된다. 이것은 일찌부터 남조선에 침략적 기반을 닦아 온 서독 독점 자본이 그 기반을 더욱 확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남조선 진출과 략탈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 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서독 독점 자본은 《차관 공여》를 미끼로 하여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각종 《협정》들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독 통상 협정》(12월 4일 체결): 박 정희 서독 《방문》 직전에 파견된 남조선 《경제 사절단》과 서독 정부 간에 체결되였다. 《협정》에서 서독 독점 자본은 수출 일방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여 남조선을 자기의 상품 시장으로 더욱 얽매 놓으려는 략탈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한독 해운 협정》(12월 8일 가조인): 서독 상품의 남조선 진출에 대비하여 서부 독일 독점체들이 남조선의 해운 및 개항장들을 리용함에 있어서 남조선의 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이 밖에 이 해에 《차관 협정》 체결 이전부터 교섭해 오던 것과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서 《한독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 조약》 (1965년 2월 4일 체결, 남조선에 대한 서독 자본의 투자를 증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침략과 략탈의 문호를 더욱 활짝 열어 놓을 목적으로 《우호 항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할 것을 규정), 《2중 과세 방지 조약》 (추진 중, 남조선에 진출하는 서독 자본의 《리익 배당금과 원금의 리자를 본국에 송금함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면세 특전을 규정하고 있다)등이 있다.

1964년 9월 21일 현재 서독 자본의 남조선 침투 정형을 보면 확정된 《차관》이 총액 2억 382만 마르크(5,096만 딸라)로서 남조선 《외자 도입 총 확정액의 약 20%》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9월 23일)를 차지하며 이 해 12월의 제 2차 《차관》액까지 합하면 그 총액은 3억 6,282만 마르크 (8,596만 딸라)에 달한다.

서독 자본의 침투 정형 (단위 만 딸라)

투자 대상 (투자 회사)	《차관》 액	비 고
◇ 재정 차관		1962. 11. 13 이후
체 신 시 설	1 325	계속 진행중
탄 전 개 발	518	1964. 4. 23 계약 체결
기 계 류 설 치	482	1964. 8. 14 계약 체결
철 도 공 사	2 800	1964. 12. 18 《협정》 체결
라주 비료 공장 확장	408	〃
조선 공사 상수도 시설 자재 도입	450	〃
제철소 건설 자재	920	〃
중소 기업 발전 사업	500	〃
◇ 상업 차관		
쌍룡 세멘트 공장 (함볼트 회사)	650	1962년 5월에 계약 체결 1964년 4월에 완공
비스코스 인견사 공장 (에이. 이. 지 회사 씨. 일리스 합작단)	512	1954. 2. 4 계약 체결
마 혼방직 공장 (잉걸스타트 회사)	350	1964. 6. 9 〃
전기 기계 공장 (헤로탈스 회사)	250	1964. 2. 4 〃
전신 전화 시설 (씨멘즈 회사)	96	1964. 11. 4 〃
전신 전화 시설 (텔렉스 회사)	475	1964. 11. 20 〃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일보》 1964년 9월 22일, 《국제 신보》 1964년 11월 10일, 《합동 통신》 1964년 8월 20일, 11월 4일, 《동양 통신》 1964년 11월 26일.

◇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 일본 서독 등의 적극적인 남조선 진출과 박 정희가 파견한 《경제 사절단》의 서구라파 구걸 행각에 자극되여 이딸리아, 프랑스와 기타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 기도도 한층 커졌다.

이딸리아와 프랑스 독점체들은 이미부터 추진해 온 《이딸리아 프랑스 어업 차관 협정》에 의한 어선 건조 및 판매를 계속 추진시켰다. 프랑스의 《강철 어선 공급 협회》는 이해 10월에 《이딸리아 프랑스 어업 차관》에 의한 《어구 공급 및 기술 협정》을 남조선 측과 체결하였다. 11월에는 또한 서울 근방 팔당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데 대한 250만 딸라 규모의 《차관 계약》을 괴뢰 정부 측과 체결하였다.

이딸리아는 《어선 도입 차관》 외에 이 해 11월에 괴뢰 정부와 《통상 협정》에 가조인했으며 합성 섬유, 의약품 및 살충제 생산 시설 수출에 대한 《약속》을 괴뢰 통치배들에게 주었다.

이 외에 스위스의 인벤터 회사는 남조선의 화학 섬유 공장 시설 확장을 위한 160만 딸라의 《차관 협정》을 11월에 체결하였다.

무 역

1964년 초에 박 정희 도당은 이른바 《수출 제 1 주의》를 표방하면서 《수출 진흥》으로 외화를 벌어 들여 《국제 수지 관계를 개선》하고 《자립 경제를 이룩》한다고 떠들어 대였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축감하는 대신에 남조

선 자체의 부담으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반적인 대남 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소위 《수출 제 1 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의 제 1 차 제품과 가공품들을 생산비 이하의 헐값으로 수출하는가 하면 《환률》을 인상하고 막대한 《수출 보상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수출 업자들의 수지를 맞춰 주었으며 《수출 증대의 달》이니 뭐니 하는 선전 사업을 벌리는 등 소동을 벌렸다.

남조선 인민들의 희생에 의하여 1964년에 남조선의 수출액은 1억 2천만 딸라 수준에 달했는바 이 피상적인 실적을 가지고 괴뢰 통치배들은 《수출 목표를 달성》했으며 경제 형편이 크게 개선이나 된 듯이 선전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조선의 국제 수지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제의 예속성과 수출입 상품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더한층 심화되였다.

1964년 1—10월 간 남조선 수출입의 재원별 및 형태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 1—10월 재원별 및 형태별 수출입 (단위 천 딸라)

수 출	실 적	수 입	실 적
합 계	92 700	합 계	312 396
일반 수출	86 767	일반 수입	140 816
보세 가공 수출	3 961	공공 《원조》에 의한 수입	104 523
기타 수출	1 970	외국 자본 및 차관에 의한 수입	30 282
		기타 수입	36 774

자료 출처 :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2호.

1964년 10월 말까지의 수출 실적은 9,270만 딸라로서 전년 같은 기간의 실적 7,142만 딸라보다 2, 128만 딸라 (29%)가 증대되였다.

그러나 수입은 수출의 3.4 배인 3억 1,239만 6천 딸라로서 수입 초과액은 실로 2억 1,969만 7천 딸라에 달한다.

1964년의 《보세 가공 무역》은 《한일 회담》 재개를 배경으로 하고 박 정희 도당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추진되였으나 그 년간 실적은 목표액의 53%에 지나지 않는 535만 여 딸라였다. 그나마 원자재 수입액만도 수출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484만 딸라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상 벌어 들인 외화는 거지반 없고 다만 남조선 산업이 일제 독점 자본에 더욱 예속되였을 뿐이다.

결과에 괴뢰 정부의 외화 사정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였다.

이 해 말 현재 남조선의 외화 보유액은 1억 2천만 딸라로서 1961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축감하였는데 당장 지불해야 할 대외 부채를 공제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자원은 밑창이 난 형편이였다.

수입에 있어서 미국 《원조》와 외국 자본에 의한 것이 1억 3,480만 딸라로서 그 비중은 전체 수입 실적의 43%이다.

이것은 남조선이 외국 독점체들, 특히 《원조》를 통한 미제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되여 있음을 보여 준다.

남조선 무역의 예속적 구조는 무역 대상국의 지리적 분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 국가별 무역 실적
1964년 1—10월 (단위 천 딸라)

수출 국명	수출 실적	수출 %	수입 국명	수입 실적	수입 %
미국	29 207	31.5	미국	153 225	49.1
일본	28 800	30.4	일본	84 074	26.9
홍콩	8 363	9.0	서독	21 420	6.9
영국	5 687	6.0	필리핀	7 375	2.2
남부 윁남	5 339	5.7	오스트랄리아	6 411	1.9
타이	2 122	2.3	홍콩	4 671	1.4
대만	1 087	1.2	이딸리아	3 976	1.2
서독	988	1.0	영국	2 802	0.9
기타	12 107	12.9	기타	28 422	9.5
계	92 699	100	계	312 396	100

자료 출처 :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2월.

남조선의 수출입 대상 국가는 주로 미국과 미국 자본의 영향하에 있는 일본, 서독, 홍콩, 이딸리아 등 일정한 지역에 의연히 국한되여 있다. 그 중에서도 수출과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특히 일본의 진출이 현저한데 수출에 있어서 미국과 1, 2 위를 다투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원조》 수입을 제외한 민간 무역 부문에서 역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남조선 무역에서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진출은 미제가 일제를 극동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며 자국 독점 자본과 결탁되여 있는 일본 독점체들을 살지우게 할 목적으로 남조선으로 하여금 일부 상품의 대일 수출을 증대시켜 주는 대신에 일본 상품에 판로를 열어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 주요하게 기인한다.

남조선의 수출입 상품 구성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예속성은 이 해에도 계속 심화되였다.

1963년도 수출에서 식료품이 20.9%, 원료가 53.7%, 완제품이 17.9%, 기타 7.5%로서 원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입에서는 식료품이 21.4%, 완제품(소비품)과 원료 및 반제품이 68.4%, 유류 및 석탄이 6.9%, 로동 수단이 3.3%로서 주로 공업 제품들인 완제품과 반제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1964년에 괴뢰 정부는 《수출 제 1 주의》를 떠벌리면서 면직물과 베니야 합판 등 가공 제품의 수출을 증가시켜 보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그에 소요되는 원료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무역의 예속적 성격에는 하등의 변함도 없다.

수입의 증가로 수출을 늘인다는 식의 《수출 제 1 주의》가 결국 남조선 공업 원료면에서의 대외 의존성을 높이고 경제의 예속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외국 독점 자본의 침투를 조장하여 민족 경제의 파탄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을 1964년도 남조선의 무역 동태는 명백히 보여 주었다.

무역 행정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밀무역이 또한 계속 성행하였다.

괴뢰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섬 연해에는 밀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78척의 선박과 98 대의 운반 차량이 있으며 86명의 밀수 알선자와 445명의 상습적인 밀수품 매점자들이 있었다 (남조선 《동화 통신》 1965년 3월 18일).

특히 이 해에 일본 무역업자들의 공공연한 밀수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 무역 질서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일례로 《부산 세관》 관내인 경상 남북도 해상에서만도 1964년 1—7월 간에 도합 4,459만 원어치의 밀수품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이 지방에서 1963년 1년 동안에 《적발》된 밀수품의 2.5 배나 되는 것이며 그 대부분은 일본에서 건너 오는 약품류와 화장품들이였다 (남조선 《동아 일보》 1964년 8월 15일).

남조선 《동아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쯔시마도 당국자들은 도내 미즈하라시에 《쯔시마도 발전 번영회》라는 밀수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공공연히 《밀수를 촉진》시켜 남조선 경제를 교란하였다.

군 사

1964년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강점군의 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고용 병력 및 장비의 확대 강화에 날뛰였다. 미제는 현대전에 적응하게 괴뢰군의 전투 진지 및 작전 계획을 개선하고 신무기를 넘겨 주었으며 《공산 침략》을 떠벌리면서 새 전쟁 도발 소동을 끊임 없이 벌리는 한편 긴장 상태를 격화시켰다.

또한 미제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 정희 도당과 일제를 추동하여 《한일 회담》 속결에 내모는 한편 남부 웰남에서의 거듭되는 패전과 관련하여 남부 웰남 전선에 괴뢰군을 투입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리하여 이 해 9월 《의료단》과 《태권도 교관》이란 명목으로 괴뢰 병력이 남부 웰남 전선에 투입되였으며 계속 투입할 태세를 강화하였다.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병력 및 장비 증강

【병력 증강】 1964년 1월 29일 남조선에 기여 들었던 미 국무장관 러스크는 《극동 전략선》의 《최전방 보루》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 군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떠벌리면서 《극동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여 한국 방어에 충분하고도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에 앞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미국 자체의 리익을 위하여 한국을 유지하고 있는 실전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벌렸다. 이러한 군사적 방침에 따라 1964년에 미제는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을 《현대화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대륙 침략의 중요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강점군을 부단히 보강하였으며 미 보병 사단의 편제를 《5 원제》로부터 《3. 3제》로 개편하는 사업을 끝내는 한편 괴뢰군을 더욱 증강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현재의 방대한 상비군을 계속 유지 강화하며 새 전쟁 도발 정책의 요구에 상응하게 병력 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4년도 징집 대상자를 26만 명으로 설정하고 그중 22만 명(륙군 20만 명, 해군과 공군 2만 명)을 강제 징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징집 대상자들 중 허약자, 불구자, 징집 기피자 등의 급격한 증대로 년간 소요 인원을 징집할 수 없게 된 괴뢰 도당은 광범한 사회적 여론마저 무시하고 《33세까지의 병역 미필자들을 징모》하였다.

괴뢰 도당은 6만 여 명의 괴뢰군 도망병들을 긁어 모아 현유 병력을 유지할 것을 타산하고 《1963년 11월 30일 이전에 군무를 리탈한 일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사면령》까지 발표 (1964년 1월 9일)하였으며 2 차에 걸쳐 《도망병 자수 기간》을 설정하는 등 갖은 회유 기만의 방법을 다 썼다.

또한 괴뢰 도당은 전국에 수사망을 펴 놓고 도망병과 병역 기피자들 5,460 여 명을 체포하여 괴뢰군에 강제 입대시켰다 (남조선 《합동 통신》 1964년 9월 9일).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괴뢰군 《지원 하사관》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전역 대명 이하는 3년 더 복무》시키는 동시에 기타 전반적인 사병들의 복무 년한 단축을 취소하였다.

심지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이 해에 《소년 지원병》까지 징집하는 등 괴뢰군 유생 력량 증강에 광분하였다.

《직업 군인》 확보를 위하여 괴뢰 제 1 군 사령부 직속으로 하사관 학교를 신설하고 단기 교육을 주어 그들을 초급 지휘 성원으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괴뢰군 보병 사단 내의 중대 편제 성원을 100%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초급 장교의 확보와 그의 예비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 2 기 《학도 군사 훈련》을 마친 2,600 여 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각 지구별 《소위 임관식》을 진행하였다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2월 6일).

장교 대렬을 정비 보강하였는

바 령관급 및 위관급 장교들 중 40세 이상의 《무능자》들을 예비역에 편입시키고 그 대신 《학도군사 훈련단》 출신 장교들을 선발하여 장기 복무케 하였다(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2월 28일).

미제와 괴뢰 도당은 예비 무력 동원 체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하여 《전시》 예비 무력 동원을 18세부터 45세까지로 (종전에는 18세부터 41세까지임) 연장하는 일방 《예비 군인 동원 훈련》 체계를 세웠으며 매개 도에 《전시 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남조선 《대전 방송》 1964년 3월 26일).

미제와 괴뢰 도당은 야전 전투 정황 조건 하에서 환자들의 치료 능력을 증대시킬 대책으로 일부 의무 부대들을 해체하고 이동 외과 병원들을 증설하였다.

또한 《현대전에 맞게》 종전의 병과(사병의 경우는 병종)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전투, 전차, 전기, 수리, 기공, 차륜, 행정, 보건, 축도, 기술 등 10 개의 병과로 늘이였으며 장교들과 사병들이 최초에 받은 주특기를 변경함이 없이 한 분야를 전문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조선 《조선 일보》 1964년 8월 7일).

【장비의 《현대화》】 미제는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원자 유도 무기와 신형 장비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비행기들을 계속 반입하였으며 남조선 강점 미군에 《엠 14 보총과 엠 16 기관총을 공급》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1월 27일)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전투력 증강을 위해 괴뢰군의 《현대화》를 추진시켰다.

괴뢰군의 《현대화》는 미군이 사용하던 무장을 넘겨 주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였는바 미제는 괴뢰군에 각종 포들과 중전차와 반전차 유도탄을 비롯하여 새로운 통신 기재, 화학 기재, 기타 2,400 대의 신형 차량들과 전투 기술 기재들을 대량적으로 넘겨주었으며 원자 유도 무기까지 괴뢰군에 이관하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침략 전쟁에 혈안이 되고 있는 미제는 남조선에 살인용 《독가스탄》을 도입하였다.

또한 미제는 괴뢰 해군에 《경비정 한척을 인계》 (남조선 《동화 통신》 1964년 8월 2일)하였으며 대 잠수함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축함 2척을 《하와이로 보내여 어뢰 발사 장치와 최신 대 잠수함 장비를 갖추도록 조치》 (남조선 《합동 통신》 1964년 4월 20일)를 취하였고 괴뢰 공군의 장비 강화를 위하여서는 《에프 5 에이 제트 전투기 공급 계획》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프 86 제트 전투기를 1965년까지에 《사이드 와인더 미싸일을 장비한 에프 5 에이 초음속 경 전투기로 교체》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3월 25일)하려고 서두르는 한편 《호크 나이크》 대공 유도탄을 장비한 최초의 《대공 포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기지화】 1964년도 미제와 괴뢰 도당의 군사 기지화 책동은 이른바 《국토 방위 체계의 강화 계획》에 근거하여 현대전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도록 후방 보급 기지들을 정비하며 군용 도로망을 신설, 확장, 보수하는 한편 《신 작전 계획》에 따라 선술적인 전방 진지들을 축성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였다.

미제는 1964년 태평양 지역 미군 군사 건설비의 근 50%를 남조선에 투입하여 유도 무기 기지 건설 공사를 적극 추진시켰다.

괴뢰 도당은 부산 지구에 있는 《군수 기지 사령부》 산하의 12개 부대를 철수시켜 전시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해당 지역들에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3월 27일). 괴뢰 제 1 군에서는 전투 부대의 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소양강 제 2 교 건설을 포함하여 소양강에서 춘천 댐에 이르는 도로 포장 공사, 대화면 하대화교 건설과 원주시 내의 도로 포장 공사, 홍천강의 제방 공사와 춘천과 서울 간의 도로 포장 공사 등을 착수하고 연 11만 8천 여 명의 병력과 로동자 14만 3천 여 명을 동원하여 추진시켰다 (남조선 《춘천 방송》 1964년 8월 30일).

한편 괴뢰 2군에서는 29만 딸라의 자금을 투입하여 1965년까지에 준공할 목표 밑에 태백산을 횡단하여 동해안에 이르는 원성과 양양, 서울과 강릉 간 대규모 군용 도로 포장 공사의 착수를 서둘렀다 (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9월 11일).

이 밖에 500 여 만 딸라를 들여 괴뢰 공군 모 기지에 남조선 《제일의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남조선 《동화 통신》 1964년 9월 11일).

또한 괴뢰 도당은 전방에서 중대장, 련대장 이상 지휘 감시소들을 비롯하여 각종 저격 무기 화점들을 신설 보수하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긴장 상태의 격화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의 강화

미제는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과 호전 장군들을 련이여 파견하여 괴뢰군에 대한 통제와 전쟁 준비를 강화하면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켰다.

상전의 요구와 방침에 따라 괴뢰 도당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오직 무력 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전쟁 소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군사력의 증강에 기초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은 괴뢰군의 전술적 능력을 《측정》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군사적 《위력》으로 위압하며 동시에 살엄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광란적인 군사 연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적들은 《유도탄 발사 훈련》, 《원자 가상 하의 기동 훈련》, 《상륙 작전 훈련》, 《공수 훈련》, 《수색 훈련》, 《기습 훈련》, 《대합 사격 훈련》, 《대공 사격 훈련》 등을 련거퍼 진행하였다.

1964년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적들의 대규모적인 군사 연습들만 해도 근 20 건에 달하는데 이 모든 전쟁 훈련은 례외 없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들이였다.

그 중에서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에 걸쳐 남한강 중류 일대에서 괴뢰군 제 1 야전 부대가 감행한 핵 전쟁 가상하의 《추계 대자유 기동 훈련》과 괴뢰 해군 및 해병대가 김포 근해에서 벌린 《풍년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기습 상륙 작전》, 11월 27일에 각종 헤리콥터, 제트기, 수송기와 경비행기 다수를 동원하여 감행한 《한미 합동 공수 작전》 등은 그의 대표적 실례이다.

이 외에도 전시 조건 하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기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소 훈련들과 함께 소위 《후방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 훈련》 (남조선 《제주 방송》 1964년 9월 2일)들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러한 군사 훈련에 참가하여 괴뢰 도당은 인민들을 강제로 내몰아 《방첩 훈련》, 《반공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남조선 《충주 방송》 1964년 8월 24일).

미제는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할 목적으로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는 한편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에 《비상 사태》와 《금족령》을 선포하여 전연을 긴장시켜 왔으며 괴뢰군 내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 훈련》을 진행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전쟁 소동에 발광하면서 한편으로 미제와 괴뢰 도당은 전연에서 각종 악랄한 도발 책동도 감행하였다.

적들은 수 많은 간첩들을 우리 지역에 들여보내 군사 기밀을 탐지하며,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빈번히 아군 지역의 상공과 해안을 침범하였으며 전연 일대에서 일련의 도발 행위를 일삼아 왔다.

1964년 한 해 동안에 17 건의 공중 침범 사건, 164 건의 해상 침범 사건을 비롯하여 1만 8,064 건의 지상 위반 사건 등은 합해 1963년의 무려 2.8 배나 되는 1만 8,245 건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군 장병들의 동향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와 반미 반정부 투쟁의 앙양, 미제와 괴뢰 도당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 책동의 강화와 괴뢰군 내부 생활의 악화,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 강화와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주류로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은 괴뢰군 장병들의 사상 심리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다.

괴뢰군 내부 생활이 악화되고 있는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수 사병들 속에서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전쟁 정책에 대한 배격 기세와 군사 복무에 대한 염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상 심리 상태는 제대—귀향심이 날을 따라 더욱 짙어가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극심한 기합과 고된 군무 생활에서 골병이 들고,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괴뢰군 사병들은 모여 앉으면 제대에 대한 궁리, 자유로운 가정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빌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괴뢰군 복무에서 벗어날 길만을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염군 사상은 사병들이 군무 생활을 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군대의 일이란 끝이 없으니 이럭저럭 시간이나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흔히 《내가 무슨 충신이냐》고 말하고 있다.

괴뢰군 사병들 중에는 근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수행한 것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근무에 동원된 자들이 막걸리(술)를 마시고 잠을 자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일은 신병들에게만 차례짐으로 괴뢰군 내에서 2 등병, 1 등병의 생활이란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신병들은 상급의 눈을 피해 가면서 행동하고 있으며 요령주의, 적당주의, 형식주의가 그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리 하여 괴뢰군 내부 생활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되고 각종 사고와 비상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느 사단에서는 단 1 개월 동안에 무려 3,285 건의 각종 사고와 비상 사고가 일어났다.

군사 복무를 기피하여 탈영, 도주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괴뢰군 내에서 도망병 수는 2만 여 명에 달하고 있다.

1964년 1—8월 기간에 괴뢰 2군에서는 2,989 명의 사병이 도망하였는데 이것은 1963년 한 해 동안에 있은 도망병 수보다 1,274 명이나 더 많은 것이다. 괴뢰 1군에서도 같은 8개월 동안에 5,920 여 명(매일 평균 24명)의 도망자들이 있었다.

괴뢰 국방부 장관 김 성은은 《도망병이 과거보다 150% 이상 증가되였다》고 비명을 올리면서 《도망병에 대해서는 군사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느니 《강제 로동에 보내며…공직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폭설을 늘어 놓았다. 괴뢰 국방부에서는 2월 한달 동안을 《도망병 자수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회유 방법을 써보다가 9월 1일부터는 남조선 전 지역에 수사망을 포치하고 도망병 체포에 날뛰여 8일까지에만도 5,460 명을 잡았다.

도망병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징집 기피도 늘어가고 있다.

1964년도 《징병 검사 대상자들 중 약 44%가 그의 응시를 반대 배격하여 기피》하였다 (남조선 《서울 기독교 방송》 1964년 4월 22일).

괴뢰군 내에서 상부에 대한 반항, 《하극상》 사건도 증대되였다. 4. 19 직후에는 주로 괴뢰군 중, 하층 장교들 속에서 리승만 괴뢰 《정권》의 비호 밑에 부정 부패를 일삼은 장성급들을 군대 내에서 추방하려는 형태의 상부에 대한 반항이 있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하급이 상급을 직접 쏘아 죽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하극상》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1964년 1—8월 기간에 괴뢰 2군 산하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도 16건이나 있었다.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는 또한 반미 반정부 감정과 투쟁 기세가 높아 가고 있다.

그들 속에서는 미국 놈을 증오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론의하고 있으며 미 고문 놈들의 간섭을 아니꼽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반대하여 나서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반미 의식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미 반정부 투쟁이 직접, 간접으로 그들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있는바 특히 미군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괴뢰군 (카츄샤)들 속에서는 군무 생활 과정에서 미군 병사들로부터 받는 멸시,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민족적 격분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울분은 드디여 폭발하여 9월 14일 미 제 60 수송 중대 소속 카츄샤 60 여 명은 영문을 뛰쳐 나와 차별 대우 반대 시위를 단행하였다.

사병들 속에서는 반미 감정과 함께 반정부 투쟁 기세도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괴뢰 《정권》을 비웃으면서 《오래 갈 수 없》는 박 정권 《이 이상 더 바라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병들은 《군 처우 개선》에 대한 괴뢰 도당의 《공약》을 더는 믿지 않으며 《내핍 생활》과 강제 동원 작업 등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 그들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고 불평 불만을 부리고 있다.

다수 사병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고 있다.

남조선의 암담한 생활 현실과 치욕스러운 괴뢰군 살이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그들은 북반부에서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과 그 거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의거 입북을 기도하고 있다.

1964년에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 수 백명의 월북 기도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수 많은 사병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 입북하였다.

괴뢰군 사병들의 사상 심리 상태의 변화에 당황망조한 박 정희 도당은 《반공》 깜빠니야의 전개, 군사 파쑈 폭압의 강화, 정보 수사망의 총동원 등 온갖 수단과 악랄한 방법을 다하여 사병들의 일거 일동과 사상 동향을 내탐하기에 광분하였다.

남조선 정치 정세의 불안정성은 괴뢰군 장교들 속에서 부정 행위를 한층 더 증대시켰다.

괴뢰군 장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의 처지를 생각하고 직위를 악용하여 생활 밑천을 마련해 보려는 경향이 날로 심해가고 있다.

괴뢰 1군단 감찰 장교 김 종원이 부하 성원들과 결탁하고 289 만 원의 군수 물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전방에서는 《진지에 배치한 중장비까지 고철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제와 괴뢰 도당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남조선 《전남 일보》 1964 년 1월 24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제와 괴뢰 도당은 11월 12일 괴뢰 국방부에서 《한미 합동 회의》를 열고 1964년 3월 이후 8개월 간의 군수 물자 손실 정형을 총화하고 《한 미 합동 순찰대를 증가시키며 군수 물자를 절취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괴뢰군 장병들의 이러한 동향 상의 변화는 괴뢰 도당의 군사적 위기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사 회

【로 동】 남조선에서 로동은 사회적 복리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구차한 목숨을 이어 가기 위한 처참한 모대김이다. 괴뢰 정부는 명색 《근로 기준법》이란 것을 조작했지만 그것마저 저임금 정책과 경영 합리화, 내핍을 강요하는 《국민 운동》 등에 의해 철저히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던져지고 있다. 로동자들의 파업, 로조 조직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 말살되고 있다.

임금 하나만 보더라도 로동자 한 세대 월 최저 생계비 1만 1,350 원 (1963년 현재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부가 작성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수지》표에 의한 것)에 대해 월 평균 수입은 2～3 천 원에서 맴돌고 있다. 그래서 죽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출혈 로동인 것이다. 이나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계속되는 《체불》에 걸리고 보면 보리죽조차 넘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떼울 것만이 두려워서 주린 창자를 달래 가면서 품을 팔기고 있다.

괴뢰 당국이 발표한 것만 해도 1962년 9월—1963년 8월까지의 1년 간 《체불 로임》은 5,922만 7,400 여 원이였으나 1964년에는 《재정 안정 계획》을 강행한 결과로 1—11월 기간에 3억 2,000 만 원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3년 간을 《체불》해 온 기업체도 있다 (남조선 《산업 경제 신문》 1964 년 12월 9일, 《서울 방송》 1964 년 11월 8일).

로동 임금: 남조선에서 발간되

는 《조선 일보》가 어용 산업별 로동 조합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발표한 《근로자 임금 백서》에서 본 로동 임금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광 산: 땅속, 좁고 어둑 침침한 마강에서 하루 10~12 시간의 중로동을 하고 있는 광부들의 명목상 월 평균 로임은 모든 《수당》까지 합쳐서 3,500~6,000원, 갱외 로동자는 2,000~4,500원이 고작이다. 그러나 갱내 로동이라 할지라도 일공 로동자들인 경우에는 30~80 원으로 하루 품을 팔고 있으며 이 100 원 미만의 삯을 받고 두더쥐 품을 파는 로동자의 수는 광산 로동자 총수의 반을 훨씬 넘는다. 또한 상용 로동자의 경우라도 광산치고 한 달 꼬박이 가동하는 것이 없고 보니 3,500~6,000 원 수입이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할 것이고 결국 전체 로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이 2,000 원에 귀달리기가 쉽지 않다.

섬 유: 한 몫을 한다는 녀직공의 하루 평균 임금이 67 원, 전체로 3만 명으로 보아지는 녀직공 가운데서 85%를 차지하는 견습공 또는 양성공은 29~40 원 평균, 이 쥐꼬리만한 벌이를 위해서 87 도의 한증가마 같은 작업장에서 12 시간을 비지땀과 싸워야 한다. 그나마 기업 가동률이 한 달 치고 20일 내외가 보통이라니까 실상 벌이는 월 평균 580~1,840 원 정도이다.

금 속: 월 평균 명색 로임은 2,700~4,100 원, 용해공이 최고 7,000 원을 넘지 못한다. 금속 부문 역시 제대로 가동하는 기업체가 없으니 한 달에 3,000 원을 만져보기 힘들다. 로동 안전 시설이라든가 보호 설비가 없기는 어느 부문이나 같고 《관영 기업》인 《인천 중공업》 용해공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루 한 초롱의 물을 마시고 한두 주먹의 날소금을 먹어야만 고열로 말미암아 몸에서 빠져 나간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고 간신이 그날 일을 버티게 된다.

해 상: 선원이라야 한 달 평균 로임액이 3,700~4,800 원, 고작 대우한다는 고급 선원이 7,000 원 꼴이다. 어선 로동자는 선원 평균액의 절반도 못 되는 1,800 원으로 하루 60 원 밖에 안된다. 칠성판에서 잠자고 사자'밥을 먹는 이들의 중로동이 《아리랑》 담배 한곽 값을 딸아가자면 아직도 20 원이 모자란다.

화 학: 숙련공이라야 한 달 로임액이 2,000 원부터 4,800 원이다. 섬유 부문 다음으로 녀성 로동자를 많이 쓰는 이 부문의 녀성 로동자 로임은 하루에 35~50 원 꼴로 한 달 만가동을 해야 1,000—1,500 원 수입 밖에 안된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 로력의 50~80%의 로임이 차례지는 것이다.

외국 기관: 외국(주로 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이 부문 로동자들의 로임은 괴뢰 정부 관리 기업체의 《보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35%나 적고 힘겨운 중로동 분야에서 고작 월 4,000 원에 귀가 붙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인종적, 민족적 멸시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대우조차 없는 이 부문 로동자들에게는 로임마저도 유달리 싸게 마련이다.

전 력: 남조선에서 가장 높은 로임은 받는 이 부문 로동자들의 월 평균액은 3,600~5,100 원, 전차 운전수가 4,000 원 대이고, 일선 수리 전공이 하루 175 원으로 최고이다.

운 수: 운전수가 월 6,000 원 정도이고 차장(뻐스)이 1,000~1,500 원이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8 시간의 로동의 대'가로서는 악착스런 값이다. 눈'곱만치도 안 되는 로임을 주고도 기업주들은 《료금 착령 방지》라는 명목을 빙자해서 17~18 세로부터 20 대의 순결한 처녀들의 옷을 벗기고 뻔뻔스럽게 몸수색까지 감행하고 있다.

인권이란 도대체 안중에 없는 것도 이 부문에서 더욱 혹심하다.

부 두: 입하량, 항구별, 월별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것이 부두 로동자들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뜨내기 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동 시간에는 제한이 없이, 부리는 물건에 따라 24 시간 철야 작업이 2~3일 계속되기도 한다. 전라북도 군산 부두 로동자들의 경우에서 볼 때 아래 표와 같다.

군산 부두 로동자들의 수입 동태

월별	가동 인원 (명)	수입액 (원)	가동 일수 (일)	1 인당 수입액 (원)
1964—				
1	1 152	1 965 414	11	1 654
2	1 237	2 926 289	19	2 573
3	1 155	1 457 882	14	1 262
4	1 146	2 892 569	26	2 471
5	1 089	2 904 503	26	2 667
6	1 089	2 147 409	24	1 972
7	1 064	2 650 108	25	2 492
8	1 036	3 094 878	24	2 987
9	1 029	1 676 948	20	2 442

자료 출처: 남조선 《전북 일보》 1964년 10월 20일.

부문별 로동 시간

	로동 시간
광 업	10~12
부두 및 운수	12~18
뻐스 차장	16~18
체 신	12
방 직	12
일용품 공업	12~16
미군 부대	12~16
상 업	16
품팔이	11

부문별 월 평균 로임

(단위 원)

	월 평균 로임	%
월 최저 생활비	13 230	100
광 산	3 500	26.5
금 속	2 700~3 000	20.4~22.7
해운 (선원)	3 500	26.5
식료품 및 일용품	2 000	15.1
방직 (견습공, 양성공)	1 000	7.6
뻐스 차장	1 000~1 500	7.6~11.4

로동 질환: 외전한 노예 로동이 재현되고 있는 남조선에서 로동 보호란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직업 병의 만연이 극심하다.

의학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뻐스 차장의 95.7%가 인후 장애, 모래를 원료로 하는 사업 로동자 중 매년 평균 19%가 규폐에 걸린다.

경상북도 내 258개 기업체 2만 1,440 명을 대상으로 한 1963년 근로자 질병 상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질병 종수만도 45 종이나 된다. 그중 폐결핵을 으뜸으로 하는 결핵 질환이 환자 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의 년령별 구성은 31—50세의 장정층이 48%로 되고 있다 (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2월 22일).

【농민 생활】 1964년 1월의 농업 관계 《한미 회담》에서 괴뢰 정부 농림부 장관이 밝힌 남조선 농업 실태에 의하면 농가의 평균 년간 소득은 416 딸라 (5만 4, 080원, 농민 인구 1인 평균 8,584원)이다.

277만 호를 헤아리는 농호 중 48%가 5반보 미만의 경작자로서 이들의 년간 농업 소득은 최고 반보당 1.66 석의 5배인 8.3 석을 넘지 못 함으로 농가 평균 인구 6.3명의 최저한 식량밖에 안된다. 120만 호를 바라보는 5반보 미만 경작 농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순소작 또는 소작겸 자작농이다. 그러므로 순 소작일 경우에는 경영비를 공제한 소출 잔량을 4:6 또는 5:5의 비률로 가르고 나면 실질 소득은 최고 3.5석(1964년 쌀 1등품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여 9,803 원 50전)이 차례진다. 그러나 이 잔액은 장리쌀값, 고리채, 각종 회수금, 각종 세금과 가렴 주구를 갚을만한 액수에도 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타작이자 곧 절량과 부채라는 그칠줄 모르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고 만다.

남조선 농가 중에서 단순 재생산도 못 하는 농가는 비단 이들 5반보 미만 경작 농가에 그치고 있지 않다. 괴뢰 정부의 어용 기구인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가 1962년 현재로 297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농업 경영 실태 조사 결과는 45.3%에 해당하는 135호가 소득으로써 가계를 충당하지 못 하는 농가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결국 자작 소작을 물론하고 1 정보까지의 경작 농가는 상시적인 절량과 부채,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2 정보 이상의 경작 농가들도 절반 이상이 실질상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 실태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무거운 압력과 미제와 괴뢰 정부의 수탈 및 저미'가, 협상 가격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농가 평균 적자액은 1963년의 1만 1,068 원 (남조선 《합동 통신》 1964년 6월 20일)에서 1964년에는 그 2.7배인 2만 9,482 원 (남조선 《국제 신보》 1964년 1월 14일)으로 불었다. 적자 경영의 악순환은 농가 부채를 격증시키고 있다. 1963년 말 현재 농가 채무는 1960년의 184억원에서 143%로 증대된 263억원으로, 농가 매호 평균 1만 1,300원에 달하였다. 더우기 보리'고개에 접어들 때면 농민의 60%까지가 완전히 고리채에 얽매인다.

농가 부채의 증대

	부채총액 (억원)	호당 부채액 (원)	증가 비률
1953	9.0	463	100
1960	184.4	82 69	20.5배
1 62	—	112 94	27.9배
1963	262.3	113 00	28.0배

1964년에 도매 물가는 34.7%나 상승하였다. 그중에서도 괴뢰 정부는 곡물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비료 값을 평균 90%, 최고 108%를 인상하여 25억 9,300 만 원을 농가들로부터 더 짜냈다.

더우기 이해에 괴뢰 정부는 농민들을 더욱 략탈하기 위해 《농지세》를 《금납제》로부터 《물납제》로 고쳐 농민들로부터 2억 5,600여 만 원의 부대적 수탈을 감행한 외에 추곡에서만도 《일반 매상》, 《농지세》, 《량곡과 비료 교환곡》 등을 통해 생산비보다 25%가 낮은 가격으로 190만 석, 《미곡 담보 융자》로 100만 석을 현물로 수탈하였다.

이와 아울러 괴뢰 정부는 《통화 안정》이란 명목으로 4.4 분기 중에만도 《농사 자금》 40억 5천만 원, 《비료 외상'대》 48억 7천만 원, 도합 89억 2천 여 만원을 강제 회수하기에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어용 《농업 조합》은 1964년에 전년보다 약 4천 건이 더 많은 3만 8,344건의 강제 차압을 감행하였다. 이 강제 차압 건수는 남조선 농촌의 자연 부락 3만개에 비추어 볼 때 매 부락에서 1호 이상이 괴뢰 정부에 의해서 완전 수탈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이 해에 봉건적 착취를 일층 강화하였다.

1963년 추수 직후부터 《립매 선매》, 《모판 선매》, 《립도 선매》 등 봉건적인 로동력의 《선매》가 성행되였다. 시가의 3분의 1도 못 받는 이러한 《선매》는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 부안군을 비롯해서 전라남도의 라주군, 광산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려천군, 경상남도 사천군 일대 등 광범한 지역에 미쳤다. 뿐만 아니라 현물 고리대의 전형적 형태인 년리 50%의 《장리쌀》, 《색거리》와 《보관증》이라는 년리 56%의 높은 고리대 착취가 성행하였다. 이런 고리대는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남조선 농촌 일대에 걸쳐 상당한 수가 널려져 있으며 전라북도 부안, 김제, 정읍 등지에서는 년리 200%에 달하는 《장리쌀》에 얽매인 농민들이 허다하다 (남조선 《전주 방송》 1964년 8월 1일). 고리대로 쌀만으로도 1만~2만 가마니를 꾸어 주고 있는 대지주가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 《전북 일보》 1964년 7월 23일).

더우기 1964년에는 《통고지》, 《반고지》, 《날고지》, 《먹을고지》, 《가다리》 등 각종 형태의 로동력 《선매》 (고지)가 전보다 더욱 확대되여 절량 농민의 과반수가 이에 얽매여 모대기였다. 이러한 《고지》는 년리가 300%에까지 달하며 일제 때보다도 한층 가혹하다 (남조선 《조선 일보》 1964년 1월 15일). 《고지》로 일하는 농민들의 하루 로동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로동의 대'가는 겨우 80원에서 최고 100원에 불과한 데 특히 녀자는 50원 내외이다.

남조선에서 절량 농가의 발생은 년례 행사 처럼 되풀이되여 왔지만 1964년의 보리'고개는 례년보다 앞질러 왔고 그 기간이 길었다.

절량 농가 수는 140만호에 달했으며 수다한 리농민을 내였다.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3년 한해 동안에 1만 858호가 리농하였으며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1월 14일) 전라남도에서는 1 만 3,734 호의 농가가 줄었고 (남조선 《전남 일보》 1964년 2월 9일),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는 224호에 1,344명이 리농했다 (남조선 《대한 일보》 1964년 4월 1일). 서울에 몰려드는 리농민만도 해마다 30만 명을 넘고 있는데 1964년 1년 간의 그 수효는 31만 2,910 명이였다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2월 6일).

【어민 생활】 남조선 어업 인구는 1963년 현재 126만 4천 여 명, 이들의 년간 평균 소득은 29딸라 (3,770원)이다 (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4월 9일). 1 세대 평균 6명으로 계산하여 매 세대 년간 평균 수입은 174 딸라 (2만 2,62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나마도 최고 수준에 의한 계산인 것으로서 1964년 3월 23일의 《경향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민 1 세대 년간 평균 수입은 7천 원 (87 딸라)이다.

이 년간 소득은 자녀 교육비는 고사하고 집세, 등화비까지도 무시한 그야말로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지출의 45.6% 내지 1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민들은 《4천년 래의 민생고》에 허덕이는 남조선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그의 절반 또는 7분의 1의 생애를 사는 가장 참담한 존재이다.

어민 소득과 생계비
(단위 원)

	(a)	(b)
년간 소득	22 620	7 000
년간 생계비	49 581	
쌀값	42 924	
간장 (2말)	794	
된장 (10관)	660	
련탄 (2 톤)	1 363	
피복비	3 840	
생계비대 소득 (%)	45.6	14.1

주: 쌀, 간장, 된장, 련탄 값은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부가 산출한 1963년 평균 도매 물가에 의함. 쌀 소비량은 괴뢰 정부 《량곡 수급 계획》의 농민 1 인당 공급 기준량에 의거함. 피복비는 서울 로무자의 피복비 중 순의복비만을 계산함.

남조선 어민중 95.5%까지가 령세 어민인데 이들의 1963년간 생산량은 총 어획고의 40%에 불과한 17만 9천 톤 (1인 하루 평균 400 그람)이였다. 령세 어민들의 대부분은 선주에게 신분적인 종속까지 강요되고 있는 《분익제》 아래서 순전한 육체 로동을 제공하거나 하루 삯이 품팔이를 하고 있다. 《분익제》는 선주가 《경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생산량을 선주 6: 어민 4 또는 5:5로 분배하는 것인바 결국 령세 어민들은 생산량의 30%~40% 즉 1인 하루 평균 120~160 그람 밖에는 차례지지 않는다. 품팔이 로동자일 경우에는 월 수입이 600원으로부터 고작해야 1,800원 정도이며 그나마도 년간 취업 기간은 6~9 개월이다.

박 정희 도당은 어민들을 강제로 《어업 조합》에 몰아 넣고 《가입료》를 뜯어 내고 있으며 《위탁판매》를 강요하여 생산물을 시장가격보다 20%나 낮은 가격으로 수탈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 어업 조합》에서는 조합원 한 사람 앞에 《가입금》 1만 원, 밀린 세금 청산비로 400원씩을 략탈하였으며 (남조선 《산업 신문》 1964년 7월 28일), 경북 《어업 조합》에서는 부채 청산비로 어민들이 《위탁구》에서 판 어물 값에서 1천만 원을 짜냈다 (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12월 20일). 괴뢰 정부는 말라 붙은 외화의 획득책으로 《무역 상사》, 《오징어 수출 조합》 등을 동원하여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제멋대로 조작한 헐값》으로 강탈하고 있는바 강원도 울진군 죽변리 어민들이 오징어 성어기의 5개월 간에 략탈 당한 액수만도 근 690만 원에 달했다 (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11월 10일). 괴뢰 정부는 또한 직접 영업세, 부가세, 대지세, 수산세, 가옥세, 교육세, 면허세 등 《7~8 종의 세금에다가 어업 자금, 선대 자금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으로 《태풍보다도 더 무서》웁게 어민들을 강탈하고 있다 (남조선 《조선 일보》 1964년 1월 5일). 이밖에 어민들은 고리 대금업자, 중간 상인, 객주들로부터도 3중, 4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

쥐꼬리만한 수입에 채반 같은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민들은 《살아 간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을 정도로 령락하하여 (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4월 9일) 《그야말로 속수 무책의 도가니 속에 빠져》(남조선 《전남 일보》 1964년 3월 11일) 있다.

【녀성】 1962년 말 현재 인구의 약 절반인 1,313만 명이 녀성이다.

이들에게는 미제 강점 하의 봉건체제 내에서 오로지 《복종만이 유일한 도덕》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2중 3중의 학대와 착취, 사회

저 유린만이 차례지고 있다. 로동력을 가진 녀성들 중에서 5% 미만이 직업 녀성이고 괴뢰 각 기관에 복무하는 비률은 전체 《공무원》의 2.8% 정도이다. 그러나 《감원 조치》가 있을 때마다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첫 희생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이들이다.

녀성들의 일'자리는 방직, 고무, 피혁, 제과, 교환수, 뻐스 차장, 식모살이, 접대부 등인데 그 중 방직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 시간은 남성들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서도 로임은 같은 부문 남성 로력의 50% 이하, 최저 30%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취직난으로 해서 기아 임금이나마 유일한 생명선으로 사수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다. 로동자 합숙 같은 것은, 가장 많다는 방직 부문에서 설비가 일제 경찰의 감방 이하이고 감시는 그 몇 10배이다. 모성은 일부 식모살이를 제외하고는 고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여 있으나 채용됐을 경우에도 젖 먹일 시간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 학교》 녀교원들 중 임신부의 42.9%가 과로로 해서 류산을 하고 있는 형편임으로 기타 부문 직업 녀성들의 로동 강도는 말할 것도 못 된다. 육체적 혹사 끝에 얻는 소득과 생계비의 대비는 10% 미만으로부터 최고 20% 정도이다.

생계비와 녀성 로임
(단위 원)

	로임	생계비에 대한 로임의 비률
최저 생계비	15 300	100
제과 부문	2 200	14.4
고무 부문	2 800	18.2
화학 부문	1 700	11.1
요업 부문	2 000	13.1
인쇄 부문	2 000	13.1
피혁 부문	2 000	13.1
목재 부문	3 000	19.6
섬유 부문	1 000	6.5
뻐스 차장	1 000~1 500	6.5~9.8

이 봉급으로는 도저히 6~7 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으로 낮에는 고무 공장에서 직공 노릇을 하고 밤에는 창녀로 변하는 녀성들이 1,200명이 있는 공장이면 200~300명이나 된다 (남조선 《대한 일보》 1965년 1월 12일). 추수 직후부터 절량에 신음하는 농촌 녀성들은 더는 살 수 없게 되여 취직이나 식모살이를 바라고 도시로 몰려 들고 있으며 이 수'자는 계속 늘어 가고 있다. 서울역 앞 《녀자 경찰 안내소》의 경우 1964년 2월 식모살이에 알선을 요구해 온 《무작정 상경자》의 수가 전년 같은 달의 18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작정 상경자》를 노리고 서울시에는 중구 소공동 뒤'골목에만도 13 개소의 《인신 매매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 평균 150 여 명의 녀성들이 륜락의 길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남조선 《동아 일보》 1964년 8월 28일).

1964년 현재 남조선에는 30만 명 (서울 5만 명)의 륜락 녀성이 있으며 이 해에 《단속선》에 걸린 수'자만도 3만 명을 넘었다.

륜락 녀성의 증가 리유로서 괴뢰 내무부는 첫째로 《유엔군의 주둔이라는 국내 특수 사정》을 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녀성들의 사회적 명예를 위하여서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하루 빨리 내몰아야 할 저주로운 존재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이 밖에 남조선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미망인 (군인, 경찰 미망인 4만 3,503명, 일반 미망인 46만 1,374명) 이 있다.

【어린이】 1962년 현재 14세까지의 아동 수는 남조선 인구의 약 43%에 달하는 1,115만 명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이 빚어낸 가난과 사회악에 제일 먼저 희생 당하고 있는 것은 래일의 역'군인 그들이다.

내버려지는 생명: 1964년 간에 길'거리, 다리 밑, 하수도 구멍, 이름 모를 집 처마'밑들에 내버려진 갓난이의 수는 9,826명으로 박 정희 집권 기간에 5.4 배로 불어나 혈육의 정마저 땅바닥에 떨어진 험악한 세태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36.5 배로 증가하여 괴뢰 식민지 통치의 중심이라는 악마의 소굴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 냈다. 1964년에 서울시의 출생 신고 접수 건수는 6만 9,638 명인데 이것을 이 해 년간에 발생한 내버린 젖먹이 수 1,894명과 대비하여 본다면 출생 100명 중 2~3명, 하루 평균 5~6명의 갓난 생명이 태'줄을 벗자마자 내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버려진 젖먹이의 증대
(단위 명)

	남조선 전체	서 울
1961	1 837	52
1962	2 263	1 210
1963	8 207	…
1964	9 826	1 894

자료 출처: 남조선 《동화 통신》 1963년 5월 3일, 《기독교 방송》 1964년 12월 1일, 《라지오 서울 방송》 1965년 2월 21일.

지방별 영아 유기
(1964년, 단위 명)

총계	9 826
서울	1 894
부산	1 865
경기	1 207
충북	176
충남	500
전북	356
전남	646
경북	1 743
경남	819
강원	619
제주	1

자료 출처: 남조선 《라지오 서울 방송》 1965년 2월 21일, 《동화 통신》 1965년 2월 23일.

이 밖에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 집계에 의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4~5 세의 철부지들의 수는 하루 평균 1955년의 2명으로 부터 1963년에는 23명, 1964년 1—9월 기간에는 37명 즉 18.5 배로 증가하였다.

불상한 어린것들: 8, 9, 10세까지의 취학 년령 층의 아동들은 209만 명이나 되지만 미취학 아동

수가 그의 절반이 되는 100만 명, 그 밖에 가난한 탓으로 호적에 올라 보지도 못 하고 거리에 버려지거나 거지가 되는 불우한 어린이가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영낙 없이 역 대합실이나 뒤'골목에서 밤을 새고 이곳에 마수를 뻗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끌려》 범죄의 소굴로 떨어지고 있다 (남조선 《한국일보》 1964년 12월 8일).

부모가 있다는 아동들의 처지도 많은 경우에 류랑 고아들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되기 전에 <걸식 사회>의 한 기계가 되는가 하면 도시들에서는 깡통을 앞세우고 구걸》에 나선다. 좀 나은 편이라야 구두닦기, 군밤 장사, 신문 장사, 뻐스표 팔기, 잡화상, 껌장사 등등 《하찮은 수입을 위해 고된 생활 전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 《교육 신문》 1964년 10월 14일). 이러한 《딱한 생활 전사》는 서울 거리에 1만 명, 대구시에 1만 명, 부산시에는 3,758 명, 남조선 도시의 어디를 가나 수두룩 하다.

《아동 보호 사업》의 현상: 박 정희 도당은 《아동 보호소》, 《고아원》 등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허울 좋은 소년 형무소 또는 절도 양성소나 다름이 없다. 식량 및 부식비도 수용된 아동 수효보다 외례이 적게 주고 있다(남조선 《명남 일보》 1964년 8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 《성신원》의 경우, 수용된 185 명의 고아들은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려》 오다가 6월말 경에 《문전 걸식으로 들어 가게》 되였다 (남조선 《전남일보》 1963년 6월 26일). 서울시 《시립 아동 보호소》의 경우, 위생 시설은 고사하고 《급수 시설마저 잘 되여 있지 않》으며 수용 아동 100 여 명이 눈병을 앓고 있다. 서울시 내 《천락 보육원》의 경우, 원장으로부터 하루 40원씩의 식대를 강요 당하고 있는 20 명의 원아들은 8월부터 2명씩 짝을 지여 절도 행각에 나섰다. 원아 황 순택은 그 동안 26회에 결쳐 15만 원어치의 물품을 빈 집에서 훔쳐 내여다 원장에게 바치고 먹이를 얻어 오다가 1965년 정초 괴뢰 경찰에 체포되였다.

부패한 생활 풍조의 침습: 괴뢰 당국이 4세—7세 1,300명, 8—13세 1,300명 도합 2,6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류행 가요 《노란 샤쯔 입은 사나이》를 8—13세는 100%, 4—7세는 80%까지가 알고 있었다. 이 밖에 《섬오동》, 《돈타령》,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등 해괴망측한 노래들이 천진 란만한 입술에서 동요를 앗아내고 예상사로 오르내리고 있다. 래일의 주인인 어린이를 좀먹어 가는 외국 풍조는 이들 속에서 범죄, 풍기 문란을 조장시켜 서울시 괴뢰 경찰국 집계분만도 1964년 7월 1—17일 동안에 5,981명을 《단속》하고 있으며 10대 소년으로 성행위에 의한 풍기 문란이 3,407 명이란 놀라운 수에 달하고 있다. 최근 년간의 《풍기 단속》에서 보여지는 소년들의 도덕적 부패상은 아래와 같다.

소년 풍기 단속 건수

	건 수	(%)
1962	51 739	100
1963	70 761	137
1964 (1—10)	129 670	301

자료 출처: 남조선 《국제 신보》 1964년 12월 26일.

발육의 감퇴: 서울시 괴뢰 당국이 실시한 《국민 학교》 아동 (6—11세) 신체 검사 결과는 일본 어린이보다 신장, 체중, 흉위 등 각 부문에 걸쳐 발육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드러냈다. 만 6세 때는 별 차이가 없으나 년령, 학년이 높아 갈수록 그 차이가 심하게 드러났다. 부산시 어용 교육 위원회의 같은 자료도 1—6학년 전반에 걸쳐 키의 평균치가 지난 1963년보다 1.5센치메터나 줄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원인은 첫째, 가난에서 오는 영양 부족과 《좁은 문》이 되여 있는 상급 학교 입학 시험 준비가 가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 난청 협회》가 실시한 집단 검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내 《국민학교》 아동의 15%가 《가는 귀머거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식량 부족】 괴뢰 농림부는 1963년 11월 16일에 1964 미곡 년도 《량곡 수급 계획》—수요량 3,678만 3천석, 공급량 3,137만 6천 석, 부족량 540만 7천 석—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괴뢰 정부는 1963년산 쌀 생산량을 1,915만 6천 석으로, 보리와 밀은 1964년 생산 목표량 786만 6천 석의 60%인 473만 2천석 만을 생산량으로 잡고 부족량 540만 7천 석을 미제의 《잉여 농산물》을 끌어 들여 메꿀 작정이였다. 그러나 1963년도 쌀 생산량이 25% (478만 9천석)나 지나치게 추산된 데다가 《잉여 농산물》 도입은 미제와 40만 톤(280만 석 정도)만이 《합의》된 것으로 해서 동 《계획》은 파탄되였다. 이로부터 괴뢰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당초 《계획》보다 《수요량》을 150만 1천 석이나 대폭 깎아 내린 《수정 계획》을 1964년 1월 13일에 발표하게 되였다.

수정 식량 공급 계획 (단위 천석)

	당초 계획	수정 계획	감소
수요량	36 783	35 282	1 501
공급량	31 376	31 376	—
그중 전년도 이월량	2 787	2 787	—
생산량	28 589	28 589	—
부족량	5 407	3 906	1 501

괴뢰 정부는 《수정 계획》에서 수급 부족량을 390만 6천 석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생산량 중에는 1964년 추곡 생산량에서 과대 추산한 478만 여 석이 그대로 포함되여 있음으로 사실상의 부족량은 868만 6천 석이 되며 여기에서 례년의 수요량 계산에서 제외했던 감모량 14만 4천 석 가산을 공제하더라도 855만 여 석에 달한다.

량곡 부족량

	수량 (천석)
계획상 수요량	35 282
그중 례년에 가산치 않았던 감모 공제량	144
실질 수요량	35 138
공 급 량	31 376
그중 과대하게 추산한 추곡 생산량 공제분	4 789
실질 공급량	26 587
부 족 량	8 851

《수정 계획》의 《수요량》 150만 1천 석의 삭감은 당초 《계획》에서 예견했던 농가 인구 1인당 소비 기준을 3.5 홉으로부터 3.3 홉으로 짧은 데 있다. 이는 쌀 생산량의 지나친 추계, 미《잉여 농산물》 도입 계획의 파탄 등 기만과 외세 의존 정책의 후과를 남조선 인민에게 들씌워, 결국 농민들의 배를 곯리는 것으로써 봉창하려는 괴뢰 정부의 흉계의 표현이다. 미제 강점 이후 남조선 농민들의 한 사람 앞 1일 식량 소비량은 계통적으로 줄어 들었는바 그 정형은 아래와 같다.

농민 한 사람 앞 하루 소비량의 감소

	1939	1959	1964
소비량 (홉)	4.65	3.87	3.3
%	100	83.2	71

《수정 계획》 작성에 제하여 괴뢰 정부는 《량곡의 소비 절약을 법적 조치로써 강력히 추구》한다는 도적놈의 철칙을 내세웠다. 1963년 보리의 대흉으로 말미암아 1964 미곡 년도로 넘어온 잡곡이 200만 석이나 부족된 것과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에 대한 《외환 리득세》의 첨가로 인한 밀'가루 《고시 가격》의 인상, 《잉여 농산물》의 도입 실현이 늦었던 것 등으로 해서 쌀값이 례년에 없이 올러 뛰는데다가 괴뢰 정부는 2월부터 《량곡 보유량 신고제》, 밀'가루 《배급제》 등 량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곡가 앙등에 부채질을 했다. 따라서 이 해 쌀값은 2월에 들어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한 가마니에 68%, 1월보다 20%가 오른 3,399원 (최고 4,250원)이였으며 5월에는 4,262원 (최고 5,200원)이란 유사 이래의 가격 등귀를 가져 왔다.

쌀값의 동향
(단위 한 가마니 가격, 원)

	1962	1963	1964
1 월	1 429	1 904	2 832
2 월	1 576	2 022	3 399
3 월	1 599	2 030	3 552
4 월	1 692	2 218	3 621
5 월	1 799	2 436	4 262
6 월	1 870	2 981	4 136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2호, 12호, 1964년 11호.

량곡 생산량의 감소와 유사 이래의 곡가 앙등은 이 해에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식량난에 조여들게 했다. 농촌들에서는 추수 직후부터 때아닌 보리'고개를 마져 식량이 떨어진 농가의 수효는 1964년 1월에 들어와 100만 호를 헤아리게 됐고 봄철에 나가서는 농가 호수의 절반이 넘는 140만 호에 달했으며 2월 말 현재로 당장 굶어 죽게 된 절량민 수 만도 487만 2,069 명으로 추산되였다 (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2월 5일).

2월 20일 현재 절량으로 허덕이는 농민 수는 충청남도에서 만도 10만 명이였다(남조선 《경향 신문》 1964년 2월 22일). 경상북도 월성군에서는 1월 초에 전체 농가의 40%가 이미 절량되였고 이달 말 현재로는 그 수가 54%에 해당하는 1만 4,862호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85%)로 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2월 현재 절량 농민과 요구호 대상자가 128만 9,250 여 명으로 도내 인구의 42.6%를 포괄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지난 해 년말에 30 여만 명 (남조선 《경향 신문》 1964년 3월 21일)이, 전라북도에서는 3월 초에 도 내 농가의 43% (남조선 《경향 신문》 3월 21일)가 절량에 휩쓸렸다.

학교에서도 굶고 있는 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964년의 그 수는 전년도의 108만 4천 명보다 52만 명이 증가된 160만 여 명에 달하였다. 5월 초에 경상북도 내 《국민 학교》들에서는 17만 2천 여 명의 아동들이 굶고 있었다(남조선 《령남 일보》 1964년 5월 29일). 울진군 내 7 개 《국민 학교》들에서는 3월 초에 아동의 70% 이상이 《배가 고파 결석하는 형편》 (남조선 《매일 신문》 3월 14일)이였고 부산시 내 《국민 학교》들에서 결식 아동 수는 4월 초 현재 1963년보다 40%가 더 많았다 (남조선 《국제 신보》 4월 10일). 전라남도 무안군내 《국민 학교》 들에서는 1월 현재 전체 학생의 40%, 전라북도 정읍군에서는 4월 초 현재 1만 4,500명, 충청북도 중원군에서는 5월 현재 재적자의 37%나 되는 《국민 학교》 학생들이 굶고 있었다.

[주 택] 괴뢰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주택 부족 수는 1955년에 20만 6천 호, 1960년에 103만 7천 호, 1964년에 137만 9,500 여 호 (도시 59만 3,500 여 호, 농촌 78만 6천 여 호)로 최근 10년 동안에 6.7배로 늘어나고 있다. 1964년의 집 한간 없는 이들 세대 수를 1960년의 그것에 비하면 도시에서 9만 3,500 여 호, 농촌에서 무려 28만 6천 여 호가 불은 셈인데 도시에 비한 농촌 주택 부족의 급격한 증가는 박정희 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가혹한 농촌 수탈의 후과이다.

주택 부족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여 총 세대 수에 대해 서울 46% (28만 3천 여 세대), 인천 52%, 대구 56%, 대전 50%, 광주 42%, 충주 26%, 부산 25% (5만 2,540 세대), 수원 21%이다.

지금 있는 주택 가운데는 12만 9천 호의 판자'집, 1만 호의 천막집, 4만 4천 호의 토굴이 포함되여 있으며 주택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리를 요하는 집 121만 4천 호》와 《당장 허물고 재로 지어야 할 집》 45만 5천 호 (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3월

30일)가 들어 있다.

괴뢰 식민지 통치의 심장부인 서울에는 낡은 도람통이나 썩은 널'조각으로 둘러 막은 각색 판자'집 5만 2천 호를 비롯하여 천막집, 무덤 같이 늘어선 토굴 등 《주택 이하의 주택》 11만 7천 호 (서울시 주택 총수의 4분의 1)가 있다.

괴뢰 정부는 인민들의 불만을 어루만지기 위해 1964년에 최소한 해결해야 할 주택 수의 100분의 1, 해마다 증가되는 소요 주택 수의 30분의 1에 불과한 2,120 호의 《주택 건설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마저도 《땅 값과 건축 자재의 폭등》 때문에 제대로 짓지 못 하였다. 더구나 괴뢰 당국이 건설한 《국민 주택》이나 아빠트는 23만 원으로부터 73만 원까지의 《입주금》을 내고 월 2천 원의 집세를 칠어야 함으로 월 수입 2,500원 내외에 5~6 식구의 목을 매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당치 않은 《그림의 떡》으로 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괴뢰 정권은 《무허가 건물》이니 《도시 미관상》이니 하는 구실 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판자'집 강제 철거에 날뛰고 있는 바 1964년 간에 서울시에서만도 1962년의 2 배가 넘는 1만 8,310 채를 무장 경찰, 기동대, 깡패까지 동원하여 폭력 다짐으로 헐어 치웠다.

【실 업】 남조선에서 《실업자와 반실업자 수는 도합 700만》 (《카나디언 트리뷴》 1964년 6월 15일)으로서 1963년말 현재 총 인구 수의 28%, 로동 능력이 있는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더구나 1,600만을 헤아리는 남조선 농민중 적지 않은 수가 명목이 《농민》이지 사실상 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못 한 《독특한 형태의 위장된 실업자》(남조선 《교육 평론》 1964년 10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는 700만을 훨씬 넘을 것이다. 남조선에서 실업자가 급격하게 붇고 있는 것은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력대 괴뢰 정권은 《폭발적인 인구의 자연 증가》에 구실을 찾으려 하였으며 박 정희가 집권한 후에는 적극적인 《산아 제한》으로 실업을 없앤다는 전망 밑에 《가족 계획》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박 정희 괴뢰 도당은 《선거 공약》에서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떠들어 댔으나 《민정 이양》 이후 한 해가 지난 현재 이것은 실속 없는 《공약》으로 끝났다. 《국토 개발》과 아울러 《구제》를 겸한 것으로 떠들어 댄 《울산 공업 지구 건설 계획》은 1964년 2월 이후 포기하였으며 철거민 173 세대를 비롯해 일'자리를 바라고 모여든 7천 6백 여 명의 로동자와 그 가족들을 하루 아침에 떼거지로 만들었다. 더우기 1964년에 미제는 계속되는 딸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긴축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환률》을 올려 남조선 경제에 유사 이래의 불경기를 가져 오게 했다. 이것은 남조선 민족 산업들의 조업 단축, 휴업 및 파산과 박 정희 도당의 기업 《경영의 합리화》 등을 촉진시켜 많은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냈다.

1964년초에 인천 미 군항 기지 로동자 202명이 집단적으로 해고 당한 것을 비롯해서 부평 미군 부대 로동자 106명이,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 탄광》의 집단 해고와 11월 초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에 《삼호 방직》, 《조선 방직》 들에서 감행한 1천 수백 명의 대집단 해고, 《신진 자동차 공업》과 《세브란스 병원》의 집단 해고 등 이 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집단 해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괴뢰 정부는 1964년 11월 초부터 년말까지 《기업의 합리화와 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괴뢰 정부 투자 기관의 임원 27명과 사원 2,570명을 《대폭 감원》하였다. 또한 농촌 경리의 파괴로부터 오는 농민들의 도시 집중은 서울시에서만도 해마다 30만 명, 1964년에는 31만 2,910명이였다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2월 6일). 따라서 일'자리를 얻기란 《바늘 구멍에 락타 지나가기》라는 비좁은 경쟁을 겪어야 하며 1964년 봄 대학 졸업자들의 취직 경쟁률은 35:1 내지 80:1이였다.

【이 민】《농업 이민》: 1964년으로써 《이민 5 개년 계획》의 제 2 년에 들어선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는 4월 초 이래 3억 원의 재정을 밀어 넣어 《이민 공사》를 만들 것을 구상해 오던 중 6월 1일 《이민 공사법》을 조작한 데 뒤'이어 6월 15일 정식으로 이 기구를 발족시켰다. 동 기구는 《이민 사업》을 총괄적으로 장악 지도하며 해당 지역에 《이민 공사 지부》를 설치하고 동족을 팔아 넘기기 위한 일체 교섭에 응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는 이 해에 《이민 공사》를 발족시키는 한편 어용 단체들인 《이민 협회》, 《카톨릭 이민 협회》, 《세계 기독교 봉사회》를 발동시켜 《종교 이민》, 《초청 이민》, 《특수 이민》 등 각종 명목의 동족 매매 책동을 감행하였다. 1964년 중의 《이민》 교섭 책동을 보면 《국제 카톨릭 이민 협회 한국 지부》의 책동으로 7월에 150 세대의 《카톨릭 이민》 계약이 체결된 것을 비롯해서 《세계 기독교 봉사회 한국 지부》의 교섭의 결과로 아르헨띠나에 첫 이민으로 25 세대가 확정되였고 빠라과이 정부와 괴뢰 정부 이민 당국 간에 1965년부터 10년 동안 《농업 이민》과 《기술 이민》의 명목으로 5천 가구, 매년 500 가구씩 이민시킬 데 대한 제 1 차 《이민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 밖에 빠라과이에 291 세대, 아르헨띠나에 24 세대 (《이민 공사》), 브라질에 160 세대 (《기독교 봉사회》)를 《이민》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카나다에 400세대, 일본에 5천 명, 미국에 2만 명에 달하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1964년 《이민》 실적

	출발 날'자	세대	인원수(명)
◇ 브라질			
4차 이민	(1.18, 3.18)	68	325
5차 이민	(8.18, 9.18)	51	281
종교 이민	(11.18)	23	141
◇ 볼리비아	(7.2)	3	33
계		145	780

자료 출처: 남조선 《동화 통신》 1964년 7월 7일, 《한국 문화 방송》 1964년 3월 18일, 《대한 일보》 1964년 7월 7일, 《합동 통신》 1964년 8월 18일, 11월 5일, 《국제 신보》 1964년 9월 18일.

《국제 입양》 실적 (명)

1962년	261
1963년	384
1964년	448

자료 출처: 남조선 《영남 일보》 1965년 2월3일.

《인력 수출》: 괴뢰 정부 로동청은 1964년 2월 독일의 함보르든내, 에스카바이러, 에쎌, 크리크나 등 4개 탄광 회사로부터 광부 800명을 요청해 온 데 대해 10월 441명과 11월 388명의 2차에 걸쳐 도합 829명을 넘겨 주었다. 이로써 1963년 12월 21일에 출발한 246명을 합하여 서부 독일로 팔려 간 광부의 총수는 1,075명에 달하였다. 1965년에는 1천 명을 보낼 것을 결정하고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 밖에 일반 《고용 계약》에 의하여 빠나마 선박에 선원 28명, 리베리아와 빠나마 선박에 각각 23명과 5명의 1급 무전사가 팔리여 고국을 떠나 간 후 8차에 걸쳐 250명의 장정이 《수출》되였다.

박 정희 괴뢰 정부는 최근에 《인력 수출》에도 발광적으로 들어 덤비고 있는데 6월 26일에 괴뢰 로동청장은 앞으로 3년 동안에 광부 10만 명을 서독에 넘겨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5～6년 안에는 20만～30만 명을 보낼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였다.

1963—1964년 간에 일반 《고용 계약》에 의하여 해외에 팔리여 간 482명의 장정 로력을 살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일반 《고용 계약》에 의한 로동력 《수출》 (명)

나라별	명	직업별	명
미 국	298	기술자	91
서 독	13	회사원	126
카나다	7	접대부	93
스웨리예	4	종업원	13
라오스	2	가정부	111
일 본	116	비 서	14
홍 콩	13	농장 로동자	10
사라와크	13	교 사	7
남부 웰남	3	간호원	7
브라질	2	기 타	10
기 타	11		

자료 출처: 남조선 《영남 일보》 1965년 2월 3일.

《이민》의 생활 실태: 제 4 차 《이민》으로 브라질에 끌려 간 강 현약 (42세) 농민은 1964년 11월 7일 고향 친지에게 《나는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다》는 편지를 부치고 3일 후에는 다섯 식구의 가족을 먹여 살릴 도리가 없어 음독 자살을 하였다. 제 2차 《이민》 중 26세대, 제 3 차 《이민》 68세대 중 16세대는 그들에게 차례진 땅이 독사와 모기가 욱실거리는 소택지라 농사는 부쳐 보지도 못 하고 류리걸식의 길에 나설 수 밖에 없었으며, 11월에 제 5 차 《이민》으로 마이노 《농장》에 도착한 51 세대 281명의 농민들 속에서는 불과 1개월 남짓한 동안에 열병에 걸려 17명이 죽어 갔다. 마이노 《농장》으로 말하면 《원시림이 들어차서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일 뿐만 아니라 《경작도 불가능한 데다가 토지 부로카들 때문에 땅값도 실 시세보다 4～5 배》나 비싸다. 그러므로 《위험한 이민》이라고 《경고》했으나 괴뢰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이민》을 허락했다고 서울 주재 브라질 령사 테제랍은 말하고 있다.

서독에 끌려간 광부들 속에서는 이 해 11월 25일과 27일에 련거푼 락반 사고로 해서 2명의 희생자를 내였다. 그러나 서부 독일 당국과 체결한 《한국 광부 림시 고용에 관한 협정》 제 14장에서는 남조선이 《국제 로동 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데로부터 작업 중 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보상 조건이 일체 거부되여 있다.

【가족 계획】 미제의 사촉하에 박 정희 괴뢰 도당은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빚어진 사회악과 심화되는 민생고가 마치도 《방대한 인구 장성과 그의 중압》에 있는 듯이 떠벌리면서 1961년에 인구 장성의 조절과 인위적인 축감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 계획 10 개년 계획》을 조작하고 1962년에 미국 《인구 협회》로부터 10만 딸라의 자금을 받아 이 해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강제 실시하여 왔다.

《가족 계획 10개년 계획》의 골자는 계획 수립 당시의 인구 증가률 2.88%를 1971년에 가서 1.92%에까지 억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 기세를 참작하여 《계몽과 지도》에 중점을 두고 산아 제한 정책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쌓고 제 2 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본격적인 기술 지도를 하여 인구를 축감시키기로 하였다.

괴뢰 정부는 이상의 《가족 계획》에 기초하여 그간 《가족 계획 지도 요원》 양성과 《가족 계획 상담소》 설치 사업을 벌려 왔고 이 기구를 통하여 1963년까지 12만 6천 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에 범죄적인 피임 대책을 강구했다. 그 중 5천 명의 임신부에게 락태 수술을, 2만 3천 여 명의 남자들에게 정관 절제 수술을 감행하였다. 《가족 계획》 실행 제 3년인 1964년에 들어와 괴뢰 정부는 미국 《인구 협회》로부터 새로 얻은 8만 딸라의 외자와 전년의 5배로 늘인 2억 2,400만 원의 《재정 예산》을 들여 산아 제한 강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 괴뢰 보

전 사회부는 1964년부터 각 시, 도에 《가족 계획》 전문 직원 설치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 시, 군, 구 《지도 요원》 212명을 늘여 현존 373명으로부터 585명으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3—5월 기간에 도합 4만 375 개소에 각급 《가족 계획 협의회》를 조직하고 2,650 명의 각급 지도원을 배치하였으며, 2만 8,710개의 리, 방, 통 《가족 계획 학습반》을 조직 운영하여 산아 제한을 위한 《지도 계몽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한편 괴뢰 법무부는 《가족 계획》의 실효를 법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해 이 해에 특별법으로서 《위생 보호법》을 조작해서 법적인 락태를 장려할 것을 획책하였다.

【자 살】 박 정희가 괴뢰 정권을 거머쥔 이래 급작하게 불어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살 참극이다.

1964년 1—11월 동안에 서울시 내에서만도 자살에 의한 변사자가 1,075 명이나 발생하여 매일 평균 3~4 명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특히 생활고가 절정에 이른 것을 반영하여 일가족 집단 자살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년간에 급격하게 붇고 있는 자살 참극의 특징이다.

1964년 한 해 동안에 일부 제한된 출판물에 나타난 45건의 자살 사건에서 보더라도 매건에 2~3명 꼴이 치여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45 건의 자살 사건 가운데서 현역 괴뢰군 사병들의 염전, 염군 사상을 보여 주는 3건의 자살 사건을 제외한 42 건이 생활고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막달은 골목에서 최후의 모대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살 방법에 있어서도 극도에 다달은 사회적 혼란상을 반영하여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스스로 불을 그어 대는 《분신 자살》, 폭발 자살 등 극단적인 수단들을 쓰고 있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 고】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각종 사고는 해마다 붇고 있다. 이것을 괴뢰 치안 당국이 작성한 통계에서 살펴 본다면 1964년 1—11월의 각종 변사자(자살자 제외)는 4,925명으로 1963년의 같은 기간 보다 약 900 명이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14명이 각종 사고로 죽어 가고 있다.

각종 변사자

(단위 명)

	1964. 1—11	1963. 1—11
독 사	1 263	1 058
익 사	902	686
풍 수 해	710	350
업무상 과실	595	476
살 인	418	383
각종 과실	203	225
련탄 까스	150	159
폭 발 물	141	180
화 재	122	87
선박 조난	406	470
강도 살인	31	20
등산 조난	11	0
계	4 952	4 094
자 살	1 075	…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28일.

주: 자살자의 수는 서울시에 한한 것임.

교통 사고: 미친듯 달리는 자동차의 사고를 비롯해서 렬차 충돌, 렬차와 자동차의 충돌 등 각종 교통 사고는 1964년 간에 지난 해보다 1천 건이 늘어서 7,047건, 하루 평균 5명 사망, 27명 부상이란 인명 피해를 냈다.

교통 사고

	1964	1963
총 건수 (건)	7 047	6 053
사 망 (명)	1 589	1 324
부 상 (명)	9 655	7 449
재산 피해 (만원)	…	2 054

자료 출처: 남조선 《서울 방송》, 《국제 신보 지사》 1964년 1월 16일, 《동아 방송》 1964년 12월 27일.

해상 사고: 괴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964년 간의 해상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는 침몰, 파손된 선박 1,700 여 척, 사망(익사) 351 명이였다.

【공중 사고】: 전쟁 연습에 발광하는 미제 강점군과 괴뢰군의 항공기 추락 사건은 1964년 중 남조선의 일부 출판물들에 발표된 것만도 12건에 각종 비행기 15대가 파괴됐고, 부상 3명을 내였다.

물 사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전쟁 도발 책동의 후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포탄, 수류탄, 지뢰 등의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의 손실이다.

1월 1일 마산시 가포동 해수욕장 근방에서와 경기도 시흥군 외왕면에서 포탄 폭발로 말미암아 사망자 5명, 부상자 1명을 내고 건물 7채를 날려버린 것을 비롯해서 3월 5일 불발탄 분해 공장(경기도 안양) 폭발 (사망 3명, 부상 125명), 10월 24일 케이 에스 씨 로무 사단 31 중대 뒤뜰(경기도 파주)에서 35 미리 로케트 포탄 폭발 (사망 4명, 부상 6명) 등 1964년 간에 발생한 대소 폭발물 사고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는 사망자 만도 413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약 50%가 미 강점군의 기갑 사단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 지방에서 발생하였다.

【재 해】 눈 피해: 괴뢰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년 (1963—1964) 간에 눈에 덮혀 얼어 죽은 자 33명, 재산 피해 1,200 여 만원이였다. 1964년의 큰 눈은 1월 18—20일의 동해안 일대, 1월 31일—2월 1일에 걸친 전라 남북도 일대, 2월 6—11일 까지의 6일 동안에 걸쳐 남조선 전역에 내린 눈이였다.

1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20일 오전 11시경까지 15메터의 풍속을 가지고 동해안 일대에 내린 눈은 18일 저녁 8시에서 19일 아침 8시까지 12 시간 동안에 만도 750 미리나 쌓이는 큰 눈이였다. 이로 말미암아 강릉—평창

간 대관령 고개의 교통은 끊기였고 거센 바람이 지나간 고성, 대진, 거진 등 어항들에서는 침몰, 류실, 파괴 등 57척의 어선들의 피해를 냈다.

1월 31일—2월 1일에 걸쳐 전라 남북도 일대에 내린 눈은 22개소에서 교통이 끊어지게 했다.

2월 6일 이후 11일까지 남조선 전역에 내린 눈과 비로 말미암은 피해는 교통 두절 (10일 오후 현재) 24 개소, 통신 두절 (9일 오후 현재) —경북 일대 4,588 개소의 경비 전화선이 끊어지고 355 개의 전주를 넘어뜨려 총피해액 31만 3,060원을 냈으며, 전라남도충무시 도천동 25번지의 높이 10 메터의 언덕을 무너뜨려 집 한채를 덮치고 소년을 깔아 죽이는 소동을 비져 냈다.

풍수해: 1964년 풍수해는 일부 제한된 출판물들에서 종합한 것에 의하더라도 3차의 풍재와 6차에 걸치는 수해로 리재민 11만 7천 여 명, 인명 피해 1,484명, 건물 손실 2만 4,707채, 경작지 매몰, 류실, 파괴 등 3만 737 정보 선박, 침몰, 류실 파손 등 6,543척에 피해액 24억 2,852만 원을 내였다.

7월 3일 30분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수색동 뒤'산이 무너져 집 30채가 파괴되였고, 7월 6일에는 화천 저수지의 물이 위험 수위에 달하게 되여 발전소의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춘천시 일대 가옥들이 침수되였다.

8월 8일 중부 지방에 내린 소낙비는 한 시간에 최고 70 미리씩 쏟아 부어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40년 만에 처음 당하는 물란리를 겪었다.

한 재: 1964년에 령남 일대에서는 1944년 이래 처음되는 가물을 겪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가물은 례년에 없이 혹심한 것이여서 8월 13일 현재 강우량이 경남 지방에서 145 미리로 평년의 4분의 1밖에 안되였고 경북도 일대에서는 겨우 3~40 미리였다.

한발 피해

(단위 정보)

	경남	경북
논 이앙 면적	167 063	193 200
그중 한해 면적		
8.13 현재	35 600	11 000
8.19 현재	52 500	46 000
9.4 현재	70 142	46 182
밭 총면적	66 209	…
그중 한해 면적	32 205	…

화 재: 11월 15일 현재 1964년의 화재는 1,714 건이 발생, 그중 서울시가 28%에 해당하는 610 건을 차지하였다. 괴뢰 정부 치안 당국은 12월 31일 화재의 위험률이 높은 32 개 도시에 대한 《미연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의정부시 등 화재의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지적된 3개 도시에는 소방서조차 없는 실태였다.

풍 수 피 해

시일	구역	리재민 (명)	인명 피해 (명)	건물 피해 (채)	선박 피해 (척)	경작지 피해 (정보)	피해액 (천원)
4.14—21	전역	10 212	28	2 203	4	7 851	121 794
5.18	제주도	—	—	117	—	—	…
봄장마	서울	7 284	23	122	—	—	7 166
7.12—22	전역	1 145	61	452	—	5 707	61 130
태풍 제 9호 《플로시호》		—	26	—	27	—	…
태풍 제 10호 《헬렌호》		1 291	8	452	233	2 000	21 350
8.8—10	중부 지방	13 225	46	2 877	3	3 899	163 718
태풍 제 11호		—	374	—	1 264	—	160 000
8.13—17	전역	34 600	148	6 610	—	11 251	691 800
9.14—16	중부지방	49 415	707	11 874	5 012	29	1 200 560
계		117 172	1 484	24 707	6 543	30 737	2 428 518

【범 죄】 1964년 1—10월 동안의 범죄 발생 건수는 1963년 같은 기간의 건수 보다 7만 7,420 건 (폭력범은 포함하지 않음)이 더 늘고 5년 전인 1959년의 약 4배라는 엄청난 수'자를 냈다.

괴뢰 정부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1964년 각종 범죄 건수는 10월말 현재 도합 69만 337 건으로서 하루 평균 2,271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에 매년 15만 6천 건씩이 늘고 있다.

범죄 건수의 증가

1959	185 118
1960	325 531
1961	473 522
1962	723 985
1963	710 780
1964 (1—10)	690 337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10일.

주: 폭력범 사건은 포함하지 않음.

내용별 범죄 발생 건수는 《부정 수표 단속법》, 《관세법》, 《특정 외래품 단속법》 위반등 《특별법 위반》이 단연 압도적이여서 54만 5천 여 건, 다음이 절도 11만 8천 여 건, 사기, 횡령, 도박 등의 순서로 되여 있어 《4천년 래의 민생고》와 더우기 이 해에 강행된 《재정 안정 계획》과 5.3 《환률》 인상이 가져다 준 유사 이래의 불경기》가 빚어낸 절박한 세태를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실증하는 것으로는 범죄 발생 건수의 증대와 아울러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범자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는바 30~34% 수준을 오르내리던 재범의 비중이 최근 년간에 18.7%로 떨어지고 초범자의 비률이 60~70%로부터 90% 수준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또한 례년에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춘궁기인 4월이고 다음이 12월이였으나 1963—1964년에는 11 월이 첫 자리로 많았고 이듬해 7월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때아닌 춘궁기》가

이해에 례년보다 1개월이나 앞섰으며 기근 기간이 11—4월의 5개월 동안으로부터 11—7월의 9개월 간으로 확대된 동시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그만치 증대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964년 1—10월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사건도 전년에 비겨 현저하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도 사건 같은 것은 936 건에서 1.3 배 이상인 1,248 건으로 늘었다. 이 해에 남조선에서는 하루 1 건의 살인 사건을 비롯해 7건의 각종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였다.

내용별 범죄의 증가

	1964년 1—10월	1963년 1—10월
살 인	393	353
강 도	1 248	936
강 간	423	343
방 화	157	123
절 도	118 597	102 303
사 기	12 373	16 954
횡 령	6 073	8 472
배 임	1 366	1 338
공 갈	1 337	1 044
도 박	2 631	2 376
특별법범	545 739	409 421
계	690 337	612 917
폭력범	48 187	39 548
총 계	738 524	652 465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10일.

이 밖에 1964년 간에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즉결 심판부》가 접수 처리한 각종 경범죄 38만 8,358 건이 있다. 이것은 동 《심판부》가 1일 평균 1,065 건, 10초마다 1 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며 이 경범죄 처리 과정에서 거두어 들인 벌과금만도 8,076만 8,575원에 달하였다.

소년 범죄의 증가도 격심하다.

괴뢰 정부 국무 회의에서 한 내무부 장관 보고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매월 평균 25%씩 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도 《성 범죄가 조숙하여져가고 있으며 범죄가 집단화되고 흉악 탄폭》해 가고 있다.

소년 범죄의 증가

년도	발생 건수
1959	24 959
1960	31 559
1961	41 800
1962	72 898
1963	98 794
1964 (1—10월)	126 000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2월 25일, 《동아 방송》 1965년 3월 2일.

주: 발생 건수는 실제상 범죄 발생 건수가 아님. 례컨대 1963년의 발생 건수는 그해 검거자의 9% 밖에 안 된다.

박 정희는 괴뢰 정권을 거머쥔 첫 날부터 《깡패 일소》를 부르짖어 왔으나 현 실태는 서울시 내에서만도 기성 깡패 집단 11개 외에 10개의 신흥 깡패 집단과 9개의 학원 내의 폭력 조직이 더해서 날치고 있으며 따라서 남조선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범 사건도 1964년 1—10월 동안에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8,700 건이 붙은 4만 8,187 건으로서 매일 평균 159건이 일어 났다.

【부 패】 박 정희 괴뢰 정권의 국무 총리는 새해 벽두인 1964년 1월 6일에 《훈령 제 1 호》로 《공무원 기강 확립에 관하여》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솔선 수범, 부정 행위의 금지, 리'권 운동 금지, 정치 운동 금지 등 15개 항목에 걸치는 《지시》를 떨구었다. 그러나 이 해 괴뢰 국회와 행정부는 지난 해에 폭로 된 《제 2 의 4 대 의옥 사건》의 뒤'처리도 끝내기 전에 다시 《일본 재산 수수 사건》 《국유지와 공유지의 부정 불하 사건》, 《환률 의혹 사건》, 《철도청 의혹 사건》, 《지리산 도벌 사건》 등 고리를 물고 드러나는 독직 사건에 휘감기여 박 정희 정권의 추잡한 몰골을 시위했다.

일본 재산 수수 사건: 박 정희 도당이 《한일 회담》의 흥정 과정에서 《평화선을 양보》한 대'가로 일본 군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3천만 딸라의 《정치 자금》과 일본 화페 400억 원을 받아 탕진한 것.

국유지 및 공유지 부정 불하 사건: 이 사건에는 사직 공원 부정 불하 사건, 삼청 공원 부정 불하 사건, 한강 백사장 불하 사건, 돈암동 도로 불하 사건, 수유리 유원지 불하 사건, 남산 공원 불하 사건, 장충단 공원 불하 사건, 구 황실 재산 부정 불하 사건, 정릉 뒤'산 불하 사건 등등 허다한 독직 사건이 포함되여 있다. 그중 가장 크게 떠들었던 《사직 공원 부정 불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괴뢰 재무부 장관과 박 정희의 처남 등이 공모하고 괴뢰 사세청 관재국장, 한일 은행, 조흥 은행, 괴뢰 국회 내 《민주 공화당》 총무, 부총무, 의원 등과 결탁하여 서울시 내 사직 공원 록지대 2만 3,100평을 예속 자본가에게 한 평에 150원(시가 2～3만 원)으로 불하(총액 345만 여 원)한 후 불하 토지를 담보로 하여 한일 은행, 조흥 은행이 제 1 차로 1,200만 원, 추가로 142만 원 도합 1,342만 원(불하액의 약 4배)을 대부한 것이다.

지리산 대도벌 사건: 괴뢰 정부 고위층, 괴뢰 국회 부의장 장경순, 《민주 공화당》 소속 국회 의원 3명이 《성남 흥업 공사》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지리산에 있는 《바람에 넘어진 나무》와 《200립방 메터의 고손목 채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괴뢰 정부 농림 당국의 묵인하에 생나무까지 찍어 산을 발가 벗겨 팔아 먹은 것.

《환률》 의혹 사건: 5.3 《환률》 인상에 앞서 평소에 괴뢰 정부와 내통한 일부 업자에게 600여 만 딸라의 수입 신용장을 내여 주어 물품을 외국에서 사 들여다 7억원의 폭리를 얻게한 대'가로 박 정희 도당이 《정치 자금》을 받아 먹은것.

철도청 의혹 사건: 괴뢰 정부 철도청장을 비롯한 직원 14명이 괴뢰 정부 고위층, 《민주 공화당》 출신 괴뢰 국회 교통, 체신 위원회 의원 등과 결탁하여 철도청과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400여 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정치 자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를 집어 먹은 것.

이 밖에 1964년에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떠들어댄 부정, 의옥 사건으로는 군인 아빠트의 건축을 계기로 하여 예속 재벌 《삼양공사》와 결탁하고 3,200만 원을 횡령한 《원호처 부정 사건》, 《구황실 재산》인 농로 9만 평을 팔아 먹은 《문화재 관리국 부정 불하 사건》, 15만 평의 림야를 팔아먹은 《농협 소유 림야 부정 불하 사건》, 《정부 모처》와 결탁하여 4천만 원을 가로챈 《흥일 주식 회사 문서 위조 사건》, 농민들에게 공급할 1,400여 톤의 화학 비료를 모리배에게 넘겨 주어 얻은 폭리 4억 원을 나누어 먹은 《화학 비료 류출 사건》, 12만 톤의 량곡을 수입하여 정치 자금화한 《수입 량곡 12만 톤 의혹 사건》, 《체신부 의혹 사건》, 《수입 인지 1천만 원 위조 사건》, 《교통부 증수회 부정 사건》, 《재산 해외 도피 사건》 등등으로 이 해 괴뢰 도당의 부정 사건은 1963년에 비해서 4배로 늘었다.

괴뢰 정부 중앙급 기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괴뢰군 상층 장교와 경찰들 속에서도 인민들의 재산을 토략질 하거나 사기 협잡, 횡령해 먹는 등 범죄 행위가 성행하였는바 적발된 괴뢰 경찰만도 2,629명이나 된다.

【보 건】 박 정희는 《년두 교서》에서 《국민 의료 균점의 보장》, 의사 없는 면의 일소, 《국민의 질병에서의 해방》을 되뇌였다.

그러나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의 1964년도 세출 예산은 1963년보다 오히려 9억 9,200만 원을 깎아 내려 년간에 물가가 약 40 %나 오른 것과는 반대로 64% 미만으로 줄어졌다.

이 삭감된 《보건 사회부비》는 그 많은 부분을 일반 《보건 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산아 제한》을 위한 《가족 계획비》가 전년의 5 배로 증가되여 보건 위생 방역을 위한 재정 예산은 남조선 출판물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새 눈물》만큼도 안되였다.

주민의 70%가 결핵 환자라는 절박한 실정 하에서도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의 《결핵 대책비》는 필요한 사업비의 5.3%에 불과하였으며 코레라 《방역비》와 같은 것은 아예 삭감되였다 (남조선 《서울 경제 신문》 1964년 5월 8일). 《예산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의료 일'군을 줄이는 한편 《노동력 수출》이라 해서 의사와 간호원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의사 없는 면의 증가: 《의료 균점》이란 기만적 구호 밑에 감행한 의사 없는 면의 《해소책》과 같은 것은 박 정희 괴뢰 정권의 반동성을 더욱 뚜렷이 증명하였다.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의사 없는 면의 일소》를 떠벌리고 나선 괴뢰 정부는 1962년 5월 《국민 의료법》이란 것에 의거해서 의사를 강제로 징발하여 약품, 의료 시설 하나 없는 농촌 《보건소》들에 배치하였다. 괴뢰 정부의 《의사 없는 면의 일소》책은 오히려 농촌 주민들의 원망과 강제 배치된 의사들의 반발을 사서 성과는 고사하고 《동원령》 실시 초부터 공의들의 《부임 거부》, 《대리 파견》, 《근무처 리탈》 등 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켜 《완전히 실패하였다》 (남조선 《조선 일보》 1964년 6월 16일). 그 후 1964년 4월 30일 박 정희 도당은 《동원령》을 해제하고 1,473개의 읍, 면을 2—4개 읍, 면 단위로 하는 630개의 《보건 의료 지역》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의사 없는 면의 해소》를 부르짖고 있다.

결과에 1964년 5월 현재 사실상 의사 없는 면은 1961년 462개 면의 거의 2 배인 843개 면으로 늘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같은 곳에서는 의사가 1명도 없으며 《보건소》는 세워져 있으나 《개점 휴업 상태》이고 충청남도 서산군은 의사 1명에 주민 6만 5천명, 경상북도 창원군은 14개 면 중 9개 면에 의사가 없으며 의사 1명 앞에 평균 주민 3만 7천 명, 대산면 《보건소》는 한지 의사 혼자서 3개 면의 5만 6천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 없는 면의 증가

	읍, 면 수	의사 없는 면 수	
		1961	1964.5
전체	1473	462	843
그중 전북	162	88	129
전남	231	124	144
경북	252	76	115
경남	227	76	119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년감》 1963년 판, 《서울 경제 신문》 1964년 4월 29일, 《한국 일보》 1964년 5월 19일, 《매일 신문》 1964년 10월 8일.

의약품: 남조선의 제약 공업이란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미국과 기타 나라들에서 수입해다가 약간한 가공을 하거나 《세분 포장》하는 것이다.

1964년도 괴뢰 정부의 의약품 수입 자금은 《재정 안정 정책》의 서리를 맞아 례년에 비하여 333만 딸라가 깎이우고 약품 수입 품목마저 대폭 축감된 데다가 5.3 《환률》 인상으로 수입 약품의 가격마저 앙등이 심했다. 따라서 1964년에 제약 공업은 심각한 원료난과 자금난, 판로난을 겪게 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기업체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다.

1964년에 의약품 생산이 감소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산 품종에서도 이 해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가 허가한 품종 수의 22% 밖에는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약품 공급이 역망을 이루고 페니실링 값이 60%나 뛰여 올랐으며 가짜 약품, 《불량 약품》이 더욱 횡행하였다.

질 병: 1964년 8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뇌염은 남조선 전역에 퍼져 불과 두 달 동안에 환자 수는 1962년 한 해 동안의 그것보다 1,700 명이 더 많았고 사망자 수는 2.5 배에 달하였다.

이 해에 장티브스 환자는 2,800여 명, 년간 뇌염 환자는 2,900

여 명이 발생하였다.

전년에 1,700여 명의 환자와 수 많은 희생자를 냈던 코레라가 1964년 10월 초에 재발하여 만연 상태에 들어 갔는데도 괴뢰 당국은 침입 경로 조차 알아 내지 못하였으며 《예산이 모자란다는 푸념만 되풀이》하면서 《기온이 령도 이하로 내려 가면》 없어질 것으로 《락관》한다고 지껄였다.

남조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앓고 있는 만성적 질병은 상상을 넘어서 많은바 그 중 몇 가지만 들어 보아도 다음과 같다.

결핵 환자는 남조선 주민 총수의 70%에 달하는 1,800만 명, 그중 위급한 환자만도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5만 내지 6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있다.

페지스토마 환자는 150만 명, 간지스토마 환자는 450만 명으로 남조선 인구의 6분의 1, 문둥병 환자는 20만 명, 그중 1만 여 명만이 의료 기관에 수용되여 있고 2만 1천 여 명은 《자체 치료》라는 명목하에 내버려 두고 있으며 17만 여 명의 환자들은 거지가 되여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 밖에 정신병 환자 30만 명, 신경 노이로제 환자 240만 명이 있다. 그리고 남조선 인구의 90% 이상이 기생충을 갖고 있어 《기생충 왕국》으로 이름 나 있다.

지난 10년 간에 1만 2,554명의 소아 마비 환자가 발생하여 216명이 사망, 1만 2천 여 명의 어린이가 마비 상태로 남아 있다.

【종 교】 괴뢰 정부 문교부가 1962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10—11월 2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한 종교 실태 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에는 불교, 기독교 등 25 종파에 258만 6천 여 명의 신도들이 있다. 다른 한편 1964년 10월 현재로 괴뢰 당국이 실시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 널려 있는 류사 종교 단체는 100 여 개를 헤아리고 있으며 박 정희 도당이 추구하고 있는 친일 매국 정책의 결과로 《니찌렌교》의 일파인 《창가 학회》가 창궐하게 되였고 또한 《천리교》가 활기를 펴서 그 신도 수가 1962—1964 년 간에 12 배로 팽창하는 등 각종 종교 신도 수는 약 600만 명 (남조선 총인구 수의 23%)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도 수와 교회(사찰) 수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1964년 현재 1962년 실태 조사 당시보다 8만 5 천 여 명의 신도가 늘어서 81만 2,254명에 교회는 약 7천 개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불교, 천주교의 순서로 되고 있다. 재산면에서는 불교가 13억 8,700여 만 원(1962년 현재)으로 첫 자리를 잡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괴뢰 식민지 통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우매화 정책의 주요 고리로서 종교 의식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깊이 뿌리 박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1964년 11월 19일에는 계룡산 등지에 분포되여 있는 30 여 개 류사 종교 단체를 부추기어 《대한 종단 련합회》를 만들었고 나가서는 남조선 각지에 있는 류사 종교 단체 전부를 묶어 세울 방침을 짜고 있다.

1955년 이래 불교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의 패싸움은 10년이 지난 1964년에도 계속되였다. 1월 19일에 강원도 오대산 속에 있는 월정사에서는 비구승 측과 대처승 측이 각각 100여 명씩 떼를 지어서 서로 칼과 몽둥이로 찌르고 때리고 하는 류혈이 랑자한 란투극을 벌려 30 여 명의 중경상자를 내였다.

《말레이시아》 괴뢰 정부는 남조선에 이스람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1962년 8월 11일 교회당 건립 기금으로 3만 2,625 딸라를 보내 왔으나 횡령에 이골이 난 박 정희 도당은 기금을 잘라먹고 1964년 말 현재 공사는 전 공정의 20%도 끝내지 못한채 있다. 《말레이시아》 괴뢰 정부 수상 라흐만은 그간 2차에 걸쳐 공사의 진척을 독촉해 왔으나 남조선 괴뢰 정부는 할 말이 없이 《창피스러운 회답》만을 보내고 있다.

【미제 강점군의 만행】 포악 무도한 미제 강점군의 만행은 1964년에 더욱 철면피하게 조장되고 빈번하게 감행되였다.

2월 6일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미 제 1 려단 유도탄부대 1등병 머피는 토끼 사냥을 하고 있는 조선 소년 2명에게 고의적인 조준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 만행에 격분한 인민들의 항의에 대해 미군 당국은 철면피하게 무고한 소년을 도적이라고 우기면서 임무 수행상 당연한 조치라고 떠벌렸다. 심지어 유엔군 사령관 하우즈는 2월 14일 신문 기자 회견에서 《많은 신문 론평이 군수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강력한 예비책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위압적인 망발을 늘어 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오만 무례한 행동에 대해 박 정희 도당은 아부 굴종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월 7일 미군의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진행된 《한 미 교위 회담》의 결과 괴뢰 국방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물자 절취범》 또는 《무단 침입자》로 인정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군사 시설 및 군수 물자 보호에 관한 림시 조치법》을 조작하고 이것을 2월 26일에 열린 제 2 차 《한 미 교위 회담》에서 《총격 사건 방지 대책》으로서 제기하였다. 이 《조치법》에 의하면 미 강점군이 절취범 또는 부대 무단 침입자로 인정한 남조선 인민은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최고 사형까지의 혹형을 받게 되여 있으며 범죄를 저질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는 사람은 미군 부대가 주둔 하고 있는 지역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되여 있다.

1964년에 감행한 미 강점군의 각종 만행 가운데서 남조선 출판물들이 취급한 것 중 일부만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총에 의한 살상: ▶ 1월 22일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사복 차림을 한 타이 군인 5 명이 만취하여 권총을 마구 쏘아 시민 4명이 다리와 배에 관통상을 입음.

▶ 2월 2일 미 제 7 사단 에이 중대 소속 1등병 카메론 로버트, 생연 2 리에 사는 임신 9 개월의 조 용자(녀, 35세)를 엠 14 자동 소총으로 쏘아 죽임.

▶2월 6일 미 제 1 려단 유도탄 부대 1 등병 머피는, 토끼 사냥을 하고 있는 안 재섭(17), 김 태영(16) 두 소년에게 엠 14 소총 4발을 쏘아 안 소년은 즉사, 김 소년은 가슴에 관통상을 받음(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총격 사건).

▶2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리 미 제 51 통신 대대 소속 2등병 알렌 더블유. 허버브는 허 창국(13세)소년을 렵총으로 쏘아 배에 관통상을 입힘.

▶2월 17일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주둔 미 제 1 기병 사단 제 8 공병 대대 소속 트로웨이 프랭그린, 부근 주민 3명에게 45 구경 권총 3발을 쏘아 1명이 목에 관통상을 입고 즉사.

▶2월 18일 오산 비행장 부속 건물 부근에서 미군 헌병이 쏜 총탄에 소년 1명이 옆구리를 맞고 중상.

▶2월 19일 동두천 이리 미군 사격장 부근에서 미 7 사단 13 공병대 1등병 브레드가 쏜 엠 14 소총탄에 맞아 리 덕형(44세)이 즉석에서 절명.

▶2월 24일 미 8군 대변인은 미 제 7 사단 사격장 안에서 23일 포탄에 맞아 죽은 김 찬규(16세), 김 도봉(17) 두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였다고 발표.

▶미군 제 1 기갑 사단 소속 카츄사병이 쏜 총알에 맞아 서울에 사는 김 종옥(34세)이 아래'배에 중상.

▶6월 6일 경기도 림진강 가에 있는 미군 제 658 교육처 제 3 휴양소 앞에서 미군 보초가 길가는 강 모를 쏘아 엉덩이에 중상.

▶7월 27일 미 제 1 기갑 사단 9련대 근방에서 고철을 줍던 주 모(43세)가 미군이 쏜 총알에 맞아 절명.

▶10월 25일 일본 요꼬다 주둔 미 공군 사령부 소속 미국놈 일행 6명이 전라북도 익산군 함라면 신목리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농민 권 귀례(녀, 38세)를 렵총으로 쏘아 얼굴에 중상을 입힘.

▶11월 11일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에서 미군놈이 오리 사냥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련못가에서 놀고 있는 소년 4 명을 렵총으로 쏘아 각각 얼굴에 파렬상을 입힘.

▶12월 27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 북쪽 미군 기지 현장을 경비하던 1등 병 클레이 제트가 작업 시간을 어겼다는 구실로 조선인 로무자 박 한규의 복부를 렵총으로 쏘아 생명 위독.

▶12월 21일 전라남도 광산군 평동면 평지리에서 놀고 있던 정 재복(6세) 최 진렬(4세) 어린이 두 명이 보병 전차포 사격장에서 마구 쏜 탄환에 맞아 가슴과 정갱이에 각각 관통상을 입음.

력살, 력상: ▶ 1월 8일 경기도 부천읍 백마장 앞길에서 미군 트럭이 《대한 체육회》 찦차를 들이 받아 운전수 사망, 1명 중상.

▶1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가 앞길에서 소속 불명의 미군 찦차가 조선 청년 서 동아(21세)를 깔아 갈비'대 4대를 부러뜨리고 도망.

▶1월 29일 서울시 한강로 2가 177 번지 앞 길에서 녀차장 박 학순(18세)을 미 8군 소속 728 헌병 중대 찦차가 치여 죽임.

▶2월 11일 미 제 1 기갑 사단 헌병대 소속 59호 스리코타가 학교에서 돌아 오는 김 재수(11세)를 깔아 중상.

▶2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제 2 한강교 앞에서 오산 비행장 미 공군 제 6314 부대 소속 트럭이 원효로 2가 3 번지에 사는 김 영길(24세)을 깔아 죽임.

▶2월 24일 미 8군 46 사단 본부 소속 트럭이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렴천교 앞에서 교통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를 들이 받아 타고 있던 리 진수(30세)가 중상을 입음.

▶3월 7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4번지 앞에서 미 8군 고문단 소속 더그라스가 운전하는 찦차가 을지로 1가에 사는 장 성우(49세)를 깔아 중상.

▶6월 11일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디엠씨 트럭이 서울시 남영동 입구에서 괴뢰 공군 소속 찦차와 자가용 차 1대를 들이 받아 6명의 중경상자 발생.

▶6월 19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김 옥순(51세)이 미 외교관 차 3889호에 치여 중상을 입음.

▶6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7번지에 사는 김 영신(6세)이 미군 헌병차에 깔려 중상.

▶7월 12일 서울시 서대문구 교북동 118번지 앞에서 미 8군 17 포병 중대 소속 에쓰 에이 7호 찦차가 어린이 허 완(6세)을 깔아 중상.

▶8월 7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92번지 앞길에서 미 8 군 소속 트럭이 앞에 가는 서울 영 4 284호 합승 택시를 들이 받아 중상 3명, 경상 2명 발생.

▶ 8월 18일 서울시 하왕십리동 920번지 앞에서 미군 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년(김 상준 16세)을 치우고 도망.

▶ 8월 23일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검문소 앞길에서 미 8군 디아이 수송대 소속 세단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리 재현을 정면으로 들이 받아 중상.

▶9월 2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208번지 앞길에서 미군 제 스리 경비 중대 소속 스리코타가 합승 택시를 들이 받아 승객 4명이 중상, 5명이 경상.

▶12월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교남동 67 번지 앞에서 금화 국민학교 1년생 고 만식(8세)이 미 8군 소속 대형 트럭에 깔리여 즉

사함.

폭행, 략탈, 파괴: ▶1월 15일 미제 44 공병대 씨 중대 소속 병사 커핑(20세) 외 1명이 조선 처녀 김 영자(가명,21세)를 트럭 속에서 륜간.

▶1월 22일 경기도 평택군 평성면 캠프 햄보리스 기지에 있는 베닐 상사 감독인 힐쓰 (필리핀인)는 영선부 로무자 박 기순(28세)이 15개월 동안이나 밀린 로임을 달라다 하여 함부로 때며 눕힌 후 렵총으로 협박, 타박상으로 출근하지 못하자 무단 결근이란 구실로 25일 해고.

▶2월 10일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은전 다방에서 만취한 미군 병사 1명이 폭행 끝에 그를 말리려는 괴뢰 순경 얼굴에 재크나이프로 갈부림질.

▶ 2월 14일 미 8 군 대구 지구 인사처 근무 상사 바임의 처는 대구 문화 방송국 방송원 김 미리(녀, 22세)를 세단차로 산'골짜기에 끌고 가서 자기 남편과 정을 통했다고 생트집을 걸어 목을 졸라 죽이며 듬.

▶2월 23일 미 8군 본부 중대 소속 1등병 이디어 브라운은 새벽 1시 반경 만취해서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산 13번지 양품 가게에 뛰여들어 주인 내외를 깨워 술을 내라고 가게를 들부시며 행패.

▶3월 23일 문산발 서울행 153 렬차가 문산역 출발 직전에 장교를 포함한 무장한 미군 3명이 권총으로 승객을 위협하면서 차에 뛰여 들어 강제 수색을 감행, 렬차는 13 분간 연발.

▶5월 26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대사리 미군 씨티엑스 훈련장에서 훈련 중의 미군 한 놈이 구경'군들에게 연막탄을 던져 부락민 1명이 눈에 중상을 입음.

▶ 7월 9일 경기도 송탄읍 오산 기지 활주로 근방에서 미군 경비원이 풀어 놓은 세파트에게 물려 김 제근(15세) 소년이 중상을 입음.

▶7월 12일 술 취한 미군이 모는 미군 소속 뻐스가 서울시 광화문 네거리의 교통 신호대를 들이 받아 한 시간 동안 전차 운행 중단.

▶7월 25일 워커힐 2층에서 미 7 사단 소속 미군이 접대부를 아래층으로 떨어뜨리여 생명 위독.

▶8월 31일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에서 마스터에를 비롯한 3명의 미군놈이 산월리에 사는 정 분희(20세)를 트럭에 싣고 성산면 근처 절로 끌고가 릉욕.

▶10월 10일 문산에 있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중위 바이로네르를 비롯한 미군 3명이 정 재평(30세)을 붙들어 군견을 풀어 놓아 물어 뜯게 한 후 다시 개와 함께 개장속에 처넣어 더욱 뜯기게 하는 만행을 감행.

▶10월 14일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제트기 1대가 고더면 당현리 논바닥에 폭탄을 던져 부근의 안중 국민 학교와 농업 은행 평택 지점의 유리창이 폭풍으로 산산이 쪼각남.

▶11월 21일 서울시 성북구 수유리 뻐스 정류장 앞에서 소속 불명의 미군 트럭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조선인 두 남녀를 들이받아 중상.

▶11월 23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18 번지 앞 길에서 미군 트럭이 앞서 가는 합승 택시를 들이받아 6명의 중경상자를 내게 하고 도망.

▶12월 19일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교 부근에서 위안부를 실은 미 군용 세단차가 순찰근무 중인 괴뢰 경찰을 치여 놓고 도망.

문 화

교 육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에 전'적으로 추종하는 박 정희 도당은 1964년에 《민주 학원의 건설》, 《생산 기술의 련마》, 《교육 방법의 개선》 등 허울 좋은 《장학 방침》을 내걸고 그 무엇인가 학교 교육에서 《혁신》을 일으킬듯이 떠벌렸다.

그러나 이 해 남조선에서 학원의 파쑈화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학생들의 수학 조건은 더욱 악화되였다.

[학원에 대한 파쑈적 통제의 강화] 박 정희 도당은 1964—1965 학년도에 《승공 도의의 앙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 학원의 건설》을 떠메고 나섰다.

박 정희 도당은 이것을 위하여 학원에 대한 파쑈적 통제와 학원 내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에 발광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자기들의 매국 행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은 후 《학원에 대한 정치 사찰을 한층 강화》하였다. 즉 지금까지 여러 가닥의 어용 기관을 통해 실시해 오던 《학원 사찰》 체계를 《민주 공화당 청년국》에서 직접 틀어 쥐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와 학생들 속에서 《친여 세력》의 기반을 닦기 위한 온갖 흉모를 꾸몄다.

박 정희 도당은 《민주 공화당》의 《사무국 요원》으로 종사하던 룩무들을 《대학원 연구생》으로 잠입시켜 《각 대학의 유력한 교수》들을 공갈하고 매수하였으며 《각 대학의 학생, 생활 지도원, 대학 연구생》 및 《각종 동창회, 학회 간부》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조종》하게 하였다(남조선 《대구 매일 신문》 1964년 7월 4일). 각 대학에 학생으로 가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학생들의 연구 활동과 교수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사찰하는 악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남조선 《국제 신보 지사》 1964년 4월 13일).

서울 대학교에는 괴뢰 《중앙 정보 부원》들이 대량 침투하여 학교의 일체 내부 사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타 대학의 학생과에도 《중앙 정보 부원》들이

언제나 주재하고 있어 마치 《정보부》 분실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내에서만 하여도 무려 7,44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을 이른바 《요시찰인》으로 지목하고 《사찰》 대상을 《갑, 을, 병》 3급으로 나누어 감시하고 있다(남조선 《합동 통신》 1964년 9월 26일).

뿐만 아니라 박 정희 도당은 학생들의 어떠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엄벌주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7월 1일부터 《학생 봉사대》를 조직하여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데모 주동자》는 닥치는 대로 퇴학 처분시키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청년 학생들의 손발을 얽어매 놓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학원 보호법》을 만들려고 책동했다.

학생들의 사회 활동의 금지, 학원 내에서의 집단 활동의 금지, 학생 단체의 관제화, 현존 학생 단체의 강제 해산을 주되는 목적으로 한 이 악법을 조작해 냄으로써 박 정희 도당은 학생들을 정치 생활에서 리탈시키고 그들을 각종 구실 밑에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꾀하였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서울의 단국 대학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 7개 대학에 새로이 《학도 군사 훈련단》을 설치하고 학원의 군사화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각 대학교의 《학칙》을 종전 보다 징계 범위를 훨씬 넓히는 방향에서 뜯어 고쳤다. 그리고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 7,000 여 명을 새로 괴뢰군에 끌어 내려고 발광하고 있다.

【《교육 자치제》의 실시】 박 정희 도당은 5.16 이후 중단 상태에 있던 《교육 자치제》를 1964년에 다시 실시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구호 하에 내놓은 이 《교육 자치제》는 학원 내에서 교원, 학생들과 정치적 반대파들의 사회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철두철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교육 제도이다.

박 정희 도당은 《교육 자치제》 하에서 학교 관리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인민들에게 들씌우며 《지역 사회 학교》 또는 《향토 사회 학교》 운동이라는 구실 밑에 학교 교육을 봉건적이며 락후한 《지역 사회》에 적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반제 반정부 진출을 봉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교육 자치제》는 교육계의 위기를 일층 심화시켰다. 괴뢰 정부는 《자치》라는 명목 밑에 학교 운영의 일체 비용을 자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교육 기관들을 심각한 재정난에 빠뜨렸다. 경상남도 창원군의 경우만 보아도 학부형들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은 1만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게 되였다(남조선 《교육 신문》 1964년 3월 25일).

경상북도 울산시에서도 《교육 자치제》가 실시된 후 《영선비 등 예산이 한 푼도 없어 학교 관리에 큰 곤난을 받고 있다》(남조선 《령남 일보》 1964년 12월 9일).

이 밖에도 박 정희 도당은 사립 학교의 교원들을 마음대로 롱간할 수 있는 《사립 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과 《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을 조작하였다.

【수학 조건의 악화】 박 정희 도당은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느니 뭐니하고 떠들어 댔으나 남조선 학생들의 수학 처지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1964년 문교 예산은 지난 년간에 물가가 약 4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도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여서 《교육은 일대 위기에 처했다》(남조선 《교육 평론》 1964년 10호).

교실 실태: 남조선에서 교실 부족은 《국민 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되고 있는 바 박 정희 자신도 《년두 교서》에서 《교실난 해소 문제는 교육 행정의 일대 과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괴뢰 정부는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교실 건축 9개년 계획》의 수립을 떠들었으나 이에 대한 자금은 한 푼도 없다. 생각다 못해 《교실 건축 9개년 계획》을 떠든지 3 개월 후에 가서 현행 《국민 학교》 6년제를 5년으로 줄이고 겨울 방학을 1개월 늘여 석탄 대금을 《절약》하는 등으로 교실 건축 재원을 마련해 볼 《구상》을 세우다가 《9개년 계획》의 첫 해를 보냈다.

《국민 학교》 교실 부족의 현황을 보면 정규 교실 부족이 1만 9,401 개이다. 현재 있다고 하는 교실도 수리해야 할 낡아 빠진 교실이 1만 4,438 개 (《한국 문화 방송》 1965년 3월 29일)이고 그 중 무너질 형편에 있어 당장 개선해야 할 교실이 7천 여 개 (남조선 《서울 방송》 1964년 8월 15일) 도합 4만 8백 여 개 교실이 부족 된다. 따라서 《국민 학교》들에서는 3부제, 4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5부제 수업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괴뢰 문교부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국민 학교》의 70%가 3부제 수업을 하고도 교실이 모자라 60 명 밖에 넣을 수 없는 교실에 140~180 명이나 넣고 있어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 있다.

새 학년도(1965—1966)에는 3부제, 4부제, 《야외 수업》으로도 부족하여 《세계에 류례 없는 5부제 수업》을 해야 할 학교가 서울에서만 하여도 1 9 개 학교나 된다(남조선 《매일 신문》 1964년 10월 7일).

교실난은 《국민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다름이 없어 배운다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지옥속의 말 못 할 고통으로 변하고》 있다.

교원 실태: 남조선에서 《교원은 물질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정신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 관계된 자

들의 갖은 간섭과 압력으로 극도로 위축되여 무기력화되여 버렸다》(남조선 《교육 신문》 1964년 10월 14일).

더우기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원이 부족해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범 학교와 사범 대학을 졸업한 수 많은 《자격 교원》들이 실업자의 대렬에서 헤매고 있지만 박 정희 도당은 《예산》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이런 실정을 돌보려 하지도 않는다.

강원도에서는 《국민 학교》 중 51%가 《복식 수업》을 하여도 교원이 모자라 《한 교원이 세 학급을 맡아 한 교실에서 배워 주고 있는 학급이 98 개나 된다》(남조선 《강원 일보》 1964년 5월 17일).

경상북도 내 《국민 학교》들에서는 담임 교원이 없는 학급이 2,000 여 개나 되며 충청북도 청주시 내 《국민 학교》들에서는 교원이 엄청나게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교원 없는 수업》을 하고 있다.

남조선의 중, 고등 학교들에서의 교원 부족 수는 괴뢰 문교부가 축소하여 발표한 바에 의해도 중학교가 7,339 명, 고등 학교가 4,381 명으로 모두 1만 1,720 명에 달한다(남조선 《국제 신보》 1965년 1월 28일).

기타 교육 시설의 실태: 남조선에서는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시설의 최소 절대량이 부족되여 분필만으로 매일 매시간을 보내고》 있다(남조선 《교육 신문》 1964년 10월 14일).

《교과서 없는 국민 학교 학생이 아동 전체의 55%》에 달하며 국민 학교에서 고등 학교의 졸업에 이르기까지 만 12년 동안에 실험관 한 번 만져보지 못 하고 기본 교육을 마치는 수가 많다》(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1월 20일).

부산시 내 중, 고등 학교들에서는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학생의 비률이 54.3%나 된다(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11월 12일).

또한 내부 시설마저 전연 보장되여 있지 않아 마산시 일대 《국민 학교》들에서는 추위가 심한 겨울에도 난로가 없어 불을 피우지 못한 교실이 76 개에 달하였다. 경기도 평택 종합 고등 학교에서는 농과 학생 100 여 명이 난로불도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고 수업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남조선 《동아 방송》 1964년 12월 12일).

이 밖에 《변소, 급수 시설, 운동장이 부족하거나 전연 없어서 아동들의 건강, 교육에 막대한 해를 가져오고 있다》(남조선 《교육 신문》 1964년 10월 14일).

【학원의 모리화, 진학난】 박 정희 도당은 1964년에 《교육 자치제》의 미명 하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부담을 일층 무겁게 하였다.

모리화: 새 학년도에 각급 학교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납금》과 각종 명색의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들씌웠는바 《공납금》으로만도 남조선 화폐 발행고의 30%에 해당하는 50 여 억 원을 받아냈다.

한 명의 신입생에게서 받아낸 《입학금》과 《수업료》만 하여도 중학교에서는 4,400 여 원, 고등 학교에서는 5,800 여 원이 되며 대학의 경우는 무려 1만 1,000 여 원에 달하였다. 거기에 교과서 값마저 전년보다 20~25%를 끌어 올림으로써 학생들에게 《실로 례년의 배에 가까운 학비》를 강요하였다.

또한 《수익자(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 부담 원칙 강화》라는 구실 밑에 종전보다 대학은 220%, 고등 학교는 38%, 중학교는 51%가 불은 재정적 부담을 더 지우게 되여 학생들에 대한 각종 부담금 징수 행위는 더 심해질 형편에 있다.

이 외에 각종 명목으로 들씌우는 잡부금이 수다하다. 《학생 회비》를 비롯하여 《과학비》, 《신문'대》, 《보건 체육비》, 《도서비》, 《과외 수업비》, 《기념품'대》, 《송별금》등 실로 그 종류는 부지기수이다.

특히 《중학교 이상은 지원 교육이라 하여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남조선 《령남 일보》 1964년 10월 2일).

진학 상태: 미취학 아동이 해마다 늘어 1964년에는 무려 100만에 달하고 있다.

1964년에 《국민 학교》를 졸업한 아동들 중 웃 학교에 가지 못 한 수는 전년 보다 12%가 증가한 30 여 만명에 달한다.

중학교의 진학률은 61.8%, 고등 학교의 그것은 27%이다(남조선 《국제 신보》 1964년 2월 22일, 2월 24일).

재학생들 중에서도 엄청난 《공납금》을 물 길이 없어 수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못 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공립 중, 고등 학교 학생 8만 106 명 가운데서 무려 8천 여 명이 학기말 《납부금》을 내지 못해 9월 1일부터 일제히 《휴학》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내 각 대학에서는 2학기 평균 《등록률》이 40%에 불과하였다(남조선 《라지오 서울 방송》 1964년 9월 4일).

언론 출판

박 정희 역도는 1964년 1월 10일에 발표한 《년두 교서》에서 이른바 《민주주의적 국가 정치 운영의 중요 조건》으로서 파쑈적인 《언론의 자률화》(자률적인 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이 《자률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6.3 사태》를 계기로 하여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앞서 1월 10일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시행령》, 2월 7일 《방송법 시행령》등 포악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폭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문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과 테로 폭

행을 더욱 란폭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언론 탄압 책동은 반미 구국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인민 대중의 억센 항거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 탄압】 박 정희 괴뢰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 기세를 꺾는 방도로서 1964년에 학생 탄압의 강화와 아울러 언론 출판에 대한 파쑈적 통제를 강화하고 량심적인 언론인, 특히는 신문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와 체형을 가하는 만행까지 감행해 나섰다.

박 정희 도당은 괴뢰 군경을 사촉하여 3월 24일 법학 대학과 연세 대학 두 곳 입구에서 취재 중인 《동아 일보》 기자들에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3월 26일과 27일의 《한국 일보》 기자에 대한 폭행, 3월 30일 《경향 신문》 기자에 대한 폭행, 4월 20일과 21일의 《경향 신문》과 《조선 일보》 기자들에 대한 집단 폭행 등 련속적인 집단 폭행 사건을 빚어 냈다.

나아가 박 정희는 4월 22일 괴뢰 국무 총리에게 보낸 《훈령》 가운데서 언론과 보도들에 대하여 《랭엄히 추궁》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임무》라고 폭언을 늘어놓아 괴뢰 군경의 집단 폭행을 고무 추동하고 언론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6월 3일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언론 출판을 전면적으로 군사적 통제 밑에 집어 넣은 괴뢰 도당은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동아 방송국》 등을 습격하여 신문 기자들을 검거하고 《반공법》 및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6월 12일 박 정희는 《신문 발행인 협회》와 《편집인 협회》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6.3 사태에 대해 《특히 언론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해 나섰고 이에 뒤'이어 23일에는 《사이비 언론인의 비행을 뿌리째 뽑겠다》고 하는 복수심에 가득찬 괴뢰 공보부 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였다.

한편 《민주 공화당》은 박 정희의 지시에 의해 조작한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7월 30일 괴뢰 국회에 제출, 8월 2일 강압 통과시켰으며 5일 괴뢰 정부는 이를 공포했으나 남조선 인민들과 일선 취재 기자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말썽을 두고 맞서 오던 끝에 결국 9월 9일 《언론 륜리 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파쑈적 행로 가운데서 괴뢰 정부는 또한 수다한 《필화 사건》을 만들어 냈는바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향 신문 〈설문란〉 필화 사건》: 5월 12일부 《정 내각에 바라는 민성》이란 제목의 독자 투고에서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 대책 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한에서는 실업자에게 일터도 준다니》라는 구절이 법에 저촉된다 하여 5월 18일 서울 형사 지방 법원에서 《경향 신문》 편집 국장, 부국장을 비롯한 기자 7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황 룡주 필화 사건》: 종합 잡지 《세대》 1964년 11월 호에 실린 《강력한 통일 정부에의 의지》란 글이 11월 10일 괴뢰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한 건수 (민주당)에 의해 《국시에 위배되는 용공적 발언》이라고 고발되여 립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에까지 간섭해 나서면서 집필자의 구속을 강요, 서울 지방 검찰청은 집필자인 《문화 방송 주식 회사》 사장 황 룡주를 《반공법》 제 4조 1항 《반국가 단체를 고무 찬양》한 죄를 뒤켜 씌워 구속 기소하였다.

《조선 일보 필화 사건》: 11월 21일부 제 1판 제 1 면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정부 해외 공관 보고 접수》란 제목하에 《아. 아. 그룹에서 탄트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반공법 위반 및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 위반(허위 사실 보도)이라하여 편집 국장과 정치부 기자 1 명이 중앙 정보부에 부뜰려가고 괴뢰 경찰국은 이날 지방판을 압수하였다.

【언론의 움직임】 남조선에서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은 《언론의 자률적인 규제》라는 명목 하에서 현행 괴뢰 통치와 《반공》 선전에 복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억센 투쟁이 강화되여 감에 따라 남조선 출판물들은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 하여 1964년에 남조선의 출판물들에서는 주객관적인 제한성과 제약성을 가지면서도 계기 마다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론의가 구비쳤고 언론의 움직임에서 주류로 되였다.

학생들의 3. 24—6. 3 애국 투쟁을 다룬 보도의 추세와 도꾜 올림픽 기간에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더욱 높아진 조국 통일에 대한 목소리는 이 해 남조선 언론의 지향을 말하고 있다. 10월 2일 밤에 있은 《올림픽을 회고하여》라는 방송 좌담회는 《북조선과 유일 팀을 구성하여 출장하였더라면…그것은 민족의 기쁨으로 되였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통일에 대한 수단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 일보》는 10월 27일부터 《우선 길을 터 보아야 한다—통일과 남북 교류와 주체성》이라는 제목 밑에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련재 특집 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이 날 특집에서는 《통일에의 론의를 〈터부〉(금지)로서 돌려 놓는》 괴뢰 통치 배들을 규탄하고 《통일의 길》에 대한 숨김 없는 의견을 투고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모아 민중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얻어 통일에서 길잡이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라는 독자에게 알리는 말을 실었다.

이밖에 통일에 대한 론의를 군중화하려는 지향은 다른 신문 론조들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10월 29일 괴뢰 정부와 《공화당》간부 련석 회의에서는 팽배하여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여론을 억제하려고 박 정희 직속하에 《통일 문제 연구소》를 설치할 흉계를 꾸민 데 대해 《경향 신문》은 《통일은 민족의 문제이지 한 정권의 리해 문제가 아니다》라고 통렬히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퍼져간 각종 통일 론의는 《황 룡주 필화 사건》, 《조선 일보 필화 사건》등 거듭되는 폭압 조치와 부딪쳤으나 《황 룡주 필화 사건》 발생 직후인 11월 7일의 《조선 일보》는 사설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국가의 힘〉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 어떤가는 다름 아닌 정치적 지도 능력에 달려 있다》고 론하면서 박 정희 괴뢰 정권의 반동성을 폭로하여 맞서 나섰다.

【정기 간행물에 대한 파쑈적 탄압】 괴뢰 정부 공보부는 1월 10일 공포한 《신문, 통신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휘둘러 1964년에 4 차에 걸쳐 정기 간행물 84 종을 강제 폐간시키고 31 종에 정간 처분을 내렸다.

1964년 간행물 탄압

	주간	월간	기타	계
◇ 폐 간				
1 차(7.25)	3	23	—	26
2 차(10.8)	5	15	3	23
3 차(11.1)	…	…	…	18
4 차(12.1)	1	16	—	17
계	9	72	3	84
◇ 정 간				
1 차(7.25)	…	…	…	18
2 차(10.8)	2	11	—	13

주: 4차 정비의 등록 취소 월간 수에는 반월간 1종과 격월간 1종을 포함함.

문화 유물

1963년 현재 괴뢰 정부 《지정 문화재》는 《국보》 116 점, 보물 386 점, 사적 121 점으로 도합 623 점에 불과하다.

8. 15 후 미제와 괴뢰 도당에 의해 남조선에서 허다한 문화 유물들이 해외로 흘러 나갔고 유실, 파괴, 손상되였으며 도난 당했다.

괴뢰 국회 1964년 2월 7일 본회의의 《정책》 질문에서 야당 의원은 8. 15 후에 없어진 고려 자기, 리조 자기 등 《국보》적 골동품 4천 점(2억 원)의 행방과 《국보 전시》라는 명목으로 《국립 박물관》장이 구미 각국을 돌아 다녔을 때와 미국 《귀빈》이 남조선에 기여 들었을 때마다 선물로 준 문화 유물의 명목을 밝히라고 괴뢰 문교부 장관에게 대들어 소동을 일으켰다.

괴뢰 정부 문교부 문화재 관리 국장, 관리 과장, 관리 계장들은 서로 결탁하고 경주시 암곡리에 있는 문화재 보호 국유 림야 400 정보를 팔아 넘겼으며 경주 지방 법원은 불국사의 이전 주지가 진 15만 원의 빚 대신으로 이 절의 종각을 차압하게 하는 따위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박 정희역도는 고귀한 민족 문화 유산의 보존이란 뜻에서가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 들여 외화를 번다는 투기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고금 2,200만 원과 3 년이란 세월을 허비하면서 내깔려 두었던 석굴암의 원상 회복 《공사》라는 것을 벌려 왔다. 그러던 끝에 1964년 7월 1일 준공식을 하고 공사의 《중앙 감독》을 담당했던 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까지 주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보존불의 대좌와 그 후면에는 물'기가 서리고 공사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이 흘러 나리게 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상장》을 받은 《중앙 감독》은 《동해 바람에 가득 차 있는 습기가 암자 안의 찬 벽에 부딪쳐 액화한 것》이라고 변명, 또 한 사람의 《중앙 감독》은 《원상 복구란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아예 외면을 했고 《문화재 위원회》 위원장이란 자는 《습기 제거는 애당초 원상 복구 공사의 목적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내뱉고 있어 사람들을 분격케 하고 있다.

문학 예술

1964년에 남조선 문학 예술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발악적인 폭압 하에서 더욱더 침체와 퇴폐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갔다.

매국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작가,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청년 학생들의 3. 24—6. 3 투쟁이 일어나자 당황한 박 정희 도당은 《계엄령》을 실시하고 문학 예술 활동을 파쑈적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6. 3 투쟁 이후 괴뢰 공보부는 《사전 검열》 제도를 강화하고 남조선 문학 예술에서 진보적 경향의 작품에 대하여서는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체 작품들에 대하여 혹독한 칼질을 들이 댔다.

잡지 《사상계》 1964년 7 호와 8 호만 보더라도 괴뢰 공보부 검열에서 문학 월평 원고가 걸리여 남조선 사회 현실의 부패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에 대한 평론 부분이 전부 뜯기우고 온통 누더기가 된채 발행되는 참화를 겪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영화 《7인의 녀포로》(《합동 영화 배급사》 제작)의 필림을 압수하고 감독자인 리 모를 《반공법》에 걸어 체포하였으며 방송극 《송아지》의 작가(《대전 일보》 편집 부장)를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라는 《죄명》을 씌워 체포 구금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가혹한 탄압 조치로 말미암아 1964년은 4. 19 이후 량심적인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세력으로서 진출한 진보적 경향의 문학 예술에 있어서 일찌기 없었던 시련을 겪은 한 해였다.

한편 1964년에 박 정희 도당은 미국과 서구라파에서 퇴폐적인 부르죠아 반동 문예 조류를 더욱 악착스럽게 끌어 들이고 조장시킨 결과에 남조선 문학 예술계는 말세기적 추악상을 더한층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은 매국적인 《한일 회담》을 더욱 발악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일본의 퇴폐적인 반동 문학 예술까지 공개적으로 끌어 들이였다.

그리 하여 남조선 문학 예술에서 식민지적 풍조는 극도에 달하여 《위로는 외국 사람 눈치 보느라고 소신을 제대로 못 하는 정객들이 우글우글한가 하면 그 배후에는 미국 〈딸라〉를 업고 벼락 부자가 되는 매판 재벌이 있고, 밑으로는 왜곡 음판(왜놈의 음악)에 한국 가사를 집어 넣은 〈음악〉이 다방을 들뜨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영화관에 나타나는 〈사극〉(력사극)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나 미국의 〈카우 보이〉(미국 서부 지방의 란폭한 소몰이'군) 처럼 그린 것이 허다하게 있는 등… 구석구석으로 뻗어 났다》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1월 19일).

【문학】 남조선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주의, 형식주의 사조들은 박 정희 도당이 조장시키고 있는 현대의 가장 반동적인 문예 사상인 실존주의와 결합되면서 이 해에 더욱더 그 추잡상을 드러냈다.

이 해의 남조선 반동 문학의 주제에서는 《반공》 사상의 고취, 허무와 절망, 패배주의와 색정주의의 설교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비하여 그 주제의 반인민성과 반사실주의적 본질이 더욱 심화되였다.

반동적 주제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존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공포와 죽음에 대한 설교이다.

단편 소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현대 문학》 1964년 8호), 단편 소설 《탁 장의사》 (卓葬儀社) (《현대 문학》 1964년 11호) 등에서는 인생의 《부조리》 (不調理)와 죽음의 례찬을 설교하고 있으며 단편 소설 《기만자》 (《현대 문학》 1964년 8호)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반동적 사조가 극에 달하여 작자는 주인공의 입을 빌어 《자살을 감행할 수 있는 자야 말로 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대우주까지도 송두리째 지배해 버리는 자일 것》이라고까지 떠벌리고 있다.

이 해의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는 또한 색정주의가 더욱더 추잡한 몰골을 하고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와 외부딸과의 불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단편 소설 《이 엄청난 집념》 (《현대 문학》 1964년 7 호), 로처녀의 색정 행각을 묘사한 《베온사인》 (《현대 문학》 1964년 7 호), 녀성들에게 색정을 일으키게 하는 이상한 체취를 풍긴다는 사나이를 꾸며 내여 인간의 동물성을 설교하고 있는 《냄새 나는 사나이》 (《현대 문학》 1964년 10 호) 등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색정주의가 판을 쳤다.

더우기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색정주의는 불안과 절망과 죽음을 례찬하는 실존주의와 결합되면서 더 한층 말세기적 추악상을 연출하였다. 그러한 것은 단편 소설 《상담》 (嘗膽) (《문학 춘추》 1964년 8호)에서 사내들과 술집에 드나들고 마음 내키면 동침도 하는 음탕한 인테리 로처녀로 하여금 《나의 모랄은 나다. 나는 결코 인간 사회의 구성권에 예속될 수는 없다…나의 사고는 결코 외곡된 것은 아니며 나의 행위 또한 도락은 아니다. 나에게는 필연 욕구이다. 절실한, 절실한 소망을 이루고자 나는 방황한다》고 웨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 해에도 박 정희 도당의 사촉 밑에 남조선의 일부 반동 작가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깎아 내리며 터무니 없는 중상과 비방을 늘어 놓으며 《반공》을 선전하는 《벽돌집》, 《살모사》, 《김과 리》 등 악질적인 그나마 유치하기 그지없는 잡문들을 날조해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년간에 남조선의 《반공》 문학에서 나타난 특징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로골적으로 날조한 직선적인 《반공》 문학만으로는 4. 19 이후 정치적으로 급격히 각성된 남조선 인민들을 우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수'법으로서 허무주의 사상과 색정주의를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반공》 문학을 《윤색》하고 있는 것인바 단편 소설 《김과 리》 (《현대 문학》 1964년 3 호) 따위가 그것이다.

이 해에 남조선 반동 작품들의 가일층의 퇴폐 타락은 또한 그 표현 방법과 묘사 수'법에서의 특성에서도 나타났다.

즉 지난 시기 자연주의 수'법에 의거하여 허무주의, 색정주의, 《반공》을 고취하였다면 최근 시기에 와서는 그것이 점점 더 형식주의—전후 프랑스의 퇴폐적 형식주의 소설 류파의 하나인 《앙띠 로망》 (반소설)의 모방에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문단에서는 이 해에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량심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려는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이 비록 량적으로 많지는 못 하나 계속 창작 발표되였다.

단편 소설 《부주 전 상서》 (《사상계 1964년 6 호), 풍자시 《비닐 우산》 (《사상계》 1964년 10 호), 단편 소설 《속 애국자》 (《사상계》 1964년 9 호), 콩트 《내핍 생활》 (《전남 일보》 1964년 6월 4일) 등 다양한 주제 령역에 걸쳐 박 정희 도당의 부정 부패와 반인민적 시책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

특히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인 《한일 회담》 책동을 반대한 시 《우러러 하늘을 보라》 (《대전 일

보》 1964년 2월 12일)에서는 《간악한 왜놈으로 하여 강토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 불의들,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우러러 저 하늘을 보라,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흉책을 배격, 규탄하고 있다. 시 《4. 19에 붙여》(《경향 신문》 1964년 4월 18일)에서는 박 정희 도당의 부정, 부패, 매국 행위를 폭로하면서 그의 타도를 위한 새로운 항쟁에로 인민들을 부르고 있다.

《오늘 여기 제 3 광장,
그 날의 피가 스미여 심은
〈자유라는 나무〉는 자라지 않고
혁명을 표절 당하고
배 고픈 우리들의 코 밑에
어디선가 부패의 냄새가 풍겨 온다.
그것은 누구의 것일가?
유혹, 몰살, 강도 이것은
신악이라는 것일가?
…
아, 그러나 저기
푸른 하늘을 이고 밀려 오는
4. 19의 행렬!
나도 나팔수처럼 눈물 흘리며
몇 마디 말을 하고 싶고나》

라고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다.

【영 화】 이 해 남조선 《영화계는 영화 산업의 위기, 영화법을 둘러싼 아귀 다툼, 해족판(민족을 모독한 작품)의 횡행, 청춘 영화의 범람 등으로 무법과 혼란의 한 해》(《한국 일보》 1964년 12월 17일) 속에서 침체와 타락의 구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었다.

1964년에 만들어진 영화들에서는 의연히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며 그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는 색정주의 독소가 판을 쳤다.

《밤이 그리워》, 《육체의 문》, 《육체의 고백》, 《위험한 육체》, 《동굴 속의 애욕》 등 그 제목만 보아도 구역질이 나는 추잡한 것들이다.

더우기 이 해에 들어 와서 남조선 영화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색정 영화들이 그러한 것처럼 점점 더 심하게 라체의 녀배우들을 상품처럼 내 놓는가 하면 색정주의와 실존주의가 결합되여 그 타락하는 모습이 더욱더 악랄해지고 (영화 《목요일에 만납시다》) 있다.

또한 《영화 마마》, 《가야금》, 《안시성의 꽃송이》 등 소위 사극 영화들에서는 력사적 진실을 외곡하고 렵기와 도색으로 엮어 놓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고상한 륜리 도덕과 애국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를 중상 모독하며 《반공》을 선전하는 《추격자》, 《국경선》, 《남과 북》과 같은 악질적인 영화들도 의연히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정희 도당은 미국과 서구라파 나라들에서 《황금 벌판의 혈투》, 《악화원》, 《뛰여든 불장난》 등 한결 같이 동물적인 욕정과 범죄에로 이끄는 도색, 렵기 영화들을 100 편 이상 수입하여 남조선에 범람시켰다.

이 해의 남조선 영화계에서는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인 《한일 회담》 책동에 편승하여 일본의 퇴폐적인 영화들이 더욱 공공연히 나돌았으며 일본 영화와 도색 소설들을 표절하는 행위가 더욱 우심해졌는데 그 비중은 남조선에서 만든 영화 수의 70%를 넘었다.

【연 극】 박 정희 도당의 억압과 천시로 인하여 남조선 연극은 《그 내용이나 양식 면에서 생매장을 당해 온 것이 분명하다》(《부산 일보》 1964년 12월 10일).

이 해에 전문 연극단에서는 통털어 5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뿐이다. 전문적인 직업 극단으로는 소위 《국립 극단》과 민간 단체인 《신협》이 있을 뿐인데 《국립 극단》은 20 명도 못 되는 배우를 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보잘나위 없는 것이고 《신협》은 《한국 일보》라는 신문사의 후원을 받는 일종의 전속 극단으로 영화 출연을 겸한 10 여 명의 배우를 망라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밖에 영화 배우들이 모여서 부업으로 이 해에 《현대 극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었으나 《창립 공연》을 한 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연극을 공연하는 상설적인 극장도 《국립 극장》(800 석)과 《드라마 센터》(550 석)라는 것이 있으나 《드라마 센터》는 연극 공연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 《쑈단》에 빌려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해에 전문 극단에 의하여 상연된 5 편의 연극도 그 중 2 편은 번역극이고 나머지 3 편의 창작극이란 모두가 저속한 신파가 아니면 말초 신경이나 자극하는 퇴폐적인 것이였다.

최근 시기 남조선 연극에서는 주제 선택에서 색다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전에는 주로 도시 소시민이나 상류 계층의 부패한 생활을 통하여 색정과 허무주의를 설교했다면 최근 특히 이 해부터는 그 주제 령역이 도시로부터 농어촌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연극 《만선》, 《무지개》 등에서와 같이 농어민들의 생활을 취급하면서도 그것을 동물적인 욕정과 무지, 숙명적인 허무감 속에서 묘사함으로써 진실한 생활에 침투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밖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하며 《반공》과 종교적 신비주의를 선전하는 연극 《순교자》가 《국립 극단》에 의하여 상연되였으나 관객이 없어 걷어 치우고 말았다.

【음 악】 1964년에 남조선 음악계는 더욱 우심해진 쟈즈의 광란으로 퇴폐와 타락의 식민지적 풍조를 질게한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박 정희 도당은 이 해에도 여러 개의 미국 쟈즈 악단을 끌어 들였으며 미 8 군에 소속된 《쑈단》들을 통하여 광란적으로 쟈즈 음악을 류포시켰다. 그리하여 이 해의 남조선 가요계에서는 《아리

랑 맘보》, 《도라지 맘보》 등 우리 민요를 쟈즈화한 괴상한 노래들과 함께 《총각 김치》, 《래일 또 만납시다》, 《맨발의 청춘》 등 퇴폐적인 쟈즈풍 류행가들이 만연되였다. 광란적인 쟈즈풍의 범람은 《쑈단》들의 이름부터 《김치. 캐츠》, 《패티 김》, 《로라 성》, 《모니카 류》 따위의 외래식 투를 따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에서 소위 《고전》 음악은 이 해에도 침체 상태의 한계를 벗어나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교향악 부문은 《서울 방송 교향 악단》과 《시립 교향 악단》에 의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연주 수준은 《성과를 운위하기 전에 교향악 운동이 이래서 좋은가 하는 심각한 의혹을 촉발》시키고 있을 뿐 시민들은 《서울 방송 교향 악단의 무기력과 시립 교향 악단의 마구 해치우는 식의 연주 습성은 얼마나 계속하면 끝이 나는 것인가?》 (남조선 《한국 일보》 1964년 7월 28일) 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극 부문에서는 유일한 존재인 《국립 오페라단》(기본 성원 20 여 명)이 겨우 한 번의 공연을 하였을 뿐이였다.

민족 음악의 상태는 참혹하다. 이 해에 《국악(민족 음악) 관현 악단》이라는 것이 창립되여 그 첫 창립 공연을 가졌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체 연주 곡목 12 개 중에서 겨우 2 개 만이 관현 악이나 이를 어찌 국악 관현 악단의 공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고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4년 9월 17일)가 혹평한 정도로 한심하였다.

남조선 음악계를 두고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의 퇴폐적인 류행가들이 박 정희 도당의 비호 밑에서 홍수 처럼 범람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류행가의 축음기판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가사만 슬쩍 조선말로 옮겨 놓은 것, 멜로디나 가사를 표절하여 작곡, 작사한듯이 날조한 것 등이 홍수 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카시아에 보슬비 내리는 밤》 같은 것은 가사 1 절은 일본말, 2 절은 조선말로 엮고 있다.

【무 용】 1964년의 남조선 무용계는 의연히 절망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다.

이 해에 남조선 무용계에서는 창작 무용으로서 《국립 무용단》이 내놓은 색정적인 내용을 가진 《푸른 도포(道袍)》와 《환상 발레》 등 두 편의 스꼣취가 공연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민족 무용 기'법과 서구식 발레 기'법이 혼합된 해괴 망측한 것이였다.

남조선 무용계에서는 《민족 무용의 현대화》라는 미명 밑에 전통적인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을 모주리 파괴해 버리고 있다.

《코리안 발레》 라는 춤에서는 《중머리》, 《휘머리》 등 민족 음악 장단과 《도라지》, 《양산도》 등 우리 나라 민요를 비속하게 《현대화》하고 그 가락에 맞추어 녀배우들이 빨간 《타이쯔》에 색동 저고리를 입고 엉덩이를 흔들며 돌아가는 것으로써 무용을 《현대화》시키고 있다.

이 해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에서 흘러 들어온 《트위스트》라는 온 몸을 비비꼬며 발광적으로 돌아치는 색정적인 춤이 극장과 거리, 지어는 해수욕장에서까지 광란을 일으켰다.

【미 술】 1964년에 남조선 《문화 예술계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미술계도 추진성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전(《대한 미술 전람회》)은 한 해의 미술을 명목상 대표하는 전국적인 <쇼> 로서 13 회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이 행사는 《심사 위원》의 자리를 둘러 싸고 개싸움을 벌린 끝에 《그 운영 자체에 말썽이 커졌다》 (《부산 일보》 1964년 10월 15일). 그것은 남조선 미술계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그 가치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심사원이 누구의 작품을 보아 주느냐에 따라서 홍정되기 때문이다.

남조선 화단에서는 《자아 관념》에 토대한 《잠재 의식》의 개방에 의하여 그려진다는, 무슨 그림인지 화가 자신도 리해 못 하는 《추상화》가 류행하였고 《작품 №-62》, 《작품 A-64》 등이 소위 《성과작》으로 행세하여 왔다.

그러나 1963년 《국전》에서 《추상화》가 출품 작품의 80% 이상을 차지했었다면 1964년의 《국전》에서는 《구상화》가 《추상》, 《반추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차지했다. 이 해의 《국전》에서 《추상화》보다 《구상화》가 우세를 차지한 데는 심사 위원 선발 싸움에서 《구상파》가 《승리》하여 다수를 차지한 데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의 화가까지도 《심사 위원의 분포도에 따라 작가의 화풍이 추상에서 구상으로 하루 아침에 바꾸어져야 하는 우리 나라 화단의 앞길이 암담하지 않은가?》 (남조선 《부산 일보》 1964년 10월 15일)라고 통탄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

현재 일본에는 60여만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제 로동에 끌려 갔거나 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살'길을 잃고 일본으로 류랑한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 갔거나 류랑하여 간 조선 사람은 500여 만 명이나 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전시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전시 징용 제도》를 실시하고 334만여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전선 로무자로 투입하였거나 일본으로 끌어 갔다. 그들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9년부터 1945년 간에 연 115만여 명을 일본으로 끌어갔다. 일제는 이렇게 끌어 간 조선 사람들을 례외 없이 탄광, 광산, 토목 공사장, 군사 시설 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 부문에 투입하였다. 일본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동 재해가 가장 심하던 일본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40만 명의 조선인 로무자가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 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가하였다.

일제는 일본에서 지방 경찰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소위 《협화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들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하여 사소한 언행에 대해서도 트집을 걸어 검거 투옥하였다. [illegible]에만 하여도 일제는 《치[illegible]》, 《공무 집행 방해》 [illegible] 죄명을 씌워 재일 조선인 [illegible] 9,468 명이나 검거 투옥[illegible]

이 뿐만 아니라 일[illegible] 루차에 걸쳐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을 조직하였다.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 시에 일제는 군대와 경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도꾜와 그 부근에서만도 6,600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일제는 재일 조선인들을 탄광, 광산들에서 참살하는 것을 례상사로 삼았으며 군사 시설 건설에 동원되였던 조선 로무자들을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로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1938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에 홋까이도 탄광들에서 830여 명이 학살된 것을 비롯하여 1940—1944년 간에 일본 전국 탄광에서 6만여 명의 조선 로무자들이 학살되였다.

일제는 구릴 렬도의 《가시마구미》에 동원되였던 5,000여 명의 조선인 로무자들을 참살하였으며 에무지섬에서도 2,500 명의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재일 조선인들에게 가한 학대와 살인 만행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오늘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악독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간신히 살아 남은 사람들이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재일 조선인들은 당당한 독립 국가의 공민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외국인으로서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에 비추어 또한 그들에 가한 저들의 죄행에 비추어 재일 조선 공민들을 응당 보호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 점령 미군 당국과 야합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학살을 비롯하여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계속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8.15 패전 직후에 일제 잔당들은 미에현, 지바현, 교도부, 아오모리현, 홋까이도, 도꾜도,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후꾸시마현, 도야마현 등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들을 학살하였다. 1945년 8월 24일 일본 해군 당국은 홋까이도 탄광들에 강제로 끌려갔던 3천 735 명의 조선 로무자들을 기만과 공갈로 수송선 《우끼지마마루》에 태운 후 선박을 폭파시켜 학살하였다.

그 후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관하게 미제와 공모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민족적 차별과 압박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그들은 무장한 경관대들을 대량 동원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부락과 기관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며 재물을 탈취하는 한편 수많은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에 강제 추방함으로써 괴뢰 도당으로 하여금 살해케 하는 범죄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 당국은 1949년 9월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재일 조선인 련맹과 재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강제 해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이에 앞서 1948년에는 《교육 탄압 사건》을 도발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조국의 력사, 지리 등을 배워 주기 위하여 설립한 각급 조선인 학교들을 강제 폐쇄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국적을 남조선 괴뢰 도당의 《국적》으로 변경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외국인 등록령》을 악용하여 1947년 부터 1963년 말까지 20여만의 재일 조선 공민들을 검거 투옥하고 각종 형벌에 처하였는바 이들로부터 빼앗은 《벌금》만도 4억원이나 된다.

1962년에 일본 경찰 당국은 하등의 리유 없이 150여 명의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이바라기 조선 중 고급 학교를 습격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과 1963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총련 쯔시마 본부를 비법적으로 습격 수색하였다.

일본 당국은 총련 기관에 대한 계속적인 정탐 행위와 총련 간부들에 대한 미행, 인권 침해, 암해, 모략 책동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로부터 토지 소유권, 광산권, 선박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1964년에도 재일 동포들에 대한 살상, 폭행, 인권 침해 사건은 판명된 것만 해도 30여 건에 달하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소위 《재일 조선 공민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괴뢰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함으로써 더욱 박해를 가하려고 책동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하여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각종 사회 보장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에서도 종체로 재일 [illegible]선인 학교의 법적 인가를 [illegible]으며, 재일 조선인 고등 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로 막는 등 각종 [illegible]책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illegible] 내외의 여론이 비등되[illegible]에도 불구하고 재일 조선 [illegible]의 자기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를 보장할 데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1964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비법적인 박해와 탄압을 강력히 반대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며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총련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7.10)하여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살상, 폭행 등 모든 박해와 총련 기관들에 대한 습격, 모략 등 일체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한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앞으로 더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4년에도 재일 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원조하기 위하여 세차례(4월, 7월, 11월)에 걸쳐 8억 670만 원(일본 화폐)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었다.

1957년 4월부터 1964년 11월까지에 보내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열 여섯 번에 걸쳐 총액 57억 121만 6천 551 원(일본 화폐)에 달한다.

5월 1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제 7 차 전체 대회를 앞두고 총련 지도 일'군들과 상공인들에게 훈장(국기 훈장 2급 4 명, 국기 훈장 3급 20 명, 공로 메달 134 명)을 수여하였다. 이리 하여 지난 5년 동안에 1, 300여 명이 국기 훈장 1급을 비롯하여 각종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또한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를 축하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축전을 비롯하여 수 많은 축전, 축하문, 축기들과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 주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 시책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64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공화국으로의 귀국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1964년 한해 동안에 8 차에 걸쳐 1천 673 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리 하여 1959년 12월 16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4년 말까지 121차에 걸쳐 도합 8만 2,665 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귀국하였다. 귀국자들 중 95.5%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며 2,400여 명은 일본 사람이다.

공화국 정부는 귀국 동포들에게 그들의 희망과 기술 기능에 따라 공장,기업소, 협동 농장과 과학, 문화, 보건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일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과학자들은 과학 기관들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모든 연구 시설들과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다.

또한 전체 귀국자의 37%인 3만여 명을 각급 학교에 보내여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었는바 그들은 국가로부터 의복, 학용품을 공급 받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

고 있다. 모든 귀국 동포들에게 문화적인 주택과 일체 살림살이를 마련하여 주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게 하였으며 무상 치료와 사회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일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년로자 수백 명이 양로원에서 국가 비용으로 부양을 받고 있다.

귀국 동포들은 정권 기관, 각 사회 단체를 비롯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고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 동포들은 해마다 국가의 각별한 배려를 받아 각지 휴양소에서 휴양하며 각지를 견학한다.

1964년 한해 동안에만도 1,700여 명이 휴양 생활을 하였으며 1천 800여 명이 중앙에서 조직한 관광 및 견학에 참가하였다.

1963년 12월 3일에 진행된 공화국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에서는 919 명의 귀국 동포들이 대의원(도, 직할 시 대의원 70명, 시, 군, 구역 대의원 372 명, 리, 읍 대의원 477 명)으로 선거되였다. 이리 하여 1962년 10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3 명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귀국 동포들이 각급 주권 기관 대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귀국 동포들이 중공업, 경공업 등 각 부문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고 있다.

오늘 전체 귀국 동포들은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또한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렬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

1964년 말 현재 천리마 기수의 칭호를 받은 귀국 동포들의 총수는 2천 5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2중 천리마 기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1천 500여 명에 달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귀국 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귀국 동포들에게 로력 영웅 칭호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1964년 말 현재 로력 영웅을 비롯한 국기 훈장, 메달 등 수훈자의 총수는 2,568 명에 달하며 114 명의 귀국자들이 내각 수상 표창장을 받았다.

1964 년 총련의 애국 사업

1964년에 총련 일'군들과 전체 재일 동포들은 공화국 정부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특히 김 일성 원수의 신년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총련 중앙이 제기한 1964년도 중요 여섯 가지 과업—의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정신으로 총 단합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 조국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며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 사업 강화, 미제의 사촉 밑에 감행되는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며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과 국제적 련대를 일층 강화,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을 확대 강화, 총련 조직의 확대 공고화 등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힘차게 궐기해 나섰으며 높은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다 발휘하였다.

1964년 2월에 진행된 총련 중앙 위원회 제 33 차 회의를 비롯하여 5월에 있은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11월에 있은 총련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그리고 총련의 일곱 개 현 본부들에 대하여 조직한 집중 방조 사업 등은 총련의 애국 사업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제 7 차 전체 대회는 지난 3 년 간의 총련의 제반 애국 사업을 자랑차게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총련의 애국 사업 발전과 재일 동포들의 생활에서 일대 개변을 가져 오는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또한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사업 성과로써 맞이하였으며 올림픽 도꾜 대회와 관련한 조선 선수단 환영, 환송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총련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 행정을 통하여 1964년에 제기한 중요 여섯 가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총련 조직 대렬의 확대 공고화와 간부 일'군들의 학습 강화]

1964년에 총련 중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총련 단체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크게 힘을 돌렸다.

총련 간부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원칙적인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를 조직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급 기관 일'군들을 단련되고 세련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기관 운영에서 집체성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한층 높이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64년에 중앙 학원과 지방 학원, 통신 교육을 통하여 수 많은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총련 조직 대렬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총련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사업 방법을 산하 조직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매월 하부 지도 사업을 정상화하고 3 차에 걸쳐 7개 현 본부 사업을 지도 방조한 결

과 하부 조직들의 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이 현저히 개선 되였다.

총련은 분회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회 일'군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모범 분회》 창조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진행하였다.

1964년 말 현재 《모범 분회》 창조 운동에 참가한 수는 655 개에 달하며 도꾜 마고메 《2중 모범 분회》를 비롯하여 3 개의 《2중 모범 분회》와 75 개의 《모범 분회》를 꾸렸다.

총련은 각계 각층 동포들을 총련 조직에 집결시키기 위하여 산하 단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새로 수 많은 동포들을 산하 조직에 망라시켰다.

조선 청년 동맹을 비롯한 산하 단체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사업에서 군중 로선이 확립되였다.

특히 총련은 내외 반동들의 반공, 반조선, 반총련 깜빠니야 책동을 신랄히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통하여 그 대렬이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는 사업】 총련은 1964년에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이 해에 재일 조선 공민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민족적 권리인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재일 동포들은 《그리운 조국 산천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 《오래'동안 헤여져 있는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자기들의 절절한 심정과 념원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인민들에 대한 선전 및 지원 요청 사업, 서명 운동, 일본 정부에 대한 요청 활동 등 모든 애국적 열성을 다하였다.

1964년 12월 말까지 일본 각지에서 7 차의 통일 행동을 전 동포적으로 조직 진행하였으며 2천 600여 만 부에 달하는 막대한 각종 선전물을 일본 인민들에 배포하였다. 또한 1천만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서명 운동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이해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오사까—도꾜 간 요청 행진에는 무려 15만 7천여 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여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들을 박차고 근 2천리'길을 행진하였다. 재일 동포들은 행진 과정에 1 개 도, 2 개 부, 5 개 현과 37 개 시 및 52 개 정, 촌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각 지방 자치체 당국과 각계 각층 인민들에게 절박한 인도상 문제인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래왕의 자유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 당국에 대중적으로 요청하는 행동도 강력히 전개되였다. 1964년 1년 간에 일본 각지 동포 1만 여 명이 도꾜에 찾아가 조국 왕래의 자유를 즉시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 관계 당국에 직접 요청하였다.

조국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은 전체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들과 전 세계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1964년 3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할 데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지체 없이 실현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조속히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본 공산당, 사회당, 로동 조합 총평의회를 비롯한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광범한 사회계, 언론계, 각계 각층 일본 인민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절박한 요구의 즉시 실현을 주장하여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였다.

특히 도꾜도 의회를 비롯하여 27 개의 도, 도, 부, 현, 412 개의 시, 582 개의 정, 촌 등 일본 인구의 85%를 망라하는 1천 21 개의 지방 의회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의 요구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그것의 조속한 실현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세계 직련, 세계 민청,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리사회 등을 비롯하여 수억의 성원을 가진 30여 개의 국제 단체들과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회 단체들과 언론 기관들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성명, 서한 등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수많은 각계 각층 인사들도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우리 나라와 일본 간에는 《국교 관계가 없다》느니 《이 운동은 정치 운동》이라느니 《한일 회담에 악 영향을 준다》느니 하는 황당 무계한 구실을 붙여 가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등의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인에 대한, 살상 습격 등 일본 반동들의 악랄한 도발 책동이 더욱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총련은 일본 반동들의 술책을 신랄히 폭로 규탄하고 합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해결과 그들의 생활권 옹호 문제 그리고 살'길을 잃고 일본으로 피난해 온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을 확대 강화하며 학교 운영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 1964년에 총련은 민주주의적 민

족 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교육 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질 향상과 교수 교양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힘을 돌렸다.

총련은 교원들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모범 교원 집단》 운동을 통하여 교원들의 원칙적 단결과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 해말 현재 《모범 교원 집단》 운동에는 전체 교원 수의 72%에 해당한 178 개 집단의 1천 100여 명의 교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점차 《모범 학교 창조 운동》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다.

교원들의 자질과 교수 교양의 질이 제고되고 교육 방법 연구회 체계가 중앙으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확립되였으며 계발식 교수 방법이 도입되였다. 학생들의 학과 실력도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의 도덕적 풍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났다.

오늘 일본 각지에 포치된 150 개의 자주적인 정규 학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에서 당당한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받고 있는 4만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은 《모범 분조》, 《모범 학급》 창조 운동을 통하여 학과 성적을 더욱 높이며, 동무와 집단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 주며, 학교 재산을 애호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등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애국자로 자라나고 있다.

총련은 1964년에 애국적인 재일 동포들과 상공인들의 열성으로 5억 원(일화)의 자금을 들여 조선 대학 강당, 시고꾸 초중급, 군마 초중급, 고베 중고급, 아이찌 중고급 학교를 비롯한 14 개의 근대적 학교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 말 현재 새로 일떠섰거나 개건된 학교 수는 86 개에 달한다.

1964년에 96 종의 각급 학교용 교과서 33만 부가 편찬 배포되였다.

총련은 내외 반동들의 재일 조선인 교육 기관에 대한 온갖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며 학교의 법적 인가 획득과 교육의 법인화를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이 과학 연구에서 민족적 주체를 확립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과학원 연구사 제도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연구 조건을 적극 보장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총련 7 차 전체 대회 축하 학술 보고회에 제출된 우수한 연구 론문만 하여도 154 편에 달하였다.

총련은 류학생들에 대한 사업도 강화하였다. 이 해에 류학생 동맹 사업이 한층 발전되고 류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이 강력히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이해 12월에 진행된 《제 9 차 학과별 연구 토론회》에는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기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

1964년에 총련은 동포 대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포 대중들에게 공화국 공민된 긍지와 높은 자각을 갖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또한 원쑤 미제를 증오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힘차게 나서도록 조직 선동 사업을 강화하였다.

1964년 말 현재 각 분회들과 직장들을 비롯하여 재일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각지에 560 여 개(그중 1964년에 150 개 신설)의 조국 연구실, 1,100여 개의 강연구, 1,200 개의 성인 학교와 청년 학교 등 각종 선전 교양망이 포치되여 있다.

총련은 이 해에 150%로 장성된 선전원들과 직외 강사를 발동하여 각지의 재일 동포들에게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들 속에서》 등을 통한 혁명 전통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조국 연구실, 《조선 신보》, 성인 학교, 직관물 선전 등을 통하여 그 선전 교양적 역할을 더욱 높이였다.

또한 5 호 담당제를 강화하여 동포들에 대한 일상적인 련계와 담화,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크게 개변시켰으며 군중 교양 사업을 점차 동포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총련은 선전원 대렬의 확대와 그들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매월 1~2회의 선전원 강습회, 경험 교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였다.

총련 도꾜, 가나가와, 이바라기현을 비롯한 많은 현들에서는 선전원 총수의 50 %를 단기 강습을 통해 양성하였다.

총련은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의 주요 수단으로서 성인 학교 사업을 전 기관'적인 군중적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시켰다.

1964년에 재일 동포들 중 문맹자들은 성인 학교와 청년 학교에 망라되여 주에 3 차씩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그리고 우리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조국에 대하여 배웠다.

이 해에 성인 학교에 망라된 동포들의 총수는 3 기에 걸쳐 3만 9천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 2만 2천명이 문맹에서 벗어 났다.

총련은 1963년부터 설치 운영되는 경제 학원에 2,000 여 명의 재일 상공인들을 망라시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총련의 애국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하였다.

직관 선전 사업도 강화되였는바 게시판은 3천 100여 개에 달하며 재일 조선인들의 밀집 지대에서 속보, 벽보 활동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오늘 총련 산하에서는 선전 교양의 강력한 무기인 일간 신문 《조선 신보》를 비롯하여 1회 발행 부수 30만 부에 달하는 26종의 신문, 통신, 잡지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그 배포 리용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문학 예술 및 체육】 총련은 1964년에 애국 사업 수행의 강력한 수단인 문학 예술과 체육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 예술, 체육 단체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작가, 예술인,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창작의 질적 수준과 체육 기량을 더욱 높이며 신인 육성 사업을 강화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해에 총련은 800 여 명의 써클 지도 일'군들을 새로 양성 배치하였으며 일본 각지에 조직된 650 개의 문예 써클 단체에 1만 500 여 명의 재일 동포들을 망라시켰다.

또한 이 기간에 3백여 개의 가야금과 약 2천 개의 조선 음악 록음집, 1만 부의 조선 레코드를 비롯하여 많은 음악 록음, 출판물들을 보급시킴으로써 군중 문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9월에 있은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경축하는 재일 조선인 예술 경연 대회에는 지방 단위의 예선을 거쳐 30 개 도, 부, 현과 단체에서 3천 500여 명의 재일 동포들이 10 3 종의 다채로운 종목을 가지고 참가하여 총련의 군중 문화 사업의 눈부신 발전을 과시하였다.

한편 11월에 진행된 재일본 조선 초중급 학교 학생 경연 대회에는 6개 지구의 예선 대회에서 선발된 55 개 학교의 2천 300여 명 학생들이 170 종목을 가지고 참가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의 빛나는 성과를 자랑차게 과시하였다.

총련은 조국 영화 상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 순회반 사업과 영사반 사업을 유기적으로 확대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에 4천 399 회에 걸쳐 61만 2천 374명에 달하는 관객들에게 조국 영화와 《총련 시보》를 보여 주었다.

특히 올림픽 도꾜 대회 기간에 도꾜, 가나가와, 오사까, 효고, 교도 등지에서 연 57 회나 《조국 영화 감상회》를 조직하여 재일 동포들은 물론 수많은 남조선 관람객들과 일본 인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 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과 수령에 대한 흠모와 충성심, 재일 동포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 작품 695 편, 직관물 6천 709 점, 영화 8 편을 제작하여 재일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재일본 조선 중앙 예술단 성원들은 조국에서 달성된 찬란한 예술 성과를 배우면서 자체의 사상과 예술적 기량을 더욱 높여 민족 가무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일 조선 예술인들은 이 해에 일본 전국 102 개소에서 154 회의 공연을 조직하였으며 30만 명의 관객들이 이것을 관람하였다.

특히 5월에 있은 조선 중앙 예술단 1천 5백 회의 기념 공연과 올림픽 도꾜 대회 기간에 일본의 최대 극장의 하나인 도꾜 아사구사 《고꾸사이》 극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에서 뿐만 아니라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조일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4년에 체육 사업 발전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5 개 현들에서 체육 협회가 조직되였으며 축구, 유술 등 8 개의 종목별 협회가 조직되였다.

총련은 체육인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면서 축구, 유술, 롱구, 배구 등 16 종목에 걸쳐 중앙적인 종목별 선수권 대회를 조직하였는바 여기에는 634 개 팀에 1만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9월에 진행된 공화국 창건 16 주년 경축 중앙 체육 대회에는 총련의 35 개 현 본부와 8 개 단체, 62 개의 초급, 중급, 고급 학교에서 3천 8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7천 500 여 명의 축하단과 1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였다.

재일 조선 축구단은 1964년에도 경기에서 26 전 24 승 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1964년에 총련은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재일 동포들을 힘차게 조직 동원하였으며 민족적 단합과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3년 12월에 발표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공동 련석 회의 호소문,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호소문 등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섰다.

특히 총련 간또 지방 열성자 대회(1.10—1.11)와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5월 25—26일)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정신으로 단합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을 일층 강화하며, 미제의 전쟁 도발 정책과 식민지 략탈 정책을 폭로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 내고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의 사촉 밑에 감행되는 범죄적 《한일 회담》을 철저히 분쇄하고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과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재일 동포들을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총련은 자체의 조직을 튼튼히

그리고 재일 60만 동포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 전선 사업을 계속 인내력 있게 추진시켰다.

사상, 정견, 신앙 및 단체 소속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민단에 속한 동포들과 일상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상론하였고 그들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며 일상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시종 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리 하여 1964년에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적 기반이 더욱 확대 공고화되였다.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는《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성명(3월 26일)을 발표하고 전체 재일 동포들을 《한일 회담》 반대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에게 《한일 회담》의 본질을 폭로하는 수백만부의 직관 선전물을 배포하였으며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대회와 강연회, 좌담회 등을 조직 진행하였다.

1964년에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대소 군중 집회는 무려 7천 500여 회에 달하며 이에 동원된 재일 동포 수는 연 24만여 명에 달하였다.

재일 동포들은 남조선 괴뢰 도당이 선포한 파쑈적인 《비상 계엄령》의 철폐와 체포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석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파쑈적인 《언론 륜리 위원회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남조선 언론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총련은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과 세계 각국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였다.

특히 광범한 일본 인민들 속에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관한 방안과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을 해설 침투하여 그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총련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과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인 정책, 그리고 범죄적인 《한일 회담》의 본질,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책동 등을 폭로 규탄하는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일본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총련은 일본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계속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공화국의 위임에 의해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8월 1일)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이 회의에 참가하여 미제의 남조선에서의 침략 정책과 분렬주의자들의 회의 파괴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공화국의 대외 정책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통일 단결과 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총련은 조 일 량국 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인사 왕래의 촉진,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족적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 등을 통하여 일본 인민들과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조 협회》와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회》, 《일조 왕래 자유 실현 련락 회의》,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회》 등 친선 단체들과의 사업이 일층 확대 발전되였다.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총련)

1955년 5월 25일 재일본 조선 민주주의 통일 전선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가 결성되였다. 총련은 사상, 정견, 신앙 및 사회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 승인하는 재일 조선인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여 있다. 총련은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공화국 정부 주위에 집결시키는 유일한 조직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 총련은 48 개의 현 본부들과 360 여 개의 지부, 2천 100 여 개의 분회 및 니이가다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중앙 상임 위원회 의장 한 덕수
부의장 리 심철
리 계백
로 병우
윤 봉구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위원장 강 옥주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박 정현
재일본 조선인 중앙 교육회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협회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동맹
재일본 조선 류학생 동맹
재일본 조선인 상공 련합회
재일본 조선인 신용 조합 협회
재일본 조선인 통일 동지회
재일본 조선인 불교도 련맹
재일본 조선인 체육 련합회
조선 신보사
재일본 조선인 언론 출판 협회
조선 통신사
구월 서방
학우 서방
조선 문제 연구소
조선 화보사
조선 중앙 예술단
조국 무역 추진 재일본 조선인 위원회
동해 상사 주식 회사
조선 청년사
재일본 조선인 통신 교육 협회
총련 중앙 학원

1964년도 국제 정세 개관

1964년의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1964년의 국제 정세 발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1)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는 심도와 규모로 발전하였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격렬한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졌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로자 간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였다.

(2) 세계 제국주의, 특히 그 괴수인 미 제국주의의 힘과 영향력의 쇠퇴와 몰락 과정이 가일층 촉진되였다.

제국주의 렬강 호상 간의 모순과 갈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3) 미 제국주의를 위시한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호전성이 그 지위와 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더욱 로골화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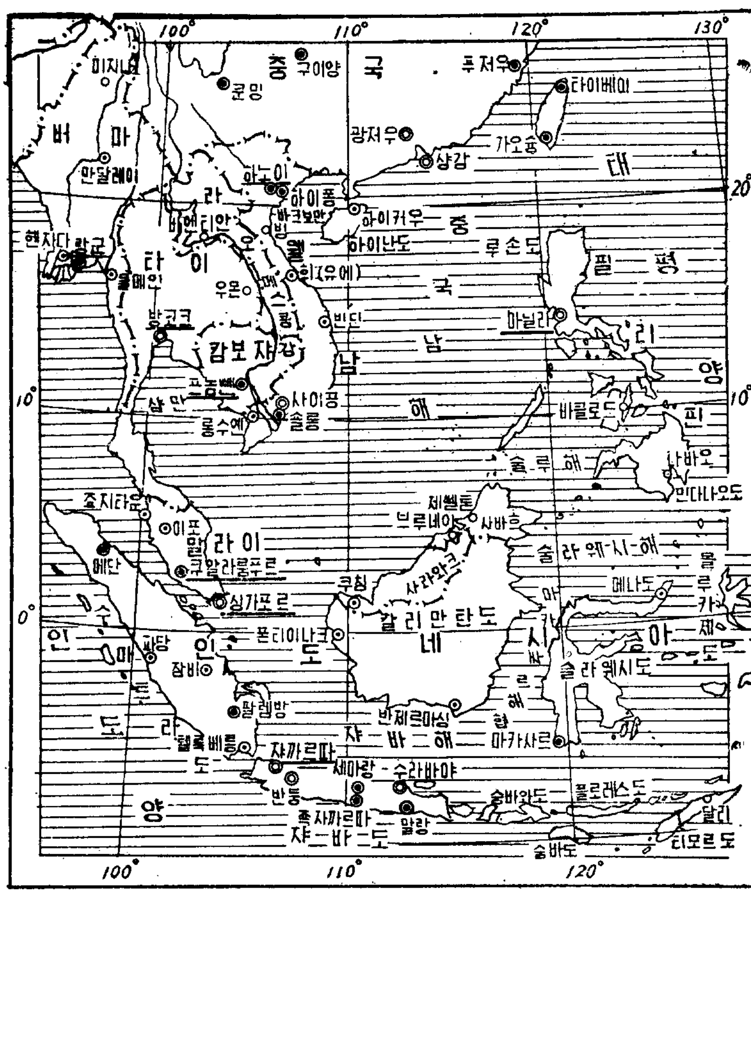
특히 국내와 세계 도처에서의 위기를 파시즘과 횡포한 전쟁 모험으로 타개하려는 미국 지배층의 지향이 로골화되였는바 미 제국주의의 이 침략 및 전쟁 정책은 1964년에 아세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민족 해방 혁명의 심화 발전

1964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혁명 투쟁의 파도는 그 높이와 너비에 있어서 류례 없는 기록을 남기였다. 이 혁명 투쟁의 활무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펼쳐졌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은 첫째로, 혁명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인 무장 투쟁이 더욱더 광범히, 더욱더 전면에 나서게 되였으며 둘째로,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투쟁의 예봉이 더욱더 돌려졌으며 세째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화 정책과 그 후과를 청산하며 민족적 재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민족 경제를 자립적으로 건설하며 발전시키려는 지향이 강력히 대두하였으며 네째로, 투쟁 행정에서 반제, 반식민주의의 공통된 뉴대로 결속된 통일과 련대성의 리념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표현되는 그러한 추세로 발전 심화되였다.

【무장 투쟁의 강화】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진지를 보존하며 인민들에게 새로운 노예의 올가미를 들씌우기 위하여 류혈적인 무력 수단에 계속 매달리는 조건 하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진출은 무장 투쟁의 형태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1964년의 정세는 혁명 발전의 이 필연적 론리를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다.



아세아에서 무장 투쟁의 가장 빛나는 모범은 남부 윁남 인민의 영웅적이며 성과적인 투쟁에서 발현되였다.

남부 윁남 전 지역의 4분의 3과 인구의 절반 이상(900여 만 명)을 해방한 남부 윁남 해방군은 1964년에 2,111명의 미군을 포함한 20만 명의 적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1만 7,569정의 각종 무기를 로획하고 1,027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인민 무장력은 고원 지대에서 평야 지대로, 농촌과 기타 변방 지역에서 도시를 비롯한 적들의 중심적 집결처들로, 방위전으로부터 적극적인 진공 작전으로 군사 활동을 더욱더 확대하였으며 대대, 지어는 련대 규모의 병력으로 현대적인 정규군이 할 수 있는 능숙한 전략 전술을 적용하였다.

1964년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는 11월 1일 비엔 호아 비행장 습격 작전이다. 이 날 이른 새벽 해방군은 비엔 호아 미 공군 기지에 대한 대담 무쌍한 기습 공격을 가하여 수소탄을 운반할 수 있는 미 공군 최대의 《비—57》형 전략 폭격기들을 포함한 59대의 군용 비행기들을 파괴하였으며 미국 군대 근 300명을 소멸하였다.

남부 윁남 제 2의 비행장으로서 미제가 극비에 붙여 온 비엔 호아 기지에 대한 이 승리적인 공격은 남부 윁남 인민 무장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한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었다.

미제는 패배를 만회하며 추락된 저들의 위신을 추켜 세우려고 이 사건에 뒤'이어 사이공시 북부 지역에서 115 대의 비행기와 미군 및 괴뢰군 6천 여 명을 내몰아 최대의 《로벌 작전》을 벌려 놓았으나 이것 역시 인민 무장력의 반타격에 조우하여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라오스에서 꽈떼르 라오 전투 부대는 폭동을 일으켜 그와 합세한 진정한 중립파 군대들과 더불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광적인 공격을 쳐물리치면서 자르 평원을 비롯한 해방 지역을 철벽 같이 수호하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더욱 장성 강화된 애국 력량은 라오스를 식민지로, 침략의 교두보로 틀어쥐려는 미제의 흉계를 걸음마다 파탄시켰다.

미 영의 신식민주의 도구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의 투쟁은 적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분쇄하면서 자기의 활동 기지를 강화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운동이 전 인민적으로 전개되였다. 특히 이 해 3월에 있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여 도합 2,500만의 인도네시아 인민이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지원병으로 탄원하였다.

남부 예멘 인민 무장대는 영국 침략군에 끊임 없는 공격을 가하면서 무장 투쟁 전선을 확대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이 대륙에서도 미제가 지난 수년 간의 각종 음모 책동을 통하여 그 지배권을 장악한 꽁고(레)에서 미제와 그 주구 아둘라 (그후에는 쫌베) 도당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의 불'길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혁명의 폭풍우는 계속 세차게 휘몰아쳤다.

1월 중순에 퀼루주에서 폭발한 꽁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단시일 내에 국내의 광범한 지역에 확대되였다. 초기에 300명의 인원으로 원시적인 활과 창을 가지고 궐기한 인민 무장대는 중무기와 자동 무기로 자신을 무장한 수만의 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났으며 전국의 광활한 지역을 장악하고 국내의 주요 도시들과 전략적 요충들을 련'이어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유엔군》을 침략 도구로 리용하여 꽁고를 집어 삼키고 이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면서 아프리카의 한 복판에서 사방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던 미제의 망상은 깨지고 말았다.

아프리카의 기타 지역에서도 무장 투쟁은 1964년에 더욱 전진하였다. 처음에 20명 밖에 안 되던 앙골라 민족 해방군은 4년 간의 가렬한 투쟁을 경과하는 행정에 근 4만의 강력한 대오로 성장하였으며 나라의 5분의 1을 해방하였다. 뽀르뚜갈 령 기네 유격대는 국토의 40%를 장악하였다.

모잠비크에서는 새로운 무장 부대가 결성되여 10월 10일에 《전면적 무장 봉기》를 선포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민 무장 조직인 《민족의 창》은 전국에 조직망을 펼치고 백인 식민주의 정권을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코모로 제도에서도 무장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혁명의 폭풍이 이처럼 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1964년에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와 잠비아가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독립 국가 수는 35개에 달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꾸바 혁명의 거대한 영향 하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반미, 반독재의 구호하에 무장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베네수엘라 민족 해방군은 산악 지대에 4개의 유격 전선을 창설하고 활동 지역을 넓히는 한편 도처에서 미제와 괴뢰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도미니카에서는 6개의 유격 전선이 창설되였으며 3개의 애국적 무장 부대가 통일적인 인민 유격대로 련합되였다. 과떼말라에서는 3개의 애국적인 무장 부대가 통일적인 인민 유격대로 련합되여 친미 독재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핵심》이라고 호언하는 꼴롬비아에서는 미국인 및 괴뢰들의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인민 무장력의 습격 사건이 빈발하였다.

이와 함께 페루, 브라질, 칠레, 메히꼬, 아르헨띠나에서도 미국 독점체와 대 지주들의 토지

를 탈취하기 위한 농민 운동이 자주 무장 투쟁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 투쟁의 발전] 1964년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무장 투쟁과 함께 인민들의 정치 투쟁이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투쟁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세 대륙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로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더 돌려진 그것이다.

이 해에 미일 반동들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은 《에프—105 디》형 미 전투 폭격기의 배치 및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일한 회담》을 반대하며 일본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데로 돌려졌다.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1월 26일 전개된 《1960년의 일미 안보 조약 반대 투쟁 이래 최대 규모의 투쟁》으로 알려진 100여 만 인민들의 전국적 반미 시위, 10월 1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전개된 미 원자 잠수함 기항 반대 전국 공동 투쟁 등 대규모적 투쟁이 쉴새없이 벌어졌다.

특히 남조선을 미제와 일제에게 2중으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아세아에서 침략 체계를 정비 보강하려는 미일 반동 세력의 흉책은 일본 인민의 열화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각 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련속적으로 전개된 군중 대회, 시위들에서 일본 인민은 범죄적 《일한 회담》을 당장 걷어 치울 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는바 례컨대 4월 5일 도꾜에서 10여만 근로자들이 춘기 공동 투쟁의 일환으로서 《일한 회담》의 즉시 중지와 일미 《안보 조약》의 페기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그 참가자들은 《양키는 물러 가라!》, 《미국은 아세아에서 손을 떼라!》라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일한 회담》 반대 투쟁과 일미 《안보》 체계 및 일본의 핵 기지화 반대 투쟁이 서로 긴밀히 련결된 것은 1964년 일본 인민의 투쟁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다.

남부 웰남에서도 무장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는 조건 하에서 각 계층들의 정치 투쟁이 일대 고조를 보여 주었다. 이 투쟁에는 학생, 청년, 불교도들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들이 망라되였는데 투쟁 행정에 반미 구호들이 더욱 더 자주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실례로 1월 중순 사이공시 서쪽 칸로주의 풍 느기에서는 수천명 주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물러 가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7월 13일에는 벤 트레주에서 괴뢰군 병사 가족 2만 7천 여명이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물러 가라!》는 구호 하에 시위를 단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치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10월 15일 애국 청년 느구옌 반 트로이를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일대 고조를 이룩하였는데 이는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정권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 《말레이시아》 투쟁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이 투쟁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 《말레이시아》 투쟁을 위협과 회유로 무마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는 기운이 더욱 고조되였는바 례컨대 1월 중순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전개된 청년들의 시위에서는 《미제를 타도하라!》, 《미 제 7함대를 까부셔라!》는 구호가 나타났으며 그후 쟈까르따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미국 대사관, 공보원 등에 대한 습격 사건이 빈발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는 인민들의 이러한 반미 감정을 반영하면서 《두개 또는 세개의 미국 7 함대가 있어도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분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캄보쟈에서도 이 나라의 독립과 중립을 파괴하며 현 시하누크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음양으로 책동하는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1월 11일의 반미 시위는 그 대표적 실례였다. 이날 수도 프놈뻰에서 수십만 군중이 《양키는 물러 가라!》, 《제국주의자들과 자유 세계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미국 대사관을 습격 파괴하였으며 대사관 건물에 걸려 있던 미국 국기를 뜯어 불살라 버리고 그 대신 캄보쟈 국기를 내걸었다. 캄보쟈 인민의 반미 투쟁은 미제가 남부 웰남 괴뢰들을 사촉하여 빈번히 이 나라 국경을 침범하며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 랍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욱 격렬해졌다. 이러한 침해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캄보쟈 국민 의회와 왕국 회의 및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캄보쟈가 또다시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온갖 침략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1964년 아프리카의 정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의 하나는 1월 12일에 있은 잔지바르 정변이였다. 정변의 결과 제국주의 통치의 유물인 군주제가 전복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이러한 사태에 놀란 미제는 잔지바르 정변을 《공산 음모》라고 비방하면서 《미국 공민의 구출》을 구실로 군함을 파견하고 내정 간섭을 획책하였으나 이는 잔지바르 측의 강한 반격을 받았다.

잔지바르는 4월에 탄가니카와 련합하여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 (후에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그후 미제는 탄자니아를 반대하는 파괴 행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지어 뽀르뚜갈, 남아프리카의 고용병들 및 쫌베 도당까지 동원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탄자니아 인민들은 11월 중순 《미제를 타도하라!》, 《탄자니아는 좋고 양키는 나쁘다!》고 웨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다.

2월 4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서도 《가나는 좋고 양키는 나쁘다!》, 《미국 신식민주의를 타도하라!》는 구호하에 1천여명의 시위가 진행되였으며 시위 군중들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였다. 가나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박차고 《평화군》으로 가장한 미국 《교원》 1?9명을 몽땅 추방해 버렸다.

한편 아랍 인민들은 요르단강의 수로를 변경시키려는 책동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반 아랍 책동을 로골적으로 지지하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아련의 나쎄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의 원천을 리용할 것》을 아랍 국가들에 호소하였으며 알제리의 벤 벨라 대통령은 미국을 규탄하면서 《세계에는 우리의 립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없다》고 언명하였다.

아련은 12월 19일 자국 령공을 침범한 미국 비행기를 단호히 격추해 버렸다.

아프리카의 기타 나라들에서도 이 해에 식민주의 특히 미국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기세가 고조되였는바 리비아에서까지 이 나라에 설치된 미 영의 군사 기지를 철페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아메리카의 크지 않은 나라—인구 100만의 빠나마에서는 운하 지구에서의 국기 게양권을 둘러싼 분규를 계기로 인민들이 1월 9일 전국을 진감한 반미 투쟁에 궐기하였다. 분격한 빠나마 인민들은 적수 공권으로 미국 군대와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며 《양키 제국주의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미국 대사관과 기타 미국 기관들을 습격 파괴하였다. 이 사실은 꾸바 혁명의 영향 하에 급속히 앙양되는 라틴 아메리카 민주 민족 운동의 불가 분리의 일환으로서, 이 대륙을 저들의 세습령으로 간주하기에 습관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새로운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정치 투쟁에서는 특히 그들의 휘황한 등대인 혁명적 꾸바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꾸바는 좋고 양키는 나쁘다!》는 구호 하에 련대성 운동들이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파실 회사》를 비롯한 미국 독점체들의 략탈을 반대하며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을 규탄하는 운동 특히 땅을 위한 농민들의 운동이 뻬루, 메히꼬, 브라질, 아르헨띠나 등 나라들에서 강력히 벌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이미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급속한 경제 건설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일체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로선으로 전진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1964년에 이러한 방향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해에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고 외국인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길에 결연히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서방 독점체들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광범한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이미 영국인 기업소만하여도 100 여 개를 몰수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야금 공장, 화학 비료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공장들이 일떠섰다.

쎄일론에서는 1964년 초에 미, 영 석유 회사들이 국유화되였고 국영 석유 회사가 석유의 수입과 판매를 장악하게 되였다. 버마, 아프가니스탄도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캄보쟈 인민들도 침략적인 미제의 《원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혁명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아프리카의 말리는 자신의 힘과 자기의 수단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제 발전 제 1 차 5개년 계획(1961—1965)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식민지 통치 시기의 단작 경리 체계가 개편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되게 되였고 공업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기네에서도 농산물과 많은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것을 예견하는 인민 경제 7개년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전 민족이 힘을 동원하여 자립적 경제를 건설》할 것을 선포하고 프랑스인 기업소와 반인민적인 자본가들의 기업소를 국유화하였다. 그리하여 독립 후 지난 2년간 알제리에서는 375만 헥타의 토지가 국유화되였으며 운수, 건축, 가공 등 식민주의자들의 회사와 각종 기업소 1천 여개가 국유화되였다.

새 생활 건설의 길에 들어선 아련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점체들의 기업소들에 기초하여 자체의 국영 기업소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국영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장성되였다. 그리고 이 해에 주요 농작물인 목화 생산은 력사상 최고 기록을 이루었다.

가나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33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였다. 기타 일련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도 급속한 시일내에 경제에서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자체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이러한 막을 수 없는 지향은 6월 1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뚜렷이 표시되였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34개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토론회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불타는 혁명적 정열을 보여 주었으며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진밀한 뉴대로 련결된 그들의 단결을 과시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에서 로골적인 침략과 교활한 방법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이 나라들로 하여금 참된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반제 투쟁에서의 굳은 련대성】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혁명 력량들 간의 전투적 련대성과 통일의 강화는 1964년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다른 한 주요한 특징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이러한 련대성은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날인 6. 25 14 주년에 뚜렷이 표시되였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 침략군의 철거와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월간》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상설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전 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쟈까르따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가 진행되였다. 두 대륙의 22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이 회의의 성과적 진행은 17억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정견, 사회 제도 및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며 이미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대렬에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였다.

이 밖에 이 해 7월에 까히라에서 있은 아프리카 국가 수뇌자 회의는 미제의 괴뢰 쏨베의 회의 참가 기도를 보기 좋게 봉쇄해 버림으로써 꽁고(레)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지에서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침략과 간섭에 대한 단호한 배격을 표시하였으며 뻴러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반적 분위기를 지배하였다.

11월에 하노이에서 열린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윁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도 반제 력량의 통일 단결을 강화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거류 속에서 호상 단합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이 하나의 강력한 조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국주의의 쇠퇴 몰락의 촉진

1964년에 세계 정세 발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추세는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제국주의 국가 내부 모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첨예하고 심각하게 얽힌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 세력 전반의 약화 과정이 더욱 촉진된 그것이다.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의 첨예화】 1964년에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간에 착잡하게 얽힌 리해 관계의 충돌이 경제, 외교, 군사 정책의 모든 령역에 걸쳐 첨예하게 나타났는바 그것은 전반적으로 현대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의 지위의 부단한 약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또 그것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였다.

경제적 모순 서부 렬강 간의 경제적 모순은 미국과 《공동 시장》간의 충돌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다.

1964년에 미국은 《통상 확대》의 구호와 관세의 《일괄 인하》 계획을 가지고 서구라파 시장에 더욱 깊이 침투하려고 계속 애썼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5월 초에 있은 《가트》 회의에서 미국은 원래 케네디가 내놓았던, 현 관세를 《일괄적으로》 50% 인하하자는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국의 상대적인 고 관세를 유지하면서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 뜨리려고 하였으나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미국의 관세는 많이 삭감하고 《공동 시장》의 낮은 관세는 덜 삭감할 것을 예견하는 소위 《관세 격차 시정》안을 들고 미국에 맞섰다. 이리 하여 회의는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미국 지배층은 자기 동맹국들에 꾸바와 통상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였으나 프랑스, 영국, 스웨리예, 에스빠냐, 벨지끄, 일본 등은 미국의 이 횡포한 《명령 정책》을 거부하고 꾸바와의 무역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및 기타 나라들에 대한 《원조》 중지의 선포까지 하면서 압력을 계속가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영국 수상 흄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압력으로 카스트로가 패배 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빠리 역시 미국의 조치를 《대 실책》으로 조소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시장을 위한 투쟁은 대 중국 무역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무역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바 일본의 대 중국 무역액은 1964년에 3억 1,500만 딸라로서 전년에 비하여 130%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프랑스, 영국, 서독도 미국의 대 중국 경제 《봉쇄》 정책에 역행하면서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무역을 계속하며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공동 시장》 내부에서도 새로운 분규들이 일어나 호상 간의 반목이 심화되였다. 미국의 후원으로 《공동 시장》에 들어 가려다가 프랑스의 반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한 영국에서는 그 후 국제 수지 및 대외 무역 결손의 전례 없는 증가로 심각한 통화 위기를 겪게 되였으며 13년간 집권한 보수당이 10월 15일 선거에서 패배 당하고 정권에서 물러 났다.

새로 집권한 레이버당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난관을 타개할 목적으로 수입 부과세를 15% 인상하여 주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을 비롯한 서구라파 나라들의 상품이 들어 오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 간의 농산물 문제를 둘러싼 싸움도 의연 계속되였다. 프랑스 정부는 10월 중순에 열린 《공동 시장》 각료리사회에서 이 《시장》 내의 농산물 가격의 《일원화》 문제가 년내로 실현되지 않으면 프랑스는 이 기구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였다. 그후 막후 흥정을 통하여 결판을 짓지 않고 일시 호도하여 넘겼으나 프랑스가 요구하는 일원화 가격으로서는 자국 내의 농업 생산을 보호할 수 없는 서독과의 리해 관계의 날카로운 충돌은 의연 가셔지지 않고 있다.

미일 간의 경제적 모순이 또한 첨예화되였다. 우선 무역 분야에서 일본은 국내에서의 값싼 로동력으로 만들어진 공업 제품을 미국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바 미국은 자국 국내 시장의 《보호》를 구실로 일본 상품을 극력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관련한 량국 간의 알륵은 1963년의 면직물 분쟁 이상의 첨예성을 띠게 되였다. 그 밖에 일미 간에는 태평양 어업 문제, 해운 문제, 일—미 항공로 리용 문제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알륵 국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제국주의 렬강 간의 알륵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것은 미국과 프랑스 간의 그것이다.

프랑스는 미국의 온갖 《권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강국인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하고 그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6억 5천만 중국 인민을 《고립》시키려고 근 15년 간이나 전력을 다하여 온 미국의 완미한 정책은 이로써 또 하나의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 대통령 드 골은 3월 중순에 메히꼬를,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의 기타 수개국을 방문하고 프랑스와 이 나라들 간의 《뉴대를 강화》하며 프랑스의 《원조》를 이 나라들에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미국 지배층은 그들이 전통적인 《세습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프랑스의 이 《도전》에 불안과 불만을 감추지 못 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미국의 침략적 대외 정책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동남 아세아에서 미국에 도전하였다. 미제는 4월 중순 마닐라에서 소집된 세아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사경에 처한 세아토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 성원국들을 저들의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 수행에 내몰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세아토 성원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기도에 랭담한 태도를 표시하였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 회의에서 동남 아세아 중립화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미국과 맞선 프랑스는 남부 웰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합세하기를 거절하였으며 파키스탄 대표는 자국 외상이 보이코트한 이 회의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 놓았다.

구라파 《정치 통합》을 둘러싼 령도권 쟁탈전도 호상 견제하며 호상 리용하려는 책동과 흥정이 뒤엉키여 영국, 프랑스, 서독 간의 갈등을 로출시켰다.

1964년에 서방 제국주의 렬강의 두목들은 빈번한 왕래와 접촉을 가졌는바 이러한 과정에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가 급속도로 약화된 것을 기화로 자체의 지반을 강화하려는 서방 《동맹국》들의 지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과 서구 렬강 간의 통제와 반통제를 위한 쟁투를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나토의 핵 무력 문제 특히 미국이 제기한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도 이것을 반영한 것이였다.

미국은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저들이 핵 무기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서독과 여기에 영국도 구슬려 넣어 이를 년내로 실현하려고 다급히 서둘렀다. 년말을 앞두고 미국이 영국 외상 워커, 서독 국방상 하쎌과 외상 슈뢰데르를 워싱톤에 초청하고 미 국무 차관 볼을 서독으로 파견한 것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렇게 서독과 영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프랑스에 압력을 가하여 드 골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타산은 프랑스의 더욱 격렬한 반격에 부딪쳤다.

11월 22일 드 골은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구라파인의 구라파》를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창하면서 《공동 시장》 6개국이 미국과 맞서는 《새로운 군사 기구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까지 내놓았다.

한편 영국 수상 윌슨은 11월 23일 국회에서 《혼성 승무원》들로 구성되는 《핵 함대》가 서방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못 한다》고 하면서 《다각적 핵 무력》 구성을 위한 미국의 절차에 빙자하여 이 안에 반대를 표시하고 그 대체물로 나토 내에서 자신의 독자성의 유지를 목적한 《대서양 핵 무력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쟁투와 알륵의 과정에 미제가 다년간 침략과 전쟁 정책의 도구로 리용하여 온 나토를 위시한 군사 동맹들이 극도로 약화되였으며 유명 무실하게 되였다.

프랑스는 나토 기구가 《이미 낡았다》고 하면서 나토의 관리 운영에서 미국이 독판치는 사태를 종식시키며 프랑스가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할 것을 목적한 나토 기구의 《심각한 개혁》을 주장해 나섰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64년에 가일층 심각화된 서방 렬강간의 모순은 《미국이 돈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는 지금 끝장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부패】

1964년에 미국, 영국 기타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 발전 분야에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진출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미국 대통령 죤슨은 취임 시의 《교서》에서 《위대한 사회》의 실현을 구호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현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배태한 채 새로운 경제 공황으로 더욱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군비 생산에서 최대한의 리윤의 원천을 보고 있는 미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의 발광적인 군사화는 군사비 지출의 팽창에 의한 예산 적자의 증대,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상대적 저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의 증대와 그들의 빈궁화의 촉진과 판로를 잃은 상품의 천문학적 퇴적 등 엄중한 후과들을 초래하였다. 완전 실업자 수는 로동력의 5%를 넘는 400~500만 수준을 내리지 않았고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 600만 인민들이 극빈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

이러한 형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이 모든 나라들에서 경제 공황이 불원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에 찬 목소리가 더욱더 자주 울려 나왔다.

경제 형편의 이러한 악화와 인민 생활의 령락은 서방 세계 내부에서 계급적 모순을 첨예화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1964년에 로동 운동의 앙양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2월부터 수개월 간 계속된 철도 파업, 4월에 있은 탄부들의 파업, 10월에 일어난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등과 같은 대규모의 파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9월 25일부터 6 주간 동안 완강히 계속된 《제네랄 모터스》 회사 산하 자동차 제작 로동자들 26만명의 파업이였다.

이리 하여 1964년에 미국에서는 도합 3, 600 건의 파업에 도합 160 만의 각 부문 로동자들이 포괄되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기업주들의 손실은 2, 330만 공수에 달하였다. 이 수자들은 1963년의 파업 전수 3, 400 회, 참가자 수 103만 명, 상실된 로동일수 1, 780만 공수에 비하면 모두 현저히 장성한 것으로서 이는 미국에서 계급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급 투쟁이 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 흑인들의 투쟁이 계속 발전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온 1년을 두고 계속된 방직 로동자들의 파업, 2월에 철도, 체신, 교육 및 기타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을 휩쓴 175만 근로자들의 전국적 파업을 비롯하여 대규모적 투쟁이 끊임 없이 전개되였다.

영국에서는 철도 및 건설 로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하여 70여 척의 선박을 정체 상태에 빠뜨린 6월의 리버풀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등 대규모 파업이 일어 났으며 서독에서도 루르 지방 광부들을 비롯한 로동 계급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프랑스, 에스빠냐, 희랍 등 서구라파의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파업 운동은 광범히 전개되였다.

일본에서는 로동 계급이 경제적 요구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 기지화 반대, 일미 《안보》 조약 폐기, 《일한 회담》의 분쇄 등 정치적 요구를 쳐들고 개선에 대한 각 계층 인민들의 요구와 결부시

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밀접히 배합시켰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은 자본주의의 내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 나라들에 수립된 착취 제도 자체의 와해 과정을 더욱 촉진하였다.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 나려는 미제의 무모한 책동

전후 좌우로부터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 전례 없는 난관과 고립 상태에 직면한 미제는 박두하는 저들의 멸망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긴장 상태를 격시화키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층 강화하였다.

【전쟁 준비와 파쑈적 광란의 강화】 백악관의 호전광 존슨은 년초에 그가 내놓은 일련의 《교서》들과 《보고》들에서 미제가 침략과 전쟁 음모의 강화로써 역경을 타개하려고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존슨은 미국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서도》 《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가일층 강화하며 군사비 지출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전략 무력을 개선》하고 《지하 핵 시험을 계속》하며 《지상 시험 시설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렸다.

파쑈화, 모험주의는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특히 뚜렷이 표현되였다. 공화당 전국 대회에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골드워터가 이러한 추세의 대표적 인물이였다. 그는 현 존슨 정부가 남부 웰남과 꾸바 등에서 《무능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전면 전쟁》까지 로골적으로 제창해 나섰으며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싸우겠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 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된 존슨은 이에 대응하여 자기의 《강경성을 시위》하면서 《미국은 계속 겁을 모르는 강력한 나라로, 어떤 원쑤와도 두려움 없이 대항하는 나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렸으며 일련의 실지 행동으로 이것을 《증명》하였다.

존슨 행정부는 1964년에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근 560억 딸라를 배당하였으며 핵 무기 생산에 10억 딸라를 추가 지출하여 30여 차의 지하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활한 《량면 전술》을 케네디로부터 물려 받은 존슨은 《전쟁 없는 세계》를 운운하면서 《원조》, 《평화군》, 《진보를 위한 동맹》과 같은 《평화적》 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써 저들의 모험 정책을 은폐하며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혁명적 의지를 거세하려고 책동하였다.

아세아에서의 모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주요 독아는 1964년에도 아세아에 돌려졌다.

미제는 6월 초에 하와이의 호노룰루에서 이른바 전략 회의라는 것을 벌려 놓고 인도지나에서의 전쟁 확대 계획을 토의한 데 뒤'이어 동남 아세아에서 새로운 도발과 모험에로 나오려고 발광하였다.

호노룰루 회의가 있은 직후 미제는 400 명의 군사 인원과 100 대의 전투 폭격기들을 남부 웰남에 증파하였으며 이러한 증강은 그 후 계속되였다. 또한 미제는 이 침략 전쟁에 나토, 세아토 성원국들과 남조선, 대만,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의 괴뢰군까지 끌어 들이려고 발광하였다.

이러한 전면적 조치를 추진한 미제는 8월에 이르러 마침내 허위적인 《바크 보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것을 구실로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중 및 해상 공격을 가하는 횡포한 도발에로 나왔다.

미제의 이러한 전쟁 확대 책동은 바로 남부 웰남 인민의 투쟁을 말살하며 더 나아가서 캄보쟈와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 아세아 전역에서 민족 해방 운동의 불'길을 끄며 예속화와 침략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였다. 때문에 워싱톤의 호전광들은 《바크 보만 사건》을 계기로 남부 웰남과 이 지역 일대에서 저들의 공군과 해군을 증강하는 한편 동남 아세아에서 전쟁 확대를 위하여 8월 7일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할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괴뢰들의 모든 책동도 남부 웰남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그들의 무장 투쟁과 정치 투쟁을 일층 더 강력히 촉발하였다.

남부 웰남에서의 사태의 계속되는 악화에 직면하여 미제는 괴뢰 도당들을 수 차 갈아대면서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정비에 광분하는 한편 웰남 민주 공화국의 령해와 령공의 침범과 도발 행동을 일층 강화하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길로 내달았다.

한편 미제는 라오스에서 4월 19일 저들의 주구 쿠프라시트와 시호 도당을 사촉하여 민족 통일 정부를 반대하는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라오스에 저들의 괴뢰 정권을 부식하며 다시 국내 전쟁을 도발하고 날로 장성하는 애국 력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이 나라를 저들의 새로운 식민지로, 군사 교두보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라오스 국내에 각종 군수 물자와 무기들을 투입하고 라오스 반동들과 타이, 장 개석 도당 군대까지 동원하여 해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매일 같이 감행하였으며 3 파 간의 빠리 회담을 파괴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국내 전쟁의 위협은 각방으로 증대되였다.

남부 윁남과 라오스에서 이러한 발광적인 침략 책동을 감행하면서 미제는 또한 인도네시아와 캄보쟈를 반대하는 음모를 일층 로골화하였다.

미제는 신 식민주의의 도구—《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견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교활한 회유의 방법을 적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를 중단하고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위협과 공갈의 수단에 매달렸다. 미제는 또한 영국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 주구들을 인도네시아를 반대하는 전쟁과 도발에로 부추기면서 여기에 오스트랄리아의 멘지스 도당까지 끌어 넣었으며 저들의 이러한 반 인도네시아 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도리여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이를 유엔 안보리사회에 《제소》하는 소동까지 벌렸다.

또한 미제는 남부 윁남에 소위 《자유 크메르군》 1천 여명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캄보쟈를 반대하는 파괴 행동과 국경 도발 행동을 부단히 감행케 하는 한편 캄보쟈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소집하자는 시하누크의 제안을 반대해 나섰으며 지어는 기존 조약과 국제 법규로써 확정된 캄보쟈의 국경을 새로 확정하기 위한 타이, 남부 윁남, 캄보쟈의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해 나서기까지 하였다.

또한 미제는 《한일 회담》을 빨리 결속시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부지하며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묶어 세워 그것을 골간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하여 온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을 실현하려고 발광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음모에 따라 반공 블럭 형성을 위한 이께다, 박 정희, 장 개석 도당들의 막후 교섭이 또한 강화되였다.

《한일 회담》과 관련한 이 모든 움직임들은 미제의 비호 하에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가 탐욕적인 식민지 략탈의 옛 꿈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분수 없이 날뛰고 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 아세아의 《맹주》로 등장하려고 발광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미제의 품 속에서 조선 인민과 전체 아세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흉악한 원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미제는 조선 정전 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도발 행동을 더욱 빈번히 감행하며 군사 정전 위원회의 기능까지 마비시킴으로써 자의로 전쟁 준비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여전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일본 군국주의를 극력 재생시키며 일본을 저들의 핵 기지화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도 이 해에 일층 강화되였다. 아세아에서의 침략적 핵 전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원자 잠수함을 끌어 들이려고 오래 동안 흉책하여 온 미제는 11월 12일 원자 잠수함 《씨 드래곤》 호를 사세보항에 정박시킴으로써 이 범죄적 음모의 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 붙었다.

끼쁘로스를 지중해에서의 저들의 군사 전략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도 일층 강화되였는바 미제는 유엔을 리용하여 3월 초에 소위 《유엔 평화 유지군》을 끼쁘로스에 파견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고 이러한 은폐된 침략군을 끼쁘로스에 투입하였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과 침략 미제는 1964년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무력 간섭과 악랄한 기만수법으로 이 지역들에서 광배히 일어 나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끄려고 발광하였다.

미제는 꽁고(레) 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에 못이겨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을 6월 30일 까지 이 나라에서 부득불 끌어 내 가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후 곧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직접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섰다.

7월에 미제는 수다한 《군사 고문》들을 꽁고(레)에 투입하여 《유엔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꽁고(레) 인민 무장력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역을 직접 담당해 나섰다. 즉 미제는 땅크와 직승 비행기, 장갑차들과 대형 수송기들 및 기타 중무장들과 수백명의 군사 인원을 꽁고(레)에 끌어 들였으며 꽁고(레) 인민 무장대를 반대하는 괴뢰군의 《토벌 작전》에 이 비행기와 땅크들을 투입하고 나팜탄 및 기타 대량 살륙 무기까지 사용하였으며 미 《군사 고문》들은 키부주의 부카부 등지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도 꽁고(레)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과 전반적 민족 해방 투쟁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못 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11월에 이르러 더욱더 직접적이며 공개적인 간섭을 감행해 나섰다. 즉 미제는 군용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벨지끄의 락하산병들을 인민 무장력의 통제 하에 있는 스탠리빌에 투입하였으며 괴뢰 도당과 미국제 무기로 무장한 1만 여명의 백인 고용병들을 해방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로 내몰았다.

타방으로 미제는 자기 괴뢰들로 하여금 《정치적 협상》이니, 《민족적 화해》니 하는 기만적 연극을 꾸미게 하면서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려고 책동하였다. 7월 꽁고 인민의 반역자이며 미국과 벨지끄의 2중 괴뢰인 쫌베를 두목으로 하는 꽁고 《중앙 정부》가 조직되고 이 반역 도당이 《내부

적 단결》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산뚜완 기젱가의 《석방》 연극을 논 것 등이 바로 미제의 이러한 음모의 산물이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제의 책동은 혁명적 꾸바를 교살하기 위한 음모에 그 예봉이 돌려졌다.

미제는 4월 2일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과 국제 관례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꾸바 령공에 대한 《정찰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각서》를 꾸바 혁명 정부에 보내는가 하면 관타나모 기지에 둥지를 튼 미국 군대를 꾸바 령내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로 계속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5월 중순 꾸바 반 혁명 분자들을 사촉하여 필론항에 있는 제탕 공장을 포격하는 해적 행위를 감행케 하였으며 9월에는 꾸바로 가는 상품을 싣고 공해를 항행 중이던 에스빠냐 화물선을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또한 미제는 미주 국가 기구를 발동시켜 기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꾸바를 반대하는 데로 더욱더 내몰았는바 1964년에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가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바로 미제의 압력에 의한 것이였다.

꾸바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모든 침략 책동은 비단 꾸바 혁명에 대한 미국 지배층의 증오를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꾸바 혁명의 영향 하에 날로 강화되는 이 대륙의 민족 민주 운동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였다. 이것은 미제가 브라질에서 전후 네 번째의 정변을 조작한 사실에서 뚜렷이 표시되였다.

미제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브라질의 극우 세력은 4월 2일 친미 주구 마질리를 《대통령》으로 취임케 하였다. 이어 반란 두목 블랑코는 헌법을 뜯어고치고 자신이 직접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아 《반공》을 골자로 하는 극 반동적인 대내외 정책을 선포하였다.

브라질에서 미제가 조작한 이 정변은 전복 당한 굴라르트 대통령의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련의 《개혁》을 예견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일정한 추세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미제는 이 나라 애국적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진압하려고 광분하였다. 미제는 2, 500명으로 증강된 미 군사 사절단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반동 군대를 베네수엘라 민족 해방군을 반대하는 《토벌 작전》에로 내몰았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유격대를 반대하여 세균 무기를 사용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상의 제 사실은 미제가 의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그의 침략적 본성에서 하등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보다더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데서 저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 ×

1964년의 국제 정세는 오늘 세계 무대에서 진보와 반동간, 혁명적 인민들과 제국주의간, 온갖 새 것과 모든 낡은 것 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계급 투쟁을 핵으로 하는 이 국제적 투쟁에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력량은 승리하고 있으며 전쟁과 침략, 착취와 략탈을 목적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은 쇠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그러나 력사의 경험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국제 무대에서의, 진보와 반동 간의 이 투쟁은 결코 탄탄대로의 과정이 아니며 더욱이 제국주의자들이 결코 자진하여 력사 무대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발악하는 조건 하에서 혁명적 인민들은 있을 수 있는 모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렬을 더욱 굳게 하고 반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1964년의 국제 정세의 총화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아 세 아 주

중 국

(중화 인민 공화국)

【면적】 959만 7,000 km² (아세아 대륙의 5분의 1 이상) 그중 대만의 면적은 3만 5,759 km²

【인구】 6억 5,663만 명 (1957년, 홍콩, 마카오 주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제외)

【수도】 베이징 (주민 663만 명, 1958년 12월)

정 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외래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장 개석 반동파를 소멸함으로써 인민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1 기 제 1 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 공포하였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가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1년에 1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성, 자치구, 직할 시, 군대, 화교 대표들로 구성된다. 현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제 3 기로서 1964년에 선거된 3,040 명 (그 중 3 명은 선거 후 사망)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무 위원회 위원장 주 덕
비서장 류 녕일(겸임)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선거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들을 공포한다.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 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주석 류 소기
부주석 송 경령, 동 필무

【국무원】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현 국무원은 1965년 1월에 구성되였다.

총 리 주 은래
부총리 림 표, 진 운, 등 소평, 하 룡, 진 의, 가 경시 (1965년 4월 9일 사망), 오 란부, 리 부춘, 리 선념, 담 진림, 십 영진, 박 일파, 륙 정일, 라 서경, 도 주, 사 부치

비서장 주 영신
외교부 부장 진 의(겸임)
국방부 부장 림 표(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주임 리 부춘(겸임)
국가 경제 위원회 주임 박 일파(겸임)
과학 기술 위원회 주임 섭 영진(겸임)
내무부 부장 증 산
민족 사무 위원회 주임 오 란부
대외 무역부 부장 엽 계장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주임 장 해약
화교 사무 위원회 주임 료 승지

【국방 위원회】 주석 류 소기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창건되였다. 최고 지도 기관은 전국 대표 대회이며 그 임기는 5년이다. 당원 수 1,700여만 명 (1961년 6월)

정치국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등 소평, 동 필무, 팽 진, 진 의, 리 부춘, 류 백승, 하 룡, 리 선념, 가 경시 (1965년 4월 9일 사망), 리 정천, 담 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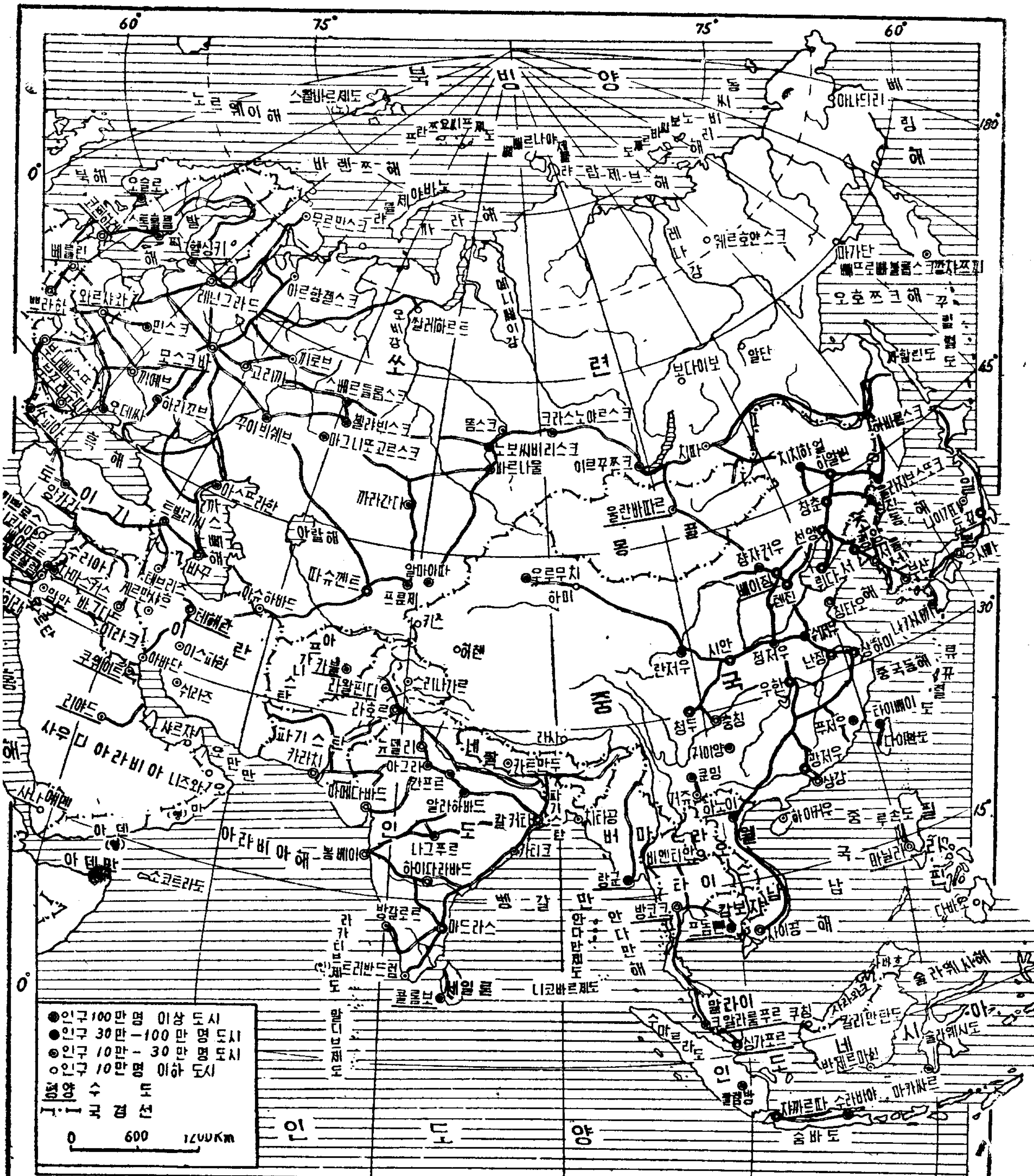
정치국 후보 위원 오 란부, 륙 정일, 진 백달, 강 생, 박 일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림 표, 진 운, 등 소평

중앙 위원회 주석 모 택동
부주석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림 표, 진 운
총서기 등 소평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중국의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 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되였다. 현재의 제 4 기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전국 위원회 성원들은 1,199 명이다. 현 지도 기관은 1965년 1월 5일 선거되였다. 명예 주석 모 택동, 주석 주 은래, 비서장 평 결삼 **중국 국민당 혁명 위원회** 1948년 1월 창립. 주석 하 향응 **중국 민주 동맹** 1941년에 창립, 주석 양 명헌 **중국 민주 건국회** 1945년 11월에 창립. 주임 위원 황 염배 **중국 민주 촉진회** 1945년 12월에 창립. 주석 마 서륜 **중국 농공 민주당** 1947년 2월 중화 민족 해방 운동 위원회를 현명으로 개칭. 주석 계 방 **중국 치공당** 1925년에 조직. 주석 진 기우 **9.3학사** 1945년 9월 3일에 창립. 주석 허 덕형 **대만 민주 자치 동맹** 1947년 11월에 창립. **중화 전국 총공회** 1925년에 창립. 회원수 1,630만 명(1957년 12월), 주석 류 녕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1949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신 민주주의 청년단을 1957년 5월에 현명으로 개칭. 서기처 제 1 서기 호 요방 **중화 전국 청년 련합회** 1949년 5월 4일에 창립. 주석 왕 위 **중화 전국 학생 련합회** 1949년 3월에 창립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부녀 련합회** 1949년 4월에 창립. 명예 주석 송 경령, 하 향응, 주석 채 창 **중국 문학 예술계 련합회** 주석 곽 말약 **중화 인민 공화국 과학 기술 협회** 주석 리 사광 **중화 전국 신문 공작자 협회**

아 세 아 주


북 빙 양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까라해
베링해
오호쯔크해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민스크
끼예브
오데싸
하리꼬브
고리끼
끼로브
아르한겔스크
스베르들롭스크
첼랴빈스크
꾸이비쉐브
마그니또고르스크
똠스크
노보씨비르스크
바르나울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꾸쯔크
치따
까라간다
알마아따
따슈껜트
프룬제
아랄해
울란바또르
몽 골
베이징
텐진
시안
란저우
정저우
난징
우한
충칭
청두
쿤밍
광저우
상강
푸저우
타이뻬이
선양
창춘
하르빈
하바롭스크
블라지보스또크
도꾜
오사까
나가사끼
중국동해
쏘 련
중 국
카불
라호르
뉴델리
아그라
칸프르
알라하바드
캘커타
카라치
아메다바드
봄베이
나그푸르
하이다라바드
마드라스
방갈로르
콜롬보
세일론
인 도
아라비아해
벵갈만
랑군
버 마
하노이
방코크
타 이
프놈펜
사이공
마닐라
마닐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까르따
수라바야
마카싸르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이 란
테헤란
이스파한
바그다드
이라크
아덴
아덴만
소코트라도
아라비아해
인 도 양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 - 100만 명 도시
◎인구 10만 - 30만 명 도시
○인구 10만 명 이하 도시
평양 수 도
국 경 선
0 600 1200Km
60°
75°
90°
105°
120°

주석 오 랭서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주석 곽 말약 중국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석 료 승지 중국 인민 대외 문화 협회 회장 초 도남 중국—조선 친선 협회 회장 리 덕전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봄부터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자본주의 경향과 투쟁하며 모든 사업을 가일층 혁명화하기 위한 사회주의 교양 운동을 전개하였다. 모 택동 저서 학습, 인민 해방군의 정치 사업 경험 및 혁명적 기풍 학습이 그 주요 구성 부분으로 되였다.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제 9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중국 청년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당면 과업을 제시하였다. 대회는 사업 총화 보고에 관한 결의와 수정된 새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가 진행되였다.

이 행사에는 8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3천여 명의 외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0월 16일 중국 서부 지역에서 첫 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국방을 현대화하는 데서 새로운 단계로 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핵 독점, 핵 공갈 정책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12월 21일부터 1965년 1월 4일까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3 기 제 1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주 은래 총리의 정부 사업 보고, 1965년 인민 경제 계획의 주요 지표, 1965년도 국가 예산 초안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상무 위원회와 국가 주석, 부주석을 선거하고 총리를 결정하였으며 국무원을 새로 구성하였다.

12월 20일부터 1965년 1월 5일까지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전국 위원회 제 4 기 제 1 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정부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또한 상무 위원회 사업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1964년에 광동, 복건, 절강성 등 연해 지역 군대와 인민들은 미국 및 장 개석 무장 특무 집단들의 침입을 여러 차례 분쇄하였는바 1963년 11월부터 1965년 1월까지에 만도 도합 16 개 집단의 272 명을 체포 및 사살하였다.

【대외 관계】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시종 일관한 대외 정책 로선에 립각하여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미제를 반대하는 국제적 통일 전선을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모 택동 주석은 빠나마 인민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는 담화 (1월 12일)를 비롯한 일련의 성명, 담화들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세계 각 대륙의 인민들,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 미국의 침략, 통제, 간섭 및 없수임을 받는 나라들이 단결하여 가장 광범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미제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였다.

10월 16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첫 핵 시험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어떠한 때,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먼저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고 핵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파괴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성명은 그 첫 걸음으로서 각국 수뇌자 회의가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핵 무기 소유 국가들이 지는 데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0월 17일 주 은래 총리는 이 성명을 각국 수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1965년 초 현재 중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한 나라들은 50 개이다. 그 중 1964년에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뜌니지, 프랑스, 꽁고 (브), 탄자니아, 중앙 아프리카, 잠비아, 다오메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0월 29일 김 일성 수상은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여 주 은래 총리에게 회답 서한을 보냈다.

9월 27일—10월 8일까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9월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9월 24일에 1965년도 호상 상품 납입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9월 12일에 조중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의정서, 10월 27일에는 조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 차 회의 의정서, 12월 27일에는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11월 14일 평양에서 중국 경공업품 전람회가 개관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문화 대표단 (4월), 직맹 대표단 (5월), 청년 대표단 (9월), 녀성 대표단 (9월)과 기타 부문 대표단 및 체육 선수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중국으로부터는 정부 경제 친선 방문단 (8월), 공산주의 청년단 대표단 (9월),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 (9월), 녀성 친선 대표단 (5월), 교육 대표단 (7월) 등과 기타 부문 대표단 및 체육 선수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쏘 량당 간의 회담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할 것을 제기하였다.

11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7월 19일 중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네바 협정 10 주년과 관련하여 발표한 웬남 정부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중국 인민은 웬남과 인도지나를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 전쟁 확대에 결코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국에 경고하였다.

8월 6일 중국 정부는 미 군용기가 웬남 민주 공화국을 불의에 폭격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웬남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민주 웬남에 대한 침범은 중국에 대한 침범으로 되며 중국 인민은 이를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고 민주 웬남에 대한 무장 침범과 도발을 즉시 중지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웬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음모 책동을 폭로 규탄하고 웬남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중국과 몽골 간의 국경 의정서가 6월 30일 조인되였다. 몽골에 파견되였던 중국 로동자들은 몽골 정부의 제의로 1964년 4월 25일—7월 9일까지 전원 귀국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관계 11월 27일—12월 3일 간에 진 의 부총리는 인도네시아를 친선 방문하였다. 진 의 부총리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적극 진행할 데 대한 방도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쌍방은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의 성공을 보장하며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의 결의를 관철할 것을 재 천명하였다.

2월 14—18일에 주 은래 총리가, 7월 10—11일에는 주 은래 총리와 진 의 부총리가 버마를 친선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주 은래 총리와 진 의 부총리는 이 나라 지도자들과 특히 동남 아세아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남부 웬남과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라오스 문제에 관한 14 개국 외상 회의의 소집을 지지하였다.

중국 정부는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으며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는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5월 26일 진 의 외교 부장은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과 그 회의 참가국들에 서한을 보내여 라오스 문제의 토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 참가국 외상급 회의를 6월에 캄보쟈의 수도 프놈 뻰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책동 하에 6월 초에 비엔티안에서는 제네바 회의 일부 참가국들이 협상을 진행하였다. 6월 9일 중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협상은 무익한 것이라고 하면서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해서는 14 개국 회의를 소집하는 이외의 다른 출로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6월 13일 외교부는 미국 비행기가 라오스 주재 중국 경제 및 문화 대표부를 폭격한 데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송 경령 부주석과 주 은래 총리가 쎄일론 (2월 26—29일)을, 주 은래 총리가 파키스탄 (2월 20—25일)을 친선 방문하였다.

예멘 아랍 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 (6월 1—11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9월 26일—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 (10월 30일—11월 13일)가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살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량국은 우호 조약, 문화 협조 협정, 경제 기술 협조 협정을 조인 (6월 9일)하였다. 1963년 12월 14일—1964년 2월 4일 간에 주 은래 총리가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 마로코, 뜌니지, 가나, 말리, 기네,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11월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1월 3일 중국—말리 우호 조약이 체결되였다.

9월 1일 외교부는 꽁고 (레)를 제 2의 웬남으로 전변시키려는 미제를 규탄하고 꽁고 (레)와 아프리카 인민들이 단결하여 미국 침략자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6일 중국 정부는 미국—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이 꽁고 (레)를 무장 침략하여 스탠리빌을 점령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와 인민은 꽁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1월 28일에는 모 택동 주석이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꽁고 (레)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3일 외교부는 아덴과 남부 예멘 지구에서의 영 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나쎄르 대통령의 제의를 지지하는 각서를 중국 주재 아랍 련합 공화국 대사관에 보냈다. 수단 최고 군사 위원회 위원장 아뿌드 (5월 16—20일), 꽁고 (브) 대통령 마쌈바 데바(9월 28일—10월 3일)가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마쌈바 데바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과 꽁고(브) 간에 우호 조약, 경제 및 기술 협조 협정, 문화 협조 협정, 해운 협정이 조인(10월 2일)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탄자니아와 경제 및 기술 협조 협정 (6월 19일), 케니아와 경제 기술 협조 협정 (5월 10일)을 조인하였다.

중인 국경 문제 7월 7일 외교부는 1964년 상반년 내에 인도측이 중국 령토와 령공을 부단히 침범 (23 차)한 데 항의하여 중국 주재 인도 대사관에 각서를

보냈다. 하반년에도 인도측은 중국 령토와 령공을 거듭 침범하였다. 10월 9일 중국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인도 수상이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를 리용하여 중국을 중상한 것을 반박하고 만약 인도 정부가 진정으로 회담을 원한다면 어느 때 어떤 곳에서도 콜롬보 제안에 기초하여 인도 정부와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재 천명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월 27일 모 택동 주석은 일본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4월 19일 료 승지 사무소와 다까사끼 사무소 간에 대표의 호상 파견과 련락 사무소의 호상 설치, 기자들의 호상 교환, 무역의 진행 등에 대한 문건이 조인되였다.

1월 12일 모 택동 주석은 빠나마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4월 3일 브라질 당국이 중국 무역 대표 및 기자들 9 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이에 항의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12월 23일 중국 정부는 브라질 당국이 중국 인원들에게 내린 비법적 판결 (10년 징역형)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아세아와 중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였다. 미국은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1958년 9월 7일 이래 1964년 6월 29일까지 300 차에 걸쳐 중국 연해와 도서들을 침범하였다. 중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도발 행위에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폴라리스 잠수함을 아세아 대륙 연안에 파견한 것을 규탄하여 12월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 제 중국의 인민 경제는 1958년부터 1960년 간의 큰 발전 시기를 거쳐 1961년부터 조절, 공고, 충실, 제고의 시기에 들어 섰다. 1964년에 와서 인민 경제를 조절하는 과업은 기본적으로 완수되였으며 경제가 전면적으로 호전되였다. 공업 및 농업 생산의 전면적 앙양이 일어났으며 인민 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중국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석탄과 철광석의 매장량은 세계 제 2 위, 월프람, 주석, 안티몬을 포함한 일련의 금속 및 희금속의 매장량은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생산에서는 새로운 발전이 있었으며 품종 및 질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약진이 있었다. 초보적 통계에 의하면 1964년 공업 총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강철, 석유, 화학 비료, 세멘트, 자동차, 면사, 사탕, 담배 등 주요 공업 제품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의 품종은 1964년까지의 4 년 간에 약 2만 4천 종 증가되였다. 제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일부 제품들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 1964년에 1천 400여 종의 새로운 공업 제품이 국가 표창을 받았다.

1964년에 중국에서 새로 시험 제작한 강종, 강재는 400여 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불수강, 내고압강, 내부식강 등 량질 합금강이 포함되여 있다. 기계 제품은 최근 수년 간에 매년 1천 종 이상씩 증가되여 1964년에는 1957년의 2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기대와 자동화 기대, 1만 2천 톤 프레스, 120만 톤 생산 능력의 탄갱 설비, 대형 발전 설비, 350 톤 문형 기중기, 대형 정유 설비 등을 생산함으로써 자력 갱생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였다. 1963년에 강재의 자급률은 95%, 기계의 자급률은 90%였다.

화학 공업이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3년에 그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40여 배로 늘었으며 20 개 공업 부문에서 종전의 제 8 위로부터 제 4 위로 올라 갔다. 1964년에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대, 중 화학 공장 신설 공사가 진행되였다.

1964년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과 방직 공업 부문의 생산액이 대폭 늘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이 강화되였다. 1964년 첫 8 개월 간에 공업 부문은 5,700여만 무의 면적에 배수 및 관개를 보장할 수 있는 기계를 알곡 및 목화 생산의 중점 지구들에 보냈다. 농업용 전동기 생산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0%로, 17개 중점 지구에 보낸 화학 비료는 176.4% (366만 톤)로 증가되였다.

【농업】 1964년에 농업은 좋은 수확을 거두어 농업 생산이 비교적 높았던 해의 수준에 다달았다. 초보적 통계에 의하면 알곡, 목화, 담배, 사탕수수, 돼지, 양 등 주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량은 1957년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수준을 릉가하였다. 1964년에 유지 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72%, 락화생은 26%, 담배는 28%, 사탕무우는 170%, 사탕수수는 47% 장성되였다.

국영 농장이 부단히 장성 발전되였다. 1964년에 농장수는 1957년에 비하여 9 배로, 경지 면적은 4 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영 농장의 기계화 수준은 아주 높으며 1963년의 단위 면적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알곡은 35%, 콩은 21%, 목화는 62% 장성하였으며 국가에 제공한 상품 알곡과 목화는 같은 기간에 88% 늘었다.

농업의 기술 개혁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1964년 상반년 현재 농업 기계 사업소 수는 1,500 개였으며 그 작업량은 그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60% 이상 늘었고 단위 면적당 기계 작업의 원가는 25% 낮아졌다.

1957년에 비하여 1964년에 또

라또르 대수는 5 배 (12만 3,000 대—15 마력 환산)로, 관개 설비의 미력 수는 13 배로, 농촌용 전력은 23 배로, 화학 비료 시비량은 3 배 이상으로, 전력 동력에 의한 관개 면적은 6 배로 증가되였다.

농약 사용량은 1957년에 비하여 1963년에 87%나 증가되였다.

【대외 무역】 1964년 10월 현재 중국은 125 개 국가 및 지역들과 통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38 개국과 정부 통상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무역이 장성하였다. 이 지역의 60여 개 나라와 무역하고 있는데 그중 20 개 나라와는 정부 통상 협정을 맺고 있다. 1963년에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통상액은 1950년에 비하여 3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알곡, 면사, 면방직품, 화학 제품, 기계 설비, 기구 및 계기, 수송 수단, 기타 경공업 제품이며 수입품은 목화, 생고무, 황마, 야자씨, 야자유, 목재, 린산염 및 일부 공업 제품 등을 수입한다.

사회, 문화

1964년에 돼지고기, 양고기, 채소 등 부식물의 공급량은 1957년보다 30% 이상 많았으며 종이, 알루미니움 제품, 도자기 제품, 자전거, 라지오 등 일용품의 공급량은 50% 이상 늘었다.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교육이 정치에 복무하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침에 따라 교육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공업 및 농업 학교들이 운영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였다.

1964년에 예술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시대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로 봉건 시대의 제왕, 장군, 재사, 가인들이 주인공으로 되여 있던 경극은 현대적 주제를 담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경극으로 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단결시키고 교양하며 원쑤들에게 타격을 주는 새로운 유력한 예술적 무기로 되였다.

1963년에 병원의 침대 수는 1949년에 비하여 7 배 이상으로, 료양소의 침대 수는 20여 배로 증가되였다.

특히 과거 현대적 의료 시설이란 거의 없던 소수 민족 지역에서 보건 사업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같은 기간에 이 지역에서 병원 침대 수는 20 배로, 전문 보건 기술 일'군은 30여 배로 장성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신화 통신

주요 신문—인민 일보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공인 일보 (중화 전국 총공회 기관지), 중국 청년보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광명 일보, 대공보, 해방군보, 베이징 일보

주요 잡지—홍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중국 청년, 중국 부녀, 문예보, 세계 지식 (반 월간), 신 건설, 인민 문학, 해방군 문예

몽 골

(몽골 인민 공화국)
Бу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упс

【면적】 156만 5,000 km²

【인구】 144만 9,000 명 (1963년 말)

【수도】 울란바따르 (주민 21만 7,800 명, 1963년 1월 5일 현재)

정 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몽골 인민은 인민당 (현재 몽골 인민 혁명당)의 령도 하에 1921년 7월 11일 인민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골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인민 후랄】 최고 주권 기관이며 대의원 수는 270 명이고 그 임기는 3년이다. 현재의 대 인민 후랄은 제 5 기로서 1963년 6월 9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바또치르의 알딴게렐
상임 위원회 위원장 즈.삼부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7월 2일에 구성, 그 후 일부 변경되였다.

수상	유.쩨덴발
제 1 부수상	드.몰롬잠쯔 쓰.룹싼
부수상	느.쟈그바랄, 드.마이다르, 쯔.뿐짜그노로브, 브.두게르쑤렌, 쯔.라그차, 브.르함쑤렌
외무상	므.두게르쑤렌
인민군상	즈.르하그바쑤렌
무역상	드.곰보쟈브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쯔.라그차

【정당, 사회 단체】 **몽골 인민 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몽골 인민당이 1924년 8월 몽골 인민 혁명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수 4만 3,902 명 (1961년 4월 1일)

정치국 위원 즈.삼부, 유.쩨덴발, 쓰.룹싼, 드.마이다르, 느.쟈그바랄, 쯔.두게르쑤렌, 드.몰롬잠쯔

후보 위원 브.르함쑤렌, 느.룹싼라브단

비서 유.쩨덴발 (제 1 비서), 쯔.두게르쑤렌, 브.르함쑤렌, 느.쟈그바랄, 드.몰롬잠쯔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즈.밤바도르쥬 **인민 혁명 청년 동맹** 제 1 비서 츠.뿌레브쟈브 **근로 녀성 동맹** 위원장 쓰.우드왈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츠.치미드 **청년 단체 위원회** 위원장 츠.뿌레브쟈브 **몽골—조선 친선 협회** 1960년 8월 12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므.잠쓰란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11월 3일에 진행된 몽골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및 내각 합동 회의에서는 내각 수상 유.쩨덴발이 인솔한 당 및 정부 대표단의 민주 독일, 웽그리아, 뽈스까 방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21—22일 몽골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는 《당, 국가 및 사회의 통제를 일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와 《1961—1965년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계획에 일부 수정을 가할 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조직 문제를 심의하였다.

12월 23—24일 대 인민 후랄 제 5 기 제 3 차 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1965년도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계획 초안과 1965년도 국가 예산 및 1963년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해당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3월 28일에 우리 나라 김 일성 수상은 몽골에서 큰 눈 사태와 혹한으로 극심한 자연 재해가 있은 것과 관련하여 몽골 인민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의 뜻을 표명하여 전문을 보냈다.

6월 23일 우리 나라와 몽골 간에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가 조인되였으며 12월 16—21일 간에는 우리 나라와 몽골 간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4년에 유.쩨덴발 수상이 쏘련 (4월 및 11월), 민주 독일 (10월), 뽈스까 (10월 23—29일), 웽그리아 (10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대 인민 후랄 상임 위원회 위원장 즈.쌈부가 벌가리아(9월)를, 몽골 인민 혁명당 비서 느.쟈그바랄 (1월 30일—2월 18일)과 대 인민 후랄 의장 바또치룬 알딴게렐이 쏘련 (10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7월 7—18일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몽골에 파견되였던(1955년 및 1960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 로동자들이 몽골 정부의 제의로 1964년 4월 25일—7월 9일 간에 전원 (6,000여 명)이 귀국하였다.

8월 7일 몽골 외무성은 북부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0월 28일—11월 1일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가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11월 1일 몽골—말리 공동 공보를 발표하였다.

몽골은 1964년 5월 22일 스위스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인민 경제에서 목축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인구 1 인당 가축 마리 수에 있어서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양, 말, 락타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탕그스텐 등이 있다.

목축업의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최근 년간 밀, 사료 작물을 비롯한 농업 생산이 새로운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는 광업, 금속 가공 공업, 전력 공업, 목재 가공 공업 등 새로운 공업 부문들이 생겼으며 제 3 차 5 개년 계획 (1961—1965)에 착수한 이후 1964년 1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70여 개의 대 공업 기업소들이 신설 또는 확장되였다. 결과 과거 락후한 유목 국가였던 몽골은 사회주의적 농업—공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1964년 2월의 큰 눈 사태와 그 후 계속된 혹한 그리고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과 가축 두수는 전년에 비하여 각각 장성하였다.

【농업】 1964년에 가축 두수는 1963년에 비하여 1.2% 증가하여 2, 270만 두에 이르렀다. 축산업을 공고한 사료 기지에 토대하여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근 년간 수만 헥타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1964년에 파종 면적은 1960년에 비하여 50% 증가한 64만 헥타였다. 알곡은 1963년에 비하여 15.9% 더 많은 2, 310만 뿌드 (1뿌드는 16.3 키로 그람) 생산하였다.

파종 면적과 알곡 수확량

	1962	1963	1964
파종 면적 (1,000헥타)	439.1	455	640
알곡 수확량 (1,000톤)	326.2	320.2	

1964년 11월 현재 2, 500 대 (15 마력으로 환산)의 뜨락또르와 600 대의 콤바인, 수백 대의 자동차와 련결차를 가진 39 개의 농기계 축산 지정소가 농업을 방조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농사일을 기계화하였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제품 생산은 1963년에 비하여 4% 장성하였다. 1964년 공업 생산액은 1960년에 비하여 52% 장성하였으며 년 평균 장성률은 11%였다. 1963년에 공업 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47.3%, 소비재 생산은 52.7%를 차지하였으며 국가 쎅또르의 몫은 82.2%였다. 1963년에 전력은 1억 9, 420만 키로와트시, 석탄은 84만 5천 톤, 직물은 52만 4, 300 메터 생산되였다.

【대외 무역】 수출품은 가축, 모피, 양모, 피혁 등이며 수출에서 90%는 축산품이다. 수입품은 기계, 설비 및 화학 제품들과 일용품이다.

사회, 문화

1964년에 각급 학교 학생 수는 17만 8, 000 명이였다. 이리 하여 인구 1만 명당 보통 교육 부문 학교에서는 1, 500 명, 중등 전문 학교에서는 91 명, 대학들에서는 103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1964년 말 현재 80여 개의 병원과 600 개 이상의 간의 병원 및 진료소, 7,000 명의 의료 일'군들이 있었다.

5 개년 계획의 첫 3년 동안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는 17% 늘었으며 그들의 로임 폰드는 28% 장성하였다. 1963년에 공동 경리로부터 받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현금 수입은 1960년보다

60% 증가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 몽골 통신 (몬짜메)

신문—우넨 (몽골 인민 혁명당과 정부 기관지), 허덜 머르 (직업 동맹 기관지), 잘로츠딘 우넨 (인민 혁명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나뢴 아미드랄 (인민 혁명당 기관 잡지)

웰 남

(웰남 민주 공화국)

【면적】 32만 8,000 km² (민주 웰남 면적은 15만 7,000 km²)

【인구】 1,700만 명 (1963년, 민주 웰남 주민)

【수도】 하노이(주민 64만 3,576명, 1960년 3월 1일)

정 치 웰남 인민은 1945년 8월 혁명을 수행한 후 9월 2일 독립하여 웰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웰남 인민은 1946년 12월에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한 프랑스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954년 7월까지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하였다. 1954년 7월 21일에 조인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이 남북 간의 림시 분계선으로 되였다.

1959년 12월 31일 제 11 차 인민 회의는 1946년 제 2 차 인민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을 변동된 정세에 부합되게 수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임기는 3 년이며 대의원 수는 455 명(그 중 남부 웰남 출신 대의원 89 명)이다. 현 인민 회의는 제 3 기로서 1964년 4월 26일에 선거되였다. (남부 웰남 각 선거구 출신 대의원 89 명은 임기를 연기 받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호 지명

부주석 손 덕승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7월 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범 문동

부수상 범 웅, 무원갑, 반 계수, 원 유정, 려 청의

외교 부장 원 유정

국방 부장 무 원갑

내무 부장 옹 문겸

대외 무역 부장 반 영

통일 위원회 주임 원 문영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원 유정

【정당, 사회 단체】 웰남 로동당 전신은 1930년 2월 3일 (1960년 9월 제 3 차 당 대회에서 창건일로 결정)에 창건된 인도지나 공산당이다. 1951년 2월 3일 인도지나 공산당 제 2 차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웰남 로동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수 50만 명(1960년)

정치국 위원 호 지명, 려 순, 장 정, 범 문동, 범 웅, 무 원갑, 려 덕수, 원 지청, 원 유정, 려 청의, 황 문환

정치국후보 위원 진 국환, 문 진용

중앙 위원회 주석 호 지명

서기처 서기 려 순 (제 1 서기) 범 웅, 원 지청, 려 덕수, 황 영, 소 우, 려 문량

민주당 총서기 엄 춘암 **사회당** 총비서 원 천 **조국 전선** 명예 주석 호 지명, 주석 손 덕승 **직업 총련맹** 주석 황 국월 **로동 청년단** 제 1 비서 원 람 **청년 련맹** 위원장 범 옥석 **녀성 동맹** 위원장 원 씨십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려 정탐 **웰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손 광벌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3월 27—28일에 호 지명 주석은 특별 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웰남에서 평화가 회복된 이래 10년 간의 남북 웰남 정세를 개괄하고 웰남 인민의 당면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3월 30일—4월 4일 간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는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사업 보고, 1964년 국가 계획과 예산에 관한 정부의 사업 보고, 특별 정치 회의 성과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정기 회의 결정 (2월 24일)에 의하여 4월 26일 제 3 기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59 개 선거구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거의 100%가 366 명의 대의원에 찬성 투표하였다.

6월 27일—7월 3일 간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웰남 민주 공화국 주석, 부주석,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수상과 부수상들 기타 정부 성원들을 선거 또는 임명하였다.

웰남 정부는 나라의 통일과 인도지나의 평화를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7월 3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부 웰남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한 성명과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 10 주년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부 성명 (7월 15일)에서는 남부 웰남으로부터의 미제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남부 웰남 문제는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강령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웰남의 평화적 통일 문제는 웰남 조국 전선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강령 정신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및 웰남 인민군 련락 사절단은 4월 4일과 14일, 5월 6일과 12일, 7월 30일, 8월 26일, 10월 11일, 11월 5일과 21일, 12월 18일에 제네바 회의의 공동 의장국과 참가국들 그리고 웰남 국제 감시 및 관리 위원회에 서한을 각각 보내여 남부 웰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 전쟁을 중지시키며 1954년 제네바 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미제는 남부 웰남 침략 전쟁에서 저들의 패배를 만회할 목적으로

전쟁을 북부 웰남으로 확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도발과 파괴 책동을 부단히 감행하였다.

7월 30일부터 북부 웰남 령해에 침입한 미제는 8월 4일 소위 《바크 보만 사건》 (세칭 통킹만 사건)을 날조하고 8월 5일 웰남 령토에 대한 기총 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8월 5일 이래 1965년 2월 7일까지만도 20여 차에 걸쳐 미제의 비행기와 군함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침범하고 많은 지역을 포격 및 폭격하였다.

웰남 정부는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다. 8월 5일 웰남 인민군은 빈 벤 투이 지역, 기안강 하구 혼가이시 부근에 침입한 미제 비행기 8 대를 격추하고 3 대를 격상하였다. 8월 6일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책동을 꺾어 버리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 것을 1954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 사회주의 국가들 및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에 호소하였다. 9월 4일에는 제네바 회의의 공동 의장들과 참가국들에 미국이 북부 웰남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사건을 도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제소하였다.

8월 9일 외교부는 소위 《바크 보만 사건》을 날조한 미제의 《제소》를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웰남 사태를 심의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9월 19일 외교부는 미제가 북부 웰남에 대한 새로운 침략을 도발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9월 17일과 18일 바크 보만에 구축함을 침입시켜 도발 행동 (《제 2 바크 보만 사건》)을 감행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웰남 민주 공화국은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침해나 인민들의 평화적 로동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9월 19일 외교 부장은 북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전쟁 음모를 좌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1954년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들과 그 참가국들에 보냈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6월 24일 하노이 시민 1만 명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군중 대회를 진행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9월 18일—10월 7일에 웰남 문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 10일—11월 3일에 우리 나라 과학 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으며 11월 2일 량국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장기 협정이 체결되였다.

12월 17—28일에 우리 나라 군사 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웰남 로동당 대표단이 1964년 1월 31일—2월 10일까지 쏘련을, 7월 14일—8월 14일까지 꾸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10월 21일 범 문동 수상은 10월 17일 부 주 은래 총리의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에서 핵 무기의 완전 금지 및 완전 파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 수뇌자 회의를 소집하자는 중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범 문동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9월)과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11월 7일)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과 쏘련을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와의 관계 모디보 케이타를 단장으로 하는 말리 정부 대표단 (10월 18일—22일), 수반나 푸마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대표단 (4월 2—4일), 일본 공산당 대표단 (4월 12—19일), 프랑스 공산당 대표단 (4월 22일—5월 7일), 프랑스 국회 대표단 (2월 7—12일)이 각각 웰남을 방문하였다.

8월 15—29일 웰남 인민 회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6월 19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6월 4일 유엔 안보 리사회가 남부 웰남—캄보쟈 국경 지대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5일 웰남 외교 부장은 라오스 왕국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여 미제와 남부 웰남 주구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침범하는 데 라오스 령토를 리용하도록 허용한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10월 9일 정부는 미제와 라오스 친미 우익 분자들이 라오스에 웰남 인민군이 《침투》하였다고 무근거하게 비방 중상하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4일 외교부는 꽁고(레)에 대한 미제의 무장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에 웰남은 말라위(7월 7일), 말타(9월 24일)를 각각 승인하였으며 꽁고(브)와 외교 관계를 설정 (7월 16일)하였고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8월)를 보았다.

경제

웰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탕그스텐, 금, 연, 린산염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고무, 사탕수수, 야자, 후추, 커피이다. 산림 면적은 토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웰남은 1961년부터 제 1 차 5 개년 계획(1961—1965)을 수행하고 있다.

1964년에 웰남 인민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관리와 영농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공업의 발전을 위한 공고한 기지로서 복무할 농업에 대한 새롭고 확고한 터전을 닦아 놓았다.

1963년 말 현재 252만 5,908호(농호 수의 88.96%)가 농업 협동 조합에, 거의 모든 주요 부문의 수공업자들이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고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공사 합영 기업의 길에 들어 섰다.

1964년에 기본 건설에 대한 국가 투자액은 1963년에 비하여 7.1% 증가하였다.

1964년에 23 개의 생산 기업소와 많은 공공 시설 건설이 완공되였는데 여기에는 태원 강철 공장 2호 용광로와 해탄로, 비에트 트리 발전소, 《3.8》 방직 공장외 4 개 직장의 건설이 들어 있다.

【공업】 1964년 국가 계획은 초과 완수되였다. 중앙 공업은 계획을 금액상으로 1.45% 초과 완수하여 1963년 보다 15.8% 장성하였다. 1961—1964년에 중앙 공업 생산은 년 평균 22% 장성하였다.

1964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보다 10.7% 장성하였다.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9.6%, 소비재 생산은 11.4% 장성되였다. 특히 중공업 생산액은 19.85% 장성되였다.

경공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17.5% 장성하였다. 이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5.7% 장성하였으며 생산 원가는 약 2% 낮아졌다. 전년에 비하여 1964년에 전력은 19.1%, 석탄은 8%, 선철은 358.3%, 화학 비료는 13%, 금속 절삭 기대는 93.3%, 세멘트는 20.9%, 계기류는 10.3%, 사탕은 14.2%, 물'고기는 6%, 담배는 8.8% 각각 장성되였다.

공업 제품 생산량(단위 1,000 톤)

	1960	1963
전력(100만 kwh)	256.1	453.9
석탄	2 595.0	3 346.6
세멘트	408.0	494.8
광물성 비료	51.0	168.0
린회석	490.0	925.5
면직물(100만 m)	76.0	100.6
견직물 〃	5.5	

중공업 부문에서는 1964년에 후라이스반, 선반, 동력 양수기, 압굴장, 기관차 등 대형 설비와 기계를 포함한 40여 종의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였다.

1964년에 공업은 농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기계 공업은 2천여 대의 양수기를 비롯하여 1961년보다 거의 2 배나 되는 많은 농기계, 농기구들을 공급하였으며 화학 공업은 27만여 톤의 비료, 수천 톤의 살충제, 1만여 메터의 대구경 관개용 고무관을 농촌에 공급하였다. 최근 년간 지방 공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년 평균 50만 톤의 석회와 2만 톤의 화학 비료, 건설 부재 등을 농촌에 공급하였다. 지방 공업은 1964년에 전체 소비품 수요의 70%를 충당하였다.

【농업】 1964년에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국가 계획은 완수되였다. 1964년도 농업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6.7% 그 중 알곡은 8.1%(그 중 벼는 8.9%), 축산물은 12.4% 각각 장성하였다.

경지 면적은 1964년에 전년보다 3.1% 확장되였다. 특히 알곡 경지 면적은 3.8%, 기타 농작물의 경지 면적은 7.2% 확장되였다.

경지 면적에서 알곡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몫은 1960년의 15.5%로부터 1964년에는 22%로, 공예 작물과 과수원 면적은 같은 기간에 5%로부터 6.1%로 늘었다.

관개망의 확장으로 알곡 륜작 지수는 1963년의 1.62로부터 1964년에는 1.67로 제고되였다.

집약적 영농법이 도입된 결과 헥터 당 벼 평균 수확은 1963년에 비하여 2.3% 높아졌다.(보통 헥터당 5 톤의 벼를 수확)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물소는 4.2%, 소는 4.6%, 돼지는 7.7% 각각 늘었다. 1963년에 대각 가축 두수는 229만 5,000두, 그 중 물소는 150만 두, 소는 79만 5,000두였고 돼지는 417만 9,000두, 가금은 5,756만 6,000마리 있었다.

1964년에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가일층 축성되였다. 56개의 대규모 관개 공사와 98 개의 소규모 양수장이 건설되였다. 기타 중소 규모의 관개 공사는 1963년의 2 배에 달하였다. 결과 관개 면적은 25만 헥터 더 늘어 총 44만 헥터에 달하였다.

국가는 1963년에 비하여 종자 공급량을 7.5 배로 증가하였고 비료는 17.2%, 개량 농기구는 10.7% 더 공급하였다.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쌀, 차, 커피, 주석, 린회석, 수공업품, 수예품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설비, 기계, 원료 등이다.

1963년에 수출액은 8,360만 루블, 수입액은 1억 4,070만 루블이였다.

1964년 수출액 중 중공업품이 34%를 차지하였다.

사회, 문화 1964—1965 학년도 학생 총수는 1954년의 5 배인 280만명이였으며 전 학년도보다 8.3% 증가하였다. 1963—1964 학년도에 일반 교육 부문 학교 수는 9,162 개, 학생 수는 259만 9,000명, 중등 전문 학교 수는 130 개, 학생 수는 5만 7,794명, 대학 수는 13 개, 학생 수는 2만 6,513명이였다.

1964년에 21 개의 병원과 78 개의 의료 기관들이 건설되였으며 1,507명의 의료 일'군들이 농촌에 진출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웰남 통신

신문—인민(웰남 로동당 기관지), 구국(웰남 조국 전선 기관지), 로동(웰남 직업 총련맹 기관지), 인민군(웰남 인민군 기관지)

잡지—학습(웰남 로동당 기관지)

남부 웰남

美帝의 전쟁 확대 정책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3월과 5월 국방 장관 맥나마라를 비롯한 호전 장군들을 남부 웰남에 급파하여 전쟁을 확대하고 북부 웰남을 침공할

계획을 모의하였으며 군사 장비의 증강을 목적으로 소위 《죤슨—맥나마라안》을 꾸몄다. 3월 17일 백악관 국가 안전 회의에서는 맥나마라의 귀찬 보고에 근거하여 《남부 웰남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계속 증가》할 것을 토의하였으며 5월 18일 죤슨은 남부 웰남 괴뢰들에 대한 1억 2,500만 딸라의 추가 《원조》안을 국회의 심의에 제출하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하여 미제는 1960—1964년 남부 웰남 괴뢰들에게 24억 딸라의 원조를 주었다(1954—1960년 간에는 16억 딸라).

동시에 저들이 걸머진 군사적 부담을 나누기 위하여 소위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에 인입하려 하였으며 인도지나 문제를 유엔에까지 끌고 가려고 획책하였다. 4월 23일 미국 대통령 죤슨은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 전쟁에 세아토 성원국들이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5월 8일에 미국 정부는 자기의 추종 국가 25 개국에 남부 웰남 괴뢰를 《원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6월 1일과 2일에는 호노룰루에서 《전략 회의》를 열고 남부 웰남에서의 침략 전쟁의 강화와 북부 웰남에 대한 도발의 감행,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간섭의 강화를 위한 방도를 모의하였다. 6월 23일 미 대통령 죤슨은 《동남 아세아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남부 웰남과 라오스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남부 웰남 대사로 롯지 대신에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이며 《특수 전쟁》의 《권위자》인 테일러를 앉히고 종전에 없던 부대사까지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에 광분하였다.

7월 7일 테일러가 전쟁 계획을 가지고 사이공에 기여들었다. 미제는 제 7 함대 함선들을 사이공항에 파견하고 공군을 2 배, 그 화력을 4 배로 증강하기 위하여 새 항공기들을 반입하였다.

11월 현재 미 군사 고문을 1만 1,200명(1962년 《미 군사 원조 사령부》 설치 당시는 3천명)으로 증가하고 1964년 8월 이래 1965년 초까지만도 미군 4천명을 증파하는 한편 괴뢰군을 1961년의 27만 명으로부터 60만 명으로 증강하였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자기의 군사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는바 공군 기지는 1960년 말의 57개로부터 1964년 말에는 110개로, 해군 기지는 같은 기간에 4개로부터 11개로 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 인민의 투쟁을 말살하여 보려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구금, 학살하였으며 지어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서슴 없이 사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 조인 이후 11년 동안에 근 17만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근 80만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배를 갈라 죽이거나 생매장하여 죽인 애국자만도 5천명이나 된다. 이 밖에도 1천여개의 감옥에 40만명을 감금하였다.

한편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 전쟁을 북부 웰남에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7월 30일 이래 북부 웰남의 령해와 령공을 부단히 침범하였다. 8월 4일, 9월 17일과 18일에는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북부 웰남에 대한 로골적인 무력 침략을 개시하였다. 그후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부 웰남 괴뢰들은 북부 웰남 령해와 령공을 침범하여 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괴뢰 정권의 위기 미제는 괴뢰 통치 체계를 강화하여 정치적 위기를 수습할 목적으로 1964년 1월 30일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이리 하여 1963년 11월 디엠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 앉힌 두옹 반 민을 군사 두목 느구옌 칸으로 교체하였다. 8월 16일에는 칸에게 《대통령》 직위까지 겸하게 하고 《전시 상태에 적응》한 《림시 헌법》을 만들어 무제한한 권한을 줌으로써 군사 독재를 수립케 하였다.

그러나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에 부딪쳐 8월 25일에 느구옌 칸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괴뢰 《군사 혁명 위원회》는 《림시 헌법》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27일 미제는 《군사 혁명 위원회》를 해체하고 느구옌 칸, 두옹 반 민, 트란 티엔 키엠으로 구성되는 《림시 지도 위원회》(3인 정치)라는 과쇼 기구를 만들고 느구옌 칸을 《수상》직에 앉혔다.

이와 같은 미제의 무마책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8월 16일 칸의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더욱 폭발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괴뢰들 간의 알륵과 모순은 완화되지 않았다.

8월 17일 유에시에서 폭발한 학생들의 시위는 학생, 지식인, 괴뢰 경찰, 관리들까지 포괄하는 대중적인 반미 반정부 폭동으로 화하여 사이공, 유에, 다 낭 등 주요 도시들을 휩쓸면서 약 10일간 계속되였다.

시위자들은 괴뢰 공보성을 짓부시고 미군 식당과 미국인 호텔을 돌로 까부셨으며 사이공 방송국을 점령하고 방송국 담’벽에 반미 구호를 붙였다.

9월 21일 사이공에서 6만 명 로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통신, 항만 업무, 전력, 수도, 운수 등 시내의 기능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9월 20일에는 중부 4 개 주의 자치를 요구하여 4천 명의 라데족 소수 민족 군대들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군 특수 부대의 웰남족 병사 17명을 살해하고 일시에 방송국을 점령하고 반란을 계속하였다.

11월 22, 25, 29일 사이공 학생들과 시민들은 괴뢰군과 경찰의 류혈적 탄압을 박차고 11월 4일에 조작된 괴뢰 정권의 해체를

요구하여 시위를 계속 단행하였다. 괴뢰군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1964년 첫 9 개월 동안에만도 5만 8천 명의 괴뢰군 병사들이 탈주하였거나 인민의 편으로 넘어 갔다.

한편 칸 정권을 반대하여 9월 13일에는 군사 정변이 발생(실패)하였다.

10월 27일 느구옌 칸은 《3인 파두》와 군사 정권의 해산을 선포하고 《국가 원수》 판 칵수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민정 이양》 놀음을 벌렸으나 정세는 안정되지 않았다. 11월 4일에 조작된 《민간 정부》는 1965년 1월 26일과 2월 16일에 각각 새로운 괴뢰로 교체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여 괴뢰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였으며 수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인민 무장력의 강화 민족 해방 전선의 기치 밑에 인민 무장력의 력량은 장성되고 전투 능력과 기술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1964년 인민 무장력은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 쥐고 침략자들을 족치면서 사이공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좁혔다.

인민 무장력은 매복전, 기동전, 추격전, 배후 타격, 육박전과 함께 대규모적인 기습전을 배합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년초부터 인민 무장력은 메콩강 류역에서 감행된 적들의 《대기동 작전》에 첫 타격을 가하여 1963년 상반년 간의 전과와 같은 큰 전과를 올렸다.

11월 1일에 인민 무장력은 사이공 동북쪽 20 키로메터 지점에 있는 비엔 호아 미 공군 기지(남부 웰남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군 비행장)를 불의에 습격하여 미군 293명을 살상하고 미 공군 최대의 전략 폭격기 《비—57》을 포함한 적기 59 대와 미군 숙사 18개를 파괴함으로써 미제에 《수치스러운 군사적 및 심리적 참패》를 주었다. 그 이후 해방군은 공격의 규모와 강도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1964년 말과 1965년 초에 걸쳐 남부 웰남 해방군과 유격대들은 적들이 10 개 대대의 병력을 투입하고 수차례에 걸친 반공격을 감행한 빈 기아 전투에서 미군 28명을 포함한 괴뢰군 2천여 명을 살상하였으며 37 대의 군용차를 파괴하고 37 대의 비행기를 격추 또는 격상하였다.

미제는 이 전투를 《남부 웰남 력사상 가장 비참한 전투 마당》으로 묘사하였다.

인민 무장력은 적들의 심장부인 사이공에서도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1964년 2월 9일과 16일 탄손 느하트 비행장과 킨도 비행장 및 《미국인 전용》 영화관을 공격하고 미국 침략자 120여 명을 소멸하였으며 5월 2일에는 사이공항에서 1만 5천톤급의 미국 항공 모함 《카드》호를 격침하고 19 대의 비행기를 격추하였다.

12월 24일에는 사이공 복판에 있는 미군 장교들의 숙소를 폭탄으로 폭발시켜 70여 명의 미군을 살상하였다.

남부 웰남 인민들과 인민 무장력은 1964년에 미군 2,110여명을 포함한 적군 23만 명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1만 7천 569 정의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다. 또한 1천 27 대의 비행기를 격추 또는 격상하였으며 992 척의 각종 적함선을 격침, 격파하였다. 그리고 1천 391 개의 적 초소와 병영을 소탕하고 3천 639 개의 《전략촌》을 파괴하였으며 233만 5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290여 개의 농촌 지역을 새로 해방하였다. (1961—1964년 3월 간에 남부 웰남 인민들과 무장력은 미 침략군 1천 700명을 포함한 적군 18만 4천 명을 소멸하고 적기 940 여대를 격추 또는 격상하였다. 또한 적군 9만 4천명이 인민의 편으로 넘어 왔다. 1963—1964년 3월 간에는 1만 5천 여정의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다.)

인민 무장력은 1964년 말 현재 남부 웰남 전 지역의 4분의 3과 900여만 명의 주민을 해방하고 《전략촌》의 80% 이상을 까부셨다. 《전략촌》들은 《전투촌》으로 되여 적들에게 항거하는 강력한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인민 무장력의 강력한 타격으로 미제의 《스테일러—테일러》 계획은 완전히 파산되였으며 1964년과 1965년에 남부 웰남을 《평정》하겠다는 《맥나마라 계획》도 파탄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애국 력량을 총 집결한 광범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체이며 남부 웰남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다. 약 400만 명의 성원을 망라한 23 개의 정당, 사회 단체를 산하에 가지고 있으며 9 개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1964년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제 2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더 큰 성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이미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며 모든 애국 력량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확대하며 미제 침략자들과 반역적인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이며 장기적인 항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자》라는 중앙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또한 대회는 무장 투쟁, 도시에서의 운동, 세계 정세, 민족 해방 전선의 대외 정책, 종교계의 형편 및 각 소수 민족의 투쟁에 관한 중앙 위원회의 다섯개의 보충 보고, 종교인, 소수 민족, 민족 자본가, 인테리에 대한 민족 해방 전선의 정책과 토지 문제에 관한 보고, 민족 해방 전선 헌장 수정에 관한 보고 등을 청취하고 이를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대회는 민족 해방 전선의 새 중앙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위원장 원우수

인민 혁명당 1961년 초에 창건된 남부 웰남 최초의 맑스-레

민주의 정당이다. **국가 혁명 운동당** 1954년 10월에 성립된 친미 반동 정당이다. **급진 사회당** 1961년 7월에 조직된 애국적 지식인을 망라한 정당이다. **근로 인위당, 대월당, 사회당.**

라 오 스
(라오스 왕국)
Royaume du Laos

【면적】 23만 6,800 km²
【인구】 300만 명(1961년)
【수도】 비엔티안(주민 11만 명)

정 치 1954년 7월 21일 인도지나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으로 라오스의 통일이 달성되였다가 그 후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다시 내전이 계속되였다.

1961년 5월 16일 제네바에서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4 개 국 회의가 열리였다.

1961년 6월 19—22일 쮸리히(스위스)에서 세 관계 측은 앞으로 수립될 련립 정부의 정강과 당면 과업들 즉 대내 정책에서 라오스의 통일, 중립, 독립과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공존의 5 개 원칙을 준수하며, 군사 블럭에 참가하지 않으며, 군사 블럭의 보호와 외국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라오스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1961년 10월 6—9일(힌 호프에서), 1962년 6월 11일(자르 평원에서)의 세 관계측 회담에서는 림시 민족 통일 정부를 구성할 것과 정부는 세 관계 측의 일치가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1962년 6월 24일 라오스의 전 역에서 정화가 선포되였고 7월 23일 제네바 회의는 라오스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라오스 세 관계 측은 7월 4일 합동 정화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후 군대와 경찰의 통합, 행정 기구의 통합 등 일련의 문제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 행위로 인하여 군대와 경찰의 통합 문제는 해결되지 못 하였다.

미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62년 10월 7일까지 철거하여야 할 1,000명의 군사 인원들을 철거시키지 않고 《민간인》으로 가장시켜 반동파 군대들을 지휘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 후 군사 인원과 추종 국가 군대들까지 더 끌어들여 라오스에 대한 무력 간섭을 감행하고 있다.

【국왕】 사방 바타나(1959년 11월 즉위)

【내각】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62년 6월 23일 3파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4년 4월 미제와 우파 도당은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련립 정부를 파괴하였으나 애국 전선당은 제네바 회의에서 인정된 3파 련립 정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수상 겸 국방상, 재향 군인상 및 사회상 수반나 푸마, 부수상 겸 경제 및 계획상 수파누봉, 부수상 겸 재정상 푸미 노사방, 외상 겸 내상 퀸 퐁사반.

【정당, 사회 단체】 라오스 애국 전선당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보적 정당으로서 1956년 1월 16일에 정식 창건되였으며 1957년 11월에 합법적 정당으로 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라오스 련합당** 1958년에 자본가, 지주, 이전 정부 관리, 장교 및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수반나 푸마 **평화, 중립, 민족적 화목 및 통일 옹호 위원회** 1960년 10월 31일 애국 전선당, 평화 및 중립 정책 옹호 위원회, 청년 단체, 애국적 국회 의원, 현 정부의 주요 관리, 각 민족, 각 계층, 승려 및 왕족의 대표들로 창설되였다. 명예 위원장 수반나 푸마, 수파누봉, 위원장 퀸 퐁사반 **라오스 청년 련맹** 1964년 5월 25일에 창립된 애국적인 청년 단체. 위원장 티파시 **인민 사회당** 극단적인 친미 분자들과 군벌들로 조직된 《라오스 민주 리익 옹호 위원회》에 기초하여 1960년 4월에 조직되였다. 지도자 푸미 노사방

【주요 사건】 1964년 라오스 정세는 미제의 로골적인 무력 간섭과 미제의 사촉 하에 발생된 군사 정변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악화되였다.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애국 력량의 시종 일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세 관계측 회담 소집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자 미제는 회담 소집을 가로 막기 위하여 중립파에 압력을 가하고 우파를 애국 력량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내몰았다. 노사방 도당은 미군 장교들의 직접적인 지휘와 미제 추종 국가 군대(필리핀, 남부 웰남, 장 개석, 타이 군대 등 8~9천 명)들의 참가 하에 년초부터 자르 평원의 군사적 요충지인 히엥 광 지역과 상부 및 중부 라오스와 해방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자들은 《티—28》형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해방 지역을 폭격하고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여 수 많은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미제는 제 7 함대를 인도지나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타이—라오스 국경에 많은 타이군을 집결시키는 한편 수도 비엔티안에 노사방 도당 군대를 끌어 들여 애국 전선당 대표들의 신변을 위협함으로써 애국 전선당 대표들이 민족 통일 정부의 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미제는 5월 21일부터 해방 지역에 대한 《정찰 비행》을 감행하고 폭격함으로써 라오스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애국 전선당은 국내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 통일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파 지도자들이 회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수파누봉의 제의에 따라 4월 17일 자르 평원에서 3파 지도자들의 회담이 열렸다.

회의는 라오스에서의 긴장 상태를 해소시키며 민족 통일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기관들을 왕도인 루앙 프라방으로 옮기며 루앙 프라방을 중립화할 데 대한 문제에서 수반나 푸마와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노사방은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회의를 파탄시키고 미제와 함께 군사 정변을 서둘렀다.

군사 정변 4월 19일 비엔티안 경비 사령관 쿠프라시트와 경찰 총감 시호를 두목으로 하는 극우익 반동들은 미제의 사촉 하에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국군 혁명 위원회》를 조작하고 민족 통일 정부 내에서 애국 세력을 배제하고 극 우익 분자와 중립파 내 우익 세력으로 친미 반동 정부를 구성할 것을 수반나 푸마에게 강요하였다. 4월 24일 수반나 푸마는 이에 굴복하였다. 5월 초에는 《확대 개편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쿠프라시트를 국방 담당 국무상으로, 시호를 내무 담당 국무상으로 들여 앉혔으며 비엔티안에 돌아 오지 않는다는 구실로 중립파 출신 각료인 보건상 킴수크 케올라와 재향 군인 문제 담당 국무상 휴안 몽 콩빌라이를 그 직책에서 해임시켰다. 또한 애국 전선당이 지도하는 성들을 수반나 푸마의 관할 하에 둔다는 구실로 사실상 민족 통일 정부에서 애국 전선당을 제거하였다. 노사방 도당은 5월 6일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열고 저들의 군대를 수반나 푸마의 통일 사령부 관할 하에 넘겨 준다는 구실 밑에 사실상 중립파 군대를 저들의 통제 하에 넣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5월 9일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민족 통일 정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세 관계측의 합의와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정부의 성원들은 어디에 있던지 자기의 직위를 보존한다고 언명한 전문을 수반나 푸마에게 보냈다.

5월 13일 콩 레의 지휘 하에 있는 제 4 라하산 대대 제 3 중대 장병들은 반역 도당의 정변을 반대하며 진정한 중립파 및 애국 전선당과 함께 민족 통일 정부를 수호할 것을 결의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콩 레 군대 내의 라하산 병 제 4 및 제 6 대대는 노사방 도당 군대와의 《통합》을 반대하여 5월 17일 폭동을 일으키고 자르 평원의 무옹판에 있는 푸미 노사방 도당 군대와 기타 반동파 군대를 소탕하였다.

4월 19일—5월 19일 라오스 전국 각지에서 도합 19만 1 천여 명의 인민들이 군중 대회를 열고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빠리 3파 회담 미제가 조성한 긴장 사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 관계측 지도자들이 회담을 진행할 데 대한 애국 전선당의 제의에 따라 빠리에서 8월 26일부터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였고 9월 21일부터는 세 관계측 지도자들의 공식 회담이 열렸다. 회담에서는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인 정화》, 라오스에 관한 14 개국 회의 및 그 회의에 참가할 라오스 대표단의 구성, 민족 통일 정부와 그 의석에 관한 문제들이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였다. 회담에서 우파와 《중립파》는 정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자르 평원의 《중립화》, 현 정부(4월 19일 군사 정변 후의 정부)에 대한 《인정》, 14 개국 회담에 참가할 유일 대표단의 구성 등 부당한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였다. 한편 이들은 8월 26일 이래 미국 비행기와 포 화력의 엄호 하에 무옹 수이 부근에 20 개 대대의 병력을 집결하고 13호 및 7호 도로 연선의 해방 지역과 히엥 광시를 비롯한 자르 평원의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히엥 광주에 대한 공격은 9월 한 달 동안에만도 20여차나 있었으며 12월 첫 15일 간에는 100여 차의 미국 비행기들의 공격이 있었다. 그리하여 빠리 회담은 12월에 파탄되였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 제 2 차 대회 라오스 애국 전선당은 적들에게 계속 반격을 가하면서 애국 력량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4월 6—12일 삼누아주에서 진행된 제 2 차 대회에서는 1956년 1월 제 1 차 대회 이후 8년 간의 경험을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총로선과 방침 및 구체적인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라오스 전체 인민을 단합시키며 애국 전선당과 애국적 중립 력량 간의 동맹과 호상 원조의 강화, 1962년 제네바 협정과 라오스 세 관계측 간의 협정들의 엄격한 리행, 라오스로부터의 미제와 그 추종 국가 군대들의 철거, 라오스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의 중지, 푸미 노사방 군대의 1962년 제네바 협정 당시의 주둔 지점으로의 철거, 평화 및 중립 정책의 정확한 실시와 평화적 5 개 원칙에 기초한 독자적인 대외 정책의 실시, 민족 군대와 통합된 경찰의 조직 등을 규정한 10 개 조항의 정치 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새 규약을 채택하고 수파누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경제, 사회 라오스는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 주로 프랑스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보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벼, 옥수수, 목화, 담배,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벼의 경작 면적은 75만 헥터(총 경지의 95%)이며 1962—1963년에 45만 톤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공업은 수공업이 위주이다. 비엔티안과 사반나케트 등 도시에 소형 발전소가 있으며 제재소, 정미소, 합판 공장, 세멘트 공장 등이 있는 정도이다. 철도는 없다.

주석, 담배, 커피, 피혁, 면화, 고무 등을 수출하며 주로 프랑스, 미국, 타이와 무역한다.

주민의 95%는 문맹자이며 학생 수는 도합 8만 명이다.

【출판 보도】 통신—라오 프레스 신문—라오 하크사트(애국 전선당 기관지), 로드 오브 뉴트랄리티(중립파 계통), 라오 데일리 뉴스(사반나케트 계통)

캄 보 쟈

(캄보쟈 왕국)

Royaume du Cambodge

【면적】 18만 1,035 km²

【인구】 600만 명(1964년 11월 현재)

2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크메르족이 75%를 차지한다. 기타 타이족, 카족, 프논족, 찌돈족 등이 있다. 웰남인과 화교가 각각 35만 명 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며 프랑스어도 사용한다.

【수도】 프놈 펜 (주민 약 55만 명)

정 치 6 세기에 통일적인 캄부쟈(캄보쟈) 봉건 국가가 형성되였다. 1863년 8월 11일 프랑스는 캄보쟈에 강요하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87년에는 소위 《인도지나 련방》에 끌어 넣음으로써 캄보쟈를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40년 9월에 캄보쟈는 일제에 강점되였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에 뒤'이어 1945년 10월 5일 프랑스에 강점 당하였고 1946년 1월 7일 다시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 행정에서 항쟁 근거지와 크메르 인민 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1950년 4월에는 전국 해방을 위한 《중앙 행동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후에 림시 정부(항쟁 정부)로 개편되였다.

캄보쟈는 1953년 11월 9일 독립하였고 1954년 6월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 외상 회의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다.

1954년 8월 21일 항쟁 정부는 해산되고 1955년 9월 11일 국민 의회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9월 25일 국민 의회는 프랑스 련방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957년 8월 캄보쟈의 영구 중립법을 공포하였다.

캄보쟈는 1955년 5월 미국과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캄보쟈를 중립의 길에서 떼 내여 자기의 군사 침략 기지로 만들려고 계속 압력을 가하였으며 타이와 남부 웰남 및 캄보쟈의 반역 도당의 집단인 《자유 크메르 운동》을 사촉하여 국경 침범 사건과 캄보쟈에 대한 파괴 책동을 감행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쟈 정부는 1961년 10월에 타이와, 1963년 8월에는 남부 웰남과 각각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1963년 11월 19일에는 미국의 일체 《원조》를 거부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미국 주재 캄보쟈 대사를 소환하고 1964년 1월 15일까지 미국의 《원조 사절단》을 철거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캄보쟈는 1964년 말 현재 37개 나라와 대사 관계 및 령사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우리 나라와 캄보쟈 간에 총령사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1963년 11월에는 량국 간의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4년 4월 20—27일까지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27일 량국 간에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6월 캄보쟈 왕국 왕자 노로돔 나라디포 친왕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고 11월 9일 캄보쟈 독립절 행사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2월 15—20일간에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이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12월 20일에 량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 설정에 합의를 보았다.

12월 28일 프놈 펜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였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캄보쟈 국회의 8월 10일부 호소문과 8월 26일부 결의를 지지하여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이 8월 29일과 9월 2일에 각각 회답 서한을 보냈다.

1964년에 우리 나라 평양 가무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캄보쟈 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표단, 기자 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체육 선수단의 호상 방문이 있었다.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1960년 6월 20일 취임)

【의회】 왕국 회의(상원)와 국민 의회(하원)가 있다.

왕국 회의— 국민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들을 반대 또는 개정할 수 있으나 국민 의회가 다시 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법령으로 채택된다. 의원 수는 24명이다.

의장 노로돔 몬따나(1964년 7월 16일 재선)

국민 의회— 림법권과 내각 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의원 수는 77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 응 홍 사트(1964년 7월 25일 재선)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2월 25일에 구성되였다. 내각은 수상, 부수상, 7명의 상, 11명의 국무 비서 및 부국무 비서(계 20명)들로 구성되여 있다.

수상 노로돔 깐똘, 부수상 론놀, 외무상 꾼 위크

【정당, 사회 단체】《인민파》 캄보쟈 인민당(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위하여 1955년 7월에 《인민파》로 개칭하였다. 현재는 활동하지 못 하고 있다. **인민 사회 동맹**(집권당) 1955년 총선거를 앞두고 노로돔 시하누크가 동년 9월 2일 국내 모든 정치적 력량을 단합하여 대중적인 정치 단체로서 조직하였다. 왕족, 대 상인, 일부 인테리 등 50여만 명이 망라되여 있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사회주의 청년 동맹** 1957년 9월 5일에 조직되였으며 인민 사회 동맹의 지도 하에 있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주요 사건】 1964년에 캄보쟈에 대한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도당의 침략 행위는 더욱 빈번해졌다.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군들은 캄보쟈 국경 지대에 침입하여 무고한 농촌 주민들을 랍치하고 살해하였다.

1964년 6월 15일에는 3 척의 군함으로 미군과 남부 웰남 괴뢰군이 캄보쟈에 상륙하여 정탐 활동을 하였으며 7월 5일에는 남부 웰남 괴뢰군이 칸달주의 주민 지역에 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남부 웰남 비행기들은 캄보쟈에 침입하여 폭격하고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뿌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캄보쟈 정부와 인민들은 이와 같은 침략 책동을 폭로 규탄하는 동시에 나라의 독립과 중립을 고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2월 8일 노로돔 시하누크는 캄보쟈에 대한 미국 및 남부 웰남의 침략 책동과 관련하여 1954년 9 개국 제네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네바 회의 공동 외장에게 제기하였다. 2월 18일에는 캄보쟈의 중립을 위한 4 개국 회의(미국, 타이, 남부 웰남, 캄보쟈) 소집을 제기하였으나 미제의 파괴 책동으로 파탄되였다. 캄보쟈 국회는 3월 10일 캄보쟈 령토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기 위한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줄 것을 세계 각국 국회들에 호소하였다.

11월 9일 노로돔 시하누크는 인도지나에서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지나 인민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도지나 인민 회의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였다.(회의는 1965년 3월 1일 프놈뻰에서 개최)

8월 29일 캄보쟈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와 정부, 국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캄보쟈와 남부 웰남 간의 국경 문제에 관한 유엔 《조사단》의 허위 《보고》에 항의하였다. 11월 12일에는 캄보쟈와 남부 웰남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자》를 파견할 것을 유엔에 제의한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도당의 시도를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1954년 제네바 회의 만이 인도지나 문제를 토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10월 27일 캄보쟈 국회와 정부는 만약 미제와 남부 웰남이 계속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다면 캄보쟈는 불가피하게 반타격을 가하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민주 웰남 정부를 정식 승인하며,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3일 캄보쟈는 캄보쟈 주재 미국 대사의 신임장 봉정 날자(14일)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캄보쟈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빈번한 국경 침범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반제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다. 3월 11일 프놈뻰에서는 30만 군중들이 《양키는 물러가라》, 《제국주의자들과 자유 세계를 타도하자》는 구호 하에 미영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를 단행하고 대사관 건물 일부를 파괴하였으며 미국 국기를 소각하고 자동차들을 파괴하였다. 미제는 캄보쟈의 반미 기세를 무마해 보려고 뉴델리 회담을 제기하였다.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침략 행위에 대한 미제의 책임 회피로 회의는 파탄되였다.

1964년 노로돔 시하누크는 인도네시아(1월, 8월), 필리핀(1월), 《말레이시아》(1월), 프랑스(6—7월), 중국(10월)을 방문하였다.

1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프랑스 국방상이, 2월에는 필리핀 대통령 마카파갈, 프랑스 국회 대표단이 각각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10월 12일 캄보쟈는 뽀르뚜갈과 남 아프리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캄보쟈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고 주민의 약 80% 이상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공업은 발전의 첫 단계에 있으며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광, 동광, 린광 등이 있다.

최근 년간 캄보쟈에는 년산 500만 메터 능력의 현대적 방직 공장과 년산 5천 톤 능력의 제지 공장, 현대화된 합판 공장, 5만 톤 능력의 세멘트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이리 하여 공장 수는 1955년의 595 개로부터 1964년에는 2,538 개로 늘었다.

경지 면적은 200만 헥터이며 관개 면적은 약 6만 3,000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고무, 옥수수이고 이외에 콩, 목화, 락화생, 담배, 후추, 당콩, 커피, 아마, 과실 등이 있다.

1964년도에 쌀은 276만 톤, 옥수수는 20만 4,000 톤, 담배는 6천 톤, 고무는 4만 9,000 톤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국민 소득의 주요 원천의 하나이다. 1964년 11월 현재 소는 132만 2천 두, 물소는 47만 1천 두, 돼지는 68만 9천 두

있었다. 이민은 약 1만 명이며 1964년 어획고는 12만 톤이였다. 산림 자원은 약 800만 헥터이며 질이 좋은 목재를 생산한다. 1964년에 9만 립방메터를 수출했다.

캄보쟈 정부는 미국 《원조》를 거부하고 자주 자립의 기치 하에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1964년 1월 1일부터 일체 대외 무역 업무를, 7월 1일부터는 개인 은행들과 보험 기관들을 국유화하는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1월 8일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부 렬강 독점 자본의 지배 하에 있던 11 개의 회사들을 접수하였으며 2월 18일에는 미국의 《원조》 하에 진행되던 프놈 뻰—시하누크빌 도로 공사를 캄보쟈인 자신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에 시하누크항이 완공되여 메콩강을 리용하던 제한된 항로를 극복하고 캄보쟈에서 처음으로 항로가 개설되였다. 1964년에 국제 항공로가 개설되였다. 공업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쌀과 고무는 수출 총액의 78%)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 일본, 서독, 중국, 쏘련, 웰남 등이다. 1964년에 국가가 교육 사업에 12억 리엘을 지출하였다. 1964년 11월 현재 소학교 수는 3,612 개, 학생 수는 62만 4,848명, 중학교는 71 개, 학생수는 4만 4,813명, 대학은 8 개, 학생 수는 2,034명, 대학 교원은 237명이였다. 점차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모국어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불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다수가 불교도들이다.

【출판 보도】 **통신**—캄보쟈 보도(A.K.P.)

신문—캄보쟈어 신문으로서 민족주의자(인민 사회 동맹 기관지), 캄보쟈보(정부 기관지), 조국보, 프랑스어 신문으로서 캄보쟈 현실, 캄보쟈 전신보, 기타 웰남어로 된 중립보, 중국어로 된 면화 일보 등이 있다.

방송국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캄보쟈어, 프랑스어, 영어, 웰남어로 방송한다.

일 본

【면적】 36만 9,661 km²

【인구】 9,720만 명(1964년 10월 1일 현재)

【수도】 도꾜(주민 1,066만 7,390명, 1965년 2월 현재)

정 치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제의 점령 통치 하에 들어 갔다. 미제의 일본 강점은 1951년 9월에 조작된 쌘프랜씨스코 단독 《강화 조약》으로 합법화되였다. 1960년 1월 19일 침략적 신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일미간의 군사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등장하고 있다.

【천황】 히로히도(1926년 12월 25일 즉위)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중의원 의원 수는 467명, 임기는 4년이다. 1964년 5월 현재 중의원 의석은 공산당 4, 사회당 144, 민주 사회당 23, 자유 민주당 283, 무소속 12이며 결원 1로 되여 있다. 중의원 의장 후나다 나까

참의원 의원 수는 250명, 그 중 100명은 전국 선거구에서, 150명은 지방 선거구에서 선거되는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1964년 5월 22일 현재 참의원 의석은 공산당 3, 사회당 66, 민주 사회당 10, 자유 민주당 145, 공명당 15, 록풍회 4, 무소속 2, 기타 5로 되여 있다. 의장 마쯔노 쯔루헤이

【내각】 현 내각은 1964년 11월 9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사또 에이사꾸, 외상 시이나 에쯔사부로, 법무상 다까하시 히도시, 대장상 다나까 가꾸에이, 농림상 아까기 무네노리, 통산상 사꾸라우찌 요시오, 운수상 마쯔우라 슈따로, 건설상 고야마 오사노리, 국무상 고노 이찌로, 내각 관방 장관 하시모도 도미사부로, 방위청 장관 고이즈미 쥰야

【정당.사회 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당은 창건 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23년간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당이 재건되였으며 합법적 활동을 전개하게 되였다. 제 9 차 당대회(1964년 11월 24—28일)는 조성된 정세 하에서 당의 투쟁 과업을 규정하였다. 당원 수 15만명(1963년 10월 현재). 의장 노사까 산조,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성립. 당원 수 약 5만 500명(1963년말 현재). 도시와 농촌의 중소 부르조아지, 지식인, 사무원, 일부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 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원장 가와가미 죠따로, 서기장 나리다 도모미 **민주 사회당**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우익 분자들로 1960년 1월에 구성. 당원 수 3만 명(1964년 현재). 자유 민주당을 추종하고 있다. 위원장 니시오 스에히로 **자유 민주당**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 현 집권당으로서 대독점 자본가, 지주, 관료, 군벌 및 부농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총재 사또 에이사꾸, 부총재 가와시마 쇼지로 **공명당** 1964년 11월 17일 종교 단체인 《창가 학회》를 모체로 하여 성립. 위원장 쯔지 다께히사 **일조 협회** 1951년 6월 10일 조직.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로동 조합 총평의회**(총평) 1950년 7월 12일 성립. 1963년 현재 60 개 산별 로조에 420만 명을 망라한 일본 최대의 좌익 로조이다. 사회당 영향 하에 있다. 의장 오다 가오루, 사무국장 이와이 아끼라 **전 일본 로동 총동맹**(동맹) 1964년 11월 12일 발족, 맹원 수 180만. 일본 최대의 우익 로조 련합 조직체이다. 전

신은 전 일본 로동 총동맹 조합 회의(동맹 회의)이다. **전 일본 농민 조합 련합회**(전일농) 1957년 9월 10일 결성 **신 일본 부인회** 1962년 10월 결성. 맹원 수 5만 1,000명. 공산당 영향 하에 있다. **민주 청년 동맹**(민청) 맹원 수 9만명. 공산당 영향 하에 있으며 세계 민청에 가맹하고 있다. **일본 사회주의 청년 동맹** 사회당 영향 하에 있는 청년 단체 **전 일본 학생 자치회 련합회**(학련) 1964년 12월 11일 재건 **일본 평화 옹호 위원회** 회장 히라노 요시따로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리사장 사까모도 도구마쯔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일본 협의회** 리사장 야스이 가오루 **일조 학술 교류 촉진회** 1964년 7월 23일 결성.

【국내 주요 사건】 1964년에 일본 인민은 《일한 회담》을 조속히 결속지으며 일본을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대미 추종 정책과 반 인민적, 반동적 정책에 항거하여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일본 핵 기지화를 반대하는 반미 반정부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1월 10일 《에프 105—디》 전투 폭격기의 배치 반대,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 저지, 《일한 회담》 분쇄, 안보 반대, 평화와 독립, 생활상 권리의 수호를 위한 전국 통일 행동 투쟁 순간이 조직 전개되였다.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기여드는 날인 1월 26일에는 미 군사 기지 요꼬다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100여 만의 군중이 미 군사 기지의 철거와 《일한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통일 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리 하여 4년 전 일미 안보 조약 개정을 반대한 통일 행동 이후 최대의 대중 투쟁이 전개되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김종필을 불러다가 《일한 회담》 막후 교섭 책동을 강화하게 되자 일본 인민들의 《일한 회담》 반대 투쟁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2월에는 100여만 일본 인민들이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3월에는 도꾜, 아오모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광범한 각계 인민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일본 공산당은 3월 27일에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매국과 부정의의 <일한 회담>을 반대하고 전국의 애국자는 단결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3월 29일에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한다. 정의는 일조 량국 인민에게 있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4월 5일 일본 각지에서 《일한 회담 분쇄, 일중 국교 회복, 안보 공투 국민 회의 즉시 재개를 요구하는 통일 행동》이 벌어졌으며 도꾜에서는 군중 집회와 국회 청원 시위에 10만 명이 참가하였다.

6월 16일에는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봉기에 호응하여 1만 명의 일본 청년 학생들이 도꾜에서 군중 시위 투쟁을 하였다.

12월 3일 일본 공산당, 일조 협회 등 민주 정당, 사회 단체들이 제 7 차 《일한 회담》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일한 회담》 반대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1964년에 미국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에프 105—디》 전투 폭격기 배치 등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반미 투쟁이 강화되였다. 8월 27일 일본 공산당은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일본 인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사세보와 요꼬스가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 15—25일에 《미 원자 잠수함의 기항 저지 순간》이 설정되였고 11월 12일 미 원자 잠수함의 사세보 기항을 전후하여 사세보와 요꼬스가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250만의 인민들이 미 원자 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제의 일본 핵 기지화와 핵 전쟁 준비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는 일본의 원수폭 금지 운동도 더욱 발전하였다. 일본 인민은 1964년 7월 30일—8월 9일에 진행된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미제와 국내외의 우익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파괴 책동을 분쇄하고 대회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일본 평화 옹호 운동 대렬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과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일본 정부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도 힘차게 전개되였다.

8월 10일 공산당, 사회당, 총평 등 137 개 단체의 주최 하에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저지 긴급 중앙 집회가 진행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2일에는 45 개 민주 단체들이 조직한 일본 정부의 남부 웰남 전쟁 개입 반대 항의 집회, 7월 6일에는 공산당, 사회당, 총평, 일본—웰남 우호 협회 등 40 개 민주 단체들의 주최 하에 웰남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침략을 규탄하는 군중 대회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의 《자유화》와 《고도 성장 정책》을 생산의 《합리화》와 저임금제 강화, 세금 증가, 물'가 인상, 대량 해고의 방법으로 추진시키려는 책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로동 계급과 인민들을 반정부, 반독점 투쟁으로 불러 일으켰다.

3월 13일 도꾜에서 약 7천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파업권 회복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 후 금속 로동자, 교통 운수 로동자, 보도, 금융 부문 로동자, 사무원 3만 6천여 명이 참가하여 이 투쟁은 더욱 확대되였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전개한 3월 27일의 통일 행동에서는 450만 명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민주 세력의 장성과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동 악법을 조작하여 민주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께다 정부는 1961년부터 국회에서 수차 통과시키려다가 그때마다 실패한 《정치적 폭력 방지 법안》을 《폭력 행위 등 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6월 20일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 조치는 제 18 차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였는바 도로 교통법, 풍속 영업 취체법, 형법 등 일련의 치안 대책 관계 법령들이 개악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에 일본 정부는 미제의 극동 침략 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였다.

1964년 1월 미 국무 장관 러스크의 일본 및 남조선 방문 후 일본 정부는 남조선 괴뢰 도당과 결탁하여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결성하며 남조선을 재침하기 위한 《일한 회담》을 《조기 타결》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가 작성한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이라는 내막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2월에 《어업 문제》에 대한 《실무 회담》, 3월 10일에는 《어업 문제》에 대한 《농상 회담》을 벌렸다. 다른 한편 미제의 특무 김 종필을 끌어다가 막후 교섭을 벌려 회담을 일괄 《타결》하고 4월 초의 《외상급 정치 회담》에서 13년 간 끌어오던 《일한 회담》을 완결지으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이 책동은 3월 24일 남조선에서 일어난 청년 학생들의 투쟁으로 좌절되였다.

그후 이께다의 뒤를 이은 사또 정부는 러스크, 브라운, 번디 등 미제의 '사환'군들로부터 《일한 회담》을 빨리 결속지을 데 대한 공개적인 압력을 받고 박 정희 도당과 결탁하는 길에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섰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안전은 일본의 치안에 직결된다》느니, 남조선을 《보호 원조》하는 것을 저들의 응당한 임무이니 하는 등 침략적 본성을 더욱 드러 내 놓으면서 12월 3일 제 7 차 《일한 회담》을 도꾜에서 재개하고(12월 22일까지) 박 정희 도당에게 더욱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 하여 2천만 딸라 상업 차관에 대한 각서 교환, 서울에 일본 참사급 외교관 상주 문제 등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어업 문제》를 비롯한 《실무 회담》을 1965년 1월 18일에 재개하며 《고위 정치 회담》에서 《일괄 타결》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1964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났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일층 격화되였다. 이께다 내각의 법무상 가야 오끼노리는 6월 10일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에 대하여 마치도 그 어떤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듯이 외곡 중상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라고 폭언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문제에 대하여 11월 14일 수상 사또는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도전하여 나섰다.

일본 정부는 조일 량국 인민들의 요구와 국제적 여론이 두려워 4월 7일 우리 나라 올림픽 조사단과 아따쉐의 입국, 그후 우리 나라 올림픽 선수단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29일에는 우리 나라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 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협정의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우리 나라와의 민간 무역은 더욱 확대되였고 문화 부문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기록 영화 촬영가들과 일본 공산당 소속 기록 영화 촬영가들이 협력하여 장편 기록 영화 《천리마》를 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일본 정부는 1964년 2월 7일 쏘련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꾸릴 렬도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1964년에 쏘련 제 1 부수상 미꼬얀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의 일본 방문(5월 14—27일), 일본 국회 대표단의 쏘련 방문(9월 4—16일), 로므니아 대 민족 회의 대표단의 일본 방문 등이 있었다.

일본은 5월 29일 웽그리아, 벌가리아, 로므니아와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하였고 11월 1일에는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에 경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1964년에도 일본 정부는 미제의 반중국 책동과 《두 개의 중국》 조작 음모에 적극 추종하여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이며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4년 1월 30일 이께다는 국회에서 장개석 도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이라고 하였으며 대만에 대표들을 빈번히 파견하여 반중국 책동을 모의하였다.

대중국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요구하는 실업계의 압력에 못 이겨 일본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구실 하에 민간 무역을 확대하였다. 4월에 중국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주석 남 한진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경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4월과 6월에 도꾜와 오사까에서 중국 무역 경제 전람회를 열었다. 7월 2일 일본 정부는 일 중 무역 련락 사무소를 량국 수도에 서로 설치하며

상주 기자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국 및 기타 나라와의 관계 1964년에 일본 반동 정부는 적극적인 대미 추종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4년 1월 27—28일 간에 도꾜에서 진행된 제 3 차 《일미 무역 경제 합동 위원회》 회의에서 일미 량국은 《동남 아세아 후진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전 방위청 장관 후꾸다 도구야스는 미국 방문(6월 29일—7월 5일)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와의 회담에서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남부 웰남 전쟁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6월에는 일미 군사 《협력》 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일미 방위 각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8월 31일 제 5 차 《일미 안전 보장 협의회》에서는 《일미 공동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그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토의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대부분의 무기 생산을 《국산화》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 《협조와 원조》를 요구하였다.

미제의 강요에 따라 일본 정부는 8월 11일 50만 딸라, 10월 27일 100만 딸라의 《긴급 원조》를 남부 웰남 괴뢰 도당에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정식 승인하고 11월 12일 미 원자 잠수함 《시 드라곤》호를 사세보항에 끌어 들였다.

1964년에 일미 간의 모순도 더욱 표면화되였다.

제 3 차 《일미 무역 경제 합동 위원회》에서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일본이 미국의 《대 사회주의 특히 대중국, 꾸바 봉쇄 정책》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자기의 리해 관계로 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6월 22일 일미 항공 협정 개정 교섭과 10월 1일 일본, 미국, 카나다 간의 북태평양 어업 교섭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인 립장으로 하여 파탄되였다.

경 제 일본 정부는 1960—1970년 간에 국민 소득을 배로 증가시킨다는 소위 《국민 소득 배가 계획》이란 기만 밑에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며 해외 팽창의 경제적 기초를 닦기 위하여 1960년 이래 《경제의 고도 장성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최근 년간에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특히 중공업 및 화학 공업 부문에 집중). 결과 1963년에 일본의 공업 생산량은 전전(1934—1936년)의 5배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일본의 몫은 5.7%(1963년)에 달하였다. 강철 생산은 1964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제 2위를 차지하였다.

1964년 4월에 일본이 미제의 강요로 《국제 통화 기금》 제 8 조 국(국제 수지를 리유로 하여 외환 제한을 하지 않는 나라)으로 되고 《경제 개발 협력 기구》에 가입하면서 일본 정부는 《개방 경제 체제》로 이행하였으며 무역, 외환의 자유화률은 1964년 6월 현재 93%에 이르렀다.

무정부적인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이 급격히 증대된 결과 생산력과 시장 간의 모순이 계속 첨예화되였다. 이 모순은 근로자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급격한 감소, 《개방 경제 체제》와 《자유화》에 따르는 일본 상품의 국제적 경쟁의 격화로 하여 더욱 첨예화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부터 시작된 전반적 《과잉》 생산 위기는 1964년에 더욱 심화되였다.

1964년 12월에 사또 정부가 작성한 《중기 경제 계획》(1964—1968년)은 이러한 모순과 위기의 산물이다. 이 《계획》에서 사또 정부는 년간 경제 장성률을 8.6%(1960—1963년 간 년 평균 장성률 12.1%)로 낮추며 《과잉》 생산과 국제 수지의 악화 등의 《불균형》을 제거한다는 《경제의 고도 안정 장성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경제의 명맥은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되였거나 그와 결탁한 극 소수의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2년에 금융, 보험 이외의 전체 회사의 불입 자본의 66%가 전체 회사 수의 0.14%를 차지하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638 개 회사에 장악되여 있었다.

1964년 3월 말 현재 외국 자본 도입액은 32억 딸라 이상, 그 중 미국 자본이 90%이다. 미국 독점체들은 자본, 기술, 상품의 침투를 확대하여 일본의 금융, 원료, 시장, 기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일미 독점체들의 합자 회사는 1960년 말의 120 개로부터 1963년 말에는 200 개로 늘었다.

일본 경제의 대외 의존성은 원료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63년에 일본은 린광석, 파철, 보키사이트, 니켈광, 목화, 양모의 100%, 원유와 철광석의 95%, 동광석의 80%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공업】 1964년에 광공업에 대한 설비 투자는 4만 6,970억 원으로서 주로 중공업 및 화학 공업 부문에 집중되였다. 1960—1964년 간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제조 공업 부문 대 기업의 설비 투자 총액 중 석유 정제, 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전기 기계 등 중공업 및 화학 공업 부문에 투하된 몫은 매년 82—83%였다. 결과 공업 제품 생산에서 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63년에 63%나 되였다.

1964년에 광공업 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2% 장성하였다. 공업 생산의 장성에 따라 이 해에 과잉 생산 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광공업 재고 지수(1960=100)는 1962년에 161, 1963

년에 170이였는데 1964년 11월에는 269.6으로 올라갔다.

자본의 집중과 경쟁의 격화, 미국 상품의 투매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 파산 특히 중소 기업의 파산이 격증하였다. 1964년에 중소 기업 파산 건수는 4,212건, 부채액은 4,631억원이나 되여 1963년에 비하여 파산 건수는 2.4배로, 부채액은 2.7 배로 늘었다. 기업 파산은 점차 대기업에로 파급되고 있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10억kwh)	137.5	133.7
석탄(100만 톤)	54.4	52.1
선철 〃	18.0	20
강철 〃	27.5	32
압연 제품〃	20.8	
세멘트 〃	28.8	29.9
면직물(10억 m^2)	3.2	3.4
선박(배수량 1천 톤 이상의 진수한 배)	2 183	2 374
자동차(1,000대)	992.3	1 283.5

【농업】 정부의 반동적인 농업 정책으로 농업 형편은 계속 악화되였다. 1963년에 경지 면적은 1959년보다 9만 6천 헥타가 감소된 582만 헥타였다. 벼 파종 면적은 해마다 축소되여 1964년에 315만 7천 헥타였다. 농작물 생산도 낮아지고 있는바 1964년 벼 수확고는 1,258만 톤(그 중 논'벼 1,236만 톤)으로 전년보다 23만 톤이나 줄었다.

주요 농작물의 파종 면적 및 수확고

	파종 면적 (1,000헥타)		수확량 (1,000톤)	
	1963	1964	1963	1964
벼	3 275	3 157	12 810	12 580
밀	581		716	
보리	566	479	756	1 127
감자	207		3 261	
고구마			6 662	

주: 1964년 수확량은 예비적 자료.

농업 생산의 감소에 따라 식량의 자급률은 1962년의 84%에서 1963년에는 81%로 낮아졌다. 국민 소득에서 농업의 몫은 1955년의 17.8%에서 1959년에는 10.8%로, 1963년에는 9.2%로 낮아졌다.

경제의 《개방 체제》와 자유화 정책으로 미국 잉여 농산물이 대량적으로 밀려 들어와 일본 농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 잉여 농산물을 중심으로 외국 농축산물 수입 총액은 1959년의 9억 5,700만 딸라로부터 1963년에 19억 7,200만 딸라로 2배로 늘었다. 이 기간에 콩은 56.8%, 옥수수는 86.7%, 사탕은 2.1 배, 밀은 17.4% 수입이 증가하였다.

전체 농호의 40%에 해당하는 지주, 부농층만을 우락, 과수, 양계, 양돈, 채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자로 육성하고 나머지 60%의 중농, 빈농민을 독점 자본가들의 값싼 로동력으로 전락시키려는 반동적인 《농업 구조 개혁 정책》으로 리농자가 계속 늘었다.

1959년—1963년 간에 매년 평균 77만명, 1963년에는 농촌 로력의 3.1%인 93만 명, 1964년 상반년에는 농촌 로력의 4.1%가 리농하였다. 그리 하여 전체 취업 인구에서 농업 인구는 1955년의 37.1%로부터 1963년에는 25.9%로 적어진 582만호, 3,146만 명이였다.(그중 전업 농가는 24%)

1963년 어획고는 1962년보다 2.5%가 감소된 669만 7,800 톤(세계 제 2위)이였다.

【대외 무역과 해외 팽창】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수출 총액은 22.5% 증가된 66억 7,800만 딸라, 수입 총액은 17.9% 증가한 79억 4,400만 딸라였다.

1963년에 일본의 수입 총액중 원료, 연료, 기계 등이 80.3%, 소비재가 19.7%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에서는 가공품이 90%(1964년에 화학 공업 제품은 수출액의 56%였다)를 차지하였다.

1961—1963년 간의 평균 수출 총액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41.9%(그 중 미국 27.3%), 후진 국가 53%(그 중 동남 아세아 37%), 사회주의 국가 4.1%였다. 1964년에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은 8억 딸라(그 중 쏘련 40%, 중국 30%)였다. 이것은 1963년의 170%, 1961년의 2.8 배이다.

대외 무역도 미국에 예속되여 있는바 전후 시기부터 1963년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는 85억 딸라나 된다.

1964년 6월 말 현재 일본의 해외 투자 총액은 18억 4,300만 딸라(그 중 직접 투자 6억 1,500만 딸라, 연불 수출 12억 2,800만 딸라)로서 1960년의 3.1 배로 증가하였다. 투자 총액에서 동남 아세아 지역이 약 30%인 5억 4,420만 딸라를 차지하였다.

【재정 예산】 1964 회계 년도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 총액은 3만 2,554억 3,800만 원(90억 4,288만 3,333 딸라)으로서 전년보다 14.2% 늘었으며 예산 수입 총액 중 조세 수입은 1963년의 81%로부터 1964년에는 89%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정부의 각종 《조세 특별 조치》에 따라 독점체들이 면제 받은 세금액은 1950—1963년 간에 1만 2,583억 원이나 되였다. 직접적 군사비는 2,785억 원(7억 6,400만 딸라)이다.

군 사

1964년에 일본 자위대 수는 24만 5천 여 명(그 중 륙군 17만 1,500명, 해군 3만 5천명, 공군 3만 9천명)에 달하였으며 함선은 218척, 비행기는 1천 여 대에 이르렀다. 예비 자위관을 합하면 자위대 총인원은 30만 명, 륙군과 해군의 것까지 합한 비행기 대수는 1,640여 대나 된다. 자위대의 화력은 전전(1936—1937)의 5 배, 기동력은 7 배에 달한다.

1964년 12월 20일 미국에서 《호크》형 유도탄 탄체(1 개 대대분) 140 개를 끌어 들여 혹까이도 《호크》형 유도탄 대대(1963년 8월 편성)에 배치하였다.

일본 방위청은 1964년에 2만

억 원의 지출을 예견하는 전면적인 핵 무장과 무기의 《국산화》를 위한 제 3 차 방위 계획(1967—1971) 작성에 착수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미 군사 고문단과 재일 미군 사령부의 지휘 체계에 속해 있다.

방위청은 1963년 6월에 소위 《제 2 차 조선 전쟁》을 가상하고 우리 나라와 중국을 《가상적인 적》으로 하는 《세개 화살 작전 계획》이라는 면밀한 침략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하였다.

일본 경찰 총수는 1965년 3월말 현재 14만 4천 명이며 륙상자위대 각 사단에는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1 개 대대(740 명)의 별동대가 있다.

사 회 소비 물가는 1960년에 비하여 1963년에 121.1%, 1964년 9월에는 126.9%로 올랐다. 그 중에서도 식료품은 128.4%, 피복류는 120.9%, 교육비는 157.5%로 올랐다.

이른바 《소득 배가 계획》에 따라 강행하는 《합리화》와 물가 등귀, 세금 수탈의 강화로 인민들은 날로 빈궁화되여 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계급 분화가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1959—1962년 사이에 로동 계급의 대렬은 2,054만 명으로부터 2,389만 명으로 늘었고 소부르죠아지는 2,175만명에서 1,944만명으로 줄었으며 자본가와 지주 계급은 80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농촌에서 계급 분화가 뚜렷하게 촉진되고 있다. 부농은 1960년의 5%에 증감이 없었으나 중농은 30%로부터 15~20%로, 빈농과 농촌 로동자는 65%로부터 75~80%로 변화되였다(일본 공산당 제 9 차 대회 보고).

완전 및 반 실업자는 970여만 명이나 된다. 1964년 1—8월 간에 탄광들에서의 각종 사고로 3만 5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230 명이 죽었다. 1964년에 55만 2,244건의 교통 사고로 1만 3,300여 명이 죽었고 39만 3,190 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건수는 4만 8천 건, 그 손해액은 501억 원을 헤아렸다.

1964년에 폐결핵 환자는 1,400만 명이였다.

1964년 1—10월 간에 범죄 건수는 132만 5천 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2.9% 늘었다. 깽 단체는 전국적으로 5,300여 개, 그 성원은 18만 명이다.

【출판 보도】 통신—교도 통신, 지지 통신

신문—아까하다(일본 공산당 기관지, 1928년 2월 1일 창간), 아사히 신붕, 마이니찌 신붕, 요미우리 신붕, 산께이 신붕

잡지—젠에이(일본 공산당 리론 잡지), 세까이 세이지 시료, 세까이, 쥬오 고롱, 세까이 슈호

오 끼 나 와

【면적】 2,388 km²(류뀨 제도 전체)

【인구】 90만명(1964년 말)

【행정 중심지】 나하(주민 11만명)

일본 령토인 오끼나와는 1945년 6월 23일 미제에 강점되였다. 1951년에 조작된 미 일 단독 《강화 조약》에 따라 미제의 강점이 합법화되였다. 1952년 4월 1일 미제는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아무런 실권도 없는 류뀨 정부를 조작하였다. 오끼나와의 행정, 립법, 사법 등 모든 실권은 여전히 미국 고등 판무관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는 오끼나와에 6만 명의 륙해공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공군에는 《에프 105—디》형 전투폭격기 75 대를 주력으로 하는 항공대와 대 공수 부대들이 있다. 오끼나와에는 미 7 함대 기지가 있으며 《메이스—비》 로케트를 비롯한 도합 22 개의 핵 기지가 있다.

이리 하여 오끼나와는 미제 강점 후 사회주의 국가와 아세아 신생 독립 국가 및 민족 해방 투쟁 력량에 대한 《기습 공격 기지》로, 핵 전쟁과 《국부 전쟁》 및 《특수 전쟁》 기지로 전변되였다.

오끼나와 인민들은 본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과 미군 철거를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1964년 4월 28일 《미국 군사기지의 철폐와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을 위한 공동 투쟁의 날》(1964년 3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제 6차 회의에서 결정)에 제하여 나하시에서 7만 5천 명의 참가 하에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으며 미제의 오끼나와 강점일인 6월 26일에도 5만명의 군중들이 집회를 가지고 오끼나와의 일본에로의 귀속, 미 군사 기지의 철폐, 《안보 조약》의 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인민들의 압력으로 류뀨 립법원은 4월 27일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과 시정권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미제의 졸개인 류뀨 정부 주석 오다 세이싸꾸의 즉시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4년 10월에 새로운 주구 마쯔오까 마사야스를 류뀨 정부 주석으로·임명)

경제는 농업과 수공업이 위주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밀, 고구마, 사탕수수이고 빠나나, 파인애플 등도 재배되고 있다.

필 리 핀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29만 9,404 km²(7,109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

【인구】 3,024만 1,000명(1963년)

말라이, 인도네시아, 네그리트 등 42 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

국어는 타가로그어이고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공용어로 되여 있다.

【수도】 마닐라(주민 179만 명)

정 치 필리핀은 침략적 세아토 성원국이며 미제의 동남아 침략 기지로 되여 있다.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898년 이래 미국 식민지로 있었다. 미국은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필리핀 헌법에 《평등 권리 법안》(자연 부원을 개발하며 공공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국이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을 첨가시키고 《무역 협정》(1946년 7월), 《군사 기지 협정》(1947년 3월), 《군사 원조 협정》(1947년 3월), 《호상 방위 조약》(1951년 8월) 등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을 통하여 미제는 극동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의 하나인 클라크 공군 기지와 스비크만에 있는 미제 7 함대 보급 시설 등을 비롯한 29 개의 군사 기지를 필리핀 령토 우에 설치하고 약 1만 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필리핀 군대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필리핀 내정에 간섭하며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필리핀 인민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폐기를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1956년 8월에 필리핀 인민의 강력한 요구로 미국—필리핀 간의 《군사 기지 협정》 수정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미제의 책동으로 회담은 결렬되였으며 군사 기지 문제는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1964년 7월 필리핀 하원 특별 위원회는 필리핀이 미국과 체결한 일체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1964년 4월 필리핀은 미국이 미국 주재 필리핀 외교 일'군들을 멸시한 데 격분하여 마닐라 주재 미국 외교 일'군을 체포하였으며 미국인의 이름을 붙인 마닐라 거리의 이름을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국회는 7월 7일 남부 웰남 괴뢰 도당에 대한 28만 딸라의 경제 및 기술 《원조》를 결정하였다. 8월 17일에는 16 명의 《행정팀》과 2 개의 《의료단》을 남부 웰남에 파견하였고 11월 17일에는 2,300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을 제의하는 등으로 남부 웰남 전쟁의 《국제화》를 위한 미제의 책동에 적극 추종하였다.

필리핀은 1964년 2월 8일 북부 보르네오에 대한 령토권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제기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령토권을 주장하는 《력사적 및 법적 기초》(필리핀의 술섬 추장이 북부 보르네오를 영국에 조차지로 빌려 주었다는 것)를 개괄한 《비망록》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보냈다. 필리핀은 령토권 문제로 하여 《말레이시아》를 정식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수는 24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 수는 104명,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디오스다도 마카파갈(1961년 11월 14일 당선, 임기는 4년), 외상 로페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에 창건되였고 1957년에 정식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헤수수 라바(1964년 5월 21일 체포됨) **자유당**(집권당) 1946년에 조직, 봉건 지주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하는 친미 정당이다. 지도자 마카파갈 **국민당** 친미 부르죠아지의 정당이다. 지도자 유로히오 로드리게스 **민족주의 공민당** 1957년에 창건된 반미 기분을 가진 부르죠아 정당이다. 총재 로렌소 타냐다 **통일 로동당** 1964년 12월 1일 창건. 전신은 로동련합이다. 지도자 라파엘 이 안토니오 플리카르표

경제, 사회 필리핀은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마닐라삼, 사탕(1962—1963년에 157만 9,000 톤 생산), 담배(1962년에 6만 6,000 톤 생산), 쌀(1962—1963년도에 396만 6,000 톤 생산), 옥수수 등이다. 경지 면적은 678만 헥타이다.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농민의 3분의 2는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산림 면적은 1,317만 헥타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석탄, 망간, 금, 은, 동, 크롬 등이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 발전 수준은 낮으며 국민 총생산액에서 공업은 약 15~17%를 차지한다.

미국 독점체들은 필리핀의 농업, 광업, 림업, 대외 무역 등 경제 명맥을 쥐고 있다. 1963년 말 현재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사자본 투자액은 4억 1,500만 딸라로서 1950년의 근 4배로 증대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 야자, 담배, 마닐라삼 등이며 대외 무역의 70~80%가 미국, 영국, 서부 독일, 일본 등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1964년 1월 현재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이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는 100만 명이나 있었다. 인구의 93%가 기독교도들이다.

【출판 보도】 **통신**—필리핀 보도사 **신문**—마닐라 타임스, 데일리 미러, 마닐라 크로니클

북부 칼리만탄

북부 칼리만탄은 인도네시아 령토인 칼리만탄(보르네오)과 접경하고 있는 사라와크, 브루네이, 북부 보르네오의 3 개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 지역을 강점한 영국은 브루네이에서 1846년에 사라와크를, 1877년에는 북부 보르네오를 각각 분리시켰고 1888년에는 이 세 지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사라와크는 1940 년에, 북부 보르네오는 1946년에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9월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사라와크와 북부 보르네오를 《말레이시아 련방》에 편입하였으나 브루네이는 이 《련방》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1962년 12월 8일 브루네이 인민당의 지도 하에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은 독립을 선포하고 영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 무장 투쟁은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까지 확대되였다.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 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상으로 하는 북부 칼리만탄 통일 국가 혁명 정부가 수립되였다. 북부 칼리만탄 민족 해방군은 무장 봉기 당시의 2만 5천 명으로부터 1963년에는 4만여 명으로 장성하였다. 이들은 넓은 수림 지대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역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도시 주위에 혁명 근거지를 설치하고 있다.

사라와크

【면적】 12만 1,668 km²

【인구】 78만 명(1963년)

말라이인(29.2%), 화교(30.7%), 연해 다야크인, 메라나우인이 살고 있다.

【행정 중심지】 쿠칭(주민 15만 명)

사라와크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재배 원 10만 헥터, 년산 4만 톤)이며 벼, 후추도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원유(년산 약 5만 5천 톤), 금, 보키사이트 및 린회석이 있으며 산림 부원이 풍부하다. 원유는 영국 《쉘 석유 회사》계의 《사라와크 석유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영국 독점체들은 사라와크에서 매년 6,000만 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최근 년간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면서 인민 련합당(1959년 6월에 창건), 국가 통일당(1960년에 창건된 사라와크 최대의 정치 조직) 등 좌익 정당들이 조직되였다. 기타 봉건 토지 소유자의 리익을 대변하는 집권당으로서는 사라와크 련맹과 국민당이 있다. 농민 협회(1961년 6월 설립).

북부 보르네오

【면적】 7만 6,112km²

【인구】 47만 5,000명(1963년)

【행정 중심지】 제슬톤(주민 2만 2,000 명)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 림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벼(1962년에 8만 428 톤 생산), 야자, 옥수수 등이다. 령토의 80%가 산림 지대이다. 석탄, 석유, 철, 금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나 미개발 상태에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산림 자원의 대부분과 고무 재배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5만 5,000여 헥터를 가지고 있으며 고무, 목재 및 코프라 무역의 85%를 지배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다. 그 밖에 북부 보르네오 련맹(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 집권당), 련합당(《말레이시아 련방》을 지지하는 반동적인 정당) 등이 있다.

브루네이

【면적】 5,765 km²

【인구】 8만 4,000명(1961년)

말라이족, 다야크족, 화교 등이 살고 있으며 말라이어를 사용한다.

【행정 중심지】 브루네이(주민 1만 8,200 명)

1959년 9월 29일 새 헌법의 실시에 따라 브루네이에서는 형식상 자치가 실시되였으나 국방, 외교, 국내 치안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영국 고등 판무관이 쥐고 있다. 국가 기구로는 립법 의회와 집행 리사회가 있다. 1962년 8월에 선거된 립법 의회는 이해 12월 8일에 일어난 반영 무장 봉기로 해산되였으며 12월 20일 14 명으로 림시 평의회가 조직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석유(1963년에 350만 톤 생산)인데 그 채굴권은 미 영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석유 로동자 수는 전체 로동자 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석유는 수출 총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64년에 미국 《크라크 회사》는 브루네이 동북 지구 700여 평방 에이커의 지역에 대한 《석유 탐사권》을 탈취하였다. 또한 천연 가스(년산 16~17억 m³)와 산림 자원(전국 면적의 71%)이 풍부하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쌀, 야자 등이다. 고무 재배 면적은 1만 2,000여 헥터이며 매년 1,000여 톤의 고무를 수출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정당으로는 인민당이 있다. 1956년 8월에 조직된 인민당은 민족 해방군을 조직하고 영 제국주의자들과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당원수 1만 6천 명(1962년),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 련맹(집권당)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면적】 190만 4,345 km²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약 6천여 개나 된다.

【인구】 1억 300만 명(1964년 8월 현재, 그 중 약 65%가 쟈바섬에 거주)

주민은 10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주요 종족은 쟈바족, 순다족, 마둘라족이며 이외에 화교(약 300만 명), 구라파인(약 20만 명)이 있다. 언어는 250여 종 있다.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수도】 쟈까르따(주민 318만 2,900명, 1965년 1월 말)

정 치

1596년부터 인도네시아 침략을 개시한 화란은 1602년에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창설하고 이 나라 전역을 지배하다가 1800년에 정식 식민지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1817—1830년, 1873—1919년 간에 화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926—1927년에는 공산당이 지도한 인민 봉기가 있었다. 1942년 3월—1945년 8월까지 일제의 강점 하에 있었으며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말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946년 11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화란의 재침으로 4년 간의 류혈적인 전쟁이 있었다. 1949년 11월 2일 화란과 인도네시아 간에 《헤그 원탁 회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27일 화란 련방 내에서 《인도네시아 련방 공화국》(16 개의 자치국과 자치주 포함)이 수립되였다. 1950년 8월 인도네시아 련방 림시 국회는 《단일 국가 헌법 초안》을 채택하고 통일적인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4년 8월 16일 《화란—인도네시아 련방》을 해체할 데 대한 의정서에 조인하고 여기서 탈퇴하였다.

미제의 사촉에 의하여 마시우미당과 사회당의 반동들은 1956년 이래 반란을 일으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62년에 반란 도당들에 대한 일대 소탕 작전이 있었다.

1962년 8월 15일 서부 이리안 이양에 관한 인도네시아—화란 협정이 체결되고 1963년 5월 1일 서부 이리안에 대한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림시 인민 협상 회의를 비롯한 립법 기관들과 지방 행정 기관들에서 나사콤, (민족주의, 종교, 공산주의 등 세 조류의 정치 세력) 협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며 특히 신흥 세력 국가들의 반제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반둥 회의》의 발기국의 하나이며 또한 신흥 세력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네포》의 발기국이다.

【대통령】 1963년 5월 19일 림시 인민 협상 회의 제 2차 회의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림시 인민 협상 회의】 1960년 9월 15일 성립되였다.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헌법 제정, 대통령 선거, 주요 국가 정책들을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원은 610명(국회 의원 279 명, 각 지역 대표 90 명, 직업별 대표 241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의장 하이룰 살레흐, 부의장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국민당), 아담 하리드(회교 승려 협회), 디. 엔. 아이디트(공산당), 월루요 푸쓰포쥬도(군부)

【협조 국회】 1960년 6월 25일 발족하였다. 협조 국회는 인민 협상 회의가 결정한 정책을 대통령이 집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1원제이며 의원 수는 283 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 대표 130 명(국민당 44 명, 회교 승려 협회 36 명, 공산당 30 명, 기타 6 개 정당 20 명), 직업별 대표 152 명, 서부 이리안 대표 1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의장 아루지 까르따위나따, 부의장 수바미야(국민당), 루꾸만(공산당), 무루쌀린(군부), 아크마디 샤이후

【최고 평의회】 1959년 8월 15일에 조직된 대통령의 자문 기관이다. 성원은 44 명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족 전선】 1960년 9월 8일 결성되였다. 민족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국민의 총력량을 집결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정치 조직이다. 10 개의 정당, 대중 단체, 군대, 경찰 등 2천만 명 이상을 망라하고 있다. 위원장 수카르노, 부위원장 10명(10 개 정당 당수들로 구성됨).

【내각】 현 내각은 1964년 8월 27일 대통령 겸 수상, 3 명의 부수상들과 8 개 부문의 련합 상들, 대통령 보좌 관계 상들로 구성되였다.

제 1 부수상 겸 외무상 및 대외 경제 관계상 수반드리오, 제 2 부수상 겸 분배 관계상 레이메나, 제 3 부수상 겸 기간 공업 및 광업상 하이룰 살레흐, 내각 상무 위원회(3명의 부수상들로 구성) 소속 상 노또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산하에 유력한 진보적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당원 수 250만 명, 위원장 디. 엔. 아이디트, 제 1 부위원장 엠. 엔. 루꾸만, 제 2 부위원장 노또 **국민당** 1927년 7월 3일에 성립. 그후 화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해산되였다가 1946년 1월 29일 재 조직되였다.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인도네시아의 세 개 정치 세력중 중간파에 속한다. 1960년 7월에 진행된 제 9 차 대표 대회에서는 《향도되는 민주주의》 리념에 기초를 둔 《평민 주의》를 실시할 데 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63년 년차 대회에서는 공산당이 참가하는 《나사콤》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기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둥 회의 5 개 원칙에 의거한 평화, 중립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한다. 위원장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 당원수 100～150만 명. **회교 승려 협회** 1926년 5월 마시우미당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당으로 발족한 이 나라 최대의 회교도 당이다. 이 당은 회교에 기초를 둔 민족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중립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아담 하리드 **기독교당, 무르바당, 인도네시아**

독립 옹호자 련맹, **파르티 회교당**, **인도네시아당**, **천주교당**,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련맹** (소브시) 1946년 11월 29일 성립. 세계 직련에 가입, 맹원 320만 명, 위원장 모함마드 무니르 **농민 전선** 1945년 11월 25일에 창립된 진보적인 농민 단체. 맹원 640만명, 위원장 아스무 **녀성 운동 협회** 1960년 6월에 창립.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성원, 맹원 수 150여 만명 **인민 청년 동맹** 1950년 11월 10일 창립. 맹원 수 150여 만명, 총비서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 라씨드 **평화 옹호 위원회** 총위원장 라뚜 아미나 히다야뜨 **아.아 인민 단결 위원회** 위원장 우따미 수리야 다르마

【주요 사건】 반《말레이시아》 투쟁 1964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말레이시아》의 적대적 행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의 지지하에 영 식민주의자들은 동남 아세아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말레이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령공을 침범하며 국경 지대에서 무장 충돌을 일으켰다. 미제는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여 인도네시아를 위협 공갈하였다.

이와 같은 책동에 대처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대결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11월 전국에 《경계 체제》를 수립한 데 뒤'이어 1964년 1월 2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군사 지휘관들에게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월 1일에는 국경 지대에 있는 전투원들에게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현 위치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3월 17일 헙조 국회는 《말레이시아》 분쇄를 위한 지원군을 조직할 데 대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명령을 지지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지원병 법안을 채택하였다. 3월 말까지 2,50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병으로 등록하였으며 5월 30일 첫 지원병 대대가 북부 칼리만탄으로 출발하였다. 11월 21일부터 10일 간에 걸쳐 륙해공군과 경찰은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 연습을 진행하였다.

5월 12일에 반 《말레이시아》 운동과 관련하여 각 기구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혁명 기구 개조 최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1월 26일 정부는 모든 영국인 소유 기업소들의 완전 몰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1965년 3월 5일에는 17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파괴 행동을 감행하고 있던 미 공보원을 폐쇄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 속에서는 미국 《평화군》을 쫓아내며 각종 명목 밑에 인도네시아에서 파괴 책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관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과 미국 영화 배격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9월 9일 동부 쟈바의 술라웨시에서 청년 시위자들은 미국 령사관을 습격하여 미국 국기를 찢어버리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게양하였다. 또한 각지에서는 《말레이시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미국 출판물들과 반동적인 잡지들을 대대적으로 몰수하였다.

6월 20일 도꾜에서 《말레이시아》 분쟁 문제와 관련한 3 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수뇌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 공보에 의하면 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현 분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4 개국 조정 위원회의 창설에 동의하였으나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반 《말레이시아》 투쟁을 포기케 하려는 보류 조건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였다.

6월 21일 수반드리오 외상은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깜빠니야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것이며 대결 정책에 상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유엔에서의 탈퇴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간판 밑에 《말레이시아》를 합법화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침략 음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유엔 안보 리사회에 끌어 들였다. 이와 관련하여 1964년 12월 31일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군중 대회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보 리사회의 성원국으로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유엔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1965년 1월 7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보 리사회 리사국으로 되였기 때문에 유엔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하였다. 1965년 1월 20일 수반드리오 외상은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에게 서한을 보내여 인도네시아의 유엔 탈퇴를 정식으로 통고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유엔 아동 보호 기금,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와 같은 유엔 전문 기구들에서도 탈퇴하며 유엔 인도네시아 상임 대표부와 인도네시아 주재 유엔 대표부가 1965년 3월 1일에 정식으로 폐쇄되게 된다고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4월 최 원택 외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방문 기간인 4월 16일 량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11월에는 우리 나라 군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녀성 대표단(7월), 사회 과학원 대표단(9월) 기타 일련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3월 28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반 《말레이시아》 투쟁을 지지하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 의장에게 보냈다. 또한 인도네시아 독립 선포 19 주년을 기념하여 8월 13일 조선—인도네시아 친선 협회의 주최로 평양시 기념회가 진행되였다.

11월 1—4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 4일 공동 콤뮤니케(문헌 참조)가 발표되였다.

11월 3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우리 나라 과학원 명예 원사 칭호를 받았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공산당 친선 대표단(4월), 《인도네시아당》 대표단(5월), 말라디 체육상(5월), 인도네시아 녀성 대표단(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군사 고문과 그의 부인인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9월), 영화 대표단, 인도네시아 발리성 성장, 과학자 협회 대표단 기타 일련의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녀성 대표단 단장인 후루스티아티 수반드리오 녀사에게 조선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인 우따미 수리야 다루마 녀사에게 조선 명예 사회 정치학 박사 학위를, 공군 원수 수리야 다루마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훈장을 수여하였다.

7월 17일 량국 간에 보도 교환 및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12월에는 방송 협정이 각각 체결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침략 전쟁을 도발한 날인 6월 25일을 계기로 7월 6일 인도네시아 쟈까르따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6월 미꼬얀을 단장으로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 4월과 11월에 중화 인민 공화국 진 의 부총리가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8월 17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통킹만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북부 웰남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북부 웰남 인민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세아 문제는 아세아적 방법으로 아세아인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외국 세력은 동남 아세아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월에 인도네시아와 웰남 민주 공화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2월 17일에 협조 국회는 콩고(레)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고 12월 17일 협조 국회는 콩고(레)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며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필리핀 대통령 마카파갈, 일본 수상 이께다, 서독 대통령 류브케가 각각 인도네시아를방문하였다.

한편 수카르노 대통령은 쏘련, 캄보쟈, 파키스탄, 아랍 련합 공화국, 필리핀, 일본,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와 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10월 10일 수카르노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가네포 참가 선수들(륙상과 수영)에 대한 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데 항의하여 인도네시아의 제 18차 올림픽 대표단을 철회하였다.

경 제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이다. 국민 총생산액 중에서 농업은 약 75%를 차지하며 주민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석광의 주요 생산국이며 동남 아세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다. 지하 자원의 매장량을 보면 석유 13억 6,090만 톤, 주석 110만 톤, 철광석 13억 톤이며 기타 석탄, 보키사이트, 망간, 니켈, 금, 은, 동, 크롬광, 금광석, 아연, 연 등이 많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는 350년 간의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이 지배되고 있다.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전 통치 기간에 14억 3천만 딸라의 자본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매년 5천만 딸라의 리윤을 짜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예속적인 경제로부터 벗어나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후 227개의 화란인 소유 농장과 104 개의 영국인 소유 농장을 국유화하였으며 1962년 1월까지 화란인이 경영하던 일체 기업소들을 몰수하였다. (도합 12억 딸라에 해당하는 700여 개의 대상을 국유화). 또한 1964년 11월에는 모든 영국인 소유 기업소들을 완전히 몰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외국 석유 회사들이 석유 수입의 60%를 인도네시아에 물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정부는 1960년에 9 개의 국영 무역 회사와 7 개의 국영 은행을 설치하고 대외 무역과 금융 부문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1964년에 수출입 규정과 루피아와 외화의 교환 규정 등을 발표하고 외국 자본이 침투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방지하는 대책을 세웠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농장의 70%, 방직 공업의 90%, 주석광의 100%, 외국 자본이 장악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석유 채굴업 등 인도네시아 민족 자본의 80%에 해당하는 17억 딸라의 자본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8개년 계획(1961—1968년)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 기간의 투자액 2,400억 루피아 중 농업 및 공업 부문에 45%, 석유 공업에 25%, 주석 채굴업에 12%, 류통 부문에 7%, 교육 부문에 7%를 각각 돌릴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 공업에서는 채굴 공업, 선박 공업, 농산물 가공 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경제에서 공업은 약 25%를 차지하며 공업에서 채광업은 약 60%를 차지한다. 고무, 정미, 제탕, 세멘트, 방직(년산 약 4억 m), 제지 공업 등

이 있으며 기타 약간한 기계 공업과 일련의 부속품 공장이 있다.

1964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체 공업 기업소 수는 1만 1,955 개인데 그 대부분이 소규모 공장들이다. 기업소 중 종업원 1천—2천 명을 가지고 있는 공장 기업소 수는 26 개, 2천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장, 기업소도 몇 개 있다. 전체 공업 기업소 중 국영 기업소 수는 987 개이며 기타는 개인 및 외국 자본에 속하고 있다.

정부는 8 개년 경제 계획 기간에 368 개의 공장, 기업소 건설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석유 (100만 톤)	23	21
주석 (만 톤)	1.8	1.8
보키사이트 〃	47	45

정부는 공업 생산의 증대와 함께 유용 광물의 개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63년 8월에 금, 은, 린, 석유, 보키사이트 등의 민간 광산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새 광업법을 채택하였고 제련소와 제철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12억 7,440만 루피아를 이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개발 은행을 새로 설치하였다.

【농업】 인도네시아는 농업 발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영농 체계로는 수출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 체계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농 체계가 있다.

주요 농산물은 수출 작물인 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 야자, 사탕, 담배, 목재, 쌀 등이다. 쌀은 주로 개인농들이 생산하고 있다.

최근 년간 정부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농업에서의 식민지 편파성을 청산하기 위하여 점차 쌀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

고무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 재정 수입의 기본 원천으로 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0.6%에 불과한 지주와 부농들이 경지 면적의 65~75%를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농업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1960년에 협조 국회는 《토지 개혁에 대한 기본법》을 채택하고 인도네시아 공민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61년 1월에는 1명 혹은 한 농호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20 헥타로 제한하고 나머지 토지는 정부가 유상 몰수하여 토지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유상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 8월 17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기본 토지법은 자바, 마두라, 발리에서 즉시 리행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는 1~2년의 기한을 준다고 언명하였다. 1964년에 100만 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만톤)

	1962	1963
쌀	860	774
옥수수	320	315
감자	1 100	1 210
생고무	63	60
야자	40	40

【대외 무역】 무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국가 세입의 약 60%를 충당하고 있다. 현재 9개의 국영 무역 회사가 인도네시아 대외 무역의 약 80%를 쥐고 있으며 주요한 상품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생고무, 주석, 코프라, 담배, 종려유, 차 등이다.

석유는 아세아 지역 수출의 30~35%, 이 나라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에 고무는 54만 톤 수출되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버마, 화란, 쏘련, 중국 등이다. 1963년 무역 적자는 약 10억 딸라였다.

【재정】 1963년 예산 적자는 전년도의 389억 루피아로부터 335억 9,420만 루피아로, 1964년에는 18억 루피아로 감소되였다.

1964년도의 외화 수입액은 5억 딸라, 외화 지출액은 6억 딸라였다.

교 육 1964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인민 학교 3만 9,982개, 초급 중학교는 5,973 개, 고급 중학교는 992 개, 사범 학교는590 개, 대학은 267 개 있었다. 대학생 수는 18만 5천 명이였다. 그 밖에 약 60 개의 성직속 단과 대학이 있었다.

【출판 보도】 통신—안따라 통신, 페르스비로 인도네시아(피.아이.에이)

신문—하리안 라캬트(공산당 기관지), 메르데카, 인도네시아 옵써버(정부계 신문), 수루 인도네시아(국민당 기관지), 헤랄드 인도네시아

타 이

【면적】 51만 4,000 km²

【인구】 2,883만 명(1963년)

주민은 타이족(75%), 화교(17%), 말라이족(3.5%), 크메르족(2%) 등이 있다. 공용어는 타이어이다.

【수도】 방코크(주민 157만 명, 1962년 7월)

정 치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무혈 정변》을 거쳐 전제 군주국으로부터 립헌 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 이름을 타이(종전에는 샴)로 고쳤다. 1941년 12월 타이는 일본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일제의 아세아 침략을 적극 협조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 친영 정권으로 교체되였고 1947년 정변 후부터는 친미 정권이 수립되였다.

타이는 1950년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고 현재도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1950년 9월과 10월에 미국과

《경제 및 기술 협조 협정》,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침략적인 세아로에 가입하였다. 방코크에 세아로 본부가 있다. 타이에는 3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450 명의 미 군사 고문단이 타이군을 통제하고 있다. 그 밖에 257 명의 미국 《평화군》이 있다.

1957년 9월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리트 타나라트는 1958년 10월에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군사독재를 수립하였다.

1962년 9월에 타이는 미국과 《특별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라오스, 캄보쟈, 남부 웰남 등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1964년 7월 14일 내각 회의는 남부 웰남 괴뢰군의 제트 전투기 조종사들을 타이에서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5일 미제가 《통킹만》 사건을 도발하자 이에 발맞추어 타이 반동 정부는 타이군의 완전 경계 태세를 명령하였다.

라오스 우익 분자들이 비엔티안에서 정변(1964년 4월 19일)을 일으킨 후 타이는 라오스 국경 지역에 군대를 집결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4 개 대대를 라오스의 우파 군대로 가장시켜 라오스 비엔티안주 우파 도당에 파견하였다.

한편 타이 반동 정부는 《말레이시아》 괴뢰들과 공모하여 타이—말라이 국경 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최근 년간 군사 독재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타이의 애국적 민주 인사들로 조직된 《타이 독립 운동》은 1964년 11월 1일 선언을 발표하고 타이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반동적인 독재 정권을 타도하며 중립, 평화, 민주주의, 번영 및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국왕】 푸미폰 아둘랴디트(1950년 5월에 취임)

【제헌 의회】 1958년 10월 군사 정변에 의하여 국회는 해산되고 1959년 1월의 림시 헌법에 따라 2월 5일 국왕이 임명한 240명의 의원으로 제헌 의회가 구성되였다. 의원의 대부분이 악질적인 장교와 경찰, 관료배들이다.

【내각】 1963년 12월 19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타놈 키티카쵸른, 외상 타나트 코만

【정당, 사회 단체】 1958년 10월 20일 군사 정변 후 일체 정당과 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고 군인, 경찰, 관리들로서 **신 혁명당**이 조직되였다.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되였으며 1947년부터 비합법적인 상태에 있다. **타이 독립 운동** 1964년 11월 1일에 애국적인 민주 인사들로 조직된 정치 조직이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이에서 몰아 내며, 매국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타이 애국 전선** 1965년 1월 1일에 성립된 반미 애국적인 정치 조직이다. 이 전선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미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며 제국주의 군대와 그 침략 세력을 몰아 내며 파쑈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며 침략적 군사 쁠럭인 세아토에서 탈퇴하고 평화와 중립 정책을 실시할 것 등을 강령으로 내놓고 있다.

경 제 타이는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농업은 국민 소득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전 령토의 12%인데 그 중 93%가 논이다. 총경지 면적의 50% 이상을 왕실, 귀족, 관료, 승려, 상층 군인, 고리 대금 업자, 지주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70%의 농호가 가렴잡세와 지주의 략탈로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벼와 고무이다. 1963년에 벼는 890만 톤, 고무는 19만 5,000 톤 생산되였다. 타이는 매년 120~150만 톤의 쌀을 수출하며 고무는 1963년에 19만 5,000 톤 수출하였다.

지하 자원으로서는 금, 은, 철, 연, 망간(1963년에 2,900 톤 생산), 주석, 동, 보석 등이 있다.

공업은 국민 소득에서 겨우 12%를 차지하며 주민의 2.3%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공업의 주요 부문은 경공업과 원료 가공 공업이고 중공업은 보잘 것 없다. 그것마저 미국 잉여 상품의 투입으로 파산 당하고 있다.

경제 명맥은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되여 있다.

1964—1965년도에 군사비로 19억 2,000여만 바트 지출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21억 바트의 재정 적자(예산 지출 총액의 17%)를 내였다. 1964년 재정 수입의 90.6%는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타이의 외국 채무액은 1963년까지 157억 8,780만 바트에 달하였다.

말라이 련방
Federation of Malaya

【면적】 13만 1,794 km²

【인구】 723만 2,000 명(1963년 11월)

주민은 말라이인(50%), 화교(37%),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11%)이며 언어는 말라이어, 중국어, 영어를 쓰고 있다.

【수도】 쿠알라 룸푸르(주민 48만 명)

정 치 말라이는 1819년부터 영국 식민지로 되였으며 제 2 차 대전 중인 1941년에는 일제의 강점 하에 있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영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침입하였다. 전후 말라이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였고 그 결과 1957년 8월 31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다. 동년 10월 3일 말라이는 영국과 《대외 방위 및 호상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 군

대의 말라이 무기한 주둔권과 군사 기지를 영국에 넘겨 주었다. (1961년 11월 22일에 발표된 영국—말라이 공동 성명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련방》이 조작된 후에는 이 《방위 협정이 기타 유관 령토에 확장된다는 것이 결정》되였다.) 영국은 동남 아세아에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말라이 수상 라호만으로 하여금 1961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발기케 하고 1963년 7월 8일 《말레이시아 련방 형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 동년 9월 16일 정식 《련방》을 조작하였다. 브루네이는 이 《련방》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말레이시아 련방》은 14 개의 주 (말라이 11 개 주, 싱가포르, 북부 보르네오, 사라와크 각각 1 개 주)로 구성되여 있으며 련방 국회와 련방 정부(수상 겸 외상 아브둘 라호만)가 있다. 1964년 4월 29일 《말레이시아 련방》 국회(의석 159석 중 말라이 104석, 사라와크 24석, 북부 보르네오 16석, 싱가포르 15석)를 선거하였다.

1964년 말 현재 이 지역에는 5만 명의 영 련방군(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군대 포함)이 주둔하고 있다.

라호만 도당은 영국 침략군을 끌어 들여 말라이 민족 해방군과 북부 칼리만탄의 민족적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동시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지 밑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장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또한 라호만 도당은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1964년 6월 20일 《말레이시아》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도꾜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 개국 수뇌자 회담은 《말레이시아》의 부당한 주장으로 결렬되였다.

1963년 9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를 표결 없이 유엔에 가입시켰으며 1964년 말에는 유엔 안보 리사회의 비상임 리사국으로 《선출》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4월 30일 창건되였고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 말라이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총비서 진 평 **마화인 련맹** 1955년 4월에 봉건 귀족, 지주,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3 개 정당(말라이 민족 련합 기구, 말라이 화교 협회, 말라이 인도인 대회당)이 련합하여 조직되였다. 그러나 매개 당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도자 아브둘 라호만 **인민 사회주의 전선** 말라이인 계의 인민당(1955년 창건)과 화교계의 로동당의 련합 조직(각각 독자적으로 활동)으로서 1958년 2월에 성립된 말라이 최대의 야당이다. 외국 자본의 침투와 외국 군대의 주둔 그리고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지도자 아호마드 보에스타만(인민당 위원장) **범 말라이 회교당, 인민 진보당**

경제, 사회 말라이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산물은 고무, 주석, 철광석, 망간 등이다. 영국 독점 자본은 말라이에서 주석의 60%, 고무의 70 %, 수출입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1964년 7월 현재 영국 독점체들은 말라이에 2억 6,0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말라이 재정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리윤을 짜내고 있다. 1964년 초에 미국 《스탠다드 베큠》 석유 회사는 일산 3천 톤 능력의 석유 가공 공장(《말레이시아》 석유 제품 수요의 절반을 차지)을 말라이에 건설하였다. 1963년에 주석광은 6만 톤(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약 43%로서 제 1 위), 철광석은 684만 톤, 망간광은 7,000 톤(1964년) 생산되였다.

경지 면적은 214만 1,200 헥터 (그 중 고무 재배원은 약 66%)이다. 외국 독점 자본, 지주들이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고무 생산은 국민 소득의 약 40%를 차지한다. 1963년에 고무는 79만 7,000 톤, 쌀은 100만 6,200 톤(1962—1963년)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고무(1963년에 85만 3,000 톤 수출), 주석, 차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경제 관계를 단절한 것과 미국의 원료 가격 인하 정책으로 1964년 첫 11 개월 간의 말라이 대외 무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6% 감소되였다.

싱가포르

State of Singapore

【면적】 585 km²

【인구】 170만 명(1963년) 중국인(76%), 말라이인(14%),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8.5%)들이 살고 있다.

【수도】 싱가포르 (주민 154만 9,000 명)

정 치 싱가포르는 19 세기 초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867년 말라이와 함께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4월에는 말라이에서 분리되여 영국의 단독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59년 6월 3일 영 련방 내의 《자치국》으로 되였으나 외교 및 국방권은 영국이 쥐고 있었다.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련방》의 조작과 함께 싱가포르는 이 《련방》의 한 개 주로 되였다 (수상 리 관유).

싱가포르는 극동에 있는 영국의 최대의 해군 기지이며 영국 극동 륙해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이다.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행동당(집권당) 회교도 부르죠아지와 지식 분자들로 1954년 11월에 성립. 당수 리 관유 **인민 련맹** 1954년 11월에 창건, 집권당 중의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련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위원장 림 유

복 사회주의 전선 인민 행동당에서 분리되여 1961년 9월에 조직. 싱가포르의 반제 투쟁을 지도하고 있는 당으로서 독립적인 말라이 국가 창건을 주장하며 식민주의와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리 슈쵸 **로동당** 식민주의, 영국 군사기지,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다위드 마샬 **인민 련합당, 인민당, 인민 협회, 싱가포르 로조 평의회**(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로조 단체)

경 제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의 하나이며 중계 무역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경제는 영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 독점체들은 브루네이에서 략탈한 석유와 북부 보르네오에서 략탈한 고무, 목재, 담배들을 싱가포르에서 가공한다.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체들도 싱가포르에 침투하고 있는바 1963년에는 일산 1만 8천 톤 능력의 정유 공장을 건설하였다.

버 마

(버마 련방)
Union of Burma

【면적】 67만 7,950 km²

【인구】 2,366만 4,000 명(1963년)

주민의 약 70%가 버마족이며 아라칸족, 샨족 등 소수 민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다.

【수도】 랑군 (주민 120만 명)

정 치 버마는 1824년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885년에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고 그 다음 해에 영령 인도에 편입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 앙양된 민족 해방 운동의 결과 1937년에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여 자치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2—1945년 간에 버마는 일본에 강점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영국이 버마를 다시 강점하였다. 전후 영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버마 인민들의 독립 운동이 앙양되였다. 영국은 1947년 1 월 《영국 버마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48년 1월 4일 버마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후 집권한 《반 파쑈 인민 자유 련맹》은 1958년에 《결백파》와 《공고파》로 분렬되였다. 1960년 2월 6일 제 3 차 국회 선거에서 《결백파》가 승리하고 4월 4일 우 누 정부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우 누 정부는 불안정한 정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 하였다.

1962년 3월 2일 우 누 정권이 전복되고 네 윈을 의장으로 하는 군인들로서 혁명 리사회가 조직되였다. 이해 3월 9일에는 네 윈 내각이 조직되였다. 집권후 혁명 리사회는 《버마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내놓고 외국인 기업소 및 개인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로선당》을 조직하였다.

대외 정책에서 버마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각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0월 2일 우리 나라와 버마 간에 무역 협정이 체결되였다. 1958년 3월 28일 랑군에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1년 5월 량국 간에 령사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이해 6월 27일에는 랑군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4년 4월에는 버마 로동성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혁명 리사회】 의장 네 윈 장군 (1962년 3월 2일 취임)

【정부】 수상 겸 국방상 네 윈, 외상 우 티 한

【정당, 사회 단체】 1964년 3월 28일 네 윈은 버마 사회주의 로선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비법화되기 전의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버마 공산당(백기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되였다. 1946년 2월에 당 내에 일어난 의견 상이로 말미암아 타킨 쇼를 비롯한 일부 중앙 위원회 위원들이 탈퇴하여 적기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1948년 버마 공산당은 지하 투쟁으로 들어 갔다. **버마 사회주의 로선당** 1962년 7월 4일 조직. 이 당은 혁명 리사회의 정강 《버마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1962년 4월 30일 발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네 윈 **민족 단결 전선** 1955년 11월에 좌익 당파들이 련합하여 조직 **버마 통일 로동당** 1962년 12월 1일 버마 로동당(1950년 창건)과 인민 동지당(1949년 창건)이 합당하여 창건. 위원장 더킨 치트 마웅 **인민 진보당** 1959년 4월 12일 인민 민주당과 민족 진보당이 합당하여 창건. 당수 우 앙 딴 **련방당**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의 《결백파》를 중심으로 1960년 3월에 조직. 당수 더킨 면 **반 파쑈 인민 자유 련맹** 1958년 1월 동 련맹 3차 대회에서 《공고파》를 중심으로 조직 **버마 사회당** 1939년에 조직. 이 당은 아세아 사회당 대표자 회의 창설의 주요 발기자의 하나이다. **버마—조선 친선 협회** 1963년 8월 14일 창립. 위원장 우 루윈 **버마 평화 옹호 위원회**(1949년 10월 창립) **버마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요 사건】 3월 28일 버마 혁명 리사회는 여당인 사회주의 로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고 금지된 정당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법령에는 버마 혁명 리사회가 유일당 체계의 방조 하에 《버마 사회주의 로선》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9월 6일 버마 혁명 리사회는 영어 신문 《가디언》, 버마어 신문《미라》, 《뱅가드》를 국유화하였다.

4월에 버마 정부는 미국인들의 파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랑군 만달레이 및 물멘에 있는 미 공보원 소속 도서관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외국인 선교사들의

거주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들의 출국을 요구하였다.

5월 19일 버마 혁명 리사회는 랑군—히얀 달라이 도로 건설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였다. 버마는 1959년에 이 도로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증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미제는 그후 이것을 미끼로 하여 버마에 더욱더 침투하려고 획책하였었다.

1964년 7월 10—12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와 진의 외교 부장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주 은래 총리와 네 윈 장군은 량국 간에 체결된 우호 및 호상 불가침 조약의 제 3 조에 규정된 자기들의 의무를 재 확인하였으며 라오스에 관한 14 개국 제네바 회의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12월 3일 네 윈 수상은 핵 무기의 완전 금지 및 완전 소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세계 수뇌자 회의를 소집하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의 서한을 지지하여 회답 서한을 보냈다.

1월 22일 버마와 파키스탄 간에 이미 합의된 전통적인 국경선에 따라 량국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기로 한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며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경지는 700만 정보인데 그 대부분이 논이며 주요 농산물은 벼이다. 버마는 쌀 수출에서 세계 제 1위이다. (1963—1964년도에 150만 톤 수출) 1962—1963년에 쌀은 728만 9천 톤, 락화생은 43만 2천 톤, 황마는 7만 9천 톤, 목화는 5만 9천 톤, 두류는 32만 3천 톤, 사탕수수는 155만 2천 톤, 옥수수는 7만 6천 톤, 기장과 밀은 8만 9천 톤 생산되였다.

버마 령토의 60%는 고무, 종려수, 찌크 등 290여 종에 달하는 각종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 지대이다. 버마의 찌크재는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1963년에는 30여만 톤의 찌크재를 비롯하여 100만 톤 이상의 각종 목재를 생산하였다. 목재 운반의 주요 수단은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2,500마리나 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연, 중석, 석유(1963년 560만 톤 생산) 등이 풍부하다.

국민 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20%이다. 공업에서는 정미 공업, 식료품 공업, 제재 공업 및 석유 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 후 버마 정부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국내 경제 생활에서 다년간 파괴 행위를 감행해 온 미국의 《포드 기금》과 《아세아 기금》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963년에는 영국 석유 회사, 버마—영국 주석 채굴 회사를 포함한 영국인들의 회사 및 은행과 기타 외국인들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63년에 발표된 공업 국유화 법령에 따라 정부는 어떤 개인 기업소나 상사들도 임의의 시각에 국유화할 수 있다.

정부는 1963년 3월에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민에 대한 봉건적 착취를 제한하는 농민의 《권리 옹호법》과 《소작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농민들을 고리 대금업자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대부를 증대시켰다. 정부는 1963년까지 3천 대의 뜨락또르를 농촌에 공급하였다.

또한 정부는 1964년 4월 11일 일체 수출 무역을 국유화하였다.

1962—1963 회계 년도의 국민 총생산은 그전 회계 년도에 비하여 8.2% 증대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쌀과 쌀 제품(62.1%), 목재, 생고무, 보석, 광석 등이다. 1963년에 수입 총액에서 생산 수단이 차지하는 몫은 1962년에 비하여 장성하였지만(14.9%) 수입의 기본 부분은 외연 대중 소비품들이다.

1964—1965 학년도에 216만 명의 초급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이 1만 4,085 개의 초급 및 중등 학교들에서 공부하였으며 교원 수는 5만 3천 명이다. 정부는 1965년에 들어와서 많은 사립 학교를 국유화하고 일부 외국어로 교수하던 것을 버마어로 하게 하였다.

1963—1964년에 병원은 367 개(1961년 239 개) 있었다. 버마는 불교의 나라로서 인구의 80%는 불교도들이며 중만 하여도 10만 명이나 된다.

【출판 보도】 통신—버마 통신(1963년 7월 26일에 설립된 국가 통신사)

신문—근로 인민보(정부 기관지), 뱅가드 무드, 한사워디, 버만, 가디언, 미라, 랑군 일보, 뉴 라이트 오프 버마

네 팔

(네팔 왕국)

Nepal

【면적】 14만 700 km²

【인구】 940만 7,000 명(1961년 말)

구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이 있다. 언어는 바르파치아어, 구바쥬어, 티베트어 등이 있으나 공용어는 네팔어이다.

【수도】 카트만두(주민 약 20만 명)

정 치 1814년에 영국은 네팔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감행하여 1816년에 이 나라를 자기들의 《속령》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사촉 하에 1846년 쟝 바하두르 라나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1923년에 영국은 네팔과 《영구 평화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형식상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실제상으로는 네팔에 대한 영국의 지배는 유지되고 있었다. 제 2 차 대전 후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네팔에서 영국의 특권도 끝장났다.

1951년 2월 18일 라나 일가의

봉건 체계는 끝장나고 립헌 군주제가 선포되였다.

네팔 대회당은 인도의 직접적인 지원 하에 전후 3 차의 국회 선거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60년 12월에는 국왕을 제거하기 위한 정변 음모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쿠르카당에 많은 무기와 선거 자금을 대주면서 국왕과 대회당 내각을 전복하려고 수차 반정부 무장 정변을 조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0년 12월 15일 네팔 왕 마헨드라는 국회를 해산하고 1961년 1월 15일에는 일체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자기가 집정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의회제를 페지하고 부락 참사회(판챠야트) 제에 의하여 부락, 지구, 지방, 전국의 4 단계의 참사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1963년 4월에 왕의 실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리사회(국방, 외교 등에 직접 조언을 준다)를 조직하고 8월에는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전국 지도부 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전국 지도부 리사회의 과업은 신 헌법의 조항과 정부의 조치들을 보급하며 전국 참사회를 대중화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쿠르카당을 비롯한 일부 당은 서부와 동부 국경 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미제의 지원 하에 반 정부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네팔은 1963년 1월 20일 중국과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1964년 8월 네팔 국가 리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 랄리르 챤드라쿠르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1955년 3월 즉위)

【전국 참사회】 1963년 4월 14일 정식 성립되였다. 1원제이며 최고 립법 기관이다. 의원 수는 229명이며 그 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전국 참사회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왕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

【내각】 내각은 국왕이 임명한다. 내각은 국가 리사회에서 채택된 제반 결정을 집행하는 데 국한되여 있으며 단독적인 행정 집행권을 가지지 못 한다. 현 내각은 1964년 1월 25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수리야 바하두르 타파, 부수상 겸 외상 키르티 니드히 비스타

【정당, 사회 단체】 1961년 1월에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전에 네팔에는 **공산당** (1949년에 창건), **네팔 대회당**(부르조아 정당), **네팔 인민당**(중소 부르조아지들의 정당), **국민 대회당** (소부르조아 정당), **쿠르카당**(친미 친 라나 계 대봉건 지주들의 정당) 등이 있었다. **네팔-조선 친선 협회** (1959년 11월 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루 칸사칼), **네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위원장 푸르나 바하두루).

경제, 사회

네팔은 농업국이며 인구의 95%가 이에 종사한다. 령토의 약 60%가 산림이다.

경지 면적은 202만 헥타이며 그 중 55%는 논(거의 모두가 《다락논》)이다.

네팔에서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20 에이커(1 에이커는 약 1,200평) 이상의 토지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소작료는 수확고의 4분의 1로 규정하였다.

주요 농작물은 벼, 밀, 옥수수, 목화, 차, 황마, 담배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동, 운모, 철, 아연, 연, 대리석, 금, 석유 등이 있다.

공업은 농산물 가공 공장과 경공업이 약간 있었으나 최근 년간 직물, 통조림, 성냥, 신발 등 공장이 건설되여 직물 수요의 30%, 소비품 수요의 60%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다.

네팔 중앙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네팔에는 801 개의 공업 기업소가 있다. 그중 547 개는 정미 공장이고 나머지는 사탕, 황마, 성냥, 비누, 가구 및 기타 공장 등이다. 종업원 94명까지의 공장이 전체 공장수의 95.75%이고 1천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은 0.25%이다.

철도의 총 연장은 130 키로메터이며 자동차 도로는 380 키로메터이다.

네팔은 1961년 2월에 국가 계획 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전력, 운수, 체신, 교육, 관개 시설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 3 개년 경제 계획(1963—1965년)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알곡 7만 5,000 톤, 황마 8,600 톤, 직물 2,000만 야드, 전력 5,000 키로 와트시를 생산하며 1,000 마일의 도로 건설을 예견하고 있다. 계획에 예견된 총투자액 6억 7,000만 루피중 80%를 외국의 《원조》로 해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원조》 접수 계획이 제대로 잘 진척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군사비 증가와 인도의 경제 봉쇄로 인한 무역 적자 등으로 정부는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밀, 쌀, 황마, 목재, 가축 등이다. 수입품은 공업 제품, 소금, 사탕, 석유 제품, 세멘트, 직물 등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힌두교도이다. 1963년 현재 소학교는 4,000 개, 중학교는 500 개, 고등 학교는 150 개, 대학은 1 개 있었다.

【출판 보도】 통신—《라스트리야 삼바드 사미티》 통신사

신문—고르카 파트라, 네팔 사마챠르, 콤모너

부 탄

히말라야 산맥의 동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면적】 4만 6,600 km²

【인구】 67만 명(1960년 말) 보티아스족 80%, 네팔족 20%이다. 언어는 티베트어이다.

【수도】 푸나카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

부탄은 1910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다. 1949년 8월 조약에 의하여 인도가 부탄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1964년 4월 5일 수상 지그므 도르지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경제는 주로 목축업이며 쌀, 목재, 인도밀, 약간의 직물 등도 생산된다. 주민들은 라마교를 믿는다.

시 킴

(인도 보호령)

시킴은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에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 지방과 인도를 련결하는 요충지이다.

【면적】 7,109 km²

【인구】 16만 1,000명(1961년)

네팔족이 약 75%, 보스족이 12%, 기타가 13%이다.

【행정 중심지】 강토크

【국왕】 팔덴 톤다프 남갈(1963년 12월 취임)

시킴은 1817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 이래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정당으로는 인도와의 합병을 주장하는 국민 대회당과 시킴이 인도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당이 있다.

주산물은 쌀, 인도 밀, 옥수수, 차, 사과, 모직물, 목재 등이다. 무역은 티베트, 인도 등과 진행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힌두교도이다.

인 도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면적】 294만 8,389 km²

【인구】 4억 6,100만명(1963년)

주요 민족은 벵갈족, 힌두스탄족, 텔루구족, 타밀족, 판잡족, 아쌈족, 마라티족, 구자라티족, 칸나다족, 말라얄람족 등이다.

언어는 약 250종 있으나 전 인구의 44%는 힌두어를 사용한다. 헌법에는 영어를 폐지하고 1965년부터 힌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것을 규정. 1963년 4월 하원은 힌두어를 공용어로 한 후에도 보조적인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로 결정. 인도 정부는 1965년 1월 26일부터 힌두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수도】 뉴델리(주민 264만 4,000명, 1961년)

정 치

15 세기 말부터 서구라파 국가들의 침략을 받은 인도는 1858년 영국의 직할 통치령으로 되였다.

분할하여 통치하는 정책에 따라 영 제국주의자들은 인도 교도와 회교도 간의 종교적 반목을 조장시켰으며 1947년 8월 15일에는 순전한 종교적 표징에 의하여 인도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하여 영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만들었다.

1950년 1월 26일 인도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도는 영 련방 성원국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상하 량원 의원들과 각 주 하원 의원들에 의하여 선거되며 임기는 5년이다. 헌법상 국가 원수이나 실권은 수상에게 있다. 대통령 사르바팔리 라다크리쉬난(1962년 5월 13일 취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최고 250 명으로 구성되며 각 주 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선거된다(그 중 12명은 대통령이 임명).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500명 이하의 의원과 주 의회에서 선출되는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 하원은 1962년 2월 제 3 차 총선거에서 선출되였다.

하원 의석 분배—국민 대회당 362석, 공산당 33석, 자유당 28석, 사회당 7석, 인민 사회당 12석, 기타 정당 54석, 기타 21석이다(1964년 1월 말 현재).

【내각】 현 내각은 1964년 5월 27일 네루의 사망으로 6월 9일 조직되였으며 그후 일부 개조되였다. 수상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 내상 굴자릴랄 난다, 국방상 야쉬완트라오 발완트라오 차반, 외무상 사르다르 스와란 싱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되였다. 당 지도부의 수정주의로 인하여 좌우 두 파로 분렬되고 있다. 총비서 피.순다라야(1964년 10—11월 제 7 차 대회에서 선출) 우파 공산당 위원장 에쓰. 에이. 당게 국민 대회당 1885년에 조직된 부르조아 정당이며 독립 이래의 집권당이다. 위원장 카마라즈. 기타 부르조아 반동 정당으로서 자유당, 인민당, 인민 사회당 등이 있다. 전 인도 로조 대회(공산당 계), 인도 전국 로조 대회(국민 대회당 계), 전 인도 농업 협회, 인도 전국 녀성 련맹, 전 인도 청년 련맹, 인도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인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인도—조선 친선 협회

【국내 주요 사건】 1964년에 극심한 식량난과 독립 후 최고의 물가고로 하여 정치적 위기는 심각하였다.

정부는 1964년도 국가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배정하였으며 1964—1965년부터 《5 개년 방위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미, 영과 기타 나라들의 원조를 받아 500억 루피를 들여 보병 수를 82만 5천 명까지 증대하며 공군은 45 개의 비행 중대로 늘일 것을 예견하고 있다.

3월 6일 내상 난다는 전국적으로 비상 상태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상 상태》를 군비 경쟁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임의의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예방 구금법》을 방패로 하여 장성하는 진보적 세력에 대한 검거를 실시하였다. 8월 초순

에 만도 3만 4천여 명의 공산당원들을 투옥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전국적 검거 선풍을 일으켜 약 800명의 공산당원들을 체포하였다.

한편 1964년 1—3월에 서부 벵갈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힌두교도와 회교도 간의 류혈적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

정부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도 극심한 식량난과 물가 등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64년 2월 20—22일 전국 로조에 망라된 약 5만 명 로동자들의 세금 인하와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8월 12일 델리, 봄베이를 비롯한 일련의 도시들에서 355만 명의 주민들이 물가 등귀와 극심한 식량난을 조성한 당국에 항의하여 단행한 파업과 시위, 8월 25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국 각지에서 300만~500만 명이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전개한 시위(당국이 1만여 명의 시위자 체포) 등 각종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으며 각지에서 곡물 상점 습격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극심한 식량난과 인민들의 투쟁의 앙양과 관련하여 9월 7일 샤스트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되였으며 9월 8일 케랄라주 의회에서는 불신임안이 73대 50으로 가결되여 국민 대회당의 주 정부가 붕괴되였다(10월 대통령은 주 정부의 모든 기능을 접수하고 주 의회를 해산하였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된 국민 대회당은 자기의 통치 기반을 유지해 보려고 야당들의 내부에 분렬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포섭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인민 사회당은 분렬되여 아쇼카 메타를 비롯한 극우익 분자들은 국민 대회당에 《포섭》되였고 나머지는 5월 31일 인민당과 합당하기로 하였다.

【대외 관계】 인도는 중인 국경 문제와 카슈미르 문제를 구실로 《원조》를 더욱 많이 얻기 위하여 미국과 더욱 결탁하였다.

인도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를 격화시키면서 1964년 상반년 기간에 만도 27회나 중국 령공을 불법 침입하였다.

한편 카슈미르 휴전선에서 파키스탄 군대와의 빈번한 충돌 사건이 일어 났다(10—11월에만도 287건 발생).

1월 28일 미 공군 참모 차장 맥키는 인도에 기어 들어 《중국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의 《방위》 준비에 관하여 회담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미국 국무 차관보 탤보트가 인도 지도자들과 《경제 및 군사 원조》 문제와 카슈미르 문제를 토의하였다.

2월 24일 인도는 3 차 5 개년 계획의 3 번째 해에 미국에서 받기로 한 4억 3천 500만 딸라의 차관의 일부로서 2억 5천 500만 딸라의 차관 협정을 체결하였다. 5월 8일 인도 국방성 비서 라오는 6 개의 군수 공장 건설 계획 중 3 개의 군수 공장 《원조》 문제를 미국 관리들과 토의하였다. 5—6월에는 《5개년 방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상 차반이 워싱톤과 델리에서 회담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게 되였다. 9월 11—19일 대통령 라다크리쉬난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인도 군사 기술 협정을 조인하였다.

10월 11일 국방상 차반은 영국을 방문하여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470만 파운드의 차관을 받기로 하였다. 11월 30일 인도는 미국과 5천만 딸라의 차관, 7천 200만 딸라의 차관 및 발전기 구입을 위한 3 개의 차관 협정을 또다시 체결하였다.

버마에서 송환하기로 된 30만 인도인 중에서 15만 명이 7월부터 6 개월 동안에 귀국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인도와 쎄일론 간에 쎄일론으로부터 50만의 인도 공민들의 귀국 문제와 30만의 인도인들이 쎄일론 국적을 소유할 데 대한 문제에 합의가 이룩되였다. 이리 하여 량국 간에 분쟁 문제로 되여 있던 쎄일론에 거주하는 국적 없는 인도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였다.

경 제 인도는 아직도 농업국으로 남아 있다. 인구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이상이다. 농촌에서는 봉건적 토지 소유제가 지배적이다.

주요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철, 운모, 망간, 석유, 보키사이트, 동 등이 풍부하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경제는 소수 독점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있으며 외래 자본의 침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0대 독점 련합이 개인 주식 자본의 약 3분의 2를 통제하고 있다.

최근 년간 국가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 1963년 9월 말에 전체 회사 2만 5천 657 개, 불입 자본 227억 9천 200만 루피 중 국가 회사는 167 개, 불입 자본은 84억 9천 400만 루피였다.

1960년 현재 인도에 대한 외국 투자액은 69억 루피였고 1961년—1963년 간에는 10억 루피 이상 투자되였다. 인도 공업 부문에 대한 영국의 투자액은 4억 파운드이다.

미국의 투자는 1960년에 11억 2,700만 루피로 격증하였다. 1961년에는 강철, 유색 금속, 기계, 화학 및 발전 설비들을 포함한 중공업 부문에 1억 8,900만 딸라의 직접 투자를 하였다.

1963년 12월 미국의 식량 공급 대금으로 지출한 《대충 자금》으로 축적된 자금은 인도 화페 류통액의 절반(150억 루피)에 달하였으며 1964년에는 절반 이상을 장악하였다.

【공업】 1964년 첫 10 개월 간에 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7% 장성하였다. 특히 군수 공업의 확장과 관련하여 흑색 금속, 알루미니움, 세멘트, 자동차, 전기 설비, 전설 설비들의

생산이 장성하였다. 그러나 계획에서 예견된 장성률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

17 개의 중공업 분야에서 연료, 전력, 원료 부족으로 하여 생산 능력의 33% 밖에 가동하지 못 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억 kwh)	215	246
석탄(10만 톤)	615	669
철광석(10만 톤)	128	133
선철 및 합금철(10만 톤)	58	67
강철(10만 톤)	51	60
질소 비료(천 톤)	394	423
린 비료(천 톤)	378	470
류안 비료(천 톤)	435	483
세멘트(10만 톤)	86	94
황마 제품(천 톤)	11878	1236
면직물(억 m)	45	44

【농업】 인도의 토지 면적은 8억 630만 에이커이다. 그 중 산림 면적 1억 3,850만 에이커, 파종할 수 없는 면적 2억 1,600만 에이커, 기타를 제외하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3억 7,620만 에이커이다.

농가 호수의 75%인 빈농이 전체 경지 면적의 겨우 12.5%를 소유하고 있으며 4%의 지주들이 전 경지 면적의 34%, 3.5%의 부농들이 31.5%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관개 면적은 전체 경지의 18%이며 뜨락또르는 경지 3,300만 헥타에 한대이고 비료는 수요의 10% 밖에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2모작 면적은 15%이다. 1962—1963년도 곡물 파종 면적은 2억 8,313만 에이커였다.

주요 농산물은 차, 쌀, 밀, 사탕수수, 황마, 목화, 담배 등이다.

1963—1964년에 농업 생산은 2.4% 장성하였다고 하나 1961—1962년에 1.2% 장성되고 1962—1963년에 3% 감소된 것을 고려하면 1961년 이래 한 자리에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1963—1964년에 벼는 3,650만 톤 생산되었으나 밀, 콩을 비롯한 일련의 농산물은 현저히 감소되였다. 1964년에 극심한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627만 톤의 알곡을 수입하였다(그 중 미국에서 400만 톤의 밀과 33만 2,300 톤의 쌀을 수입).

주요 농산물 생산량

	1961—62	1962—63
벼(천톤)	34 257	31 512
밀(천톤)	11 849	10 956
곡물 총계(천톤)	68 310	66 041
차(톤)	44 850	55 500

※ 헥타당 수확고는 벼 1.31 톤, 밀 0.72 톤, 옥수수 0.82톤, 목화 0.1 톤.

【대외 무역】 1964년의 수출액은 83억 5천만 루피(전년 78억 3천만 루피), 수입액은 125억 루피(전년 117억 8천만 루피)로서 무역 적자는 41억 5천만 루피(전년도는 39억 5천만 루피)였다.

수입 증가 중에서 식량 수입액은 1963년에 비하여 5억 6천만 루피가 증가된 21억 3천만 루피였다.

주요 수출품은 차(1962—1963년에 2만 2,411 톤 수출), 면직물, 면 제품, 광석 등이다.

주요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일본 등이다.

최근 년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도 급격히 장성하고 있다.

【재정】 중앙 정부의 재정 예산은 국고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된다.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된 1964—1965 재정 년도(4월—다음해 3월말) 예산은 세출 204억 1,310만 루피(전년도 세출액은 182억 5,340만 루피), 세입 209억 5,120만 루피(전년도 191억 3,680만 루피)이다. 그 중 군사비는 국가 예산의 30%인 71억 7,800만 루피(전년도 69억 2,550만 루피)이다.

3 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외국에서 받기로 한 《원조》 액은 1964년 말 현재 247억 1천만 루피로 간주되였는데 그 중 실행된 《원조》 액은 121억 1,200만 루피였다.

국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에 의하면 외국 차관으로 인한 부채액은 1964년 말 현재 232억 3,430만 루피나 된다.

인도의 외국 차관 상환액과 리자 지불액은 1963—1964년도에 9억 5,500만 루피, 1964—1965년도에 14억 루피이다.

알곡 수입의 증가, 군사비 지출의 증대, 외국 차관 상환 등으로 인도 준비 은행의 화폐 예비는 1965년 2월 5일에 8억 500만 루피로 감소되였다.

사 회 1962년의 인도 계획 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인도 인민의 60%가 최저 생계비인 년 300 루피 수준을 유지 못 하고 있다. 그 중 6천 만 명의 년 수입은 114 루피, 4천만 명은 91 루피, 2천만 명은 45 루피 밖에 안 된다.

1963년 4월부터 1964년 5월의 13 개월 동안에 식료품 가격은 《250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은 1942—1943년의 벵갈시가 초래하였던 값을 릉가》(블리쯔 지의 보도)하였다. 생계비는 1958년에 비하여 1963년에는 116%로, 1964년 1—8월에는 126%로 올랐다.

1964년 3월 말부터 1965년 1월 23일 간에 도매 물가는 14%, 그 중 식료품은 23%, 공업 원료는 25% 올랐다.

1963년 인구 장성률은 2.15%이고 평균 수명은 40—44 세이다.

1961년에 문맹자 수는 전 인구의 75%인 3억 5,600만 명이였다. 주민 중 힌두교도 83.51%, 회교도 0.74%, 기독교도 2.44%이다(1961년).

【출판 보도】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피.티.아이)

신문—뉴 에이지(공산당 기관지), 스와디나타(서부 벵갈 공산당 기관지), 나브 바라트(국민 대회당 기관지),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테츠맨

파 키 스 탄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Republic of Pakistan

【면적】 94만 7,695 km²

그중 동부 파키스탄 14만 1,157 km²(15%), 서부 파키스탄 80만 6,538 km²(85%)

【인구】 1억 150만 명(1964년 5월 현재)

그 중 동부 파키스탄 5,530만 명, 서부 파키스탄 4,620만 명, 동부 파키스탄에는 몽골족, 도라비다계 인종이 많이 살며 서부 파키스탄에는 바르찌족, 파탄족, 토이기족, 이란족, 아랍족이 많다.

국어는 벵갈어(동부 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 우르드어(서부 파키스탄에서 사용)이다. 정부 결정으로 1967년까지 영어도 공용어로 된다.

【수도】 라왈핀디(서부 파키스탄, 주민 34만 명, 1961년)

정 치 1947년 8월 15일 파키스탄은 인도와 분리되여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6년 3월에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량국이 분렬될 때 영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 목적을 계속 추구하기 위하여 카슈미르(인도와 파키스탄이 접하고 있는 21만 8천 km²에 달하는 지역. 파키스탄은 이 령토의 3분의 1과 주민의 4분의 1을 통제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17년간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958년 10월 군사 정변으로 군사 정권이 수립되였다.

1962년 3월 1일 새 헌법이 발표되고 5월에 국민 의회가 선거되였다. 1958년 10월에 국명을 파키스탄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1월 15일 헌법 수정안에 의하여 다시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으로 고쳤다.

파키스탄은 세아토(1954년 9월)와 쎈토(1955년 9월)에 가입하였으며 1959년에는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파키스탄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 성원국이다.

한편 파키스탄은 1959년 4월에 열린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에 참가하였다.

중인 국경 분쟁 후 미국이 인도에 대대적인 군사 원조를 주는 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종전의 친 서방적인 대외 정책으로부터 일련의 새로운 정책적 측면들을 나타내고 있다.

1963년 1월 6일 아유브 한 대통령은 쎈토와 세아토가 파키스탄의 안전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으며 외상 부토는 동년 7월 8일 빠리에서 열린 세아토 리사회 회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한편 파키스탄은 1963년에 중국과 국경 협정(3월 2일), 통상 협정(1월 5일), 항공 협정(8월 29일)을 체결하였으며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경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150명(동서 파키스탄에서 각각 75명, 그중 부인 의석 6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국민 의회는 1962년 6월 8일에 성립되였다.

【정부】 1962년 6월 13일 첫 대통령 내각이 성립되였다. 대통령 겸 국방상 모함메드 아유브 한(1965년 1월 2일 재선), 외상 줄피카르 알리 부토.

【정당, 사회 단체】 1958년 10월 정변 후 모든 정당이 금지되였다. 1962년 7월 16일 대통령 아유브 한은 정당 금지령을 철회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공산당** 1948년 인도 공산당에서 분리되여 창건되였고 1954년 후 비법화되였다. **회교도 련맹, 민족 아와미당, 로동 련맹, 기자 협회, 민족 청년 련맹,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요 사건】 1964년에 파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선거(1965년 1월 2일)를 둘러싸고 각 정치 세력 간에 선거전이 벌어졌다. 1964년 12월 27일 카라치에서는 아유브 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파티마 진나를 지지하는 야당 세력 간의 충돌 사건이 발생하여 사상자까지 냈다. 12월 1일 내상 하브불라는 《미국과 인도가 선거전에서 야당들에 재정 〈원조〉를 주었다》고 비난하였다.

1965년 1월 2일 아유브 한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였다.

1964년 2월 3일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제소하였다. 4월 21일 외무상 부토는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주민의 자결권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으며》, 《만약 인도가 모험을 감행한다면 침략에 대처하여 그를 격파할 것》이라고 하면서 카슈미르를 통합하려는 인도 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1964년 1—7월 말까지만도 카슈미르 휴전선 부근에서 341차의 무장 충돌이 있었다.

10월 12일 인도 수상 샤스트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량국 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8월 21일 국회에서 외상 부토는 파키스탄의 대외 정책에 언급하면서 파키스탄은 《민족적 리익을 지침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에서 파키스탄의 리익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모순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2월 21일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한은 기자 회견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우리의 안전에 배치된다》고 언명하였으며 그 후 5월과 7월, 12월에 거듭 인도에 대한 미제의 군사 《원조》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파키스탄 외상 부토는 4월에 진행된 《세아토 각료 리사회》에 참가하

지 않고 자까르따에서 진행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예비 회의에 참가하였다.

4월 20일부터 진행된 세아토 군사 연습에 파키스탄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7월 1일 파키스탄 외상은 토이기, 이란 외상들과의 공동 성명에서 《쎈토의 테두리 밖에서》 호상 간의 경제, 기술 및 문화 협조를 증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한은 파키스탄을 방문한(1964년 2월 18—23일) 주 은래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의 소집을 지지하였으며 중인 국경 문제도 《평화적 회담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0월 13—15일간에 로므니아 수상 마우레르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7월 2일—22일 아프가니스탄, 이란, 토이기,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이라크 대통령 아레프(2월), 이전 미국 부대통령 닉슨(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3월)가 각각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파키스탄은 농업국가이다. 주민의 약 8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세입의 80%가 농업에서 들어 온다. 인구의 4.9%에 해당한 지주들이 총경지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지주로부터 소작인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15~25 층의 기생적인 중간 착취자가 있다. 이와 같은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와 최근 년간 이 나라에 밀려드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로 하여 농업 생산은 감퇴되고 있으며 매년 150~2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황마, 목화, 차, 밀, 벼, 보리,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황마 생산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2, 목화 생산량은 세계 제 5 위를 차지한다. 1962—1963년에 황마는 191만 9,000 톤, 목화는 34만 9,000 톤, 벼는 980만 8,000 톤, 밀은 414만 8,000 톤, 차는 2만 3,000 톤, 사탕수수는 2,289만 7,000 톤 생산되였다.

제철, 제강 능력은 거의 없으며 1963년에 수입 콕스와 선철로 9만 톤의 압연 강재를 생산한 정도이다.

석유, 석탄, 천연 가스, 크롬광, 우라늄광, 철광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공업에서 비교적 발전한 부문은 방직, 황마 가공, 제탕, 세멘트, 성냥, 담배 등 경공업 부문이다. 석탄 생산은 97만 9천 톤(1962년)이며 매년 150만~180만 톤을 수입한다. 1963년에 세멘트는 147만 4,000 톤, 면직물은 6억 6,300만 메터, 황마 제품은 31만 5,000톤, 천연 가스는 14억 립방메터 생산되였다. 몇 개의 대 재벌들이 공업과 상업의 거의 전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민족 자본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60년 6월에 제 2 차 5 개년 계획(1960년 7월—1965년 6월)을 발표하였는데(1961년 4월 수정) 투자 총액 190억 루피 중 86억 5천만 루피는 외국 《원조》로 충당할 것을 예견하였다. 파키스탄이 받은 외국 《원조》의 68%는 미국 《원조》이다. 최근 년간 침투하기 시작한 미국 자본의 압력으로 영국 자본은 파키스탄의 재정, 대외 무역, 원유 탐사, 크롬광 개발과 전략 원료 개발 분야에서 점차 구축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황마, 목화, 피혁 제품, 양모, 차 등이며 대상국은 미국, 영국, 일본, 서독, 인도 등이다. 인구의 87%가 회교도들이며 1962년 10월 현재 문맹자는 인구의 80.8%였다.

【출판 보도】 통신—파키스탄 련합 통신사(A.P.P.)

신문—돈, 파키스탄 타임스, 이브닝 스타, 리더, 파키스탄 옵써버

쎄 일 론
Ceylon

【면적】 6만 5,610 km²

【인구】 1,064만 4,809명(1963년) 그 중 싱하리족 68%, 타밀족 23%, 기타 9%이다. 1961년 1월 싱하리어를 국어로 결정하였다.

【수도】 콜롬보(주민 51만 명)

정 치 쎄일론은 1795년부터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쎄일론 인민의 장기 간에 걸친 민족 해방 투쟁의 결과 1948년 2월 4일 쎄일론은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총선거에서 솔로몬 반다라나이케가 1947년 이후 집권한 통일 국민당을 타승하고 자유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중립 정책을 실시하는 자유당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미제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1956년과 1957년에 소수 민족들 간의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1958년 5월에는 반정부 음모 사건을 조작하였다.

1959년 9월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암살되고 그후 통일 국민당이 집권하였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한 결과 전 수상의 미망인인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를 수반으로 하는 자유당 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자유당 정부는 미, 영 독점체들의 온갖 침략 행위와 간섭을 반대하고 《중립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1960년 12월 30일 국회는 영어

를 폐지하고 싱하리어를 통용어로 할 데 대한 《법정 언어 법안》을 채택하였다. 련방당과 타밀인들은 타밀어에도 싱하리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61년 4월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1962년 4월 해제).

1961년 정부는 석유법을 채택하고 1963년 말까지 미, 영 독점체들의 석유 회사와 그 공급 계통들을 완전히 접수하였다.

1963년 말까지 영국 군사 기지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1964년 1월 23일에는 쎄일론 항구 및 령해와 공해에 핵 무기를 운반하거나 핵 전쟁을 위하여 군함들이 기항하거나 군용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것을 금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월 18일과 5월에는 미국 군함의 콜롬보 입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또한 8월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미, 영의 비행기와 선박들에 쎄일론의 비행장이나 항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하였다.

9월에는 갈레 항구를 국유화하였다. 1964년 2월 말에 의사들의 대 파업, 3월 5일에는 전기 부문 기술자들의 파업이 단행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3월 5일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1964년 6월 11일 자유당은 평등 사회당과 련립 정부를 형성하였다.

1964년 12월 3일 국회에서 1표 차이로 정부 시정 연설이 부결되였다. 수상 반다라나이케는 12월 17일 국회를 해산하였다. 12월 9일부 정부 공보에 의하면 수상 반다라나이케는 정부 각료들과 협의한 후 1965년 3월 24일에 총선거를 실시하며 동년 4월 7일에 새 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 2월 중화 인민 공화국 송 경령 부주석과 주 은래 총리가 쎄일론을 방문하였다. 2월 민주 독일과 령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 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 량국 간에 령사 관계가 설정되고 2월 7일 쎄일론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개설되였다.

1964년 4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쎄일론을 친선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쎄일론 국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총독】 윌리암 고팔라와(1962년 3월 1일 취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30명 중 반수는 하원에서 선출되며 반수는 수상의 추천을 받아 총독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의 의원을 개선 또는 임명한다.

하원 의원 157명 중 151명은 선거하고 6명은 총독이 임명한다. 1965년 3월 22일 국회(하원) 선거 결과 통일 국민당이 66석, 자유당이 41석, 평등 사회당이 10 석, 공산당이 4 석, 련방당이 14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국회(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으로 임명된다. 현 내각은 1965년 3월 27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외무상 다들리 세나나야케, 재정상 에이. 유 비 와나야케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에 창건되였다. 1964년 1월 제 7 차 당 대회에서 35명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로서 새로운 중앙 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조직 비서 엔 샨무가타산 **자유당**(집권당) 1951년 7월 솔로몬 반다라나이케가 통일 국민당에서 탈퇴하여 창건하였다. 싱하리족 민족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이 당은 중립적인 대외 정책의 실시, 공화국의 선포, 외국인 은행 및 보험 회사의 국유화 등을 정강으로 내놓고 있다. **통일 국민당** 1946년에 결성된 친미적인 매판 부르조아지의 정당이다. 당수 다들리 세나나야케 **평등 사회당** 1935년에 창건되였으며 외국인 재배원의 국유화, 영 련방 탈퇴를 주장한다. 당수 엔. 엠. 페레라 **인민 련합 전선**(일명 혁명 평등 사회당) 1938년 평등 사회당으로부터 분렬되여 결성되였다. 쎄일론의 중립과 외국인 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당수 필립프 구나와르데나 **련방당** 1948년에 결성되였다. 주로 부르조아지와 부농을 대변한다. 타밀인들 속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련방 정부의 조직을 주장한다. 당수 에스. 제이. 브이 첼와나야감 **자유 사회주의당** 1964년 12월 자유당에서 떨어져 나와 결성되였다. 예속 부르조아지를 대변하는 친미 정당이다. 당수 씨. 피. 데 실바 **민주당, 타밀 대회당, 타밀 독립당, 민족 해방 전선, 로조 련맹**(1940년에 결성, 위원장 윌슨 페르난도, 총비서 엔 샨무가타산) **로동 련합회** 1922년 성립(평등 사회당 산하)**쎄일론 청년 련맹**(세계 민청 가맹) **자유당 청년단**(세계 민청 가맹), **쎄일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1958년에 성립, 위원장 헤자 구나와르다나 **진보 녀성 운동**,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1961년 10월 결성, 위원장 라트네 데샤프리아 세나나야케

경 제

쎄일론은 차, 고무, 야자 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경지 면적은 160만 헥타(전체 면적의 26.5%)이다. 농촌 경리는 3 개의 수출 작물인 차, 고무, 야자 재배를 전문화하고 있다. 이 작물은 전체 경지 면적의 3분의 2, 농업 총생산액의 75%, 국민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 중 차는 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1963년에 차는 22만 톤, 고무는 10만 5,000톤, 야자는 252만 3,000 톤 생산되였다.

식량은 국내 수요의 근 절반 이상을 수입한다. 정부는 10 개년

계획 (1959—1968년)에서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자급 자족할 것을 예견하고 식용 작물 생산을 증대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벼 생산량은 1956년의 38만 2,300톤으로부터 1963년에는 66만 8,400톤으로 장성하였다. 뜨락또르는 국영 경리 부문에 600대, 개인 경리에 5,000대 있다.

지하 자원은 흑연이 가장 풍부하며 전국에 650 개의 흑연 광산이 있다. 기타 철, 운모, 석교, 사화이아, 루비, 톡주옥 등이 있다. 2,500 개의 소규모 공장들 중 약 2,000 개는 차, 고무, 야자 등 농산물 가공 공장이며 나머지 약 500 개중 50% 이상은 기타 수공업 공장이다. 공업 생산액은 국민 소득의 약 5%를 차지한다.

1957년 이후 자유당 정부는 외국인들이 경영하던 일련의 고무와 차 재배원, 은행과 보험 회사,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경제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갔다.

《쎄일론화》 정책의 결과 1956—1960년 간에 차 재배에서 영국 자본의 비중은 46%에서 41.8%, 고무 재배에서는 34.8%로부터 15.6%로 축소되였다.

공업 생산 총액은 1956—1962년 간에 152.3%로 장성하였으며 국영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액은 1957—1962년 간에 3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63년에 국영 기업소들에는 6,555명의 로동자가 있었다.

무역에서 쌀, 밀'가루, 사탕, 원유 및 원유 제품 등의 수입과 고무 수출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1963년에 수출 총액의 94%는 차, 고무(1963년에 9만 5,000톤 수출), 야자였다. 그 중 차는 63.5%를 차지하였다. 수입품의 40%는 식량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인도, 일본, 버마,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1963년에 각급 학교 학생 수는 232만 5천여 명, 교원 수는 7만 5천여 명이다. 대학으로는 쎄일론 종합 대학과 유다야란까라와 유디오데야 불교 대학이 있다. 6—14 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의무 교육제(초등 및 중등 학교)가 실시되고 있으며 무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963년에 예술 영화 14 편을 제작하였다. 전국에 240 개의 영화관이 있다.

싱하리족의 대부분은 불교도이다. 타밀족은 인도교를 믿는다.

【출판 보도】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스리랑카(자유당 기관지), 기타 대 신문 집단인 《레이크 하우스》(통일 국민당을 지지한다)에 속한 신문들로서 쎄일론 데일리 뉴스(영문), 쎄일론 옵써버(영문), 디나미나(싱하리어), 쟈나타(싱하리어) 등이 있으며 《타임스 오브 쎄일론 엘티디》(영국의 견해를 비교적 많이 반영하는 신문 집단)에 속한 신문들로서는 타임스 오브 쎄일론(영문), 란카디파(싱하리어) 등이 있다.

말 디 브

The Sultanate of Maldive Islands

말디브는 쎄일론 서남쪽 640 km 떨어진 인도양 상에 있다. 2,0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200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제일 큰 것이 말레섬이다.

【면적】 298 km^2

【인구】 10만 명(1959년)

인도인, 말라이인, 아랍인 등이 살고 있다.

【수도】 말레(주민 1만 2,000 명)

【추장】 알 아미르 모함메드 파리드 디디

【수상】 아브라힘 나시르(1957년 12월 취임)

말디브는 1887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2년에 형식상 독립하였다. 외교권은 영국이 계속 쥐고 있었다.

영국은 1960년 2월 말디브와 협정을 체결하고 말디브의 간섬의 기지(해군 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 시설들의 30년 간 사용권을 탈취하였다. 그 후 영국은 말디브 정부의 허가도 없이 말레항에 군함을 파견하고 말디브 인민들을 위협하였으며 기지 사용 기한을 100년으로 연장할 것과 말디브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에게 영국 군사 인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1964년 4월 10일 영국 군함은 말디브 어선에 대한 무장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말디브 정부는 말디브에 있는 영국 고문을 즉시 소환할 것과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때에는 간섬 기지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4월 14일 말디브 인민들은 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를 단행하였다.

말디브는 쎄일론과 력사, 문화, 경제, 종족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쎄일론에 상주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에 종사한다. 주요 산물은 물'고기와 야자이다. 물'고기가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식량은 수입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왕국)

Afghanistan

【면적】 65만 5,000 km^2

【인구】 1,470만 명(1963년)

아프가니스탄인(55~59%), 따지크인(30%),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야인 등 약 20여 종의 민족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푸슈트어와 페르샤어(도시에서 통용)이다.

【수도】 카불(주민 31만 명)

정 치 1838—1842년, 1878—1880년에 영국은 아프

가니스탄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감행하여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고조된 인민들의 반제 투쟁에 의하여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5월 27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또다시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항에 못 이겨 동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은 1921년에 립헌 군주국으로 되였다.

회교(주민의 97%가 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 령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은 동시에 회교 교주이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은 1931년 6월에 쏘련, 1960년 8월에 중국과 각각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3년 11월 22일에는 중국과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4년 10월 국왕 자히르가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1923년에 제정된 헌법을 페지하고 1964년 9월 20일에 새 헌법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이날 수상 유수프는 아프가니스탄이 평화, 중립, 쁠럭 불가담 원칙에 기초한 대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왕족들은 수상, 민족 회의 의원 및 최고 재판소 성원으로 될 수 없다. 헌법에는 인민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정당이 없다.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호 (1933년 즉위)

【국민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50명의 종신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 의원은 171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내각】 수상은 국왕이 임명한다. 현 내각은 1963년 3월 1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모함메드 유수프, 제 1 부수상 겸 재정상 아브둘라 말릭야르

경제, 사회

아프가니스탄은 농목축업 국가이며 주민의 약 85%가 이에 종사 한다. 국민 소득의 약 80%를 농업 생산이 차지한다. 가경지는 1,400만 헥터이나 경지 면적은 190만～200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사탕, 벼, 옥수수, 두류, 과실, 목화(1963년에 11만 톤 생산) 등이다. 알곡 생산량은 매년 약 300만 톤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한다.

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은 면양, 염소, 소, 노새, 말, 락타 등이며 양털은 약 8천 톤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서는 금, 은, 철, 연, 아연, 석탄, 운모, 류황, 대리석 등이 있다. 1964년에 북부 지방에서 풍부한 석유, 철광(철 함유량 62%), 620억 m^3의 천연 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근 년간에 아프가니스탄은 자국에서 제일 큰 나글로 수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업 기지들을 건설하고는 있으나 공업에서 아직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공업은 사회 총생산액에서 약 7% 차지한다. 옥석 제품, 융단 등은 전통적인 가내 공업으로 많이 생산된다.

1963년에 석탄은 9만 톤, 세멘트는 3만 톤(1962년) 생산되였으며 면직물 년 생산량은 약 4,500만 메터이다.

아프가니스탄은 1962년부터 관개 사업과 교통 운수, 기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는 경제 개발 제 2 차 5 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계획 기간에 발전소, 화학 비료 공장, 세멘트 공장, 연유 공장 등 248 개 대상의 새로운 건설 공사들이 진행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품종 및 농기구 개량, 화학 비료의 사용, 관개 공사들을 예견하였다. 1964년에 2만 5,000 헥터의 토지를 관개할 수 있는 가르하르 운하의 최종 공사가 진행되였다.

수출품은 목화, 양모, 과실, 융단, 양가죽 등이며 대상국은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화란, 중국, 영국 등이다.

1963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각급 학교 수는 1,709 개소, 학생 총수는 31만 명이다. 이것은 1961년에 비하여 19%와 31.8%의 증가로 된다. 카불에 유일한 대학이 있는데 1963년도 현재 학생 수는 2,500명이다.

【출판 보도】 통신—바크타르 통신사

신문—이슬라(정부 기관지), 아니스(반 관변측 신문), 헤와드

이 란

(이란 왕국)

Kingdom of Iran

【면적】 164만 5,000 km^2

【인구】 2,218만 2,000명 (1963년) 페르샤인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기타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페르샤어이다.

【수도】 테헤란(주민 204만명)

정 치

이란은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이란은 1955년 10월에 침략적인 쎈토에 가입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국과 《쌍무 군사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에는 1만 2,000명의 미국 전문가들이, 군사 부문에는 4,700명의 미국 고문들이 침투하여 이란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 후 이란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1951년에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사디크 정권이 수립되여 석유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53년 8월 미제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모사디크 정권은 전복되고 친미 독재 정권이 수립되였다. 그후 이란 정세는 불안정하

여 1964년 3월까지 7 차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국왕은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계급적 모순을 《완화》한다는 명목 하에 1960년과 1962년에 《토지 개혁법》을, 1963년에는 개량적인 《사회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정세를 수습하지 못하였다. 1963년 6월 《토지 개혁》을 반대하는 반동적인 회교도들의 폭동이 있었으며 1965년 1월 26일 수상 만수르에 대한 《극단적인 회교도》의 저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란 인민들 속에서는 반제 반봉건 투쟁이 계속 앙양되였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홀레비(1941년 9월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60명이며 그 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하원 의원은 20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국회는 1963년 9월 16일에 선거되였다. 인민 대회당이 상원 의원의 대다수와 하원 의원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1964년 3월 7일 성립되였다. 수상 아미르 아바스 호베이다(1965년 1월에 취임), 외상 아빠스 아람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투데당) 전신은 이란 공산당이다. 1941년 9월 20일에 성립되였다가 1949년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리자 라드마니쉬 민족 전선 1949년에 모사디크가 창건하였다. 쎈토 탈퇴, 중립 정책 실시, 석유 국유화, 인민들의 합법적 권리의 옹호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인민 대회당 국왕과 대 지주, 대 자본가 등 통치 계급들의 집단이다. 기타 부르죠아 정당으로서 멜룬당, 마르돔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은 국민 소득(석유 수입 제외)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1,800만 헥타인데 그 중 지주 및 추장들이 75%를, 국왕이 5%, 사원들이 10%를 차지하고 5%만이 농민들에게 속한다. 주요 농산물인 밀은 300만 톤(1963년), 목화는 9만 2,000 톤, 담배는 1만 3,500 톤(이상 1962—1963년), 사탕은 17만 1,300 톤(1961—1962년)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석탄, 철, 동, 망간, 대리석 등이 풍부하며 석유 매장량은 50여 억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총 석유 매장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1964년 석유 생산량은 8,420만 톤으로서 세계 제 5위를 차지하였다. 이란의 매개 유정의 생산량은 미국의 666배, 베네수엘라의 27 배이다. 석유는 이란의 외화 수입의 78%, 국가 예산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이란 정부는 1953년에 《국제 석유 회사》(미, 영 자본이 각각 40%, 영—화란 석유 회사 자본이 14%, 프랑스 자본이 6%)와 매국적인 석유 협정을 체결하고 40년 간 석유 채취 및 가공, 판매권을 이 회사에 넘겨 주었다. 《국제 석유 회사》는 이란에서 25만 9,000 km²의 유전과 대 정유 공장, 송유관, 발전소, 우편국, 방송국, 철도, 비행장 등을 가지고 《나라 안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란 석유 생산의 99%를 독점하고 있으며 해마다 투자액의 416%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이란은 1946년부터 1963년 6월까지 14억 2,200만 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직접적 군사비는 국가 예산의 40%나 된다. 이란은 생계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문맹자는 약 100만 명이며 주민의 40%는 기아 상태에 있다.

이 라 크

(이라크 공화국)

Republic of Iraq

【면적】 44만 4,442 km²

【인구】 673만 2,000 명(1962년) 그 중 아랍족 79%, 쿠르드족 16%, 기타 이란인, 토이기인이 있다. 언어는 아랍어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회교를 믿는다.

【수도】 바그다드(주민 108만 6,000명)

정 치 아랍 제국의 일부분이던 이라크는 17 세기초 토이기 제국에, 1914년 11월에는 영국에 점령 당하였다. 1920년 《국제 련맹》의 결정으로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영국은 이라크의 장성하는 민족 해방 운동에 못 이겨 1921년 바그다드에서 제 1 차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이라크에 《독립》을 부여하였으며 파이살을 국왕으로 하는 립헌 군주 제도를 수립하였다. 영국은 1930년에 이라크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이라크의 두 개 공군 기지의 사용권과 군대 주둔권을 강탈하였었다.

1932년에 《국제 련맹》은 이라크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를 폐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정식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에 정권을 장악한 반동적인 누리사이드 정부는 1954년에 미국과 비밀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고 1955년에는 침략적인 바그다드 조약에 가입하였다.

1957년에 이라크의 애국적 민주 력량은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1958년 7월 14일 카셈을 위시한 군인 집단은 민주 력량의 지지 하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파이살 왕조를 전복하고 이라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카셈 정부는 1959년 3월 24일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하고 동년 3월 30일에는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한 영국 군대를 철거시켰다. 동시에 미국과 체결하였던 3 개의 예속적인 협정을 페기하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1년 후부터 진보적 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개인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1963년 2월 8일 아레프를 비롯한 장교 집단이 바아스당과 합세하여 정변을 일으켜 카셈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아레프를 대통령으로 하는 바아스당 정권이 수립되였다. 동년 11월 18일 바아스당 독재에 불만을 품은 아레프 대통령은 또다시 군사 정변을 일으켜 바아스당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아레프 대통령은 《적극적 중립》, 《쁠럭 불가담》, 《아랍 국가들과의 확고한 관계 수립》이 정부의 기본이라고 선언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1964년 5월 11일 20명의 장교들로 구성되였다. 리사회는 국가 예산 승인, 국제 협정 및 조약의 비준, 선전 포고 및 정전 체결, 과도기의 전반적 국가 사업 지도 및 국가 안전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 아브델 살람 모함메드 아레프

【대통령】 아브델 살람 모함메드 아레프(1963년 2월 8일 취임)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1월 14일 22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타헤르 야히야, 외상 너지 탈레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1일 창건되였다. 현재 비법화되고 있다. **아랍 사회주의 동맹**(집권당) 1964년 7월에 창건되였다. 이 당의 구호는 《민족주의, 자유, 사회적 평등, 경제적 공평과 법률 앞에서의 평등》이다. 이 당은 아랍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통일적인 아랍 대가정을 창설하는 혁명적 기구》라고 자칭하고 있다. 당수 아브델 살람 모함메드 아레프(대통령) **쿠르드 민주당** 1945년에 창건되였다. 주로 쿠르드족 부락 성원들로 구성되여 있다. 쿠르드족의 내부 자치를 요구하며 반제 구호를 들고 있다. 정부의 민족 차별 정책과 탄압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 자치를 요구하여 장기 간의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오다가 1964년 2월 10일 현정부와 정화를 실현하였다. 위원장 무스타파 바르자니 **바아스당** 1943년 수리아의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창건(수리아 참조), 1963년 2월 8일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오늘 바아스당 세력은 극히 미약하다.

【주요 사건】 1963년 11월 군사 정변 후 아레프 대통령은 국내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 2월 10일 대통령은 쿠르드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정부는 이라크 테두리 내에서의 쿠르드인의 민족적 권리의 보장, 북부 지방 사건 당시에 투옥된 사람들의 석방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차압 조치의 철회, 북부 주 지방 행정 기관들의 복구 등을 약속하였다.

이 날 쿠르드족 지도자 무스타파 바르자니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리 하여 1961년 9월부터 민족적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하여 오던 쿠르드족과 정부 간에 정화가 실시되였다. 2월 18일 북부 이라크군 사령관은 쿠르드족 반란시에 억류되였던 쿠르드인 450명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며 교육성은 42명의 쿠르드족 교원들을 복직시켰다.

9월 2일에는 쿠르드족 반란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령을 실시하였다.

5월 4일 정부는 새 헌법(림시 헌법)을 발표하였다. 헌법은 이라크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하였으며 아랍의 통일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통합을 첫째 목표로 내세웠다. 5월 11일 림시 헌법에 기초하여 군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수상, 총참모장, 부총참모장들, 사단장들, 공군 사령관 및 기타 인사들로 구성되는 《전국 혁명 리사회》가 창설되여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2월 8일 이라크 정부는 2천 5백만 디나르의 자금으로 국영 석유 회사를 창설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국영 석유 회사에 《이라크 석유 회사》(미, 영, 프랑스, 화란 자본)가 차지하고 있는 99.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7월 14일에는 모든 개인 은행과 외국인 은행들 그리고 32 개의 상공업 회사와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9월 4일 바아스당의 반정부 음모 사건이 적발되였으며 그와 관련된 공군 장교들과 기타 련루자들이 체포되였다. 그리고 공군 내의 바아스당 세력의 반란을 우려하여 이라크 비행사들의 탑승을 금지하는 동시에 아랍 공화국 공군을 이라크의 하비니야 군사 기지에 파견하였다. 9월 20일 이전의 바아스당 정부 각료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직하였다.

11월 14일 내각을 개조하였으며 이날 아레프 대통령은 헌법을 재제정하며 1년 내에 국회를 구성하며, 북부 이라크(쿠르드족의 거주 지역)에서의 재건 공사를 촉진하며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 정부 정강을 천명하였다.

5월 26일 이라크 정부는 아련과의 련합을 위한 첫 조치로서 량국 간의 대통령 공동 리사회(두 나라 간의 전면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연구하며 리행한다)를 창설할 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9월 15일 대통령 공동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아련과 이라크의 모든 정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2년 내에 량국의 법적 및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 통합 사령부(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25명으로 구성)를 창설하였다.

이라크 정부는 우리 나라와 1963—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조인(1963년 1월 22일)하였다.

1964년에 이라크 교육 문화 대표단(6월)과 기자 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 문화 대표단과 평양 가무단(12월)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아레프 대통령은 아

련, 인도, 파키스탄 등을 방문하였으며 9월 23일 이라크는 중국과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 제 이라크는 농목축국이며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이에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1,200만 헥터이며 그 중 경작지는 175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 야자, 보리, 밀, 쌀, 목화, 과실 등이다. 그 중 대추는 매년 평균 35만 톤 생산되며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대추는 국민 소득에서 2 위를 차지한다. 1963년에 밀은 45만 톤, 쌀은 35만 톤(1962—1963년)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 하고 수입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연, 석탄, 동, 망간, 니켈, 대리석 등이 있다. 그 중 석유가 가장 많으며 그 매장량은 33억 5,300만 톤(자본주의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이며 1964년 석유 생산량은 6,150만 톤으로서 중근동에서 제 4 위를 차지하였다.

석유세 수입은 이라크 재정 예산의 44%, 국민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석유는 《이라크 석유 회사》(영국 자본이 45%, 미국, 프랑스, 화란 자본이 각각 15%)에 완전히 장악되여 있다. 《이라크 석유 회사》는 이라크 령토의 98%의 지역에서 원유 개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매년 4억 6천만 딸라 이상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현 정부는 이라크 령토 내에서 외국 석유 회사들의 《석유 개발권》과 《석유 자원 리용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고 정식 선포하였다.

이라크에는 총 43만 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4 개의 화력 발전소와 년산 140만 톤 능력의 세멘트 공장이 있다.

가공 공업은 석유 공업 외에 주로 방직, 식료, 피혁, 건재 공업 등이다. 기업소들의 약 57%는 2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이다.

주요 수출품은 대추, 가축, 보리, 양모 기타 수공업 제품 등이다. 주요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쏘련, 중국, 아랍 국가들이다.

【출판 보도】 통신—이라크 통신사

신문—알 타우라, 알 줌 후리아, 알 마나르

수 리 아

(수리아 아랍 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면적】 18만 7,000 km²

【인구】 530만 7,753명(1963년 말 현재)

【수도】 다마스커스(주민 60만 명)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그 외에 쿠르드인, 드르그인, 아르메니아인, 로로크만인, 써카시아인이 살고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며 영어와 프랑스어도 사용한다.

정 치 9 세기 이전에 수리아는 아랍 제국의 일부분이였다. 16 세기에는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 제국에 편입되였다. 제 1 차 대전 후 국제 련맹의 결정으로 1920년 4월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 중인 1941년 9월 27일 《자유 프랑스군》 사령관은 련합군의 명의로 수리아의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1946년 4월 17일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철거함으로써 수리아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 되였다. (4월 17일은 수리아의 민족적 명절로 되고 있음)

1949년부터 1952년 2월까지 5 차례의 정변이 있었다. 1958년 2월 21일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28일 수리아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아랍 련합 공화국에서 탈퇴하고 9월 29일 국명을 수리아 아랍 공화국으로 고쳤다. 1962년 3월 28일 또다시 군사 정변이 일어나 아젬을 수상으로 하는 우익, 좌익 및 중간파의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3년 3월 8일 바아스당 세력들은 아젬 정권을 전복하고 비타르를 수상으로 하는 신 정부를 구성하였다. 1963년 4월 3국(수리아,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 통합 협정이 체결되였으나 호상 간의 의견 차이로 통합은 실현되지 않았다. 1963년 4월 이후 5 차의 내각 개조를 거쳐 1964년 10월 4일 바아스당의 하페즈 내각이 구성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1963년 3월 8일 군사 정변 후 조직된 최고 립법 기관이다. 의장 모하메드 아민 엘 하페즈

【대통령 리사회】 내각과 함께 현 정권을 행사한다. 현 대통령 리사회는 1964년 5월 13일에 조직되였다. 대통령 리사회는 각료들과 외교 사절들을 임명한다.

의장 모하메드 아민 엘 하페즈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0월 4일 수상, 부수상(1 명) 및 상(21 명)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모하메드 아민 엘 하페즈, 부수상 루아이 엘 아타씨, 외무상 하싼 무레이웨드

【정당, 사회 단체】 1961년 9월 28일 정변 후 정당 활동은 비법화되였다.

수리아 공산당 1930년 수리아, 레바논의 공산주의 조직들이 통합되여 수리아 및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으며 1958년 11월에 다시 수리아 공산당과 레바논 공산당으로 각각 분리되였다.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슈 **바아스당**(집권당) 1953년 아랍 부흥당과 아랍 사회당이 합당하여 아랍 부흥 사회당(일명 바아스당)을 창건하였다. 이 당은 수리아에 본부를 두고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아덴 등과 기타 아랍 국가들에 비밀 조직과 지부들을 가지고 있다. 당은 주로 소 자산 계급(상인 계층)과 지식 분자(장교 포함)들로 구성되여 있다. 바아스당은 《아랍 통일》과 함께 《아랍 친선》을 내놓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다. 총비서 무니프 라즈자즈. 수리아 지역 전국 총비서 아민 하페즈. 진보적 직업 련맹(바아스당의 외곽 단체), 수리아 로동자 회의(국제 직련 성원), 로동자 련맹.

【주요 사건】 1964년에 수리아 정치 정세는 하페즈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내 반동 및 지주, 자본가들의 반항으로 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2월 17일 북부 수리아의 석유 항구인 바니아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반란 기도를 분쇄하고 전국에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3월 3일에도 중부 수리아 홈스에서 반 정부 음모가 있었으며 4월 15일에는 동부 수리아의 중심 도시인 하마시에서 1천 명의 사상자를 낸 폭동이 일어났다. 반 정부 음모와 관련하여 내상 겸 부군정관은 자기의 성명에서 반란은 《제국주의와 련계를 맺고 있는 반동들과 봉건 지주들의 새로운 음모》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5일 12 명의 장교가 체포되였다.

정부는 1964년 4월 25일에 림시 헌법을 발표하였다. 헌법에는 수리아를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회교 성전이 립법의 주요 원천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헌법에는 국가가 보상제에 의하여 어떠한 기업소도 국유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월 27일 혁명 리사회는 이라크와의 군사 통합을 위하여 체결하였던 협정을 페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경제에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이 농후하다. 농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 소득의 65%가 농산물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600만 헥터 이상이나 절반 이상이 페경되고 있다.

정부의 토지 개혁으로 1963년 말 현재 85만 헥터의 토지가 유상 몰수되여 1만 9,067 호의 농가(전 농가의 3.5%)에 16만 헥터가 유상(40년 기한으로 땅 값을 국가에 지불한다) 분배되였다.

인구의 1%도 못 되는 지주들(3,240 명)이 관개 면적의 4분의 1과 관개하지 못 한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만 호의 농가는 토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대부분의 토지는 관개되지 못 하고 있으며 비료는 수입(1962년에 7만 1,700톤 수입)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목화, 밀, 보리, 기장, 콩, 사탕무우, 감자, 포도, 올리브, 담배 등이다. 1963년에 목화는 12만 3,400톤, 밀은 108만 4,000톤, 보리는 77만 8,000톤, 기장은 5만 6,000톤, 콩은 7만톤, 사탕무우는 8만 1,000톤, 감자는 3만 4000톤, 포도는 25만 4,000톤, 올리브는 8만 7,000톤, 담배는 7,600톤 생산되였다.

목축은 농촌 경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1958년 이후 계속된 흉작으로 말미암은 사료난으로 가축 두수는 대폭 감소되였다. 1962년에 양은 381만 두, 소는 23만 1천 두 있었다.

주요 지하 자원으로는 린회석(매장량 5억 여톤), 원유(매장량 4억 톤), 암염, 망간광, 크롬광, 철광석, 천연 가스 등이 매장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대규모의 현대적 공업은 없고 주로 수공업 또는 반 수공업적인 방직, 식료, 세멘트, 피혁, 착유, 비누, 유리 공업 등 경공업이 위주이다. 그중 방직 및 식료품 가공 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방직 공업(면 방직 공업이 기본)은 공업 총 생산액의 근 절반을 차지한다. 1962년 말 현재 15 개의 타면 공장, 19개의 제사 공장, 100개의 방직 공장, 70개의 메리야스 공장 등 중소 규모의 섬유 가공 및 면직물 공장들이 있었으며 이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만 3,000여 명이였다.

식료품 공업에서는 사탕 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는 2천여 명의 로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외에 중소 규모의 제분소, 기름 공장, 담배 공장, 과실 및 채소 통조림 공장 등이 있다.

중공업으로는 세멘트 공업과 석유 가공 공업, 전력 공업이 있다. 1962년에 전력은 4억 5,000만 키로와트시(예정 수'자), 세멘트는 60만 7,000톤, 1961년에 면사는 9,937톤, 견사는 3,000톤, 모사는 320톤, 모직물은 17만 2,000 메터, 사탕은 7만 1,700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수출액의 80%)인데 그 중에서 목화가 큰 몫(수출액의 50%)을 차지한다. 이 외에 알곡 유지 작물, 과실 및 채소, 섬유 제품, 양모, 가축 등도 수출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이딸리아, 프랑스, 쏘련, 중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레바논, 이라크, 아련 등이다. 무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지하는 몫은 1960년에 13.1%, 1962년 첫 9개월 간에는 20.2%였다.

1960년 말 현재 소 학교는 3,083 개(학생수 42만명), 중학교는 305 개(학생 수 6만 명), 사범 학교는 8 개(학생 수 1,391명), 대학은 1 개(학생 수 6,500 명) 있었다.

1964년 초에 52 개의 병원과 1,680 명의 의사가 있었다. 주민중에서 회교도가 85%, 기독교도가 14%, 유태교도가 1%를 차지한다.

레 바 논

(레바논 공화국)

Republic of Lebanon

【면적】 1만 400 km²

【인구】 200만명(1963년 4월)

【수도】 베이루트(주민 약 60만명)

정 치 16세기에 레바논은 토이기에 정복되여 오토만 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에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아랍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자 프랑스는 1941년 11월 레바논에 대한 위임 통치를 폐기하였으며 1943년 12월에 레바논의 독립을 정식 승인하고 일체 기능을 양도하였다. 레바논의 많은 정당들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의 영향이 정치에 많이 미친다. 1943년에 기독교와 회교 간의 협의 결과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국회 의장은 회교의 순니파에서, 수상은 회교의 시아파에서 선출되며 국회 의석과 내각 성원은 각 교파 세력에 따라 분배된다.

【국회】 1원제이다. 의원 수는 99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찰스 헬루(1964년 9월 23일 취임)

【정부】 1964년 11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후세인 오웨이니(국방상 겸임), 외상 필리프 타클라

【정당, 사회 단체】 1964년 9월 법령에 의하여 아랍 사회주의 부흥당(바아스당)은 해산되였다. **공산당** 1930년에 수리아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고 1958년 12월에 레바논 공산당으로 분리되였다. 1964년 10월 당은 분렬되여 유수푸 무바라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당이 새로 창건되였다. **아랍 해방당** 1947년에 성립된 북부 회교도들과 차주,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다.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협조 정책을 주장한다. **파랑게당** 천주교도들로 구성된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다. **사회주의 진보당** 회교도들의 당이며 레바논이 군사 쁠럭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민 사회당** 이전 수리아 인민당에서 분리되여 조직되였으며 레바논, 수리아, 이라크, 요르단의 통합을 주장하는 동시에 아랍 련합 공화국을 적대시 한다. **민족 전선** 1958년 5월 정변 당시에 결성된 레바논의 각 민주주의 정당들과 교파들의 련합 조직이다.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협조 정책을 주장한다. **평화 옹호 위원회,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로동 조합 련합회.**

경제, 사회 경제에서 무역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베이루트항은 자유항으로서 구라파와 아세아의 상품 교류를 위한 지점으로 되고 있다. 국민 소득에서 무역(주로 이라크, 수리아, 요르단의 중계 무역)이 45%, 공업이 15%를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27만 헥타이며 농민은 주민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업 생산은 실과(총 농산물의 60%), 채소(총 농산물의 20%) 등 수출 작물이 위주로 되고 있다. 그 밖에 밀, 보리, 옥수수, 감자 등도 생산된다. 식량의 약 절반은 수입한다. 1963년에 귤은 12만톤, 포도는 9만톤, 사과는 7만 2,500톤, 레몬은 5만 5천 톤, 바나나는 2만 8천 톤, 양배추는 6만톤, 밀은 6만톤 생산되였다.

공업은 락후하며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1961년에 5,900개의 공업 기업소가 있었으며 로동자는 5만 9,000명 있었다. 그중 식료, 방직, 세멘트 생산이 위주이며 이 3개 부문의 자본은 전체 공업 자본의 60%, 생산액은 공업 총생산액의 50%를 차지한다. 기타 담배, 사탕 등 공업이 있다. 은행, 철도, 항구, 화폐 발행, 송유관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자본이 통제하고 있다.

요 르 단

(요르단 왕국)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면적】 9만 6,610 km²

【인구】 182만 7,000명(1963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이며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암만(주민 25만명)

정 치 요르단은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 1차 대전 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예속 하에 있었고 전후에는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었다. 요르단은 1928년에 대외 정책, 재정 및 무역을 영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는 불평등 조약을 영국과 체결하였다. 1946년 5월에 요르단은 독립하였다. 1948년 3월 영국은 1928년 조약의 기한 만료와 관련하여 요르단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요르단에서 공군 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군대의 지휘권을 획득하였다. 1956년 11월 나불시 정부는 1948년 조약을 폐기하였고 영국 군대는 1957년 4월에 철거하였다. 1957년 4월 10일 반동적인 정변이 일어나 나불시(국가 사회당 총비서) 정부가 전복되였다. 그후 요르단 정부는 일체 정당과 로조의 활동을 금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면서 아랍 분렬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3년 4월 요르단에서 왕정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 투쟁이 벌어지자 영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요르단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2년 8월 요르단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 아랍 공화국을 무력 침공하였다.

1964년 1월 아랍 련합 공화국과 단절되였던(1961년 10월) 외교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예멘을 승인하였다.

【국왕】 후세인 1세 (1953년 5월 즉위)

【국회】 상원 의원은 25명(국왕이 임명)이고 그의 임기는 8년(4년마다 반수씩 개선)이다. 하원 의원은 6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국회는 1963년 7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5년 2월 1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와스피 엘텔, 외상 하젬 누쎄이베

【정당, 사회 단체】 1957년 4월 이래 일체 정당,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였다가 1962년 12월에 해제되였다. 금지되기 전에는

공산당, 민족 전선, 국가 사회당, 아랍 부흥 사회당, 아랍 제헌당 등이 있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의 기본은 목축업과 알곡 생산이다. 국토의 약 10분 1이 경지이고 기타는 사막이다.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로 농산물 생산 수준은 극히 낮다. 유목민은 5만명, 반유목민은 12만명이나 된다. 농산물로는 담배, 올리브, 밀(1963년에 7만 5천톤 생산) 등이며 주요 지하 자원은 린회석, 철, 석유 등이다.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미국 독점체들은 원유 개발권을 장악하고 있다. 1962년에 6,887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중 65%는 식료 및 방직 공장이였다. 1962—1963년도 예산 지출의 50% 이상이 군사비에 충당되였으며 재정 적자는 외국의 《원조》로 메우고 있다.

주민의 85%나 되는 농민들은 년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지주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로동자들은 12시간 이상의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이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면적】 2만 700 km²(1949년 아랍 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 것, 1947년 11월 29일 유엔 결정에 의하면 1만 4,000 km²)

【인구】 237만 6,000명(1963년) 주민의 88%는 유태인이며 기타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이다.

【수도】 예루살렘(주민 17만명) 정부 기관의 일부는 텔 아비브(주민 40만명)에 있다.

정 치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던 팔레스티나에 아랍 국가와 유태인 국가를 전립할 데 대한 유엔 결정(1947년 11월 27일)에 의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였다. 이스라엘은 존립 첫 날부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서 련접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여 전쟁(팔레스티나 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 시기에 이스라엘 경내의 평화적인 아랍 주민들은 유태인 반동 집단의 잔인한 학살과 박해를 당하였으며 90 여 만명의 아랍인들이 요르단, 레바논, 수리아 등지에 피난하였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랍인들은 소위 《안전 구역》에 수용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1949년에 이스라엘은 교전국들과 정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후 이스라엘은 미제의 지지 밑에 아랍 국가들과의 국경 문제와 팔레스티나 난민 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단히 충돌 사건을 도발하고 있다. 1958년부터 1964년 6월까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의 령해, 령공, 령토를 침범한 도발 건수는 도합 1만 9천 717차에 달한다. 1956년 10월에는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아랍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1964년부터는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미싸일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1965년 2월 현재 이스라엘에는 50여 명의 서독 과학자들과 400 여명의 무기 전문가들● 핵 에네르기의 군사적 리용과 핵 탄두의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제의 지지 하에 일방적으로 요르단강의 물'줄기를 변경하고 있으며 (강물의 55%를 자기들의 관개 및 동력에 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있다.

1964년 1월과 9월에 소집된 아랍 13개국 수뇌자 회의는 요르단강 수로 변경을 위한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처하여 투쟁할 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64년 6월 팔레스티나 아랍인들의 대표 400여 명은 팔레스티나 민족 대회를 가지고 아랍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과 영국을 규탄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책의 산물이며 중근동 동란의 화근이라고 지적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통령】 잘만 샤자르(1963년 5월 21일 피선)

【의회】 1원제로서 의원 12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6월 24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비 에슈콜(국방상 겸임), 외상 골다 마이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1년에 창건된 팔레스티나 공산당인데 1948년 10월 이스라엘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사무엘 미쿠니스 로동당(마파이당) 집권당이며 유태인 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 통일 로동당(마팜당), 자유당, 진보당, 민족 종교당, 공산주의 청년 련맹, 평화 위원회, 유태인 로동자 총련맹, 민주 녀성 련맹.

경 제 락후한 반 식민지, 반 봉건 농업국이다. 경제는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자본은 이스라엘에 침투한 외국 자본 중 70%(1958년)를 차지한다. 영국, 프랑스 자본은 400 여 개의 이스라엘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공업은 방직, 식료, 제지, 화학, 석유 가공 공업 등이나 거의 모든 원료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약 40만 헥터이며 주요 농산물은 귤, 밀(1963년에 5만 5,000 톤 생산), 옥수수, 담배 등이다. 농업은 국내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귤, 다이야몬드 등이며 무역 대상국은 미국, 영국, 토이기, 서독 등이다.

쿠웨이트

Sheikdom of Kuwait

【면적】 1만 5,500 km²

【인구】 33만 명(1962년)

【수도】 쿠웨이트(주민 약 21만

명).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다.

정 치 쿠웨이트는 1899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6월 19일 독립하였다. 쿠웨이트가 독립하자 이라크의 카셈 정권은 쿠웨이트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를 기화로 쿠웨이트의 독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1961년 7월 1일 군대를 파견하여 무장 간섭을 하다가 아랍 련맹군의 쿠웨이트 상륙으로 물러났으며(동년 10월 9일까지) 그 후 아랍 련맹군도 철수하였다.

1963년 1월 립헌 군주제, 의회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1963년 10월에 이라크와 쿠웨이트 량국 수상들의 호상 방문이 있었으며 방문 기간에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주권을 전'적으로 승인하였다.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간에 중립 지대(5만 7천 km²)에 관한 조약(1922년 12월 조인)의 기한 만료와 관련한 회담이 1963년 8월부터 7개월간 진행되였으며 회담 끝에 중립 지대를 서로 분할할 데 대한 략탈적인 리권 협정이 체결되였다.

【추장】 아브둘라 아스 살림 아스 사바흐(1950년 1월 29일 취임)

【국민 의회】 1963년 1월 30일 쿠웨이트 력사상 첫 국민 회의(1원제) 선거가 실시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5년 1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쉐이크 사바흐 알살렘 알사바흐, 외상 사바흐 알 아흐메드알 자비르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석유 채취업이며 주민의 20%가 석유 로동자이다. 석유 매장량은 1963년 말 현재 87억 톤으로써 세계 제 1위이다. 석유 생산량은 1964년에 1억 640만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제 3위를 차지하였다. 원유 수출량은 세계 제 2위를 차지하는바 1962년에는 7,980만톤, 1963년에는 8,532만 3,000톤(평가)이였다.

석유 공업은 미, 영 련합 회사인 《쿠웨이트 석유 회사》(1934—2009년 간의 석유 개발권 탈취)에 장악되여 있다. 쿠웨이트 석유는 영국 석유 수요량의 40%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 《아라비아 석유 회사》도 1958년 7월 44년 간의 석유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추장들과 상인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으며 해변의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 채취에 종사한다.

1963년 현재 학교 수는 140개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면적】 160만 km²

【인구】 750만 명(196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이며 기타 유태인,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있다.

【수도】 리야드 (주민 35만명, 정부 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 성지)

정 치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 1 차 세계 대전 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속령(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 후 이븐 사우드(네지드 왕)는 령토 확장을 위하여 헤쟈즈를 정복하여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 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으로 개칭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 군주제 국가이다. 국가의 일체 법률은 회교 성전에 의거하고 있다.

1962년 11월 요르단과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요르단과 함께 전복된 예멘 왕당파를 지지하여 예멘에 대한 무력 간섭을 하였다.

1964년 3월 말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최고 권력 기관인 종교 학회와 왕족 리사회는 정권 쟁탈을 위한 통치 계급 내의 알륵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이살 (사우드 왕의 동생이며 당시 수상직에 있었다) 이 국왕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9월 파이살은 아랍 련합 공화국 나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추방된 예멘 왕당파에 대한 재정 원조를 끊으며 예멘 아랍 공화국을 승인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라비아 미국 석유 회사》(아람코)를 통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국회도 정당도 없으며 로조 활동도 금지되고 있다.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둘 아지즈(1964년 11월 2일 즉위)

【정부】 1964년 11월 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파이살

경제, 사회 락후한 반 유목, 반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약 절반이 유목 및 반 유목 생활을 한다. 경지 면적은 약 21만 헥터이며 농업 생산은 국내 수요의 약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년산 20만 톤), 밀, 수수, 쌀 등이며 주요 가축은 락타, 양, 말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금, 은, 동, 철광 등이 있다. 탐사된 석유 매장량은 1963년 말 현재 81억 톤이며 자본주의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석유세 수입은 국가 예산 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1964년 석유 채굴량은 8,570만 톤이였다. 석유 채취권은 《아라비아 미국 석유 회사(아람코)》(1933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의 《아라비아 석유 회사》(1957년부터 40년간), 이딸리아의 석유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아람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약 3분의 2의 지역에서 이 나라 석유 총 채굴량의 94% 이상을 채굴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 공장, 송유관, 정보 기구, 군대, 경찰 등을 가지고 《나라 안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 독점체들이 주요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씨족 부락의 잔재가 있으며 노예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963년에 1천만 리알의 배상금을 지불하여 중부 지구에서 노예들을 석방하였다.

미국 석유 회사에 고용된 이 나라 로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로동을 하는 미국 로동자들의 임금의 6분의 1도 못 된다. 1962년 회교의 발생지인 메카, 메지나가 있는 것 만큼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바레인 제도

(바레인 추장국)
Sheikdom ef Bahrain

바레인 제도는 페르샤만에 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598 km²

【인구】 15만 6,000명(196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기타 아프리카인, 이란인, 인도인들이 살고 있다.

【행정 중심지】 마나마(주민 6만 1,837명)

【추장】 술만 빈 하미드 알 할리파(1942년 즉위)

바레인은 186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후 미국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바레인에는 영국의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다.

1959년에 독립을 요구하며 아라비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장하는 바레인 민족 해방 전선이 창설되였다.

바레인 제도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1963년 말에 탐사된 매장량은 3,310만 톤)하며 1963년에 225만 톤의 석유가 채굴되였다.

미국의 《바레인 석유 회사》가 석유 채굴권을 쥐고 (1940년부터 1995년까지) 있으며 년산 1,000만톤 이상의 능력을 가진 석유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다. 바레인은 진주 조개의 채취로서도 알려져 있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종려, 포도, 귤 등이다.

카 타 르

(카타르 추장국)
Sheikdom of Qatar

【면적】 2만 2,000 km²

【인구】 5만 5,000명 (1962년)

【행정 중심지】 도하 (주민 4만 5,000명)

【추장】 알리 빈 아브둘라 알 타니

카타르는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형식상 추장이 있으나 영국인 정치 주재관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 카타르에는 미 해군 기지가 있다. 석유 자원이 풍부(1963년 말 현재 탐사된 매장량 3억 8,270만 톤)하며 1964년에는 890 만톤의 석유가 채굴되였다. 석유 채굴 및 가공은 영국, 프랑스, 미국 합동 회사인 《카타르 석유 개발 회사》(2010년까지 채굴권 획득)《카타르 쉘 석유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석유 외에 농목축업도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목민이고 연해 주민들은 진주 채취를 하고 있다.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를 사용하고 있다.

오 만

【면적】 21만 2,400 km²

【인구】 55만 명(1959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그 밖에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산다.

【수도】 니즈와 (오만 회교 교주국 수도, 주민 4,000 명), 마스카트(마스카트 추장국의 행정 중심지, 주민 6,200명)

【회교 교주】 길리브 빈 알리

【추장】 사이드 빈 타이무르

정 치 오만은 18세기 말 영국에 강점 당하였다. 1913년 오만 내륙 지방 인민들은 영국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오만 회교 교주국을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 때부터 오만에는 독립적인 오만 회교 교주국과 영국의 괴뢰 국가인 마스카트 추장국이 존재하게 되였다. 1939년과 1951년에 마스카트 추장이 영국과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스카트 추장국은 더욱 영국의 예속 하에 들어 갔다. 영국은 오만에서의 자기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5년에 마스카트 추장국을 사촉하여 오만 회교 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한 후 2만 여 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켜 오만 회교 교주국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개시하였다.

1964년 5월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오만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기 위하여 1만 여동의 가옥을 불사르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오만 인민들은 영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3년에는 오만 인민을 반대하는 영국 기지인 자파르 지역까지 항쟁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담배, 대추, 야자, 석류, 채소 등이고 최우량 종의 락타가 있다.

금, 철, 석탄, 동, 류황 등 자원이 많다. 1937년에 설립된 《이라크 석유 회사》(미, 영, 프랑스 자본)의 분 회사인 《오만 석유 회사》가 1944년에 75년 간의 석유 탐사 및 채굴권을 탈취하였다. 1953년에 미국은 자파르 지역의 석유 채취권을 획득하였다.

철도는 없고 인력거, 락타가 주요한 교통 수단이다. 발전소도 없으며 화폐도 없다. 해안 지대에서는 인도 화폐 루피를 사용한다.

예 멘

(예멘 아랍 공화국)
Yemen Arab Repualic

【면적】 19만 5,000 km²

【인구】 500만명(1964년)

주민의 절대 다수가 아랍인이고 약간의 페르샤인, 소말리아인, 인도인들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사나(주민 7만명), 타이즈(제 2 수도, 주민 4만명)

정 치 예멘은 1923년에 토이기의 통치에서 해방되였다. 그러나 예멘은 력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 1934년에 영국은 40년을 기한으로 하는 불평등한 《사나 조약》을 예멘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예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였다.

미제는 1947년 5월 예멘에 100만 딸라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석유 채취권을 탈취하고 예멘에 침투하였다.

예멘은 1958년에 아랍 련합 공화국, 수리아와 함께 아랍 국가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수리아가 탈퇴한 후 1961년 12월 26일 이를 해소하였다.

1962년 9월 27일 살랄(현 대통령)이 봉건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예멘 공화국이 선포되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예멘 왕당파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사촉하여 예멘에 대한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을 지원하였다.

1963년 4월 예멘, 아랍 련합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간에 예멘에서의 정화 협정이 체결되였다. 그러나 그후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력 간섭은 계속되였다. 1964년 9월 아랍 련합 공화국 나쎄르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살 왕 간의 합의에 따라 동년 11월 또다시 예멘 정화 협정(11월 8일부터 정화)이 체결되였다. 요르단은 동년 7월에 예멘을 승인하였다.

1964년에 영 제국주의자들은 예멘 공화국에 대한 빈번한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특히 3월 28일 영국 군용기들은 하리브시에 침공하여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4월에는 10여 차에 걸쳐 예멘 령토를 침범하였고 4월 말부터는 남부 예멘의 라드판(아덴 북쪽 약 100 키로메터 떨어진 달라 지역) 산악 지대에서 로골적인 식민주의 전쟁을 개시하였다.

예멘 공화국은 이와 같은 침략 책동과 관련하여 수차 영국 정부에 항의하였으며 3월말에는 영국의 침략을 심의할 것을 아랍 련맹에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사회에 제소하였다.

3월 4일 살랄 대통령은 타이즈 군중 대회에서 《남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투쟁에 착수하였으며 당신들은 영국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3월 30일 사나에서는 영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진행되였다. 5월 1일 라드판에서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첫 무장 투쟁이 폭발하였고 그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은 더욱 확대되였다.

6월 29일 《남부 예멘 해방을 위한 전국 지도부》가 결성되였으며 이 창립 대회에서 부대통령은 영 제국주의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영 제국주의자들이 라드판산에 대한 《로벌 작전》을 감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7월 12일 《남아라비아 반도 남부 전국 해방 전선》은 성명을 발표하고 라드판산 린접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해방 투쟁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예멘 인민들의 반제 기세, 특히 반영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1964년 1월 7일 신 헌법이 채택되였다. 헌법은 정치국(정치 및 립법에서 최고 기관), 국가 안전 회의(국방 및 안전 문제에서의 최고 기관)를 새로 창설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헌법은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의 주석이며 무장력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규정하고 무제한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2월 대통령은 예멘 력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 조직인 《예멘 진보 동맹》을 창건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2월과 5월의 2차에 걸쳐 내각을 개조하였으며 1965년 1월에 또다시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살랄 대통령은 1964년에 쏘련(3월), 체스꼬슬로벤스꼬(4월), 벌가리아(4월), 로므니아(5월), 웽그리아(5월), 중국(6월) 등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친선 조약,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쏘련), 우호 조약(중국)등을 체결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살랄(7월)과 나쎄르(4월) 대통령의 호상 방문이 있었으며 7월 13일에는 아련—예멘 합동 조정 리사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리사회(량국 대통령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는 량국의 통일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량국의 정책을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게 된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예멘 간에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3년 8월에 예멘 정부 대표단이, 1964년 9월 4—21일에 예멘 친선 문화 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9월 18일 량국 간의 문화 협정이 체결되였다.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1962년 9월 28일 취임)

【국회】 국회는 추장 리사회(95명)와 추장 최고 리사회(26명)로 구성되며 대표들은 주민 비례에 따라 선거된다.

【정부】 현 정부는 1965년 1월 6일 18명으로 구성되였다. 제

1 부대통령 겸 수상 하싼 엘 에마리, 외상 아브델 카위 하민

【국방 리사회】 1964년 1월 9일에 살랄 대통령에 의하여 수상, 국방상, 내상, 총족 관계상, 예멘군 참모장, 기타 5명의 족장, 5명의 군대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정당】 예멘 진보 동맹 1964년 2월 대통령의 법령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지도자 아브둘라 살랄, 총비서 무함메드 알 중배리

경제, 사회 오래 동안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과 왕권 통치의 후과로 경제는 락후한 상태에 있다. 농업이 경제의 기본 부문이며 이에는 주민의 90% 이상이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231만 헥타이며 한 해에 2~3 모작을 할 수 있다. 주요 농산물은 수수, 보리, 밀, 옥수수, 커피, 목화, 야자, 종려, 과실 등이다.

알곡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는 년 평균 90~120만 톤, 전국 파종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커피는 매년 약 4,200 톤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은, 찌딴, 망간, 석탄, 철, 동, 아연, 력청, 류황, 석회석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공업은 아직 발전하지 못 하였다. 소규모의 제분소, 방직 공장, 비료 공장, 제철소, 주물 공장 등 몇 개의 기업소들이 있을 뿐이다. 1963년 9월에 사나에서 첫 발전소가 조업하였으며 1965년 1월에는 타이즈에서 첫 알루미늄 공장이 조업하였다.

전력 생산량은 혁명 전의 1일 4,600 키로와트시로부터 1963년에는 1일 1만 2,000 키로와트시로 증가되였다.

혁명 후 예멘 정부는 경제적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4월 림시 헌법에서 정부는 민족 경제 발전 분야에서 농업의 현대화에 의한 농촌 경리의 앙양, 민족 공업의 창설, 재정 체계 및 대외 무역의 재조직, 민족 기술 간부의 양성 등 과업을 제기하고 1964년부터는 제1차 5개년 계획(1964—1968)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농업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고 관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계획에서는 일련의 경공업 공장, 농업 생산과 관련된 공업 기업소 건설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자금을 축적한 다음에 점차 중공업 기업소들을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철도는 없으며 락타가 주요한 운수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63 6월에 호데이다—사나 간의 도로(227 키로메터)가 준공되였다.

1963년에 중근동에서 제일 큰 비행장의 하나인 라호바 비행장이 건설되였다. 1963년에 국립은행이 창설되였으며 1963년 6월에 첫 민족 화폐가 발행되였다.

수출품은 커피, 목화, 가축 등이며 무역은 주로 아랍 국가들과 진행된다.

예멘은 영 제국주의자들이 통제하고 있는 아덴항을 통한 무역의 예속성을 청산하기 위하여 호데이다항을 건설하고 있다. 호데이다항이 건설되면 수출입 가격을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대외 무역은 국가가 관리한다.

학생 수는 혁명전의 4만 4,930명으로부터 1963년 5월 현재 6만 4,187명으로 증가하였다. 혁명후 녀성들이 처음으로 학교 교육을 받게 되였다. 1964년 현재 14개의 각종 병원이 있었다.

【출판 보도】 신문-《예멘 소식》(아랍어)

사나에 예멘 방송국이 있다. (1일 14시간 방송)

아 덴

【면적】 29만 km²(그 중 식민지 207 km²)

【인구】 120만명(식민지 22만명, 보호령 98만 명). 주민의 85%는 아랍인이고 기타 인도인, 파키스탄인, 소말리아인, 구라파인 등이 살고 있다.

【중심지】 아덴(주민 9만 9,000명)

정 치 원래 예멘의 령토였던 아덴은 1839년에 영국에 강점되였다.

영국은 1937년에 아덴을 《식민지》와 《동부 아덴 보호령》 및 《서부 아덴 보호령》으로 분할하였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59년 2월—1962년 4월 간에 《서부 아덴 보호령》과 《동부 아덴 보호령》의 25개의 보호주들 중 11개 보호주들로써 소위 《남 아라비아 련방》을 조작하였다.

1963년 1월에 영국은 이 《련방》에 식민지 아덴을 끌어 들였으며 1963년 3월에는 2개의 보호주를 편입하여 도합 14개의 지역(인구 80만 명)을 포괄시켰다.

영국인 총독이 《련방》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아덴에 중근동 륙해공군 련합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만 8천여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켜 이 곳을 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전략 기지로 리용하고 있다.

이리 하여 영 제국주의자들은 《남 아라비아 련방》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4월에 600여 명의 침략군을 더 상륙시켜 아덴 점령군을 3천명 이상으로 증강하였으며 4월 25일부터는 《남 아라비아 련방》 군대와 함께 라드판 산악 지역에서 이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식민지 전쟁을 개시하였다.

한편 영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의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64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런던에서 《남 아라비아 련방》 괴뢰들의 참가 하에

소위 헌법 개정과 독립 문제에 관한 회의를 벌려 놓았다.

회의에서 《합의》된 헌법에 의하면 《남 아라비아 련방》의 립법기관 선거는 아덴에서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기타 보호주들에서는 간접적으로 하게 되여 있다.

또한 회의에서 영국은 4년 후에 《남 아라비아 련방》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기만적인 약속을 하면서도 아덴에 있는 영 군사 기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하였다.

10월 영 제국주의자들은 아덴에서 《립법 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10월 30일 자인 아브도 바하룬을 두목으로 하는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다.

아덴 인민 사회당과 로조 콩그레스는 7월 4일에 페막된 런던 회의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아덴의 진정한 독립과 운명은 아덴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월 5일 까히라에서 남 아라비아의 민족주의 단체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고 아덴으로부터 영국 군대의 철수와 영 제국주의 통치의 온갖 흔적의 청산을 호소하였으며 영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런던 회의의 모든 협정들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반영 투쟁은 《남 아라비아 련방》 내에 있는 통치 집단 속에서까지 확대되였다.

7월 7일 《남 아라비아 련방》 최고 리사회의 의장이며 파들리 지역 추장인 아흐메드 벤 아브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 아라비아 련방》에 대한 영 제국주의의 정책을 규탄하면서 파들리 지역을 《련방》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남 아라비아 련방》 조작후 강화된 아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아덴 인민 사회당과 남 아라비아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하에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64년 5월 1일 라드판 지역에서 무장 투쟁이 폭발한 후 아덴 인민의 무장 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아덴 인민 무장대들은 영국 군용 비행장과 군사 기지를 습격하여 군용 창고를 파괴하고 적 비행기에 사격을 가하는 등 대담한 전투를 전개하여 영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

경제, 사회 아덴은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를 련결하는 군사 교통의 요충지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중근동 침략의 주요한 발판으로 되고 있다.

아덴항은 구라파—아세아를 래왕하는 선박들의 연료 보급지(매달 평균 500척의 배들이 연료를 받고 있다)이며 그 부근에는 년산 500만톤 능력의 영국 정유 공장이 있다.

식민지 주민들은 주로 부두, 원유 정제 공장 등에서 로동하고 있다.

보호령 주민들의 90%는 농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축산업(락타, 소), 어업 등에 종사한다.

농산물은 밀, 보리, 기장, 목화, 커피 등이다.

토지는 봉건 령주들과 종족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약 6만 1,500헥타이다.

토 이 기

(토이기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면적】 77만 6,980 km²

【인구】 3,025만6,000명(1963년) 대부분이 토이기인이고 동부 지방에 쿠르드인이 살고 있다.

【수도】 앙카라(주민 66만 4,000명, 1960년)

정치 1919년 5월 반제 반봉건 혁명으로 왕제가 철폐되고 1923년 10월 29일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토이기는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1955년)에 가담하였고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5월 규르쎌을 두목으로 한 군사 집단이 정변을 일으켜 멘데레스 친미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1961년 10월 15일 국회 선거 결과 동년 11월 군부의 지지를 받는 이노뉴 내각이 성립되였다.

이노뉴가 집권한 후에도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여 2차의 내각 개조가 있었으며 이노뉴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정변 음모가 2차(1962년 2월, 1963년 5월)나 있었다.

토이기에는 120 개의 미 군사 기지가 있으며 나토는 토이기에 11개의 대형 군사 기지와 100여 개의 비행장을 설치하고 있다. 1961년에는 중근동에서 가장 큰 나토 공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토이기는 1960년에 끼쁘로스, 영국, 희랍과 체결된 《끼쁘로스의 독립》에 관한 조약을 구실로 저들의 간섭권을 주장하면서 끼쁘로스 내 토이기계 주민들을 추동하여 끼쁘로스에서의 무장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964년 8월 토이기는 끼쁘로스에 대한 공개적인 무력 간섭을 감행하였다.

【국회】 상하 량원제인데 상원 의원은 187명, 임기는 6 년이고 하원 의원은 450명,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케말 규르쎌

【정부】 1965년 2월 20일 정의당, 신 토이기당, 국민당, 전국 공화 농민당의 련립 내각이 구성되였다. 수상 수아트 하이리 우르구플류(무소속), 외상 하싼 에사트 이식크.

【정당】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되였고 1923년부터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화 인민당** 1923년에 창건된 친미적인 우익 정당이다. **정의당** 1961년 멘데레스 정부가 전복된 후 주로 퇴역 장교들과 민주당(해체된 멘데레스의 정당)에 속했던 자들로 구성되였다. **신 토이기당, 전국 공화 농민당, 국민당.**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7%가 농업에 종사하며 토지의 80%는 농업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1963년에 789만 3,000 톤 생산), 락화생, 사탕, 목화(1962—1963년에 22만 8,000 톤 생산), 과실, 담배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철, 망간(1963년에 2만 1,200 톤 생산), 동, 석유, 크롬(매장량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위) 등이 풍부하며 주요 공업은 채광업이다. 가공 공업으로는 식료, 담배, 제지, 세멘트, 방직 공업 등이 있을 뿐이다. 토이기의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이 틀어 쥐고 있으며 그것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외국 자본의 투자 총액은 1951—1960년의 10 년간에 1억 1,200만 리라였다면 1962년—1963년 상반년까지의 1 년 반 동안에는 5,300만 리라에 달하였다. 특히 석유 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는바 공장들의 조업률은 30—40%에 지나지 않는다. 1964년 9월 현재 토이기의 부채액은 27억 리라나 되였다. 군사비는 1954년의 6억 리라로부터 1963년에는 25억 리라, 1964년에는 29억 1,000만 리라로 계속 늘어났다.

국민 소득 중 인구의 98%에 해당한 근로자들이 겨우 55%를 차지하는 반면에 2%에 불과한 대 토지 소유자, 상인, 기업주들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1964년에 식료품 값은 전전 수준의 12배로 뛰여 올랐다.

문맹자는 1,600 만명을 넘는다. 8만여 개의 농촌 마을에는 의사가 거의 없으며 100만 명의 페결핵 환자를 비롯하여 700만 명에 달하는 각종 환자들이 있다. 페결핵으로 1년간에 6만 명이나 죽는다. 1962년에 전체 사망자 수의 40%가 4 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였다.

【출판】 신문—후리에트, 줌후리에트바탄, 아크샴, 게쥐 포스타씌, 말리에트, 울루스

끼쁘로스

(끼쁘로스 공화국)
Republic of Cyprus

끼쁘로스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 나라이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의 3 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면적】 9,250 km²

【인구】 58만 9,000명(1963년 6월 현재)

그 중 희랍계 주민이 82%, 토이기계 주민이 18%이다.

【수도】 니코시아 (주민 8만 6,300 명)

정 치

끼쁘로스는 4 세기 말에 희랍 제국의 령토로 되였으며 1571—1878년 간에는 토이기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1914년에 영국은 이 섬을 완전히 병합하였고 1923년에는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다.

끼쁘로스 인민은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민족 자결을 위하여 장기간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제 2차 대전후 희랍계 주민들의 에노시스 운동(희랍 복귀 운동)이 격렬하여졌다.

영국과 토이기는 끼쁘로스가 희랍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토이기는 끼쁘로스가 희랍계 인과 토이기계 인으로 분할 통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던 끝에 1959년 2월 영국, 희랍 및 토이기 3국 간에 쮸리히(6—11일) 및 런던 회담(17—19일)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들에서 영국은 군사 기지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끼쁘로스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독립한 끼쁘로스는 희랍, 토이기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쮸리히 및 런던 협정에 기초하여 1960년 7월 6일 끼쁘로스는 영국과 《독립 조약》을, 희랍 및 토이기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고 영국, 희랍, 토이기와는 끼쁘로스의 독립과 령토 완정 및 안전에 관한 《담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리 하여 영국은 2 개의 군사 기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외에 주요 지점 30 개소에 특수 지구를 설정하고 자유로 리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희랍군(약 900 명)과 토이기군(약 600 명)이 끼쁘로스에 주둔하게 되였다.

영국은 이 나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헌법》을 강요하고 1960년 8월 16일 끼쁘로스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영국은 끼쁘로스의 민족적 독립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 해 왔다.

1963년 12월 끼쁘로스 대통령 마카리오스는 제국주자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요된 쮸리히 및 런던 협정의 수정과 현 헌법의 페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기회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의 반동 집단을 사촉하여 12월 22일 토이기계 주민과 희랍계 주민 사이에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무장 충돌을 구실로 영국은 끼쁘로스 주둔군을 증파하였고 토이기는 미제의 지지하에 12월 25일 끼쁘로스 연안에 함대를 출동시켰으며 제트기를 끼쁘로스 상공에 침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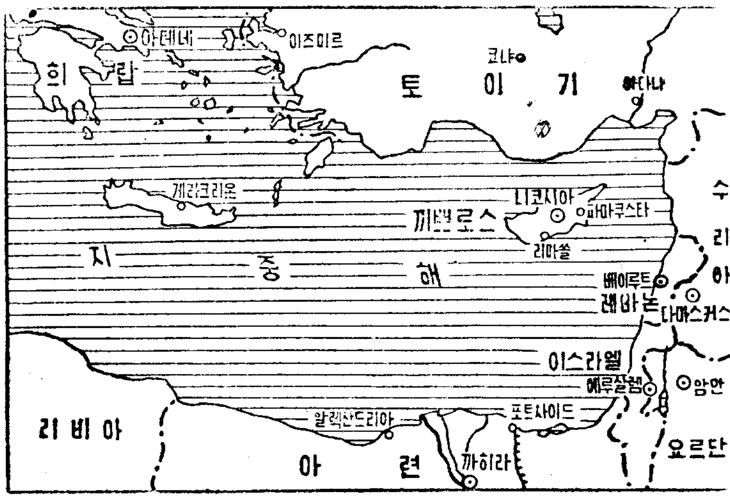
미제는 《끼쁘로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1964년 초부터 전투기들을 이 나라에 투입하였으며 증강된 제 6 함대 함선들을 끼쁘로스 근해에 집결시켰다.

끼쁘로스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리용하여 영국은 1964년 1월 15일 끼쁘로스의 희랍계인 대표와 토이기계인 대표의 참가 하에 영국, 희랍, 토이기 간의 5자 회담을 벌려 놓았다.

마카리오스 대통령은 회의에서 끼쁘로스 헌법의 수정과 3국 간에 체결된 《담보 조약》, 《동맹 조약》의 페기 문제를 토의할 것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토이기와 끼쁘로스의 토이기계 주민의 대표는 끼쁘로스의 《분할 통치》를 요구하였으며 영국은 이 기회에 이 나라를 나토 지배 하에 넣기 위하여 나토 성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경찰군》이 끼쁘로스의 《치안을 관리》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회의는 파탄되였다.

4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의 《질서 유지》라는 간판하에 7천명에 달하는 추종 국가 침략군으로 조작된 《유엔 평화 유지군》을 끼쁘로스에 끌어들



여 끼쁘로스 내정에 간섭하였다. 동시에 유엔의 간판 밑에 수도 니코시아에 《통일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6월 말 미 대통령 죤슨은 토이기, 희랍 수상을 워싱톤에 불렀으며 9월 초에는 토이기와 희랍에 특사를 파견하여 끼쁘로스 문제 《해결안》을 내 놓는 등으로 끼쁘로스 내정에 간섭하였으나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마카리오스 대통령에게 거부 당하였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제의 사촉하에 토이기는 끼쁘로스의 7개 도시와 촌락들을 폭격하고 200여 명의 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한 척의 경비정까지 침몰시키는 무장 공격을 감행하였다. 한편 희랍은 토이기 공군기가 나토 기지로부터 떠난 데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토이기의 군사 행동에 대처하여 륙해공군에 경계 태세를 명령하는 등 끼쁘로스 사태는 위기 일발에 처하였다.

마카리오스 대통령은 8월 8일 《자유와 령토 보존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9일에는 쏘련, 아련, 수리아 등에 긴급 원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중순과 9월 초순에 끼쁘로스 주민들은 수차에 걸치는 반미 시위를 단행하여 미제의 음모 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러나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의 끼쁘로스 주둔은 1965년 3월 26일까지로 세 차례나 연장되였으며 끼쁘로스인들 간의 충돌은 의연히 계속되였다.

끼쁘로스의 헌법에는 희랍계 주민 7, 토이기계 주민 3의 비률로 국회, 정부, 국가 기관들을 구성하며 군대는 6 대 4로,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게 되여 있다.

【의회】 의원수 50 명(희랍계인 53 명, 토이기계인 15명), 임기는 5년이다(1960년 7월에 선거).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대주교(1960년 8월 16일 취임), 부대통령 쿠취크, 외상 키프리아노

【정당】 **근로 인민 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설립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명으로 개칭되였다. 총비서 파파이오안노우 **애국 전선** 부르죠아지와 교회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마카리오스 **민족 련맹, 민주 련맹, 전 끼쁘로스 로동자 동맹**(세계 직련에 가입), **통일 민주 청년 조직.**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40만 4,680 헥터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목화, 보리, 귀밀 등이다.

철, 동, 크롬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에서 채광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국 광물 생산의 70%는 미국 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와 국내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민 생활은 극히 락후하며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이주한다.

아 프 리 카 주

아랍 련합 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면적】 99만 4,300 km²

【인구】 2,796만 3,000 명 (1963 년 현재)

인구의 96%가 아랍인이고 기타 베르베르족, 베드인족 등 소수 민족이 있다. 언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까히라 (주민 334만 5,000 명)

정 치 기원전 3천년에 애굽에 통일된 노예주 국가가 형성되였다. 4 세기 말부터 7 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에 속하였다. 17 세기부터 19 세기 초까지 오토만 제국의 한 개 주로 예속되여 있었다. 18 세기 말부터 19 세기 초에 걸쳐 애굽을 침략하기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는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설과 함께 애굽을 예속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1882년 6월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반영 폭동을 구실로 영국은 애굽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토이기가 교전국이라는 것을 구실로 1914년 12월 8일 애굽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1922년 영국은 아랍 인민들의 반영 투쟁이 앙양되자 형식상으로나마 애굽을 독립 왕국으로 승인하였다. 1936년 영국의 압력으로 수에즈 운하 지대에서 영국의 특권을 인정하는 《영—애 20년 동맹 조약》이 체결되였다. 인민들의 압력으로 애굽 의회는 1951년 10월 15일 영—애 조약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1952년 7월 23일 애굽 인민들은 친영 파르크 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18일 애굽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6월 23일 애굽 인민들은 가말 아브델 나쎄르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으며 애굽 땅에서 영국 군대를 최종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애굽에 대한 70여 년 간에 걸친 영국의 군사적 점령을 종식시켰다.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 국유화 법령이 발표되였다. 동년 10월 29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애굽을 반대하는 무장 침공을 감행하였다가 패배를 당하였다.

1958년 2월 애굽은 수리아와 통합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1년 9월 여기에서 수리아가 분리)

1962년 5월에 있은 《인민 력량 전국 대회》는 《민족 행동 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아랍 사회주의 련맹》 창건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4년 2월 3일 헌법이 발표되였다. 헌법에서는 아랍 련합 공화국을 《근로 인민 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였다.

【민족 회의】 민족 회의는 국가의 최고 립법 기관이며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현 민족 회의는 1964년 3월 선거에서 당선된 350 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여 있다. 임기는 4년이다. 민족 회의 창설과 함께 대통령 리사회가 폐지되고 신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행정 리사회는 폐지되였다.

의장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대통령은 민족 회의에서 임명하되 국민 투표에서 선거되여야 한다.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 (1956년 6월 23일 취임, 1965년 3월 재선) 부대통령 4 명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3월 25일 11 명의 부수상, 22 명의 상, 3 명의 부상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엘 사이드 알리 사브리
외상 마흐무드 리야드
국방상 아브둘 와하브 비슈리

【정당, 사회 단체】 아랍 사회주의 동맹 1962년 7월 14일 인민 력량 전국 대회에서 창건할 것을 결정. 동맹의 규약은 《1952년 혁명의 제 원칙을 지키며 반동과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력량을 단합》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혁명의 6 대 과업 즉 《식민주의 청산, 봉건의 소멸, 자본의 통치와 독점의 소멸, 사회적 평등의 실현, 강력한 국방력의 창설,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인 생활의 창조》 등을 활동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가말 아브델 나쎄르

사회 단체로서는 로조 련맹과 청년 복리 최고 리사회가 있다.

【국내 주요 사건】 1964년 3월 1—4 일 간에 걸쳐 민족 회의의 첫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는 36 명의 의원들이 선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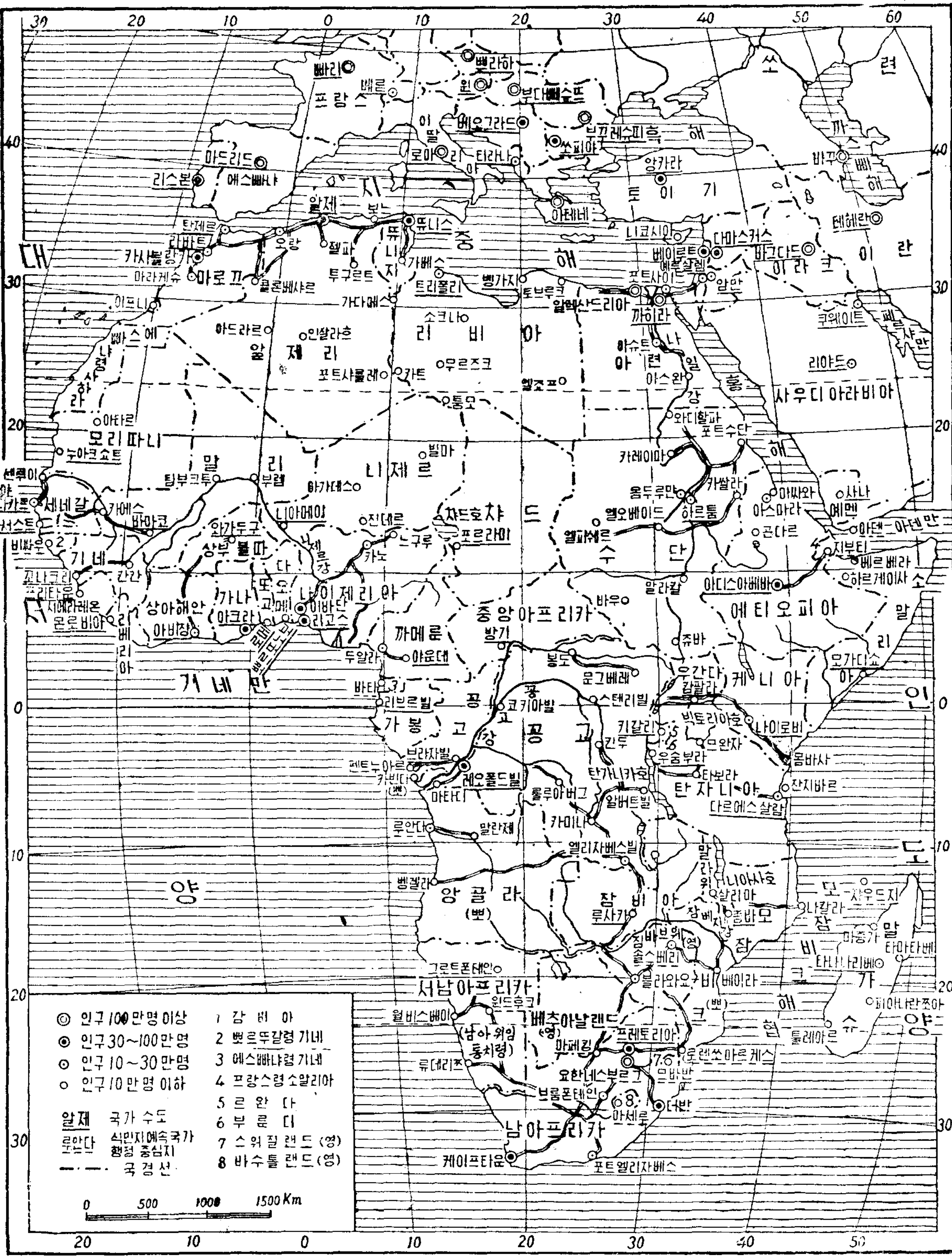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은 3월 26일 제 1 차 민족 회의에서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정강 및 헌법을 발표하고 1965년부터 시작되는 제 2 차 5 개년 계획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행정 리사회를 폐지하고 내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1964년 5월에 진행된 민족 회의에서는 제 2 차 5 개년 계획을 토의하였다.

1964년 11월 국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상 알리 사브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공급 리사회가 설치되였다.

1964년 11월 13일 민족 회의 제 2 차 회의에서 아련과 이라크의 련합 정치 지도부 창설에 관한 1964년 10월 16일 부 까히라 협정을 비준하였다.

【대외 관계】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는 적극적인 중립과 쁠럭 불가담의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인종 차별

아 프 리 카 주



인구100만명 이상
인구30~100만명
인구10~30만명
인구10만명 이하
알제 국가 수도
루안다 식민지예속국가 행정 중심지
국경선
1 감비아
2 뽀르뚜갈령 기네
3 에스빠냐령 기네
4 프랑스령 소말리아
5 르완다
6 부룬디
7 스위질랜드(영)
8 바수톨랜드(영)
0 500 1000 1500 Km
쏘련
프랑스
빠리
에스빠냐
마드리드
리스본
이딸리아
로마
베오그라드
아테네
뚜르끼예
앙가라
지중해
알제
뛰니스
모로꼬
라바트
카사블랑카
알제리
리비아
트리뽈리
벵가지
알렉산드리아
까이로
아랍
나일강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란
이라크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베이루트
니코시아
떼헤란
쿠웨이트
홍해
모리따니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하르툼
예멘
아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베바
말리
세네갈
다카르
기네
상부볼따
가나
아크라
나이제리아
라고스
까메룬
중앙아프리카
가봉
꽁고
레오폴드빌
우간다
캄팔라
케니아
나이로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잔지바르
앙골라
루안다
잠비아
모잠비끄
마다가스까르
타나나리베
서남아프리카
베츄아나랜드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부르그
프레토리아
더반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기네만
대서양
인도양

을 반대하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 인민들을 지지 성원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아랍 련합 공화국은 아랍 인민들의 번영과 통일을 파괴하려는 이스라엘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아랍 인민들의 통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아련은 1964년 1월 12일 요르단(아련에서 리탈하여 나간 수리아 정권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1961년 10월에 단절)과, 2월에는 마로끄(알제리—마로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1963년 10월에 단절)와, 3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예멘에 대한 무력 침공과 관련하여 1962년 11월에 단절)와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다.

1964년 7월 13일 까히라에서 아련과 예멘 대통령 간에 두 나라의 통합 문제와 관련된 합동 조절 리사회의 창설 및 인민 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0월 16일에는 아련—이라크의 통합을 위한 련합 정치 지도부를 설치할 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21일—26일에 나쎄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과 그의 일행이 아련을 방문하였다.

1964년 11월 25일 조선과 아련 량국 간의 외교 관계를 대리 대사급으로부터 대사급으로 높이는 데 합의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9월 수상 알리 사브리는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4월 2월 체스꼬슬로벤스꼬 외무상이, 4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군사 대표단이 아련을 방문하였다.

1964년 2월 23일 아련과 웰남 민주 공화국 간에 장기 무역 협정이 체결되였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1964년 11월 19일 아련은 자국 령공을 불법 침범한 미국 비행기 1 대를 격추하였다. 1964년 12월 23일 포드사이드 승리 8 주년 기념 군중 집회에서 나쎄르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보잘 것 없는 원조를 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의 정책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험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원조에 목을 걸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서부 독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무기 원조를 주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964년 5.1절 연설에서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은 《우리의 첫째가는 의무는 아랍 령토의 모든 곳에서 영국을 쫓아내는 데 있다》고 언명하였다.

1964년 7월 이라크 혁명 기념일에 제하여 발표된 아련—이라크 공동 콤뮤니케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외국이 어느 아랍 국가를 공격한다면 그것을 모든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64년 12월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은 《콩고 인민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미국과 벨지끄는 콩고 인민에게 무기를 공급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콩고 혁명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공급하고 있으며 또 공급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언명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965년 1월 아련 정부는 까히라 주재 콩고(레) 대사관을 페쇄하고 이 대사관 관원들에게 출국을 명령하였다.

경 제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및 그의 앞잡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소들과 토지들을 국유화한 아련 정부는 그에 기초하여 부단히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나라에는 석유, 철, 망간, 린산염, 석탄, 연, 아연, 크롬, 은, 동, 석면, 석 등 자연 부원이 매우 풍부하다.

[공업] 제 1 차 5 개년 계획 기간(1959/1960—1963/1964) 아련에서는 85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정부는 1964—1965 회계 년도에 혁명 전 1951—1952 년도의 거의 40 배에 해당하는 1억 9,050만 파운드를 공업 분야에 지출하였다. 결과 1963년도에 국영 공업 부문 총생산액은 9억 5,260만 파운드로서 1962년에 비하여 15% 장성(1962년 공업 총생산액 13억 60만 파운드 중에서 국영 공업 생산액은 7억 3,330만 파운드) 하였다. 그 중 기계 제작 공업은 28.5%(1억 4,810만 애급 파운드), 방직 공업은 10.6%(3억 1,670만 애급 파운드), 화학 공업은 19.4%(9,660만 애급 파운드), 석유 공업은 13.1%(9,340만 애급 파운드) 그리고 자동차 공업은 2 배나 장성하였다.

공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적 성과들도 또한 달성되였는바 1964년 1월에 《원자 도시》 인챠스의 한 공장에서 우라늄과 토륨을 원료에서 빼내는데 성공하였으며 3월 초에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체의 설계로 제트 전투기 시험 생산에 성공하였다.

1964년 3월 10일 아련 민족 회의는 119 개의 건설 회사들을 국유화하며 그것들을 35 개의 회사들에 통합할 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3월 24일 아련 정부는 1956년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애급을 무력 간섭한 후에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던 《쉘》 석유 회사와 영국-애급 유전 회사를 완전히 국유화할 데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 5월 아련 인민들은 민족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아스완 댐 건설 제 1 계

단 공사를 완공하고 제 2 계단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마가레 지역에서 이 나라의 첫 탄광 (년산 1만 2,000 톤의 능력과 4천만 톤의 석탄 매장량을 가진 탄광) 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1964 년도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생산량
강철 (1,000 톤)	342.4
선철 〃	488.9
비료 (만톤)	85
화물 자동차 (대)	1 362
승용차 〃	5 507
뻐스 〃	565
뜨락또르 〃	632
원유 (만톤)	610
세멘트 〃	240
사탕 (1,000 톤)	355
면직물 (100만m)	600.0

주: 면직물은 1963 년도 생산량임.

아랍 정부는 방대한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 및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한 공업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

【농업】 아랍 정부는 나라의 중요한 경제 부문인 농업 발전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아랍 정부는 외국인들과 국내 대 토지 소유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42만 헥터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여 혹은 국유화하였으며 소농 경리에 대한 협동화 정책을 추진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4,039 개의 농촌과 147만 9천 명의 농민이 망라되여 있다.

경지 면적은 1960년의 250만 헥터에서 1963~1964 농업 년도에는 300여 만 헥터로 확장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벼,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이다.

정부는 집약화 농법을 도입하는 등 농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3년에 농산물 생산액은 6억2,200만 애급 파운드였는데 이것은 혁명 전에 비하여 2억 애급 파운드 이상 증가된 것으로 된다.

목화는 농업 생산의 중심이며 주요 수출 원천으로서 그 생산량은 1962 년도에 45만 7,000 톤이였다.

벼 재배에 큰 힘을 기울인 결과 혁명 전에 벼 경작지는 21만 헥터였는데 1963년에는 37만 8천 헥터로 늘었다. 벼 생산량은 100만 톤이다.

1963년에 국민 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0% 이상, 수출에서는 70% 이상이다.

【대외 무역】 1964년 3월 8일 아랍 민족 회의는 11 개의 대외 무역 회사들을 완전히 국유화할 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제품으로 대신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과 면직물, 원유, 원유 제품, 다이야, 랭동기, 사탕 등이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화와 방직 제품이다.

1963 년도 (1—11월) 에 목화 수출액은 1억 440만 애급 파운드, 방직 제품은 10% (총 생산량의) 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랍 국가들 (수출량의 50%) 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설비와 흑색 금속, 석탄, 콕스 등이다.

사회, 문화 아랍에서는 초등 의무 교육제와 일부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학생 수는 400만 명, 그 중 대학생 수는 12만 명이고 대학은 40여 개이며 각급 학교 교원 수는 7만 1,869 명 (1962년)이다.

1964년 2월 22일 알렉산드리아에서 6천 여 종의 아프리카 조류와 2천 여 종의 동물 표본들을 보유한 아랍의 첫 자연사 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정부는 또한 민족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 예술단을 비롯하여 민족 문화 예술 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아랍어 출판물들을 증가시켰다.

1964년 3월 아랍 인민들은 대규모의 영화 도시 (근동에서 제일 큰 이 영화 도시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18 개의 영화 촬영소가 건설되며 이 촬영소에서는 1년 동안에 120 편의 아랍 영화와 80 편의 기록 영화, 300 편의 텔레비죤 영화들이 촬영되게 된다.) 건설에 착수하였다.

3월 29일에는 중근동 지역의 어데서나 들을 수 있는 1,000 kw의 출력을 가진 중동 방송국이 방송을 개시하였다.

국교는 회교이고 주민의 91%가 회교도이다.

【출판 보도】 통신— 중근동 통신사 (일명 멘 통신) 1955년에 설립.

신문—아랍어: 《알 굼후리아》, 《알 아호람》, 《알마싸》, 《알 아호바르》, **영어**: 《에집샨 가제트》, **프랑스어**: 《르 쥬르날 에짚트》, 《르 프로그레 에짚시앵》

방송국— 까히라에 아랍 방송국이 있다.

수　　단

(수단 공화국)

Republic of Sudan

【면적】 250만 5,823 km²

【인구】 1,283만 1,500 명 (1963년 7월 1일)

주민은 주로 아랍족 (3분의 1)과 니그로족이다. 수단 북부 주민은 회교도이고 남부 주민의 대부분은 원시 종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도도 있다. 언어는 10여 종 있다.

【수도】 하르툼 (주민 13만 명)

정 치 19 세기 70년대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온 수단은 1899년 1월의 《영국—애급 협정》에 따라 이 두 나라의 공동 통치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1955년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남부 수단의 흑인들을 사촉하여 북부 수단의 아랍인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남북 간에 극도의 반목을 조성하였다.

인민 대중의 장기 간에 걸친 투쟁으로 1956년 11월 1일 수단은 독립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1955년의 흑인 폭동으로 발단된 종족 분쟁은 계속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단에서는 독립 후 2년 간에만도 정부가 세차례나 바뀌였는데 1958년 11월 7일에는 당시의 륙군 총사령관 아뿌드가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친 서방적인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아뿌드 독재 정권은 집권하자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수단 인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부 수단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여 각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 2월 27일 수단 정부는 인민 대중의 강한 압력으로 1963년 말—1964년 초에 수단 남부 지역에서 반정부 음모를 조작하고 파괴 행동을 감행한 미, 영 선교사 300여 명을 수단에서 축출하기로 결정 (이들은 1955년에도 남북 간의 리간을 조성) 하고 수단에서 추방된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에 요구하는 각서를 보냈다.

1964년 10월 21일 하르툼 대학생들이 남부 수단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경찰이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하자 대학생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학생들의 투쟁은 반정부 폭동으로 확대되였다. 이 결과 아뿌드는 정권에서 물러나라는 인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10월 28일 군부 대표와 야당 대표들 간의 회담에 동의하고 민정 수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 하여 1964년 10월 30일 엘 할리파를 수반으로 하는 림시 정부가 구성되였다.

10월 31일 엘 할리파 수상은 정강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고 하면서 첫 사업으로 군정으로부터 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신 정부의 대외 정책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를 청산하며 군사 조약들을 폐기하고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완전하고 광범한 협조를 강화》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11월 5일 신 정부는 군사 정권 시기에 있었던 국방법 및 국회법을 포함한 5 개의 법령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고 《공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법령들을 재심의할》 각료급의 특별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정부는 이전 군사 정권 당국이 몰수하였던 정당들의 모든 재산과 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결정하고 국내 주들의 군사 총독 제도를 주 지사 제도로 바꿀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4년 11월 7일 수단 신 정부는 1958년 11월에 군사 정권이 전국에 선포하였던 비상 사태를 해제하였다.

11월 21일 수단 정부는 《남 아라비아 련방》으로 가는 영국 군용기들과 민간 항공기들이 수단 비행장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2월 3일 수단 정부는 콩고(레) 혁명가들을 돕기 위해 스탠리빌에 파견할 자원적인 의료단의 조직을 승인하였으며 12월 23일부터는 수단 민족 전선 내의 각 단체들의 발기로 콩고 (레) 애국자들과의 련대성 주간이 설정되였다.

【최고 리사회】 1964년 12월 13일 최고 군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 원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리사회를 조직하였다.

【림시 정부】 1964년 10월 30일 비법화되였던 민족 련합당, 인민 민주당, 움마당, 남부 자유당, 민족 련합 전선 등 5 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내각 성원 15 명 중 3 명은 남부 수단 대표이다.

림시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 때까지 과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상 겸 국방상 할렘 엘 할리파, 외상 무함메드 하렘 마흐쥬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46년 성립. 총 비서 아브둘 할레크 마흐쥬브 **민족 통일당** 1952년 성립. 아랍 국가들과의 긴밀한 뉴대를 주장하며 모든 군사 조약을 배격. 위원장 이스메일 엘 아즈하리 **인민 민주당** 1956년 6월 민족 련합당에서 분리되여 새로 조직, 위원장 알리 아브델 라흐만 **움마당** 1945년 성립, 대지주들과 교파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위원장 엘 사예드 세디크 엘 마흐디 **남부 자유당** 남방의 3 개 주 인사들로서 조직되였는데 두 파로 분렬되여 있다. **민족 통일 전선** 1953년 의회 선거시에 각 계층의 진보적 인사들로서 결성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1960—1961년 국민 생산액에서 농업은 57%, 광공업은 20%를 차지하였다. 외국 독점 자본가들, 국내 봉건 령주들이 비옥한 토지와 관개 수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목화 (1962—1963년에 449만 3천 정보에서 176만 5천 톤 생산, 이 나라 외화 수입의 70%, 정부 예산 수입의 근 절반을 차지), 사탕수수, 아라비아 고무 (년 평균 생산량 4만 톤,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 락화생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동, 철, 우라늄, 석유 등이 발견되였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공업은 발전하지 못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소들은 농산물 가공 공장이며 일부 공장들에서 타면, 면직물, 유지 제품, 세멘트, 포장 자료, 의약품, 술, 담배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62년에 1만 5천 키로와트시의 수력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수단은 공업 제품의 거의 50%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년간 미제는 소위 《원조》를 미끼로 수단에 침투하고 있다. 수단은 미국으로부터 1958—1960년에 약 4,500만 딸라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외국 독점 자본 특히 영국 자본이 수단의 금융, 보험업, 운수업의 명맥을 틀어 쥐고 있으며 목화와 아라비아 고무의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수단은 영국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1962년 2월 영 파운드 지역에서 탈퇴하였다.

화폐는 수단 파운드이며 1 수단 파운드는 2.87 미국 딸라이다.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리 비 아

(리비아 왕국)
Kingdom of Libya

【면적】 175만 9,540 km²

【인구】 155만 9,399명 (1964년 8월 1일) 대부분이 아랍인이고 그 밖에 이딸리아인과 희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트리폴리(주민 17만 2,000명), 벤가지(주민 7만 5,000 명) 정부 기관은 가을과 겨울에는 트리폴리, 봄과 여름에는 벤가지에 있다.

정 치 19세기 초에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 제국에 편입 되였다가 1912년에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리비아는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과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의 점령 하에 있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 왕국으로 독립하게 되였다. 현행 헌법은 1951년 10월 채택되였다.(같은 해 12월 24일부터 효력 발생)

리비아는 1953년 영국과 소위 《우호 동맹 조약》, 1954년 9월에 미국과 《기지 협정》(20년 기한)을 체결하고 이 나라들에 군사 기지와 군대 주둔권을 제공하였다. 아프리카 최대의 공군 기지인 리비아의 휠루스 공군 기지에 1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1963년 4월 29일 리비아는 련방제를 폐기하고 중앙 집권제 국가로 되였으며 나라 이름을 단일한 《리비아 왕국》(이전에는 련합 왕국으로 부름)으로 개칭하였다.

1964년 3월 16일 국회는 리비아—영국 《우호 동맹 조약》과 리비아—미국 《기지 협정》을 폐기하고 미, 영의 모든 군사 기지와 군대들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동년 8월 22일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군사 기지를 철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직 군사 기지를 언제 어떻게 철수시키는가를 답변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일련의 사회주의 나라들과 이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유엔 총회 18차 총회에서는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 채택시 기권하였다. 리비아는 남아프리카와 뽀르뚜갈의 인종주의적 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여 1963년 8월 1일 이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 기금으로 1만 5천 만 리비아 파운드를 제공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이드리스 엘 세누시 1세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24명(절반은 국왕이 임명, 절반은 지방 의회에서 선출)이고 임기는 8년이다. 하원 의원은 55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오마르 마호무드 문타쎄르(1964년 3월 취임), 외상 후세인 마제르

【정당, 사회 단체】 정당은 없고 트리폴리에 리비아 총련맹 등 로조 단체들이 있을 뿐이다.

경제, 사회 리비아는 주민의 80%가 농목축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국토의 85% 이상이 사막이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락화생, 올리브, 담배 등이다. 리비아에는 석유(사하라 사막에만도 14억 톤이나 매장되여 있다), 린산염, 철광석, 주석, 망간, 보키사이트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채취 공업과 식료, 방직, 제혁 공장이 약간 발전되여 있을 뿐이다. 나라의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에 불과하다. 리비아의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21개의 외국 석유 회사(그 중 14개가 미국 회사)들이 이 나라 령토의 3분의 2 이상의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다. 1962년에 미국은 석유 수출에서 만도 5,200만 리비아 파운드의 순 리윤을 짜냈는데 리비아는 다만 약 700만 리비아 파운드를 얻었을 뿐이다.

화폐 단위는 리비아 파운드(영국 파운드와 등가, 1리비아 파운드=100 피아스터)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올리브유, 가축 등이다.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80%가 실업자로 된다. 전국에 3 개의 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 병원이 있으며 1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45%나 된다. 문맹자는 주민의 94%이다. 대학생 수는 불과 300 명이다. 소학생 수는 9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교는 회교이다.

뜌 니 지

(뜌니지 공화국)
Republic of Tunisia

【면적】 16만 4,000 km²

【인구】 415만 8,000 명(1963년)

주민은 아랍족 (90%)과 베드윈족이고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뜌니스 (주민 74만 명)

정 치 오토만 토이기 제국의 속령이였던 뜌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881년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883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뛰니지는 1956년 3월 20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에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뛰니지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1963년 10월 15일 프랑스 군대가 비제르타에서 모두 철수하였다.

1964년 1월 10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의 뛰니지 방문과 관련하여 량국 간에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1964년 5월 11일 뛰니지 국회는 만장 일치로 외국인 소유 토지의 국유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46만 5천 헥타르 (그 중 프랑스인 소유 약 30만 헥타르) 의 토지가 국가의 소유로 되였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프랑스는 5월 13일 뛰니지에 대한 《재정 원조》를 중단하고 6월 9일에는 통상 협정을 일방적으로 페기하였으며 뛰니지에서 일하던 프랑스인 농업 전문가들을 소환하였다.

5월 27일 뛰니지 정부는 구라파의 영향을 일소하기 위해 뛰니지에 있는 대부분의 카톨릭 교회들을 박물관 또는 도서관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2일 뛰니지 정부는 8만 300 그루의 개인 소유의 올리브 나무를 국유화하였다.

1964년 11월 18일까지에 150여 명의 미국 《평화군》이 뛰니지에 기여 들었다.

【국민 의회】 의회는 일원제이며 의원 수는 90 명, 임기는 5년이다. 현 의회는 1964년 11월 18일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내각 수반이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1964년 11월 8일 재선)

외상 하비브 부르기바 쥬노르 (대통령의 아들), 국무상 몽기 슬림 (이전 외상)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 공산당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1963년 1월에 비법화 되였다. 총비서 모함메드 엔나파 네오 데스투르당 1934년에 조직,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집권당이다. 이 당은 로동자 총련맹, 농민 련맹 및 상공 련맹과 함께 민족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위원장 하비브 부르기바 로동자 총련맹 네오 데스투르당의 영향 하에 있는 로조 단체이다. 공업 및 상업 련맹, 농민 련맹, 대학생 련맹, 녀성 련맹, 자유 평화 위원회

경제, 사회 뛰니지는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국민 총생산액 중 농업이 80%, 공업 및 광업이 20%를 각각 차지한다.

프랑스 자본은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린광석 채굴량의 98%와 철광석, 연광 및 아연광 채굴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1962년에 40만 8,000 톤 생산), 보리, 올리브 (1963년의 올리브유 생산량은 7만 톤), 귤 (1963년에 6만 2천 톤), 포도 (1963년 포도주 생산량 180만 키로리터) 등이다. 1963년 알곡 생산량은 77만 5천 톤이였다.

1963년에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은 전력 3억 700 만 키로와트시, 린산염 236만 4천 톤, 철광 86만 5천 톤, 연광 2만 2천 톤, 아연광이 8천 톤, 린산염이 13만 7천 톤이였다.

통화 단위는 디나르이다. 1964년 7월 28일 정부는 디나르의 평가 인하를 실시하여 1 디나르의 금 함유량을 종전의 2.115 그람에서 1.69 그람으로 낮추었다.

주요 수출품은 올리브유, 밀, 린산염, 연, 철광, 아연광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섬유 제품과 기계류, 설비품, 연료이다. 주요 무역 대상은 구라파 《공동 시장》 (1963년 수입의 68%, 수출의 70%)이다.

정부는 10 개년 계획 (1962—1971) 을 수립하고 공업화를 추진시키고 있는데 그 일부로서 3 개년 계획 (1962—1964) 을 채택하였다.

실업자는 40만 명 이상이며 주민의 87% 이상이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이다.

【출판】 신문—알 아말 (네오 데스투르당의 기관지), 아스 사바흐 (정부를 지지), 준 아프리크.

알 제 리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geria

【면적】 238만 4,741 km²

【인구】 1,150만 명 (1965년 2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 (60% 이상)과 베르베르족 (30%)이다.

【수도】 알제 (주민 96만 명, 1964년 초)

정 치 알제리는 1520년 오토만 제국에 정복되여 그것의 한 개 주로 되였으며 1830년 6월부터 132 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알제리 인민의 투쟁은 제 2 차 대전 후에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부터 산간 지대에서 첫 유격 부대가 출현하여 도처에 비밀 지하 단체를 조직하였다.

1954년 8월에 《단결 및 행동 혁명 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그 이름을 민족 해방 전선으로 개칭하였다.

1954년 11월 1일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알제리 민족 해방 전쟁의 시초로 되는 봉기가 일어났다.

1956년 8월 민족 해방 전선당 대회는 34 명으로 구성되는 혁명 전국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1958년 9월 민족 해방 전선은 알제리 공화국을 선포하고 림시 정부를 조직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 전쟁에 약 80만의 병력을 투입하고 83억 딸라 (1955—1959) 의 군사비를 탕진하였다. 미제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게 42억 딸라의 군사 원조와 프랑스 군대

장비의 75%를 제공하였으며 서독 복수주의자들은 3만 5천 명의 《외인 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여 20만의 사상자를 내고 1962년 3월 18일 정화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알제리 인민은 7년 여에 걸친 무장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7월 1일 알제리의 자결에 관한 국민 투표 결과 투표자 수의 99.29%가 독립에 찬성 투표하였다. 7월 5일 알제리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오늘 알제리 인민은 민족 해방 전선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의원 수는 138 명 (1964년 9월 20일 선거), 임기는 5년이다.

의장 하즈 벤 알라 (10월 1일 재선)

【정부】 현 정부 (1964년 말 현재)는 1963년 9월 18일에 구성되였으며 1964년 12월 2일 일부 개조 되였다. 정부는 17 명의 상과 1 명의 부국무 비서로 구성되였으며 내무 총국과 공보 총국, 재정 총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였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겸 수상 아흐메드 벤 벨라

부수상 겸 민족 보위상 후아리 부메디엔

부수상 모함메드 사이드

외상 아브델 아지즈 부테플 리카

【정당, 사회 단체】 민족 해방 전선당 알제리의 유일 당이며 집권당이다. 1954년 8월에 조직된 《단결 및 행동 혁명 위원회》가 1954년 10월 10일 민족 해방 전선으로 개칭되였다. 1964년 4월 제 1 차 당 대회에서 당의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당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정치국 위원은 17 명이며 당 중앙 위원회는 81 명의 위원과 23 명의 후보 위원으로 구성되였다. **근로자 총동맹** 1956년 3월 24일 조직.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를 받는 유일한 직맹 조직이다. 1963년 1월 제 1 차 대회에서 반동적인 국제 자유 련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기자 동맹** 1964년 7월 11일 결성 **전국 학생 련맹, 전국 녀성 련맹**

【주요 사건】 1964년 1월 8일 오랑에서 20만 명의 인민들이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를 지지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1월 21일 정부는 국가 재산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3월 7일에는 국방성에 민족 인민군 총참모부를 창설할 데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총참모장으로 바하르 즈비리 대좌를 임명하였다.

4월 15—21일까지 알제에서 제 1 차 민족 해방 전선당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며 알제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을 사실로써 실증할 것을 선포하고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6월 8—11일에 진행된 민족 해방 전선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지방 당 단체들의 선거 진행 문제와 관련된 당 건설 문제, 반혁명을 진압할 데 대한 문제, 토지 개혁 문제, 전쟁 피해와 관련된 실업 근절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6월 15일 알제의 해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의 마지막 부대의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는 6월 15일을 《국내 령토로부터의 외국군 철거일》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7일 정부는 반혁명과의 투쟁을 위한 전국 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7월 13일 민족 해방 전선당 정치국은 전국에서 무장 민병대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17일 반혁명의 두목 아이트 아흐메드를 체포하였다. 10월 18일 벤 벨라 대통령은 텔레비죤 방송 연설에서 아흐메드의 체포에 대하여 《그의 파멸은 우리 혁명을 반대하여 조직한 모든 반동 세력의 파멸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9월 20일 민족 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12월 25일 알제에서 소집된 농업 로동자 대회에서는 농업 로동자 동맹의 과업과 역할 문제를 토의하고 일련의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대외 관계】 알제리는 쁠럭 불가담의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온갖 형태 및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랍 국가 및 아프리카와의 관계 아랍 국가들의 통일과 아프리카에서의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제도의 종국적인 청산과 아프리카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 인민들을 물심 량면으로 지지 성원하고 있다.

2월 17일 알제리의 전국에서 반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팔레스티나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팔레스티나 주간》이 설정되였다.

2월 24일 벤 벨라 대통령은 기네의 키시두구시 군중 대회에서 연설 (2월 20—25일까지 기네를 방문) 하면서 전 아프리카가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로부터 해방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알제리는 앙골라와 뽀르뚜갈령 기네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된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10월 5일 벤 벨라 대통령은 아련 신문 《알 아흐람》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쫌베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쫌베의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참가를 적극 반대하였다. 11월 25일에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성원국 수뇌자들과 통일 기구 사무장 디알로 텔리에게 공고 (레)에 대한 미제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날 벤 벨라 대통령은 알제시 5만 명 군중 집회에서 싸우는 콩고 (레) 인민들에게 《우리는 무기를 보내고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1월 3일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 정치국은 탄자니아 정부를 전복하려는 미제를 괴수로 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음모 책동을 규탄하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1964년 2월 19일 알제리와 마로코 간에 국경 분쟁 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5월 30일 량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할 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이에 따라서 량국 간에 중단되였던 철도 운행이 3월 2일부터 재개되고 외교 관계가 회복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9월 16일 알제리와 우리 나라 간에 문화 협정이, 10월 23일에는 무역 및 지불 협정이 체결되였다.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과 알제리 정부의 초청으로 조선 로동당 대표단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의 민족적 명절인 11월 1일 혁명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1964년 11월 26일—12월 2일에 벤 벨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용건 위원장과 그 일행이 알제리를 방문하였으며 11월 30일 알제에서 량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4—5월에 벤 벨라 대통령이 쏘련 (4월 25일—5월 6일), 벌가리아 (5월 7—10일), 체스꼬슬로벤스꼬 (5월 11—14일)를 공식 방문하였다.

1964년 9월 19일 알제리와 중국 간에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핵 무기 파괴 문제와 관련한 주은래 총리의 10월 17일 부 서한에 대한 11월 17일 부 회답 서한에서 벤 벨라 대통령은 중국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1월 22일 알제리 민족 회의는 알바니아와 체결한 문화 협조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4월 4일에는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11월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와 과학 기술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4년 1월 4일 알제에 알제리—꾸바 친선 위원회 사무소가 창설되였으며 7월 5일에는 량국 간에 문화 협조 협정이 조인되였다. 8월 6일 벤 벨라 대통령은 꾸바에 대한 《미주 국가》 기구의 제재 조치를 규탄하여 꾸바, 칠레, 우루과이, 메히꼬 대통령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10월 12—13일에는 꾸바 대통령 도르띠꼬스가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경제 장구한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경제는 발전하지 못 하였다. 특히 7 년여에 걸치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무려 100억 프랑의 물질적 피해를 받았다.

알제리에는 철광석 (30억 톤), 석유, 석탄 (10억 톤), 린산염, 류황, 연, 아연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독립후 알제리 정부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기초 축성에 착수하였다. 알제리의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은 1963년 3월에 발표된 력사적 법령들에 의하여 구체화되였다.

공업 부문에서 현재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부문은 80～90% (알제리 정부의 통제 밑에서 합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인 기업체들이 주로 많이 속한다.) 나 되며 국유화된 기업소 수는 1천여 개의 대중소 기업체들 중 500여 개 (식료 공장 126 개, 전재 공장 114 개, 강철 및 전기부문 기업소 49 개, 화학 공장 19개, 방직 공장 8개)이다. 공업 생산액 중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이다.

【공업】 기본은 채취 공업(공업 생산액의 70%)이며 그 중에서도 원유와 천연 가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64년 4월 알제에서 년산 250 만톤 능력의 첫 원유 가공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9월에는 오아시스주의 제 3 사하라 송유관 (800 키로메터)이 준공되였다. 9월 27일에는 서부 알제리의 항구 도시 아르쥬에서 240만 립방메터의 능력을 가진 액체 가스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알제, 오랑, 리베, 본 등 주요 도시들에는 년 50만 톤 능력의 강철 공장, 화물 자동차 공장, 세멘트 공장 (년 100만 톤 생산) 등이 있다.

가공 공업 부문에서 비교적 발전된 부문은 식료품 가공 공업인바 수백 개의 포도주 공장, 기름 공장, 채소, 과실, 어류 통조림 공장들이 있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100만 kwh)	1 130.65	1 086.25
원유 (1,000 톤)	20 689	23 896
가스 (100만 m^3)	353	399
철광 (1,000 톤)	2 000	1 950
승용차 (대)	2 056	3 621
화물 자동차 및 빠스 (대)	1 175	1 229
식용유 (1,000 톤)	32	55
신발 (1,000 켤레)	290.3	1 165
강철 (1,000 톤)		20
과린산 비료 (1,000 톤)	48	50

【농업】 독립 후 정부는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6,502만 5,000 신 프랑의 자금을 대부(종곡 해결을 위하여)하였으며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라는 원칙 하에서 농업 개혁을 실시하고 805 대의 뜨락또르를 수입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농업 개혁의 첫 단계에서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버리고 간 토지를 접수하여 빈농, 고농으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에 넘겨 농민들이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1963년 여름까지 160만 헥타의 외국인 토지를 접수) 제 2 단계에서는 1963년 10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50만 헥타의 토지를 접수하였다. 이리 하여 총경작지 716만 2, 194 헥타 중 독립 전에 구라파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300여

만 헥타의 땅은 거의 전부 몰수되여 협동 조합 소유로 되였다. 농산물 수확고의 70% 이상은 협동 조합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

제 3 단계에서 정부는 알제리인 지주들의 토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포도와 공예 작물 재배지에는 국영 농장을 창설(첫 국영 농장은 1962년 11월에 창설)하고 알곡 재배지에는 협동 농장을 조직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리 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 부문을 점차 확대하면서 포도 재배에 편중하였던 기형적인 경리를 시정하고 있다. 1964년에 알곡 파종 면적은 350만 헥타, 포도 재배 면적은 40만 헥타였다.

【대외 무역】 무역에서도 식민지적 성격이 청산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 서부 독일, 영국, 미국, 벨지크, 이딸리아 등이나 대외 무역의 다양화와 함께 점차 서방에 대한 의존 현상이 약화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7천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수입했다면 1964년에는 그 수입액이 40%나 감소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포도주, 석유, 귤, 올리브, 가축 등이다. 1964년에 알제리는 석유, 꼬르크, 감람 열매, 광물류 등 6억 딸라분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직물, 기계, 사탕, 강철, 연료 등이다. 1962년에 비하여 1963년에 수입 제품 품목에서 소비품은 30% 감소되고 시설재는 14% 증가하였다.

독립 후 알제리는 학교 교육망의 복구 확장, 사회 문화 교육의 《아랍화》, 기술 간부의 양성 등에 많은 힘을 돌리면서 국가 예산의 25%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1963년에 인민 교육 예산은 310억 구 프랑이였으나 1964년에는 540억 구 프랑으로 증대되였다.

학제는 인민 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 학교 3년, 대학 4~5년제로 되여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재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 학원을 따로 설치하고 간부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민 학교 학생 수는 독립 당시의 70만 명으로부터 1964년 11월에는 140만 (학교 수 4,344 개), 중학교 학생수는 1만 4천 명으로부터 11만 명 (학교 수 436 개), 대학생 수는 500 명으로부터 8 000 명 (대학 11 개) 으로 증가하였다. (중학교에는 6 개의 사범 학교, 172 개의 기술 학교, 62 개의 농업 학교가 포함되여 있다). 전국 각지에 교원 양성소가 있다.

1963—1964 학년도에 교원 수는 2만 500 명으로부터 3만 2,946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민 학교 아랍어 교원만도 8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1964년에 전체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약 90%였다.

문맹자 퇴치를 위하여 1964년 8월 29일 정부는 문맹 퇴치 전국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문맹자 수가 인구의 80%를 차지했다).

1964년 10월 현재 400여 개의 영화관이 국유화되였다. 알제리에는 2 개의 연극단, 1 개의 무용단, 10 개의 민족 합창단이 있으며 새로 창설된 민족 극장에서는 1964년에 벌써 알제리 및 외국 희곡 10 편 이상을 무대에 올렸다.

알제리에는 1,500 명의 의사가 있어 주민 7천 명에 1 명이 차례지고 있다.

【출판】 통신—알제리 통신 《에이피에스》

신문— 《엘 무드 자히드》 (민족 해방 전선당 기관지), 알제쓰수아르(석간 신문, 프랑스어)

마 로 끄

(마로끄 왕국)

Kingdom of Morocco

【면적】 44만 5,577 km²

【인구】 1,236만 명 (1962년)

아랍족 (600여 만)과 베르베르족 (300여 만) 이 절대 다수이며 그외에 유태인들이 있다.

【수도】 라바트(주민 22만 5천명) 탄지르 (1962년 1월부터 하기 수도로 결정)

정치

마로끄는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국이였으며 이스람교의 문화적 중심이였다.

마로끄는 19 세기 40 년대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912년 3월 30일 프랑스—마로끄 간의 《페즈 조약》으로 마로끄는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12년 11월에는 프랑스와 에스빠냐 간의 《마드리드 조약》으로 마로끄의 남부 이프니 지대가 에스빠냐에 강점되였다. 1923년 12월 18일 빠리에서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는 모로끄의 탄지르 지역을 소위 《국제 관리》 지구로 만들었다.

1950년 12월 22일 프랑스와 미국은 마로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1년 4월 《마로끄 민족 전선》이 결성된 후 마로끄에서 반프랑스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1951년 11월 10일 마로끄의 카사블랑카에서, 1953년 1월 2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반 프랑스 폭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1953년 8월 20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마로끄의 추장들을 사촉하여 벤 유세프를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강박하고 친프랑스파인 벤 아라파를 왕위에 올려 놓은 다음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인민 대중의 투쟁이 완강히 계속되는 환경 하에서 1955년 11월 18일 벤 유세프는 다시 왕위에 복귀되고 1956년 3월 2일 마로끄는 독립을 달성하였다. 에스빠냐령 마로끄도 그 해 4월 17일에 마로끄에 귀속되였으며 10월 29일에는 탄지르 지역의 《국제 관리》 도 철폐되였다. 1957년 6월 12일 프랑스—마로끄 협정에 따라 마로끄에서의 프랑스의 치외 법권도 철폐되였다. 인민

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에 마로꼬 령토에 있던 미 군사 기지가 철페되였다.

1962년 12월 7일 국민 투표에서 첫 헌법이 채택되였다. 마로꼬는 립헌 군주 국가이다.

[국왕] 물라이 하싼 2 세 (1961년 3월 3일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하원 의원은 144 명이고 그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8월 19일에 수립되였다. 수상 아흐메드 바흐니니, 외상 아흐메드 타이예브 벤 히마, 민족 보위상 모함메드 메지안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 공산당 지부로 창건, 1943년에 독자적 정당으로 되였다. 1960년 2월에 비법화. 총 비서 알리 야라 **민주 사회당** 1964년 4월 12일 조직. 집권당으로서 통일된 마그레브의 창설을 주장, 위원장 아흐메드 바흐니니, 총비서 아흐메드 레다 궤디라 **독립당** (이스티클랄당) 1944년 조직 (전신은 1937년에 조직된 마로꼬 행동 위원회). 1959년 이후 당내 분파 투쟁 치렬. 주요 구성은 지주, 상공업자, 자유 직업자 및 행정 관리들, 위원장 알랄 알파씨 **민족 전선** 1951년 4월 9일 창건. 독립당을 비롯한 3 개 민족주의 정당들을 망라. 반프랑스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민 력량 전국 련맹** 1959년 1월 25일 창건. 국내 각 당파들 중 애국적인 선진 분자들로 구성, 대부분이 반프랑스 투쟁의 지도자이거나 참가자들이다. **인민 운동당** 1957년 9월 28일 조직, 조직 후 한달도 못 되여서 정부에 의해 비법화 되였다가 1958년 말부터 활동을 재개. **로동 총련맹, 근로자 총련맹, 청년 련맹, 대학생 련맹**

[주요 사건] 1964년에 마로꼬는 미제의 위협과 압력을 물리치면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 및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로 나아갔다. 2월에 마로꼬 정부는 중국에 코발트를 팔지 말 것과 꾸바와의 무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원조》를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배격하였다.

2월 19일 마로꼬와 알제리 간의 국경 분쟁 조정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고 이에 따라 량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였다.

1963년 10월 마로꼬 알제리 간 국경 분쟁시 알제리에 군사 원조를 주었다는 것으로 단절되였던 아랍과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였다.

마로꼬는 또한 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에서 식민주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7월 1일 마로꼬 정부는 리권으로 에스빠냐 회사에 양도했던 이 북부 지대의 전신망을 도로 찾았다.

9월 14일 라바트에서 마로꼬 민족 회의 비상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서는 야당들의 요구에 의하여 식민주의자들에게 장악된 토지를 몰수하며 사탕 공업을 국유화 하는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1964년에 마로꼬 근로자들은 사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10월부터 많은 지방들에서 파업 투쟁이 수차 단행되였다. 10월 5일부터 수일 간에 걸쳐 라바트, 카사블랑카, 모함메드, 탄지르 등의 수 많은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8 시간 로동제 준수 등 요구 조건을 들고 파업 투쟁을 하였다.

경 제

마로꼬는 농업 및 목축업 국가로서 주민의 80%가 이에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약 500만 헥타이며 국민 소득의 40%가 농업에서 들어 온다. 지주들이 경지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며, 가장 기름진 땅 100만 헥타는 프랑스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농민의 반수 이상이 토지도, 직업도 없는 실업 상태에 있다. 농업 생산에서 평균 65%는 농산물이고 35%는 축산물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포도, 올리브 등이며 식량은 대체로 자체 해결한다.

이 나라의 남부 초원 지대에서는 목축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주요 가축으로는 소, 말, 염소, 당나귀, 노새 등이 있다. 또한 연해에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대서양 연안에서는 수산업도 상당히 발전되여 있다.

공업은 경제에서 25~30%를 차지하며 공업에서도 주되는 부문은 채취 공업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산염 (1961년 생산량 800만 톤, 세계 제 2위), 코발트, 망간, 연, 철, 아연 등이 풍부하며 석탄, 석유도 있다.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프랑스 자본에 쥐여 있다. 전국의 400 개 공장, 광산 중 73 개의 광산과 300 여 개의 공장이 프랑스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 벨지끄, 에쓰빠냐, 서독 독점체들도 이미 마로꼬에 침투하였으며 미국도 《원조》를 미끼로 침투하고 있다.

대외 무역은 《로마 조약 마로꼬 의정서》에 의하여 서구라파와 거래하는데 그 중 구라파 《공동 시장》 참가국들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밀 수출은 100%, 보리는 80%, 옥수수는 97%).

최근 년간 정부는 국내 경제에서의 외국의 투자를 제거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중 프랑스인의 기업체 해산 및 《마로꼬 은행》에 의한 자국 화폐의 발행 등은 그 일례이다. 5 개년 계획 기간(1960—1964년) 에 7천 500만 프랑이 투자되고 제철소, 화학 공장 등 건설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농업에서도 5 개년 계획 기간에 알곡 생산을 2.5% 증대시킬 것이 예견되였다. 1964년에 옥수수는 파종 면적 45만 헥타에서 32만 톤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보리도

182만 헥타의 땅에서 100만 톤의 수확을 거두었다.

1964년 10월 30만의 어린이들이 초등 학교에 입학하여 총 115만 명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독립전 1955년에 취학 아동수는 30만 여명). 회교가 국교이며 문맹자는 주민의 86.2%이다.

도시 실업자 수는 35만 명으로 로력자의 20%를 차지하며 농촌지대에서도 주민의 절반 이상 (48%는 녀성 농민) 은 반실업 상태에 있다.

이 프 니

【면적】 1,900 km²

【인구】 5만 4천 명

【행정 중심지】 시드 이프니

이프니는 마로끄 령토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며 대서양에 면해 있다.

1860년 에쓰빠냐는 원래 마로끄 령토인 이프니를 강점하였다. 1956년에 마로끄가 독립한 이후 이프니 인민들은 마로끄에의 귀속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에스빠냐 식민지 당국은 이를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1958년에는 이프니를 자기의 한 개 《주》로 만들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어업과 농업을 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맥류와 과실 등이다.

에스빠냐령 사하라

【면적】 27만 3,000 km²

【인구】 약 7만 명 (그 중 유목민 약 3만 명)

【행정 중심지】 빌라 시스네로스

마로끄의 서남쪽에 있으며 세기아 엘 함라 (면적 8만 3,000 km²) 와 리오 데 오로 (면적 19만 km²)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1916년에 사하라에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한 에스빠냐는 이 지역에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서부 렬강의 지지 하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사하라 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최근 년간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다. 1958년 초에 에스빠냐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사하라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1961년 3월에는 사하라와 남부 마로끄 간의 접경 지역에서 《사하라 항쟁 투사》들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에스빠냐 군대와 석유 탐사소들을 습격하고 탐사소에 있는 외국인들을 체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목축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주요 가축은 락타, 염소, 면양이며 농산물은 쌀, 옥수수 등이다.

모리따니

(모리따니 회교 공화국)

【면적】 108만 6,000 km²

【인구】 100만 명 (1963년)

주민의 대다수가 베르베르족이다.

【수도】 누아크쇼트 (주민 2,000명)

정 치 모리따니 흑인 왕국의 회교화는 기원전 11세기부터 시작되였다. 15 세기에 와서 뽀르뚜갈의 침입을 받은 이후 프랑스, 에스빠냐 등 서방 식민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입을 받았다. 1920년에 모리따니는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 프랑스령 서 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모리따니는 1960년 11월 28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1년 6월 19일 모리따니는 프랑스와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량국이 외교 정책을 일치시키며, 프랑스가 모리따니 군대의 조직을 방조하며, 모리따니가 공격을 받을 경우 프랑스가 원조하며, 모리 따니는 프랑 지역에 남아 있으며 무역에서 호상 최혜국 대우를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후 모리따니는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서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 있는 모든 군사 기지들의 철폐와 자기 나라에 아직 남아 있는 프랑스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1964년 11월 28일 모크타르 울드 다다 대통령은 민족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모리따니는 콩고(레)의 스탠리빌에 대한 미국 및 벨지끄의 무장 간섭을 준렬히 규탄하는 립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명하고 콩고 (레)에 드리운 위험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통일 기구는 외국의 모든 간섭과 고용병들의 콩고 (레) 파견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64년 11월 12일 모리따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964년 7월 6—13일 간에 모리따니 회교 공화국 친선 사절단의 쏘련 방문시 량국 간의 외교 대표부 교환에 합의를 보았다.

모리따니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성원국이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의원은 40 명,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으로 된다.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 (1961년 8월 20일 당선)

【정당】 인민 동맹 1962년에 4 개의 정당이 통합하여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경제의 주요 명맥은 서방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모리따니는 기후가 건조하고 더워 가축 사양에 매우 적당하다. 주민의 4분의 3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 1959년에 대각 가축은 130만 두, 양과 염소는 500만 두, 락타는 30만 두 있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조, 락화생 등이다.

가공 공업으로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소규모의 수공업 및 반수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지하에는 철광석 (품위 70%), 동광을 비롯하여 10억 톤 이상에 달하는 여러가지 금속광들이 매장되여 있으나 그 개발권은 주로 서방 독점체들의 통제 하에 있다.

주로 포르구로 일대에 많이 매장되여 있는 철광석 (매장량 1억 4,400만 톤) 채굴권은 1952년에 창설된 《모리따니 철광 회사》 (《미페르마》)가 독점하고 있는데 회사 주권의 대부분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다.(회사 자본 833억 프랑)

아크쥬르 일대 (누아크쇼트의 서쪽 대서양 연안) 의 동광 채굴권은 1953년에 창설된 《모리따니 동광 회사》 (《미구마》)가 쥐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본은 4억 프랑에 달한다. 이 회사 주권의 많은 부분은 프랑스, 화란 등 서방 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리따니 회교 공화국이 차지하는 몫은 25%이다.

대외 무역은 적자를 내고 있다.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인민 생활은 아직 어려운 형편에 있다. 주민의 95%가 문맹자이고 아동 취학률은 7%이다.

독립 후 정부는 식민주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185억 830만 아프리카 프랑을 투자하여 나라의 3 개년 발전 계획 (1960—1963) 을 추진시켰으며 이에 토대하여 4 개년 계획 (1963—1966)을 수행하고 있다.

말 리

(말리 공화국)
Republic of Mali)

【면적】 120만 4,021 km²

【인구】 450만 명 (1964년)

만딘구스족, 토우아레그족, 마로카스족, 송하이스족, 풀베족 기타 구라파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지방에서는 반바라어 (민족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도】 바마코 (주민 27만 5,000 명)

정치 9—13 세기에 형성된 가나 왕국(서아프리카 지역을 통일하여 세네갈강과 니제르강 상류에 수립) 의 중심이였던 수단 (오늘의 말리)은 16 세기 말에 이 왕국에서 분립되여 독립 국가로 되였다. 19 세기 5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수단은 1895년에 그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는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6년에 프랑스의 해외 령지 《기본법》에 따라 《반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58년 11월 24일 《프랑스 공동체》내의 《반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 수단과 세네갈이 통합하여 말리 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6월 20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은 말리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1960년 9월 22일 수단 공화국은 나라 이름을 말리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말리는 프랑스와 체결하였던 일체 《협정》을 폐기하고 1961년 2월 11일 《프랑스 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식민지 경제 기구를 페지하고 1961년 9월까지 말리에 있던 프랑스 군대와 관리들을 축출하였으며 프랑스의 군사 기지들을 철수시켰다. 동시에 말리는 민족 군대를 창설하였다.

1962년 9월에 진행된 수단 련맹당 제 6 차 대회에서 모디보 케이타는 말리에서의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을 제기하였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의원은 80명, 그 임기는 5년이다. 전원이 수단 련맹 당원이다.

의장 마하마네 알라싸네 하이다라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현 정부는 1964년 5월 13일 15 명의 각료들로 구성, 9월에 일부 교체되였다. 대통령 겸 수상, 외무상 모디보 케이타, 계획화 및 재정 조절 담당 국무상 장마리 꼬네, 대통령 관방 직속 외교 담당 대표 우스만바

【정당, 사회 단체】 **수단 련맹당** 말리 공화국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1946년 10월 《아프리카 민주 련맹》 (서부와 적도 아프리카 지역 정당들의 련합 조직)의 지부로 창설되였다가 1948년에 수단 련맹당으로 발족하였다. 1959년말 수단 련맹당은 아프리카 독립당 수단 지부와 합당하였다. 1962년 9월에 진행된 제 6 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수단 련맹당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혁명적 당》 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수단 련맹당을 말리 공화국의 유일당으로 선포하였다. 총비서 모디보 케이타, 정치 비서 이드리싸 디아라, 조직 비서 야구바 마이가 **말리 전국 로동자 련맹** 총비서 파마디 마마두 씨쏘고 **수단 청년 동맹**, **수단 민주 녀성 동맹**, **말리 평화 운동 위원회** 위원장 카리파 뜨로레

【주요 사건】 1964년 11월 2일 내각 회의에서는 1963—1964년 농촌 락화생 생산 기구 규정에 관한 문제, 학교 교육 사업과 관련한 법령 초안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2월 4일 수단 련맹당 정치국은 농업 (어업, 목축업)협동 조합 발전 문제를 비롯하여 1964년도 경제 상태의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종려, 담배 등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4월 12일 민족 회의 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에는 233만 2천 명의 유권자 중 208만 2천명이 참가하였으며 선거 참가자의 99.89%가 수단 련맹당의 전국 유일 선거자 명단에 찬성 투표하였다.

1964년 5월 13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새로 선거된 민족 회의에서 말리 인민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서 앞으로 전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보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말리가 쁠럭 불가담 정책을 철저히 고수하며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4년 7—8월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가나 (7월 5일), 알제리 (8월 17—19일)를 공식 방문하였다.

1964년 8월 27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쏨베 당국이 꽁고(레)에서 추방한 말리인들의 처지와 관련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 벨지끄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꽁고 (레)에 대한 저들의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면 말리는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싸울 《지원병을 조직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4년 10월 바마코에서 리베리아, 상부 볼따, 니제르, 다오메, 모리따니, 세네갈, 또고, 나이제리아, 말리 및 가나 대표들의 참가 하에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업 발전을 일치시키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9—11월에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0월 23—27일), 중화 인민 공화국 (9월 29일—10월 4일, 11월 1—3일), 월남 민주 공화국 (10월 19—23일), 인도네시아 (11월 8—10일), 알제리 (11월 18일)를 방문하였다.

1964년 11월 28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바마코의 마마두 꼬나떼 경기장에서 수만명 시민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군중 대회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방문에 관하여 연설하면서 《우리의 쁠럭 불가담은 결코 평행주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침묵, 인민들과 공민들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에 대한 수수 방관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9월에 말리 교육 문화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1964—1965 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를 조인하였다.

12월 3일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이 말리를 친선 방문하였다.

8월 7일 수단 련맹당은 월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경제 말리는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국가이다.

경제는 농업과 목축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업도 창설 중에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철,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키사이트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말리 정부는 경제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말리 농촌에는 이미 수천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였다.

정부는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에 2,800 개의 분무기를 비롯하여 수 많은 농기구들과 8만 4,000 리터의 살충약을 공급하였으며 관개 공사와 5천 헥타의 새 땅 개간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 기장, 수수, 벼, 목화, 밀 등이다. 락화생 재배 면적은 총파종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인구의 3분의 2가 락화생 재배에 종사하고 있다. 말리는 식량을 자급 자족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1964년에 말리는 기후 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1960	1964 (1963.6—1964.5)
락화생	105	128
조 및 수수	765	1 000
벼	125	210
목 화	6.5	29.3

목축업은 건조한 북부 지대에서 발전하고 있다. 가축 두수는 서 아프리카에서 제 1 위이며 축산업 수입은 년간 약 70억 말리 프랑이다. 주요 가축 두수는 소 390만 두, 양 및 염소 1,200만 두, 말 12만 5,000 두, 당나귀 35만 두, 락타 12만 5,000 두이다.

제 1 차 5 개년 계획에서 공업 분야의 중심 과업은 국내 농업 원료에 기초한 가공 공업을 창설하고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는 데 있다.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액은 40% 이상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은 신년에 제하여 《1963년 9월부터 1964년 9월 어간은 말리 공화국에서 공업화를 결정적으로 개시하는 시기로 되였다》고 지적하고 통조림 공장, 기름 공장, 도살장, 화강암 공장 등은 이미 완공되였으며 사탕 공장, 정미소, 제분소, 담배, 성냥 공장, 방직 꼼비나트, 세멘트 공장, 도자기 공장 등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정부는 지하 자원 탐사 및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소유고 있던 수출입 회사, 은행, 운수 수단을 이미 국유화하였으며 1962년 7월 2일 화폐 개혁을 실시하여 민족 화폐 (말리 프랑)를 발행하였다. (1 말리 프랑=100 쌍림, 1 말리 프랑은 금 0.0036 그람)

대외 무역은 국영 말리 수출입 상사 《쏨엑스》가 통제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가축, 축산물, 쌀,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식료품, 의류, 직물, 세멘트 및 각종 설비들이다.

사회, 문화 독립전 말리의 학령 아동 취학률은 3%, 문맹자는 주민의 90%였다. 정부는 1962년10월에 교육 개혁을 실시하여 식민지 교육 체계를 철폐하고 고유한 민족 교육 체계로 개편하였다. 학생 수는 1963—1964 학년도에 13만여 명이였다.

1960—1964년 간에 국립 학교

수는 66 개로부터 307 개로, 사립 학교 수는 5 개로부터 16 개로 각각 증가하였다. 교원 수는 1961년의 1,360 명으로부터 1964 년에는 2,511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사범 학교 및 지방 교원 양성소가 설치되여 25 개 학급에서 789 명의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바마코에 신설된 사범 대학에서는 7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보건 일'군 양성을 위하여 1962—1963 학년도에 신설된 중등 의학 학교에서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1958년에 중앙 병원, 진료소, 조산원 등 의료 기관은 182 개에 불과하였는데 1964년에는 397 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독립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인민 약국이 90여 개소나 신설되였다. 주민의 63%가 회교도이다.

【출판】 신문 —에쏘르 (수단 련맹당 기관지), 바라껠라 (말리 전국 로조 련맹 기관지)

세 네 갈

(세네갈 공화국)
Republic of Senegal

【면적】 19만 7,161 km²

【인구】 336만 명 (1963년) 올로프 (11)만 3천 명), 세레르, 니오민카 (59만 5천 명), 투쿨레라 (42만 2천 명) 등 종족들과 근 4 만의 구라파인들이 살고 있다.

【수도】 다카르 (주민 30만 명

정 치

세네갈은 중세기에 서 아프리카의 가나, 말리 등 국가의 속령이였으며 1815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46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하였다가 1960년 4월 4일 말리 련방의 성원국으로서 독립 (프랑스 빠리에서 독립을 부여할 데 관한 협정 조인) 하였고 그 해 8 월 20일 련방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대통령의 정책상 의견 대립으로 수상 마마두 디아가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2월 20일 대통령은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963년 3월 3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 결과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수상제 내각이 폐지되고 대통령 책임제 내각이 구성되였다.

1963년 7월 16일 정부는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 결정에 따라 뽀르뚜갈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뽀르뚜갈과 남 아프리카와 일체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1964년 9월 장 개석 도당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의원 수는 80 명, 임기는 5년이다. 현 민족 회의는 1963년 12월 1일에 선거되였으며 전원이 진보 련맹 성원들이다. 민족 회의 의장 라인 계예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1963년 3월 수상제 내각을 폐지하고 대통령 책임제 내각을 구성하였다. 대통령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 외상 두두 티암

【정당, 사회 단체】 세네갈 진보 련맹 (집권당) 1958년 9월 25일 성립. 총비서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 아프리카 련방당 1959년 3월 성립 (이 당은 초기 세네갈, 수단, 상부 볼따, 다오메, 니제르와 함께 말리 련방을 형성하자고 주장하던 수뇌급 고위 계층들로서 조직) 아프리카 독립당 1957년 9 월 15일 성립. 구성은 대체로 진보적 인테리 계층과 프랑스 류학생들이다. 이 당의 최저 강령은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립 달성이며 최고 강령은 《사회주의》의 실현이다. 1960년 8월 1일 비법화됨. 총비서 마제무드 디오프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현재 경제 발전 4 개년 계획 (1961년—1965년 5월)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공업이 발전하였다. 1963년 현재 공업 기업소 수는 146 개, 종업원수는 1만 6,000 명이였다.

공업 총생산액은 1962년에 148 억 8,000만 아프리카 프랑 (1956 년에는 118억 6,000만 아프리카 프랑)으로 나라 수입의 20 %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중 직물 (특히 메리야스), 담배, 세멘트는 국내 수요의 80%, 신발은 65%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이 풍부하며 그 생산량은 최근 년간 5만 톤에 접근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락화생 재배가 기본이다 (유명한 락화생 산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 재배 면적은 80만 헥타 (총 경지 면적의 약 40%)이고 전체 주민의 약 3 분의 2가 락화생 재배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량은 최근 년간 독립 전의 2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기타 농산물로는 벼 (1963년 벼 재배 면적은 7만 5,000 헥타), 밀, 옥수수, 목화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정부는 어업 발전에 큰 주목을 돌리고 있는바 4 개년 계획 기간 어류 가공을 6,500 톤으로부터 2만 5천 톤 수준으로 올려세울 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락화생 및 그 제품 수출액은 수출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17%이다. 다카르에 종합 대학이 있다.

감 비 아

【면적】 1만 367 km²

【인구】 31만 6,000 명 (1963년)

【수도】 바더스트 (주민 2만 5,300 명)

정 치

감비아는 1843년에 영국의 식민지 (쎈트 마리섬)와 보호령 (감비아강 류역)으로 되였다.

최근 년간 영국의 식민지 통치

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60년 2월에 바더스트 로동자들이 이 나라 력사에서 최대의 파업을 단행하였다. 1961년 1월에 임금의 90% 인상을 요구하여 단행한 파업으로 바더스트는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

감비아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이 높아지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4월 27일 감비아에 내부 자치를 실시할 데 대한 《새 헌법》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5월에 선거가 실시되고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 1963년 10월 4일 감비아에 완전한 내부 자치를 허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총독이 대외 정책, 국방, 내부 치안에서 실권을 계속 장악하였다.

1964년 7월 런던에서 있은 감비아에 관한 제헌 회의에서 영국은 감비아의 독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36 번째 독립국가로서 1965년 2월 18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1964년 7월 11일 감비아는 세네갈과 2 개의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안전 및 방위에 관한 협정은 침략을 받았을 경우 호상 원조할 것과 감비아 군대의 훈련을 세네갈이 협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대외 정책에 관한 협정에서는 감비아의 외교 대표가 주재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서 세네갈이 감비아를 대표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수상 다비드 쟈와라…

【정당】 인민 진보당 1959년에 성립,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성립 이후 나라의 즉시적인 해방을 주장하여 왔다. 지도자 다비드 쟈와라 **련합당** 1951년에 주로 종족 지도자들로 조직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22만 1천 헥타이고 주산물은 락화생이다 (수출의 95%). 락화생 재배 면적은 34만 에이커이며 최근 년간의 락화생 생산량은 년 평균 7만 5천 톤이다. 기타 벼, 옥수수, 콩, 기장, 수수 등이 생산된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수입한다.

반 수공업적인 락화생 기름 공장, 가죽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업이란 거의 없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 결과 주민의 생활 수준은 극히 낮다. 19 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와 36 개의 농촌 교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8만 명의 어린이들 중 7,500 명 만이 공부하고 있다. 주민의 거의 전부가 문맹자이다.

의사는 11 명, 병원은 2 개 뿐인데 그것도 주로 구라파인들을 위한 것이다.

뽀르뚜갈령 기네

【면적】 3만 6,125 km²

【인구】 52만 4,000명 (1963년)

【행정 중심지】 비싸우 (주민 약 2만 명)

정 치

15 세기 후반기부터 이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여 노예 《매매》를 시작한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은 1879년에 이 나라를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나라 인민들은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였다.

1956년에는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이 조직되였다. 1959년 8월 3일 비싸우 부두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여 대중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식민주의자들은 무력으로 파업을 탄압하여 50여 명의 로동자들을 학살하고 수 많은 애국 투사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1962년부터 뽀르뚜갈령 기네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로운 단계, 무장 투쟁 단계로 들어섰다. 이에 대하여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 총 비서 아밀카르 카브랄은 1964년에 진행된 당 대회에서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의 탄압은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으로 하여금 파업 및 강제 로동에 대한 소극적인 반항과 같은 평화적인 투쟁으로부터 무장 투쟁에로 넘어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62년에 민족 해방 투쟁은 북부와 중부에서 전개되였으며 1963년에는 남부 지역을 거의 완전히 유격대가 통제하게 되였다.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은 거듭되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자기의 군대를 1959년의 1,000 명으로부터 1만 7천 명으로 증강하고 함선 등 현대적 무기까지 동원하여 집중 포격과 《전면적인 토벌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뽀르뚜갈령 기네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탄압에 굴함이 없이 해방 전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1964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유격대들은 코모섬을 강점하려는 적군과의 70일 간의 전투에서 650 명의 적군 살상, 2 대의 적기를 격추, 12 척의 선박을 격침하고 많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이리하여 코모섬에 대한 적의 침입 기도를 완전히 좌절시켰다.

투쟁 행정에서 유격대의 대렬은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바 1964년 12월에만도 수 개의 새 부대들이 조직되였다. 유격대들은 나라의 40%를 해방하였다.

1964년에 해방 지역에서 진행된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 전국 대회에서 아밀카르 카브랄은 당이 투쟁 행정에서 달성한 일련의 성과들을 지적하고 금후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당은 인민 혁명 부대 내에 3 개의 전국 위원회 (각각 자기의 정치 위원을 가지고 있는 군대 지휘 위원회, 유격대 전국 위원회 및 인민 예비군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들이 당 정치국의 지도를 받도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해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군 및 예비 부대들과 아직 해방되지 않은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격대를 통합하여 정규적인 혁명적 인민군을 창설하고 분산적인 유격 투쟁으로부터 대규모적 군사 행동으로 이행하도록 투쟁 형태를 변경하였다.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아밀카르 카브랄은 《우리는 해방 지역들에서 이미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들에서 전권을 위임 받은 당들은 지금 행정 지도부로서 경제, 보건 및 교육 문제도 취급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정당】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 1956년 9월에 창건. 뽀르뚜갈령 기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1964년에 전국 대회 진행.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해방 운동** 민족적 독립을 요구한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 (년 생산량 약 5만 톤), 코코아 (1만 4,000 톤), 종려유(1천 톤), 쌀 (1,500 톤) 등이다.

1964년에 해방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량은 이 나라 농업 총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최근 년간 미국 자본이 침투하여 석유 탐사 및 채굴권을 장악하고 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겨우 3천 명이고 전국에 병원은 1개 있을 뿐이다.

베르데갑 제도

【면적】 4,033 km²

【인구】 19만 4,465 명

【수도】 프라이아(주민 3,575명)

베르데갑 제도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 대서양 상에 위치하고 있다.

149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뽀르뚜갈 정부는 1951년에 베르데갑 제도를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년간 뽀르뚜갈령 기네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의 영향 하에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고 있다.

주산물은 커피, 귤, 사탕수수 등이다.

기 네

(기네 공화국)

Republic of Guinea

【면적】 24만 7,000 km²

【인구】 339만 5,900 명(1963년)

주민은 주로 풀베족 (40%), 만딩그족(25%), 수수족 (14%) 등으로 구성되여 있다.

【수도】 꼬나크리 (주민 15만명, 1963년 8월)

정 치 1885년부터 프랑스가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1885—1887년 간에 기네 인민들은 민족적 영웅 사모리 투레의 지도 하에 프랑스 침략군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프랑스로 하여금 강화 조약에 서명케 하였다. 그 후 1890년에 프랑스는 다시 침략을 개시하고 1895년에 기네를 강점하였다.

1900년과 1908년에 대중적인 반프랑스 투쟁이 있었다.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기네 인민의 투쟁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더욱 앙양되였다. 1957년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해 보려고 해외 령지 《기본법》을 조작하고 기네에 《반자치제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1957년 3월 기네 령지 의회 선거에서 세쿠 투레가 지도하는 기네 민주당이 의석 60 석 중 56 석을 차지하였으며 1958년 9월 28일에 진행된 드 골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투표자의 95.4%가 이 《헌법》에 의한 《프랑스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동년 10월 2일 기네는 독립하였다. 정부는 11월 2일 헌법을 채택하고 기네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3월 10—14일 간에 정부는 화폐 교환 사업을 실시하고 3월 18일부터 상품 가격을 10% 인하하였다.

1963년 5월 기네 공화국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전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 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으며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년 8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1963년 6월 프랑스와 외교 관계 (5월부터 문화 교류와 무역 관계 재개)를 설정하였다.

【민족 회의】 일원제이며 의원 수는 47 명, 임기는 5년이다. 의장 레온 마가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1월 8일 내각 개조에 의하여 17 명의 상과 7 명의 국무 비서들로 구성되여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35 세 이상의 모든 기네 공민은 대통령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7년이다.

정부 성원들 중에는 4 명의 지역 대표 상 (상부 기네, 중부 기네, 산림 지역 기네 및 하부 기네)이 있다.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외상 루이 란사나 베아보기, 국무상 디알로 사이풀라예, 경제 발전상 이스마엘 투레

【정당, 사회 단체】 민주당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1월 19일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하였다. 기네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1963년 8월 15—19일에 진행된 제 7 차 대회 결의에서 기네는 아프리카를 외국의 예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적극적인 중립 정책을 확고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총비서 아흐메드 세쿠 투레 **전국 근로자 련맹, 민주 청년 련맹** 1964년 2월 제 3 차 전국 대

한 진행. 최고 위원 디알로 모크타르

【주요 사건】 기네 민주당 전국 정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64년 4월 17—19일에 진행된 전국 혁명 리사회 제 1 차 회의는 7 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비준하였다. 5월 15일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마쎈타에서 세쿠 투레 대통령의 지도 하에 커피 생산을 증대할 데 관한 지방 경제 회의가 있었다. 동 경제 회의는 4만 3천 톤의 커피와 5만 2천 톤의 종려를 생산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7월 8일 정부는 지하 광물 자원과 어업 자원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령해를 130 마일로 확장함과 동시에 령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을 징수하고 어선까지 몰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11월 8일 꼬나크리 《9.28 경기장》에서 진행된 군중 대회에서 세쿠 투레 대통령은 12개 항목으로 된 《기네 민주당의 투쟁 강령》을 제시하였다.

기네 민주당의 투쟁 강령에는 국내 경제, 정치 및 사회 생활 분야에서 일련의 개혁을 예견하고 있는바 대외 무역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며 국내 상업에서 개인 부문을 현저히 축소하고 모리 간상 행위를 철저히 없애며, 금강석 채취도 국가가 장악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네 민주당 조직을 일부 개편할 것을 제기하였다.

1964년 2월 20—25일에 알제리 벤 벨라 대통령의 기네 방문과 관련하여 25일 량국 대통령들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였다.

3월 1일 아랍 련합 공화국과 기네 간에 경제 협정과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세쿠 투레 대통령은 1964년 3월 알제리, 튜니지, 마로끄를, 12월에는 모리따니, 말리를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였다.

11월 28일 기네 정부는 콩고(레)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에 세쿠 투레 대통령은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1964년 12월 6—1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이 기네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기네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12월 10일 조선—기네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964년 1월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가 기네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1964년 5월 기네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는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창건 3 주년에 제하여 진행된 《남부 웰남 인민 지지 주간》 조직 위원회에 1천 파운드의 원호금을 보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독립 후 정부는 프랑스인이 경영하던 공장들과 은행,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운수 및 농업 부문의 국영 기업소들을 설립하였다. 또한 기네는 프랑 지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민족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 은행을 설립하였다.

기네는 3 개년 계획 (1960년 7월—1963년 7월)을 수행하고 1964년 4월부터 7 개년 계획 수행에 착수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는 3 개년 계획 기간 통조림, 가구, 벽돌, 가죽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였다. 7 개년 계획 기간에는 세멘트, 유리, 제지, 알루미늄, 가정 용품, 다이야, 원유 가공, 자전거 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4년 12월 느제 레코레에서 년 5만 립방메터의 목재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파종 면적은 100만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빠인애플, 야자, 바나나, 커피, 락화생, 벼, 조, 옥수수 등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바나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그 재배원은 약 2,300 개 (8,900 헥타)나 된다.

1961—1962 년도에 바나나는 7만 5,000 톤, 벼는 32만 3,000 톤을 생산하였으며 150만 두의 소, 49만 1천 두의 염소, 34만 3,000 두의 면양이 있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기네 정부는 6만 헥타의 차 재배원 조성, 3,000 헥타의 사탕수수 재배지 개간, 1만 2,500 헥타의 목화 재배원 조성, 6만 4,000 헥타의 경제림 조성, 3 개의 우유 목장 (매개 목장의 젖소 400 두) 건설, 2,000 헥타의 다수확 야자림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독립 후 기네 정부는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수립하였다. 기네의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야자 등 농산물 (수출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과 보키사이트, 철광석, 금강석 등이며 무역은 사회주의 국가들 (무역 총액의 약 3분의 1)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 진행하고 있다.

1964년 10월에 기네 문'자를 발표되였다. 각급 학교수는 1962—1963 학년도에 1,501 개, 학생수는 16만 612 명, 교원은 3,612 명이였다.

세쿠 투레 대통령은 예술과 교육에서의 대중의 역할과 기네 예술의 방향에 언급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 기네에서의 예술은 반드시 해방과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사상을 반영하여야》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과거를 알고 기네 혁명이 요구하는 미래를 더 잘 개척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병원 침대 수 1962년에 6,843 대였다.

【출판】 신문—《호로야》 (민주당 기관지)

방송—기네 방송국

시에라 레온

Sierra Leone

【면적】 7만 2,326 km²

【인구】 269만 명(1963년)

주민들은 멘데족, 템네족 (이상 주민의 60%)을 비롯한 13 개 종족과 구라파인, 아세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 프리타운 (주민 10만 명)

정 치 15 세기 중엽, 뽀르뚜갈인의 침입에 뒤'이어 화란인, 영국인이 기여들어 노예 장사를 하였다. 영국은 1888년 프리타운을 포함한 연해 지역을 식민지로, 1896년에는 내륙 지역들을 《보호령》으로 선포함으로써 이 나라를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 통치 기간 시에라 레온 인민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5년 철도 로조의 창립에 뒤'이어 기술자 동맹 로조 및 운수 로동자 로조가 조직되였으며 그 지도 밑에 진행된 1955년 2월 프리타운 로동자들의 파업은 무장 봉기로 발전하였다. 1958년 이후부터는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이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에 궐기하였다.

장기 간에 걸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4월 20일—5월 4일에 진행된 시에라 레온 《제헌 회의》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에서는 독립 후에 영국과 《호상 협조 및 방위 조약》(시에라 레온에 영국의 공해군 기지 건설)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1961년 4월 27일 시에라 레온은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영국인 총독이 계속 있다) 1961년 5월 5일에는 미국과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7월 4일 정부는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남아프리카와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1963년 2월에는 앙골라를 비롯한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뽀르뚜갈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회】 의원수는 62 명. 1962년 5월 28일 독립 후 첫 선거에서 인민당은 28 석, 민족 인민당, 진보 독립 운동은 20 석, 무소속은 14 석 차지하였다.

【정부】 1964년 6월 수상 밀론 마르가이가 사망한 후 그의 동생 알버트 마르가이가 수상으로 취임. 외상 로제르스 라이트

【정당,사회 단체】 **인민당** (집권당) 1958년 9월 창건. 지도자 알버트 마르가이 **민족 인민당**(1960년 3월 25일 인민당에서 분리하여 창건) **진보 독립 운동, 로조 리사회**

경 제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종려유, 락화생, 생강, 벼 등이며 주요한 식량인 쌀은 1963—1964년에 약 32만 톤 생산되였다(벼 파종 면적은 30만 헥타). 지하에는 품위 높은 철, 크롬, 금강석(1962년에 260만 7천 카라트 생산, 세계에서 유명한 금강석 산지의 하나) 철, 보키사이트 등 자원이 풍부하다.

1963년에 철광석은 210 만 톤, 보키사이트는 1964년에 3만 톤 채굴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담배, 맥주, 기름, 정미, 가구 공장 등이다. 1964년 초에 이스라엘 회사에 의해 년산 5만 톤 능력의 세멘트 공장, 스위스 회사에 의해 70만 켤레 생산 능력의 신발 공장이 전설되였다.

1964년에 전력 생산 능력은 1만 3,900 키로와트이다. 1964년 8월에 민족 화페로 레온을 발행하였다. 1 레온=10 영국 쉴링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 철광, 크롬광 등 광물 (1963년에 수출의 83%) 과 종려씨, 코코아, 커피등 농산물이다.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기계 설비, 직물, 차량, 석유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1963년 수입의 81.2%, 수출의 42.9%), 화란, 서독, 미국, 일본 등이다. 특히 최근 년간 미제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장려하고 있다. 1962년 9월 20일 정부는 10 개년 개발 계획 (1962/63—1971/72) 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예견된 투자 총액은 1억 6,400만 파운드인바 정부는 이 금액을 주로 외국 자본으로 해결할 것을 예견하였다. 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1964년 5월에 정부는 10 개년 계획을 재검토하여 5 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성명하였다.

리베리아

(리베리아 공화국)

Republic of Liberia

【면적】 11만 1,400 km²

【인구】 275만 명 (1962년)

【수도】 몬로비아 (7만 명)

정 치 리베리아는 《미국 식민 협회》의 해방 노예들이 와서 건립한 흑인 공화국이다. 정치 체제는 미국식이다. 1847년 7월 26일 독립은 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실권은 전체 인구의 1% 밖에 안되는 《미국 식민 협회》의 해방 노예의 후손들이 쥐고 있고 토착 흑인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다. 1955년에야 비로소 정부는 토착 아프리카인들도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공포하였다.

1961년 5월 31일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정치,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다.

1961년 9월 3만 명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체포된 로조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대파업을 일으켰는데 이 파업으로 수

도 몬로비아는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

수차 (1955년, 1961년 9월, 1963년 2월)의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1964년 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암 타브맨이 또다시 재선되였다. 1964년 8월 21—22일 수도 몬로비아에서 서아프리카 국가 및 정부 수뇌자들의 지역 회의 (회의는 리베리아, 기네, 상아 해안, 시에라 레온 정부 대표들의 참가 하에 이 4 개국들 간의 자유 통상 지대 창설 문제 토의)가 진행되였다.

【국회】 최고 립법 기관이다. 상하 량원제. 상원 의원은 10 명, 임기는 6년이고 하원 의원은 39 명, 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흑인에 한한다.

【정부】 1964년 1월 3일 정부 개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정부 성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윌리암 바사나라트 사드라취 타브맨 (194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련임), 국방상 브류에르

【정당, 사회 단체】 **진정 독립당** 1869년 창립. 예속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리베리아의 유일당이다. 당수 윌리암 타브맨. 기타 정당들은 1955 년에 금지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며 주요 경제 명맥은 미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 1 위), 커피, 종려, 바나나, 락화생, 코코아 등이다. 고무 생산은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그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의 《파이아스톤 다이아 및 고무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매장량 3억 3천만톤), 금강석, 망간, 흑연, 보키사이트, 우라늄, 동, 아연, 운모 등이 있다. 철광석의 탐사권과 채굴권은 미국의 《리베리아 광업 회사》와 《리베리아 미국 스웨리예 광업 회사》가 틀어쥐고있다. 공업은 거의 없다. 통화는 미국 딸라이다.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43년의 1,700만 딸라로부터 1958년에는 3억 5,800만 딸라로 증가하였다. 1962년 현재 리베리아의 부채는 1억 1,800만 딸라이다.

주요 수출품은 고무, 철광석 등이고 일체 식료품은 수입하고 있다.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벨지크, 화란, 영국 등이다.

인민 생활은 매우 빈곤하다. 주민 5만~7만 5천 명에 1 명의 의사가 차례질 뿐이며 마라리아 환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고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10%에 불과하다.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국어는 영어이다. 종교는 천주교이다.

상아 해안

(상아 해안 공화국)
Republic of the Ivory Coast

【면적】 32만 2,500 km²

【인구】 366만 5,000 명(1963년) 바울레, 크루, 말린케 등 수많은 종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구라파인이 2만 5천 명 정도 있다.

【수도】 아비쟝 (주민 약 25만 명)

정 치 15 세기부터 뽀르뚜갈, 에스빠냐, 화란, 영국이 상아 해안에 침입하여 노예 무역과 상아 장사를 하였다. 1887—1889년에 프랑스에 강점되여 그 식민지로 되였고 1904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59년 5월 상아 해안은 다오메, 니제르, 상부 볼따와 함께 4 개국 《협상 회의》 (이 나라들의 대내외 정책을 일치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략탈을 용이하게 하려는 기도 밑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에 가입하였다.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하여 상아 해안은 1960년 8월 7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961년 4월 24일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아 해안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예속적인 《협조 협정》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1961년 5월 31일 국민 의회에서 처음으로 군대 창건 법안을 채택하였다. 1963년 2월 상아 해안 정부는 18 세 이상의 모든 남녀 공민들에게 적용되는 《강제로동법》을 채택하였다. 상아 해안은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은 70 명,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현 정부는 1963년 9월 10일 성립.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보아니, 외상 카밀레 알리알리

【정당, 사회 단체】 **상아 해안 민주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이며 집권당. 당수 펠릭스 우푸에 보아니, 기관지 《프라테르니테》 **민족 해방 위원회** 1958년 9월에 성립. 상아 해안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 **통일 로조 련맹** (1959년 성원 12만 7천 명)

경제, 사회 주민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1963—1964 년도에 20만 1천 톤 생산, 생산량에서 아프리카 제 1위, 세계 제 3 위), 코코아 (1962—1963 년도에 9만 톤 생산, 세계 제 3 위), 바나나, 종려, 벼, 옥수수, 목화, 목재 등이다.

이 나라에는 금강석 (1962년에 28만 3,900 카라트 생산), 망간, 석유, 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공업은 발전되지 못 하고 다만 방직, 담배, 양주, 커피, 코코아

등 가공 공장이 약간 있을 뿐이다.

공업, 은행, 대외 무역은 아직도 프랑스 자본에 장악되여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석유 채취업을 비롯한 일련의 기업소들에서 미국 자본은 30~5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목재, 바나나 (이상의 4 개 상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고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 미국, 이딸리아, 서독 등이다. 1963년에 프랑스는 상아 해안의 수출에서 48%, 수입에서 66%를 차지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빈곤하다. 학령 아동의 30%가 학교에 다닐 뿐이며 병원은 3 개이다. 상아 해안은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용한다.

상부 볼따

(상부 볼따 공화국)
Republic of the Upper Volta

【면적】 27만 4,000 km²

【인구】 440만 4,000 명(1962년)

기본 주민 모시족을 비롯하여 보보족, 구루시족, 로비족, 만데족이 있다.

【수도】 와가두구 (주민 6만 3,000 여 명)

정 치 19 세기 후반기부터 프랑스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09년에 이 나라 식민지로 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상부 볼따 인민의 투쟁 결과 1958년 12월 11일 상부 볼따는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고 1960년 8월 5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1년 4월에는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협조 협정》 (1961년 4월)을 체결하였다. 상부 볼따는 4 개국 《협상 회의》 참가국 (상아 해안 참조) 이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예속적인 관계는 거부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공동 방위》 체계에 참가하지 않았다.

1962년 3월 대통령은 자국에서 프랑스 군대가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상부 볼따 민족군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3년 9월 17일 상부 볼따 정부는 남아프리카와 뽀르뚜갈의 비행기가 자국 령토 상공을 나는 것을 금지하였다.

상부 볼따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성원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75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모리스 야메오고

【정당, 사회 단체】 볼따 민주 통일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 지부이며 집권당이다. 당수 모리스 야메오고

흑아프리카 로동자 총련맹 상부 볼따 지부 1957년 성립, 1960년 6월 《볼따 재편성 운동》이 련합됨, 상업 도시에서 영향력이 크다.

전국 로조 련합회 (1960년 7월 성립)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며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이다. 전체 경작지의 90%에 해당하는 166만 헥타의 토지가 식료 작물 재배에 돌려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수수, 기장, 옥수수, 벼, 락화생 등이다.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프랑스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망간, 동, 우라늄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공업으로는 기름 공장을 포함하여 약간의 가공 공장들이 있을 뿐이다. 전력은 1962년에 770만 키로 와트시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가축 (수출의 40% 이상), 수산물, 목화, 락화생, 기름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 (수입의 71%), 가나(수출의 50% 이상)이다.

전체 학령 아동의 6%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용한다. 의사는 주민 7만 7천 명에 1 명이 차례진다.

가 나

(가나 공화국)
Republic of Ghana

【면적】 27만 8,780 km²

【인구】 750만 명 (1965년 1월)

아산티족, 판티족, 에웨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아크라 (주민 39만 명)

정 치 15 세기 말부터 화란, 뽀르뚜갈 등 서방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 온 황금 해안 (오늘의 가나)은 1844년에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가나 인민들은 민족적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1807—1901년 간에 여덟 차례에 걸치는 대중적인 반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8년에는 영국 상품 배격 투쟁을 1 개월 간 계속 전개하였다.

독립과 자유를 위한 가나 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54년 4월에 《자치》가 실시되였다. 1957년 3월 6일 황금 해안은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가나로 개칭하였다. 동시에 영국 후견령 또고 (또고의 서부)가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0년 4월에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느크루마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60년 12월 가나는 기네, 말리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 동맹》을 형성하고 1961년 1월에 카사블랑카 헌장에 조인하였다. 1963년 1월 13일 가나는 또고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민족 회의】 1원제이며 의원 수는 112 명 (10 명의 녀성 의원들을

포함하겠금 법적으로 규정)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민족 회의 의원은 1957년 7월에 선출되였으나 국민 투표로 임기를 1965년 7월 1일까지 연장하였다.

의장 제이. 아르. 아시예두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에는 13 개 성과 2 개 위원회(국가 계획 위원회, 검열 위원회)가 있다. 현 내각은 1962년 9월에 개조되였다. 대통령 크와메 느쿠루마, 외상 코조 보치오, 국방상 코피 바아코, 내상 아.인쿰사

【정당, 사회 단체】 인민 대회당 가나의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1949년 6월 12일에 창건, 이 당은 범 아프리카주를 지도적 사상으로 하며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당원 수 250만 명, 위원장 겸 총비서 크와메 느크루마.

사회 단체들로서 인민 대회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로동 조합 대회**(서기장 존 테테가), **전국 협동 조합 평의회, 농민 련합 리사회, 녀성 전국 리사회, 청년 선구자, 전국 학생 동맹, 전국 청년 운동, 청년 개척자 단체** 등이 있다.

【주요 사건】 1964년 1월 2일 아크라에서 미제가 꾸민 느크루마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 아메테웨테는 대통령 관저의 이전 호위 경관이였다. 그는 법정에서 느크루마 대통령을 암살하는 대’가로 5,600 딸라의 현금 보수와 미국에서의 무료 고등 교육을 받을 담보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2월 4—5일 수도 아크라에서 1 천 명의 시민들은 미제가 국내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느크루마가 체포되였다》는 류언 비어를 퍼뜨리며 국내 반동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데 항의하여 반미 시위를 단행하고 가나에 체류 중인 미국 《평화군》 성원들을 축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가나 정부는 2월 8일 4 명의 양키를 포함한 6 명의 서방 《교수》들을 추방할 것을 결정한 데 뒤’이어 주순에는 《평화군 139 명(118 명의 중학교 《교원》과 21 명의 지질 《학자》)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 24—31일에 헌법 수정을 위한 국민 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 결과 등록된 투표자 278만 7,464 명 중 277만 3,920명이 헌법 수정을 찬성하였으며 2월 29일 민족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수정된 헌법은 인민 대회당을 가나의 유일당으로 할 것과 최고 재판소 및 고등 재판소 판사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였을 때, 병으로 앓거나 외국 려행을 할 때 또는 대통령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위원회(3 명으로 구성)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3월 19일 느크루마 대통령은 가나의 중앙 지역 추장 의원 의장 아킨 쎅스, 인사 위원회 위원장 코누아, 크와메 느크루마 명칭 대학 학장 코드워 애티손을 대통령 위원회 성원으로 임명하였다. (임기는 1965년 3월 5일까지)

10월 1일 민족 회의는 가나를 자급 자족하는 나라로 만들 데 대한 느크루마 대통령의 공업화 계획 수행 착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느크루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5월 24일의 방송 연설에서 아프리카에서 련합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 2 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를 1965년 7월에 까히라에서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7월 15일 가나와 상부 볼따 대표들은 아프리카 통일 기구 각료 리사회 충정치 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량국의 국경선을 비군사화하고 국경 문제를 조정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9월 22일 가나 대통령 크와메 느크루마 대통령은 영국 수상 흄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로데시아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은 남로데시아에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아프리카인의 다수가 망라된 정당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나 정부는 《오직 백인들과 소수의 아프리카인들만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 민주주의적인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남로데시아가 독립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0월 7일 느크루마 대통령은 까히라에서 열린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도전해 나서야 한다. 식민주의는 이제 종말을 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제국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빈궁과 부귀 간에,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그들의 진보와 발전을 반대하는 세력 간에 공존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경히 주장하여 나섰다.

12월 16일 밤 가나 종합 대학 학생들은 가나 주재 미국 대사 쥬니어가 이 대학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여 들었을 때 꽁고(레)에 대한 미국, 영국 및 벨지끄의 침략에 항의하여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다.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가나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경제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농업에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종사하며 수출의 77%는 농산물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금, 금강석, 망간, 보키사이트 등이다.

독립 후 가나 정부는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던 코코아와 기타 농산물의 무역, 전력 생산, 철도, 항공, 체신 부문들을 국가의 통제 하에 넣었으며 국영 회사를 창설하였

다. 1962년에 국가 경리 형태 부문의 로동자는 전체 로동자의 63.2%였다. 협동 경리 형태의 발전도 큰 의의를 가진다. 1963—1964 재정 년도에 경제 발전을 위하여 4,450만 가나 파운드를 투자하였다(예산 지출 총액은 1억 4,400만 가나 파운드).

공업에서는 광업이 위주로 되여 있다. 1963년에 금은 92만 1,300 온스(1 온스는 28.3 그람), 금강석은 320만 8천 카라트(1 카라트는 0.205 그람), 보기사이트는 30만 9,400 톤, 망간은 40만 1천 톤 생산되였다.

독립 후 가공 공업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년 3만 톤 능력의 제강소를 비롯하여 목재 가공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 석유 공장, 세멘트 공장, 코코아 가공 공장, 맥주 공장, 성냥 공장, 조선소들이 건설되였다. 과거 자그마한 어촌이였던 테마시에는 년산 120만 톤 능력의 석유 가공 공장을 비롯하여 60여 개의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전력 기지 창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볼따강 발전소(능력 76만 8천 키로와트) 건설과 길이 630 메터 언제 공사(1965년 2월 8일 준공식 진행)가 진행되고 있다. 1962년에 전력 생산은 4억 3,250만 키로와트시였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업이다. 독립 후 가나는 과거 식민지 통치 시기에 코코아 생산에만 주력하던 농촌 경리의 기형성을 극복하고 벼, 조, 옥수수, 채소, 고무, 바나나를 재배하는 등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4년에 농촌에는 105 개의 국영 농장과 1,456 개의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있으며 국영 농장들에서는 옥수수, 감자, 락화생 등을 3만 438 톤 생산하였다.

벼 재배 면적은 1963년의 3,600 에이커에서 1964년에는 5,600 에이커(1 에이커는 약 0.45 헥타)로 확장되였고 코코아 생산량은 1957—1958년의 20만 7천 톤에서 1962—1963년에는 39만 6천 톤으로 늘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2 개의 유지용 종려 나무 재배원이 있으며 식민지 통치 시기에는 재배할 수 없던 것으로 간주하던 사탕수수와 목화도 재배하고 있다.

산림 자원이 풍부하며 원목 년 생산량은 180만 립방메터이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수출액의 60~70%), 목재, 광물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설비, 식료품 등이다.

화폐 단위는 가나 파운드(1가나 파운드=20 쉴링=240 펜스)이다.

1964년 3월에 경제 발전 7 개년(1964—1970) 계획을 채택하였다. 계획은 농업과 공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계획 기간에 투자액은 10억 1,600만 가나 파운드이다(그중 국가 투자 47%, 사자본 및 외국 자본 53%). 계획에서는 농업 생산을 50%, 공업 생산을 거의 5 배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사회, 문화 1963년 말 현재 37개의 정부 관리 병원과 32 개의 정부 협조 병원이 있으며 침대는 6,500 대이다. 농촌 진료소는 46개 있었다. 의사는 1951년의 156명에서 2천 명으로 늘었다.

1963—1964 학년도에 인민 학교 6,792 개, 중학교 1,739 개, 고급 중학교와 전문 학교 74 개가 있었으며 학생 수는 독립 전의 2 배로 늘었는바 인민 학교 학생은 78만 9천여 명, 중학생은 24만 4천 명, 고중 및 전문 학교 학생은 2만 6천 명이였다. 1963년에 대학은 3 개, 대학생은 2,500 명이였다. 가나 정부는 1962년에 인민 학교와 중학교들에서 무료 교육 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인민 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였다.

독립 후 창설된 문화 예술원에는 박물관, 예술관, 전람관, 동물원 및 독서실이 설치되여 있다. 이 문화 예술원은 가나와 아프리카에서의 전통적인 인민 예술과 문화를 부흥 발전시키고 있다.

또 고

(또고 공화국)

Republic of Togo

[면적] 5만 6,600 km²

[인구] 158만 6,000 명(1963년) 다민족 국가로서 에웨족, 미나족, 반투족, 하무돌족 등이 있다.

[수도] 로메(주민 10만명, 1963년)

정 치 1844년 또고는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4년 8월에 영국은 또고의 서부를, 프랑스는 동부를 강점하였다. 1946년 12월에 또고는 영국과 프랑스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프랑스 후견령 또고(동부)는 1956년 9월에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60년 4월 27일 독립하였다. 영국 후견령 또고(서부)는 1957년 3월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1년 4월 총선거에서 실바누스 올림피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올림피오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몬로비아 회의 조직을 발기하였다.

1963년 1월 13일 군사 정변으로 올림피오는 암살되고 니꼴라스 그루니쯔키(올림피오의 형)가 정권을 장악하고 아프리카—말가슈 동맹과의 제휴를 선포하였다.

1964년 4월 12일 또고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 및 기술 협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국민 의회] 현 국민 의회는 1963년 5월 5일에 선거되였다. 의석 수는 52 석이며 그 임기는 5 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5월 15일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내상, 국방상 니꼴라스 그루니쯔키

1963년 5월 10일 취임), 외상 죠르쥬 아폐도 아마

【정당, 사회 단체】 **또고 인민 민주 동맹** 당수 니콜라스 그루니쯔키, **또고 통일당** 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간부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한다. **《쥬벤토당》**적극적인 《자립 정책》의 실시와 《아프리카 합중국》의 창건을 주장한다. 당수 이나니 산토스 **또고 인민 운동, 또고 전국 로조 련맹**

경 제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가경지는 211만 헥타이나 경지 면적은 그것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목화, 코프라, 옥수수, 락화생, 종려 등이다.

공업으로는 약간의 타면 공장과 착유 (종려유 생산)공장이 있을 뿐이다.

또고는 린광 (매장량 5,000만 톤)을 비롯하여 철광, 보키사이트, 크롬, 흑연, 석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코코아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이다.

다 오 메

(다오메 공화국)

Republic of Dahomey

【면적】 11만 5,800 km²

【인구】 225만 명 (1963년)

에웨족, 요르바, 풀베족등 30여 종족이 살고 있다.

【수도】 뽀르또노보 (주민 약 6만 명)

정 치 15세기 말부터 화란, 영국, 프랑스 등 구라파인들의 노예 시장으로 되였다. (식민주의 자들은 그 당시 다오메와 또고를 합쳐서 《노예 해안》이라고 불렀다) 1900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58년 12월 드 골 헌법에 의하여 《프랑스 공동체》 내의 한개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었다.

인민들의 장구한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1960년 8월 1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8월 1일 다오메 정부는 인민들의 지지 밑에 코로누 서쪽에 있는 웨이다 성새 (성새 내에는 330여 년 전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이 노예 매매를 하던 중요한 거점의 하나인 《산 죤슨 요새》가 있다)를 접수하였다.

1963년 10월 28일 군사 정변으로 마가 정권이 전복되였다. 1964년 3월 동북부의 파라쿠 지방에서 반정부 폭동이 발생하였으나 진압되였다.

1964년 10월 28일 코로누에서 마가 정권을 타도한 날인 《민족 재생의 날》을 기념하는 시위와 열병식이 있었다.

1964년 6월 다오메 외상은 기자와의 담화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립된 인종주의 제도를 단호히 규탄하고 아프리카 통일 기구와 유엔에서 다오메 대표들은 뽀르뚜갈의 억압 하에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령토들을 완전히 해방할 것을 견결히 주장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1964년 11월 24일 다오메 정부는 콤뮤니케를 발표하고 꽁고(레)의 스탠리빌에 벨지크 군대가 기여 든 것은 《꽁고 인민에 대한 변명할 여지 없는 침략》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1964년 9월 8—1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다오메를 방문하였다.

1964년 9월 25일 다오메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동북부 주 행정 중심지인 파라쿠시에 있는 프랑스 군사 기지가 철폐되였으며 9월 26일에는 다오메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의 마지막 부대가 철수하였다.

【대통령】 수루 미간 아삐띠(1964년 1월 19일 선거에서 선출)

【국민 의회】 1964년 1월 19일 총선거에서 성립. 의원 수는 72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월 19일 수립. 수상 쥐스땡 아호마데그베, 외상 가브리엘 로제스

【정당, 사회 단체】 **다오메 통일당** 1963년 12월 21일 총비서 가브리엘 로제스

경제, 사회 원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 명맥은 프랑스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종려 (총경지 면적의 50% 이상이 종려나무 재배지로 되고 있으며 그것의 년 생산량은 2만여 톤이다), 목화, 락화생, 벼, 바나나 등이다.

지하 자원은 개발되지 못 하고 있으며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이 몇 개 있다.

주요 수출품은 종려유와 종려씨이며 그 수출액은 이 나라의 년 수출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이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29%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 련방 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면적】 99만 3,500 km²

【인구】 5,565만 4,000 명 (1963년 말)

다민족 국가로서 북부에 주로 호싸족, 동부에 이보족, 서부에 요르바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300여 개의 종족이 있다.

언어는 150여 종이나 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호싸어 및 요르바어이다.

【수도】 라고스 (주민 35만 명)

정 치 15 세기 이래 300년간 나이제리아는 뽀르뚜갈, 영국, 에스빠냐, 프랑스, 화란 등 나라 노예 상인들의 노예 시장이였다. 1861년 라고스를 점령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점

차 그 세력을 확대하여 라고스 지역 일대를 《보호령》으로 선포하였고 1914년에는 나이제리아의 전 령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인민들의 투쟁으로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 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국민 투표 결과 영국의 후견령이던 북부 까메룬이 나이제리아에 편입되였다.

1962년 1월 21일 나이제리아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1960년 5월의 예속적인 《방위 협정》을 폐지하였으며 1932년 8월 22일에는 나이제리아의 석유를 략탈하던 영국 독점체들을 청산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963년 10월 1일 나이제리아는 련방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나이제리아는 자체의 헌법을 가진 북부, 동부 및 서부의 3 개 자치 지역들로 련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주에는 2원제 주 의회가 있으며 영 련방에 계속 남아 있다.

1964년 3월 20일 나이제리아 련방 정부는 탄가니카 군대의 반영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한 영국군과 교체할 1 개 대대의 군대를 탄가니카에 파견하였다.

6월 1일 나이제리아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개시된 약 100만의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거의 모든 도시를 휩쓸었으며 기본 생산 부문들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2 주일 간에 걸친 총파업은 정부가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끝났다.

8월 1일 나이제리아의 동북 지역에서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종족들 간의 충돌에서 1천 여 명이 사망하였다.

8월 9일 나이제리아 련방 정부는 국내 민족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 회사들이 소매 상업과 도매 상업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4년 12월 7일 대통령 아지키웨가 국회 해산 법령에 서명하였다. 그리 하여 선거는 1964년 12월 30일에 진행되였다. 북부 인민 대회당은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 민주당 및 그리 중요하지 않은 기타 정당들과 련합하여 민족 동맹을 형성하고 12월 30일의 련방 의회 선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공민 민족 회의는 행동파 북부 진보자 동맹 (북부의 야당이며 공민 민족 회의의 오랜 동맹자) 및 중부 지대 련합 대회 (북부의 야당이며 행동파의 오랜 동맹자) 등과 함께 련합 진보 대동맹을 형성하고 민족 동맹을 반대하여 12월 30일 총선거를 배격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진행된 총선거는 북부 및 서부 각 주에서 투표가 30일에 끝났으나 동부, 중부 및 라고스시에서는 련합 진보 대동맹의 선거 반대 지령에 따라 거의 완전히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 느남디 아지키웨 (1963년 10월 1일 련방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련방 의회】 상하 량원제이다. 상원은 44 석 (3 개 주에서 각각 12 명, 라고스에서 4 명, 총독이 4 명을 임명), 하원은 312 석 (북부주 167석, 동부주 70 석, 서부주 57 석, 중앙 서부 14석 라고스 련방 지역 4석) 이며 임기는 5 년이다.

【정부】 1965년 1월 7일 17 명 (나이제리아 민족 동맹 출신 13 명, 련합 진보 대동맹 출신 2 명, 기타 2 명) 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아부바카르 타파와 발레와

【정당, 사회 단체】 **북부 인민 대회당** (NPC) 1951년에 조직된 북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며 나이제리아에서 제일 큰 정당이다. 봉건 령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영국 및 미국과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하고 있다. **공민 민족 회의** (NCNC) 1944년에 성립된 나이제리아 및 까메룬 국민 회의가 개칭된 것이다. 동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며 민족 부르죠아지와 부농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행동파** 1951년에 정식 설립된 서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며 봉건 령주와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영 련방에 남아 있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족 민주당** 1962년에 구 행동파 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당, 1964년 12월 30일의 총선거를 지지. **북부 진보자 동맹** 북부의 야당이며 나이제리아 공민 민족 회의의 오랜 동맹자이다. 당수 아미누 카노 **청년 대회당** 1961년 가을 라고스에서 제 1 차 대회를 진행. 당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나이제리아의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 당은 근본적인 사회 경제 개혁의 실시, 봉건 잔재의 청산, 국영 쎅또르의 강화,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농당** 1963년 4월 16일에 창건, 이 당은 첫 성명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그의 나이제리아인 주구들과 투쟁한다》고 지적, 지도자 툰지 오테그베예 **로조 대회**, **청년 대회**, **전국 학생 동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종려유 (생산량에서 세계 제 1 위), 코코아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2위), 락화생 (1962—1963 농업 년도에 87만 2천 톤 생산), 담배, 목화, 고무, 바나나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콜룸바이트 (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약 75%), 주석, 석유, 석탄, 탕그스텐, 금, 은, 연 등이 있다.

1962년에 가공 공업은 국민 총생산액에서 8%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석유는 380만 톤, 1962년에 주석은 8,200 톤, 전력은 78만 6천 키로와트시, 석탄은 63만 4천 톤 생산되였다.

독립 직전에 나이제리아에 대한

영국의 사 자본 투자는 1억 4천만~1억 5천만 파운드였다. 외국 투자액은 1960년에 2,400만 파운드, 1961년에는 3천만 파운드였다.

1962년에 나이제리아는 스터링 파운드 본위제로부터 금 본위제로 넘어갔다. 1 나이제리아 파운드는 금 2.48828 그람이다. 나이제리아 정부는 6 개년 계획(1962—1968) 수행에 필요한 투자 20억 딸라 중에서 근 절반을 외국 자본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1964년에 2,070만 딸라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나이제리아에는 5 개의 종합 대학, 3 개의 기술 대학, 22 개의 전문 학교, 514 개의 중학교, 317 개의 사범 학교와 약 200 개의 병원과 산원이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95%이다.

니 제 르

(니제르 공화국)
Republic of Niger

【면적】 118만 8,900 km²

【인구】 31[illegible]만 7,565 명(1964년) 송가이, 제르마, 하우자족 등 흑인이 인구의 4 분의 3을 차지하며 그 외에 아랍계 족이 있다.

【수도】 니아메(주민 5만 2,000명)

정 치 19 세기 초부터 니제르에 침입하기 시작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908년에 니제르의 전 령토를 프랑스령 서 아프리카에 통합하였다.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터 번지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957년 이른바 해외 령지 《기본법》에 기초하여 니제르에 《반 자치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1958년에는 니제르를 다시 《프랑스 공동체》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1960년 8월 3일 니제르는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니제르는 1961년 2월 11일 《프랑스 공동체》에서 탈퇴하고 그 해 4월에는 빠리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4 개국 협상 회의 (상아 해안, 니제르, 상부 볼따, 다오메)에 참가하여 프랑스와 《협조 협정》 및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니제르는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60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 (1960년 11월 9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정부】 현 정부는 1960년 12월 31일 진보당원으로 구성.

수상 및 국방상 아마니 디오리,
외상 아다무 마야끼

【정당】 **니제르 진보당** 1958년 이래 집권당이다. 당수 아마니 디오리 **니제르 자유당** (사와바당) 반제적인 야당, 1959년에 비법화, 지도자 지지보 바끼리 **니제르 전국 근로자 동맹** (현 정부를 지지)

경제, 사회 주민의 94%가 농업, 목축업에 종사 (절대 다수의 주민은 유목 생활을 한다) 하는 국가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주석, 우라늄, 석유 등이다. 최근 년간에 수도 부근에서 프랑스의 면적보다 넓은 철광 매장 지대가 발견되였다.

독립 후 니제르 정부는 경제에서 국가 부문을 창설하며 락화생의 수매 및 수출을 국가가 장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이다.

1964년에 300만 마리의 소, 700만 마리의 양, 10만 필의 말과 30만 마리의 락타가 있었다.

1964년에 사하라 지대에서의 관개 수리를 위한 일부 지질 탐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수출품은 락화생 (수출 총액의 80%), 가축들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와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식량은 수입하고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하여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6%에 불과하며 주민의 98%는 문맹자이다.

챠 드

(챠드 공화국)
Republic of Chad

【면적】 128만 4,000 km²

【인구】 280만 7,000 명(1963년)

북부에는 프라지어 계통의 하우사족, 남부에는 사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가누우리족, 우르족 등의 유목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구라파인을 포함한 7,000여 명의 외국인이 있다.

인구의 52%가 회교도이며 43%가 배물교도, 5%가 기독교도 이다.

【수도】 포르라미(주민 9만 4,000명)

정 치 19 세기 말까지 바기름, 와다이 등의 왕국이 륭성하였다.

19 세기 중엽부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챠드 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 챠드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속국으로 분할되였다가 1911년에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가 독일의 관할 하에 넘어 가게 됨에 따라 챠드도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패망과 함께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또다시 프랑스의 관할 하에 넘어 갔다.

1921년 챠드의 탈로디 지역 인민들이 프랑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1927년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민족 운동 지도자들과 회담하겠다고 기만하여 400여 명을 살해하였다.

1935년 챠드 인민들은 10여 명에 달하는 식민주의 관리들을 처

단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챠드 인민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1957년 초에 챠드는 프랑스령 해외 령지 《기본법》에 의하여 반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58년 11월 드 골 헌법에 의하여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1일 챠드는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 날 챠드는 대외 정책, 국방, 외교, 재정, 문화,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11월 23일 챠드는 헌법을 발표하였다.

1962년 1월 18일 대통령은 반식민주의 정당들인 아프리카 민족당과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및 기타 정치 단체들을 해산시켰으며 1963년 1월에는 유일당제를 실시하였다. 동년 3월 대통령은 파괴 활동을 하였다는 리유로 정부와 국회 내의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국민 의회를 해산시켰다.

1964년 4월 29일 챠드 국회는 3 개월 이내에 챠드에서 프랑스 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하였다. 국회는 또한 챠드에 있는 프랑스 군사 기지의 철페를 요구하였다.

챠드 정부는 평화적 공존과 쁠럭 불가담 정책을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 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겸 수상 프란수와 롬발바에 (1962년 4월 22일 재선, 국방상 겸임)

【정 당】 챠드 진보당 챠드의 유일한 정당이며 현 집권당이다. 위원장 프란수와 롬발바에

경제, 사회 챠드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남부 지역 주민들에 목화 재배만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농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45만의 농민이 목화 재배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쌀, 락화생 등이다.

목화가 챠드의 수출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목화의 전량은 프랑스의 《적도 목화》 회사가 략탈적 가격으로 수매, 가공 및 수출하고 있다.

축산에 유리한 자연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축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소가 400만 두, 양이 450만 두, 말이 15만 두에 달하여 적도 아프리카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은 지방 원료들을 초보적으로 가공하는 타면, 기름, 정미, 양조, 피혁 공장들이 몇개 있다. 장기간에 걸치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이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한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 가축, 육류, 피혁, 락화생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이다.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철도가 없다.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다.

까 메 룬

(까메룬 련방 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Cameroun

【면적】 52만 270 km²

【인구】 약 500만 명 (1964년)

주민은 반투족 (남부), 세미반투족 (서부), 함족과 셈족의 혼혈종 (북부) 등이 있으며 헌법에는 프랑스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야운데 (주민 5만 7,700명)

정 치 19 세기 후반기부터 독일의 침략을 받아 온 까메룬은 1884년 독일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16년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 강점되였고 제 1 차 대전 후 영령 까메룬과 프랑스령 까메룬으로 분할되였다.

까메룬 인민들은 장기 간에 걸쳐 식민주의 강점군의 철거와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1928—1931년 간에 반식민주의 봉기가 련속 일어 났다. 제 2 차 대전 기간에는 직접 반 파시스트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으로 1946년 12월 유엔 총회는 까메룬을 영국과 프랑스의 후견령으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은 1948년 4월 이 후 더욱 강화되였다. 1955년 4월 인민 동맹을 중심으로 국내의 각 정당들이 까메룬의 통일 독립을 호소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5월에는 프랑스 후견령에서 전례 없는 대파업이 일어났다. 1956년 7월 까메룬 인민들은 첫 무장 투쟁을 개시하였다.

1959년 초에 반식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이 결성 (인민 동맹과 민주당이 련합)되였으며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다. 프랑스령 까메룬은 1960년 1월 1일에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0년 11월 3—6일 간에 까메룬은 프랑스와 《협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는 까메룬에 8만 4,000 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영령 까메룬에서 1961년 2월 11—12일간에 진행된 국민 투표 결과 북부는 1961년 6월 1일 나이제리아 련방에 편입되고 남부는 동년 10월 1일 까메룬공화국에 편입되여 련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10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 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련방 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 아마두 아드죠 (1960년 5월 당선)

【정당, 사회 단체】 까메룬 인민 동맹 1948년 4월 10일에 창건 되였다. 이 당은 주로 농민, 로동자, 인테리들로 구성되여 있다. **까메룬 련맹** (집권당) 1958년에 조직. 북부 지역의 봉건 추장들의 리익

을 대표한다. **통일당, 국민 행동당, 민주당, 사회당, 로조 련맹, 민주 녀성 련맹, 민주 청년 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이다.

주요 농작물은 코코아 (세계 제 5 위), 커피, 목화, 바나나, 락화생, 생고무, 담배, 목재 등이다.

자연 부원은 보키사이트, 금, 주석, 철반토, 석유, 천연 가스 등이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령토의 절반 이상은 열대림이며 유용한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국민 소득에서 공업의 몫은 약 15%이다. 현재 까메룬에는 30~40 개의 제재 공장, 4 개의 타면 공장, 5 개의 정미 공장 등과 기타 가공 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중앙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면적】 61만 7,000 km²

【인구】 132만 명 (1963년) 방기아, 반다, 잔디 등 종족이 있다.

【수도】 방기(주민 8만 2,000명)

정 치 1885년 《베를린 회의》후 프랑스는 소위 《보호 조약》를 체결하여 우방기샤리 (현재의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910년에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11년 이 나라는 독일군에 강점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프랑스는 재차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되였다. 그 때로부터 프랑스는 중앙 아프리카를 저들의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고 말았다.

제 2 차 대전 후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부단히 앙양되였는바 1952년 이 나라 인민들은 적도 아프리카 및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로동자들과 함께 인종 차별 및 강제 로동을 반대하였으며 나아가서 독립을 요구하는 광범한 대중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1957년에는 적도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이 나라 유권자의 80%가 선거를 거부하였다.

우방기샤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1958년 12월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고 나라 이름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1960년 8월 13일 독립하였다.

【국민 의회】 일원제이며 의원은 50 명, 임기는 5년이다.

【정 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현 정부는 1963년 1월에 개조되였다. 대통령 다비드 다코 (1965년 1월 재선), 외상 안뚜왠 기말리

【정당, 사회 단체】 **흑 아프리카 사회 진화 운동** (집권당) 1964년 11월에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유일당으로 되였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프랑스 공동체》 내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을 주장한다. 위원장 다비드 다코 **중앙 아프리카 민주 진화 운동** 프랑스와의 《협조 정책》을 반대한다. 1960년 2월에 비법화되였다. **적도 아프리카 총로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지구 로조 련맹**

경제, 사회 농업국이다. 1961년 국민 총 생산액은 약 283억 7,100만 아프리카 프랑, 그 중 자연 경제는 125억 1,500 아프리카 프랑이다. 경지 면적은 령토의 2.5%인 150만 헥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마니오크(72만 톤), 목화 (1963—1964년에 2만 7천 톤), 커피 (1964년에 1만 3천 톤), 락화생 (6만 5천 톤), 기장 (4만 5천 톤) 등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강석, 금, 철광 (철 함유량 68%), 켈리움, 토리움 등이 있다. 1963년에 금강석은 40만 2,190 카라트 (그 중 81%가 수공업적 채굴) 채굴되였다.

경제는 프랑스의 오랜 통치의 후과로 심한 기형성과 락후성을 가지고 있다.

공업은 독립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공 공업으로는 도자기 공장, 벽돌 공장, 정미, 정유 공장, 마대 공장 및 소형 제련소 등이 있다.

1963년에 전력은 1,730만 키로와트시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 목화, 커피 (이상 3 개 품종은 1963년 수출액에서 48%, 25%, 14.4%를 차지)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다. 1963년에 이 나라 무역에서 수출의 약 60%, 수입의 47%를 프랑스가 차지하였다.

1964 회계 년도에 프랑스에서 받은 《원조》액은 11억 프랑 (2억딸라)에 달한다.

인민 생활은 락후하다.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며 아동 취학률은 28%에 불과하다.

에스빠냐령 기네

【면적】 2만 8,051 km²

【인구】 21만 2,000 명

【행정 중심지】 산타 이사벨 (주민 약 2만 명)

에스빠냐령 기네는 까메룬의 남쪽과 기네만에 있는 여러 개의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1778년 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원시적인 농업과 야생 종려 채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구라파 이주민들은 주로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한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과실 및 채소, 목재 등이다.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면적】 964 km² (산 토메도 824 km², 프린시페도 140 km²)

【인구】 6만 3,337 명 (1958년)

【행정 중심지】 산토메(주민 3,200명)

아프리카의 서해안 기네만에

있는 작은 섬이다. 1485년에 이 섬에 침입한 뽀르뚜갈은 그후 아프리카인들에 의하여 일단 구축되였다가 19 세기에 다시 이 섬을 강점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 정부는 이 섬을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 독립을 주장하는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해방 위원회가 있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바나나 등이다.

가 봉

(가봉 공화국)

The Gabon Republic

【면적】 26만 7,000 km²

【인구】 50만 명 (1962년)

【수도】 리브르빌(주민 2만 5,000 명)

정치 적도 아프리카의 한개 주였던 가봉은 1960년 8월 17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이 날 가봉은 프랑스와 불평등한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가봉의 대외 정책은 《프랑스—가봉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였으며 프랑스는 가봉에서 군대 주둔권과 군사 기지 설치권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프랑스는 화폐 발행과 프랑스 회사의 면세권 등을 탈취하였다.

1964년 1월 21일 레온 므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2월 23일에 새로운 국회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2월 17일 가봉의 일부 군대들이 므바 대통령을 반대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가봉 사회 민주 동맹 지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림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2월 19일 프랑스는 가봉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정변을 진압하고 므바 대통령을 복직시켰다.

가봉에 있는 프랑스인들은 군사 정변이 《미국의 지원 하에 조작》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2월 8일 《미국 대사관 건물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 사격을 가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3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64년 4월 12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므바 대통령은 정변 후인 1964년 2월 24일에 림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통령 레온 므바 (수상, 외상, 내상, 공보 및 관광상을 겸임한다.)

【정 당】 가봉 민주 련맹 (집권당) 지도자 레온 므바 사회 민주 동맹, 가봉 민주 통일당 1958년 성립, 《프랑스 공동체》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한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림업과 광업이다. 특히 가봉의 주요한 경제 자원인 목재는 매년 약 70만 톤 채벌되며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목재의 80%는 합판 가공에 적합한 오꾸메재이며 포르 잔틸에는 현대적인 제재 공장이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망간, 우라늄, 철, 금, 금강석 등이 있다. 우라늄 정광은 1962년에 1,100 톤 생산되였으며 이것은 프랑스의 원자력 공업의 원료로 제공된다. 망간광은 매년 50만 톤, 석유는 7,000 톤 정도 생산된다.

주요 농산물은 목서, 코코아, 사탕수수, 커피, 락화생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 석유 기타 원료와 농산물 등이다. 취학률은 75%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콩 고

(콩고<브> 공화국)

Republic of Congo

【면적】 34만 2,000 km²

【인구】 94만 6,175 명 (1964년 1월 1일)

바우옴비, 바테키, 바코타, 므보치 발라리 등 종족들이 있다.

【수도】 브라자빌(주민 13만 5,632 명)

정치 1875년부터 콩고에 침입하기 시작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880년 9월에 이 나라를 《보호령》으로, 1910년에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에 편입시켰다.

콩고 인민은 오랜 기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1933년부터 콩고의 민족적 영웅 마쪼카가 지휘한 반 식민주의 투쟁은 9년 간이나 계속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하여 콩고는 1960년 8월 15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콩고는 경제, 군사적으로 의연 제국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예속적인 협정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자주권은 심히 유린되여 있었다. 또한 독립 당시 대통령으로 된 제국주의자들의 괴뢰 풀베르 율루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인하여 콩고 인민들의 생활 처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여 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애국적 콩고 인민들과 로동자들은 1963년 8월 대규모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 괴뢰 정부를 타도하고 8월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3년 12월 24일 콩고 민족 회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남녀 평등과 언론, 정치 및 로조 활동의 자유를 담보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다. 의원은 60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장 앙고르 레옹

【정부】 대통령 마쌈바 데바, 수상 파쓰칼 리쑤바, 외상 다비드 가나오, 내상 쥐르멘 비쿠마

【정당, 사회 단체】 민족 혁명 운동당 1964년 7월 2일에 창건. 집권당이며 콩고의 유일당이다. 총비서 마쌈바 데바 콩고 중앙 통일 로조 련맹 1964년 11월 5—8일에 진행된 제 1 차 대회 (창립 대회)

에서 창립. 이에 따라 기타의 모든 로조 단체들은 12월에 해산되였다. 서기장 디알로 아드리사 혁명 녀성 동맹 1965년 3월에 창립 재 인민 친선 협회

【주요 사건】 1963년 8월 반동적인 율루 정권이 타도된 후 반동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인민의 지지를 받는 마쌈바 데바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끊임 없이 책동하였다. 미제는 쏨베 도당을 사촉하여 공고 (브) 반동들에게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공고 정부와 인민은 이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였다.

1964년 8월 26일—9월 9일 공고 국민 의회 특별 회의는 공고 (레)로부터 미국 및 벨지끄의 무기와 탄약들이 비밀리에 공고 (브)에 반입 (8월 중순에 이 무기를 수송하는 데 가담한 13 명의 반동들이 체포됨) 되고 미국의 사촉 하에 쏨베 괴뢰 도당이 공고 (브) 인민을 레오뽈드빌에서 축출한 것과 관련하여 조성된 국내 정치 정세를 토의하였다.

회의는《혁명의 원쑤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인민 재판소 창설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레오뽈드빌에서 귀국하는 공고 (브) 인들을 접수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11월 3일 국민 의회에서 수상 리쑤바는 공고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기의 혁명 위업을 수호하고 나라의 안녕과 평온 및 통일을 유지하며 모든 형태의 반혁명 활동과 임의의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 정부는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하며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64년 3월에 진행된 공고 국민 의회 비상 회의는 《적극적인 중립과 국가적 자주권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조건 하에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광범한 협조를 실현하는 정치 로선》을 채택하였다.

공고는 1964년 3월 친서방적인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수뇌자 회의에서 이 동맹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그 후 이 동맹에서 탈퇴하였다.

1964년 11월 23일 공고 정부는 벨지끄 락하산병들을 공고 (레)로 수송하는 미국, 벨지끄 및 영국 비행기들의 자국 령공 통과를 금지하였다.

1965년 1월 19일 마쌈바 데바는 공고(레) 혁명가들에 대한 지지를 재 천명하면서 자기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원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4년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였다. 8월 15일 혁명 1 주년과 국경절을 경축하는 집회에서 마쌈바 데바 대통령은《사회주의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9월 3—25일간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공고를 방문하였다.

10월 27일— 11월 4일 공고 (브) 국민 의회 의장 앙고르 레옹을 단장으로 하는 공고 국민 의회 대표단, 공고(브) 디아브와 가무단 (11월 3—14일) 이 각각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공고간에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공고 정부는 전 율루 괴뢰 정부가 설정하였던 장 개석 도당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1964년 2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964년 9월 28일—10월 3일 마쌈바 데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10월 2일 베이징에서 량국 간의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 부문은 농업과 림업이다. 주민의 76%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 옥수수, 바나나, 마니오크, 벼, 커피, 코코아 등이다.

이 나라에서는 질 좋고 진귀한 목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목재 수출 (수출 총액의 약 50%)은 이 나라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 은, 동, 철 (매장량 약 1억 톤), 주석, 금강석, 린산염, 원유 등 지하 자원이 매장되여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공업으로는 기름, 정미, 사탕, 어류, 통조림, 식료, 담배, 방직 공장 등이 약간 있다.

혁명 후 정부는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4년 3월 마쌈바 데바 대통령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성된 정세를 고려하여 정부는 개인 및 기타 부문들과의 혼성 경제를 창설하는 데 힘쓰며 국내 및 외국 자본과의 혼성 회사들을 창설하는 방침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던 농산물 수매 기관들을 국영 체계로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업 분야에서 지하 자원을 개발 리용할 목적으로 채굴 공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력량을 돌리며 수년 내에 공업에서만 국영 자본의 비중을 20%로 높일 것을 예견하고 있다.

1964년에 정부는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던 항공 회사들을 국유화하여 《공고 국립 항공 회사》를 설치 (3월) 하고 국영 사회 운수 관리국을 창설 (9월) 하였다.

정부는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1964—1968년의 5 개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쿠이루강 댐》 (발전 능력 75만 키로와트) 건설과 제철, 제강 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뽸르누아르시의 종합적 공업화 계획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혁명 후 정부는 민족 문화의 발전과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4년도에 꽁고에서는 약 20만 명이 교육망에 망라되였는데 그 중 16만 5,000 명은 소학교 학생이며 1만 4,000 명은 중학 및 기술 학교 학생들이고 390 명은 사범 학교 학생들이다.

【출판 보도】 통신—꽁고 (브) 통신사

신문—혁명의 소리 (민족 혁명 운동당 기관지)

카 빈 다

【면적】 7,770 km²

【인구】 4만 6,277 명 (1940년)

카빈다는 꽁고와 앙골라의 접경 지대인 대서양 연안에 있는 뽀르뚜갈 식민지이다.

최근 카빈다에서는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에 카빈다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대시위를 진행하였다. 1963년 초에는 카빈다의 무장한 폭동군이 뽀르뚜갈 군대와 격렬한 무장 투쟁을 진행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은 코코아, 종려, 락화생 등이다.

꽁 고

(꽁고 〈레〉 공화국)
Republic of Congo

【면적】 234만 4,932 km²

【인구】 1,500만 명 (1963년)

【수도】 레오뽈드빌 (주민 38만 9,547 명, 1960년 6월 정부 발표)

정 치 꽁고는 1908년 11월 15일 벨지끄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50여 년간의 완강한 투쟁 끝에 꽁고 인민은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선포하고 국명을 꽁고 공화국이라고 하였다.

독립 후에도 벨지끄는 두 차례의 벨지끄—꽁고 원탁 회의의 결의와 6월 29일에 체결된 량국 간의 《우호, 원조 및 기술 협조 조약》에 빙자하여 꽁고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령역을 의연히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의 주구 솜베를 사촉하여 카탕가주를 장악케 하였다. 1960년 7월 6일 티스빌에 있던 꽁고 정부군 병사들은 꽁고군을 통솔하고 있는 벨지끄 장교들의 축출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7월 8일 벨지끄 정부는 《벨지끄인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꽁고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7월 14일에 진행된 유엔 안보 리사회 회의에서 꽁고에 《유엔군》을 파견할 데 대한 결정을 강압 채택케 하였다. 15일부터 《유엔군》의 간판 밑에 꽁고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이 진행되였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라는 구실 밑에 꽁고에 들어 간 《유엔군》은 벨지끄군과 합작하여 꽁고 정부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주요 도시와 비행장, 항구, 방송국 등을 점령하였다. 미제와 그 괴뢰 대통령 카사부부는 9월 5일 파트리스 루뭄바를 수상직에서 해임하였다. 9월 14일 반동적인 륙군 참모 총장 모부투가 미제의 조종 하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였으며 루뭄바 수상을 비롯한 정부 각료, 국회 지도자들을 연금하였다. 1961년 1월 18일 미제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은 솜베를 시켜 루뭄바 수상과 그의 전우들을 학살케하였다.

1960년 12월 12일 합법적 루뭄바 정부 부수상 안뚜완 기젱가는 스탠리빌을 림시 수도로 하고 자신이 수상 직을 담당하였다. 인민들은 기젱가를 지지하였다. 1960년 말부터 1961년 8월까지 인민들과 애국적 병사들은 《유엔군》과 모부투 및 솜베 도당의 군대들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키부주와 카탕가 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을 통제하였었다.

1961년 8월 2일 아둘라를 수상으로하는 친미 반동 정부가 조작되였다. 아둘라는 《유엔군》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군사적 탄압과 정치적 기만의 방법으로 기젱가의 합법적 정부를 강압 해산시키고 1962년 1월 안뚜완 기젱가를 감금하였다.

애국 력량을 탄압한 미제는 벨지끄, 영국 등 구 식민주의 세력을 내쫓기 위하여 《유엔군》을 시켜 1961년 하반기부터 1963년 초까지 구 식민주의의 앞잡이 솜베 도당을 3 차나 무장 공격케하여 그를 굴복시키고 카탕가를 집어 삼켰다. 이리 하여 꽁고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이 기간에 미제는 꽁고 내정 간섭에 5억 딸라를 탕진하였다.

【대통령】 조세프 카사부부

【국회】 1960년 5월 22일에 구성되였던 국회는 1963년 9월 29일 대통령 명에 의하여 해산되였다.

【정부】 아둘라 정부에 뒤'이어 1964년 7월 11일 솜베 괴뢰 정부가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무, 기획, 대외 무역 및 공보상 모이세 솜베

【정당, 사회 단체】 **민족 해방 리사회** 1963년 민족 운동당과 아프리카인 단결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정당들로 결성되였다. 꽁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본부는 브라자빌에 있다. **《아바코》당** 1948년 카사부부가 창건한 반동적 정당 **《코나카트》당** 1957년 7월 카탕가의 추장들로 조직된 반동적 정당, 당수 모이세 솜베 **전국 로조 련합회, 꽁고 전국 청년 련맹**

【주요 사건】 1964년 1월 하순 레오뽈드빌의 동부 퀼루주에서 반미 반정부 무장 투쟁이 일어 났다. 무장 투쟁은 몇 개월 동안에 급속히 확대되여 광범한 농촌과 주요 도시들을 해방하였다. 인민 무장 력량도 초기의 700 명으로부터 년말에는 3만여 명으로

장성하였다.

인민 무장 투쟁의 타격 앞에서 미제와 아둘라 괴뢰 도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미제는 인민들을 기만하고 무장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7월 11일 미제는 무능하게 된 아둘라 대신에 한 때 그들 자신이 내쫓았던 구식민주의 자들의 앞잡이 쏨베를 《수상》 자리에 들어 앉히고 《민족 화해》의 기만극을 벌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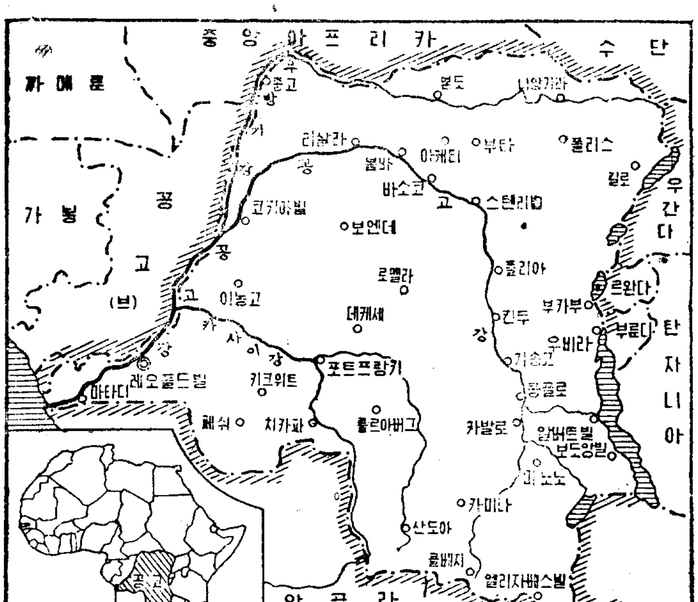
한편 꽁고 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에 못 이겨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이 6월 30일까지 물러 간 후 미제는 자기의 군사 인원들을 《민정 인원》, 군사 고문으로 남겨 놓고 애국적 무장 력량을 반대하는 괴뢰군을 직접 지휘케 하였다. 쏨베의 《화해》 기만극이 파탄되자 미제는 쏨베 도당으로 하여금 애국적 무장 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케 하였다. 쏨베 도당은 미제로부터 더욱더 많은 무기를 받는 한편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벨지끄, 영국 등 나라들에서 백인 고용병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애국적 무장력량에 대한 공격을 발광적으로 벌리었다.

그러나 애국적 무장 력량은 쏨베 괴뢰군의 발광적인 공격을 격파하면서 동부의 킨두, 스탠리빌, 마노노, 알버르빌, 보두앙빌 등 전략적 요충지들을 해방하였다. 서부에서는 광대한 농촌을 해방하였다. 1964년 8월 10일 꽁고 민족 해방 리사회는 성명에서 전국의 3 분의 1을 해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제는 쏨베 괴뢰 도당의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꽁고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간섭에 들어 섰다. 8월 11일 미 국무 차관 해리맨은 쏨베 괴뢰 정부에 대한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증가하기로 벨지끄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 8월 13일부터 미국 군사 인원들과 땅크, 《씨—130》 형 수송기, 《티-28》 형 전투 폭격기를 비롯한 무기들이 대대적으로 꽁고에 공수되였다. 11월 초 꽁고에 벨지끄 정규군을 파견할 데 대한 미, 영, 벨지끄 비밀 회담이 진행되였다. 11월 24일 미제는 12 대의 미 군용기를 동원하여 벨지끄 락하산병 1 개 대대를 스탠리빌에 투입하였다. 벨지끄 락하산병들은 3천 명의 괴뢰군 및 백인 고용병들과 합류하여 스탠리빌을 강점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쏨베 괴뢰 도당은 미제의 사촉 밑에 린접 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강화하였다. 쏨베 도당은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여 꽁고(브) 반동들의 정부 전복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꽁고(브) 거류민들을 추방하였다. 또한 동부 꽁고의 애국적 무장 력량을 진압하기 위한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부룬디에 각종 압력을 가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쏨베 괴뢰 도당의 사촉으로 폭도들이 레오폴드빌 주재 부룬디 대사관을 파괴하였다.

쏨베 괴뢰 도당은 국제적으로도 배격을 받아 고립되였다. 7월에 있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배격을 받았고 10월의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결의에 따라 참가하지도 못 하였다.



경제, 사회

꽁고는 자원이 풍부함으로 《세계 원료 창고》,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매장량에서 동은 약 25%, 코발트는 40%, 공업용 금강석은 90%를 차지하며 기타 우라늄, 보키사이트, 철, 석, 금, 게르마늄, 베릴륨, 망간 등이 있다. 이러한 광물 자원들은 카탕가주에 집중되여 있다.

아프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강인 꽁고강이 전 경내를 흐르고 있어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산림 자원(산림 면적은 전 령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헥터)도 많다.

채광 공업은 발전하였으나 전부 외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

다. 콩고에서 채취되는 광물의 4 분의 3을 외국 독점체들이 략탈해 가고 있다.

미국은 콩고에서 벨지크, 영국의 옛 지위를 대신하여 점차 이 나라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다. 미국은 콩고 최대의 외국 독점 회사인 《유니온 미니에르》의 주권의 20%를 통제하고 있으며 콩고에서 채취되는 코발트의 96%, 주석의 88%, 탄탈과 니오붐의 79%, 금강석의 87%, 망간의 64%, 커피 생산의 32%, 종려유의 26%를 략탈해 가고 있다. 1962년 11월 미국 정부와 아둘라 괴뢰 정부 간에 미국 사자본 및 회사들의 투자를 보호할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3년 콩고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961년의 2 배나 되는 12억 딸라였다. 이 밖에 미국은 《수입 원조》, 《특별 기금》이란 명목의 소위 《경제 원조》로 2억 5천만 딸라를 콩고에 투하하였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은 국민 소득의 4 분의 1을 차지한다. 경지 면적은 1억 3,650만 헥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종려, 야자유, 종려유,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 밖에 차, 삼, 옥수수, 벼 등이 있다.

독립 후 괴뢰 정부는 재정 예산의 4 분의 1 (독립 전의 2 배 이상)을 군사비로 소비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및 농업 원료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산 기계, 설비, 소비품 및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다.

미제의 침략과 략탈로 콩고 인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혹심한 인플레로 물가는 최근 2년 간에만도 평균 6 배 이상 올랐다. 1963년 현재 전체 로력자 수의 50%가 실업자이며 전체 주민의 3 분의 2가 화폐 경제에서 유리되여 있다. 사망률이 높은데 그 중 유아 사망률은 50%나 된다. 대학이란 없고 소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교회의 영향 하에 있다. 원주민의 97%가 문맹자이다.

우 간 다
Uganda

【면적】 24만 3,410 km² (그 중 3만 5,481 km²는 호수와 소택지)

【인구】 701만 6,000 명(1963년)

주민의 대다수는 아프리카인(98%)이고 그 외에 아세아인과 구라파인이 있다. 토착 주민의 기본 용어는 루간다어이며 북부와 동부주에서는 닐로티크어, 닐로하미티크어 및 반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도】 캄팔라 (주민 4만 3,000 명)

정 치 우간다는 식민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의 후과로 5 개의 련방주 (부간다, 앙콜레, 부니요로, 토로 왕국 및 부소가령)와 11 개의 행정 구역으로 구분되여 있다. 그 중 부간다주는 우간다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고 있다.

영국은 1894년에 부간다 왕국을 강점하였고 1896년에는 우간다의 전 령토를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독립을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61년 10월에 있은 우간다 제헌 회의에서 내부 자치를 거쳐 우간다의 독립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 1일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고 10월 9일에는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892년에 영국이 부니요로 왕국을 정복할 때 부간다 왕국이 영국 군대를 방조하여 준 대'가로 부니요로 왕국의 령토 중에서 6 개 주를 부간다 왕국에 넘겨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독립 후 두 왕국 간에는 령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63년 3월 부간다 왕국에서 폭동이 일어 났다. 중앙 정부는 이 지역을 비상 지역으로 선포하고 부간다 왕국에 넘겨 준 지역을 분리시키라는 밤바주와 바콘조족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영국은 우간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목적으로 우간다에서 복무하고 있는 1,200 명의 영국인 관리들을 귀국시키는 경우에는 우간다 정부가 1,200만 영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데 대한 협정을 강압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인들은 계속 우간다에서 총독 및 기타 상급 행정 관리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군대의 장비와 훈련을 비롯한 일체 지휘권을 장악하였었다.

독립 후 우간다 정부는 영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 기관들에 있는 외국인 (주로 영국인)들을 점차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하는 《아프리카인화》를 실시하고 있다. 1963년 9월 국민 회의에서 영국인 총독을 우간다인 대통령으로 바꿀 것을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영국인 상과 성들에 있는 외국인 상설 서기들을 아프리카인으로 교체하였으며 군대 내의 구라파인 장교들을 축소하였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정부는 1964년 4월에 경찰 총감, 7월 1일에는 군 사령관을 아프리카인으로 바꾸었으며 5 명의 영국인 장교를 축출하였다.

1964년 10월 9일 우간다 정부는 독립 2 주년에 제하여 결정을 발표하고 1965년부터 우간다에서 《영 련방의 날》과 《영국 녀왕 탄생일》의 경축을 폐지하며 5.1절을 명절로 기념하기로 하였다.

1963년 2월 21일—3월 3일 간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우간다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방문 기간 량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국회】 국회는 82 명의 의원과 9 명의 특별 의원으로 구성 (82

명은 주민들이 선거하며 9 명은 국회 의원들이 선거한다) 되여 있다.

【대통령】 에드워드 프레데리크 무테사 2세 (1963년 10월 취임)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5월 16일 구성되였고 1964년 4월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상 아폴로 밀톤 오보테, 내상 겸 국방상 펠릭스 오나마와, 외상 오다까

【정당, 사회 단체】 우간다에는 6 개의 정당과 10 개의 사회 단체 및 외국인 어용 단체가 있다.

인민 대회당 (집권당) 1960년 3월 9일 현 수상 밀톤 오보테가 《인민 련맹》, 《우간다 민족 진보당》, 《국민 대회당》의 주요 세력들을 통합하여 조직한 민족주의 정당이다. 이 당은 북부와 동부주에서 지반을 가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나라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경제의 전면적 발전 및 국가 기구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쁠럭 불가담 정책과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당은 유일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원 수 50만 명, 당수 밀톤 오보테

민주당 1956년 창건. 영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대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부간다와 서부주의 일부 주민 계층, 주로 천주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 천주교 조직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이 당은 유일당제를 반대하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것을 주장한다. 당수 베네딕트 끼와느까

국민 대회당 1952년에 창건된 민족주의 정당이며 중소 부르조아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고 있다. 창건 초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3 차에 걸친 당내 분렬로 하여 점차 약화되였다. 당원 수 약 10만명 당수 부씨지까비까

예까당 1961년 11월 창건. 부간다 왕의 이름을 가진 당으로서 부간다 령토에만 국한되여 있으며 부간다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당수 미첼 킨투 (부간다 정부의 수상). 이 밖에 봉건 세력의 지지를 받는 련합 민족당, 아프리카 련맹 등이 있으며 사회 단체로서는 로동 련맹, 로동 조합 대회, 인민 대회당 청년 조직, 국민 대회당 청년 조직, 민주당 청년 조직, 녀성 동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우간다는 주민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국가로서 농업 생산액은 국민 소득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는 국내 봉건 지주들과 외래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작물은 커피와 목화이며 기타 차, 담배, 옥수수, 수수, 기장, 고구마 등이 생산된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주로 목화와 커피 (영 련방 내에서 최대의 커피 생산국의 하나)를 재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목화, 커피, 차 등은 주로 영국인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 목화와 커피의 재배 면적은 농경지의 4 분의 3을 차지한다. 1963년 6월 현재 목화 재배 면적은 64만 4,007 에이커, 1964년 6월에는 99만 451 에이커 (1 에이커는 약 0.4 헥타)였다. 목화는 약 8만 톤, 커피는 14만 톤, 차는 1964년에 7,500 톤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약 350만 두의 대각 가축과 37만 4,000 두의 염소 및 양이 있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 (년 생산량 40만 톤), 철, 동, 탕그스텐, 주석, 금, 연,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이 있다.

전력 공업은 동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가장 발전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제당, 제분, 방직, 제재 공업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광업과 함께 영국, 미국, 카나다 등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우간다 정부는 5 개년 계획 (1961년 7월—1966년 6월 30일)을 실시하고 있다. 5 개년 계획의 투자액은 9천만 파운드이다.

계획 기간에 농업에서는 현존 토지 소유 관계를 보존하면서 영농 방법을 개선하고 기계를 도입하며 농업 경리를 현대화하며 목화 및 커피 생산량을 높이는 동시에 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 예견되여 있다.

우간다 정부는 농촌에서 협동 조합을 장려하고 있는바 현재 35만 명의 주민들이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다. 또한 정부는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기업소 (제분, 차, 제철 등)의 건설, 도로의 개설, 철도 부설, 보건 의료 사업의 발전, 관광 사업의 장려 및 4%의 국민 소득 장성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목화이며 이는 수출 총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일본, 카나다이다.

학령 아동들의 취학률은 20%이다. 전국에 26 개의 병원이 있다.

부 룬 디

(부룬디 왕국)

Kingdom of Brundi

【면적】 2만 7,834 km²

【인구】 300만명 (1964년)

기본 주민은 바후투족 (인구의 75%)이고 기타 와치족, (평균 신장이 2 m로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 피그미족 (평균 신장이 1.3 m로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지만 사냥을 잘한다), 바트와족 등이 있다.

【수도】 우숨부라 (주민 4만 5,000 명)

정 치 16 세기 《므와미》라고 부르는 세습적인 봉건 왕국으로 형성된 이 나라는 독립 전까지 《루안다 우룬디》로 불리워 왔다. 1890년 독일 식민

지로 전락되였다. 1922년 국제 련맹의 결정으로 벨지끄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고 1946년 12월 《유엔 후견령》으로 되었다.

식민지 통치 기간에 이 나라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957년에는 독립을 주장하는 《루안다 우룬디 민족 동맹》이 창설되였다.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고조되여 가자 불안을 느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11월 초 와치족과 바후투족 간에 리간을 조성시켜 대규모의 충돌 사건을 도발해 놓고 《질서》를 《회복》한다는 구실 밑에 2 계단 개혁(《지방 정부》를 수립하고 간접적으로 《의회》를 선거하며 벨지끄의 전면적인 감독 하에 소위 《자치권》을 부여)을 조작해 냄으로써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아 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이 《개혁》을 적극 반대하였다.

1960년 2월 브류쎌에서 진행된 원탁 회의에서 르완다 우룬디 민족주의 정당 대표들은 벨지끄령 꽁고와 함께 6월 30일 독립할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은 1961년 1월 28일 벨지끄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꽁고(레) 인민들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국왕 키게리 5 세를 왕위에서 내쫓고 카이반다를 수상으로 하는 괴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1년 9월 18일 립법 회의 선거에서 통일 민족 진보당이 승리하여 르와가소르가 정부 수상으로 되자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은 반동들을 사촉하여 왕자인 르와가소르 수상을 암살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장기간에 걸친 이 나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 르완다 우룬디 왕국은 르완다와 부룬디의 2 개 나라로 분리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후 부룬디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음모와 투쟁하면서 민족 군대를 창설하였다.

1964년 4월 6일 통일 민족 진보당의 알벤 냐모야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3년 11월 부룬디 정부는 식민지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뽀르뚜갈과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를 반대하여 이 나라들과의 일체 외교, 령사, 경제 및 통상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 8월 수상 냐모야는 레오폴드빌 주재 부룬디 대사관에 대한 습격 사건과 부룬디가 파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쏨베 도당의 비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쏨베 도당에게 손해 배상을 지불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11월 29일 수도 우숨부라에서 꽁고(레)에 대한 미국과 벨지끄의 무장 간섭을 반대 항의하는 군중 시위가 있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또다시 각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1965년 1월 15일 수상 느겐단둠배(1965년 1월 7일 취임)가 수도 우숨부라에서 부룬디 주재 미국 대사관 회계원에게 살해 당하였다.

【국왕】 므와미 므왐부짜 4 세

【정부】 현 정부는 1965년 1월 15일 구성되였다. 수상 죠세프 바미나 (1965년 1월 23일 취임) 부수상 겸 내상 피에르 므포센지, 외상 겸 대외 무역상 죠세프 므바주무티마

【정당, 사회 단체】 통일 민족 진보당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 죠세프 바미나 인민당, 진보 동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목축 국가이다. 아직도 농노제가 남아 있으며 강제 로동이 성행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원시적인 사냥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종족 (피그미족)들이 있다.

농산물은 커피, 목화, 옥수수, 목서, 콩 등이며 가축으로는 소, 양 등이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주석, 월프람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벨지끄 독점체들이 그 채굴권을 쥐고 있다. 공업은 매우 락후하며 제 2 차 대전 후에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 공장이 몇 개 건설되였을 뿐이다.

인민 생활 수준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낮다.

르 완 다

(르완다 공화국)
Republic of Ruanda

【면적】 2만 6,338 km²

【인구】 266만 5,000 명(1960년) 인구의 84%는 바후투족이며 기타 와치족이 있다.

【수도】 키갈리

르완다는 1896년에 부룬디와 함께 독일 식민지로 되였다. 제 1 차 대전 후 벨지끄의 위임 통치령으로, 1946년 12월부터는 유엔 후견령으로 되여 부룬디와 함께 벨지끄의 관리 하에 있었다.

르완다에서는 원래 와치족이 군주제를 실시하고 다수의 바후투족을 지배하였었다. 그러나 1959년 벨지끄의 사촉 하에 바후투족이 폭동을 일으켜 국왕을 내쫓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권을 쥔 바후투족은 1961년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62년 7월 1일 르완다 우룬디는 르완다 공화국과 부룬디 왕국으로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독립 후에도 와치족과 바후투족 간에는 자주 종족 충돌이 있었다. 이리 하여 많은 와치족들이 린접 국가에 피난하였었다.

1964년 1월 피난한 와치족 성원들이 르완다 북부를 습격하였다가 격퇴 당하였으며 바후투족들은 보복 조치로서 르완다에 있는 와치족들을 학살하였다.

2월 12일 민족 동맹 지도자들은 와치족에 대한 대학살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이 사촉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학살 당한 와치족수는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그레고아 와르 카이반다, 외상 라자레느 파카니에

【정당】 파르메후트당 바후투족을 대표하며 벨지크와 밀접한 련계를 가진 정당, 당수 카이반다 민족 동맹 와치족을 대표한다.

【경제】 전 령토가 고원으로 되여 있어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은 커피, 목화 등이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왕국)

Empire of Ethiopia

【면적】 118만 4,320 km² (그 중 에리트리아 12만 4,320 km²)

【인구】 약 2,200만 명 (그 중 에리트리아 117만여 명, 1960년 추산)

대다수는 사미테족, 하미테족과 아프리카 혼혈족이다. 언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디스 아베바 (주민 40만 명)

정 치

에티오피아는 립헌 군주국이다. 국가의 요직은 왕족 일파가 독점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기관 (외교, 재정 포함)에는 미국인 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이 나라에는 정당도 없다. 1950년 12월 2일부 유엔 결정으로 1952년 9월 15일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여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2년에 에티오피아의 한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0년 12월 황제의 브라질 방문 중에 군사 정변이 일어났으나 3일만에 실패하였다.

1960년 12월부터 소말리아와의 령토 분쟁으로 무장 충돌이 있었다. 1964년 4월 1—6일 량국 군대들이 국경선에서 10~15 마일 철수하고 정화를 실시하였다.

【국왕】 하일레 셀라시에 1 세 (1930년 1월 2일 즉위), 국왕은 나라의 행정, 립법, 군사, 외교 분야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최고 원수이다. 왕위는 세습제이다.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105 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21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의회는 1961년 6—7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1년 4월에 개조되였다. 수상 아클릴루 하브트 웰드, 외상 케테마 이프루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총 면적의 9%, 방목지는 50%, 산림 면적은 4%이다. 관개 면적은 4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밀, 보리, 유지 작물, 사탕수수, 두류 (년 생산량 50만 톤), 목화, 담배 (년 생산량 약 1천 톤) 등이다. 자연 커피림은 40만 헥터, 커피 나무는 1억 8,000만 그루이다. 커피 생산은 1958년에 8만 8,000 톤이였다.

축산업은 이 나라의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가축 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주요 가축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소는 2,000만 두, 물소는 700만 두, 젖소는 600만 두, 면양은 2,000만 두, 산양은 1,600만 두, 당나귀는 300만 두 있다.

백금, 황금, 은, 석면, 류황, 운모, 연, 린산염, 우라늄 등 지하 자원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 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1963년 6만 8,300 톤 수출, 70% 이상이 미국에 수출), 피혁, 두류 등이며 주요 대상국은 미국, 이딸리아, 영국 등이다.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절반은 기독교도이며 기타 회교도가 있다.

소말리아

(소말리아 공화국)

Republic of Somalia

【면적】 63만 7,593 km²

【인구】 231만 명 (1964년 8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소말리아인이고 기타 아랍인, 인도인 등이 있다.

【수도】 모가디쇼 (주민 12만 3,887 명)

정 치

기원 12—13 세기 소말리아는 통일적인 국가였으나 1449년에 뽀르뚜갈인이 침입하여 수개의 소 공국들로 분할하였다. 17 세기에 뽀르뚜갈인들은 아랍인들에게 구축되였다. 1886년에 영국이 아덴만 연해 소말리아 지역의 각 부락 추장들과 소위 《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1887년에는 영국 군대가 점령한 지대를 정식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1889년에 이딸리아는 영국 《보호령》 동쪽 연해 지대의 추장들에게 예속적인 협정을 강요하여 이 지역을 이딸리아 《보호령》으로 전락시켰다.

1958년 2월 영국은 자기가 강점한 소말리아 지역에서 하우드 주와 오가덴주를 에티오피아에 넘겨 주었다. 또한 일부 지역 (케니아의 북부 국경 지역)을 자기의 식민지인 케니아에 편입시켰다.

소말리아 인민들은 19 세기 말부터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동북 아프리카 인민들과 함께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1959년 2월부터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 하여 1960년 6월 26일 영령 소말리아가, 6월 30일에는 이딸리아령 소말리아가 각각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7월 1일에는 70여 년 동안 분할되였던 두 지역이 통합되여 단일한 소말리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 소말리아 지역은 아직도 식민지 통치 하에 있다.

소말리아가 독립한 후에도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예속적인 소위 《우호 조약》, 《령사 권리 협정》, 《재정 원조 협정》, 《항공 및 항해 원조 협정》 등을 강

요하였다. 최근 년간 미제는 동부 아프리카에 군사 기지를 창설할 목적으로 소말리아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독립 후 소말리아는 영 식민주의자들이 에티오피아와 케니아에 넘겨 준 소말리아 령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는 빈번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962년 12월 우리 나라와 소말리아 간에 무역 대표부를 교환할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123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64년 3월 30일에 실시한 첫 선거에서 청년 련맹당이 69 석, 민족 대회당이 22 석, 민주 련맹당이 15 석, 기타 정당이 17 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민 의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1961년 취임).

【정부】 1964년 8월 31일 구성. 각료 전체가 청년 련맹당 출신. 수상 아브디레자크 하지 후세인, 외상 아호메드 유스프 두알레흐

【정당, 사회 단체】 **청년 련맹당** (집권당) 1943년에 이딸리아령 소말리아에서 지주, 상인 및 상층 인테리들로 성립되였다. 이 당은 소말리아의 각 지역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건설하며 부족 제도를 페지하고 사회 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당수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민주 련맹당** 1960년 9월 27일 소말리아 민족 동맹과 통일당이 통합하여 민족 동맹 통일당으로 되였다가 1962년 2월에 대 소말리아 련맹과 합당하였다. 전 이딸리아령 소말리아 지역의 소부르죠아지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을 대표한다. 당수 오만 아스카르 헤르시 **독립 립헌당, 민족 통일 전선, 로동 총련맹**

【주요 사건】 1964년 1월 9일 국민 의회에서 선거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3월 30일 독립 후 첫 국민 의회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7월 11일 국민 의회에서 한 정책 성명에서 후세인 수상은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실업의 청산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쁠럭 불가담 정책을 견지하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및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1월에 진행된 청년 련맹당 대회에서는 프랑스령 소말리아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 목표를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11월 소말리아 정부는 미제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으로 조성된 콩고 사태를 토의하기 위한 아프리카 통일 기구 각료 리사회 비상 회의 소집을 통일 기구 총사무국에 제기하였다. 11월 29일 모가디쇼에서는 콩고(레)에 대한 미제와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의 무력 간섭을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였다.

1964년 3월 24—30일까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에 국경 분쟁 조정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결과 쌍방은 4월 1—6 일간에 국경선에서 각각 10—15 마일 철수하고 군대의 철수를 감시할 공동 위원회를 조직하며 량국 간에 적대적인 선전을 금지하고 정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1964년 2월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가 소말리아를 친선 방문하였다.

8월에는 소말리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량국 간의 《경제 기술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

독립이후 소말리아 정부는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하였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외국 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남아 있는 회사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소말리아 정부의 조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영 농장과 전기 회사를 창설하였으며 자력으로 첫 상선을 건조하였다. 1964년 12월 9일에는 외국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상업 허가증 발급을 중지하며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을 취소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제반 조치와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최근 년간 소말리아 경제는 일정한 전진을 가져오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비옥한 초원으로 되여 있다. 인구의 80%는 목축 및 반 목축, 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0%가 순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목축업과 농업 생산은 물의 부족 (년 강우량 300 미리)과 사료의 부족으로 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63년에 주요 가축들인 락타는 430만 두, 양은 1,195만 두, 소는 110만 두 있었다. 같은 해에 농산물인 바나나는 2만 8천 톤, 감자는 2,931톤, 목화는 511 톤, 옥수수는 450 톤, 밀은 1,160 톤, 사탕수수는 950 톤, 콩은 165 톤, 향료는 1,950 리터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망간, 연, 동, 석, 록주석, 석유, 운모 등이 매장되여 있다. 공업으로는 우유, 수산물, 가죽 가공 공업과 제탕, 면방직 공업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수출 총액의 50%), 피혁, 향료 (세계 생산량의 50%), 목화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이딸리아 (바나나 수출의 50%를 차지)이다.

1963년에 소말리아는 제 1 차 5 개년 계획 (1963—1967년)에 착수하였다.

소말리아는 통일된 민족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문자가 없었다. 독립 후 정부는 언어 위원회를 창설하고 민족 문자를 제정하였다.

식민주의의 후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문화 수준은 아직 높지 못하였다. 주민의 약 90%가 문맹자이다. 1964년에 학교 수는 296개, 학생 수는 3만 896 명이였다. 현재 교육은 이딸리아어, 영어, 아랍어로 하고 있다. 수도 모가디쇼에 종합 대학이 있다. 1964년에 병원 수는 23 개였다. 비교적 큰 농촌들에만 진료소들이 있다. 전체 의사 295 명중 소말리아인 의사는 8 명이다.

프랑스령 소말리아

【면적】 2만 3,000 km²

【인구】 6만 7,300 명

【행정 중심지】 지부티 (주민 3만 1,300 명)

프랑스령 소말리아는 원래 소말리아의 일부분이였다. 1882년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지부티에서 거주권을 획득한 후 점차 이 나라를 자기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8년 9월에 채택된 프랑스 신 헌법에 따라 소말리아는 식민지로 되였다.

최근 년간 《프랑스령 소말리아 민족 운동》의 영향 하에 프랑스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독립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에서는 목축업이 위주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을 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이 있다. 공업 제품과 식량은 수입한다.

케 니 아

(케니아 공화국)
Republic of Kenya

【면적】 58만 2,600 km²

【인구】 910만 명 (1964년)

주민의 97%가 아프리카인 (키쿠유, 루오, 캄바, 바루예, 마사이 등 40여 개 종족)이고 구라파 이주민이 4만 9,000 명 (1964년 7월 1일), 인도인, 파키스탄인 등을 포함한 아세아인이 18만 3,000 명, 그외 아랍인들이 약 3만 5,000 명 있다.

【수도】 나이로비 (주민 약 30만명 1964년 10월)

정 치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영국은 《특별 거주지》를 설정하여 6백여 만의 케니아인들을 전국 령토의 5 분의 1도 못되는 가장 척박한 지대에 강제로 이주시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에 《동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 시설을 설치하고 《사회 안전 보장법》, 《구류법》 (1960년) 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케니아를 정치적 무권리와 빈궁과 몽매가 지배하는 《흑인들의 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영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케니아 인민의 해방 투쟁은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장기간 완강하게 진행되였다.

특히 케니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1952년 《마우 마우》 (반식민주의적인 애국적 농민 조직)의 령도 하에 케니아 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적인 무장 투쟁이 있은 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였다.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떠선 이 농민 투쟁은 케니아 전역에서 3년간 (1952—1955년)이나 계속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52년 10월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만 3천 명의 정예 부대와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1억 5천 2백만여 파운드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토벌 작전》을 벌려 놓았다. 1952—1955년 간에 식민주의자들은 1만 4천 명을 학살하고 8~9만 명을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하였다.

인민 대중의 완강한 투쟁에 질겁한 식민주의자들은 1956년에 《토벌 작전》을 중지하고 3년 후에는 《비상 사태》를 철회하였으며 1961년 여름에는 죠모 케니아타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완강한 투쟁 행정에서 애국적인 비밀 무장 조직인 《토지 자유군》이 출현하였다.

1962년 7월 런던에서 진행된 영국—케니아 회담에서 영국 측은 총선거 실시 후 케니아가 내부 자치를 실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6월 죠모 케니아타를 초대 수상으로 하는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

10월 8일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1만 6,000 파운드를 받고 잔지바르에 임대하였던 몸바사항을 케니아에 통합시킬 데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3년 12월 12일 케니아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의회】 량원제이며 하원은 117 석, 상원은 41 석이다. 1963년 5월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하원에서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64 석, 아프리카인 민주 동맹이 32석, 상원에서 아프리카 인민당이 18 석, 민주 동맹이 16 석, 아프리카인 인민당이 2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12월 12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 죠모 케니아타, 부대통령 오깅가 오딩가 (무임 소상 겸임), 외상 죠세프 무룸비

【정당】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집권당) 1960년 3월에 성립. 케니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한 정당이다. 위원장 죠모 케니아타 아프리카인 민주 동맹 야당으로서 1960년 6월에 성립. 우익적인 친영 정당이다. 총비서 시쿠쿠 아프리카 인민당 우익적인 민족주의 정당이다. 기타 구라파 이주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련합당, 신 케니아당, 케니아 련맹 등이 있다.

【주요 사건】 독립 후 케니아는 자주적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식민지 통치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1964년 초에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시 참사회 기구를 아프리카

화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도의 한 복판에 20년 간이나 서 있던 영국 침략자 델라머의 《기념비》를 제거해 버렸다. 7월 1일에는 케니아에서 17년 동안이나 경찰 두목으로 있던 영국인 프리쟌을 추방하였다.

6월 1일 케니아 공군 창건식이 진행되였다. 6월 10일 케니아 정부는 나라의 발전 6 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미제의 고용 간첩들인 《아프리카 십자로 계획》 성원 140 명이 2 개월 간의 동부 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 방문 차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하였다.

10월 22일 케니아 정부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헌법 초안은 12월 12일 케니아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영국 녀왕의 모든 정치, 경제적 특권을 공화국 정부에 이관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부대통령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1월 26일 나이로비에서 콩고(레)에 대한 미국 및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 항의하여 미국 및 벨지끄 대사관 앞에서 군중 시위가 단행되였으며 11월 27일부터 케니아의 부두 로동자들은 콩고 (레)로 가는 미국 및 벨지끄 선박들과 화물들을 배격하는 투쟁을 벌렸다.

12월 10일 케니아에서 영국 군대의 마지막 부대가 철수하였다. 케니아는 12월 11일 영국 총독을 축출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 5월 카리우키를 단장으로 하는 케니아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이 위주이며 주민의 96%, 고용 로동자 (58만 1,300명)의 42%(24만 6,500명)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3년에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31.3%, 국민 소득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케니아에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백인 이주민들이 제일 많으며 영국을 비롯한 외국 회사가 집중되여 있다.

독립전에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1,300여 헥터씩이나 소유하였지만 아프리카인들은 평균 2 헥터의 척박한 토지 밖에 소유하지 못하였다.

주요 농작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밀, 보리, 제충국, 담배, 목화 등이다. 1962년에 커피는 3만 8천 톤, 사이잘삼은 5만6,591톤, 차는 1만 6천여 톤, 1962—1963년에 옥수수는 19만여 톤, 보리는 약 14만 톤, 목화는 6천 톤 생산되였다.

공업도 비교적 발전되였다. 남부 고원 지대에 산업이 집중되여 있으며 전력 생산, 화학 공업, 세멘트 및 제지 공업 등은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꼽히는 나라이다.

가공 공업 중에서는 커피 가공, 육류 통조림을 비롯하여 제당, 제분, 양주업이 비교적 발전되여 있다. 1963년에 전력은 2억 5,900만 키로와트시, 세멘트는 31만 톤, 사탕은 4만 톤 생산되였다.

수출 총액에서 농산물은 약 5분의 4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인 커피, 사이잘삼, 차는 1963년 수출 총액에서 25%, 17%, 13%를 각각 차지하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서독, 미국, 화란, 일본, 프랑스 등이다.

독립 후 정부는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 토지 및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업 기업소들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64년에 케니아에서는 37 개의 외국인 소유 농장이 국유화되였으며 8월에는 나이로비에서 새로운 방직 공장이 준공되였다.

1964년 6월에 케니아는 6 개년 계획 (1964년 7월 1일—1970년 6월 30일)을 채택하였다.

초등 학교 및 중등 학교 학생 수는 1963년의 12만 명으로부터 1964년에는 1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파트리스 루뭄바 명칭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 기관들이 신설되였다. 아프리카인 교원들의 대렬도 늘어가고 있으며 스와힐리어를 과정안에 포함시켜 민족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1964년에 정부는 방송국을 국유화하였으며 아프리카인 연극 단체를 조직하였다.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

【면적】 94만 1,600 km²

【인구】 1,011만 8,000 명 (1964년)

주민의 70% 이상이 아프리카인이고 그 외에 아랍인 (20% 정도),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수도】 다르 에스 살람 (주민 15만명, 1964년)

정 치 1964년 4월 22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 간에 두 나라를 련합할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4월 26일 상기 협정에 관한 비준 (4월 25일 탄가니카 민족 회의와 잔지바르 혁명 리사회에서 각각 비준) 문건 교환 의식의 진행과 함께 정식으로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이 발족하였다.

비준 문건 교환 의식에서 발표된 법안에 의하면 련합 공화국 정부는 대외, 국방, 비상 권한, 시민권, 이민, 대외 무역, 공공 사업, 세금, 관세, 항구, 항행, 체신 분야만을 담당한다.

7월 8일 정부는 새 국기를 제정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나라 이름을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1964년 11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분렬을 획책하면서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으나 사전에 분쇄되였다.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은 뿔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

주의와 식민주의 및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지지 성원하고 있다.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산하의 아프리카 예속 국가 민족 해방 운동 원조 조정 위원회의 본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식민지 나라들의 9 개 민족주의 정당 대표부가 설치되여 있다.

1965년 1월 13일 탄자니아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964년에 중국, 로므니아와 외교 관계를 맺았다.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 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탄가니카 민족 회의와 잔지바르 혁명 리사회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 현 정부는 1964년 4월 27일 19 명 (탄가니카의 이전 각료 14 명, 잔지바르 5 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고 11월 4일 일부 각료들이 변동되였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을 겸한다.

대통령 쥴리어스 캄바라혜 니에레레, 제 1 부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제 2 부대통령 라쉬디 카와와, 외상 오스카 캄보나, 상업 및 협동 조합상 아브둘 라흐만 모함메드 바부, 대통령 관방 국무상 아브둘 라흐만 카심 항가

탄가니카

【면적】 93만 9,400 km^2

【인구】 956만 명 (1962년)

【행정 중심지】 다르 에스 살람

정 치

1890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3—1905년 남부 지역에서 독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대규모의 《마지 마지 봉기》가 일어났다. (독일 침략자들은 12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학살)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후 탄가니카는 1920년에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1946년에는 유엔 후견령으로 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 대중의 투쟁으로 1961년 12월 9일 탄가니카는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 선포 후 정부는 《아프리카인화》의 구호 하에 정부 각료들과 경찰 및 행정 일'군, 경제 일'군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교체하고 있다.

1964년 1월 탄가니카의 제 1, 제 2 보병 대대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영국인 장교들을 축출하였으며 북부 및 중부에 있는 수 개의 비행장들을 장악하였다.

이 폭동을 기화로 영국 정부는 탄가니카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하여 2천 명의 군대와 1 척의 항공 모함을 파송하였으며 3월 6일에는 탄가니카의 비행사들과 지상 근무 인원들의 훈련을 담당할 것을 탄가니카 정부에 제의하였다.

3월 7일 탄가니카 정부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3월 말까지 탄가니카 령토에서 모든 영국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군대의 완전 철수와 함께 4월 6일 영국 군대와 교체되는 나이제리아 군대 (도합 600 명)의 마지막 부대가 다르 에스 살람에 도착하였으며 9월 말에 철수하였다. 9월 1일에는 새로운 민족군인 《인민 보위군》이 조직되였다.

탄가니카는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련합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81 명이다.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집권당) 1954년 7월 성립. 이 당은 모든 애국 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통일 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탄가니카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964년 1월 정치 위원회에서 탄가니카를 유일당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 쥴리어스 캄바라레 니에레레 **전국 근로자 동맹** (탄가니카의 통일적인 로조 단체) 1964년 3월 성립 **전국 녀성 동맹** 1962년 11월 10일 창립, 위원장 티티 모하메드

경제, 사회

70여 년간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경제는 발전하지 못 하였다. 독립 후 정부는 식민주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1964년 말까지 75 개의 외국인 농장 (면적 7만 1천 에이커)을 몰수하여 새로 조직된 1천여 개의 협동 조합에 이관하였다. 정부는 1964년에 385 대의 뜨락또르를 수입하여 협동 조합들에 공급하였다. 1964년 2월 18일 영국 자본의 통제 하에 있던 전력 공급 회사를 국유화하였고 11월 24일에는 2만 1천 키로와트 시의 새 수력 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주요 농산물은 사이잘삼, 목화, 커피, 락화생 등이다. 1964년에 사이잘삼은 23만 9천 톤 (세계 총 생산량의 3 분의 1을 생산), 목화는 29만 5천 포대, 커피는 3천 톤 이상 생산하였다.

경제에서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바 1964년에 1,100만 두의 소가 있었다. (인구 1 인당 약 1 두)

공업은 삼, 제분, 통조림, 피혁 등 농산물 가공 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사이잘삼 (매년 10여만 톤 수출, 수출액의 4 분의 1을 차지), 목화, 커피, 피혁, 금강석, 연 등이다.

탄가니카는 3 개년 계획 (1962—1964)을 끝내고 제 1 차 5 개년 계획 (1964년 7월 —1969년 6월) 수행에 착수하였다.

독립 후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도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다. 1961—1964년 간에 초급 학교 학생 수는 약 3 배로, 중등 학교 학생 수는 4 배로 늘었다.

아프리카인 교원 대렬이 점차 장성되고 있으며 영어 대신에 동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1964년에 정부는 200여 개의 외국인 경영 구락부들에서 인종 차별적인 현행 규약을 수정하고 그것들의 명칭에서 모든 인종적 흔적을 없앨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영국인의 개인 방송국을 국유화하였다.

한편 1964년 12월 6일 92 명의 미국 《평화군》 성원이 2년 동안 초등 학교 교원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다르 에스 살람에 도착하였다.

잔지바르

【면적】 2,657 km²
【인구】 31만 5,000 명 (1961년)
【행정 중심지】 잔지바르

정 치 잔지바르는 탄가니카에서 36 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인도양 상의 잔지바르섬과 펨바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16 세기 초부터 뽀르뚜갈 (1508년에 잔지바르를 강점)을 비롯한 서방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 오다가 1890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잔지바르 인민들의 투쟁에 못 이겨 영국은 1963년 12월 10일 영 련방 내에서의 잔지바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봉건 군주 제도를 통하여 대외, 국방, 경제 등 중요한 부문의 실권을 직접 틀어쥐였었다.

1964년 1월 12일 잔지바르 인민은 무장 폭동을 일으켜 봉건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잔지바르에서 혁명이 고조되자 미 국무성은 잔지바르에 있는 자국 공민 (《평화군》)을 《구출》한다는 구실 밑에 미 제 6 함대를 파견하여 잔지바르를 위협하는 한편 간첩들을 잠입시켜 잔지바르 혁명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1월 16일 잔지바르 혁명 정부는 미국과의 일체 관계를 끊고 잔지바르 주재 미국 대리 대사와 《기자》로 가장한 4 명의 간첩들을 추방하고 정부 기관들에서 영국 문관들을 축출하였다. 2월 19일에는 영국 고등 판무관의 추방을 명령하였다.

3월 8일 카루메 대통령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할 데 대한 력사적인 《잔지바르 선언》을 발표하였다. 4월 7일 정부는 미국 위성 추적소 (미국이 1960년에 설치한 후 군사적 목적에 리용)를 철수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9일 잔지바르에서는 2만 5천 명의 반미 시위가 진행되였다.

4월 26일 잔지바르는 탄가니카와 련합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5일 련합 공화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잔지바르 주재 모든 외교 대표부를 령사관급으로 낮출 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1964년 11월 27일 잔지바르 및 펨바 아프리카 시라지 청년 동맹은 콩고(레)에 대한 미국과 벨지끄의 식민주의자들의 무력 간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혁명 리사회】 1964년 1월 24일 대통령, 부대통령, 내각 상들, 경찰, 인민 무장 부대 대장들, 로조 대표, 청년 지도자, 부두 로동자, 농민 대표 등 30 명으로 구성되였다.

【행정 기구】 1964년 1월 15일에 구성된 혁명 정부 (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부대통령 아브둘 라호만 카심 항가, 외상 아브둘 라호만 모합메드 바부)가 련합 이후에도 계속 이 지역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시라지당** 잔지바르의 유일당이다.

1956년에 창건되였으며 잔지바르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여 왔다. 1964년 2월 바부가 지도하던 움마당과 합당하였다. 당수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혁명 로조 련맹 1964년 1월 잔지바르 및 펨바 로동 련맹과 진보 로조 련맹을 통합하여 창건, 위원장 모합메드 므파우메 오마르

혁명 학생 련맹 1964년 3월 1일 창건. 위원장 아브둘라 하쥐 춤

잔지바르 및 펨바 아프리카 시라지 청년 동맹

경제, 사회 혁명전 잔지바르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주로 정향 (향료)을 재배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였다. 전국 토지의 80% 이상은 인구의 13%에 불과한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적인 공업은 없고 다만 영국 독점 자본에 복무하는 농산물 가공 공장 (주로 정향유와 야자유를 생산)이 몇 개 있었다. 이 나라의 특산물인 정향과 야자는 생산에서 가공, 수출 (수출 총액의 99% 차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국 자본의 독점 하에 있었다.

1964년 1월 혁명 승리 후 정부는 3월 8일 《잔지바르 선언》에 기초하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국영 농민 은행을 창설하여 무리자로 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있다. 7월 6일 카루메 대통령은 모든 농업의 국유화를 선포하였다.

1964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3 개년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나라의 자립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길에 들어 섰다. 계획 기간 농촌 경리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인 단작 경리를 극복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옥수수, 벼 등 알곡 작물의 생산을 증대하며 공업 분야에서는 모든 외국인 기업소들을 1964년 말까지 국유화하며 19 개의 공장을 새로 건설하며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개발 리용할 것을 기본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대외 무역은 정부가 장악하였다.

혁명 후 정부는 모든 공민들의 평등과 생활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저당 잡힌 공민들의 물건을 무료로 돌려 주었으며 로숙하는 빈민들을 위하여 모든 집세를 폐지하였으며 주택 건설에 착수하였다. 1964년 7월 1일부터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였다.

7월 1일에는 잔지바르의 모든 사립 학교와 기독교회 계통 학교를 국유화할 것을 선포하였다.

혁명 승리 후 약 9 개월 동안에 27 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였고 학생 수는 혁명 전의 2 배로 늘었다. 1964년 9월부터 모든 학교들에서 무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문맹 퇴치 사업이 전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어 대신에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스와힐리어로 된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모잠비크

【면적】 79만 3,030 km²

【인구】 664만 2,000 명(1962년)

그 중 아프리카인은 약 650만 명, 뽀르뚜갈인은 6만 6천 명.

【행정 중심지】 로렌소 마르케스 (주민 약 10만 5,000 명)

정 치 16 세기 초에 모잠비크에 기여든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은 1,700년에 이 나라를 자기의 《보호령》으로 선포하고 토착민들을 《사냥》하여 남미주에 노예로 팔아 먹는 《노예 무역》을 하였다.

1899년에 선포된 《로동법》에 따라 18 세부터 55 세까지의 원주민들은 강제 로동을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에 따라 원주민들은 선거권을 비롯한 초보적인 정치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아프리카인들은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 할 경우에는 《무직업자》로 규정 받고 강제 로동에 끌려간다.

식민지 당국은 1909년에 남아프리카, 그 후에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과 《모잠비크 협정》을 체결하고 해마다 1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트란스발의 탄광들과 《브리티쉬 사우트 아프리카 캄파니》 산하 기업소들에 보내고 있다. 1959년에 모잠비크 로동자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출》한 데서 얻은 《수입》은 6,600만 에스쿠도나 되였다.

뽀르뚜갈은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여 보려고 40만 명의 침략군을 모잠비크에 파견하였으며 200여 개의 대소 비행장 (그 중 미국이 건설한 군용 비행장은 30 개)들을 설치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침략적 나토 성원국들은 뽀르뚜갈의 살라자르 정권에 무기와 군대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모잠비크의 베이라 지역에는 아프리카적으로 큰 나토의 군사 기지가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감행되는 식민주의자들의 탄압 하에서도 모잠비크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1962년 2월 로렌소 마르케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첫 무장 봉화가 일어났으며 이 해 여름에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는 반제 해방 전선이 결성되였다. 1964년 10월 말에 해방 전선은 전면적인 무장 투쟁의 개시를 선포하였다. 민족 해방군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적들의 요새, 지탱점, 교통로들을 습격하여 수 많은 적군을 살상하고 수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립법 회의】 23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그 중 15 명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8 명은 총독이 임명한다. 립법 회의의 수석은 총독이다.

【행정 기구】 뽀르뚜갈 정부가 임명하는 6 명의 상이 있다. 이 상들도 역시 총독의 통제를 받는다.

【정당】 **아프리카의 민족 동맹**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탄자니아와 케냐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루카스 파레난디스 **민족 민주 동맹** 1960년 초에 망명자들이 탄가니카에서 창건. 위원장 에이. 씨. 그왐베 **모잠비크 해방 전선** 1960년 6월에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과 모잠비크 민족 민주 동맹으로 결성되였다. 이 전선 대표단은 1964년 10월 제 2 차 뻘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최고 리사회 위원장 에두아르드 몬들라네 **아프리카인 반제 통일 전선** 1963년 5월 19—21일에 진행된 3 개 정당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민족 민주 동맹, 아프리카인 협회) 회의에서 결성, 의장 몰레 그왐베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비옥한 토지는 외국 자본에 점유되여 있으며 90%의 아프리카인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삼, 목화, 야자, 옥수수, 차이다.

지하 자원은 석탄, 철, 월프람, 주석, 운모, 석유 등이다. 사탕, 두류, 착유 공업 등의 가공 공업이 있다. 광공업은 뽀르뚜갈, 영국,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최근 년간에 미국 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라늄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걸프 석유 회사》만 하여도 12만 평방메터의 토지를 장악하고 있다.

인민 생활은 비참하다. 원주민의 97%가 문맹자이다.

잠 비 아

(북 로데시아)

【면적】 75만 2,000 km²

【인구】 292만 명 (1964년)

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고 기타 구라파인 (8만 명), 인도인 등이 있다.

【수도】 루사카 (주민 8만 3,750 명)

정 치 북로데시아 (본명은 잠비아)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 왔다. 1890년에 이 나라에서 독일, 뽀르뚜갈을 물리치고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24년 북로데시아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북 로데시아 인민은 독립을 위하여 장구한 기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것은 1953년 10월 23일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중앙 아프리카 련방》(일명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에 강압 편입한 이래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북 로데시아 인민은 민족 통일 독립당의 령도 하에 《련방》을 해체하며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61년 8월에는 무장 투쟁이 일어났고 1962년 3월에는 전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적인 시위와 군중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63년 12월 31일 《중앙 아프리카 련방》이 해체되고 북 로데시아는 1964년 1월 내부 자치권을 쟁취 (1964년 1월 23일 카운다를 수상으로 하는 자치 정부 수립)하였으며 1964년 10월 24일에 잠비아는 본래의 국명으로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시급히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락후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로선을 취하고 있다.

1964년 10월 24일 독립 선포와 함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 《죄》로 감금형을 언도 받았던 214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 (자치 정부 수립 후 잠비아에서는 이미 982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였다.) 되였다.

1964년 12월 23일 잠비아 인민은 수도 루사카 시내의 중심에 세웠던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동상을 제거하였다. 1964년 10월 3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1964년 10월 26일 카운다 대통령은 잠비아의 대외 정책이 쁠럭 불가담 및 중립에 기초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카운다 대통령은 아랍 련합 공화국 (1964년 11월 1—6일), 에티오피아 (12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1964년 10월 13일 잠비아 외상 사몬 카프웨프웨는 성명을 발표하고 10월 24일 잠비아의 독립 선포 식전에 꽁고(레)의 괴뢰 숌베의 참가를 거절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꽁고 (레)에 대한 미국,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의 군사적 및 정치적 간섭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버워드 정부의 인종 정책을 반대하여 11월 4일부터 일체 체육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식민지 통치 시기에 남아프리카와 체결하였던 통상 협정을 페기하고 일체 통상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립법 회의】 1964년 1월 20—21일 진행된 내부 자치제 실시를 위한 립법 회의 선거에서 총의석 75 석 중 민족 통일 독립당이 55 석,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이 10 석, 민족 진보당이 10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4년 10월 24일 독립 선포와 함께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대통령 케네스 다비드 카운다, 외상 시몬 므완사 카프웨프웨

【정당, 사회 단체】 민족 통일 독립당 (집권당) 1959년 11월에 성립. 이 당은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위원장 케네스 다비드 카운다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 1947년 성립. 헌법 개혁과 비폭력적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위원장 할리 느쿰풀리 **민족 진보당** (구라파 이주민들의 정당),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잠비아는 채광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국민 소득의 80%는 채광업에서 얻고 있다. 주요 광물 자원으로는 동(매장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 5위), 철 (매장량 60억 톤), 연(매장량 228만 톤), 석탄, 크롬, 코발트, 우라늄 등이 있다. 특히 동은 국민 총생산의 40~55%, 수출의 90~94%를 차지한다.

1963년에 동 채굴량은 63만 5천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2 위였다. 그러나 동을 비롯한 광업은 미, 영 회사들에 독점되여 있다.

1964년 정부는 독립 선포와 함께 잠비아의 광산 개발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70년간 이 나라에서 1억 3,500만 파운드의 리윤을 짜냈다)의 광산권을 접수하였다.

잠비아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4년에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3.5% 장성된 3,260만 파운드였다. (1955년에는 1,270만 파운드)

농업은 경제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옥수수, 락화생, 육류 등이다. 총경지 면적 중에서 가장 비옥한 400만 헥터의 땅은 인구의 3% 밖에 안 되는 백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으며 아프리카인들은 1,400만 헥터의 메마른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수익성이 높은 담배는 백인들만 재배할 수 있었다.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인종 차별과 략탈 정책으로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은 여지 없이 령락되였다. 1962년에 아프리카인 광부들의 월 평균 임금은 24 파운드로 구라파 광부들의 로임 (210 파운드)의 9 분의 1 밖에 안 되였으며 아프리카인 기사와 법률가는 각각 1 명, 아프리카인 의사는 2 명 밖에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학령 아동의 93%가 취학하지 못 하였다.

독립 후 정부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첫 조치로서 실시되게 될 나라의 발전 18 개월 특별 림시 계획을 작성하고 1965년 초부터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65년의 건설 투자액으로 종전의 2 배 (종전에는 1,245만 파운드)인 2,750만 파운드를 예견하였다. 계획 기간에 정부는 특히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 기숙사 및 교원 주택의 건설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병

원, 고압선, 도로의 건설과 실업자 수의 축감을 예견 (8만여 명의 실업자중 절반을 축감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말 라 위

(니아살랜드)

【면적】 12만 4,000 km²

【인구】 300만 명 (1964년)

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며 구라파인 약 1만 명, 기타 약간의 아세아인 주로 인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약 70%가 이 나라의 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인들의 주요 종족들로는 니안쟈족, 야오족, 롬웨족이 있으며 중부에는 주로 느콘데족이 거주하고 있다. 북부에는 톤교족, 헨가족이 있다.

【수도】 좀바(주민 1만 7,690명)

정 치 19 세기 말부터 영국, 뽀르뚜갈, 독일 등의 침략을 받아온 말라위는 1891년 5월 15일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에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 강압 편입되였다.

말라위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이 나라에 기여든 첫 날부터 그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1953년 9월 말라위 인민들은 《련방》의 해체를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9년 2월 16일에 영국 식민지 당국이 11 명의 아프리카인 애국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한 것을 계기로 일어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은 류혈적인 탄압을 무릅쓰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70일간이나 계속되였다.

이러한 인민 대중의 강력한 투쟁 앞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7월에 이 나라에서 립법 회의 선거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1961년 8월에 진행된 립법 회의 선거에서 말라위 대회당이 28 석중 23 석을 차지함으로써 말라위 인민은 첫 승리를 쟁취하였다.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말라위 인민의 계속되는 투쟁에 질겁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11월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 수상제 내각을 조직한 다음 새 헌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2년 12월 19일에는 말라위가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2월 1일 말라위 대회당 위원장인 반다를 수상으로 하는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실권은 여전히 영국 총독이 장악). 1963년 9월 런던에서 진행된 영국과 말라위 대표들 간의 회담의 결과 1964년 7월 6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국명을 본명 대로 말라위 (불'길이라는 뜻)라고 부르게 되였다.

1964년 8월 17일 수상 반다는 《아프리칸 콤무니스트》 (공산주의 출판물)의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였으며 9월 7일에는 수상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총독 존스의 지시에 의하여 외상을 포함한 6 명의 국민 대회당내 좌파 각료들을 해임시켰다.

1964년 10월 9일 말라위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립법 회의】 1961년 8월에 선거되였다. 의석 28 석중 말라위 대회당이 23 석을, 기타가 5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4년 9월 10일 수상 자신이 외무성 사업을 인수하고 새 내각을 조직하였다.

수상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정당, 사회 단체】 **말라위 대회당** 1959년 9월 30일 성립.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 위원장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민족 해방 민주당** 1960년 12월에 성립. 구라파 이주민들과의 협조를 주장. **기독교 사회당** 1960년 10월에 성립

경제, 사회 농업 발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차, 담배, 락화생, 커피 등의 공예 작물의 재배만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농업은 극히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인구의 0.3% 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지 면적의 85% 이상의 비옥한 땅을 독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만도 100만 헥터의 땅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말라위 인민은 쌀과 기타 식료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해 있다. 중부와 북부 주민들은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년산 10만 톤)와 차 (아프리카에서 제 1 위)이며 그 외에 목화, 락화생, 커피, 쌀 등이다.

주요 농산물의 수매, 가공 및 수출도 외국 독점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면, 보키사이트, 동, 석탄, 금, 철광,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이 매장되여 있으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공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 하고 있으며 담배 공장과 같은 약간의 중소 공장이 있을 뿐이다.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인종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말라위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독점한 토지 경작에 강제로 고용한 아프리카인들에게 매월 평균 1 파운드 (구라파인 이주민들에게는 60 파운드 이상을 지불) 밖에 안 되는 기아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약 15만 명의 말라위인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품팔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학령 아동의 3 분의 2가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있다.

짐바브웨

(남 로데시아)

【면적】 38만 9,300 km²

【인구】 315만 3,000명(1961년)

【수도】 솔스베리 (주민 약 26만 6,000 명)

정 치 짐바브웨는 영국, 독일, 뽀르뚜갈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 통치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3년 1월에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조작하였다. 반동적인 《련방 헌법》이 선포된 이래 《사회 질서 유지법》, 《전복 활동 진압법》, 《아프리카인 류동 제한법》 등 수십종의 악법을 조작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1961년 12월 짐바브웨 아프리카인 인민 동맹당의 창건과 함께 더욱 앙양되였다. 1962년 8월 인민들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식민지 당국은 1962년 9월에 인민 동맹당을 비법화하고 느코모를 비롯한 수 많은 애국자들을 검거하였으나 인민들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짐바브웨 인민들과 잠비아 및 말라위 인민들의 투쟁으로 《북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은 1963년 12월 31일에 해체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스미스 백인 정권은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1만 1,000여 명의 백인 《경찰 예비대》를 포함한 방대한 탄압 기구를 만들어 놓고 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1월 15일 허위적인 인종주의적인 현행 헌법하에서의 《독립》 선포를 위한 《국민 투표》를 조작하였다. 여기에는 백인들과 그 주구들만이 참가하였다.

스미스 당국은 인민 투쟁을 탄압하려고 수천명의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용병들을 끌어 들였으며 서부 독일과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서부 독일 고용병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러한 책동과 탄압을 박차면서 인민들은 계속 투쟁하고 있다.

짐바브웨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공장과 광산을 습격하며 교량과 철도를 파괴하고 백인들과 그들의 주구들을 처단하고 있다. 1964년 3월 3천 여 명의 완키에 탄광 탄부들의 6일 간의 파업과 2만 여 명의 아프리카인 학생들의 동맹 휴학에 뒤'이어 4월 16—17일 솔스베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느코모의 체포에 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립법 의회】 현 립법 의회는 영국 정부가 1961년 6월 13일에 발표한 《신 헌법》에 기초하여 1962년 12월 15일에 진행된 선거를 통하여 조작되였다. 총 65 석중 《로데시아 전선》이 35 석, 통일 련방당이 29 석, 무소속이 1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현 백인 정부는 1964년 4월 14일 구성되였다. 수상 이완 스미스 (외상 및 국방상을 겸임)

【정당, 사회 단체】 **짐바브웨 아프리카인 인민 동맹당** 아프리카인 국민대회 (1957년 성립), 민족 민주당(1959년 12월 성립)이 비법화된 후 1961년 12월 17일에 조직되였다. 나라의 완전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1964년 6월 이 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원장 죠누아 느코모 (현재 감금중) **《로데시아 전선》** 극단적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당수 위스톤 필드 **법 아프리카 사회 동맹, 짐바브웨 아프리카인 로조 대회** 서기장 아론 갈라웨니 다베그와 느글로부

경제, 사회 채광업과 제철 공업 이외에 방직, 식료품 가공, 제당, 육류 가공, 세멘트, 제지 및 제염 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서부 지방에 있는 번거 탄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탄전의 하나로서 매장량이 40억 톤이나 된다. 그 밖에 철광 (매장량 2억 5천만 톤), 크롬, 동, 리듐, 니켈 등이 있다.

주요 경제 명맥은 영국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 총액은 약 3억~3억 7,500만 파운드로 평가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영국 자본이다. 이 나라에서 채굴되는 철, 니켈, 안티모니의 전부, 크롬의 50%, 주석광의 85%는 영국 회사들에 속한다.

제 2 차 대전 후 미국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1958년에 미국의 투자 총액은 1950년의 4 배 이상인 약 8,300만 딸라였다.

1930년에 발표된 《토지 분배법》에 의하여 인구의 5.7% 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작지의 53.5%, 식민지 당국이 12%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4.5%가 원주민들에게 차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농업 총생산액의 60~80%), 옥수수, 차, 목화, 락화생이다. 구라파인들은 약 6천 개의 농장들에서 담배, 옥수수, 과실을 재배하여 매년 7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14시간 일해도 임금은 백인 로동자의 20 분의 1 밖에 안된다. 인구의 80% 가 문맹자이다.

앙 골 라

【면적】 124만 6,700 km²

【인구】 493만 6,000 명(1962년) 반투족이 97%이며 뽀르뚜갈인, 기타 구라파인이 있다.

【행정 중심지】 루안다 (주민 20만 명, 1960년)

정 치 앙골라는 1885년부터 뽀르뚜갈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발표된 《식민지 법안》에 따라 앙골라는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되였다.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앙골라에 파쑈적인 《국가 정보 및 치안 경찰》을 설치 (1957년)하고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 있으며 각종 최신 무기와 7만 명의 침략군을 투입하여 앙골라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뽀르뚜갈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앙골라 인민들은 1959년 이래 영웅적인 반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2월 4일 앙골라 인민들은 비법적으로 감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루안다 영창과 헌병대 본부를 무장 습격함으로써 무장 투쟁의 첫 봉화를 들었다.

동년 3월에는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뽀르뚜갈 군대에 복무하던 일부 아프리카인 병사들도 봉기를 일으켰다. 그 후 무장 투쟁은 앙골라의 각지에 번져져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1962년 12월 인민 해방 운동 제 1 차 대회는 민족 해방 운동을 대중적 봉기로부터 무장 투쟁으로 넘어가는 조치로서 《민족 해방군》을 창건할 것을 결정하였다. 앙골라 민족 해방군은 조직 당시의 20 명으로부터 1964년에는 근 4만 명의 강력한 대오로 장성되여 나라의 5 분의 1 (뽀르뚜갈 본토의 2 배)을 해방하였다.

인민 련맹 위원장 홀덴 로베르트는 평등한 기초 우에서 노력을 단합하자는 인민 해방 운동의 호소를 거부하고 1962년 4월 몇몇 공모자들로 《림시 망명 정부》를 구성하고 사무소를 꽁고 (레)에 설치하였다. 로베르트는 인민 해방 운동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두려워 종족 간의 싸움을 일으켰으며 1961년 10월과 1963년 3월에는 인민 해방 운동의 유격 부대들을 반대하는 류혈적인 전투를 진행하였다. 로베르트는 미제의 주구인 꽁고(레)의 아둘라와 쏨베 도당과 결탁하여 꽁고(레) 령토에서의 인민 해방 운동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인민 해방 운동 부대들의 무장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미제는 수억 딸라의 군비와 무기들을 제공하여 앙골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뽀르뚜갈의 식민지 전쟁을 적극 도와 주는 한편 로베르트, 쏨베 등과 결탁하여 앙골라 인민들의 애국 력량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꽁고(레) 주재 미 대사관에 앙골라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로베르트는 미국 장교들을 고문으로 초빙하여다가 유격 근거지를 시찰케 하였으며 1964년 4월에는 미국 장교가 민족 해방군을 지휘케 하였다.

이와 같은 로베르트의 반 민족적인 책동에 항의하여 앙골라 인민 련맹 무장 부대 참모장 카쌍가는 1962년에 공개적으로 로베르트의 죄행을 폭로하고 인민 련맹에서 나오겠다고 하였으며 로동자 련합회 서기장은 로베르트가 비법적으로 거액의 금액을 횡령한 데 대하여 비난하고 련합회는 인민 련맹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포하였다. 1964년에는 《림시 망명 정부》의 외상 (사빔비)을 비롯한 책임적인 활동가들이 《정부》와 인민 련맹에서 나왔다. 이리 하여 《림시 망명 정부》와 인민 련맹은 로베르트의 반민족적인 책동으로 분렬 상태에 있다.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의 유격 부대들은 카빈다 지방과 앙골라의 북부 지방에서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1964년 7월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는 앙골라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앙골라의 모든 정당들에 원조를 제공하며 각 정당의 노력을 단합시키기 위하여 아련, 꽁고 (브), 가나, 알제리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 1956년 12월에 성립된 진보적인 민족주의 정당이며 앙골라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아련과 기네, 가나, 탄자니아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본부는 꽁고 (브)에 있다. 지도자 네토. **인민 련맹** 1958년에 성립되였다. 로베르트와 그의 일부 추종자들은 미국 및 쏨베 도당과의 련계 하에 실제상 앙골라 무장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부는 꽁고 (레)에 있다. 위원장 홀덴 로베르트 **전국 로동자 련합회** 1962년 성립. 국제 자유 로련에 가입. 미국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 사회 앙골라의 경제는 뽀르뚜갈, 영국, 벨지끄, 서독등에 장악되여 있다.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주되는 부분이다. 150만 헥터의 좋은 땅은 뽀르뚜갈인들이 가지고 있으며 광범한 앙골라인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생산되는 커피 (1959년에 9만 5,000 톤 생산), 사이잘삼, 사탕수수와 아프리카인들이 생산하는 목화, 락화생, 옥수수, 두류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강석, 금, 석유, 동, 망간, 갈탄, 석고, 운모, 연, 아연, 철, 우라늄, 월프람 등이 풍부하다. 금강석은 미, 영, 벨지끄, 뽀르뚜갈의 합작 회사인 《앙골라 금강석 회사》(미국이 주권의 40% 차지)가 앙골라의 6 분의 5의 지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1만 7,000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교통, 운수, 상업 부문에도 침투하고 있다.

석유는 《벨지끄 연유 회사》와 미국 《걸프 석유 회사》가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그 외에도 망간, 우라늄, 월프람 등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도 통제하고 있다.

1963년에 금강석은 110만 카라트 (예비적 자료), 원유는 79만 9,700톤, 철광은 47만 4,000 톤, 망간은 17만 4,000 톤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어류, 농산물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삼, 어류, 옥수수, 사탕, 종려, 락화생 등이다.

로동자의 사망률은 40%, 유아 사망률은 60%이다. 주민의 99%는 문맹자이다.

서남 아프리카

【면적】 82만 3,876 km²

【인구】 55만 4,000 명 (1963년)

【수도】 윈드 후크(주민 3만 3,000 명, 1961년)

서남 아프리카는 15~16 세기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독일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1915년 7월에 남아 련방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강점되였고 1920년 12월 17일 《국제 련맹》의 결정으로 남아 련방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그 후 남아 련방은 1949년 4월에 《사무 수정 법안》을 채택하여 서남 아프리카를 실제상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서남 아프리카 인민들은 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1963년 11월에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서남 아프리카 민주 단체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저 민족 해방 전선을 창설하였다.

최고 주권은 서남 아프리카 총독이 임명하는 행정 장관에게 속한다.

【립법 회의】 18 명의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정당】 **민족 동맹** 서남 아프리카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민족주의 정당 **오밤보 인민당** 오밤보족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족 동맹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인민 단체** 총비서 야소브 황과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고 해안 지대에서는 주로 어업을 한다.

지하 자원으로 금강석, 바나듐, 연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동, 망간, 아연, 우라늄, 탕그스텐, 철, 석, 금, 은 등도 있다.

경제 명맥은 영, 미, 남아프리카 등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으로 이 나라 원주민은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척박한 《보류지》에서 살고 있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불과 30%이다.

쎈트 헬레나도

【면적】 122 km²

【인구】 4,760 명 (1958년)

【행정 중심지】 제임스타운 (주민 약 1,700 명)

아프리카의 서쪽 남대서양 상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1502년에 뽀르뚜갈인에 의하여 발견되였다. 1633년 화란에 강점되였다가 1651년 이후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점령, 1673년 영국은 이 섬을 정식 자기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대마, 아마, 채소, 파실 등이며 가축으로는 소와 양이 있다.

베추아날랜드

【면적】 71만 2,000 km²

【인구】 54만 2,000 명 (1965년 3월) 주민의 98%가 베추아인이다.

【행정 중심지】 가베로네스

정 치 19 세기 초부터 베추아날 랜드에 침입한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1885년에 베추아날랜드의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북부 지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895년에는 베추아날랜드를 케이프타운 식민지에 편입하였다. 그 후 북부의 각 부락 추장들의 반대로 1896년에 북부는 다시 《보호국》으로 되여 영국이 관할하게 되였다. 남부는 케이프타운이 1910년에 남아프리카 련방에 편입됨에 따라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주로 되였다. 남 아프리카 식민지 당국이 베추아날랜드 《보호국》을 저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책동하였으나 베추아날랜드 인민들의 견결한 반대로 실현하지 못 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12월 30일 기만적인 새 《헌법》을 선포하고 괴뢰 립법 회의와 행정 회의를 조작하였다. 영국 고등 판무관은 괴뢰 기구를 통하여 《선동법》, 《위협법》, 《법규와 질서 유지법》 등 악법을 조작하여 혹심한 인종 차별 및 인종 격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주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베추아날랜드에서도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 되였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 식민주의자들은 1963년 11월에 베추아날랜드의 각 정당과 부락 추장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립법권을 가진 립법 회의와 자문 기관인 추장원을 설치하며 1965년 3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내부 자치》를 실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1965년 3월 1일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 영 식민지 당국과 부락 추장들의 전통적인 세력을 지지하는 베추아날랜드 민주당이 다수표를 획득하여 민주당 당수가 정부를 조직하였다.

베추아날랜드에서 내부 자치는 실행되였으나 영국 고등 판무관이 의연히 내각 회의를 집행하며 외무, 국방, 국내 치안, 재정 등 부문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립법 회의】 37 명으로 구성되는데 1965년 3월 1일 선거에서 31 석만 선출, 민주당이 28 석, 인민당이 3 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자치 정부】 1965년 3월 2일 1 명의 부수상과 5 명의 상들로 구성되였다. 수상 세레즈 하마

【정당】 **베추아날랜드 인민당**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정당이다. 총비서 파트릭 엠 쯔하네 **민주당** 영국 식민지 당국과 부락 추장들의 지지를 받

고 있다. 당수 세레즈 하마

경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 경제는 매우 락후하다.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 (소와 양이 위주)이다. 축산물은 국민 소득의 75%를 차지하며 개인 소생산자 총수의 9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비옥한 땅은 영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으며 가경지는 약 800만 헥터인데 그 중 5%만이 파종된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콩 등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 못하며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에서 수입한다. 주요 광물은 석면(1961년에 1,920 톤 생산)이다. 기타 동, 연, 철, 금, 은이 매장되여 있으나 모두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축산물과 석면이다. 영 식민주의자들의 인종 격리 정책에 의하여 90% 이상의 토착 주민들이 《보루지》 (전국 면적의 62%) 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 로데시아의 광산으로 품팔이를 간다. 1963년에 남 아프리카 당국과 계약된 로동자의 수는 8만 5천 명 (전국 성년 남자의 절반)이였는데 이로부터의 수입은 전국 수입의 16% 정도였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

【면적】 122만 3,000 km²

【인구】 1,750만 명 (1964년)

아프리카인은 1,300만 명, 인도인은 50만 명, 백인은 350만 명이고 기타 구라파인들이 있다.

【수도】 프레토리아 (주민 35만 1,000 명)

정치 1652년에 화란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그 후에는 영국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영국은 1909년 《남아 련방 법안》을 제정하고 1910년 5월 자치령인 남아 련방을 형성하였다. 백인 통치 집단은 《통행증법》, 《공산주의 진압법》, 《파괴 활동 금지법》 (1962년 5월 공포) 등 70여 개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가혹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59년에는 《반투 자치법》을 채택하여 흑인 거주 구역들을 설정하였다.

버워드 당국은 《반투족 지대》 창설을 합법화하여 날로 장성 강화되는 인민 대중의 투쟁과 세계 사회계의 여론을 무마해 버리는 동시에 민족 격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목적 밑에 1963년 말 《립법 회의》 선거를 조작하였다.

희망봉 연안에는 나토 국가들이 리용하는 해군 기지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서부 독일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남 아프리카에 무기 공급을 비롯한 군사적 지원을 주고 있다.

남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워드 당국의 야수적인 탄압과 인종 격리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1959년 6월 다반항에서의 4만 명의 대시위, 1960년 3월 샤프빌에서의 시위들이 일어 났으며 투쟁은 점차 무장 투쟁으로 넘어갔다.

1961년 3월 영 련방 수상 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인 대표들로부터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혹독한 비난을 받자 버워드 당국은 영 련방에서 탈퇴하고 이 해 5월 31일에 국명을 남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고쳤다.

【의회】 모두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 의원은 54 명, 하원 의원은 156 명이다.

【대통령】 찰스 스워트

【정부】 수상 헨드리크 버워드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인 정당은 일체 금지되여 있다.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6월에 비법화되였다. **국민당** (집권당) 화란계 백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는 극 반동 정당이다. 지도자 헨드리크 버워드 **통일당** 영국계 백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남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의 대회》**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구라파인들의 조직으로서 1962년 9월에 비법화. **남 아프리카 통일 전선** 1960년 3월 샤프빌 학살 사건 후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 아프리카 인도인 대회, 범아프리카 민족주의 대회, 서남아프리카 민족 련맹 등이 련합하여 형성되였다. **남 아프리카 로조 대회** (유일한 아프리카인 로조)

【주요 사건】 버워드 당국은 1964년에 진보적인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과 인민들을 더욱 혹심하게 탄압하였다.

3월에 버워드 당국은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반로동 법안》을 조작하였으며 4월에는 일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채찍질》 형을 적용할 데 관한 법령을 개악하였다.

버워드 당국은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 지도자인 만델라를 비롯한 수 많은 애국자들을 구금하였으며 처형하였다.

버워드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3월에 케이프타운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군중 집회를 열고 도시들에서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을 통제하며 조절할 데 대한 버워드 당국의 새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5월에는 요한네스부르그 시민들이 《반투족법》을 반대하여 국회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6월에 버워드 인종주의 정권을 반대하는 새로운 단체인 《아프리카인 항쟁 운동》이 조직되여 무장 투쟁을 개시하였다. (9월 25일 비법화됨)

9월에 케이프타운 금강석 채굴 광산 600여 명의 로동자들은 3개월 간의 완강한 파업 투쟁에서 임금 인상, 로동 조건 개선 등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였다.

남아프리카의 민족 대회당은 11월 19일 자기의 성명에서 《현 상태 하에서 우리는 무장 투쟁으로써만 인종 차별을 분쇄하며 남

아프리카에 대한 백인들의 지배를 타도하며 파쑈 제도를 전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월 9—11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남 아프리카 근로자 및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 제 2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남 아프리카를 국제 로동 기구에서 축출할 것을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되는 것은 광공업과 농업이다. 경제 명맥은 남아프리카의 백인들과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금, 금강석, 우라늄, 석탄, 동, 철, 연, 망간, 크롬, 백금 등을 생산한다.

1964년에 금강석은 476만 3,300 카라트, 석탄은 4,250 만톤 (평가), 1963년에 선철은 240만 톤, 강철은 280만 톤 생산하였다. 철광석은 1962년에 477 만톤 생생산되였다.

전국 농토의 87.5%는 백인들이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은 12.5%에 해당하는 척박한 《보류지》들을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옥수수, 밀, 실과 등이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의 리윤은 1959년에 4,200만 딸라였는데 1962년에는 7,200만 딸라로 증가하였다. 이 해에 미국이 직접 투자에서 얻은 리윤의 비률은 12.6%로서 미제가 서부 독일에서 짜내고 있는 리윤률의 거의 2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 독점체들도 1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13%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서부 독일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10억 마르크이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은 하루에 14 시간씩 일하고 있으나 백인 로동자들의 로임의 20 분의 1 밖에 안 되는 로임을 받고 있다. 50만 명이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다. 아동 사망률은 평균 20~30%나 된다.

스워질랜드

【면적】 1만 7,366 km²

【인구】 28만 3,000 명 (1963년) 주민의 98%가 스워질인이다.

【행정 중심지】 므바반 (주민 약 2,000 명)

정 치 스워질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령토안에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과 부르족(남아프리카에 있는 화란 계통의 종족) 의 부단한 침입을 받아 오다가 1906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정식 선포되였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주의자들은 스워질랜드를 병합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스워질랜드 인민들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적 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963년 6월 영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선거》와 《헌법》을 반대하는 므바반 가공 기업소 로동자들의 총 파업이 단행되였다.

남아프리카의 프레트리아에 있는 영국 고등 판무관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스워질랜드 진보당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주장하며 스워질랜드를 남아프리카에 병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당의 지도 밑에 1962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 조합 조직이 창설되였다. 위원장 느쿠쿠 **범 아프리카 단결 대회** 1962년 2월 므바반에서 스워질랜드, 베추아날랜드, 바수톨랜드의 정당들이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목적으로 민족주의 당들의 통일 전선으로 형성

경 제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며 경제 명맥은 영국과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인구의 3.6% (약 1만명)에 불과한 구라파 이주민들이 토지 면적의 42%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구의 96.4% (27만 명)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은 토지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락화생, 감자, 목화, 담배 등이며 주요 가축은 소, 염소, 양, 돼지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4대 석면 산지의 하나. 1958년에 3만 726 톤 생산), 중정석, 금, 토륨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석면이다.

인민 생활은 매우 빈곤하다. 주민의 약 6 분의 1은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에서 농업 로동을 하거나 남 아프리카의 광업 로동자로 품팔이를 떠난다.

바수톨랜드

【면적】 3만 344 km²

【인구】 72만 7,000 명 (1963년) 주민의 99.5%가 아프리카인,

【행정 중심지】 마세루 (주민 3만 4,000 명)

정치 바수톨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령토내의 동부에 있는 영국의 《보호령》이다.

최근 년간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앙양되자 교활한 영 제국주의자들은 1959년 9월 바수톨랜드에 《자치권》을 주고 1960년 2월에 《국민 회의》 (의원 80 명 중 40 명은 영국 당국이 임명하고 40 명만 간접 선거로 선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국 고등 판무관이 국방, 외교, 국내 치안 등 모든 실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 조직 **아프리카인 대회당** 바수톨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 위원장 모크헤홀레 **민족당**

경제, 사회 경제는 극히 락후하다. 자연 부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산물은 옥수수, 수수, 밀, 양모 등이며 식량은 주로 수입한다. 혹심한 빈궁으로 이 나라 인민들은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간다. (1959년에 그 수는 8만 3천 명이였다.)

모리샤스도

【면적】 2,090 km²

【인구】 72만 5,000 명

【행정 중심지】 포트 루이스 (주민 10만 4,016 명)

말가슈섬의 동쪽, 인도양 상에 있는 작은 화산 섬이다.

1511년 뽀르뚜갈인에게 발견된 후 화란,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재배이다. 공업은 제탕업 뿐이다. 1959년에 사탕은 58만 톤 생산되였다. 식량을 수입하고 사탕을 수출한다.

세이셸 제도

【면적】 404 km²

【인구】 4만 1,425 명 (1960년)

【행정 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약 1만 명)

서부 인도양 상에 있으며 92개의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1756년에 프랑스, 1794년에 영국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에 정식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5년 1월 24일 세이셸 제도 인민 통일당 위원장 레네는 케니아의 몸바사에서 세이셸 제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야자와 향료이다.

레유니옹

【면적】 2,511 km²

【인구】 33만 5,000 명 (1960년)

【행정 중심지】 쌍 데니스 (주민 약 4만 2,000 명)

레유니옹은 말가슈 공화국의 동남, 인도양 상에 있는 섬이다. 1513년에 뽀르뚜갈인에게 발견되였고 164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3년에 레유니옹은 프랑스의 《해외주》로 선포되였다.

레유니옹 인민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레유니옹 공산당은 1959년 5월에 프랑스 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독립적인 정당으로 성립되였다. 공산당은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주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로동자는 2만 명이며 경지 면적은 7~8만 헥터이다.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3만 6천 헥터이고 1960년 사탕 생산량은 21만 7,778 톤이였다. 기타 커피, 향료를 생산한다.

실업자 수는 4만 명이나 되며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원주민의 평균 수명은 24 세이고 유아 사망률은 1천 명에 160 명이나 된다. 병원은 하나뿐이다.

말 가 슈

(말가슈 공화국)

Malgasy Republic

【면적】 59만 2,000 km²

말가슈(마다가스카르섬)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 573만 명(1962년)

【수도】 타나나리브 (주민 24만 8,000 명)

정 치 말가슈는 1896년 8월 6일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0월 14일 말가슈는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 날 프랑스와 체결된 《협조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국방, 외교, 재정, 교통 교육 분야에서의 특권과 군사 기지의 리용, 군대의 주둔권을 계속 가지게 되였다.

말가슈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1961년 8월 11일 말가슈 수도에서 조직) 성원국이다.

1962년 7월 말가슈는 서부 독일과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에 관한 협정》, 《장기적인 재정 원조》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1964년 12월 4일 치라나나 대통령은 아프리카 통일 기구 서기장 디알로 텔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쫌베의 정부가 콩고(레)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하였다.

【의회】 량원제이다. 국민 의회 의원은 107 명, 참의원 의원은 54 명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과 국방상을 겸임하고 있다. 대통령 필리베르 치라나나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민주당(집권당) 1958년 8월 드 골 헌법을 찬성하였으며 프랑스와의 《협조》를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필리베르 치라나나 독립 대회당 1958년 5월 성립, 프랑스와 말가슈 간의 《협조 협정》의 수정, 식민주의 잔재 청산, 국민 의회 개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민족 혁신당, 인민 사회당이 있다. 로조 련합회 (세계 직련에 가입), 민주 청년 협회 (세계 민청에 가입)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2%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경제 명맥은 프랑스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 카싸바, 커피, 사탕수수, 락화생, 담배, 향료 등이다. 1962년에 쌀은 125만 5천 톤, 카싸바 (감자의 일종)는 9만 3천 톤, 커피는 5만 4,200 톤 생산되였다. 와닐라 (향료의 일종) 생산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운모, 수정, 흑연, 금, 철, 동 등이 있다. 공업은 국민 소득의 약 10%를 차지한다.

대외 무역은 프랑스를 대상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커피, 피혁, 쌀, 담배 등 농산물들이다.

구 라 파 주

쏘 련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면적】 2,240만 3,000 km²

【인구】 2억 2,900만 명 (1965년 1월 1일)

【수도】 모스크바 (주민 638만 8,000 명, 1964년 1월 1일)

정 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1922년 12월 30일 쏘베트 공화국 련맹이 형성되였다. 현재 15 개의 가맹 공화국, 20 개의 자치 공화국, 8 개의 자치주가 있다. 쏘련 헌법은 1936년 12월 5일에 채택되였다.

【쏘련 최고 쏘베트】 최고 쏘베트는 쏘련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련맹 쏘베트와 민족 쏘베트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현 최고 쏘베트는 제 6 기로서 1962년 3월에 선거되였다. 련맹 쏘베트 대의원은 791 명, 민족 쏘베트 대의원은 652 명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아. 이. 미꼬얀
련맹 쏘베트 의장
이. 웨. 스삐리도노브
민족 쏘베트 의장
야. 웨. 뻬이베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4월에 구성되였고 같은 해 12월과 1963년 3월 및 1964년 10월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 상 아. 엔. 꼬씌긴
제 1부수상 데. 에프. 우쓰찌노브
부수상 데. 에쓰. 뽈랸쓰끼,
웨. 에. 됨쉬쯔,
엠. 아. 레쎄치꼬,
뻬. 에프. 로마꼬,
이. 떼. 노비꼬브,
까. 엔. 루두네브,
엘. 웨. 쓰미르노브,
아. 엔. 쉘레삔
대외 무역상
엔. 에쓰. 빠똘리체브
외무상 아. 아. 그로믜꼬
국방상 에르. 야. 말리놉쓰끼
인민 경제 최고 쏘베트 위원장
데. 에프. 우쓰찌노브(겸임)
인민 경제 쏘베트 위원장
웨. 에. 됨쉬쯔(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뻬. 에프. 로마꼬(겸임)
당 및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아. 엔. 쉘레삔(겸임)
국가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아. 쓰까치꼬브
국가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까. 로마놉쓰끼
국가 안전 위원회 위원장
웨. 에. 쎄미챠쓰뜨느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03년에 창건. 당원 및 후보 당원수 971만여 명 (1961년 10월 1일 현재)

중앙 위원회 상임 위원회 위원 엘. 이. 브레쥬네브, 게. 이. 워로노브, 아. 엔. 꼬씌긴, 아. 뻬. 끼릴렌꼬, 아. 이. 미꼬얀, 엔. 웨. 뽀드고르느이, 데. 에쓰. 뽈랸쓰끼, 엠. 아. 쑤쓸로브, 엔. 엠. 슈웨르니크, 뻬. 예. 쉘레쓰뜨, 아. 엔. 쉘레삔

후보 위원 웨. 웨. 그리쉰, 샤. 에르. 라쉬도브, 까. 떼. 마주로브, 웨. 뻬. 므쟈와나제, 뻬. 엔. 제미체브, 엘. 엔. 예프레모브

중앙 위원회 비서국 성원 엘. 이. 브레쥬네브(제 1 비서), 엔. 웨. 뽀드고르느이, 엠. 아. 쑤쓸로브, 아. 엔. 쉘레삔, 유. 웨. 안드로뽀브, 뻬. 엔. 제미체브, 엘. 에프. 일리이쵸브, 베. 엔. 뽀노마료브, 아. 뻬. 루다꼬브, 웨. 엔. 찌또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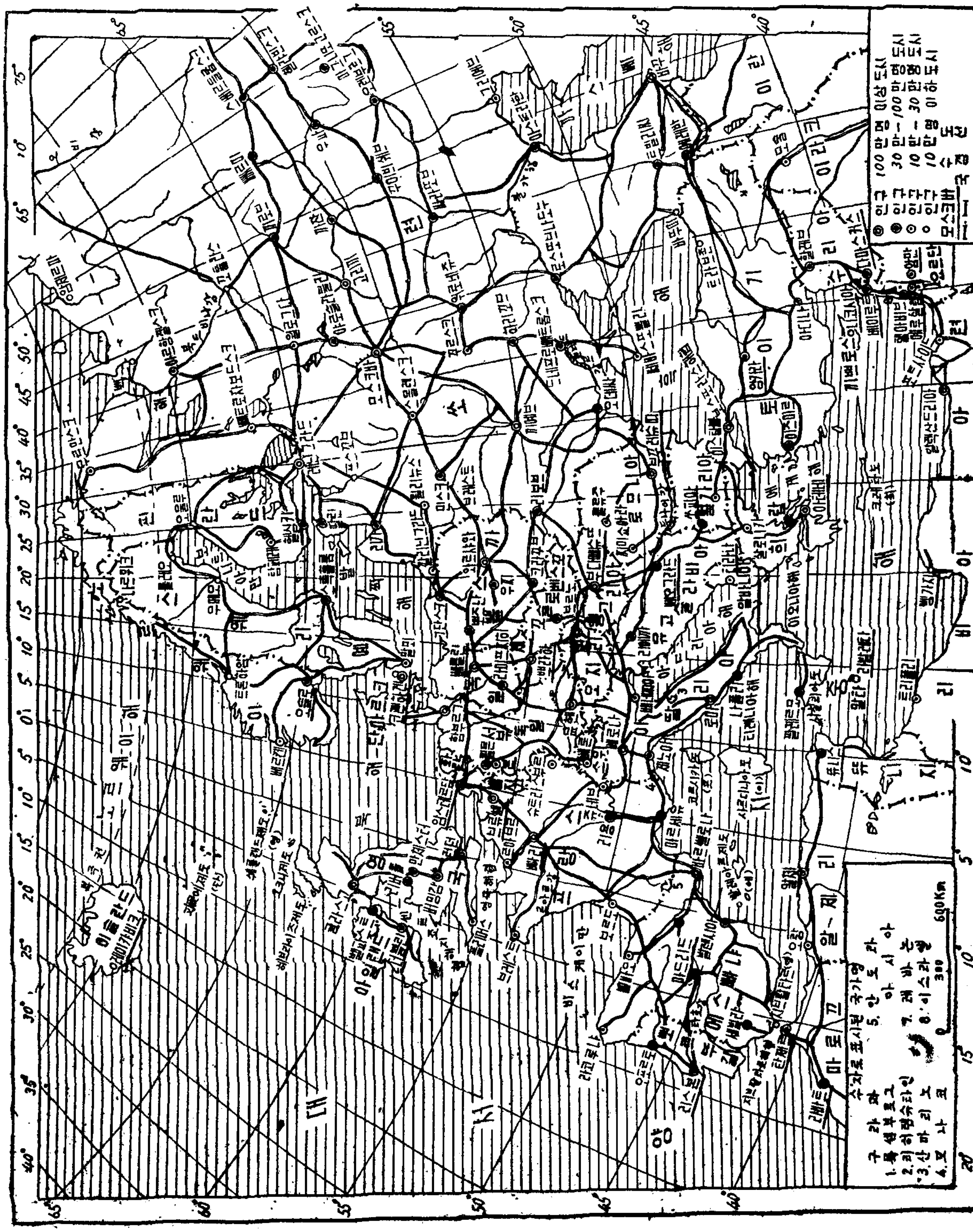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웨. 웨. 그리쉰 **레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비서 에쓰. 뻬. 빠블로브 **쏘련 청년 단체 위원회** 위원장 뻬. 엔. 레쉐또브 **쏘련 녀성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리사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전 련맹 《지식》 협회** 위원장 웨. 아. 끼릴린 **쏘련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엔. 에쓰. 찌호노브 **쏘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엠. 뚜르쑨자데 **작가 동맹** 제 1 서기 까. 페진 **쏘련 기자 동맹** 지도부 위원장 뻬. 아. 싸쮸꼬브 **쏘련 적십자 및 적반월 협회 련맹** 집행 위원회 위원장 게. 아. 미쩨레브 **쏘조 친선 협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엔. 엔. 오르가노브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2월 10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농업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화학 비료의 광범한 리용, 관개의 발전, 종합적 기계화와 달성된 과학과 선진 경험에 기초한 농업 생산의 집약화》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9월 13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는 《인민들의 복리 증진 분야에서의 쏘련 공산당 강령 수행 대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월 14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15일에 진행된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회의는 니끼다 흐루쑈브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

구 라 파 주



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쏘련 내각 수상의 직책들에서 해임하고 레오니드 브레쥬네브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로 선거하였으며 내각 수상으로는 알렉쎄이 꼬씨긴을 임명하였다.

11월 16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주, 변강 공업 및 농업 당 단체들을 통합할 데 대하여》를 토의 결정하였다.

12월 8일 쏘련 레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주, 변강 공업 및 농업 공청 조직들을 통합할 데 대하여》를 토의 결정하였다.

12월 9—11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 기 제 5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65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0월 12일 세계 최초로 세 사람이 탄 우주 비행선 《워쓰호드》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비행선은 우주 비행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0월 13일에 예정 지점에 착륙하였다. 비행선은 쏘련 우주 비행가인 기술병 상좌 울라지미르 꼬마로브(선장), 과학자 꼰쓰딴찐 페옥찌쓰또브, 의사 보리쓰 예고로브가 조종하였다.

대기 상층부와 우주 공간의 연구를 위하여 3월 27일—1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쏘련은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 27호부터 51호까지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1월 30일—7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지구의 내부 및 외부 방사대와 그와 관련된 물질적 현상을 동시에 연구하기 위하여 우주 정류소 《엘렉뜨론》 1호부터 4호까지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4월과 11월에는 행성간 원거리 비행을 위한 연구를 완성할 목적밑에 화성 방향으로 자동 정류소 《존드》 1, 2호가, 4월 12일에는 유도 기동 우주 기구 《뽈료르—2》호가 발사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4—12일 간에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11월에 조쏘 친선 협회 대표단과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2월 5일—3월 4일 간에 쏘련 정부 통상 대표단, 3월에 과학 기술 협조 대표단, 11월에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쏘련은 우리 나라와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2월 27일),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11월), 1964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8월 4일)를 조인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쏘조 친선 협회 간에 1964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를 조인하였다. 3월에는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이 4월에 웽그리아를, 8월에 로므니아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9월에 중화 인민 공화국과 벌가리아를, 10월에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4월에는 쏘련 군사 대표단이 민주 독일을, 9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한편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전국 지도부 제 1 비서이며 수상인 카스트로(1월 13—23일),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2월), 고물까를 단장으로 하는 뽈스까 당 및 정부 대표단(4월), 유. 쩨덴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당 및 정부 대표단(10월),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 대표단(11월)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과 회담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웰남 민주 공화국, 로므니아, 꾸바, 몽골, 뽈스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독일 사회 통일당 제 1 비서 울브리히트(1월, 5월),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5월), 꾸바 공화국 대통령 도르띠꼬스(10월)가 각각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6월 12일 쏘련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에 우호 동맹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쏘련 내각 수상이 아랍 련합 공화국(5월 8—25일), 미꼬얀이 버마(7월)와 핀란드(12월), 꼬씨긴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정부 대표단이 아프가니스탄(9월), 쏘련 정부 대표단이 케니아(12월), 쏘련 당 대표단이 인도(12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인도네시아(6월), 희랍(12월), 아랍 련합 공화국(12월), 소말리아(12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핀란드 대통령 케꼬넨(3월), 예멘 아랍 공화국 대통령 아브데 살랄(3월), 알제리 공화국 대통령 벤 벨라(4월), 인도 대통령 라다크리쉬난(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9월), 아랍 련합 공화국 부대통령 아메르(10월), 아랍 련합 공화국 수상 사브리(9월), 케니아 정부 대표단(4월), 탄자니아 정부 대표단(8월), 케니아 대표단(8월), 말리 공화국 수단 련맹당 대표단(8월), 파키스탄 국회 대표단(9월), 콩고(브) 국회 대표단(10월), 기네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11월), 핀란드 공산당 대표단(4월), 수리아 공산당 대표단(7월), 캄보쟈 군사 대표단(4월), 인도 군사 대표단(8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프랑스(2월)를, 꼬씨긴이 이딸리아(3월)를, 항공 전문가 대표단과 쏘련 통상 대표단이 영국(4월)을, 쏘련 공산당

대표단이 스위스(4월)를,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일본(5월), 벨지끄(11월), 유고슬라비아(12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6월에는 쏘련 내각 수상이 단마르크, 스웨리예,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한편 단마르크 내각 수상(2월), 프랑스 국회 상원 의원 에드가르 포르(3월), 일본 공산당 대표단(3월), 미국 녀성 대표단(4월), 카나다 실업계 대표단(4월), 영국 레이버당 대표단(5월), 유고슬라비아 찌또(6월), 이딸리아 사회당 대표단(6월), 일본 사회당 대표단(7월), 영국 외상(7월), 일본 국회 대표단(9월), 프랑스 공산당 대표단(10월), 로이기 외상(10월), 92 명의 미국 실업가단(11월)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1964년에 쏘련이 카나다와 원자 에네르기의 평화적 리용 분야에서 협조할 데 관한 협정(1월), 미국과 1964—1965년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교류할 데 관한 협정(2월)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미국과 분렬성 핵 물질 생산을 축감할 데 대한 합의(4월)를 달성하였다.

1964년에 쏘련은 까메룬, 말따와 각각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칠레, 우루과이와는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다. 1965년 1월 1일 현재 쏘련은 95 개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경 제 쏘련은 철, 망간, 석탄, 원유, 동, 연, 아연, 니켈, 보키사이트, 탕그스텐, 운모, 카리염 등의 탐사된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의 철 매장량은 283억 톤(1958년 말)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매장량과 같다. 석탄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약 57%인 8만 6,690억 톤(1959년 초)이며 수력 자원은 세계 수력 자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10억 헥터, 목재 자원은 500억 립방메터로서 세계 산림 자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5억 헥터로 보며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대마 등이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제품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7.1% 장성하였다.

그러나 타빈, 랭장고, 종이와 같은 개별적 제품 생산에서는 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였다.

공업 생산 장성 속도

	7개년 계획 통제 수'자에 예견된 것	실제 달성한 것	전년도에 비한 장성률(%)
1958	100	100	10
1959	107.7	111.4	11
1960	117	122.1	약 10
1961	127	133.3	9.2
1962	139	145	9.5
1963	151	158	8.5
1964			7.1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동력 공업은 12% 이상, 연료 공업은 7%,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은 8%, 화학 공업은 15%,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9%, 건재 공업은 8%, 목재 가공 및 제지 공업은 6%, 경공업은 3%, 식료 공업은 2%씩 각각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1964
전력(억kwh)	3 690	4 120	4 590
석탄(100만 톤)	517	532	554
원유(100만 톤)	186.2	206	224
가스(억m³)	752	915	1 100
선철(만톤)	5 530	5 870	6 240
강철 〃	7 630	8 220	8 500
압연품 〃	5 920	6 240	5 740
광물성비료 〃	1 730	1 990	2 560
금속 절삭 기대 (1,000 대)	176	183	184
자동차 〃	578	587	603
뜨락또르 (1,000 대)	287	325	329
세멘트(100만톤)	57.3	61	64.9
종이 〃	2 765	2 900	3 000
면직물 (100만 m²)	4 913	5 069	5 368
모직물 〃	469	471	471
견직물 〃	787	801	827
가죽신발 (100만 켤레)	456	463	474
사탕가루(천톤)	7 800	5 500	8 200
동물성 기름 〃	940	874	952
식물성 기름 〃	2 090	2 100	2 200

1964년에 600 개소의 대규모 공업 기업소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3,000여 종의 신형 기계들이 제작되였다.

1964년에 400만 여 건의 창의 고안이 제기되였으며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4% 장성되였다.

【농업】 1964년에 농산물 수확고는 1963년에 비하여 12% 증가되였고 알곡, 사탕무우, 감자, 목화 및 기타 일련의 농작물 수매 계획도 완수되였다. 그러나 육류, 우유, 계란 및 털 수매 계획은 미달되였다.

1964년 꼴호즈들의 현금 수입은 1963년에 비하여 1.2% 장성한 170억 루블이였다.

1964년 한해 동안에 농촌 경리 부문에 뜨락또르 42만 2,000 대(15 마력으로 환산하여), 화물 자동차 8만 대, 알곡 수확 꼼바인 7만 8,000 대, 씰로스 수확 꼼바인 4만 8,000 대, 옥수수 수확 꼼바인 9,500 대, 감자 수확 꼼바인 5,600 대, 사탕무우 꼼바인 1만 8,000 대, 목화 수확기 7,000 대, 기타 각종 추수기 8만 2,000여 대가 공급되였다.

1964년에 광물질 비료는 전년보다 600만 톤 더 많은 2,200만 톤이 공급되였다.

가축'두수
(년말 현재, 단위 100만 두)

	1962	1963	1964
대각 가축	87.0	85.4	87.1
그중 젖소	38.0	38.3	38.7
돼 지	70.0	40.9	52.8
양 및 염소	146.4	139.5	130.6
꼴호즈, 솝호즈, 기타 국영 경리			
대각 가축	62.5	61.3	62.0
그중 젖소	21.8	22.3	22.6
돼 지	53.9	27.7	38.3

양 및 염소	110.9	108.4	100.1
꼴호즈원, 로동자, 사무원들의 개인 소유			
대각 가축	24.5	24.1	25.1
그중 젖소	16.2	16.0	16.1
돼 지	16.1	13.2	14.5
양 및 염소	35.5	31.1	30.5

주 : 1964년은 예비적 자료.

【대외 무역】 1964년도 쏘련 대외 무역액은 105.5%로 장성되였다. 1963년에 쏘련의 무역 총액은 129억 루블이였고 91 개 나라들과 통상하였다. 쏘련의 대외 무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설비, 연료, 철광석, 흑색 금속류 등이다.

사회, 문화 1964년에 로동자, 사무원 수는 270만 명 증가하여 년 평균 7,320만 명에 달하였다. 생산 부문에 배치된 로동자 및 기술자, 전문가 수는 년간에 160만 명 증가하였다.

1964년에 주민의 3분의 1 (학령전 아동 제외)에 해당하는 6,800만 명 이상이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였다. 보통 교육 학교 학생 수는 4,670만 명, 대학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 학생 수는 690만 명이였는바 그중 대학생 수는 360만 명이였다. 1964년에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대학들에서 220만 명 이상, 전문 학교에서 170만 명이 공부하였다.

1964년에 90만 명 이상의 고등 및 중등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하였는바 그중 35만 명은 고등 교육을 끝마친 사람들이며 13만 3,000 명은 기사들이다.

1964년에 고등 및 중등 교육망에 180만 명이 입학하였는바 그중 대학생 수는 80만 명 이상이였다.

1964년 말 현재 과학 일'군 수는 60만 명 이상이였다.

1964년에 총전평 480만 평방메터의 주택을 건설했다. 이 밖에 농촌에서 약 37만 5,000 동을 건설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따스 통신, 《노보쓰찌》 보도사(아. 뻬. 엔)

주요 신문—쁘라우다(쏘련 공산당 기관지), 이즈베쓰찌야(정부 기관지), 뜨루드(직맹 기관지), 쏘베트쓰까야 로씨야(쏘련 공산당 로련국 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 공청 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 기관지), 리쩨라뚜르나야 가제따(쏘련 작가 동맹 기관지), 에꼬노미체쓰까야가제따(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주간지), 모스크 뉴스(영문), 쏘베트쓰까야 꿀뚜라, 쎌쓰꼬에 호쟈이쓰뜨보

주요 잡지—꼼무니쓰뜨(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빠르찌나야 쥐즌(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당 생활 리론 잡지), 보쁘로씨 이쓰또리, 보쁘로씨 에꼬노미끼, 보쁘로씨 필로쏘피, 메쥬드나로드나야 쥐즌, 노보예 브레먀, 즈베즈다, 끼노 이 이쓰꾸쓰뜨보

뽈 스 까

(뽈스까 인민 공화국)
Poland People's Republic

【면적】 31만 1,730 km²

【인구】 3,183만 9,000 명(1965년 1월 1일)

【수도】 와르샤와 (주민 125만명, 1964년 7월)

정 치 뽈스까는 1944년 7월 22일에 쏘련 군대와 뽈스까 제 1 군(쏘련에서 뽈스까 애국자들로 조직됨)의 진격에 의하여 히틀러 강점에서 해방되였다(이 날을 뽈스까 재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해방과 함께 뽈스까 민족 위원회가 조직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림시 정부로 재조직되였다. 1947년 1월 19일 립법 기관이 선거될 때까지 뽈스까 민족 위원회는 제반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현행 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 회의(쎄임)에서 채택되였으며 그후 약간의 수정이 가하여졌다.

【쎄임】 현 쎄임은 1961년 4월 16일에 인구 6만에 대의원 1 명의 비례로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460 명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의 장 체슬라브 븨쩨호
국가 쏘베트 위원장
에드와르드 오하브

【내각】 현 내각은 1961년 5월 18일에 구성되였으며 그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수 상 유제프 찌란께비치
부수상 쓰쩨판 이그나르,
뾰뜨르 야로쉐비치,
제논 노바크,
에우게니우슈 쉬르,
율리안 또까르쓰끼,
프란찌쉐크 와니올까
내각 직속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쓰쩨판 옌드리홉쓰끼
민족 보위상
마리안 쓰삐할쓰끼
내무상 메치쓸라브 모차르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
대외 무역상
위똘드 뜨롬쁘친쓰끼
내각 경제 위원회 위원장
유제프 찌란께비치
대외 경제 협조 위원회
위원장 뾰뜨르 야로쉐비치

【정당, 사회 단체】 **통일 로동당** 1942년 1월 5일에 조직된 뽈스까 로동당과 뽈스까 사회당이 합당하여 1948년 12월 15일에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64만 명(1964년 12월 말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1964년 6월 제 4 차 당 대회에서 조직된 후 같은 해 11월에 있은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 약간의 보충이 있었다) 블라지쓸라브 고물까, 유제프 찌란께비치, 에드와르드 게레크, 쓰쩨판 옌드리홉쓰끼, 제논 끌리슈꼬, 에드와르드 오하브,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아담 라빠쯔끼, 마리안 쓰삐할쓰끼, 에우게니우슈 쉬르, 프란찌쉐크 와니올까, 리샤르드 쓰뜨렐레쯔끼

후보 위원 메치쓸라브 야겔쓰끼, 뾰뜨르 야로쉐비치, 블레쓸라브 야쉬크

비서국 성원 블라지쓸라브 고물

까(제 1 비서), 워똘드 야로쉰쓰끼, 볼레쓸라브 야쓔크, 제논 끌라슈꼬, 아르뚜르 쓰따레비치, 릐샤르드 쓰첼레쓰끼, 유제프 쩨이초마, 볼라지쓸라브 비하

통일 농민당 총위원회 위원장 체쓸라브 븨쩨초 민주당 위원장 쓰따니쓸라브 꿀친쓰끼 인민 통일 전선, 직업 총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사회주의 청년 동맹 제 1 비서 쓰따니쓸라브 하싸끄 농민 청년 동맹 위원장 까지메즈 바르찌끕쓰끼 녀성 동맹 위원장 알리찌야 무쌀로바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6월 15—20일 뽈스까 통일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뽈스까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총결 보고 및 1966—1970년 뽈스까 인민 공화국 발전에 관한 지시, 중앙 검사 위원회 보고, 뽈스까 통일 로동당의 규약 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대회는 규약 개정안과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3월 13—14일 뽈스까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15 차 전원 회의는 제 4 차 당 대회 소집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테제를 발표하고 당 대회 소집 날자와 대표 선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11월 20—21일에 있은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는 까또비쩨 당 단체와 뽈스까 통일 로동당 제 4 차 대회 결정 실행 정형과 통일 로동당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결과에 관한 보고,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12일 쎄임 비상 회의에서는 8월 7일에 서거한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대신에 에드와르드 오하브를 국가 쏘베트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11월 16—17일에 있은 쎄임 회의에서는 1965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해당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1964년에 제 4 차 통일 농민당 대회(11월 26—29일), 제 3 차 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회(12월 17—19일), 인민 통일 전선 전국 위원회(1월 21일), 제 4 차 농업 일'군 대회(2월), 제 8 차 교원 동맹 대회(4월), 제 14 차 작가 대회(9월 9—21일), 제 3 차 자유와 민주주의 투사 동맹 대회(9월 24—26일), 제 6 차 기자 동맹 대회(12월)가 각각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6월 7—21일에 진행된 뽀즈난 국제 시장에, 8월 9—11일에는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장례식에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한편 조—뽈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뽈스까 대표단(11월 17—23일)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뽈스까는 우리 나라와 1964—1965년도 과학원 간의 교류 계획서(4월 2일),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6월 5일), 과학 기술 교류 제 6 차 회의 의정서(11월 21일), 1965년도 통상 의정서(11월 20일)를 각각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에 쏘련 수상(1월 2—5일), 디크만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 독일 국회 대표단(5월 20—27일), 야노쉬 까다르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10월 12—17일), 유. 쩨덴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당 및 정부 대표단(10월 23—29일)이 각각 뽈스까를 방문하였으며 쏘련 수상, 체스꼬슬로벤스꼬 대통령,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이 뽈스까 재생 20주년(7월 22일) 행사에 참가하였다.

한편 고물까와 찌란께비치를 단장으로 하는 뽈스까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4월 13—18일)을 방문하고 뽈—쏘 간의 우호 협조 조약을 20년 간 연장하는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으며 쓰뻬할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뽈스까 인민군 대표단이 웽그리아(9월 17—26일)를, 찌란께비치가 민주 독일(9월)을, 오하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독일 국경절 행사차 민주 독일(10월)을, 고물까와 찌란께비치를 비롯한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사회주의 10월 혁명 47주년 기념 행사 참가차 쏘련(11월 5—10일)을 각각 방문하였다.

10월 하순에 뽈스까의 뿌수츠바위베쓰끼 지방에서 뽈스까와 쏘련 량국의 당 및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에 체쓸라브 븨쩨초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 대표단이 인도네시아(3월 5—13일)를, 아담 라빠쓰끼가 메히꼬(11월 25일—12월 5일)와 영국(12월 19—22일)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한편 핀란드 대통령 케코넨(3월 3—11일), 유고슬라비아 찌또(6월 25일—7월 2일), 프랑스 국회 대표단(9월 7—14일),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9월 17—20일), 벨지끄 국회 대표단(9월 23—25일), 오지리 국회 대표단(10월 15—23일) 등이 각각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한편 뽈스까 정부는 1964년 2월 29일에 구라파 중심지에서의 핵 및 열핵 무기의 동결에 관한 비망록을, 7월 3일에는 서부 독일 정부가 서부 베를린을 정치적 선동의 목적에 리용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그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라오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 개국 회의 소집안을, 12월 14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쏘련과 미국이 참가하는 구라파 국가들의 회의 소집안을 제기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갈탄, 니탄, 원유, 천연 가스, 철, 아연, 동, 니켈, 류황, 소금, 카리염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산림 면적은 령토의 24.9%이다.

5개년 계획(1961—1965)의 네

번째 해인 1964년에 사회화된 부문에 1963년보다 4% 장성한 1,199억 즐로띠가 투자되였다(그중 생산 부문에 76.6%, 비생산 부문에 23.4%).

1964년에 국민 소득은 약 5% 장성하였다. 1964년 말 현재 사회화된 공업 부문의 종업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4% 장성한 790만 명이였다.

【공업】 1964년 공업 생산 계획은 103.7%로 수행되였으며 그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9.3% 장성하였다.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동력 공업은 112.2%, 기계 공업은 111%, 화학 공업은 113.3%, 건재 공업은 111.1%, 제지 공업은 107%, 방직 공업은 108.7%, 식료 공업은 106.6%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4년에 중공업 부문에서는 500여 종의 새 품종을 확대하였으며 180여 종의 품종 생산을 규격화하였다. 특히 수출품 생산이 확대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7	1963	1964
전력(10억kwh)	3.6	37.0	40 6
석탄(100만 톤)	36.2	113.2	117.4
선철 〃	0.8	5.4	5.7
강철 〃	1.5	8.0	8.57
세멘트 〃	1.3	7.7	8.7
면직물(100만m)	325	695	761

1964년에 40 개의 국영 공장과 100 개 이상의 협동 단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267 키로 메터의 철도를 전기화하였다.

【농업】 1964년 농업 총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0.7% 장성하였다. 1963년에 비하여 농작물 생산은 0.2% 저하되였으나 축산물 생산은 2.3% 장성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1960	1963	1964
4 대 작물(밀, 쌀보리, 귀밀, 보리)	15.1	14 5	13.5
감자	37.7	44 8	48.1
사탕무우	10.2	10.6	12.6

1964년 6월 현재 대각 가축은 990만 두, 돼지는 1,290만 두 있었다.

1964년 말에 농업 크루쇼크 수는 3만 1,500 개, 그 성원은 150만 명이다.

1964년 말에 농촌 경리에는 1963년에 비하여 17% 장성한 11만 대의 뜨락또르가 있었다.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는 농촌의 전기화를 위하여 103.3%, 수리화를 위하여 118%(29억 즐로띠)가 투자되였다. 1964년 말 현재 농촌의 72.8%, 국영 농업 부문의 95.8%가 전기화되였다.

【대외 무역】 1964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1963년에 비하여 11.2% (수입 4.7%, 수출 18.4%) 장성하였다. 1964년에 145 개 국과 무역하였다.

사회, 문화

1964—1965 학년도에 보통 학교 학생 수는 520만 7,200 명, 직업 학교 학생 수는 99만 2,200 명, 대학생 수는 22만 8,800명이였다.

1964년에 4,900개의 교실을 건설하였는바 그중 뽈스까 창립 1,000 주년 기념 1,000 개의 학교 건설 운동의 기금으로 건설된 학교 수는 215개였다(이 운동으로 1964년까지 983 개의 학교를 건설).

1964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들에서의 주택 건설은 1963년에 비하여 16.7% 장성한 32만 8,000 세대였다.

1964년에 영화관 수는 3,807 개, 병원 침대 수는 18만 3,200 개, 탁아소 수는 5만 5,800 개 있었다.

【출판 보도】 통신—빠쁘(뽈스까 통신)

신문—뜨리부나 류두(통일 로동당 기관지), 젠니크 류도븨(통일 농민당 기관지), 쥐쩨 와르샤븨, 글로쓰 쁘라쯰(직맹 기관지), 슈딴다르 믈로되호(사회주의 청년 동맹 기관지), 쫄네쥬 월노스찌(인민군 기관지)

잡지—노웨 드로기(통일 로동당 정치 리론 잡지, 월간), 쥐쩨 빠르띠(통일 로동당 생활 잡지, 월간)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
Czechoslovakia Socialist Republic

【면적】 12만 7,879 km^2

【인구】 1,410만 8,000 명(1964년말)그중 체스꼬인 975만 7,000 명, 슬로벤스꼬인 435만 1,000명이다.

【수도】 쁘라하(주민 102만 명, 1964년 말)

정 치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45년 5월 9일에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 하에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일어난 국내 반동 세력의 반혁명 음모를 분쇄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 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대의원 수는 30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의장 보구슬라브 라슈또비츠까 (1964년 6월 24일 취임)

슬로벤스꼬에는 최고 민족 주권 기관인 슬로벤스꼬 민족 회의가 있다. 민족 회의는 국방, 외교 및 대외 무역을 제외한 민족적 혹은 지방적 성격을 띤 문제들에 한하여 립법권을 가지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1964년 11월 12일 재선, 임기 5년)

【정부】 수상 요제프 레나르뜨 (1963년 9월 취임)

부수상 오따까르 쉬무네크, 올드리쥐흐 체르니크, 프란찌쉐크 크라이치르, 얀 쎌레르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올드리쥐흐 체르니크

외무상 와쯜라브 다비드

내무상 류보미르 슈뜨로우갈
민족 보위상 보구미르 롬쓰끼
대외 무역상
프란찌쉐크 하무드

【정당, 사회 단체】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에 사회 민주당과 합당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68만 819 명(1962년 10월 현재)

상무 위원회 위원 안또닌 노보뜨느이, 야로미르 돌란쓰끼, 알렉싼드르 둡체크, 즈데네크 피를링게르, 이르쥐 겐드리호, 미할 후지크, 드라호미르 꼴제르, 보구슬라브 라슈또비츠카, 요제프 테나로르, 오따까르 쉬무네크

상무 위원회 후보 위원 안또닌 까베크, 미하일 싼불리치크, 마르띤 바쭐리크

비서들 안또닌 노보뜨느이(제1비서), 이르쥐 겐드리호, 드라호미르 꼴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프란찌쉐크 벤즈

비서국 성원들 이르쥐 겐드리호, 드라호미르 꼴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안또닌 노보뜨느이, 안또닌 크르체크, 프란찌쉐크 주뻬까

인민당 위원장 요세프 쁠로이가르 사회당 위원장 알로이쓰 노이만 슬로벤스꼬 부흥당 위원장 요제프 끼쎌르이 민족 전선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안또닌 노보뜨느이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프란찌쉐크 주뻬까 청년 동맹 위원장 미로슬라브 자와질 녀성 동맹 위원장 젤레나 레플레로와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얀 무까르좁쓰끼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6월 14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족 회의, 민족 위원회들 및 슬로벤스꼬 민족 쏘베트 대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였다.

11월 12일 민족 회의는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2월 9—11일 민족 회의에서는 1965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문제와 1965년도 국가 예산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1월 21—22일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인민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조치》와 《각급 민족 위원회 및 군 판사 선거를 위한 준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3월 4—5일에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생산을 제고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5월 7일 전원 회의에서는 당 대표자 회의들의 진행 정형, 각급 민족 위원회 선거 깜빠니야 진행 정형, 민족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0월 21—22일 전원 회의에서는 학교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과 교육 발전을 위한 과업 및 쏘련 공산당 1964년 10월 전원 회의 결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1월 18—19일에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는 1965년 인민 경제 계획, 일부 농산물 수매 가격 개정, 농업 생산에서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할 데 대한 조치와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와 정부 공동 회의에서는 1966년—1970년 인민 경제 계획 작성과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체계를 완성할 데 관한 원칙 초안을 토의하였다.

2월 7일 정부 회의에서는 생산 발전과 인민 생활 문제를, 3월 12일 정부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할 데 대한 법 초안과 모성들의 산전 산후 휴가 문제, 11월 21일 정부 회의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 문제와 토지의 효과적인 리용에 대한 문제를 각각 토의하였다.

·1964년에 사회주의 경쟁 브리가다 전국 대회(2월 21—23일), 제 2 차 건축가 대회(3월 24일), 과학원 제 19 차 대회(4월), 제 6 차 농업 협동 조합 대회(4월 23—26일), 조형 예술가 동맹 대회(12월 11일)가 있었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우리 나라와 1964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2월 24일),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6월 12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9 차 회의 의정서(10월 12일), 1965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11월 25일), 1964—1965년도 과학 교류 계획서(12월 29일)를 각각 조인하였다.

1964년 9월에 제 6 차 브르노 국제 시장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 11월에 정부 통상 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으며 한편 2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 통상 대표단, 10월에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4년에 안또닌 노보뜨느이가 뽈스까 재생 20주년 행사(7월)에 참가하였으며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4월, 11월)과 웽그리아(9월)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로므니아(8월), 벌가리아(9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10월)을 방문하였다.

올드르쥐흐 체르니크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민주 독일(3월)을, 보구슬라브 라슈또비츠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뽈스까(6월)를, 군사 대표단이 민주 독일(7월)을 방문하였다.

한편 쏘련 정부 대표단(1월), 꾸바 혁명 정부 대표단(5월), 쏘련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8월), 쏘련 군사 대표단(9월), 웰남 정부 대표단(11월), 독일 사회 통일당 대표단(12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 의원 대표단(12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각각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에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유고

슬라비아(9월)를, 민족 회의 의장 보구슬라브 라슈또비츠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10월)를,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대표단이 오지리(3월), 화란(3월), 쎄일론(4월), 프랑스(5월, 7월), 이딸리아(8월), 벨지고(11월), 인도(12월)를,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 대표단이 캄보쟈(11월), 메히꼬(11월)를, 다비드 외무상이 아랍 련합 공화국(2월), 유고슬라비아(5월), 프랑스(11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예멘 대통령(3월), 아랍 련합 공화국 수상(9월), 브라질 정부 대표단(1월), 독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막스 라이만(4월, 10월), 벤 벨라를 단장으로 하는 알제리 정부 대표단(5월),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 정부 대표단(8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9월), 일본 정부 경제 대표단(11월), 이딸리아 공산당 대표단(7월, 9월), 베네수엘라 공산당 대표단(10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브라자빌 콩고(3월), 잔지바르(2월), 케니아, 요르단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10월에 볼리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늄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공업이 매우 발전한 나라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제 3 차 5개년 계획(1961—1965) 수행에 착수하였으나 1962년에 제 3 차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하고 7개년 계획(1964—1970) 작성 방침을 채택하였으며 그후 다시 5 개년 계획(1966—1970) 작성 방침을 채택하고 1964년도를 준비의 해로 규정하였다.

1964년에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408억 크로나가 투자되였다.

1964년에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기업소(농업 협동 조합 제외) 종업원 수는 전년도 보다 11만 3,000 명이 증가한 594만 6 천명, 공업 부문 종업원 수는 전년보다 1만 5,000 명이 증가한 246만 8,000 명이였다.

【공업】 1964년 공업 생산 계획은 101.9%, 상품 생산 계획은 102.1%로 초과 수행되였다. 1964년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4.1%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3	1964
전력(10억kwh)	29.9	32.0
석탄(100만 톤)	28.3	28.28
갈탄 〃	68.5	70.387
선철 〃	5.25	5.716
강철 〃	7.59	8.377
세멘트 〃	5.18	5.493
승용차(1,000대)	56.5	42.0
화물 자동차 〃	13.0	12.0
뜨락또르 〃	28.4	30.0
면직물(100만 메터)	466.9	459.0
신발(100만 켤레)	76.3	79.0
사탕(1,000 톤)	993.6	1 002.0

1964년에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계획은 102%로 수행되여 전년보다 3.9% 장성되였으나 원가 저하 계획은 99.6%로 미달되였다.

【농업】 1964년 농업 생산 계획은 94.5%로 미달하였으나 전년에 비하여 0.6% 장성하였다. 농작물 생산 계획은 88.9%(전년에 비하여 4.3% 감소)로 미달하였으며 축산물 생산은 5.7% 장성하였다.

1964년도에 농업 기업소들에 공급된 화학 비료는 75만 6,000 톤(전년에 비하여 23.5% 증가)이며 농토 1헥타르당 시비량은 104.8 키로그람였다. 1964년 한해 동안에 농촌 경리 부문에는 1만 6,197 대의 뜨락또르, 2만 8,016 대의 알곡 수확 콤바인, 1,306 대의 화물 자동차가 공급되였다.

1964년 말에 대각 가축은 443만 6,000 두(그중 젖소는 195만 9,000 두), 돼지는 613만 9,000 두 있었다.

【대외 무역】 1964년에 수출액은 192억 1,100만 크로나, 수입액은 174억 8,800만 크로나였다. 1963년에 131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1963년에 이 나라 무역 총액에서 74.6%를 차지하였다. 1963년에 이 나라 수출에서 기계 공업 제품은 약 70%(그중 기계 및 설비는 47.3%)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및 원료이다.

사회, 문화

1964—1965 학년도 유치원 재적 아동 수는 31만 8,000 명, 초등 학교(9년제) 졸업생 수는 23만 7,969 명, 중등 전문 및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7만 8,758 명(그중 직업을 가진 졸업생 수는 3만 8,679 명)이였다. 1964—1965 학년도에 중등 전문 및 기술 학교 입학생 수는 10만 1,069 명(그중 직업을 가진 학생 수는 4만 1,709명)이였다.

1964년말 현재 의사 수는 2만 7,981 명, 병원 침대 수는 17만 1,000 대 있었다.

1964년에 40편의 예술 영화와 813 편의 단편 영화들을 제작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체떼까(체스꼬슬로벤스꼬 통신)

신문—루데 쁘라보(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기관지), 쁘라우다(슬로벤스꼬 공산당 기관지), 스보보드네 슬로보(사회당 기관지), 리도바 데모크라찌에(인민당 기관지), 브라쩨(직맹 중앙 평의회 기관지), 물라다 프론따(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노바 미쓸(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쥐보뜨 스뜨라느이(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잡지), 메지나로드니 뽈리찌까(체스꼬슬로벤스꼬 정치 및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잡지)

웽그리아

(웽그리아 인민 공화국)
Hungary People's Republic

【면적】 9만 3,030 km²

【인구】 1,013만 4,000 명(1964년 12월 1일)

【수도】 부다뻬슈뜨(주민 195만 명)

정 치

웽그리아는 1945년 4월 4일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국가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현 국가 회의는 1963년 2월 24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340명이다.

의장 바취 이슈트반네
상임 위원회 위원장 도비 이슈트반

【로농 혁명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3월 21일에 성립되였으며 1964년 말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상 까다르 야노쉬
부수상 아쁘로 안딸, 페헤르 라이오쉬, 깔라이 지울라, 빠쁘 야노쉬, 포크 예네
국무상 문니흐 페렌쯔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이따이 미끌로쉬
국방상 찌네게 라이오쉬(상장)
내무상 벵께이 안드라쉬
외무상 뻬쩨르 야노쉬
무역상 비로 요제프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로동당 1956년 11월 1일에 창건되였다. 전신은 1948년 6월 14일 공산당(1918년 11월 20일 창건)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당원 수 51만 1,965명(1962년 11월 현재, 후보 당원 포함)

정치 위원회 위원 아쁘로 안딸, 비쓰꾸 벨라, 페헤르 라이오쉬, 포크 예네, 가슈빠르 산도르, 까다르 야노쉬, 깔라이 지울라, 끄모친 졸딴, 문니흐 페렌쯔, 네메쉬 제쉐, 로나이 산도르, 쇼모지 미끌로쉬, 씨르마이 이슈트반

후보 위원 아이따이 미끌로쉬, 브르찌오 야노쉬, 찌네게 라이오쉬, 쵸께르끼 라이오쉬, 빌꾸빨, 니예르쉬 레줴

비서국 성원 까다르 야노쉬(제1 비서), 비쓰꾸 벨라, 네메쉬 제쉐, 네메뜨 까로이, 니예르쉬 레줴, 씨르마이 이슈트반, 쵸께르끼 라이오쉬, 수르지 이슈트반, 끄로마 미하이

애국 인민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깔라이 지울라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쇼모지 미끌로쉬 **녀성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르네이 라쓜로네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메헤샤 라이오쉬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1월 30일—2월 1일 국가 회의에서는 1964년도 국가 예산과 세계 의회 동맹 웽그리아 그루빠의 활동 정형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6월 25—26일 국가 회의에서는 우편 및 원거리 통신에 관한 법령 초안과 상업 형편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에 진행된 국가 회의에서는 건설 및 물 관리 문제에 대한 법령 초안을 토의 결정하고 외무상의 《웽그리아 대외 정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2월 웽그리아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2월 20—23일)에서는《현 정세 문제》, 《건설 공업의 형편과 과업》, 《농업 형편과 과업》 및 《간부 임명, 송환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웽그리아의 대외 정책과 국제 회담들에 대하여》, 《대내 정책과 경제 문제 및 하반년도 사업 계획서 비준》 문제를, 10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쏘련 당 지도부 내의 인사 변동 문제를, 12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12월 8—10일)에서는 《1965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몇가지 문제》, 《1965년 상반년도 당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을 각각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64년에 애국 인민 전선 제 2 차 대회(3월), 공산 청년 동맹 제 6 차 대회(12월), 문예 부문 열성자 대회(4월)가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에 웽그리아는 우리 나라와 1964년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4월 6일),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6월 13일),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12월 21일)을 체결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 농업 전문가(9월), 방송 대표단(11월), 과학자 대표단 및 정부 통상 대표단(12월) 등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웽그리아 정부 통상 대표단(1월), 벼 재배 전문가(8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 (3월), 쏘련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 (4월),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 독일 당 및 정부 대표단 (5월),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 대표단 (9월), 유. 쩨덴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당 및 정부 대표단 (10월), 로므니아 당 및 정부 대표단과 대 민족 회의 대표단 (6월)이 각각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4월과 11월에 까따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10월에는 모르나르 애리크를 단장으로 하는 웽—중 친선 협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12

월에 웽그리아 국가 회의 대표단이 가나, 말리, 기네를 방문하였으며 예멘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6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9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찌또 (9월), 오지리 외무상(10월)이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웽그리아는 1964년에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일본,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예, 희랍, 우루과이, 단마르크, 오지리, 에티오피아 등과 공사급외교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웽그리아는 64 개 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330 개의 국제 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경 제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세계 매장량의 6분의 1), 석탄, 원유, 망간, 철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국토의 93%는 경지, 목장, 초원, 과수원이다.

제 2 차 5개년 계획의 네번째 해인 1964년에 국민 소득은 1963 년에 비하여 4% 증가하였다. 1960년에 비하여 지난 4년간 (1961—1964)에 웽그리아의 공업은 40%, 농업은 10%, 국민 소득은 23% 각각 장성하였다.

【공업】 1964년에 사회주의 공업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8.9% 장성하였으며 1964년 계획을 3% 초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계 공업과 전재 공업 계획은 약간 미달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3	1964
석탄 (100만톤)	30.5	31.5
원유 〃	1.75	1.80
보키사이트 〃	1.36	1.50
전력(10억 kwh)	9.6	10.6
강철 (100만 톤)	2.37	2.40
압연 강재 〃	1.68	1.70
알루미늄(1,000 톤)	55.4	56.9
세멘트 (만 톤)	179.8	230
질소 비료 〃	38.7	44.8
파린산 비료(만 톤)	51.3	53.9
면직물(100만 m²)	266	340
모직물 〃	33	36

【농업】 1964년 농업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2% 늘었다.

특히 가축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농작물 생산은 전년도 수준을 견지하였다.

1964년에 알곡 파종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7% 증가하였고 그 생산량은 24% 증가하였다. 1 헥타 당 밀 평균 수확량은 1톤 850키로그람이였다. 과실 생산은 전년도 수준을 견지하였다.

1964년말에 관개 면적은 64만 3,000 홀드(1홀드=0.57헥타)였다.

1964년 말 현재 농촌 경리에는 5만 8,000 대의 뜨락또르가 작업하였으며 곡물 수확의 기계화 비중은 80%였다.

1964년 말 현재 대각 가축은 195만 두(그중 젖소는 80만 두), 돼지는 700만 두 있었다.

【대외 무역】 1964년에 전년에 비하여 수입은 14%, 수출은 12% 장성하였다. 무역액의 70%는 사회주의 국가와 진행되였다. 수입에서 원료 및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였다.

1964년 말 현재 웽그리아는 128 개 국과 무역 거래를 하였으며 63 개 국에는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1960년부터 1964년 기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상품 류통액은 65% 장성하였다.

사회, 문화 1964년에 인구 1만 명에 18.3 명의 의사가 차례졌으며 병원 침대 수는 800 대 증가하여 1964년 말 현재 7만 6천 대에 달하였다.

1964—1965 학년도에 약 230 만 명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들에서 공부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엠.떼.이(웽그리아 통신)

신문—네프싸바드 샤그(사회 로동당 기관지), 네프 싸바(직맹 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 인민 전선 기관지), 애쓰띠 히르라프(부다뻬슈뜨 석간 신문)

잡지—따르샤달미 쎄믈레(사회 로동당 정치 리론 잡지), 빠르쩰레뜨(사회 로동당 생활 잡지)

로므니아

(로므니아 인민 공화국)
Rum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3만 7,500 km²

【인구】 1,898만 명(1965년 1월 1일)

【수도】 부꾸레슈띠 (주민 약 137만 명)

정 치 1941년 8월 23일 히틀러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된 로므니아 인민은 1945년 3월 6일 인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7년 12월 30일 로므니아 인민은 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며 대의원은 465명이다. 현재의 대 민족 회의는 1965년 3월 7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슈떼판 보이떼끄

【국가 쏘베트】 1961년 3월 21 일 대 민족 회의 제 4 기 제 1 차 회의에서 대 민족 회의 상임 위원회를 국가 쏘베트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1965년 3월 19일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의 서거로 동년 3월 24일 대 민족 회의에서 끼부 쓰또이까를 국가 쏘베르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내각】 현 내각은 1965년 3월 19일에 성립되였다.

수 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제 1 부수상 게오르게 아뽀스똘
부수상 에밀 보드너라슈,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알렉싼드루 븨를러댜누, 표구 러들레쓰꾸, 게오르게 러도이
부수상 겸 내무상 알렉싼드루 드러기치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게 가쓰똔 마린
외무상 꼬르넬리우 메네쓰꾸
무력상 레온띤 쌀레쟌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된 공산당은 1948년 2월에 사회 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당원 수 124만 명(1964년 2월)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게오르게 아뽀쓰똘, 에밀 보드너라슈, 뻬뜨레 보릴러,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끼부 쓰또이까, 알렉싼드루 드러기치,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알렉산드루 브를러댜누

정치국 후보 위원 두미뜨루 꼴리우, 레온떤 썰레잔, 슈떼판 보이떼고, 레온떼 러우뚜

비서국 성원 니꼴라에 챠우쉐쓰꾸(제 1 비서, 1965년 3월 22일 선거), 끼부 쓰또이까, 미하이 달라, 레온떼 러우뚜, 빠울 니꿀레쓰꾸, 일리에 베르데뜨

인민 민주주의 전선,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사고 마르떤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뻬뜨루 에나께 **전국 녀성 리사회** 위원장 쑤자나 그댜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랄랴(원사)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4월 15—22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3월에 있은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의 조선, 중국, 쏘련 방문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 문제들에 대한 로므니아 로동당의 립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전원 회의(6월 24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 인상 및 세금 인하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1월 전원회의 (11월 30일—12월 1일)에서는 1965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과 대 민족 회의 및 지방 인민 쏘베트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국제 관계 분야에서의 정치국의 활동과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과 일련의 형제당 대표단 간에 진행된 회담 및 접촉들과 관련한 당의 활동을 승인하였다.

12월 27—29일에 진행된 대 민족 회의는 1964년도 국가 계획 수행에 관한 예비적 총화와 1965년도 국가 계획 및 국가 예산에 관한 보고들을 청취 토의하고 그를 채택하였다.

국가 쏘베트는 4월과 6월의 2차에 걸쳐 정령을 발표하고 약 5천 명의 정치범에 대한 특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군대 복무 기한(1957년에 제정)을 변경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군대 복무 기한은 해군은 2년, 기타 병종은 1년 4개월로 결정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에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3월 12—14일), 녀성 대표단(8월),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9월) 등 11 개의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김 일 제 1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8월 18—24일), 문화 대표단(8월), 정부 통상 대표단(10월), 문화 대표단 및 가무단(11월), 사로청 대표단(11월), 조—로 과학 기술 협조 대표단(11월) 등 20개의 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와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1965년 사업 계획서(3월 31일),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10월 21일), 1964년도 과학 기술 협조 의정서(11월 30일)가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4년에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3월, 7월, 11월), 끼부 쓰또이까를 단장으로 하는 당 일'군 대표단(5—6월)이 쏘련을,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3월, 10월)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로므니아 당 대표단이 뽈스까(6월)와 웽그리아(7월)를, 로므니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벌가리아(9월), 민주 독일(10월), 알바니아(11월)를, 로므니아 대 민족 회의 대표단이 웽그리아(6월)와 벌가리아(7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로므니아 해방 20 주년에 제하여 8월에 쏘련, 중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 뽈스까, 웽그리아, 벌가리아, 알바니아, 웰남, 몽골, 꾸바의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쏘련 군사 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6월 22일에 로므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국경 지역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와 찌또가 상봉하였고 9월 7일에는 두나이강 철문 수력 및 항행 체계 건설 공사 착공식에 참가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찌또를 비롯한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과 회담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제 8 차 대회에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5—6월에는 게오르게 까스똔 마린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량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사급으로부터 대사급으로 승격시켰으며 량국 간의 통상 발전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8월에 프랑스를, 10월에 버마, 아련, 파키스탄을, 게오르게 아뽀쓰똘 제 1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11월에 알제리를, 대 민족 회의 대표단이 3월에 일본을, 10월에 프랑스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5월에 예멘 아랍 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 9월에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쎌라시에 1 세, 8월에 유고슬라비아 당 및 정부 대표단, 9월에 프랑스 국회 대표단, 10월에 일본 국회 대표단이 각각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로므니아는 일본, 이딸리아, 스위스, 스웨리예, 노르웨이, 아르헨띠나, 우루과이와의 외교 관계를 각각 공사급으로부

허 대사급으로 승격시켰으며 시에라 레온과는 새로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1964년 12월 31일 현재 로므니아는 57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원유(매장량과 채취량에서 구라파 제 2위), 천연 가스(세계에서 제 4위 그 순결도는 99.8%), 석탄, 암염, 철, 금, 은, 보키사이트, 망간, 연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등이다.

1964년은 인민 경제 발전 6 개년 계획(1960—1965)의 다섯번째 해로서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63년에 비하여 11%가 더 많은 374억 레이였다.

1964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약 10% 증가하였으며 인민 경제 부문의 종업원 수는 17만 명이 장성한 410만 명이였다.

【공업】 1964년 공업 생산 계획은 102.6%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액은 1963년에 비하여 14.1% 장성하였다.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5.8%, 소비재 생산은 10.9% 장성하였다.

1964년의 공업 생산은 1959년에 비하여 2 배나 장성하였으며 1960—1964년 간에 년 평균 공업 장성 속도는 6개년 계획에 예견한 13%를 초과하여 14.8%였다. 1964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제 3 차 당 대회 지시문에서 예견한 1965년도 생산 수준을 릉가하였다.

1964년에 로동 생산 능률은 1963년에 비하여 10% 이상 장성하였으며 공업 생산 장성의 4분의 3이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로 달성되였다. 1964년에 원가는 전년보다 1.6% 내려갔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3	1964
전력(10억 kwh)	11.682	13.826
석탄(1,000 톤)	10 267	11 123
원유 〃	12 233	12 395
천연가스(1억m³)	101.01	114.17
선철(1,000 톤)	1 706	1 924
강철 〃	2 704	3 039
압연품 〃	1 921	2 062
자동차(대)	20 174	22 112
뜨락또르 〃	13 290	15 951
세멘트(1,000 톤)	4 369	4 752
목재(1000m³)	4 575	4 629
면직물(100만m²)	301	302

【농업】 1964년 알곡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1960—1964년 간에 년 평균 알곡 수확고는 1955—1959년 간의 년 평균 알곡 수확고 920만 톤에 비하여 1,030만 톤으로 장성(12%)하였다. 그중 해바라기는 31만 4,000 톤으로부터 49만 5,000 톤으로, 사탕무우는 210만 톤으로부터 290만 톤으로 각각 장성하였다.

축산업 발전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64년에 국영 농장 및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 전년에 비하여 우유 생산은 11%, 란류 생산은 2 배 이상 각각 장성하였다.

1964년 말에 농촌 경리에는 7만 4,400 대의 뜨락또르, 6만 3,500 대의 뜨락또르 파종기, 3만 5,200 대의 곡물 콤바인이 있었다. 뜨락또르 대당 평균 경지 면적은 1964년에 132 헥터(1959년에는 270 헥터)였다. 이리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의 기계화 작업량은 전년에 비하여 8% 장성하여 1959년의 3.2 배에 이르렀다.

【대외 무역】 1964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116억 2,220만 레이)에 비하여 12%, 1959년에 비하여 2 배 이상 장성하였다. 1964년에 로므니아는 100여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고 35 개의 국제 시장 및 국제 전람회에 참가하였다.

1963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이 나라 무역 총액에서 약 70%를 차지하였다.

사회, 문화 1964년 국가 예산에서 사회 문화 부문에 전년보다 8% 더 많은 205억 레이를 지출하였다.

1964—1965 학년도에 8년제 의무 교육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되였으며 각급 학교 학생 수는 370만 명(전학년도에 비하여 8% 장성)이였다. 그중 일반 교육(8년제 의무 교육) 부문 학생 수는 332만 1,000 명, 직업 학교 학생 수는 18만 1,000 명, 기술 전문 학교 학생 수는 6만 7,000 명, 대학생 수는 전년보다 10% 장성한 12만 3,000명(그중 41%가 기술 및 농업 계통)이였다.

1964년 병원 침대 수는 14만 1,800 대, 병원 및 진료소 수는 3,882 개(그중 농촌에 2,889 개)로 늘었으며 주민 696 명에 의사 1 명이 차례졌다.

【출판 보도】 통신—아제르 쁘레쓰(로므니아 통신)

신문—쓰끈떼아(로동당 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라(인민 쏘베트 기관지), 문까(직맹 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로동 청년 동맹 기관지), 인포르마찌야 부꾸레슈띠 울루이(수도 석간 신문)

잡지—룹따 데 클라써(로동당 정치 리론 잡지)

벌가리아

(벌가리아 인민 공화국)
Bulgaria People's Republic

【면적】 11만 1,030 km²

【인구】 816만 3,000 명(1964년 10월 1일)

【수도】 쏘피아(주민 81만 1,522 명, 1964년 9월 30일)

정 치 1944년 9월 9일 독일 파쑈 기반에서 해방된 후 1946년 9월 15일에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 회의는 1962년 2월 25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197명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1964년 4월 23일 선거)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1월 27일에 구성되였다.

수 상 또도르 쥡꼬브
제 1 부수상 쥡꼬 쥡꼬브
부수상 이완 미하일로브, 쓰딴꼬 또도로브, 따노 쫄로브, 뻰쵸 꾸바진쓰끼
내무상 지꼬 지꼬브
인민 보위상 도브리 쥬로브
외무상 이완 바쉐브
무역상 이완 부지노브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뽀쓰똘 빠쉐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891년에 사회 민주당으로 창건되였다. 1903년 이후 사회 민주 로동당으로 불리워 오다가 1919년 5월 25일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57만 3,761명(1964년 1월).

정치국 위원 보얀 뷜가라노브, 보리쓰 웰체브, 미뜨꼬 그리고로브, 쥡꼬 쥡꼬브, 또도르 쥡꼬브, 이완 미하일로브, 엔쵸 쓰따이꼬브, 쓰딴꼬 또도로브

정치국 후보 위원 지미뜨르 지모브, 따노 쫄로브, 뻰쵸 꾸바진쓰끼

비서국 성원 또도르 쥡꼬브(제 1 비서), 보얀 뷜가라노브, 보리쓰 웰체브, 미뜨꼬 그리고로브, 나쵸 빠빠조브, 루체자르 아브라모브, 이완 쁘리모브

인민 농민 동맹 총비서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조국 전선** 민족 쏘베트 위원장 엔쵸 쓰따이꼬브 **직업 동맹** 중앙 쏘베트 위원장 쓰또얀 규로브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이완 아바쥐예브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라자 또도로바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까쩨리나 아브라모바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4월 8일 제 4 기 제 6 차 인민 회의는 상임 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거하였으며 6월 10—11일 제 7 차 인민 회의는 당 및 국가 검열에 관한 법령 초안, 주민 지역 건설 계획에 관한 법령 수정 및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9월 7—8일 제 8 차 인민 회의는 새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 선거, 대사령 문제 등을 토의하였고 12월 25—28일 제 9 차 인민 회의는 1965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1965년도 국가 예산 및 기타 문제를 각각 토의하였다.

9월 8일부터 새 국가를 부를데 대한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1월 22—24일에 진행된 당 정치국 및 내각 공동 회의는 화학 및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동력 및 연료 공업, 농업 부문의 1964년도 계획 수행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2월 26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쏘련 방문에 관한 보고를, 3월 21일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한 일부 문제를, 5월 14—15일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제 8 차 당 대회 결정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할데 대한 문제를 각각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9월 9일 벌가리아 사회주의 혁명 20 주년 기념 쏘피아시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도 통상 의정서(2월 20일),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5월 30일)가 각각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2월과 11월에 쏘련을, 3월에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미뜨꼬 그리고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6월), 뻰쵸 꾸바진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1월), 따노 쫄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경제 대표단(1월), 쓰딴꼬 또도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7월)이 각각 쏘련을, 군사 대표단(6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 독일 당 및 정부 대표단(9월)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으며 9월 9일 행사 (벌가리아 사회주의 혁명 20 주년)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므니아, 쏘련, 웽그리아, 민주 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몽골, 꾸바, 기타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정부 경제 대표단이 칠레를 비롯한 남미주 국가들과 오지리(1월)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4월), 유고슬라비아(6월), 희랍(7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5월), 예멘 아랍 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4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9월), 오지리 공산당 대표단(5월), 벨지끄 공산당 대표단(6월)등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벌가리아는 1964년에 케니아(2월), 잔지바르(3월), 나이제리아(3월), 우간다(5월), 브라자빌 꽁고 (12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매장량 43억 4,000만 톤), 철(매장량 3억 톤, 철 함유량 30~35%), 연 및 아연(합쳐서 매장량 1억 1,200만 톤), 동, 망간, 은, 금, 원유, 자연 가스 등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실, 채소 등이다.

벌가리아는 해방 후 인민 정권하에서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제 4 차 5 개년(1961—1965) 계획의 네번째 해인 1964년에 인민 경제 계획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비중은 23.4 대 76.6이였다.

1964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6% 장성하였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제품 생산 계획은 103.2%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1.1% 장성하였다. 1964년에 지방 공업 계획은 105.5%로 수행되였으며 지방 공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6.7% 장성하였다.

1964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8.1% 높아졌으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따르는 공업 제품 생산의 장성은 72%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3	1964
전력(100만 kwh)	5 406	7 182	8 698
각종탄(100만 톤)	18.6	22	25.5
선철(1,000 톤)	206	300	385
강철 〃	340	461	475
압연강재 〃	271	353	363
연 〃	41	51	59
질소비료 〃	88	100.9	612
세멘트 〃	1 749	2 205	2 586
면직물(100만 m)	226	250	268
채소 통조림 (1,000 톤)	164	178	353
과실 통조림 〃	159	194	

주: 1963년까지의 질소 비료 생산량은 암모니아 100%로 계산된 것.

【농업】 1964년에 농산물 생산은 1963년에 비하여 8.6% 장성하였다. 같은 기간에 알곡 생산은 17%, 공예 작물 생산은 25.5% 장성하였다.

1964년에 옥수수의 헥타 당 수확고는 3,042 키로그람(전년은 2,600 키로그람), 보리는 2,117 키로그람(전년은 1,790 키로그람), 사탕무우 25톤 691 키로그람, 감자는 10 톤 251 키로그람였다.

농업 기계화 작업량은 전년에 비하여 7.8% 장성하였다.

1964년에 축산물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1.4%, 그중 우유 생산은 10.3%, 계란은 3.4% 각각 장성하였다. 1965년 1월 1일 현재 1964년 1월 1일에 비하여 대각 가축은 4%, 양은 6.7%, 가금은 18.5% 줄었으나 돼지는 14.1% 장성하였다.

【대외 무역】 1964년에 수출은 108.4%, 수입은 109.1%로 계획을 수행하였다. 1964년에 101 개 나라들과 무역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이 나라 무역 총액의 78.2%를 차지하였다.

사회, 문화 1964—1965학년도에 296 개의 전문 학교와 201 개의 직업 학교에서 25만 4천 명, 25 개의 대학에서 약 8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1964년에 40 개의 극장에서 65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으며 약 1,900개의 영화관이 운영되였다. 전년에 비하여 병원 침대 수는 1,500 개, 정양소 침대 수는 350 개, 휴양소 침대 수는 4,400 개 이상 늘었다.

【출판 보도】 통신—벌가리아 통신

신문—라보뜨니체스꼬 젤로(공산당 기관지), 오쩨체쓰르벤 프론트(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조국 전선 기관지), 뜨루드(직맹 기관지), 제메델쓰꼬 즈나메(농민 동맹 기관지), 나로드나 몰라데쥬(지미뜨로브 공청 기관지)

잡지—노브 브레메(공산당 리론 잡지), 빠르찌엔 쥐보트(공산당 잡지)

알바니아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Alb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만 8,748 km²

【인구】 184만 8,000 명(1964년 12월)

【수도】 티라나(주민 15만 5,000 명, 1964년)

정 치 알바니아 공산당(현재 로동당)의 령도 하에 이딸리아 및 독일 파시스트 강점자들과 국내 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전개한 5년 간에 걸친 알바니아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쏘베트 군대의 력사적 승리로 알바니아는 1944년 11월 29일에 해방되였다. 알바니아는 1946년 1월 11일에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4일에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현 인민 회의는 제 5 기로서 1962년 6월 3일에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214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인민 회의 의장 데프메르 고가 (1964년 11월 선거)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7월 16일에 구성되였다.

수 상 메흐메드 쉐후
제 1 부수상 스피로 콜레카, 베키르 발루크, 마누슈 무프티우
부수상 코쵸 테오도시, 아브둘 켈레지
인민 보위상 베키르 발루쿠(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코쵸 테오도시(겸임)
내무상 카드리 하즈비우
외무상 베하르 슈툴라
상업상 키쵸 느겔라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쉐프케트 페치

【정당, 사회 단체】 **알바니아 로동당** 전신은 1941년 11월 8일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8년 11월 18—22일 간에 진행된 공산당 제 1 차 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당원 수 5만 3,659 명, 그중 후보 당원 2,857 명(1961년 2월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엔베르 호쟈, 메흐메드 쉐후, 휴스니 카포, 베키르 발루쿠, 스피로 콜레카, 고고 누쉬, 리타 마르코, 마누슈 무프티우,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아딜 챠르챠니

후보 위원 필로 페리스테리, 코쵸 테오도시, 카드리 하즈비우, 페트리트 두메

비서국 성원 엔베르 호쟈(제 1비서), 휴스니 카포, 리타 마르코,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민주주의 전선 1942년 9월 16일에 창건된 반파쑈 민족 해방 전선이 해방후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였다. 성원은 약 70만 명, 전국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베르 호쟈 **직업 동맹** 1945년 2월 11일 창건. 1964년 말 현재 전체 로동자, 사무원의 90% 이상이 망라. 중앙 평의회 위원장 고고 누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1949년 9월 공산 청년 동맹(1941년 11월 23일 창건)과 인민 청년 동맹이 합동하여 형성되였다. 맹원 수 약 10만 명, 제 1 비서 아김 메로. **녀성 동맹** 1943년 9월에 창립, 맹원 수 24만여 명. 위원장 비토 카포.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카호레만 윌리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11월 22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5 기 제 5 차 회의는 인민 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였다. 12월 21—22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5 기 제 6 차 회의는 1965년도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공공 사업성을 새로 조직하였다.

5월 31일 지방 주권 기관 선거가 실시되였다. 전체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그중 99.99%가 찬성 투표하였다.

2월 11—12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1963년도 계획 및 국가 예산 실행과 1964년도 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와 주 은래 총리의 알바니아 방문과 두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 간의 회담 결과에 대하여, 7월 7—9일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를 각각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1월 29일 알바니아 해방 20주년 기념 식전이 30여 개 나라 대표단들의 참가 하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에 김 일성 종합 대학과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과 이에 근거한 1964—1965년도 집행 계획서(4월 7일),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6월 3일),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11월 15일), 식물 보호 및 검역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12월 31일)이 체결되였다.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11월 26일—12월 6일), 직맹 대표단(4월 25일—5월 10일),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대표단(11—12월), 문화 대표단과 평양 가무단(10월 21일—11월 4일), 기자 대표(8월, 11월)들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대표단(3월 29일—4월 8일), 알바니아 기자 대표(7월), 알바니아 작가 예술가 대표단(10월 20—21일), 수력 구조물 견학단(1964년 12월 11일—1965년 1월 2일)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3년 12월 31일부터 1964년 1월 9일까지 주 은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으며 1964년 1월 8일 량국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메호메트 쉐후 수상은 11월 3일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세계 각국 수뇌자들의 회의 소집을 제의한 주 은래 총리의 서한을 지지하여 회답 서한을 보냈다.

1964년에 알바니아와 중국 간에 량국 국경절들에 제하여 당 및 정부 대표단들과 친선 협회 대표단들이 호상 방문하였으며 중국 보건 대표단(6월), 교통 대표단(7월), 직맹 대표단(7월), 체성 대표단(9월), 작가 예술가 대표단(9월)등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알바니아의 보건 대표단(1월), 로동 청년 대표단(9월), 법률가 대표단(10월), 작가 예술가 대표단(9월)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4월에 웰남 민주 공화국 대사관이 티라나에 개설되였으며 웰남 민주 공화국의 당 및 정부 대표단(11월), 직맹 대표단(3월), 보건 대표단(9월), 정부 통상 대표단(11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이 5월과 11월에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꾸바의 당 및 정부 대표단(11월), 교육 대표단(6월), 정부 통상 대표단(1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알바니아 친선 대표단(8월), 정부 통상 대표단(10월), 알바니아—미주 국가 친선 협회 대표단(11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알바니아와 로므니아 간에 국경절들에 제하여 량국 당 및 정부 대표단들이 호상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에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 및 정부 대표단(11월), 알제리 문화 대표단(11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알바니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두 나라 간에 처음으로 통상 및 항해 조약이 체결되였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6월, 11월), 인도네시아—알바니아 친선 협회 대표단(11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알바니아 직맹 대표단이 인도네시아(9월)를 방문하였다. 5월에는 캄보쟈 국회 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1964년에 알바니아는 이딸리아(7월), 프랑스(10월)와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경 제

석유, 크롬광, 동, 피휘, 석탄, 천연 가스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주요한 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올리브, 포도, 귤, 담배 등이며 목축업도 발전하였다.

알바니아 인민은 제 3 차 5 개년 계획(1961—1965)의 네 번째 해인 1964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업】 1964년 공업 생산 계획은 100.7%로 수행되였으며 1964년 공업 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7.4% 장성하였다. 주요 제품 생산 계획에서 원유는 100.5%, 피휘는 107.4%, 석탄은 100.6%, 크롬광은 100.6%, 동광은 101.2%, 조동은 100.2%, 철—니켈광은 100.2%, 전력은 103.1%, 기계 및 설비는 107.9%, 면직물은 100.5%, 모직물은 100.1%, 울

리브 기름은 128.6%, 담배는 192.8%, 빠다는 116.9%로 각각 수행되였다.

1964년에 알바니아는 처음으로 전동기, 변압기 및 소형 발동기들을 생산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은 1963년에 비하여 3.5% 장성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단위 1,000톤)

	1938	1961	1963
원유	108	770.9	750.9
원유가공	—	384.9	475.8
석탄	3.7	289.0	252.1
크롬광	7.0	232.4	293.0
철—니켈광	—	358.4	259.0
전력(100만 kwh)	9.3	227.3	258.2
동광	—	80.4	143.8
면직물 (1,000m)	358	25 972	27 784
모직물 〃	—	1 231	1 278

【농업】 1964년에 농업 부문에서 가일층의 전진이 이룩되였다. 1963—1964년 기간에 파종 면적은 1962—1963년 기간에 비하여 2.4% 증가하였다. 1963년에 비하여 빵 제조용 알곡 생산은 19%, 귀밀은 8%, 감자는 43%, 사탕무우는 44%, 채소는 1.4%, 과실은 3.4%, 우유는 5% 각각 증가하였다.

1964년 9월에 과실 나무는 1960년 9월에 비하여 36%, 올리브 나무는 23%, 포도 나무는 48% 더 늘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비하여 소는 5.4%, 양은 6.3%, 염소는 7%, 돼지는 15.7%, 꿀벌은 12% 각각 증가하였다.

1964년에 약 600대(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가 농촌 경리에 공급되였으며 관개 면적은 1963년에 비하여 6% 확장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단위 1,000 톤)

	1938	1961	1963
밀	38.6	94.6	59.9
쌀보리	3.0	7.2	5.1
옥수수	143.7	154.1	192.1
벼	0.6	4.6	9.1
목화	0.1	18.4	23.1
담배	1.9	4.1	15.9
사탕무우	—	83.0	93.8
채소	31.3	96.5	130.8
감자	3.6	30.1	23.7

【대외 무역】 1954년 대외 무역액은 전년에 비하여 약 33% 장성하였다. 1964년에 알바니아는 30여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다.

교육, 문화

알바니아에서는 인구 4 명에 1 명이 학생이다. 1964년에 전년보다 인민 학교 졸업생은 8.1%, 11년제 학교 졸업생 수는 33.3%,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2.6% 각각 더 많았다. 대학 졸업생 수는 1963년에 비하여 18.5% 더 많은 1,600명이였다.

1963년에 비하여 1964년에 영화 상영 회수는 4.9%, 극장들의 공연 회수는 8.8% 각각 늘었다.

【출판 보도】 **통신**—아따(알바니아 통신)

신문—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 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 전선 및 내각 기관지), 푸나(직업 동맹 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 청년 동맹 기관지), 드리따(작가 예술가 동맹 기관지), 루프테타리(인민군 기관지)

잡지—루가 에 파르티스(로동당 리론 잡지), 넨도리(작가 예술가 동맹 기관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제 2 차 대전에서 쏘베트 군대 앞에 히틀러 파쑈 도배가 무조건 항복한 후 독일은 쏘, 미, 영, 프랑스 4 개 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 주권은 4 개 국 대표로 구성된 대독 관리 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의 포츠담 협정은 독일에서 파쑈 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 조약을 체결할 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 협정을 파괴하고 독일을 분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1949년 9월에 서독 단독 국가를 조작하고 재 군국화의 길로 나아 갔다.

독일 인민은 서부 렬강에 의한 독일 분렬 책동을 반대하여 구국 대책을 세웠다.

1949년 5월 30일 동부 독일에서 진행된 제 3 차 인민 대표 대회에서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였고 10월 7일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면적】 10만 8,298km²

【인구】 1,718만 1,083 명(1964년 1월 1일)

【수도】 베를린(면적 884 km², 그중 민주 지구 403km², 민주 지구 주민 107만 1,462 명, 1964년)

정 치

【인민 의원】 434 명의 대의원들과 66 명의 협의권을 가진 베를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제 4 기 인민 의원은 1963년 10월 20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요한네스 디크만

【국가 쏘베트】 1963년 11월에 인민 의원 제 4 기 제 1 차 회의에서 임기 4년으로 선거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11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윌리 슈토프(1964년 9월 21일 오토 그로테볼 수상이 서거한 후 동 9월 24일 인민 의원 제 8 차 회의에서 임명됨)

부수상 브루노 로이슈네르(1965년 2월 10일 서거), 막스 주르비네르, 파울 숄쯔, 알렉산데르 아부슈, 그레테 위트콥스키

부수상 겸 외무상 로타르 볼쯔

부수상 겸 보건상 막스 제프린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아펠

민족 보위상 칼 하인쯔 호프만

내무상 프리드리히 디켈

국가 안전상 에리히 밀케

대내외 무역상
율리우스 발코브

【민족 보위 리사회】 1961년 9월 26일 인민 의원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 조직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당, 사회 단체】 **독일 사회 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60만 명(제 6 차 당 대회 당시)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발테르 울브리히트, 헤르만 마테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윌리 슈토프, 브루노 로이슈네르, 에리히 호네케르, 에리히 뮤켄베르게르, 알베르트 노르덴, 헤르베르트 바른케, 알프레드 노이만, 파울 프렐리히, 쿠르트 하게르, 파울 베르네르

정치국 후보 위원 에리히 아펠, 헤르만 아크센, 게오르그 에발트,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베르네르 야로빈스키, 귄테르 미타크, 마르가레테 뮬레르, 호르스트 진데르만

비서국 성원 발테르 울브리히트(제 1 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알베르트 노르덴, 쿠르트 하게르,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귄테르 미타그, 파울 베르네르 야로빈스키

민주 농민당 위원장 에른스트 골덴바움 **기독교 민주 동맹** 위원장 아우구스트 바하 **자유 민주당**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민족 민주당** 위원장 로타르 볼쯔 **자유 독일 직업 총동맹** 위원장 헤르베르트 바른케 **자유 독일 청년 동맹** 제 1 비서 호르스트 슈만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일제 텔레 **민주주의 독일 민족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리히 코르렌스 **평화 리사회** 위원장 발테르 프리드리히 **독일 통일 문제 위원회**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2월 3—7일 간에 진행된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 제 5 차 전원 회의는 중요하게 《화학 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관한 문제를, 12월 2—5일에 진행된 제 7 차 전원 회의는 1965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 문제를 각각 토의하였다.

1964년에 제 8 차 농민 대회(2월 28일—3월 1일), 제 19, 20 차 로동자 대회(3월, 9월), 제 5 차 미술가 동맹 대회(3월 24—26일), 제 2 차 비터펠트 대회(4월 24—25일), 녀성 대회(6월 25—27일), 제 4 차 기자 대회(12월 11—12일)가 진행되였다.

국가 쏘베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주년에 제하여 약 1만 명의 죄수들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였다.

1964년에 민주 독일 정부는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고 독일 통일 문제를 회담과 접촉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무차 제기하였다.

1월 국가 쏘베트 위원장 울브리히트는 서독 수상에게 민주 독일과 서독 정부 간에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데 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10월 6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보고에서 발테르 울브리히트는 독일 통일 문제에 언급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서부 독일 정부와도 접촉을 맺고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량 독일 간의 호상 승인 없이는 재통일을 위한 첫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독일의 재통일은 독점 자본, 복수주의 및 군국주의 지배 하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2월 발테르 울브리히트는 줄시에서 있은 군중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민주 독일과의 경계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와의 국경 지대에 《원자 지뢰망》을 설치하려는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계획을 규탄하였다.

한편 1964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자들은 경계선 특히는 서부 베를린 경계선에서 무차(1월 19일, 5월 5일 등등) 무장 습격, 경계선 시설 파괴 등 각종 도발 책동을 감행하였다.

서독과 서부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는 1월 28일과 3월 10일(격추됨) 2 차에 걸쳐 간첩 비행기를 민주 독일 령공에 침입시키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무차 감행하였다.

1961년 8월 13일 조치 이후 1964년 말까지 6만 명의 서독 주민들과 《일시적으로 서독에 거주하고 있던》 민주 독일 공민들이 민주 독일로 넘어 왔으며 586만 명의 서독 주민들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0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김 익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조—독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8월 21일), 1965년도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10월 31일), 1964년도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계획서(5월)가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10월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계기로 엘. 이. 브레쥬네브, 에드와르드 오하브, 레나르트, 유. 쩨덴발 등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한편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1, 4, 6, 11월), 율리우스 발코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11월), 브루노 로이슈네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12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웽그리아(5월), 벌가리아(9월)를, 요한네스 디크만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 의원 대표단이 뽈스까(5월)를, 로타르 볼쯔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중국(9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쏘련 농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 대표단(1월), 쏘련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4월 1—10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족 보위상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7월)과 당 대표단(6월), 벙가리아(5월)와 몽골 당 대표단(8월), 꾸바 군사 대표단(7월)이 각각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6월 12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쏘련 간에 《친선, 호상 협조 및 우호 조약》이 체결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9월에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 5월에는 브루노 로이슈네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과 율리우스 발코브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 대표단이 각각 유고슬라비아를, 1—2월에는 브루노 로이슈네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인도를, 11월에는 요한네스 디크만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 의원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11월에는 헤르만 마테른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알제리를, 6월에는 정부 대표단이 가나, 기네, 말리를 방문하였다.

한편 브라질(2월), 노르웨이(5월), 벨지끄 공산당 대표단(5월), 이딸리아 국회 대표단(3, 8월), 유고슬라비아 국회 대표단(5월), 가나 외무상(9월)이 민주 독일을 방문하였다.

1월 민주 독일 정부는 예멘 아랍 공화국에 총령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 다오메와 무역 대표부를 설치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1964년 7월 30일 민주 독일 정부는 소위 련합국 려행 사무소가 서부 베를린에서 국제법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나토 성원국 정부들과 기타 국가 정부들에 비망록과 외무성 성명을 발송하였다.

성명은 나토 리사회의 4월 2일부 결정에 따라 민주 독일 공민들의 해외 려행의 제한이 완화되였다고 하는 주장이 국제 여론을 기만하는 데 목적을 둔 책동이라고 지적하였다.

8월 민주 독일 정부는 독일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85 개 국 정부에 비망록을 발송하였다. 비망록에서 정부는 쏘독 간의 친선, 호상 원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랭전》 정책에 의하여 야기된 전주 긴장 상태를 극복하며 공고한 평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특징지었다.

6월 민주 독일 외무성은 미, 영, 프랑스에 각서를 보내여 7월 1일 서부 베를린에서 서독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려는 것을 반대 항의하였다.

경 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발전된 공업 국가이다. 주요 자원은 갈탄(매장량 약 400억 톤), 카리염, 우라늄, 동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사탕무우 등이다.

1963년 1월에 진행된 독일 사회 통일당 제 6 차 대회는 종전의 7 개년 계획(1959—1965)을 중단하고 새로운 7 개년 계획(1964—1970)을 승인하였다. 민주 독일 인민들은 7 개년 계획(1964—1970)의 첫번째 해인 1964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64년에 국민 소득은 지난 해에 비하여 4.7% 장성하였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1.7%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제품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6.7%, 로동 생산 능률은 6.5% 더 높아졌다.

1964년에 전력은 510억 키로와트시, 세멘트는 576만 7,000 톤 생산되였으며 150여 척의 선박이 진수되였다. 그중에는 1만 2,200 톤까지의 배수량을 가진 27 척의 상선과 57 척의 어선 및 7 척의 려객선이 들어 있다.

민주 독일은 갈탄 생산에서 세계 제 1 위, 인구 1인 당 화학 제품 생산에서는 제 2 위, 인구 1인 당 공업 생산에서는 구라파 제 5 위를 차지한다.

【농업】 1964년에 축산물, 알곡, 감자 생산 계획이 초과 수행되였으며 전년에 비하여 농산물 생산은 8% 증대되였다. 1964년에 육류는 110.[illegible]%, 란류는 116%로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다.

주요 농산물 헥타당 수확고

(단위 톤)

	1964	1959/1963년 평균 수확고
알곡	2.7	2.49
유지작물	1.43	1.35
감자	17.28	16.67
사탕무우	26.3	23.63

1964년 11월 30일 현재 대각가축은 468만 두(그중 젖소는 213만 두), 돼지는 876만 두, 양은 197만 두, 닭은 2,455만 마리 있었다.

1964년에 9,549 대의 뜨락또르, 1,240 대의 곡물 꼼바인, 747 대의 감자 꼼바인이 농촌 경리 부문에 공급되였다. 기계화 비중은 알곡 수확에서 67%, 감자 수확에서 99%, 사탕무우 수확에서 86%였다.

【대외 무역】 1964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0% 장성한 22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쎄브 참가국들과의 무역액은 무역 총액의 72%를 차지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액은 20% 장성하였다.

교육, 문화

1964년 현재 인민 경제에 복무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47만 5,200 명이였다. 1964년의 대학 및 전문 학교 졸업생 6만 8,000 명 중 3만 4,000 명은 주간 대학 및 전문 학교 졸업생이다. 1964년에 6만 8,000 명이 새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1964년에 극장 관람자 수는 1,300만 명이였다.

【출판 보도】 통신—아데엔

신문—노이에스 도이췰란트(독일 사회 통일당 기관지), 쏘찌알리쓰찌셰 데모크라티(국가 쏘베트 및 내각 기관지), 노이에 짜이퉁(기독교 민주 동맹 기관지), 나찌오날 짜이퉁(민족 민주당 기관

지), 데르겐(자유 민주당 기관지), 데르 프라이에 바우에르(민주 농민당 기관지), 르리뷰네(자유 독일 직업 총동맹 기관지)

잡지—아인하이트(사회 통일당 월간 정치 잡지), 노이에르 베그(사회 통일당 당 생활 잡지)

서부 독일

(독일 련방 공화국)
German Federal Republic

【면적】 24만 8,000 km^2

【인구】 5,786만 5,000 명(1963년 5월 말)

【행정 중심지】 본 (주민 17만 8,000 명)

정 치

【대통령】 하인리히 류브케(임기 5년, 1964년 7월 1일 재선)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하원인 련방 의회(1961년 9월 10일 선거)는 의원 499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인 련방 참의원은 각 주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단순한 협의 기관으로서 의원 수는 45 명(결의권 없는 서부 베를린 대표 4 명 포함)이다.

【내각】 현 정부는 1963년 10월 17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류드비히 에르하르트,

부수상 겸 전 독일 문제상 에리히 멘데, 외상 게르하르트 슈뢰데르, 국방상 카이우베 폰 하셀

【정당, 사회 단체】 독일 공산당 1918년에 창건, 1956년 8월 17일 비법화,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막스 라이만 **기독교 민주 동맹**(집권당) 1945년 7월 26일에 조직, 대독점체들과 대 토지 소유주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는 극 반동적인 정당. 위원장 콘라드 아데나우어 **기독교 사회 동맹** 기독교 민주 동맹의 자매당이다. **사회 민주당, 자유 민주당, 전 독일당, 독일 평화 동맹**

【주요 국내 사건】 1964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핵 무장과 나라의 파쑈화 정책을 일층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략탈과 억압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4월에 《령토 방위》 부대라는 것을 새로 조직하였다. 9월 서독 정부 내상 회케는 서독 국경 《수비대》 편성을 위한 의무 병역제를 실시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여 나섰다.

한편 11월 20일 서독 당국은 1965년 5월부터 이전 히틀러 나치스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특히 11월에는 서독 정부의 묵인 하에 한노베르에서 파쑈 분자들의 공개 집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 《민족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파쑈 정당이 결성되였다. 이 당은 나치스 전범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서독 청년들을 파쑈적으로 교양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서독 인민들은 본 당국의 이러한 파쑈 정책과 인민 탄압 정책을 반대하여 대중적 운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6월 29일 서부 베를린에서 대학생들이 류브케가 재차 서부 독일 대통령으로 선거되는 것을 반대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12월 5일 본에서 서부 독일 련방군의 원자 무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였다.

12월 말 서독 사회계는 본 당국이 동서 독일 경계선 및 서독과 체스꼬슬로벤스꼬 국경선에 《원자 지뢰망》을 설치하려는 흉책을 항의 규탄하였다.

서독 근로자들은 독점 자본의 착취를 반대하고 생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25일 본 당국의 반인민적 《탄광 폐쇄 정책》에 항의하여 단행한 마를시(루르주)의 1,500 명 탄부들의 파업, 뒤'이어 해고를 반대하며 생활상 처지 개선을 요구하여 일어난 루르주 탄부들의 투쟁, 탄부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 23만 명의 루르 지방 야금 로동자들의 투쟁 등 로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일어났다. 12월에 탄광 독점체들은 탄부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 관계】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1964년에 정치, 경제 및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미제의 침략적인 대외 정책에 추종하면서 될수록 빨리 핵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발광하였다.

5월 9—11일 서독에 기여든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 국방상 폰 하셀과 《공동 방위 정책》, 《공동으로 사용할 땅크의 제조를 포함한 후방 문제》, 《서독의 무기 구입》, 《전략 전술적 문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는 미국을 방문하고 6월 12—13일 량일 간에 미국 대통령 존슨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독일 및 베를린 문제》, 《동남 아세아 문제》,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 성명》에 의하면 존슨과 에르하르트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에르하르트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남부 월남의 괴뢰 도당에 대한 《원조》를 증대할 것을 존슨에게 《언약》하였다. 한편 존슨은 《독일 및 베를린 문제》에서 서독의 복수주의적 요구를 재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은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를 년내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0월 워싱톤에서 미 국무 장관 러스크 및 국방 장관 맥나마라와 나토 주재 서독 대표 그레베 간에 《다각적 핵 무력》 설치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였다.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와 외상 슈뢰데르는 11월 15—17일 본을 찾아 온 미 국무 차관 볼과 나토의 《현대화 계획》을 토의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중순에 워싱톤을 방문한 서독 국방상 폰 하셀은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와 회담을 진행하고 4 개의 군사 협정

에 조인하였다. 협정은 서독이 미국에서 유도탄 적재 구축함 3척과 《최신형》 반항공 미싸일로 장비될 군함, 그리고 해마다 약 7억 딸라에 해당한 미국 군수품을 구입하며, 한편 미국은 서독의 20 미리 자동포를 대량적으로 구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월 26일에는 워싱톤에서 서독 외상 슈뢰데르와 미국무 장관 러스크는 회담을 가지고 《다각적 핵 무력》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2월 14—15일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는 빠리에서 프랑스 대통령 드 골과 중화 인민 공화국 승인 문제를 비롯하여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 《구라파 통합》 문제, 끼쁘로스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들 중 어느 한 문제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나토 문제에서 서독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표명해 나섬으로써 프랑스 대통령 드 골의 립장에 도전하여 나섰다. 《공동 시장》과 미, 영과의 관계 문제 토의에서도 심각한 의견 상의를 나타내였다.

7월 2—3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드 골이 본을 방문하고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와 약화된 프랑스—서독 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구라파 정세 및 국제 정세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토의 과정에 드 골은 《서독이 미국 정부에 지나치게 추종하고 있다》고 로골적으로 서독을 비난하였다.

한편 서독 수상은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추진시켜 보려고 1월 15—16일에 영국을, 1월 27—28일에는 이딸리아를, 3월에는 화란을, 6월에는 카나다를 각각 방문하고 그 나라 수뇌자들과 회담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 하였다.

12월 7—14일 박 정희 도당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경제 주요 자원은 자르, 루르 지방의 석탄이고 그외에 아연, 연, 동, 석유도 있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감자, 사탕무우, 포도 등이다.

서독 경제에서 생산과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여 있으며 독점체들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였다.

1963년 초에 서독에서 등록된 주식 회사 2,401 개 중 1억 마르크 이상의 자본을 가진 76 개의 회사(약 3%)가 주식 회사 자본의 55.3%인 206억 7,000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었다. 2천 개 회사 중 10개의 독점 회사들의 개별적 공업 부문 독점 정형을 보면 1954—1960년 간에 석유 공업에서는 72.6%로부터 91.5%를, 자동차 공업에서는 58.6%로부터 67%를, 광업 공업에서는 45.7%로부터 51.6%를 차지하였다.

서독 독점체들의 대외 팽창도 일층 강화되고 있다. 1952년부터 1964년 6월 말까지 서독 사자본의 해외 투자액은 65억 7천만 마르크(그중 1964년 상반년 5억 9천만 마르크)였다. 그중 구라파에 32억 마르크, 중남미에 14억 8,000만 마르크, 북미에 11억 5,000 여만 마르크, 아프리카에 3억 9,000 여만 마르크, 아세아에 2억 2,000만 마르크, 오스트랄리아에 약 1억 2,000만 마르크가 각각 투자되였다.

한편 서독 경제에 대한 미국 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1962년말 현재 서독의 주식 회사들과 상업 회사들에 침투한 미국 회사들과 콘체른들의 자본은 130억—140억 마르크나 된다.

【공업】 1964년 공업 생산 장성률은 약 6～7%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 및 고정 자본의 투자 장성률에 비하면 훨씬 낮다.

전체 공업 생산의 58%를 차지하는 15 개 주요 공업 부문의 생산 장성률은 1964년 공업 총 생산 장성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조선업은 1964년에 1963년 실적에 비하여 1～2% 줄어들었고 1958년 실적에 비하면 약 30%나 감소되였다. 석탄 공업은 계속 위기를 겪었다. 이 해에 석탄 생산량은 겨우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는데도 1964년 11월 말 현재의 석탄 체화량은 1963년에 비하여 2 배 이상인 790만 톤이였다.

1964년에 화학 공업, 석유 가공 공업, 자동차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이 일정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3
전력(10억 kwh)	122	141.3
석탄(100 만 톤)	142.7	142.1
선철 〃	25.4	22.9
강철 〃	33.5	31.6
압연제품 〃	21.9	21.0
세멘트 〃	27.1	29.2

주: 1964년은 예비 자료.

【농업】 경지 면적은 서독 령토의 약 35%이며 농업 인구는 로동 인구의 14.5%인 378만 명(1963년 6월)이다. 농가 호수의 0.7%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근 30%를 가지고 있다. 1963—1964년도 밀 생산량은 486만 톤이였는데 이는 전년도 밀 수요에 비하면 90만 톤이나 적다. 서독의 농업은 국내 수요에 대하여 맥류는 60%, 량곡은 80%, 과실은 51%, 채소는 78%를 충족시킬 정도이다.

1963—1964년 간에 3만 7,000 호의 중소 농가가 파산 당하였다. 1964년 9월 현재로 농민들의 채무는 170억 마르크를 릉가하였다.

【대외 무역】 1964년에 수입액은 590억 마르크, 수출액은 645억 마르크에 달함으로써 55억 마르크의 수출 초과액을 내였으나 이것은 전년도 수출 초과액 보다 약 10%나 적다.

군 사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련방군의 무력 증강에 광분하는 한편 미제의 지지 밑에 핵 무장을 강화하였다.

1964년에 군사비는 1963년 보

다 20억 마르크나 더 많은 204억 마르크였다.

1964년에 련방군 수는 42만 9,000 명, 그중 륙군은 27만 5,000 명, 공군은 9만 2,000 명, 해군은 6만 명이였다. 이 밖에 《령토 방위》 부대가 8만 2,000명 있다.

서독에는 나토 및 《서구 동맹 참가국들의 군사 기지가 30 개나 있는데 그중 미 군사 기지는 20 여 개이다. 1964년에 미국은 서독 령토에 첫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고 핵 탄두와 보호 탄두로 장비된 《메이스—비》 형 로케트를 다량 끌어 들였다.

사회, 문화 군비 경쟁에 광분하고 있는 독점체들의 공세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은 일층 악화되였다. 1964년에 집세가 평균 14% 등귀한 것을 비롯하여 식료품, 석탄 및 의류 가격이 폭등하였다. 1964년 6월 말 현재 세대당 생계비는 1958년에 비하여 15.3%, 1950년에 비하여 35.6%나 뛰여 올랐다.

전후 80만 명 이상이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났다.

1964년에 범죄 건수는 1963년에 비하여 4.1% 즉 7만 건이 더 늘었다. 그중 살인, 절도, 강탈 등 엄중한 범죄 건수는 1963년에 비하여 10% 증가하였다.

1964년에 2만 2,500명을 망라한 119개의 파쑈 단체들이 날뛰였다. 서독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4년에 파쑈 분자들은 진보적 력량을 반대하여 170 회의 폭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45 개의 신 나치스 신문사들에서 18만 3,000 부의 신문을 출판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데페아

신문—프라이에스 폴크(독일 공산당 기관지), 디 벨트, 텔레그라프, 데르 쿠리에르, 프랑크푸르테르 룬드샤우,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잡지—비쎈 운트 타트(독일 공산당 리론 잡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면적】 25만 5,804 km²

【인구】 1,939만 2,000 명(1965년 1월 1일)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58만 8,200 명, 1963년 2월)

정 치 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5월 히틀러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이 해 11월 29일 련방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그러나 1948년 6월 20일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사태에 관하여》라는 공산당 및 로동당 보도국 결의에 지적된 바와 같이 찌또 도당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길로 나아갔다.

찌또 도당은 국내적으로는 《특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적극적인 공존》과 《뿔럭 불가담》이라는 간판 밑에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1960년 모스크바 성명)

1950년 9월 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외상이였던 까르젤리는 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미제를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찌또 수정주의자들은 1951년에 미제와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 후에는 희랍 및 토이기와 침략적 나토의 부속물인 발칸 조약을 체결하였다.

찌또 도당은 저들의 수정주의 로선을 1958년 4월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성문화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는 이 수정주의적 강령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성문화한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이라고 개칭하였다. 련방 공화국은 6 개 가맹 공화국으로 구성되여 있다.

【련방 인민 의회(쓰꿉쉬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5 개의 의원(련방, 경제, 교육 문화, 보건 사회 복리, 행정 정치)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 외에 련방 의원 대의원 70 명으로 구성되는 민족 의원이 있다. 각 의원의 대의원은 120 명씩이며 2 년마다 절반씩 개선된다. 현 련방 인민 의회는 1963년 6월에 선거되였다.

외장 에드와르드 까르젤리

【대통령】 4년 임기로 련방 인민 의회에서 선거되며 오직 한 번만 더 재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으나 찌또에 대해서는 례외로 되여 있다. 대통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마음대로 채택할 수 있으며 최고 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63년 6월 대통령으로 4선)

【련방 집행 위원회(정부)】 위원장(수상) 뻬따르 쓰땀볼리치, 외무 관계 국무상 교챠 뽀뽀비치, 국방 관계 국무상 이반 고슈냐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주의자 동맹** 전신은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52년 11월 제 6 차 대회에서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 본래의 《유고슬라비아 인민 전선》을 1953년 2월 제 4 차 대회에서 개칭하였다. 위원장 라자르 꿀리쉔쓰끼, 총비서 밀레테제 뽀뽀비치 **직업 동맹, 인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주요 시건】 찌또 도당은 1964년에도 미제의 별동대로서 소위 《적극적 공존》과 《뿔럭 불가담》이라는 간판 밑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와해하며 민족 해방 운동,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찌또 도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유고 신문 《보르바》 1964년 1월 9일)다고 하였으며 10월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핵 폭발을 진행한 데 대하여 이것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엄중한 공격으로 된다》느

니, 《모스크바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느니 하면서(유고슬라비아 신문 《보르바》 1964년 10월 16일) 제국주의자들의 반중국 깜빠니야에 적극 합류하여 중국을 비방 중상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신문 《보르바》는 민주 웰남에 대한 미 공중 비적들의 불의의 공격에 대하여 이것은 《북부 웰남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껄이는 미제의 선전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국은 완전히 자위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비호해 나섰다.

제국주의에 아부한 대'가로 찌또 도당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찌또 도당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1963년 1월까지에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54억 6,000만 딸라의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 중 미국의 원조는 약 35억 딸라나 된다.

1964년 12월 7—13일에 진행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제 8 차 대회는 반동적인 새 헌법에 구현되여 있는 《제 원칙을 될수록 재빨리 실천하고 리행》(1964년 2월 7일 《떠뉴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복구를 촉진하며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별동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제반 방도들을 추구하였다.

찌또는 대회에서 중앙 집권적인 축적 제도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들을 공격하고 《기업소들은 더 큰 독자성을 가지고 물질적 자원을 생산 분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찌또 도당이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배제하는 기업 관리 운영 형태를 적극 조장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찌또는 유고슬라비아가 사회주의와 적대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결코 진보와 사회주의의 일종의 〈예비〉 세력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찌또는 또한 대회에서 유엔 기구를 《국가들 간의 화해를 위한 바꿀 수 없는 도구》라고 하면서 미제의 침략에 복무하는 유엔을 적극 미화하였다.

1964년에 찌또는 핀란드(6월), 쏘련(6월), 로므니아(6월 9일), 뽈스까(6월), 웽그리아(9월)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를 파괴하려고 날뛰였다.

한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 울브리히트(9월), 체스꼬슬로벤스꼬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9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9월),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11월)가 각각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 자원으로는 보키사이트, 연, 안티모니, 수은, 동, 아연, 모리브덴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최근에는 우란광도 발견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밀, 쌀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우, 과실 등이다.

찌또 도당은 전 인민적 소유는 《간접적 공유제》라느니 《사회주의와 국가적 소유는 두 개의 량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느니 하면서 국가적 소유를 부인하고 모든 사회주의 국영 기업소들을 《근로 단체》(기업소)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경제 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거부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철폐하고 소위 《지방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로동 자치제》의 미명 하에 《근로 단체》(기업소)가 생산 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결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일체를 결정하도록 되여 있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리윤 추구가 경제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되고 있으며 호상간의 자유 경쟁과 투기 행위가 성행하게 되였다.

더우기 헌법에는 착취에 기초한 개인 기업이 허용되고 있다. (《자기 수단을 가지고 하는 영업 부문에서… 타인의 보충적 로동의 리용이 허용될 수 있다》— 1963년 헌법 제 2 조).

유고슬라비아에는 11만 5천여 개의 개인 《수공업 기업소》들이 있으며 지어 《500~600》 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들도 있다.

한편 기업소들 간의 자유 경쟁의 결과 중소 기업소들이 부단히 파산되고 있다. 1961년에 618개, 1962년 첫 5 개월 동안에는 295 개의 기업소가 파산 당하였다.

1953년 9월의 소위 《농촌 로력 협동 조합 재산 관계 및 그 개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촌 로력 협동 조합》의 대부분은 해산되였으며 그후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 로동의 사용까지 허용(1960년 《농지 사용법》)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하였다.

1964년 12월 현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경리는 총경지 면적의 13%, 농업 생산의 25%에 불과하였다(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제 8 차 대회에서의 찌또의 보고). 농촌 계급 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부농들이 농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락후한 소농 경리에 얽매여 있다.

찌또 도당은 대외 무역에서 국가 통제를 철폐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외 무역에서는 만성적인 결손이 계속되고 있다. 무역 적자는 1963년에 2억 6,600만 딸라, 1964년 1.4분기에는 1억 500만 딸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64년에 만성적인 물가 등귀는 지난 10년 간의 최고 기록을 돌파하였다. 1964년에 소매 가격은 1955년에 비하여 58.5%, 특히 농산물 가격은 112.5%나 올랐으며 1963년에 비하면 소매 가격은 9%, 농산물 가격은 19%, 공업품 가격은 6%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에 알곡은 23%, 육류

는 58%, 육류 가공품은 46%, 우유 및 우유 제품은 30%, 연료는 22%, 전기료는 12% 각각 그 값이 올랐다(유고슬라비아 월간 잡지 《인젝쓰》 1965년 1월 호).

실업자는 1963년 2월 현재 23만 9,000 명(취업 인구의 10%)이였다. 전체 인구의 19%가 문맹자이다.

【출판 보도】 **통신**—다뉴그 (유고슬라비아 통신사)

신문—보르바(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 기관지), 뽈리찌까, 꼼무니쓰트(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

잡지—쏘찌알리잠 (공산주의자 동맹 리론 잡지)

오 지 리

(오지리 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면적】 8만 3,849 km²

【인구】 717만 1,000 명(1964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은 독일인이며 언어도 독일어를 쓴다.

【수도】 윈(주민 165만 6,100 명)

정 치

1867년에 형성된 오홍 제국은 제 1 차 대전에서 패배하여 붕괴되고 1918 년에 오지리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3월에는 독일에 병합되였다.

1945년 히틀러 기반에서 해방된 후 쏘, 미, 영, 프랑스 4 개국의 공동 관리 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 국가 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 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오지리 반동 지배층은 이에 배치되게 1956년에 미국과 소위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침략적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 리사회》에 가입하였다. 또한 1957년 6월 15일에는 서부 독일과 《법적 재산 관계의 규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 5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련맹》에 가입하였다.

【대통령】 아돌프 쉐르프 (1963 년 4월 28일 재선, 임기 6년)

【의회】 의회는 상원인 련방 의회(각 주에서 인구 수에 따라 선출되며 의원은 50 명)와 하원인 국민 의회(의원은 165 명이며 임기는 6년)로 구성된다. 최종 결의권은 국민 의회에 있으며 현 국민 의회는 1962년 11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1963년 3월 27일 인민당과 사회당의 련립 내각이 구성되였고 1964년 2월 24일에 개조되였다. 수상 요세프 클라우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3일에 창건, 1956년 7월 15일 사회 로동당과 합당하였다. 위원장 요한 코플레니히 **인민당** 1945년 창건, 독점 자본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표하며 카로릭 교회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당** 1945년 창건, 전신은 사회 민주당이다. **자유당** 1956년에 창건된 파쑈 정당이다. **평화 옹호 위원회, 로조** 련맹, **민주 녀성** 련맹

경제, 사회

오지리는 공업이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다. 갈탄(매장량 30억 톤), 철 광석(매장량 2억 4,200 만 톤), 흑연 등 지하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흑연 생산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 산업은 광공업이며 공업에서는 철강, 섬유, 제지, 전기 기계, 화학 등이 발전하였다. 1963년에 선철은 294만 톤, 강철은 290만 톤, 세멘트는 331만 톤, 석유는 262만 톤, 갈탄은 605만 톤 생산되였다. 경제에서 국가 자본주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독점 자본 특히 서독 독점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서독 독점체들이 1956—1962 년 기간에 새로 창설한 기업소 수는 615 개(윈 제외)나 된다. 1963년에 서독은 오지리 수입의 41%, 수출의 27%를 차지하였다. 서독과의 무역에서 오지리의 적자는 1963년에 86억 쉴링, 1964년 상반기에는 55억 쉴링이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20.1%, 초원 및 방목지는 28.8%이며 인구의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쌀보리, 사탕무우 등이나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오지리 군대의 친 나치스 분자들은 서독 복수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오지리에서 범 게르만 민족주의, 나치스 전통을 부식하고 있다. 또한 범 게르만주의는 출판물을 통해서도 류포되고 있다. 독일 나치스 장군들의 회상기 등 각종 형의 전쟁 문학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적들은 서독에서 발행되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부가 수입되고 있다.

1964년 말 현재 실업자는 전년 말에 비하여 8만 8천 명이 더 증강한 9만 4,920명이였다.

신문—외스테르라이히쉐 폴크스 슈팀메(공산당 기관지), 윈 짜이퉁(정부 기관지), 외스테르라이히쉐 노이에 타게스 짜이퉁(인민당 기관지), 아르바이테르 짜이퉁(사회당 기관지)

희 랍

(희랍 왕국)
Kingdom of Hellas

【면적】 13만 2,562 km²

【인구】 848만 명(1963년)

주민의 90% 이상은 희랍인이고 이 외에 토이기인, 유태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벌가리아인이 있다.

【수도】 아테네 (주민 185만 2,708 명, 1961년 3월)

정 치

희랍은 립헌 군주국이다. 침략적인 《트루맨주의》(1947년), 《마샬안》(1948년)을 접수하였고 1952년에는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3 년 희랍은 자국의 륙해공군 기지를 미군의 통제 하에 이관하며

미국이 희랍 령토 상에 새로운 군사 기지를 설치할 데 관한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였다. 1957년에는 희랍에 미군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1959년에는 미국이 희랍에 원자 무기를 제공하며 희랍군에 원자 무기 훈련을 줄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17년 간에 희랍은 미국으로부터 무려 33억 8,760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받았다. 1962년 11월 1일 희랍은 구라파 《공동 시장》 준 가맹국으로 되였다. 1964년 1월 희랍의 크레테도에 있는 사격장이 로케트 및 유도탄 발사 시험장으로서 나토에 이관되였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2 세(1964년 3월 6일 즉위)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 의원 수는 300명이다. 1964년 2월 16일 선거에서 8년 동안 의회를 장악해 온 《국민 급진당》(의석 108)이 패배하고 부르조아 정당인 《중앙 동맹》이 52.77%(의석 171)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다.

【내각】 현 내각은 1965년 1월 5일 개조되였다. 수상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외상 스타브로스 코스트폴로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되였으며 1947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제 1 비서 코스트○ 클리얀니스 **통일 민주 좌익당** 1951년에 창건된 진보적 정당이다. 위원장 파살리드스 **중앙 동맹**(집권당) 1961년 초에 수개 정당들로 구성된 부르조아 정당이다. 지도자 파판드레우 **국민 급진당** 미국 자본과 결탁한 대 공업—금융 자본가들과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동적 정당이다. **로동 총련맹, 전국 청년 통일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경제, 사회 희랍은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주민의 63.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목화, 담배, 올리브, 과실 등이다. 경지 면적은 전국 령토의 20%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주요 지하 자원은 철, 대리석 등이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식료 가공 공업과 방직 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인민 생활 수준은 구라파에서 가장 락후한 나라의 하나이다. 1964년 첫 11 개월 간에 생계비는 12%나 뛰여 올랐다. 도시 실업자 수는 1964년 상반년에 25만 명이였다. 1964년 한 해 동안에 12만 명이 미국, 서독, 오스트랄리아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핀 란 드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면적】 33만 7,009 km²

【인구】 459만 7,800 명(1965년 1월 1일)

주민의 약 90%가 핀족이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헬싱키(주민 47만 7,500 명, 1962년 말)

정 치 핀란드는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결과 1917년 12월 제정 · 로씨야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1919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1939년 11월과 1941년 6월 2 차에 걸쳐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였다. 1947년 2월 10일 핀란드는 쏘련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1948년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맺았다.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200명, 임기는 4년이다. 1962년 2월 선거에서 공산당이 47 석을 차지하여 제 2 당으로 되였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62년 2월 재선, 임기 6년)

【내각】 1964년 9월 12일 농민련맹, 민족 련합당, 스웨리예 인민당, 핀란드 당으로 련립 정부를 구성. 수상 이. 비롤라이넨(농민련맹), 외상 아호티 카라라이넨(농민 련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아이모 알토넨, 총비서 빌레 페씨, 기관지 《칸산 우티세트》 **인민 민주 동맹** 1944년 공산당과 좌익 사회 당원들의 발기로 조직된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사회 정치 단체이다. 1964년 5월에 제 7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지. 엘. 쿨로, 총비서 탐미넨 **농민 련맹** 1906년에 조직, 농촌 자본가와 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사회 민주당, 인민당, 민족 련합, 로농 총련맹**

경 제 주요 자원은 철, 동, 연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 등이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제재, 제지, 팔프 공업이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70% 이상이다. 주민의 60%가 림산업에 종사하며 국가 수입의 70%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

1963년에 전력은 119억 키로와트시, 선철은 37만 5,200톤, 전기동은 3만 7,800 톤, 강철은 31만 3,700 톤, 압연은 28만 4,900 톤, 세멘트는 141만 9,000 톤, 종이는 187만 1,000 톤 생산되였다.

1963년에 대각 가축은 217만 4,000 마리(그중 젖소는 119만 6,000 마리), 말은 22만 마리, 양은 23만 8,000 마리, 돼지는 52만 2,000 마리 있었다.

1963년 1월 1일 구 화폐 100 마르카와 신 화폐 1 마르카의 비률로 화폐 교환 사업이 있었다.

스웨리예

(스웨리예 왕국)
Kingdom of Sweden

【면적】 44만 9,200 km²

【인구】 768만 7,000 명(1965년 1월 1일). 주민의 태반은 스웨드족이고 기타 덴족, 고드족, 핀족들이 있으며 언어는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스톡홀름 (주민 112만 4,900 명, 1965년 1월)

정 치 스웨리예는 1921년 단마르크 왕국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왕국을 형성하였다. 중립국으로서 조선 정전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스웨리예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참가국이나 1962년에 구라파 《공동 시장》 준 가맹국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 세 (1950년 10월 즉위)

【의회】 량원제, 상원 의원은 151 명, 임기는 8년이고 간접 선거로 매년 8분의 1씩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233 명, 임기는 4년이다. 1964년 9월 20일 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내각】 수상 타게 에르란데르, 외상 토르스텐 닐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7년에 창건되였다. 창건 당시 명칭은 좌파 민주당이였으나 1921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였다. 1964년 1월 3—6일 제 20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헤르만쏜 **사회 민주당**(집권당) 1889년에 성립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 중앙 련맹, 민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 제 광물 및 림산 자원이 풍부하며 각종 기계, 금속, 조선, 제재, 제지 공업 등이 발전하였다. 1962년에 자본주의 국가 조선 공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10%였다.

1963년에 전력은 405억 키로와트시, 철광석은 2,100만 톤, 강철은 370만 톤, 종이는 241만 톤(1962년) 생산되였다.

농업은 경지가 적은 관계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 하나 목축업은 발전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 종이, 금속, 기계류이며 수입품은 석탄, 석유, 면직물 등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
Kingdom of Norway

【면적】 32만 3,917 km²

【인구】 370만 9,000 명(1965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노르드족이고 그 외에 스웨드족, 핀족들이 있다. 언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수도】 오슬로 (주민 48만 명)

정 치 노르웨이는 1814년에 스웨리예와 련맹을 형성하였으며 1905년에는 동 련맹이 해산됨으로써 독립하였다.

1940년 4월 9일—1945년 5월간에 히틀러 독일에 강점되였다.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62년 5월에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을 정식 신청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오슬로에는 나토 북부 군 사령부가 있다. 1964년 10월 10일 게르하르센 수상은 나토의 《다각적 핵 무기》 창설을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국왕】 올라프 5 세 (1957년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38 명, 하원 의원은 112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에이나르 게르하르센(로동당 당수), 외상 하르바르 랑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3년에 창건되였다. 1964년 4월 11—12일 오슬로에서 진행된 당 정기 대표자 회의에서는 정치 정세 및 1965년 봄에 진행될 당 대회 준비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기관지 《프리 헤텐》 **사회주의 인민당** 1961년 4월 16일 결성되였다. 원자 무기 반대, 나토 탈퇴 등을 주장한다. 위원장 크누트 레프스네스 **로동당** 1887년에 성립되였고 1935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부르죠아 정당이다. **보수당, 기독교 인민당, 로조 련합, 공산 청년 동맹, 녀성 동맹**

경 제 경제의 주요 부문은 해운업(1961년 7월 현재 상선대는 자본주의 세계 제 3위), 림업, 어업(1963년의 어획고 138만 7,800 톤으로 자본주의 세계 제 3 위)이다. 국토의 24.2%가 산림이고 2.6%가 경지 면적이다.

노르웨이의 주식 자본에서 외국 자본은 약 15%를 차지한다. 그 중 48%는 미국, 26%는 영국 자본이다. 외국 자본의 80% 이상은 공업 부문에 투하되여 있다.

이슬란드

(이슬란드 공화국)
Republic of Iceland

【면적】 10만 3,000 km²

【인구】 18만 9,000 명(1964년 12월 1일) 주민은 노르드족과 덴족이다. 언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통용된다.

【수도】 레이캬비크 (주민 9만 8,000 명)

정 치 이슬란드는 1941년 단마르크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1944년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해공군 기지가 있다.

【의회】 량원제로서 하원 의원은 40 명, 상원 의원은 2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아스게이르 아스게이르쏜(1960년 8월에 3선)

【내각】 수상 야르니 베네직트쏜(독립당), 외상 구드문두르 구드문드쏜(사회 민주당)

【정당, 사회 단체】 **통일 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 좌파가 련합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독립당, 진보당, 사회 민주당, 로조 련합, 이슬란드-조선 문화 련락 위원회**

경 제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0.5%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어업이다. 어업은 국민 총생산액에서 25%, 수출에서 수산물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어획고는 1962년에 83만 3천 톤, 1963년에는 77만 4천 톤이였다.

영 국

(대 브리텐 및 북 아일랜드 련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만 4,100 km²

【인구】 5,381만 2,000 명(1963년)

【수도】 런던 (주민 834만 6,000 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왕족, 귀족, 승려 등 889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630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 의원은 왕이 임명하며 하원 의원은 선거한다. 현 하원은 1964년 10월 15일의 총선거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2월 6일 즉위)

【내각】 1964년 10월 15일의 총선거에서 13년간 집권한 보수당이 패배한 후 흄 내각이 물러서고 레이버당의 윌슨 내각이 조직되였다.

수상 해롤드 윌슨, 외상 마이클 스츄워트, 국방상 데니스 힐리, 상무상 더글라스 제이, 영련방 및 식민지상 아더 보틈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7월 30일에 창건, 위원장 프랜크 스탠리, 총비서 죤 골랜 **보수당** 19 세기 중엽에 조직된 독점 자본가와 대 지주들의 정당이다. 당수 알렉산더 흄 **레이버당** (집권당) 전형적인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 정당이다. 당수 해롤드 윌슨 **자유당** 보수당과 거의 같은 립장을 취하고 있다. 당수 죤 그리몬드 **로동 조합 콩그레스** 극 우익적인 로동 귀족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공산 청년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4년은 정권이 바뀌는 해였다. 10월 15일의 총선거 결과 레이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선거에서 레이버당은 《갈아 볼 때가 왔다》는 구호와 기만적인 《복지 국가》 안을 들고 나오면서 보수당 정부의 과거의 실책을 폭로하였다. 보수당은 50만 파운드라는 선거 자금을 탕진하면서 《중도에서 말을 갈아 타지 말자》고 웨치는 한편 과거에 《이룩한 성과》를 자화 자찬하였다. 그러나 부르죠아를 대변하는 두 당의 본질에는 별 차이가 없다. 레이버당이 승리는 하였으나 이 두 당 간의 의석 수 차이는 13 석에 불과하며 투표 참가률은 1959년 선거 때의 78.7%에 비하여 77%로 낮아졌다. 이것은 인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적어졌으며 어느 당에도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임 수상 윌슨은 경제 형편 《수습》이라는 구실하에 공정 리률 및 수입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11월에는 전후 제 3 차 파운드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사면 초가에 직면하였다. 경제는 의연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인민들은 생활에 더욱 쪼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들의 봉급은 86%나 올렸으며 수상 및 각료들의 봉급도 대폭 인상하였다.

레이버당 정권의 반인민적 정책과 무능력을 반대하며 독점 자본의 착취를 배격하는 철도 및 건설 로동자들의 파업, 70여 척의 선박의 운행을 정지시킨 6월의 리버풀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한 파업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4년에 2,535 건의 파업이 일어 났는데 여기에는 88만 3,000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227만 7,000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1963년에는 2,068 건, 59만 2천 명, 175만 5,000 로동일).

【대외 관계】 1964년에 정권은 바뀌였으나 전쟁을 추구하며 식민지 인민들을 탄압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려는 영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2월에 워싱톤을 방문한 보수당 정부 수상 흄은 미국 대통령 죤슨과 회담하고 미제의 남부 웰남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그 대'가로서 《말레이시아 련방》에 대한 미제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1월에는 당시 미 법무 장관이였던 로버트 케네디가 런던에 와서 영국 외상 버틀러와 《말레이시아 련방》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국방상 소니크로프트는 극동에 있는 영국 군사 기지들을 시찰하였다. 그 후 영국의 호전 장군들이 《말레이시아 련방》을 빈번히 출입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무력을 증강하였다. 영국은 또한 오스트랄리아 및 뉴질랜드 군대도 이 지역에 동원시켰다. 레이버당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이러한 책동은 계속되였으며 남부 웰남에서의 미제의 참패가 거듭됨에 따라 영국 극동군은 더욱 증강되였다. 신 국방상 힐리는 《말레이시아 련방》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히 떠들어 댔다.

전쟁 책동은 끼쁘로스에서도 로골화되였다. 영국은 자기의 리권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끼쁘로스에 대한 무력을 증강하였다.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려고 광분하였다. 영국은 아덴에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으며 예멘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영국은 또한 탄가니카, 케니아, 우간다에서 일어난 1964년 1월의 반영 폭동에 무력으로 간섭하였으며 영 련방 및 식민지 관계상 샌디스는 2월에 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싸다니면서 유사시에 《소방대》로서 리용할 《영련방 비상군》을 조작하려고 날뛰였다. 3월 9일 나이제리아에 간 수상 흄은 《영국의 식민주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웨치면서 아프리카에서 일어 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과 반영 기세를 무

마하려고 시도하였다.

영령 기아나에서 영국 정부는 미제와의 공모 하에 진보적인 쟈간 정부를 전복하고 반동 정권을 수립할 목적 밑에 2월에 흑인과 인디안 간의 종족 충돌을 일으키게 한 후 이를 구실로 군대를 보내는 한편 수 많은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12월에는 협잡과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를 감행하고 강제로 쟈간 정부를 전복하였다.

영국은 남로데시아에서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심의와 총선거 없이 현 백인 정부로 하여금 백인 통치하의 《독립》을 선포케 하려고 책동하였다.

1964년에 영 제국주의의 이러한 음모 책동은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물론 영 련방 내에서도 배격을 받았다.

7월에 영국 정부는 자기의 침략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받아 보려고 영 련방 수상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지지는 커녕 도리여 반항에 부딪쳤다. 시에라 레온 수상 마르가이는 식민주의를 규탄하였으며 가나 대통령 느크루마는 끼쁘로스에 대한 영국의 무장 간섭을 배격하였다. 아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영국인 기업소들이 몰수되였고 우간다에서는 《영 련방의 날》이 폐지되였다. 이처럼 영 제국주의는 사면 초가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과 기타 서부 렬강 간의 모순도 더욱 날카로워졌다. 특히 그것은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안》을 둘러싸고 일어 났는바 영국은 이를 반대하여 《대서양 핵 무력안》을 들고 나왔다.

경제 자연 부원은 철광석과 석탄을 제외하면 보잘 것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원료의 대부분을 식민지들과 외국에서 수입한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식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5 대 은행이 공업 독점체들과 결탁하여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생산과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여 있다. 이 은행들과 독점 자본의 리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계속 파산되고 있다.

미국 자본의 침투는 영국 회사들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바 1964년 5월 말 현재 미국의 사자본 투하는 44억 8천만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 자본은 영국의 500여 개 회사에 침투하여 그 산하 기업소 1,100여 개를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이 짜 내는 리윤률은 미국 자체 내의 리윤률의 1.5배나 된다.

력대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는 전후 침체를 계속하였다. 1964년에 국민 총생산의 장성률은 전년에 비하여 47%나 저하되였다. 무역과 국제 수지의 막대한 적자로 인하여 금 및 외화 보유량은 1957년 이래의 최저 수준으로 감소되고 드디여 파운드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 금융 시장과 통화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파운드의 가치는 1950년보다 30%나 저하되였다.

파운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영국 정부는 비상 조치를 취하였다. 11월에 영국은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10억 딸라의 차관과 11개 국가의 은행들로부터 30억 딸라의 차관을 받았다. 무역 정책 분야에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촉진할 조치를 취하였으며 1964년 10월 27일부터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였다.

영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 및 외화 보유량은 1962년 말에 10억 200만 파운드였던 것이 1964년 말에는 8억 2,700만 파운드로 감소되였다.

【공업】 1963년에 회복되기 시작한 공업 생산은 1964년에 다시 답보하였다.

탄광이 계속 페쇄되고 채탄량은 현저히 감소되였다. 자동차 공업은 답보하였으며 산업 혁명의 선구자였던 랑카셔의 방직 공업도 예'날의 빛을 잃었다. 1964년 3.4분기의 면직물 생산은 1.4분기보다 근 20%나 줄었다. 영국이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1948년의 11.3%로부터 1964년에는 8.5%(예비적 자료)로 낮아졌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2	1963
전력(10억 kwh)	156.8	169.3
석 탄 (100만 톤)	200.5	198.9
강철 〃	20.8	22.5
선철 〃	14.1	14.8
면직물 (100만 m)	1474.0	1440.7
모직물 〃	274.2	272.0

【농업】 농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약 4%에 불과하다. 북부 지방이 주로 농업 지대로 되여 있는데 스코틀랜드 농업국이 발표한 공식 보고에 의하더라도 1963년 4월로 끝난 농업 년도에 농장의 순수입은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8% 감소되였다. 목축장과 가금 목장의 순수입은 30%, 20% 감소되였다. 양모 생산은 4% 감소되였으며 파산한 리농자 수는 농업 로동자의 4.2%에 달하였다.

【대외 무역, 국제 수지】 주요 수출품은 기계, 금속, 화학 제품, 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료, 원료, 육류, 목재, 팔프 등이다. 영국 경제는 무역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무역 결손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낡은 시설로 말미암아 제품의 국제적 경쟁 능력이 약화되고 미국, 서독 및 일본의 상품이 과거의 영국 세력권 내에 더욱더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에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14%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는 4%에 불과하였다. 그리 하여 무역 적자는 11억 파운드나 되였다. 전후 기간에 이와 같은 방대한 무역 적자는 1951년에만 있었다. 월 평균 무역 결손

은 1963년의 4,900만 파운드에 비하여 1964년 3. 4 분기에는 9,700만 딸라로 증가하였으며 신정부의 수입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4. 4 분기의 결손 총액은 2억 5,600만 파운드에 달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의 수출에서 영국의 몫은 1948년의 12.1%로부터 1963년에는 8.6%로 1964년에는 8%로 떨어졌다.

영국의 국제 수지는 엄중한 사태를 비쳐냈는데 1964년 말 현재 외국의 부채는 40억 딸라이며 지난 1년 간의 국제 수지 결손은 8억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이는 수출의 부진과 아울러 전쟁 정책과 해외에 대한 자본 수출에 기인된다.

【재정】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를 회계 년도로 하고 있다. 영국은 군비 경쟁과 년 평균 3억 내지 3억 5,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해외 군사비 지출로 말미암아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1963—1964 회계 년도 적자 4억 7,800만 파운드)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1962년 말 현재 287억 파운드에 달하였다. 국가 부채는 국민 소득보다도 40%나 더 많다.

군 사 영국은 전쟁 정책을 추구하면서 핵 무기 및 기타 대량 살륙 무기 생산에 광분하고 있다. 군사비는 1962—1963 회계년도의 18억 1,000만 파운드로부터 1963—1964 회계 년도에는 19억 400만 파운드로, 1964—1965 회계 년도에는 다시 19억 9,900만 파운드로 늘었다.

영국은 1968년까지 4척의 폴라리스 미싸일 잠수함을 건조하려 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라인 주둔군의 화력과 기동력을 강화하며 《브이》 폭격기를 수에즈 이동 특히 극동 지역에 포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1965년 2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 백서는 《군사 기지를 철폐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경제적으로 랑비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전쟁 정책을 드러 내놓았다. 영국에는 미국 핵 잠수함 기지와 전략 공군 중거리 기지들이 있다.

사 회 실업자 문제는 의연 사회적 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로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는데 1964년 1월 3일부터 《웰스》 강철 회사는 약 5,000명을 해고하였다. 생계비는 2년 반 동안에 약 8% 올라갔다. 식료품 가격은 1965년 초에만 하여도 10 내지 15% 등귀하였다.

주택난은 심각하며 수도 런던에서만도 25만 세대의 주택이 부족하다. 공업 도시 리버풀에서는 주민의 약 46%가 빈민굴에서 살고 있다. 《데일리 워커》지는 영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숨막힐 정도》의 빈민굴에서 살고 있다고 썼다.

교육 형편을 본다면 교원 부족수는 6만명을 헤아리며 학교의 50% 이상이 19세기의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국영》 병원 중 절반은 100년 전의 건물이다.

1964년에 교통 사고는 영국 력사상 최고 기록을 남겼다. 교통 사고로 7,750 명이 죽고 39만 명이 부상 당하였다. 범죄 건수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강도는 전전 시기의 2.5 배, 폭력범은 5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0 대 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출판 보도】 **통신**—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슌

신문—데일리 워커(공산당 기관지),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가디언(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무소속), 데일리 메일(보수계), 데일리 헤랄드(레이버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파이낸셜 타임스(보수계, 경제 신문), 옵써버(보수계), 월드 뉴스(공산당 주간지)

잡지—마시즘 투데이(공산당 월간 리론 잡지), 이스떤 월드, 에코노미스트(보수계)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Irish Republic

【면적】 7만 8,283 km²

【인구】 284만 1,000 명(1963년)

【수도】 더블린(주민 59만 명)

정 치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였으나 1921년 자치령으로 되였다가 1937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 영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 명, 하원 의원은 144 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1959년 6월 취임)

【내각】 수상 오도네일로(1963년 3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총비서 마이클 오리르덴 **자유당**(집권당) 지도자 에이몬 데발레라 **레이버당, 《아이레 공화군》, 신페인, 아이레 로동 련맹**

경 제 미, 영 자본이 경제의 주도적 부문을 쥐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40%가 농민이며 수출에서 농산물이 60%(1959년) 이상을 차지한다. 공업의 주요 부문은 담배, 목재, 방직 공업이다.

단마르크

(단마르크 왕국)

Kingdom of Denmark

【면적】 4만 3,042 km²

【인구】 468만 4,000 명(1963년)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이고 언어는 단마르크어이다.

【수도】 코펜하겐(주민 133만 6,000명)

정 치 1940년 4월 히틀러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그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국과 《그린랜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 3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에 참가하였으며 1962년 2월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였다. 1961년 12월 서독과 발찍해 합동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63년 3월에 단마르크 국회는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적인 법령을 채택하였다.

【국왕】 프레데리크 9세 (1947년에 즉위)

【의회】 1964년 9월 22일에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1원제로서 의원은 179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엔스 오토 크라그(사회 민주당), 외상 페르 헤케루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 기관지 《란트 오노 폴크》, **사회 민주당**(집권당), **벤스트레당, 보수당, 급진당, 로조 련맹, 공산 청년 동맹**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목축업이며 지하 자원은 적다. 경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73%인 310만 헥타이다. 토지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으며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로동자와 소농민들은 토지 면적의 15.7%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공업의 주되는 부문은 식료, 금속, 방직, 선박 건조, 제지 공업이다. 최근 7년 동안에 육류 제품, 빵 및 신발 값이 평균 39% 올랐다. 1963—1964 회계 년도의 군사비는 1946년의 10 배 이상인 17억 크로네였다.

화 란

(화란 왕국)
Kingdom of Netherlands

【면적】 3만 2,400 km²

【인구】 1,221만 명(1965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고 언어는 화란어이다.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87만 2,428 명)

정 치 화란은 립헌 왕국이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고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했다. 1954년 6월 미국과 《원자 무기의 축적 및 생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7년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과 《유라톰》에 가담하였다. 화란은 1962년 8월 15일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1963년 1월 19일에는 서독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3,000명의 서독군의 화란 주둔을 허용하였다.

【국왕】 율리아나 녀왕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75 명이고 하원 의원은 150 명이다. 현 의회는 1963년 5월에 선거되였다. 공산당은 상원에서 1 석, 하원에서 4 석을 차지하였다.

【내각】 현 정부는 1963년 7월 24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마리넨, 외상 요제프 룬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다. 1964년 3월 28—30일 암스테르담에서 제 21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기관지 《드 바르하이트》 **로동당** 1946년에 창건된 반동적 정당이다. **천주교 인민당** 1945년에 창건된 부르죠아지의 정당이다. **평화 사회당** 자국 령토 내의 외국 군사 기지의 철폐와 화란의 일방적인 군비 축소 및 나토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교권주의 정당들인 **반혁명당**과 **기독교 력사 동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주요 공업은 선박 건조, 전기 기계 및 식료 공업 등이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다. 농업 특히 축산업이 발전되였으며 우락 제품 생산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름이 높다. 1964년 12월에 대각 가축은 381만 5,100 두, 돼지는 352만 5,200 두 있었다.

1962년 6월 말 현재 487 개의 기업소들에 외국 자본이 투하되였다.

벨 지 끄

(벨지끄 왕국)
Kingdom of Belgium

【면적】 3만 507 km²

【인구】 942만 8,000 명(1964년 12월 31일), 주민은 화란계의 프라만이 55%, 프랑스계의 왈룬인이 45%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프라만어이다.

【수도】 브류쎌 (주민 109만 8,329 명)

정 치 벨지끄는 나토(1949년 4월 4일), 《구라파 석탄 강철 공동체》(1951년 4월 18일), 서구 동맹, 구라파 《공동 시장》 및 《유라톰》(1957년 11월 28일 협정 비준)에 가입하고 있다. 1950년 벨지끄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1964년 브류쎌에서 벨지끄 정부는 서독 국방상 폰 하쎌과의 회담에서 벨지끄에 서독 련방군의 군사 기지를 창설할 문제와 무기 생산에서의 량국 간의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7월 7일부터 서독군이 벨지끄 령토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1월 17일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175 명, 하원은 212 명이다.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테오 레페브르(기독교 사회당), 부수상 겸 외상 파울 앙리 스파크(사회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되였다. 1963년 12월 1일 브류쎌에서 앙리 글리녀르의 사회 하에 진행된 주당 위원회 대표들의 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22일 결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전국 회의가 브류쎌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당 제 14 차 대회(1963년 4월 13—15일)의 수정주의적 결정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맑스-레닌주

외에 기초한 공산당의 재건을 선언하였다. 회의는 또한 24 명으로 구성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조직하고 쟈크 그리파를 비서로 선거하였다. 기관지 《라 부아 듀퓌플》(인민의 소리) 기독교 사회당, 사회당, 자유당, 벨지끄 공산주의 청년 동맹 1964년 4월 19일 청년 공산주의 옹호자들의 특별 전국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동맹의 수정주의적 전국 지도부를 규탄하고 6 명으로 구성된 새 전국 지도부를 선거하였다. 위원장 알베르 포스르 로동 총련맹

경제, 사회 석탄, 철, 아연 등 국내 자원과 식민지 략탈에 기초하여 공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다. 1962년에 벨지끄에 대한 외국 투자액은 68억 1,380만 벨지끄 프랑(그 중 미국 자본이 약 57억 프랑)이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60%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식량은 국내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하고 있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대 공국)
Grand Duchy of Luxembourg

【면적】 2,586 km²

【인구】 32만 7,100 명(1964년) 주민은 룩셈부르그인, 독일인 프랑스인이고 독일어, 프랑스어를 쓴다.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8만명)

정 치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1948년에 비무장 중립을 폐기하고 《서구 동맹》에,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7년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 《유라톰》에 가입하였다.

【국왕】 샤를롯테 녀왕

【국회】 1원제로서 의원은 56명. 현 국회는 1964년 6월 7일에 선거되였다. 공산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 수상 겸 재정상 피에르 베르네르(기독교 사회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1934년 4월 5—6일에 제 17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총비서 도미니키 우르바니 기독교 사회당, 사회당, 민주당(이전의 자유당), 《인민 독립 운동》당

경제, 사회 공업이 발전한 나라이다. 강철 생산(1963년에 400만 톤)은 공업 생산액의 70%,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구 한 사람당 선철 및 강철 생산량은 세계 제 1위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 한다.

프 랑 스

(프랑스 공화국)
French Republic

【면적】 55만 1,208 km²

【인구】 4,810만 명(1964년 말)

【수도】 빠리(주민 303만 5,000 명)

정 치 프랑스는 1944년 히틀러 독일의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전후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1949년에 침략적 나토 뿔럭에 가담하였고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1954년에는 《빠리 협정》에 조인하였다. 1958년 6월 1일에 집권한 드 골은 파쑈적인 《제 5 공화국》을 수립하고 《제 4 공화국》의 《프랑스 련합》을 《프랑스 공동체》로 개조하였다.

【대통령】 샤를르 드 골(1959년 1월 8일 취임, 임기 7년)

【국회】 국민 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1962년 11월에 진행된 국민 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총 의석 482 석 중 41석을 차지하였다. 국민 의회 임기는 5년. 참의원은 의원 301명(현재 공산당 출신 14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 3년마다 3분의 1이 개선된다.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2월 6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조르쥬 퐁피듀, 외상 모리스 쿠브 드 뮤르빌, 국방상 피에르 메스메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에 창건, 당원 수는 약 50만 명. 총비서 발데크 로쉐 《새 공화국 옹호 투쟁 동맹》 1958년 9월 28일 조직된 드 골의 당이다. 사회당 총비서 기 몰레 급진 사회당(정식 명칭은 급진파 및 급진 사회주의자 공화당) 위원장 펠릭스 가이야르 인민 공화당(카톨릭교당) 총비서 앙드레 콜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항쟁 동맹 위원장 프랑소아 미떼랑 로동 총련맹 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 프랑스 최대의 로조 단체이다. 서기장 브노아 프라숑 공산 청년 동맹 총비서 폴 로랑 전국 로동 련맹, 전국 학생 련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4년 프랑스 로동 계급과 농민들은 드 골 정부의 반인민적, 반동적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활상 권리를 위한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였다.

1963년 말부터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전개한 운수 및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은 1964년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였으며 3월 18일에는 600만 근로자들의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되였다. 4월 9일에는 또다시 80만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프랑스 대통령 드 골과 수상 퐁피듀는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일시적인 기만 술책으로써 무마하여 보려고 4월과 5월에 걸쳐 공개 성명들을 발표하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형편을 개선할듯이 떠벌렸다.

그러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근로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5월 21일 데카즈빌 탄부 1만 명이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고 6월 29일에 또다시 이 곳 6,000 명의 탄부들이 대중

적 해고를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12월 11일 로동자들의 파업은 드디여 임금 인상,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운수, 전기, 가스, 체신 부문의 350만 명의 파업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파업은 1947년 이래 가장 대규모적인 것이였다.

한편 로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추어 농민들의 투쟁도 또한 치렬히 전개되였다. 1월 24일 수만 명의 농민들이 중소 농민 경리를 몰락시키는 드 골의 정책을 반대하여 시위하였다. 농민들의 투쟁은 《우유 소동》과 관련하여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9월 28일 우유 업자들의 파업은 정부가 우유 가격을 리터당 37.2 상팀(1상팀은 1프랑의 100분의 1)으로부터 43 상팀으로 인상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하여 폭발하였다. 우유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정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프랑스의 루르, 불루아, 발랑스, 일랑성 등 전국 각지에 파급되였다.

【대외 사건】 1964년에 프랑스는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위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로선을 표방하고 《구라파인의 구라파》를 운운하면서 대외 정책면에서 자기류의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식민지 리권을 쟁탈하기 위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야망은 특히 동남 아세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돌려졌다.

1월 27일 프랑스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동남 아세아에서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영향력을 리용하여 이 지역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데로부터 취해진 조치였다.

4월 13—15일에 진행된 세아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프랑스는 남부 윁남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이 지역을 《중립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꾸바에 대한 통상 중지를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원조》중지)을 무시하고 이 나라와 통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리권 쟁탈을 위한 프랑스의 움직임은 196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드 골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 방문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3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드 골의 메히꼬 방문, 그후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드 골의 라틴 아메리카 10 개 국 방문은 경제적으로는 《협조》를 통하여 프랑스의 자본과 상품을 수출할 시장을 탐색하며 정치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의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강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모색하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 해에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와 소위 《대서양 동맹》 문제에서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로골화되였다.

7월 23일에 진행한 기자 회견석상에서 드 골은 《구라파가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끝났다》, 《우리가 건설할 구라파는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구라파인의 구라파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11월 22일 드 골은 또한 스트라스브르에서 한 자기 연설에서 《대서양 동맹》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고 《구라파의 〈방위〉를 〈미국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을 비난하였다.

이에 앞서 드 골 정부는 4월 27일 나토군 사령부 소속 프랑스 해군을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나토 사령부에 소속된 해군 장교를 철수할 데 대한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9월 21일에는 대서양에서 시작된 나토의 해군 연습에 자기 수상 함선들을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월 중순에 있은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외상 뮤르빌은 나토 내의 《협조》와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미국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국회에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에 대하여 프랑스의 반대를 재확인하였다.

그후 국방상 메스메르(12월 1일), 공보상 알랑 페이르페테(12월 3일)가 《다각적 핵 무력》을 반대하여 성명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립장으로 하여 12월 15일부터 진행되였던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대립과 모순은 더욱 표면화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립장은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프랑스는 1963년에 서독과 《협조 조약》을 체결하고 량국 간의 뉴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량국 간의 리해 관계의 충돌로 1964년에 와서는 모순이 심화되였다. 2월 14—15일 드 골—에르하르트 회담에서 《대서양 동맹 내부 관계 문제》, 동남 아세아 문제가 토의되였으나 아무러한 《합의》도 보지 못 하였다. 8월에 《전연 전략》(원자 무기로 장비된 나토 련합 돌격 부대를 사회주의 나라들의 국경 근처에 배치할 것을 노린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이 《전략》을 실현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8월 29일 드 골은 기자 회견에서 본—빠리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량국 간의 《협조 조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외교관들의 회의를 프랑스의 발기로 무기한 연기하였다고 말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서독과의 농산물 가격 《일원화》 문제에서도 커다란 의견의 차이를 로출시켰다. 그것은 드 골이 만약 서독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12월 말까지 명확한 회답을 주지 않는다면 《공동 시장》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것이였던가를 알 수 있다.

1964년에 프랑스의 식민주의적 정책은 더욱더 파탄되였다. 5월 13일 자국 령토에 있는 외국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할 데 대한 쮸니지 정부의 법령에 따라 쮸니지에 있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토지는 몰수되였다. 프랑스는 6월 15일 알제리에서 자기의 마지막 군대를 철수하였으며 꽁고(브)에서도 1964년 말까지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 제

프랑스 정부는 1963년 9월에 《경제 안정 계획》을 발표하고 나라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려고 애썼다.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사회적 수요와 민간 수요에 대한 국가적 지출의 축소와 군수 생산의 증대 등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1964년에도 계속 파탄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안정 계획》의 후과로 발생한 국내 시장의 축소로 기계 제품의 거래액의 장성률은 1963년의 9.5%로부터 1964년에는 8%로 떨어졌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은 1963년에 14%가 증가한 데 비하여 1964년에는 5% 밖에 증가하지 못 하였다.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국제 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이 더욱 첨예해 지고 상품 주문이 감소되였으며 체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되였다.

생산에서의 장성 속도가 떨어지고 일부 생산 부문들이 쇠퇴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 공업 부문에서 이미 로동 시간의 축소와 취업자의 축소를 가져왔다.

국내 경제 형편의 악화와 함께 미국 자본의 침투는 프랑스 경제에 심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1964년 초까지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1959년의 6억 3,200만 딸라로부터 12억 딸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 첫 자리에 놓이는 500 개 기업중 65 개 기업은 이미 미국 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공업】 1964년에 공업 생산은 심한 파동성을 보이면서 1963년보다 5% 증가하였으나 1964년 3.4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4% 밖에 상승하지 못 하였다.

기초 공업의 증가률은 1964년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소비재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 장성 속도가 떠졌을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특히 기계 공업 부문에서 불균형적 발전이 심하였으며 자동차 공업과 공작 기대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전년에 비하여 1964년에 자동차 생산은 근 8%, 공작 기대 생산은 7% 이상 줄었으며 선박 건조는 196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였다.

방직 공업의 생산이 급격히 낮아졌는바 이 해 1.4분기의 생산의 증가률은 11.5%였었는데 2.4분기에는 4.7%, 3.4분기에는 또다시 4.2%로 내려갔다. 자동차 생산은 1963년 10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기간에 20%나 축감되였다.

1964년에 전력은 940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5,500만톤, 강철은 1,978만 톤, 선철은 1,590만 톤, 세멘트는 2,130만톤 생산되였다.

【농업】 전국의 근 45%가 경작에 가능한 지대이며 그중 3%는 포도원이다. 프랑스는 《공동 시장》 성원국들 중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국이다. 주산물은 밀, 보리, 쌀보리, 옥수수, 포도 등이다. 농업 총생산액에서 축산은 64%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 4.2%에 불과한 대토지 소유자(50 헥타 이상)가 전체 경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1964년에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은 농산물 생산비의 인하를 목적으로 한 농업에서의 집중화의 강화에 돌려졌다.

1964년에 농산물 수매 가격은 실제상 1963년 수준으로 봉쇄되였으며 일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하까지 되였다.

대 지주들의 리익을 위하여 실시되는 정부의 농업 정책은 광범한 중소 농민 경리를 파산시켰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 톤)

	1962	1964
밀	14 509	13 600
보리	6 003	6 700
귀밀	2 628	2 300
옥수수	1 910	1 950
라맥	356	390
감자	13 200	10 500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식료품, 공업 제품이며 수입품은 주로 공업 원료와 기계류이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4년에 수출은 444억 프랑, 수입은 497억 프랑, 무역 적자는 53억 프랑(1963년 32억 프랑, 1962년 4억 프랑)이였다.

군 사

프랑스는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을 반대하고 자체의 핵 무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 무력을 원자 무기로 장비하며 핵 무기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돌려 왔다.

이러한 목적 밑에 프랑스는 《기술 재장비 5개년 계획》(1960—1964)을 추진시켜 왔는바 이 계획의 중심에는 《원자 타격력 설치》가 놓여 있었다.

1964년에 프랑스는 245억 프랑을 군사비로 지출하였다.

이미 1963년부터 시작한 원자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라쥬—4》 형 비행기를 1964년에도 계속 제작하였으며 1968년까지 진수시킬 목적 밑에 원자 잠수함의 제조를 추진시켰다. 3월 17일 실험용 잠수함의 진수를 끝냈다.

사 회 드 골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1958—1963년 기간에 식료품 가격은 100%, 생계비는 25.9% 올랐다.

주택 문제는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였으며 집세는 계속 올랐다. 빈민굴에서 사는 근로자들의 수는 200만 명에 달하였다.

각종 로동 사고로 상실되는 로동일 수는 매년 평균 6,000만 일에 달한다. 범죄 특히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64년 1월에만도 소년 범죄자 수는 2만 9,157 명이나 되였다. 교통 사고로 1964년에 죽은 사람은 1만 1,184 명, 부상자는 26만 4,979 명이 였다.

교육 형편도 심히 악화되였는바 교원과 교실의 부족, 교육비 지출의 축감으로 100여만의 학령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출판 보도】 **통신**—에이에프피 통신

신문—유마니떼 (공산당 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 기관지), 포퓰라르드 빠리(사회당 기관지), 리베라숑(무소속), 콩바(드골계), 피가로(인민 공화당 기관지), 몽드(외무성 측근 부르조아 신문), 오로르(급진 사회당 계), 쥬르날 오피셸(정부 기관지)

스 위 스

(스위스 련방)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면적】 4만 1,288 km²

【인구】 581만 명 (1963년 6월) 그중 독일인 계통이 69.3%, 프랑스인 계통이 18.9%, 이딸리아인 계통이 9.5%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를 쓴다.

【수도】 베른(주민 16만 3,172 명, 1960년)

정 치 1815년 윈 회의에서 《영구 중립국》으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 후 스위스는 《마샬안》을 접수하고 《구라파 지불 동맹》,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국과 《원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10월 국민 의회는 1,000 명 이상의 상비군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하고 상비군을 확장하며 핵 무장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인 주 평의회는 44 명(매 주에서 2 명 씩), 하원인 국민 의회는 20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내각인 련방 평의회는 국회 량원 합동 회의에서 선출되는 각료 7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각료 7 명 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 류드비히 폰 모오스 (1964년도)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 사회주의 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에 조직. **급진 민주당, 카톨릭 민주당, 사회 민주당, 로조 련맹**

경 제 지하 자원은 적으나 1962년에 각지에서 우라니움광이 발견되였다.

공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주민의 49.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시계를 비롯한 정밀 기계 제작 공업은 세계에서 유명하다. 농업, 림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주민의 11.5%이며 농경지는 전국 면적의 6%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포도 등이다. 알곡 생산량은 수요의 60% 밖에 안된다. 축산 수입은 전체 농업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시계, 레스, 자수품이다. 관광업 수입은 매년 10억 프랑 이상이나 된다. 화폐 단위는 스위스 프랑이다.

이딸리아

(이딸리아 공화국)

Republic of Italy

【면적】 30만 1,226 km²

【인구】 5,061만 9,000명(1964년)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인이고 북부에 독일계, 프랑스계, 슬라브계의 소수 민족이 있다. 언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수도】 로마(주민 245만 8,000 명, 1964년 11월 말)

정 치 1941년 6월 히틀러 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1943년 7월에 패망하였다. 1946년 국민 투표 결과 군주 제도가 철폐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8년에 이딸리아는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 나토(1949년), 《서구 동맹》(1955년), 구라파 《공동 시장》과 《유라톰》(1957년)에 가담하였다.

【대통령】 쥬제뻬 사라가트(1964년 12월 6일 안토니오 세니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 국회에서 21 회의 투표 끝에 1964년 12월 28일에 피선)

【의회】 1963년 2월 상원에서 의회의 구성과 임기 개정안이 채택되여 상원 의원은 249 명에서 315 명으로, 하원 의원은 596 명에서 630 명으로 증가되였고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였다. 1963년 4월의 선거 결과 공산당은 상원에서 85 석, 하원에서 166 석을 차지하였다.

【내각】 1964년 6월 25일 기독교 민주당과 함께 련립 정부를 형성하고 있던 사회당, 사회 민주당, 공화당이 교육 예산을 둘러싼 충돌로 하여 수상 알도 모로 내각이 사직한 후 심각한 정부 위기를 겪다가 1964년 7월 22일에 다시 모로가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사회 민주당 및 공화당으로 련립 정부를 구성하였다.

수상 알도 모로(기독교 민주당), 부수상 피에트로 넨니(사회당), 외상 아민토레 판파니(기독교 민주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총비서 루이지 롱고(1964년 8월 26일 피선)

사회당 1892년 창건, 파시스트 정권 시기에 비법화되였다가 1943년에 재 조직되였다. 당 내에는

넨니의 주류파와 온건파로 갈라져 있다. 1964년 7월에 구성된 현 내각에 참가하고 있다. **이딸리아 프로레타리아 통일 사회당** 1964년 1월 11일 사회당 우익 지도부와 결별한 사회당원들이 조직, 지도자 룰리오 벡키엣티 **기독교 민주당** 전신은 인민당. 1943년에 현 명으로 개칭, 대 독점 자본가와 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 민주당**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와 1951년 4월에 조직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자유당** 1929년에 조직된 반공 정당으로서 기독교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 **사회 운동당** 1948년에 파쑈 잔당들이 조직한 정당이다. **로동 총련맹, 공산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제, 사회 이딸리아는 공업—농업국이며 자원은 극히 적다.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아연, 연, 수은, 대리석 등이고 석탄과 철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 발전의 기적》을 떠들던 이딸리아에서 공업 생산 장성률은 1963년, 1964년의 2년 간에 급속히 하강선을 긋고 있는데 1962년에 비하여 거의 7분의 1로 떨어졌다.

독점체들은 자국 경제에 조성된 이러한 난관을 자본의 집중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딸리아에서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였다. 국내에 있는 8만 7,000 개의 주식 회사 중 21 개 회사가 전체 자본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 회사의 자본은 500억 리라 이상에 달한다. 반면에 82%의 회사는 전체 자본의 25%만을 차지하고 있다. 1963년까지 이딸리아 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침투는 371억 리라에 달하였다. 1956년부터 1963년 말까지 외국의 직접 투자액은 218억 1 천만 리라인바 그 중 미국은 82억 7 천만 리라, 서독은 19억 6 천만 리라, 영국은 16억 5 천만 리라이다.

1963년에 전력은 686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58만 5,200 톤, 석유는 183만 4,800 톤, 선철은 370만 톤, 강철은 1천 만 톤, 세멘트는 2,210만 톤 생산되였다.

농업 역시 경지 면적의 축소, 농업 생산의 감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벼, 감자, 포도, 올리브, 옥수수 등이다. 1963년에 밀 생산량은 810만 9천 톤, 옥수수는 374만 톤, 벼는 63만 톤이였다.

1963—1964 회계 년도 예산 초안에서 군사비로 8,000억 리라, 경찰 유지비로 2,060억 리라를 각각 배당하였다.

정부의 반동 정책으로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1964년 첫 11 개월 동안에 생계비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6.6%나 더 올랐다. 동시에 1,900억 리라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기업주들에서 면제되여 근로자들에게 들씌워졌다.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떠난 이딸리아 근로자들은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35만 명에 달하였다.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문맹자는 330만이나 된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1964년 1월 말 현재 실업자는 1963년 12월 보다 8만 4,518 명이 더 많은 134만 4,646 명이였다.

1964년에 파업으로 1963년의 거의 2배나 되는 2 억 6,600만 로동 시간을 상실하였다.

【출판】 **통신**—안사 (아젠찌아 나찌오날라 스탐파 아쏘치아다) **신문**—우니따(공산당 기관지), 단바티(사회당계), 가제따 델리 포폴로(기독교 민주당계), 쥬스티찌아(사회 민주당계)

바 티 칸

(바티칸 시 국가)

【면적】 0.44 km^2

【인구】 1,000 명(1964년)

【법왕】 파울 6세(1963년 6월 21일 피선)

바티칸은 세계 천주교의 중심으로서 이딸리아 수도 로마 시내에 있다.

국가의 일체 권한은 법왕에게 집중되여 있다. 바티칸은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대 독점체이기도 하다 (이딸리아에서만도 바티칸의 통제 밑에 있는 은행은 150 개를 넘는다). 바티칸은 교회들과 자기의 외교 사절들을 통하여 천주교가 전파되여 있는 나라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미제의 침략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 행위들을 감행하고 있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 공화국)

【면적】 61 km^2

【인구】 1만 5,000 명(1962년)

【수도】 싼 마리노(주민 2,500 명)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정부는 의회 의원 10 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인 2 명의 섭정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정당】 **공산당** 총비서 에르멩길도 가스페로니 **기독교 민주당, 의회 민주당**

이딸리아의 중부, 아페닌 산맥 중에 있는 나라로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산물은 밀, 포도주, 옥수수, 과실, 축산품, 석재 등이다. 우표 수입과 관광업 수입이 주요한 국가 수입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리히텐스타인

(리히텐스타인 공국)

【면적】 157km^2

【인구】 1만 7,000 명(1961년)

【수도】 바두쯔(주민 3,500 명)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1938년 7월 25일 즉위)

【의회】 의원은 15 명이고 임기

는 4년이다.

【정부】수상 제라르드 바르리나

스위스와 오지리 사이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대외 관계는 스위스가 대행하며 스위스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을 한다. 축산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모 나 코

【면적】1.49 km²

【인구】2만 2,000 명(1964년)

【수도】모나코(주민 2,000 명)

【국왕】레니에 3세(1949년 5월 9일 즉위)

【의회】의원은 18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프랑스의 동남부, 지중해에 면한 곳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지이다. 매년 평균 약 65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 몬테카를로의 카지노에는 《공설 도박장》이 있다. 국가 수입의 중요 원천은 관광업과 도박장의 수입이다.

안 도 라

(안도라 공화국)

【면적】453 km²

【인구】1만 5,000 명(1964년)

【수도】안도라 (주민 1,400 명)

【의회】임기 4년의 의원 24 명으로 구성된다.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국경, 피레네 산맥에 있는 나라로서 주산업은 목축업, 담배 가공업이다. 관광업이 주요한 재정 수입의 원천이다.

에스빠냐

Spanish State

【면적】50만 3,486 km²(벨레아레스, 카나리아 량 군도를 포함)

【인구】3,107만 7,000 명(1963년). 주민의 대다수는 에스빠냐인이고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마드리드(주민 230만 명)

정 치 1931년 4월 14일 에스빠냐 인민들은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7월 프랑코 도당이 내란을 도발하고 독일과 이딸리아 파쑈 분자들의 직접적인 무장 간섭의 도움을 받아 1939년 8월에 에스빠냐 공화국을 전복하고 파쑈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프랑코는 1947년 왕위 계승법을 발표하고 자신의 종신 대통령제를 법문화하였다.

에스빠냐는 1953년 9월에 미국과 《군사 기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3년 9월 26일에는 이 《협정》의 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였다. (3 개의 미 공군 기지와 2 개의 미 해군 기지가 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 《협정》 체결 후 10여 년간에 에스빠냐는 5억 5 천여만 딸라의 미 군사 원조를 받았으며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1964년 6월 에스빠냐는 영국과 군사 《원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의하여 에스빠냐는 약 1,400만 파운드분의 각종 무기들을 영국으로부터 받게 되였다.

【의회】1원제이며 의원은 515 명이며 (정부가 반수 이상을 임명) 임기는 3년이다.

【정부】대통령 겸 수상 프랑시스코 프랑코 (1939년 8월 취임), 외상 페르난도 마리아 카스티엘라

【정당】팔랑헤당(당수 프랑코)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은 1939년 이래 비법화되여 있다.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총비서 카랄리오.

경제, 사회 석탄, 철, 동, 수은 등 광물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이며 이는 국민 소득의 태반과 수출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올리브, 포도 등이다.

1963년에 석탄은 1,017만 8 천 톤, 선철은 192만 5,000 톤, 강철은 280만 톤, 전력은 257억 5 천만 키로와트시, 세멘트는 704만 4 천 톤 생산되였다.

농업에서는 봉건적인 대 토지 소유제가 지배하고 있는바 인구의 극소수인 99 명의 대 지주들이 57만 7 천 헥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120만 명의 농민들은 한 치의 땅도 없으며 리농가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1962년 5월 외자 도입 확대법이 공포된 후 외국 자본의 침투가 현저히 증대되였다.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계속 등귀하고 있는바 1958년부터 1964년 중기까지 30% 올랐다. 많은 로동자들은 하루에 최저 생활비의 겨우 30% 밖에 안 되는 60 페세타를 받고 있다.

1964년에 에스빠냐 근로자들은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였다. 3월에 아스투리아주의 모레다에서 6만 2,900 명의 강철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한 데 뒤이어 4월에는 아스투리아 탄부들이 로동 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4,500 명이 참가한 탄부들의 파업은 5월 중순에 4만 명으로 확대되였다. 또한 이 투쟁에는 야금 로동자들과 금광 로동자들도 합류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의 경제적 투쟁은 점차 정치 투쟁으로 발전되였는바 5월 1일 빌바오 시민 4만 명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 《프랑코를 타도하라!》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뽀르뚜갈

(뽀르뚜갈 공화국)

Republic of Portugal

【면적】9만 2,200 km²(아조레스, 마데이라 군도 포함)

【인구】903만 9,000 명(1963년 6월)

【수도】리스본(주민 83만 명)

정 치 뽀르뚜갈은 침략적 나토 참가국이며 광범한 식민지(총면적 약 210만 km², 인구 1,300만 여 명)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년간 앙골라, 뽀르뚜갈

령 기네 및 모잠비크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자 살라자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2년에만도 10여만 명의 군대(앙골라에 6만 명, 모잠비크에 4만 명, 뽀르뚜갈령 기네에 2만 명)를 투입하고 국가 재정 예산의 40%를 소비하면서 식민지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전쟁과 국내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으로 말미암아 뽀르뚜갈은 살라자르 집권 30년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1962년 1월 1일 살라자르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군인 폭동이(카메스 상위가 지도) 일어났으며 1961—1962년에는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3차의 정부 개조가 있었다.

1962년에 살라자르 정부는 애국자들을 재판도 없이 3년까지 감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파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뽀르뚜갈에는 2 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1963년 1월 15일 아조레스 군도에 있는 미 공군 기지의 대여 기한을 연장)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1958년 6월 8일 취임)

【의회】 2원제로서 국민 의회는 130 명, 조합 의회는 135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내각】 수상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외상 알베르르 프랑코 데 노궤이라

【정당, 사회 단체】 **국민 동맹**(집권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이 비법화되여 있다. **공산당** 1921년 3월 31일에 창건되였고 1926년부터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비서 알바로 쿤할, 기관지 《아반떼》 **뽀르뚜갈 민족 해방 전선** 사회당, 공산당, 공화주의자, 카토릭교도, 기타 반파쑈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경 제 구라파에서 가장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인구의 41%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 면적은 270만 헥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 코르크(세계 제 1 위), 올리브(제 3 위), 포도 등이다. 약 6천 명의 대 지주들이 전국 경지 면적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00여만의 농민들은 전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공업은 보잘 것 없으며 주요 경제 명맥은 미, 영, 프랑스, 서독 독점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로동자들의 매달 평균 임금은 식비의 75% 밖에 안 되는 600 에스쿠도에 불과하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생활난으로 매년 4만 명이 해외로 이주한다.

말 타

말타는 지중해 중부에 있다. 5 개 섬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3 개이다. 그 중 제일 큰 것이 말타도(면적 246 km²)이다.

【면적】 316 km²

【인구】 32만 8,100 명(1963년)

주민은 말타인이고 기타 소수의 이딸리아인과 구라파인이 있다. 언어는 영어와 말타어이다.

【수도】 발레타(주민 1만 8,802 명, 1976년)

말타는 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말타는 1798년에 나폴레온에 강점되였다가 1800년부터 164 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말타도에는 《나토 동맹군 지중해 사령부》와 《영국 지중해 함대 사령부》가 있다.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1947년에 말타는 내부 자치를 획득하였다. 1955년 2월 립헌회의 선거가 진행되고 로동당 지도자 민토프가 수상으로 되였다. 민토프 정부가 일련의 진보적 조치들을 실시하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59년 3월 24일 말타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1961년 11월 영국은 말타의 내부 자치를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권은 계속 자기들이 쥐고 있었다. 1962년 2월 17—19일의 립법 회의 선거 결과 국민당의 올리비에 정부가 수립되였다. 1963년 7월 16일—8월 1일 간에 런던에서 영국과 말타 대표 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1964년에 말타가 독립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말타에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 군대가 앞으로 10년간 더 말타에 주둔할 수 있도록 올리비에 정부와 협정을 맺았다. (1964년 7월 21일 발표).

1964년 9월 21일 말타는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4년 7월에 공포된 《헌법》에 의하면 말타는 독립 후 자기의 내각을 조직하지만 영국 왕이 국가 원수로 되며 영국 총독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로마 카톨릭교가 이 나라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총독】 모리스 도만

【립법 의회】 정원 50 명, 1962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25 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수상 올리비에

【정당】 **국민당** 천주교와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하며 집권당이다. 지도자 올리비에 **로동당** 1921년에 조직. 로동자, 소부르죠아지, 지식인들로 구성. 말타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천주교의 정치적 간섭을 반대하며 군사 기지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도자 디. 민토프

【경제】 경제는 영국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여 있다. 경작지는 1만 4,500 헥타이고 밀, 보리, 감자, 과실, 채소, 올리브 등이 생산된다.

농산물 생산량은 겨우 자국 인구의 한 달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이다. 공업은 과실 및 채소 통조림, 포도주, 담배, 가구, 맥주를 만들어 내는 수공업적 공장이 있을 뿐이다. 문맹자는 1961년에 주민의 약 20%였다.

미 주

카 나 다
Canada

【면적】 996만 547 km²

【인구】 1,92[illegible]만 7,000 명(1964년 6월 1일), 그중 영국인 계통이 48%, 프랑스인 계통이 31%, 기타 독일, 화란 계통이 있으며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족은 1.1%에 불과하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오타와(주민 41만 8,000명, 1962년)

정 치 16세기 전반기부터 카나다에 대한 구라파인의 진출이 시작되였다. 영국은 약 1 세기에 걸친 쟁탈전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1763년에 카나다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다. 카나다는 1867년 7월 1일 《영령북미 조례》에 의하여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았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참가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1년 12월 국명을 카나다로 고쳤다. (종전에는 카나다 자치령)

1957년 미국과 공동 반항공 협정을 체결하고 량국의 련합 반항공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63년 8월 말 미국이 카나다 군대에 핵탄두를 공급할 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1964년에 카나다의 2 개의 로케트 기지 즉 라—마카즈와 포르—베이에 핵 무기를 배치하였다. 1964년 12월 카나다 국방성은 1970년까지 카나다 3 군 부대들을 완전히 재 장비하기 위한 《카나다군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총독】 디. 바니예 (1959년 9월에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 의원 102 명,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265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현 의회는 1963년 4월 8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내각은 1963년 4월 22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스터 피어손, 외상 파울 마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6월에 창건. 1943년부터 로동 진보당이라고 부르다가 1959년 10월에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1964년 11월 27—30일 간에 제 18 차 당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팀 버크, 총비서 레슬리 모리스(1964년 11월 1[illegible]일 사망)

자유당 (집권당) 친미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레스터 피어손

진보 보수당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죤 디펜베이커

경제, 사회 카나다는 비교적 발전한 자본주의 공업—농업 국가이다. 니켈, 백금, 금, 알루미늄, 아연, 동, 석유, 철, 연, 주석, 우란(매장량 2억 2,500만 톤)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산림은 전국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명맥의 70%는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1959년부터 1964년 7월까지의 기간에 도합 155 개의 카나다 회사들이 외국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였는데 그중 120 개가 미국 독점체들의 희생물로 되였다.

1963년에 동광은 41만 6,200 톤, 알루미늄은 6[illegible]만 4천 톤, 강철은 7[illegible]0만 톤 생산되였다. 백금 생산은 세계에서 제 2 위 (1963년에 5.[illegible]톤)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8%이며 인구의 2[illegible]%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등이다. 1964년에 밀은 1,622만 4천 톤, 보리는 [illegible]68만 1천 톤, 귀밀은 550만 2천 톤 생산되였다.

대외 무역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으나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매년 결손을 보고 있다. 196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미국과 카나다 간의 무역에서만도 카나다의 결손액은 5억 6,400만 딸라였다. 주요 수출품은 밀, 원유, 목재, 면직물, 니켈, 알루미늄, 아연, 동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설비, 자동차 및 그 부속품들과 방직 원료 등이다. 약 400만 명이 빈궁 속에서 살고 있으며 1964년 6월 현재 실업자는 46만 7,000 명이였다. 생활비(1949=100)는 1964년 11월에 135.9로 등귀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카나디안 프레스

신문—카나디안 트리뷴 (공산당 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 (진보 보수당 계통), 토론토 데일리 스타 (자유당 계통)

미 국
(아메리카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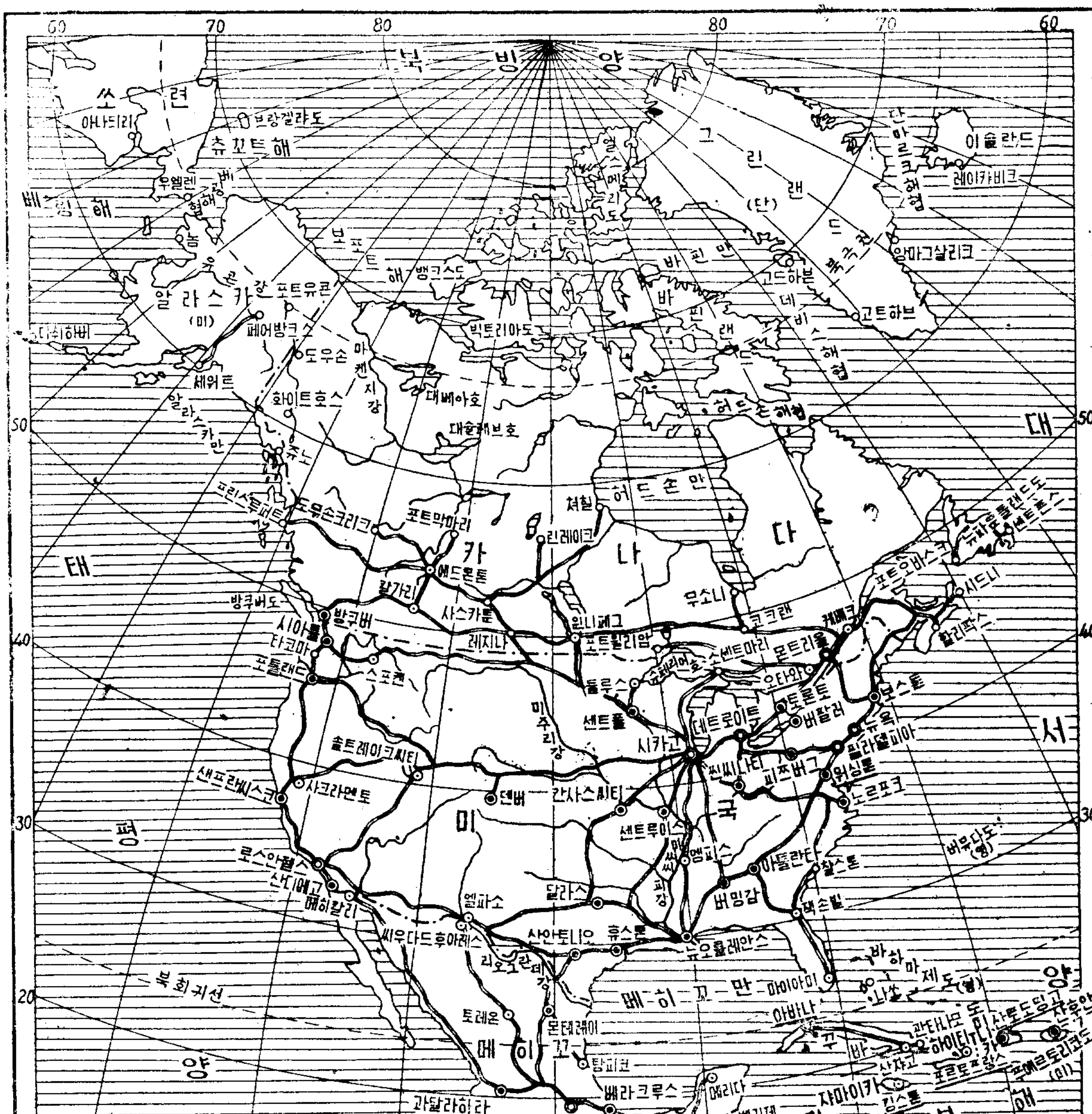
【면적】 936만 4,000 km²

【인구】 1억 9,081만 8,000 명(1964년 1월 1일), 그 중 흑인 1,900만 명(10%), 인디안 55만 명

【수도】 워싱톤(주민 80만 8,000명, 1964년)

정 치 1492년 이딸리아 항행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이곳에 이주해 온 구라파 (에스빠냐, 영국, 프랑스, 화란)인들은 인디안 원주민을 대량 살륙하면서 각기 자기 식민지를 확장하였으며 동시에 그들 호상간 식민지 쟁탈 전쟁에 광분하였다. 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프랑스, 화란 등을 물리치고 북미의 대서

북 미 주



북 빙 양
쏘 련
그 린 랜 드
카 나 다
미 국
메 히 꼬
대 서 양
태 평 양
알라스카 (미)
베링해
허드슨만
베히꼬 만
카 리 브 해
바하마제도
버무다도
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바핀랜드
바핀만
허드슨해협
북회귀선
뉴욕
시카고
워싱톤
보스톤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샌프란씨스코
로스안젤스
시아틀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퀘베크
위니페그
에드몬톤
캘가리
덴버
달라스
휴스톤
뉴오를레안스
마이아미
아바나
메히꼬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베라크루스
엘파소
킹스톤
보고따
메데린
깔리
끼또
카라카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만명 도시
인구 10만～30만명 도시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
메히꼬 국가 수도
산후안 식민지 예속 국가 행정 중심지
국경선
0 500 1000 1500 Km

양 연안을 장악하였다. 식민지 경제 발전을 억제한 영국 정부와 이주민 간의 모순으로 1775년에 《독립 전쟁》(1775—1781년)이 일어났다. 1776년 7월 4일 각 식민지 대표들의 제 2 차 《대륙 회의》는 동부 13 개 주의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1783년에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1787년 9월 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여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였다. 1823년 라틴 미주 침략을 위한 외교의 기본 방침을 천명한 《몬로 선언》이 발표되였다.

19 세기 초부터 산업 혁명이 진행되여 북부에서는 근대적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에 기초한 농업이 유지되였다. 경제 문제에서 출발한 남북의 대립을 배경으로 남부에는 민주당, 북부에는 공화당이 조직되였고 1861년 4월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 났다. 전쟁은 1865년 4월 북부의 승리로 끝났으나 흑인들은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인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다.

남북 전쟁 후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대외 팽창의 길에 나섰다. 1846—1848 년의 메히꼬 침략 전쟁, 1867년 제정 로씨야로부터 알라스카의 강탈, 1898년 에스빠냐와의 전쟁에서 필리핀, 괌도, 푸에르토 리코의 탈취, 1898년 하와이의 병합, 1903년 빠나마 운하 지대의 탈취 등을 비롯하여 미국은 20세기 초기까지에만도 실로 100여 차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서면서 미국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세계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싸움에 뛰여 들었다. 2 차의 세계 대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은 미제는 전후에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길에 나섰다.

제 2 차 대전후 미제는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자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며 서구라파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1947년에 《트루맨주의》와 《마샬안》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제는 《반공》을 총 전략으로 내세우고 서독 복수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 한편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적 군사 쁠럭인 나토를 조작하였으며 세계 도처에 군사 기지망을 늘어 놓았다. 미제는 1950년에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안쥬스(1951), 세아또(1954), 쎈또(1955) 등 침략적 군사 쁠럭을 조작하는 한편 필리핀, 남조선, 대만의 괴뢰 도당 및 일본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기 위한 군사망을 완성하기에 날뛰였다. 1952년 이래 8년 간 집권한 아이젠하워 (공화당)는 《대량 핵 보복》 전략을 내세우고 전면적 핵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1956년의 중동 침략과 웽그리아 사건 조작, 1958 년의 레바논, 요르단 침략 등 도처에서 침략을 감행하였다.

1960년 선거에서 《뉴 프론티어 (신변모) 정책》을 들고 나와 대통령으로 당선된 케네디 (민주당)는 《전면적 핵 전쟁》, 《국지 전쟁》, 《특수 전쟁》으로써 사회주의 진영과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 및 식민지 인민들의 해방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세계 전략》을 내세우고 평화 시기로서는 미국 력사상 최고의 군사 예산을 세워 《전략적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및 《반 게리라 특수 무력》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케네디는 1961년의 베를린 위기 조작, 라오스 내정에 대한 무장 간섭, 남부 웰남에서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 도발, 꽁고 (레) 침략, 플라야 히론 침공과 《꾸바 위기》의 조작, 조선 정전 협정의 계통적인 위반 등 침략과 도발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다른 한편 케네디는 《평화 전략》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을 이 진영에서 떼내려고 광분하였다. 1963년 11 월 22일 케네디가 암살된 후 대통령으로 된 죤슨은 케네디의 량면 정책을 계승하였다.

【국회】 상하 량원제. 상원 의원은 100 명이며 임기는 6년이고 2년 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435 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1964년 11월 3일에 상원 중간 선거와 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68 명, 공화당은 32 명, 하원에서 민주당은 295 명, 공화당은 140 명을 차지하였다.

상원 의장 (부대통령이 겸임) 하버트 험프리

하원 의장 죤 맥코맥크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며 륙해공군 최고 사령관이다.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린든 죤슨, 부대통령 하버트 험프리, 국무 장관 딘 러스크, 국방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아메리카 공산당과 공산주의 로동당이 1921년 5월에 통합하여 창건. 전국 위원회 위원장 (1964년 9월 5일 엘리자베스 플린 사망후 공석), 총비서 거스 홀. 당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58년 8월에 수정주의자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맑스-레닌주의적 공산당 창건을 위한 《림시 조직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월간 신문 《뱅가드》 (전위) **민주당** 당수 린든 죤슨(대통령 후보로 추천된 자가 자동적으로 당수로 된다). 전국 위원회 위원장 죤 베일리, 상원 원내 총무 맨스필드 **공화당** 지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챠드 닉슨, 넬슨 록펠러, 바리 골드워터, 캐봇트 롯지, 전국 위원회 위원장 윌리암 에드워드 밀러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합동 로조** 독점 자본에 매수된 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위원장 조지 미니. 독립 로조로서는 **국제 부두 및 창고**

로조, 국제 광산 제련 및 용해공 로조 등 50 개 (1961년 말)가 있다. 대외 정책 협회, 미국 재향 군인단, 2 차 대전 참전 미국 퇴역 군인회, 미국 녀성 콩그레스,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존 버취 협회, 3 케이단, 전국 흑인 콩그레스.

【국내 주요 사건】 1964년에 상원 중간 선거 및 하원 선거와 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였다. 7월 15일 쌘프랜씨스코에서 진행된 공화당 대회는 바리 골드워터를, 8월 24일 애틀랜틱 씨티에서 있은 민주당 대회는 린든 죤슨을 각각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추악한 정권 쟁탈전을 벌렸다.

1964년 선거에서 한 가지 특징은 공화당이 극 우익 파쑈 세력의 가장 로골적인 대표자인 골드워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 독점 지배층 내부 세력 관계의 변동과 그 모순의 격화를 반영한 것이였다. 골드워터는 공화당의 전통적 지배 세력인 동북부 재벌들에 도전하여 나선 남부와 서부의 《신흥 재벌》과 존 버취 협회와 같은 극 우익 파쑈 세력, 군국주의 및 인종주의 악당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동북부 재벌에서는 록펠러 집단에 반대하여 나선 모르간, 듀퐁 등 독점 집단이 《신흥 재벌》에 합류하였다. 이리 하여 《신흥 재벌》이 공화당 내의 낡은 세력을 압도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죤슨이 독점 지배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실업 퇴치》, 《빈궁과의 전쟁》, 《민권법》 등 기만적 시책으로 근로자들과 빈민, 흑인들 사이에서 지지표를 긁어 모았다. 이리 하여 선거에서 죤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1964년에 미국에서는 계급적 및 인종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였다. 계급적 모순을 반영하여 로동 운동이 더욱 앙양되였다. 미국 로동성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4년에 미국에서는 1963년 보다 65만 명이 더 많은 160만 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2,300만 공수의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1.4분기에만도 815 건의 파업이 일어 났으며 특히 7월에는 570 건, 8월에는 340 건의 대소 파업이 있었다.

2월부터 여러달 계속되여 미국 중부, 남부 및 서부 지대의 간선 철도 운행을 마비 상태에 빠뜨린 일리노이 철도 회사와 오하이오 철도 회사 로동자들의 파업, 4월에 펜실바니아와 켄터키 주를 비롯한 6 개 주에서 동시에 일어난 1만명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 대서양과 메히꼬만에 면한 미국의 모든 항구들을 휩쓴 6 만명 부두 로동자들의 10월 파업, 9월 말부터 1개월간 계속된 《제네랄 모터스》 자동차 회사 산하 130 개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과 미국 신문 력사상 가장 오랜 130 여 일간이나 신문 한 장 찍지 않고 완강히 싸운 데트로이트 출판 로동자들의 파업 등이 전개되였다.

이와 함께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은 파쑈적 폭압과 7월 2일 미 국회에서 채택된 기만적인 《민권법》을 박차고 계속 발전하였다. 2월 3일 뉴욕에서 흑인, 푸에르토 리코인, 백인 학생 50만 명이 단행한 동맹 휴학, 6월 21일 시카고 7만 명 흑인들의 대 군중 집회, 7월 18—26일 경찰의 흑인 소년 학살에 항의하여 뉴욕에서 전개한 대중적인 시위 투쟁을 비롯하여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투쟁이 년중 계속 전개되였다.

【대외 관계】 죤슨 행정부는 1964년에 521억 딸라의 직접적 군사비와 32억 5,000만 딸라의 대외 《원조》 비를 책정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침략 정책을 추구하였다. 죤슨 행정부는 케네디의 《평화 전략》에 매여 달려 쏘련과의 이른바 《관계 개선》을 《제 1 차적 과업》이라고 하면서 동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화》를 운운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죤슨 행정부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특수 전쟁》을 감행하는 한편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침투와 전복 음모에 광분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 모든 책동은 세계 인민들의 반격 앞에 파탄되였다.

극동과 아세아에서 미제는 자기의 《세계 전략》에서 아세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1964년에 이 지역에서 자기의 침략적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는 핵 무기들과 그 운반 수단들을 계속 아세아에 들여 보냈다. 미 제 7 함대를 핵 군함들과 《폴라리스》 잠수함으로써 개편하였다. 미제는 또한 괌도를 전진 기지로 하는 태평양 《폴라리스》 잠수함 중대 건설을 서둘렀으며 《비—52》 형 핵 폭격기 1개 중대를 이곳에 배치하였다.

미제는 아세아 대륙을 포위하는 소위 반월형 전선, 특히 그 지탱점으로서의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핵 무장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시켰으며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였다.

1964년에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전쟁을 확대하려는 책동을 강화하였다. 이 해에 미제는 남부 웰남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맥나마라, 러스크를 비롯한 전쟁 광신자들을 남부 웰남에 빈번히 파견하였으며 국가 안전 회의 (3월 17일, 5월 15일), 정치 군사 수뇌자들의 호놀룰루 《전략 회의》 (6월 1—2일)들을 벌려 놓았다. 5월 18일 죤슨은 국회에 특별 교서를 보내여 남부 웰남 괴뢰들에 대한 1억 2,500 만 딸라의 추가 《원조》를 요구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남부 웰남 전쟁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4월 23일 죤슨은 세아토의 《집단적 개입》을 요구하였으며, 5월 23일 미 국무성은 미국 정부가 25 개국에 남부 웰남 괴뢰 정권을 《원

조》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6월 2[illegible]일 존슨은 남부 웰남과 라오스에서 전쟁을 확대할 데 대한 이른바 《동남 아세아에 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8일 존슨은 남부 웰남에서 전쟁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도발적인 연설을 하였으며 7월 7일 당시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이었던 테일러를 남부 웰남 주재 대사로 임명하였다. 7월 2[illegible]일 존슨은 5천~6천 명의 미군을 남부 웰남에 더 파견할 것을 명령하였다. 8월 2일에는 구축함 《매독스》호를 웰남 민주 공화국 령해에 침입시켜 도발 행동을 감행케 하였으며 8월 4일에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날조하고 다음 날 웰남 민주 공화국 령토를 폭격하는 침략 행동을 감행하였다. 8월 7일 미 국회는 동남 아세아에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9월 18일에는 또다시 웰남 민주 공화국 령해를 침범하고 점차 북부 웰남에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미제는 침략 전쟁에서 웰남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으로 참패를 당하였고 남부 웰남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1964년에 4 차의 군사 정변이 일어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제는 제네바 협정을 공공연히 파괴하면서 라오스에서 4월 19일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고 뒤'이어 캉카이, 자르 평원, 히엔 광 등 해방 지역을 폭격함으로써 직접적인 무력 간섭으로 넘어갔다.

미제는 남부 웰남 괴뢰 도당과 함께 캄보쟈의 령토를 부단히 침범하여 유독 화학 물질까지 살포하였으며 캄보쟈 정부를 전복하려고 파괴 활동을 감행하는 동시에 캄보쟈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회의 소집을 반대하였다.

또한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을 적극 고무하면서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케 함으로써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직하려고 서둘렀다. 이러한 목적 밑에 1964년 9월에는 미국 동 관계 국무 차관보 번디가 일본과 남조선을 방문하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12월에는 제 7 차 《한일 회담》이 재개되였다.

한편 미제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도발 사건을 계속 조직하였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의 령공과 령해를 쉴새 없이 침범하였다. 이밖에도 미제는 신 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 련방》을 적극 비호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각종 압력을 가하였다. 4월 [illegible]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기자 회견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정책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떠벌렸으며 7월 2[illegible]일 존슨은 《말레이시아》 수상 라흐만과의 공동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군인들을 미국에서 훈련하며 무기를 제공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미제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하였다. 1월 20일 미 국무성 정치 관계 부차관보 알렉시스 존슨은 아랍 국가들을 《침략자》로 묘사하면서 《침략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이 지역의 모든 나라에 지원을 줄 용의가 있다》고 도발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제는 끼쁘로스에 대한 영국과 토이기의 침략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1월 [illegible]1일에는 이 나라에 대한 군사 간섭을 위해 2천 명의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964년에 미제는 이 대륙에서도 민족 해방 혁명과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의 불을 꺼보려고 직접적인 무력 간섭과 침략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1964년에도 꾸바 혁명을 압살하려고 꾸바 반혁명 분자들을 훈련시켰으며 꾸바에 대한 교란과 전복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는 [illegible]월 27일 파렴치하게도 꾸바 령공을 계속 《정찰 비행》하겠다는 《각서》를 꾸바 혁명 정부에 보냈다. 2월 [illegible]일 미국 해적들은 공해 상에서 꾸바 어민 [illegible]6 명을 랍치하였으며 4월 18일과 19일 관타나모 기지의 미 침략군은 꾸바 령내에 침입하여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또한 꾸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하였다. 미국 국회는 1963년 12월 꾸바에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1964년 2월 14일부터 《원조》를 중지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5월 14일 미 상무성은 꾸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였다. 9월 1[illegible]일 미국 해적선이 공해상에서 꾸바로 가는 에스빠냐 화물선을 공격하였다. 7월에는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소집하여 꾸바에 《집단적 제재》를 가할 데 대한 결의를 강압 통과시켰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에 날뛰였다. 베네수엘라에서 정부군은 2,500 명으로 증가된 미 군사 사절단의 직접적 지휘 하에 민족 해방군을 반대하는 《토벌 작전》을 벌렸으며 미제는 콜롬비아 유격대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1,700만 딸라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승 비행기와 세균 무기까지 사용하였다. 과떼말라에서는 유격대 《토벌 작전》에 남부 웰남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 고문들을 리용하고 있다. 1964년 1월에는 빠나마 운하의 귀속과 운하 지대의 주권 회복을 요구하여 일어선 빠나마 인민의 애국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미제는 뒤흔들리는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라질 (4월)과 볼리비아 (10월 말—11월 초)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고 군사 독재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와 아울러 미제는 《진보를 위한 동맹》을 리용하여 라틴 아

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꾀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미제는 아프리카에서 앙양되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무력 간섭과 침략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꽁고(레)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하는 한편 쏨베 괴뢰 도당을 적극 지원하였다. 8월 12일 미 국무 차관 해리맨은 브류쎌에서 벨지끄 외상 스파크와 꽁고 정세를 토의하고 쏨베 괴뢰 도당에 군사, 경제 원조를 주기로 하였다. 8월 13일 무력 간섭을 위해 락하산 부대를 레오폴드빌에 투입한 뒤를 이어 동 17일에 미 국방성은 꽁고 (레)에 비 26 폭격기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8월 14—17일에는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가 꽁고 (레)에 기여 들어 현지에서 전쟁 확대를 꾀하였다. 미제는 10월부터 애국적 무장 력량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에로 쏨베 괴뢰 도당을 내몰았으며 11월 24일에 미제는 자기 군용기로써 벨지끄 락하산병들을 스탠리빌에 투입하여 애국적 인민들을 무수히 학살하였다.

미제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을 반대하여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미제는 《평화군》이니,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니 하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아프리카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였으며 잔지바르, 가나, 꽁고(브), 탄자니아 등 나라들에서 정부 전복 음모를 꾸미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서구라파에서 1964년에 미국은 서구라파에서 더욱 더 곤경에 빠졌다. 1964년에 기어코 성사시켜 보려던 소위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안은 서구라파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맹렬한 반대를 받았다. 영국은 미국안에 대치하여 자기의 《대서양 핵 무력안》을 들고 나왔다. 기타 일련의 나라들도 미국안을 반대하였다. 이리 하여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과 서구라파 국가들 간의 모순은 구라파 대륙 시장 쟁탈을 위한 관세 일괄 인하 (케네디 라운드) 교섭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서, 자본주의 세계 금융 통화 분야에서, 기타 거의 매사 마다에서 날카롭게 나타났다.

경 제 미국은 2 차 대전 후 네차례 (1948—1949, 1953—1954, 1957—1958, 1960—1961)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미제는 경제의 군사화, 정부 지출의 증대, 고정 자본 투자의 강화, 수출의 확대 및 신용 판매의 대대적인 실시 등 경기를 인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들은 도리여 미국 인민들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생산과 시장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켰다.

축소하여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4년에 실업률은 5.2%로서 4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었으며 존슨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도 3,500 만 명의 인민들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다. 군비 경쟁에 따르는 군사비의 증대로 미국 인민들은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다. 생산과 지불 능력 있는 수요 간의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신용 판매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국 인민들의 《개인 부채》는 3,780억 딸라에 달하였다. 인민들은 이러한 부채액의 리자로 년 150억 딸라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인민들의 빈궁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사회적 및 계급적 모순의 격화에 따라 로동 운동이 앙양되고 있는 바 1964년에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참가자 수와 로동일의 상실에 있어서 미국 력사상 최고 기록을 이루었다.

해외 시장에 대한 경제적 팽창을 강화한 결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 우선 서구라파 국가 및 일본과의 경제적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1964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계속 약화되였고 심각한 딸라 위기가 계속되였다.

【공업】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4년에 공업 생산의 장성률은 1963년의 장성률에서 답보하였다.

미국 지배층이 취한 인위적인 조치로 1960—1961년 경제 위기 후 생산은 진퇴의 곡선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나마 장성하였으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는 계속 상대적으로 약화되였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미국의 몫은 1948년에 46.6% 로부터 1963년에는 45.2%, 1964년에는 44.7% (예비적 자료)로 떨어졌다.

공업 생산의 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이다. 1963년에 상품 구입에 대한 국가 지출은 1,251억 딸라였는데 그중 근 절반이 직접적인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였다. 비행기 생산의 94%, 선박 건조의 61%, 전기 설비의 61.5%를 비롯하여 막대한 량이 군사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1963년에 전쟁 준비를 위한 축적에 1,025억 딸라를 지출하였다.

공업 생산을 자극한 다른 요인의 하나는 공업 설비 투자액의 증대인바 1964년에 그것은 442억 딸라로서 전후 최고 투자 년도였던 1957년보다 18%나 더 많았다. 설비 투자액은 주로 군수 공업 부문에 돌려졌다.

그러나 고정 자본 투자의 강화는 생산 설비 능력의 심한 과잉을 조성하여 조업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3년 말에 가공 공업에서 조업률은 85%, 그중 특히 흑색 공업에서는 68%, 운수 기계 제작 공업 (자동차 제조 부문 제외)에서는 76%, 전재 공업에서는 78%, 일반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79%에 불과하였다.

과잉 생산 위기를 타개해 보려

고 신용 판매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자동차는 판매량의 70%, 주택은 80%가 외상으로 판매되였다. 신용 판매액은 1964년 1월의 692억 딸라로부터 9월에는 735억 딸라로 늘었다.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들의 체화량은 공식 발표에 의하여도 1964년 10월 초에 1,071억 딸라나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말에 비해 26억 딸라 이상의 증가로 된다.

【농업】 1964년에 농업의 위기는 동북부, 대서양 연안 중부, 중서부 및 서부 평원 지대에서의 혹심한 한재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밀을 제외한 농작물의 수확고는 1963년보다 현저히 감소되였다. 특히 옥수수와 사료용 알곡은 13% 이상이나 감소되였다.

미국 정부는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법 480호, 이른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등으로 농산물 수출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1월 1일 현재 미국 농장들에서의 알곡과 유지 작물의 퇴적량은 전년 같은 시기의 842만 9천 톤으로부터 1,061만 8천 톤으로 늘어 났다.

농민들의 수입은 공업 상품 가격의 끊임 없는 등귀와 농산물 가격의 체계적인 인하로 감소되고 있다. 1947—1962년간에 농기계 값은 91%, 농촌의 운반 수단 값은 67%, 화학 비료 값은 12% 비싸진 반면에 사료용 알곡은 41%, 식용 알곡은 16%, 유지 작물은 31%나 그 값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은 1962년의 132억 딸라로부터 1964년에는 126억 딸라로 내려 갔다. 이리 하여 1950—1963년 기간에 240만 개의 중소 농장들이 파산되였다(1964년에 농장 수는 340만 개). 지난 10년 간에 리농민은 800만 명이나 되였으며 1964년 초에 미국 농무 장관이 인정한바와 같이 미국 농촌들에서는 1,500만 명의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다.

미제는 《과잉 생산》 위기를 타개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려고 1964년 9월에 이른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외 경제 관계】 제국주의 렬강 간의 시장 쟁탈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1947년의 32.5%로부터 1963년에는 17.3%로 떨어졌다.

미국 독점체들은 타국에 대한 경제적 팽창을 강화하여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크라이슬러 회사》 사장 타운센드의 말에 의하면 1963년 말 현재 미국 사자본의 해외 투자는 660억 딸라였고 1959—1963년의 5년 간에 모든 형태의 미국 사자본의 해외 투자에서 짜낸 리윤은 이 기간의 투자액의 97%나 되였다. 지역별 투자액을 보면 라턴 아메리카 155억 딸라 (1963년 말 현재), 카나다 120억 딸라, 아프리카 130억 딸라, 아세아 100억 딸라, 구라파 88억 4,300만 딸라였다.

1964년에도 미국은 심각한 딸라 위기를 겪었다. 딸라 방위를 위하여 《미국 상품 우선 구매》정책, 《미국 선박 우선 사용》 정책들을 계속 강화하였으나 군사비의 지출 및 해외 투자 등 침략 정책의 강화로 1964년에 국제 수지에서 적자는 30억 딸라나 되였으며(4.4분기의 적자만 15억 딸라) 금 보유량은 1963년 말의 155억 9,600만 딸라로부터 1964년말에는 154억 7,100만 딸라, 1965년 2월 10일에는 149억 3,800만 딸라로 감소되여 1939년 3월 8일 이래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 예산】 화폐 단위는 딸라, 1딸라=100 센트, 금 1온스는 35 딸라.

군비 경쟁과 침략 정책의 강화로 예산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1963—1964 회계 년도의 련방 정부 예산 적자는 82억 딸라였다. 1964년 10월말 현재 미국 련방 정부의 부채는 3,165억 딸라 이상에 달하였다. 여기에 각급 지방 정부와 기업소, 개인의 부채까지 합하면 미국의 부채 총액은 1만 2,600억 딸라에 달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년간 국민 총생산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군 사

미제는 1961—1964년간에 무려 2,178억 딸라를 군사비로 탕진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침략 전쟁 기간의 군사비보다 700억 딸라나 더 많다. 1964—1965 회계 년도에는 593억 딸라 이상 (예비적 수'자)를 직접적 군사비로 지출하였다.

미제는 핵 전쟁 준비를 위하여 핵 무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1964년에 21회의 지하 핵 시험을 감행하였으며 죤스톤도에서 대기권 핵 폭발을 재개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준비에 날뛰였다.

미국은 6,700 개의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330 개는 해외에 있다 (1961년 3월 국방 장관 맥나마라 발표). 미국 현역 병력의 약 5분의 2인 125만 명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사회, 문화

1964년에 실업자는 축소된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413만 8천 명 (《통계 월보》 1964년 10월 호)이였다(실업률은 5.2%). 이는 1957—1958년 경제 공황 직후인 1959년 보다 20여만이 더 많다.

특히 청년의 실업률은 15.4%로서 성년 실업률의 3배나 되며 비백인 청년 실업률은 30%나 된다. 죤슨도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에는 인구의 5분의 1인 3,500만 명의 빈민이 있다. 생계비는 1964년 11월에 108.7(1957—1958년=100)로 올랐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1965년 1월 28일 대통령의 경제 교서에 의하더라도 미국 회사들의 순 리윤은 1961년의 233억 딸라로부터 1964년에는 320억

딸라로 증가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성인 문맹자 수는 2,450만 명이나 되며 워싱톤에만도 20만 명의 문맹자가 있다. 범죄 건수는 1963년에 225만 9,100 건이였는데 1964년 첫 9 개월간에는 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3%나 증가하였으며 엄중한 범죄는 25만 건이나 늘었다. 1964년 첫 11 개월간에 교통 사고로 4만 3,890 명이 죽고 1,500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미국 력사상 최고 기록이다 (1963년에는 4만 3,600 명이 교통 사고로 죽음).

1965년 1월 7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의 보건 교서에 의하면 심장병 환자는 1,500만 명이며 4,800만 명이 암으로 쓰러지고 있다.

【출판 보도】 **통신**—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미국 정부 공식 통신)

신문—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 뉴욕 타임스, 뉴욕 헤랄드 트리분, 월 스트리트 저널, 크리스챤 싸이엔스 모니터

잡지—폴리티칼 어페어즈 (공산당 기관지), 포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라이프, 룩크, 타임스, 뉴스 위크

메 히 코

(메히코 합중국)

Republic of Mexico

【면적】 196만 9,000 km^2

【인구】 3,841만 6000 명(1964년 6월 조사)

그중 에스빠냐—인디안 혼혈인 60%, 토착 인디안 30%, 에스빠냐계 백인 10%이며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메히코 (주민 463만 명)

수도 메히코는 해발 2,250메터의 고원에 있다.

정 치

고대 마야 문화를 창조한 메히코 원주민이 아스테크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1521년부터 300 년간 에스빠냐 식민지로 있었다.

1821년 9월 16일 에스빠냐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846—1848년에 미국이 메히코를 무력 침략하고 오늘의 미국의 칼리포이아, 뉴 메히코 아리조나 등 주의 전부와 콜로라드, 와이오밍, 유타, 메히코 등 주의 일부분을 강탈하였다.

1861—1867년에는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가 침략하였고 1914년과 1916—1917년에는 미국이 무력 침략을 하였다. 메히코는 1798년부터 1942년 간에 22차에 걸쳐 미제의 무력 침략을 받았고 자국 령토의 절반 이상인 240여만 평방 키로메터를 강탈 당하였다.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메히코에서도 로동 운동이 앙양되였다. 1934—1940년 간에 집정한 카르데나스 대통령은 인민들의 압력밑에 미, 영의 석유 기업소들을 국유화(1938년)하고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

1940년에 카마쵸, 1946년에는 래만 등 반동들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 자본이 급속히 침투되였다. 1958년 로페스 마테오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64년 11월까지 집정하였다.

메히코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바와 외교 및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 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162 명이고 임기는 3년이다.

【정부】 대통령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 (임기는 6년, 1964년 12월 취임), 외상 안토니오 플로레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사회당에서 분리되여 창건되였다. **립헌 혁명당** (집권당)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국민 행동당** 착취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 정당이다. **인민 사회당, 로동자 총련합회, 로동 혁명 련맹 전국 위원회, 메히코 민족 해방 운동,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4년에 메히코에서는 지주의 략탈을 반대하며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2월 수도 메히코에서 전국 20개 주 대표 약 500 명의 참가 하에 메히코 독립 농민 련맹 전국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와 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2월말 메히코의 치우아우주와 풀루가시 근처에 있는 산 후안 텔라파춘 농민들은 폭력으로써 지주 토지를 점거하였으며 이를 탄압하려는 군경과 류혈적인 충돌을 하였다.

로동 혁명 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무력으로 농민들을 탄압한 당국의 처사를 규탄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8일 멕시칼리를 비롯한 4 개 도시의 시민 약 6만 명은 미국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와 메히코 농토에 막대한 피해 (매년 1억 페소=약 800만 딸라)를 주고 있는 데 대하여서와 이것을 방임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항의하여 시위와 집회를 단행하였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로동자와 학생들의 투쟁도 앙양되였다. 메히코시 안헬 방직 공장 로동자들은 해고를 반대하여 3월 4일 현재 2년 반째 파업을 계속 전개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푸에블라시 학생들이 주지사의 사직을 요구하여 시위하였다. 이에 당황한 당국은 11월에 푸에블라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2월 메히코시에 있는 35 개 병원의 의료 일군들은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전개하였다.

1964년에 메히코의 사회계는 메히코 정부의 친미 추종 정책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 초에 메히코—중국 친선 협회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

국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1월 5일 메히꼬 대외 무역 은행이 중국, 쏘련, 뽈스까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상을 주장하였으며 2월에는 메히꼬 상원 의장 산체스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4년에도 메히꼬 인민들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고 꾸바 혁명을 지지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압력에 의하여 7월 24일 메히꼬 국회는 자국에 대한 미주 국가 기구의 간섭과 꾸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배격하는 특별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8월에 멕시코 정부는 꾸바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미주 국가 기구》의 권고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7월 5일 메히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오르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2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르다스는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협조를 주장하였다.

경제, 사회 메히꼬는 농업—공업 국가이며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경지 면적은 전 면적의 15%이며 산림은 34%이다.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과 공업이다. 인구의 5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주요한 것은 축산업이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목화, 커피, 콩, 사탕수수이다.

1963—1964년도에 밀은 178만 6천 톤, 옥수수는 642만 4천 톤, 사탕수수는 181만 1천 톤, 목화는 62만 6 천 톤(평가), 커피는 13만 2천 톤, 당콩은 81만 5천 톤 생산되였다.

1962—1963년도에 대각 가축은 2,396만 8천 두, 양은 604만 6천 두, 염소는 1,148만 3천 두, 돼지는 1,045만 9천 두 있었다.

농산물은 수출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경제에서 국가적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 최근 시기 국가는 석유 공업, 전력, 철도 운수 대부분의 유색 금속, 19 개의 주요 은행, 대내외 상업의 현저한 부문, 대규모의 관개 및 도로 건설 등 일련의 중요한 부문들을 장악하였다. 1963년에 국가 투자는 약 140억—150억 폐소, 사자본 투자는 150억—160억 폐소였다.

특히 은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위를 차지한다. 1963년에 원유는 1,970만 톤, 천연가스는 110억 립방 메터, 연광은 19만 톤, 동광은 5만 5,800 톤, 아연광은 28만 9,800 톤, 은은 1,350 톤, 전력은 137억 키로와트시, 강철은 199만 6천 톤, 세멘트는 359만 4천 톤 생산되였다.

메히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액은 1941—1961년 간에 13억 7,036만 8천 딸라, 1962년에는 1억 1,850만 딸라였고 리윤 및 기타 형태로 류출된 자금은 투자액보다 많았는바 1941—1961년에 18억 7,780만 5,000 딸라, 1963년에는 1억 8,290만 딸라나 되였다. 메히꼬에 대한 외국 투자에서 미국 자본의 몫은 1962년에 67% 였다.

미국은 광업의 90%, 화학 공업의 40%, 전력 생산의 약 70%, 연 생산의 64%, 동 생산의 73%, 아연 생산의 76%, 은 생산의 41%, 금 생산의 2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목화 수출의 전부와 타면 공업의 70%, 커피의 수매,가공 및 수출, 농기계와 비료의 수입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목화, 커피, 광물이고 기계 및 설비품, 강철, 자동차, 화학 공업 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1963년에 대외 무역 적자는 308만 5천 딸라였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매년 23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죽고 있다.

전 인구의 37%가 문맹자이며 약 300만의 학령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과떼말라

(과떼말라 공화국)

Republic of Guatemala

【면적】 10만 8,900 km²

【인구】 409만 5,000 (1963년)

주민의 53.6%는 인디안, 35%는 인디안과 에스빠냐의 혼혈족, 기타는 에스빠냐계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과떼말라 (주민 45만 7,000 명)

정 치 1524년 이후 300여 년 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은 과떼말라는 1821년 에스빠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중미 제국과 중미 련맹을 결성하였다. 1839년에는 이 련맹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31년에 집권한 조지 우비코 독재 정권이 1944년에 전복되고 아레발로 정권이 수립되였다. 미제는 진보적 정책을 실시한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 6년 간에 30여 차의 전복 음모를 꾸몄다. 1951년 3월 국내 민주 력량의 지지하에 아르벤즈 구스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52년 6월 아르벤즈 정부는 《유나이티드 파실 회사》와 대지주들의 토지, 정부 국유지 등을 농민들에게 분배할 토지 개혁법을 제정하였으나 미제와 국내 반동의 사촉 하에 아르마스가 일으킨 정변으로 아르벤즈 정권이 전복되고 파쑈 정권이 조작되였다. 이 정권은 1955년 6월에 미국과 예속적인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안전 보장》이란 구실 밑에 무역을 미국의 관리에 내맡겼으며 군대의 관리를 미국 군사 사절단에 넘겼다.

1957년 7월 아르마스의 암살, 같은 해 10월의 군사 정변을 거쳐 1958년 1월부터 이디고라스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59년

에 파업과 시위들이 련달아 일어 났으며 1960년 11월 13일에는 대규모적 반정부 무장 폭동이 폭발하였다. 미제는 군대를 카리브해에 출동시켜 과떼말라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였다.

1962년 2월 초에 과떼말라의 동북부에서 《11월 13일》 유격 전선이, 3월에는 나라의 중심부에서 《10월 20일》 유격 전선이 조직되여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3월과 4월에는 강력한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 났으며 11월에는 공군 반란이 일어났다.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은 미제에 추종하여 1960년 4월에 꾸바와 외교 관계를 끊었으며 자국 령토를 반꾸바 책동의 근거지로 내 맡기고 있다.

1963년 3월 30일 미제의 조종하에 륙군 대좌 페랄타 아주르디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 정권은 헌법을 정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4월에는 《포고령》을 발표하여 어떠한 형태의 공산주의 활동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은 계속 세차게 전개되였으며 무장 유격대들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66 명, 임기는 4년이다. 2년마다 절반을 개선한다. 1963년 3월 군사 정권에 의하여 해산되였다.

【정부】 1963년 3월 30일 군사 정변을 통하여 엔리케 페랄타 아주르디아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이 1952년에 로동당으로 개칭, 1954년에 비법화.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손 **해방당, 민족 민주 운동당** 1955년에 창건, 대 자본가와 봉건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혁명 통일당, 민족 혁명당, 기독교 민주당, 로동 조합**

【주요 사건】 1964년에도 과떼말라에서는 미제의 략탈적 간섭을 배격하며 미제에 추종하는 정부의 반 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과떼말라 유격대는 산간 지대에 있는 근거지를 더욱 강화하고 농민들을 투쟁에 불러 일으키면서 나라의 동북부와 대서양 연안에서 정부군에 계속 타격을 주었다. 1964년에 혁명 투쟁에서 희생된 에드가르 이바르바 (이전 과떼말라 학생 련합 전선 위원장)의 이름을 가진 새 유격 부대가 동북부에서 조직되였다.

4월 중순 봉기군 유격대는 이사빌주의 4 개 도시를 습격 점령하고 악질 륙군 정보원을 처단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사관 학교 자동차를 습격하고 수명을 사살하였다.

한편 과떼말라의 대서양 연안 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대는 이해 여름 동안에만도 정부군을 공격하여 기관차 1 대, 차량 37 개, 비행기 2 대, 수개의 다리를 파괴 또는 폭파하였으며 악질 경찰관들을 처단하였다.

12월 15일 과떼말라 유격대들은 《1월 13일 유격 전선》 창건 4 주년에 제하여 수도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수도에서 경찰서들을 습격하고 삐라를 살포하였으며 담벽들에 혁명적인 구호를 붙였다.

다른 한 유격대는 비티오스 부근의 한 촌락에서 《미 군사 사절단》의 지시로 농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정부군 5 명을 죽였다.

과떼말라 독재 정부는 이와 같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탄압하려고 《토벌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할 뿐이였다.

과떼말라 유격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과떼말라 봉기군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반동적 군벌과 봉건 지주 및 제국주의자들을 소멸할 때까지는 무기를 놓지 말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1월 봉기군 지도자 안토니오 소사는 주간지 《시엠프레》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은 정부군을 소멸하고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과떼말라 인민들의 군사 정권이 5월에 감행하려는 협잡 《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과떼말라 인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선거》를 반대하여 선거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2월 《항쟁 통일 전선》은 국민 의회 《선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 평화적인 투쟁으로써 독재 정권을 타도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으며 4월에는 수도 거리들에 협잡 《선거》를 폭로 규탄하는 표어들이 나붙었다.

경제, 사회 과떼말라는 아연을 제외하고는 자원이 그리 많지 못한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의 2.2%에 불과한 지주들이 전국 토지의 70.5%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 지대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 옥수수, 쌀, 밀 등인데 이것들은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서독인데 미국이 과떼말라의 수출 총액의 56%를 차지한다.

경제 명맥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과떼말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1억 2,700 만 딸라에 달하며 미국의 《유나이티드 과실 회사》는 커피와 바나나의 생산을 독점하고 년 평균 1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공업은 매우 락후하여 생산재는 물론 소비재의 태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정부의 가장 주요한 세입 원천으로 되고 있다.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14세 이상의 주민 중 약 65%가 문맹자이며 해마다 병으로 5만 명의 어린이가 죽는다.

주민의 97%가 카톨릭교도이다.

살바도르

(살바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l Salvador

【면적】 2만 4,278 km²

【인구】 272만 1,000 명 (1963년 6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고 인디안은 18%, 백인은 8%이며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살바도르 (주민 25만 2,591명, 1960년 7월)

정 치 1524년 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39년에 독립 하였다. 독립 후 수차의 군사 정변이 있었다. 1961년 1월 25일 미제가 조작한 군사 정변 결과 수립된 군사 정권은 이해 3월에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동 4월의 기만적인 선거로 집권한 훌리오 리베라 카르바요 독재 정권은 9월에 《반공법》을 조작하고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1964년에 미제는 살바도르 서부 지방의 손소나르시 근처에서 공군 기지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의회】 1원제로서 의원 수는 42 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훌리오 리베라 카르바요 (1962년 7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9년 창건, 1932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주 통일 혁명당, 《4월 5일 혁명》당, 전국 행동당, 독립 민주당, 로동 총련맹, 대학생 련합 총회**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의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토지는 비옥하며 인구의 4%에 불과한 대 지주가 커피 재배지의 53%를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재배 면적 13만 헥터), 목화, 옥수수, 사탕, 콩, 쌀 등이다. 지하 자원은 금, 은, 동, 철, 석유, 석탄, 연 등이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에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수출 총액의 75%), 목화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밀, 밀가루, 연유, 세멘트, 비료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 화란, 영국이다.

주민의 약 57.5%가 문맹자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도이다.

온두라스

(온두라스 공화국)
Republic of Honduras

【면적】 11 만 2,088 km²

【인구】 200 만 8,000 명 (1963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90%)이고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떼구시갈빠 (주민 13만 3,876명, 1961년)

정 치 1520년 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 하였다. 1957년 11월 모라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63년 10월 3일 로뻬스 아렐라노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모라레스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반공을 자기의 기본 정책으로 내세우고 나라를 파쑈화하였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군사 위원회】 1963년 10월 3일의 군사 정변 후 조직되였다. 위원장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54년 창건, 1956년에 비법화되였다. **자유당, 민족주의당, 민족 개량 운동당, 혁명 민주당**

경제, 사회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5.2%에 불과한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고 75% 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바나나 농장들과 공업, 체신 및 철도의 대부분, 그리고 수출의 60～70%와 수입의 30%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이며 수출의 90%는 농산물이다. 인구의 70%가 문맹자이다.

영령 온두라스

British Honduras

【면적】 2만 2,957 km²

【인구】 9만 6,000 명(1962년)

【행정 중심지】 벨리제 (주민 3만 953 명)

16세기 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2년 5월 12일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7월 22일 영국 식민지성 대표와 온두라스 련합 인민당 대표 간의 런던 회담에서 1964년 1월 1일부터 영령 온두라스에 제한된 《내부 자치》를 부여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 수상 죠지 프라이스

면적의 92%는 산림 지대이고 경지 면적은 약 20만 헥터에 불과하다. 주산물은 목재, 야자, 바나나, 쌀, 콩 등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하고 수입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과 미국이다.

니까라과

(니까라과 공화국)
Republic of Nicaragua

【면적】 14만 8,000 km²

【인구】 157 만 8,000명(1962년)

주민의 70%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나과 (주민 23만 6,800 명, 1962년)

정 치 1524년 이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에스빠냐의 기반에서 벗어나 《중미 련맹》에 참가하였다. 1838년 련맹 해산과 동시에 독립하였다.

1937년 1월 군 총사령관인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된 후 파쑈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1956년

9월 소모사가 피살되고 그의 아들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되었다. 1963년 2월 폭압 속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모사의 민족주의 자유당의 르네 쉬크 구테레스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4년 10월 15일 (신화 통신) 니까라과 국회는 미국이 1914년에 강박하였던 브라이언—참모로 조약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불평등 조약에 의하여 미국은 니까라과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 굴설권과 폰세카 만과 콘 군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특권을 탈취하였다.

1959년부터 시작된 니까라과에서의 반미 반독재 무장 투쟁은 더욱 확대되여 1963년에는 대서양 연안의 산악 지대로부터 북부의 하노데가주의 산악 지대까지 진출하였다. 1964년에도 산디노 민족 해방 전선의 령도 하에 친미 독재 통치를 반대하는 무장 투쟁이 계속되였다.

니까라과와 온두라스 및 꼬스따리까 간에 국경 분쟁이 있으며 이 나라 령토는 미제의 반꾸바 기지로서 리용되고 있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임기 6년의 의원 16 명과 종신 의원 2 명 (이전 대통령이였던 자), 하원은 42 명으로 구성되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정부】 대통령 르네 쉬크 구테레스

【정당,사회 단체】 사회주의당 1939년에 성립되였다가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족주의 자유당**(집권당), **전통 보수당** 지주와 천주교회의 세력을 대표하는 친미 반동 정당. 야당으로는 **독립 자유당**, **공화 동원당**, **《혁명 행동당》**들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재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목화, 금 등이며 수출 대상국은 주로 미국이다.

경제의 명맥은 미국 자본과 소모사 일가에 장악되여 있다. 전체 농호의 72.2%가 15%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반면에 농호의 1.6%에 불과한 대 지주 (500 헥터 이상 소유자)들이 경지의 41.9%를 소유하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65%이다.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 공화국)
Republic of Costa Rica

【면적】 5만 1,000 km²

【인구】 133만 8,000 명 (1963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은 백인 및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종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호세 (주민 15만 명)

정 치 16세기 초부터 에스빠냐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962년 7월 24일 정부는 중미 국가들이 조인한 소위 《중미 국가 경제 공동체》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1964년 8월 25일에는 파메말라 군사 정부를 승인하였다.

1964년 12월 3일 꼬스따 리까 정부는 꾸바 반혁명 분자들이 꾸바 근해에서 꾸바로 가던 에스빠냐 선박을 공격(9월) 한 것과 관련하여 꾸바 반혁명 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미 군사 기지의 하나인 사라피퀴 기지를 철폐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회】 1원제이며 의원은 57 명 (1962년부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오를리치 (1962년 2월 취임, 임기는 4년), 외상 다니엘 오두벨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성립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침, 1961년 5월 비법화, 위원장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 해방당**(집권당), **민족 련맹당**, **자유당**, **공화당**, **《자유 꼬스따 리까 운동》** 미국과 꼬스따 리까 대 지주들의 재정적 원조를 받는 파쑈 단체이다. **꾸바 혁명의 벗 꼬스따 리까 협회**

경 제 인구의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은, 철, 석유, 망간, 류황 등이 있으나 미개발 상태에 있다.

경제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자본은 바나나 생산의 95%와 바나나 수출의 전부, 코코아 생산의 40% 이상, 철도망의 65%, 석유 가공 기업과 판매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과실 회사》는 이 나라 토지 면적 182만 1천 헥터 중 28만 9천 헥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철도, 무역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이 나라의 전통적인 수출품의 가격을 끊임없이 낮춘 결과 최근 10 년간에만도 꼬스따 리까는 약 1억 5천만 딸라의 손해를 보았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서독이다.

빠 나 마

(빠나마 공화국)
Republic of Panama

【면적】 7만 4,470 km² (빠나마 운하 지대는 제외)

【인구】 117만 7,000 명(1963년, 운하 지대 제외).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고 기타 흑인, 백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빠나마 (주민 30만 명)

정 치 빠나마는 1501년 콜럼부스에게 발견된후 에스빠냐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꼴롬비아에 편입되였다.

미제는 이미 20 세기 초부터 이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8월에 미국은 꼴롬비아가 운하 건설 조건을 거부하자 이른바 《혁명》을 조작하여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를 독립케 하고 그 해 11월에 예속적인 《빠나마—미국 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와 그 량안의 각각 8 키로 메터 너비의 지대를 《영구 조차지》로

탈취하였다. 미국은 3억 6,600만 딸라의 건설비를 들여 1904년부터 1914년 8월까지 운하를 건설하였다.

미제는 이 운하에서 해마다 1억 딸라의 리윤을 짜냈는데 그중 불과 193만 딸라만을 운하 임대료로 빠나마에 지불하고 있다. 미제는 운하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 지역에 26 개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1만 명 (많은 때는 8만 명) 이상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또한 미제의 조종과 간섭으로 60년 간에 빠나마에서는 39 차나 대통령이 교체되였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교살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 《반 유격전 학교》, 《범미 경찰 학원》, 《밀림전 학교》 등 군사 간첩 훈련 기관을 설치하고 간첩, 파괴 분자들을 양성하여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파견하고 있다. 빠나마 인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운하 지대의 귀속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 왔다. 빠나마 인민들의 압력으로 미제는 1936년에 《미국-빠나마 조약》을 수정하고 운하 임대료를 인상하며 미국이 리용하는 운하 지구 이외의 토지를 빠나마 정부에 반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47년에는 일부 군사 기지를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55년에는 운하 임대료를 43만 딸라로부터 193만 딸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였다. 빠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은 특히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와 꾸바 혁명 승리에 고무되여 더욱 앙양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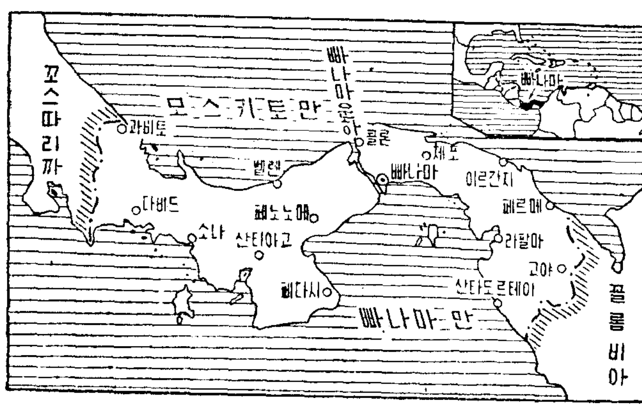
1958년 5월 빠나마 수도의 학생들은 《양키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운하의 국유화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1959년 11월 3-4일에는 빠나마 대학생들과 수도 시민들이 운하 지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미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빠나마 인민의 반미 투쟁이 앙양되자 미제는 1960년 9월 21일 운하 지대에서 빠나마의 명목상 주권을 인정하고 운하 지대 끝쪽에 량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다. 미국은 1962년 10월 29일 운하 지대 관리 중심지인 발보아 언덕에 있는 행정 기관 건물에 빠나마 국기를 미국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운하 지대 내에서 미국 국기가 게양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빠나마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배반하고 1964년 1월 9일 운하 지대 내의 미국인 학교에 미국 국기만 게양하였다. 이에 격분한 2천 명의 빠나마 학생들은 반미 폭동을 일으켰다.

미제는 운하 지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류혈적 탄압을 가하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이에 더욱 분노한 빠나마 인민들은 운하 지대의 귀속을 요구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미국의 《공보원》과 《항공 회사》 등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수도에 있는 미국인 기업체의 약 80%를 파괴해 버렸다.



빠나마 정부는 1월 10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식 단절하였으며 《빠나마—미국 운하 조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월 15일 2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운하 지대에 대한 주권의 회복을 요구하여 군중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미주 국가 기구》의 《조정 위원단》 또는 《조사단》을 통하여 빠나마와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구실 밑에 불평등 조약의 페기를 요구하는 빠나마와의 회담을 지연시키는 한편 운하 지대를 계속 강점할 것을 고집하면서 빠나마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지하며 위협 공갈을 하는 등 각종 압력을 가하였다.

4월 3일 빠나마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분쟁 근원을 조속히 제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5월 10일에. 진행된 선거에서 마르코 아우렐리오 로블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미제의 압력으로 신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 밑에 미국과 비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9일과 23일 빠나마 학생들은 1903년의 굴욕적인 운하 조약을 페기할 것을 요구하여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다. 17개의 로조들과 사회 단체들이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국은 빠나마에서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부르면서 미국에 굴종한 외상과 미국 주재 대사를 파면하며 미국과의 비밀 회담 내용을 발표하며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마르코 아우렐리오 로블레스 (1964년 5월 선출), 외상 페르난도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 전신은 공산당인데 1943년에 인민당으로 개칭, 1953년부터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비센테 텔리오. 기관지 《마소》 **민족 자유당, 전국 민족 애국 련합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조합 총련맹, 인민 청년 련맹, 학생 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고 식량은 해마다 국내 수요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은 금, 철, 수은, 석유, 보키사이트 등이다.

빠나마의 경제는 106 개의 미국 독점 기업체들에 장악되여 있으며 《운하 지대 회사》, 《유나이티드 파실 회사》를 비롯한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5억 5,600만 딸라이다. 빠나마에서는 미국 딸라가 류통되고 있으며 빠나마의 화페인 발보아는 전체 통화량의 3.6%에 불과하다.

빠나마 로동자들의 임금은 미국인 로동자의 6분의 1 밖에 안된다. 빠나마에는 5만명 이상의 실업자와 반실업자들이 있으며 주민의 3분의 1이 문맹자이다. 아동 사망률은 53%나 된다.

【빠나마 운하 지대】 면적은 1,432 km²(그 중 륙지 면적은 952 km²), 운하의 길이는 81.3 km, 깊이는 12m (제일 깊은 곳), 너비는 91.5～300m이다.

꾸 바

(꾸바 공화국)
Repùblica de Cuba

【면적】 11만 4,500 km²

【인구】 725만 6,287 명 (1964년 12월) 주민은 에스빠냐 계통의 백인과 혼혈종 및 흑인이다.

【수도】 아바나 (주민 115만 8,000 명)

정치

꾸바는 1492년에 콜럼부스에 의해 발견된 후 1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꾸바 인민은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해방 투쟁을 진행하였다. 1868—1878년에 제 1 차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1895년에는 호세 마르띠의 령도 하에 제 2 차 독립 전쟁을 진행하였다. 1898년의 미국—에스빠냐 전쟁에서 에스빠냐가 패배한 결과 꾸바는 미국의 예속하에 들어 가게 되였다.

꾸바는 1902년 5월 20일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1903년에 꾸바의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여기에 해군 기지를 만들었다. 미제는 1906년 꾸바 인민의 반미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09년까지 꾸바에 대한 총독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1912년, 1917년에도 무력으로 직접 인민 투쟁을 탄압하였다.

1933년 9월 4일 미제의 주구 바티스타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 독재를 실시하였다.

꾸바 인민은 미제의 예속과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치렬히 전개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꾸바의 애국자들은 바티스타 독재의 요새 《몬카다》 병영을 습격함으로써 무장 투쟁의 첫 봉화를 올렸다. 이 습격 투쟁은 실패하고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수십명의 꾸바 애국자들이 체포되여 재판에 회부되였다. 1955년에 석방된 피델 카스트로와 기타 애국자들은 메히꼬로 망명하여 혁명 활동을 계속하였다.

카스트로를 선두로 하는 82 명의 봉기자들은 메히꼬에서 범선 《그란마》호를 타고 국내로 진격하여 1956년 11월 25일 동부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이 상륙에서 살아남은 12 명은 일곱자루의 총을 가지고 씨에라 마에스트라 산중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투쟁을 확대 강화하였다. 6천 명의 무장 대오로 장성한 봉기군은 1958년 4월부터 총공세로 넘어갔으며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1월 3일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낡은 독재 통치 기구를 청산하고 혁명적인 사회 개혁을 실시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및 도시 개혁 등의 사회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외래 독점 자본가들 특히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제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꾸바 정부는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1962—1965년 4개년 경제 건설에 착수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미제의 거듭되는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영웅적 꾸바 인민은 1961년 4월 1,600여 명의 미제 고용병들의 침공을 72시간 동안에 플라야 히론에서 소탕하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 10월 22일 꾸바에 대한 미제의 해상 봉쇄와 관련한 《카리브해 위기》시에 꾸바 혁명 정부와 인민은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카리브해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5 개 요구 조항을 제기하였다. 꾸바 혁명 정부는 미제가 요구하는 쏘련 미싸일 기지 철수에 대한 《국제 감시》나 《꾸바에 대한 시찰》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리 하여 꾸바 인민은 미제의 봉쇄를 파탄시키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쏘련은 미싸일들과 《일—28》 폭격기를 꾸바에서 철수하였다.

1963년 11월 28일 꾸바 혁명 정부는 의무 병역법을 발표하였다. 법령에 의하면 17—45세까지의 남자들이 군대에 복무하게 된다. 꾸바 인민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투적 구호 하에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교수하였다.

【대통령】 오스왈도 도르티코스 로르라도 (1959년 7월 17일 취임)

【혁명 정부】 수상 피델 카스트로 루쓰

부수상 겸 혁명 무력상 라울 카스트로 루쓰

공업상 에르네스토 궤바라

외무상 라울 로아 가르씨아

로동상 비실리오 로드리게스

내무상 라미로 발데스 메넨데스

무역상 알베르또 모라 베쎄라

【정당, 사회 단체】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1962년 3월 8일에 《7월 26일 운동》, 《인민 사회당》, 《3월 13일 혁명 지도부》가 통합하여 조직된 통일 혁명 조직을 1963년 7월 초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전국 지도부 제 1 비서 피델 카스트로 루쓰

제 2 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쓰

비서국 성원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에르네스토 궤바라, 오스왈도 도르티코스, 불라스 로카, 에밀리오 아라고네스

혁명 로동 총련맹 서기장 라싸로 뻬냐 **꾸바 토지 개혁 전국 위원회,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1962년 3월 30일 《꾸바 청년 봉기자 협회》를 현재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미구엘 마르띤 **꾸바 인민 친선 위원회, 꾸바 녀성 련맹** 1960년 8월 23일 창설되였다. 위원장 빌마 에스핀 데 카스트로 **혁명 수호 위원회** 1960년 9월 28일에 창설되였다. 전 인민적 조직으로서 매개 동, 반에 이르기까지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이에는 150만 명의 근로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위원장 호세 마따르

【주요 국내 사건】 꾸바에서는 1964년을 《경제의 해》로 규정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라는 전투적 구호 밑에 제품의 질을 높이며, 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절약 운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주의 증산 경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64년 1월 5—6일 아바나에서 꾸바 제 1 차 전국 혁신자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험을 교환하며, 서로 배우며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경쟁을 가일층 추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폐막 회의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중학교, 인민 학교 및 농업, 공업, 전문 학교 학생들이 리론 지식과 생산을 결부시켜야 하며 육체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월 꾸바 교육성은 학교와 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및 중등 학교에 기술 교육을 도입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새 교수 요강에 의하면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며 5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실습 공장, 학교 농장 및 목장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중학교 학생들은 방학시에도 인민 농장들과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 로동에 참가하게 되여 있다.

9월 17—19일 아바나에서 사탕 생산에 관한 제 1 차 전국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국 회의에서는 사탕수수 재배, 사탕 공업, 수송, 기술자 양성 등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폐막 회의에서 카스트로는 사탕 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두개의 연구소를 꾸바 과학원 내에 창설하며 매 농장들 마다에 실험실을 꾸리며, 모든 농업 기술 연구소와 대학들에 연구실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0월 꾸바 운수 일'군 제 1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폐막 회의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농업 발전에서 과학이 노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습소 졸업생들이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농업 생산 조직과 지도의 기본 형태는 농업 협동 조합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미 나라의 각 지방들에 조직되여 꾸바의 농업 발전의 중요 기지로 전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1964년에 꾸바의 광범한 근로자들은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6년제의 초등 교육 과정을 습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6학년 졸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1월 카스트로 수상은 아바나 경기장에서 진행된 군중 집회에서 주민들이 현대적 과학 기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하며 간부들이 직접 생산에 참가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9월 28일 아바나 혁명 광장에서 진행된 꾸바 혁명 수호 위원회 창립 4 주년 및 제 1 국제당 창건 100 주년 기념 군중 집회에서 피델 카스트로 수상은 당 일'군들이 사업 작풍을 개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며 실천적이며 소박한 사업 작풍을 체득하도록 호소하였다.

10월 21일 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창건 4 주년 경축 집회가 산타 클라라에서 진행되였다. 피델 카스트로는 자기 연설에서 혁명적 의식으로 무장하며 의지를 단련할 것을 호소하였다.

10월 20일 꾸바 공업상 궤바라는 공업 부문의 지도자들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기 위하여 1 년에 1개월 동안 기본 생산 단위에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월 26일 산챠고에서 꾸바 인민의 무장 봉기 11 주년 경축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는 《산챠고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미제의 통제하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의 결의와 성명을 단호히 반대 규탄하였다. 선언은 또한 미제의 새로운 반꾸바 침략 책동에 대처하며 혁명적 꾸바 인민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11월 13일 미란사스주에 있는 사탕수수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농업 학교 졸업생들 앞에서 카스트로

로 수상은 대학 및 기술 학교 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64년에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은 전국의 거의 모든 주 및 도시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공업 기업소들과 군 부대들에 하부 당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9월 현재 도합 4,819 개의 초급 당 위원회와 215 개의 구역당 위원회, 그리고 135 개의 시당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0월 꾸바 내각은 근로자들의 사회 보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령에 의하면 공장에서 《모범 로동자》 칭호를 받은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로동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건 받지 않건 간에는 관계 없이 100%의 로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새 법령에 의하면 또한 국영 기업소 로동자들뿐만 아니라 인테리들, 그리고 개인 기업 (농촌 경리의 개인 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제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로쇠하였거나 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사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월 31일 꾸바의 라스 빌라스주에 있는 이사벨라 데 시구아 항구에서 폭풍 피해를 입은 형제적 꾸바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인민의 지성어린 원호 물자 전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월 22일 인민들의 평화 및 자주권 옹호 꾸바 전국 위원회는 1963년 12월 10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련석 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아바나에서 김 일성 수상의 연설집(1950년 9월부터 1963년 8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11 개의 연설 및 보고)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표제 하에 에스빠냐어로 출판하였다.

1964년 11월에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친선 대표단과 꾸바 피아노 독주가 제나이다 만루까스가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조선 로동당 대표단 (12월), 친선 대표단 (1월 8일), 기술자 대표단(3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꾸바는 우리 나라와 1965년도 통상 의정서 (11월 23일)를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1964년 1월 13—23일에 카스트로 수상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꾸바 사탕을 쏘련에 납입할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22일에는 쏘련—꾸바 공동 콤뮤니께가 발표되였다. 오스왈도 도르티코스 대통령 (10월 14—17일), 궤바라 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 공화국 대표단 (10월 초), 꾸바 공화국 정부 대표단(11월)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꾸바 혁명 수호 위원회 대표단 (4월), 꾸바 로력 영웅 대표단 (6월),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및 정부 대표단 (10월)이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8월 6일 꾸바 정부는 민주 웰남에 대한 미국의 횡포한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꾸바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 웰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위 《제소》를 안보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4년 1월 16일 꾸바 정부는 잔지바르 신정부를 승인하였으며 5월 8일에는 꽁고 공화국 (브라자빌)과 대사급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4월 궤바라 공업상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제 1 차 대회에 참가하였다. 1963년 말과 1964년 초에 정부급 무역 대표단이 영국, 프랑스 및 에스빠냐와 기타 나라들을 방문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11월 25일 꾸바 혁명 정부는 꽁고 (레)에 대한 범죄적인 침략을 감행한 미국 및 벨지끄 정부를 규탄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1964년에도 꾸바 혁명 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침략 책동과 악랄한 《봉쇄》 정책에 대처하여 조국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였다. 2월 3일 꾸바 외무상 라울 로아는 미국 정부에 각서를 보내여 4 척의 꾸바 어선을 랍치한 범죄 행위를 음페하기 위하여 마치도 꾸바 어선들이 《미국의 령해를 침범하였다》는 듯이 중상한 미국 정부의 소위 《항의 각서》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2월 6일 카스트로 수상은 기자 회견에서 4 척의 꾸바 어선들을 공해 상에서 나포 (2월 3일)한 미제의 해적 행위를 규탄하고 관따나모 미군 기지에 대한 급수 단절을 천명하였다.

2월 3일 꾸바 외무상은 베네수엘라에 마치도 꾸바가 무기를 보낸 듯이 비방하여 꾸바에 보내온 《각서》를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0일 꾸바 외무상 라울 로아는 아바나 주재 스위스 대사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꾸바 혁명 정부의 각서를 보내고 꾸바 령공에 대한 간첩 비행을 계속하겠다고 한 3월 27일 부 미국 정부의 각서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5월 13일 미제는 꾸바 반 혁명 분자들을 사촉하여 필론항에 있는 제당 공장을 포격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사탕 공장을 폭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0일 꾸바 혁명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6월 2일 꾸바 라스빌라스 주 산크티스피리투스시의 수천 명 주민들은 시위를 진행하고 이 지역에 세균 무기 또는 화학 무기일 수 있는 기구를 투하한 미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9월 15일 꾸바 혁명 무력성은 공보를 발표하고 9월 13일 에스빠냐 화물선 《시에라 아란사우》호를 공격한 《범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다》고 성명

하였다.

경제

꾸바에는 니켈, 니켈, 망간, 철, 크롬, 원유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 하에서 개발되지 못 하였었다. 경제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로 주로 사탕을 생산하는 단작 경리 국가로 되였었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 커피, 코코아 등이다. 꾸바에서는 1959년 5월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46만 5,000 카발레리아(전국 경리의 70%)의 토지를 몰수하여 약 15만호의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농호 당 2~5 카발레리아의 토지를 분배하였다. 1963년 10월 2일 제 2 차 토지 개혁 법령을 발표하여 1 차 토지 개혁에서 제외되였던 5~30 카발레리아의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리 하여 정부는 토지 면적 67만 카발레리아 (907만 7천 헥터) 중 75%를 국유화하였다. 꾸바 정부는 혁명후 토지 개혁으로 형성된 15만 4,703호 (이들은 234만 여 헥터를 소유하고 있다)의 소농 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신용 대부 및 판매-공급 협동 조합》을 광범히 조직하고 있는바 소농들은 자원적으로 이 조직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산업이 국유화되였다. 1960년 8월 6일과 10월 25일에 공포한 국유화법에 의하여 미국 독점체들의 소유였던 12억 딸라에 달하는 8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그들의 일체 재산이 인민의 소유로 전변되였다.

꾸바의 인민 경제에서 전 인민적 소유는 농업 부문에서 70%, 공업 부문에서 95%, 건설 부문에서 98%, 운수 부문에서 95%, 도매 상업 부문에서 100%, 소매 상업 부문에서 7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961년부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은행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꾸바 혁명 정부는 1962년부터 락후한 농업—공업 국가를 현대적인 농업—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할 인민 경제 발전 4 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꾸바 혁명 정부는 1963년부터 사탕 생산을 급속히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조절하고 1970년에 가서 1,000 만 톤의 사탕을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59—1963년 간에 경제는 평균 6—7%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1964년은 《경제의 해》로서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1964년에 공업 생산은 7% 장성하였다. 1964년 첫 11 개월 동안에 1,100만 켤레의 구두, 36만여 매의 사탕 포장용 마대가 생산되였다. 1964년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은 계획보다 3%나 더 장성하였다. 1963년에 수산물 생산량은 1억 2,400만 폰드(약 5만 5천 톤)였다. 또한 1964년에 600 여만 평방 메터의 면직물이 생산되였다. 그리 하여 직물 수입은 1963년에 비하여 30%나 감소되였다. 1964년에 49 개의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준공되였으며 새로운 32 개의 공장들이 건설 중에 있다.

꾸바 혁명 정부는 5 개년(1966—1970년) 공업 전망 계획 기간에 34만 5천 키로와트의 발전 능력을 가진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제지용 팔프 공장을 확장하고 현재의 종이 공장보다 4 배나 되는 새 공장을 건설하며 1970년에 가서 니켈 생산 수준을 1963년의 2배로 증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계획에는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유색 금속 채굴업을 확장하며 모든 지하 부원 특히 원유의 채굴과 시굴 사업을 발전시키며 매년 직물 생산 수준을 10% 이상 높여 1970년에 인구 1 인당 직물 생산을 1963년에 비하여 50%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새로운 방직 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기존 공장들을 확장하며 사탕 포대의 생산 능력을 3배로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여 있다. 이 밖에 1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야금 공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1964년에 농업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5% 장성하였다. 꾸바 토지 개혁 전국 위원회는 나라에 280만 페소의 리윤을 주었다. 사탕수수 생산은 1964년에 더욱 장성하였다.

축산업도 발전하였다. 국영 가금 콤비나트는 주민들에게 4만 톤의 육류와 2억 9,700만 개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대가축 도살량은 17% 장성하였다. 사탕수수 파종 면적도 확장되였다.

1962년에 담배는 5만 9,000 톤, 벼는 32만 톤, 옥수수는 34만 2,600톤, 유지 작물은 30만 700 톤, 목화는 3만 6,740 톤 생산되였다.

1964년 1—9월 간의 대외 무역은 196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7%, 서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은 2—3배 장성하였다.

교육, 문화

꾸바 혁명 정부는 1961년에 주민의 23%에 달하는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맹자 없는 첫번째 나라로 되였다.

1963년에 교육비는 혁명전인 1958년의 3 배나 되는 3억 3천만 페소였다. 같은 기간에 교원 수와 학생 수가 3배로 늘었다. 1963년에 초등 학교 학생 수는 127만 명, 중등 학교 학생 수는 12만 5,000 명이였다. 특히 정부는 인민 경제 건설에 필요한 기술 간부 양성을 위한 기술 강습소들을 광범히 설치하고 있다. 한편 1964년에 80만의 성인들이 생산과 유리됨이 없이 학교들에서 공부하였다. 꾸바에는 3 개의 종합 대학이 있는데 아바나 종합 대학에서만도 1만 2,853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1959—1963년 간에 도시에는 2만 9,297 세대, 농촌 지역에는 1만 5,728 세대의 현대적인 문화 주택이 각각 건설되였다.

꾸바 정부는 1963년에 1962년보다 3,070만 페소가 더 많은 1억

1,970만 페소를 보건 부문에 지출하여 병원, 진료소, 료양소 등을 광범히 건설하였으며 산간 벽지에까지 진료소망이 들어갔다. 혁명 후 6년 동안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과 농민들의 소득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출판 보도】 **통신**— 프렌사 라티나(혁명후 창설된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로서 아바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신문— 레볼루시온 (혁명 정부 기관지), 노티시아스 데 오이(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기관지, 부수 25만 3,000부), 메리아(꾸바 공산주의 청년 동맹 기관지), 베르도 올리보(혁명군 기관지)

잡지—꾸바 소씨알리스따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리론 잡지)

하 이 티

Republic of Haiti

【면적】 2만 7,800 km²

【인구】 444만 8,000 명 (1963년 6월). 주민의 95%가 흑인이며 기타는 혼혈종이다.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토 프란스 (주민 25만 명, 1961년 현재)

정치 하이티는 1492년부터 에스빠냐 식민지로,1697년부터는 프랑스 식민지로 되였다. 1804년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낸 하이티 인민들은 1806년 세계에서 첫 흑인 공화국을 선포하였다.독립후 정치 정세는 불안정하였는바 1847년—1915년의 근 70년 간에 82 차례의 대통령 교체가 있었다. 1915년 7월 수도 포르토 프란스에서 반정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미제는 이른바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 하에 해군을 파견하여 하이티를 강점하였다.

1918, 1929, 1930년에 여러 차례의 반미 투쟁이 일어났다. 인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미제는 1930년 하이티와 《담판》을 개시하였고 드디여 1934년에 하이티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제 2 차 대전후 미제는 하이티에 친미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고 1957년 9월에는 친미 분자 듀발리에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듀발리에는 정권 장악후 비밀 경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하이티 정부는 미제의 압력으로 1961년에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듀발리에의 대통령 임기는 1963년 5월 15일에 만료되기로 되였으나 1961년 국회 선거에서 1967년까지 임기가 연장되였다고 하면서 1963년 5월의 선거를 거부하였다.

듀발리에의 선거 거부와 관련하여 국내 정세는 첨예화되였다. 1963년 2월 12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으며 미제의 사촉 하에 2 차에 걸친 군사 정변 음모들이 있었다. 정변 음모와 관련하여 륙군 장교의 3분의 1이 숙청, 학살, 체포되였고 일부는 외국 대사관에 도피하였다.

4월 28일 듀발리에 경찰은 하이티 주재 도미니카 대사관을 습격하고 이 대사관에 숨어 있는 장교를 수색하였고 5월 1일에는 미국 대사관을 수색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군함을 하이티 앞바다에 파견하여 군사적 위협과 압력을 가하였으며 도미니카는 하이티에 최후 통첩을 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국경 지대에 군대를 집결하였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통제 하에 있는 《미주 국가 기구》로 하여금 《조사단》을 파견케하여 하이티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듀발리에 정부는 6월에 귀국 중인 미국 대사를, 7월에는 미《군사 원조 사절단》을 추방하였다. 8월 6일 하이티는 동북 국경 지대를 전쟁 지대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도미니카와의 분쟁은 하이티가 외국 대사관에 숨어 있던 도피자들의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일단 결말을 지었다. 그 후에도 미제는 하이티에 계속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2일 미제는 푸에르토 리코에 하이티 망명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듀발리에의 임기 만료일인 5월 15일에는 하이티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6월 3일 외교 관계 회복)

한편 해외 망명자들로 조직된 《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의 령도 하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통일 전선체인 하이티 전국 해방 운동은 자기의 혁명 강령에서 국내의 모든 애국 력량을 단합하여 폭정을 전복하고 민족적 리익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민족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가 주권을 보호하며 평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을 지지하며, 기업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다.

1963년 5월 포르토 프란스에서 《통일 혁명군》의 반정부 음모 사건, 7월 23일 정부군을 반대하여 일어난 무장 충돌 사건에 뒤'이어 1964년에는 도미니카와의 국경선 부근에서 반정부 무장 부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회】 1961년 4월부터 량원제를 없애고 1원제로 되였다. 의원수는 5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1964년 5월 25일 립법 의회는 대통령 듀발리에를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할 데 관한 신 헌법을 승인하였다.

【대통령】 에프. 듀발리에 (임기는 6년, 1963년 5월에 재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으로서 1951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족 통일당** (집권당), **사회 민주당**, **《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 **하이티 전국 해방 운동**, **전국 로동 총련맹**, **하이티 학생 동맹** (1964년 12월에 국제 학생 동맹에 정식 가맹)

경제, 사회 하이티는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국가이다. 경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 목화 및 담배이다. 식량은 부족하여 해마다 미국 잉여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은 극히 적다. 그 중 보키사이트 (매장량 1천만 톤), 아연광, 망간, 석탄, 석유 등이 있으나 그 채굴량은 적다.

공업은 보잘 것 없다. 몇개의 방직 공장과 제철소, 소형 세멘트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미국 독점체들이 주요 경제 명맥을 장악 (외국 자본의 70%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의 《하이베 회사》가 이 나라의 철도, 조선소 및 제탕 공장들과 2만 3,000 헥타의 사탕수수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외에 광산 개발, 전력 생산, 대외 무역도 미국인 회사에 집중되여 있다. 하이티는 1946—1963년에 미국으로부터 1억 6,000만 딸라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받았다.

국내 자본가들과 미국 회사들의 가혹한 착취로 하여 하이티 근로자들은 무권리와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로동자들의 1인당 년 평균 수입은 불과 65 딸라이다. 전국 인구의 55%가 실업 당하고 있으며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며 인구의 평균 수명은 42세이다.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Republic of Dominica

【면적】 4만 8,700 km²
【인구】 333만 4,000명(1964년), 주민은 인디안—구라파 혼혈인 (60%), 백인(28%), 흑인(12%)이다. 에스빠냐어를 사용한다.
【수도】 산토 도밍고 (주민 46만 7,782명, 1960년)

정 치 도미니카는 콜럼부스에 의하여 발견된 후 1492년부터 하이티와 함께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고 1795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801년에 독립을 선포하였고 1844년에는 하이티와 분리되여 도미니카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0년 정변 이후 22년간 라파엘 트루힐로의 테로 독재가 계속되였으며 1952년 5월에는 그의 동생이 집권하였다. 이 독재자들이 집권한 약 30년 간에 약 7만 5천 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인민들의 반미 투쟁에 의하여 발라궤르 (1960년에 집권)는 1962년 1월 16일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 1월 16일과 18일에 군사 정변이 련속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된 총 선거에서 후안 보슈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9월 미제의 사촉 하에 일어난 군사 정변으로 보슈 정권이 전복되고 군사 정권이 수립되였다. 군사 정권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모든 진보적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군사 독재 정권은 집권후 300명 이상의 진보적 인사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한편 수 많은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1964년 1월에는 《6월 14일 혁명 운동》 위원장 마누엘 타바레스 후스토를 포함한 수 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애국적 인민들은 군사 당국의 류혈적인 탄압을 박차고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5월 2일 산토 도밍고 운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합법적 정부의 복귀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한 데 뒤'이어 3일에는 산 페드로 데 마코리스 및 푸에르토 플라타시 등 각지에서 파업이 전개되였다. 시위자들과 파업자들은 경찰에 맞서 류혈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에는 수도의 대학생들과 부두 로동자들이 산토 도밍고 운수 로동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동맹 휴학과 파업을 선포하였다. 그후 제탕 공업 부문 로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였으며 방송 일'군들도 운수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에 당황한 군사 당국은 무력으로써 시위자들을 탄압하였는 바 파업 개시 1 주일 간에만도 800여 명의 로동자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격분한 파업자들은 시내의 요소 마다에 바리케트를 쌓고 군경들과 맞서 대항할 태세를 갖추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반미 반정부 투쟁의 앙양에 질겁한 군사 독재자들은 6월에 미제로 하여금 자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며 미군을 끌어 들일 것을 예견하는 매국적인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속적 협정은 도미니카의 광범한 사회계의 규탄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7월에는 미국 회사 소속의 사탕 농장과 《라로마나》 제탕 공장 2만 명 로동자들의 파업과 8월 17일에 있은 6천 명의 운수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은 전국적 총 파업으로 전변되였다. 이 파업에는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8월 21일 파업자들은 군사 당국에 비망록을 보내여 임금에서 사회 보장 기금으로 떼여 내는 몫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킨 법령을 폐기하며 5월에 금지된 자주적인 운전수 협회를 합법화하고 체포된 로조 일'군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6월 14일 운동》에 망라된 청년, 농민 유격대들은 북부와 중부 산악 지대에서 자기의 활동 지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대통령】 도날드 리드 카브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사회당** 전신은 1942년에 창건된 공산당, 1946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

칭, 1947년 8월에 비법화되였다. **민족 공민 동맹, 도미니카 민족주의당, 도미니카 해방 운동** 1959년 [illegible]월에 아바나에서 베네수엘라에 있는《도미니카 애국 동맹》, 꾸바에 있는《도미니카 통일 민주 전선》,《도미니카 인민 사회당》, 뉴욕에 있는《도미니카 통일 전선》 등 애국 력량으로 조직되였다. **《6월 14일 혁명 운동》, 로동 련맹, 기독교 민주당**

경제, 사회 도미니카는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로동자는 154만 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고용 로동자이다.

주되는 농업 생산물인 사탕수수는 국민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커피 (총 생산에서 15～35% 차지), 코코아, 바나나, 담배 등이 생산된다. 해마다 이 나라는 원탕을 비롯한 약간의 농산물을 수출할 뿐이고 식료를 비롯한 기계, 철강, 석유 등은 수입한다.

도미니카는 1946—1963년 간에 미국으로부터 1억 딸라 이상의 경제, 군사적《원조》를 받았다. 경제의 주요 부분은 미국 독점 자본에 장악 (1961년 말 미국 사자본의 직접 투자액은 1억 500만 딸라)되여 있다. 16 개 제당 공장 중에서 9 개가 미국 자본에 속해 있다.

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절반 이상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자마이카

Jamaica

【면적】 1만 1,400 km²

【인구】 168만 7,000명 (1963년)

주민은 흑인(76%), 혼혈인(17%), 인디안(2%), 백인(1%) 등이다.

【수도】 킹스톤 (주민 12만 3,213명)

정 치 꾸바의 남쪽 카리브 해상에 있는 섬 나라로서 167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원주민인 아라와크 인디안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16세기에 전멸되였고 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다. 1958년에 영 제국주의자들은 자마이카와 기타 서인도 제도로써《서인도 련방》을 형성하였다. 자마이카는 1962년 8월 6일《서인도 련방》에서 탈퇴하고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국과《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기로 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1 명 (그중 13 명은 수상이 추천), 하원은 45 명이고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2년 4월의 선거에서 부스타멘테의 로동당이 26 석, 인민 국민당이 19 석을 차지했다.

【정부】 수상 알렉산더 부스타멘테

경 제 기본은 농업이고 주산물은 사탕, 커피, 코코아, 담배이다. 보키사이트 (매장량 5억～6억 톤으로 추산)의 채굴은 미국—카나다계의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푸에르토 리코

(푸에르토 리코 자유 련방)

Common Wealth of Puerto Rico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 나라이다.

【면적】 8,900 km²

【인구】 251만 3,000명 (1963년)

주민의 79.7%가 백인, 언어는 영어와 에스빠냐어를 사용.

【행정 중심지】 산 후안 (주민 45만 1,865명, 1960년)

정 치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에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2년 7월 25일《자치령》으로 선포되였으나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 예속 하에 있다.

미국은 이 작은 섬 나라에 12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1,500 명 이상의 미국 련방 조사국, 중앙 정보국 및 국내 치안 부대의 합동 세력, 그리고 1만 5천 명 이상의 중방위군과 공군, 약 2만 명의 예비 부대, 기타 5만 명의 군사 인원들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푸에르토 리코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는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기지로 되여 있다.

푸에르토 리코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푸에르토 리코 인민들은 미제가 1964년 11월에 조작한《선거》를 반대하여 반선거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 전선의 지도 하에 40% 이상의 유권자들이 선거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4월에 독립 운동당은 미국 독점체들과 국내 대 자본가들의 략탈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5월에는 정치범 석방을 위한 대중적 시위와 미제의 군사 기지 및 토지 수탈을 반대한 웨케스섬 인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10월에 1,500 명의 산 후안 종합 대학 학생들이 독립을 요구하여 시위를 하였다.

1964년 4월 16—24일 푸에르토 리코 독립 종합 대학 련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대표들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독】 루이스 무뇨스 마린 (1964년에 3선)

【의회】 량원제로서 27 명의 상원 의원과 51 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4년 9월에 창건되고 1944년에 해산되였다가 1946년에 재건되였다. 위원장 후안 싼토스 리바라, 총비서 람보 메라달 **인민 민주당** (집권당) 미국 민주당 영향 하에 1938년에 성립,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지주로 되여 있다. 지도자 무뇨스 마린 **국가 공화당** 푸에르

로 리코를 미국의 51 번째 주로 전락시킬 것을 주장 **국민당, 독립 운동당, 로동 총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커피, 담배, 과실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은, 주석, 연, 동, 대리석 등이 풍부하다. 미국 독점 자본은 이 나라의 자원과 농토의 80%, 이 나라 투자 총액의 78%와 대외 무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경작지의 13%는 미군사 기지로 수탈 당하고 있다.

20 개의 미국인 기업소들이 우유, 식료품, 보험 부문, 공중 및 해상 수송 등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이 나라에서 매년 1억 2,600만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로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미국인 로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32만 명의 도시 주민들이 주택을 못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1962—1963년에 실업자는 10만 명이나 있었다. 매년 5만~6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난다.

트리니다드—토바고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면적】 5,128 km² (그중 트리니다드 4,828 km²)

【인구】 89만 4,000 명(1962년)

주민은 흑인(43%), 인디안 (36%), 혼혈인, 백인 등이다.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 (주민 9만 명)

정 치 카리브해에 있으며 1797 년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802년부터 160여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장구한 민족 해방 투쟁 끝에 1962년 8월 31일 영 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1 명, 하원은 30 명으로 구성. 1961년 12월 선거에서 윌리암스의 인민 민족 운동당이 20 석, 민주 로동당이 10 석을 차지했다.

【정부】 수상 에리크 윌리암스

경 제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바나나, 야자, 귤 등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 피치 등이다. 석유는 이 나라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 석유 생산량은 700만 톤이였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공화국)

Repuplic of Venezuela

【면적】 91만 2,000 km²

【인구】 814만 4,000 명 (1963년)

주민은 인디안 구라파 혼혈인, 백인, 흑인, 인디안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까라까스 (주민 131만 6,119명 1961년 조사)

정 치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에 독립하였다. 1821년에 콜롬비아의 일부로 되였다가 1830년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1948년 11월 총 참모장이였던 히메네스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1953년 1월에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8년 1월 공군의 반란으로 시작된 폭동으로 히메네스 독재 정권은 전복되고 군사 정부가 수립되였다. 1958년 12월 선거에서 베탕쿠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베탕쿠르 정부는 미제의 압력으로 점차 우경화하여 친미 독재 정권으로 되였다.

1961년 11월에는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 혁명 운동》 당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0월에는 헌법상의 담보마저 페지하고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베탕쿠르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고 1962년 초에는 무장 유격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인민 유격 투쟁의 영향 밑에 1962년 5월에 베네수엘라 제 2의 군항 카루파노 해군 륙전대의 폭동이 일어났고 6월에는 혁명적인 정당들로 민족 해방 전선이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 전선은 진보적인 로동자, 농민, 학생, 애국적인 군인 등 광범한 계층들로 구성된 민족 해방군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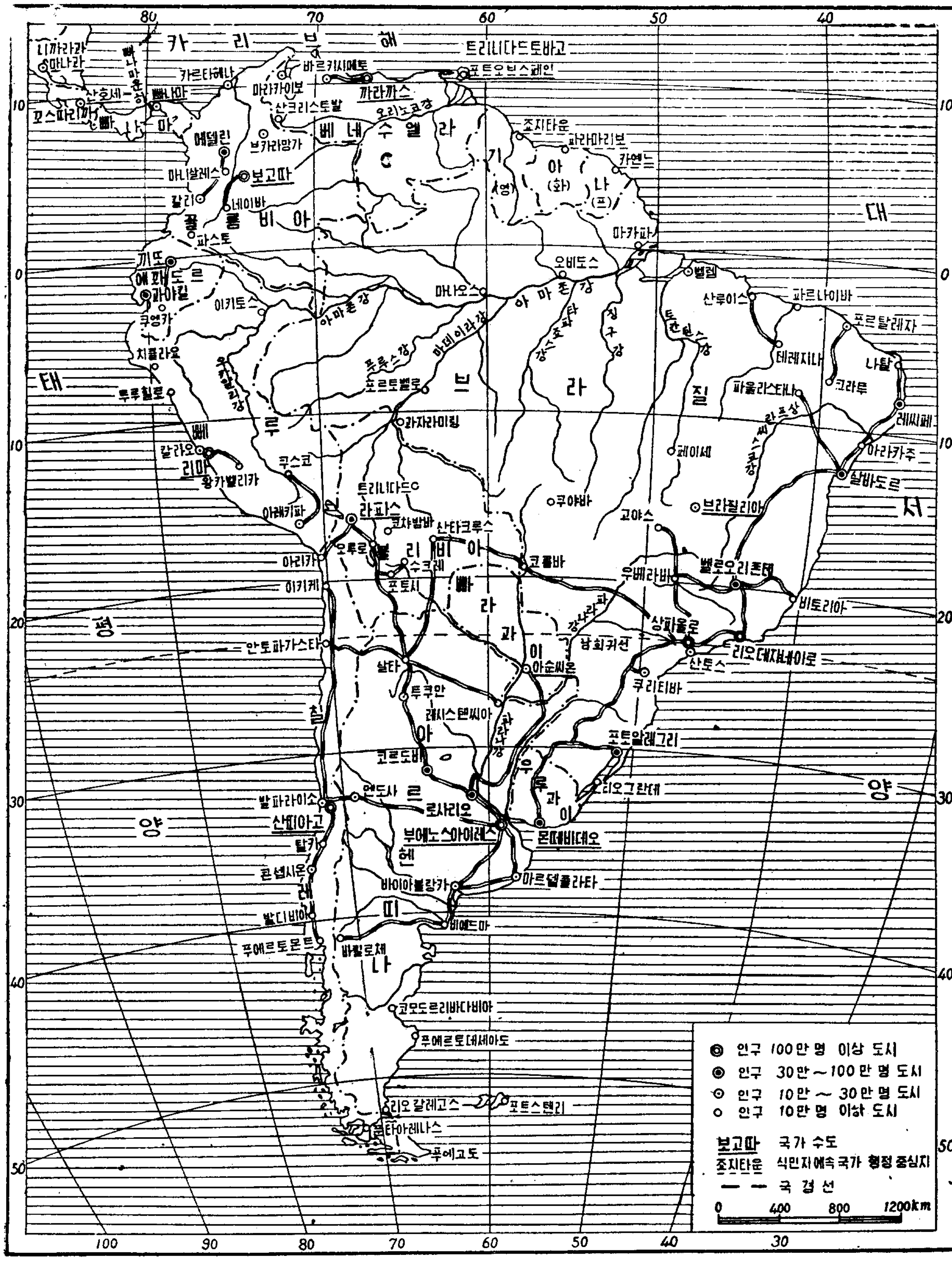
【대통령】 라울 레오니 (1964년 3월 11일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55명, 하원 의원은 133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되였다.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가 1963년 10월에 다시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헤수스 파리아 **민족 해방 전선** 1962년 6월에 공산당과 좌익 혁명 운동당의 주요 력량으로 조직되였다 **민주 행동당** 1941년 창건. 외국 독점체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파두 정치 세력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련합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지도자 라울 레오니 **《좌익 혁명 운동당》** 1960년 4월 민주 행동당에서 떨어져 나와 조직되였다. 석유 공업의 국유화, 대 토지 소유제의 청산을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1962년 5월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안토니오 델가도 로자노 **전국 야당 전선 조직 위원회** 1964년 8월 5일에 베네수엘라 전국 인민 전위당, 좌익 혁명 운동당, 그리고 저명한 로조 및 정치 활동가들로써 조직되였다. 외국 자본과 국내 파두 정치의 동맹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한다 **기독교 사회당** 지주, 대 상업가, 고리 대금업자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전국 민주 전선** 일정한 정도 탄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파두 세력의 존속과 친미적 경제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련합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공화 민주 련맹**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련합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주요 사건】 1964년 3월 11일 대

남 미 주



카 리 브 해
트리니다드토바고
니까라과
마나과
빠나마운하
카르타헤나
바르키시메토
포트오브스페인
산호세
빠나마
마라카이보
까라까스
꼬스따리까
산크리스토발
오리노코강
메데린
부카라망가
베 네 수 엘 라
조지타운
파라마리보
카옌느
기 아 나
(영)
(화)
(프)
마니살레스
보고따
칼리
네이바
콜 롬 비 아
파스토
대
서
양
마카파
끼또
에꽈도르
오비도스
벨렘
과야킬
이키토스
마나오스
아 마 존 강
아마존강
산루이스
파르나이바
쿠엥카
포르탈레자
치클라요
마데이라강
토칸틴스강
싱구강
나탈
태
평
양
트루칠로
푸루스강
포르토벨로
브
라
질
테레지나
크라투
파울리스타나
레씨페
우카얄리강
페
루
과자라미링
상프란씨스코강
아라카주
칼라오
리마
황카벨리카
쿠스코
살바도르
트리니다드
쿠야바
브라질리아
라파스
아레키파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고야스
아리카
오루로
볼 리 비 아
코룸바
우베라바
벨로오리존테
수크레
포토시
이키케
빠
라
과
이
비토리아
파라나강
상파울로
남회귀선
안토파가스타
리오데쟈네이로
산토스
살타
아순씨온
쿠리티바
투쿠만
레시스텐씨아
칠
레
아
르
헨
띠
나
포토알레그리
코르도바
우
루
과
이
리오그란데
발파라이소
멘도사
로사리오
산띠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몬떼비데오
탈카
콘셉시온
바이아블랑카
마르델플라타
발디비아
비에드마
푸에르토몬트
바릴로체
코모도르리바다비아
푸에르토데세아도
리오갈레고스
포트스탠리
푼타아레나스
푸에고도
80
70
60
50
40
10
0
10
20
30
40
50
100
90
80
70
60
50
40
30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만명 도시
인구 10만~30만명 도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보고따 국가 수도
조지타운 식민지예속국가 행정 중심지
국 경 선
0 400 800 1200km

통령으로 취임한 라울 레오니는 이전 독재자 베탕쿠르의 친미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을 답습하여 애국적 무장 투쟁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다. 레오니 정부는 2,500 명의 미국 《군사 사절단》의 지휘 밑에 민족 해방군에 대한 《토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린 한편 《국내 평화》와 베네수엘라 공산당 및 좌익 혁명 운동당의 합법적 지위의 회복을 운운하면서 무장 투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인민들은 레오니 정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짐이 없이 친미 반동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1964년 4월에 있은 베네수엘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는 승리를 쟁취하는 길은 무장 투쟁이라고 결의에서 지적하였다.

6월 초에 베네수엘라 좌익 혁명 운동당 전국 비서국은 성명에서 나라의 민족적 해방은 혁명 전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6 월 하순 르루힐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 해방군 사령관인 파브리치오 오헤다는 자기 서한에서 《유격전의 기본 형태인 무장 투쟁은 베네수엘라 인민이 정권을 쟁취하고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도루 찾으며 자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964년에 민족 해방 전선과 해방군은 지난 3년간의 투쟁 경험을 총화하고 무장 투쟁으로써 해방을 쟁취할 결의를 굳건히 하였다.

민족 해방군은 1964년에 미국 《군사 사절단》의 지휘 하에 감행된 《토벌 작전》을 분쇄하면서 농촌 유격 투쟁을 발전시켰으며 시가지들에서는 전술 전투대와 인민 자위대들의 소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 하여 전국에는 5 개의 유격 전선이 형성되여 있으며 유격 투쟁은 전국의 20 개 주, 3 개 지구 중 10 개 주와 1 개 지구에서 전개되였다. 애국적인 무장 투쟁으로 친미 반동 통치의 기초는 뒤흔들리고 미제의 침략 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2월에 전술 전투 부대의 한 소조는 리카르도 쿠네트 로하스에 있는 정부군 지휘부를 습격하여 군복, 무기 및 군수 기자재를 로획하였으며 2월 26일 다른 한 그루빠는 안조아테귀주의 엘 티그레 부근에 있는 미국인 석유 회사의 5 개의 원유 저장고를 폭파하였다.

3월에 트루힐로주의 보코노 지구에서 유격 부대는 200여 명의 정부군의 정예 부대와의 전투에서 50 명의 정부군을 살상하였다.

4월 17일 5 명의 전투원들은 마라카이보시에 있는 《문도》 방송국을 점령하고 파쑈적인 라울 레오니 정부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포르투궤사주의 산간 지대에서 활동하는 민족 해방군의 한 부대는 5월에 엘레알과 라스베키타스 두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포르투궤사주의 산악 지대에 있는 민족 해방군의 한 부대가 수오로드 지역의 코루아바시를 점령하였다.

7월 17일 민족 해방군 성원들은 수도에서 약 20 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로스 테퀘스트 종합 병원을 습격하고 체포된 민족 해방군 녀성 지도자 올리비아 올리보를 구출하였다.

10월 9일 수도에서 민족 해방군의 한 그루빠는 미 공군 《사절단》부단장 스물렌 중좌를 생포하였다.

11월 17일 팔콘주에 있는 푸에불로 누에브산에서 유격대는 정부군의 직승 비행기 1대를 격추하였으며 18일에는 한 유격대 그루빠가 안조아테귀시를 점령하고 시장 펠리페 라몬 로드리궤스를 처단하였다.

12월 중순 유격대는 팔콘주의 카부라촌에 있는 정부군의 병영을 습격하였다.

한편 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진출도 더욱 장성하였다.

5월 12, 15, 19일에 걸쳐 베네수엘라 대학생들은 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중지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베네수엘라 대학생 대회는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까라까스시에서 중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30일에는 수도 까라까스에서 2만 명이 참가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이날 하루 동안에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10만 명이 서명하였다.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는 정치범 석방 위원회들이 500 개나 조직되였다.

이와 함께 체포된 애국자들은 감옥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다.

4월 마라카이보시 감옥에 감금되여 있는 118 명의 정치범들이 감방내의 비 위생 조건을 반대하며 식사 조건과 의료 봉사의 개선을 요구하여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에는 《타카리구아》 감옥에 감금되여 있는 애국자들과 부르섬에 갇혀 있는 약 300 명의 정치범들의 단식 투쟁에 뒤'이어 까라까스의 《산 카를로스》 수용소와 줄리아주의 감옥에서도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16일 꾸바 혁명 옹호 베네수엘라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꾸바가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수송하여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방한 미제와 레오니 정부를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 베네수엘라는 농업과 광업을 위주로 하는 반 봉건 반 식민지 나라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와 철광석 (매장량 21억 3,300만 톤)이 풍부하며 기타 금강석,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이 있다.

국민 총생산에서 석유 공업은 약 30%, 가공 공업은 11%, 광업은 1.5%, 농업은 6.5%를 차지한다.

경제 명맥은 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투하된 미국 자본의 60%가 집중되여 있으며 미국 자본은 이 나라에 투하된 외국 자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28억 2,600만 딸라이다.

1963년에 석유 생산량은 1억 6,960만 톤으로서 세계 제 3 위였으며 수출은 세계 제 1 위였다. 이 나라의 외화와 국고 수입의 70%는 석유 수출과 석유 산지 임대료에서 얻어지고 있다. 석유 자원은 17 개의 외국 석유 회사 (주로 미국의 3대 석유 회사에 장악)와 1 개의 국영 회사가 채굴하고 있다. 1958—1963년 간에 외국 석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서 21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였다. 철광석 채굴권은 사실상 2 개의 미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1963년에 철광석은 1,200만 톤, 금강석은 7만 카랏트, 금은 811 키로그람, 석탄은 4만 2천톤 생산되였다.

농업은 극히 락후하다. 농촌에서는 1.5%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유용 토지의 78.7%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71.6%의 농민들은 겨우 2.3%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약 80만 호의 농민은 토지를 전혀 못 가지고 있다. 농업은 국내 소비를 보장 못 하여 현저한 량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1962년에 5만 4,000 톤 생산), 코코아, (1962년에 9천 톤 생산), 담배, 사탕수수(1963년에 280만 톤 생산), 목화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철광석, 코코아 등이다. 석유와 철은 수출 총량의 97%를 차지한다. 1951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에 대외 무역 결손액은 95억 딸라였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과 정부의 반 인민적 정책으로 인민의 생활은 극히 가난하다.

1964년 11개월 동안에 식료품 가격은 13%, 의복 가격은 16%, 일용품 가격은 27% 올랐다.

해마다 13만 명의 학생들이 경제난으로 하여 초등 학교도 채 졸업 못 하고 있으며 대학들에서는 입학자의 20%만이 졸업한다.

실업자 수는 70만 명, 류랑아 수는 100만 명이나 된다. 1963년에 범죄 건수는 3만 4,992건이였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농촌에는 아무런 의료 시설도 없다.

영령 기아나

【면적】 21 만 4,970 km²

【인구】 61만 1,000명 (1963년)

주민 중 인도인이 49.2%, 흑인이 31.7%, 혼혈인이 12.2%, 아메리카 인디안이 4.6%이고 기타 뽀르뚜갈인, 중국인, 구라파인이 있다.

【행정 중심지】 죠지타운 (주민 14만 8,451명, 1960년)

정 치 기아나는 1814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독립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53년에 기아나에 헌법을 허용하고 4월에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인민 진보당의 쟈간 정부가 수립되였다. 그후 쟈간 정부가 일련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 영국은 이 해 10월에 무력으로 쟈간 정부를 전복하였다. 1957년 8월의 선거에서 인민 진보당이 승리하여 쟈간 정부가 또다시 수립되였다. 1960년 3월 《헌법 제정 회의》에서 영국은 기아나의 독립을 거부하고 내부 자치만을 허용하는 새 헌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대외 관계와 국방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들을 여전히 장악하였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61년 8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 진보당이 자치 정부를 조직하였다.

쟈간 정부는 민족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 등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독자적 외교 정책, 각국 인민들 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주장하고 나라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였다.

신 헌법 (1961년 7월 18일 발표)은 2년 이내에 영령 기아나의 완전 독립을 규정하였고 영국은 1962년 1월에 영령 기아나의 독립 날자를 제정하기 위한 회담을 이 해 5월에 런던에서 열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2년 2월에 쟈간 정부의 새 예산안을 반대하여 반동적인 《련합 세력》 당은 미제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밑에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구실 밑에 기아나에 군대를 파견하여 반동들을 비호하는 한편 폭동을 구실로 영령 기아나의 독립을 지연시켰다.

1963년에 영,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이 쟈간 정부를 전복하려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4월 22일 반동적인 인민 민족 대회당의 영향 하에 있는 로동 총동맹은 로동 관계법을 반대하여 《총 파업》을 일으켰다.

미제는 《파업자》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주는 한편 기아나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감행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간책으로 7월 2일 기아나 흑인과 기아나 인도인 간의 종족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쟈간 정부는 5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의 지지 밑에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하였다.

쟈간 정부와 인민의 단호한 투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던 반동들의 시도는 또다시 수치스러운 실패로 돌아 갔다.

1964년에 쟈간 정부를 전복하려는 영 식민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공세가 더욱 악랄하여졌다.

영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으로 2월에 일어난 흑인과 인도인 간의 종족 충돌로 국내 정세는 긴장되였다.

영국 총독은 바로 이러한 《소동을 진압》한다는 구실 밑에 5월 22일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고 5월 26일에는 520명의 영국군을 기아나에 끌어 들였으며 (기아나 주둔 영군 총수는 1,500명) 영국군 장교가 통제하는 《특수 부대》를 조직하였다. 6월 13일 영국 총독은 국내의 《무질서와 혼란을 중지》시킨다는 구실 밑에 나라의 전체 정권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성명하고 인민 진보당 위원장이며 부수상인 브린들리 벤을 비롯하여 저명한 인민 진보당원과 로조 활동가들 수십명을 체포하였다. 6월 27일 총독은 출판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다.

6월 14일 수상 쟈간은 성명을 발표하고 진보적 인사들을 비법적으로 체포 구금한 것을 규탄하였으며 6월 하순 체포된 영령 기아나 부수상 브린들리 벤은 34명의 기타 동료들과 함께 비법적인 검거와 감옥 내의 불리한 조건에 항의하여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9월 12일 인민 진보당과 진보 청년 동맹 성원들은 영국 총독 리챠드 라이트의 집 앞에서 완전 독립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모 하에 진보적인 쟈간 정부를 내 쫓고 반동 정권을 수립할 목적 밑에 9월 25일 립법 회의를 해산시키고 12월 7일 비법적으로 립법 회의 선거를 감행하였다.

9월 27일 쟈간 수상은 성명을 발표하여 현 정부가 사직하기 전에는 기아나에 독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에 약속한 영국 정부와 립법 회의를 해산시킨 영국 총독을 규탄하였다.

선거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의하여 협잡과 사기의 방법으로 진행되였고 반동들에 대한 영, 미 식민주의자들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민 진보당은 45.8% (24석)의 지지를 얻어 인민들의 절대한 신임을 받았으며 반동적인 인민 민족 대회당은 40.5% (21석), 《련합 세력》 당은 12.4% (8석)를 받은 데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총독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당은 자립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선거 제도를 구실로 강제로 쟈간 수상을 내 쫓고 12월 14일 인민 진보당 보다도 적은 표수를 받은 인민 민족 대회당의 부른합 정부를 비법적으로 조작하였다 (《련합 세력》 당과 련합하여 구성).

12월 10일 체디 쟈간 수상은 기자 회견에서 금번 선거를 협잡 선거로서 규탄하고 야당들에 재정적 지원을 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난하였다.

12월 21일 기아나의 흑인들과 인디안 출신 청년들이 영국 총독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재 립법 회의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총독】 리챠드 에드몬드 라이트

【립법 회의】 1964년 12월 7일에 선거되였다. 의석은 53 석, 그중 인민 진보당 24석(투표 수의 45.8% 차지), 인민 민족 대회당 21석, 《련합 세력》 당 8석.

【정부】 수상 린든 부른함 (1964년 12월 14일 취임, 인민 민족 대회당)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진보당** 1950년에 성립, 민족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체디 쟈간, 위원장 브린들리벤 **인민 민족 대회당** 1955년에 인민 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우익 분자들의 조직이다. 지도자 린든 부른함 **《련합 세력》 당** 국내 반동 계층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피폐르 아기야르 **로동 총련맹** 인민 민족 대회당의 영향 하에 있는 반동적인 로조 단체이다. **진보 청년 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은 농민이며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쌀, 야자, 커피, 코코아 등이고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1962년에 241만톤 생산), 망간, 금, 금강석 등이다.

사탕 생산과 보키사이트, 망간의 채굴은 거의 전부가 영국, 카나다, 미국의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사탕과 보키사이트는 이 나라 수출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75%를 차지한다.

영국 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문맹자는 주민의 80%나 된다.

화란령 기아나

(수리남)

【면적】 14만 2,822 km²

【인구】 30만 2,000 명 (1959년 추정)

【행정 중심지】 파라마리보 (주민 10만 명)

1667년에 화란 식민지로 되였다. 제 2 차 대전 후 미제는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이 나라에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1962년 4월 미국은 화란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제 마음대로 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령토의 90%는 무인 지대이며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산물은 보키사이트 (1962년에 329만톤 생산), 금, 사탕, 커피, 바나나, 목재 등이다.

미국은 자국의 보키사이트 소비량의 65%를 여기에서 략탈해 가고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

【면적】 약 9만 km²

【인구】 3만 3,698 명 (1961년)

【행정 중심지】 카얀느 (주민 1만 3,000명)

1815년의 《빠리 조약》으로 프랑스 식민지로 되였다.

농업이 위주이고 주산물은 쌀, 옥수수,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다. 보키사이트, 철, 유색 금속 및 희유 금속 등 광물 자원이 매장되여 있다.

브 라 질

(브라질 합중국)
United States of Brazil

【면적】 851만 6,037 km²

【인구】 8,500만 명 (1963년) 주민은 주로 백인, 인디안, 혼혈인, 흑인 등이다. 국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수도】 브라질리아 (주민 약 15만 명)

정 치 16 세기 초에 뽀르뚜갈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2년에 독립하여 왕국을 선포하였다. 1889년 11월 농장주들이 왕국을 전복하고 《련방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891년에 국호를 《브라질 합중국》으로 개칭하였다. 1934년에 정권을 장악한 바르가스는 20여 년간 반인민적 통치를 계속하였다.

1955년 11월 3일 선거에서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련합 뿔럭이 추천한 쿠비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쿠비체크 정부는 국내에서 강력한 반미 운동의 압력 밑에 1956년 8월 미국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고 우라늄광 공동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협정을 페기하였다.

1957년 1월 쿠비체크 정부는 브라질의 페르남도드 노르냐섬에 미국 유도탄 시험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 기지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1월에 집권한 콰드로스는 나라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게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웽그리아, 로므니아, 쏘련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꾸바를 옹호하였다. 1961년 8월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였으며 1962년 8월 1일에는 브라질 조선 친선 문화 협회가 창설되였다.

콰드로스의 이러한 립장과 브라질 인민의 반미 투쟁 기세에 질겁한 미제는 브라질의 친미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1961년 8월 25일 콰드로스를 사임케 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한 부대통령 굴라르트의 대통령 취임을 로골적으로 반대하면서 친미 반동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군사 정변》 음모를 획책하였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 밑에 굴라르트가 1961년 9월 7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굴라르트는 인민들의 압력으로 대내 정책에서 일련의 진보적 개혁들을 실시하며 대외 정책에서 독자적인 로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굴라르트는 대내 정책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1963년 1월 6일 국민 투표로서 《의회 책임제》를 《대통령 책임제》로 다시 회복하였다. 굴라르트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조치로서 외국 자본의 리윤 반출 제한법을 공포하였으며 1963년에 미국인 소유의 대기업소 11개를 국유화하였다.

【대통령】 카스텔로 브란코(1964년 4월 15일 취임)

【국회】 련방 의회는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66명, 임기는 8년이고 4년만에 의원의 3분의 1, 다음 4년만에 3분의 2를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409명,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브라질 공산당** 1922년 3월 25일 창건되였다. 1960년에 소집된 브라질 공산당 제 5 차 대회는 프레스테스를 비롯한 수정주의적인 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새로운 브라질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62년 2월에 산 파울로에서 소집된 전국 비상 대회는 현 정세와 당의 금후 투쟁 방침을 토의하였다. 당은 현 브라질의 정세 하에서 비 평화적 혁명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수 호아오 아마조나스, 당 기관지 《클라쎄 오페라리아》 (로동계급), 프레스테스를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브라질의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로동당** 상공업자들을 비롯한 민족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전국 민주 련맹** 대 독점 자본가와 대 농장주 및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사회 민주당** 산업 자본가와 신흥 상업 자본가의 리익을 대변한다.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로동 총련맹, 브라질-조선 문화 협회** 1962년 8월 1일에 성립, 위원장 린끄

【주요 사건】 1964년 3월에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굴라르트 대통령은 선거권을 확대하며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합법화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였다. 뒤'이어 3월 20일에는 석유 수입업과 일부 정유 공장을 국유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대외 정책에서도 굴라르트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타국 내정 불간섭,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등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굴라르트의 민족적이고 일부 자주적인 경향은 미제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극도로 불안해 진 미제는 1964년 3월 31일 브라질의 반동적 우익 세력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켰으며 4월 2일에는 친미 주구인 국회 하원 의장 마질리를 림시 대통령으로하는 정부를 조작하였다. 4월 15일에는 전 륙군 참모총장인 카스텔로 브란코를 대통령으로 하는 군사 정권이 수립되였다.

굴라르트는 우루과이 수도 몬떼비데오에 피신하였다. 군사 정권은 《파괴 행동 방지》라는 간판 하에 약 40 명의 좌익 국회 의원들, 60여 명의 장령들, 로조 지도자 및 기타 진보적 인사 4천여 명을 검거 투옥하는 등 진보적 력량을 혹심하게 탄압하였다.

군사 정권은 지어 4월 3일 《파괴 활동》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 밑에 과나바라주에서 브라질 주재 신화사 기자 2명과 중국 통상 사절단 7명을 비법적으로 체포하였고 12월 22일에는 세계 사회계의 규탄에도 불구하

고 무고한 중국 일'군들에게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한편 군사 정권은 자기들의 파쑈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7월 17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헌법 수정안을 조작하였으며 8월 하순에는 일용품에 대한 세금을 30% 올릴 것을 예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12월 초순에는 대 토지 소유제를 고착시키기 위한 《토지 규정법》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인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며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4월 브라질 전국에서 군사 정변을 반대하며 굴라르트를 지지하는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단행되였다. 1월 4일 브라질 해운 회사 약 3만 5천 명의 로동자들의 파업, 1월 14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 있는 2만 6천 명의 전력 및 가스 공급소들과 전화 회사 로동자들의 파업, 2월 말 페르남부쿠주에서 15만 명의 사탕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3월 산 파울로시 5만여 명의 강철 로동자들의 파업 등이 전개되였다. 한편 농민들도 토지 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2월 중순 고야스주의 3만 명의 농민들은 29개 농업 로동자 련맹 대표들의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대 지주들의 토지를 점유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인구의 63.8%가 농업을 하고 있다. 국토의 58%는 산림이다. 주민의 2%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주산물은 커피, 코코아, 옥수수, 담배, 목화 등이다. 커피는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고는 350만 톤 이상에 달한다. 1963년 농업 생산량은 1962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2년에 목화는 54만 6,000 톤, 완두는 158만 8천 톤 (세계 3 위) 생산되였으며 소는 7,810만 두 (세계 3위), 양은 1,950만 두, 돼지는 5,200만 두 있었다.

석탄, 망간, 우라늄, 철, 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철광석의 매장량은 350억 톤이나 되며 리오 데 자네이로에는 국내 수요의 59%를 생산하는 국영 철강 공장이 있다. 방직 공업은 공업의 중요 부문으로서 공업 로동자의 25%, 공업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63년에 강철은 300만 톤, 석유는 460만 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1963년 수출 117만 8천 톤), 목화, 사탕, 목재, 철광, 석유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품, 뜨락또르, 연료, 윤활유 기타 화학 제품 등이다. 무역 대상국은 미국 (1962년에 수출 총액의 39.9%, 수입 총액의 35.9% 차지), 서독이다. 1963년에 무역 적자는 5, 600만 딸라였다. 경제 명맥은 외래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 투자 총액은 30억 딸라, 그 중 미국은 13억 딸라이다. 외국 자본은 자동차 공업의 60%, 기계 생산의 38%, 화학 공업의 37%, 자동차 부속품 생산의 57%, 제약 공업의 69%를 장악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문맹자이고 전체 학령 아동의 58%가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있다.

꼴롬비아

(꼴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Colombia

【면적】 113만 9,200 km²

【인구】 1,509만 8,000 명 (1963년). 주민은 에스빠냐—인디안 40%, 백인 30%, 인디안 7%, 흑인 5%, 흑백 혼혈인 18% 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보고따 (주민 132만 923 명, 1962년)

정 치 1499년 콜럼부스에게 발견된 후 16세기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10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1819년 베네수엘라, 에꽈도르와 대 꼴롬비아 련방을 형성하였다. 1829년—1831년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가 떨어져나가 독립하였고 1903년에는 미제가 조작한 《빠나마 혁명》으로 빠나마가 독립하였다. 1886년 국명을 꼴롬비아 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40년 7월 소위 《서반구 공동 방위》 조약 체결에 조인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종속되였다. 1948년 이래 보수당 정부는 친미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인민 학살에 날뛰였다. 1948년에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유격대가 조직되였으며 1949, 1950, 1951년에 반 인민적인 정부 시책과 반동 지배층을 반대하는 인민 봉기, 농민들의 토지 획득을 위한 투쟁 등 대중적 투쟁이 앙양되였다. 1950년에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2년에 미국과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건국 이래 정권 쟁탈전을 벌려 온 보수당과 자유당은 1957년 12월 헌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12년간 (1958년에 16년으로 수정) 량당이 4년 간씩 륜번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동시에 의회 의석과 각료직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962년 11월 의회는 인민 혁명 운동을 탄압할 데 대한 《특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 레온 발렌시아 길레르모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8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 의원은 148 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기관지 《보스 프로레타리아》 **자유당**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보수당** 지주, 교회, 대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미국 독점 자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자유 혁명 운동당**, **공산 청년 동맹** 제 1 비서

마누엘 세파다바르가스 로동 련맹, 전국 농업 로동자 련맹, 통일 로조 위원회, 근로자 로조 련맹 1964년 5월에 조직 근로자 독립 련맹

【주요 사건】 1964년에 길레르모 친미 정권은 미국 장교의 직접적인 지휘 밑에 유격대의 활동을 진압하기 위한 《로벌 작전》을 끊임 없이 벌렸다. 특히 정부의 탄압은 마르케탈리아와 남부 지역에서 혹심하였다. 친미 독재 정권은 5월 18일 불과 6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르케탈리아 지역의 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미국 장교의 지휘 하에 1만 6천 명의 정부군과 다포식 박격포, 로케트, 각종 비행기 등 현대적 무기들을 투입하였다. 5월 18일—6월 5일 간에만도 공군은 300여 회 이상이나 공습하여 무고한 농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였다. 9월에는 미국 《군사 원조 처장》 로버트 부드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사절단이 마르케탈리아를 시찰하고 꼴롬비아 군사 당국과 《로벌 작전》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반동 정부는 남부 지역에서도 《로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반동 정부의 대대적인 《로벌 작전》에도 불구하고 1964년에 꼴롬비아 인민들의 무장 유격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꼴롬비아에는 이미 4 개의 주요 유격 전선 (마르케탈리아, 엘 파토, 코쿠일라, 코우아이마)이 창설되여 있으며 거의 모든 도시에 유격대 후원 위원회가 조직되여 있다. 꼴롬비아 인민의 무장 투쟁은 반제 반봉건적인 강령과 구호 밑에 전개되고 있다. 마르케탈리아 유격대 본부는 7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현 친미 반동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마르케탈리아 지구의 유격대들은 대대적인 《로벌 작전》을 분쇄하면서 정부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마르케탈리아 농민들은 6월 14일—7월 20일 간에 정부군과의 27차의 전투에서 210여 명의 정부군을, 8월에는 28차의 충돌에서 220여 명의 정부군을 살상하였다. 마르케탈리아 유격대의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군사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였다. 도시 주민들은 자금과 의약품을 수집하여 보냈으며 엘 파토, 과야베로, 코이야마의 농민들은 자위대를 조직하였다. 유격 투쟁은 후일라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였는바 이 주의 60%의 지역에서 유격대들이 활동하였다.

중부 코르질에르 지역 유격대들은 6—7월에만도 60명의 정부군을 살상하고 150 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부 톨리마주 지대에서는 《9월 26일 운동》 이라는 새로운 농민 무장 조직이 출현하였다.

또한 1964년에 광범한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전개한 반미 반정부 시위, 파업 등에는 11만 8,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호 총 수의 3%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의 61%가 토지의 3%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주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커피 (세계 제 2 위, 년 생산량 40만 톤 이상)는 수출의 77%, 국민 소득의 19%를 차지하였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1964년 생산량 890만 톤), 석탄, 금, 백금 등이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며 약 27만명의 로동자들이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 명맥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독점체들과 국내 대 자본가들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회사들의 직접 투자액은 4억 6,500만 딸라(그 중 53%를 석유 공업에 투자)이며 그들은 원유 채취의 85%, 공업 총 생산액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외국 석유 회사들은(주로 미국) 꼴롬비아에서 매년 1억 2,500만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1964년에 꼴롬비아 정부는 인민 탄압을 위하여 총 4억 5천만 딸라의 예산 중 1억 5천만 딸라의 군사비를 지출 (그 후 950만 딸라의 군사비를 륙군성에 더 추가하였음)하였다. 외국의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는 날로 심화되여 가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이 뉴욕 시장에서 커피 값을 끊임 없이 인하한 결과 꼴롬비아는 1954—1961년의 7년 간에 만도 12억 200 만 딸라의 손해를 보았다. 1964년 무역 적자는 7억 5천만 딸라, 예산 적자는 9천만 딸라였다.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1964년에 전년에 비해 35% 이상 올랐다. 주택 부족 수는 28만 세대이며 아동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서 해마다 1,000명의 아동 중에서 150 명 이상이 죽는다. 주민의 5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에꽈도르

(에꽈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cuador

【면적】 27만 700 km²

【인구】 472만 6,000 명(1963년)

주민은 백인 15%, 혼혈종 25%, 인디안 60% (원주민은 인디안의 마이아족이다), 에스빠냐어를 사용한다.

【수도】 끼또 (주민 29만 9,900 명)

정 치 1532년부터 3 세기 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30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 선포 후 1949년까지 헌법을 10번째 개정하고 44 회의 대통령 교체가 있었다.

미제는 벨라스코 친미 독재 정권에 강요하여 1952년에 《군사 협정》과 《농업 협정》을 체결하고 미 군사 《고문》들과 이른바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켰다. 1961년 11월 7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정부 투쟁으로 벨라스코 정권이 타도되고 아로세메나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2년 3월 미제의 사촉을 받은 군부의 압력으로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4월 13일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와의 외교 관계도 단절하였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새 주구 교체를 획책하였다. 1963년 7월 11일 미제의 사촉하에 군부 내의 친미 반동 분자들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아로세메나 정권을 전복하고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작하였다.

【군사 혁명 위원회】 1963년 7월 11일 군사 정변에서 라몬카스트로 히혼을 비롯한 4명의 친미 반동 장교들로 구성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1년에 조직된 사회당, 193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페드로 사아드 **보수당** 대 지주와 천주교도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자유당, 사회당, 로동 총련맹, 공산주의 청년 동맹, 민족 해방 전선** 1963년에 각 정당들로 결성

【주요 사건】 1964년에 군사 정권은 독재 통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6월에 군사 정권은 앞으로 4년간 군사 독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하였다.

한편 군사 정권은 8월 중순에 진행된 제 2 차 전국 주 의회 의장 회의에서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피친차주, 로쟈주, 룽구라후아주, 암바토시의 의회 의원들을 해임시킨 것을 비롯하여 많은 주 및 시 의회들을 해산시켰다. 9월에는 야당 지도자들의 검거를 명령하였으며, 경제적 리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방 자치 조직들을 해체하였다.

군사 정권의 탄압과 독재에 항거하여 에꽈도르 인민들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1월 29일 수도 끼또와 파야킬, 쿠엔카 등 주요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기타 계층 인민들이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반미 반독재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미제는 물러가라!》 《독재 정권을 타도하라!》,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라고 웨치면서 돌맹이, 곤봉, 벽돌 그리고 자체로 만든 폭탄을 가지고 경찰의 류혈적 탄압에 항거하였다. 31일에는 동맹 휴학을 선포하였다. 반미 반독재 투쟁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특히 9월 28일 파야킬에서 일어난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는 친미 군사 독재자들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 시위는 피검자들의 부인들을 선두로 한 수백 명의 녀성들이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 《군사 정권을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센떼나리오 광장으로 행진한 것으로 시작되였다. 당국의 무장 폭행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자들은 최고 재판소 건물 일부와 공병 및 포병 군사 학교, 그리고 파야킬시 행정판 별장 등을 파괴하였다.

경제, 사회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총 로동 인구 중 31%가 고용 농업 로동자)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전 국토의 75%가 산림 지대이며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약 4.5%에 불과하다. 농호수의 1%에 불과한 지주들이 토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나나는 주요 농산물 중의 하나로서 수출에서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의 수출에서 56%, 국민 소득의 25%를 차지한다.

그외에 사탕, 쌀, 코코아, 커피(1962—1963년에 4만 6,000톤 생산)등이 있으며 주요 자원은 석유 (1963년에 31만 톤 생산), 금, 은, 동, 철, 석탄, 류황 등이다. 농업 기술은 극히 락후한바 1963년에 옥수수 파종 면적 22만 6천 헥타에서 15만 톤 수확하였다. 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 농산물인데 그외에 파나마 모자를 대량(매년 약 100만 개) 수출한다.

나라의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과실 회사》는 해마다 평균 8억 수크레 (1수크레=0.05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한 외국 독점체들의 혹심한 략탈의 결과로 이 나라의 로동 능력을 가진 거의 절반이 실업자로 되고 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된 이후 한 해 동안에만도 생계비는 70% 올랐으며 주민의 50%가 문맹자이다.

뻬 루

(뻬루 공화국)
Republic of Peru

【면적】 124만 9,000 km²

【인구】 1,151만 명 (1962 년)

주민의 절대 다수는 인디안—구라파 혼혈인과 인디안이며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리마 (주민 131만 5,500 명)

정 치 고대 인카족의 본거지인 뻬루는 1531년에 에스빠냐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에 완전 독립을 쟁취하였다. 1948년 10월에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오드리아는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단체들을 비법화 하였으며 1952년에는 미국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6년 6월의 총선거에서 1939—1945년 간의 대통령이였던 프라도가 인민당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교환 조건으로 인민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이 정부는 인민당의 합법화, 정치범에 대한 대사, 토지 개혁 실시 등 일련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 11월 4일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되였다. 1962년 6월 17일 미제의 사촉 하에 군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엄중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정변을 일으켜 프라도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하

였다.

군사 정권은 1963년 1월 15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륙군상 린들레이는 3월 3일 《군사 정변》을 일으켜 페레스 고도이를 군사 정권의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 앉았다. 같은 해 6월 9일 총선거에서 인민 행동당의 페르난도 벨라운데 테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통령】 페르난도 벨라운데 테리 (1963년 7월 28일 취임)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45명, 하원은 140 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6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되였으며 1961년 1월에 비법화되였다. 1964년 1월 18—19일에 진행된 페루 공산당 제 4 차 전국 대표자 회의 (17 개 지구 위원회 중 13 개 지구 대표 참가)에서는 지도부 내의 일부 수정주의 분자들을 축출하고 새 지도부 (17 명으로 된 정치국)를 선거하였으며 제 1 비서로 사투르니노 파레데스를 선출하였다. **프라티스트 민족 운동당, 인민당, 민족 해방 전선, 인민 행동당, 로동 총련맹**

【주요 사건】 1964년에 들어서면서 민족적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은 장기성을 띠고 발전하였다. 1961년에 270건, 1962년에 350건, 1964년에는 1천회 이상 (상반년도 기간)의 각종 형태의 파업들이 단행되였다.

1964년에 로동자들은 처지 개선을 위한 당면한 임금 인상, 물가 등귀 반대, 해고된 동료들의 복직 요구 등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의 련대성 특히는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적 투쟁을 강화하였다. 2월 4일 쿠스코주에서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점거한 8천여 명의 농민들은 자기들을 강제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키려고 한 무장 경찰들과 맞서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20 명의 농민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후 당국자들은 이 현의 로조 지도자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농민들에 대한 횡포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농민 련맹은 체포된 로조 지도자들을 24시간 내에 석방하며, 이 주의 경찰 서장의 해임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리마 시내 4만 명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대회를 열고 농민들을 살해한 정부와 당국자들에 항의를 제출하였고 정치범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한편 2월 15일 3만 5천 명의 동부 지역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우편, 전신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여 무기한의 동정 파업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로동 총련맹 산하 16만 로동자들이 투쟁에 련대성을 보냈다. 파업은 련' 이어 일어났다. 5월 초에 2천 명의 무장 경찰들의 봉쇄를 뚫고 일어난 1,500명의 칼라오 야금 로동자들의 파업, 8월 26일 3만 명의 수도 건설자들의 무기한 파업, 9월 13일 《올림포》 방직 녀성 로동자들의 기업소 점거 투쟁, 11월 24일 4만 명 어부들의 48시간 파업 등은 전국 각지를 휩쓸었다.

농민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구호를 들고 땅을 점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2월 초순에 있은 동부 지역 농민 협회 제 1 차 대회는 하원에서 채택된 《토지 개혁》 법령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진정한 토지 개혁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비코스 지역 농민들은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토지 개혁을 저애하며 친미 세력을 부식하고 있는 《평화군》 성원들을 모조리 추방하였다. 5월 5일 세로로 데 파스코 지역 농민들은 무장한 지주들과의 투쟁 끝에 땅을 점거하였으며, 6월 초순 쿠스코시 주변 1천 명의 농민들이 지주들의 토지를 점거하는 등 진정한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치렬하였다.

한편 반인민적 교육 제도를 배격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과 진보적 교원들의 투쟁도 강력히 전개되였다. 5월 16일 대학 자금을 비법적으로 횡령한 교원들의 축출을 요구하여 종합 대학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 휴학을 선포하였다. 8월 20일에는 국내 각지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비 지출의 증대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고 10월 21일에는 1만 명의 초등, 중등 및 기술 학교 교원들이 교육비 지출의 증대,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국회가 무시한 데 항의하여 파업을 선포하였다. 특히 11월 18일 아카시에서 라틴 아메리카 11개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종합대학 학생 및 교원들의 제 1 차 토론회와 11월 21일의 제 10 차 전국 학생 대회에서는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투자를 통제하며 석유, 석탄, 철광, 야금 공업의 국유화 그리고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한 다각적 농업 생산 조직과 교육의 민주화 실시 등 문제들을 광범히 토의하고 정부의 반동적 친미 정책을 규탄하였다.

농민들의 유격 투쟁도 강화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농업 및 광업으로서 주민의 약 7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 총생산액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69만 5,723 헥타인데 농호의 2%에 불과한 지주들이 총 경지 면적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 토지 없는 농민은 86%나 된다.

농업 생산은 낮다. 1963년에 27만 2천 헥타의 옥수수 밭에서 21만 8천 톤의 수확 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6년째 계속된 한재로 해서 푸노주, 쿠스코

주, 아프리마크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64년에 푸노주에서만도 작물의 60%가 피해를 받았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사탕수수, 양모, 피혁, 커피(1962—1963년에 4만 7,000톤 생산), 쌀 등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주요 광물은 연, 아연, 동, 은(생산량은 세계 제 4위), 석유, 바나듐(생산에서 세계 제 1위) 등이다. 1963년에 석유는 282만톤 생산되였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는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의 《인터나슈널 석유 회사》는 90%의 석유 산지를, 《미콘마이닝 회사》는 광석 채굴을 장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독점체들은 전동기 공장, 조립 공장, 인조 섬유 공장, 화학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미제는 1964년에 광업 부문에만도 3,800만 딸라를 투자하였다. 이 외에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에 따라 1960년부터 1963년 말까지 3억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매년 석유 회사를 통해서만도 10억 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석유, 목화, 사탕, 양모 등이다. 1964년에 무역 적자는 3,500만 딸라였다. 외국 자본의 부단한 침투와 략탈로 1964년에 인플레 위협을 받았다. 미국 화폐 1 딸라 데 27 솔로 뻬루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수도 리마에서는 1964년에 생활비가 11% 등귀하였다. 근로자들의 수입은 년간 115 딸라, 그중 농민들은 38 딸라(도시 로동자들의 평균 수입의 19%에 불과)였다. 반면에 500 명의 상층 계급들의 월 수입은 7,500 딸라였다.

영양 부족, 폐결핵, 기타 질병 등으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특히 아동 사망률은 51%나 되며 청년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50%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이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Bolivia

【면적】 110만 km²

【인구】 359 만 6,000 명(1963년 6월 현재)

【수도】 라파스(정부 소재지, 주민 35 만 5,600명), 그러나 법적 수도는 수크레

정 치

볼리비아는 16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에스빠냐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 독립하였다.

정치적 불안정이 심한바 독립 이래 180 회의 정변과 14 차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1952년 4월의 정변 결과 수립된 민족 혁명 운동당의 에스텐소로 정부는 미영 자본과 국내 매판 자본가의 3대 주석 광산을 국유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1956년 수아소 정부를 거쳐 1960년 6월 에스텐소로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에스텐소로 대통령은 1962년에 미국이 주석 5만 톤을 투매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에 항의하고 9월 상순에 예견하였던 자기의 미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1962년 1월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볼리비아는 꾸바에 대하여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반대하였으며 10월에 미제가 꾸바를 반대하는 군사 봉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에스텐소로 대통령은 자결과 불간섭 원칙을 존중할 것을 표시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27 명, 임기는 6년이고 하원 의원은 111명, 임기는 4년이다.

【혁명 위원회】 군사 정변 결과 1964년 11월 4일에 반동 군벌들로 조직 되였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총비서 마리오 몬체(1964년 5월 제 2차 당 대회에서 선거됨) **민족 혁명 운동당, 사회주의 팔랑헤당, 자유당, 사회 동맹당, 공산주의 청년 련맹, 로동 총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볼리비아 종합 대학 련맹,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1962년 5월 9일에 성립, 위원장 라몬 오리엘 오르뚜노

【주요 사건】 1964년에 볼리비아 인민들은 미제와 친미 반동들을 반대하며 꾸바 혁명을 옹호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9월 9일 국내 각 도시의 공립 학교 교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선포한 데 뒤'이어 26일에는 볼리비아 기자들이 당국의 출판물 검열제를 반대하여 수도에서 파업을 단행하였다.

10월 27일 수도 학생들은 자국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여 미국 공보원을 습격하고 미국 기'발을 불태워 버렸다.

인민들의 압력으로 볼리비아 정부는 2월에 주석에 대한 미국의 투매 정책에 항의하였다. 6월 22일에는 꾸바에 대한 미제와 베네수엘라의 무근거한 《제소》를 토의할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8월 14일 볼리비아 국회 상원은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할 데 관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의 《권고》에 의한 《제의》를 다수표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강압으로 정부는 8월 22일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정부는 자국의 송유관을 미국 회사에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 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의 사촉 하에 이전 공군 참모총장이였던 부대통령 바리엔토스를 두목으로 하는 친미 반동 군벌들은 11월 3일 정변을 일으켜 에스텐소로 정부를 전복하고 4일 《혁명 위원회》

를 조작하였다.

1964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대표로 대통령 궁전 및 농업 담당 보좌원이며 농업성 총고문이며 볼리비아—조선 친선 위원회 의원인 마리오 펠레티가, 10월에는 볼리비아 경제성 법률 고문이며 청년 운동 지도자인 알베르또 무노스를 단장으로 하는 볼리비아 친선 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광업과 농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촌 인구의 8～10%에 불과한 지주들이 토지의 76～86%를 독점하고 있다. 농업은 이 나라 국민 총 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국내 식량 수요의 50～7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963년에 감자는 70만 톤, 옥수수는 26만 톤, 보리는 12만 800톤, 밀은 7만 8,400톤, 쌀은 4만 톤 생산되였다.

볼리비아는 주석 생산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 2 위로 1963년에 2만 3,000톤 생산하였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미제의 주석 투매 정책으로 말미암아 1964년에만도 1천 여만 딸라의 손실을 보았다. 텅그스텐, 안티모니 생산은 세계 굴지의 수준에 있다. 원유 생산량은 1963년에 41만 톤이였다.

대외 무역에서 수출액의 98%는 광물들인 데 그 중 약 70%가 주석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영국이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곤난하다. 1960년 12월에 생계비는 1953년에 비하여 26배로 올랐다. 주민의 66.8% (1961년)가 문맹자이다.

【출판】 우니다드 (공산당 기관지), 엘 푸에블로(공산당 주간 잡지), 에스파르타꼬, 스바다카스, 프레센시아

빠라과이

(빠라과이 공화국)

Republic of Paraguay

【면적】 40만 6,800km²

【인구】 190 만 3,000 명(1963년 6월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 이주민과 인디안 혼혈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아순시온 (주민 약 30만 명)

정 치 1535년부터 에스빠냐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에 독립하였다.

1954년 5월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고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1959년부터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1963년 2월 3 차로 피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 국무 의회(19 명으로 구성)가 있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47년 초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오스칼크레떼 **국가 공화당**(집권당)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서 친미 대 부르죠아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민족 해방 통일 전선** 1959년 4월 우루과이에 망명한 빠라과이인들이 조직하였으며 공산당, 2월당, 자유당 및 기타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자 파르리씨오 로페스 **빠라과이 련맹, 5월 14일 운동**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전체 경지의 76%는 외국 및 국내 지주—대 토지 소유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미국의 《라푸네》 석유 회사만도 600만 헥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70%의 농민들은 농경지의 1% 밖에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담배, 사탕수수, 옥수수, 쌀, 육류, 목재 등이다. 식량은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은 석유, 철, 망간,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가공 공장이 몇개 있을 뿐이다. 최근 년간에 약 2,000 개의 민족 공업 기업소들이 페쇄되였으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업소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인들의 수중에 들어 있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수출액의 40～50%), 목화, 피혁, 육류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아르헨띠나이다.

1952—1962년 기간에 미국 회사들이 이 나라에서 약 8,600만 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1964년 여름에 빠라과이 독재 정권은 1,100만 헥타의 지역에서의 석유 개발권을 미국의 《카르텔》 회사에 넘겨 주었다.

지난 15년 간에 약 5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났다. 농촌에는 사람이 살기 힘든 형편에 있는 집이 전체 농호의 97% 나 된다.

주민 1 만 명에 의사 1 명이 겨우 차례지고 있으며 아동 사망률은 63%이다. 문맹자는 주민의 약 60%이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Republica Oriental del Uruguay

【면적】 18만 6,900 km²

【인구】 319만 명(1962년 6월) 주민의 대다수는 백인종이고 기타 인디안—구라파 혼혈인, 인디안 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몬떼비데오 (주민 95 만 명)

정 치 1516년에 에스빠냐인 솔리스가 발견한 후 300여 년간 뽀르뚜갈 및 에스빠냐 식민지로 있었다. 1825년 8월

25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1830년에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865년부터 1958년까지 꼴로라도당이 집권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1952년에 우루과이는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최근 년간 미제의 가격 인하 정책과 잉여 농산물 투매 정책에 대응하여 대외 무역을 확대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1963년 3—4월에 무역 대표단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파견하여 무역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제의 압력을 박차고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와 외교 관계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1963년 5월 17일 몬떼비데오에서 우루과이와 우리 나라 간에 정부 무역 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31 명, 하원 의원은 99 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국가 회의】 최고 행정 권력 기관으로서 9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1951년에 수정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가 회의가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의원 중 6 명은 선거에서 다수 표를 획득한 당에서 선출되며 그 중 4 명이 득표 순위에 따라 1년씩 교대제로 국가 회의 의장으로 된다. 의장 나니엘 페르난데스 그레스포(1963년 3월 1일—1964년 2월 29일), 의장 대산 마르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에 창건되였다. 제 1 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메디 **블랑꼬당** 대목장주와 대지주, 천주교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당 내부는 두개의 분파로 분렬되어 있다. 당수 에드왈드 로드리에스 랄레라 **꼴로라도당** 기업상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이 당은 세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으며 1958년 이전에 93 년간을 집권당으로 있었다.

사회당, 공민 련맹, 우루과이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우루과이 좌익 해방 전선, 동방 혁명 운동, 공산 청년 동맹, 꾸바 옹호 우루과이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4년에 우루과이 근로자들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북부의 아르티가스주의 200여 명의 농민들이 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여 수도로 행진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수도 몬떼비데오에서 대학생들이 교육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5—27일에는 우루과이 근로자들의 전국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대회는 광범한 계층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국적인 로조 지도 기관을 창설할데 관한 결의와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근본적인 토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1964년에 미제의 간섭과 국내 반동들의 파괴 행위를 반대하며 꾸바 인민들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운동이 앙양되였다.

6월 15일 우루과이 대학생 련맹의 발기로 진행된 우루과이 대학생 특별 전국 대회는 성명에서 쿠데타로써 정부를 전복하려고 음모한 친미 반동 군부를 규탄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국가 정변 음모를 반대하여 전국에서 24시간 총파업이 있었다.

4월 15일 몬떼비데오에서 청년들이 꾸바를 고립시키려는 《미주 국가 기구》 회의 소집을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6월 30일에 진행된 꾸바 옹호 우루과이 전국 위원회 제 4 차 전국 대회는 피델·카스트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7월 7일 꾸바 옹호 전국 위원회는 미국 남부 지역 주둔군 사령관인 오미라가 인솔하는 미 군사 《사절단》이 7월 1일 몬떼비데오에 기어든 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8일 미제의 압력으로 정부는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9월 9일 수도 주민들은 꾸바 혁명을 지지하여 미국 대사관과 《미주 국가 기구》 지부 건물들에 돌을 던지고, 미국의 《제네랄 엘렉트릭》 회사의 유리창을 까부셨다.

1964년 11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국회 상원 의원이며 상원 재정 위원회 위원장인 루이스 뜨로꼴리 박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아마, 쌀, 옥수수, 보리 등이다.

전국의 56% 이상의 토지는 농호수의 4.6%에 지나지 않는 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여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의 60%가 목축업에 리용되고 있다. 1961년 현재 양은 2,150만 두, 말은 64만 두, 돼지는 27만 두, 소는 750만 두 있었다.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광물 자원과 화강암, 대리석 등 건축 자재가 풍부하다.

공업은 보잘 것 없다. 육류 가공 공업과 원유 재취 공업 등이 있는데 주로는 미, 영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에 1만 8,713 개의 공업 기업소가 있었는데 평균 종업원 수는 7 명 미만이였다.

주요 수출품은 랭동 육류 및 육류 통조림과 양모, 피혁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자동차, 연료, 전기 기구, 약품 등이다.

딸라와 페소의 교환률은 1 딸라: 16 페소 40 센트이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곤난하다. 1964년 상반년 동안에 생계비는 15% 올랐다. 완전 실업자 수는 12만 2천 명인데 이것은 로동

능력을 가진 주민의 12%이다.

문화 수준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우루과이에는 1 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2,000여 개의 각급 학교가 있으며 학령 아동의 붙과 32%가 취학하고 있다.

【신문】 엘 포풀라드 (공산당 기관지), 엘 데다테(블랑코당 기관지), 라 트리브나(무소속)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 공화국)
Republic of Argentina

【면적】 280만 8,000 km²

【인구】 2,141만 1,000 명(1964년 6월), 주민의 97%가 백인이고 인디안과 기타 인종이 3%이며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395만 명)

정 치 1516년 이래 300 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1826년에 련방 공화국을 형성 하였다.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는 데 그 후부터 그들이 조작하는 정변이 계속되였다.

1955년 9월의 정변으로 페론 정부가 전복되고 그후 로나르디, 페드로 아람부르 등의 정부가 수립되였다. 1958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프론디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미제와 친미 반동 분자들은 장성하는 진보적 력량을 탄압할 목적 밑에 반동적 군부를 사촉하여 1962년 3월에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프론디시를 정권에서 내쫓고 당시 상원 의장이였던 귀도가 집권하였다. 귀도 정부는 7월 10일 공산당을 포함한 30 개의 진보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해산시킬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9월 6일에는 1962년 3월에 선거된 국회를 해산하였다. 1963년 7월 7일 테로와 기만 속에서 진행된 선거에 의하여 급진 공민 동맹의 아르투로 일리아가 집권하게 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6 명, 임기는 6 년인데 3 년에 3분의 1씩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92 명이고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반수를 개선한다.

【대통령】 아르투로 일리아(1963년 10월 12일 취임)

【정당,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형성되였던 국제 사회주의당이 192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1962년 7월에 비법화되였다가 1964년 10월에 합법화되였다. 기관지 《누에스트라 빨라브라》 **급진 공민 동맹**(집권당) 대 금융 부르죠아지와 대 토지 소유자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비타협 급진 공민 동맹** 중소 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당, 인민 보수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총련맹, 공산주의 청년 동맹, 꾸바와의 련대성 아르헨띠나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4년에 아르헨띠나 로동자들은 생활상 권리를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5월 6일 아르헨띠나 전국의 중학교, 소학교 및 전문 학교 교원 15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전개한 48시간 파업, 5월 13일 미국의 《조세프 렌드》 회사의 광산 로동자들이 거의 한달 동안이나 전개한 파업, 5월 21일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로동자들이 200 개 소의 공업 기업소들을 점거, 5월 27일 20여 만 로동자들이 1,500 개의 공장과 작업 현장들을 점거, 6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 지역과 기타 17 개 도시의 30여 만 로동자들의 공장 점거, 10월 전국 각지 우편 일'군들의 파업 등 투쟁이 계속되였다. 9월 30일 아르헨띠나 종합 대학 학생들은 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요구하는 동맹 휴학을 선포하였다.

또한 아르헨띠나 인민들은 미제의 간섭과 반동 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아르헨띠나 사회계는 미국 대사 로버트 맥클린토크가 외국 석유 회사들과의 예속적인 계약들을 폐기하지 못 하도록 아르헨띠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 나라에 미국 자본을 끌어 들이려는 책동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대중의 압력으로 5월 8일 아르헨띠나 국회 상하원 회의는 미국 대사 맥클린토크의 행동을 배격하였으며 미 국무성은 하는 수 없이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다.

6월 5일 아르헨띠나 대통령은 미국과 기타 외국 독점체들이 채취하고 있던 석유 산지들을 국영 석유 회사에 이관할 데 대한 문건에 서명하였으며 22일에는 3개의 미국 석유 회사들을 아르헨띠나 국가 석유 자원 관리국이 접수하였다. 10월 30일 국회는 아르헨띠나 공산당과 기타 민주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한 법령들을 취소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 및 목축업이 주되는 경제 부문이다. 경지 면적은 3천만 헥터이다. 총 경지 면적의 60%는 1만 명의 대 토지 소유자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80%의 농민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목화, 담배, 락화생 등이다. 축산물로서 양모가 유명하다. 양모 수출은 세계 제 2 위이며 생산량의 약 60%는 미국에 수출된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 (1963년에 1,380만 톤 생산), 석탄, 천연 가스, 철 등이다. 공업은 남미주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기는 하나 국민 총생산에서 공업의 몫은 21%에 불과하다.

공업에서 발전한 부문은 육류, 제분, 석유 공업이고 기타 강철, 제당, 세멘트, 담배 공업도 있다.

미국 독점체들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 통화 기금》의 략탈로 말미암아 민족 경제는 파탄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여 있다.

국민 소득은 1961년의 760억 페소(1950년 가격)로부터 1963년

에는 670억 페소로 줄었다.

파산된 기업소들의 자본은 1961년에 27억 7,700만 페소였는데 1963년 11개월 간에는 119억 9천만 페소나 되였다.

미제가 국제 시장 가격을 인하한 결과 아르헨띠나는 1958—1961년 간에 21억 8천만 딸라의 손해를 보았다.

생계비 지수는 (1960년=100) 1963년 10월에 190으로 올라갔다. 실업자는 100만 명이나 되며 주택은 150만 세대나 부족하다.

칠 레

(칠레 공화국)
Republic of Chile

【면적】 74만 1,767 km²

【인구】 851만 5,000 명 (1964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은 인디안과 구라파 혼혈인이고 에스빠냐어를 사용한다.

【수도】 산띠아고(주민 188만 명)

정 치 1541년부터 에스빠냐 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38년에 공산당, 사회당 및 급진당으로 구성된 인민 전선 정부가 수립되여 약간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194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급진당 출신의 비델라 반동 정부는 1947년 4월 미제의 압력으로 정부에서 공산당원을 배제하였으며 1948년 9월에는 소위 《민주주의 보호법》을 공포하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 1952년 4월 미국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나라는 침략적 《미주 국가 기구》 및 《미주 공동 방위 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미제가 조작한 반공적인 1951년의 《워싱톤 선언》 및 《집단 방위 계획》 그리고 1954년 3월의 《반공산주의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에두아르도 프레이 (1964년 11월 3일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5명 (그 중 공산당 4석)이며 임기는 8년이다. 4년 마다 반수를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47명 (그 중 공산당 16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칠레 공산당** 1922년에 창건된 후 수차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사회당** 1933년에 형성되였으며 지식인과 자산 계층들로 구성되였다. **급진당, 기독교, 민주당, 자유당, 인민 행동 전선**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4개 정당으로 구성되여 있다. **공산 청년 동맹, 로동 총련맹, 칠레—조선 문화 협회** 위원장 카를로스 모칠레스 아바르주아, 총비서 훼르난드 무릴로 비아나

【주요 사건】 1964년 9월 4일 미제의 횡포한 간섭과 국내 반동들의 폭압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립후보자인 에두아르도 프레이가 미제와 보수당 및 자유당을 비롯한 국내 반동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8월 칠레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꾸바와의 외교 관계 및 령사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칠레 인민들은 미제와 친미 반동을 반대하고 꾸바를 지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대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 11월 중순 칠레 외상 가브리엘 발데스는 꾸바에 경제 및 외교적 제재를 가할 데 대한 《미주 국가 기구》 워싱톤 회의(7월)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하였다.

11월 하순 칠레의 로조 및 학생 단체들과 기타 단체 대표들이 베네수엘라 정치범들에 대한 대사 실시를 위한 투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위원장 라우타르 오헤다).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도 앙양되였다.

1964년 4월 28일—5월 12일 칠레—조선 친선 협회 서기장이며 기자인 페르난도 무릴르 비아다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 기자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업, 목축업 및 광업이다. 경지 면적은 300만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담배, 콩, 감자 등이다. 전체 농민의 0.6%에 불과한 대지주들이 경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에는 초석(년산 100만 톤), 동(매장량 8천만~1억톤), 철, 금, 은, 코발트, 연, 망간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1963년에 동은 60만 1,000톤, 천연 가스는 51억 6천만 립방 메터, 석유는 170만 톤, 전력은 56억 2,300만 키로 와트시 생산되였다. 특히 동 생산액은 공업 총생산액의 60% 이상, 외화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공업은 비교적 발전한 편이나 거의 미국의 독점 하에 있다. 미국 자본은 동 채굴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동 회사들은 칠레 동광을 채굴하기 시작한 이후 50년 간에 약 35억 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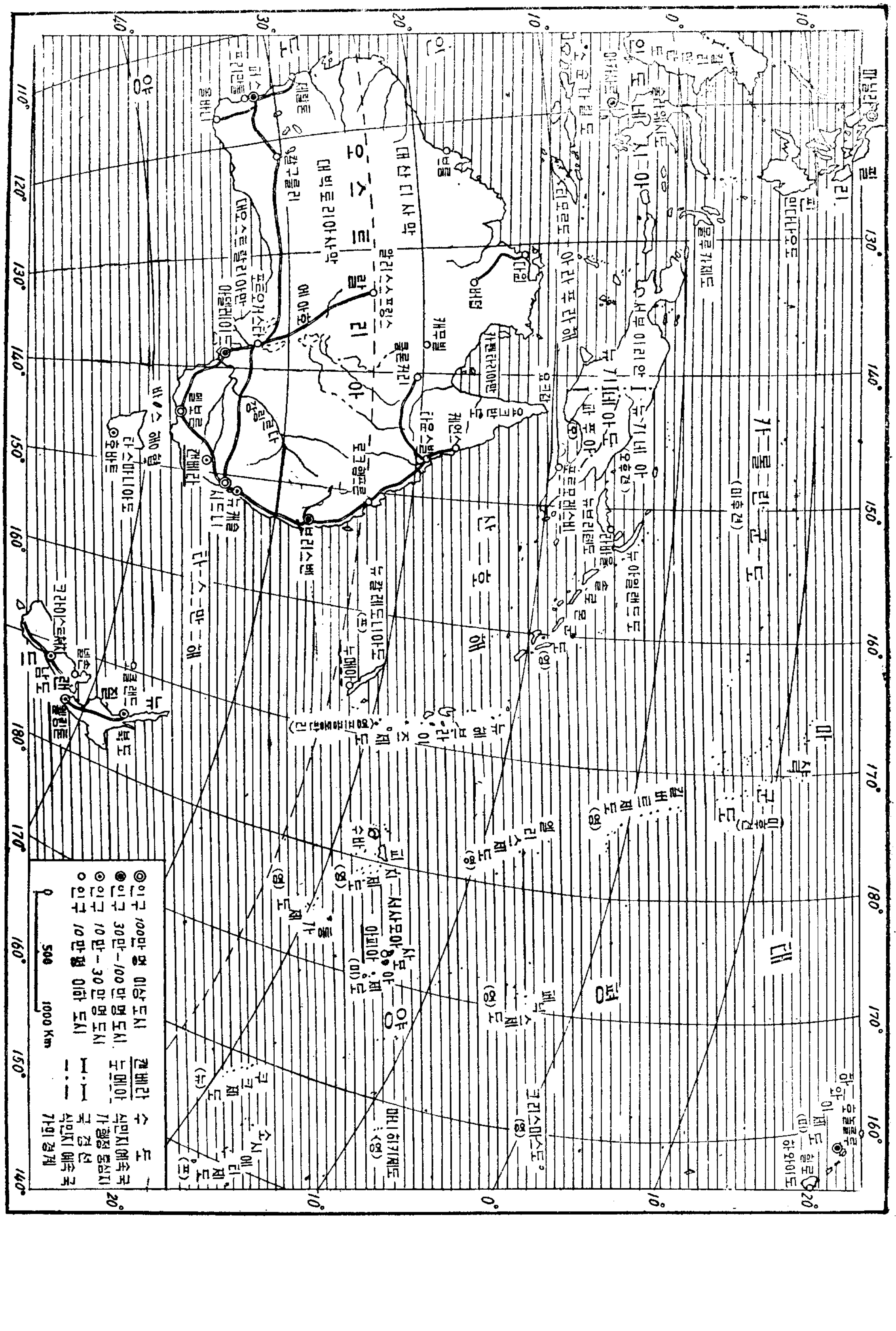
1963년 수출액에서 주요 수출품인 동은 63.4%, 철광석은 10.6%, 초석은 5.6%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석유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이다.

1963년에 생계비는 45% 올랐으며 칠레 로동자들의 임금은 미국 로동자들의 임금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1963년 11월 현재 264만 명의 로동 인구 중 실업자는 25만 명이였으며 주택 부족 수는 55만 세대나 된다.

1963년 3월에 시작된 새 학년도에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들은 50만 명이나 되였다.

【출판】 엘 시글로(공산당 기관지), 울티마 오라, 라 나시온, 클라린

대 양 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만명 도시
인구 10만~30만명 도시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
캔베라 수도
누메아 식민지예속국 가행정 중심지
국경선
식민지 예속국 가의 경계
500 1000 Km

대양주 및 량극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 련방)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70만 4,300 km²

【인구】 1,125만 1,000명 (1965년초)

주민의 약 90%는 영국계 주민이다. 기타 원주민인 아보리겐족이 살고 있다. 국어는 영어이다.

【수도】 캔베라(주민 6만 3,313명, 1962년 현재)

정 치

오스트랄리아는 영 련방내의 독립국으로서 영국 녀왕이 임명하는 총독에 의하여 통치된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쁠럭들인 《안쥬스》 동맹(1951년)과 세아토(1954년)의 성원국이며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또한 남부 웰남과 《말레이시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1964년 1월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아세아 인민들의 반 《말레이시아》 투쟁을 반대하여 《말레이시아》에 군사 《원조》를 줄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2월 9일 《군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5월 25일에는 군용 직승 비행기와 함께 공병 구분대, 고사포 중대 등을 파견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뉴기니아와 파푸아의 군사 시설을 확장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토착 주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6월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남부 웰남에 파견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수를 또다시 2 배로 증가할 것을 결정하고 7월에는 군사 전문가들과 군대를 증파하였다. 11월 10일 국회는 1965년부터 실시할 징집안을 발표하였다.

【총독】 라일(1961년 취임)

【의회】 량원제이며 상원 의원은 60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22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 하원은 1963년 11월에 선거되였다.

【내각】 수상은 총독이 임명한다. 현 내각은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 내각으로 1963년 12월 17일 성립되였다.

수상 로버트 지. 멘지스
외상 가필드 바위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에 창건되였다. 1964년 3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의 수정주의 로선을 반대하여 새로운 공산당을 창건하고 새 강령을 작성하였다. 위원장 이. 에프 힐 **자유당** 현 집권당이다. 1931년에 레이버당 우익과 국민당이 합하여 통일당을 결성하였다가 1944년에 현 명으로 개칭하였다. 금융 및 공업 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멘지스 지방당** 대 지주 및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중앙 집권제를 반대한다. 지도자 맥큐안 **레이버당** 1890년대에 성립된 개량주의적 정당이다. **유레카 청년 동맹** 1941년에 성립된 진보적인 청년 조직이다. **녀성 동맹, 평화 위원회**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목축업이다.

양 두수는 자본주의 세계의 약 38%, 양모 생산량은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양모는 오스트랄리아 국민 소득의 약 10%, 수출액의 45~60%를 차지한다.

1962—1963년도에 양은 1억 5,860 만두, 대각 가축은 1,850 만 두(그 중 젖소 510만 두), 돼지는 140만 두 있었다. 또한 양모는 75만 8,000 톤 생산되였다. 같은 년도에 주요 농작물인 밀은 835만 5,000톤, 보리는 667만 2,000톤, 사탕은 187만 9,000톤 생산되였다.

주요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철, 연, 아연, 금 등이 있다.

공업은 주로 미, 영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은 1962년 현재 공업 부문에만도 10억 9,100만 딸라를 투자(그 중 54%는 기계 제작 공업에 투자)하였으며 1964년에는 또다시 1억 4,000만 딸라를 투자하였다. 미국 자본은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외국 자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1963년에 64만 8,818 톤 수출), 밀, 육류, 사탕, 가죽, 연, 흑색 금속 등이다. 무역은 주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한다.

1962—1963년에 로동 인구 326만 6,000 명 중 등록된 실업자만도 8만 7,000 명이였다.

【출판 보도】 **통신**—오스트랄리아 련합 통신사 (에이 에이 통신)

신문— 《탱가드》 (공산당 기관지), 썬데이 모닝 헤랄드(독점 자본가들의 대변지)

뉴질랜드

Dominion of New Zealand

【면적】 26만 8,700 km²

【인구】 253만 8,000 명(1963년 말). 주민의 대다수는 영국계인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인은 약 18만 5,000여 명 살고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웰링톤(주민 25만 5,700명 1962년 4월)

정 치

영 련방 내의 자치국이다. 뉴질랜드는 침략적 군사 쁠럭인 《안쥬스》 동맹(1951년 가입)과 세아토 (1954년 가입)의 성원국이다. 뉴질랜드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남부 웰남과 《말레이시아》에 군사 인원을 파견하는 등 미, 영 제국주의자들

의 동남아 침략 정책에 추종하고 있다.

【총독】 파가손

【의회】 1원제이며 의원 수는 80명(그 중 마오리인이 4 명), 임기는 3년이다. 현 의회는 1963년 11월 30일에 선거되였다.

【내각】 1963년 12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케이트 홀리오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윌리암스, 총비서 브이. 지. 윌콕스 국민당 현 집권당이다. 자본가와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홀리오크 로동당 1916년에 성립, 로조 회원들과 소농, 자유업자, 지식 분자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우익 분자들이 령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 신용당, 로동 련맹, 진보 청년 련맹(로동 청년과 진보적인 청년 지식인들의 단체), 녀성 동맹, 평화 리사회

경제, 사회 경제에서 농목축업이 위주이다. 양모의 생산량은 세계에서 제 3위, 수출량은 제 2 위를 차지한다.

취업 인구의 약 14%가 농업에 종사하나 농업 생산은 총 생산액의 약 50%(1960—1961년도)를 차지한다. 뉴질랜드는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 관계가 특징인바 전체 농장 수의 약 1%에 불과한 대규모의 농장(2,000헥타 이상)들이 토지의 40%를 차지한다.

대각 가축은 672만 두(1964년 초), 양은 4,848만 5,000 두(1961년 6월 말), 돼지는 66만두 (1961년 6월 말)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금, 은 등이 있다. 가공 공업은 주로 경공업이며 그 중 축산물 가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그 밖에 제지 공업과 목재 가공업 등이 있다.

외국 독점체들이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다.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의 투자 총액중 영국은 약 64%, 오스트랄리아는 20%, 미국은 12%를 차지한다.

2차 대전후 침투하기 시작한 미국 자본은 1950년의 2,50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8,200만 딸라로 증가되었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뻐터, 육류 등 축산물이다. 1964년 8월 뉴질랜드는 미국 국회에서 뉴질랜드의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토의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무성에 항의하였다.

서부 사모아
Western Samoa

【면적】 2,946 km^2

【인구】 11만 9,000 명(1963년)

【수도】 아피아

정 치 서부 사모아는 오스트랄리아 동쪽 서남 태평양 상에 있는 사모아 제도의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모아도와 우폴루도를 비롯한 작은 도서들로 구성되여 있다.

서부 사모아는 제 1 차 세계 대전후 뉴질랜드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었으며 1947년부터는 유엔 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 서부 사모아에서는 대중적인 반제 민족 해방 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모아인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1961년 5월 국민 투표가 진행되였고 1962년 1월 1일 독립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동북 사모아는 계속 미제의 강점 하에 있으며 사모아인들은 나라의 인공적 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서부 사모아의 아피아항은 미제의 군사 기지로 되여 있다.

【정부】 수상 피아메 마따파 파우무이나 물리누우 2 세

경 제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영국인들의 코코아 농장으로 되고 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남 극

【개관】 1958년 7월 남극 관계 12 개국 대표 회의에서 남위 60°이남을 남극으로 결정하였다.

남극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000 키로 메터 이상이며 면적은 약 1,401만 평방 키로메터인바 이는 구라파 대륙과 미국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남극 대륙은 해발 평균 2천—3천 메터의 높이를 가진 구릉 지대로 되여 있으며 도처에 약 4,500—6,000 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솟아 있다. 남극의 83%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으며 얼음의 평균 두께는 1,800 메터, 최고는 4,480 메터나 된다.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가 남극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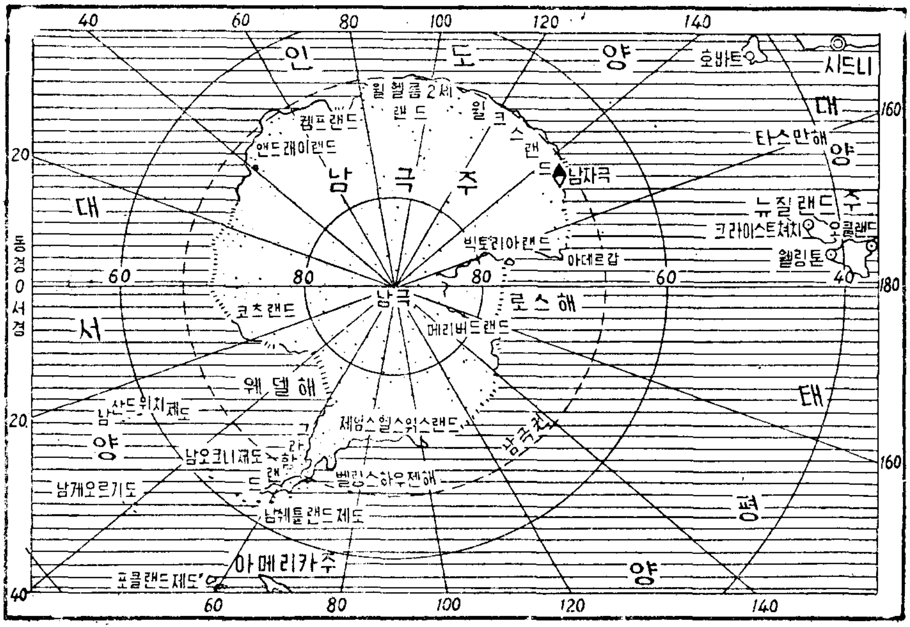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 메터의 암반 우에 있는 2,450 메터 두께의 대륙빙 우에 약 30 메터의 눈과 얼음이 쌓여 있는, 해발 2,750 메터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 동결 기후로서 년 평균 기온은 섭씨 령하 30°이다. 가장 따뜻한 계절 (11—1월)에는 기온이 섭씨 령하 5°, 가장 추운 계절(6—7월)에는 령하 60°까지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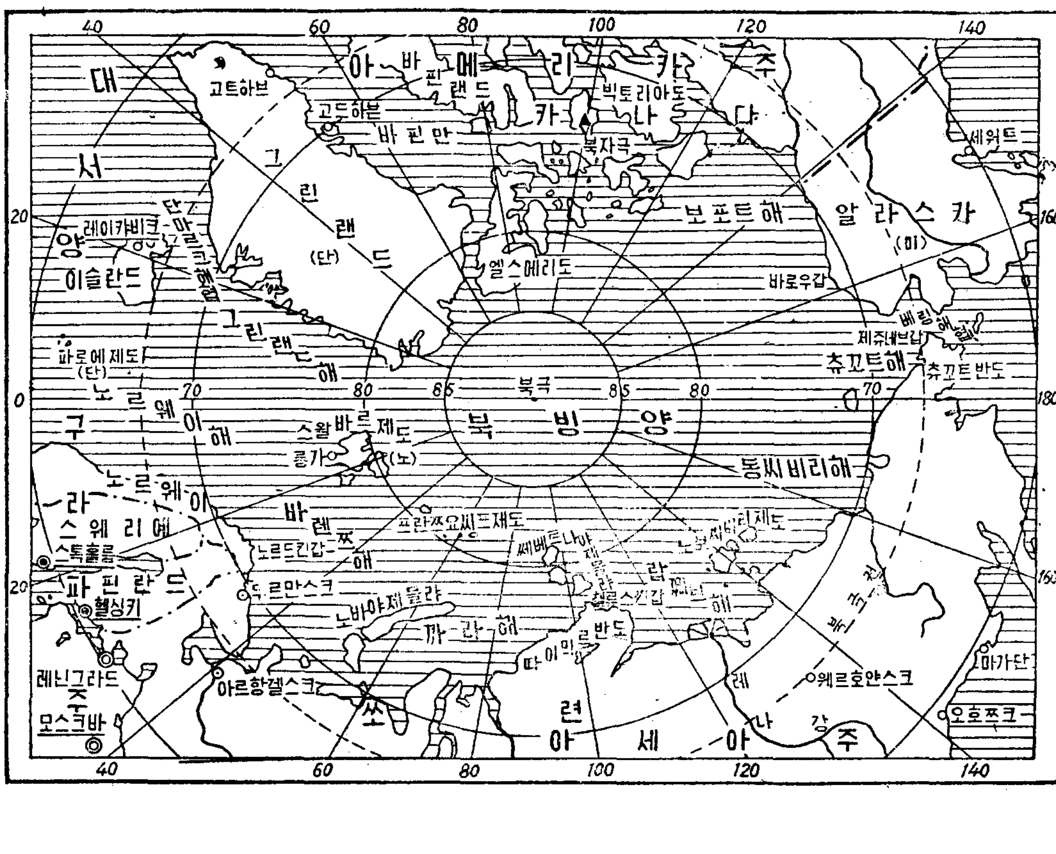
1962년에 대륙 동부의 쏘련 워스토크 기지 부근에서 기온이 섭씨 령하 90°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최저 기온이다. 풍속은 초당 100 메터이다. 1년에 1차의 주야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 이상의 전 지역은 년간을 통하여 거의 매일 폭풍이 불며 아데리 해안에서는 풍속이 30 메터 이상되는 날이 년간을 통하여 300일이나 된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늄,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이 매장되여 있다. 남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100만

남극 및 북극



인도양
윌헬름2세랜드
켐프랜드
윌크스랜드
남극주
남자극
호바트
시드니
타스만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톤
빅토리아랜드
아데르갑
남극
로스해
코츠랜드
메리버드랜드
웨델해
대서양
동경 0 서경
남산드위치제도
제임스엘스워스랜드
그라함랜드
남오크니제도
벨링스하우젠해
남게오르기도
남쉐틀랜드제도
남극권
아메리카주
포클랜드제도
태평양



아메리카주
바핀랜드
고트하브
빅토리아도
카나다
북자극
바핀만
그린랜드
(단)
엘스메리도
보포트해
알라스카
(미)
바로우갑
베링해협
제쥬네브갑
츄꼬트해
츄꼬트반도
세워드
대서양
레이캬비크
단마르크해협
이슬란드
그린랜드해
파로에제도
(단)
노르웨이해
북극
북빙양
스왈바르제도
롱가
(노)
동씨비리해
구라파주
노르웨이
스웨리예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노르드킨갑
무르만스크
바렌쯔해
프란쯔요씨프제도
노바야제믈랴
까라해
따이미르반도
아르항겔스크
웨르호얀스크
마가단
오호쯔크
아세아주

평방 키로메터나 되는 석탄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조류로는 펭긴이 있으며 고래, 옷도세이 등 해수 등도 있다. 이 대륙 해안에서는 고래가 많이 잡히는데 최근 년간 고래 자원이 적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고래 잡이를 제한하고 있다. 식물은 300 종 이상 발견되였다.

【관측】 현재 남극에서는 국제 물리학 년도의 계획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52년 2월 첫 쏘련 관측소인 《미르느이》가 남극에 설치되였다. 1959년 10월에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벨지끄,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아르헨띠나,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관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부터는 체스꼬슬로벤스꼬 학자들도 관측 사업에 참가하였다. 12개 국이 남극 조약에 조인하였다.

쏘련의 《미르느이》 관측소에는 600 키로 와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소가 있으며 대형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행장도 있다.

쏘련은 《미르느이》 관측소 외에 7개의 상설 기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1960년에는 표류하는 얼음 우에 3 개의 림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1962년에는 표류하는 얼음 우에 자동 관측소를 증설하였다.

1962년에 미국 원자력 위원회는 남극에 있는 3 개의 기지에 4 개의 전력 공급용 소형 원자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 중 맥마드 기지에 1,500 키로 와트의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1962—1963년의 제 8 차 남극 종합 조사단 200 명이 1964—1965 년에 진행될 국제 정온 태양년 (IQSY)의 조사 활동을 위한 관측 시설 준비를 위하여 남극에 도착하였다.

1963년에 관측 사업을 위하여 남극에 간 인원 수는 약 5,000 명(12 개국)에 달한다.

북 극

【개관】 북위 66°30′ 이북을 북극 지방이라고 한다. 면적은 2,500 평방 키로 메터인데 그 중 약 1,435 평방 키로 메터는 해면이다.

아세아, 구라파, 북미의 3대륙의 북쪽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 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약 3메터 두께의 얼음에 덮혀 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219 메터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 (1—3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령하 40°, 대륙 연안은 령하 30°이다.

여름(7—8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0°, 대륙 연안에서는 5°～9°이다.

북극에서는 1년중 179일 동안 밤이 계속되며 나머지는 낮이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 미리에 불과한데 저온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최근 년간 온도가 높아져 기온이 온화해지고 있다.

【주민】 약 12만 명이 살고 있다. 주요 민족의 거주 지역과 인구를 보면 동부 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앙게바 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 명), 서부 씨비리와 노바야 제물랴에는 싸모예드족 (약 2만 명), 동부 씨비리에는 뉴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부에는 아메리카 인디안족, 구라파주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 있다. 그외에 소수의 백인들이 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풍부하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매장되여 있다. 남쪽 바다에는 어류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를 비롯한 짐승들이 살고 있다.

1960년 봄에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고생대학 조사단은 1억년 이상으로 추산되는 화석 식물 표본을 약 400 종 수집하였다.

【관측】 북극권 내에 령토를 가진 쏘련,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가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 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37년 5월 21일 쏘련의 북극 탐험가들이 북극 중앙 지대에 도착하여 《북극 1호》 표류 과학 관측소를 설치하고 274일 간에 걸쳐 표류하는 얼음 우에서 세계 최초의 북극 탐사를 개시하였다. 쏘련 과학자들은 지구의 북부 기상에 주는 북극권 기상의 결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북극해에 난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베링 해협에 원자력 땜을 건설할 데 대한 문제, 바이칼호와 북극해를 련결하는 수리 건설 문제, 북극해의 북동 항로의 개설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 물리학적 현상들의 합법칙성, 그 현상들의 발생 및 변화를 구명하는 고대 지구 물리학 연구의 결과 약 5억년 전에는 지리학적 극들이 현재의 적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등 흥미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쏘련은 북극에 21개의 탐사대, 4개의 연구소, 1천개의 관측소를 설치하고 있다. 1961년에는 《레닌》 호와 신 쇄빙선 《모스크바》 호를 주력으로 하는 북극 조사 선단이 증강되였다. 1963년 1월 26일 쏘련의 원자력 잠수함 《레닌쓰끼 꼼쏘몰》호가 얼음 밑을 항행하여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미국은 해 공군을 주체로 하여 관측 사업을 하고 있다. 1952 년 이래 브라보 기지에 해빙,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 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이런 데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 군사 기지망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

국제 련합 기구

(유 엔)

United Nations—UN

【성립】 1945년 4월 25일에 미국 쌘프랜씨스코에서 열렸던 련합국 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 모든 국제적 분쟁 문제들의 평화적 조정, 국가들 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로서 창설되였다(기구 헌장은 1945년 10월 25일 발효).

【성원】 115 개국(1964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안보 리사회 비상임 리사국으로 선출된 데 항의하여 1965년 1월 20일 유엔으로부터의 탈퇴를 정식 통고 하였다.

【기구】 총회(전체 성원국으로 구성), 안전 보장 리사회(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5 개 상임 리사국과 6 개의 비상임 리사국으로 구성), 경제 사회 리사회(18 개 국으로 구성), 후견 리사회(14 개 국으로 구성), 국제 재판소, 사무국

총회 보조 기관 제 1(정치) 위원회, 특별 정치 위원회, 제 2(경제, 재정) 위원회, 제 3(사회, 인도, 문화) 위원회, 제 4(후견) 위원회, 제 5(행정 예산) 위원회, 제 6(법률) 위원회

전문 기구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국제 로동 기구, 세계 보건 기구, 만국 우편 련맹, 국제 전신 련맹, 국제 민용 항공 기구, 세계 기상 기구, 국제 통화 기금,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국제 금융 공사, 국제 원자력 기구, 정부간 해운 사업 협의 기구

사무 총장 우 탄트(버마, 1962년 11월 30일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피선)

본부 소재지 뉴욕

【사업】 총회 제 19 차 회의는 1964년 12월 1일에 개막되였다.

회의는 전번 회의들과는 달리 소위 《유엔 분담금》 문제로 전례 없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에 착수하였다.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는 유엔 내의 각이한 그루빠를 대표하는 8 개 국 대표들과 협의한 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총회 사업을 1) 자격 심사 위원회의 임명 2) 의장 선거 3) 새 성원국의 가입 문제 등의 토의에만 국한시켰다.

총회 의장으로 가나 대표 퀘이손 삭케이를 표결 없이 선출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말라위, 말타 및 잠비아를 새로 유엔 성원국으로 받아 들였다.

총회는 각국 대표들의 일반 토론을 계속하였을 뿐 의정을 비롯하여 거수 가결에 의하여 결정될 일체 사업을 뒤에 미루었다.

소위 《유엔 분담금 문제》 이 문제는 미제가 유엔 헌장 제 19 조를 악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 《유엔군》 작전비를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데서 초래되였다. 헌장 제 19 조에는 유엔의 경비'를 매 성원국들이 분담하게 되여 있으며 그 분담금을 2년간 체납할 경우에는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여 있다. 미제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이 나라들로 하여금 《유엔군》의 작전비를 지불케 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미제는 콩고(레)침략과 끼쁘로스 문제 및 팔레스티나 문제에 간섭하기 위하여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고 있으며 이에 막대한 《유엔군》 작전비를 탕진하고 있다. 이리 하여 유엔은 엄중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유엔은 약 1억 3천만 딸라의 경비 적자를 내고 있다. 미제는 쏘련과 백로씨야 및 우크라이나에 《유엔군》 작전비 분담금으로 5,264만 3,137 딸라를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타 6 개 사회주의 국가들(알바니아,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뽈스까, 로므니아)에도 소위《체납된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7 개 국도 소위 《체납국》으로 되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제의 침략의 도구인 《유엔군》의 작전비와 유엔 경비를 엄격히 구별하면서 이러한 침략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리 하여 총회 사업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 유엔 아세아, 아프리카 그루빠 60 개 국은 12월 3일 《유엔군》 작전비 체불 및 그에 대한 유엔 헌장 제 19 조의 적용에 관한 문제의 토의를 제 19 차 총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며 총회가 즉시 정상적인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 하였다.

《콩고 (레) 에 대한 미국 및 벨지끄 제국주의의 침략 문제》 1964년 12월 9—30일에 열린 유엔 안보 리사회 회의는 20여 개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로 콩고(레)사태를 토의하였다.

많은 나라 대표들은 미국 및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이 콩고(레)에 대하여 감행한 범죄적 침략 행동을 폭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표 스티븐슨은 미국의 침략을 규탄하여 연설한 아프리카 나라들을 합부로 중상 비방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콩고(레)에 《간섭》하고 있는 듯이 사태를 외곡하려고 시도하였

으며 꽁고(레) 내정에 대한 유엔의 간섭을 정당화하여 보려고 하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회의는 꽁고(레)에서 일체 외국 고용병들을 철수시키며 미국과 벨지끄를 규탄할 것을 요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유엔 탈퇴 문제 1965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네시아가 유엔에서 정식으로 탈퇴하였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미, 영의 조종 하에 유엔 총회가 1964년 12월 29일 신 식민주의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유엔 안보 리사회 비상임 리사국으로 선출한 데 항의하여 유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와르샤와 조약)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аршавский Договор)

【성립】 서부 렬강이 서부 독일을 군국화하며 이를 침략적 《나토》에 인입시킬 목적으로 《빠리 협정》을 조인한 것과 관련하여 1954년 11월 29일—12월 2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구라파 제국 회의는 《빠리 협정》이 비준되는 경우 자국의 안전과 구라파의 평화를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1955년 5월 5일에 침략적 《빠리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과 관련하여 동년 5월 14일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구라파 제국 회의는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와르샤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본 조약은 평화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며 그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적인 성격을 띤 조약이다.

이 조약의 기한은 20년이다. 조약 참가국들이 조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10년간 자동적으로 더 연장하게 되여 있다.

【성원】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로므니아, 벨가리아, 웽그리아, 알바니아

【기구】 지도 기관은 정치 협상 위원회(성원국의 정부 성원이나 혹은 특별히 임명된 대표가 매개 나라들을 대표한다)이고 보조 기관으로서는 상설 위원회와 합동 서기국이 있다.

합동군 총사령관 쏘련 원수 아. 아 그레치꼬, 부사령관들은 체약국 무력 대표들로 임명된다. 합동군 총참모장 빼. 이바또브 대장(쏘련)

본부 소재지 모스크바

아랍 련맹

League of Arab States

【성립】 1944년 9월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아랍 국가 외상 회의에서 채택된 《알렉산드리아 의정서》의 원칙에 기초하여 1945년 3월 22일에 성립되였다.

【성원】 아랍 련합 공화국, 수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 리비아(1953년 3월 가맹), 수단(1956년 1월 가맹), 마로꼬, 뛰니지(1958년 10월 가맹), 쿠웨이트(1961년 7월 가맹), 알제리(1962년 8월 가맹) 등 13 개국이며 팔레스티나와 오만 대표들이 옵써버의 자격으로 련맹의 각종 회의에 참가한다.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리사회와 5 개의 전문 위원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제, 재정), 서기국이 있다. 매년 3월과 10월에 리사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림시적으로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련맹 각급 기구들이 조직하는 회의가 있다.

서기장 모함메드 아브델 할레크 하수나(아랍 련합 공화국)

본부 소재지 까히라

【사업】 1964년 9월 21일 아랍 련맹 리사회 제 41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랍의 움직임에 대한 아랍 련맹 서기장 하수나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예멘—사우디 아라비아의 분쟁 문제가 곧 해결되여야 하며 이것이 팔레스티나 및 기타 아랍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 뷰로 대표들의 회의 권고와 이스라엘을 뽀이꼬트할 데 대한 회의 권고 그리고 아랍 국가 교육상, 외상 및 공보상 회의 결의, 유엔에서 취급될 아랍 문제와 유엔 각 기관 내의 결원석에 아랍 국가 대표들을 임명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련맹 서기장 하수나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아랍만 지역 각국에 파견하여 아랍 국가들에의 외국인들의 이민 제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봉쇄, 아랍 국가들 간의 협조 강화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 회담할 것을 결정하였다.

3월 30일 아랍 련맹 리사회는 예멘에 대한 영국의 침략 행동에 대처하여 긴급 회의를 열고 예멘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모든 성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9일에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리사회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영국의 침략 행동과 관련한 일련의 결의를 채택하고 남 아라비아의 해방을 위한 위업에 백방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20일에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도꾜 올림픽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 아랍 련맹 13 개국이 이 대회

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제 42 차 리사회 회의 (9월 28—30일)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을 규탄할 데 대하여 아프리카 통일 기구가 채택한 결의들에 충실할 것을 아랍 국가들에 호소하였다.

1964년 8월 13일에 진행된 경제 리사회는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5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년 내에 완성될 아랍 공동 시장의 형성을 예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OAU

【성립】 1963년 5월 22—26일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 헌장이 채택됨으로써 이 기구가 창설되였다.

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의 통일과 단결을 촉진시키고 자주권과 령토 완정 및 독립을 수호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며 정치, 경제, 문화, 보건, 과학, 기술 및 국방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매개 아프리카 국가는 이 기구의 성원국으로 될 권리를 가진다.

【성원】 34 개국 (1964년 12월 현재)

【기구】 국가 및 정부 수뇌자 총회(최고 기관으로서 1년에 1 차 소집), 각료 리사회 (성원국 외상 또는 기타 각료들로 구성되며 년 2 차 소집, 리사회는 수뇌자 총회를 준비하며 총회의 결정 수행을 위임 받는다), 총사무국, 《조정, 화해 및 중재 위원회》, 경제 및 사회 위원회, 교육 및 문화 위원회, 보건 위생 및 급양 위원회, 방위 위원회, 과학 기술 연구 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들이 있다.

총사무국 사무장 디알로 텔리(기네)

본부 소재지 아디스 아베바(에티오피아)

【사업】 국가 및 정부 수뇌자 총회— 1964년 7월 17—21일에 아랍 련합 공화국의 수도 까히라에서 제 2 차 수뇌자 총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아프리카의 34개 독립 국가들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옵써버로서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비식민지화 문제, 인종 차별 문제, 아프리카 최고 군 사령부 창설 문제, 아프리카의 통일 문제, 국경 분쟁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남아프리카와 뽀르뚜갈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총사무국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를 1965년 3월 10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각료 리사회— 2월 12—14일에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각료 리사회 비상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9 개국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 외상 및 국방상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동부 아프리카의 3 개국(탄자니아, 케니아, 우간다)군대 내에서 폭동이 있은 이후의 사태, 소말리아—에티오피아간, 케니아—소말리아 간의 국경 분쟁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탄자니아에 있는 영국 군대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대로 교체할 데 대한 결의와 케니아—소말리아 분쟁의 평화적 조정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분쟁 문제를 연구할 12 개국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라고스에서 열리게 될 각료 리사회 정기 회의 의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월 24—29일에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각료 리사회 정기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33개의 아프리카 독립 국가 대표 200여 명과 옵써버로서 니아살랜드, 앙골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와의 비행기 및 선박에 의한 통상을 전 아프리카적으로 금지하며 국제 기구들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표수를 증가시킬 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회의는 또한 통일 기구의 5 개 전문 위원회 (경제 및 사회, 교육 및 문화, 보건 위생 및 급양, 방위, 과학 기술 및 연구 위원회)들의 규약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아프리카 독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해방시키며 특히 남로데시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7월 13—17일에 까히라에서 제 2 차 수뇌자 총회 준비를 위한 각료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34개 아프리카 국가의 외상 및 외상 대리들과 옵써버로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주의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 2차 수뇌자 총회에 제출할 의정들을 토의하고 아프리카 통일 기구 사무국 내에 앙골라, 모잠비크 및 뽀르뚜갈령 기네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독립을 즉시 실현하도록 조치를 취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 관한 결의에서는 남아프리카 당국이 감금한 민족주의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남아프리카에 대한 석유와 석유 제품의 공급을 즉시 중지하며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배격 운동에서 협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꽁고(레)의 괴뢰 쏨베를 수뇌자 총회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9월 5—10일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꽁고(레) 정세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각료 리사회 제 3 차 특별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꽁고(레)및 남로데시아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꽁고(레)에 관한 6 개 항목의 결의(27 개 국이 찬성하고 꽁고<레>, 세네갈, 시에라 레온, 나이제리아, 또고 및 리베리아가 기권)에서 꽁고(레) 문제를 아프리카인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일체 외국인 고용병 모집을 즉시 중지하며 이미 와 있는 고용병들도 속한 시일 내에 철수시키는 동시에 꽁고(레)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중지하고 민족적 화해를 회복하며 린방 국가들인 꽁고(브) 및 부룬디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에티오피아, 나이제리아, 기네, 아랍 련합 공화국, 소말리아, 가나, 상부 볼따, 뛰니지, 케니아 및 까메룬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단 (단장 케니아 수상 조모 케니아타)을 조직하여 즉시 꽁고(레), 부룬디 및 꽁고(브)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된 남로데시아에 관한 결의에서는 남로데시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을 단호히 반대하며 남로데시아 아프리카인 민족주의자들의 망명 정부가 수립되는 경우에는 그를 승인하고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정치범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12월 16—18일 뉴욕에서 스탠리빌에 대한 미국과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장 간섭 결과 조성된 꽁고(레) 사태와 관련하여 각료 리사회 특별 회의가 진행(아프리카 국가의 대다수 외상들이 유엔 총회 제 19 차 총회에 참가하게 된 사정과 관련하여)되였다.

회의에서는 꽁고(레)에 대한 미국과 벨지끄 침략자들의 무장 간섭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정 화해 및 중재 위원회— 6월 8일 나르 에스 살람에서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에 관한 조정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총화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첫째가는 과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11월 25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된 민족 해방 운동에 관한 조정 위원회에서는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및 신 식민주의의 모든 음모를 규탄하고 이 나라 인민과 정부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하였다.

9월 22일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꽁고 문제 조정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꽁고(레)에 대한 군사 원조를 즉시 중지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꽁고 (레)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종식시킬 목적 밑에 케니아 국무상 조세프 무룸비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대표단(케니아, 가나, 기네, 아랍 련합 공화국, 나이제리아 대표로 구성)을 워싱톤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꽁고(레)에 대한 군사적 《원조》와 간섭을 계속할 것을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 이 대표단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10월 17—22일에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된 꽁고 문제 조정 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더욱 광범한 규모로 물질적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11월 28—30일 나이로비에서 소집된 꽁고 문제 조정 위원회 긴급 회의는 꽁고(레)에 대한 미국, 벨지끄 및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간섭을 강경히 항의 규탄하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성립】 1948년 3월 영국, 프랑스,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등 5 개 국의 《브류쎌 조약》으로 형성된 《서구 동맹》을 모체로 하여 1949년 4월 4일에 워싱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 개 국 외상들이 침략적 《북대서양 조약》(1949년 8월 24일 발효)에 조인함으로써 성립되였다.

나토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서구라파를 군사적으로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동맹이다.

나토 내에서 최근 년간 성원국들 간 특히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모순이 격화되여 이 기구의 위기가 심각화되고 있다.

【성원】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이슬란드, 이딸리아, 노르웨이, 단마르크, 뽀르뚜갈 (이상 조인시 참가국), 희랍, 토이기(1952년 4월 참가), 서부 독일(1955년 5월 참가)의 15 개 국

【기구】 리사회(최고 기관으로서 성원국 외상, 국방상, 재정상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년 2~3차 소집, 의장은 성원국 외상이 매년 륜번으로 된다), 상설 리사회(성원국 대표 1 명씩으로 구성되며 리사회 휴회 기간의 사업을 담당한다. 상설 리사회는 1952년 리스본 회의에서 설치되였으며 1주 1~2 차 소집, 본부는 빠리), 사무국(사무 총장, 사무 차장 1 명, 사무 총장 보좌관 3 명으로 구성), 군사 위원회(최고 군사 기구로서 성원국 참모 총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년 1 차씩 소집, 위원회는 나토의 신경 중추로서 나토의 전략적 지도 원칙과 《방위》 계획을 작성하며 나토내 각 작전 기구들에 명령을 하달한다. 소재지 워싱톤), 상설 소 군사 위원회(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의 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 소재지 워싱톤), 군사 대표 위원회, 나토 구라파 련합군 최고 사령부. 최고 사령부 밑에 북구라파군 사령부, 중구라파군 사령부, 남구라파군 사령부, 지중해 지구 사령부가 있다.

사무 총장 마리오 브로시오(이딸리아)

구라파 주둔 나토군 최고 사령관 렘니쩌(미국)

【사업】 미국을 비롯한 나토 성원국들은 군비 확장과 타국에 대한 침략 특히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나토 창건 당시 성원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도합 187억 7,700만 딸라였는데 1963년에는 734억 4,600만 딸라로 격증하였다. 1949—1963년 간의 군사비 지출은 도합 8,224억 3,300만 딸라나 된다. 그중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75.2%를 차지하였다.

1964년도 군사비는 최고 기록인 759억 4,100만 딸라였는데 그중 미국은 543억 3,600만 딸라였다. 나토 성원국들의 무력은 1963년 말 현재 593만 여 명이였다.

한편 1964년에 나토 내의 모순은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례 없이 첨예화되였다.

5월 12—14일에 헤그에서 진행된 각료 리사회에서 미 국무장관 러스크는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강요하려 하였다.

그러나 독자적 핵 무력을 발전시키려는 로선을 시종 일관 견지하여 온 프랑스는 이 회의에서도 미국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나섰다. 그 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상 뮤르빌은 미국의 령도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나토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꾸바 위기 시기 미국이 동맹국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미제를 찍어서 공격하였으며 《국가적 리해 관계》를 고려할 때 나토 내의 《협조와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나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나섰다.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 빠리에서 진행된 나토 각료 리사회에서 러스크는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의 《필요성》을 동맹국들에 납득시키려고 다시금 시도하였다. 핵 무기를 보유하려고 애쓰는 서부 독일은 미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서독 련방군의 제 12 사단을 나토에 더 배속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상용 무력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외상 뮤르빌은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이 불가능하다고 잘라서 선포하고 나토의 핵 무력과 군비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러스크와 서독 외상 슈뢰데르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독이 《본—빠리 축》에서 리탈하여 미국과 야합하는 데로 나가고 있는 데 불만을 품은 프랑스는 나토 리사회 회의와 동시에 진행된 미 영 및 서부 독일과의 4 개 국 외상 회의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콤뮤니케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서부 독일에 타격을 가하였다.

카나다, 노르웨이 및 벨지끄 등은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반대하는 프랑스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새로 집권한 영국 레이버당 정부는 미국안을 반대하면서 《대서양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들고 나왔다.

12월 16일 영국 수상 윌슨이 하원에서 발표한 《대서양 핵 무력》 창설 계획은 영국의 《브이》형 폭격기들과 앞으로 건조될 영국의 《폴라리스》 잠수함들, 영국과 같은 수량의 미국 《폴라리스》 잠수함 그리고 핵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동맹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혼성 무력들로 구성하고 핵 무력의 정치적 및 군사적 통제를 위하여 나토 리사회와는 달리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되 이 위원회는 《거부권》을 가지는 미, 영 기타 나라들로 구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영국이 이러한 계획을 제출한 목적은 자기의 핵 무력을 참가시킴으로써 나토에서 영국의 통제권과 발언권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프랑스에 타격을 주고 서부 독일이 핵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안》은 나토 성원국들 간의 대립과 모순으로 하여 1964년에도 성립될 수 없었다.

나토 내의 모순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첨예하게 발로되였다. 리사회 헤그 회의와 빠리 회의에서 미국은 《나토의 단결》이라는 미명 하에 남부 윁남 침략 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협조》와 《구체적 방조》를 호소하였으나 프랑스는 그를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화란, 벨지끄 등 일부 성원국들은 프랑스의 립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부 윁남 문제는 아무런 리해 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미국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이리 하여 나토에서 미국의 지배에 대한 프랑스와 기타 서구라파 나라들의 《반란》은 더욱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 섰으며 나토는 마지막 붕괴에로 한 걸음 더 접근하였다.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 (세아토)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

【성립】 미제의 책동으로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조인된 《동남 아세아 집단 방위 조약 및 태평양 헌장》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1955년 2월 19일 발효)

세아토는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이 지역의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 뿔럭이다.

【성원】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타이, 필리핀, 파키스탄

【기구】 각료 리사회(최고 기관으로서 성원국 외상들로 구성되며 년 1회 이상 개최), 대표 리사회(방코크 주재 성원국 대표들로 구성), 군사 고문관 회의(1년에 2 차 소집)

사무국—《파괴 활동》 방지 위원회, 군사 위원회, 경제 위원회 등이 있다.

사무 총장 콘티 수파몽꼴

본부 소재지 방코크(타이)

【사업】 미제는 1964년에도 세아토를 통하여 동남 아세아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세아토 조작 10 주년과 관련하여 4월 13—15일에 걸쳐 마닐라에서 진행된 각료 리사회 제 9 차 회의에서는 남부 웰남, 라오스 및 《말레이시아》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4월 9일과 10일에 마닐라에서 있은 군사 고문관 회의에서 작성 제출된 《세아토 군사 계획》을 비준하였다.

회의에서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남부 웰남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에서 총붕괴에 직면한 미제의 기반을 구원하며 이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을 확대하는 데 세아토를 끌어 들이려는 기도 밑에 《세아토 성원국들은 남부 웰남 전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해야》하며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해야 한다고 떠벌렸다.

회의 후 발표된 공보에는 세아토 성원국들이 남부 웰남에서 《가일층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고 지적되였다.

10월 14일과 15일에 방코크에서 진행된 세아토 군사 고문관 회의에서는 《세아토 지역의 안전과 방위에 관한 계획을 신속히 리행할 데 대한 조치》들을 토의하고 앞으로 다시 모일 때까지의 《전반적인 군사 계획》을 작성하였다.

회의에서 태평양 지구 미군 총사령관 샤프는 남부 웰남이 《세아토의 원조를 요청하고 8 개 성원국들이 이러한 원조의 제공에 동의한다면 세아토의 무력이 급속히 출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부 웰남에서의 침략 전쟁에 세아토 성원국들을 끌어 들여 전쟁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세아토는 1964년에도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감행하여 동남 아세아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가 조작한 라오스에서의 정변과 때를 같이 하여 4월 20일부터 10일 간에 걸쳐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및 타이 공군 및 해군의 참가 하에 제 26 차 군사 연습이 감행되였으며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필리핀에서 또다시 세아토 8 개 성원국 륙해공군의 제 27 차 합동 군사 연습이 감행되였다.

한편 세아토 성원국 호상 간의 갈등과 알륵으로 하여 균렬이 간 《세아토》의 내부 모순은 세아토 조작 10 주년인 1964년에 전례 없이 첨예화되였다.

특히 미국, 프랑스 간의 모순은 드 골의 동남 아세아 《중립화》안의 제기, 중국에 대한 승인 등으로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로골적으로 표면화되였다.

각료 리사회 마닐라 회의에서 프랑스 외상 뮤르빌은 《남부 웰남의 근본 문제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중앙 정부가 없는 데 있다》, 《남부 웰남 문제의 군사적 해결이 실패되면 유일한 길은 정치적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남부 웰남에서의 전쟁 노력의 강화》, 《동맹국들의 협조》에 대한 러스크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지어 프랑스 대표는 공보의 남부 웰남과 관련한 부분과 남부 웰남 괴뢰 도당을 찬양하는 부분에 서명하는 것까지 거부하였다. 동시에 《리사회 성원국인 프랑스는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현재의 엄중한 정세 하에서는 어떠한 선언도 삼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언명하였다》는 별도의 성명을 공보에 첨가시키는 데 이르렀다(프랑스는 세아토 대표 리사회 특별 회의에서 웰남 민주 공화국을 비방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각료 리사회에서는 북부 보르네오 령토권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 그리고 인도에 군사 《원조》를 주는 미, 영에 대한 파키스탄의 불만 등이 로출되였다. 파키스탄 외상 부토는 마닐라 각료 리사회에 참가하지 않고 4월 자까르따에서 있은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세아토를 랭대하였다.

중앙 조약 기구

(쎈토)

Central Treaty Organization—CENTO

【성립】 1955년 11월에 조작되였던 《바그다드 조약》 기구에서 1959년 3월 24일 이라크가 탈퇴하자 동년 8월 19일 기타 성원국들은 《바그다드 조약》 기구를 《중앙 조약 기구》(쎈토)로 개칭하였다.

쎈토는 나토 및 세아토와 련결된 미제의 중근동 침략의 도구이다.

【성원】 토이기, 파키스탄, 이란, 영국(미국은 정식 성원국은 아니나 정치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들에 들어 있으며 사실상 쎈토를 통제하고 있다)

【기구】 상설 리사회—최고 기관으로서 가맹국의 수상 또는 외상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소집된다.

리사회 밑에 군사, 정치, 경제 《파괴 활동》 방지 등 4개 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사무 총장 알리 할라트바리(이

탄)

본부 소재지 앙카라

【사업】 미제는 1964년에도 쎈토를 통하여 중근동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이 지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계속 강화하였다.

4월 28일과 29일 워싱톤에서 진행된 각료 리사회 12차 회의에서는 《공산 침략에 대처하는》 쎈토의 《군사면에서의 협조 문제》, 1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합동 쎈토군 사령부》 설치 문제(이 문제의 심의는 연기되였다), 끼쁘로스 문제, 카슈미르를 둘러싼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분쟁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미제는 끼쁘로스 문제가 중동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사태》를 비져냈다고 떠들면서 이 신생 국가에 대한 간섭의 도구로서 저들이 파견한 《유엔 평화 유지군》에 대한 《지지》를 표명케 하였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앙카라에서 진행된 경제 위원회는 쎈토 성원국들의 《도로망, 자동 통신 및 항만 시설》 등 전략 시설들을 확장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미국 대표는 토이기와 이란을 련결시키는 200키로 메터에 달하는 쎈토의 철도 부설의 완공을 위하여 토이기와 이란에 장기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떠벌렸다.

4월 22일과 23일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군사 위원회는 《조약 지역의 군사적 방위》 문제를 토의하고 군사 연습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중근동 지역에서 침략적 군사 도로망을 확장하며 3개 쎈토 성원국 간의 군용 통신망을 완성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쎈토 성원국들 간의 모순과 대립은 1964년에도 첨예하게 로출되였다.

각료 리사회에서 쎈토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견 대립 즉 《반공 방패의 역할》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미, 영과 《경제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기타 성원국들 간의 대립, 카슈미르 문제 그리고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와 관련한 미국에 대한 파키스탄의 불평, 토이기계 끼쁘로스 주민에 터을 걸고 끼쁘로스의 분할에 한 몫 끼려는 토이기와 미, 영 간의 모순이 발로되였다.

7월 1일 토이기, 이란 및 파키스탄 외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쎈토의 테두리 밖에서》 호상 간의 경제, 기술 및 문화 협조를 증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안쥬스) 리사회
ANZUS

【성립】 1951년 9월 1일 쌘프랜씨스코에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3국 《호상 안전 보장 조약》에 기초하여 성립되였다. 가맹국의 머리문'자를 따서 안쥬스(ANZUS)라고 부른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진보적 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기구】 최고 기관은 리사회(3개국 외상으로 구성, 년 1회 개최)이며 리사회 밑에 3국의 군사 대표 회의가 있다.

【사업】 1964년 7월 17—18일 워싱톤에서 안쥬스 동맹 각료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 후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회의에서는 《남부 웰남, 라오스 정세》와 《말레이시아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미제는 소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구실 밑에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일층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남부 웰남 침략 전쟁에 끌어넣으며고 책동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국토 완정이 유지》되여야 한다느니, 《미국은 만약 자기 동맹국 군대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원조를 줄 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 대면서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의 졸개들에게 《말레이시아》에 대한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주 국가 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성립】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따에서 열린 제9차 미주 회의는 1890년 4월 14일에 성립된 《범미 련맹》을 《미주 국가 기구》로 개조하였다.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확립하며, 이 나라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반미, 반독재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특히 꾸바 혁명 승리 이후에는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에 적극 리용되고 있다.

【성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20개 나라 (1962년 1월 22일 《미주 국가 기구》 제8차 외상 회의에서 꾸바가 탈퇴)

【기구】 최고 기관인 미주 국가 회의 (5년에 1차 소집), 자문 기관인 미주 국가 외상 회의, 상설 기관인 리사회(대사급의 각 1명으로 구성), 특별 회의 등이 있다.

본부 소재지 워싱톤

【사업】 1964년 7월 21—26일 워싱톤에서 제9차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가 진행되였다. 메히꼬는 회의에서 꾸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외상 대신에 대리자를 참가시켰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콜롬비아, 꼬스따 리까, 빠나마 등 추종 국가 대표들이 꾸바와의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비롯한 일체 련계를

단절할 것을 예견하는 《결의》안을 회의에 제출하였다. 미 국무장관 러스크는 《일치》한 결정을 꾸며 내려고 위협, 공갈, 회유 등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히꼬,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나라 외상들은 꾸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대하여 나섰다.

메히꼬 대표는 꾸바를 반대하는 《제재》 조치를 채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제재》 조치를 반대하였으며 칠레 외상도 꾸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이 못된다고 하였다. 볼리비아 외상은 채택된 결정들이 비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우루과이 외상은 꾸바가 《침략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 하여 이 나라들은 결의에 반대 투표하였다.

1964년 1월 16일, 31일, 2월 4일, 6일에 특별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미제의 침략(1월 9일 빠나마 운하 지대 내에 미국 국기만을 게양한 것과 관련한 빠나마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미제가 류혈적으로 탄압한 만행)에 대한 빠나마의 제소를 토의하고 미국—빠나마 분쟁을 《조정》한다는 명목 밑에 빠나마 운하 지대에 현지 《조정 위원단》,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빠나마 인민은 이 《조사단》이 파견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반미 시위를 단행하고 1903년의 예속적인 조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빠나마 인민들에 대한 만행을 부인하며 운하 지대를 계속 강점할 것을 고집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부당한 립장으로 《조사단》은 분쟁의 《조정》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6월 26일에 진행된 미주 국가 리사회에서는 3 개 조항의 결의를 채택하고 7월 21일 워싱톤에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소집하고 꾸바에 《제재》를 가할데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구》를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채택될 결정을 표결할 때 메히꼬 대표는 기권하였다. 볼리비아는 이 회의에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СЭВ

【설립】 1949년 1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웽그리아, 로므니아, 벌가리아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경제 회의 결정에 따라 창립되였으며 동년 4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성원】 벌가리아, 웽그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1949년 2월 가입),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1950년 9월 가입), 몽골(1962년 6월 가입)

【기구】 리사회 총회(최고 기관, 리사회 성원국 수도에서 륜번제로 년 2 차 소집), 집행 위원회(성원국 내각 부수상들로 구성, 2개월에 1 차 소집), 집행 위원회 경제 계획 종합 뷰로(성원국 계획 기관 부책임자들로 구성), 부문별 상설 위원회들(23개), 서기국

본부 소재지 모스크바

총비서 엔. 파제예브

【사업】 1964년에는 5 차에 걸쳐 쎄브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제 11 차 회의(1964년 2월 25—28일, 모스크바)에서는 1964—1965년 기간 과학 기술 연구 사업 조절에 대한 권고안, 1966—1970년간 쎄브 성원국들의 경제 계획 조절 사업 정형, 생산 제품들의 규격 통일에 대한 문제, 쎄브 대표의 유엔 무역 및 개발 회의 참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 또는 권고들을 채택하였다.

제 12 차 회의(1964년 4월 21일 개막, 모스크바)에서는 농촌 경리 부문의 집약화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쎄브 성원국들이 몽골의 농업 생산 발전, 농업 과학 연구 사업 및 지하 자원 개발에 원조를 제공할 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1964—1970년 간 식료 공업, 방직 공업, 의약, 전기 기계 공업 및 선박 공업 부문에서의 호상 협조에 관한 권고안을 승인하고 1966—1970년 간 성원국들의 경제 계획 조절 사업 정형에 대한 쎄브 집행 위원회 경제 계획 종합 뷰로의 통보를 청취하였으며 운수 및 화학 공업 부문 쎄브 기관들의 기본 사업 방향을 비준하였다.

제 13 차 회의(1964년 7월 14일 개막, 모스크바)에서는 성원국들 간의 쌍방 회담 및 경제 계획 조절 제 1 계단 사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1966—1970년 간 중요 제품들에 대한 예비적 발란스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성원국들 간의 상품 류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중 소비품 품종을 더욱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는 쎄브 성원국들과 비성원국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일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제 14 차 회의(1964년 10월 3—16일, 모스크바)에서는 쎄브 19 차 총회 소집에 대한 제의와 회의 의정 문제, 운수 부문의 호상 협조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수리 경리 부문에서의 협조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유색 금속 상설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승인하였다.

제 15 차 회의(1964년 12월 2—3일, 모스크바)에서는 운수 부문의 일부 문제, 성원국들 간의 당면한 장기 통상 협정과 관련한 계약 가격 문제, 1965년 1월에 진행하기로 된 쎄브 19 차 총회 준비 사업 정형을 심의하였다. 1963년 10월 22일에 체결된 환치성 루블의 다각적 결제와 국제 경제 협조 은행 조직에 관한 협

정에 근거하여 1964년 1월 1일부터 쎄브의 《국제 경제 협조 은행》(소재지 모스크바, 최초의 자금은 3억 루블)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동년 7월 1일부터 약 9만대 이상의 차량을 망라한 쎄브 《공동 차고》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4월 25일에 벌가리아, 웽그리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가 참가하는 베아링 공업 기구(소재지 와르샤와) 창설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1월 24일에는 국제 야금 기구(소재지 부다뻬슈트)가 조직되였다.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성립】 1956년 6월 12일 베이징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웰남 민주 공화국, 몽골

【기구】 전원 회의와 비서처, 해양 어업, 어업 자원 보호 분과 위원회들이 있다. 전원 회의는 매년 가맹국들의 수도에서 륜번으로 열린다.

위원장 허 더행(중국)

본부 소재지 베이징

【사업】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 9 차 전원 회의가 1964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쏘련, 중국, 웰남 및 몽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 8 차 전원 회의 이후의 위원회 사업(1963—1964년도 사업) 총화에 대한 보고와 성원국들이 제출한 학술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북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동을 단죄하는 항의문이 만장 일치로 채택되였다.

항의문은 미국 군함들과 비행기들이 북부 웰남만에서 의연 군사적 도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 미제의 이러한 행동은 웰남 민주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며 웰남의 어업과 어업 분야에서의 과학 연구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항의문은 남부 웰남과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미제의 새로운 침략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모든 나라 과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원 회의 참가자들은 제 10 차 전원 회의를 1965년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성립】 1958년 12월 8—11일 까히라에서 진행된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46 개 국

【기구】 대회—최고 기관이며 2년에 1 차 소집된다(1963년 12월 카라치에서 제 4 차 대회 진행). 리사회—매년 1 회 소집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련합 공화국, 이란, 이라크, 인도, 버마, 알제리, 에티오피아, 기네, 마로끄, 수단 등 12개 국이 리사회 성원으로 되여 있으며 파키스탄이 위원장, 말리가 제 1 부위원장, 일본이 부위원장으로 되여있다.

상설 서기국(소재지 까히라)

위원장 모하메드

【사업】 196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까히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상설 서기국의 주최로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20 개 국 보험 회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발전한 나라가 신생 국가들의 보험 시장을 지배하고 신생 국가들의 민족적 리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체의 보험 자금을 관리하여 자체의 리익에 알맞게 생산과 대외 무역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들과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보험 분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및 재보험 련맹을 창설하였다. 회의는 아랍 련합 공화국 대표를 위원장으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라크, 가나, 나이제리아, 뜌니지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 알제리, 인도, 쿠웨이트, 리비아, 마로끄, 에티오피아를 집행 위원회 성원(15 개 국)으로 선출하였다.

다음 번 회의는 카라치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Asian Economic Seminar—AES

【조직 경위 및 목적】 아세아 경제 토론회를 조직할 데 대한 테쟈구나와르다나(쎄일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의 발기에 따라 1962년 9월 25일 콜롬보에서 쎄일론, 중국, 일본 등 5 개 국 대표들로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1962년 10월 25일—11월 1일까지 콜롬보에서 제 1 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와 축적한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하루 속히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구】 상설 서기국

서기국 소재지 콜롬보

위원장 테쟈 구나와르다나 녀사(쎄일론)

【사업】 1964년 6월 16—23일까지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의 34 개 나라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 하에 평양에서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하여》(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단 보고), 《신 식민주의와 아세아 경제》(인도네시아 대표단 보고), 《신 식민주의와 아프리카 경제》(까메룬, 가나, 꽁고<레>대표단 보고),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중국 대표단 보고),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일본 대표단 보고), 기타 보고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과 경제 건설에서 쌓은 경험과 의견들이 교환되였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선언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와 《아세아 경제 토론회 결의》가 채택되였다.

구라파 《공동 시장》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성립】 구라파 《공동 시장》은 1957년 3월 25일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구라파 석탄 및 강철 공동체》 성원국들인 프랑스, 서부 독일,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및 룩셈부르그의 6 개 국 대표들이 《구라파 경제 공동체 조약》(소위 로마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성립되였다. 동 조약은 1958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이 축소되고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성이 심화된 결과 산생된 제국주의 모순의 산물로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의 경제적 기반이며 6 개 나라 독점 자본의 경제적 련합이다.

《로마 조약》에 의하여 《공동 시장》은 관세 동맹을 결성하고 3 단계 (12년 내지 15년간)에 걸쳐 《공동 시장》 성원국들 간의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철폐하는 동시에 《공동 시장》 지역 외의 제 3 국에 대하여 통일적인 관세 및 통상 정책을 실시하며 성원국들 간의 자본 및 통상 정책을 실시하며 성원국들 간의 자본 및 로동의 자유로운 류동을 실현하고 농업 및 운수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실시할 것 등을 예견하고 있다.

즉 《공동 시장》은 그 성원국인 6 개 국을 하나의 폐쇄된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구라파 합중국》을 형성하며 성원국들의 독점체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독점체들에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기반과 《나토》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운동,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혁명 세력들의 공동 진출을 도우며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과 예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기구】 각료 리사회(6 개 국 각료들로 구성되는 정책 결정 기관), 집행 위원회(조약의 집행을 감독하며 각종 결의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각료 리사회가 준 지시를 집행하는 기관), 구라파 의회(《공동 시장》, 《석탄 강철 공동체》 및 《원자력 공동체》의 공동 의회)

【성원】 프랑스, 서부 독일,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및 룩셈부르그, 이외에 준 성원국으로서 희랍, 토이기가 있다.

【사업】 《공동 시장》의 경제 통합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서방 제국주의 렬강 간의 시장 쟁탈을 위한 개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1964년에 《공동 시장》 성원국들 간의 모순은 통일적인 농산물 가격의 설정 문제에서 날카롭게 나타났다. 공동 농업 정책이란 성원국들이 각이하게 실시하고 있는 보호 정책으로 구구하게 설정된 농산물 가격을 중간 가격으로 통일하는 한편 통일적인 대외 관세 장벽을 쌓고 기준 가격 보다 눅은 값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그것을 《공동 시장》 지역의 농업 발전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프랑스, 화란의 농산물 가격은 인상되게 되고 서독, 이딸리아 등은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프랑스는 서구라파에서 가장 넓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가격도 이 지역 내에서는 가장 낮다.

그런데 서독은 공업 생산 분야에서는 프랑스를 포함한 기타 성원국들을 단연 압도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가격도 가장 높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산물 가격을 낮춘다면 프랑스, 화란의 눅은 농산물은 서독의 시장에 범람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매년 15억 마르크의 보조금을 지불해 가면서 보호하고 있는 서독의 농업이 기필코 파산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서독의 에르하르트 정권은 농산물 가격을 낮춘다면 1965년 9월에 진행될 총선거에서 농민들의 표수를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독일은 농산물 가격의 통일을 가장 완강히 반대하였다.

한편 《공동 시장》 내에서 농산물 가격이 제일 낮은 프랑스에서는 농산물 가격 인상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야당들은 농민들의 투쟁

을 리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 골 정부는 년내에 기어코 통일적인 농산물 가격을 설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공동 농업 정책을 통하여 서독의 우세를 견제하고 《공동 시장》을 지배할 것을 노리고 있다. 통일 곡물 가격 설정 문제는 1963년 11월 8일 이에 대한 제 1 차 《만스홀드안》(통일 곡물 가격 실시 기일을 1964년 7월 1일로 예견)이 나온 이후 《공동 시장》 성원국의 각료 회의에서 수차 토의되였으나 서부 독일을 비롯하여 농산물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 하였다.

그리 하여 1964년 5월 12일 새로운 《만스홀드안》(통일 곡물 가격 실현 시기를 1966년 7월 1일 이후로 예견)이 제출되였다. 그러나 서부 독일은 이 안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는 6 개 국 각료 회의(5월 19—21일)에서 곡물 가격의 통일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관세 일괄 인하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응수하였으며 10월 22일 드 골은 곡물 가격 통일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 한다면 《공동 시장》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식 경고를 하였다. 그리 하여 《공동 시장》은 공동 농업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통일 곡물 가격 문제는 서독을 일방으로 하고 프랑스를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의 1년여에 걸치는 암투 끝에 1964년 12월 15일 《공동 시장》 6 개 국 농업상들의 회의에서 절충안에 겨우 합의를 보았다.

서독이 곡물 가격의 통일에 관한 프랑스의 강요에 굴복한 반면에 프랑스는 서독의 실시 기일 연장 요구에 양보하였다. 이 결과 밀 가격은 톤 당 425 마르크, 옥수수는 362 마르크 50 페니로 《공동 시장》 전 지역적으로 통일시키되 196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 시장》과 미국 간의 모순도 격화되였다. 관세 일괄 인하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공동 시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담을 벌렸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 하였으며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통일 곡물 가격 설정은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팔아 먹던 미국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된다.

1964년 7월 15일 프랑스 대통령 드 골은 1963년 1월 28일에 무기한 연기되였던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교섭을 1964년에 재개한다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 시장》에 기여 들려는 영국의 시도를 또다시 거부하였다.

《공동 시장》 6 개 국은 협정에 따라 지역 내 공업품에 대한 관세를 1965년 1월 1일부터 또 10%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 《공동 시장》이 발족한 1958년 1월 1일 이래 지역 내 공업품 관세는 70% 인하하게 되였다.

구라파 자유 무역 련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성립】 1959년 11월 20일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오지리, 스위스 및 뽀르뚜갈 간에 조인된 《자유 통상 지대》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1960년 5월 3일 정식 성립되였다.

이 기구는 영국이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리권을 유지하며 령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서독과 프랑스의 주관 하에 있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대항하여 결성된 배타적인 경제 쁠럭이다.

【기구】 각료 회의(최고 기관), 리사회, 서기국, 자문 위원회 등이 있다.

본부 소재지 제네바

【사업】 구라파 자유 무역 련합 사무국은 1964년 9월 28일 제 4 차 년간 총화 보고(1963년 7월—1964년 6월)를 발표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1964년 1월 1일부터 공업 제품에 대한 지역 내 관세를 10% 인하하여 현재 지역 내 관세는 1960년 수준의 40%로 되고 있다. 지역 내 관세는 1965년 1월과 1966년 1월에 각각 10%씩, 1967년 1월에는 20% 인하하여 전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64년 11월 19—20일에 걸쳐 제네바에서 각료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영국을 일방으로 하고 기타 6 개 성원국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의 충돌이 격화되였다. 영국이 1964년 11월에 일방적으로 15%의 수입세 부과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기타 6 개 성원국은 이것을 배신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자기 나라의 위급한 국제 수지 악화에 대처하여 부득이 취한 림시적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철회할 수 없다고 응대하여 동 련합 조직 이후 가장 심각한 모순이 발로되였다.

세계 평화 리사회
The World Council of Peace

【성립】 1949년 4월 20—25일 간에 빠리와 쁘라하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 1 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는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을 지도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50년 11월 16—22일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 2 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는 상설 위원회를 해체하고 세계 평화 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성원】 세계 평화 리사회는 88 개 국가 및 8 개의 국제 기구 대표로 구성되여 있다.

【기구】 리사회, 뷰로,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집행 위원회 위원장 존 버널 (영국)

본부 소재지 윈

기관지 《평화 옹호》, 《세계 평화 옹호 리사회 통보》

【사업】 1964년 4월 25—27일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페슈뜨에서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정세 특히 남부 웰남 정세, 평화 운동 앞에 제기된 과업, 국제적인 평화 옹호 운동의 강화 발전과 관련된 조직 문제들을 토의하고 남부 웰남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각국 평화 옹호 위원회들에 보내는 호소문을 비롯하여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9월 22일 세계 평화 리사회는 민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리사회는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온갖 군사적 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자기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각국 평화 옹호 위원회와 전체 평화 투사들에게 호소》하였다.

12월 6—9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에서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한 집행 위원회 위원장 존 버널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일련의 문전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일반 선언》에서는 남부 웰남, 꾸바, 꽁고(레) 및 끼쁘로스와 또한 자주권을 고수하는 기타 나라 인민들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및 식민주의와 신 식민주의 침략을 규탄하였다. 선언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애국적 력량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에게 항상 련대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한 서독 정부가 나치스 전범자들의 범죄 행위들이 오래 전의 것이라는 구실 밑에 1965년 5월 8일부터 그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데 항의하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회의는 1965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헬싱키에서 세계 평화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The Organization For The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성립】 1955년 4월 6—10일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 제국 회의에서 창설된 《아세아 단결 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1957년 12월 26일—1958년 1월 1일까지 까히라에서 열렸던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창설되였다(당시 명칭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리사회).

1960년 4월 11—15일에 꼬나크리에서 열린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 목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단합하고 협조하며 인민들의 해방을 촉진하고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성원】 아세아 아프리카 60 여개 나라들의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들이 망라되여 있다.

【기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 리사회, 집행 위원회, 상설 서기국 등이 있다.

대회는 최고 기관으로서 2년에 한번씩 소집된다. 대회는 1964년까지 3 차 진행되였다.

리사회는 기구 성원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1964년까지 6 차 진행되였다.

집행 위원회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27 개 국으로 구성되여 있다(성원 27 명). 집행 위원회도 1964년까지 6 차 진행되였으며 서기국은 12 개 나라로 구성되여 있으며 수시로 회합을 가진다.

기구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본부 소재지 까히라

【사업】 1964년 3월 22—27일에 알제(알제리)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50여 개 국 대표 약 300 명의 참가하에 리사회 제 6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 의정에는 제국주의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의 지배를 청산하며 철저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세계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아세아 아프리카의 단결을 공고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아세아 아프리카의 해방 투쟁을 원조하며 신구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 문제들이 포함되였다.

회의에서는 일반 선언과 일반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 그리고 우리 나라에 관한 결의들을 포함한 기타 일련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들은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 특히는 미 제국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완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는 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한 운동을 조직할 것과 미제가 조선 전쟁을 도발한 날인 6월 25일부터 정전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를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월간으로 기념할 것을 호소하였다.

《한일 회담에 관한 결의》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한일 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들의 투쟁과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재일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을 전체 산하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제 4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를 아크라(가나)에서, 제 5 차 대회를 베이징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집행 위원회의 다음 번

회의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각각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 기자 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성립】 1946년 6월 코펜하겐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27 개 국의 28 개 기자단체

【기구】 최고 기관으로서 대회(4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쟝 모리스 에르망(프랑스)

서기장 이르쥐 메이즈네르(체스꼬슬로벤스꼬)

본부 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민주 기자》

【사업】 1964년 4월 27—30일 알제에서 열린 집행 위원회는 80 명의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기자 동맹 사업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일련의 결의들 즉 신생 국가들에서의 기자 활동에 실제적인 방조를 주며 진보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기자들의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그 첫 걸음으로서 남북 조선 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서신 거래, 인사 래왕 특히 기자들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기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의 필봉을 더욱 높이 들 것을 전 세계 진보적 기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결의는 또한 남조선 당국이 량심적인 남조선 기자들의 취재 보도 활동을 계속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다.

2월 20일 동맹 서기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이 일본 당국의 부당한 방해 책동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수상에게 항의 전문을 보냈다.

6월 12일 국제 기자 동맹은 남조선 박 정희 도당에게 전문을 보내여 출판 및 방송 일'군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Afro—Asian Journalists Association

【성립】 1963년 4월 24—30일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에서 구성되였다.

협회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기자들, 인민들 및 그 정부들 간의 밀접한 협조를 설정하며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정의와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민족적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할 공인된 목적을 가진 우호적인 조직체이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 48개국 기자 단체

【기구】 기구로서는 대회, 서기국, 상설 서기국이 있다. 대회(최고 기관)는 2년에 1 차 소집하며 서기국(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쎄일론, 수리아, 말리, 알제리,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프리카)은 매년 1회 이상 전원 회의를 진행한다.

서기장 쟈워로(인도네시아 기자 협회 위원장)

상설 서기국 소재지—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

기관지 《아세아—아프리카 기자》(영문, 프랑스문)

【사업】 제 1차 대회후 3차의 서기국 전원 회의를 가졌다. 1차, 2차는 1963년에, 3차 전원 회의는 1964년 11월 27—29일까지 반둥(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신 식민주의 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꽁고(레) 인민의 영웅한 투쟁과 남부 웰남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고 《미제를 주력으로 하는 신 식민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3대륙의 해방 운동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되였다.

회의는 1965년에 진행될 제 2차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기국에 일임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포함하여 20건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국제 건축가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성립】 1948년 국제 건축가 상설 위원회와 국제 건축가 대회가 련합하여 성립되였다. 이 동맹은 건축가들 간의 국제적 협조와 련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59개 국 53개 단체들

【기구】 최고 기관으로서 대회(2년에 1 차 소집), 집행 위원회와 집행국이 있다.

위원장 로버트 매튜(영국)

부위원장 양 정보(중국)

본부 소재지 빠리

기관지 《국제 건축가》(격월간)

【사업】 1964년 5월 26일—6월 1일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는 분과 위원회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다른 국제 기구들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지역적 그루빠로서 민족 분과들의 구분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국제 방송 및 텔레비죤 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IRTO

【성립】 1946년 6월 28일 브뤼

쎌에서 성립. 이 기구는 세계 평화와 인민들 간의 친선과 문화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 라지오, 텔레비죤 및 방송 수단들이 리용되도록 하며 선진 방송 기술을 보급히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3 개 국의 방송 기관들

【기구】 총회(2년에 1차 소집), 행정 리사회, 4 개의 위원회, 총서기처가 있다.

행정 리사회 위원장 멤쎄 이슈트반

본부 소재지 쁘라하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성립】 1946년 10월 빠리에서 결성되였다.

협회의 목적은 법을 평화 옹호에 복무케 하며 법률학의 발전, 각국의 법률가들 및 법률 단체들 간의 접촉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포함한 63 개 국의 단체들과 법률가들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3년에 1차씩 소집), 리사회, 상설 위원회, 서기국

명예 위원장 디. 엔. 프리트(영국)

위원장 피에르 코트(프랑스)

서기장 죠오 노르드만(프랑스)

본부 소재지 브류쎌

【사업】 1964년 3월 31일—4월 5일 부다페슈뜨에서 64 개 국가에서 온 대표들의 참가 하에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제 8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 5일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리 진수는 자기 발언에서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현 시기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앞에 나선 기본 임무로 간주할 것을 대회에 요구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에서는 미제가 국제법의 제 원칙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면서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이를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켰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결의에서는 또한 미제가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핵 무기를 비롯한 신형 무기를 반입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1963년 11월 21일 남조선 련천에서 원자 포탄을 발사하여 수 많은 인민들을 살상하는 등 범죄 행동을 감행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결의는 조선 문제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 전 세계 민주 법률가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세계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

【성립】 1945년 9월 25일—10월 9일 빠리에서 57 개 국의 65 개 민족 직맹 (맹원 6,700만 명)을 대표하여 215 명의 참가 하에 진행된 창립 대회 10월 3일 회의에서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성립되였다.

【성원】 69 개 국 민족 중앙 조직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맹원 수는 1억 1,950만 6,300명 (1961년 말 현재)

【기구】 대회(최고 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총리사회(대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이 련맹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총리사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매년 2차 소집), 집행 뷰로(세계 직련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며 집행 위원회 휴회 기간의 사업을 담당), 서기국(1명의 서기장과 9명의 서기로 구성)이 있다.

위원장 레나또 비또씨(이딸리아)

서기장 루이 싸이양(프랑스)

본부 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세계 직맹 운동》

【산하 산별 직맹】 11 개의 산별 직맹이 있다.

국제 금속 및 기계 로동자 직맹

국제 광산 로동자 직맹

국제 화학 및 섬유 로동자 직맹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맹

국제 건축, 목재 및 건재 로동자 직맹

국제 운수, 항만 및 어업 로동자 직맹

국제 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 로동자 직맹

국제 식료, 담배, 음료 공업 및 호텔, 카페, 레스토란 로동자 직맹

국제 상업 일'군 직맹

국제 공무원 직맹

국제 교원 직맹

【사업】 1964년 10월 19—24일 부다페슈뜨에서 총리사회 제 13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의 리익과 권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세계 직련의 통일 정책을 실현할 데 관한 루이 싸이양의 보고, 세계 직련 제 5 차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투쟁에 관한 문제, 세계 직련 제 6 차 대회 날'자 및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행동 통일에 대한 세계 직업 련맹의 호소문》, 《웰남 인민 및 근로자들의 투쟁과의 련대성 결의》, 1965년 10월에 와

로샤와에서 세계 직련 제 6 차 대회를 진행할 데 관한 뽈스까 직업 동맹의 제의를 채택하였다.

총리사회는 꽁고(레) 전국 로조 련맹, 남부 윁남 해방 로조 련맹, 마르티니크 전국 로조 대회, 기아나 로동 총련맹을 포함한 새로운 로조 단체들의 세계 직련 가입을 승인하였다.

3월 18—20일 쏘피아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 제 27 차 회의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온 집행 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 직련의 활동과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직맹의 행동 통일 정책의 전개와 관련한 세계 직련 서기장의 보고와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의 세계 직련 산하 로조 단체들의 역할》 문제들을 토의하고 일련의 결정들과 결의들 그리고 1964년 5.1절에 제한 직련의 서한, 라틴 아메리카 근로자 통일 로조 상설 리사회 서기국에 보내는 서한,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 조인 10주년에 제하여 세계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 로조들에 보내는 서한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계속하여 베네수엘라 근로자 총련맹과 마르티니크 로동 총련맹의 세계 직련 가맹 요청을 승인하였다.

1월 16—18일 쁘라하에서 진행된 세계 직련 집행 뷰로 제 44차 회의에서는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 27 차 회의와 근로 녀성 문제에 대한 제 2차 국제 회의 소집 준비를 위한 세계 직련의 당면한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3월 5일 세계 직련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항의문을 보냈다.

세계 민주 청년 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WFDY

【설립】 1945년 11월 10일 63개 나라의 청년 대표 437명의 참가하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 민청 대회에서 창건되였다.

【성원】 세계 97 개 국의 1억 100만 명 (1960년 말 현재)

【기구】 최고 기관은 대회 (3년에 1차 소집)이고 대회 밑에 집행 위원회,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로돌프 메치니 (1964년 1월 8일 취임, 이딸리아인)

본부 소재지 부다뻬슈뜨

기관지 《세계 민청》 (11개 어로 출판)

【사업】 1964년 7월 10— 14일까지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 회의에는우리 나라를 비롯한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적 자유 및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 청년 운동의 통일 단결 및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민주 청년 련맹의 과업을 토의하고 일반 결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독일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등을 채택하였다.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 군대의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 및 청년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회의는 또한 다오메, 앙골라, 인도네시아, 희랍, 카나다, 아르헨띠나, 레유니옹의 일련의 민주 청년 단체들을 새로 가입시켰다.

2월 21일 련맹 뷰로는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낼 것을 호소하여 국제 및 각국의 청년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였다.

4월 16일 련맹 서기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4.19 봉기 4주년에 제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각국 청년 단체들과 전 세계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일 련맹 뷰로 회의에서는 이 련맹 제 6 차 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해마다 6월 25일—7월 1일에 맞게 되는 조선 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에 제하여 각국 청년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6월 6일 련맹 뷰로는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6월 12일 련맹 뷰로는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6.25 14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뷰로는 전 세계 진보적 청년 학생들의 이름으로 미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 전문을 채택하였다.

국제 학생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IUS

【설립】 1946년 8월 18—27일 쁘라하에서 48 개 국 학생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제 1 차 세계 학생 대회에서 창설되였다. 동맹은 학생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학생 조직들이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78개의 민주 학생 단체

【기구】 대회(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매년 2 차 소집) 및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즈보메츠 보고로우클리쯔끼 (체스꼬슬로벤스꼬)

기관지 《세계 대학생 소식》(월간)

【사업】 1964년 11월 28일—12월 9일까지 쏘피아에서 국제 학생 동맹 제 8 차 대회가 64 개국 학생 단체 대표들과 27 개 단체의 옵써버들, 그리고 9 개의 각종 국제 단체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 세계 학생 운동의 통일을 위한 국제 학생 운동의 투쟁 경험과 발전, 1962년 8월에 진행된 제 7 차 대회 이후의 국제 학생 동맹의 사업과 금후 과업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100여 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11월 29일 회의에서 꽁고 (레)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꽁고(레)에 대한 미국 및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규탄하고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미국 및 벨지끄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꽁고(레) 학생 및 인민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전 세계 학생들에게 미제와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동에 항의하는 광범한 투쟁을 즉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성명은 미제가 꽁고(레)와 기타 모든 강점 지역에서 물러 갈 것을 요구하였다.

대회는 살바도르, 가나, 부룬디, 탄가니카, 레유니옹, 레바논, 나이제리아, 꼴롬비아, 프랑스, 요르단, 케니아, 빠나마, 뻬루, 우간다, 알제리, 수리남, 희랍, 잔지바르, 잠비아, 끼쁘로스, 영령 기아나, 룩셈부르그의 학생 단체들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쿠르드 학생 협회를 동맹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집행 위원회와 서기국을 선거하였다.

1964년 2월 12—22일 부다뻬슈트에서 집행 위원회 회의가 우리 나라 학생 대표단을 비롯한 40여개 학생 대표단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는 3일 간 남부 웰남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 회의를 진행한 다음 본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1963년 5월 알제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가 있은 이후 기간의 국제 학생 동맹 및 그 서기국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2월 21일 회의는 조선에 관한 결의와 재일 조선 학생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의 실현을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18년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극동과 아세아 침략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핵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온갖 군사적 도발 행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결의는 7 차 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 및 학생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과 관련하여 광범한 국제적 깜빠니아를 조직할 것을 서기국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적극 참가할 것을 전 세계 학생들과 그들의 조직들에 호소하였다.

1964년 11월 14—17일 간에 쁘라하에서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학생 동맹 제 8 차 대회의 의정과 대회의 심의에 제출될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의 보고 초안이 토의되였다.

1964년 4월 15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은 남조선 인민의 4.19 봉기 4주년에 제하여 미제의 주구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통치와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항의문을 채택하였다.

1964년 6월 23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은 조선 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6월 25일—7월 1일)에 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싸우는 남조선의 인민들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서한은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의 파쑈 통치와 폭압을 박차고 애국적 항쟁의 불'길을 높이 든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내였다.

국제 민주 녀성 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성립】 1945년 12월 1일 빠리에서 진행된 제 1 차 국제 녀성 대회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80여 개 국가의 녀성 2억 이상을 망라(1962년)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대회(4년에 1차 소집)가 있고 그 밑에 리사회 (매년 1 차 소집),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유제니 코똥(프랑스)

서기장 로자 야소비치 꽌뗄메온(아르헨띠나)

본부 소재지 베를린

기관지 《전 세계 녀성》(월간)

【사업】 1964년 10월 20—25일 쏘피아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66 개 국 대표들과 7 개의 국제 단체 대표들의 참가 하에 리사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세계 녀성 대회(1963년 6월)이후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활동과 1965년 사업 전망, 아동 문제 및 국제 협조 회의 참가에 관한 보고, 농촌 녀성들의 생활 조건과 그들의 권리, 농촌 녀성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위한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과업에 관한 보

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국제 녀맹 부위원장 및 서기국을 선거하였다.

1964년 12월 15—19일 쏘피아에서 뷰로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사업 방법과 잡지 문제(국제 민주 녀성 련맹 월간 잡지 《전세계 녀성》)을 토의하고 1965년도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창립】 1894년 6월 23일 프랑스 빠리에서 열린 국제 체육 단체 회의(후에 이 회의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1 차 총회라고 부름)에서 창립되였다.

【성원】 115 개 나라 올림픽 단체(1964년 10월 현재)

【기구】 위원회(최고 기관)는 69명의 위원으로, 집행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1964년 10월 현재)

위원장 애버리 브란데지(미국)

부위원장 엑쎄터(영국), 맛사드(프랑스)

서기장 에리히 요나스(스위스)(1964년 6월 26일 취임)

본부 소재지 로잔느(스위스)

【사업】 1964년 1월 28—29일에 오지리의 인스브룩크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1 차 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알제리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4 개 국을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성원으로 새로 받아 들이고 배구를 정식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총회는 또한 1968년 동기 올림픽 경기 대회 장소를 프랑스의 그레노볼로 선정하였다. 총회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 참가를 금지시켰다.

1964년 6월 26일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제 4 차 아세아 체육 대회에 장 개석 도당과 이스라엘을 참가시키지 않았다는 리유로 인도네시아에 가하였던 부당한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5월 20일 알제리, 아랍 등을 포함한 13개 아랍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당한 《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하는 수 없이 취한 조치이다.

1964년 10월 8일 도꾜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각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합동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도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이 가네포 참가 선수들에게 가한 부당한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격렬한 론쟁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는 가네포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올림픽 도꾜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쏘련, 아랍 련합 공화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 대표들이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의 부당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와 아마추어 륙상 협회, 아마추어 수영 협회는 가네포에 참가하였다는 부당한 구실로 신 금단 선수를 비롯한 우수한 선수들을 올림픽에서 제외하려는 부당한 책동을 시급히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두 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에 전문들을 보냈다.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0 차 총회의 결정과 대회에 참가할 데 대한 도꾜 올림픽 조직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선수단을 제 18 차 올림픽 대회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 및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의 지도부에 틀어 앉은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국제 스포츠 기구의 권위를 도용하여 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끝까지 방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선수단 단장은 조선 선수단이 도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선수단 전원이 일본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0월 9일 도꾜를 출발하여 귀국하였다. 인도네시아 선수단도 성명을 발표하고 도꾜 올림픽 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10월 10일 철수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아마추어 륙상 및 수영 련맹의 이 부당한 《제재》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여 세계 각국 사회계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및 로동 조합 총평의회를 비롯한 28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은 10월 1일 도꾜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네포 참가자들에 대한 일부 국제 체육 련맹들의 란폭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일본의 30여 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은 10월 8일에도 일부 국제 체육 련맹들이 고집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쏘련, 알바니아, 꾸바, 메히꼬, 아랍 등 각국 사회계가 가네포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여 나섰다.

1964년 10월 4—6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집행 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2 차 총회의 의정 문제를 토의하였다.

1964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도꾜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2 차 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위원장 선거와 신 가맹국의 승인 문제,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범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

이 토의되였다. 총회는 또한 가네포 참가자들에 대한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들의 부당한《제재》조치를 고집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총회는 올림픽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삼는다는 것과 국제 정구 련맹을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승인한 련맹으로 재 가입시킨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10월 10일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은 제 24 차 련맹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아마추어 륙상 협회를 비롯한 14개 국 단체를 승인하였다.

1964년 10월 6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 리사회는 1964년 8월에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가네포 수영 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선수들에게 또다시 8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2개월 간의 부당한《권리 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체육 련맹 내의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신흥 세력 국가들에 대하여 악랄한 음모 책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리사회는 1963년 11월에 진행된 제 1 차 가네포 대회와 1964년 8월의 가네포 수영 경기 대회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수영 선수들에게도 18 개월간의 부당한《권리 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가네포 련맹

Federation of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창립 경위 및 목적】 1963년 2월 1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제재 조치(1962년 8월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 4차 아세아 경기 대회에 장 개석 도당과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에 대처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의 조직을 발기하였다.

동년 4월 27—29일까지 쟈까르따에서 12 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 하에 가네포 창설 준비 회의가 진행되였다. 준비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63년 11월 10—22일에 쟈까르따에서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 진행되였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구라파의 49 개 국가 및 지역을 대표하는 3,000 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이 참가).

1963년 11월 24—25일에 48 개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제 1차 가네포 대표자 회의(총회)에서는 상설적인 신흥 세력 체육 경기 기구인 가네포 련맹을 창설할 것과 신흥 세력 체육 경기 대회를 4 년에 한 번씩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가네포 련맹의 목적은 신흥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자립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체육 사업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독점을 반대 배격하고 전 세계 인민들의 지향에 기초하여 세계 체육 스포츠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있다.

【성원】 1964년 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48 개국

【기구】 총회(최고 기관), 집행국(14 명의 성원으로 구성), 상설 서기국

본부 소재지 쟈까르따

명예 위원장 수카르노(인도네시아 대통령)

집행국 위원장 말라디(인도네시아)

부위원장(4 명)—아세아 담당 황 중 (중국), 아프리카 담당 데루니(아련), 구라파 담당 까.아호메또브(쏘련), 라틴 아메리카 담당 (결원)

【사업】 1964년 8월 19—21일에 쟈까르따에서 가네포 제 1차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 1 차 가네포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자격을 정지시킨 아마추어 국제 륙상 련맹과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의 불공정한 도전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쟈까르따에 상설 서기국을 설치하며 1965년 까히라에서 최고 간부 회의를 열 것과 1967년에 까히라에서 열릴 제 2 차 가네포의 경기 종목으로 야구, 녀자 자전거 등 3 개 종목을 새로 첨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

요르단 강 물'줄기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리려는 계획에 대처하여 아랍 련맹 성원국 수반들이(팔레스티나가 옵써버로 참가) 1964년 1월 13—17일에 까히라에서 제 1 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의 지지 하에 요르단 강 물'줄기를 변경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하고 아랍 계획의 작성, 아랍 합동군 사령부의 설치, 팔레스티나 아랍인들의 권리 회복에 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제 2 차 수뇌자 회의는 1964년 9월 5—11일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진행되였다.(8월 31일 수뇌자 회의의 의정을 토의하기 위한 외상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요르단강 수로의 개발, 아랍 합동군 사령부의 창설, 팔레스티나의 지위, 팔레스티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아랍 국가 외상들의 각국 방문 결과에 관한 보고, 남 아라비아 문제, 아랍 국가들의 경제, 문화 및 보도 협조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요르단강과 그 지류의 물을 개발하기 위한 아랍 계획에 착수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팔레스티나 해방 기구를 인정하며 팔레스티나군의 창설을 승인하였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남부 예멘과 오만의 해방 투쟁에 원조를 줄 것과 아랍 사법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 2 차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는 매년 9월에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를 열며 집행 위원회를 수상급, 대통령급에서 4 개월에 한번씩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0 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는 일본의 원자 및 수소탄 금지 협의회의 호소에 의하여 1955년 이래 해마다 일본에서 진행된다.

제 10차 대회는 1964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국제 회의(7월 30일—8월 2일), 총회(8월 3일), 분과 회의(8월 4—5일), 대회(8월 7일, 8월 9일) 등으로 진행하였다.

국제 회의는 도꾜에서 우리 나라(단장은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상임 위원회 부의장 리계백)를 포함한 55 개 나라와 8개 국제 단체에서 온 175 명의 외국 대표들과 187 명의 일본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핵 전쟁을 방지하고 핵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동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호소문》과 《각국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라는 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결의와 호소문들은 인류를 핵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 넣으려는 미제의 범죄적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현 시기 원수폭 금지 운동 및 세계 평화 옹호 운동 앞에 제기된 절박한 과업들과 그 해결 방도들을 천명하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나라의 통일과 완전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과 웰남 인민의 투쟁, 일본의 군국화와 핵 무장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총회는 3만 5천 명 이상의 일본 각지 대표들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52 개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를 포함한 8 개 국제 기구에서 온 163 명의 대표들의 참가 하에 교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 개막에 앞서 회의 참가자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핵 무기의 완전 금지를 위하여 투쟁하자는 구호 밑에 시위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도꾜 국제 회의에서 한 총보고를 토의하였으며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전쟁 도발을 반대하는 긴급 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 7일 히로시마에서는 원자탄 피해자 구원 집회를 가졌으며 8월 9일 나가사끼에서 제 10 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를 페막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사업을 파괴하며 평화 력량 내에 분렬을 조성하려던 미제와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미제의 핵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투쟁에서 평화 력량의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일치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이리 하여 금번 대회는 원수폭 금지 운동과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64년 베이징 과학 토론회

1964년 베이징 과학 토론회는 1963년 9월에 있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양주의 22 개국 과학자 대표들이 참가한 예비 회의를 거쳐 1964년 8월 21—31일 간에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대양주의 44 개국과 지역에서 온 367 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자연 과학, 공학, 농학, 의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철학 및 력사, 교육, 언어 및 문학 등 8 개 분과 별로 진행되였으며 350 명의 과학자들이 도합 299 편(그 중 우리 나라 론문 19편)의 학술 론문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과학자들이 달성한 과학 연구 성과와 경험이 교환되였으며 민족적 독립의 쟁취 및 수호, 민족 경제와 과학 문화의 발전, 호상 간의 과학 기술 협조의 강화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남에게 의존하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걸 수 없으며 자력 갱생함으로써만 민족 문화와 과학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반제 투쟁을 사회적 진보와 과학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평화와 과학의 위업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1968년에 베이징에서 또다시 과학 토론회를 진행할 것과 이 준비 사업을 위하여 베이징에 1968년 베이징 과학 토론회 련락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는 1964년 10월 5—10일 간에 아랍 련합 공화국 수도 까히라에서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1964년 3월 쎄일론, 아랍 련합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3 개국의 발기로 쎄일론의 콜롬보에서 준비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10월 1—5일에는 까히라에서 수뇌자 회의 의정 초안을 토의하기 위한 외상 회의가 열렸다.

제 2 차 뻘러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는 47 개국 (제 1 차 회의에는 25 개국 참가)의 수뇌자 또는 기타 전권 대표들과 옵써버로서 10 개국의 대표들, 아프리카 통일 기구 사무장, 아랍 국가 련맹 서기장이 참가하였다.

회의를 파괴하려고 까히라에 기여 들었던 미제의 괴뢰 쏨베는 외상 회의와 수뇌자 회의 참가자들의 거부로 회의에는 참가하지도 못 하고 연금 당하였다가 쫓겨나고 말았다.

개막 회의에서 김 일성 수상의 축전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의 축전이 랑독되였다.

회의는 1. 국제 정세에 관한 일반 토론 2. 세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 및 공고화; 국제 문제 해결에서의 신흥 국가들과 민족 해방 운동의 적극적 역할의 제고, 아직도 예속 하에 있는 나라들의 해방을 위한 일치한 조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 차별 및 인종 격리 정책, 군사 조약, 외국 군대 및 기지들의 청산 3. 경제 개발 및 협조 4. 문화, 과학 및 교육 협조 5.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외상 회의와 수뇌자 회의는 격렬한 론쟁 끝에 무원칙한 《평화적 공존》을 의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 유고슬라비아와 인도의 주장을 물리치고 《일치 단결하여 예속 상태에 있는 나라들의 해방을 쟁취하며 식민주의, 신 식 민주의 및 제국주의를 청산하자》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는 국제 긴장 상태와 충돌의 기본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회의는 전 세계 각지에서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과 영국, 뽀르뚜갈 등 구 식민주의를 규탄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회의 선언에는 《해방 과정은 막을 수 없으며 역행시킬 수도 없다. 만일 식민지 소유 국가들이 식민지 인민의 응당한 념원을 완고하게 반대한다면 식민지 인민들은 정당하게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자결과 독립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에게 정신적, 정치적, 물질적인 필요한 온갖 원조와 지지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케 하려는 유고슬라비아 찌또 도당의 무원칙한 《평화적 공존》을 물리치고 반제 투쟁이 《평화적 공존》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 선언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 식민주의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평화 공존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또한 분렬된 나라들의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회의 선언은 분렬된 《나라 인민들에게 전적인 동정을 표시하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념원을 지지》하였다.

제 2 차 뻘러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는 회의를 파괴하며 자기들의 추악한 《로선》을 강요하려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반제 반식민주의 력량의 단결에 이바지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는 1964년 11월 10일에 진행된 웰남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웰남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웰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의 합동 회의, 결정에 의하여 하노이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남부 웰남에서 미제의 범죄적 음모 책동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들에 대한 세계 여론의 더욱 광범한 지지를 받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회의는 1964년 1[illegible]월 25—27일에 웰남 민주 공화국 인민 대표단,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그리고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한 50여 개 나라들과 12개 국제 단체의 대표 약 150 명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웰남 민주 공화국 인민 대표단 단장인 황 국월의 보고와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의 보고 및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의 연설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웰남에 관한 결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남부 웰남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등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웰남에 관한 결의》에서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남부 웰남 인민들에게 더욱 더 강력한 물심 량면의 지원을 줄 것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긴급히 호소하였으며 제네바 협정의 일관한 립장과 그 제안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에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가 물러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 웰남 인민이 최후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창건 기념일인 12월 20일을 남부 웰남 인민과의 국제적 단결의 날로서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료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 주요 년표

(1866—1945)

년 대	내 용
1866. 9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해적선 《샤만호》를 격침
〃 11	강화도에 침입한 불란서 함대를 격퇴
1871. 7	강화도에 침입한 미국 《조선 원정 함대》를 격퇴
1875. 9	강화도 초지진에 침입한 일본 군함 《운양호》를 격퇴
1876. 2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체결
1882. 7	임오 군인 폭동
1884. 12	갑신 정변
1894—1895	갑오 농민 전쟁
1895	전국 각지에서 반일 의병 부대들의 궐기
1896. 11	첫 애국적 정치 단체인 《독립 협회》 창설
1905. 11	《을사 보호 조약》 체결, 반일 의병 투쟁과 애국적 정치 문화 운동의 앙양
1906—1908	《대한 자강회》, 《서우 학회》를 비롯한 학회들의 출현
1907	《정미 7 조약》의 체결, 조선 군대의 해산을 계기로 의병 투쟁이 전국적 규모에로 확대 발전
1910. 8	《한일 합병 조약》 체결
1917. 11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
1919. 3	3.1 인민 봉기
〃 11	겸이포 제철소(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의 파업
1920	각지에서 맑스-레닌주의 소조 조직
〃 4	조선 로동 공제회 조직
1921. 9	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총파업
1922. 9	경남 진주에서 소작인 대회 진행
1923. 5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5.1절 기념 투쟁
〃 8	부산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	평양 양말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1924. 1	전남 하의도 농민들의 투쟁
〃 3	군산 정미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	전남 무안군 암태도 농민들의 소작 쟁의
〃 4	조선 로농 총동맹 창립
〃 〃	조선 청년 총동맹 창립
〃 12	황해도 재령 북률 《동양 척식 회사》 소작인들의 소작 쟁의
1925. 2	경성 전기 회사 전차 종업원들의 파업
〃 4	조선 공산당 창건
〃 8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카프) 조직

년 대	내 용
1926	김 일성 동지 공산 청년 동맹에 가입
〃 6	6.10 만세 운동
1927. 2	신간회 조직
〃 9	조선 로농 총동맹을 조선 로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하여 조직
〃 10	함남 영흥 흑연 광산 로동자들의 파업
〃 11	전북 옥구 농민들의 소작 쟁의
1928. 9	문평 《라이씽썬 석유 회사》 로동자들의 파업
〃 12	조선 공산당의 해산
1929. 1	원산 로동자 총파업
〃 〃	경남 김해군 《박간 농장》 농민들의 소작 쟁의
〃 가을	평북 룡천 《불이 농장》 농민들의 소작 쟁의
〃 11	광주 반일 학생 운동
1929—1930	김 일성 동지 길림 감옥에서 옥중 생활
1930	김 일성 동지 공산 청년 동맹 길동 지구 위원회 비서로 활동
〃 1	부산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5	전국 각지에서 5.1절 기념 투쟁
〃 6	함남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폭동
〃 7	함남 단천 농민들의 폭동
〃 8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1931. 9	동만에서 농민들의 추수 폭동
〃 10	함남 영흥 농민들의 폭동
1931	김 일성 동지 공산당에 입당
〃 12	강원도 삼척 농민들의 폭동
〃	명천, 길주, 성진, 북청, 홍원, 정평, 문천 등지에서 농민들의 투쟁
1932. 1	전남 광양 금광 로동자들의 파업
1932. 〃	경성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	함북 웅기 하천 공사 로동자들의 폭동
〃 〃	전북 김제군 《다목 농장》 농민들의 소작 쟁의
〃 〃	제주도 해녀들의 시위
〃 2	경남 량산, 함안 농민들의 폭동
〃 3	동만에서 농민들의 춘황 폭동
〃 4	김 일성 동지에 의한 항일 유격대 창건
〃 봄	전남 령암 농민들의 폭동
〃 여름	동만에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창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 인민 혁명 정부 수립,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 개혁의 실시
〃 7	함흥 편창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11	충남 대전 군시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1933. 6	김 일성 동지 반일 부대와의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하여 라자구에서 담판
〃 9	동녕현성 진공 전투

년 대	내 용
1933. 9	경성 종연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11	전북 옥구 《웅본 농장》 농민들의 소작 쟁의
1933. 12—1934. 1	왕청현 소왕청 방어 전투
1934. 3	인민 혁명군 편성
〃 4	사리원 동양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6	왕청현 라자구 전투
〃 〃	안도현 대전자 전투
〃 10	흥남 제련소 로동자들의 파업
〃 〃	신의주 왕자 제지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말	인민 혁명군 부대의 북만 원정(1차)
1935. 2	동흥 전투
〃 〃	강원도 삼척 농민들의 소작 쟁의
〃 2—3	왕청현 다홍왜 회의
〃 3	갑산 공작 위원회 조직
〃 〃	겸이포 제철소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의 태업
〃 〃	왕청현 요영구 회의
〃 5	경도선 할바령 렬차 습격 전투
〃 〃	인민 혁명군 소부대의 무산, 풍산 지구 진출
〃 6	동녕현 로흑산 전투
〃 여름	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의 북만 원정 개시
〃 7	녕안현 산동툰 전투
〃 〃	남포 제련소 로동자들의 파업
〃 8	부산 삼화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12	액목현 관지 부근 전투
1936. 2	녕안현 남호두 회의
〃 〃	인천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 3	안도현 미혼진 회의
〃 5	무송현 동강 회의
〃 〃	조국 광복회 결성,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발표
〃 6	무송현 서강 전투
〃 8	무송현성 전투
〃 〃	전남 광주 종연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하반기	장백 근거지 창설
〃 9	요하현 신흥툰 전투
〃 〃	장백현 대덕수, 소덕수 전투
〃 12	조국 광복회 기관지 《3.1 월간》 창간
1937. 1	조선 민족 해방 동맹 결성
〃 2	장백현 홍두산 전투
〃 〃	장백현 리명수 전투
〃 〃	부산 부두 축항 건설 로동자들의 파업
〃 3	무송현 서강 회의
〃 5	안도현 진창 전투

년 대	내 용
1937. 5	붉은 바위 전투
〃 6	조선 인민 혁명군의 조국 진출—보천보 전투
〃 〃	장백현 간삼봉 전투
〃 7	경성 조선 인쇄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8	인민 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 대회
1937. 9	김 일성 동지 중일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	휘남현성 진공 전투
〃 10	부금현성 전투
〃 겨울	의란현 영구산 전투
1938. 3	황해도 해주 세멘트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4	림강현 6도구 전투
〃 〃	황해도 홀동 광산 로동자들의 파업
〃 〃	부금현 배린산 전투
〃 6	인천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 가을	몽리하 강반 전투
〃 10	림강현 외차구 전투
〃 11	몽강현 남패자 회의
1938. 11—1939. 4	인민 혁명군의 몽강에서 장백에로의 진출—고난의 행군
1939. 4	장백현 북대정자 회의
〃 〃	청주 군시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 5	인민 혁명군 부대의 조국 진출—무산 지구 전투
〃 8	일제의 할힌골 침공과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 명령 발표
〃 〃	안도현 대사하, 대장강 전투
〃 9	돈화현 요차 전투
〃 10	안도현 한총구 전투
〃 12	돈화현 륙과송, 자신즈 전투
1940. 3	화룡현 대마록구 전투
〃 〃	화룡현 홍기하 전투
〃 4	수령현성 전투
〃 8	돈화현 소할바령 회의
〃 9	보청현 칠성하 전투
〃 11	조원현성 전투
1941—1945	인민 혁명군의 소부대 유격 활동, 조국 해방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1943. 10	평북 운봉 발전소 건설 로동자들의 파업
1944	평양 철공소 로동자들의 인민 혁명군 입대 기도
〃 11	청진 제철소 로동자들의 반일 반전 폭동 기도
1945. 8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쏘련 군대와 함께 대일 전쟁에 참가, 일제 패망과 조선의 해방,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인민 혁명군 조국으로 개선

인 민 경제 통계

사회 총 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사회 총생산액	100	21.9	163	355	797	12 배
		100	75	162	364	545
			100	218	488	732
				100	224	336
					100	150

사회 총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사회 총생산액	100	100	100	100	100	100
공 업	23.2	35.6	30.7	40.1	57.1	62.3
농 업	59.1	40.6	41.6	26.6	23.6	19.3
운수 체신	1.6	2.9	3.7	4.0	2.2	2.8
기본 건설	—	7.2	14.9	12.3	8.7	9.8
상품 류통	12.0	9.4	6.0	10.8	6.0	3.8
기 타	4.1	4.3	3.1	6.2	2.4	2.0

국민 소득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국민 소득	100	209	145	319	683	10배
		100	70	153	328	479
			100	220	470	689
				100	214	313
					100	146

국가 예산 수입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수입 총계	100	13배	32배	61배	123배	192배	214배
		100	252	475	966	15배	17배
			100	188	383	596	664
				100	203	317	353
					100	156	173
그중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	100	21배	44배	99배	265배	413배	460배 24배
		100	207	470	13배	20배	10.5배
			100	227	607	945	463
				100	267	416	173
					100	156	

국가 예산 지출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지 출 총 계	100	15배	37배	71배	146배	224배	253배
		100	252	486	10배	15배	17배
			100	193	397	611	689
				100	206	317	358
그 중					100	154	174
인민 경제 지출	100	35배	100배	298배	570배	938배	996배
		100	289	855	16배	27배	29배
			100	296	568	934	991배
				100	192	315	335
					100	165	175
사회 문화 시책비	100	13배	19배	41배	162배	217배	234배
		100	148	322	13배	17배	19배
			100	217	862	12배	13배
				100	397	533	576
					100	134	145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	100	252	197	386	539	631	709
		100	78	153	214	251	282
				100	140	164	184
					100	117	132
						100	112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공업 총생산액	100	337	216	615	21배	32배	37배
		100	64	183	635	936	11배
			100	285	990	15배	17배
				100	348	512	597
					100	147	172
생산 수단(A) 생산	100	375	158	640	23배	33배	37배
		100	42	171	617	870	10배
			100	405	15배	21배	24배
				100	361	509	585
					100	141	162
						100	115
소 비 재(B) 생산	100	288	285	598	20배	31배	37배
		100	99	208	689	11배	13배
			100	209	695	11배	13배
				100	332	517	619
					100	161	186
						100	120

주: 우리 나라 공업은 일제 시기 (1944년) 한 해 동안에 생산하던 공업 제품을 1964년에는 단 24일 간에 생산하였다.

공업 총생산액의 년 평균 장성 속도

	1947—1949	1954—1956	1957—1959	1957—1960	1954—1964
공업 총생산액	49.9	41.7	44.6	36.6	27.5
생산 수단 생산	55.3	59.4	46.5	37.7	28.7
소비재 생산	42.3	28.0	42.2	34.9	26.0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의 장성 (%)

	1949	1956	1960	1964
로동자, 사무원	100	165	386	410
1명당 평균 로임		100	234	248

농가 호 당 분배 몫의 장성 (%)

	1954	1958	1963
알 곡	100	239	372
현 금	100	506	12배

농업 기업소 수 (단위 개소)

	1953	1956	1958	1960	1964
국영 농목장	213	188	178	169	191
농기계 작업소	15	48	70	89	163
협동 농장	806	15 825	3 843	3 736	3 778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

	1946	1949	1956	1960	1964
경지 면적 총계	100	100	100	100	100
논	20.9	23.6	25.9	26.7	32.3
밭	79.1	76.4	74.1	73.3	67.7
밭중 과수원	1.4	1.0	0.9	2.7	5.2
뽕 밭	0.5	0.1	0.5	1.4	1.5
묘 포	—	—	0.1	0.2	0.2

관수한 면적의 장성 (%)

	1949	1953	1956	1960	1964
논 관개 면적의 장성	100	145	230	301	383

뜨락또르, 자동차 대수 및 그 작업량

	단위	1953	1956	1960	1964
뜨락또르 대수 (15마력 환산)	대	764	2.561	12 500	20 000
총작업 면적(연경 환산)	천정보	127	677	6 869	12 346
총 기경 면적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	%	2.6	10.5	36	53

주: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 대수는 1958년의 0.14대로부터 1964년에는 1 대에 달하였음.

농촌 전기화

	1953	1958	1964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전기가 들어간 리의 비률	47.2	59.3	95.5
전체 농가 중에서 전기가 들어간 농가의 비률	41.0	47.1	81.1

농촌 부문의 전화 및 방송 시설 (%)

	1953	1958	1963	1964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전화가 설치된 리의 비률	21.7	61.5	99.8	99.8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유선 방송기가 설치된 리의 비률	2.2	18.4	51.9	92.3

축산물 생산량의 장성 (%)

	1949	1953	1956	1960	1964
육류	100	83	94	264	410
양털	100	380	11배	21배	36배
우유	100	63	73	15배	28배
란류	100	103	191	364	591
꿀	100	50	132	404	548

운수 수단의 장성 (%)

	1953	1956	1960	1964
철도 영업 거리	100	108	113	114
그 중 전기 철도		100	327	1 165
화차 총수	100	200	219	293
자동차 총수	100	160	314	642
그 중 화물 자동차	100	145	288	627
려객 자동차	100	435	17배	…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

	단 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화물 순환							
철 도	백만 톤 키로메터	652	3 405	1 980	4 288	9 095	10 527
자 동 차	〃	9	35	64	129	552	729
선 박	백만톤 해리	13	19	6	16	73	139
화물 수송량							
철 도	백만톤	3.3	16.3	10.6	18.3	38.5	48
자 동 차	〃	0.2	1.5	2.2	9.2	78.6	110.6
선 박	〃	0.3	0.8	0.3	1.0	3.0	3.9

체 신 업 무 량

	단 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우편국 수	개 소	329	431	451	501	792	831
통상 우편 접수	천 통	7 248	43 576	29 399	44 915	72 470	94 796
소포 우편 접수	천 개	51	264	20	178	733	862
우편 송금 접수	천 건	—	242	125	369	935	998
전기 간행물 취급	천 부	—	136 051	140 049	202 168	286 478	202 837
전 보 접 수	천 통	679	1 161	812	848	1 411	2 469
시외 전화 접수	천 건	1 275	3 157	910	3 770	5 098	10 672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1957. 4. 1 가격)

	단위	1954—1956 년 평균	1957—1960 년 평균	1959—1963 년 평균	1961—1964 년 평균
기본 건설 총투자액	백만원	357	500	623	672
생산적 건설	〃	261	361	466	530
비생산적 건설	〃	96	139	157	142
총투자액에서 생산적 건설의 비중	%	73.1	72.2	74.8	78.9
총투자액에서 비생산적 건설의 비중	〃	26.9	27.8	25.2	21.1
총투자액에서 농촌 건설의 비중	〃	9.2	11.6	15.8	18.7

주 택 건 설 (단위 천m^2)

	1954—1956 3 개년 계획 기간	1957—1960 5 개년 계획 기간	1961—1964 7 개년 상반년간
건설한 주택 총 면적	10 278	11 280	13 468
그중 도시에 건설한 것	4 719	6 216	7 309
농촌에 건설한 것	5 559	5 064	6 159
건설한 주택 총 면적 중 국가 자금에 의한 것	4 317	8 104	9 891

종 업 원 수 (단위 천명)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평균 재적 종업원 수	260	565	575	808	1 458	2 018
년말 재적 종업원 수	—	—	628	850	1 506	20 92
그 중 녀성 종업원 수	—	—	165	169	493	780
녀성 종업원 수의 비률(%)	—	—	26.2	19.9	32.7	37.3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인민 경제 총계	100	217	221	311	561	776
그중 공 업	100	158	106	189	450	570
기본 건설		100	111	161	205	249
농 업		100	333	314	569	753
운 수			100	112	146	179
체 신			100	105	124	170
상업 및 수매		100	70	143	323	500

기술자, 전문가 수의 장성 (단위 명)

	1953.10.10	1957.9.20	1960.11.15	1964.10.31
기술자, 전문가 총수	21 872	73 358	133 466	233 506
기 사	1 837	5 860	11 991	43 544
기 수	6 763	22 429	57 978	136 250
전 문 가 }		15 410	26 005	66 347
중 등 전문가 }	13 272	29 659	37 492	47 365

천리마 작업반 수의 장성 (%)

	단위	1960년 말 현재	1964년 말 현재	1964/1960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 받은 작업반 수	개	928	22 260	24 배
인 원 수	명	21 167	852 552	40 3
로동자, 사무원	〃	21 102	285 808	14 배
협동 농장원	〃	—	340 297	—
학 생	〃	65	226 447	3 484 배
그중 천리마 작업반 수	개	15	266	18 배
천리마 직장	〃	—	48	—
천리마 공장	〃	—	1	—
천리마 학교	〃	—	6	—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 (대비 가격 %)

	1949	1953	1956	1960	1964
소매 상품 류통 총액	100	64	119	318	447
국영 및 협동 단체	100	83	205	642	897
국 영	100	72	231	10 배	16 배
협동 단체	100	94	180	259	213

주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1949	1953	1956	1964
식료 상품	100	108	164	579
육 류	100	—	169	11 배
수 산 물	100	9	74	208
식 용 유	100	64	113	13 배
채 소	100	72	519	39 배
과 실	100	—	517	14 배
비식료 상품	100	47	192	12 배
면 및 스프 직물	100	260	995	10 배
견 직 물	100	18	149	752
모 직 물	100	32	105	380
기 성 복	100	—	491	62 배
내 의 류	100	81	349	971
양 말 류	100	47	161	860
신 발 류	100	102	164	555

무역 총액의 장성 (%)

	1953	1956	1960	1964
총 액	100	192	440	547
수 출	100	210	491	624
수 입	100	176	396	482

수출품의 류별 구성 (%)

	1953	1956	1960	1964
총 계	100	100	100	100
그중 기계 및 설비	0.4	0.3	5.3	3.9
전 기 자 재	2.2	0.1	—	1.6
연료 및 연유	—	0.4	3.2	3.8
광 물 류	81.8	54.3	2.8	11.5
흑색 및 유색 금속	9.0	30.9	43.7	49.9
화학 제품	0.05	5.9	12.1	6.0
농 부 산 물	3.9	3.6	10.2	11.1

수입품의 류별 구성(%)

	1953	1956	1960	1964
총 계	100	100	100	100
그중 기계 및 설비	34.3	32.7	22.5	21.2
전 기 자 재	8.6	7.7	1.6	2.2
연료 및 연유	9.8	8.4	18.3	22.1
광 물 류	0.2	0.5	1.0	4.6
흑색 및 유색 금속	7.2	11.8	7.0	9.8
화학 및 고무 제품	9.8	7.5	6.2	11.8
농 부산 물	1.2	1.3	19.9	2.1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원수

	1946—1947	1949—1950	1953—1954	1956—1957	1960—1961	1963—1964	1964—1965
학교 총수 (개소)	2 731	5 069	4 735	5 452	8 481	9 190	9 020
인민 학교	2 482	3 882	3 399	3 777	4 145	3 992	3 985
초급 중학교	217	926	1 013	1 247	2 839	3 147	3 217
기술 학교	—	—	—	—	855	1 218	1 144
중등 전문 학교	28	69	82	117	132	—	—
고등 기술 학교	—	—	—	—	82	466	464
대 학	4	15	15	19	76	96	98
학생 총수(천명)	1 289	1 969	1 776	2 107	2 530	2 566	2 468
인민 학교	1 183	1 474	1 391	1 508	957	994	1 113
초급 중학교	73	353	292	445	1 031	839	704
기술 학교	—	—	—	—	276	327	285
중등 전문 학교	30	58	36	64	107	—	—
고등 기술 학교	—	—	—	—	11	145	156
대 학	3	18	11	22	97	214	185
그중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	—	6	3	6	49	149	114
교원 총수(명)	21 089	41 445	41 158	52 434	70 938	80 873	79 817

	1946—1947	1949—1950	1953—1954	1956—1957	1960—1961	1963—1964	1964—1965
인민 학교	18 505	27 380	27 955	33 133	21 744	22 132	25 221
초급 중학교	2 041	9 605	9 034	13 329	30 982	30 031	27 162
기술 학교	—	—	—	—	9 317	12 144	11 762
중등 전문 학교	402	1 381	1 472	2 050	3 208	—	—
고등 기술 학교	—	—	—	—	—	5 862	5 414
대 학	141	713	1 026	1 623	3 895	9 244	9 013

일하면서 배우는 종업원 수 (단위 명, 1964년)

	일하면서 배우는 종업원 수	그 중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대학 및 연구원
인민 경제 총계	401 977	20 012	42 006	80 440
공업 부문	194 994	13 286	22 359	21 641
건설 부문	49 247	2 415	3 602	2 928
농 목 장	23 808	543	1 374	1 124
농기계 작업 부문	2 651	110	695	269
관개 유지 부문	1 597	54	179	245
운수 부문	16 023	629	898	1 164
체신 부문	1 448	21	269	712
상업 및 수매 부문	13 773	566	953	1 533

문 화 시 설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4
극장	개	2	11	11	13	15	21	21
좌석수	좌석	1 500	8 304	5 200	9 450	24 317	27 527	31 339
영화관	개	81	110	112	248	402	561	215
좌석수	좌석	44 900	61 026	35 078	92 345	168 161	244 419	92 549
구락부	개	91	317	103	277	519	826	1 133
도서관	개	35	106	181	185	185	228	228
도서 부수	천부	92	280	437	2 927	5 198	6 371	7 147
박물관	개	2	6	9	13	18	22	22
영화 제작	편	—	29	26	102	182	184	215

주: 1964년에 영화관 수가 감소된 것은 직장 영화관이 이동 영사대로 개편된 것과 관련됨.

보건 시설 및 의사 수

	단위	1946	1953	1956	1960	1964
병원 및 진료소 수	개소	178	1 122	1 659	4 811	5 321
침 대 수	대	2 031	13 829	18 104	32 698	51 068
탁 아 소	개소	1	64	224	7 626	7 043
좌 석 수	좌석	20	2 165	6 538	394 489	787 504
의사 및 준의	명	1 009	3 009	5 650	11 919	22 706
인구 1만 명 당 의사 및 준의 수	명	1.1	3.5	6.0	11.0	19.0

1964년에 체결한 협정 및 조인한 문건

협정 및 문건 명칭	조인 날자	조인 장소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2. 27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5 차 회의 의정서	3. 30	평 양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간의 1964년도 계획서	6. 11	모스크바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8. 4	모스크바
과학 협조에 관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10. 30	모스크바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12. 2	모스크바
몽골 인민 공화국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3. 5	울란바따르
1964—1965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	6. 23	울란바따르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2. 17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 차 회의 의정서	12. 21	울란바따르
뽈스까 인민 공화국		
과학 협조에 관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4. 2	평 양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6. 5	평 양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1. 20	와르샤와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 의정서	11. 21	평 양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 24	평 양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6. 16	평 양
과학 기술 위원회 제 9 차 회의 의정서	10. 12	평 양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25	쁘라하
과학원 간의 1965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계획서	12. 29	쁘라하
로므니아 인민 공화국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4. 3	부꾸레슈띠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0. 21	부꾸레슈띠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 의정서	11. 30	부꾸레슈띠
웽그리아 인민 공화국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4. 8	평 양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6. 13	부다페슈뜨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2. 21	부다페슈뜨
벌가리아 인민 공화국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 20	쏘피아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5. 30	쏘피아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1. 17	평 양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김 일성 종합 대학과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4. 7	평 양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6. 3	평 양
1965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1. 25	티라나
식물 보호 및 검역 분야에서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12. 31	평 양
중화 인민 공화국		
문화 협조에 관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4. 20	베이징
1964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4. 29	베이징
국경 하천 공동 리용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 데 관한 협정	5. 5	평 양

협정 및 문건 명칭	조인 날자	조인 장소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중국 원양 운수 회사 간의 해상 운수에 관한 의정서	6. 10	평 양
조중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회의에 관한 의정서	9. 12	길 림
1965년도 호상 상품 납입에 관한 의정서	9. 24	베이징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 차 회의 의정서	10. 27	베이징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12. 27	베이징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5. 26	평 양
조선 과학원과 베를린 독일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8. 21	평 양
1965년도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0. 31	베를린
윁남 민주 공화국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2. 5	하노이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0. 5	하노이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11. 2	하노이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9. 16	알 제
무역 및 지불 협정	10. 23	알 제
기네 공화국		
전기 통신 및 우편물 교환에 관한 협정	6. 18	꼬나크리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2. 1	꼬나크리
꾸바 공화국		
1964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1. 24	평 양
영화 소재 교환 협정	7. 1	아바나
1965년도 통상 의정서	11. 23	아바나
말리 공화국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9. 5	평 양
경제적 협조와 기술 원조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데 관한 의정서	8. 3	바마코
예멘 아랍 공화국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9. 19	평 양
아랍 련합 공화국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집행 계획서	5. 7	까히라
1964년도 통상 의정서	8. 26	까히라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신사 간의 보도에 관한 협정	7. 17	쟈까르따
캄보쟈 왕국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4. 27	프놈 뻰
무역 및 지불 협정	10. 16	프놈 뻰
이라크 공화국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 22	바그다드
니제르 공화국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4. 26	니아메
일 본		
조선 무역 대표단과 일본 실업계 무역 대표단 간의 합의서	1. 17	평 양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에이와 해운 주식 회사 간에 정기 항로를 개설할 데 대한 계약	5. 23	평 양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의 정기 선박 배선에 관한 계획서	6. 27	평 양
조선 무역 대표단과 제 2 차 일본 실업계 대표단 간의 합의서	12. 16	평 양
조선 외국 선박 대리 회사와 일본 오사까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의 대리 업무에 관한 계약서	12. 19	평 양
조선 대리 운수 회사와 일본 오사까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의 정기 항로 개설에 관한 계약서	12. 24	평 양

1964년도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대표단 래왕 일람표

우리 나라에서 파견한 대표단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 당 및 정부 대표단		
라이프찌히 춘기 국제 시장 참가 정부 대표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 전권 대사 권 영태 (6명)	2.15—3.27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방문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최고 인민 회의 의장 최 원택 (6명)	3.29—5.15
가나, 세네갈, 니제르 방문 정부 친선 대표단	보통 교육상 윤 기복	3.29—4.28
잔지바르 방문 정부 친선 대표단	로동성 부상 문 정식 (3명)	4.23—5.19
제 33 차 뽀즈난 국제 시장 참가 정부 대표단	내각 대외 경제 총국 부총국장 방 기영 (4명)	6.4
무역 및 개발 문제를 토의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뻴스까) 참가 정부 대표단	외무성 부상 허 담	6.10—6.23
로므니아 방문 당 및 정부 대표단 (로므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제 1 부수상 김 일 (4명)	8.13—8.25
중국 방문 당 및 정부 대표단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5명)	9.29—10.8
독일 방문 정부 대표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검열 위원회 위원장이며 최고 재판소 소장 김 익선 (3명)	9.30—10.14
알제리 방문 조선 로동당 대표단 (알제리 인민 무장 봉기 10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리 송운 (2명)	10.28—11.17
알제리 방문 정부 대표단 (알제리 인민 무장 봉기 10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재정상 한 상두 (3명)	10.28—11.17
캄보쟈 방문 정부 대표단 (캄보쟈 왕국 독립절 기념 행사 참가)	내무상 박 문규 (3명)	10.31—11.20
쏘련 방문 당 및 정부 대표단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제 1 부수상 김 일 (5명)	11.4—11.13
최 용건 위원장 아랍, 알제리, 말리, 기네, 캄보쟈 방문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단원과 수원 동반)	11.19—12.22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알바니아 방문 당 및 정부 대표단 (알바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부수상 리 종옥 (3명)	11.22—12.9
꾸바 방문 조선 로동당 대표단 (꾸바 해방 6 주년 기념 행사 참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효순	12.25—1965.1.21
◇ 경제 및 통상 대표단		
몽골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류 성익 (4명)	2.19—3.6
중국 및 월남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방 태률	9.12—10.13
제 1 차 국제 상품 전람회 (알제리) 참가 정부 대표단	재정성 부상 최 윤수 (2명)	9.16—10.30
뽈스까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국장 김 영일 (3명)	9.30—11.24
로므니아, 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류 성익	10.7—11.3
꾸바, 웽그리아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국장 최 정근	10.28—12.31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계 응태	11.11—12.9
◇ 친선 대표단		
쎄일론 방문 친선 대표단	조선—쎄일론 친선 협회 위원 김 중기 (3명)	1.27—2.8
꾸바 방문 친선 대표단	보건상 최 창석 (4명)	7.15—8.18
월남 방문 평양 방직 공장 친선 대표단	평양 방직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전 경화 (5명)	10.22—11.24
쏘련 방문 조쏘 친선 협회 대표단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로동당 황해남도 위원회 위원장 허 학송 (4명)	11.4—11.17
◇ 사회 단체 대표단, 국제 기구 및 회의 참가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민청 대표단	민청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현일	1.4—2.11
철도 및 무역 기관 일'군 대표단 (사회주의 국가 철도 및 무역 기관 일'군 회의 참가)	교통성 운수 영업국 국장 서 남신 (2명)	1.14—2.4
올림픽 대표단 (제 9 차 인스브르크 동기 올림픽 대회 참가)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 김 득준	2.18—2.28
아, 아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참가 대표단	조선 아. 아 단결 위원회 위원장 김 왈룡	3.11—4.8
직맹 대표단 (세계 직련 제 27 차 집행 위원회 참가)	직총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종수 (3명)	3.11—3.24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영화 축전 참가 영화 대표단	문화성 영화 총국 부총국장 길 철 (5명)	4.6—5.15
기자 동맹 대표단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 참가)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서기장 강 상위	4.15—5.12
중국 방문 민청 대표단 (《세계 청년 학생들의 투쟁의 날》 베이징시 집회 참가)	민청 중앙 위원회 부장 최 창률	4.22—4.28
꾸바 방문 직맹 대표단 (5.1절 경축 행사 참가)	조선 교통 로동자 직맹 위원장 허 필만	4.23—5.26
알바니아 방문 직맹 대표단 (5.1절 경축 행사 참가)	조선 기계 공업 로동자 직맹 위원장 리 형찬	4.23—5.22
중국 방문 직맹 대표단 (5.1절 경축 행사 참가)	직총 중앙 위원회 부장 박 건찬	4.25—5.12
로므니아 방문 직맹 대표단 (5.1절 경축 행사 참가)	직업 동맹 출판사 주필 김 석진	4.25—5.26
제 2 차 국제 직맹 대회 참가 직맹 대표단	녀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직총 중앙 위원회 위원 리 정순 (4명)	5.6—5.26
직맹 대표단 (제 4 차 국제 광산 로동자 직맹 대회와 제 2 차 국제 상업 일'군 직맹 대회 참가)	김 은철 (3명)	5.16—6.3
사회주의 국가 체신 과학 연구 소장 회의 (베이징) 참가 대표단	체신성 기술 처장 심 유선	5.20—6.16
조선 올림픽 조사단 (제 18 차 도꾜 올림픽 대회가 진행될 현지 조사)	조선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김 경철 (7명)	5.20—6.16
조선 건축가 대표단 (국제 건축가 동맹 제 3 차 산업 세미나르 참가—웽그리아)	내각 설계 총국 부국장 박 태갑 (2명)	5.27—7.3
철도 협조 기구 제 9 차 상 회의 (모스크바) 참가 대표단	철도상 김 회일	6.13—7.7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대표단 (세계 과학자 련맹 제 25 차 집행 위원회 참가—부다페슈트)	사회 과학원 철학 연구소 소장 후보 원사 정 진석	6.17—7.6
기네 방문 녀성 대표단	녀맹 중앙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김 옥순 (3명)	6.24—7.14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세계 민청 집행 위원회 회의 참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고 상준	7.2—7.21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대표단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이며 문화상 박 웅걸	7.13—8.2
인도네시아 방문 녀성 대표단(인도네시아 전국 녀성 련맹 제 10 차 대회 참가)	녀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정순	7.16—8.14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가네포 집행 위원회 참가 체육 대표단	조선 체육 지도 위원회 위원장 김 기수 (3명)	8.2—9.7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및 재보험 련맹 창설 회의 참가 대표단	조선 보험 회사 사장 한 주비 (6명)	8.26—9.18
철도성 대표단 (국제 렬차 시간표 작성 회의 참가—베이징)	철도성 국제 교통국 부국장 명 순식	8.31
중국 방문 철도 대표단 (조중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회의 참가)	철도성 청진 철도국 국장 리 용삼 (6명)	8.31
조선 청년 대표단 (제 9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준비 위원회 회의 참가—헬싱키)	사로청 중앙 위원회 국제 부장 최 창률 (2명)	9.2
인도네시아 방문 직맹 대표단 (인도네시아 로조 중앙 제 4 차 대회 참가)	직총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종수 (2명)	9.7
중국 및 웰남 방문 사로청 대표단	사로청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봉일 (4명)	9.26—11.13
중국 방문 녀성 친선 대표단	녀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은순 (4명)	9.26—10.13
직맹 대표단 (세계 직련 리사회 제 13차 회의 참가—부다뻬슈트)	직총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원 태훈 (7명)	10.7—11.13
조선 의학자 대표단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의학자 대회 참가—까히라)	조선 의학 과학원 상무 위원회 위원인 박사 리영구 교수 (2명)	10.14—11.13
조선 녀성 대표단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리사회 참가—쏘피아)	녀맹 중앙 위원회 국제 부장 최 금자 (5명)	10.14—11.13
알제리 방문 사로청 대표단	사로청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현일 (2명)	10.28—11.17
로므니아 방문 사로청 대표단	사로청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고 상준 (4명)	11.7—12.4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경제 전문 회의 참가 대표단	체신성 국장 김 양신	11.7—11.30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및 조선 아. 아 단결 위원회 대표단 (미제 침략 반대, 평화 수호, 웰남 인민과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 참가—하노이)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위원장이며 직총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왈룡 (4명)	11.16—12.4
지질 대표단 (제 22 차 국제 지질학 대회 참가—뉴델리)	조선 지질 민족 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지질 총국 부총국장 고 정식 (2명)	12.9—1965.1.15
◇ 과학, 문화, 출판 보도를 비롯한 부문별 대표단		
웰남 방문 문화 대표단	문화성 부상 고 석상 (4명)	1.8—2.11
중국 방문 철도 대표단	교통성 부상 정 윤동 (5명)	1.22—2.5
중국 방문 평양 창덕 학교 교원 대표단	평양 창덕 학교 교장 정 일원 (5명)	2.18—3.6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중국 방문 과학원 대표단	과학원 부원장 전 두환 (9명)	3.21—5.1
중국 방문 건설 대표단	국가 건설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김 병식 (8명)	4.1—5.1
중국 방문 지질 대표단	내각 지질 총국 총국장 정 복래 (5명)	4.1—4.28
중국 방문 문화 대표단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부위원장 강 구영 (3명)	4.1—4.28
아련 방문 로동성 대표단	로동상 백 선일	4.15—5.5
로므니아 방문 의학자 대표단	평양 의학 대학 강좌장 리 종두를 비롯한 의학자들	5.13—6.9
로므니아 방문 건설 견학단	건재 공업성 부상 김 의순 (15명)	6.17—7.21
월남 방문 기자 대표단	조선 로동당 출판사 부주필 류 기찬 (2명)	7.13—8.21
인도네시아 방문 사회 과학원 대표단	사회 과학원 원장 허 석선 (2명)	8.1—9.25
로므니아 방문 조선 중앙 통신사 대표단	조선 중앙 통신사 부사장 한 룡영	8.5—9.1
알바니아 방문 기자	로동 신문사 기자 김 용학	8.22—10.9
중국 방문 《평양 신문》 대표단	《평양 신문》 책임 주필 김 대을 (3명)	9.26—10.16
로므니아 방문 문화 및 가무단 (알바니아와 기타 일련의 나라 방문)	문화성 부상	9.30—1965.1.22
로므니아 방문 김 일성 종합 대학 대표단 (부꾸레슈띠 종합 대학 창건 100 주년 기념 행사 참가)	김 일성 종합 대학 대리 총장 지 창익 (2명)	10.7—10.29
월남 방문 과학원 대표단	과학원 부원장 한 현건	10.10—11.10
체신 대표단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회의 참가—베이징)	체신성 부상 전 덕칠 (3명)	10.12—10.30
조 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회의 참가 대표단	금속 화학 공업성 화학 공업 총국 국장 원 동구 (7명)	10.14—10.30
로므니아 방문 작가 대표	작가 안 함광	10.28—11.24
인도네시아 방문 군사 대표단	민족 보위성 부상 오 진우(단원 동반)	11.4—11.20
쏘스까 방문 기자 대표단	《로동자 신문》 책임 주필 리 수근 (2명)	11.7—12.11
알바니아 방문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대표단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부위원장 강 구영	11.18—12.15
중국, 월남 방문 방송 대표단	중앙 방송 위원회 위원장 류 영표	12.2—12.29
월남 방문 가극 대표단	문예총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음악가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리 면상 (5명)	12.5—1965.1.8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캄보쟈와 윁남 방문 평양 가무단	인민 배우 김 진영	12.13—1965.1.21
중국 방문 전자 공학 및 전기 공학 부문 과학자들	과학원 자연 과학 지도국 부국장 윤 룡수	12.16—1965.1.29
윁남 방문 군사 대표단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민족 보위상 김 창봉 대장	12.17—12.38
◇ **체 육 단**		
올림픽 축구단(올림픽 예선 경기 버마 팀과의 1차 경기 참가—랑군)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김 경환(25명)	1.25—2.28
빙상 선수권 대회 참가 대표단(세계 녀자 속도 빙상 경기 대회 참가—헬싱키)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 김 득준 (18명)	1.9—2.28
탁구 선수단 (국제 탁구 경기 대회 참가—모스크바)	조선 탁구 협회 위원장 서 원준 (8명)	3.11—4.3
로므니아 방문 권투 선수단	조선 체육 지도 위원회 국장 리 학림 (12명)	4.15—5.12
몽골 방문 조선 인민군 청년 축구단	조선 인민군 대좌 김 만하 (23명)	6.10—6.26
윁남 방문 수영 선수단	평양시 체육 지도 위원회 위원장 리 승국(12명)	6.11—7.28
올림픽 예선 경기 참가 축구단(타이 축구단과 경기 진행)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 김 득준 (25명)	6.13—7.7
올림픽 선수단 (도꾜 대회 참가차로)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김 종항 (145명)	10. 2—10.12
중국 방문 탁구 선수단	로동자 체육단 단장 조 락연	10.14—11.3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 대표단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 **당 및 정부 대표단**		
로므니아 로동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로므니아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이. 게. 마우레르	312—3.14
일본 공산당 대표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간부회 회원이며 서기국 국원 하까마다 사도미 (4명)	3.27—4.4
인도네시아 공산당 친선 대표단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비서 안와르카디르 (5명)	4.27—6.13
벨지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벨지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비서 쟈크 그리빠 (4명)	5.29—6.4
베네수엘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베네수엘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이며 비서인 에두아르도 갈레고스 만세라	9.7—9.16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쎄일론 국회 대표단	쎄일론 국회 하원 의장 후 헐난도 (14명)	9.8—9.17
알제리 정부 경제 대표단	알제리 민족 경제상이며 민족 해방 전선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바쉬르 부마자 (6명)	9.18—9.19
가나 정부 친선 대표단	재정상 크와시 아모아크 아타	9.25—9.28
말리 공화국 대통령	말리 공화국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단원 및 수원 동반)	10.23—10.28
콩고 (브)국회 대표단	국민 의회 의장 앙끄르 레옹	10.27—11.4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수카르노 (단원 및 수원 동반)	11.1—11.4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친선 대표단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아바나주 뷰로 위원이며 마야베께 지구 비서인 알도 뻬냐 엘리께스(3명)	11.17—11.26
콩고(브) 공화국 정부 대표단	공공 건설 운수 광업상 마찌까 애매	12.25—1965.1.8
◇ 경제 및 통상 대표단		
꾸바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조선 주재 꾸바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라싸로 비고아	1.14—1.27
홍콩 쟈딩 유한 공사 대표	공사 경리 황 우가 (2명)	2.1—2.8
쏘련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아. 베. 보리쏘브	2.5—3.4
화란 데쉘드 회사 대표	사장 요한네스 윌림 후프케스 (2명)	2.4—2.11
홍콩 유대 양행 대표	유대 양행 경리 류 호청(3명)	2.4—2.11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 통상 대표단	무역성 부상 마레쉬 프란찌쉐크	2.18—2.26
레바논 안드나 앤드 아뻴 카싸르 상사 사장		5.19—6.4
중국 정부 경제 친선 방문단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주임 방 의 (8명)	8.21—9.10
몽골 정부 통상 대표단	제 1 무역 부상 간쥬르 쟈브	12.11—12.19
◇ 친선 대표단		
케니아 친선 대표단	젯세에 카리우키와 조나탄 오크 위리가 인솔 (10명)	4.30—5.27
볼리비아 조선 친선 위원회 대표	대통령 궁전 법률 및 농업 담당 보좌원이며 농업성 고문이며 볼리비아 조선 친선 위원회 위원 마리오 펠레리 가라떼	6.9—7.2
네팔 친선 대표단	네팔 왕국 왕실·리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 랄리트 챤드타쿠르 (4명)	8.21—9.7
볼리비아 친선 대표단	볼리비아 경제성 법률 고문이며 청년 군중 지도자 알베르또 무뇨스	10.6—10.22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	로련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성 제 1 부상 예쓰. 이. 니끼쇼브 (5명)	11.3—11.18
◇ 사회 단체 대표단		
푸에르토 리코 독립 종합 대학생 대표단	나르씨쏘 라벨 마르띠네스 외 1명	4.16—4.25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인도네시아당》 대표단	《인도네시아당》 제 2 부위원장 까르쏘노 위르도요 (3명)	5.8—5.18
중국 녀성 친선 대표단	중화 전국 부녀 련합회 부주석 양 지화(4명)	5.22—6.3
웰남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서기처 서기 려 평 (4명)	6.12—7.4
일본 민주 청년 동맹 대표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서기 오야마 아끼로	7.21—8.3
인도네시아 인민 청년 동맹 대표단	인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카트노	7.21—8.5
니제르 청년 대표단	청년 중앙 상설 서기국 기술 참사이며 니아메 제 1 지구 청년 단체 부총비서 우스만모씨 외 1명	7.28—8.20
로므니아 녀성 친선 대표단	대 민족 회의 리사회 비서 쵸깐 마리아 (3명)	8.4—8.20
볼리비아 로조 대표	광업 로조 련맹 비서 엔리께 싸이나스	8.11—8.30
벨지끄 녀성 친선 대표단	줴르마니 안느바르 (3명)	8.17—8.24
알제리 근로자 총동맹 대표단	근로자 총동맹 쁘쏘딴찐성 위원회 총비서 우메지안 쿨루드 (2명)	8.18—8.30
인도네시아 녀성 대표단	전국 녀성 련맹 총위원장 후트 스티아티 수반드리오 (5명)	9.7—9.24
캄보자 왕국 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표단	사회주의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총위원 우임디트 (7명)	9.7—9.12
로므니아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비서 게오르게 스또이까 (4명)	10.14—10.28
알제리 청년 대표단	민족 해방 전선 청년 전국 위원회 위원 아라우 아슈르 (4명)	10.21—11.4
기네 녀성 대표단	사회 담당 국무 비서이며 민주당 전국 정치국 위원 까마라 로포 (2명)	11.10
가나 청년 개척자 단체 대표단	청년 개척자 단체 기관지 《느크루마 청년》 주필 피터스 (3명)	12.4—12.14
◇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		
웰남 민주 공화국 대표단	무역 촉진 위원회 위원장 양 문답 (4명)	6.9—7.4
타이 대표단	전 국회 의원 싸잉마탕쿨 (2명)	6.9—7.8
쎄일론 대표단	아세아 경제 토론회 위원장이며 쎄일론 아. 아 단결 위원회 위원장 테자 구나와르다나 (2명)	6.12—6.27
앙골라 대표	앙골라 민족 해방 운동당 지도자 비리아또 크루즈	6.12—7.8
베추아날랜드 대표단	인민당 까히라 주재 대외 대표부 부장 보비매크 (2명)	6.12—7.4
꽁고(레) 대표단	민족 해방 리사회 대표 신가마 리빌라 (2명)	6.12—7.4
감비아 대표단	국민 대회당 지도자 아이. 엠. 가바—쟈흘파	6.12—6.25
북부 칼리만탄 대표단	통일 국가 외무 부상 아흐마드화딜라 (3명)	6.12.—6.29
까메룬 대표단	민주 청년 총서기 호쏘 후랑쏘	6.12—7.20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 수	래왕 시일
케니아 대표단	상공 회의소 소장 에프. 엠. 마챠리아 (2명)	6.12-7.4
모잠비크 대표단	해방 전선 재정 비서 로렌쏘 무타까	6.12-7.2
서남 아프리카 대표단	민족 련맹 청년 지도자 까뜨지미나 베이	6.12-7.13
수단 대표단	평화 투사 아흐메드 모하메드	6.12-6.25
우간다 대표단	인민 대회당 행정 서기 와다다 (2명)	6.12-7.15
콩고 (브) 대표단		6.12-7.4
니제르 대표단		6.12-6.25
알제리 주재 파레스티나 대표부 대표단		6.19-6.29
오스트랄리아 대표단	오스트랄리아 평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이며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련락 위원회 부위원장 레우빅터 제임스 (2명)	6.12-7.4
네팔 대표단	네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이며 네팔—조선 친선 협회 집행 위원 푸르나바 하두르 (2명)	6.12-7.13
뉴질랜드 대표단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련락 위원회 위원 레위 앨리	6.12-6.25
중국 대표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아프리카 인민 친선 협회 부회장 남 한진 (14명)	6.15-7.4
인도네시아 대표단	협조 국회 의원 페르디난드 룬루란드 (2명)	6.15-7.4
일본 대표단	일본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대표 간사이며 일본 중의원 의원 우쯔노미야 도꾸마 (8명)	6.15-7.4
남부 웰남 대표단	남부 웰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성원 벤 티빈 (2명)	6.15-7.25
가나 대표단	인민당 정치 활동가인 피수 케시가프슨 (2명)	6.15-8.1
바수톨랜드 대표단	경제상이며 대회당 집행 위원 텔로케란니	6.15-6.29
말리 대표단	경제 발전상인 박사 쎄이두 바디안 꾸야떼 (3명)	6.15-6.25
르완다 대표단	민족 련맹 부위원장 가이후라 미셀 (2명)	6.15-6.29
알제리 대표단	민족 해방 전선당 정치국 경제 위원회 서기부 책임자 떼마르 하미드	6.16-6.29
이라크 대표단	바그다드 상업 회의소 성원 모하메드 하싼 아브둘 마지드	6.18-6.29
소말리 대표단	민주 련맹 위원 아브둘 아지즈누르 헤르씨 (2명)	6.18-6.29
수리아 대표단	베이징 주재 수리아 공화국 대사관원 아브둘파따 흐여네스	6.18-6.24
잔지바르 대표단	잔지바르와 펨바 정부 로동자 련맹 총비서 앨리 므바르크 무하메드	6.18-6.24
◇ 기타 경제, 사회, 문화 부문 대표단		
중국 철도 대표단	철도 부상 대리 려 정조 (10명)	1.23-2.2
알제리 주재 팔레스티나 대표부 대표단	모하메드 학림	3.23-3.27
케니아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니안자주 총비서	웨이 올론데 (2명)	3.6-3.18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알바니아 국립 종합 대학 대표단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총장 까흐레만 일리(8명)	3.29−4.8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쏘련측 대표단 (조쏘 과학 기술 위원회 제 15 차 회의 참가)	쏘련 인민 경제 쏘베트 직속 국가 수산업 위원회 위원장 아. 아. 이슈꼬브	3.17−4.2
쏘련 견학생	국가 유색 및 흑색 금속 위원회 전국 제품 과학 연구소 실험 실장 치빨린 니꼴라이 이와노위치(2명)	3.24
쏘련 소비 조합 중앙 련맹 무역 대표단	로련 소비 협동 조합 리사회 리사이며 로련 어업 협동 조합 위원장 미쭈쓰낀 (2명)	4.22−5.13
중국 신화 통신사 대표단	부사장 주 목지 (5명)	4.24−5.23
칠레 기자 대표단	칠레 조선 친선 협회 서기장이며 기자인 페르난도 무렐로 비이나 (3명)	4.28−5.13
버마 로동성 대표단	로동성 특별 관원 도 쇼마 (3명)	4.29−5.18
인도네시아 공화국 체육상 부부	말라디 부부 (수원 동반)	5.4−5.8
알바니아 기자	안드레아 그라쉬	5.12−5.27
중국 방송 사업국 대표단	국장 매 익 (7명)	5.15−6.4
벨지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인민의 소리》지 편집원	알놀드 호왈뜨	5.25−6.1
이라크 교육 문화 대표단	교육성 대외 문화 관계 총국장 박사 아브둘라자크 알잘리리 (2명)	6.1−6.9
아랍 련합 공화국 기자	《알 아흐람》 지 기자 레다엘 할리파	6.3−6.15
캄보쟈 왕국 왕자	노로돔 나라디포 친왕 (2명)	6.13−6.18
일본 도꾜로자와시 의회 대표단	로자와시 시장 아라이 만뻬이 (5명)	6.29−7.13
《재일 조선인의 안전을 옹호하는 회》 대표단	일본 《재일 조선인의 안전을 옹호하는 회》 가나가와현 고문 도마 요시오 (6명)	7.9−7.27
일본 사회주의 연구소 대표단	일본 사회당 도꾜도 본부 서기장 소가 유지 (11명)	7.13−7.25
일조 협회 청년 대표단	도꾜 교통 로조 야나기시마 지부 집행 위원 세끼 요시하루 (5명)	7.13−7.29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 대표단	일본 중의원 의원 구로다 히사오 (5명)	7.20−7.27
알제리 민족 지도성 대표단	민족 지도성 지도부 성원 아리브 질랄리 (7명)	7.14−7.29
웽그리아 과학자	또트산 도르	8.4−9.2
일조 협회 대표단	부회장 마끼노우찌 다께도 (11명)	8.10−8.31
인도네시아 기자 대표단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하리안 라캬트》 부주필 다호노 (5명)	8.11−8.31
전 일본 농민 조합 련합회 대표단	회장 야오이다 다다시 (6명)	8.11−8.22
캄보쟈 기자 대표단	캄보쟈 국회 의원이며 프놈 펜 프레스 부사장 차 우반 (4명)	8.14−9.14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대표단	총비서 죠지니안 도로	8.17—8.26
중국 주재 인도 공화국 림시 대리 대사	제이. 에스. 메타	8.21—8.26
말리 공화국 교육 문화 대표단	교육성 기술 참사 오리쓰땡 듬비아 (6명)	9.1—9.16
예멘 친선 문화 대표단	문화 및 국민 지도상 아흐메드 호싸인 앨 메르위니 (2명)	9.4—9.21
기네 공화국 국립 방송국 대표단	국장 에밀똥 빠빠 (2명)	9.4—11.2
중국 체육 대표단	체육 운동 위원회 부주임 염 고당 (6명)	9.4—9.16
중국 작가 대표단	문화 예술가 련합회 흑룡강성 분회 주석이며 작가 협회 흑룡강성 분회 주석 연 택민 (3명)	9.4—10.3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군사 고문 공군 원수	공군 원수 수리야 다루마	9.5—9.12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우타미 수리야 다루마	9.5—9.12
오스트랄리아 사회 활동가	씨 이 산디 부부	9.7—9.14
인도네시아 영화 대표단	아세아 아프리카 영화 축전 총서기장이며 영화 연출가 바수기 에펜디 (5명)	9.7—9.14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	중국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후보 위원인 중화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검찰원 부검찰장 장 소 (4명)	9.7—10.3
일본 조선 연구소 학술 대표단	전 홋가이도 대학 총장 마쯔우라 하지메 (11명)	9.14—9.23
인도네시아 공화국 발리성 성장 부부	아. 아. 바구스 수떼자 부부	9.15—9.28
인도네시아 과학자 협회 대표단	심리학 학회 회장 부쓰소 위오호 (8명)	9.15—9.26
웰남 문화 대표단	웰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웰남 민주 공화국 문화부 부부장 하 휘갑 (7명)	9.18—10.7
일본 경제 학자 부부	오쯔까 긴노스께 부부	9.18—10.8
케니아 수상 조모 케니아타의 아들	페떼르 무이가이 조모 케니아타	9.18—9.28
이라크 기자 대표단	전원 4명	9.22—10.10
벨지끄 작가 부부	싸를러 루이스 빠룽쿨 (2명)	9.28—10.8
일본 문화 활동가 사절단	아이찌 대학 교수 하야시 가나메 (6명)	9.28—10.8
중국 의학 전문 대표단	길림성 위생청 부청장 류 모기 (4명)	9.29—10.28
중국 야금 학자	화공 야금 연구소 조리 연구원 마 적당 (3명)	9.29—10.28
웽그리아 박물관 일'군	동양 미술 박물관 부부장 페렌찌 라쓸로 (2명)	9.29—10.14
체스꼬슬로벤스꼬 과학 기술 대표단	과학 기술 발전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미로슬라브 쉬모크 (8명)	10.6—10.14
독일 전람회 일'군	박사 류돌프 그라프	10.6—11.4
스웨리예 사회 활동가 부부	닐스홀름버그 부부	10.19—10.26

대 표 단 명	대표단 단장명 및 구성 인원수	래왕 시일
알바니아 작가 예술가 대표단	작가 및 예술가 동맹 위원장 디미떼르 슈떼리키	10.20–10.31
알제리 문화 대표단	민족 지도성 쉐눈 아므란느 (3명)	10.27–11.7
중조 압록강, 두만강 《도문》 운항 협조 위원회 정기 회의 참가 대표단	중국 측 수석 대표 주 광 (4명)	11.3–11.14
꾸바 피아노 연주가	제나이다 만푸까스	11.6–11.26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상원 의원 부부	박사 루이스 뜨로칼리 부부	11.9–11.(2
조선 방문 제 2 차 일본 실업계 대표단	도요시마 리이찌 (17명)	11.9–11.6
로므니아 작가	올떼아누 이오 아니기에	11.10–11.28
뽈스까 기자들	《쥐제 와르샤와》 부장 얀그르쓰끼, 아말 통신사 기자 야누스 뻰	11.13
영국 국제 무역 촉진 리사회 서기장	로렌드 버거	11.13
뽈스까 조선 과학 기술 위원회 대표단	광업 및 동력 부상 루드위크 쌀라몬 (4명)	11.17–11.23
중국 력학 부문 과학자	과학원 공정 력학 연구소 연구실 부주임 며 소주	11.17–12.16
인도네시아 가네포 민족 위원회 대표단	가네포 민족 위원회 비서 수레이만	11.23–11.26
인도네시아 과학자 리사회 의학자 대표단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아이디트 부인 수단디 아이디트 (3명)	12.7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상설 서기국 대표단	인도네시아 인민 문화 련맹 문학 분과 위원회 위원장 바크리 시레가 (6명)	12.11–12.17
챠드 민족 련맹 제 1 부총비서	아바챠 아브라힘	12.7
알바니아 수력 구조물 견학단	티라나 종합 대학 수력 발전소 강좌장 뻬뜨리또 라도 뻬쯔까	12.11–1965.1.2
◇ 체육 및 예술단		
버마 축구단(조선 올림픽 축구 선수단과 2 차 경기 진행)	축구 협회 부위원장 라모 중좌 (22명)	3.18–3.23
기네 공화국 제 2 국립 무용단	아프리카 민주 혁명 청년 민족 리사회 위원 싸끄 오하메드 (30명)	6.30–7.17
인도네시아 륙상 선수단	륙상 협회 부위원장 수쟈느지 (20명)	7.17–7.22
중국 배구 선수단	체육 운동 지도 위원회 국제사 사장 장 련화 (15명)	7.18–8.19
캄보쟈 배구 선수단	배구 련맹 위원장 르김쌰 (17명)	9.18–10.1
캄보쟈 왕국 집단 체조 대표단	프놈 뻰 체육 대학 문서 연구 부장 농 완 (4명)	9.18
인도네시아 레스링 선수단	서부 쟈바 체육 위원회 위원장 아르. 오. 쿠르디 (3명)	9.18–9.26
말리 유술 대표단	교원 레이몽드 꿀리발디 (3명)	9.30
인도네시아 탁구 선수단	체육성 부장 수다르디 (3명)	10.6
라오스 애국 전선당 예술단	쎕씨 데사캄푸 (49명)	10.9–10.24
일본 마쯔야마 바레단	시마쯔 마사오 (50명)	10.20–10.31
콩고 (브) 디아브와 가무단	달라 그다이 (22명)	11.3–11.14
아랍 련합 공화국 레다 민족 무용단	무용가 마흐무드 레다 (55명)	12.12–12.30

우리 나라 무역 촉진 단체 및 무역 기관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기본 임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외국과의 경제적 련계의 발전 및 공고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조직 구성: 외국과의 경제적 련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들이 선거한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관이다.

사업: 호상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련계의 발전을 념원하는 외국 기관들과 국내 기관들과의 실무적 련계를 맺어 준다.

국제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 무역 대표 회의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대표 회의를 국내에서 소집한다.

국제 상품 시장 및 전람회 등에 국내 상업 및 산업 기업소들의 참가를 조직하며 국내에서 동종의 상품 견본시 및 전람회를 조직한다.

조선 기계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금속 가공 기계 및 설비, 농기계 및 농기구, 운반 및 건설 공업 기계 설비, 화학 공업 기계 및 설비, 경공업 기계 및 설비, 각종 광학 기구 및 의료 기구, 계기 공구 및 연마 제품, 베아링 및 강구, 전기 자재, 통신 설비.

전보 략호 《기계》 평양

조선 금속 화학 제품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흑색 금속 및 압연품, 흑색 금속 제품, 유색 금속, 유색 금속 제품, 화학 제품, 각종 시약, 영화 사진 자료, 고무 및 고무 제품, 건설 자재, 원목 및 목재, 팔프 및 종이 제품, 약품 및 위생품.

전보 략호 《금속》 평양

조선 일용품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직물, 메리야스 및 내의류, 샤쯔 및 기타 섬유 제품, 신발, 비닐 제품, 문화용품, 화장품, 수공예품, 금속 잡화, 금속 건구, 전기 일용 제품, 운동 기자재, 악기 및 완구, 도자기 및 공예 자기, 판 유리 및 유리 제품, 초물 제품, 기타 일용 잡화.

전보 략호 《일용》 평양

조선 식료품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인삼 및 동약재, 담배, 동물, 종자 및 묘목, 알곡, 유지 작물, 채소, 과실 및 열매, 공업용 유지 및 식용 유지, 곡물 제품, 식료 가공품, 기타 식료품 및 기호품, 수산물, 모피 및 축산 부산물.

전보 략호 《식료》 평양

조선 연료 광물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고체 연료, 연유 및 각종 석유 제품, 비금속 광물 및 금속 광물.

전보 략호 《광물》 평양

조선 금강 협동 무역 상사

취급 품목: 각종 공작 기계, 동력 기계 및 야금 기계, 운수 기계, 경공업 기계, 각종 광학 기구 및 의료 기구, 통신 기재 및 전기 자재, 계기 및 공구류, 각종 화학 제품 및 건설 자재, 각종 광물 및 염료, 흑색 및 유색 금속, 압연 제품, 섬유 및 섬유 제품, 각종 일용품 및 도자기 제품, 각종 식료품, 각종 농산물, 인삼 및 인삼 제품, 동약재, 담배 및 기호품, 각종 수산물, 모피 및 축산 부산물, 각종 수공예품.

전보 략호 《금강》 평양

조선 설비 수출 상사

취급 품목: 경공업 설비, 방직 공업 설비, 관개 설비, 농기계 생산 설비, 기계 공업 설비, 조선 공업 설비, 전력 공업 설비, 금속 및 야금 공업 설비, 광산 설비, 전기 기관차 생산 설비, 무궤도 전차 생산 설비, 화학 공업 설비, 건재 공업 설비, 기타 각종 종합 설비.

전보 략호 《설비 수출》 평양

조선 설비 수입 상사

취급 품목: 전력 공업 설비, 금속 및 야금 공업 설비, 채취 공업 설비, 화학 공업 설비, 기계 공업 설비, 경공업 설비, 선박 기타 종합 설비.

전보 략호 《설비 수입》 평양

조선 기술 상사

취급 품목: 1 각종 기계 설비 및 개별 제품들에 대한 생산 기술 문헌과 연구 부문의 수출입.

2. 각종 견본, 표준품, 균주, 종자, 묘목들의 교환.

3. 견학생, 실습생 파견 및 접수.

4. 기술자, 전문가 파견 및 초빙.

전보 략호 《기술》 평양

조선 평양 무역 협동 상사

취급 품목: 흑색 금속, 비금속, 광물, 전기연, 전기 아연, 전기 동, 전기 은, 카드뮴, 작잠사, 가잠사, 생피저, 진면, 빼스, 공예품, 수예품, 인삼, 황기, 만삼, 오배자, 백출, 랭동 새우, 명란, 운단, 각종 자건 패류, 해삼, 건낙지, 짝태, 각종 모피류 및 털류, 담배, 역삼씨, 꿀 및 기타 농토산물.

전보 략호 《0152》 평양

조선 중외 무역 협동 상사

취급 품목: 전기 연, 전기 아연, 전기 동, 전기 은, 카드뮴, 선철, 린상 흑연, 토상 흑연, 마그네샤크링카, 마그네사이트, 내장석, 형석, 구석, 활석괴, 가잠사, 작잠사, 생피저, 진면, 빼스, 공예품, 수예품, 건낙지, 짝태, 해삼, 랭동 새우, 명란, 운단, 각종 자건 패류, 인삼 및 기타

동약재, 담배, 각종 모피, 털 및 기타 축산 부산물.

전보 략호 《00919》 평양

조선 소비 협동 조합 중앙 련맹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채소, 과실, 잡과 및 열매, 식료 가공품 및 기호품, 유지 작물, 수산물, 축산 부산물, 동약재, 종자 및 묘목, 문화 기자재 및 일용 잡화, 섬유 및 섬유 제품, 액체 연료, 화학 제품, 경공업 기계 및 설비, 농업 기계, 고무 제품, 전기 기재

전보 략호 《중앙 련맹》 평양

조선 대외 운수 회사

취급 업무: 수출입품의 수송 조직, 보험, 통관 수속, 사고 처리와 관련된 업무 사업을 집행하며, 통과 화물의 수송 조직, 용선 및 선창 예약, 선주에게 화물 알선 등의 각종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본사는 평양에 있으며 청진, 남포, 흥남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신의주, 만포, 남양, 두만강, 뽈스까 그드니야, 월남 하이퐁에 주재원을 두고 있다.

전보 략호 《운수》 평양

조선 상품 검사국

취급 업무: 1. 상품의 질 및 포장 검사—광물,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제품, 전기 기계, 전기 설비, 전기 계기류, 화학 제품, 각종 섬유 및 섬유 제품, 농토산품, 수산물, 각종 식료 가공 제품, 각종 일용 잡화 상품의 품질 검사 및 그 포장 검사.

2. 중량 검사—1) 선적 화물의 검재 검량 2) 각종 산적 화물 및 포장 화물의 중량 및 수량 검사.

3. 선창 감정—1) 창구 검사, 적재된 화물 상태 검사(보통 화물, 랭동 화물, 중량 화물, 특수 화물, 위험 화물) 2) 선창 내에 적재할 상품의 위치 선정 검사 3) 선창내 용적 감정 4) 선내 연료 수량 감정 5) 봉인 검사.

전보 략호 《KbSOMINS》 평양

조선 보험 회사

수행 업무: 1. 피보험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 륙상(철도), 항공으로 수송하는 수출입 화물 일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2. 유관 국가 보험 기관들과 개별 보험 회사들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재보험을 제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3. 수화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의 손해 발생 범위를 검열하고 보상 받도록 방조를 줄 수 있는 피보험 화물 손해 사정 대리점을 국외에 두며 본사도 유관 국가 보험 기관들과 개별 보험 회사를 위하여 손해 사정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 보험 회사의 본사는 평양에 있고 지사는 청진, 흥남, 남포 항구에 두고 있다.

전보 략호 《KOINSURANCE》 평양

조선 외국 선박 대리 회사

취급 업무: 1. 선박 입출항과 관련되는 일체 수속.

2. 수로 안내 수속.

3. 화물의 상하선 작업과 그와 관련되는 일체 수속.

4. 화물의 보관, 수발, 포장, 검량, 검수, 검사, 점검 등의 수속.

5. 선박, 화물 창구 예약 및 화물 중계와 관련되는 일체 수속.

6. 선하 증권(화물 증권)의 발급.

7. 선박(매매, 용선) 인수, 인도와 관련되는 일체 수속.

8. 려객 승선표의 판매 및 려객의 승하선과 관련되는 일체 수속.

9. 선박의 수리, 검사 등의 수속.

10. 선박의 연료, 물, 식료품, 선구품, 기타 자재 공급과 알선을 위한 수속.

11. 선박 운임 및 기타 금액의 청산과 상하선 작업의 단축 상금 및 체선 료금의 계산.

12. 해난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처리 수속.

13. 선원들의 상륙, 문화 오락, 통신 및 의료 등의 수속.

14. 대리 기관과 합의된 기타 업무.

본사 평양

지사 남포, 흥남, 청진

전보 략호 《H.O.S.b》 평양

조선 출판물 수출입 상사

취급 품목: 1. 도서 2. 정기 간행물(신문, 잡지) 3. 우표 4. 레코드 5. 화첩, 벽장화, 그림 엽서.

외국어로 발행되는 출판물

1. 도서—로어, 중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발행

2. 정기 간행물

조선 소식—월3회(로문판, 영문판)

새 조선—월간 잡지(로문판, 중문판)

조선—월간 화보(로문판, 중문판, 영문판, 프랑스문판)

오늘의 조선—월간 잡지(영문판, 일문판, 프랑스문판, 에스빠냐어문판)

조선 자료—월간 잡지(영문판, 프랑스문판)

목록, 가격표 기타 선전물들은 요구에 따라 발송한다.

전보 략호 《CHULPANMUL》 평양

조선 영화 보급사

취급 품목: 예술, 기록, 과학, 만화, 인형, 시보 등 각종 조선 영화를 수출하며 외국 영화를 수입한다.

조선 영화의 대외 조직을 위한 포스터, 리브레트, 편집 대본, 경개서, 스틸 등 영화 선전물들을 발행한다.

전보 략호 《조영보》 평양

조선 국제 려행사

조선 국제 려행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유일한 공식 관광 단체이다.

조선 국제 려행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외국과의 관광 교류를 조직 진행하며 국제 려행객들의 려행 및 생활과 관련한 각종 봉사 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외국 관광객들의 영접, 안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의 외국 관광 조직, 국제 렬차 승차권 및 기타 려행 증권의 판매와 좌석의 예약, 려관 및 승용차의 예약, 외화 교환과 사증 교부에 대한 방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의 관광 려행과 관련한 각종 광고 및 안내 자료의 제공, 기타 등이다.

전보 략호 《려행사》 평양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 기구

	국 제 기 구 명		가입 년월일	소 재 지
1.	국제 민주 녀성 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1946.10	베를린
2.	세계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1947.5	쁘라하
3.	세계 민주 청년 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s	1947.6	부다페슈트
4.	국제 학생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1948.6	부다페슈트
5.	세계 평화 리사회	World Council of Peace	1949.4	스톡홀름
6.	국제 금속 및 기계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Met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1949.6	쁘라하
7.	국제 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extile, Clothing, Leather and fur Workers	1949.6	쁘라하
8.	국제 광산 로동자 직업 련맹	Miners Trade Union International	1947.7	빠리
9.	국제 건축 목재 및 건축 자재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he Building Wood and Building Materials Industries	1947.7	헬싱키
10.	국제 교원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	1949.3	빠리
11.	국제 식료, 연초, 음료 공업 및 호텔, 카페, 레스토란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Food, Tobacco and Beverage Industries and Hotel, Cafe and Restaurant Workers	1949.11	쏘피아
12.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ers	1949.12	쁘라하
13.	국제 기자 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	1950.1	쁘라하
14.	국제 화학 및 석유 공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Chemical, Oil and Allied Workers	1950.3	부다페슈트
15.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옹호 련락 위원회	Peace Liaison Committee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s	1952.10	베이징
16.	국제 운수, 항만 및 어업 로동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Transport, Port and Fishery Workers	1955.3	쁘라하
17.	철도 협조 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1956.6	와르샤와
18.	국제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 기구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	1954.11	쁘라하
19.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1955.4	브류쎌(벨지끄)
20.	국제 공무원 및 종업원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Public and Allied Employees	1955.5	베를린

국제 기구 명		가입 년월일	소재지
21. 국제 모성 상설 위원회	Perman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Mothers	1955.7	베를린
22. 국제 건축가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1955.7	빠리
23. 국제 배구 련맹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1956.12	빠리
24. 적십자사 련맹	Leage of Red Cross Societies	1956.5	제네바
25. 사회주의 국가 규격 기관 대표 회의	Совещание по Обмену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соц. стран	1956.5	쁘라하
26.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Комиссия п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1956.6	베이징
27. 국제 사격 련맹	International Shooting Union	1956.10	와이스바덴 (서독)
28. 국제 아마추어 롱구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asketball Federation	1956.12	묘헨
29. 국제 탁구 련맹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1957.3	윌즈(영국)
30. 련합·원자 핵 연구소	Обьединё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1956.12	두브나
31. 세계 과학자 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	1956.12	런던
32. 국제 아마추어 권투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Boxing Associations	1957.4	런던
33. 국제 빙상 련맹	International Skating Union	1957.6	다보스(스위스)
34. 사회주의 국가 농업 및 림업 부문 과학 사업 조성 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Научных Работ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1956.10	쏘피아
35. 국제 축구 련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1957.6	쭈리히(스위스)
36. 국제 지구 물리학 년도 특설 위원회	Comite Special Annee Geophysique Internationale	1957.7	빠리
37. 국제 항공 련맹	Inernational Aeronautical Federation	1957.9	빠리
38.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The Organization for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1957.12	까히라
39. 국제 인형극 련맹	International Marionette Union	1957.12	쁘라하
40. 친선 군대 체육 위원회	Спортивный Комитет Држественных Армии	1958.3	모스크바
41.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ц.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ической и почтовой связи	1957.12	
42. 국제 체조 련맹	International Gymnastic Federation	1958.7	베오그라드
43. 국제 아마추어 레스링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Wrestling Federation	1958.7	빠리
44.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Afro—Asian Writers Conference	1958.10	콜롬보
45. 국제 과학 동맹 리사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	1959.4	런던
46. 세계 평화 운동 에스페란트 협회	World Esperantist Association of peace Movement	1959.5	플렌 (오지리)
47. 국제 상업 일'군 직업 련맹	Trade Unions International of Workers in Commerce	1959.6	쁘라하

국제 기구명		가입 년월일	소재지
48. 국제 력기 련맹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1959.9	빠리
49. 국제 자전거 동맹	International Cyclist's Union	1959.3	빠리
50.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협조 기구	Afro—Asi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1960.5	까히라
51. 국제 항 결핵 동맹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1960.9	빠리
52. 국제 영화 알히브 동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1960.10	빠리
53. 국제 천문학 동맹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1961.8	그리니치 천문대(영국)
54. 국제 궁술 련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rchery	1961.8	런던
55. 국제 영화 기술 협회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Technical, Cinematographic Association	1961.9	빠리
56. 국제 과학 영화 협회	International Scientific Film Association	1961.9	빠리
57. 국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1962.6	로잔느
58. 국제 아마추어 륙상 경기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	1962.9	런던
59. 아세아 경제 쎄미나르	Asian Economic Seminar	1962.11	콜롬보
60.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Afro—Asian Journalist Association	1963.4	자까르따
61. 국제 자연 및 자연 부원 보호 동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63.5	브류쎌
62. 국제 규격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1963.6	제네바
63. 국제 빙상 훅케이 련맹	International Ice—Hockey Federation	1963.8	런던
64.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항만 로동자 대회	Port Workers Conference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s	1963.10	
65. 국제 전기 공학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gue Commitee	1963.10	제네바
66. 가네포 련맹	Federation of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1963.11	자까르따
67. 국제 요트 련맹	International Yacht—racing Union	1963.12	런던
68. 국제 아마추어 수영 련맹	International Amateur Swimming Federation	1963.12	도꾜
69. 국제 스키 협회	International Ski Association	1964.1	스위스
70. 국제 조선 련맹	International Rowing Federation	1964.4	스위스
71. 국제 까노예 련맹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1964.4	스톡홀름
72. 아세아 산업 보건 대회	Tne Asian Conference of Occupational	1964.5	자까르따
73. 국제 유도 련맹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1964.7	도꾜
74. 국제 토양학 협회	International Associa[illegible] of Soil Science (IASS)	1964.8	암스테르담
75.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및 재 보험 련맹	The Afro—Asian Insu[illegible]e and Reinsurance Federation	1964.9	까히라
76. 아세아 베이징 탁구 초청 경기 련락 위원회	The Asia Pekin[illegible]mittee of Inviting Game [illegible]	1964.10	베이징
77. 아세아 아프리카 의학자 대회	Afro—Asian M[illegible]	1964.10	까히라
78. 국제 수학자 동맹	International [illegible]nion	1964.12	브류쎌

남조선 인민 투쟁 주요 일지

(1964년 1—12월)

날'자	지 역	참가 대상	규 모	형 태	투 쟁 내 용
1.8	남조선 전 지역	전매 및 체신 부문 로동자	1만 8천명	쟁 의	임금 인상, 년간 300% 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여 쟁의에 돌입. 1963년 12월 27일 쟁의에 들어 간 철도 부문 로동자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투쟁 방침을 결정.
1.12—22	인 천	미군 부대 고용 로동자	1 천명	군중 집회를 갖고 미군 당국에 파업을통고	1월 15일까지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할 것을 결의. 미군 당국이 응하지 아니 하자 1월 22일에 파업을 통고. 1월 25일 임금 25% 인상의 부분적 승리 쟁취.
1.13	부 산	운수 로동자	2 천 명	쟁 의	임금 인상 요구.
1.13—21	서울	시내 5개 영화 제작 회사 로동자	65 명	파 업	임금 50% 인상을 요구하여 1963년 12월 9일부터 쟁의에 들어 갔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음으로 파업에 들어 감.
1.15	남조선 전지역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		공동 투쟁을 결의	1963년 12월부터 임금 인상, 반동적 《로동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간 이들은 요구 조건이 100% 달성될 때까지 공동 투쟁을 하기로 결의.
1.20	남조선 전지역	전력 부문 로동자		파업 결의	1963년 12월 21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간 이들은 이날 파업을 할 것을 결의.
1.21		옥동 탄광, 성주 탄광 로 동 자	1,580 명	파 업	임금 인상 요구.
1.21 —3.16	서 울	시내 뻐스 종업원	6 천명	쟁 의, 파업 결의	18 시간 로동제를 금지하고 8 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며 로임의 일당제를 월급제로 하는 동시에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 3월 16일에는 파업 결의.
1.22	남조선 전지역	철도 로동자	2만4, 561명	파 업 결 의	1963년 12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간 이들은 괴뢰 당국이 응하지 않음으로 투표로써 파업을 결의.
1.22	전라남도 려 수	어 민	2천 여 명	궐기 대회	일제에게 남해의 어장을 팔아 넘기려는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고 《평화선》 사수를 결의.
1.28 —4.20	남조선 전지역	운수 로동자	1 만 38 명	파[illegible] 결[illegible]	1963년 12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간 이들은 괴뢰 당국이 응하지 않음으로 투표로써 파업 할 것을 결의.
8.24—30	서울, 부산, 대구, 전수, 인천, 수원, 평택, 춘천, 청주, 대전, 광주, 마산,	학생 및 시 민	22 만 7천여 명		매국적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3월 24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이 한 시위가 봉화가 되여 1주일 간에 걸쳐 남조선 38 개 도시에서 37개 대학과 163개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박살하라》, 《반민족적 대일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제 2의 리 완용은 물러가라》, 《매판 자본을 타도하라》, 《미국은 한일 회담에 관여 말라》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를 전개, 3월 26일에는

날'자	지 역	참가대상	규 모	형태	투 쟁 내 용
	목포, 군산, 남원, 삼천포 등 33개 도 시				서울에서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학생 시위에 합세함. 박 정희 도당은 하는 수 없이 진행 중이던 《한일 농림상 회담》을 중지하고 《한일 회담》을 막후에서 조정하던 김 종필을 소환함.
3.30 —4.17	경기도 오 산	미군 기지 고용 로동자	2 천 여 명	시 위, 파업 결의	3월 30일 감원 반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시위. 4월 17일에는 파업에 들어 갈 것을 결의.
4.17 —21	서울, 광주, 부산, 청주 등 9 개 도시	학 생	2만 6천 여 명	시 위	4월 17일 서울 대학교 문리파 대학 학생 300 여 명이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위원회》 주최 하에 성토 대회를 가진 후 《한일 회담의 즉시 중지》, 《구속된 애국 학생의 즉시 석방》, 《중앙 정보부 해체》, 《학원 사찰 금지》 및 민생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한 것에 뒤'이어 남조선 9개 도시의 27개 학교 학생 2만 6천 여 명이 5일 간에 걸쳐 반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
5.6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 평 리	농 민	2 천여명	궐 기 대 회	어용 《개척단》에 이 곳 주민들의 토지를 독점시키려는 박 정희 도당의 흉책을 반대 배격.
5.18	전라북도 전 주 시	전라북도 내 로 동 자	1,200 명	궐 기 대 회	《로동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열고 현행 《로동법》에서 악질적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5.20 —6.5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전주, 청주, 광주, 대전, 인천 등 33개 도 시	학생 및 시 민	7만 3,500 여 명	시 위	5월 20일 서울 대학교 문리파 대학 교정에서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총련합회》의 주최 하에 서울 시내 10개 대학 학생 5천 여 명이 모여 박 정희 도당을 상징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진행한 다음 《민족적 민주주의》의 관을 메고 가두 시위에 들어감. 시위를 파괴하려고 달려 드는 괴뢰 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하고 경찰 방송차 1대를 파괴. 이것을 계기로 남조선 33개 도시들에서 6월 5일까지 투쟁이 계속됨. 5월 30일 —6월 3일에 걸쳐 서울 대학교 문리파 대학 학생들은 대중적인 단식 투쟁을 전개, 6월 3일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시내 17개 대학과 지방의 2개 대학교 학생 3만 2,800 여 명이 《박 정희 정권 타도》의 구호를 내걸고 최루탄을 쏘면서 달려 드는 괴뢰 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하면서 시위를 전개, 이에 서울 시민 1만여 명이 합세함. 이날 학생들은 서울 《시청》, 《서대문 경찰서》, 《성동 소방서》, 《경찰 무기고》, 《기동대 본부》 등을 습격하고 일시 점거.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함.
5.24	서 울	각 직종 로 동 자	2 천여 명	성 토 대 회	《로동법 개악 반대 성토 대회》를 열고 《로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남조선 전역에 걸쳐 총파업을 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
6.26	경기도 부 평	미군 고용 로 동 자	8천여 명	시 위	미군 당국의 부당한 감원 조치를 반대하여 시위.

날'자	지 역	참가대상	규 모	형태	투 쟁 내 용
6.27	경기도 파 주	미군 고용 로 동 자	5 천여 명	시 위	부당 해고한 32 명 로동자들의 복직을 요구.
8.5	서 울	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인 단체 대 표		집 회	《언론 륜리 위원회법》 철페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악법이 철페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8.5	서울,부산, 대구 등 각 도시	기 자 단		집 회	《언론 륜리 위원회법》 철페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
8.10	서 울	언 론 인	500 명	대 회	《언론 륜리 위원회법》 반대 선언문,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
8.12	서 울	《4.19 부상 동지회》원	300여 명	집 회	《언론 륜리 위원회법》 철페를 위하여 《악법 반대 투쟁 위원회 전국 청년 협의회》를 구성하고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악법이 철페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9.14	경 기 도 의 정 부	미 제 60 수송 부대 소속 《카츄사병》	60 여 명	시 위	미군의 민족적 차별과 인간 이하의 학대에 격분하여 시위.
10.27		미 8군 장교 숙소 고용 로동자	700 여 명	파 업 시 위	임금 인상을 요구.
10.28—30	서 울 시 룡 산 구	주 민	3,500여 명	시 위 폭 동	《무허가 건물》이란 명목으로 집을 강제 철거하려 달려든 괴뢰 경찰과 《구청》 직원들에 대항하여 련 3일에 걸쳐 석전 또는 련좌 시위를 전개.
11.11	남 조 선 각 항 만	하역 로무자	2만 여 명	파 업 결 의	1963년 12월 21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중인 이들은 요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자 측에 통고.
11.14	서 울	서울역 하역 임금 로무자	60 여명	파 업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24 시간 파업.
11.16		미군 기관 고용 로동자	2만 여 명	쟁의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임금 인상, 상여금 200% 지급을 요구.
11.21	남 조 선 전 지역	체신, 전력 부문 로동자	2 천여 명	시 위, 결 의	임금 인상을 요구
12.20	경 기 도 부 평	외국 기관 고용 로동자	약 2 천 명	집 회, 시 위	106 명의 고용원 해고를 반대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집회를 가진 후 시위.
12.26	경상 북도 대 구	삼호 방직 회사 로동자	1,400 여 명	롱 성 파 업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집회를 가진 후 롱성 투쟁 단행.

남조선 통계 자료

환률의 인상

	공정 환률		대충 자금 환률	
	1 딸라에 대한 원	%	1 딸라에 대한 원	%
1950. 1. 1	0.9	100	0.8	100
5. 1	1.8	200	1.1	137
12. 1	2.5	278	4.1	512
1951. 11. 10	6.0	667	6.0	750
1953. 12. 15	18.0	2 000	18.0	2 250
1955. 8. 15	50.0	5 555	50.0	6 250
1960. 2. 23	65.0	7 222	65.0	8 125
1961. 1. 1	100.0	11 111	100.0	12 500
2. 2	130.0	14 444	130.0	16 250
1964. 5. 3	256.53	28 503	256.53	32 066

주: 1964년 5월 3일에 1딸라 대 255원을 최저 한도로 하는 단일 변동 환률 제도를 채택한 이후는 《한국 은행》이 시장률을 참작하여 매일 발표하는 고객에 대한 외국환의 매도률임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2호.

화폐 발행고 증대 및 통화 팽창 동태

	화폐 발행고 증대		통화 팽창 동태		
	화폐 발행고 (단위 백만원)	%	통화량 (단위 백만원)	%	%
1953	—		3 032	100	—
1954	—		5 808	191.6	—
1955	6 242	100	9 352	308.4	—
1956	7 850	126	12 093	399.8	—
1957	8 906	143	14 518	478.8	—
1958	11 632	186	19 255	635.5	—
1959	13 217	212	20 990	692.3	—
1960	14 630	235	21 908	722.5	100
1961	18 063	289	31 224	1029.8	142.5
1962	20 723	332	36 707	1210.7	167.6
1963	21 862	353	37 307	1230.4	170.3
1964. 10	26 124	419	44 883	1480.3	204.9

자료 출처: 남조선《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4년 12호.

괴뢰 정부 식량 수급 계획에서 본 기근 (단위 천석)

	공급 가능량			수요량	부족량
	전년도 이월량	생산량	계		
1955	3177	22 391	25 568	26 526	958
1956	485	23 215	23 700	26 589	2 889
1957	533	19 814	20 347	28 445	8 098

	공 급 가 능 량			수 요 량	부 족 량
	전년도 이월량	생 산 량	계		
1958	—	23 861	23 861	29 256	5 395
1959	2 299	25 888	28 187	30 114	1 927
1960	2 306	25 592	27 898	31 822	3 924
1961	1 611	26 452	28 063	32 338	4 275
1962	750	27 791	28 541	33 232	4 691
1963	1 302	20 292	21 594	33 683	12 089
1964	2 787	28 598	31 376	36 783	5 407

자료 출처 : 남조선 《농업 년감》 1958년판 273 페지, 1961년판 1—55페지, 《경제 년감》 1959년판 1—53페지, 《경향 신문》 1960년 9월 6일, 《동아 일보》 1962년 1월 17일, 《령남 일보》 1963년 7월 2일, 《동화 통신》 1963년 11월 16일

주: 생산량은 괴뢰 정부의 예정 수량임.

주택 부족 수의 증가 (단위 천호)

	1949	1958	1959	1960	1961	1963
주택 부족 수 (호)	370	520	425	1 037	1 186	1 378
증가 비률 (%)	100	140.5	122.1	280.2	317.8	372.4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59년 6월 9일, 《세계 통신》 1958년 12월 18일, 《조선 일보》 1960년 8월 25일, 《민국 일보》 1962년 1월 1일,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4월 26일, 1964년 9월 15일, 《경향 신문》 1965년 1월 13일.

1963년 말 도별 주택 부족수 (단위 천호)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가구수(1)	597	245	515	239	452	404	658	747	561	301	69
현주택수	300	132	372	181	369	297	499	547	437	227	57
부족수 (2)	297	113	143	58	83	107	159	200	124	74	12
2/1(%)	49.8	46.1	27.7	24.0	18.3	26.4	24.1	26.7	22.1	24.5	17.4

자료 출처: 남조선 《경향 신문》 1965년 1월 13일.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 저하

	월 평균 생계비 (1)	광업 부문 로동자			제조 공업 로동자		
		임금액(2)	2/1 %	실질 임금 지수	임금액 (3)	3/1 %	실질 임금 지수
1956	4 352	2 590	59.0	100	1 890	43.0	100
1957	4 800	3 160	66.0	119.8	2 030	42.0	97.6
1958	5 380	2 700	50.1	84.9	2 170	40.3	93.7
1959	6 870	3 270	47.6	80.0	2 340	34	79.0
1960	8 270	3 570	43.5	73.7	2 600	31.7	73.7
1961	9 200	4 060	44.1	74.7	2 830	30.7	71.4
1962	10 470	4 550	43.5	73.7	2 990	28.5	66.2
1963	12 290	4 990	40.6	68.8	3 310	25.3	58.8

주 : 1963년 생계비는 가족 6.2명을 기준한 것임.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7년판 27 페지, 1959년판, 272—273페지, 288 페지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261, 270 페지, 1963년 272, 284 페지,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0년 9월호, 1964년 3월호, 《조선 일보》 1962년 5월 15일, 《매일 신문》 1965년 1월 29일.

실업자 및 반 실업자의 증대 (단위 천명)

	1949	1954	1956	1957	1958	1959	1960	1963
실업자 및 반 실업자 수	895	1 324	3 502	3 800	4 286	5 350	6 000	7 000
증가 비률(%)	100	148	391	425	479	598	670	782

자료 출처: 남조선 《자유 신문》 1954년 10월 4일, 《전남 일보》 1958년 1월 24일, 《서울 신문》 1955년 2월 10일, 1958년 5월 12일, 《충북 일보》 1956년 9월 15일, 《조선 일보》 1959년 5월 30일, 《한국 일보》 1963년 2월 23일, 《카나디언 트리뷴》 1964년 6월 15일.

계층 별 농가 호당 부채 액 (단위 원)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호당 부채액	3 997	4 623	5 625	6 779	6 993	7 860	11 294
(%)	100	115.6	143.2	169.6	175.0	196.6	2 85.1
세농	2 441	2 955	3 471	4 451	4 653	5 465	8 417
(%)	100	121.1	142.2	182.3	190.6	223.9	344.8
소농	3 811	4 523	5 363	6 649	6 581	7 844	11 748
(%)	100	118.7	167.0	174.5	172.7	205.8	308.3
중농	5 508	6 505	8 047	9 507	9 271	10 970	14 720
(%)	100	118.1	144.3	172.6	168.4	199.2	267.2
대농	9 250	10 583	13 700	14 382	12 721	14 094	17 013
(%)	100	114.4	148.1	155.5	137.5	152.4	183.9

자료 출처: 남조선 잡지 《재정》 1958년 5호, 《농업 년감》 1963년판 1—141 폐지 《전남 일보》 1964년 6월 13일.

절량 농가 증대

	1954.4	1955.2	1956.4	1957.3	1961.1	1962	1964
절량 호수(만호)	45	38	65	98	100	130	140
증가 비률	100	84	144	218	222	289	311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일보》 1954년 5월 26일, 《경향 신문》 1955년 3월 26일, 《산업 경제 신문》 1956년 5월 1일, 《동화 통신》 1961년 2월 2일, 《서울 방송》 1962년 3월 9일.

변사자 증가 정형

	1954	1956	1958	1960	1961	1962	1963	1964
변사자수(명)	807	1 096	1 249	1 688	1 380	1 858	4 094	4 952
월 평균 사망 자 수 (명)	67	91	104	141	115	155	372	413
증 가 률 %	100	136	155	210	172	231	555	616

주: 1963, 1964년 변사자 수는 각각 11월까지의 수'자이며 이에는 자살 수'자가 포함 안 되였음. 1961년, 1962년 자료는 서울시 내에 한한 자료이며 1962년의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자료임.

자료 출처: 남조선 《보건 세계》 1962년 3월호, 《조선 일보》 1962년 7월 17일, 《동양 통신》 1964년 12월 28일.

원인별 변사자 수

	교통 사고	익사	풍수해	임무상 과실 치사	살인	선박 조난	과실 치사	련탄 가스	폭발물 사고	화재 소사	강도 살인	자살	등산 조난
1963(1—11월)	1 058	616	350	476	383	470	225	159	180	87	20	1 075	—
1964(1—11월)	1 263	902	710	595	418	406	203	150	141	122	31	…	11

주: 1964년 자살 수'자는 서울시에만 한한 것임.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28일.

교통 사고

	총 수			자동차			렬 차			선 박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1951	1 316	1 555	2 415	1 212	938	2 401	—	—	—	104	617	14
1952	3 840	2 497	5 005	2 792	1 637	4 494	847	464	501	201	396	10
1953	4 921	2 983	6 235	3 794	1 757	5 814	872	419	409	255	807	12
1954	5 846	2 982	8 403	5 087	2 240	7 944	512	321	399	247	421	60
1955	5 821	2 556	7 355	4 972	1 945	6 924	606	346	386	243	265	45
1956	5 930	2 677	7 278	4 934	1 837	6 871	728	394	376	263	446	31
1957	5 154	2 245	5 896	4 186	1 411	5 560	748	454	320	220	380	16
1959	6 319	2 215	7 066	5 387	1 387	6 693	725	399	361	207	429	12
1960	7 371	2 081	9 264	6 342	1 402	8 752	788	427	494	241	252	18
1961	6 954	1 844	7 649	5 922	1 169	7 222	780	398	396	252	277	31
1962	7 454	1 953	6 897	5 150	1 152	6 486	776	420	411	528	381	—
1963	6 053	1 324	7 449	…	…	…	…	…	…	…	…	…
1964	7 047	1 589	9 655	…	…	…	…	…	…	…	…	…

주: 1963년과 1964년 수에는 선박 사고가 포함 안됨.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통계 년감》 1962년판 395 페지, 1963년판 445 페지, 《서울 방송》 1964년 7월 3일, 《동화 통신》 1965년 1월 14일.

풍수로 인한 피해

	리재민	인명 피해(명)				건물 피해 (동)	경작지 피해 (정보)	가축 피해 (마리)	선 박 피 해 (척)	피해 총액 (원)
		사망	실종	부상	계					
1956	12 990	134	76	188	398	22 555	734 477	5 179	847	884 599
1957	157 371	255	48	892	1 195	46 913	1 227 594	2 954	813	24 301 016
1958	112 714	150	18	186	354	32 662	2 507 843	1 469	147	26 329 156
1959	579 930	781	206	3 001	3 988	155 811	3 456 446	47 400	11 613	85 127 820
1960	98 314	81	86	153	320	23 943	1 052 820	1 842	3 929	12 814 820
1961	60 003	255	85	260	600	19 244	94 748	4 677	510	17 457 738
1962	18 662	370	184	203	757	10 143	28 491	14 528	1 251	1 057 428
1963	97 235	319	31	317	667	30 352	153 020	8 798	2 068	5 331 445
1964	103 159	449	261	672	1 382	25 484	81 780	1 786	1 411	3 141 865

자료 출처: 남조선 《건설 년감》 1963년판 1—890 페지, 《한국 통계 년감》 1963년판 445 페지, 《한국 년감》 1964년판 466페지, 《한국 일보》 1964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건물 손실 (동)	피해 총액 (천 원)
		사망	부상	계		
1955	1 395	122	307	429	1 615	4 581
1956	1 341	109	278	387	—	1 300 000
1957	1 150	1 460	1 740	3 200	1 915	1 567 580
1958	1 667	112	180	292	21 566	1 708 048
1959	1 558	136	195	331	1 764	1 618 449
1960	1 946	130	287	417	2 901	9 391 318
1961	2 355	—	—	—	—	2 273 000
1962	2 200	131	317	448	2 204	2 000 000
1963	1 904	103	200	303	2 134	3 210 776
1964	1 714	—	—	—	—	—

주: 1964년 발생 건수는 이 해 10월 현재까지의 수'자이다.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년감》 1956년 판, 《조선 일보》 1957년 7월 13일, 《합동 통신》 1958년 1월 15일, 《부산 일보》 1960년 1월 16일, 《경향 신문》 1960년 4월 3일, 《서울 방송》 1960년 11월 15일, 1962년 3월 17일, 1962년 10월 3일, 《동양 통신》 1960년 1월 15일, 1961년 1월 30일, 《동화 통신》 1962년 11월 28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4일, 1964년 1월 20일, 《동아 방송》 1964년 11월 15일,

폭발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발생 건수	387	327	373	326	787	177	204
인명 피해(명)	804	966	721	696	517	475	413
그중 사망	233	483	284	177	154	—	152
부상	571	483	437	519	363	—	261

자료 출처: 남조선 《령남 일보》 1963년 5월 4일, 《매일 신문》 1964년 5월 28일, 《동양 통신》 1965년 2월 19일, 《동화 통신》 1965년 3월 17일.

《국민 학교》 부족 교실 수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소요 교실 수(1)	41 353	47 020	52 635	57 969	60 857	63 084	—	64 652	73 704	—
부족 교실 수(2)	17 909	18 576	22 129	25 436	26 718	27 711	30 597	35 145	39 400	42 053
2/1 (%)	43.3	39.5	42.0	43.9	42.3	43.9	—	54.4	53.5	—

주: 1962, 1963년 부족 교실 수에는 《가교실》, 수업이 곤난한 교실이 포함됨.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59년 10월 28일, 《대한 교육 년감》 1961년판 146—147 페지, 1964년판 21 페지,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3월 5일,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2월 2일, 1961년 11월 6일, 《경향 신문》 1963년 1월 29일, 《한국 교육 년감》 1964년판.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사망자수

	제 2 종 전염병 발생 총수(명)	제 1 종 전염병 발생 총수(명)	그 중									
			장티브스		발진 티브스		디프테리아		류행성 뇌염 척수 마염		류행성 뇌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55	11 489	3 209	353	28	77	4	398	22	23	6	2 056	837
1956	45 063	1 458	351	17	92	3	673	64	10	5	269	124
1957	38 593	1 963	619	33	187	11	873	86	16	5	132	56
1958	31 484	9 255	1 319	77	162	11	751	77	30	11	6 897	2 177
1959	48 732	5 531	2 139	122	73	2	1 134	86	20	6	2 093	742
1960	31 175	5 134	2 798	125	84	1	828	73	22	5	1 248	457
1961	63 637	7 249	4 992	186	41	2	914	83	9	3	1 058	375
1962	—	4 678	2 682	97	30	3	758	86	20	6	1 038	341
1963	—	—	4 919	126	32	0	713	63	—	—	59	8
1964	—	—	3 926	108	14	0	530	59	—	—	2 955	971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통계 년감》 1962년판 373 폐지, 1963년판 422 폐지, 《한국 년감》 1964년판 462 폐지, 《한국 일보》 1964년 12월 31일.

각종 범죄 발생의 장성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범죄 건수	168 265	180 537	185 518	325 531	715 675	723 985	710 780	858 000
일 평균 발생 건수	461	495	508	892	1 961	1 984	1 947	2 322
증가 비률(%)	100	107	110	195	425	430	422	504

자료 출처: 남조선《세계 통신》 1958년 2월 9일, 《조선 일보》 1962년 1월 23일, 《대한 일보》 1963년 3월 12일, 《한국 일보》 1963년 7월 10일, 《동양 통신》 1964년 12월 10일, 《서울 방송》 1965년 2월 11일

내용별 범죄 건 수(1964. 1—10)

총전수	살인 및 강도	강간	방화	절 도	사기 및 횡령	배임	공갈	도박	특 별 법 범	폭력 법
738 524	1 641	423	157	118 597	18 446	1 366	1 337	2 631	545 739	48 187

주: 살인 및 강도 (강도 1,248건, 살인 393건), 사기 및 횡령(사기 1만 2,373건, 횡령 6,073건).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64년 12월 10일.

소년 풍기 동태 (명)

	1963 (ㄱ)	1964 (ㄴ)	증감	ㄴ/ㄱ(%)
극장 출입	20 468	25 503	5 035	125
음 주	2 784	11 169	8 385	401
흡 연	3 082	16 446	13 364	43 배
흉기 소지	250	916	666	366
풍기 문란	16 858	44 156	25 298	262
훈방(訓放)	31 303	74 902	43 599	239
학교 통고	5 408	4 624	—784	86
가정 인계	3 339	9 544	6 205	286
즉결·재판	3 421	9 120	5 699	267
계	86 913	196 380	9 467	226

주: 괴뢰 당국이 단속 처리한 것에 한함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일보》 1964년 12월 31일.

미신업자의 증가 (명)

	무 당	점쟁이	관상	수상	골상	풍 수	사 주	독 경	계
1955	2 832	4 556	369	227	48	1 062	777	1 203	11 074
1956	3 326	5 017	651	323	111	1 310	898	1 651	13 287
1957	3 882	5 755	638	392	242	1 534	1 191	1 701	15 335
1958	4 490	6 665	604	369	133	1 501	1 069	1 781	16 612
1959	5 202	7 669	560	356	124	1 959	1 076	2 216	19 162
1960	5 849	8 691	650	445	128	2 180	1 176	2 811	21 932
1961	5 329	8 004	502	266	94	1 764	928	2 408	19 295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통계 년감》 1963년 판 416 페지.

기아(棄兒) 발생의 증가

	1955	1956	1957	1958	1959	1961	1962	1964
발생자 수(명)	715	1 425	2 506	2 113	2 415	1 837	2 263	9 826
월 평균 발생수(명)	59	119	209	176	201	153	189	801
증가 비률 (%)	100	199	351	296	238	257	320	1 357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60년 2월2일, 《부산 일보》 1960년 2월 3일, 12월 2일, 《전남 일보》 1963년 2월 3일, 《동화 통신》 1963년 5월 3일, 1965년 2월 23일, 《합동 통신》 1964년 5월 3일, 《라지오 서울 방송》 1965년 2월 21일.

《한일 회담》 주요 일지

(1951년 10월—1965년 3월)

1951년

10월 22일—11월 20일 《한일 회담 예비 회담》 도꾜에서 열림. 《재산 청구권 문제》, 《재일 교포 법적 지위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기본 관계 문제》 등을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각 《분과 위원회》를 설정

1952년

1월 18일 남조선 괴뢰 정부에서 《린접 해양 주권에 관한 선언》 (일명 《리 승만 라인》, 《평화선》)을 발표.

2월 15일—4월 25일 도꾜에서 《제 1 차 한일 회담》 진행, 수석 대표: 남조선 괴뢰 측 량 유찬 (미국 주재 대사), 일본측 마쯔모도 슌이찌쯔, 《리 승만 라인》을 둘러 싼 《어업 문제》와 《재산 청구권 문제》에서 리해 상반으로 결렬

1953년

1월 5일 유엔군 총사령관 끌라크에게 불리워 간 남조선 괴뢰 대통령 리 승만, 일본 수상 요시다와 《회담》, 《반공 동맹》 형성 문제와 《한일 회담》 재개 문제를 토의하고 《한일 량국은 과거를 잊어 버리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성명

3월 8일 《일미 호상 방위 협정》 조인,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를 창설하고 《방위청》을 설치

4월 15일—7월 23일 도꾜에서 《제 2 차 한일 회담》 진행, 수석 대표: 남조선 괴뢰측 김 용식 (일본 주재 공사), 일본측 오꾸무라 가쯔조

7월 27일 조선 인민의 승리로 정전 협정 체결

9월 8일 침략적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세아토》 조인

10월 1일 《한미 호상 방위 조약》 조인.

10월 6—21일 《제 3 차 한일 회담》 진행, 수석 대표: 남조선 괴뢰측 김 용식, 량 유찬 (교체), 일본 측 구보다 강이찌로, 10월 15일 《청구권 문제》를 토의하는 본 회의 석상에서 구보다 강이찌로가 《36년 간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것은 오히려 한국인에게 유리하였다》고 한 망발이 조 일 량국 인민들의 격분을 불러 일으켜 회담 파탄

12월 2일 《미국 대만 상호 방위 조약》 조인

1956년

11월 17일 《한 미 우호 통상 항해 조약》조인

1957년

4월—12월 《제 4 차 한일 회담》을 위한 예비 교섭 진행

12월 31일 일본 주재 괴뢰 대사 김 유택과 일본 외상 후지야마 간에 진행된 예비 교섭에서 량측은 부산에 억류된 일본 어민과 일본에 수용된 남조선 밀입국자들을 상호 교환한다는 데

합의, 그리고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에 관한 일본과의 평화 조약 (《대일 단독 강화 조약》) 제 4 조의 해석에 관한 미 합중국의 견해》에 기초하여 《재한 일본인 재산 청구권》을 철회하며 1953년 10월 15일 《한일 회담》의 일본 측 수석 대표 구보다의 망언을 취소한다는 《구상서》를 전달

1958년

4월 15일 도꾜에서 《제 4 차 한일 회담》(1960년 4월까지)이 열림, 수석 대표 : 남조선 괴뢰측 림 병직, 허 정 (교체), 일본측 사와다 렌조, 의정으로 1, 《기본 관계 문제》 2, 《한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 3,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4, 《어업권 및 평화선 문제》에 합의하고 그에 따르는 《분과 위원회》를 조직

4월 18일 일본 수상 기시 노브스께가 참의원 외교 위원회에서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리 승만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떠벌림

5월 19일 일본 수상 기시 노브스께의 개인 사절 야쯔기 가즈오 서울에 도착, 리 승만에게 기시의 서한을 전달, 회담 서한에서 리 승만은 《한일 량국을 련결시키는 반공 전선》을 제의

5월 23일 리 승만 담화를 발표, 기시를 《반공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리해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자》라고 찬양

6월 11일 《제 4 차 한일 회담》 일본측 수석 대표 사와다 렌조가 《일청 및 일로 량 전쟁은 모두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이 조선 반도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압록강 밖으로 밀어 낸 전쟁이였다. 우리들은 세 번째 일어나서 38도 선을 압록강 밖으로 밀어 올리지 않으면 선조들에 대하여 그리고 선배들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할 면목이 없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임무이다.

일한 량국 간에 가로 놓인 목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있지만 38선을 북으로 밀어 올리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망발

1959년

1월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가 《우리는 한국과 대만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될 수만 있으면 이들과 함께 일본 합중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극동의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지껄임

5월 16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의 귀국 문제와 관련하여 《제 4 차 한일 회담》 중단 상태에 빠짐

8월 12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문제를 파탄시킬 목적 밑에 《재일 교포 법적 지위 문제》를 중심 의제로 하고 제 4 차 회담 재개, 그러나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조인 (8월 13일), 귀국 제 1 선의 니이가다항 출발 (12월 14일)과 관련하여 일제와 남조선 괴뢰 간의 모순이 격화되어 12월 30일 《제 4 차 한일 회담》 재차 중단

1960년

1월 19일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께, 워싱톤에서 《일미 신 안보 조약》에 조인, 미국이 《한일 회담》의 재개를 강요

1월 30일 제 4 차 《한일 회담》 재개, 일본 측은 서울에 일본 《대표부》를 설치하고 《현안 문제》의 타결에 앞서 《국교 정상화》 실현을 요구

4월 19일 남조선 인민들의 봉기로 리 승만 괴뢰 정권 붕괴, 《한일 회담》 파탄

7월 15일 《일미 신 안보 조약》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하여 기시 내각 사임, 7월 19일 일본에서 이께다 신 내각 성립

8월 23일 장 면 괴뢰 내각 조작

9월 6일 일본 외상 고사까 젠다로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장 면 도당과 《한일 회담》 및 《한일 경제 협조》 문제와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을 파탄시킬 흉모를 꾸밈

10월 25일 《제 5 차 한일 회담》 예비 회담 (제 5 차 《한일 회담》은 본회담에 들어 못 가고 예비 회담 진행 중 5.16 쿠데타로 파탄됨) 개최

1961년

1월 6일 괴뢰 정부 총리 장 면, 《민간 업자를 통한 일본 자본 도입은 대일 국교 정상화 전에도 가능한줄로 안다》고 떠벌림

2월 8일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 조인,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기세 고조

4월 26일 일본 자유 민주당 내 《친한파》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한 문제 간담회》를 설치 (회장 이시이 미쯔지로)

5월 6일 이시이 미쯔지로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국회 의원단》이 남조선에 기여듦

5월 16일 조국 통일 기운의 고조, 남북 학생 회담의 제기 등에 당황 망조한 미제가 장 도영, 박 정희 도당을 사촉하여 군사 쿠데타를 조작, 《제 5 차 한일 회담》 파탄

5월 17일 일본 정부, 《일한 국교 정상화를 위한 본 회담을 개최할 방침을 결정》

6월 20일 《케네디—이께다 회담》에서 케네디는《극동 정치 체계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고민하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문제는 한국 문제이다》, 《군사 정권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이께다는 《부산이 적화되면 일본의 치안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조선 《군사 정권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확약하고 이를 위해 우선 《한일 회담》을 즉시 재개할 것을 다짐

7월 5일 《친선' 사절단》으로 일본에 찾아 간 최 덕신이 이께다와의 회담에서 《현 군사 정권은 남한이 일찌기 보지 못 했던 〈가장 친일적 정부〉》 라고 말함

8월 7—16일 일본 외무성 동북 아세아 과장 마에다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한일 회담》 재개, 《한일 관계의 정상화》 등 문제에 대하여 박 정희 도당과 모의

10월 20일 도꾜에서 《제 6 차 한일 회담》 (1964년 2월까지) 개최, 수석 대표 : 남조선 괴뢰측 배 의환, 일본측 스기 미찌스께

10월 22일 《김 종필—이께다 회담》, 《김 종필—고사까 회담》 진행, 《한일 회담의 현안 문제들을 호상 양보의 기초 우에서 해결》할 데 대하여 《합의》

11월 2일 《미일 무역 경제 위원회》 (하꼬네 회담)에서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솔직히 말해서 아세아의 중심 문제는 한국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세아 정책의 큰 과제로 되여 있다. 남부 윁남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비관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다시 실패를 본다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도 관계된다.…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동아세아의 정세를 개선하는 것은 미일 량국의 공동의 목표인데 이 경우에 일본의 역할은 비상히 중요하다. 일본은 빨리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에 협력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떠벌린 데 대하여 일본 수상 이께다가 《한국 문제를 중요시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이다. 일본도 한국이 빨리 도로 일어 서도록 노

력하겠다.… 한국의 안정화에 대한 (일본의) 열의는 미국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말함. 일본측 수석 대표 스기 미찌스께가 남조선에 들어와 박 정희 도당과 《한일 회담 조기 타결 문제》를 협의

11월 5일 《러스크—박 정희 회담》 진행, 박 정희에게 《한일 회담》을 추진 시킬 것을 지시

11월 12일 《박 정희—이께다 회담》, 박 정희가 《한일 협조》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밝힘, 《재산 청구권 문제》—《보복》이나 《배상》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것 만을 청구한다. 《리 승만 라인》 문제—《탄력성》을 가지고 교섭하겠다, 《한일 회담 타결—국교 정상화—경제 협력》이라는 《3 단계론》을 변경하여 《국교 정상화 전》에 라도 《한일 회담》과 병행하여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전 수상 기시, 부수상 이시이 앞에서 박 정희는 《우리는 일본의 명치 유신 때의 근왕파와 같은 정신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치 유신의 력사를 연구하고 있다. 나는 일본 륙군 사관 학교 졸업생인데 나는 굳센 군인을 기르기에는 일본의 방법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은 옛 일본 황군의 륙군 대학에서 학생들을 훈련하듯이 병사들을 훈련하고 있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당신들에게 배우고싶다》고 지껄임

11월 14일 《케네디—박 정희 회담》

1962년

1월 25일 량측 《수석 대표》 간에 《비밀 문서》로써 3월 초 《정치 회담》 개최, 1 개월 내에 《현안 문제 타결》, 5월 중 《국교 정상화 협정》에 《조인》을 《협약》

2월 20일 《한국 광공업 보세 가공 조사단》이 남조선에 기여듬

2월 21일 《김 종필—이께다 회담》, 쌍방 《수석 대표》 간의 《비밀 협약》을 시인하고 3월 초에 《외상급 정치 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

3월 12일—17일 괴뢰 외무부 장관 최 덕신과 일본 외상 고사까 간에 《정치 회담》 도꾜에서 진행, 《어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청구권 문제》의 론쟁이 《한 반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문제》에까지 확대되여 결렬

5월 3일 요시다가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와 《한일 문제》를 토의

7월 25일 일본 수상 이께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한국의 사활적 문제》이므로 남조선 괴뢰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박 정희 도당에게 굴종을 요구

8월 21일 2차 《한일 정치 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 회담》 재개

8월 29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와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라이샤워, 일본 주재 남조선 괴뢰 대사 배 의환 간에 《3자 회담》 진행, 《청구권 문제》를 일본의 남조선에 대한 《무상 공여》와 《묶어서 흥정》할 데 대하여 《합의》

9월 14일 《한일 회담》 타결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다 같이 만족을 줄 수 있는 타결의 성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한일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위정자가 다 같이 어느 정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박 정희 망언

9월 15일 일본의 《 경제 사절단》이 남조선에 기여듬

9월 18일 괴뢰 외무부 장관 최 덕신, 《미국 정부의 조정이 있는 한 한일 회담의 전도를 비관하지 않는다》. 《일본 측이 청구권 문제에서 양보하면 평화선 문제를 양보하겠다》고 떠벌림

9월 24일 《러스크—오히라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는 《총액 3억 딸라 정도가 타결의 기준으로 될 것이다》라고 러스크 언명 ▶일본 외상 오히라 《미국은 많은 시장을 맡은 백화점 판매원과도 같은 격으로서 그 외에도 훌륭한 매장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라는 매장에까지 미처 손을 쓰지 못 하는 형편인 듯 하다. 그렇다면 방침을 명백히 결정하고 매장을 일본에 내 맡길만한 용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떠듬

9월 30일 괴뢰 외무부 장관 최 덕신이 《대일 재산 청구권》 총액을 3억～3억 5천만 딸라로 할 것을 시사 ▶일본 방위청에서 괴뢰 집단과 《국교 정상화》 즉시로 남조선에 《방위 주재관》을 상주 시키기로 결정

10월 20일 김 종필이 박 정희의 친서를 이께다에게 전달, 《김 종필—오히라 회담》 진행

10월 22일 《김 종필—이께다 회담》에서 《한일 회담》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

11월 7일 일본 외무성 조약 국장 나까가와 일행 7명이 남조선에 기여듬

11월 12일 《김 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메모》 교환 형식으로 《합의》, 김 종필이 오히라에게 《과거 지사는 묻지 말자》, 《늙은 세대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을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

12월 6일 정 일권—해리맨—오히라 회담 진행, 《김 종필—오히라 합의가 재 확인》됨

12월 10일 일본 외상 오히라가 남조선에 기여듬

12월 12일 《박 정희—오히라 회담》, 《김 종필—오히라 회담》 진행, 《대일 재산 청구권을 경제 협력으로 대치》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전달, 《한일 회담 조기 타결 방침》을 재 확인. 김 종필은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 회담만은 꼭 끝을 맺는다》.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이것만 (한일 회담)은 해 낸다》고 지껄임

12월 18일 미 국무성 차관보 해리맨, 《한일 회담의 완전 타결을 기대》한다고 언명

12월 24일 일본 자유 민주당 《일한 문제 간담회》에서 《일한 회담 조기 타결》을 이께다에게 요구

1963년

2월 1일 괴뢰 정부, 일본 외교관의 남조선 단기 체류를 승인

2월 20일 《보세 가공 무역 촉진》을 구실로 일본 독점 재벌 대표 19명이 남조선에 기여듬

3월 8일 일본 외무성 동북 아세아 과장 마에다, 남조선의 《정치 정세 시찰》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듬

3월 16일 박 정희, 앞으로 4년간 《군정 연장》을 성명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 《한국의 군정 4년 연장은 일본에 유리》하다고 언명

3월 25—28일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 김 용식이 일본에 가서 수상 이께다, 외상 오히라,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등과 밀담, 김 용식은 《현안 문제의 조기 타결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떠벌림

5월 23일 정치적 위기로 3.16 성명 이후 중단되였던 《한일 회담》 재개, 《어업 문제》 토의에 착수

7월 5일 남조선 측이 《평화선》 철폐를 시사하고 《어로 전관 수역》을 40 마일로 축소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

7월 8일 박 정희가 이께다에게 《국교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요망하는 친서》를 전달 ▶《한일 회담》 남조선 측 《수석 대표》 배 의환과 일본 외상 오히라 간에 회담

7월 16일 미제가 괴뢰 정권의 외무부 장관 김 용식을 워싱톤에 호출

하여 오히라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어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

7월 26일 《어업 문제》에 관한 김 용식—오히라 《정치 회담》 진행, 김 용식이 전관 수역을 12 마일까지 축소 할것을 시사하고 《어업 협력》조로 1억 7,800만 딸라의 《차관》을 요구

8월 2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와 일본 외상 오히라 간에 《한일 문제》를 《협의》

8월 17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브라운과 괴뢰 외무부 장관 리 동원 간에 《회담》,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것》에 대하여 《성명》발표

8월 23일 배 의환과 오히라 간에 밀담, 일본 측의 《잠정적 어업 협정안》을 제시

9월 10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브라운, 《민정당》 총재 윤 보선을 방문하고 《한일 회담》 조속 타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밝힘

9월 14일 박 정희—브라운 회담,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 진행 ▶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브라운, 《민주당》 최고 대표 위원 박 순천을 방문, 《한일 회담》 타결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밝힘

10월 28일 박 정희가 일본 기자단의 서면 질의에 답변,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 방침은 불변》이며 《국교 정상화 문제와는 관련 없이 선의의 경제 협력이라면 받아 들일 것》이라고 지껄임

11월 19일 워싱톤에서 김 용식—러스크 회담, 《한일 회담》을 빨리 끝낼 것을 지시

12월 17—19일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가 박 정희의 《대통령 취임 경축 사절》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들어와 박 정희, 김 종필 등과 《한일 회담 타결책》을 모색, 오노 반보꾸가 《박 정희와 부자지간》이라고 떠벌림

1964년

1월 27—29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 일본과 남조선에 기어들어 《한일 회담》의 최종적 타결을 조종, 《극동에서의 반공 체계를 정비 강화》하기 위해 《2월 중에 (한일 회담) 본 회담을 열어 5월 국교 정상화가 성취될 수 있》게 하라고 박 정희 도당에게 지시, 29일 서울에서 박 정희—러스크 회담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 발표

2월 4일 《한일 고위급 어업 회담》 진행, 전관 수역, 규제 수역 및 출어 척수 등을 토의

2월 4일 괴뢰 정부의 한 《고위 정책 수립자》, 《한일 회담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사실상 한, 미, 일 3국 회담의 성격으로 발전했으며 5월 17일 일본 의회 휴회 전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타결시킬 3국 간의 묵시적 방침》이 섰다고 언명

2월 7일 제 2 차 《한일 고위 어업 회담》 진행, 《문제점》들을 《각료급 정치 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

3월 10일 《어업 문제》에 대한 《한일 농림상 회담》 개시

3월 20일 《한일 회담》을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하기 위해 김 종필이 도꾜에 도착, 수상 이께다, 자민당 부총재 오노, 국무상 사또, 외상 오히라, 농림상 아까기 등과 《한일 회담 최종 타결책》을 모의

3월 24—30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반일 반정부 시위 전개

3월 30일 일본 농림상 아까기, 《어업 회담》에서 남조선 측이 《12 마일 전관 수역 안에 동의》했다고 언명

4월 4일 괴뢰 외무부 장관 정 일권과 일본 외상 오히라 간에 회담, 《한일 회담을 결속 지으려는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호상 확인

4월 6일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봉기로 《한일 회담》 중단

4월 15일 괴뢰 외무부 장관 정 일권, 《한일 회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미국 대사 버거와 《련속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명

4월 17일 박 정희 괴뢰 정부가 5월 초부터 《한일 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결정

5월 23—6월 5일 《한일 회담》을 재개하려는 책동을 반대 배격하여 청년, 학생들 또다시 시위 투쟁 전개

6월 3일 박 정희 도당이 《계엄령》 선포

6월 6일 일본 외상 오히라, 《한국의 현 정치적 동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한 정상화 회담을 계속 개방해 두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명

8월 14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남조선에 대한 2천만 딸라의 《긴급 경제 원조》를 승인

8월 17일 괴뢰 외무부 장관 리 동원과 미국 대사 브라운 회담, 미국이 《한일 회담 조기 실현》에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확약

9월 12일 미국 대사 브라운, 미 국무성 극동 담당 부차관보 버네트, 일본 주재 미국 공사 에머슨과 괴뢰 외무부 장관 리 동원, 《부의장》 장 경순, 기타 괴뢰 정부 《각료》들이 《한일 회담》 재개 문제를 가지고 협의

9월 29일—10월 3일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가 일본과 남조선에 기어들어 《한일 회담》을 재개하며 그를 조속히 타결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10월 22일 일본 주재 괴뢰 대사 김 동조가 일본 외상 시이나를 찾아가 《한일 회담의 재개》를 제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재개하는 데 《합의》

10월 28일 《일한 경제 협력 방한 시찰단》 일행 19명이 남조선에 기어듦

12월 3일 도꾜에서 《제 7 차 한일 회담》 개최, 수석 대표 : 남조선 괴뢰 측 김 동조 (일본 주재 대표부 대사), 일본측 스기 미찌스께 (회담 기간중 사망), 다까스기 싱이찌

12월 8일 일본 수상 사또, 《국제 관례상 평화선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언명

1965년

1월 7일 《한일 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 다까스기 싱이찌, 기자 회견에서 《조선이 20년 간만 더 일본에 붙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일본은 형이 된 셈 치고 큰직하게 먹어 치워야 한다》고 망언

1월 8일 괴뢰 정부,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의 《한일 회담》 결속 방침을 결정

1월 9일 박 정희, 기자 회견에서 《한일 회담》을 《가부간 올해에 매듭 짓겠다》고 떠들어댐

2월 17일 일본 외상 시이나 남조선에 기어듦, 20일 박 정희 도당과 《을사 보호 조약》의 재판인 《한일 기본 관계 조약》을 가조인

3월 3일 괴뢰 농림부 장관 차 균희와 일본 농림상 아까기 간에 《한일 회담 현안 문제》 중 《마지막 난문제》인 《어업 협상》 개시

기 상 개 관

1964년에 우리 나라의 기상 조건은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매우 많았으며 여름철에 태풍의 영향이 심했던 것이 특징이다.

【기온】 1964년도 우리 나라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1월, 4—5월 및 12월이 높았다.

1월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2～5 도가 높아 매우 따뜻하였으며 1월과는 반대로 2월에는 례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1.5～3.0도 낮아 매우 추웠다. 이리하여 2월이 1월보다 평균 기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이한 현상이였다.

1964년 봄철의 기상 조건은 4—5월 평균 기온이 례년에 비하여 1.5～2.0도 높았으며 전반적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온도가 지속되였다. 이것은 4—5월에 흐린 날씨의 지속과 비가 많이 내려 밤 기온이 내려가지 않은데 기인된다.

그러나 4월에 동해안 만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십년래 보기 드물게 기온이 매우 낮았다. 례년에 비해서 동해안 북부에서는 1.5도, 강원도 지방에서는 4도 정도 낮았다.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12월에도 서해안 북부에서 1～1.5도 정도 높았을 뿐이며 기타 지방은 평년과 거의 같았다.

이와 같이 이 해 년초부터 5월까지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였으나 6월 이후부터는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거의 같은 상태였다.

【강수】 1964년에 강수량이 매우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였다.

년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평안 남북도에서 1,500～2,200 미리, 황해 남북도에서 1,200～2 500 미리, 강원도에서 2 000～2,500 미리, 함경 남북도에서 600～900 미리였다. 북부 내륙 지방에서도 1,000 미리 이상이였다.

몇 개 지점의 년 강수량을 평년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년 강수량 (단위 mm)

	강수량 1964년	평년	%
신의주	1 582	1 090	149
평 양	1 616	958	169
개 성	2 234	1 286	174
원 산	2 047	1 348	152
김 책	740	704	105
중 강	1 072	841	128

보는 바와 같이 년 강수량이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에 비하여 30～70 %가 더 많았다.

년 강수량이 이와 같이 많았던 것은 력사적으로 극히 드문 현상이다. 특히 평양에서는 최근 60년래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며 원산에서는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1954년의 다음 가는 해에 해당된다.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동서해안의 분수령을 이루는 산지대가 많으며 동서 해안으로 낮아지면서는 적어졌다. 또한 강수량이 남쪽에서 많았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적어진 것이 분포상 특징으로 된다.

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황해북도의 고지대로서 2 500 미리 이상이며(세포, 신평은 2 600 미리 이상)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의 산 지대에서는 2,000 미리 이상(양덕, 동창은 2,100 미리 이상)이였다. 서해안의 나머지 지방에서도 1 200 미리 이상이였으며 자강도는 1,100 미리 이상이였다.

년 강수량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 데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례년에 비하여 4—5월에 비가 많았던 것과 관련된다.

강수의 년간을 통한 변화 상태를 보면 지방적 차이는 있으나 년초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많았으며 9—12월 어간에는 평년과 거의 같거나 약간 적을 정도였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았던 달은 1월, 4—5월 및 7—8월이며 특히 1월, 4월 및 7월은 평년의 2～3 배에 해당된다.

1964년에 강수량이 많았던 것과 함께 강수 일수도 례년에 비하여 10～20일 더 많았다.

강수량이 많았던 1월, 4월 및 7월은 강수 일수가 평년보다 3～5일씩 더 많았다.

【일조】 일조 조건은 하늘 상태 즉 구름량에 의존된다. 1964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비가 자주 내리고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자주 있어 일조률은 례년보다 낮은 편이였으며 9월 이후는 평년과 거의 같았다.

일조 조건이 불리했던 황해남도, 개성 및 강원도 지방들의 일조률은 례년에 보기 드물 정도였다.

일조률이 매우 낮았던 달은 1월과 4월 및 8월이였다. 몇 개 지방의 일조률을 평년에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일 조 률 (%)

	1월 1964	평년	차	4월 1964	평년	차	8월 1964	평년	차
평 양	47	63	−16	40	62	−22	38	46	−8
해 주	52	65	−13	38	62	−24	32	50	−18
원 산	57	68	−11	29	60	−31	20	41	−21
김 책	46	58	−12	36	58	−22	25	40	−15
중 강	48	59	−11	39	52	−13	30	44	−14

보는 바와 같이 일조 조건이 특히 불리했던 달에는 일조률이 평년보다 10～20% 더 낮았으며 4월에 특히 강원도 지방은 30% 이상이나 낮았다.

1964년의 특수한 기상 현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1월의 많은 강수와 높은 온도

1월의 기상 상태는 례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수한 현상이였다. 즉 1월에는 상례로 눈이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아서 철에 맞지 않는 비가 내린 날이 있었으며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많았다.

1월의 기상 조건을 평년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1 월 기상 상태

	기 온(°c)			강수량 (mm)			일조률 (%)		
	1964	평년	차	1964	평년	차	1964	평년	차
신의주	−3.8	−9.0	+5.2	75	9	+66	66	66	0
평양	−3.2	−8.3	+5.1	45	14	+31	47	63	−16
해주	−0.6	−5.0	+4.4	43	14	+29	52	65	−13
원산	−0.9	−3.8	+2.9	117	22	+95	57	68	−11
중강	−17.5	−20.0	+2.5	24	12	+12	48	59	−11

이상에서 1월의 기상 상태의 특수성을 충분히 엿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잘 표현한 1월 12일 하루 일기 개항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1월 12일의 날씨

	기 온 (°c)			강수량 (mm)	바람 방향
	평균	최고	최저		
신의주	4.2	6.6	1.6	51.9	북북서
개성	5.8	9.4	3.9	25.2	남동, 남서
원산	5.7	8.6	3.3	21.2	남서, 서

가장 추울 때인 1월 12일의 기온이 가을날 기온과 같이 높았으며 많은 비가 내렸다.

(2) 4—5월의 많은 비

우리 나라에서 4—5월은 상례로 가물이 심한 시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강우량은 보통 40~50 미리, 5월은 50~80 미리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강우량이 적은 해는 4—5월에 걸쳐 20~30 미리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64년 4—5월은 1963년과 같이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조률은 낮고 강우 일수가 매우 많았으며 습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봄철에 가물 현상은 없었으며 날씨는 심히 변동하였다.

4월의 강우량, 강우 일수 및 공기 습도를 평년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4 월 강 우

	강우량 (mm)		강우 일수(일)		상대 습도 (%)	
	1964.4	평년	1964.4	평년	1964.4	평년
평양	219	47	16	6	76	64
개성	510	68	14	7	79	64
원산	296	65	18	9	88	61
김책	79	34	10	7	83	65
중강	124	36	9	10	73	60

보는 바와 같이 4월에 평년보다 강우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4~7 배가 많았으며 강우 일수도 자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하고는 2~3 배가 많았다. 공기 습도는 75~90%로써 여름철의 습도와 류사한 정도였다.

이상과 같은 강우로 인하여 일조 조건은 매우 불리했으며 높아가는 기온이 억제되였다. 서해안 지방에서 평균 기온은 높았으나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지 못하였으며 동해안의 강원도 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온도(원산은 평년보다 4도 낮았음)가 계속되였다.

(3) 여름철의 많은 비

우리 나라 여름철은 우기에 해당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여 있다. 그러나 1964년도와 같이 많은 비가 내린 것은 드문 현상이다.

여름 강우량 (mm)

	1964	평년	%
신의주	1 088	663	164
평양	1 100	577	190
개성	1 148	806	142
원산	1 059	722	146
김책	394	355	111
중강	730	488	150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서는 평년의 1.5~2.0 배 정도로 강우량이 많았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거의 대부분 지방에 례년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년초부터 7월 말까지 기간에 내렸다.

여름철 강우 일수도 현저히 많았다. 7월 강우 일수는 20~25 일로서 거의 매일과 같이 비가 내렸으며 여름 3 개월간 강우 일수는 40~60일이였다.

(4) 태풍

우리 나라는 매년 한두번씩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태풍은 보통 7~8월에 우리 나라를 통과한다.

1964년에 태풍은 7월에 2차, 8월에 1 차 우리 나라를 통과함으로써 그 영향은 컸다. 특히 태풍 9호는 7월 28일—29일에 서해 해상으로부터 몽금포—박천—중강을 통과하였다. 이 때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 바 황해남도 해안 지방에는 초속 30 메터 이상, 기타 해안 지방에서는 15~20 메터,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10 메터의 풍속이였다.

이 태풍 9호가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내린 강우량은 평안북도에서 50~100 미리, 북부 내륙 지방에서 30~50 미리였다.

태풍 11호는 8월 2—3일에 걸쳐 우리 나라 서해를 통과하였다.

태풍은 대부분 지방에서 초속 10 메터 이하였으며 황해남도 해안 지방만은 20 메터까지 달하였다.

태풍 11호의 영향으로 내린 강우량은 서해안과 강원도 및 함경남도 해안에서 20~40 미리였으며 기타 지방에서는 10 미리 정도였다.

1964년 태풍의 특징은 강우량이 적고 바람이 강했던 것이다.

월 평균 기온 (°C)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신의주	−3.8	−6.8	1.4	10.8	16.5	19.6	22.9	23.9	18.5	10.6	3.0	−3.9	9.4
구성	−3.7	−7.2	6.7	11.0	16.9	19.5	22.7	23.2	17.6	9.6	1.9	−5.2	9.4
평양	−3.2	−6.9	1.4	11.7	17.6	20.4	23.8	24.6	18.5	10.9	3.7	−3.4	9.9
양덕	−5.6	−10.1	0.1	8.1	15.2	18.0	21.5	22.6	15.5	8.3	1.3	−5.9	7.4
사리원	−2.3	−6.5	1.7	12.1	18.2	20.9	24.2	24.8	18.8	11.6	4.2	−2.0	1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해주	−0.6	−4.2	2.4	12.6	17.3	19.9	23.5	24.9	19.8	12.7	5.7	−0.3	11.1
개성	−0.9	−5.0	2.7	12.3	17.3	20.5	23.8	25.1	19.4	12.3	5.0	−1.5	10.9
세포	−6.3	−11.1	−1.4	5.8	13.5	16.5	20.0	20.8	14.6	8.0	0.9	−5.9	6.3
원산	−0.9	−4.8	2.5	6.2	17.0	19.0	21.9	22.9	17.9	12.6	6.7	0.3	10.1
장진	−15.3	−19.1	−7.8	3.3	10.4	13.0	17.0	17.7	10.6	3.8	−4.0	−12.2	1.4
함흥	−2.7	−5.5	2.1	6.3	15.7	18.6	21.5	22.8	17.4	11.9	5.2	−1.3	9.3
김책	−2.1	−5.2	1.3	5.4	13.1	15.9	19.9	22.1	16.8	11.8	5.1	−1.0	8.6
청진	−3.2	−6.4	0.4	4.9	13.5	15.2	19.2	20.6	15.8	10.7	3.9	−2.4	7.7
혜산	−15.1	−17.1	−4.6	6.9	13.9	16.6	20.1	20.3	12.0	4.7	−4.0	−13.1	3.4
중강	−17.5	−18.6	−3.4	8.4	16.1	18.9	21.6	22.1	13.6	6.2	−2.7	−14.3	4.5
강계	−10.0	−12.0	−1.1	10.2	16.6	19.5	22.5	22.8	15.3	7.8	−0.4	−8.9	6.8

강 수 량 (mm) 및 강 수 일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강수량	강수일수
신의주	75.0	3.6	41.6	129.8	73.5	106.7	668.0	313.7	62.9	90.2	6.5	10.3	1581.8	110
구성	83.6	4.1	52.7	187.4	77.0	107.3	774.0	594.3	65.7	89.2	12.8	12.7	2060.8	138
평양	45.4	7.0	31.9	219.1	56.2	85.1	609.4	405.5	77.9	52.3	13.7	12.1	1615.6	107
양덕	63.3	5.9	34.7	352.0	69.4	87.6	755.3	632.3	111.9	38.1	21.9	22.6	2195.0	132
사리원	29.6	17.7	18.5	236.0	59.2	53.8	367.7	292.8	80.8	52.4	27.8	6.1	1242.4	111
해주	42.7	11.1	25.3	292.6	58.1	88.2	632.5	301.2	248.1	99 3	21 4	4.0	1824.5	109
개성	35.7	27.9	38.2	510.0	79.7	87.1	633.7	426.7	307.1	62.1	16.4	9.5	2234.1	119
세포	60.1	24.3	44.2	521.8	115.6	107.3	874.6	610.7	192.5	50.9	26.4	17.2	2645:6	142
원산	17.2	35.8	23.9	296.1	192.6	143.1	520.0	395.8	254.4	35.5	15.2	17.5	2047.1	142
함흥	60.9	13.8	22.0	164.7	68.8	63.5	482.6	587.0	83.0	34.3	60.9	2.7	1644.2	122
장진	29.3	8.3	30.8	108.4	53.9	54.7	349.5	270.6	56.3	25.4	12.1	13.7	1013.0	124
김책	24.9	28.5	22.0	79.1	46.9	44.5	171.7	178.3	39.7	23.0	63.6	12.6	739.8	119
청진	8.6	1.4	23.9	99.0	57.6	49.7	132.8	147.5	7.9	25.7	19.2	32.8	606.1	121
혜산	12.1	3.6	27.3	101.5	35.2	81.0	189.8	135.3	27.9	26.8	7.7	2.8	651.0	117
중강	23.6	4.8	22.4	123.5	55.9	121.5	253.7	354.9	34.5	32.6	23.1	21.8	1072.3	122
강계	17.1	3.7	38.3	143.8	65.7	51.9	279.9	334.4	70.1	72.8	33.8	12.3	1123.8	136

일 조 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의주	66	69	58	40	68	43	39	40	60	53	66	62
구성	66	65	49	38	64	48	34	36	55	54	53	52
평양	47	61	45	40	60	47	32	38	50	51	52	43
양덕	52	65	53	39	60	43	32	34	46	50	49	48
사리원	52	65	51	36	59	46	35	39	53	58	57	54
해주	52	63	52	38	56	52	27	32	51	55	59	64
개성	48	58	50	39	59	52	33	39	47	59	59	62
세포	46	62	51	44	59	49	29	29	44	58	47	56
원산	57	63	55	29	61	40	32	20	46	56	66	64
함흥	57	63	59	30	55	37	29	21	44	50	61	61
장진	61	63	58	43	49	35	30	30	44	53	57	58
김책	46	46	56	36	53	30	30	25	58	56	54	56
청진	56	67	62	42	57	32	30	24	59	65	63	53
혜산	63	72	68	53	58	49	40	42	53	61	57	57
중강	48	55	55	39	48	36	25	30	45	49	46	37
강계	54	60	48	42	55	40	28	31	45	49	47	45

국내 주요 일지
(1964년 1—12월)

1 월

1일 김 일성 수상께서 신년 축하연에서 신년사

3일 김 일성 수상께서 버마 독립 16 주년에 제하여 버마 련방 혁명 리사회 네 윈 의장에게 축전 (1월 15일 답전)

4일 김 일성 수상께서 가나 공화국 대통령 쿠아메 느크루마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조작된 암살 사건에서 위기를 무사히 모면한 것과 관련하여 전문 (1월 27일 답전) ▶인도네시아 방문 민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 (2월 11일 귀국)

8일 웰남 방문 문화 대표단 평양을 출발 (2월 11일 귀국)

9일 제 9 차 동기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대표단, 오지리의 인스브룩크로 출발 (2월 28일 귀국)

12일 황주군 농업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알곡 10만 톤 생산을 결의, 평남도 숙천군, 황남도 연안군, 배천군, 평북도 염주군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13일 민청 창립 18 주년 전국 빙상 대회 개막 (1월 22일 폐막)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녀맹 중앙 위원회가 미제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빠나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치아리 대통령에게 전문 (1월 19일 답전)

14일 김 일성 동지와 최 용건 동지께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빠나마 인민과 정부의 투쟁을 지지하여 치아리 대통령과 국민 의회 의장에게 전문 (1월 20일 답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홍수 피해를 입은 알제리 인민들에게 원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벤 벨라 대통령에게 전문

15일 김 일성 동지께서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에 축전 (1월 18일 답전)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와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미 제 7 함대의 작전 수역을 인도양에까지 확대하려는 미제의 침략 책동을 항의 규탄하여 성명 발표 ▶전국 농촌 부문 예술 써클 축전 개막 (2월 7일 폐막)

17일 김 일성 수상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잔지바르 공화국 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쉐이크 아베이드 카루메 대통령에게 전문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중앙 통계국의 보도 발표 ▶김 봉한 교수,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 대표들과 외교관들에게 경락 계통에 대하여 강의

18일 우리 나라의 탁월한 유물론 철학자이며 선진적 사상가인 리 익 서거 200 주년 기념 모임 평양에서 진행 ▶락랑 구역 농업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개성 지구 개풍군, 함흥시 회상 구역, 청진시 송평 구역들에 알곡 정당 500 키로 그람 증수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0일 온천군 농업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알곡 《7만 톤 군》 창조를 결의하고 도내 증산, 대동, 순천군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2일 조중 국경 철도 협정 체결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철도 대표단 베이징으로 출발 (2월 5일 귀국)

23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전국 광업 부문 일'군 열성자 대회 개회 (1월 24일 폐회) ▶조중 국경 철도 협정 체결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중국 철도 대표단 평양에 도착 (2월 2일 귀국)

24일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 공화국 혁명 정부 간의 1964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25일 남조선 기자 2 명 (《한국 공론사》 정경부 차장과 기자) 의거 입북

2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 영예의 《근위 1 급군》 칭호를 쟁취한 숙천군 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농촌 경리 일'군들에게 축하문 ▶《민청 창립 10 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 수여식 진행 ▶평양시 청년 학생 빙상 경기 대회 개막 (1월 28일 폐막)

27일 쎄일론 방문 우리 나라 친선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5일 귀국)

29일 김 일성 수상께서 켄네트 카운다가 잠비아 내부 자치 정부의 초대 수상으로 취임한 데 대하여 축전 (2월 15일 답전)

31일 김 일성 동지와 최 용건 동지께서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중앙 위원회 위원장으로 원 우수가 재선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2월 6일 답전)

2 월

2일 2.8 절 기념 중앙 및 도 선수단 체육 대회 개막 (2월 12일 폐막) ▶미술 소품 전람회 평양에서 개관 ▶1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조선 인민군 창건 16 주년 기념 빙상 집단 체조 《로동당 시대의 아들딸》 평양 보통강에서 진행

4일 황해 제철소 화학 직장의

류안 및 경유 계통 조업 개시 ▶화란 데쉘드 회사 대표들과 홍콩 유대 양행 대표들 평양에 도착 (2월 8일 귀국)

5일 우리 나라와 웰남 민주 공화국 간의 1964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하노이에서 조인 ▶쏘련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3월 4일 귀국)

6일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학생 대표단 평양을 출발 (3월 3일 귀국)

7일 조선 인민군 창건 16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조선 주재 뽈스까 인민 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 평양에 도착, 12일 신임장 봉정

10일 소년단원들의 방송 예술써클 개인 경연 대회 개막 (2월 13일 폐막)

12일 평양시 내 학생 제 1 차 배구 대회 개막 (2월 23일 폐막)

14일 회령 제탕 공장에서 사탕 생산 개시

15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께서 네팔 왕국 국경절에 제하여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에게 축전 (3월 13일 답전) ▶라이프찌히 춘기 국제 시장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3월 27일 귀국) ▶보통 교육성에서 만경대 구역에 《모범 교육 구역》 칭호 수여

18일 전국 식료 공업 부문 열성자 대회 개최, 식료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토의(2월 19일 폐회)▶중국을 방문하는 평양 창덕 학교 교원 대표단 평양을 출발 (3월 6일 귀국)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4일 평양에서 조인 (2월 26일 귀국)

19일 몽골을 방문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3월 6일 귀국)

20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전국 모범 뜨락또르 운전수 대회 개막,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데 대하여 토의 (21일 폐막)

22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 《근위 1 급군》 칭호를 쟁취한 정주군 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에게 축하문

24일 김 일성 동지와 최 용건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전국 위원회 상무 위원이며 국방 위원회 위원이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이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민족 위원회 위원이며 이전 동북 항일 련군 제 2 로군 총정치 위원이였던 주 보중 동지 서거에 제하여 장의 위원회 주임 팽 진 동지에게 조전 (3월 13일 답전)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 개회 1.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2.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3.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2월 27일 폐회) ▶평양시 청년 학생 제 1 차 구기 련맹전 롱구 경기 대회 개막 (3월 8일 폐막)

26일 전국 스키 경기 대회 삼지연 스키장에서 개막 (3월 6일 폐막)

27일 우리 나라와 쏘련 간의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2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제염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지질 탐사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각각 정령 발표 ▶황남도 삼천군 추릉 협동 농장원 결기 회의에서 평남도 개천군 룡진, 평북도 정주군 신천, 함북도 회령군 원산, 황북도 토산군 합탄, 함남도 신흥군 경흥, 강원도 김화군 조서 협동 농장들에 알곡, 입'담배 정당 500 키로그람 이상 증수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9일 3. 1 운동 45 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조선 학생 위원회,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통치와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베네수엘라 종합 대학생 중앙 련맹과 에꽈도르 종합 대학생 련맹에 편지

3 월

3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성명—《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할 데 대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 발표

6일 웰남 민주 공화국 과학 기술 참관단 평양에 도착 (4월 8일 귀국) ▶케니아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니얀자주 총비서 평양에 도착 (3월 18일 귀국)

7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의 잡지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의 창간과 관련하여 협회 서기국에 축전

8일 전국 각지에서 3월 인민 체력 검정 주간 개막 ▶직총 중앙 위원회,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더욱 강화하며 남부 웰남 인민들을 반대하여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살포하는 비인간적 만행을 감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부 웰남 사회 단체들에 전문

10일 김 일성 수상께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수상 탄생 70 주년에 제하여 축전 (3월 26일 답전) ▶공화국 내각에서, 경락 계통의 연구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결정 채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 과학원 창설 ▶성흥 광산 류화철 분리 계통 (년산 2만 톤 능력) 조업 개시

11일 국제 탁구 경기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평양을 출발 (4월 3일 귀국) ▶세계 직련 집행 위

원회 제 27 차 회의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3월 24일 귀국)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 출발 (4월 8일 귀국)

12일 로므니아 로동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3월 14일 귀국)

17일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 참가할 쏘련측 대표단 평양에 도착 (4월 1일 귀국)

18일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 간의 결탁을 폭로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19일 김 일성 수상께서 뛰니지 공화국 독립 8 주년에 제하여 하비브 부르기바 대통령에게 전문 (3월 25일 답전)

20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 발표

21일 중국 방문 과학원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일 귀국)

22일 김 일성 동지의 참석 하에 전국 근로자 학교 및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 진행 (23일 폐회) ▶제 18 차 올림픽 경기 대회 아세아 지역 예선을 위한 우리 나라 축구 선수단과 버마 축구단 간의 제 2 차 경기 진행 ▶중앙 및 각 도 선수단 마라손 대회 개성에서 진행 ▶알제리 주재 팔레스티나 대표부 대표 평양에 도착 (3월 27일 귀국)

24일 우리 나라의 전기로 전극 소성 경험을 연구할 쏘련 견학생들 평양에 도착

25일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제 8 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단 평양을 출발

26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개회. 1.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2.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3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4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대하여 토의,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법령과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3월 28일 폐회)

27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화란 공산당 제 21 차 대회에 축전 ▶일본 공산당 대표단 평양에 도착 (4월 8일 귀국)

28일 김 일성 수상께서 몽골에서의 자연 재해와 관련하여 유. 쩨덴발 수상에게 전문 (3월 31일 답전)

29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친선 방문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7일 귀국) ▶알바니아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대표단 평양 도착(4월 8일 귀국)

31일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간의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4 월

1일 중국 방문 문화 대표단 평양을 출발 (4월 21일 귀국) ▶제 17 차 전국 종합 체육 대회 중앙 선수단 축구, 롱구, 배구 경기 시작 ▶중국 방문 건설 대표단, 지질 대표단, 문화 대표단 평양을 출발 (4월 28일 귀국)

2일 김 일성 수상께서 세네갈 공화국 독립 4 주년에 제하여 레오폴드 세다르 셍골 대통령에게 축전 (4월 6일 답전)

3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 과학원 간의 1964—1965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평양 음악 대학 창립 15 주년에 제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 ▶제국주의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청년 학생 집회 진행

6일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영화 축전에 참가할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7일 귀국)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간의 1964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7일 김 일성 종합 대학과 알바니아 티라나 국립 종합 대학 간에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8일 과학원 제 10 차 총회의 진행 (4월 9일 폐회)

11일 조선 언어 학회 결성

12일 제 17 차 전국 종합 체육 대회 중앙 및 도 선수단 탁구, 자전거, 사격, 무선 통신 경기 시작 ▶평양시 2 급 선수단 축구, 롱구, 배구 대회 시작

1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 제 1 차 대회에 축전 ▶로동상, 아랍 련합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5월 5일 귀국)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조선 기자 동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2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권투 선수단 평양을 출발 (5월 12일 귀국)

16일 푸에르토 리코 독립 종합 대학생 련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4월 25일 귀국)

17일 김 일성 수상께서 플라야 히론에서의 전투 승리 3 주년에 제하여 꾸바 공화국 혁명 정부 피델 카스트로 수상에게 축전

18일 우리 나라와 중국 간에 1964—1965년도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집행 계획서 베이징에서 조인 ▶ 오스트랄리아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 위원회 위원장 이. 에프. 힐 동지 평양에 도착 (4월 21일 귀국)

19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 겸 수상 수카르노에게 전문

22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께서 벨가

리아 인민 공화국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지미뜨르 가네브 동지의 서거에 제하여 조전 (5월 11일 답전) ▶중국 방문 민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

23일 자지바르 방문 정부 친선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9일 귀국) ▶알바니아의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22일 귀국) ▶쏘련 소비 조합 중앙 련맹 무역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13일 귀국) ▶꾸바의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26일 귀국)

24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대표들과 푸에르토 리코 독립 종합 대학생 련맹 대표단 간의 공동 성명 평양에서 발표 ▶중국 신화 통신사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23일 귀국)

25일 김 일성 수상께서 또고 공화국 독립 4 주년에 제하여 니꼴라스 그루니쯔끼 대통령에게 전문 (4월 29일 답전) ▶중국의 5.1절 행사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12일 귀국) ▶ 로므니아의 5.1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26일 귀국)

26일 제 18 차 올림픽 선수 선발 전국 종합 체육 대회 개막 (5월 2일 폐막)

27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6월 12일 귀국)

28일 칠레 기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13일 귀국)

29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강계 청년 발전소 조업식 진행 ▶우리 나라 과학원과 중국 과학원 간의 1964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집행 계획서 베이징에서 조인 ▶버마 로동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18일 귀국)

3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께서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동지가 벌가리아 인민 공화국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5월 12일 답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미제가 라오스 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조작하고 라오스에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케니아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27일 귀국)

5 월

1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5.1절을 기념하며 강계 청년 발전소의 조업을 경축하는 강계시 군중 대회 진행 ▶5.1절을 기념하며 강계 청년 발전소의 조업을 경축하여 강계에서 공화국 내각 연회 배설

2일 5월의 명절을 경축하여 자강도 내 1만 7천 명의 청소년 학생들 집단 체조 《독로강반의 새 노래》 출연

4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체육상 말라디 부부 평양에 도착 (5월 9일 귀국) ▶제 4 차 아세아 산업 보건 학술 보고회에 참가할 조선 산업 의학자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31일 귀국)

5일 민청 제 5 차 대회에 참가할 재일본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평양에 도착

6일 제 2 차 국제 직맹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월 26일 귀국) ▶제 4차 국제 광산 로동자 직맹 대회와 국제 상업 일'군 직맹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대한 전국 대학 교원 학술 토론회 진행 ▶우리 나라와 아랍 련합 공화국 간의 문화 협조 협정 집행 계획서 까히라에서 조인

8일 《인도네시아당》 대표단 평양에 도착 (5월 18일 귀국)

12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 개막. 1.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2.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3.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규약을 채택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지도 기관 선거, 4일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연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와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5월 16일 폐회) ▶알바니아 기자 평양에 도착 (5월 27일 귀국)

1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프랑스 공산당 제 17 차 대회에 축전 ▶로므니아를 방문하는 조선 의학자들 평양을 출발 (6월 9일 귀국) ▶체육 협회 선수단 궁술 대회 개막 (5월 16일 폐막)

15일 일본 《재팬 프레스》 통신사 사장 혼다 료스께 평양에 도착 (5월 22일 귀국)

16일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체신 과학 연구 소장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19일 국제 전기 공학 위원회 제 29 차 총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6월 9일 귀국) ▶레바논 아드난 앤드 아멜 카싸르 상사 사장 평양에 도착

20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관광단 평양을 출발 (6월 6일 귀국)

21일 김 일성 수상께서 모디보 케이타가 말리 공화국 정부 수상 및 국가 수반으로 재임된 데 대하여 축전

22일 중국 녀성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6월 3일 귀국)

23일 중국 방문 륙상 선수단 평양을 출발 (6월 16일 귀국)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에이와 해운 주식 회사 간에 정기 항로 개설에 대한 계약 평양에서 체결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제 7 차 전체 대회에 축전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을 항의

규탄하는 평양시 학생 군중 대회 진행 ▶벨지끄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인민의 소리》 편집원 알놀드 오왈드 평양에 도착 (6월 1일 귀국)

26일 우리 나라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의 1964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7일 국제 건축가 동맹 제 3 차 산업 건축 쎄미나르에 참가할 조선 건축가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월 3일 귀국)

29일 벨지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평양 도착. 30일 김 일성 동지께서 접견

30일 조선 기자 동맹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전 세계 진보적 기자들의 꾸바와의 련대성 주간에 제하여 피델 카스트로 수상에게 전문

31일 김 일성 수상께서 뛰니지 국경절에 제하여 하비브 부르기바 대통령에게 축전 (6월 3일 답전)

6 월

1일 이라크 교육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6월 9일 귀국)

2일 김 일성 동지께서 중국 방송 사업국 대표단을 접견

3일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1965년도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아랍 련합 공화국 기자 평양에 도착 (6월 15일 귀국)

4일 제 33 차 뽀즈난 국제 시장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5일 우리 나라와 뽈스까 인민 공화국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1965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6일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학생 위원회에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을 전 세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호소

7일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박정희 도당의 탄압을 항의 규탄하여 성명 발표

9일 볼리비아 조선 친선 위원회 대표 평양에 도착 (7월 2일 귀국)

10일 몽골 인민 공화국 방문 조선 인민군 청년 축구단 평양을 출발 (6월 26일 귀국) ▶무역 및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6월 29일 귀국)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중국 원양 운수 공사 간의 해상 운수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웰남 민주 공화국 방문 수영 선수단 평양 출발 (7월 28일 귀국)

12일 김 일성 수상께서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가 인도 공화국 수상으로 취임한 데 대하여 축전 (6월 22일 답전)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캄보쟈, 쎄일론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웰남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4일 귀국) ▶아세아 경제 토론회 위원회 위원장 평양에 도착 (6월 27일 귀국)

13일 캄보쟈 왕국 왕자 나라디포 친왕 평양에 도착 (6월 20일 귀국) ▶철도 협조 기구 제 9 차 상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월 7일 귀국) ▶올림픽 축구 예선 경기에 참가할 우리 나라 축구단 평양을 출발 (7월 7일 귀국)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부다페슈트에서 조인

1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뽈스까 통일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 축전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결정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 발표

16일 아세아 경제 토론회, 우리 나라를 비롯한 34 개국 대표 참가 하에 개막,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 축하 연설 (6월 23일 폐막)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4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로므니아 《아제르쁘레쓰》 통신사 대표 평양에 도착 (7월 9일 귀국)

17일 세계 과학자 련맹 제 25 차 집행 위원회에 참가할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건설 견학단 평양을 출발 (7월 21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녀자 배구 선수단 평양을 출발 (7월 14일 귀국)

19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아브디 레자크 하지 후세인이 소말리아 공화국 수상으로 취임한 데 대하여 축전 (6월 20일 답전)

20일 중국 방문 사격 선수단 평양을 출발 (7월 10일 귀국)

2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3일 공화국 내각에서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배설 ▶우리 나라와 몽골 간의 1964—1965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 울란 바따르에서 조인

24일 기네 방문 조선 녀성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월 14일 귀국)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 개회. 1.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2. 직업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토의 (6월 26일 폐회)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농민 동맹,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조선 기자 동맹,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 공동 명의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고함》 발표 ▶공화국 북반부 각 대학 학생 대표들, 남조선의 애국적 학생 청년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여 공동 성명 발표

27일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에 정기 선박 배선에 관한 계약 평양에서 조인

29일 김 일성 수상께서 소말리아 공화국 독립 14 주년에 제하여 아브디레자크 하지 후세인 수상에게 축전 (7월 1일 답전) ▶일본 도꾜도자와시 의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13일 귀국)

3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관개 하천 건설 사업과 논풀이 작업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축하 ▶기네 공화국 제 2 국립 무용단 평양에 도착 (7월 17일 귀국)

7 월

2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집행 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월 21일 귀국)

3일 중국 교육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3일 귀국) ▶웰남 로동당 교육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11일 귀국)

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알제리 독립 2 주년에 제하여 아흐메드 벤 벨라 대통령에게 축전 (7월 11일 답전)

7일 김 일성 수상께서 말라위 독립 선포에 제하여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수상에게 축전

8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25일 귀국)

9일 일본《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회》의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27일 귀국) ▶국제 체조 련맹 제 43 차 총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7월 31일 귀국)

1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최근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일층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평양—일본 상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12일 제 18 차 올림픽 선수 선발 체육 대회 (제 2 차 경기) 시작

13일 김 일성 수상께서 이라크 혁명 6 주년에 제하여 아브델 살람 모하메드 아레프 대통령에게 축전 (7월 18일 답전)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대표단, 민주 웰남으로 출발 (8월 2일 귀국) ▶일조 협회 청년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29일 귀국) ▶일본 사회주의 연구소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25일 귀국)

14일 알제리 민족 지도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 (7월 29일 귀국)

15일 꾸바 방문 조선 친선 대표단 평양을 출발 (8월 18일 귀국)

16일 김 일성 수상께서 제 2 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 축전 (7월 25일 답전) ▶인도네시아 전국 녀성 련맹 제 10 차 전국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녀성 대표단 평양을 출발 (8월 14일 귀국)

17일 전국 음악 무용 개인 경연 시작 (7월 24일 폐막) ▶인도네시아 륙상 선수단 평양에 도착 (7월 22일 귀국)

1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웰남 문제 해결을 위한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발표 ▶남부 웰남 지식인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박해 반대 투쟁 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 개시, 8월 초까지 우리 나라 각지 지식인 5만 여 명이 참가

19일 웰남 기자 평양에 도착 (8월 19일 귀국) ▶일본 선박 《기미시마마루》,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의 정기 선박 배선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흥남항에 입항

20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아랍 련합 공화국 국경절에 제하여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에게 축전 (8월 8일 답전)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소위 《랍북 인사 송환 운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조선, 인도네시아 륙상 선수단 간의 친선 경기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진행 ▶조선 방문 일본 사회당 국회 의원단 평양에 도착 (7월 27일 귀국)

21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뽈스까 재생 20 주년에 제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 (8월 1일 답전) ▶전국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 회의, 상반년 농촌 경리 부문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을 토의 (7월 23일 폐막) ▶인도네시아 인민 청년 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5일 귀국) ▶일본 민주 청년 동맹 대표 평양에 도착 (8월 3일 귀국)

22일 중국을 방문하는 출판 인쇄 일'군들 평양을 출발 (9월 1일 귀국)

23일 우리 나라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 꾸바 인민의 《7.26》 무장 봉기 11 주년에 제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 (8월 31일 답전)

25일 조선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와 조선 방문 웰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간에 공동 성명 평양에서 조인

26일 청단 제 1 호 발전소 조업 개시

28일 중국 녀자 배구 선수단 평양에 도착 (8월 19일 귀국) ▶니제르 청년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20일 귀국) ▶적들의 소위 《랍북 인사 송환 운동》을 폭로 규탄하는 해주시 성토 대회 진행

29일 적들의 소위 《랍북 인사 송환 운동》을 폭로 규탄하는 원산시 성토 대회 진행

30일 김 일성 수상께서 다오메 독립 선포 4 주년에 제하여 쥐스뗑 아호마데그베 대통령에게 축전 (8월 4일 답전)

31일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전람부와 독일 파인테 하니크—옵리크 상사 간에 1964년 10월 평양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밀 기구 전람회를 열데 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8 월

1일 김 일성 수상께서 니제르 독립 선포 4 주년에 제하여 아마니 디요리 대통령에게 축전 ▶인도네시아 방문 사회 과학원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25일 귀국)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축전

2일 가네포 집행 위원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7일 귀국)

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상부 볼따 독립절에 제하여 모리스 야메오고 대통령에게 축전 ▶우리 나라와 쏘련 간의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1964년도 사업 계획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웽그리아 농학자 평양에 도착 (9월 2일 귀국) 로므니아 녀성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20일 귀국)

5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도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살인 재판을 계속하며 학원 및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새로운 악법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웽그리아 방문 과학원 대표들 평양을 출발 (9월 4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문화 예술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4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조선 중앙 통신사 대표 평양을 출발 (9월 1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직맹 휴양단 평양을 출발 (9월 15일 귀국)

6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8일 김 일성 수상께서 반혁명 분자들이 일으킨 안나바 항구 폭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여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에게 전문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파쑈적 악법인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조작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9일 김 일성 수상과 최 용건 위원장, 뽈스까 국가 쏘베트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의 서거에 제하여 뽈스까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고물까 동지와 내각 수상 찌란께비치 동지에게 전문 (8월 21일 답전)

10일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소아과 학회에 참가할 의학자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18일 귀국) ▶일조 협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31일 귀국)

11일 조선 학생 위원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도 계속 애국적인 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학원 보호법》이란 새로운 악법 조작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볼리비아 로조 대표 평양에 도착 (8월 30일 귀국) ▶전 일본 농민 조합 련합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22일 귀국) ▶인도네시아 기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31일 귀국)

13일 로므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8월 25일 귀국) ▶평양—신성천 간 철도 전기화 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 열성자 회의 진행

14일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콩고(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캄보쟈 기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4일 귀국)

15일 김 일성 수상께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선포 19주년에 제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전문 (9월 11일 답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대양주 나라 과학자들의 과학 토론회에 참가할 조선 민주 과학 협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11일 귀국) ▶8.15 해방 19 주년 기념 체육 모범 경기와 시내 대학생 체육 대회 진행

17일 벨지끄 녀성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24일 귀국)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26일 귀국)

18일 알제리 근로자 총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8월 30일 귀국)

20일 김 일성 수상께서 1964년 베이징 과학 토론회를 축하하여 전문 ▶국가 학위 학직 및 인민상 수여 위원회에서 천연색 장편 기록 영화 《공화국 기치 만세》 (1, 2 부)에 인민상을 수여

21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베를린 독일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중국 정부 경제 친선 방문단 평양에 도착 (9월 19일 귀국) ▶네팔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7일 귀국) ▶중국 주재 인도 공화국 림시 대리 대사 평양에 도착 (8월 26일 귀국)

22일 알바니아 방문 기자 평양을 출발 (10월 9일 귀국) ▶신흥 세력 수영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영 선수단 평양을 출발 (10월 2일 귀국)

24일 1964년도 조선 수영 선수권 대회 개성에서 개막 (8월 25일 폐막)

2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축하문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 개통식 진행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및 재보험 기구 창설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9월 18일 귀국) ▶우리 나라 주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귀국

27일 공화국 창건 16 주년 경축 평양시 소년단 구기 련맹전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

28일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일조 협회 대표단 간의 공동 성명 평양에서 조인

30일 1964년도 조선 륙상 선수권 대회 개막 (9월 3일 폐막) ▶1964년도 조선 배구, 체조, 권투, 력기, 레스링 선수권 대회 개막 (9월 11일 폐막)

31일 국제 렬차 시간표 작성 회의에 참가할 철도성 대표단 평양을 출발 ▶조중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에 참가할 철도 대표단 평양을 출발

9 월

1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26일 귀국) ▶말리 공화국 교육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6일 귀국)

2일 제 9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위한 국제 준비 위원회 창설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청년 대표단 평양을 출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와 아마츄어 륙상 협회 및 수영 협회에서 가네포 참가를 구실로 신 금단 선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우수한 선수들을 올림픽 경기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아마츄어 륙상 경기 련맹 및 수영 련맹에 항의

3일 김 일성 수상께서 제 2 차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에 축전 (9월 8일 답전)

4일 조선 중앙 통신사, 태풍 속에서 구원된 남조선 어민들이 공화국의 품 속에서 따뜻한 동포애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 ▶중국 작가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3일 귀국) ▶중국 체육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6일 귀국) ▶기네 공화국 국립 방송국 대표단 평양에 도착 ▶예멘 아랍 공화국 친선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21일 귀국) ▶캄보쟈 남자 배구 선수단 평양에 도착 (9월 19일 귀국)

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꽁고 (레)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와 말리 공화국 정부 간의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특별 군사 고문과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평양에 도착 (9월 12일 귀국)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전국 미술 써클 작품 전람회 민속 박물관에서 개막 (10월 30일 폐막)

7일 베네수엘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6일 귀국) ▶전 인도네시아 로조 중앙 제 4 차 전국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인도네시아 영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4일 귀국) ▶오스트랄리아 사회 활동가인 씨.이.산디 부부 평양에 도착 (9월 14일 귀국) ▶인도네시아 녀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0일 귀국) ▶캄보쟈 왕국 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2일 귀국)

8일 쎄일론 국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9일 귀국) ▶중조 우호 협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3일 귀국)

9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경축하는 신의주시 군중 대회 성대히 진행 ▶공화국 창건 16 주년에 제하여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신의주에서 내각 연회 배설 ▶공화국 창건 16 주년을 경축하는 평북도 내 2만 여 명 청소년 학생들의 대집단 체조《압록강반의 새 노래》출연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평양시 체육 경기 개막 ▶세계 청년 학생 토론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청년 학생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15일 귀국)

1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학위 학직 및 인민상 수여 위원회, 인도네시아 전국 녀성 련맹 총위원장인 후투스티아티 수반드리오 녀사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인도네시아 공군 원수 수리야 다르마에게 공화국 국기 훈장 제 1 급을 수여 ▶중국 영화 제작단 평양에 도착 ▶인도네시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인 우타미 수리야 다르마 녀사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명예 사회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

12일 중국과 웰남을 방문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13일 귀국)

14일 일본 조선 연구소 학술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23일 귀국)

15일 김 일성 동지께서 쏨베괴리 도당의 야수적 탄압을 반다가 추방 당한 꽁고(브) 이주민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여 꽁고(브) 공화국 대통령 알폰스 마쌈바 데바에게 전문 ▶태풍 속에서 구원된 남조선 어민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냄과 관련하여 조선 중앙 통신사 보도 발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 평양에 도착, 22일 신임장 봉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발리성 성장 아.아.바구스쑤떼좌 부부 평양에 도착 (9월 28일 귀국) ▶인도네시아 과학자 협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26일 귀국)

16일 제 1 차 국제 상품 전람회에 참가할 정부 무역 대표단 알제리로 출발 (10월 30일 귀국) ▲우리 나라와 알제리 간의 문

화 협조에 관한 협정 알제에서 조인

18일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19일 귀국) ▶우리 나라 사회 단체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군사적 도발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 발표 ▶캄보쟈 왕국 집단 체조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1일 귀국) ▶일본 경제 학자 오쯔까 긴노스께와 그의 부인 평양에 도착 (10월 8일 귀국) ▶케니아 수상 조모 케니아타의 아들 뻬떼르무이가이 조모 케니아타가 평양에 도착 (9월 26일 귀국) ▶웰남 문화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7일 귀국)

1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예멘 아랍 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0일 김 일성 수상께서 가나 공화국 크와메 느크루마 대통령의 탄생 55 주년에 제하여 전문 ▶김 일성 수상께서 말리 공화국 선포 4 주년에 제하여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에게 축전 ▶일본 합성 섬유 전시회 평양에서 개막

21일 뽈스까 연주가들 평양에 도착 (10월 7일 귀국)

22일 김 일성 수상께서 예멘 혁명 2 주년에 제하여 아브둘라 살랄 대통령에게 축전 (9월 30일 답전) ▶말리 유술 대표단 평양에 도착 ▶이라크 기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10일 귀국)

23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과학자들 평양을 출발 (11월 6일 귀국)

24일 10대 과업 관철을 위한 평양시 경공업 부문 직맹 열성자 회의 진행, 제품의 가지 수를 늘이며 그 질을 모두 《평양 상품》 수준으로 제고할 것을 결의하고 개성시 경공업 부문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5일 가나 공화국 정부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9월 28일 귀국)

26일 김 일성 수상께서 윌리 슈토프 동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축전 (10월 6일 답전) ▶중국과 웰남을 방문하는 사로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illegible]일 귀국) ▶중국 방문 조선 녀성 친선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1[illegible]일 귀국) ▶중국 방문 《평양 신문》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16일 귀국)

28일 김 일성 수상께서 기니 공화국 독립 6 주년에 제하여 아흐메드 세쿠투레 대통령에게 축전 ▶일본 사회 문화 활동가 사절단 평양에 도착 (10월 8일 귀국) ▶벨지끄 작가 쌔롤터 루이 스빠룰 부부 평양에 도착 (10월 8일 귀국)

29일 김 일성 수상께서 나이제리아 독립 4 주년에 제하여 느남디 아지키웨 대통령에게 축전 (10월 17일 답전)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베이징으로 출발 (10월 8일 귀국) ▶웽그리아 박물관 일군들 평양에 도착 (10월 14일 귀국) ▶중국 의학 전문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28일 귀국) ▶중국 야금 학자들 평양에 도착 (10월 28일 귀국) ▶조선 인민군 제 13 차 군무자 예술 써클 경연 시작

30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평양 출발 (10월 14일 귀국) ▶뽈스까 방문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24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문화 대표단과 평양 가무단 평양 출발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10 월

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 축전 (10월 23일 답전)

5일 우리 나라에 주재할 아랍 련합 공화국 대리 대사 평양에 도착

6일 인도네시아 탁구 선수단 평양에 도착 (10월 15일 귀국) ▶볼리비아 조선 친선 위원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22일 귀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밀 기구 전람회 평양에서 개최 ▶조선 체스꼬슬로벤스꼬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9 차 회의 평양에서 개최 (10월 1[illegible]일 폐회)

7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아민 하페즈가 수리아 아랍 공화국 수상으로 취임된 데 대하여 축전 ▶로므니아와 민주 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들 평양을 출발 (11월 3일 귀국) ▶세계 직업 련맹 총리사회 제 13 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3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김 일성 종합 대학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27일 귀국)

9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예술단 평양에 도착 (10월 24일 귀국)

10일 체육절 15 주년 기념 전국 체육 대회 개막. 11일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참석 하에 대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 출연 (11월 2일 폐막) ▶직총 중앙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 개최. 직맹 조직 사업, 정치 사상 문화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 (10월 17일 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홍 명희 위원장, 우리 나라 선수단이 올림픽 도꾜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웰남 방문 과학원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0일 귀국)

12일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체신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30일 귀국) ▶사로청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개최,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에서 사로청원들의 돌격대적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토의 (10월 14일 폐회)

13일 철도 협조 기구 위원회 분과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철도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7일 귀국) ▶가나 기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29일 귀국)

14일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리사회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녀성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3일 귀국)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의학자 대회에 참가할 조선 의학자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3일 귀국) ▶조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 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월 30일 귀국) ▶중국 방문 탁구 선수단 평양을 출발 (11월 8일 귀국) ▶로므니아 로동 청년 동맹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28일 귀국)

15일 전국 관개 부분 일'군 회의 개회, 1964년도 관개 건설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금후 과업에 대하여 토의 (10월 16일 폐회)

17일 김 일성 동지께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로 임명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동지에게 축전 (10월 29일 답전) ▶김 일성 수상께서 쏘련 내각 수상으로 임명된 알렉세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 동지에게 축전 (10월 29일 답전)

18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중국에서 첫 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 (11월 14일 답전)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제 2 차 대학생 체육 축전 개막 (10월 25일 페막)

19일 스웨리예 정치 사회 활동가 닐스 홀름베그 부부 평양에 도착(10월 26일 귀국)

20일 알바니아 작가 예술가 대표단 평양에 도착 (10월 31일 귀국)

▶ 일본 마쯔야마 발레단 평양 도착(10월 31일 귀국)

21일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청년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월 4일 귀국)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인민 공화국 간의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22일 웰남 방문 평양 방직 공장 친선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24일 귀국)

23일 김 일성 수상께서 잠비아 공화국 독립 선포에 제하여 대통령 케네스 다비드 카운다에게 축전 (10월 27일 답전) ▶말리 공화국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 평양에 도착 (10월 28일 귀국) ▶프랑스 오리버 상사 사장 평양에 도착 (10월 29일 귀국) ▶우리 나라와 알제리 간의 무역 및 지불 협정 알제에서 조인

24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25일 평양시 내 로동자 문예 써클원들의 방송극 축전 시작

27일 조선—중국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 차 회의 의정서 베이징에서 조인 ▶콩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월 4일 귀국)

28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발표 ▶알제리 인민 무장 봉기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조선 로동당 대표단과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7일 귀국) ▶꾸바와 웽그리아를 방문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알제리 혁명 1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과 사로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7일 귀국) ▶로므니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작가 평양을 출발 (11월 24일 귀국) ▶독일 사진 전람회 평양 천리마 문화 회관에서 개막

30일 김 일성 수상께서 알제리 혁명 10 주년에 제하여 아호메드 벤 벨라 대통령에게 축하문 (11월 14일 답전) ▶캄보쟈 왕국 독립절 기념 행사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20일 귀국)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홍 명희 위원장, 남북 간의 접촉과 래왕의 길은 하루 속히 열려져야 한다고 담화 발표 ▶알제리 혁명 10 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우리 나라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간의 1965년도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베를린에서 조인

11 월

1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 평양에 도착 (11월 4일 귀국)

2일 광주 학생 운동 35 주년 평양시 청년 학생 기념회 진행▶수카르노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우리 나라와 웰남 민주 공화국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장기 협정 하노이에서 조인

3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수카르노 박사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명예 원사 칭호를 수여 ▶ 조중 압록강, 두만강 《도문》 운항 협조 위원회 제 4 차 정기 회의에 참가할 중국 측 대표단 신의주에 도착 (11월 14일 귀국) ▶ 콩고 (브) 디아브와 가무단 평양 도착 (11월 14일 귀국)

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 발표 ▶콩고 (브) 공화국 국회 대표단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발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3일 귀국) ▶인도네시아 방문 군사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21일 귀국) ▶쏘련 방문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17일 귀국)

6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꾸바 피아노 연주가 평양에 도착 (11월 26일 귀국)

7일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경제 전문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11월 30일 귀국) ▶로므니아 방문 사로청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4일 귀국) ▶뽈스까 방문 기자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11일 귀국)

8일 김 일성 수상께서 캄보쟈 왕국 독립 제 11 주년에 제하여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에게 축하문 (11월 14일 답전)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 조직 위원회 제 1 차 회의 진행

9일 제 2 차 일본 실업계 대표단 평양에 도착 (12월 28일 귀국)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상원 의원 평양에 도착 (11월 12일 귀국)

10일 기네 녀성 대표단 평양에 도착 ▶로므니아 작가 평양에 도착 (11월 28일 귀국)

11일 쏘련과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는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9일 귀국) ▶조선 로므니아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측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9일 귀국) ▶웽그리아 방문 방송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18일 귀국)

12일 김 일성 수상께서 하비브 부르기바가 뚜니지 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11월 12일 답전) ▶평양시 상원군 축산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명년에 군내 협동 농장마다 평균 20 톤 이상의 토끼 고기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호응할 것을 전국 각지 군, 구역들에 호소

13일 영국 국제 무역 촉진 리사회 서기장 평양에 도착 ▶뽈스까 기자들 평양에 도착 (11월 25일 귀국)

1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모리따니 회교 공화국 간에 대사급의 외교 관계가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에게 전문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 안또닌 노보뜨니이 동지가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11월 19일 답전) ▶알바니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기자 평양을 출발 (12월 25일 귀국) ▶중국 경공업품 전람회 평양 공업 및 농업 전람관에서 개막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간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 부꾸레슈띠에서 개회 (11월 30일 폐회)

1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카나다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비서 레슬리 모리스 서거에 제하여 조전

16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4일 귀국)

17일 꾸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친선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월 26일 귀국) ▶중국 력학 부문 과학자들 평양에 도착 (12월 16일 귀국)

18일 알바니아 방문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15일 귀국) ▶조선 뽈스까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6 차 회의 평양에서 진행(21일 폐회)

19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 아랍 련합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12월 22일 귀국)

20일 우리 나라와 뽈스까 간의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와르샤와에서 조인

21일 김 일성 수상께서 레바논 공화국 독립절에 제하여 촬스 헬로우 대통령에게 축전 (11월 28일 답전)

22일 알바니아 해방 2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9일 귀국)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일본 공산당 제 9 차 대회에 축전

23일 김 일성 수상께서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에 축전 ▶우리 나라와 꾸바 간의 1965년도 통상 의정서 아바나에서 조인 ▶가네포 련맹 창립 1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가네포 민족 위원회 대표단 평양에 도착 (11월 26일 귀국)

25일 당과 정부 지도자들, 몽골 인민 공화국 선포 40 주년에 제하여 축전 (12월 5일 답전) ▶로므니아와 웽그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과학자들 평양 출발▶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과학자들 평양을 출발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고 탄자니아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사회주의 국가 농업 및 산림 부문 과학 사업 제 6 차 조정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농업 과학 대표단 평양을 출발(12월 18일 귀국)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 간의 1965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티라나에서 조인

26일 김 일성 수상께서 조선과 아랍 련합 공화국 간의 관계를 대리 대사급 외교 관계로부터 대사급 외교 관계로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에게 전문 (12월 5일 답전) ▶아랍 련합 공화국 방문과 관련하여 최 용건 위원장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 까히라에서 발표 ▶공화국 내각에서 일부 협동 농장들의 농업 현물세를 면제할 데 대한 결정 채택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야만적 탄압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7일 김 일성 수상께서 모리따니 회교 공화국 독립 4 주년에 제하여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에게 축전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와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콩고(레)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중국 과학자들 평양에 도착(12월 25일 귀국) ▶중국 음악가 대표단 평양에 도착

28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알바니아 해방 20 주년에 제하여 알바니아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 (12월 10일 답전) ▶웰남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식물 학자들 평양을 출발

30일 최 용건 위원장의 알제리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 알제리 공동 콤뮤니케 알제에서 발표

12 월

1일 조선 건축가 동맹 제 2 차 대회 개막. 동맹 사업 총화, 규약 개정, 지도 기관 선거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남조선 건축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12월 2일 폐회) ▶우리 나라와 쏘련 간의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우리 나라와 기네 간의 1964—196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꼬나크리에서 조인

2일 인도네시아, 캄보쟈 방문 축구 선수단 평양을 출발 ▶중국, 웰남 방문 방송 대표단 평양을 출발 (12월 29일 귀국)

4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조국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향을 억누르고 소위 《유엔 감시》라는 구실 하에 조국 통일의 길을 계속 가로 막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일본 평론가 하야시 가쯔야 평양에 도착 (12월 14일 귀국) ▶가나 청년 개척자 단체 대표단 평양에 도착 (12월 14일 귀국)

5일 웰남 방문 가극 대표단 평양을 출발

6일 말리 공화국 친선 방문과 관련하여 최 용건 위원장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 바마코에서 발표 ▶최 용건 위원장, 기네 공화국 수도 꼬나크리 도착에 제하여 성명 발표

7일 국가 학위 학직 및 인민상 수여 위원회, 집단 체조 《천리마 조선》에 인민상을 수여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상설 서기국 대표단 평양에 도착 (12월 17일 귀국) ▶인도네시아 과학자 리사회 의학자 대표단 평양에 도착 ▶챠드 민족 련맹 제 1 부총비서 평양에 도착

9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이며 대통령인 안또닌 노보뜨느이 동지 탄생 60 주년에 제하여 축전 (12월 17일 답전) ▶제 22 차 국제 지질학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지질학 대표단 평양을 출발

10일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량강도 내 당 및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 협의회 개최. 량강도를 알곡 지대로 전변시킬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앞으로 도내 농촌 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12월 11일 폐회)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의 기네 공화국 친선 방문과 관련한 조선 기네 공동 콤뮤니케 꼬나크리에서 발표

11일 김 일성 수상께서 케니아 독립 1 주년과 케니아 공화국 선포에 제하여 죠모 케니아타 대통령에게 축전 ▶몽골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12월 19일 귀국) ▶ 알바니아 수력 구조물 견학단 평양에 도착

13일 캄보쟈 방문 평양 가무단 출발

14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개최. 1964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예비적 총화와 1965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 (12월 19일 폐회)

16일 중국 방문 전자 공학 및 전기 공학 부문 과학자들 평양 출발 ▶조선 무역 대표단과 제 2 차 일본 실업계 대표단 간의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방문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서기국 대표 간의 공동 성명 발표 ▶우리 나라와 몽골 인민 공화국 간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 차 회의 울란 바따르에서 개최 (21일 폐회)

17일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중국 기자들과 무역 일'군들에 대한 브라질 당국의 부당한 박해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웰남 민주 공화국 방문 군사 대표단 평양을 출발(12월 28일 귀국) ▶우리 나라와 몽골 인민 공화국 간의 1965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18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와 남부 웰남 인민 투쟁 지지 위원회, 남부 웰남 풍수해 리재민들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중국 무역 일'군들과 기자들에 대한 브라질 당국의 부당한 박해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19일 김 일성 수상과 최 용건 위원장,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창건 4 주년에 제하여 원 우수 위원장에게 축전 ▶남부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캄보쟈 방문 평양 권투 선수단 출발 ▶기네 사진 전람회 평양에서 개막 ▶조선 외국 선박 대리 회사와 일본 오사까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에 대리 업무에 관한 계약서 평양에서 조인 ▶전국 예술 사진 전람회 개막

2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의 캄보쟈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의 공동 성명 프놈뻰에서 발표

21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캄보쟈 왕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할 데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에게 전문 (12월 25일 답전)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간에 1965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다뻬슈뜨에서 체결

2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콩고 (브) 간에 외교 관계를 설정하여 대사급 외교 대표를 교환할 데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알폰스 마쌈바 데바 대통령에게 축전 ▶조선 대외 운수 회사와 일본 오사까 동해 선박 주식 회사 간에 정기 항로 개설에 관한 계약서 평양에서 조인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 평양 미술 대학 창립

15 주년에 제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 ▶꾸바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해방 6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조선 로동당 대표단 평양을 출발 ▶콩고 (브)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에 도착

27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미제의 조종하에 브라질 군사 당국이 중국 공민들에게 감행한 야만적 폭압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와 중국 간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베이징에서 조인

28일 김 일성 수상께서 노로돔 깜뽈이 감보쟈 왕국 내각 수상으로 재임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

30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와 가나 공화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크와메 느크루마 대통령에게 전문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방송 협정 쟈까르따에서 체결

남조선 주요 일지
(1964년 1—12월)

1 월

3일 괴뢰 정부 재무부, 《재정 안정 계획》의 일환으로 2월 말까지 신규 대출 중단을 각 금융 기관에 지시

4일 미국 대사 버거, 유솜 처장 킬렌, 《유엔군》 사령관 하우즈가 괴뢰 정부 각료들과 1964년도 《원조》, 《한일 문제 및 국방 태세》 등 문제를 토의

6일 학주 련탄 공장 종업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감

7일 미군에서 신 군표 사용

8일 전매, 체신 로동자 1만 8천 여 명이 임금 인상, 년말 상여금과 야간 근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감

10일 제 39 회 괴뢰 림시 국회 속개, 박 정희 역도 《년두 교서》라는 것을 발표

12일 인천 주둔 미군 부대 고용 로동자 1천 여 명, 임금 인상 요구 성토 대회를 열고 10개 항목의 《결의문》과 미 8군 사령관에게 들이댈 요구서를 채택

13일 《운수 로동 조합》 부산 지부 산하 2천 여 명 로동자들,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감 ▶괴뢰 정부, 《내핍 생활》을 강요하는 《1964년 경제 시책》을 발표 ▶괴뢰 해병대에서 상륙 훈련 개시, 25일까지 감행

14일 쟁의 중에 있는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 대표들 회합, 공동 투쟁을 결의

15일 《전국 어민 비상 대책 위원회》 대표들이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에게 《평화선》 사수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통고

18일 미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 서울에 기여 듬, 군사 분계선을 시찰하고 박 정희와 《한일 관계》, 《경제 원조》 문제를 밀의 ▶괴뢰 정부, 1964년도 각급 학교 《공납금》을 인상 ▶제 3 차로 브라질로 가는 《이민》 68 세대 부산항을 떠남

21일 옥동, 성주 탄광 1천 6백 명 로동자들 파업 ▶미군 기관 고용 로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미 8군에 통고 ▶서울시 6천 여 명 뻐스 로동자들 임금 인상, 8 시간 로동제 실시를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감 ▶부산에서 《평화선 사수 어민 궐기 대회》진행, 22일 려수, 24일 인천에서도 각각 진행

22일 쟁의 중에 있는 철도 로동자들 98.4%의 찬성으로 파업할 것을 결정 ▶《대한 석탄 공사》 영주 사무소 로동자들 파업할 것을 결정 ▶경상북도 포항시 룡흥동에 사는 리 영호, 의거 입북하려다 련천 북방 분계선에서 괴뢰군에 잡힘 ▶괴뢰 해군, 미제로부터 구잠함 1 척을 넘겨 받음

23일 울산 정유 공장 건설 관계로 강제 철거 당한 169 세대 주민들, 직업 보장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을 시작

27일 1만 9천 여 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파업할 것을 결정 ▶괴뢰 당국, 《의거 입북 기자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공론사》 사장 및 기자들을 검거

28일 1만 여 명의 운수 로동자들 파업할 것을 결정

29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의 도착을 반대하여 김포항에 《미국은 한일 문제에서 밀약을 말라》는 삐라가 살포됨, 러스크 박 정희 회담

2 월

1일 역도 박 정희, 어용 《한국 로총》 간부 38 명을 불러 들여 《로자 협조》를 지시

2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서 미 제 7 사단 31 련대 에이 중대 소속 카메룬 로버트, 임신 9 개월의 조 용자 (35) 를 사살

4일 전력 부문 로동자들 파업할 것을 결정

5일 전매 부문 로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 관철을 위해 파업할 것을 결정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에서 범죄적 《가족 계획》의 한 방도로 4만 명에게 《정관 절제 수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6일 미 제 1 려단 유도탄 부대 소속 머피, 토끼 사냥을 가는 소년에 총질을 하여 1 명을 죽이고 1 명에게 중상을 입힘

7일 왜관의 미군 부대 고용 로동자들, 임금 인상, 시간외 근무 수당을 요구하여 파업

8일 서울시 내 《태양 주식 회사》 뻐스 차장들, 대우 개선, 인권 보장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

11일 괴뢰 국회 의사당 앞에서 한 명의 청년이 《민생고를 가중케 한 박 정권은 즉시 물러 가라》고 단독 시위

15일 부산 《원양 어업 조합》 산하 로동자들, 기준 임금 제정,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

17일 에이·아이 디 기획 차관보 체노리 서울 도착, 《한미 교

위 경제 회담》을 가짐

22일 박 정희 도당이 범죄적 《한일 회담 추진 대책》을 모의, 3월 타결 5월 조인 방침을 결정

29일 박 정희, 괴뢰 각료 전원 및 《과학 심의 회의》 위원들과 긴박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긴급 회의》 ▶괴뢰 정부에서 프랑스에 3,567만 딸라, 벨지크에 400만 딸라의 《공공 재정 차관》을 신청

3 월

2일 괴뢰 륙군 군수 기지 사령부, 경남 량산군과 동래 지구 일대에서 전투 사격 훈련 개시, 7일까지 감행 ▶괴뢰군 동부 전선 부대에서 《하극상 사건》 발생, 하사 1 명, 병장 1 명 사망

5일 괴뢰 해군과 해병대, 제주도 서남방 화순 근해에서 상륙 작전 훈련 개시, 20일까지 감행 ▶경기도 시흥군에 있는 《한국 탄약 분해 공장》 폭발, 3 명 사망, 125 명 중경상

6일 미 공군, 서해안 남서쪽 훈련 구역에서 파각 사격 훈련 개시, 7일까지 감행

9일 신임 남조선 주재 미 해군 사령관 겸 괴뢰 해군 고문 단장 죠셉 더블유. 윌리암스 소장 서울에 도착

10일 일본 농림성 분실에서 제 1 차 《한일 농상 회담》 개시 ▶괴뢰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장교들을 전, 후방 교체

11일 《공화당》 의장 김 종필, 《반공》전선 조작과 범죄적 《한일 회담》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남부 웰남, 대만, 일본을 방문키 위해 홍콩으로 출발

12일 《한미 헌병 장교 회의》, 《합동 활동》 문제를 토의 ▶4,600여 명의 뻐스 종업원들 파업 결정 ▶서울시 한남동 앞길에서 경찰 짚차가 사람을 깔아 눕히고 뺑소니

13일 괴뢰 륙군 제 37 사단(향토 사단)에서 《예비군 긴급 동원 연습》 실시, 23일까지 감행 ▶서울시 내 7 개 종합 병원에 눈을 사라고 요청한 자 금년 들어 51명 (《국제 신보 지사》)

14일 제주도에서 박 정희, 미 대사, 《유엔군》 사령관 등이 《한미 고위 군사 회담》 진행. 군사, 정국, 《한일 회담》, 극동 반공 태세 등을 밀의

15일 제주도 일대에 태풍, 20 명의 어부와 어선 5 척 실종

16일 괴뢰 상공부에서 밀가루의 고시 가격을 29.2% 인상 ▶부산에 해일, 판자'집 20 채 류실 ▶일본 자유 민주당 총재의 초청으로 《공화당》 괴뢰 국회 의원 《대일 시찰단》 도꾜로 출발

20일 괴뢰 정부 내무부 장관,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단속하겠다고 폭언 ▶미 태평양 지구 공군 사령관 스마트 대장, 미 공군 기지를 시찰하기 위해 서울에 기여듬

21일 괴뢰 정부 치안국과 서울시 경찰국에서 《한일 회담》 반대 기세가 높아진 것에 대비하여 전 기동력을 대기시킴

23일 도꾜에서 김 종필이 아까기 농림상, 사또 국무상, 오히라 외상을 찾아 다니면서 회담, 3월 내 《농림상 회담》 종결, 5월 초 《국교 정상화》 조인에 합의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주최로 《한일 문제에 대한 강연회》 개최,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외교를 규탄

24일 3.24 학생 투쟁 개시됨—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 《한일 회담 성토 대회》와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화형식》 진행,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한 후 괴뢰 국회 의사당과 《중앙청》을 향해 가두 시위 ▶고려 대학, 연세 대학, 대광 고등 학교 학생들, 《한일 회담》 반대, 일본 제국주의 반대, 매판 자본 타도를 웨치면서 시위 단행 ▶박 정희, 대구에서 《정부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성명

25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등지에서 학생 시위 계속 ▶괴뢰 정부, 학생 시위를 꺾어 보려고 《정부, 학생 대표 면석 회의》를 조직, 학생 대표들 《한일 회담》 무조건 중지를 요구하고 퇴장

26일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서울, 광주 (전라남도), 대전, 대구, 부산, 수원, 리리, 온양, 려수, 원주, 제주, 군산, 인천 등지에서 계속 ▶박 정희 도당 완전 무장한 1 개 련대의 병력을 《청와대》와 《중앙청》에 배치하고 바리케트를 구축

27일 《한일 회담》 반대 시위 계속. 30일까지 남조선 각지에서 전개 ▶괴뢰 도당, 학생 시위 탄압을 위해 괴뢰 군경 3만 1천여명을 동원

4 월

4일 서울 대학 신문 주최로 《한일 회담 대강연회》 진행,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외교를 규탄 ▶괴뢰 외무부 장관 정 일권, 일본 외상 오히라와 도꾜에서 회담,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의사에 변함 없음을 호상 확인

6일 서울 시민 회관에서 《전국 대학생 한국 사회 연구회》 주최로 《한일 문제 강연회》 개최,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외교를 규탄

11일 괴뢰 정부 문교부, 4.19 4 주년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데모 방지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전국 국립 대학교 총장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

13일 인천 인하 공과 대학생들 《학장 물러 가라》는 플랑카드를 들고 시위

14일 미 국방 대학 총장 후랜시스 그리스 월드 (중장) 일행 군사 시설 시찰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듬

15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4.19를 앞두고 《비상 경계 훈련》 (4월 15—16일) 실시, 4월 17—21일까지 《비상 경계》 실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면에서 대공수 작전 감행

17일 《한일 회담》 반대 제 2 차 청년 학생 투쟁 개시,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 교정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구속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토 대회 진행, 대회 후 《청와대》를 향해 시위 ▶박 정희 역도와 괴뢰 정부 해당 관계 장관들, 5월 초 《한일 회담》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을 결정

18일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학생들 시위 ▶고려 대학교 학생들 성토 대회를 열고 《반신식민 구국 선언문》과 괴뢰 정부에 들이댈 《최후 통첩문》을 채택

19일 《한국 학생 총련합회》 주최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내 22 개 대학 학생들의 참가 하에 《4.19 학생 혁명 4 주년 기념식》 진행, 《조국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일체의 현하 굴욕적 외교 정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채택하고 시위로 들어 감 ▶부산, 대전 등지에서 학생 시위 전개

20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법과 대학과 성균관 대학 학생들 매국 정권 반대, 일인 상사 타도, 《중앙 정보부》의 해체, 《한일 회담》 즉각 중지를 웨치며 시위 ▶미 대사 버거 박 정희와 밀담, 《한일 국교》를 빨리 정상화하라고 재촉

21일 성균관 대학, 동국 대학, 서울 대학교 학생들 시위, 성균관 대학생들 괴뢰 경찰과 충돌 ▶괴뢰 정부 국무 회의에서 학생 데모에 대한 탄압책을 모의

22일 서울시 내 일간 신문 사진 기자 대표들이 괴뢰군 및 경찰의 기자 구타 사건과 관련하여 괴뢰 정부 내무, 공보부 장관에게 엄중 항의, 괴뢰 정부 출입 기자단도 국무 총리와 공보부 장관에게 엄중 항의

23일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취재 기자에 대한 폭행을 규탄하여 괴뢰 정부에 항의 ▶제 6 차 《한일 회담》 기본 조약 관계 회의 제 1 차 회의 도꾜에서 진행

24일 동국 대학 학생들 교정에서 성토 대회 진행, 구속 학생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2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기성 회비를 400 원에서 1천 원으로 올림

30일 괴뢰 륙해공군이 중부 전선에서 대규모 《씨 피 엑스 훈련》 감행

5 월

3일 남조선 《원》과 딸라의 환률, 255 원 대 1 딸라 기준으로 인상

5일 철원 지구 농민들, 《5.16 혁명 주체》가 중심이 된 《개척단》의 토지 독점을 반대하여 궐기 대회 진행

6일 강원도 삼척군 풍곡 탄광 로동자들, 밀린 로임의 지불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

9일 최 두선 괴뢰 내각 사임 ▶《제당 협회》에서 환률 인상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설탕 공정 가격을 20% 올리기로 결정

11일 서울 연세 대학교 학생들 《한일 회담》 반대 성토 대회 진행 ▶서울시 관하 각 경찰서들에서 학생 데모에 대비해서 아침부터 《대기 상태》에 들어 감 ▶정 일권 새 괴뢰 내각을 구성

12일 부산시 중구 충무동 주민들, 판자'집 철거를 반대하여 괴뢰 경찰과 충돌, 주민 측에 30여 명 중경상자 발생 ▶서울시 내 뻐스 업자들, 료금 인상을 요구하여 일제히 운행을 중지 ▶충북 대학생들 무능한 교수를 배척하여 무기한 동맹 휴학

13일 울산 정유 공장 경비원들 임금 50% 인상을 요구하여 앉아 버티기 투쟁

15일 미 대사, 괴뢰 정부 국무 총리에게 남부 웰남 괴뢰 도당에 대한 《지원》을 지시

16일 괴뢰 정부에서 반인민적 《행정 백서》를 발표

18일 제주도에 태풍, 가옥 117 채를 파괴

19일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전국 학생 련합회》에서 성명 발표, 괴뢰 군경에 최루탄을 공급한 미군의 죄행을 규탄 ▶《중앙청》에서 괴뢰 정부 국무 총리를 비롯한 내무, 법무, 국방, 문교, 공보, 법제, 검찰, 중앙 정보부 등 기관 고위층들 학생 데모 탄압책을 토의 ▶서울시 경찰국, 관하 전 경찰에 《대기 태세》를 명령

20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마당에서 10 개 대학 학생들과 시민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한일 회담 반대 성토 대회》를 진행, 반외세, 반매판, 반봉건 《선언문》, 《결의문》을 채택한 후 《민족적 민주주의》의 시체를 담은 검은 관과 만장을 앞세우고 장송곡을 부르면서 《청와대》를 향하여 시위로 들어 감—제 3 차 학생 투쟁 개시, 최루탄과 곤봉 등을 가지고 탄압에 날뛰는 괴뢰 경찰에 대항하여 투석전과 육박전을 전개 ▶괴뢰 정부 고위층들 《중앙청》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열고 학생 투쟁 탄압책을 모의 ▶일본 외무성 아세아 과장 마에다, 1 주일 예정으로 남조선에 기여듬

21일 새벽 3시 괴뢰군 공수단 소속 군인 11 명이 《법원 청사》와 《령장》 발부 담당 판사 양 헌의 집을 습격, 데모 학생에 대한 령장 발부를 강요—소위 무장한 군인의 《법원 침입 사건》 발생 ▶괴뢰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남부 웰남에 1 개 야전 외과 병원(1 개 대대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

22일 고려 대학교 학생들, 무장 군인의 《법원 침입 사건》을 규탄하여 선언문과 결의문 채택 ▶서울 《변호사 인권 옹호 위원회》에서 5.20 데모로 구속된 학생들의 무료 변론에 나설 것을 결정

23일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학생들, 《무장 군인의 법원 침입》을 규탄하는 성토 대회 진행 ▶박 정희, 지방 시찰에서 황급히 돌아와 괴뢰 국무 총리, 내무부 장관, 중앙 정보부장, 륙군 참모 총장 등과 《정국 수습책》을 협의

25일 남조선 각지 대학들에서 《난국 타개 총궐기 대회》를 가진 후 시위 단행

26일 서울시 내 각 대학 학생

회 회장들, 《난국 타개 전국 학생 대책 위원회》를 결성 ▶서울 성남 고등 학교 학생들 《대정부 성토 대회》를 가진 후 시위

27일 전남 대학교 학생들, 성토 대회를 가진 후 《박 정희의 하야》, 《구속 학생 석방》을 웨치면서 시위, 괴뢰 경찰들과 충돌하여 투석전을 전개 ▶서울 대학교 11 개 대학 교수 《림시 총회》, 괴뢰 도당의 탄압 책동을 규탄하여 《시국 수습 결의문》을 채택 ▶서독 하원 의장 마이어 서울에 도착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판자'집 주민들, 강제 철거에 출동한 괴뢰 경찰과 육박전 전개

29일 서울시 내 대학생 대표 《대정부 통고문》을 발표 ▶괴뢰 국무 총리, 부총리, 내무, 국방, 문교부 장관, 중앙 정보부장, 치안국장, 륙군 참모 총장, 공보 차장 등 《대 정부 통고문》에 대한 대책을 토의

30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 《자유 전취 궐기 대회》를 가진 후 《민생고 해결, 매판 자본 몰수, 구속 애국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 전개

6 월

1일 서울시 내 각 대학 대표 30여 명이 박 정희와 만나겠다고 웨치면서 《청와대》를 향해 시위, 괴뢰 경찰이 뻐스에 실어 끌고 가자 뻐스 안에서 연좌 데모 ▶충북 청주, 전북 전주시에서 대학생들 시위

2일 서울 대학교 각 단과 대학, 고대, 리화 녀자, 성균관, 동국 대학 학생들이 《구국 투쟁 궐기 대회》, 《매판 세력 타도 성토 대회》를 갖고 반미, 반정부 시위를 전개

3일 서울, 대전, 청주 등지에서 대학생과 고등 학교 학생들의 시위 투쟁 계속 ▶박 정희, 미 대사 버거, 《유엔군》 사령관 하우즈 학생 투쟁과 관련하여 긴박한 정세를 토의 ▶오후 8시 계엄령 선포

4일 서울, 청주, 음성, 대전, 천안, 인천, 춘천,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등지에서 학생 투쟁 계속 ▶계엄 사령부, 공고 1 호 발표로 언론 탄압을 강화 ▶서울시 내 일간 신문, 방송 기자들을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

5일 청주, 대전, 공주, 김천, 경주, 대구, 거창, 진주, 전주, 군산, 리리, 목포, 춘천, 강릉 등지에서 학생 투쟁 계속 ▶괴뢰 문교부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을 헤치기 위해 각 대학에 방학할 것을 강제 지시 ▶괴뢰 내무부 장관, 《경찰 업무 강화에 관한 긴급 지시》를 시달 ▶학생 투쟁에 위압 당한 김 종필이 공화당 의장직을 사퇴, 6월 18일 미국으로 도망

6일 괴뢰 락하산병과 경찰이 《동아 일보사》를 습격

7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박 정희에게 《박 정희야 먹을 것을 달라》고 웨치면서 녀인들이 시위 ▶괴뢰 정부 문교부에서 학생 탄압을 위한 《학생 선도 대책과 학원 정화 방안》을 발표

8일 강원도 북평 중고등 학교 학생들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여 반정부 시위 단행 ▶박 정희 도당 인민 탄압 강화를 위해 군경 《합동 수사 본부》를 설치

9일 경상북도 대구시 내에 구국 투쟁을 호소하는 삐라가 뿌려짐 ▶전북 대학생들 반정부 시위 단행

10일 《한국 신문 발행인 협회》와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

12일 괴뢰 공군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 훈련을 감행

15일 대전시 내에서 장티브스 발생, 경남, 경기도 등지로 만연 ▶미 태평양 지구 륙군 사령관 워터즈 (대장), 서울에 기여듬

17일 괴뢰 국무 총리, 미 대사와 《국내외 정세》를 밀의 ▶괴뢰 경찰 당국, 《동아 방송국》 기자 6 명을 《반공법》 위반죄로 《계엄 보통 군법 회의》에 잡아 넘김

18일 괴뢰 해군, 군함 《하동 527》을 미제로부터 받아 옴

22일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괴뢰 계엄 사령관, 국무 총리, 내무부, 공보부 장관에게 《언론인의 처우와 신문 검열 완화에 관한 건의서》를 들이 댐 ▶계엄령 선포로 휴교 중이던 서울시 내 고등학교 19일만에 개교

23일 《수도 계엄 사령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에서 3.24 시위 이후 체포한 학생들에 대한 재판 개시

25일 울산만 괴뢰 해군 기지에서 해군, 해병대 및 륙공군 련합 상륙 작전 연습 감행

26일 박 정희 역도, 《6.3 사태》와 관련하여 괴뢰 국회에서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

30일 미 제 8군 사령부에서 현 대전에 상응한 군수 조직의 변경을 발표

7 월

1일 괴뢰 정부에서 인민 탄압을 위한 《사회 질서 확립의 달》 (7월 1—31일) 실시

3일 괴뢰 정부 국무 회의에서 《물가 조절에 관한 림시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쌀, 보리, 비료의 고시 가격을 철폐

8일 박 정희 도당, 인천에서 《방첩을 위한 군관민 협조 시범 대회》를 벌림 ▶미 태평양 지구 공군 사령관 스마트 대장, 서울에 기여듬

9일 괴뢰 내무부 장관, 국회 내무 위원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한다면 《평온 상태를 유지할 자신 없다》고 실토

10일 괴뢰 문교부에서 국민 학교 2 학기 교과서 값을 7.7% 올리기로 결정

14일 괴뢰 정부 당국, 각 대학 《학도 군사 훈련단》 후보생 6천여 명을 예비 사단에 강제 편입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에서 범죄적 《가족 계획》의 강행을 위해 《모자 보건 쎈터》 76 개소를 설치

16일 미 제 7 사단 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2 명 사망, 3 명 중상 ▶《한일 회담》 량측 수석 대표 비공개 회의에서 괴뢰측 장기 차관 제공을 요청

17일 일본 외무성 참사관 히로세 다쯔오 등 《한일 교역 확대》를 목적하고 서울에 기여 듦

20일 괴뢰 국회 본회의, 서독 자본의 침투를 위한 《한독 간의 투자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 ▶괴뢰 보건 사회부, 빠라과이와 《이민 협정》을 체결

21일 에카페(아세아 극동 경제 위원회)의 기술단 일행이 기여 듦

28일 괴뢰 국회 본회의 인민들의 기세에 눌려 《비상 계엄 해제》를 가결 ▶괴뢰 문교부, 6.3 데모에 참가한 애국 학생 508 명(대학 361명, 고등 147명)에게 퇴학 또는 정학 처분

29일 연평도와 강화도에 태풍, 어선 15척 파괴, 사망 3 명, 부상 2 명 발생

30일 괴뢰 국회, 미제의 웰남 침략의 대포'밥을 마련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통과 ▶괴뢰 공보부에서 25 종의 정기 간행물을 강제 폐쇄하고 19 종에 정간 처분

8 월

2일 괴뢰 국회 본회의, 파쑈적 《언론 륜리 위원회 법》을 통과, 5일 괴뢰 정부 공포

4일 괴뢰 국회 출입 기자단,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를 위한 1 차 투쟁 전개를 성명, 《청와대》 및 경제 각 부처 출입 기자단들에서도 악법 철폐를 요구하여 성명 ▶《재건 국민 운동》, 《민간 국민 운동》으로 간판을 바꾸어 재발족,

5일 각 언론 단체 대표들,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 투쟁 위원회》를 결성

7일 신임 미국 대사 브라운 서울에 기여 듦

8일 기자단 대표 회의에서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를 위한 《기자단 공동 투쟁 협의회》를 구성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중인 연세 대학 의대 부속 병원 종업원들 버티기 투쟁을 계속

10일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 투쟁 위원회》 주최로 언론인 대회 개최, 전 남조선적 규모의 투쟁 전개와 괴뢰 정부의 일반적 선전을 띤 일체 보도 거부 등 10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11일 괴뢰 도당이 저들이 판매하는 소위 《국가 조절용 량곡》가격을 평균 51% 인상

12일 《4.19 부상 학생회》 회장 등 30여 명 학생들, 《악법(언론 륜리 위원회 법, 학원 보호법) 반대 투쟁 위원회 전국 청년 협의회》를 구성

13일 남부 웰남 괴뢰 정부 부수상 두 마오 준장, 5일간 체류 예정으로 서울에 기여 듦 ▶범죄적 《한일 회담》 수석 대표 비공식 회담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

16일 미국 정부, 괴뢰 정부에 《군사 원조 이관 년차 계획》(1965—1970 년 간에 약 4천만 딸라)을 제시

17일 《한국 기자 협회》 창립 대회 진행,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 투쟁을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미 대사 브라운과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 사이에 《정책 회담》 진행, 군사 경제적 《원조》, 《한일 회담 조기 실현에 대한 미측 지원》 문제 등을 밀의

18일 미 제 1 군단에서 175 미리 포 사격 훈련을 감행 ▶브라질로 가는 《이민》 37 세대, 부산항을 떠남

19일 박 정희 제 9 차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 재일 동포들의 《조국 자유 래왕 운동의 저지책》과 《국민 방위 대책》을 모의

20일 괴뢰 정부 조달청장과 서부 독일 렐렉스 회사 대표 간에 474만 5천 마르크 차관 도입 계약에 서명

29일 《한국 기자 협회》에서 《언론 륜리 위원회 법》 강제 시행에 경찰 간부까지 동원하고 있는 괴뢰 정부의 비행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31일 괴뢰 국무 회의에서 전기 료금을 올리기로 결정 (9월 1일부터 평균 50% 인상 실시)

9 월

1일 태평양 지구 미군 총사령관 샤프 2세, 남조선에 기여 듦

2일 남조선 사회계 인사들, 괴뢰 정부의 언론 탄압 정책을 반대하여 《언론 자유 수호 국민 대회 발기 준비 회의》를 구성, 10일 《자유 언론 수호 련맹》을 결성 ▶괴뢰 정부 문교부와 경제 기획원에서 《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 밑에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20—50% 인상키로 결정

3일 서울시 내 종합 대학 신문 기자 대표들,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 ▶부산항 부근에서 괴뢰 해군 함대, 도발적인 사격 훈련을 감행 ▶략탈적인 새 《한미 석유 협정》 발효 ▶미 태평양 지구 공군 사령관 해리스 서울에 기여 듦

4일 《수몰 지구》 (섬진강 땜 공사 지구) 주민 1,400여 명이 《이주 정착지》를 요구하여 전북 도청 앞에서 롱성 시위

5일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 미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관과 《언론 파동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정세》를 협의

9일 박 정희 도당,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언론 륜리 위원회 법》 시행을 전면적으로 보류

10일 서울시 내 청소 인부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감 ▶미군 3 명이 김포 기지에서 엘 20 경비행기를 타고 월북하려다 체포됨

11일 서울시 내 대학생 대표들 《구속 학생 석방 운동 준비 위원회》를 만듦 ▶서울시 성북구 하

월곡동 주민 (부녀자)들, 괴뢰 국회 의사당 앞에서 《불하한 국유지를 환원》 하라고 웨치면서 시위

12일 미 대사 브라운, 미 국무성 극동 담당 부차관보 버네트, 일본 주재 공사 에머슨과 괴뢰 외무부 장관, 부총리 및 괴뢰 정부 경제 관계 장관들, 괴뢰 국회 여당 대표들 사이에 《한일 협상》 문제를 밀의

14일 미 제 60 수송 중대 소속 괴뢰군 병사들, 차별 대우에 항거하여 영문을 뛰쳐 나와 시위 ▶미 8군을 상대로 공연하는 연예인 300여 명, 임금 인상과 퇴직금을 요구하여 파업, 21일부터 버티기 투쟁에 들어 감 ▶마산 방직 회사 종업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을 폄 ▶박 정희와 미 대사 브라운 간의 회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밀의

17일 《민주당》과 《국민의 당》 합당 선언

18일 브라질행 《이민》 14 세대 부산항을 떠남

22일 괴뢰군 140 명 (이동 외과 병원 및 태권도 교관)을 남부 웰남에 파견

24일 미 8군 영내 종업원들, 대우 개선과 로조 결성을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을 폄

26일 괴뢰 정부에서 세멘트에 대한 고시 가격 통제를 해제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판자'집 주민들, 강제 철거에 동원된 경찰들과 맞서 투석전을 벌림 ▶서울시 내 일간 신문, 통신 편집 기자들 《편집 기자회》를 조직

10 월

1일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 서울에 기여 듬 ▶괴뢰 정부 농림부에서 도입 비료 가격을 70% 인상 실시

3일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번디—괴뢰 외무부 장관 《공동 성명》 발표

5일 부산시 초량동 판자'집 주민 (부녀자)들,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괴뢰 경찰을 상대로 투석전을 벌림, 7일에는 철거 반대 시위 ▶괴뢰 정부에서 《한일 회담》과 《일본 상업 차관 도입》에 대한 《계몽 선전》을 벌림

6일 괴뢰 정부, 범죄적 《한일 회담》조기 타결의 강행을 위한 《한 일 미 3각 외교》의 강화를 목적하여 외무부 차관, 미, 일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의 대폭 이동을 단행

7일 괴뢰 정부, 2천만 딸라 상업 차관의 수락을 일본 정부에 정식 통고 ▶괴뢰 국무 총리, 《반공 전선 강화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만으로 출발

8일 박 정희 도당이 23개의 정기 간행물을 강제 폐간, 13개를 정간

16일 괴뢰 정부에서 판자'집 강제 철거 년차 계획(1965—1971)을 결정

18일 《조국의 평화적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자강 학회》 창립

20일 서울 대학교 부설 행정 대학원 학생들, 졸업 후 취직 보장을 요구하여 동맹 휴학 ▶괴뢰 해군과 해병대는 김포 근해에서 대규모의 기습 훈련 작전을, 괴뢰 제 1 야전 부대는 남한강 중류 일대에서 《추계 기동 훈련》을 감행

21일 전 일본 방위청 장관인 후지에 셰가이, 《한국 아세아 민족 반공 련맹》의 초청을 받아 서울에 기여 듬

22일 괴뢰 국회 본회의에서 략탈적인 《농지세 징수 (물납제) 에 관한 림시 조치법》을 강제 통과 ▶신임 일본 주재 괴뢰 대사 김 동조, 일본 외상을 방문하고 《한일 회담》의 재개를 제의

26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 박 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성토 대회 진행, 《민족의 량심을 역행하는 한일 회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 ▶괴뢰 경찰까지 동원하여 《한 미 합동 비정규전 야외 연습》을 개시, 11월 25일까지 감행

27일 미 8군 장교 숙소 녀종업원들, 임금 인상, 무단 해고 금지를 요구하여 파업 ▶전라북도 김제 평야에서 괴뢰 륙군 제 9690 부대, 《경비 시범 훈련》을 감행 ▶괴뢰 《수산 개발 공사》와 프랑스의 《강철 어선 공급 협회》 간에 《이딸리아, 프랑스 어업 차관에 의한 어구 공급 및 기술 협정》 체결

28일 강제 철거 당한 서울시 룡산동 주민들 시청 앞 광장에서 련좌 데모를 폄 ▶미 제 7 함대 사령관 서울에 기여 듬

29일 서울시 한남동 판자'집 주민들, 강제 철거에 출동한 괴뢰 경찰, 깡패 400 명과 1 시간 동안에 걸쳐 투석전을 벌림, 30일 아침 또다시 소방차 10 대를 앞세우고 달려 든 기동대 및 최루탄 부대와 3 시간에 걸치는 치렬한 투석전을 전개 ▶괴뢰 치안국에서 남조선 전역에 《반공 시범 파출소》 158 개소, 《반공 시범 부락》 11 개를 설치했다고 발표

30일 괴뢰 각의에서 《국영탄》 값 15% 인상을 결정 ▶어용 《한국 로총 대의원 대회》, 《대의원》 자격 문제로 란투극을 벌린 끝에 산회

31일 《한국 대학생 정치 학회》에서 일본 외교 사절단의 즉각 추방, 일본 책자 (오늘의 일본) 몰수 소각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11 월

1일 괴뢰 공보부, 18 종의 간행물을 강제 폐간

2일 서울시 내 대학생 대표들, 광주 학생 운동 35 주년에 제하여 외세를 배격하는 선언문을 발표 ▶사립 학교 교육자 대회에서 《사립 학교법 개정 법률》을 배격하는 결의문 채택 ▶일본 《경영 협회》 대표, 금융가 등 일행 14 명이 서울에 기여 듬

3일 6.3 투쟁 때 구속됐던 11개 대학 애국 학생들 《6.3 동지 친목회》를 조직

4일 사립 중학교 교장 회의 대전에서 개최, 《사립 학교법 개정 법률》 반대 운동 전개를 결의 ▶

《조선 일보》 여론 조사 결과 발표, 조국 통일에 《대단한 관심》이 85%

5일 4만여 항만 하역 로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 관철을 위해 11일부터 파업에 들어 가기로 결정

6일 괴뢰 상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구 방문 시찰단》, 서구라파 나라들의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구걸 길에 나섬 ▶도꾜에서 2천만 딸라 상업 차관 도입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담》 개시

7일 괴뢰 해병 제 1 려단, 한강 하류 영화강 일대에서 도하 작전을 감행

10일 브라운 대사, 괴뢰 외무부 장관 간에 《미국의 극동 정책과 사또 일본 신 내각 성립 후 한일 관계》에 대해 밀의 ▶미 군사 고문단장에 에드윈 에스. 버마(소장)를 새로 임명

11일 서울 지방 검찰청, 《황 룡주 통일론 필화 사건》에 《반공법 위반》을 뒤씌워 구속 기소 ▶괴뢰 륙군 제 9650 부대에서 도발적인 포사포 실탄 사격을 감행

12일 《령남 일보》, 《황 룡주 통일론 필화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 자유를 장송하려는 소행》이라고 괴뢰 정부를 규탄 ▶괴뢰 중앙 정보부장, 괴뢰 국회 내무 위원회에서 조국 통일의 기운을 말살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뒤'바침과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의 보장》을 요구

13일 서울역의 품팔이 하역 로무자들, 로임과 식대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27 시간만에 요구 조건 관철

14일 박 정희, 괴뢰 총리, 부총리, 외무, 내무 장관들, 중앙 정보부장 등과 《올림픽 관광단원》의 의거 사건과 《황 룡주 통일론 필화 사건》을 토의 ▶괴뢰 정부 재무부에서 《사세청장 회의》를 소집, 년말 조세 강제 수탈의 긴급책을 모의

16일 미군 기관 고용 로무자들,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여 로동 쟁의를 제기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사는 김 정수(21세), 의거 입북하려다가 괴뢰군 《방첩대》에 체포됨

17일 괴뢰 정부—여당 련석 회의, 일본 주재 대사의 보고를 듣고 《한일 회담》 년내 실현 대책을 모의 ▶미 국제 개발처 동남아 국장 스테판 아이보스, 괴뢰 정부의 1965년도 《재정 안정 계획》을 통제하려 서울에 기여 듦

18일 《농업 이민》 23 세대 브라질로 떠남

19일 괴뢰 정부 외무부의 《한일 회담 대책 회의》, 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의 요구대로 억류중인 일본 어선 3 척, 어민 16 명을 석방하기로 결정

20일 전 서독 국방상 슈트라우스, 서울에 기여 듦 ▶괴뢰 정부 로동청에서 11월 23, 26, 30일의 3 차에 걸쳐 광부 388 명을 서독에 넘긴다고 발표

21일 《유엔의 문호 개방》에 대한 우 탄트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리유로 괴뢰 당국에서 《조선 일보》를 압수, 편집 국장, 담당 기자를 구속 ▶박 정희 도당의 《고위 정책 회의》에서 범죄적 《한일 회담》의 12월 속개 방침을 결정

23일 미 국제 개발처 극동 담당 차관보 포츠, 박 정희에게 《군사 원조 및 경제 원조, 한일 회담 조기 타결》에 관한 방침을 지시

24일 《한국 기자 협회》에서 《조선 일보 압수 사건》과 관련하여 박 정희에게 항의문 ▶타이 외상 코만, 박 정희 괴뢰 도당과 《반공》 군사 동맹 조작을 위한 극동 및 동남 아세아 괴뢰들의 《외상 회의》 소집 문제를 모의하기 위하여 서울에 기여 듦

26일 《민정당》과 《자민당》이 합당 선언

27일 괴뢰 제 1군 산하 제 716 부대에서 《고립 부대에 대한 병력, 장비, 물자 공중 보급 투입 훈련》을 감행 ▶괴뢰 정부 재무부에서 《년말 통화량 유지》를 위해 시중 은행에 융자 및 대출 금지를 긴급 지시 ▶서울에서 박 정희 도당과 장 개석 집단 간에 《우호 조약》 체결

29일 3.24, 6.3 투쟁 참가 애국 학생들이 《한국 학사 청년 련맹》 조직을 발기 ▶괴뢰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 감시 하 남북한 토착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에 의한 반동적 통일 《결의안》을 채택

30일 괴뢰 국방부에서 1965년도부터 춘천 농대 등 7 개 대학에 《학도 군사 훈련단》을 증설하기로 결정

12 월

1일 괴뢰 정부 공보부에서 17 개 간행물을 강제 페쇄 ▶괴뢰 국회 본회의에서 1965년도 괴뢰 정부 재정 예산안 통과 (총규모 848억 원)

3일 제 7 차 《한일 회담》 도꾜에서 개시 ▶《년말 통화량 한정선》이 말썽이 되여 괴뢰 재무부 장관 사표 제출 ▶미국 의원단 일행, 군사 시설 시찰을 위해 서울에 기여 듦

4일 괴뢰 국회 본회의에서 《군원 이관 반대 및 대미 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 채택 ▶《유엔군》 참가 하에 괴뢰 륙해공군 《부대 지휘 훈련》 개시, 11일까지 감행 ▶1964년 1—11월 기간에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 3,575 척이라고 괴뢰 당국 발표

5일 미 륙군 참모 총장 존슨, 서울에 기여 듦

6일 박 정희 역도, 서부 독일로 출발, 구걸이 목적

7일 괴뢰 도당과 서독 간에 1억 5,900만 마르크 (3, 975 딸라)의 경제 차관 협정 체결

8일 남조선 해운 및 개항장 사용에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매국적 《한 독 해운 협정》 가조인 ▶괴뢰 당국에서 철도 운임 인상 (려객 35%, 화물 15%)을 결정, 1965년 1월 1일부터 실시

9일 강원도 정선 철도 공사장 로동자들, 밀린 임금을 내라고

서울까지 와서 롱성 투쟁 전개 ▶미 공군 참모 총장, 서울에 기여 듦

11일 서울시 내 학부형들, 중학 입학 시험 부정 사실을 규탄하여 시 교육청에서 철야 롱성 투쟁 전개 ▶일본 외무성 관리 일행, 산업 지대 시찰이란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 듦

12일 미 국방성 군원국장 로버트 제이.우드, 군수 현황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 듦

16일 괴뢰 교통부에서 뻐스 료금 인상 실시 (1965년 1월 15일)를 발표

18일 도꾜에서 남조선 괴뢰 대사, 일본 외상 시이나와 《일한 정상 회담》에 관하여 협의

20일 미군 기관 고용 로동자들, 임금 인상, 고용원 해고의 철회를 요구하여 시위

22일 《국정 교과서 영등포 공장》 로동자들이 각종 수당금의 지불 요구에 대한 공장 측의 보복 행위를 반대하여 파업 ▶서울시 경찰국에서 년말 년시를 앞두고 《비상 경비》 실시

26일 대구 《삼호 방직》 로동자들, 밀린 임금, 상여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 개시 ▶서울시 필동에서 권총 저격 사건 발생, 현장을 취재하던 《조선 일보》 기자가 또다시 괴한의 습격을 받음

28일 《공화당》 제 2 차 전당 대회 시작

29일 괴뢰 정부, 남부 웰남 파병안을 괴뢰 국회에 제출

30일 괴뢰 상공부에서 《대한 석탄 공사》의 무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 (1965년 1월 1일부터 실시)

재일 조선 공민 주요 일지

(1964년 1—12월)

1 월

1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전체 재일 동포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냄 ▶재일 동포들의 종합 잡지 《조국》 창간

10일 총련의 1964년 중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 간또 지방 열성자 대회 진행

14일 총련 간또 지방 대표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일본 정부에 요구

19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배 쟁탈 제 4 차 재일본 조선인 유술 선수권 대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제 114 차 귀국선 니이가다를 출항

25일 제 9 차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배 쟁탈 동서 대항 축구 경기전 나고야에서 진행

27일 재일 동포들,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즉시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 제 5 차 통일 행동 일본 전국에서 일제히 개시 (1월 31일까지), 일본 정부 당국에 요청단 파견 ▶재일 조선인 조국 왕래 실현 요청 위원회 대표자 회의 도꾜에서 진행

29일 총련 중앙 간부들과 동포들, 일본 국회 참의원 의장과 일본 정부 당국에 조국 왕래 실현을 요구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세계 각국 정당, 사회 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조국 왕래 자유 실현에 지원을 요망하는 서한 발송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 간또 지방 열성자 대회 도꾜에서 진행, 총련의 1964년도 중요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

2 월

2일 조선 인민군 창건 16 주년을 기념하여 총련 도꾜도 본부 주최로 2.8 역전 경기 대회 진행

3일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위한 긴끼 지방 열성자 대회 진행 ▶재일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일본 정부 당국에 요구

8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한덕수 의장 보고) ▶총련 각 지부들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군중 대회 진행

12일 일본 경찰이 총련 쯔시마 본부를 습격한 사건 (2.11)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당국에 강경히 항의

13일 재일 동포들,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 6 차 통일 행동 개시(20일까지)

16일 도꾜 조선 제 2 초중급학교 교사 신축식 진행,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축하 연설

17일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실현을 요구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총련 각 현 본부들에서 일제히 군중 대회 진행

20일 총련 중앙, 올림픽 도꾜 대회에 참가할 조국 남반부 선수들을 환영하는 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하여 민단에 제의 ▶조국으로의 왕래 자유를 요구하는 재일 조선 상공인 대회 도꾜에서 진행

26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 33 차 회의 27일까지 진행, 《전체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 (한 덕수 의장 보고)

28일 올림픽 도꾜 대회에 참가할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제 1 차 회의 진행

3 월

1일 3.1 운동 45 주년 기념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일본 각지에서 3.1 운동 45 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군중 대회 진행

5일 총련 중앙,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일본 각 정당, 사회 단체들에 호소

6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구호 발표

7일 3.8 국제 부녀절 54 주년 기념 도꾜 녀성 대회 진행

11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6일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 행동 월

간 개시, 오사까—도꾜간 도보 행진 조국 왕래 요청단 도꾜를 향하여 출발 ▶조국 왕래 자유 실현을 요구하여 오사까 재일 조선인 대회 진행

18일 제 115 차 귀국선 니이가다에 입항

20일 도꾜를 비롯한 일본 각지 동포들, 범죄적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여 군중 대회 진행

22일 고베 조선 중고급 학교, 히로시마 조선 제 1 초급 학교 교사 신축식 진행

24일 총련 중앙, 일본 깡패들과 경찰의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일련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과 법무성에 강력히 항의

26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9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4 월

2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는 오사까부 조선인 대회 진행

4일 총련 도꾜도 성인 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 진행

7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8일 김 일성 원수 탄생 52 주년에 제하여 각지 강연구들에서 강연회 14일까지 진행

19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4.19 인민 봉기 4 주년을 기념하는 재일 조선 청년 학생 궐기 대회 진행

21일 조국 왕래 요청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총련 중앙,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 왕래를 즉시 인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

22일 제 116 차 귀국선 니가다항에 입항

28일 공화국 정부에서 열 네번째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으로 2억 29만 원을 보내 준 것에 감사하여 재일 조선인 각급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대회 진행

5 월

1일 5.1절 경축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2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배쟁탈을 위한 재일본 조선인 제 1 차 남녀 탁구 선수권 대회와 조선 중고급 학교 남녀 탁구 선수권 대회 3일까지 진행

8일 재일본 조선 축구단 성원들, 1964년도 제 1 차 원정에 출발 ▶히가시 오사까 조선 제 1 초급 학교 12 교사를 증축 완공함

11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한 덕수 의장,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 축전

14일 재일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언론 탄압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6일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실현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간또 지방 활동가 회의 진행

20일 올림픽 도꾜 대회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제 2 차 회의 도꾜에서 진행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에 축전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개막, 1.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한 덕수 의장 보고) 2.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감사 위원회 사업 결산에 대하여 3.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 강령 및 규약 일부 수정에 대하여 4.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재정 결산 및 예산 심의에 대하여 5.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역원 선거에 대하여 27일까지 토의

28일 조선 대학 강당 및 제 2 연구당 신축식 진행

30일 제 117 차 귀국선 니이가다항을 출항

6 월

5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성명 발표 ▶재일 조선 녀맹 제 1[illegible] 차 대회 6일까지 진행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도꾜 조선인 대회 진행

6일 류학생 동맹 제 10 차 대회 진행 ▶언론인 협회 제 7 차 대회 진행 ▶신용 조합 제 10 차 대회 7일까지 진행

7일 교육회 제 7 차 정기 대회 8일까지 진행

8일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제 7 차 대회 9일까지 진행 ▶상공회 제 15 차 대회 9일까지 진행

9일 문학 예술가 동맹 제 3 차 대회 10일까지 진행

10일 체육 련맹 제 6 차 정기 대회 진행

11일 재일 조선 청년 동맹 중앙,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리 윤식 학생을 애도하여 추도문 발표

13일 총련 중앙,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경찰과 불량배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에 엄중히 항의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을 항의 규탄하여 재일본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상임 간사회에서 성명 발표

16일 총련 중앙, 니이가다 지방 지진 재해와 관련하여 현지에 대책 본부를 조직, 일본 리재민 위문금으로 일본 적십자사에 10만 원 (일화)을 전달

21일 교직원 동맹 제 14 차 정기 대회 도꾜에서 22일까지 진행, 3 년간 사업 총화와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결정 실행 대책을 토의

23일 총련을 비방, 중상한 일본 가야 법무상의 발언과 관련하여 총련 중앙 윤 상철 외무부장, 담화 발표

25일 6.25 14 주년을 맞이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며 미제와 그 앞잡

이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도쿄에서 진행

26일 지바현 동포들, 도쿄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 우익 폭력단과 불량 학생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련일 항의

27일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결정 실천을 위한 과학자 협회 제 3 차 전체 대회 진행

29일 총련 중앙, 니이가다현과 니이가다시의 일본 민주 단체에 구원금 30만원 (일화)을 보냄 ▶재일본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웅변 대회 진행

7 월

4일 요꼬하마 동포들, 일본 불량패에 의하여 재일 동포 한 명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당국에 군중적으로 항의

8일 재일본 조선인 체육 련합회, 재일 조선 체육인들의 일본으로의 재입국 문제에 대하여 성명 발표

16일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총련 기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 파괴 음모가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화국 외무성 성명 (7. 10)을 지지하여 재일 동포 각계 대표들 담화 발표

26일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결성

27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11 주년 기념,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30일 남녀 평등권 법령 발표 18 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 녀성 중앙 대회 진행

8 월

1일 조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재일 조선인 자녀들의 교육비 및 장학금으로 3억 294만 원을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담화 발표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국제 회의에서 조선 대표단 리 계백 단장이 연설

4일 니이가다현 무라까미 경찰서와 무라까미 지구 방범 협회의 반조선 선전에 분격한 동포들, 경찰에 엄중 항의

6일 재일본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남조선 언론 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8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배쟁탈 제 1 차 재일 조선인 원영 대회 진행

10일 조국에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준 데 감사하여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1일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제 10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을 초대하여 연회 배설

12일 총련 중앙,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체결 5 주년에 제하여 일본의 각계 대표들을 초대하여 축하회

15일 8.15 해방 19 주년 재일본 조선인 중앙 경축 대회 진행 ▶재일본 조선 류학생 동맹 중앙 상임 위원회,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남조선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소위 《학원 보호법》의 파쑈 악법을 조작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8일 올림픽 도쿄 대회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올림픽 도쿄 대회에 참가할 조국 선수단 환영 사업을 공동으로 조직할 데 대하여 도쿄 올림픽 재일 한국인 후원회에 제의서 전달

9 월

3일 재일본 조선인 체육 련합회, 가네포 참가 선수들의 《제재》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6 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 예술 경연 대회 5일까지 진행

7일 올림픽 도쿄 대회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한 덕수 의장, 공화국 선수들의 올림픽 도쿄 대회 참가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조치의 즉시 철페를 요구하여 담화 발표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6 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6 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 중앙 체육 대회 15일까지 진행

23일 제 118 차 귀국선 니이가다에 입항

30일 재일본 조선인 조국 왕래 요청 위원회 리 계백 위원장,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요구하여 담화 발표

10 월

3일 올림픽 도쿄 대회 선수단 환영 위원회, 제 4차 회의 진행, 환영 계획 발표

7일 올림픽 도쿄 대회 조국 선수단 환영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환영 연회 성대히 진행 ▶재일 조선 류학생 동맹, 조청 조선 대학 위원회, 재일 인도네시아 류학생 동맹, 가네포 참가 선수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공동 성명 발표

8일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체육과 스포츠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국제 반동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3일 총련 도쿄도 본부 및 산따마 본부 관하 동포들,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실현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

22일 올림픽 도쿄 대회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한 덕수 회장, 동포애적 심정으로 남조선 선수단, 역원 전원에게 시계를 선물할 데 대하여 남조선 올림픽 선수단 민 관식 단장에게 서한

25일 제 120 차 귀국선 니이가다항에 입항

26일 올림픽 조국 선수단 환영 위원회 제 5 차 회의 진행, 조국 선수단 환영, 환송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

11 월

1일 조국으로부터 재일 조선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열 여섯번째로 보내 온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2억 140만 원 (일화)을 접수

3일 광주 학생 운동 35 주년 기념 도꾜 조선 청년 학생 대회 진행

4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조국에서 열여섯번째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준 데 감사하여 김 일성 원수께 전문 ▶재일본 조선인 초, 중, 고급 학교 예술 경연 제 4 지구 (관서) 예선 대회 오사까에서 진행

7일 조선 대학과 인도네시아 류학생 간의 제 2 차 친선 축구 시합 진행

10일 조국으로부터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준 데 감사하여 재일 조선인 교육 일'군, 과학자, 류학생들 대회 진행

16일 재일본 조선 초, 중, 고급 학교 학생 예술 경연 대회 18일까지 진행

20일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21일까지 진행,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각계 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 채택. 또한 총련 결성 10주년 기념 사업을 조직할 데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승인

23일 재일본 조선인 교육회 중앙 리사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진행

24일 재일본 조선 언론 출판인 협회 상임 간사회,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억제 방해하려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총련 중앙 한 덕수 의장, 일본 공산당 제 9 차 대회에서 축사

25일 총련 중앙 대표, 총련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에서 채택된 《한일 회담》 중지 요청서를 일본 정부 당국에 수교

12 월

2일 재일 조선 공민들, 1965—1966 학년도 학생 인입을 위한 제 1 차 통일 행동 개시

3일 총련 중앙, 《한일 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총련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상공련합회 리사회 제 15 기 제 2 차 회의 진행 ▶총련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체육 련합회 리사회 제 6 기 제 3 차 회의 진행

4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2 차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재일본 조선인 신용 조합 협회 제 12 기 제 4 차 회의 진행

7일 조국으로의 왕래 자유 실현을 요청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10일 군마 조선 초, 중급 학교 증축 완공

15일 조선 은행 도찌기 신용 조합 창립 총회 진행

17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23일 제 121 차 귀국선 니이가다에 입항

25일 재일본 조선인 조국 왕래 요청 위원회, 일본 정부 《각료》 회의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데 항의하여 성명 발표

국제 주요 일지

(1964년 1—12월)

1 월

1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제 2 차 대회 8일까지 진행 ▶주 은래 총리 알바니아 방문 (10일까지), 9일 중국—알바니아 공동 성명 발표 ▶끼쁘로스 대통령, 토이기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고 토이기, 희랍 및 영국과의 1960 년 조약 파기를 선언 ▶영국이 600 명의 증원 부대를 끼쁘로스에 파견

2일 아바나에서 해방절 5 주년 기념 군중 대회 진행, 꾸바 수상 카스트로 연설 ▶수카르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군사 지휘관들에게 반말레이시아 대결 활동을 강화할 것을 명령 ▶가나 대통령 느크루마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발생

3일 스웨리에 공산당 제 20차 대회 진행 (6일까지)

4일 아.아 인민 단결 기구 서기국이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려는 미제의 음모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브라질 해운 회사 로동자 약 3만 5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단행 ▶프랑스 국방상 메스메르, 캄보쟈 방문 (7일까지), 프랑스 국방상, 캄보쟈에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동의

7일 영국의 8만 6천 명 철도 수리 공장 로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

8일 예멘에서 신 헌법을 채택하고 국가 최고 권한을 재편성 ▶미 대통령 존슨, 미국 국회 량원 합동 회의에 《일반 교서》 제출

9일 아덴에서 아덴 근로자 및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위원회 회의 진행, 회의에서 영국 군대가 아덴에 상륙하기 시작한 날인 1월 19일을 《아덴의 날》로 설정하기로 결정 ▶빠나마 운하 지대에서의 미국 국기 게양 사건을 도화선으로 빠나마 인민의 반미 폭동 발생 ▶이딸리아에서 40 만 명의 방직공들과 금속 및 기계 제작 로동자들이 물질적 처지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10일 빠나마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통고

11일 주 은래 총리, 가나 방문 (16일까지), 15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12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모 택동 주석, 미제를 반대하는 빠나마 인민의 애국 투쟁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잔지바르에서 무장 폭동 발생, 아베이드 카루메를 대통령으로 하는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 선포

13일 피델 카스트로 수상, 쏘련 방문 (23일까지). 1월 22일 쏘련—꾸바 공동 콤뮤니케 발표 ▶까히라에서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 진행 (17일 페막). 회의에서 요르단강 물'줄기를 변경하려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를 규탄하고 아랍군 사령부를 설치하는 데 합의

14일 브라질의 리오 데 쟈네이로에 있는 전력 및 가스 공급소들과 전화 회사 로동자 2만 6천 명이 10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15일 쁘라하에서 세계 직련 집행 뷰로 제 44 차 회의 17일까지 진행 ▶런던에서 끼쁘로스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희랍, 토이기 및 끼쁘로스인 대표들의 회의 개시 ▶아랍 련합 공화국과 요르단이 1961년에 단절되였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 런던 방문 (16일까지), 영국 수상 홈과의 회담에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문제에 대한 모순 발로

16일 주 은래 총리 말리 방문 (21일까지), 21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일본 자유 민주당 제 13 차 전국 대회 17일까지 진행

17일 빠나마의 학생, 로동자 3천여 명이 새로운 운하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반미 시위 단행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말레이시아》에 《특수 군사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

18일 뻬루 공산당 제 4 차 전국 대표자 회의 19일까지 진행, 회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규탄하고 반제 반봉건적 민주 전선을 형성할 것을 호소

19일 쎄일론 공산당 제 7 차 대회 콜롬보에서 진행 (21일 페막), 정치 보고, 조직 문제에 관한 보고를 토의, 해당한 결의를 채택하고 새로운 중앙 위원회를 선거 ▶다오메 대통령으로 쑤루 미간 아피티 피선

20일 탄가니카 병사들이 영국인 장교를 반대하여 폭동, 21일 영국이 탄가니카에서의 군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2천 명의 군대와 항공 모함을 파견 ▶이스라엘에서 1만 5천 명의 초급 학교 교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잠비아 (북로데시아) 내부 자치제 실시를 위한 의회 선거 진행 (21일까지). 선거 결과 민족 통일당 위원장 켄네트 카운다, 초대 수상으로 취임 ▶수반나 푸마와 수파누봉 간의 회담에서 왕도 루앙 프라방을 중립화하며 정부를 림시로 그곳에 옮길 데 대하여 합의

21일 주 은래 총리, 기네 친선 방문 (27일까지), 26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칠레 수도 산띠아고에서 1만 명의 로동자들이 물가 등귀를 반대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 ▶미국 대통령 죤슨, 1965년도 예산 교서 발표

22일 인민들의 평화 및 자주권 옹호 꾸바 전국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련석 회의에서 채택한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리비아에서 오마르 모합메드 만타시드 정부 구성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쟈까르따에서 44 개 국가 및 지역의 청년 대표 참가 하에 북부 칼리만탄 지지 국제 청년 회의 진행 (26일 페막), 12월 8일을 《북부 칼리만탄과의 련대성의 날》로 설정 ▶우간다 보총대 2 개 중대가 영국 장교를 반대하여 폭동

24일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 정부, 콤뮤니케를 발표하고 혁명 위원회가 최고 주권 기관이라고 선포

25일 콩고의 퀼루주에서 아둘라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무장 폭동 발생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21 개국 대표 참가하에 라틴 아메리카 근로자 통일 로조 대회 진행, 회의에서 대회 리사회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투쟁 강령을 채택

26일 100여 만의 일본 인민들이 40여 개소의 미 군사 기지 부근에서 강력한 반미 시위 단행

27일 중화 인민 공화국과 프랑스 간에 외교 관계 설정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은래 총리 수단 방문 (3 일간), 30일 중국—수단 공동 성명 발표 ▶웰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서기처 제 1 서기 려 순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 로동당 대표단이 쏘련 방문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청년 전선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12 개국 청년 대표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청년 단결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청년 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기로 결정

29일 오지리의 인스브루크에서 제 9 차 동기 올림픽 경기 대회 진행 (2월 9일까지), 우리 나라 한 필화 선수 3천 메터 경기에서 제 2 위 쟁취 ▶남부 웰남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친미 분자인 남부 웰남 괴뢰 제 1 군 사령관 느구옌 칸이 정권 장악

30일 쏘련에서 2 개의 우주 정류소 《엘렉뜨론—1》호와 《엘렉뜨론—2》호를 발사 ▶이딸리아에서 45만 명의 방직공들이 48 시간 파업을 선포하고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요구

31일 프랑스 대통령 드 골, 중국 문제, 구라파 문제와 기타 문제에 대하여 기자 회견

2 월

3일 꾸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공해에서 꾸바 어선 4 척을

랍치한 미국의 해적 행위에 강력히 항의 ▶뉴욕에서 50여만 명의 학생들과 3,500여 명의 교원들이 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동맹 휴학

4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미제의 반정부 활동에 항의하여 1천 명이 반미 시위 단행 ▶희랍 학생들, 끼쁘로스에 대한 《국제군》 파견에 반대하여 미, 영, 토이기 대사관 앞에서 시위 ▶인도 뉴델리에서 약 5만 1천 명의 소매 상인들이 델리 시청의 박해에 항의하여 파업

5일 방코크에서 《말레이시아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 개국 외상 회의 진행 (10일 폐막)

6일 꾸바의 피델 카스트로 수상, 기자 회견에서 미제가 꾸바 어선을 불법 나포한 해적 행위를 규탄하고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급수를 정지하겠다고 발표

7일 쏘련 정부, 끼쁘로스에 대한 군사적 간섭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토이기, 희랍 정부에 각서 전달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4만 명 군중들이 정부의 농민 학살에 항의하며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여 군중 집회 진행

9일 뉴질랜드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비서 윌콕스와 그의 부인, 중국 방문 ▶영령 기아나 수도 죠지타운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 명의 군중들이 독립을 요구하여 군중 대회 진행

10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15일 폐막), 회의에서 《농산물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비료의 광범한 리용, 관개 발전, 종합적 기계화, 과학 성과와 선진 경험의 도입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집약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 ▶희랍의 아테네 시민 2만여 명, 제국주의자들의 끼쁘로스 파병 계획을 반대하여 시위 ▶미국의 케이프 케네디 (케이프 캐나베랄) 로케트 발사 기지와 페리트 로케트 시험장의 건설 로동자들, 프로리다 동해안 철도 로동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파업

11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남부 웰남 군사 정변 후 미제의 침략 책동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이딸리아에서 20만 명의 화학 및 제약 공장 로동자들이 파업 ▶스코틀랜드에서 10여만 명의 건설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투쟁에서 승리

12일 부다페슈트에서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 진행 (22일 폐막), 회의에서는 남부 웰남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 학생 대회 련대성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의 요구 및 재일 조선 공민의 조국 자유 왕래 실현을 지지하는 결의 채택 ▶워싱톤에서 영국 수상 흄과 미국 대통령 죤슨 간에 회담 진행 (2월 13일까지), 회담에서 미, 영 간의 모순 발로

13일 칠레의 전체 철도, 운수, 부두 로동자들과 시 행정 기관 및 의료 기관 일'군들 4만 명이 임금을 70%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파업

14일 주 은래 총리와 진 의 외교 부장 버마 방문 (2월 18일까지), 방문 끝에 중국—버마 공동 콤뮤니케 발표 ▶이딸리아 각 도시 운수 로동자 10만여 명이 로동 시간 단축, 임금 인상을 예견하는 새로운 단체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24 시간 파업 단행 ▶서독 수상 에르하르트, 프랑스 방문 (15일까지), 빠리에서 프랑스 대통령 드 골과 회담

15일 에스빠냐 공산당 비상 전국 대표 회의 16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수정주의적인 현 중앙 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당 창건을 결정 ▶뻬루 중부 지역에서 5만 5천 명의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7일부터 시작한 우편 및 전신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여 무기한 파업 단행

16일 캄보쟈 정부, 2월 4일 남부 웰남 비행기들이 캄보쟈 농촌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미국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 발표 ▶희랍 국회 선거 진행, 18일 중앙 동맹당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를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 조직

17일 또도르 집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 방문 (22일까지), 22일 쏘련—벌가리아 공동 성명 발표 ▶가봉 대통령 (므바)의 독재 통치를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 발생, 19일 프랑스 군대에 의해 진압 당함 ▶수리아 정부, 석유 항구 바니 아스에서의 반란 기도를 분쇄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18일 주 은래 총리와 진 의 외교 부장 파키스탄 방문 (2월 24일까지), 방문 결과 중국—파키스탄 공동 콤뮤니케 발표

19일 알제리—마로크 국경 분쟁의 조정에 관한 협정 체결 ▶이딸리아 화학 및 약재 공장 로동자 20만 명이 새로운 단체 계약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파업 단행 ▶미국 당국, 비법적으로 메히꼬만 공해 상에서 랍치하여 간 4 명의 꾸바 어선 선장에게 각각 6 개월 간의 징역형을 언도

20일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 기네 방문 ▶국제 기자 동맹, 재일 조선 공민의 자유 왕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방해 책동에 항의 전문 ▶인도의 전국 각지에서 약 5만 명의 로동자들이 물가 인하, 감세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여 3일 (2월 20—22)간의 단식 투쟁 전개

21일 세계 민청 뷰로, 재일 조선 공민의 조국 자유 래왕을 지지할 데 대한 국제적 깜빠니야를 전개할 것을 각국 청년 단체들에 호소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 ▶뻬루의 24 개 항구의 부두 로동자 15만 5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영국 증원군 1,500 명이 끼쁘로스에 도착, 이로써 끼쁘로스에 파견한 영국군 총병력은 약 7천 명에 도달

22일 중화 인민 공화국과 콩고(브)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 ▶일본 사회당 제 23 차 대회 24일까지 진행, 대회는 1964년 행동 강령을 승인하였으며 《일한 회담》과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며 일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투쟁할 데 대한 선언 채택

25일 모스크바에서 쎄브 집행 위원회 제 11 차 회의 진행 ▶미국의 시카고에서 17만 명 이상의 흑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인종 차별을 반대 항의하여 동맹 휴학 단행

26일 주 은래 총리 쎄일론 방문 (29일까지), 29일 량국 간의 공동 콤뮤니케 발표 ▶미국 보스톤에서 1만 명의 학생들이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시위

27일 일본에서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로동 조건과 생활 형편의 개선을 요구하여 공동 투쟁 전개 ▶베네수엘라 유격대가 미제의 유전 시설을 습격하고 석유 저장소를 폭파

28일 하까마다 사도미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공산당 대표단이 쏘련 (2월 28일—3월 13일), 중국 (3월 13일—26일, 4월 4일—11일), 조선(3월 27일—4월 3일), 윁남 (4월 12일—19)을 방문

3 월

1일 정치국 위원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이 중국, 조선, 쏘련을 16일까지 방문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가 남부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고 남부 윁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3일 아랍—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약 1만 명의 시민들, 끼쁘로스에 대한 미제의 간섭에 항의하는 군중 대회와 시위를 단행 ▶유엔 사무총장 우 탄트, 예멘에 파견한 《유엔 감시단》의 주둔 기한을 2개월 연장

4일 아테네를 비롯한 희랍 각계에서 끼쁘로스에 대한 미제의 간섭에 항의하여 수만 명이 항의 군중 시위 진행 ▶브라질에서 1만 명의 사탕 공장 로동자들이 임금의 6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칠레에서 10만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유엔 안보 리사회 회의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의 끼쁘로스 파견에 관한 결의안 채택

5일 뽈스까 외무상 라빠쯔끼, 중앙 구라파에서의 핵 무기 동결에 관한 뽈스까 정부 비망록을 발표

6일 미국의 프랭크포트시에서 1만 명의 주민들이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군중 대회 진행

7일 다카르에서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수뇌자 회의 진행 (10일까지), 회의에서 동맹의 명칭을 《아프리카—말가슈 경제 협조 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본부를 까메룬 수도 야운데에 두기로 결정

8일 잔지바르 대통령 카루메, 6만 명이 참가한 군중 대회에서 《잔지바르 선언》 발표

9일 또도르 집프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4일까지 웽그리아 방문 ▶아크라에서 남아프리카 근로자 및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직맹 위원회 제 2 차 회의 진행 ▶칠레 수도 산띠아고에서 제 2 차 라틴 아메리카 청년 대회 14일까지 진행, 대회에서 미제의 반꾸바 책동을 규탄 ▶브라질에서 5만여 명의 로동자들이 파업

10일 캄보쟈 군사 대표단 중국, 쏘련 방문

11일 캄보쟈의 수도 프놈 뻰에서 수천 명의 인민들이 미, 영 대사관 앞에서 일대 시위를 단행하여 대사관을 습격하고 미국 국기를 소각, 영국 대사관에 방화

15일 수단 정부, 남부주들에서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수단에서 축출하기로 결정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하여 지원병으로 등록할 것을 청년들에게 명령, 3월 25일 현재 약 1,800만 명이 지원병으로 등록 ▶살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예멘 정부 대표단 쏘련 (30일까지)을 방문 ▶리비아 국회, 미, 영과의 군사 협정을 페기하고 외국 기지들을 철페할 데 대한 결의 채택

17일 이딸리아에서 13만 5천 명의 제화 로동자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 ▶미국 대통령 죤슨이 《국가 안전 회의》를 소집하고 국방 장관 맥나마라의 남부 윁남 《방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성명 발표

18일 쏘피아에서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 27 차 회의 20일까지 진행 ▶프랑스에서 600만 근로자들이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메히꼬 방문과 관련하여 공동 콤뮤니케 발표

19일 미군의 지휘 하에 남부 윁남 비행기들과 장갑차가 캄보쟈의 국경 촌락 찬드레아를 침공

20일 우간다 정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버워드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 항의하여 이 나라에 대한 상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 ▶이딸리아 농장 로동자 60만 명이 생활 조건의 개선과 농지 개혁을 요구하여 파업 ▶파키스탄이 인도의 칼커타와 기타 서부 벵갈 도시들에서의 회교도들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인도 정부에 항의

21일 일본 공산당 대표단 중국 방문 ▶우루과이에서 꾸바를 옹호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1만 명 군중 대회 진행

22일 알제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리사회 제 6 차 회의 진행 (27일 폐막), 회의는 일반 선언과 일반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한일 회담에 관한 결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 문제에 관한 결의》등을 채택 ▶이딸리아 중부 및 남부의 일부 현들에서 80만 명의 고용농이 토지 개혁을 요구하여 파업

23일 아랍에서 총 6 장 169 조로 된 재 림시 헌법 선언 발표

24일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국경 분쟁 조정에 관한 량국 대표 회담 진행, 회담에서 정화에 합의

25일 로므니아 대 민족 회의 대표단이 4월 9일까지 일본 방문 ▶아련 대통령 아브델 나쎄르가 알리 사브리를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 구성에 관한 법령 발표 ▶에스빠냐의 아스투리아주에서 6만여 명의 강철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단행

27일 웰남에서 특별 정치 회의 진행 (28일까지), 호 지명 주석의 주요 보고를 청취하고 나라의 주요 문제들을 토의 ▶신화 통신, 오스트랄리아에서 에프 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오스트랄리아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이 창건되였다고 보도 ▶카나다 공산당 제 18 차 대회 30일까지 진행 ▶캄보쟈 정부, 캄보쟈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9 개국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웰남 민주 공화국, 남부 웰남, 캄보쟈, 라오스) 회의 소집을 제의 ▶이딸리아에서 70만 명의 통상 및 교통 부문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로조의 권리 존중 등 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하여 파업

28일 일본에서 450만 명의 로동자들이 《일한 회담》과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시위 및 집회 진행 ▶암스테르담에서 화란 공산당 제 21 차 대회 30일까지 진행 ▶버마 혁명 리사회, 여당인 사회주의 로선당을 제외한 일체 정당을 금지하고 금지된 정당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령 발표

30일 웰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 진행 (4월 4일까지)

31일 쏘련 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 웽그리아 방문 (4월 10일까지) ▶부다뻬슈뜨에서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제 8 차 대회 진행 (4월 5일까지), 회의에서 《남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브라질에서 반정부 반란

4 월

1일 브라질 로동 총동맹, 굴라르트 정부 전복을 위한 군사 폭동을 반대하여 총파업 ▶칠레에서 교원, 공공 시설 로동자, 의료 일'군, 국가 공무원, 철도, 부두 로동자들 30만 명이 72 시간 파업

2일 쏘련에서 화성 방향으로 자동 정류소 《존드—1》호를 발사 ▶이딸리아에서 65만 명의 국영 기업소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48 시간 파업 단행 ▶오지리에서 요세프 클라우스(인민당) 정부 구성

3일 《쁘라우다》지 2월 14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쑤슬로브의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한 쏘련 공산당의 투쟁에 관하여》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2월 14일부 결정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한 쏘련 공산당의 투쟁에 대하여》를 발표 ▶브라질 당국, 파나바라주에서 9 명의 중국 일'군들을 비법적으로 체포

4일 끼쁘로스 대통령 마카리오스, 650 명의 토이기 군부대의 끼쁘로스 주둔을 규정한 1960년 조약을 폐기하였다고 토이기 정부에 정식 통고

5일 최 원택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4월 5일—19일), 4월 16일 량국 간에 외교 관계를 설정하며 대사급 외교 대표를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 ▶룩셈부르그 공산당 제 17 차 대회 진행 (6일 폐막)

6일 삼 누아주에서 라오스 애국 전선당 제 2 차 대회 진행 (12일 폐막) ▶탄가니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대 완전 철수 ▶프랑스 수상 뽐삐두, 11일까지 일본 방문

9일 프랑스의 건축 로동자 80만 명,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버마 혁명 정부는 국내의 모든 도매 창고, 대상점 및 백화점들을 국유화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

10일 자까르따에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 진행 (15일 폐막) ▶일본 각지에서 60여만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12~24 시간 파업 단행 ▶기네에서 전국 문맹 퇴치 깜빠니야 시작

11일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공산당 정기 대표자 회의 진행 (12일까지)

12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브라질 당국이 9 명의 중국 일'군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3일 울라지쓸라브 고물까와 유제프 찌란께비치가 인솔하는 뽈스까 당 및 정부 대표단 쏘련 방문 (18일까지), 18일 쏘련—뽈스까 공동 성명 발표 ▶서구라파 10 개국과 일본 등 11 개국이 해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항의하는 각서를 미국에 발송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세아토 각료 리사회 제 9 차 년차 회의 진행(15일 폐막), 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간의 모순 발로

15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남조선 인민들의 4.19 봉기 4 주년에 제하여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통치와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항의문 채택 ▶로므니아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22일 폐막) ▶수리아의 중심 도시인 하마시에서 반정부 군사 쿠데타 발생

16일 세계 민청 서기국,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4.19 봉기 4 주년에 제하여 성명 발표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당 제 1 차 대회 알제에서 21일까지 진행

17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세아토 각료 리사회 제 9 차 회의에서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 계획을 작성한 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기네 민주당 전국 혁명 리사회 회의 진행 (19일까지), 회의는 기네의 금후 발전을 위한 7 개년 계획을 승인

▶미국 인디아나주 해리시내 1만 6천여 명의 미국 학생들이 학교들에서의 인종 격리를 반대하여 등교를 거부 ▶미 국무 장관 러스크와 미 륙군 참모총장 휠러가 남부 웰남을 방문하고 침략적 모의를 진행 (4월 20일까지)

18일 베네수엘라 민족 해방군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친미 파쑈 정부를 타도하라고 호소

19일 비엔티안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군사 쿠데타 발생, 쿠프라시트와 시호가 정권 장악 ▶중국 외교부, 비엔티안 군사 정변을 조작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오스트랄리아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힐을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 대표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4월 19—20일), 중국 (4월 21일—5월 5일) 방문

20일 최 원택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캄보쟈 방문 (27일까지), 27일 량국 간에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미국의 클리블랜드시에서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들에서의 인종 격리를 반대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

21일 꾸바 정부가 꾸바 상공에서 간첩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3월 27일부 미국 각서를 일축 ▶80여 개의 미군 기지들에 고용된 3만 5천여 명의 일본 로동자들이 파업 ▶델리에서 1만 명의 중등학교 교원들이 밀린 임금의 지불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 ▶꽁고 (레)의 《유니옹 미니에르》 산하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1만 8천 명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이딸리아의 3만 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전국적인 24 시간 파업 단행

22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비엔티안의 군사 정변을 조작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당과 앙골라 민족 해방 전선이 통합

24일 쏘련 외무성, 비엔티안에서의 군사 정변 시도와 관련하여 제네바 회의 참가국 정부들에 보내는 공동 의장들의 공동 서한 쏘련측 초안을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에 전달 ▶45만 명의 이딸리아 방직공들, 기업주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항의하여 파업

25일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 5월 7일까지 쏘련 방문

26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려는 쿠프라시트와 시호 반란 도당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 창립

27일 알제에서 진행된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결의를 채택 ▶수리아 전국 혁명 리사회 회의에서 이라크와의 군사 통합을 위하여 1963년 10월에 체결된 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

28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쎄일론 방문 (5월 6일까지) ▶일본 중의원에서 로동 운동과 민주 운동 탄압을 목적한 《폭력 행동 처벌법》을 통과 ▶워싱톤에서 침략적 쎈토 각료 리사회 제 12 차 회의 29일까지 진행

5 월

1일 에스빠냐의 빌바오에서《프랑코를 타도하라!》라는 구호 밑에 4만 명이 시위

3일 라오스의 사반나케트주에서 4,400 명의 참가 하에 미제와 반란 도당의 파괴 책동을 규탄하는 군중 집회 진행

4일 예멘 아랍 공화국 하무드 알 쟈이피를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 구성

5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이 《조선 인민 및 학생들과의 련대성 주간》에 제하여 각국 학생들에게 서한 ▶꾸바 정부 연해 해저에서 은닉된 미국 무기 발견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이딸리아에서 20만 7천 명의 철도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24 시간 파업을 단행 ▶남부 웰남 사이공에서 1만 2천 명의 택시 운전수들이 남부 웰남 운전수를 살해한 미군의 만행에 항의하여 집회와 시위

6일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사회 통일당과 정부 대표단이 웽그리아 방문 (12일까지) ▶볼리비아 공산당 제 2 차 대회 진행

7일 콜롬비아의 보고따에서 로조 통일 대회 진행, 대회에서 새로운 로조 중앙 기관인 근로자 로조 련맹 창설 ▶1만 5천 명의 이딸리아 건설 로동자들이 해고를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

8일 미 국무성, 남부 웰남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25 개국에 남부 웰남 괴뢰 정권을 《원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발표

9일 싱가포르의 31 개 로조 단체, 《말레이시아》를 반대할 데 대한 호소문 발표

10일 캄보쟈 왕국 정부,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도당의 국경 침범에 항의하여 콤뮤니케 발표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 동부 아프리카의 케니아, 우간다,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 등 3 개국 지도자들의 회의 진행 (11일까지), 회의에서 《동 아프리카 공동 시장》을 강화하고 유지할 데 대한 내용의 공동 성명 발표 ▶아르헨띠나 국회에서 아르헨띠나 내정에 간섭한 미국 대사를 규탄하는 결의 채택, 미 국무성, 동 대사를 소환

11일 부꾸레슈띠에서 제 2 차 근로 녀성 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 진행 (16일까지)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 장관과 테일러, 통합 참모 본부 의장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부 웰남 시찰 ▶이라크에서 《전국 혁명 리사회》 창설 ▶뛰니지 국회,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 6만 5천 헥타를 국유화할 데 대한 법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

12일 캄보쟈 수도에서 수천 명의 학생 및 로동자들이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군의 국경 침범에 항의하여 반미 시위 진행 ▶헤그

에서 침략적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 14일까지 진행

13일 꾸바 카스트로 수상 성명을 발표, 미제와 반혁명 분자들의 필론항 포격을 규탄 ▶수파누봉, 푸마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라오스 애국 전선당은 라오스 련립 정부의 어떠한 개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 ▶뻬루 공산당 제 4 차 전국 대회에서 현대 수정주의, 뻬루 공산당 내 수정주의 집단을 규탄하고 견실한 군중성 있는 당을 새로 창건할 필요성을 지적 ▶브라질 군사 당국, 꾸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 ▶살라호 비타르를 수상으로 하는 수리아 새 내각 구성

14일 프랑스 공산당 제 17 차 대회 17일까지 진행, 발데크 로쉐를 총비서로 선거 ▶미꼬얀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이 일본 방문 (27일까지) ▶아르헨띠나에 있는 미국인 소유 광산 로동자들이 1 개월 간의 투쟁 끝에 임금 (40%) 인상 요구를 관철 ▶희랍에서 20만 명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여 파업 단행 ▶프랑스에서 약 10만 명의 야금 및 금속 가공 공장 로동자들이 전국적 파업에 돌입 ▶미 상무성, 꾸바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판매를 금지

15일 무장한 콩고 애국자들, 키부 지역의 탄가니카호 기슭에 있는 소도시 우비라를 점령 ▶미국 대통령 죤슨,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하고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 전쟁 확대를 모의

16일 스위스 로동당 제 8 차 당 대회 진행 (18일까지)

18일 베이징에서 제 7 차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체신 과학 연구 소장 회의 6월 1일까지 진행 ▶국제 기자 동맹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를 꾸바와의 련대성 주간으로 선포

19일 사회주의 국가 핵 물리학자들의 국제 과학 회의 23일까지 진행

20일 아랍 련맹 리사회가 남부 아라비아에서의 영국의 침략 행동을 규탄하는 일련의 결의 채택 ▶13 개 아랍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도꾜 올림픽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도꾜 올림픽 대회를 보이꼬트하기로 결정 ▶타이 정부, 라오스의 우파 도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4 개 대대를 파견 ▶벨지끄 공산당 대표단, 중국 방문 ▶이딸리아에서 18만 방직공 및 제화공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총 파업

21일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8 차 전원 회의 진행. 회의는 시가 요시오와 스즈끼 이찌로의 반당 행위를 취급하고 그들을 출당시키기로 결정

22일 영령 기아나 총독,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지 하에 반동들이 조작한 종족 충돌을 구실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영국 정부에 군대 파견을 요청 ▶우루과이 근로자들, 꾸바 인민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며 토지 개혁을 요구하여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 야금, 방직 및 운수 부문의 로동자들과 국가 기관 사무원, 학생들이 이에 합류

23일 뻬루 야금 로동자 1만 5 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고 40 개의 공장을 점거

24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이 민족 통일 정부를 훼손한 수반나 푸마를 더는 수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

26일 끼부 쓰또이까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 6월 9일까지 쏘련 방문 ▶까히라에서 아련 대통령 나쎄르와 이라크 대통령 아레프, 두 나라의 대통령 공동 리사회를 창설할 데 대한 협정 조인

27일 인도 수상 쟈와하를랄 네루 사망, 후임으로 내상 굴자릴랄 난다가 인도 수상으로 임명 ▶아르헨띠나에서 20 여만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 대사 실시, 탄압법 폐지, 실업 청산 등을 요구하여 1,200 개의 공장과 작업 현장을 점거

29일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이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쏘베트 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 6월 13일까지 쏘련 방문

6 월

1일 꾸바 공화국 수상 피델 카스트로, 미제가 꾸바 령토에 기구들을 투하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예멘 대통령 살랄 중국 방문 (11일까지), 중국—예멘 간의 친선 조약과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가 알제리에서 아랍어를 국어로 선포 ▶알제리 민족 회의, 뽀르뚜갈 및 남아프리카와의 통상을 보이꼬트하는 법령 채택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7월 20일까지 프랑스 방문, 7월 4일 프랑스가 경제, 군사 원조를 캄보쟈에 제공할 데 대한 협정 조인 ▶호노룰루에서 미 국무장관 러스크, 국방 장관 맥나마라 등 미제 호전광들의 참가 하에 동남 아세아 《전략 회의》 진행 ▶나이제리아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2일까지 파업 로동자들 14만 명으로 증가

2일 뉴질랜드 공산당 전국 위원회 총비서 윌콕스 인도네시아 방문 (7일까지) ▶아르헨띠나의 1만 2천 명의 로동자들이 제 4 차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로동 총련맹의 호소에 따라 6 시간 파업을 단행하고 공장들을 점거

3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남부 웰남—캄보쟈 국경에 《유엔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45만 명의 이딸리아 방직공들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 단행 ▶미국 대통령 죤슨, 백악관에서 국무장관 러스크 및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참가 하에 동남 아세아 정세에 관한 전략 회의 진행

6일 세계 민주 청년 동맹 뷰로,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을 반

대하여 싸우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7일 뉴욕에 있는 조선인들이 박 정희 괴뢰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판을 들고 《유엔 한국 대표부》 앞에서 시위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인도지나 문제에 유엔을 끌어 들이려는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 성명 ▶소말리아에서 총선거 진행

8일 메히꼬 4 개 도시의 6만 명의 군중들이 미국에서 흘러 내리는 콜로라도 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농경지를 못 쓰게 만드는 미제를 규탄하여 시위와 집회 진행

9일 이딸리아에서 200만 고용 농민들과 소작농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파업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제네바 회의 일부 참가국 대표들만 참가한 《비엔티안 협상》은 비법적이라고 규탄하고 제네바 회의 참가 14 개국 회의 소집을 제기 ▶프랑스 정부, 뛰니지가 프랑스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프랑스—뛰니지 통상 협정을 폐기

10일 꾸바 종합 대학 학생 련맹,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전 아프리카 로조 련맹 제 2 차 대회 진행 (14일까지) ▶25만 명의 아르헨띠나 철도 일'군들이 임금 인상, 정치범 석방, 탄압법 폐지 등을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파업 단행

11일 미 제트 폭격기, 라오스 캉카이의 중국 경제 문화 대표단의 건물과 공무원 주택을 폭격 ▶쎄일론에서 자유당과 평등 사회당이 새 련립 정부를 구성 ▶이딸리아에서 20만 6천 명의 철도 로동자들이 국내에서의 생계비의 급격한 등귀를 반대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단마르크 수상 크라그, 나토의 《다각적 핵무력》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

12일 세계 민주 청년 동맹 뷰로,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6.25 14 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할 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 ▶모스크바에서 쏘련과 민주 독일간에 호상 원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프랑스 북부의 왈랑시엔에서 4만여 명의 야금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시위

1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꾸바 기자 동맹이 남조선 기자들에 대한 박 정희 도당의 박해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15일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뷰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뽈스까 통일 로동당 제 4 차 대회 진행 (20일까지) ▶알제리에서 마지막 프랑스 군대 철거

16일 제네바에서 41 개국의 참가 하에 무역 및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 아.아 회의 17일까지 진행 ▶이딸리아에서 7만 명의 식료 공업 부문 로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17일 라오스의 퐁 살리에서 약 1천 명이 군중 집회를 열고 해방 지역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 미제를 규탄

18일 세계 민청이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6.25 14 주년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가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을 고수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 ▶아르헨띠나의 17 개 도시에서 30여만 명의 로동자들, 로동 총련맹의 계획에 따라 24시간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다섯번째 투쟁을 전개

20일 일본 공산당 간부회, 각국 공산당들의 국제 회의가 분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단결을 위하여 소집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유엔 안보 리사회가 《유엔 평화 유지군》의 끼쁘로스 주둔 기간을 9월 26일까지 3 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

21일 콩고의 애국자들, 스탠리빌에서 아둘라 도당 군대의 두 개 병영을 습격 ▶미국 시카고에서 7만 명의 흑인들이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투쟁할 데 대한 결의 채택

22일 모스크바에서 철도 협조 기구 제 9 차 상 회의 진행 (27일 폐막) ▶미꼬얀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7월 2일까지), 7월 1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23일 죤슨이 동남 아세아에서 침략 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테일러를 남부 윁남 주재 대사로 임명 ▶이딸리아에서 135만 건설 로동자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 체결과 근로자들의 완전 취업을 요구하여 파업

24일 아르헨띠나의 115만 로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24 시간 파업을 선포

25일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서기국,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하여 조선 인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 발표

27일 윁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 7월 3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호 지명 동지를 윁남 민주 공화국 주석으로 재선하고 새 정부를 승인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오만에서 1만여 동의 가옥을 소각하는 만행을 감행

29일 아바나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꾸바 병사를 사격하여 부상을 입힌 관따나모 주둔 미군의 도발 행동을 반대 항의하여 시위 ▶일본 사회당 대표단이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중국 등을 방문 ▶예멘 정부, 남부 예멘을 해방하기 위한 전국

지도부를 조직 ▶꽁고 (브) 민족 혁명 운동당 창립 대회 7월 2일까지 진행

30일 일본의 30 개 사회 단체들이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꽁고(레) 주둔 《유엔군》 마지막 부대 철수

7 월

1일 아프가니스탄 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와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한의 공동 콤뮤니케 발표

2일 미꼬얀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대표단 버마 방문 (4일까지) ▶미 하원에서 기만적인 《민권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

3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 1 차 전국 대표자 회의 5일까지 진행

4일 카슈미르 일대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 간의 충돌 발생

5일 이전 영국 식민지였던 니아살랜드, 말라위라는 이름으로 독립

6일 쟈까르따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 2,500여 명의 각 계층 인사들의 참가 하에 진행 ▶마우레르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로동당 대표단 쏘련 방문 (1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 7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제 1 차 전국 대표자 회의 결의들을 승인 ▶지중해 지역을 핵 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중해 연안 17 개국 회의 알제에서 진행 ▶이스라엘군이 수리아 국경 초소를 공격

7일 알바니아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9일까지 진행 ▶아르헨띠나에서 10만 명의 사탕 공장 로동자들과 2만 명의 사탕수수 농장 일'군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8일 영 련방 수상 회의 진행 (15일 폐막). 남로데시아 문제, 카슈미르 분쟁 문제, 인도—파키스탄 문제 등 토의

9일 우루과이 수도 몬떼비데오에서 라틴 아메리카 근로자 통일 로조 대회 상설 리사회 회의 12일까지 진행

10일 부다뻬슈뜨에서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집행 위원회 회의 14일까지 진행 ▶주 은래 총리와 진 의 외교 부장, 버마 방문, 12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인도네시아 제 1 부수상 겸 외상 수반드리오, 21일까지 쏘련 방문 ▶웽그리아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진행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 웰남에 관한 제네바 협정 조인 10 주년에 제하여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1만여 명이 《말레이시아》를 지지하는 미, 영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국 령사관 앞에서 시위

11일 쏘련에서 두 개의 우주 정류소 《엘렉뜨론—3》호와 《엘렉뜨론—4》호를 발사 ▶민주 웰남 외교부, 제네바 협정 조인 10 주년과 관련하여 《남부 웰남에서의 미국의 특수 전쟁》에 관한 백서 발표 ▶프랑스 공산당 총비서 모리스 토레즈 (64세), 쏘련으로 가던 도중 사망

12일 쌘프랜씨스코에서 약 5만 명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미국에서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시위 ▶남 아라비아의 모든 종족들이 해방 투쟁에 참가할 것을 결의

13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 기 제 4 차 회의 진행 (15일까지),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꼬얀을 선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의 호소로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의 재통일을 요구하는 공동 투쟁 주간》 21일까지 진행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9 차 전원 회의 15일까지 진행, 전원 회의에서 《4.17 파업》을 포함하여 춘기 투쟁을 중심으로 한 당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 토의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인 8월 17일부터 모든 식량 수입을 중지하고 자급자족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 ▶아프리카 통일 기구 각료 리사회 회의 까히라에서 진행 (17일까지) ▶아련과 예멘이 합동 조절 리사회 (군사, 정치, 문화 등에 관한 합동 위원회 설치를 예견) 창설에 관한 협정에 조인 ▶미국 공화당 제 28 차 전당 대회 진행 (16일까지)

14일 모스크바에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집행 위원회 제 13 차 회의 진행 (16일 폐막) ▶이라크 정부, 모든 개인 및 외국인 은행들과 32 개의 상공업 회사와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

15일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 제네바 협정 10 주년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은 지난 10년 간에 감행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폭로 규탄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제 1 계단 로케트를 발사 ▶싱가포르 30 개 로조 단체들, 반인민적 악법인 《국가 안전 규정》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 발표

17일 제 2 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 까히라에서 21일까지 진행 ▶이께다 하야또를 수상으로 하는 일본 내각 구성 ▶미국 경관의 흑인 소년 사살 사건에 격분한 뉴욕의 흑인들,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시위 ▶이딸리아에서 20만 명의 목재 가공 공업 로동자들이 파업 ▶희랍계 및 토이기계 끼쁘로스인 부대를 현 계선으로부터 철수하는 데 합의 ▶워싱톤에서 침략적 안쥬스 동맹 각료 리사회 회의 18일까지 진행

18일 희랍의 30 개 도시들에서 10만 명의 건설 로동자들이 전국적인 48 시간 파업

19일 남부 웰남 벤 트레주 여러 지방에서 30여만 명의 주민들이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 진행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하노이에서 제네바 협정 조인 10 주년과 관련하여 40만 명이 참가한 군중 대회 진행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쏘련 공산당이 보낸 4월 8일과 7월 11일 부 서한을 반박하는 성명 발표

23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이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 조인 2주년에 제하여 성명 발표, 성명은 14개국 회의 소집과 미제 침략군의 라오스로부터의 철거를 요구 ▶프랑스 대통령 드 골, 기자 회견에서 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배척하는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을 재천명 ▶워싱톤에서 미국 대통령 존슨과 《말레이시아》 수상 라흐만 공동 콤뮤니케 발표,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지적 ▶이딸리아에서 26일간 계속된 정부 위기 끝에 알도 모로 정부 조직

24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은 라오스에서 미제는 침략 책동을 중지하고 제네바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 ▶콩고의 애국 무장 력량이 킨두를 점령 ▶메히꼬 국회, 메히꼬에 대한 《미주 국가 기구》의 내정 간섭과 꾸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배격하는 특별 선언 채택

26일 꾸바의 산챠고에서 꾸바 인민 무장 봉기 11주년 기념 집회 성대히 진행. 집회에서 《산챠고 선언》을 채택 ▶쏘련 정부, 라오스에 관한 새로운 제네바 회의를 8월에 소집할 것을 제기하는 서한 발표

27일 일본 적십자사가 1964년 11월 12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재일 조선인들의 송환에 관한 협정을 1년간 연장하자는 조선 적십자회의 제의에 동의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정부 대표단 프랑스 방문 (31일까지)

28일 캄보쟈 정부,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공군이 캄보쟈 령토에 독약을 살포하여 주민 76명을 죽인 만행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30일 미 군함 통킹만에 침입하여 웰남 민주 공화국의 2개 섬을 포격 ▶도꾜에서 제 10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 국제 회의 8월 2일까지 진행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6월 15일부 서한에 대하여 회답

8 월

1일 미국 비행기, 민주 웰남 령토를 폭격 ▶수카르노 대통령이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

2일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민주 웰남 령해를 침범 (《통킹만 사건》)

3일 교도에서 제 10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 5일까지 진행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30여 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 하에 전 아프리카 학생 대회 8일까지 진행, 《전 아프리카 학생 운동》 단체를 창설하기로 결정

4일 미 제트 비행기 수십대, 웰남 민주 공화국을 폭격 ▶웰남 인민군 총사령부 대변인, 미군 함선들의 도발 행동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세일론이 《말레이시아》로 가는 미, 영의 비행기와 선박들에 편의를 주지 않기로 결정

5일 미국 비행기들이 민주 웰남을 폭격 ▶민주 웰남에서 3만여 명의 각계 인민들이 미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여 집회를 진행 ▶떠쓰 통신과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민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 발표 ▶콩고의 애국적 인민 무장 부대들이 동부주의 스탠리빌과 그곳 비행장을 장악 ▶로마에서 7만 명 건설 로동자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단행

6일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평화 애호 나라들과 진보적 단체들이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에서 지상대 공중 미싸일 시험 발사 진행

7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탄 피해자 구제 대회 진행 ▶뿔스까 인민 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서거

9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유엔 안보 리사회는 웰남 사태를 심의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성명

10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남부 웰남—캄보쟈 국경에 《유엔 조사단》을 파견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1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미제의 지지 밑에 박 정희 도당이 악법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항의문을 채택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콩고의 애국적 무장 부대들이 북부 카탕가의 마노노를 점령 ▶미국과 벨지끄, 쫌베 괴뢰 도당에 대한 경제,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

12일 인도에서 300만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물가 등귀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 진행

13일 미국 락하산 부대, 콩고(레)에 대한 무장 간섭을 위하여 레오폴드빌에 도착 ▶케니아에서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농장들을 국유화

14일 전 아프리카 로조 련맹,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인도네시아 방문 (21일까지), 수카르노 대통령은 캄보쟈가 침략 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하겠다고 확언 ▶콩고 인민 무장대가 스탠리빌시 주재 미국 령사관을 페쇄하기로 결정

15일 쏘련 정부, 끼쁘로스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17일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공식 방문차 알제에 도착

19일 남부 웰남의 사이공과 유에에서 칸의 대통령 취임과 미제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학생들이 시위 ▶쟈까르따에서 가네포

집행 위원회 회의, 20 개 국의 참가 하에 진행 (21일까지) ▶아랍 경제 리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경제 봉쇄를 강화키로 결정 ▶알제리에서 380개의 영화관을 국유화

21일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베이징 과학 토론회 31일까지 진행 ▶이딸리아 공산당 총비서 팔미로 똘리아티, 쏘련 크림에서 서거

22일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가 꽁고 인민을 지지할 것을 전 세계 기자들에게 호소 ▶남부 웰남의 사이공에서 5천 명의 학생들이 반미 반정부 시위 단행

23일 잔지바르 시민 2만 5천여 명이 꽁고(레)에 대한 미제의 간섭에 항의하여 시위

24일 남부 웰남의 사이공, 다낭 및 기타 도시들에서 반미, 반정부 시위 ▶자까르따에서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 진행

25일 남부 웰남에서 2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반정부 집회 진행 ▶인민들의 투쟁으로 남부 웰남의 괴뢰 느구엔 칸, 대통령직을 사임,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티나 해방 동맹 집행 위원회 제 10 차 회의 진행 (27일까지), 회의에서 무장력 창설 등을 예견하는 행동 계획을 작성

26일 꽁고 인민 무장대, 꽁고강 류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 붐바시를 해방 ▶이딸리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및 중앙 검열 위원회 합동 전원 회의 진행. 루이지 롱고를 총비서로 선거 ▶남부 웰남 괴뢰군 100 명이 캄보쟈 령토를 침범

27일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일본 인민에게 호소하는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에서 내각 개조 ▶알제리 정부가 반혁명 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 ▶우루과이에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의 반꾸바 결의를 배격하여 시위

28일 자까르따에서 가네포 수영 경기 대회 진행 ▶남아라비아 인민 무장대가 영국 침략군 30 명을 살상 ▶일본 정부,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정식 승인, 이를 반대하여 일본 각지에서 군중 집회와 시위 전개

29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와 캄보쟈 정부, 국민 의회 및 왕국 의회, 유엔 《조사단》의 허위 《보고》에 항의하여 공동 성명 발표

31일 알제리에서 5 개국의 개인 운수 회사를 국유화 ▶도꾜에서 일미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회의 진행, 회의에서 일본 측 미제의 남부 웰남 침략에 최대한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

9 월

1일 중국 외교부, 꽁고 (레)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성명 발표 ▶웰남 민주 공화국이 해안선 12마일까지를 자기 나라의 령해로 선포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인도네시아 방문 (7일까지), 7일 일본 공산당과 인도네시아 공산당 공동 성명 발표

2일 《아까하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1964년 4월 18일부 서한에 대한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8월 26일부 회답 서한 게재

3일 까히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보험 회의 5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아.아 보험 및 재보험 련맹 창설, 우리 나라가 련맹 집행 위원회 성원으로 피선 ▶미국 하원이 침략적인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을 3 년간 더 연장할 데 대한 법안을 승인

4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꽁고 (레)에 대한 미제의 무장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레바논에서 새로운 공산당—사회주의 혁명당을 창건 (중앙 위원회 위원장 유수뚜 무바라크, 총비서 무스타파 샤클) ▶칠레 국회 선거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가 대통령으로 피선

5일 꾸바 정부에서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 ▶아련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제 2 차 아랍 국가 수뇌자 회의 5일간 진행 ▶캄보쟈 정부, 공보를 발표하여 《자유 크메르》 반역 도당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

6일 남부 웰남 사이공시에서 15만 명의 주민들이 미제와 느구엔 칸 도당의 테로 통치에 항의하여 시위 ▶가스톤 수미알로가 지도하는 애국적 꽁고 인민 무장대가 보엔데를 장악

8일 도꾜에서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1만 7천 명 군중들의 집회 진행

9일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중국 방문 (14일까지) ▶캄보쟈 정부, 캄보쟈 령토에 대한 남부 웰남 괴뢰군의 빈번한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캄보쟈 통신) ▶우루과이 수도 시민들,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 (9월 8일) 한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며 미국의 외교, 무역 및 문화 대표부들을 습격하고 파괴 ▶인도네시아의 동부 쟈바 술라웨시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여 청년 시위자들이 미국 령사관을 습격하여 미국 국기를 찢어 버리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게양

11일 꼴롬비아 유격대 본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친미 반동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에 가담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회 안전법》이라는 악법을 내걸고 싱가포르의 좌익 정당 및 로조 단체 지도자 40 명을 체포

12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아이디트, 인도네시아 농민 전선 전국 회의에서 농촌을 미, 영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강조 ▶아르헨띠나 하원이 이전 대통령 페론파 및 공산당 활동 금지법을 철회하는 조치를 승인

13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미국 해적선들, 꾸바로 가는 에스빠냐 화물선을 무장 공격하는 만행을 감행 ▶남부 웰남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14일에 실패함

14일 남부 예멘 민족 해방 전선이 애국자들에 대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폭행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꼬나크리에서 기네 민주당 전국 혁명 리사회 제2차 회의 진행 (17일까지) ▶아랍 련합 공화국 나쎄르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 수상 파이살 간의 회담 끝에 공동 콤뮤니케 발표, 예멘의 국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쌍방이 협조할 것에 합의

15일 꾸바 혁명 무력성, 공보를 발표하고 미국이 에스빠냐 선박 공격 사건을 규탄 ▶경제적 처지 개선과 새로운 단체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8만 명의 이딸리아 광부들이 4일간 파업 단행 ▶아랍 련합 공화국과 이라크가 량국의 모든 정치 기구를 통합하는데 합의

16일 모스크바에서 세계 청년 학생 토론회 진행 (24일까지) ▶에스빠냐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꾸바 근해에서 에스빠냐 화물선《시에라 아란사스》호에 가해진 해적적인 공격과 관련하여 미국을 규탄 ▶이딸리아에서 30만명의 목재 가공 로동자들이 30일까지 파업 단행

17일 꾸바 카스트로 수상, 미제가 꾸바로 항해 중이던 에스빠냐 기선《시에라 아란사스》호를 폭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제를 규탄 ▶30만 명의 이딸리아의 모방직 공장 로동자들이 파업 단행

18일 18일 22시와 19일 새벽에 2척의 미국 군함들이 느게 안 해안 부근 수역을 침범 (제2 통킹만 사건)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 9개국 조정 위원회 회의 진행 (23일까지)

19일 꾸바 체육 협회 국가 육상 위원회, 신 금단 선수를 비롯한 가네포 참가 선수들을 제18차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 아마츄어 륙상 경기 련맹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장, 미제가 도발한 새로운《통킹만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아프가니스탄 대민족 회의가 새로운 헌법을 정식으로 채택

20일 알제리에서 새 국회 선거 진행, 유권자의 90%가 립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 ▶프랑스 대통령 드 골, 라틴 아메리카의 10개국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에꽈도르, 뻬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띠나, 빠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을 10월 16일까지 방문

21일 로므니아 내각 수상 마우레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중국을 비롯하여 버마, 파키스탄, 아련 등 방문 (10월 18일까지) ▶독일 사회 통일당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 수상인 오토 그로테볼 사망, 9월 23일 장례식 거행. 9월 24일 윌리 슈토프가 수상으로 피선 ▶사이공에서 6만 명의 로동자들이 남부 웰남 괴뢰 당국이 발표한《파업 및 시위 금지법》을 반대하여 48 시간 총파업 단행 ▶빠리에서 라오스 3파 지도자 회담 진행 ▶말타가 독립을 선포

22일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대변인, 민주 웰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도발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필리핀에서 6천여 명의 로동자들이 파업 단행 ▶단마르크에서 국회 선거 진행

23일 마카리오스 대통령이 자결권을 가지며 그 어떤 보상과 기지도 없는, 끼쁘로스의 무조건적인 독립을 주장 ▶챨스 헬루가 레바논 대통령으로 취임

25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가 미제의 전쟁 행동에 관한 비망록 발표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 채택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30일까지 진행 ▶유엔 안보리사회, 끼쁘로스 파견《유엔 평화 유지군》의 주둔 기한을 12월 26일까지 연장하는 결의 채택 ▶오스트랄리아의 2만 명 철도일'군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24 시간 파업

26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 중국 방문 (10월 5일까지), 5일 공동 공보 발표 ▶볼리비아 전국 기자 동맹이 정부의 부당한 출판물 검열제를 반대하여 무기한 파업 선포 ▶다오메에서 프랑스 군대 마지막 부대 철수

27일 일본의 요꼬스까와 사세보에서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8만 명이 군중 집회와 시위 단행

28일 콩고 (브) 공화국 대통령 마쌈바 데바가 중국을 방문 (10월 3일까지), 10월 2일 콩고와 중국 간에 우호 조약 체결, 10월 3일에는 량국 정부 공동 공보 발표

29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쏘련 방문 (10월 1일까지), 10월 1일 쏘련—인도네시아 공동 콤뮤니케 발표 ▶말리 정부 대표단 10월 4일까지 중국 방문, 10월 4일 중국—말리 공동 공보 발표 ▶쟈까르따에서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쎄일론 공산당 간의 콤뮤니케 발표

30일 중국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간에 외교 관계 수립 ▶남부 웰남 밀토주에서 1만 7천 명의 인민들이 미제와 느구엔 칸 도당을 반대하여 시위 ▶미국의 부두 로동자 6만 명이 단체 계약 갱신을 위한 로조측 요구를 거부한 당국에 항의하여 파업 단행

10 월

1일 오끼나와의 나하시에서 2만 명의 군중들이 미제의 오끼나와 강점을 규탄하여 집회 진행 ▶우루과이 정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부들의 설치를 허가하기로 결정 ▶미국의 대서양 연안과 메히꼬 만의 6만 명 부두 로동자들, 새 단체 계약 신의를 요구하여 파업, 10일 미국 당국 반동적인 《타프트 하틀리법》을 발동하여 파업을 금지

2일 아르헨띠나 종합 대학 학생 1만여 명이 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 학생들이 대통령을 방문하고 물가의 부단한 등귀와 관련하여 항의 제기

5일 제 2 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아렵 수도 까히라에서 46 개 국가 수반들과 11 개국 옵써버들의 참가 하에 진행 (10일까지) ▶파키스탄 무역상 와히두 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언명

6일 6만여 명의 우루과이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48 시간 파업 ▶니까라과 국회가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기로 결정 ▶24만 명의 성원을 망라하고 있는 아르헨띠나 교원 로조, 교육비 지출의 증가, 임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을 반대하여 48 시간 총파업을 선포 ▶뻬루의 리마, 칼랴 오시의 의료 일'군 1만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12 시간 파업을 진행

8일 꾸바에서 우리 나라 교육 사진 전람회 개막

9일 중국 정부, 중인 국경 문제에 관한 성명 발표 ▶베네수엘라의 애국적 무장 대원들이 수도 까라까스에서 미 공군 《사절단》 부단장 스몰렌 중좌를 생포 ▶이딸리아 지방 행정 기관 및 로동자들 50만 명 파업

10일 중국 체육 단체들이 도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조선과 인도네시아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여 공동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올림픽 선수단에 철수를 명령 ▶도꾜에서 94 개국의 5,550 명의 선수 참가 하에 제 18 차 올림픽 대회 개막 ▶노르웨이 수상 에이나르 게르하르드센, 기자 회견에서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반대한다고 언명

11일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체 로케트 3 개를 성과적으로 발사

12일 웽그리아 사회 로동당 제 1 비서 야노쉬 까다르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 당 및 정부 대표단, 쁠스까 방문 (18일까지) ▶쏘련에서 세 사람이 탄 우주 비행선 《워쓰호드》를 발사 ▶캄보쟈가 남아프리카 및 뽀르뚜갈과 외교 관계 단절 ▶미 국방성이 1963년에 미국에서 35 회의 지하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고 발표

13일 의견 상이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료 전원이 사직

14일 앙골라 인민 유격대, 부쿠자우로부터 수키로 메터 떨어진 지점에서 뽀르뚜갈 식민주의 군대 100 여 명을 살상

15일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진행, 흐루쑈브를 내각 수상직에서 해임하고 꼬씌긴을 수상으로 임명 ▶베이징에서 사회주의 국가 체신 협조 기구 회의 27일까지 진행 ▶로므니아와 파키스탄이 외교 관계를 설정 ▶일본에서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10 일 간의 전국 공동 투쟁 전개 ▶영국에서 국회 총선거 진행, 선거 결과 레이버당이 승리

16일 중국 정부, 첫 핵 시험을 진행한 데 대한 성명 발표 ▶나토 성원국 국회 의원 회의에서 프랑스 외상 뮤르빌,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반대

17일 주 은래 총리,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핵 폭발 리유를 설명하며 핵 무기 금지를 위한 수뇌자 회의 소집을 제의하는 성명을 각국에 발송 ▶일본 공산당, 중국의 핵시험을 찬양하여 성명 발표 ▶다르 에스 살람에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 원조 조정 위원회 (9 개국) 회의 진행

18일 말리 공화국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웰남 민주 공화국 방문 (22일까지), 방문 끝에 공동 성명 발표

19일 부다뻬슈뜨에서 세계 직련 총리사회 제 13 차 회의 24일까지 진행

20일 알제에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준비 상설 위원회 제 1 차 회의 진행 (21일까지) ▶쏘피아에서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리사회 회의 진행 (25일까지)

22일 브라자빌에서 꽁고 (레) 민족 해방 리사회가 쏨베 도당의 새로운 만행을 폭로하는 공보서 발표 ▶수단에서 학생들의 반미 반정부 시위 폭발, 학생들과 경찰 간에 충돌 발생 ▶이딸리아에서 48만 명의 재봉공들이 파업 ▶일본 정부, 미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받아 들이겠다고 미국에 통고하기로 결정

24일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 대표 참가 하에 제 1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의학자 대회 진행 (28일까지) ▶잠비아가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

25일 백로씨야와 뽈스까의 국경 지역에서 쏘련 공산당과 뽈스까의 통일 로동당 대표들의 회담 진행 ▶일본 수상 이께다 사직 ▶잠비아 공화국 정부가 영국의 《남아프리카 회사》의 광산권을 인수

26일 캄보쟈 정부, 캄보쟈의 안롱 크레스 부락에 대한 미 공군의 공습과 관련하여 공보 발표,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의 사회 하에 왕국군, 경비대 및 외무성 대표들의 긴급 회의 진행

27일 오끼나와에서 1만 5천 명의 주민들, 미군 당국이 친미 분자를 류큐 정부의 주석으로 내세운 데 항의하여 시위 단행 ▶일본 정부, 긴급 《원조》로서 100만 딸라를 남부 웰남 괴뢰들에게 제공키로 정식 결정

28일 웰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 미제와 그 주구 느구옌 칸 도당이 캄보쟈 왕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전쟁 소동을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베네수엘라 공산당 정치국과 베네수엘라 좌익 혁명

운동당 전국 위원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는 대'가로 자기의 혁명적 목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 ▶볼리비아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대중 시위 발생

29일 잠비아와 중국 간에 외교 관계 설정 ▶중국 인민 외교 학회 대표단과 일본 사회당 제 4 차 중국 방문 대표단이 공동 성명을 발표 ▶탄가니카—잔지바르 련합 공화국의 명칭을 탄자니아 련합 공화국으로 개칭 ▶볼리비아의 오루로에서 광부들, 반정부 시위 단행, 정부군이 시위 군중을 류혈적으로 탄압

30일 라오스 3파 대표단 수석 대표들 빠리에서 정전에 관한 비공개 회담 진행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대변인, 캄보쟈와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아프가니스탄 국왕,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고 공동 콤뮤니케 발표 (11월 4일까지) ▶수단에서 군부 대표들과 민족 통일 전선 대표들 간의 회담 결과 세레 엘하템 할리파를 수상으로 하는 림시 정부 구성

11 월

1일 알제리 민주 인민 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벤 벨라, 무장 봉기 10 주년 기념 식에서 1965년에 알제리에서 전반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명 ▶남부 웰남 인민 해방군, 사이공 북방 12 마일 지점의 비엔 호아 미군 비행장을 습격하고 비행기 36 대 파괴, 미군 239 명을 살상 ▶일본 도꾜 히비야 공원에서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3만명 군중의 집회 진행 ▶미국 대통령 존슨, 《비—57》 전략 폭격기를 남부 웰남에 더 많이 보낼 것을 명령

3일 페루에서 3만 명의 건설 로동자들이 100 명의 자기 동료들을 비법적으로 해고한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 ▶미국에서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 진행, 린든 존슨이 37 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볼리비아에서 군부 반란으로 에스텐소로 정부 전복, 부대통령 바리엔토스를 의장으로 하는 군사 혁명 위원회가 정권을 장악

4일 우루과이에서 공무원 5만 명이 국회가 임금 인상, 사회 보험 개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법안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여 48 시간 파업에 돌입 ▶이딸리아에서 30만의 목재 가공 로동자들이 또다시 파업 단행 ▶잠비아 정부, 체육에서 인종 차별을 실시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와의 체육 관계를 완전히 단절

5일 라오스에서 196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연 24만여 명의 인민들이 100여 차례의 집회를 갖고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간섭과 침략에 항의 ▶예멘에서 휴전 협정 조인, 11 월 8일부터 정화 실현 ▶프랑스 수상 조르쥬 퐁피듀,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반대

6일 일본에서 250만 명의 근로자들이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 항의하여 시위와 집회 진행 ▶미국의 데트로이트, 센트 루이스, 텍사스 및 기타 도시들의 자동차 및 비행기 공장 로동자 2만 6천 명이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7일 캘커타에서 인도 공산당(좌파) 7 차 대회 일주일 간 진행, 순다라야를 총비서로 선출, 9 명의 정치국을 구성 ▶희랍에서 3만 명의 로동자, 공무원들이 생활상 권리를 위하여 파업 ▶수단에서 1958년 11월에 선포된 비상 사태를 해제 ▶부르기바가 뛰니지 대통령으로 재선

8일 말리 공화국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인도네시아 방문, 10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일본 사회당 제 24 차 정기 대회 11일까지 진행

9일 사또 에이사꾸를 수상으로 하는 일본 신 내각 성립

10일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원자력 잠수함 기항 저지 제 4 차 통일 행동 중앙 집회》 도꾜에서 개최

11일 하노이에서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 9 차 전원 회의 19일까지 진행 ▶도꾜에서 1만 2천 명이 미국 원자 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여 비상 집회 진행 ▶탄자니아 신문,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미제의 반정부 음모 비밀 편지 3 통을 게재 ▶탄자니아 정부, 2만 2천 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한 35 개 외국인 소유 농장을 몰수 ▶인도의 케랄라주에서 식량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과 경찰 간에 충돌 발생 ▶미 군사 사절단이 《말레이시아》를 23일까지 방문. 11월 23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12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족 회의에서 안또닌 노보뜨느이, 대통령으로 재선 ▶미 제 7 함대 소속 원자 잠수함 《씨 드래곤》 호 일본의 사세보항에 기항 ▶일본 공산당이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성명 ▶본에서 《시효 만료》라는 구실 밑에 나치스 전범자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 추궁을 1965년 5월부터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성명

13일 쏘련 공산당 대표단과 사회주의 10월 혁명 47 주년 기념 경축 행사에 참가했던 중화 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간에 회담 진행 ▶쏘련 최고 쏘베트에서 개인 소유 가축의 사양 규범에 관한 정령을 채택 ▶꾸바 수상 카스트로, 대학 및 기술 학교 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 ▶수리아 이스라엘 국경 충돌 사건 발생, 11월 16일에도 발생 ▶남부 웰남에서 이 나라 력사상 최대의 홍수, 사망자 수 13일 현재 5,000 명

14일 쁘라하에서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 17일까지 진행 ▶캄보쟈 정부, 자기 나라에 대한 간섭에 유엔을 리용하려는 미제와 남부 웰남 괴뢰 도당의 시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따

쓰 통신이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꾸바에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베네수엘라와의 련대성 주간》으로 설정 ▶이딸리아 포쟈주의 고용농 4만 명이 24 시간 파업 단행 ▶워싱톤에서 미 국방장관과 서독 국방상 간에 4 개의 군사 협정에 조인하고 공동 콤뮤니케 발표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제국주의 군사 기지들의 철페와 《말레이시아》 분쇄를 위한 전국 위원회 창설 ▶도꾜에서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일본 협의회의 주최 하에 미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2만 5천 명 군중이 집회와 시위 단행

16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진행, 전원 회의는 주, 변강 공업 및 농업 당 단체들을 통합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

18일 베네수엘라 유격대, 안조아떼귀시를 점령하고 시장 펠리뻬 라몬 로드리궤스를 처단 ▶서부 파키스탄 주 정부, 학교들에서 영어 대신 민족어를 사용하기로 결정

19일 웽그리아 국가 회의 20일까지 진행 ▶빠나마에서 500 명의 빠나마 학생들이 반미 시위를 단행하고 굴욕적인 《빠나마—미국 조약》의 폐기를 요구 ▶파키스탄에서 약 30만 명의 로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단행

20일 알바니아 인민 회의 제 5 기 제 5 차 회의 21일까지 진행, 인민 회의 의장으로 레프 뻬르 꼬가를 선거 ▶뽀르뚜갈 맑스-레닌주의 위원회, 《당과 반파쑈 투쟁의 리익은 수정주의를 격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 ▶카슈미르 휴전선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군대 간에 충돌, 약 100 명이 사망하고 65 명이 부상

21일 일본 공산당이 당 대회에 참가할 조선, 중국, 웰남 등 형제당 대표단의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한 정부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알제에서 제 9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준비 위원회 창설 ▶미국 데트로이트시 인쇄 로동자들이 단체 계약 체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단행한 130여 일 간의 파업 투쟁에서 승리

22일 프랑스 대통령,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령도권에 대항하려는 프랑스의 립장을 재천명

23일 빠나마 대학생 5천여 명, 빠나마 운하에 관한 미국과의 회담에서 정부가 강경한 립장을 취하며 굴욕적인 《빠나마—미국 조약》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시위 ▶꼴롬비아의 14 개 주에서 초등 학교 교원 4만 8천 명, 임금 인상과 무료 의무 교육 실시를 요구하여 파업 ▶영국 수상 윌슨,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반대

24일 도꾜에서 일본 공산당 제 9 차 대회 30일까지 진행 ▶쏘련과 칠레가 외교 및 령사 관계 회복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조인 ▶쏘련과 챠드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 설정 ▶뻬루에서 4만 명의 어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48 시간 파업을 선포, 300여 개의 어류 가공 공장의 생산 마비 ▶끼쁘로스 대통령 마카리오스, 외국 군사 기지들이 끼쁘로스에 존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언명 ▶미제는 12 대의 미 군용 수송기로 벨지끄 락하산병 한 개 대대를 인민 무장대의 통제 하에 있는 스탠리빌에 투입하여 새로운 공개적 무력 간섭을 감행

25일 하노이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웰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 29일까지 진행 ▶쏘련 정부, 꽁고 (레)에 대한 미국과 벨지끄의 무력 간섭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사이공 학생들, 22일 이래 반정부 시위 계속. 괴뢰 당국, 사이공시에 계엄령 선포 ▶빠나마에서 3천 명의 학생들이 반미 시위 단행 ▶메히꼬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의 회의 28일까지 진행

26일 웰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미국 비행기들의 공격과 관련하여 따쓰 성명 발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꽁고에 대한 미제와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략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수카르노 대통령, 모든 영국인 재산을 10월 30일 이후 정부의 완전한 통제와 관리 하에 둘 데 대한 결정 발표

27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 부장 진 의, 인도네시아 방문 (12월 3일까지), 12월 3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28일 미국과 남부 웰남 괴뢰군 함선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을 포격 ▶쏘피아에서 국제 학생 동맹 제 8 차 대회, 12월 7일까지 진행 ▶포트 사이드에서 13 개의 아랍 국가 로조 대회 12월 1일까지 진행

30일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 대표단, 12월 4일까지 쏘련 방문, 12월 5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쏘련에서 화성 방향으로 자동 관측소 《존드—2》 호를 실은 다계단 로케트를 발사

12 월

1일 남부 웰남 해방군 사령부가 비엔 호아 전투와 관련한 상보 발표 ▶존슨과 테일러 간의 회담에 뒤'이어 백악관에서 남부 웰남에 관한 성명 발표 ▶12대의 미국 군용기들 민주 웰남 령토인 비무장 지대에 폭격과 기총 사격을 감행 ▶뉴욕에서 유엔 총회 제 19 차 회의 개막

2일 중국과 이딸리아가 외교관 신분을 가진 항구적 통상 대표 교환 협정에 조인 ▶알제리에서 신 정부 구성에 관한 법령 발표 ▶브라자빌에서 중앙 아프리카, 꽁고(브), 챠드 및 가봉 수뇌자들의 참가하에 적도 아프리카 국가 수뇌자 회의 개막

3일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한일 회담 본회의》를 재개한 사또 내각을 규탄하는 항의문 발표

4일 도꾜에서 1만 명의 로동자들이 미국 원자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 진행

5일 뉴욕에서 미국 청년들이 꽁고 (레)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여 시위

6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 리사회 집행 위원회 회의 9일까지 진행 ▶영국 수상 윌슨이 미국을 방문 (9일까지) ▶뻬루에서 미제와 남미주 5 개국이 반 유격전 군사 연습 감행

7일 영령 기아나 식민지 당국, 립법 회의 선거 강행

8일 카나다 공산당 전국 위원회가 남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을 규탄하여 성명 ▶도꾜에서 일본 사회당 제 24 차 정기 대회 11일까지 진행 ▶뉴델리에서 미국—캄보쟈 대사급 회담 17일까지 진행,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성과 없이 종료

9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 기 제 5 차 회의 11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1965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 ▶쎄일론 수도에서 신문 독점체인 《레이크 하우스》를 국유화할 것을 요구하여 8만여 명이 시위와 집회 진행 ▶아프리카 통신사 련맹 제 2 차 총회 까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12일까지 진행 ▶3 척의 미국 함선이 민주 웰남 빈타이 촌락을 포격

11일 꾸바 공업상 게바라, 유엔 총회에서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프랑스의 운수, 전기, 가스, 체신 부문 로동자 350만 명,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1947년 이래 가장 큰 전국적인 24 시간 파업을 단행

12일 《쁘라우다》지, 12월 15일에 열기로 했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 회의 준비를 위한 편집 위원회 제 1 차 회의를 1965년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보도 ▶케니아가 공화국을 선포, 죠모 케니아타의 대통령 취임식 거행

14일 최 용건 위원장 15일까지 버마 방문 (캄보쟈로 가는 도중에 방문)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 1 부위원장 루끄만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이 29일까지 일본 방문 ▶델리에서 국제 지질학 제 22 차 대회 22일까지 진행

15일 최 용건 위원장이 20일까지 캄보쟈를 방문, 12월 20일 공동 성명 발표 ▶빠리에서 침략적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 17일까지 진행

16일 인도 공산당 제 7 차 대회 봄베이에서 진행, 대회는 당의 강령 초안을 토의

17일 인도네시아 협조 국회가 꽁고 (레)에 대한 미제와 벨지끄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 항의하는 성명 채택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상설 위원회 제 3 차 회의 알제에서 진행

18일 제 9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위원회 회의에서 축전을 1965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에 알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19일 베이징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작가 토론회 20일까지 진행 ▶미국의 8 개 도시에서 남부 웰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시위 진행 ▶아련 공군이 아련의 상공을 침범 (알렉산드리아 부두 상공) 한 미국 석유 회사 비행기를 격추 ▶남부 웰남에서 《국민 리사회》를 해산하고 《군사 위원회》가 실권 장악

21일 국제 기자 동맹 서기국이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박 정희 도당의 탄압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중국 인민 대표 대회 제 3 기 제 1 차 회의 1월 4일까지 진행 ▶울란바따르에서 몽골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 진행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인민 회의 제 5 기 제 6 차 회의 진행 (22일까지) ▶카나다의 미국 자동차 회사 산하 공장 로동자 2만 3,500 명의 파업, 승리적으로 종료

22일 베네수엘라 민족 해방군이 동부 산악 지역에 새로운 유격 전선 《마누엘 폰레 로드리게스》를 창설 ▶영국의 체신 부문 일'군들 7만 7천 명이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 ▶브라질 제 1 군관구 제 2 군사 재판소, 브라질 당국이 비법적으로 체포한 9 명의 중국 공민들에게 각각 10 년의 금고형을 언도

23일 쏘련 정부, 서독 정부가 나치스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로므니아 인민 민주주의 전선 전국 리사회 결성 회의 진행 ▶몽골 대인민 후랄 정기 회의 24일까지 진행

24일 남부 웰남 유격대, 사이공 시내에 있는 미군 장교의 숙소이며 본부인 7 층 건물 《브링크》를 폭파하여 미 침략군을 근 300 명 살상

25일 캄보쟈에서 노로돔 깡똘 내각 구성

27일 빠리에서 라오스 애국 전선당 대표 푸미 봉비치트, 미제와 그 주구들이 빠리 3 파 회담을 파괴하였다고 성명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 미 공군 기지에 접한 안젤스에서 약 5천 명이 필리핀—미국 군사 기지 협정의 폐기 및 미국 대사의 소환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진행

28일 남부 웰남 해방군이 바티아주의 빈 기아를 포위 공격하여 적 2 개 대대를 완전히 소멸하고 22 대의 직승 비행기와 2 대의 전투 폭격기를 격추, 11 대의 비행기를 격상 ▶16만 명의 아르헨띠나 철도 로동자들이 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24 시간 파업을 단행

31일 수카르노 대통령,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보 리사회 비상임 리사국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유엔 탈퇴를 명령

각국 면적, 인구 및 수도

세계 면적 1억 4,847만 6,000 km²
세계 인구 33억명(1964년) (년 평균 증가 수 6,500만 명)

나라 이름	면적(km²)	인 구 (1,000명)	기준 년도	인구 밀도 (km²당)	수도 이름	수도 인구 (1,000명)	기준 년도
아세아주							
조 선	220 791				평 양		
중 국	9 597 000 (대만 포함)	656 630	1957	68	베 이 징	6 630	1958. 12
웰 남	328 000	17 000 (북부 웰남)	1963	52	하 노 이	643.6	1960. 3.1
몽 골	156 500	1 449	1963	1	울란 바따르	217.8	1963 1
라 오 스	236 800	3 000	1961	12	비엔티안	110	1954. 7.21
캄 보 쟈	181 035	6 000	1964. 11	36	프 놈 뻰	약 550	
일 본	369 661	97 200	1964. 10	263	도 꾜	10 667	1965. 2
인도네시아	1 904 345	103 000	1964. 8	54	쟈까르따	3 182.9	1965. 1
타 이	514 000	28 830	1963	56	방 콕 크	1 570	1962. 7
말라이 련방	131 794	7 232	1963	55	쿠알라 룸푸르	480	
싱가포르	585	1 700	1963	2 906	싱가포르	1 549	
버 마	677 950	23 664	1963	35	랑 군	1 200	
네 팔	140 700	9 407	1961	66	카트만두	약 200	
인 도	2 948 389	461 000	1963	156	델 리	2 644	1961
파키스탄	947 695	101 500	1964. 11	107	라왈핀디	340	1961
쎄 일 론	65 610	10 645	1963	161	콜 롬 보	510	1963
아프가니스탄	655 000	14 700	1963	22	카 불	310	
이 란	1 645 000	22 182	1963	13	테 헤 란	2 040	
이 라 크	444 442	6 732	1962	15	바그다드	1 086	
수 리 아	187 000	5 308	1963	24	다마스커스	600	
레 바 논	10 400	2 000	1963. 4	192	베이루트	약 600	
요 르 단	96 610	1 827	1963	19	암 만	250	
이스라엘	20 700	2 376	1963	119	예루살렘 텔 아비브	170 400	
쿠웨이트	15 500	330	1962	21	쿠웨이트	약 210	
사우디 아라비아	1 600 000	7 500	1962	4.7	리 야 드 메 카	350 250	
예 멘	195 000	5 000	1964	26	사 나	70	
토 이 기	776 980	30 256	1963	38	앙 카 라	664	1960
끼쁘로스	9 250	589	1963. 6	63	니코시아	86	
아프리카주							
아랍 련합 공화국	994 300	27 963	1963	28	까 히 라	3 345	
수 단	2 505 823	12 832	1963. 7	5	하 르 툼	130	
리 비 아	1 759 540	1 559	1964	1	트리폴리	172	
뛰 니 지	125 130	4 158	1963	33	뛰 니 스	740	
알 제 리	2 384 741	11 500	1965. 2	5	알 제	960	1964
마 로 끄	445 577	12 306	1962	28	라 바 트	225	
모리따니	1 086 000	1 000	1963	1	누아크쇼트	2	
말 리	1 204 021	4 500	1964	3.7	바 마 코	275	
세 네 갈	197 161	3 360	1963	17	다 카 르	300	
감 비 아	10 367	316	1964	30	바더스트	253	
기 네	247 000	3 396	1963	14	꼬나크리	112.5	
시에라 레온	72 326	2 600	1963	36	프리타운	100	
리베리아	111 400	2 750	1962	24	몬로비아	70	
상아 해안	322 500	3 665	1963	11	아 비 쟝	약 250	

나라 이름	면적(km²)	인 구 (1,000명)	기준 년도	인구 밀도 (km²당)	수도 이름	수도 인구 (1,000명)	기준년도
상부 볼따	274 000	4 404	1962	16	와가두구	63	
가 나	273 780	7 500	1965. 1	27	아 크 라	390	
또 고	56 600	1 586	1964	28	로 메	100	1963
다 오 메	115 800	2 250	1963	19	뽀르또노보	약 60	
니 제 르	1 189 000	3 127	1964	3	니 아 메	52	
챠 드	1 284 000	2 807	1963	2	포르라미	94	
나이제리아	993 500	55 654	1963	56	라 고 스	350	
까 메 룬	520 270	5 000	1964	10	야 운 데	58	
에스빠냐령 기네	28 051	212	—	7	산타이사벨	20	
가 봉	267 000	500	1962	2	리브르빌	25	
중앙 아프리카	617 000	1 320	1963	2	방 기	82	
꽁 고(브)	342 000	946	1964	3	브라자빌	136	
꽁 고(레)	2 344 932	15 000	1963	6	레오폴드빌	389.5	1960. 6
르 완 다	26 338	2 665	1960	101	키 갈 리		
부 룬 디	27 834	3 000	1964	108	우숨부라	45	
우 간 다	243 410	7 016	1963	3	캄 팔 라	43	
에티오피아	1 184 320	약 22 000	1960	18	아디스 아베바	400	
소말리아	637 593	2 310	1963	4	모가디쇼	124	
프랑스령 소말리아	23 000	67	—	3	지 부 티	31	
케 니 아	582 600	9 100	1964	15	나이로비	약 300	
탄자니아	941 700	10 118	1964	〃	다르 에스 살람	150	
모리샤스도	2 090	725		347	포트 루이스	104	
세이셸 제도	404	4.1	1960	102	빅토리아	약 10	
레유니옹	2 511	335	1960	133	쌍 데니스	약 42	
말 가 슈	592 000	5 730	1962	10	타나나리브	248	
모잠비크	793 030	6 642	1962	8	로렌소마르케스	약 105	
잠 비 아 (북로데시아)	752 000	2 920	1964	4	루 사 카	84	
짐바브웨	389 300	3 150	1961	8	솔스베리	약 266	
말 라 위 (니아살랜드)	124 000	3 000	1964	25	좀 바	18	
앙 골 라	1 246 700	4 936	1962	4	루 안 다	200	1960
서남 아프리카	823 876	554	1963	0.7	윈드후크	33	1961
베추아날랜드	712 000	542	1965. 3	0.8	가베로네스		
남 아프리카 공화국	1 223 000	17 500	1964	14	프레토리아	351	
바수톨랜드	30 344	727	1963	24	마 세 루	34	
센트 헬레나도	122	48	1958	39	제임스타운	약 1.7	
스워질랜드	17 366	283	1963	16	므바반	약 2	
구 라 파 주							
쏘 련	22 403 000	229 000	1965. 1	10	모스크바	6 388	1964. 1
뽈 스 까	311 730	31 339	1965. 1	101	와르샤와	1 250	1964. 7
체스꼬슬로벤스꼬	127 859	14 108	1964. 12	110	쁘 라 하	1 020	1964. 12
웽그리아	93 030	10 134	1964. 12	109	부다뻬슈뜨	1 950	
로므니아	237 500	18 980	1965. 1	79	부꾸레슈띠	약 1 370	
벌가리아	111 030	8 163	1964. 10	74	쏘 피 아	812	1964. 9
알바니아	28 748	1 848	1964. 12	64	티 라 나	155	1964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08 298	17 181	1964. 1	159	베 를 린	1 071	1964
서부 독일	248 000	57 865	1963. 5	233	본	178	
유고슬라비아	255 804	19 392	1965. 1	76	베오그라드	588	1963. 2
오 지 리	83 849	7 171	1964. 5	86	윈	1 656	
희 랍	132 562	8 480	1963	64	아 테 네	1 852	1961. 3
핀 란 드	337 009	4 597.8	1965. 1	13	헬 싱 키	477.5	1962. 12

나라 이름	면적(km²)	인 구 (1,000명)	기준 년도	인구 밀도 (km²당)	수도 이름	수도 인구 (1,000명)	기준 년도
스웨리예	449 200	7 687	1965. 1	17	스톡홀름	1 124.9	1965. 1
노르웨이	323 917	3 709	1965. 1	11	오 슬 로	480	
이슬란드	103 000	189	1964. 12	2	레이캬비크	98	
영 국	244 100	53 812	1963	220	런 던	8 346	
아일랜드	78 283	2 841	1963	36	더 블 린	590	1961. 4
단마르크	43 042	4 684	1963	108	코펜하겐	1 336	
화 란	32 400	12 210	1965. 1	377	암스테르담	872.4	
벨 지 끄	30 507	9 428	1961	309	브 뤼 셀	1 398	
룩셈부르그	2 586	327	1964	127	룩셈부르그	80	
프 랑 스	551 208	48 100	1964. 12	87	빠 리	3 035	
스 위 스	41 288	5 810	1963	140	베 른	163	
이딸리아	301 226	50 619	1964	168	로 마	2 458	1964. 11
바 티 간	0.44	1	1964	2 272			
싼 마리노	61	15	1962	245	싼 마리노	2.5	
리히텐스타인	157	17	1961	108	바 두 쯔	3.5	
모 나 코	1.49	23	1964		모 나 코	2	
안 도 라	453	15	1964	33	안 도 라	1.4	
에스빠냐	503 486	31 077	1963	61	마드리드	2 300	
뽀르뚜갈	92 200	9 039	1963. 6	98	리 스 본	830	
말 타	316	328	1963	1 038	발 레 타	18	1956
미 주							
카 나 다	9 960 547	19 237	1964. 6	2	오 타 와	418	1962
미 국	9 364 000	190 818	1964. 1	20	워 싱 톤	808	1964
메 히 꼬	1 969 000	38 416	1964	19	메 히 꼬	4 630	1960
과떼말라	108 900	4 095	1963. 6	38	과떼말라	437	1961. 12
살바도르	34 258	2 721	1963	79	산 살바도르	253	1960. 7
온두라스	112 088	2 008	1963. 6	17	떼구시갈빠	134	1961
영령 온두라스	22 957	96	1962	4	벨 리 제	31	
니까라과	148 000	1 578	1962. 6	10	마 나 과	236	1962
꼬스따 리까	51 000	1 338	1963. 6	26	산 호 세	150	
빠 나 마	74 470	1 177	1963	16	빠 나 마	300	
꾸 바	114 500	7 256	1964. 12	69	아 바 나	1 158	
자마이카	11 400	1 687	1963	149	킹 스 톤	123	
하 이 티	27 800	4 448	1963. 6	160	포르토-프란스	250	1961
도미니카	48 700	3 334	1963. 6	68	산토 도밍고	468	1960
트리니다드-토바고	5 128	894	1962	174	포드 오브 스페인	90	
베네수엘라	912 000	8 144	1963	9	까라까스	1 316	1961
꼴롬비아	1 139 200	15 098	1963	13	보 고 따	1 329	
푸에르토 리코	8 900	2 513	1963	282	산 후 안	452	1960
영령 기아나	214 970	611	1963	3	죠지타운	148	1960
화란령 기아나	142 822	302	1959	2	파라마리보	100	
프랑스령 기아나	90 000	34	1961	—	카 얀 느	13	
브 라 질	8 516 037	85 000	1963	10	브라질리아	약 150	
에꽈도르	270 700	4 726	1963	17	끼 또	299	
뻬 루	1 249 000	11 510	1962	9	리 마	1 315	
볼리비아	1 100 000	3 596	1963. 6	3	라파스(정부소재지) 수크레(법적 수도)	355	
빠라과이	406 800	1 903	1963. 6	5	아순시온	약 300	
우루과이	186 900	3 190	1962. 6	13	몬떼비데오	950	
아르헨띠나	2 808 000	21 411	1964. 6	8	부에노스 아이레스	3 950	
칠 레	741 767	8 515	1964. 8	11	산띠아고	1 880	
대 양 주							
오스트랄리아	7 704 300	11 251	1965. 1	1	캔 베 라	63	1962
뉴질랜드	268 700	2 538	1963. 12	9	웰 링 톤	256	1962. 4
서부 사모아	2 946	119	1963	40	아 피 아		

태양, 지구, 달의 행성표

◆태양의 상수

반경…695300 km(지구의 109배)

체적…1409×10^{15} km^3(지구의 1301200 배)

질량…1.983×10^{33} g(지구의 333434 배)

밀도…1.41gcm^{-3}(지구의 0.256 배)

표면 가속도…2.738×10^4 cm sec^{-2} (지구의 27.9 배)

적도에서의 자전 주기…27.35일

은하 중심에 대한 공전 주기…1.8×10^8년

◆ 지구의 상수

형태: 지구는 편구로서 자오선의 모양은 타원이다.

평균 반경…6 371.22 km

편평률…$\frac{1}{298.3}$

적도 둘레의 길이…40075.696 km

표면적…510000000 km^2

체적…1.083320×10^{12} km^3

평균 밀도…5.517 gcm^{-3}

표면 가속도…980.665 cm sec^{-2}

적도 반경…6378 km

극반경…6357 km

◆ 달의 상수

지구에서의 평균 거리…384400 km
(최소 363000 km, 최대 405000 km)

반경…1736.7 km(지구의 0.272 배)

체적…22×10^9 km^3(지구의 0.020 배)

질량…7.35×10^{25} g(지구의 0.012 배)

밀도…3.34 gcm^{-3}(지구의 0.066 배)

표면 가속도…161cm sec^{-2}

반사능…0.07

행　성　표

행성명	위성수	태양에서의 평균 거리		지구에서의 평균 거리(10^6 km)		공전 주기 (년일)	궤도상의 속도 (km/s)	회합 주기(일)	자전 주기 (일;시:분)
		천문단위	10^6 km	가장 가까와졌을 때	가장 멀어졌을 때				
수　성		0.3871	57.9	91.6	207.4	87.97	47.83	115.88	87;23:12
금　성		0.7233	108.1	41.4	257.6	224.70	34.99	583.92	?
지　구	1	1	149.5	—	—	1000.01	29.76	—	23:56
화　성	2	1.5237	227.8	78.3	377.3	1321.73	24.11	779.94	24:37
목　성	12	5.2028	777.8	628.3	927.3	11314.84	13.05	398.88	9:56
토　성	9	9.5388	1426.1	1276.6	1575.6	29166.98	9.64	378.09	10:14
천 왕 성	5	19.1910	2869.1	2719.6	3018.6	84007.45	6.80	369.66	10:42
해 왕 성	2	30.0707	4495.7	4346.2	4545.2	164280.30	5.43	367.49	15:48
명 왕 성		39.4577	5899.1	5749.6	5948.6	247255.1	4.73	366.74	?

행성명	적도 반경		편평률	체 적 (지구=1)	질 량 (지구=1)	밀 도		적도중력 (지구=1)	반사능	밝 기 (최대) (등)
	(지구=1)	km				(지구=1)	(물=1)			
수　성	0.37	2 350	—	0.050	0.054	0.88	4.9	0.26	0.06	− 1.4
금　성	0.97	6 200	—	0.90	0.814	0.93	5.1	0.90	0.64	− 4.3
지　구	1	6 378	1 : 298	1	1	1	5.52	1.0	0.39	—
화　성	0.53	3 400	1 : 105	0.157	0.107	0.69	3.8	0.38	0.15	− 1.8
목　성	11.19	71 000	1 : 16	1 295	317.4	0.25	1.38	2.64	0.42	− 2.2
토　성	9.4	60 000	1 : 11	745	95.1	0.13	0.72	1.13	0.45	+ 0.2
천 왕 성	3.8	25 500	1 : 14	63	14.6	0.24	1.3	0.84	0.49	+ 5.9
해 왕 성	3.6	27 500	1 : 40	78	17.3	0.22	1.2	1.14	0.53	+ 7.7
명 왕 성	0.46	2 950	?	0.098	0.8	?	?	?	0.17	?

체육 세계 기록

1965년 1월 1일 현재 세계 선수권 대회들에서 수립된 중요한 개인 경기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종목)		(세계 기록)	(세계 기록 수립자)	(년 월 일)
륙　상				
▸**남자**	100m	10초 0	아. 하리(서독)	1960. 6. 20

(종목)	(세계 기록)	(세계 기록 수립자)	(수립 연월일)
100m	10초 0	헤리(카나다)	1960. 7. 15
〃	10초 0	게. 에스떼웨스(베네수엘라)	1964. 8. 15
〃	10초 0	아르. 헤이즈(미국)	1964. 10. 15
200m	20초 0	디. 심(미국)	1956. 6. 9
200m(곡선 주로)	20초 2	에취. 카(미국)	1964. 4. 4
400m	44초 9	오. 데비스(미국)	1960. 9. 6
〃	44초 9	까. 카우프만(서독)	1960. 9. 6
〃	44초 9	에이. 플라마(미국)	1963. 5. 25
〃	44초 9	엠. 라라비(미국)	1964. 9. 12
800m	1분 44초 9	피. 스넬(뉴질랜드)	1962. 2. 3
1000m	2분 16초 6	피. 스넬(뉴질랜드)	1964. 11. 12
1500m.	3분 35초 6	엘리오트(오스트랄리아)	1960. 9. 6
5000m	13분 35초 0	웨. 꾸쯔(쏘련)	1957. 10. 13
10000m	28분 15초 6	클라크(오스트랄리아)	1963. 12. 18
4×100 계주	39초 0	미국 종합팀	1964. 10. 24
4×200 계주	1분 22초 6	미국 종합팀	1958. 5. 31
4×400 계주	3분 00초 7	미국 종합팀	1964. 10. 21
20 km 경보	1시간 27분 05초 0	웨. 골루브니치이(쏘련)	1958. 9. 23
50 km 경보	4시간 11분 12초 4	아. 파미치(이딸리아)	1961. 11. 19
110 m 장애	13초 2	엠. 라우에르(서독)	1959. 7. 7
〃	13초 2	엘. 칼훈(미국)	1960. 8. 21
400m 장애	49초 1	떠블류. 콜리(미국)	1964. 9. 13
3000m 장애	8분29초 6	지. 로란쯔(벨지끄)	1963. 9. 7
높이 뛰기	2m 28cm	웨. 브루멜(쏘련)	1963. 7. 21
너비 뛰기	8m 34cm	아르. 보스톤(미국)	1964. 9. 12
삼 단 도	17m 03cm	유. 슈미트(뽈스까)	1960. 8. 5
봉 고 도	5m 28cm	에프. 한슨(미국)	1964. 7. 25
포환 던지기	20m 68cm	디. 롱(미국)	1964. 7. 25
원반 던지기	64m 55cm	엘. 다네크(체스꼬슬로벤스꼬)	1964. 8. 2
창 던지기	91m 55cm	티. 페데르손(노르웨이)	1964. 9. 2
철추 던지기	70m 67cm	지. 코놀리(미국)	1962. 7. 21
▶녀자 100m	11초 2	떠블류. 루돌프(미국)	1961. 7. 19
〃	11초 2	떠블류. 타이어스(미국)	1964. 10. 15
200m	22초 9	떠블류. 루돌프(미국)	1960. 7. 9
〃	22초 9	버빌(오스트랄리아)	1964. 2. 22
400m	51초 2	신 금단(조선)	1964. 10. 21
800m	1분 58초 0	신 금단(조선)	1964. 8. 30
4×100 계주	43초 6	뽈스까 종합팀	1964. 10. 21
80m 장애	10초 5	게. 비르케마이예르(민주 독일)	1960. 7. 24
〃	10초 5	비. 무아(영국)	1962. 8. 25
〃	10초 5	까. 발리제르(민주 독일)	1964. 5. 23
〃	10초 5	이. 쁘레스(쏘련)	1964. 8. 28
〃	10초 5	데. 쓰따메이치치(유고슬라비아)	1964. 9. 9
〃	10초 5	피. 킬본(오스트랄리아)	1964. 10. 25
〃	10초 5	떼. 체쁠라(뽈스까)	1964. 10. 29
높이 뛰기	1m 91cm	이. 발라슈(루므니아)	1961. 7. 16
너비 뛰기	6m 76cm	엠. 랜드(영국)	1964. 10. 14
포환 던지기	18m 55cm	떼. 쁘레스(쏘련)	1962. 6. 10
원반 던지기	59m 29cm	떼. 쁘레스(쏘련)	1963. 5. 18
창 던지기	62m 40cm	예. 고르챠꼬바(쏘련)	1964. 10. 16
5종 경기	5 246점	이. 쁘레스(쏘련)	1964. 10. 17

(종목)	(세계 기록)	(세계 기록 수립자)	(년 월 일)
수 영			
▶**남자** 100m 자유영	52초 9	아. 고트왈레스(프랑스)	1964. 9. 13
〃	52초 9	에스. 클라크(미국)	1964. 10. 14
400m 자유영	4분 12초 2	디. 숄란더(미국)	1964. 10. 15
1500m 자유영	16분 58초 9	에르. 사아리(미국)	1964. 9. 3
200m 평 영	2분 27초 8	이. 오브라이엔(오스트랄리아)	1964. 10. 15
200m 나비영	2분 06초 6	케이. 베리(오스트랄리아)	1964. 10. 18
200m 배 영	2분 10초 3	지. 그레프(미국)	1964. 10. 13
400m 혼 영	4분 45초 4	아르. 로트(미국)	1964. 10. 14
4×100m 자유 계영	3분 33초 2	미국 종합 팀	1964. 10. 14
4×200m 자유 계영	7분 52초 1	미국 종합 팀	1964. 10. 18
4×100m 혼계영	3분 58초 4	미국 종합팀	1964. 10. 16
▶**녀자** 100m 자유영	58초 9	디. 프레저(오스트랄리아)	1964. 2. 29
400m 자유영	4분 39초 5	옘. 라메놉쓰키(미국)	1964. 8. 3
200m 평 영	2분 45초 4	게. 쁘로즈 멘쉬꼬바(쏘련)	1964. 5. 17
100m 나비영	1분 04초 7	스타우더(미국)	1964. 10. 16
100m 배 영	1분 07초 7	씨. 파가슨(미국)	1964. 10. 14
400m 혼 영	5분 14초 9	디. 데바로나(미국)	1964. 8. 29
4×100 자유 계영	4분 03초 8	미국 종합 팀	1964. 10. 15
4×100 혼계영	4분 33초 9	미국 종합 팀	1964. 10. 18
력 기			
56kg급 종합	357.5 kg	아. 와호닌(쏘련)	1964. 10. 11
추상	117.5 kg	피. 바에츠(프에르토 리코)	1964. 5. 23
인상	108.5 kg	엽 호파(중국)	1963. 10. 29
용상	145 kg	리 흥천(조선)	1963. 3. 15
60kg급 종합	397.5 kg	미야께 요시노브(일본)	1964. 10. 12
추상	127 kg	이. 펠디(웽그리아)	1964. 12. 6
인상	122.5 kg	미야께 요시노브(일본)	1964. 8. 15
용상	152.5 kg	이. 버커(미국)	1964. 10. 12
67kg급 종합	432.5 kg	브. 바자놉쓰끼(뽈스까)	1964. 10. 13
추상	140.5 kg	에. 까쭈란(쏘련)	1964. 12. 25
인상	132.5 kg	브. 바자놉쓰끼(뽈스까)	1964. 6. 26
용상	168 kg	브. 바자놉쓰끼(뽈스까)	1964. 8. 29
75kg급 종합	447.5 kg	아. 꾸릐노브(쏘련)	1964. 9. 24
추상	147.5 kg	아. 꾸릐노브(쏘련)	1964. 9. 24
인상	140.5 kg	웨. 벨랴예브(쏘련)	1963. 12. 22
용상	177.5 kg	그. 즈드라질라(체스꼬슬로벤스꼬)	1964. 10. 14
82.5kg급 종합	477.5 kg	데. 베레스(웽그리아)	1963. 9. 11
추상	160 kg	데. 베레스(웽그리아)	1963. 5. 5
인상	147.5 kg	르. 릿케(미국)	1964. 4. 10
용상	187 kg	데. 웨레스(웽그리아)	1963. 12. 22
90kg급 종합	487.5 kg	웨. 골로바노브(쏘련)	1964. 10. 17
추상	172.5 kg	웨. 랴흐(쏘련)	1964. 11. 22
인상	149 kg	웨. 벨베를리브(쏘련)	1964. 2. 26
용상	190 kg	이. 빨린쓰끼(뽈스까)	1961. 9. 24
90kg급 종합	580 kg	유. 울라쏘브(쏘련)	1964. 9. 3
추상	197.5 kg	유. 울라쏘브(쏘련)	1964. 10. 18
인상	170.5 kg	유. 울라쏘브(쏘련)	1964. 10. 18
용상	217.5 kg	르. 자보찐쓰끼(쏘련)	1964. 10. 18
사 격			
▶**남자**			
자유 선택 보총 300m			
3×40발	1 153점	지. 앤더슨(미국)	1964
단체	4 557점	(미국)	1963
원드러 40발	397점	쥐. 쁘이얀(스위스)	1963

(종목)	(세 계 기 록)	(세계 기록 수립자)	(년 월 일)
꿇어 40발	388점	아. 크비스베르그(스위스)	1957
서서 40발	376점	아. 볼렌쉬테인(스위스)	1963
소구경 보총 50m			
3×40발	1 164점	엘. 위거(미국)	1964
단 체	4 569점	(쏘련)	1959
엎드려 40발	398점	오. 이언슨(단마르크)	1959
단 체	1 574점	(서독)	1962
꿇어 40발	391점	니야죠브(쏘련)	1955
〃	391점	웨. 윌로네크(핀란드)	1958
단 체	1 537점	(쏘련)	1959
서서 40발	376점	앤더슨(미국)	1962
단 체	1 466점	(미국)	1962
엎드려 60발	597점	엘. 함메를(웽그리아)	1964
〃	597점	엘. 위거(미국)	1964
단 체	2 363점	(서독)	1963
군용 보총 300m			
3×20발	555점	아. 쩰리크(쏘련)	1958
단 체	2 165점	(스위스)	1963
소구경 권총			
50m 60발	566점	아. 야씬쓰끼(쏘련)	1955
단 체	2 221점	(쏘련)	1963
25m 60발	595점	아. 크로뽀찐(쏘련)	1958
민용 나간 권총			
25m 30×20발	597점	티. 스미트(미국)	1963
단 체	2349점	(쏘련)	1962
«달리는 사슴» 사격 100m			
50발 단식	234점	이. 니끼찐(쏘련)	1958
단 체	900점	(쏘련)	1958
25발 복식	233점	오. 자꾸료노브(쏘련)	1963
단 체	892점	(쏘련)	1963
원형 스탠드 사격	200점	엔. 두르뉴브(쏘련)	1962
200m 표적 사격	394점	(미국)	1962
▶ 녀자			
소구경 보총 50m			
3×30발	866점	에. 자하르첸꼬(쏘련)	1959
단 체	2 580점	(쏘련)	1959
엎드려 60발	594점	제. 젤렌꼬바(쏘련)	1959
〃	594점	이웨레쉬(웽그리아)	1961
단 체	1 769점	(쏘련)	1959

자전거

야외 경기장

◀ 남자 1000m(제자리 출발)	1분 07초 27	에쓰. 가야르도니(이딸리아)	
4000m(제자리 출발)	4분 52초 0	아. 론깔리아(이딸리아)	1964. 6. 6
5000m(제자리 출발)	6분 13초 4	피. 끈스딴찌노(이딸리아)	1960. 10. 19
10000m(제자리 출발)	12분 37초 6	에. 발리지니(이딸리아)	1956. 9. 5
20000m(제자리 출발)	25분 20초 0	에. 발리지니(이딸리아)	1956. 9. 8
100km(제자리 출발)	2시간 46분 27초 4	데. 쭈께티(이딸리아)	1956. 10. 29
1시간 경기(제자리 출발)	46k393. 91m	에. 발리지니(이딸리아)	1956. 9. 19
200m(흘러 출발)	11초 0	에쓰. 가야르도니(이딸리아)	1960. 7. 30
500m(흘러 출발)	29초 4	웨. 로구노브(쏘련)	1964. 7. 29
	29초 4	아. 브드니엑스(쏘련)	1964. 7. 29
1000m(흘러 출발)	1분 03초 4	디. 또마젤리(이딸리아)	1959. 10. 2
▶ 녀자 1000m(제자리 출발)	1분 17초 9	엘. 브로위나(쏘련)	1955. 7. 23
5000m(제자리 출발)	7분 03초 3	엔. 싸도야(쏘련)	1955. 7. 2
10000m(제자리 출발)	14분 27초 0	야꼬쓰(룩셈부르그)	1960. 10. 11
20000m(제자리 출발)	28분 58초 8	비. 버튼(영국)	1960. 10. 11

(종목)		(세계 기록)	(세계 기록 수립자)	(년 월 일)
	100km(제자리 출발)	2시간 46분 27초 4	에쓰. 뚜멘쩨와(쏘련)	1958. 6. 27
	1시간 경기(제자리 출발)	41k 347m 27	에. 야팜쓰(룩셈부르그)	1958. 11. 9
	200m(흘러 출발)	12초 3	엘. 라주바예와(쏘련)	1955. 7. 17
	500m(흘러 출발)	32초 8	엘. 라주바예와(쏘련)	1955. 7. 17
	1000m(흘러 출발)	1분 12초 9	엘. 브로위나(쏘련)	1955. 7. 17
실내 경기장				
▶남자	1000m(제자리 출발)	1분 06초 76	쁘. 쎄르꾸(벨지끄)	1964. 12. 12
	5000m(제자리 출발)	6분 10초 2	에르. 알리찌그(서독)	1959. 11. 13
	10000m(제자리 출발)	12분 52초 2	에. 씨미크(오지리)	1957. 3. 22
	20000m(제자리 출발)	26분 15초 2	아. 류에그(스위스)	1958. 11. 16
	1시간 경기(제자리 출발)	45k 587m	아. 류에그(스위스)	1958. 11. 16
	200m(흘러 출발)	11초 4	데. 베게또(이딸리아)	1960. 11. 5
	〃	11초 4	에스. 비안켈르(이딸리아)	1960. 11. 5
	〃	11초 4	웨. 프렌내(벨지끄)	1961. 10. 14
	500m(흘러 출발)	29초 4	게. 뻬젠찌(이딸리아)	1957. 2. 17
	1000m(흘러 출발)	1분 04초 2	에. 까쓰네르(스위스)	1957. 2. 24
속도 스케트				
▶남자	500m	39초 5	에. 그리쉰(쏘련)	1963. 1. 28
	1000m	1분 22초 2	에. 그리쉰(쏘련)	1955. 1. 12
	1500m	2분 06초 3	유. 야르위넨(핀란드)	1959. 3. 1
	3000m	4분 27초 6	유. 닐쏜(스웨리예)	1963. 3. 23
	5000m	7분 34초 3	유. 닐쏜(스웨리예)	1963. 2. 23
	10000m	15분 33초 0	유. 닐쏜(스웨리예)	1963. 2. 24
	다종목	178447점	유. 닐쏜(스웨리예)	1964. 2. 23—24
▶녀자	500m	44초 9	이. 웨로니나(쏘련)	1962. 1. 27
	1000m	1분 31초 8	엘. 스낀블리끄바(쏘련)	1963. 2. 24
	1500m	2분 19초 0	이. 위로니나(쏘련)	1962. 1. 27
	3000m	5분 06초 6	이. 위로니나(쏘련)	1962. 1. 28
	5000m	9분 01초 6	에르. 쥬끄바(쏘련)	1953. 1. 24
	다종목	189033점	이. 위로니니(쏘련)	1962. 1. 27—28

시 차 표

(그리니치 시=세계 시)

국가 및 지역명	시간 그리니치 시 (—)0.00시(+)		국가 및 지역명
(중 구라파 표준시) 알바니아*, 앙골라, 이딸리아, 오지리, 화란, 까메룬,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슬로벤스꼬*, 단마르끄, 독일*, 노르웨이, 뽕고(서부), 웽그리아*, 뽈스까*,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1.00	0.44	리베리아
(동구라파 표준시) 이스라엘*, 아련, 에스또니아, 잠비아, 희랍, 사우디 아라비아, 수리아, 뽕고(동부), 핀란드, 동아프리카, 벌가리아, 짐바브웨 요르단, 로므니아, 레바논	2.00	1.00	이슬란드*, 마데이라*
아덴, 이라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쏘련(동경 40° 서쪽, 모스크바 시간)*, 케니아	3.00	2.00	아즈레스*, 그린랜드(스코레스비 해문)
이 란	3.30	3.00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브라질(동부)*
쏘련(동경 40°—52°5)	4.00	3.00	카나다(동부의 일부)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키스탄	4.30	3.45	영령 기아나
쏘련(동경 52°5—67°5)	5.00	4.00	(북아메리카 인타코리니 표준시) 카나다(동부의 일부)*, 칠레, 빠라파이, 프랑스령 기아나, 브라질 (중부)*, 볼리비아

국가 및 지역 명	시간 그리니치 시 (—)0.00시	(+)	국가 및 지역명
인도, 쎄일론	5.30	4.30	베네수엘라
씨비리(동경 67°5—82°5), 동부 파키스탄	6.00	5.00	(북 아메리카 동부 표준시) 에꽈도르, 카나다(동부의 일부)*, 꾸바, 브라질(서부)*, 미국(동부주)*, 꼴롬비아, 도미니카*, 빠나마, 뻬루
버 마	6.30	6.00	(북 아메리카 중앙 표준시) 카나다(중부의 일부)*, 과떼말라, 꼬스따리까, 살바도르, 니까라과, 미국(중부주), 메히꼬(서북부 제외)
해남도, 씨비리(동경 82°5—97°5), 타이, 인도네시아	7.00	7.00	(북 아메리카 산악 표준시) 카나다(중부의 일부)*, 미국(산악부 주), 메히꼬(서북부의 일부)
중국, 인도지나, 오스트랄리아(서부), 필리핀, 사라와크, 북부 칼리만탄, 씨비리(동경 97°5—112°5)	8.00	8.00	(북 아메리카 태평양 표준시) 아라스카(서경 17° 동쪽), 카나다(서부의 일부)*, 미국(태평양주), 메히꼬(서북부의 일부)
조선, 일본, 씨비리(동경 112°5—127°5), 대만	9.00	9.00	아라스카(서경 137°—141°), 카나다(서부의 일부)*
오스트랄리아	9.30	10.00	아라스카(서경 141°—162°), 하와이
싸하린, 씨비리(동경 127°5—142°5), 뉴기니아, 오스트랄리아(동부)	10.00	11.00	아라스카(서경 162° 서쪽)
씨비리(동경 142°5—157°5)	11.00	☆	(서구라파 표준시) 알제리
캄차카 반도, 씨비리(동경 157°5—172°5), 뉴질랜드, 피지 제도	12.00		영국*, 에스빠냐*, 프랑스*, 벨지끄*
씨비리(동경 172°5 동쪽)	13.00		마로끄, 룩셈부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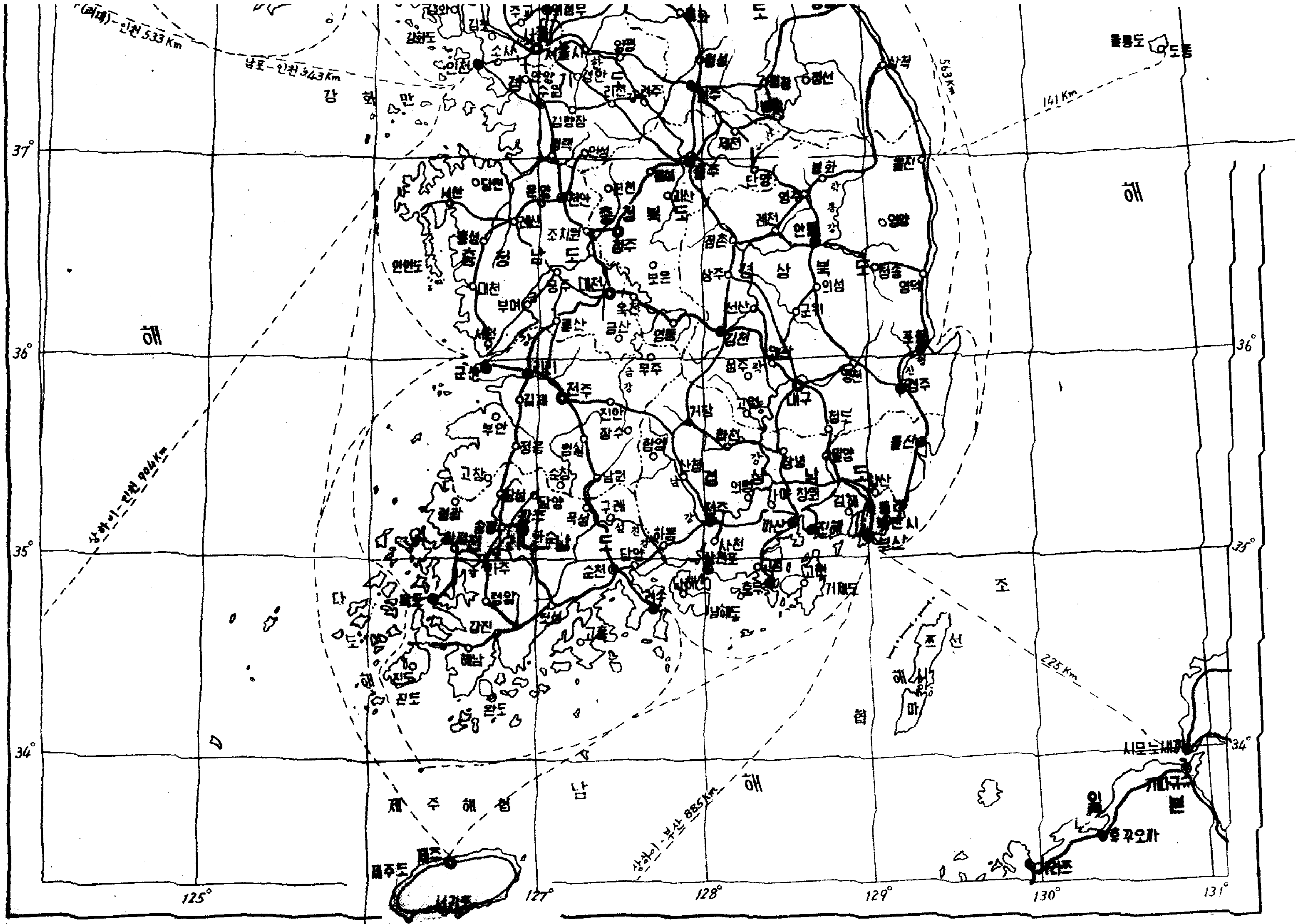
기호: (—) 그리니치 시보다 빠른 것, (+) 그리니치 시보다 늦은 것
(*) 법시 또는 여름 시간, (★) 그리니치 시와 같은 것

조선 중앙 년감 (1965년 판)

1965 년 9 월 10 일 인쇄
1965 년 9 월 30 일 발행

발행소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인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ㄱ—530063, 발행 부수 10,000부, 값 5원 50전



인천
서울시
수원
강 화 만
남포-인천 343Km
상해이-인천 904Km
상하이-부산 885Km
563Km
141Km
225Km
울릉도
도동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청주
조치원
대전
대천
부여
논산
군산
이리
전주
김제
부안
정읍
고창
광주
목포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순천
여수
남해도
진주
사천
하동
구례
남원
거창
합천
김천
상주
점촌
안동
영주
의성
군위
대구
영천
경주
포항
울산
청도
밀양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부산시
통영
고성
거제도
충주
제천
울진
삼척
영덕
청송
원주
홍성
서산
천안
온양
평택
제주해협
제주
제주도
서귀포
남 해
조 선 해 협
대마
일본
시모노세끼
기따규슈
후꾸오까
가라쯔
해
125°
127°
128°
129°
130°
131°
34°
35°
36°
37°